

# 韓國戰爭史

第1卷（改訂版）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1950. 6. 25 ~ 1950. 7. 4）

國 防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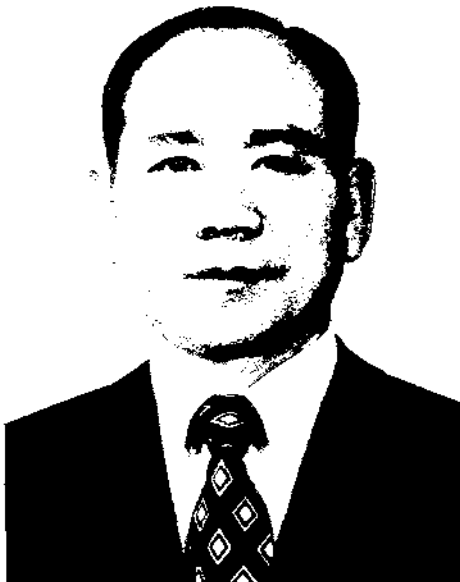


大統領 朴 正 熙





國防部長官 盧 載 鉉



國防部次官 李 敏 雨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金 鍾 煥



各軍參謀總長



陸軍大將 李世鎬



海軍大將 黃汀淵



空軍大將 周永福





## 序 文

저물어가는 丁巳年을 돌이켜 보건대, 이 한 려 동안에 多岐하였던 國際情勢의 흐름속에서 우리의 安保는 새로운 變化의 樣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해 劈頭부터 擧論된 駐韓美地上軍의 撤收論과 때를 맞추어 北傀의 挑發策動이 激化一路를 치닫게 됨에 따라, 또 다시 戰爭의 불씨가 일게 될 것이라는 分析과 더불어 앞으로 東北亞의 安全과 나아가 世界平和에 새로운 威脅이 惹起되지 않을까 하는 憂慮에서 世界의 耳目이 우리 韓半島에 集中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지금까지 우리의 平和의 統一을 追求하는 念願과 努力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한 채로 遠交近攻의 奸巧한 術數로써 여러 國際機構에 끼어들어가 惡意에 찬 振動과 逆宣傳을 일삼는가 하면, 그 裏面에서는 再侵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韓國戰爭 直前의 狀況을 回顧하건대 共產 北傀는 當初 南韓地域에서의 갖가지 侵攻與件을 造成할 目的으로 駐韓 外國軍의 撤收主張과 對南 赤化工作을 펴는 한편, 僞裝 平和攻勢를 펴하면서 中蘇의 使囑밑에 奇襲南侵을 敢行하였던 것이며 이제 또 다시 赤化 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戰爭狂의 症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世界情勢의 推移는 侵略勢力을 膺懲하는 集團安保나 理念 그 自體보다도 自國의 利益과 安全을 앞세우려는 姿勢가 國際社會의 現實面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過去와 같은 依他的인 防衛概念이나 僥倖을 바라는 安保觀에서 脫皮하고, 오로지 朴正熙大統領 閣下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國家安保의 要諦는 自主國防力を 完備하는 것[민이 우리의 生存과 繁榮을 芟約할 수 있다는 事實을 鈐肝하여 營而한 至上

命題인 自主와 自立 그리고 自衛의 力量을 培養하는데 總力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重大한 時點에서 韓國戰爭史 第1卷을 補完하여 새로이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를 엮은 이 改訂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은 初戰必勝을 다짐하는 우리로서 그 意義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本卷에는 開戰初期의 惡戰苦鬪로 始終된 10口問에 걸친 苦楚를 國軍 單獨으로 克服하였던 內容을 담았는데, 여기에는 民族의 類例없는 慘酷과 永遠히 잊을 수 없는 恥辱 및 痛憤이 담긴 피어린 鬪爭의 발자취가 구석구석에 서려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戰爭이 끝나지 않은 現實이기에 그 背景과 初期의 戰鬪經過를 赤裸裸하게 파헤쳐 自省의 機會로 삼고자하며 또한 後代에 이 眞相을 올바르게 전하려는 참뜻이 널리 反映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年輪이 거듭될수록 參戰者들은 記憶을 잃어가고 資料도 湮滅되어 가므로 證言錄의 集大成을 서둘러야 마땅하리라고 보아, 이미 計劃된 編纂事業과 함께 이의 併行作業을 推進토록 할 方針입니다.

아무쪼록 本卷의 出刊과 더불어 오늘의 防衛態勢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反省과 覺悟로써 自主國防을 다짐하는 또 하나의 契機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7年 12月 25日

國防部長官 盧 載 鉉

## 發 刊 辭

여기 韓國戰爭史 제1권을 다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韓國戰爭이 勃發한 原因이 어디에 있으며, 滿 3년에 걸친 經過는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그 結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안겨 주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贅言을 要치 않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越南의 敗亡을 契機로 極東에서의 韓半島가 차지하는 役割과 責任이 그 어느 때 보다 莫重해지고 있는 이 時點에서, 駐韓美地上軍의 撤收문제를 事實化하는 試行錯誤가 強行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側의 休戰當事者인 UN의 解體문제마저 浮上됨으로써 休戰概念 그 自體에 새로운 紛爭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現實을 勘察할 때, 近者에 韓半島의 將來를 위한 安保體制가 如何히 定立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內外에 非常한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결코 偶然의 所致가 아니라고 確信합니다.

그 까닭은 오늘 날 慣用되고 있는 「勝者도 敗者도 없는 戰爭」이라는 表現이 戲畫의인 譬喩만이 아닐진대, 여기에는 그 勝負를 가름하기 위한 再燃의 素地가 源泉的으로 胚胎되어 있다는 含蓄性 있는 解釋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니, 따라서 우리가 直面한 戰爭再發의 威脅은 當初의 이 勃發 바로 거기에서 原因을 糾明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處方을 얻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現實의인 要請에 副應하여, 이번에 이 戰爭 初期의 狀況을 다룬 本戰史 제1권을 새로이 上梓하게 된 것을 스스로 보람으로 느낍니다.

本卷은, 지난 해 제9권의 刊行時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同 제9권으로써 戰爭 全般의 作戰篇을 마무리짓고, 눈을 돌려 開戰狀況을 다시 한번 昭詳히 살펴 본 것인데, 本戰史의 編纂任務에 着手한 1967년과 1968년에 各各 編刊한 제1권(解放과 建軍) 및 제2권(北傀의 南侵)을 統合, 改編한 補訂版이 되겠습니다. 이는 旣刊 各卷과의 體裁과 敘述方式에 劃一을 期하고, 內容을 補完함으로써 名實相符合한 公刊史로서의 品位를 갖추도록 하자는 輿望에 따라, 前卷에 添削을 加하여 다시 다듬게 된 것입니다만, 앞서의 冊子와는 編次의 角度를 달리 하였고, 內容 또한 大幅 刷新하였읍니다.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라는 副題를 붙여 본 여기에는 北傀가 南侵한 1950년 6월 25일부터 我軍이 首都서울을 내어놓고 漢江南岸에서 防禦戰을 벌이다가 水原을 물러나게 되는 同年 7월 4일까지의 10일間에 걸친 戰況을 取扱하였는데, 이 期間은 비록 길지는 않지만 우리軍이 獨力으로——7월 15일에 軍의 作戰指揮權이 UN군사령관에게 移讓되었으

로——이 戰爭을 遂行한 時期라는 點에서, 當時 軍의 力量과 實相을 正確히 살피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國民과 遊離된 軍人만이 戰爭을 떠맡았다는 點에서, 戰爭에는 모든 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야 한다는——軍人만의 戰爭이 아닌, 國家의 전쟁이어야 한다는——敎訓을 다시 한번 되 새기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本卷의 叙記에 있어서는, 먼저 韓半島를 圍繞한 戰爭前의 政·軍 兩面의 情勢를 概觀한 다음 史實에 立脚하여 開戰後의 戰況을 冷徹히 透影함으로써 北傀의 侵略真相을 밝히는, 戰爭勃發의 原因糾明에 主眼을 두었는데, 여기서 特히 北傀의 南侵事實을 強調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저들이 『南韓이 北侵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억지로써 開戰의 責任을 오히려 우리에게 轉嫁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는 見地에서 입니다. 이같은 賊反 荷杖은 將次 받드시 있을 民族의 峻嚴한 審判을 두려워해서라기 보다 눈 앞에 들어난 그들의 好戰性을 糊塗하기 위한 對外的인 宣傳資料로 삼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歷史의 捏造을 茶飯事로 하는 그 作態만을 再三 確認하게 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論理的인 立證에 소홀한 點이 없지도 않았던 터이라, 此際에 이 點의 黑白을 分明히 가려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戰爭史의 本領을 多少 벗어나는 感이 없지 않으나, 本卷에서는 時代史의인 側面에서도 文獻으로서의 價値를 附與코자 애썼습니다만, 紙面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建軍狀況과 戰爭前의 共匪擊滅狀況 등 일부는 不得已 別途로 다루게 되었음을 添言합니다.

이제 來년에는 1950년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즉, 水原에서 洛東江에 이르는 遲延戰을 그리는 제2권의 補訂版을 펴낼 豫定이며, 이어 戰爭 全 期間동안의 證言錄과 補遺版 및 戰例集을 年次로 編刊키로 計劃하고 있습니다.

每卷 上梓時마다 매양 느끼는 바이지만, 이 初期는 戰況이 더우기 錯雜할 뿐 아니라 資料 또한 零碎하여 그 始末을 쉽게 헤아릴 수 없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本卷이 參戰諸位의 證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 깊은 謝意를 表하는 同時 앞으로의 證言수집에도 倍前의 協力 있으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1977년 12월 25일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 凡 例

1. 本卷의 編纂上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 나. 章은 作戰地域으로 구분하되, 全帙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 節—1. 2. 3. 4. 5.
    - 項—가. 나. 다. 라. 마
    - 目—(1) (2) (3) (4) (5)
    -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概說」을 후과 節 사이에는 「要旨」을 넣는다.
3. 概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期間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 나. 國內外 政治政勢의 大要.
  -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 마.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 바. 彼我政府 및 軍部の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 사.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 아.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 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 자.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體.
  - 나.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다.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必要內容은 이를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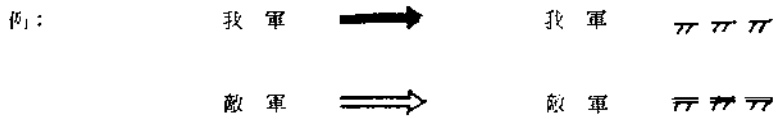
나. 我軍과 北傀와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行軍路와 攻撃 및 突擊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記錄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青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하여 本文 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破線으로 구분한다.



10.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등, 한글로 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軍事術語를 쓰되 各軍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圖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의 개요」 앞뒤의 각각 「전투전의 개황」 및 「전투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4. 戰圖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4.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 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1950年 6月 25日 오전 5시 45분

50. 6. 25. 05. 45

마. 필요한 경우, 부대 記號에 있어서는 北傀軍을 NC로 표시하고 그 밖의 外國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 案과 육군대학 규정 부호 및 군특명집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 韓國戰爭史 第1卷 (改訂版) 目次

序文 國防部長官 盧載鉉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炯錫  
凡例

### 北傀의 南侵斗 緒戰期

概說.....( 7 )

#### 第1章 開戰前의 一般情勢

要旨.....( 43 )

1. 政治情勢.....( 44 )

2. 軍事情勢.....( 72 )

#### 第2章 北傀의 侵略準備

要旨.....( 119 )

1. 政略的準備.....( 120 )

2. 戰略的準備.....( 137 )

### 第3章 北傀의 全面南侵

要 旨	( 171 )
1. 北傀의 先制攻擊	( 172 )
2. 江陵地區 戰鬪	( 191 )
3. 春川—洪川 東北地區 戰鬪	( 244 )
4. 抱川—東豆川—議政府地區 戰鬪	( 316 )
5. 高浪浦—汶山—奉日川地區 戰鬪	( 392 )
6. 甕津地區 戰鬪	( 459 )

### 第4章 首都圈의 戰況과 各界의 動向

要 旨	( 499 )
1. 倉洞—彌阿里附近 戰況	( 500 )
2. 서울撤收 狀況	( 537 )
3. 軍部の 動向	( 561 )
4. 政府指導層의 動向	( 608 )
5. 社會各界의 動向	( 636 )

### 第5章 漢江線의 防守

要 旨	( 659 )
1. 金浦—梧柳洞附近 戰況	( 660 )
2. 漢江—水原防禦戰	( 703 )



## 第6章 海・空軍 및 海兵隊와 國立警察의 活動

要 旨	( 767 )
1. 海軍의 初期作戰	( 768 )
2. 空軍의 初期作戰	( 800 )
3. 海兵隊의 狀況	( 829 )
4. 國立警察의 活動	( 839 )

## 第7章 UN의 決意와 赴援軍의 出動

要 旨	( 857 )
1. 美國의 極東配備	( 858 )
2. 美國과 UN의 動向	( 869 )
3. 美 極東司令部의 動向	( 889 )
4. 美軍의 赴援狀況	( 901 )

## 附 錄

1. 陸本作命	( 925 )
2. UN 決議 및 聲明文	( 935 )
3. 年 表	( 962 )
4. 戰歿者 名單	( 972 )
5. 索 引	( 995 )

## 狀況圖 目次

제 1 호	彼我의 初期作戰 狀況(6. 25~7. 4)	( 21 )
제 2 호	增援部隊 投入 狀況(6. 25, 26, 27)	( 31 )
제 3 호	彼我進出 狀況(1950. 6. 25~1953. 7. 27)	( 37 )
제 4 호	Acheson 宣稱으로 표시된 美國의 極東防衛線	(105)
제 5 호	江東地區 戰鬪 狀況(6. 25~26)	(220)
제 6 호	主抵抗線의 戰況(6. 27)	(225)
제 7 호	제2연대 제1대대의 反擊 狀況(6. 26)	(256)
제 8 호	제2연대 제1대대의 奇襲 狀況(6. 28)	(265)
제 9 호	昭陽江 北岸의 攻防戰(6. 25~26)	(276)
제10호	戰鬪前의 彼我의 展開 狀況	(322)
제11호	제9연대의 戰況	(336)
제12호	제1연대의 戰況	(350)
제13호	奉日川 地區反擊 狀況(6. 28)	(450)
제14호	康翎, 釜浦부근의 戰況(6. 25~26)	(481)
제15호	沙串부근의 戰況(6. 25~26)	(486)
제16호	倉洞地區의 戰況(6. 27)	(507)
제17호	彌阿里—秦陵地區 戰況(6. 27)	(516)
제18호	金浦半島의 道路網	(663)
제19호	金浦司令部의 最初 兵力配置 狀況(6. 26)	(671)
제20호	제18연대의 飛行場 攻擊 狀況(6. 29)	(683)
제21호	金浦司令部의 飛行場 攻擊 狀況(6. 29)	(687)
제22호	제15연대의 △138 攻擊 狀況	(693)
제23호	作戰地域의 道路網	(706)
제24호	鷲梁津부근 我軍配置 狀況	(719)
제25호	제9연대의 敵攻擊 狀況(6. 29)	(725)
제26호	말죽거리 正面의 狀況(6. 30)	(742)
제27호	安養부근 狀況(7. 4)	(756)
제28호	慈德리부근 狀況(7. 4)	(758)
제29호	509艇의 玉溪戰鬪와 305艇의 沈沒(6. 25~6. 29)	(774)
제30호	701艦의 大韓海峽 海戰 狀況(6. 25~26)	(777)
제31호	空軍의 初期作戰 狀況(6. 25)	(806)
제32호	駐日美空軍基地 現況(6. 25 現在)	(863)

#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 概 說



##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 概 說

참조: 별첨부도 제 1호

상장도 제 1, 2, 3호

韓國戰爭은 中·蘇 兩國의 兇惡와 使賊 밑에 北傀의 奇襲侵略으로 突發된 民族共通의 慘禍이며 受難이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改訂版은 먼저 政治史의 見地에서 그 背景과 要因을 概括하고 이에 따른 戰爭經過를 所상히 밝힘으로써 實用性의 價値를 높이고 더우기 從前의 野史的 記錄과 錯誤된 部分을 과감히 拂拭하여 새로운 角度에서 情況을 追跡하면서 名實相符한 公刊 史로서의 面貌를 一新키로 試圖하였다.

또한 情勢의 全般的 推移를 더듬어 볼때 이 戰爭이 局地戰의 性格을 넘어서 國際戰의 樣相으로 變貌하였음을 勘案하여 本卷의 作戰經過 기간은 北傀의 奇襲南侵으로 부터 美先 遣隊의 緒戰直前과 三陟—原州—利川—水原線의 10일간 戰況을 總羅한 國군의 독자적 作戰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本文의 編綴은 戰鬪狀況을 위주로 하여 그 前後章에서 各各 情勢一般을 取扱함으로써 眞相 파악이 容易토록 힘쓰기로 하였다.

## 1. 開戰前의 政治情勢

먼저 韓國戰爭을 誘發한 根本要因이 舊 Russia 政權의 南進政策에서 부터 胎動되고, 그 後 이른바 10월 革命으로 奪權한 U. S. S. R의 世界共產赤化 野慾에서 비롯 되었음을 前捉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韓半島의 分斷을 最初로 劃策하였던 Russia 政權은 1903년 7월 勢力의 均配 내지는 利權의 分占이라는 名目을 내세워 日本측에게 39°線의 分斷을 提起한 바 있었으나 拒絶되고 그뒤 日露戰爭의 勝勢와 더불어 美日간에 縮結된 Portsmouth 秘密條約(1905년)에 따라 日本이 韓半島를 併呑하게 되자 從前의 疆土를 分割하려는 策動과 侵蝕하려는 野望이 일단 鈍挫된 樣相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第1次 世界大戰의 終絶과 더불어 새로 登場한 U. S. S. R은 世界赤化를 目標로 1919년에 Comintern(The communist international)을 組織하고 1920년 부터 1930년간에 Asia의 後進 여러 나라에 黨의 分局을 設置하는 한편 自己方式에 의한 赤化를 推進코자

## 8 北傀의 南侵과 結戰期

하였는데 이 중의 하나가 所謂 朝鮮共產黨 分局의 設置(1925년)로써 이 때부터 抗日鬭爭의 嚮導로써 이들을 背後操縱하면서 韓半島 赤化를 위한 工作에 손대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U. S. S. R이 作用한 影響은 被壓迫민족이라는 環境條件에 편승하여 侵透되고 확대되어 갔는데 第2次 世界大戰 중에는 이들이 연합국과 軍事的인 統一戰線을 形成할 속셈으로 이 조직을 일단 自진해체 하였으나 大戰이 끝나자 다시 1947년에 Comin-form (The information bureau of the Communist parties)을 組織하여 世界赤化를 위한 地下 情報網을 強化하였던 바, 이 때까지 이들의 使喚을 받아 組織되고 活動하였던 北韓共產黨은 既存의 組織인 國內派를 위시하여 東北 滿洲地域에서 組織된 中共系 出身의 延安派 그리고 U. S. S. R로 逃避하였던 蘇聯派 등 大別하여 3개派가 있었다.

이러한 根本要素와 더불어 韓半島문제의 국제적인 學論은 聯合國에 의하여 韓國獨立을 약속한 Cairo 宣言(1943년 11월)과 이를 再確認한 Potsdam 宣言(1945년 7월)에서 비롯되었거니와 이 두 宣言中 U. S. S. R은 당초부터 前者에 가담치 않았고 後者は 對日宣戰布告와 동시에 追認하는 形式을 취하면서 戰後 그들의 軍隊를 北韓에 進駐시키겠다는 意思를 美陸軍參謀總長 Geoge C. Marshall에게 通告한 바 있었다.

이로써 U. S. S. R이 1945년 2월 11일의 Yalta 회담에서 『1904년 日本의 攻撃에 의하여 喪失된 Russia의 모든 權利를 恢復한다.』는 前提條件下에 對日參戰을 約束하면서 論議한 韓國의 信託統治와 作戰區劃의 設定問題가 浮上케 되었다.

따라서 美國政府는 1945년 8월 10일 日本이 無條件降服을 提議하자 軍事的인 見地에서 우선 38°線 以北은 U. S. S. R軍이, 그 以南은 美軍이 日本軍의 降服을 接受하기로 하고 이를 相對國에 通報함과 동시에 聯合軍司令官 MacArthur 元帥가 건의한 一般命令 第1號 (1945년 8월 15일부)를 承認함으로써 韓半島를 分占키로 하였다.

그런데 同年 8월 15일을 전후하여 U. S. S. R의 제25군단(장, Ivan Chistiakov 대장) 兵力 20만 여명이 淸津—羅南—咸興—元山으로 入北하여 8월 말에는 襄陽—華川—金化—開城의 38°線 接境까지 進出하면서 그 以南의 春川까지 侵入하여 말청을 피우고 있을 때 美제 24군단(장, John R. Hodge 중장)은 9월 8일에야 仁川에 上陸하였고 또 뒤늦게 軍政을 施行하는 消極政策을 폈으므로 자연히 南北間에 強弱點의 不均衡이 露呈케 되었다.

이와 같은 國土分斷과 美·蘇 兩軍의 占領政策으로 政治, 經濟, 社會的인 異質現狀이 加重됨에 따라 美國政府는 現地の 駐留軍 司令官으로 하여금 이를 解決하도록 勸告하였으나 당초부터 目的을 달리하는 그들의 計略으로 그 뜻을 能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現地解決이 不可能하게 되자 駐韓 美軍司令官은 다시 兩國政府의 水準에서 이를 解決하여 줄 것을 建議하였다.

이에 따라 同年 12월 26일의 Moskva 3개국 外相회의에서 韓國臨時政府 樹立에 合意하고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美·蘇 兩軍司令官을 代表로 하는 共同委員會를 開催하여 『韓國의

完全 獨立을 目的으로 한 4개국 信託統治 協定 交渉에 관한 勸告 等』을 檢討키로 하였다.

이는 이미 Yalta 會談에서 美·蘇 首腦間에 默契된 사항이니만큼 Moskva 三相會議에서 이 問題가 採擇되었다는 것은 特記할 것이 못되지만 이 決定이 發表된 當時의 韓國民으로서 는 即刻의인 自主獨立을 믿고 이를 熱烈히 希求하였던 터이므로 큰 衝撃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우리 國民은 거족적으로 反託運動을 전개하여 即刻 統一政府를 樹立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U. S. S. R의 指令을 받은 共產赤色分子들은 反託에서 갑자기 信託統治를 支持하는 態度로 豹變하여 赤化鬪爭의 길을 擇하게 되었다.

Moskva 三相會議의 決定에 따른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15회에 걸친 예비회담 끝에 제 1 차는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리고 제 2 차는 다음 해인 1947년 5월 21일부터 7월 초까지 모두 서울에서 開催하였다.

그러나 이 會議는 U. S. S. R이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人士와 政黨은 協議對象이 될 수 없다.』라는 非現實의인 主張만을 되풀이 함으로써 마침내 決裂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그들의 영똥한 主張으로 말미암아 時間만을 끌어왔는데 그 底意인즉, 南韓의 強力한 反對勢力으로 全 韓國의 共產赤化가 容易한 문제가 아니라고 判斷한 결과 당분간 分斷狀態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우선 北傀集團을 強力한 基地勢力으로 確保한 다음 情勢의 變化에 따라 大攻勢를 取하는 것이 훨씬 有利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同년 8월 26일 協定當事國인 4개국 회의를 다시 提議하여 妥結點을 찾으려고 피하였으나 U. S. S. R의 拒否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으므로 不得已 UN에 韓國問題를 提起하여 議題로 採擇하고 11월 14일에는 동 政治委員會가 建議한 『韓國獨立의 節次에 대한 규정』을 採擇하였다.

이에 대하여 共產陣營은 最初부터 反對하고 總選의 監視를 爲하여 派遣된 UN 韓國委員會의 北韓地域 出入마저 拒否함으로써 UN은 不得已 自由選舉가 可能한 南韓地域에서만이라도 單獨選舉를 實施키로 決議하고 이를 推進하였던 바, 1948년 5월 10일 總選舉를 奉하여 同년 8월 15일 大韓民國이 誕生되고, UN은 12월 12일에 唯一한 合法的 國家로 可決하고 이를 宣布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U. S. S. R은 1946년 2월 8일 蘇聯派 頭目 가짜 金日成 (本名: 金成柱)으로 하여금 北傀政權의 母體라고 할 수 있는 이른 바 北朝鮮人民委員會를 組織케 하고 다음 해 11월 14일에는 北傀 憲法을 起草할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1948년 3월 2일에 이른 바 人民憲法을 採擇하는 등 오히려 內部工作을 先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韓國의 5.10 總選前인 5월 1일 May Day를 期하여 이 憲法草案을 人民委員會에 회부 통과시키고 政略적으로 날짜를 늦추어 오다가 9월 9일 北傀政權을 捏造하였다.

## 2. 軍事情勢

이러한 政治情勢의 推移와 함께 美國은 戰後에 惹起된 Iran, Deutschland, Austria, Itaria, Greece 문제와 Asia 지역에 있어서 韓國問題를 비롯하여 中國과 印度支那 문제 등 모든 紛爭이 美蘇 兩大勢力의 衝突로 일어났음에도 不拘하고 Truman Doctrine(1947년 3월 12일)과 後續 措置된 Marshall Plan(同년 6월 5일)을 宣稱하여 對 Europe 強硬政策과 對 Asia 消極政策을 펴나갔다.

따라서 美國은 Asia 地域의 海外駐留 兵力을 대폭 감축시켜 왔고 또 議會에서도 軍備節減을 強力히 要請하였으므로 大統領 Harry S. Truman은 이 해 5월에 國務省과 國防省에 訓令을 내려 이에 대한 適法措置를 講究토록 指示하였던 바, 合同參謀會議(JCS)는 Albert C. Wedemeyer 중장 一行을 同년 9월, 韓國에 派遣하여 狀況을 調查報告토록 措置하고, 國務長官 Geoge C. Marshall은 9월 23일 UN 總會에 韓國의 獨立節次와 關聯된 外國占領軍의 撤收問題를 提案하여 『政府樹立後 90일 以內에 占領軍 撤收를 協議』토록 議決함으로써 다음 해인 1948년 12월 말까지 駐韓美軍의 撤收 운락이 나타났다.

이에 反하여 U. S. S. R은 제 2차 美蘇共同委員會 會期中인 1947년 8월 26일에 突然히 같은해 末까지 兩軍이 韓半島에서 撤收할 것을 提議하였으며, 1개월 뒤에 開催된 UN 總會에서도 그 者들은 오히려 美國側 提案을 反對하여 『자기들은 1947년 末까지 無條件 北韓地域에서 撤收키로 하였다.』고 煽動하면서 美軍의 同時 撤軍을 恣意하고 나섰다.

그들이 이와 같이 駐留軍을 1년 앞당겨 撤收하자고 主張한 理由는 韓國의 安全保障을 爲한 美國의 政治, 經濟, 軍事的인 努力과 援助를 事前에 牽制하여 早期에 武力赤化를 노려보려는 心算인 것으로 分析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다음 해인 1948년 4월, 北傀로 하여금 南北協商을 主導케 하여 外國軍의 撤收決議案을 採擇케 하고 同年 9월 12일에는 北傀政權을 앞세워 이른 바 『占領軍의 同時撤收를 要求하는 呼訴文』을 美蘇當局에 發送케 하는 工作을 벌이면서도 동년 末에 UN에서 決議한 『可及的으로 早速히 韓半島로 부터 占領軍을 撤收시킬 것을 勸告』하는 內容에 대하여서는 이를 正面으로 反對하는 前後 矛盾된 主張과 行動만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U. S. S. R이 同年 12월 25일을 期하여 北韓地域으로 부터 駐留軍을 完全히 撤收하였다고 發表하였으나 UN 韓國委員國의 入北確認이 不可能한 實情이었으므로 그의 事實與否는 알 수 없었고 다만 그것이 하나의 政略的인 先行措置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美國은 UN의 決議와 그 자신의 政策決定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이후 부터 駐韓美軍 16,000명의 主力을 撤收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15일에는 7,500명의 1개 전투단 兵力만을 남겨 놓고 日本으로 撤收하였는데 그 뒤에 다시 殘餘兵力의 撤收問題가 舉論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完全 撤收키로 決定하였다.



이리하여 나머지 駐韓美軍 兵力까지 完全히 撤收하게 되고 同년 下半期 부터는 472명의 美軍事顧問團 要員만이 殘留함으로써 明白한 軍事的인 劣勢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U. S. S. R은 北韓地域에서 그들의 兵力을 撤收할 때에 南韓의 軍事力을 훨씬 凌駕하는 武裝力을 미리 北傀軍이 갖추도록 하면서 1948년 12월 초순에는 Moskva에서 國訪相 N. A. Bulganin을 비롯하여 제 1 부수상 G. M. Malenkov와 極東軍司令官 R. Malinovsky 元帥 그리고 地上軍 및 海兵隊司令官 등과 中共 및 北傀 우두머리가 一連의 會合을 갖고 北傀의 武力增強을 爲한 軍事秘密協議를 거친 다음 그 推進狀況을 監督하기 위한 特別軍事使節團을 平壤에 派遣키로 決定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末, Shtykov 北傀駐在 蘇聯大使를 비롯하여 機甲전문가라는 Katukov 대장 및 Kubanov 중장과 情報전문가라는 Zakharov 제독 등 40여명으로 構成된 使節團이 Moskva를 出發하였다. 그리하여 旅行途中에 吉林에서 韓人系 中共軍出身 25,000명을 北傀軍에 編入하는 可能性을 打診한 다음 翌年 1월 중순 平壤에 到着하였던 바 이 使節團의 任務는 秘密協議가 이루어진 날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北傀軍에 대한 武力增強 計劃을 完了하는 데 있었다.

이들에 의하여 具體的으로 推進된 내용은 突擊 및 戰鬪사단의 편성과 이들 部隊의 訓練 및 장비지원 그리고 合同機動演習과 공군부대 지원을 포함한 燃料문제의 해결 등 이었다.

특히 使節團의 副團長격인 Kubanov 중장은 제 2차 世界大戰에서 얻은 經驗을 살려 戰車부대를 強力히 育成할 計劃을 세우고 그들의 戰車부대를 平壤市 附近에 殘留시켜 北傀의 戰車부대를 創設하고 訓練시킴으로써 南侵直前인 1950년 5월에는 이를 제 105戰車여단으로 改編(다시 7월 5일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당초 北傀에 대한 戰車의 供給문제는 Moskva 秘密協議에서 500대로써 2개의 전차사단을 編成케 되어 있었으나 地形的인 조건을 勘案한 탓인지 그 半數인 242대로 策定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武力增強을 推進하는 동시에 蘇聯首相 Josep V. Stalin은 形式節次를 밝기 위한 수단으로 中共 및 北傀代表를 불러내어 正式 協定을 맺기로 하였는데 이 때 가짜 金日成 一行은 1949년 2월 2일 Shtykov의 案内로 北韓을 出發하여 1개월 餘의 視察을 마치고 3월 4일에 會談을 가졌다.

Stalin은 여기에서 『U. S. S. R軍의 撤收로 생긴 諸般 對策과 韓國侵略을 위한 새로운 指針』을 提示하여 合意하고 이어 朝蘇 經濟文化協定 및 軍事秘密協定(1949년 3월 17일)과 朝中 相互防衛協定(1949년 3월 18일)을 縮結하여 南侵을 위한 國際的인 基盤을 造成하였다.

이 때에 別途의 會談에서 가짜 金日成이 Stalin에게 『南韓에 대한 武力侵略을 要求』하였다는 事實을 後日 N. S. Khrushchev가 公開한 바 있으나 누가 正犯이며 누가 從犯인지는

## 12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確證할 수 없고 이들이 모두 韓國侵略의 共犯임은 如實하게 되었다.

또한 U. S. S. R이 日本에 대한 影響을 考慮하여 航空機의 供給을 留保한데 不滿을 품은 金日成은 Stalin에게 懇乞하여 100대의 YAK 전투기 및 IL 폭격기를 支援받아 비행사단으로 擴張시켰다.

그런데 이 때 中共은 U. S. S. R의 侵略計劃을 받아들여 먼저 1950년 中盤부터 韓半島에서 軍事行動을 開始하여 早期에 武力赤化를 終結토록 支援하고 이어서 臺灣侵攻에 들어간 戰略을 꾸미고 同年 2월부터 中國南端에 위치하였던 東北義勇軍 산하의 제 4 야전군 제 15 독립여단을 먼저 北上시켜 4월에 北韓에 들여와서 北傀 제 7 사단으로 改稱케 하고, 이어서 中共 제 4 야전군 主力인 제 38, 제 40군을 계속 北上케 하여 韓滿國境에 集結한 제 42군과 合流토록 함으로써 全面南侵을 위한 後據의 陣을 쳤다.

이로써 이들은 北傀를 武力南侵에 充分한 軍事力으로 增強하여 놓고 동 軍事使節團은 南侵直前に 일부는 撤收하고 그 大部分은 北韓地域에 그대로 남아 駐北傀 蘇聯 軍事顧問團長 Vassyliev 중장의 指揮下에 侵略의 醜鋒을 採縱하게 되었다.

### 3. 國內의 一般 情勢

이렇게 南北間에 政治와 軍事面에서 隔差를 보이는 가운데에 南韓의 社會的인 形勢는 유감의나마 混亂의 惡循環을 거듭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부터 施行된 南韓에 대한 美軍政은 모든 政治活動을 제멋대로 放任하는 柔弱性을 自由의 發露인양 曲解해서인지 그 첫 措置로써 日本人들이 韓國人의 政治活動을 禁止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關係法規를 廢止하고 단순히 政黨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든 法規만을 새로 公布함으로써 共產主義者들의 陽性活動의 溫床을 만들게 하였다.

이 때문에 다음 해 1월 23일 南勞黨이 結成되고 對南赤化工作이 本格的으로 推進되면서 마침내 이해 5.4精版社 偽造紙幣事件과 9.24鐵道勞組 全面罷業 그리고 10.1大邱暴動事件 등이 惹起되었다.

美軍政 當時에 登錄된 248개 政黨 및 社會團體 속에는 南勞黨 뿐만 아니라 政治思想의 分別을 가릴 수 없는 灰色分子들마저 介入되어 있어 民心의 動搖가 尤甚하여졌으나 政府 樹立後의 國家保安法이 發動됨으로써 다음 해 10월 18일에는 133개가 取消되고 100여개로 整備되었다.

이와 더불어 韓國은 1948년 美軍政으로 부터 經濟的인 難題를 떠맡게 되었다.

즉, 8.15당시 日人勢力의 韓半島撤收로 80~94%에 달하는 資本과 技術이 消滅됨에 따라 南韓의 890개 工場들이 軍政 3년동안 그대로 放置되고, 貨幣發行高는 1945년에 50億圓이던 것이 1947년 말에는 334億圓으로 불과 29개월만에 6.6배로 增加되었으며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는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南韓送電을 中斷함으로써 産業生産은 勿論이고

家電用마저 日日 3시간으로 制限 送電케 되었다.

이렇게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는 産業施設과 生産品은 利用할 수 없게 되고 物價는 1945년 부터 1947년 사이에 33배로 暴騰하면서 그 위에 增加되는 人口로 因하여 生活苦가 加重하게 되자 美軍政 當局은 物價의 統制 및 이의 還元政策을 되풀이 하여 그 解決을 試圖하였으나 결국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이의 難解點을 韓國政府에 移讓함으로써 政府는 北僞의 南侵까지 불과 22개월간의 餘裕밖에 없었으므로 敵寇에 對備할만 한 經濟 基盤을 能히 造成할 수가 없었다.

이 反面에 北僞는 1946년을 基點으로 各道 市 郡의 人民委員會의 組織을 完了하고 이 때부터 每期 1년씩의 短期經濟計劃을 推進하면서 現物稅라는 것 이외에 이른바 愛國米 獻納運動이라는 것을 벌여 南侵을 위한 軍糧米의 備蓄에 着手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美蘇共委가 決裂되고 Moskva 決定에 의한 政權奪取가 不可能하게 되었으며 UN을 통한 大韓民國政府가 合法的으로 樹立됨으로써 새로운 武裝투쟁전술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1946년 下半期부터 南勞黨의 組織을 土臺로 하여 暴動과 罷業 및 示威와 煽動 그리고 各界各層에 侵透하여 政府를 顛覆하여 보려는 兇計를 꾸미면서 1947년 부터는 太白山—五臺山—德裕山—智異山—漢拏山의 계밀라 根據地를 확장하여 官公署에 대한 襲擊과 放火 그리고 良民虐殺과 財産의 掠奪行爲에 들어갔다.

이렇게 共產赤色分子들의 兇행이 激化되어감에 따라 美軍政 當局은 이해 8.15 陰謀事件을 계기로 大의인 검거를 시작하였지만 다음 해인 1948년 초에는 이른 바 2.7 救國투쟁을 계기로 그들의 투쟁수단은 오히려 組織化되고 活動地區가 확대되면서 각종 暴動 및 叛亂을 惹起시켰다.

즉, 同년 4월 3일 부터 시작된 濟州島 暴動은 武裝계밀라 500명을 包含한 1,500여명이 殺人과 掠奪 그리고 放火와 襲擊을 일삼았고 10월 20일에는 軍에 침투한 共產赤色分子들에 의하여 4,000여명이 麗水·順天地區에서 釜亂을 일으켰으며, 11월 2일과 12월 6일 그리고 다음 해 1월 30일의 3차례 걸친 大邱亂動도 그들이 侵透한 1개 중대 내지 소대규모의 武裝徒鬣들이 地方鬣徒와 合勢하여 內擾를 일으켰다.

이에 政府가 즉각 鎮壓兵力을 투입하여 擊滅作戰에 들어가자 이들은 漢拏山과 智異山 그리고 太白山地區 일대로 遁入하여 이곳에서 계밀라戰을 전개하는 一方 그 일부는 越北하여 재교육을 받고 同년 末부터 다시 남파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해인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 末까지 前後 모두 10회에 걸쳐 2,400명의 武裝계밀라가 다시 南派되어 殘匪들과의 合流를 기도하였으나 我軍의 本格的인 作戰으로 여지 없이 擊滅되고 開戰직전에는 地方共匪를 合하여 불과 460명의 殘匪만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叛亂事件을 剔抉하고 무장계킬라를 完全히 격멸한 다음 反共一色の 軍官民의 團합된 힘으로 韓國戰爭을 맞이하게 된 것은 不幸中 천만 多幸한 일이었다.

그런데 政府樹立 후 國內安定을 위한 모든 努力을 이에 集中하여 事態가 점차 好轉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美國政府의 斜視癖은 1949년에 中國本土의 赤化가 急進展됨에 따라 吹毛求疵格으로 오히려 韓國防衛에 대한 疑懼心을 자아내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졌다.

즉, 美議會의 Judd 議員을 비롯한 共和黨 의원들은 『中國에 대한 援助가 실패에 돌아간 이상 전략적으로 價値가 없는 韓國에 대한 援助는 하등의 意義가 없다.』는 固陋한 主張으로 원조를 反對하는가 하면 美極東軍司令官은 이 해에 두 차례 가진 記者會見에서 臺灣이 極東防衛線에서 除外되었다고 發言하여 그의 極東防衛計劃의 修正을 暗示하였는데 그 뒤에 參本部도 이를 肯定함으로써 美國의 對 Asia 政策이 轉換되었음을 示唆하였다.

이러한 情勢의 動向을 綜合하여 Truman은 다음 해인 1950년 1월 5일에 『極東의 紛爭地域에 대한 援助 및 介入이 不可能하다.』는 公式聲明을 發表하고 다시 國務長官 Dean Acheson에 의하여 그 구체적 윤곽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해 1월 12일 Washington의 전국 신문기자협회에서 밝힌 韓國과 臺灣을 除外한 美國의 極東防衛線 — Aleutian 列島에서 日本의 本州를 거쳐 琉球로 이어지는 線 — 이었다.

이에 따라 美國은 韓國軍에 대한 軍援의 限度를 自體治安維持를 爲한 最少 水準으로 정하고 우선 65,000명 정도의 兵力과 所要裝備 그리고 若干의 艦艇과 이에 必要한 裝備 및 補給品을 供給하였는데 그것마저도 遂行機關을 美軍事顧問團으로 하여금 이를 掌理케 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同년 1월 26일에 韓美相互防衛援助協定을 締結하였으나 이로써 軍隊의 質과 量이 向上된 것이 아니어서 裝備의 制限補給과 維持의 問題는 여전히 棘거운 狀態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美側當路者의 措置에도 不拘하고 韓國은 北傀의 武力增強과 그들의 戰時動員에 對應하여 1949년 7월 15일 제11회 國會本會議에서 兵役法을 公布토록 議決하고 同년 末부터는 中전의 志願兵制에서 義務兵制로 改革하여 常備兵, 護國兵, 後備兵, 補充兵, 國民兵의 5개 役種으로써 國土防衛를 위한 國民皆兵制度에 들어갔다.

또한 李承晚 大統領은 共產主義者들의 赤化策動에 刺戟되어 이 해 10월 초에 北進統一을 提唱하면서 美國의 政策轉換을 誘導하며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武器와 彈藥의 制限 供給과 猜忌의 對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北傀에게는 그것이 南韓先攻說을 捏造하는데 逆用되기도 하였다.

事實 이 당시의 國內의 與件은 北傀의 南侵準備와는 正反對로 우선 共產赤色分子를 拔本塞源하고 安定을 維持하는 것이 急先務인 까닭으로 그의 北進統一論은 다만 對美 政略의 한 布石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한편 1950년 5월 30일 제 2 대의 國會議員 선거를 앞두고 內閣責任制의 개헌을 둘러싼 정치파동이 있었고 더우기 선거결과 與黨의 政治版圖가 1/3이 未達되는 不安定한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情勢下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에 駐留하고 있던 美側常路者들은 韓半島 事態를 각자의 偏狹한 主觀에 따라 判斷하고 그 意見을 政策當局에 提示하였다.

즉, 1950년 3월에 美軍事顧問團長 William L. Robert 준장은 放言하되 『韓國軍은 空軍力을 除外하고는 모든 면에서 北傀軍보다 우세하다.』라는 內容을 陸軍省 作戰參謀副長 Charles L. Bolte 소장에게 傳하였는가 하면, 6월 초순에 John J. Muccio 大使는 上院軍事委員會에서 證言하기를 『韓國軍은 北傀軍보다 兵力과 裝備 그리고 訓練面에서 劣勢하다.』라고 하면서 一朝 有事時의 우려를 表明하였고, E. C. 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行政官인 William C. Foster는 Muccio 大使가 證言한 1週日 뒤에 『韓國軍은 北傀軍의 어떠한 挑戰도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相反된 意見을 提示하여 釋然치 않은 餘韻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美行政府는 이러한 情勢報告와 關聯하여 戰爭勃發 불과 10여일 전에 大統領 特使 John Foster Dulles를 韓國에 派遣하여 38°線을 視察케 하고 6월 19일에는 國會에서 演說을 通하여 『美國은 韓國에 대한 支援을 繼續할 것이다.』라는 뜻을 強調케 한 바도 있다.

이러한 國內外的인 어수선한 與件속에서 國軍은 1949년 12월 27일에 陸軍本部의 情報局 狀況室에서 作成한 北傀軍의 全面南侵에 대한 時機를 判斷한 「年末綜合敵情判斷書」를 政策當局에 提示한 바 있으나 그들의 無關心과 5.30 總選 등으로 이렇다하게 措置한 바 없었다.

또한 美軍事顧問團 측에서도 韓國軍의 判斷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누차 戰車 및 重火器의 必要性을 強調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韓國地形의 不利點을 指摘하면서 이의 供給을 拒絕하고 制限된 彈藥과 裝備만을 形式的으로 支援함으로써 北傀의 戰車攻擊에 대한 防禦手段이 전혀 缺如되는 상태로 放置되기에 이르렀다.

#### 4. 北傀의 南侵兇計

韓國戰爭의 遠因이 美蘇兩國에 의한 38°線의 分斷과 그들의 占領政策에 있다고 본다면 그 近因은 北傀를 앞세워 南韓赤化를 兇謀한 中蘇의 背後 조종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使賊을 받은 北傀는 對南赤化의 主方向을 政治 및 軍事의 併用路線에 두고 內面에 있어서 武力南侵準備를 推進하면서도 그 兇計를 隱蔽하는 術策을 펴 나갔다.

즉, U. S. S. R이 내세운 魁首 가짜 金日成은 1949년 9월에 北韓勞動黨(北勞黨)과 南韓勞動黨(南勞黨)을 統合하여 北傀勞動黨(共產黨)으로 改編하고 이른 바 南韓赤化兇策을 提示하였는데 그것은 『革命情勢를 高度로 昂揚시켜 놓고 客觀的인 情勢가 韓半島革命에 有

利하게 전개되는 즉시 打擊의 기회를 만들어 軍事的인 手法으로 일거에 南韓地域을 占領하여 北韓과 同一한 人民委員會의 政權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한 代案을 提示하였던 朴憲永(國內派)과 金料奉(延安派)을 모두 除去한 다음 가져 金日成 자신이 主張하는 바의 南韓赤化의 基本戰略으로 이를 採擇케 하여 具體的인 侵略兇計를 꾸며 나갔다.

또한 그들은 戰爭勃發 1年前인 1949년 6월 25일에 그 下手機關인 이른바 南北韓의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을 統合하여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結成하고 이로 하여금 Comintern 手法인 統一戰線에 의한 南韓赤化工作을 積極化하면서 全面武力南侵의 기회만을 노리게 되었다.

이들의 兇謀를 미리 看破하고 있었던 政府는 共產赤色分子들을 剔抉하여 統一戰線의 企圖를 粉碎하는 일방, 正規 3개사단과 경찰 및 民兵조직을 총동원하여 殘匪擊滅에 나선 결과 1950년 初에는 國內의 安定이 恢復되어 갔다.

이와 같이 그들은 1次的인 赤化工作이 完全히 失敗에 돌아갔으나 오히려 武力南侵의 成熟期가 到來된 것으로 誤判하고 — 이 誤判은 「南勞黨首 朴憲永의 虛假報告 때문이었다.」라는 理由로 1955년 12월 2일 그를 肅清하였다 — 本格的인 武力南侵에 着手하였다.

그 첫 行動으로써 1949년 5월 부터 春川—開城—薔津地區의 我軍陣地에 대하여 대대 및 연대규모의 兵力으로 數차례 걸쳐 越境奇襲을 자행하여 戰爭挑發의 구실을 造作하기 시작하고, 同년 末부터는 사단급 機動訓練에 들어가 그들의 軍事使節團의 最終評價를 받는다 하면 다음 해인 1950년 4월에는 東北部의 모든 港口와 鐵道를 통하여 尅대한 量의 軍需物資를 秘密裡에 搬入하여 各 要所에 集積함으로써 後方支援의 態勢를 갖추었다.

더우기 이들은 同년 3월부터 38°線上의 5km 以內에 거주하는 소 주민들을 後方으로 疎開하면서 이를 위장하기 위한 煽動을 일삼았고 또 我軍과 對峙하는 地域內의 住民을 일부러 疎開計劃에서 除外하는 變法도 併用하였다. 이에 대하여 東京의 MacArthur 司令部가 1950년 6월 19일자 情報보고서에서 「① 38°線에 沿하여 광범하게 전개된 兵力, ② 38°線상의 2km 以內에 있는 民間人의 疎開, ③ 元山—鐵原間에서의 軍需物資를 輸送하기 위한 民間人의 連續된 行列, ④ 38°線 근처의 敵 機甲부대의 集結, ⑤ 各種의 武器와 彈藥을 積載한 船隻의 出入」 등을 指摘함으로써 北傀의 攻擊徵候로 判斷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北傀가 이와 같은 行動을 本格的으로 개시한 이유는 이른 바 『客觀的인 情勢가 革命에 有利하도록 전개되고 있다』라고 判斷한데 비롯된 것으로써 政略의 一環으로 僞裝平和攻勢를 同時에 併行키로 하였다.

즉, 그들은 韓國의 5.30 選舉(제 2대 國회의원)가 끝나자 이른 바 平和統一方案이라 하여 『統一立法府를 위한 總선거를 새로이 실시하여 1950년 8월 15일에 서울에서 新設되는

立法會議을 개최하자.』는 도저히 實行될 수 없는 엉뚱한 제의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北韓에 抑留하고 있는 曹晚植과 南韓에서 逮捕한 北傀間諜, 金三龍과 李舟河를 서로 交換하고자 내세워, 마치 자기들이 平和를 愛好하는 集團인 것과 같이 僞裝하면서 前記한 바 全正면에 걸쳐 武力南侵의 兇計를 隱蔽하려는 간피를 쓰기도 하였다.

이는 1948년 末의 Moskva 秘密軍事會議에서 南侵時機를 既定事實化 하였기 때문에, 즉 北傀를 完全히 武裝하고 訓練시키는데 所要되는 期間을 18개월로 決定하였으므로, 1950년 6월 下旬을 南侵의 適期라고 보고 이같은 兩面戰略을 驅使하기에 이른 것이다.

實相 그들이 南侵하려는 날자의 判斷은 解放 5주년 記念日인 이해 8월 15일까지 全南韓을 武力占領할 것을 目標로 정하고, 이로부터 逆算하여 釜山까지 侵攻하는데 所要되는 作戰日數를 50일로 算出함으로써 6월 25일을 南侵開始日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들은 6월 초순부터 38°線상에 警備의 目的으로 配設한 3개의 경비여단으로 하여금 故意的으로 挑發을 자행케 하면서 6월 10일에는 여단장급 이상의 指揮官들을 緊急히 民族保衛省에 召集하여 『6월 23일까지 어떠한 敵의 攻撃도 물리칠 수 있는 전투준비의 態勢를 갖추라.』고 命命하는 한편 6월 11일부터 機動訓練을 假裝한 전 사단의 前線移動을 개시하여 23일까지 38°線 全域에 配置를 完了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攻擊指揮梯隊로써 西部戰線에 제 1 군단과 中東部戰線에 제 2 군단을 新設하여 侵略下手者들을 統制토록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一連의 砲聲에 對備하여 我軍 首腦部에서는 다음과 같은 緊急建議書를 國會에 提出하였으나 選舉로 인한 國會의 休會로 이를 처리하지도 못하였다.

『① 현 北傀의 兵力은 182,000명으로 推算되며 아군은 100,000명에 불과하다.

② 裝備面에 있어서 小銃 및 機關銃을 除外한 彼我的 保有數의 比率은 各種砲 609문 : 91문, 戰車 및 裝甲車 272대 : 27대(전부 裝甲車), 飛行機 168대 : 10대이다.

③ 북괴는 前後方을 交代하여 가면서 戰鬥力을 向上시킴으로써 相當한 水準에 이르렀으나 我軍은 그들의 赤化策動으로 內部的인 混亂이 거듭되고 兵力消耗는 勿論 이로 인한 訓練은 겨우 중대급 水準에 이르고 있다.

④ 北傀는 諸般 軍需產業을 發展시켜 武器도 直接 生産하고 있으나 我軍은 겨우 권총의 生産을 試驗중이며 또 動員計劃만 하더라도 徵兵制는 실시되고 있으나 戰時動員은 期待할 수 없는 形便이다.』

이상의 建議書는 美軍事顧問團 및 極東司令部 그리고 UN 韓國委員團에도 提示되었으나 이미 南侵時機가 臨迫하였으므로 아무런 効果도 거둘 수가 없었다.

그 例로써 UN 韓國委員團은 이해 2월, UN에 대하여 北傀계릴라의 南韓侵透와 南北의 軍事的인 衝突을 憂慮하고 軍事監視班의 派韓을 要請하였던 바, UN에서는 8名으로 構成된 中立國監視班을 3월 25일에 派韓키로 決定하였다가 4월에 國內事態가 점차 安定을 恢

復하여 간다는 이유로 일단 중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5월 초순에 李承晚 大統領과 申性模 國防部長官(國務總理 署理 兼務)이 北傀의 南侵 危機를 경고하면서 軍事監視班의 派韓을 再次 要請하자 같은 달 末에야 겨우 2명의 監視班이 派韓되어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38°線 一帶를 視察하고 24일에 報告書를 提出하였으나 戰爭의 勃發로 아무런 後續措置도 取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UN의 退嬰的인 措置와 美行政府의 撫摩策에 弄絡되어 確固한 信念없이 半信半疑하면서 我側 自力의 警戒對策 마저 綿密性을 期하지 못하였다.

즉,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는 May Day 경계태세를, 그리고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5.30 總選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6월 11일 16.00부터는 北傀의 平和攻勢에 對處한 특별 경계태세에 들어갔으나 6월 23일 24.00를 期하여 이를 解除하는가 하면 各級部隊 指揮官의 裁량으로 外出과 外泊 및 農繁期 休暇까지 許可하는 등 오늘날 識者로 하여금 땅을 치고 痛哭하게 할만한 어리석은 處事를 犯하고 말았다.

또한 北傀의 南侵開始 15일전에 사단장급 이상의 主要人事異動마저 斷行하게 되고, 6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는 前後方 4개연대의 部隊交代까지 있는 데다가 後方 3개사단 全部가 共匪擊滅作戰에 投入된 實情이었으므로 一觸 即應할 可動兵力은 그 比率이 겨우 50%에 지나지 않았다. 즉, 總兵力에 있어서 50%인데 그것이 다시 25%로 半分된 것이고 그것도 敵은 銃을 겨누고 덤벼드는 姿勢인데 比하여 우리 쪽은 맨손으로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真相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5. 全面 武力 南侵

1949년 末 北傀의 兵力은 150,000명에 불과하였으나 南侵直前에는 그 數가 훨씬 증가하여 戰車 및 裝甲車 296대, 各種砲 3,000문, 그리고 航空機 211대의 支援을 받는 小統 10개사단 총 198,380명으로 增強된데 比하여 我軍은 裝甲車 27대 各種砲 1,300문 그리고 連絡 및 訓練用 航空機 24대의 支援을 받는 步兵 8개사단 총 105,752명이었다.

士氣는 彼我が 比等하다고 볼 수 있으나 訓練程度는 北傀가 사단급 大部隊 訓練을 畢한데 比하여 我軍은 중대급 이하의 訓練을 終了한 狀態였고 補給整備는 彈藥이 6일분, 火器는 15%가 後送整備 중이었으므로 85%의 保有였고, 車輛은 1,566대 중 500대를 後送하여 겨우 67%를 維持하고 있었던 바, 全體的인 軍事力의 比率은 彼我 2:1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또한 實兵力의 投入比率을 보면 東部戰線의 제 8사단은 彼我 3:1의 比率이었고, 中部의 제 6사단은 2.6:1, 그리고 西部의 제 7사단이 4.4:1 및 제 1사단이 2:1이었고, 薺津地區의 제 17연대는 4.1:1이었다.

그리고 氣象과 地形面에서 雨期에 접어든 前線은 6월 19일경부터 連日의 降雨現象을 보



여 38°線 一帶의 昭陽江—北漢江—漢灘江—臨津江은 약간 増水되었으나 作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24일의 甚한 豪雨와 25일의 濃霧는 敵의 기습남침에 有利하였다.

또한 數個의 接近路 중에서 鐵原—議政府—서울 軸線은 42km의 최단거리로써 敵 機甲部隊의 接近이 가장 容易하여 我軍에게 큰 威脅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戰術的인 價値와 好機를 看破한 그들은 民族保衛省의 總參謀部 隸下인 前線司令部에 2개군단을 編成하고 東部의 제 2군단을 助攻, 西部의 제 1군단을 主攻으로 하여 機甲여단과 독립기갑연대 각 1개를 配屬시켜 총 7개사단 100,000명의 兵力을 初期作戰에 投入하였다.

이 공격제대 밖에도 예비사단과 후방경비여단 각 3개 및 편성중인 전투여단 2개 등이 이 攻擊梯隊를 支援하고 있었다.

北傀의 侵攻計劃은 U. S. S. R의 速戰即決과 毛澤東戰術의 配合手法인 바, 1950년 8월 15일까지 南韓 全域을 完全히 武力赤化 한다는 構想밑에 제 1차적인 基本任務를 『서울 地域에서 韓國軍의 主力을 包圍殲滅하고 그 戰果를 擴大하여 南海岸으로 突進한다』라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서울을 强占한 이후의 侵攻方向으로 京釜軸線에 沿한 1개의 主攻方向과 中央線과 中西部線 그리고 東海岸線과 湖南線 등 數個의 助攻方向을 指向케 하되 다음과 같은 4단계의 進出統制線을 設定하여 이를 規制하였다.

즉, 제 1 단계는 7월 3일까지 橫城—利川—水原線을, 제 2 단계는 7월 15일까지 安東—大田線을 그리고 제 3 단계는 7월 29일까지 浦項—大邱—馬山線으로 各各 統制하면서 進出한 다음 마지막의 釜山은 최소한 8월 13일까지 占據한다는 計劃이었다.

이와 같이 北傀가 初期의 侵攻計劃에서 서울 强占을 제 1차적인 任務로 정한 까닭은 서울이 首都인 동시에 政治, 經濟, 文化, 交通의 中心地로써 對內外的인 影響力과 心理的인 効果를 노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美軍이 増援되기 이전에 미리 先取하는 것이 戰略上으로도 有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울의 西北과 北, 그리고 東南과 南의 4개 方向에서 兵力을 集中運用하되 특히 助攻인 적 제 2군단 일부를 轉用하여 利川—水原線에서 我軍의 増援을 早期에 遮斷하고 地域內의 我軍主力(이른바 有生力軍)을 打撃하여 無力化한다는 方針을 세웠던 것이다.

이에 그들의 主攻인 제 1군단은 議政府—서울間을 進攻軸線으로 정하고 가장 강력한 제 3, 제 4사단에 戰車여단을 配屬시켜 漣川—鐵原方向에서 我 제 7사단 正面을 侵攻로목하고 제 1, 제 6 兩사단은 金川—九化里 地域에서 我 제 1사단 正面을 侵攻하되 1개연대를 甕津半島에 増援하여 그들의 경비여단과 함께 我 제 17연대 지역을 末期에 奪取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助攻인 제 2군단은 春川—原州軸線을 主力部隊의 進出路로 정하고 제 2, 제 7 兩사

단에 1개의 기갑연대를 配屬시켜 華川—楊口 方向에서 我 第6사단 正面으로 侵攻케 하고 我 第8사단 正面에는 第5사단을, 그리고 그 後方에는 第766 및 第549 特殊部隊를 東海上으로 侵透시켜 既存개릴라와 合流하여 我 後方을 攪亂하고 遮斷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我軍의 防禦對策은 당시 陸軍參謀學校의 高級班 課程에서 討議된 美軍의 戰術敎理에 입각하여 이의 作成要領을 傳播함으로써 各 사단별로 實施에 移行되고 1949년 8월에는 이를 綜合 검토하기 위하여 陸軍本部 作戰局 主管으로 1차 作戰會議을 가졌던 바 여기에서 최초의 計劃調整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과 1950년 초 사이에 韓國防禦概念이 浮上케 된 것이다.

이를 要約컨대 我軍은 최초 38°線 一帶에 配置된 第8, 第6, 第7, 第1사단과 第17연대로 하여금 現陣地에서 敵의 侵入을 1차적으로 阻止하다가 狀況의 進展에 따라 主陣地帶로 撤收하여 決戰을 強要하되 그 一般의인 線을 注文津南方—春川北方—加平北方—磨叉山(△587)—臨津江線으로 하였다.

따라서 開城 以西地區의 第1사단 이하 第12연대 일부와 遷津地區의 第17연대는 初戰以後에는 依命 撤收하여 主陣地帶의 防禦를 增援하며 여기를 侵攻한 敵의 主力部隊에 대하여는 後方의 第2, 第5, 第3사단을 反擊部隊로 投入하여 가장 危急한 地域부터 順次的으로 陣地를 恢復하려는 考案이었다.

또한 이러한 概念에서 敵의 侵入을 議政府 또는 서울 正面에서 阻止하지 못할 경우에는 漢江 以南으로 撤收하여 漢江線과 錦江線 그리고 洛東江線에서 계속 遲延戰을 전개할 것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防禦概念은 각 사단 自體計劃을 統合하여 調整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警戒陣地—主陣地—逐次抵抗陣地의 限界가 模糊하고 더구나 敵에게 決戰을 強要하여야 할 主陣地帶의 編成개념마저 分明치 못하여 用兵運用의 妙를 發揮하기 어려웠다.

더우기 이 計劃은 당시 後方의 3개사단과 前方사단의 일부 兵力까지도 共匪擊滅作戰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兵力을 再配置하지 않는 限 이를 遂行하기에는 어려웠고 最惡의 경우, 現狀態에서 이 計劃을 實施에 옮긴다 하더라도 前線豫備인 수도경비사령부 隸下연대의 투입은 24~48시간, 後方 예비사단은 최소 48시간 이상이 所要되므로 一觸即發의 對應策을 期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我軍의 受動的인 防禦計劃과 敵의 不時的 侵攻計劃은 이제 豫期와 不期로써 그리고 大와 小로써 正面 對決하려는 全貌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豫定대로 6월 18일에 前方 각 사단에 偵察命令 第1호를 下達하여 攻擊目標과 機動 및 接近路, 我軍의 狀況 등을 偵察케 하고 이어서 22일에는 露語와 韓國語로 된 戰鬥命令 第1호를 我軍에 下達하여 6월 25일 04.00부터 全面奇襲으로써 南侵의 戰火를 퍼붓게 되었다.

東海岸으로 부터 遷津半島에 이르는 300km의 38°線 全域에서 一齊히 南侵하였으나 我

軍은 從來부터 38°線上에서 그들의 挑發이 잦았던 만큼 이날 새벽의 砲擊 및 兵力의 移動도 또한 중전과 같은 것이라고 誤判하고 최초로 各部隊別로 散漫한 對應으로 一貫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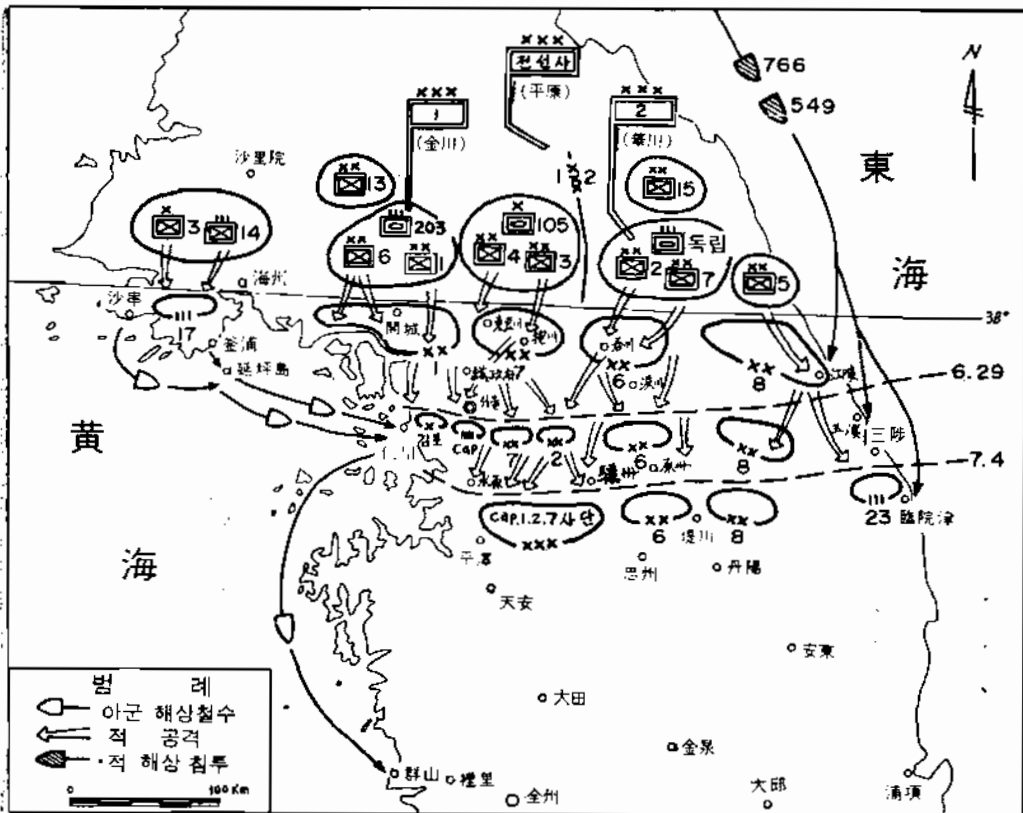
또한 當日에는 陸軍本部에서도 敵의 攻擊準備사격과 攻擊개시가 03.30부터 04.30간에 各地域別로 서로 差異가 있었기 때문에 初期에는 疑訝心을 가쳤으나 05.15에 抱川—東豆川 地區에서 急速히 敵의 步戰砲의 三者가 一連托生으로 侵入하고 있다는 緊急報告에 따라 05.30에 비로소 全軍에 非常令을 下達하는 한편 全般의인 狀況을 把握코자 하였다.

그러나 敵의 步砲火力으로 말미암아 通信의 疎通이 如意치 않게 되어 戰線의 各部隊 사이에 連絡이 서로 杜絶되는 狀態가 頻發하고 더구나 陸軍本部에 斷片的으로 보고되는 狀況만으로서는 全面南侵의 與否마저 正確히 判斷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當일 10.00에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은 자신이 議政府地區의 제 7사단 사령부를 直接 訪問하고 戰況을 把握한 然後에야 겨우 그들의 全面南侵으로 追認한듯 하였다.

이에 따라 在京 부대의 即刻的인 投入과 後方 3개사단의 移動을 命命하고 必要한 軍需 支援을 措置하였지만 이 때는 그들이 侵襲한지 이미 4시간 뒤인 08.00였다.

◇ 상황도 제 1호 彼我的 初期作戰狀況(6.25~7.4)



## 22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그 者들은 奇襲과 機動 그리고 集中突破와 個別分斷을 피하여 4~5km의 我軍陣地 後方까지 侵入하였으며 그 뒤에도 侵攻의 速度를 늦추지 않고 계속 南下하였으므로 我軍은 그 溢出을 阻止할 기회를 喪失한 채 主陣地帶에서의 決戰을 일단 斷念하고 臨機로 對應하는 道리밖에 없었다.

그 者들의 南으로의 突進과 不時 衝擊에 대한 企圖가 主攻方面에 指向되었으나만큼 總參謀長의 作戰指導와 我軍의 抵抗力量도 또한 여기에 受動的으로 集中하게 되었다. 이에 各戰線의 初期戰況과 더불어 그 者들의 主攻戰線을 따라 縱的으로 戰況의 推移를 概括키로 한다.

### 6. 東部 戰線

敵 제 2군단은 東部와 中部의 兩戰線에 強力한 攻擊梯隊를 楔入케 하였다.

그 중 東部戰線의 我 제 8사단지역에는 제 5사단과 民族保衛省 직속 제 766 계리라部隊 그리고 제 549 陸戰隊를 同時에 投入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我 사단은 豫備隊가 없는 2개 연대 編成으로써 제 10연대가 30km 正面의 38°線上에 配置되고 제 21연대는 後方 地域에서 共匪에 대한 剿滅에 投入됨으로써 正規사단 兵力의 1/3로서 그나마 作戰能力이 50%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耐戰能力은 20%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特히 6월 10일을 前後 하여 五臺山 지구를 通하여 侵透한 60명의 機關短銃을 가진 共匪를 擊滅코자 前線에 配置된 部隊의 일부까지 이에 轉用함으로써 開戰直前의 關心度는 오히려 이곳에 集中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實情下에서 敵 제 5사단은 이날 04.00를 期하여 사단 正面에서 一齊히 侵襲하는 한편 미리 行動을 開始한 敵 제 766, 제 549 兩 부대는 正東津(江陵 南方 12km)—臨院津(三陟 南方 20km)의 後方地域에 海上으로 侵透하여 江陵을 先占코자 하면서 蔚珍以南에서 北上 增援할 我軍의 進路를 遮斷한 다음 殘存계리라와 合流하면서 地域內의 사단 主力部隊를 兩面 挾攻키로 한듯 하였다.

이에 사단은 前方 제 10연대로 香湖(注文津 北쪽 1km)—下月川里線의 前哨陣地에서 이를 邀擊하면서 이날 23.00에는 사단의 主陣地帶인 連谷川(注文津 南쪽 5km)線으로 遲延을 피하면서 撤收하고 共匪擊滅에 任하던 제 21연대를 즉각 江陵附近으로 集結시켜 그 以南에 侵透한 敵 特殊部隊의 北上을 邀擊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 主力部隊는 連谷川—江陵線을 中心으로 한 主陣地帶에서 局部的인 戰鬪를 벌이다가 27일 早期에 敵 主力部隊의 侵襲으로 自兵戰을 展開함으로써 이들의 大部分을 擊破하였다.

또한 江陵을 防禦하던 部隊는 이날 下午까지 北上한 敵의 特殊部隊와 對峙하던 중 敵이 下午부터 南北 兩面으로 侵襲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단은 우선 大關嶺 쪽으로 撤收하면서 遲延을 피하고 이 醜敵을 牽制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大關嶺 일대에서 再編成하면서 2개 대대로 江陵에 대한 再奪還을 試圖하고 首都경비사령부 예하 기갑연대에서 派遣된 기갑소대를 맞아 次期作戰에 對備하였다.

그러나 期間中 陸軍本部에서는 洪川—原州線의 確保에 우선권을 두고 再編成中인 제 8사단에 대하여 原州로의 繞回를 命命하였다.

그리하여 同 사단은 進行中인 局地戰을 中止하고 下珍富里를 經由하여 原州로 移動하는 途中에서 狀況의 急轉으로 그 目標을 變更하여 7월 2일 峴川으로 移動한 다음 待機케 되었다.

이와 같은 陸軍本부의 措置는 全般的인 敵의 企圖에 對備하기 위한 것으로써 兵力의 集中運用과 次期作戰을 融通性있게 施行코자 함에 있었다.

이 期間中에 東海岸의 사단 主力部隊가 相當한 時間동안 內陸과 海岸線을 通하여 域內를 確保한 바 있으나 全般的인 趨勢로 보아 그 자체가 重要的 것이 아니라 兵力을 節約하여 戰況을 好戰시킬 수 있는 集中運用이 보다 重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地形的인 條件으로 보아 敵이 南侵하는 速度는 自然히 鈍化되고 또 제 8사단에 대신하여 제 3사단 예하 제 23연대가 7월 2일 蔚珍線에서 北上하는 즉시로 敵을 阻止토록 別途의 措置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곳 東部戰線은 다른 地域과의 戰線의 均衡을 維持할 수가 있었다.

## 7. 中部 戰線

北傀 제 2군단은 主力인 제 7, 제 2兩사단과 독립 기갑연대를 이곳 中部戰線의 제 6사단 正面에 投入하였다.

開戰當時 사단은 84km 正面의 38°線上에 제 2, 제 7연대를 並立配置하고 豫備인 제 19연대는 原州에 位置하여 教育中에 있었는데 이 중 제 2연대는 수도경비사령부 隸下部隊로 서울에 駐屯하고 있다가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洪川地區로 移動하여 제 8연대와 交代즉시 사단 右側 前線에 投入되었다.

이에 대하여 敵 제 2사단은 38°線 南方 12km에 있는 春川을 25일 중으로 手中에 넣는 동시에 敵 제 7사단은 麟蹄—洪川線으로 侵入하여 늦어도 26일까지 이곳을 占據함으로써 我 사단에 비대의 增援을 먼저 遮斷한 다음 餘勢를 몰아 利川—水原線으로 繞回하여 서울 奪取를 위하여 增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사단은 修理峰(新南 東北쪽 3km)—水利山(春川 北쪽 10km)線의 前哨陣地에서 이 敵을 最大限으로 阻止하면서 自隱里(洪川 北쪽 19km)—玉山浦(春川 北쪽 5km)線의

主陣地帶에서 決戰키로 企圖하였다.

25일 03.30에 敵 제 7 사단은 機甲部隊를 先頭로 麟蹄—洪川線의 제 2 연대 正面으로, 敵 제 2 사단은 同 04.00부터 제 7 연대 正面으로 서로 全面侵入의 銳鋒을 겨누게 되었다.

사단 左側인 제 7 연대 正面에 侵襲한 敵 제 2 사단의 主力은 SU-76 自走砲 수대를 同伴한 1개연대로써 春川 正面을 牽制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연대로 北漢江의 沿邊을 따라 侵入함으로써 中央突破를 企圖한 듯 하였으나 사단의 勇戰과 砲兵의 彈幕射擊으로 이들의 主力을 強打하였다.

그러나 敵은 豫備隊를 投入하여 계속 春川確保를 다짐한듯 하므로 사단은 原州의 제 19 연대를 26일 早朝까지 緊急히 轉用하여 제 7 연대를 增援토록 하고 加平地區에서는 제 8 연대의 일부 兵力의 支援을 받아 敵의 側方 侵入을 阻止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 右側인 제 2 연대 正面으로 侵襲한 敵 제 7 사단은 10여대의 戰車 및 自走砲를 先頭로 前哨陣地를 突破한 다음 이날 06.00에 於論里의 一次 阻止陣地까지 侵入하므로 同 연대는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이를 一擊하고 다시 自隱里의 主陣地帶를 目標로 撤收하면서 反擊을 準備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敵은 25일 中으로 春川을 占據키로 한 당초의 企圖가 失敗에 돌아가자 右側 제 2 연대 正面에 投入한 제 7 사단 隸下 2개연대 規模의 兵力을 25일 午後부터 新南—冠岳里地域에서 春川方面으로 投入하여 이를 恢復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春川正面의 敵 제 2 사단은 모두 4개연대 規模로 增強되고 27일 早朝에는 昭陽江을 따라 다시 侵襲코자 하므로 사단 主力은 極力 여기를 固守하였으나 이날 正午에 陸軍本部로 부터 西部戰線의 危急한 狀況을 連絡받음으로써 次期作戰을 爲하여 일단 洪川線으로 撤收키로 하였다.

이 때에 제 2 연대는 26, 27 兩일간을 自隱里—말고개(自隱里 南쪽 8km)의 主陣地線에서 數台의 戰車를 破壞하는 등 血戰을 계속중이었는데 사단은 春川地區의 제 7 연대의 撤收와 더불어 洪川地區確保의 緊要性을 깨닫고 제 7 연대에 增援된 제 19 연대의 일부를 27일 18.00부터 제 2 연대 지역으로 移動케 하여 여기에 增援토록 하였다.

따라서 제 19 연대는 洪川北쪽에 그 일부 兵力을 投入하여 敵의 戰車를 肉薄으로 破壞하는 등의 戰果를 거두면서 제 2 연대와 함께 遲延戰을 뒀고, 제 7 연대는 春川으로부터 原昌고개(春川 南쪽 8km)로 移動한 다음 여기에서 敵을 阻止하다가 29일 洪川을 經유하여 原州로 集結하였다.

初戰 以來로 春川 地區에서 커다란 損失을 입은 듯한 敵 제 2 사단은 我軍이 이곳을 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離脫하자 뒤늦게 加平을 經유하여 水原地區로 進出하고 또 敵 제 7 사단은 계속 洪川—原州線을 壓迫하였다.

그리하여 사단 主力인 제 2, 제 19 연대는 30일 1개 부대로써 洪川地區에서 掩護케 하면서

제 7 연대와 함께 原州를 經由하여 忠州로 移動한 然後에 再編成에 들어갔다.

이 作戰에서 제 6 사단은 敵의 主力을 無力化하고 春川을 滿 3일간 防守하였을뿐 아니라 豫備隊를 運用하여 效果的으로 作戰을 遂行함으로써 敵의 당초의 企圖를 齟齬토록 하였다.

이로써 敵은 다음날 이 作戰 失敗의 責任을 들어 軍團長을 비롯한 兩개 사단장을 更迭하고 敵 제 7 사단의 名稱을 제 12 사단으로 變更하였다는 것이다.

### 8. 西部 戰線

敵의 主攻인 제 1 군단은 抱川—東豆川—高浪浦—汶山 正面에 4개 사단과 1개 기갑여단 및 1개의 경비여단을 投入하여 제 1 차 목표인 서울 進出을 노리는듯 하였으며 我軍은 여기에서 2개 사단으로써 이들의 侵攻을 맞이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我 제 7 사단이 擔當하고 있는 抱川—東豆川간의 47km 正面에, 제 105戰車여단을 내세우고 抱川軸線에 제 3 사단을, 東豆川軸線에 제 4 사단을 投入하여 中間日標인 議政府를 先占한 다음 兵力을 集中하여 短時間內에 서울 突入을 企圖한듯 하였다.

當時 사단은 豫備隊가 없는 2개 연대로써 제 9 연대를 右側 抱川 正面에 그리고 제 1 연대를 左側 東豆川 正面에 配備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有事時 수도경비사령부와 後方 3개 사단의 增援을 期待하면서 萬世橋—可養里—哨城里의 前哨陣地線에 각 1개 대대만을 配置하고 그 主力은 金梧里(議政府 東쪽 3km)와 直洞(議政府 西쪽 2km)에 位置시켜 教育訓練에 임하도록 하면서 언제라도 天柱山(△424)—炭場—逍遙山(△526)—磨叉山(△587) 線의 主陣地에 投入키로 하였다.

이에 25일 04.00에 敵이 抱川과 東豆川 正面의 38°線 일대에서 全面砲擊과 동시에 戰車를 先頭로 南侵을 개시하자 사단은 우선 前哨部隊로 敵侵을 最大限 阻止토록 하면서 訓練 및 外出 중이던 兵力을 緊急 召集하여 前方에 投入하였다.

그런데 戰況은 急轉하여, 抱川 正面의 敵 제 3 사단은 40여대의 戰車를 先頭로 이날 10.00에 이미 前哨陣地를 侵襲한 다음 主陣地帶에 接近하고, 東豆川 正面의 敵 제 4 사단 역시 같은 수의 戰車를 先頭로 東豆川 前面의 前哨陣地를 侵襲하였다.

이 初戰에서 敵의 戰車는 我軍의 唯一한 對戰車武器인 2.36" Rocket 砲와 57mm 對戰車砲의 集中射擊에도 不拘하고 悠悠히 先頭에 나서서 陣內에 侵入하고 그들 兩사단은 戰車를 後續하여 一翼 또는 兩翼包圍로 侵襲하였으므로 제 9 연대는 炭場附近에서 奮戰中 後方이 遮斷되어 混戰이 벌어지게 되고 제 1 연대는 東豆川 附近에서 側方 接近路를 防護하면서 主力部隊를 投入하여 敵의 銳鋒을 強打하였다.

원시 抱川軸線은 東豆川보다 길 뿐만아니라 大部分이 單一路로써 要所에서 適時에 敵侵을 阻止할 수 있었으나, 開戰 당시에 金梧里에 있던 제 9 연대 主力이 炭場까지 20km를 移動하는데 4시간 이상이 所要되었는데 敵은 이곳까지의 10km를 1시간만에 走破하였으므로

適時에 敵을 邀擊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敵 제 3사단이 이날 11.00에 抱川을 侵襲한 다음 松隅里(抱川 南쪽 10km) 方向으로 南下하고 있을 때 사단에 增援된 수도경비사령부 隸下 제 3연대가 松隅里—祝石嶺間에 配置되어 이를 阻止하였으나 17.00에 敵의 계속 侵入으로 奮戰하다가 22.00에는 議政府 地域으로 撤收함으로써 要衝인 祝石嶺(議政府 東北쪽 8km)이 無防備 상태가 되었다.

한편 東豆川 지역의 제 1연대는 이날 午後까지 主陣地帶에서 敵을 阻止 격퇴하였으나 17.00부터 兩翼으로 侵入하였으므로 混戰끝에 德亭(東豆川 南쪽 6km)으로 移動하고 여기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 18연대가 赴援하였다. 그리고 사단 右側의 內里(退溪院 北쪽 16km)부근에도 配屬된 陸士생도대대 및 서울市 戰鬥警察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날 午後 다시 제 7사단을 訪問한 總參謀長은 敵의 進出이 일단 鈍化되고 또 祝石嶺은 제 3연대가 確保중인 것으로 判斷하여 『26일 未明을 期하여 全面反擊』을 決心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決心은 反擊으로써 主陣地를 恢復하면 26일 午後까지 到着할 제 2, 제 3, 제 5사단으로 부터 각 2개 연대씩 도합 6개 연대로써 增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듯 하다.

反擊의 개시는 26일 08.00부터이며 東豆川 正面으로 反擊한 제 1연대 主力은 接敵없이 10.00에 東豆川을 奪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抱川으로 反擊한 제 2사단 예하의 最初 2개 대대와 後續한 또 다른 2개 대대는 07.00에 祝石嶺 下麓에서 敵의 기갑부대와 遭遇하여 肉薄攻擊으로 阻止코자 하였으나 所期의 目的을 거두지 못하고 撤收케 되었다.

總參謀長은 제 2사단장에게 抱川 正面을, 그리고 제 7사단장에게 東豆川 正面의 反擊作戰을 각각 統制토록 하고 또한 後方에서 移動중인 大部分의 부대로써 議政府의 要衝을 防守코자 決心하였으나 敵情判斷의 蹉跎과 後方사단의 逐次 進出에 따라 그의 決心을 實行하지 못하고 이날 12.00~13.00 사이에 抱川으로 侵入한 敵에 의하여 議政府가 早期에 失陷케 되었다.

이에 左側 제 7사단의 後方이 遮斷되고 서울 侵攻의 威脅을 느끼자 逐次로 移動한 제 2사단의 일부 兵力으로 急히 白石川(議政府 南쪽 1km) 沿岸에서 阻止토록 하는 한편 撤收중인 部隊들을 倉洞線에서 收拾하면서 最後의 堡壘를 지킬 태세를 갖추었다.

참으로 抱川—東豆川—議政府를 連하는 三角地帶에서의 전투는 首都의 運命을 左右하는 一戰인 바, 各級 指揮官들의 戰鬥指揮도 이에 反映되어 이곳의 固守와 反擊을 위한 努力은 눈부신 바 있었다.

이와 더불어 高浪浦—汶山 地區의 제 1사단 正面에는 敵 제 1, 제 6 兩개 사단과 제 203 機甲연대를 投入하였다.

그들이 抱川—東豆川의 主力부대와 比肩할 兵力을 이곳에 使用한 것은 地形이 比較的



平坦하고 機甲부대의 接近이 容易한 近距離 軸線으로써 서울의 側方を 쉽게 侵襲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我 제 1사단은 開戰當時 94km 正面의 38°線上에 제 13, 제 12 兩연대를 配置하고 사단에 비인 제 11연대는 水色에서 教育訓練중이었다.

이 중 제 12연대는 사단 前哨부대임과 동시에 全軍의 側方警戒부대로써 開城—延白地區에 配置되어 臨津橋의 唯一한 撤收路를 側背에 두고 廣正面에서 背水の 陣을 치고 敵侵을 阻止하여야 하는 不利한 輿件 밑에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自然障礙物인 臨津江의 南岸을 主陣地帶로 정하고 禮成江 鐵橋와 臨津橋의 防護 및 破壞計劃을 미리 樹立하고 있었다.

敵의 作戰企圖는 京義線을 中心으로 我 사단을 兩斷하여 主補給路와 通信軸線을 麻痺케 함으로써 初戰에서 延白地區의 제 12연대를 孤立化시키고 또 襄津地區의 部隊를 轉用하여 汶山—서울 軸線에 集中함으로써 서울을 우선 占領하려는 듯 하였다.

이에 25일 04.00~04.30間에 戰車를 先頭로 한 敵 제 1사단은 사단 右側 제 13연대 正面에 그리고 敵 제 6사단은 左側 延白地區의 제 12연대 正面에 各各 全面侵襲 하였으므로 前線部隊들은 警戒陣地에서 各各 敵을 격퇴하면서 準備된 陣地로 撤收하였다.

그러나 敵은 13.30에 臨津江 北岸까지 侵入하여 그 一部가 渡河를 試圖하였으므로 사단은 渡河 可能地點의 南岸 일대에 兵力을 重點적으로 배치하였으나 이날 午後부터 그들은 다시 主陣地帶에 대하여 部分的으로 侵透하였다.

한편 사단은 예비대인 제 11연대를 水色으로 부터 急遽 汶山地區로 進出시켜 당일 11.00까지 臨津橋를 中心으로 한 汶山 突出部 일대에 縱深으로 배치하였으나 敵 제 1사단의 主力이 京義線을 따라 開城地區의 제 12연대 側後方까지 侵襲함으로써 計劃된 禮成江 鐵橋의 爆破가 困難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混戰이 벌어지고 臨津橋의 爆破도 着手하지 못한채로 攻防戰만을 反復케 되었다.

이 때에 제 12연대의 主力이 延白地區에 健在하고 있고 또 그 撤收를 期待하고 있었던 만큼 橋梁爆破의 適時 判斷이 어려웠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孤立된 延白地區의 제 12연대 일부는 이날 19.00까지 敵의 侵襲을 血戰으로 阻止하면서 이미 計劃된 石浦(延安半島의 南端)와 鶴月里(靑龍半島 南端)를 통하여 金浦半島로 撤收하였다.

26일 오전에 議政府 正面에서 敵 제 3사단이 祝石嶺을 넘어 侵入을 계속하고 있을 무렵 제 1사단에서는 25일에 이어 主陣地帶 全面에 걸쳐 敵의 侵襲이 再開되었다.

이 때에 敵은 少數의 兵力으로 臨津橋 東北쪽 4km 지점에서 急速渡河를 試圖하면서 汶山 突出部 일대에 그들의 主力을 投入함으로써 사단은 26일 正午를 期하여 제 11연대로 하여금 이를 反擊케 하여 이날 午後에 主陣地를 恢復하였다.

그러나 敵 主力이 右側 제13연대 正面에 壓力을 加하면서 積城—高浪浦間의 渡河地點으로 기갑부대를 渡河케 하여 汶山으로 侵入하고 그 步兵의 일부는 연대 後方까지 깊이 侵透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늦게 사단에 增援된 제5사단 隸下 제15, 제20 兩 연대의 各 1개 大隊 兵力을 左側 제11연대와 함께 京義街道를 中心으로 縱深配備함으로써 敵의 侵襲은 그 速度를 遞減하게 되었다.

이무렵 陸軍本部로부터 議政府의 失陷消息과 더불어 善戰을 激勵하는 電文에 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隣接 제7사단의 危急한 戰況을 알게 되고 또한 아직까지 사단이 主陣地帶에서 敵侵을 阻止하여 왔음에 비추어 더 이상 犧牲을 甘受하면서 까지 이 地帶를 固守할 것이냐 하는 狀況判斷속에서 다시 이날 敵의 夜間侵襲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26일 夜半 이후 敵 제6사단 主力이 汶山 突出部를 다시 侵襲하고 그 機甲부대가 京義街道와 제13연대 地域의 坡平山(△498) 南麓으로 侵入하자 사단은 敵에게 많은 打撃을 주면서 그 主力을 奉日川으로 移動하여 제 3 防禦線에 陣을 쳤다.

그러므로 25, 26 兩일간에 이곳 主陣地帶에서의 善戰으로 敵 제 1 사단은 坡平山 南麓에서, 그리고 敵 제 6 사단은 汶山 일대에서 再編成 하는 듯 하였다.

27일의 奉日川線의 配備는 제13연대와 增援된 제15연대를 前方에, 제11연대를 豫備로 하는 도합 8개 大隊으로써 汶山—서울間의 國道를 中心으로 縱深配備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은 이곳이 서울로 부터 불과 20km인 最後의 堡壘이므로 28일 早朝에 主陣地恢復을 위한 反擊作戰을 計劃하였다.

이 計劃은 作戰指導次 現地에 急遽到着한 金弘壹 소장의 勸告에도 불구하고 豫定대로 斷行되었으나 整備를 完了한 敵 제1 및 제 6 사단의 侵襲과 동시에 施行되었다.

그리하여 我軍 將兵들은 곳곳에서 敵을 격파하면서 일부는 臨津江 河岸까지 進出하였으나 이날 아침 敵이 彌阿里에서 서울시內로 侵入하였다는 急報에 接하자 사단은 戰線의 再整備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戰況은 急轉하여 28일 午前부터는 敵의 騎馬隊가 奉日川 東側에 出現하여 反擊部隊의 後方을 威脅하는 한편 27일부터 出擊하기 시작한 美空軍은 戰線을 判別하지 못한채 對地 攻撃을 敢行하였으므로 사단은 이날 夜間부터 奉日川線에서 撤收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幸州와 二山浦 2개 지점의 渡船場으로 나누어 漢江을 渡河한 다음 29일에는 永登浦—始興地區에서 部隊를 收拾하고 이어서 새로 設置된 始興地區 戰鬪司令部의 作戰指揮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 9. 襄津 戰線

敵은 襄津地區를 早期에 入手할 속셈으로 그 제 6 사단 제14연대를 轉用하여 제 3 경비여단

을 增援케 하여 我 제17연대 正面을 直衝하였다.

開戰當時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45km의 38°線上에 配置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漣津附近에 控置하여 불과 7~8km의 縱深을 가진 戰鬪地帶를 防護토록 하였다.

本來 陸軍本部의 計劃에 의하면 연대는 狀況에 따라 海上撤收를 斷行하여 그 兵力을 要所에 重點 轉用하는 것이었다.

敵은 이곳 漣津地區를 早期에 一蹴한 다음 延白—開城—汶山 方向으로 그 兵力을 反轉하여 서울 侵入을 增援하겠다는 企圖 밑에 營口 作戰을 계획한 듯 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23일 부터 兵力과 車輛을 攻擊待機地點에 移動하는 등 공격 徵候를 보였기 때문에 연대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비 하던 중 25일 04.00를 期하여 全面砲擊과 동시에 侵襲하였다.

兵力의 劣勢와 地形의 不利한 條件下에서도 연대는 奮鬪하였으나 07.00에 漣津正面이 危急하게 됨으로써 豫備隊를 投入하였다.

그러나 敵은 대대간의 戰鬪地境線인 翠野—陽院 및 翠野—康翎의 國道를 통하여 제14연대를 投入함으로써 연대는 이날 13.00부터 東西로 分離되었다.

따라서 연대본부와 砲兵部隊를 包含한 右側 제3대대는 연대장 指揮下에 敵侵을 계속 阻止하면서 이미 計劃된 釜浦港으로 集結한 다음 26일 14.00에 海軍에서 急派한 LST 편으로 仁川까지 海上撤收하고, 左側 제1, 제2 兩대대는 敵이 漣津—釜浦港의 中間地區를 突破하였으므로 事前計劃에 없는 沙市를 目標로 遲延을 피하면서 撤收한 다음 民間 船舶 편으로 分進하여 蔚海峽에 內陸으로 移動하였는데 29일 이후부터 個別的으로 撤收한 兵力을 收拾하여 大田에서 새로운 任務를 받고 再編成하였다.

## 10. 首都圈의 戰況

敵의 主攻이 議政府軸線에 指向되었다고 判斷한 總參謀長은 모든 力量을 이곳에 集中토록 하였으나 敵은 主力方向을 抱川道와 東豆川道中에서 二者 擇一하게 되고 또한 我軍의 阻止強度에 따라 侵攻力量을 調整하였을 것이며 側方에 대한 奇襲의 虛를 노렸을 것이다. 따라서 議政府가 早期에 失陷된 要因은 이와같은 敵의 企圖를 把握하지 못한채 反擊에 있어서 兵力의 逐次投入이나 그렇지 않으면 漢江線 配備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兩立되는 見解에 確固한 信念없이 受動的이고 姑息的인 措置로 시종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戰勢의 急轉直下를 보여 議政府—서울間 17km의 狹小한 通路에 首都, 第2, 第3의 3개사단 兵力이 建制를 無視하고 分割하여 逐次로 投入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首都圈의 最後死守를 다짐하기는 매우 힘들게 된 것이고 이때부터 敗色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즉, 26일 下午에 總參謀長은 제7사단장을 새로이 議政府地區의 戰鬪司令官으로 指命하고 이 地域의 作戰을 統轄指揮토록 하면서 『分散한 채로 撤收中인 兵力을 倉洞線에서 收

拾하여 再編成하고 白石川線에서 계속 敵을 阻止 反擊하라.』고 嚴命함으로써 새로운 抵抗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增援部隊를 師團建制로 投入하지 않고 逐次使用하려는 腹案으로 分析되는데 萬若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第7사단장으로 하여금 增援사단을 指揮케 한다는 固陋性を 쫓지 못할 것이다.

當時의 首都圈防衛에 대한 總參謀長의 作戰概念을 推測하건대 一次的으로 白石川線에서 敵을 阻止하여 가능하면 이를 反擊하고 그 6km 南쪽인 倉洞—牛耳洞線에서 2次로 阻止하며 다시 4km 南쪽인 彌河—淸涼里線에서 最後阻止하되 서울市街地內의 要所에는 各種 防壁을 設置하여 遲延의 效果를 거두고자 하는 計策이었을 것이지만 如何問에 兵力을 逐次로 分割하여 使用한다는 것은 用兵上의 一大失策이었다.

또한 議政府軸線에 제 7사단을 基幹으로 하되 제 2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의 主力을 增援케 하고, 汶山軸線의 제 1사단에는 제 5사단의 主力을, 그리고 제 3사단은 戰略예비로써 首都圈의 最後防衛에 投入하거나 緊要地域의 反擊要員으로 確保토록 構想한듯 하였지만 師團의 建制를 無視하고 四分五裂로 分割使用한 것은 가장 拙劣한 用兵策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首都의 固守概念에 따라 가장 危急한 白石川의 阻止部隊로 하여금 27일 早朝를 期하여 議政府의 再奪還을 要求하였으나 戰力의 劣勢로 말미암아 先頭의 戰車와 自走砲 몇대를 파괴하였을 뿐으로 그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채로 撤收하였으며 倉洞에서 再編成된 연대규모의 混成부대도 같은날 14.00에 議政府 街道를 따라 侵入한 敵을 阻止하지 못함으로써 戰線은 다시 彌阿里線으로 移動하여 27일 下午부터 이 最後阻止線의 固守로 들어가게 되었다.

戰勢가 危急할 수록 新銳의 建制部隊를 統合使用하고 戰塵에서 시달린 撤收兵力을 大膽하게 뒤로 뽑아 再編成케 함이 마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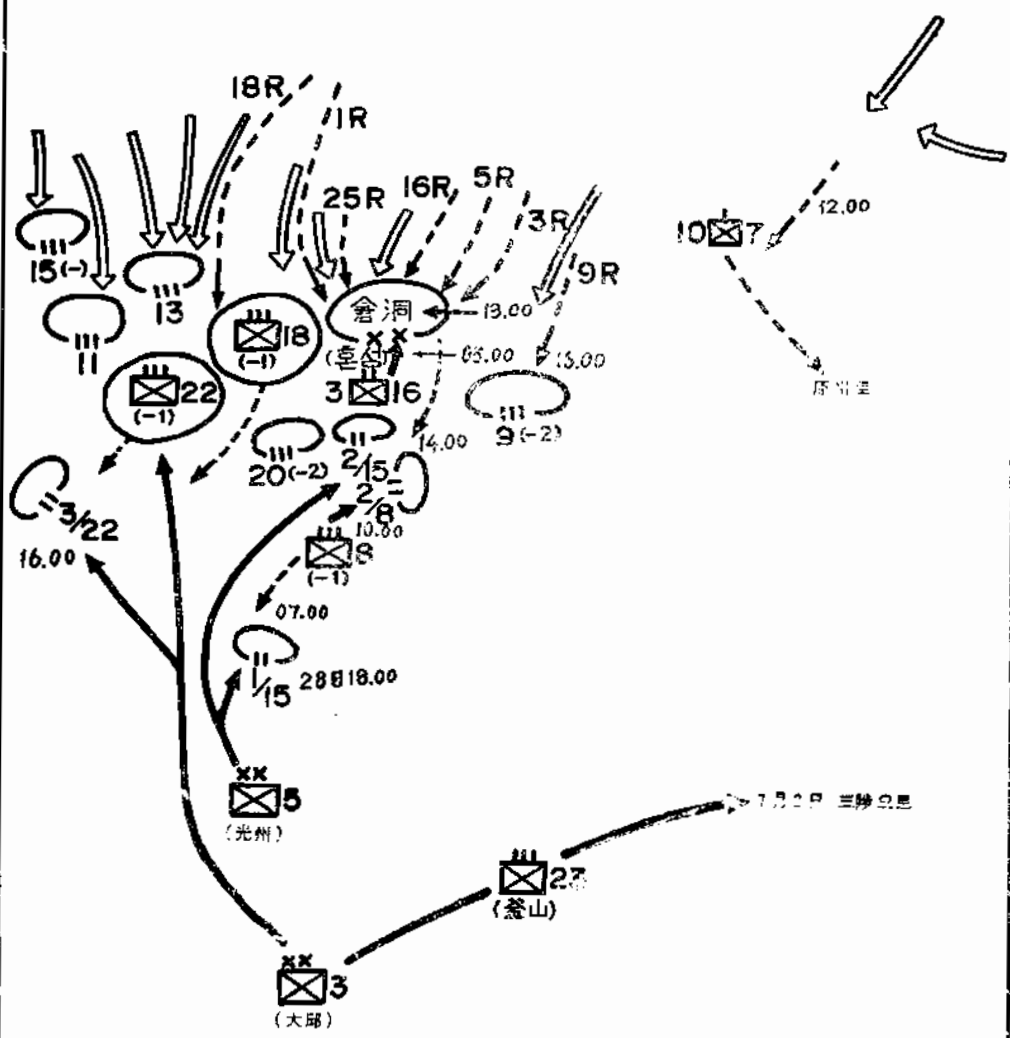
이로써 兵力使用計劃은 修正되어 제 5사단의 殘餘部隊를 여기에 轉用하여 戰勢의 挽回를 期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單一指揮官의 統制下에 組織的으로 抵抗하는 것을 期待할 수는 없었고, 더구나 議政府의 恢復까지 熱望하였지만 그의 이 같은 虛荒된 方針은 결국 貫徹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政府에서는 25일 正午부터 臨時國務會議에 出席한 總參謀長의 現地觀察報告를 통하여 비로소 北傀의 全面南侵을 알게 되었으나 僥倖을 바라는 安逸한 自慰意識이 앞서게 되어 아무런 決議事項이나 政局의 安定策을 講究함이 없이 그대로 散會하고 말았으니 各部長官들이 事前에 아무런 非常對策도 마련한 바 없었던 점을 能히 짐작할 수 있었다.

또 立法府도 26일 11.00에 臨時國會를 召集하여 國防部長官과 總參謀長으로부터의 證言을 들었으나 「反擊하여 北進中」이라는 孟浪한 放言에 따라 侵略을 받고 있는 現地住民에 대한 激勵文의 發送과 國會議員으로 構成된 慰問團의 戰線 派遣, 그리고 緊急軍事費의

# 增援部隊投入狀況圖 (195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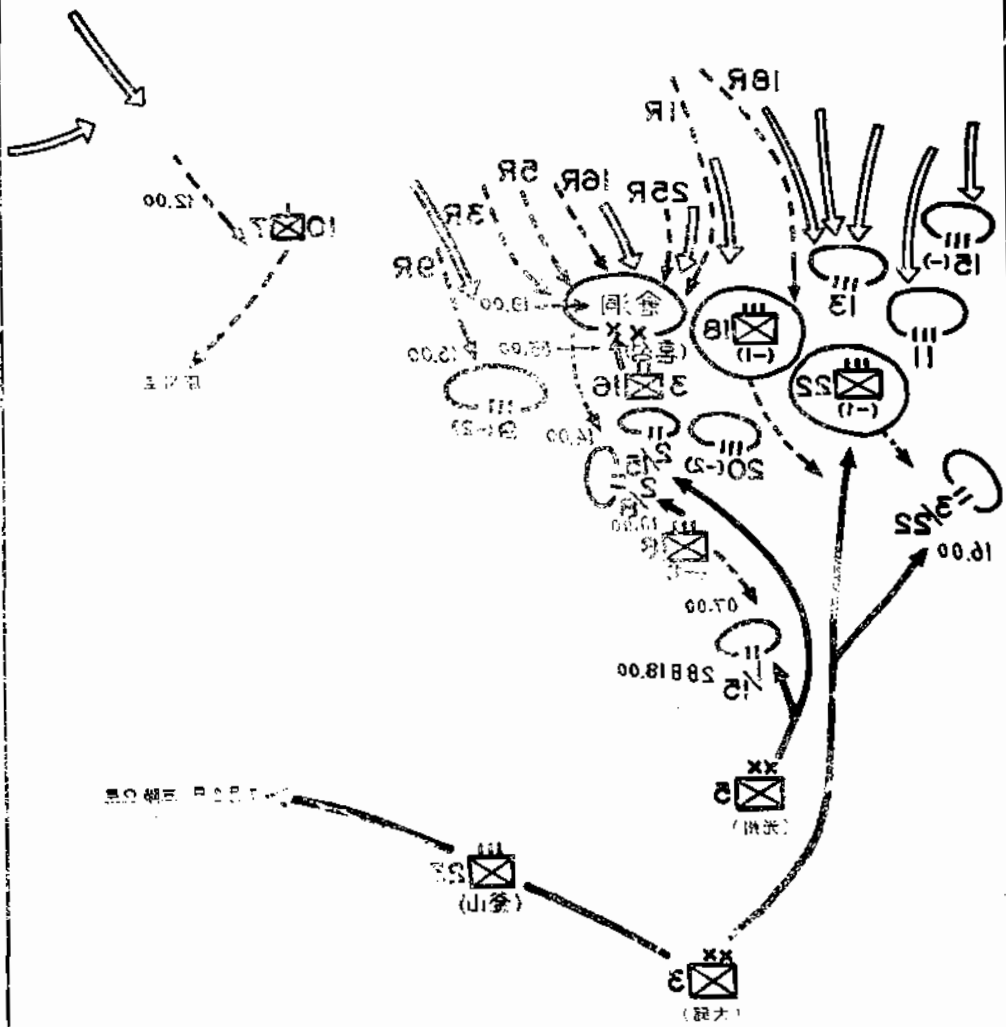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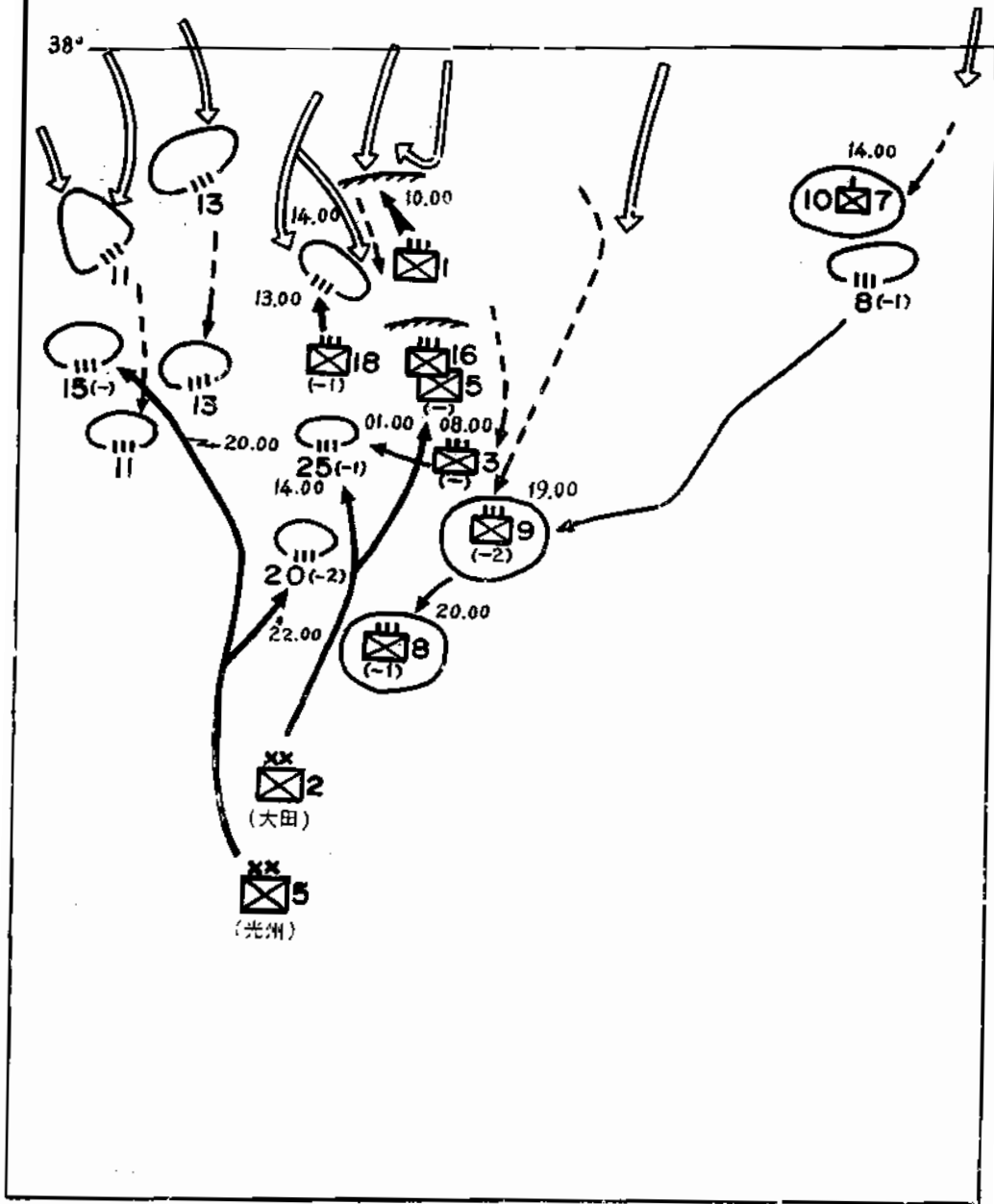
7月2日 三時五分

圖形狀人安網陪對對  
(192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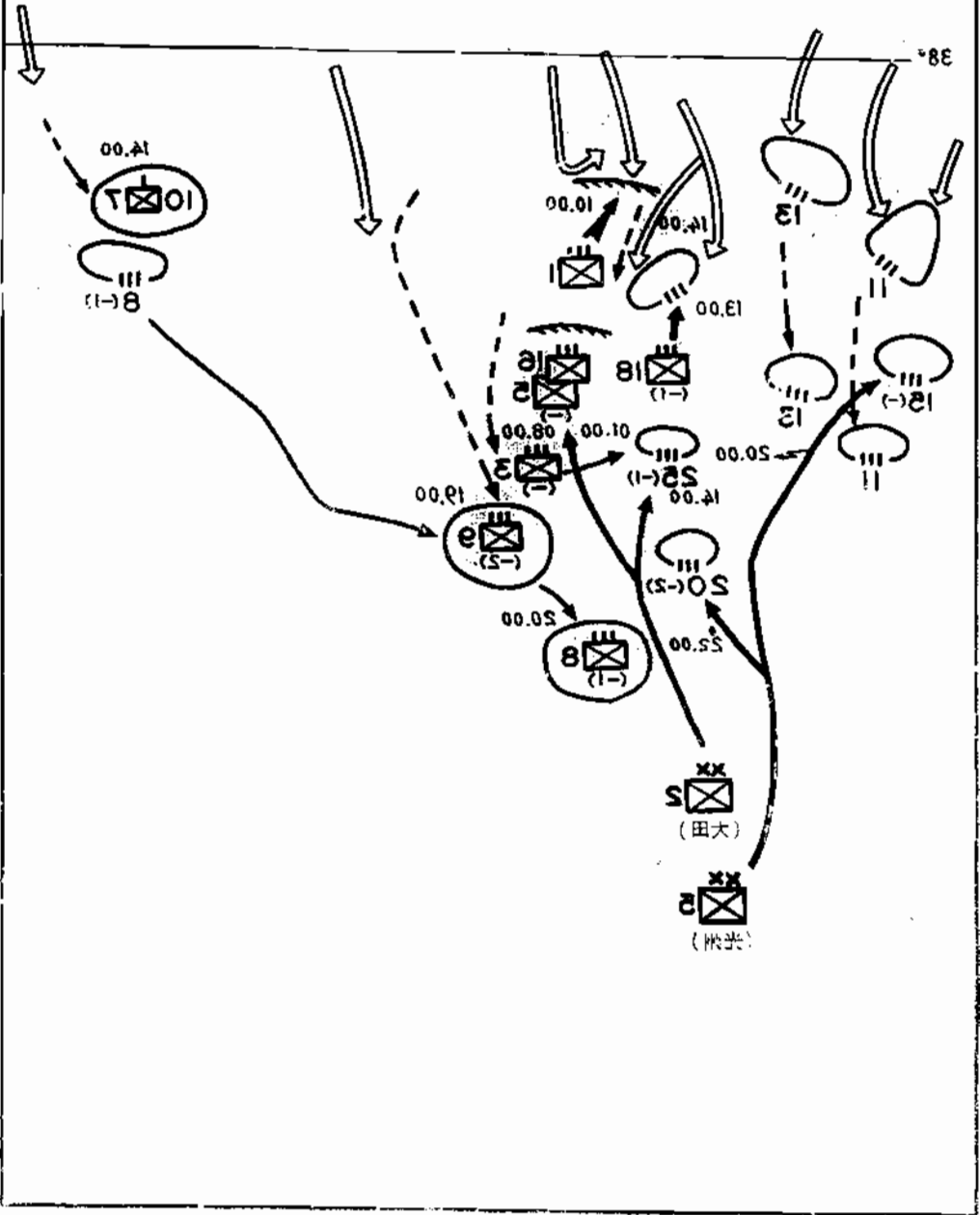
38°



# 増援部隊投入状況圖 (195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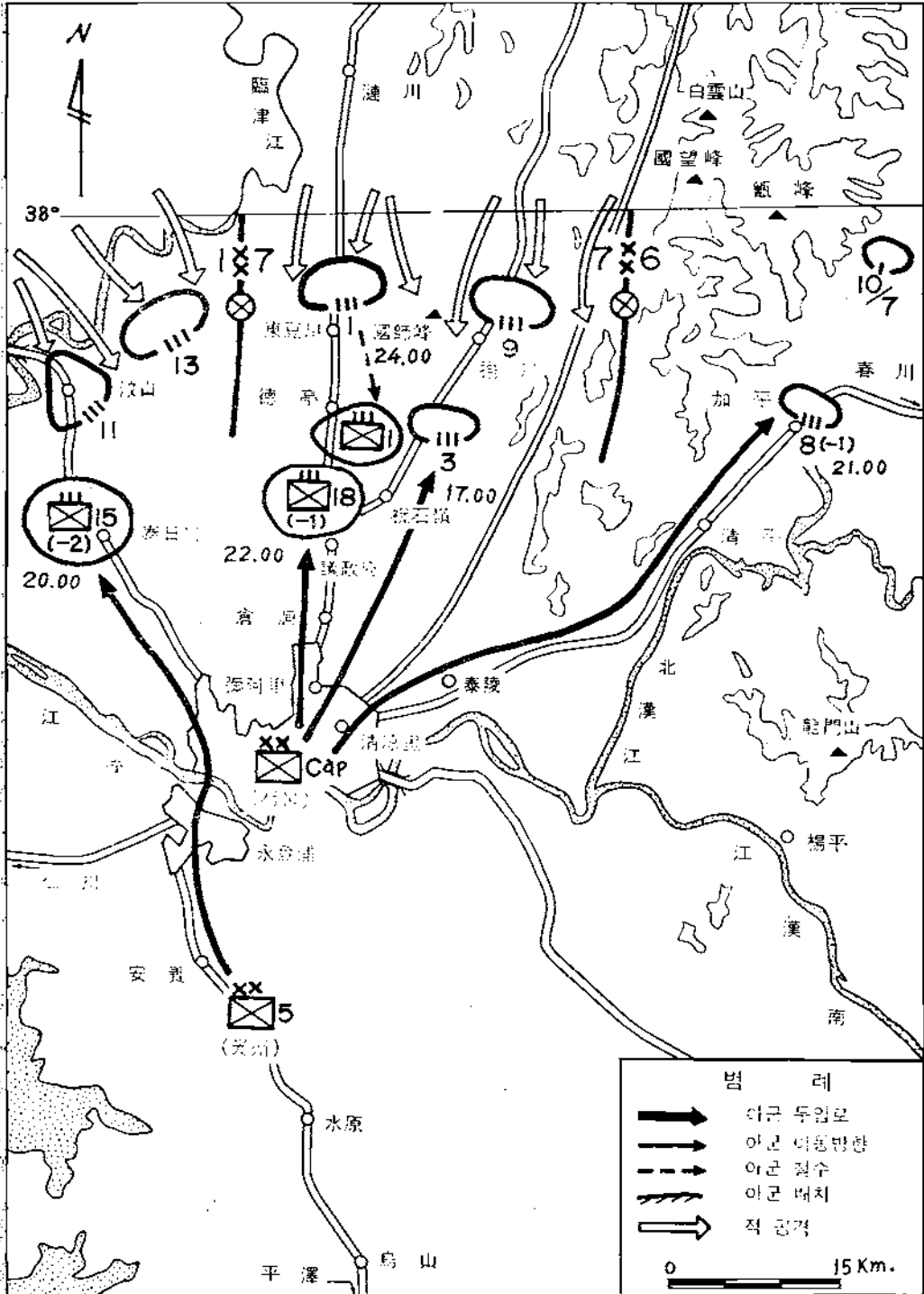


曾對陪對對人狀圖  
(120.0.20)





◇삼할드 제 2호 増援部隊 投入狀況(6.25)



支出등 세가지를 可決하고 散會하였으니 참으로 對岸의 불 구경格 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會議가 進行되는 동안에 議政府가 失陷되었기 때문에 議員들은 戰線狀況을 전혀 모른채로 헤어졌지만 閣僚들은 大統領에게 進達되는 情報에 따라 戰勢의 急變을 깨닫고 景武臺를 中心으로 어떠한 措置나 對策이 나오기만을 期待하고 있었으니 한 나라의 長官들이 아니라 大統領 눈치만 보는 追從輩 같은 印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議政府에 이어서 敵이 계속 白石川의 阻止線으로 殺到하고 있던 26일 17.00 이후부터 景武臺에서는 徹夜로 國務會議을 開催하고 國防部에서도 軍首腦들이 徹夜로 待機하면서 政府의 措置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深夜의 國務會議에서는 서울 固守의 여부를 놓고 甲論乙駁하다가 드디어 水原으로 移動기로 決定하였다. 一國의 首都固守가 長袖者流의 말한마디로 決定되고 軍人들의 統부리 하나 만으로 能히 이루어진다면 世上에 이와같이 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夜半에 召集된 非常國會에서는 이와 反對로 樂觀的인 戰況의 誤認으로 오히려 서울 死守의 決議를 하는등 立法府와 行政府의 손발이 맞지 않는 奇現象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國防部長官은 27일 새벽, 景武臺와 國會에서 歸廳하는 즉시로 待機하고 있던 軍首腦들에게 國務會議의 決議事項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各自의 良識에 따라 行動할 것』을 言明하고 政府와 軍이 必要로 하는 몇가지 緊急措置 사항을 指示하였다.

軍은 27일 이후부터 決戰의 時機과 場所를 逸失하고 거의 無力한 狀態에 있었고 145만 서울 市民들은 차츰 가까와지는 砲聲에 대한 真相을 의심하면서도 大統領의 造作된 錄音放送만을 그대로 믿고 疎開나 避難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날 下午에는 美軍參戰의 快報에 接하게 되었으니 즉 美極東空軍이 이날 正午 부터 活動을 시작하고 19.00에 John H. Church 준장의 ADCOM 요원이 水原飛行場에 到着하였다는 事實이 그것이며 이러한 朗報가 전하여지자 總參謀長은 다시 서울 固守의 決心을 굳히고 이미 漢江 以南으로 撤收한 陸軍本部의 일부를 原位置로 復歸토록 指示하고 各戰線에도 이를 傳播하여 將兵들의 士氣를 鼓舞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敵侵의 醜鋒에는 아무런 防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날 下午부터 彌阿里 戰線에서는 我 第 7, 第 2 兩 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의 殘存兵力과 그리고 새로 投入된 第 5 사단의 일부 및 工兵대대등 道합 5,000여명의 混合部隊에 대한 敵의 壓迫이 加重되었다.

여기에서의 作戰指導는 第 7 사단장과 第 5 사단장이 서로 協議하여 分擔하는 怪異한 方式을 取하게 되었으며 淸涼里로 通하는 中浪橋와 彌阿里 앞쪽의 古音橋는 事前에 이를 爆破키로 準備하였다.

彌阿里 일대의 我軍主力은 27일 薄暮까지 敵의 局部的인 侵入을 阻止하다가 夜暗에 이

르러 接敵이 없게되자 이날밤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異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疲因속에서 대부분이 假睡狀態에 빠지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敵은 祝石嶺에서와 같이 28일 01.00를 前後하여 古晉橋 앞쪽에 設置한 車輛障壁을 밀어제치고 이를 通過하여 彌阿里 고개를 넘기 시작하였고 淸涼里쪽의 穢溝들도 夜半에 京春線의 鐵橋를 通過하여 側後方으로 侵入함으로써 紛戰이 惹起되었다.

따라서 敵의 戰車가 彌阿里方向에서 서울시內에 急遽 突入함으로써 首都圈 最後阻止線에 配置된 부대들은 市街戰을 展開할 여유조차 없이 廣壯橋와 漢江人道橋 그리고 幸州渡船場등을 利用하여 漢江線을 넘어섰으며, 이렇게 하여 敵侵 만 3일만에 首都圈 以北에서 撤收한 다음 漢江 南岸에 急編陣地를 占領케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敵의 戰車와 自走砲가 서울시內의 北쪽 一角에 突入하는 刹那에 漢江人道橋와 鐵橋를 早期에 爆破하는 樞事가 惹起되었다.

당시 漢江위에는 1個의 人道橋와 3개의 鐵道橋가 있었는데 敵 機甲부대의 侵入을 遮斷하기 위하여 그 爆破時機와 責任限界를 미리 規定한바 있었다고는 하지만 戰況의 突變으로 이 規定이 제대로 實行되지 못하고 28일 02,30에 人道橋를 完破하고 鐵道橋의 일부는 半破하는 結果를 보게 되었다.

却說하고 漢江橋梁에 대한 爆破問題만이 아니라 제 1사단 지역의 臨津橋와 제 6사단 지역의 昭陽橋 그리고 議政府軸線상의 永中橋—萬世橋—議政府橋—古晉橋등이 모두 爆破計劃은 되어있었으나 커다란 成功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此種 撤收作戰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失策으로 남게 되었으며, 더구나 凍結期에 있어서는 橋梁의 完全 爆裂이 큰 意義가 없을 것이라는 戰訓도 얻게될 것이다.

## 11. 漢江線의 防守

敵은 서울을 掌中에 넣은 다음 28, 29의 兩일 사이에 再編成하면서 漢江線에 대한 探索戰을 벌였고, 그들의 제3, 제 4사단 및 제105기갑여단에게는 이른바 서울사단이라는 稱號를 붙여서 雀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實에 있어서는 그들의 越江이 U. S. S. R로 부터 1개 Set의 渡河裝備 밖에 支援받지 못한 탓으로 2일간을 遲滯한 것이고 이 期間중에도 隱密渡河를 노리고 있었다.

漢江線의 防守를 爲하여 我軍은 28일, 새로 任命한 始興地區 戰鬪司令官 金弘壹 소장으로 하여금 漢江을 渡河撤收하는 모든 兵力을 始興—安養線에서 收拾하여 再配置토록 하였는바 28, 29 兩일간에 蠶室—말죽거리 地域에 混成 제 2사단, 黑石洞—鷲梁津 地域에 混成 제 7사단, 그리고 永登浦地域에 混成수도사단(改稱), 金浦地域에 金浦地區 戰鬪司令部를 配置하는등 모두 10,000여명의 兵力을 收拾하여 投入하였으나 실로 이 兩일간은 起死回生の 轉機를 가름할만큼 重大한 時機였다.

이에 ADCOM이 28일부터 水原에 그 位置를 定하고 29일에는 美極東軍司令官 MacArthur 元帥가 現地 戰線을 視察하고 돌아왔으며 UN과 美國政府는 韓國을 支援하기로 決定하였으므로 『앞으로 3일간의 漢江線의 固守 여부는 國運을 左右한다』라는 情勢判斷 아래 友邦 支援軍이 來着할 때까지 이 線에서 最大限의 時間을 延고자 하였다.

漢江은 平均水深이 3m이며 河幅이 300~1,000m였으나 敵은 28일 오후부터 漢江 南岸 일대에 砲擊을 加하면서 夜間에 이르자 제 6사단의 일부로써 金浦北端으로 渡河하여 我軍을 壓迫하면서 飛行場 쪽으로 侵入하고 이어 西水庫 쪽에서도 1개중대 규모가 渡河하였으나 모두 擊破하였다.

29일에는 그들의 後續부대가 각종 船隻과 浮遊物을 利用하여 渡河를 試圖하였으나 戰車가 渡河할 수 없기에 我防衛部隊들은 이를 즉각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30일 未明을 期하여 敵 제3사단의 主力이 西水庫 쪽에서 驚梁津 方向으로, 제 4사단 主力이 麻浦 쪽에서 永登浦 方向으로 急速渡河를 실시하여 漢江 南岸으로 侵襲하므로 我軍은 肉薄戰과 市街戰을 벌여 敵의 先頭를 一擊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後續의 무리들은 계속 侵襲地域을 擴大하여 나갔다.

또한 7월 2일 夜間부터는 破壞된 複線鐵橋를 修理하여 人員과 車輛 그리고 戰車를 渡河시켜 이미 侵入한 그들의 제 4사단을 本格的으로 支援함으로써 永登浦—始興—安養軸線을 威脅하였다.

이에 混成 主力사단들은 이곳을 逐次로 撤收하면서 友邦軍의 空中支援과 連繫를 갖게 되고 果川地區로 撤收한 混成 제 2사단은 安養以南에서 主力과 合勢케 된다.

이리하여 漢江線의 防衛는 만 5일동안을 支撐하고 戰線이 水原線으로 南下하여 三陟—原州—利川으로 連結되었으니 이때가 7월 4일이며 美地上軍이 參戰하기 1일전이었다.

또한 美極東軍司令官이 現地의 戰線을 視察하고 돌아간 다음날인 6월 30일 즉, 敵이 本格的으로 漢江을 渡河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에 蔡秉德 소장은 丁一權 소장에게 總參謀長職을 引繼하였다.

## 12. 海·空軍 및 國立警察의 活動

開戰初의 海軍은 墨湖—浦項—釜山—木浦—群山—仁川 各 경비부 內에서의 作戰을 支援하고 제 1(仁川), 제 2(釜山), 제 3(木浦) 艇隊 및 訓練艇隊(麗水와 鎮海)가 近海에 出動하여 撤收作戰의 支援과 敵 게릴라部隊의 侵入을 擊破하고 阻止하는데 寄與하였다.

특히 제 2艇隊는 鎮海의 訓練艇隊와 合同하여 東南海 일대에서 作戰을 벌이던 중 6월 25일 夜半에는 大韓海峽에서 敵 게릴라部隊 要員 600명을 大운 船舶을 擊沈하고, 玉溪(江陵 南쪽 25km) 近海에서도 25, 26 兩일간에 敵 제549 陸戰隊 및 게릴라部隊의 上陸船

舶을 격파하여 이곳의 海上侵透를 阻止하였다.

또 仁川의 제 I 艇隊는 域內的 海上警備와 더불어 甕津地區의 陸軍 제17연대의 海上撤收를 支援하였다.

그리고 空軍은 汝矣島—金浦—水原—大田—群山—大邱—鎮海—金海—濟州島등에 基地를 두고 있었으나 航空機가 불과 24臺인데, 이 중에서 訓練用인 10대는 國民들의 獻納으로 1950년 5월에 Canada로 부터 購入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可動機가 전혀 없었으므로 汝矣島기지 하나만을 使用중에 있었다.

敵의 全面南侵과 더불어 YAK 戰鬥機는 25일 12.00에 金浦와 汝矣島기지를 爆擊하였으므로 우리 空軍機들은 즉각 出擊하여 抱川, 東豆川, 議政府 그리고 汶山地域의 敵 步兵 및 車輛 그리고 補給品등을 爆擊하고 26일에도 계속 출격하여 탄손으로 爆彈을 投下하는 등 눈물어린 活躍을 하다가 狀況의 急變에 따라 27일 그 基地를 水原으로 옮기고 다시 漢江線의 防守를 支援하면서 美空軍의 參戰에 協調하였다.

이와 더불어 李承晚 大統領과 MacArthur 元帥간에 協議된 바에 따라 F-51 戰鬥機 (Mustang) 10대의 引受를 위하여 日本의 Itazuke(板付)基地로 갔던 李根植 대령 등 10명의 조종사가 航空機와 함께 大邱基地에 着陸하자 爆彈을 投下하는 裝置가 未備된 狀況에서도 永登浦와 始興 일대를 목표로 즉각 출격하여 7월 2일부터 對地攻擊을 시작하였다.

이때 水原에 있는 飛行團은 漢江線의 防守를 계속 支援하다가 7월 1일 大田基地로 移動하고 F-51 編隊는 大田基地보다도 그 規模가 큰 大邱기지에서 作戰을 遂行하였다.

한편 國立警察은 6월 10일 警察非常司令部(內務部 治安局)가 判斷한 「北傀의 大舉 挑發 徵候의 捕捉」에 따라 接境 38°線 일대의 경찰에 대하여 甲號非常警戒令을 下達하고 敵侵에 대비토록 하였다.

當時 경찰 作戰의 指揮系統이 警察司令部에 속하고 있던 관계로 軍과의 諜報交換이 圓滑치 못하였으나 25일 敵의 全面南侵이 개시되자 前方의 경찰국장들에게 『즉각 戰鬥경찰 태세로 轉換하고 各署는 戰鬥경찰대대를 編成하여 대처하되 警察司令部의 命令에 따라 作戰을 遂行하라』고 命令하고 『각 경찰대대는 該 지역의 軍部隊와 協調하라』는 指示로써 일부 軍警의 協同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26일 未明에 議政府의 正面에서 反擊이 있을무렵 서울市警 소속의 1개 전투경찰대대는 軍에 증인되어 陸生生徒대대와 함께 退溪院 北쪽의 內洞 일대에서 27일까지 戰鬥 임무를 수행하다가 撤收하고, 29일 이후부터는 永登浦 및 富平地區의 戰鬥경찰대대가 金浦地區 전투사령부와 協調하며 전투하다가 7월 1일 이후 後方治安 및 主要施設 경비임무로 轉換하였다.

이 뒤의 警察과 軍의 作戰指揮 系統이 一元化되지 못한 관계로 戰況의 變轉에 따라 即刻 副應의 妙를 發揮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 13. 情勢의 推移

敵의 奇襲南侵에 衝擊을 받게 된 UN韓國委員團과 駐韓美大使館에서는 그들 本然의 系統에 따라 變轉하는 戰況을 報告하는바 있었다.

이에 따라 UN安保理事會에서는 26일 韓國時間 05.00에 緊急會議를 召集하여 一次的으로 『即刻的인 停戰과 38°線 以北으로의 撤收를 命命 한다.』라는 決議를 하고 이를 敵側에 通報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를 拒否하고 南侵만을 재촉 하였으므로 同理事會에서는 28일 11.00에 이를 糾彈하고 必要한 援助를 韓國에 提供토록 UN會員國에 勸告하는 決議文을 採擇함으로써 그들의 侵略行爲에 鐵鎚를 加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한편 極東地域의 防衛와 2,000명의 駐韓美國人의 保護責任을 달고 있는 美極東軍司令官은 敵의 不時 南侵의 飛報에 接하는 즉시로 緊急對策을 펴면서 28일에는 前方連絡 및 指揮所를 水原에 設置하고 29일에는 자신이 直接 戰線을 視察한 다음 本國政府의 積極적인 對應策을 要請하였다.

이에 大統領 Truman과 參本部는 27일에 海 空軍의 制限된 支援을 承認하고 그 뒤 UN軍의 派韓決定과 더불어 다시 海 空軍의 制限作戰의 撤廢와 駐日 美軍戰鬥사단의 派韓을 承認함으로써 10일간에 걸친 國軍의 單獨作戰은 UN軍과의 聯合作戰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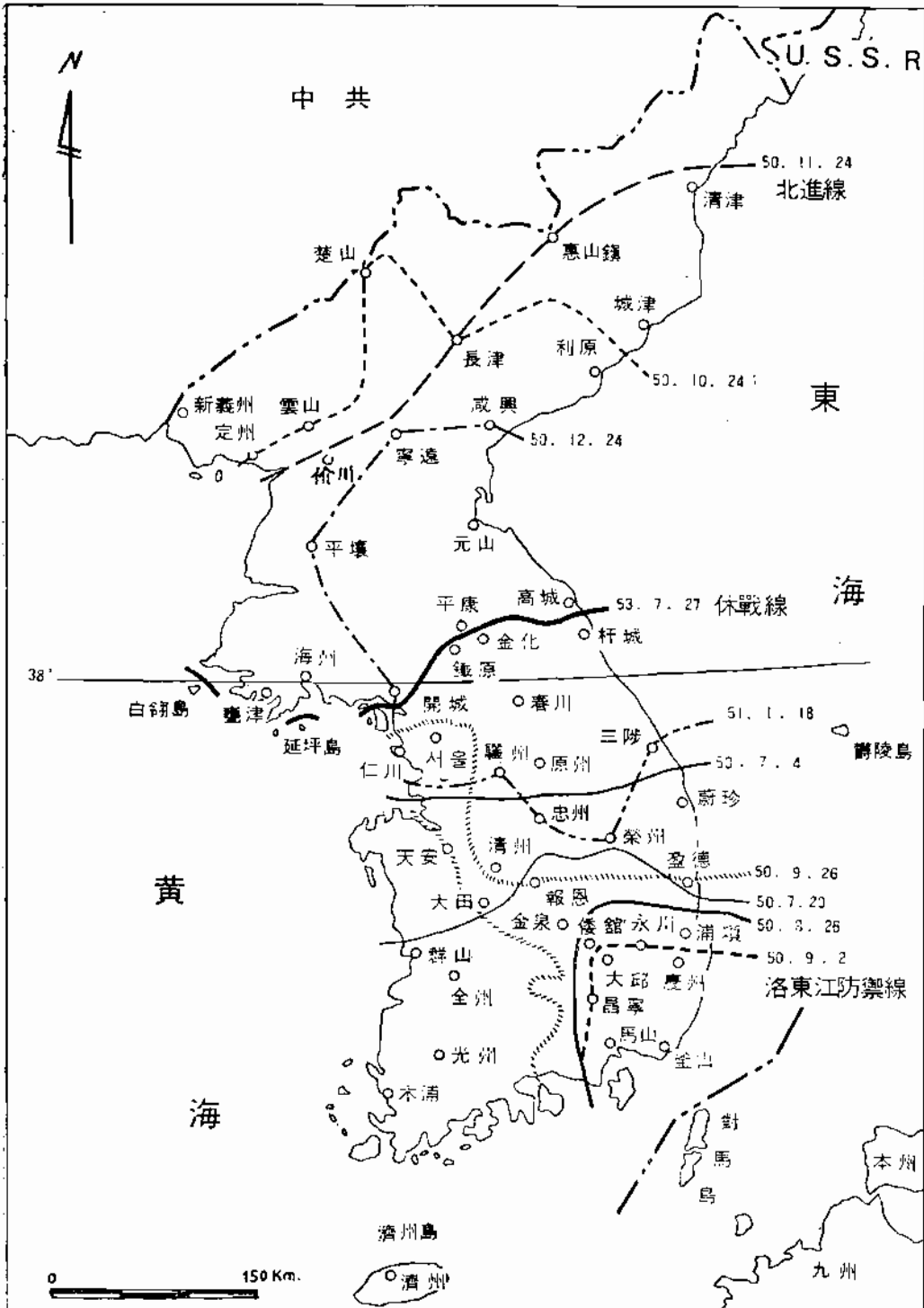
現地戰線에 最初로 參戰한 聯合國의 赴援軍은 美國 및 Australia 軍의 航空支援이 28일부터 本格化되고 美제7艦隊의 主力은 臺灣海峽을 封鎖하면서 그 麾下의 제77機動部隊로써 英國軍 艦隊와 連合하여 7월 2일 부터 韓國海域으로 出動하였다.

또한 地上軍은 駐日 美제24사단 예하 제21연대 제1대대의 Smith 特殊任務부대가 7월 1일에 釜山에 처음 到着한 다음 4일에는 烏山 北쪽의 細橋里 부근에 進出하여 다음날 부터 戰鬥에 들어갔으며 제24사단의 主力은 2일 부터 4일 사이에 釜山에 到着한 다음 이어서 平澤—安城간의 防禦線으로 投入되었다.

이에 따라 美제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은 7월 4일부로 駐韓 美地上軍司令官에, 그리고 ADCOM의 Church 준장은 同 副司令官에 任命되어 單一 指揮體制로써 京釜線을 中心으로 西部地域을 擔當케 되고 漢江線에서 遲延戰을 펴다가 撤收한 我軍 6개 사단은 7월 4일 平澤附近에 集結하여 再編成과 동시에 이 地域을 美地上軍에게 引繼하고 中東部地域을 專擔케 되었다.

이렇게 戰況이 急變하는 동안 政府는 6월 26일 深夜에 決定한 水原移動과는 달리 27일에 大統領을 뒤따라 大田으로 옮겼다가 美軍의 參戰消息에 따라 大統領은 MacArthur 元帥와 같이 前線을 視察하고 돌아와 情勢의 樂觀을 전하고, 이어서 UN의 決議事項이 發表

◇ 上 황도 제 3 호 彼我進出狀況(50. 6. 25~53. 7. 27)



되었기 때문에 情勢의 好轉을 期待하면서 朝野, 内外가 모두 鼓舞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1일에 漢江線 以南으로 敵이 侵入중에 있다는 急報에 따라 大邱 移動說이 擡頭되기도 하였다.

한편 陸軍本部는 6월 28일에 始興을 經由하여 ADCOM과 함께 水原으로 移轉한 다음 漢江線의 防守作戰을 指導하고 7월 4일에는 다시 平澤으로 잠시 移動하였다가 美地上軍의 參戰과 더불어 다음날 大田으로 移動하였다.

이 때에는 아직까지 韓美間에 作戰指揮문제가 單一化되지 못하였으므로 相互協調가 圓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뒤에 國軍은 제 1군단을 최초로 新設하고 그 예하에 改編된 3개 사단을 두어 中東部의 제 8, 제 6사단과 함께 제 2期 作戰으로 移行하였다.

이렇게 終戰期는 敵의 奇襲南侵으로 부터 10일간을 血戰과 苦戰으로 段落을 짓고 그 뒤에는 UN軍과 함께 遲延戰을 펴면서 7월 末에 洛東江 防禦線에 이르고, 다시 9월 15일에는 仁川上陸作戰과 함께 總反擊을 개시하여 11월에는 韓滿國境線까지 北進하게 된다.

그러나 中共의 假稱義勇軍의 侵略으로 인해 末부터 다시 撤收를 개시하여 다음해인 1951년 1월 4일에는 또 한번 서울이 失陷되었으나 我軍의 再反擊으로 侵略의 무리를 격퇴하고 38°線 以北까지 다시 進擊한다.

이에 戰勢가 不如意하게된 共產合流軍은 休戰을 提議하는 일방 有利한 地域을 確保하려고 季節攻勢와 局地攻撃을 폈지만 我軍에 의하여 모두 擊碎되고 1953년 7월 27일 오늘의 軍事分界線으로 休戰이 成立되기에 이른다.

들이켜보건데 이 戰爭 3년 동안에 敵은 南韓地域에서 強制로 義勇軍을 뽑아 200,000명을 充當하였으며 그 일부를 직접 洛東江 前線에 投入하고 退却한 다음에는 나머지 兵力과 새로 編成된 在滿韓人部隊 3개 군단을 합쳐서 모두 8개 군단을 再編成하여 戰線에 投入하였는데 그 總兵力은 1953년 2월 初 현재 中共 5개 軍을 包含하여 總합 1,071,080명으로 增加되고 戰爭末期에는 中共軍의 일부가 撤收되어 同년 7월 末 현재 北傀軍 287,900명과 中共軍 503,000명등 모두 790,900명을 헤아렸다.

이에 比하여 我軍은 같은해 7월 末 현재 5개 군단으로 이중 韓國軍은 16개 사단 590,911명이며 UN軍은 8개 사단 341,628명으로 모두 932,539명 이었다.

그리고 戰爭期間中 北傀 및 그 元兇들의 侵略과 蠻行으로 입은 我軍損失과 民間 被害를 보면 大略 別표와 같다.

우리는 이 戰爭을 概觀하여 다음의 몇가지 事項을 指摘하고자 한다.

첫째, 稀世의 兇漢인 加자 金日成 一味의 徒黨들은 不時에 奇襲南侵한 이 戰爭의 要因을 우리쪽의 先攻北進說로 虛偽捏造함으로써 民族에 남긴 天人共怒할 罪劫을 우리쪽에 轉嫁코자 企圖이 되고 있다.



우리의 後孫들은 이 眞相을 寤寐不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奈落속으로 떨어진 毛澤東과 周恩來의 中共魁首는 우리의 國境을 不時에 넘어 百萬大軍을 敗亡寸前の 北傀戰線에 投入함으로써 國土統一의 一步直前에서 理由없는 妨害工作을 恣行하였으니 後孫들은 이 共產의 무리와는 不俱戴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세째, 北傀軍을 造作하고 裝備를 供給하여 以夷制夷의 奸計로써 強盜 가짜 金日成을 使贖하고 時不利하면 名目분인 休戰을 提議한 Stalin 一味徒黨들의 本性을 鑠骨不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네째, 16개 UN參戰國과 5개 醫務支援國 그리고 19개 物資支援國등이 精銳의 兵力과 裝備로써 우리를 돕고, 自由民의 榮光을 찾고자 努力한 恩義에 대하여 擧族적으로 感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이 疆土를 끝까지 保全하고 이 겨레를 피로써 지키는 者는 오직 우리 自身뿐이요, 남의 힘을 믿다가는 제 2의 越南으로 敗軍亡卒하고 國亡山河存의 悲運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銘心하여 마땅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가 오늘날 목숨을 保全하고 民族隆興의 役軍이 되는 榮光을 지니는 것은 오로지 國立墓地와 UN 墓地에서 잠들고 있는 우리의 戰友들의 捨身敢鬪의 餘德이다.

우리는 肅然히 머리 숙이고 이들의 遺志에 報答할 것을 盟誓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별 표)

我 軍 損 失

軍 別	區 分	戰 死	戰 傷	失 踪	合 計
國 軍		227,748	717,083	43,572	988,403
U N 軍		36,796	115,230	414	152,440
醫 務 宗 隊		3,516	7,580	7,423	18,519
	計	268,060	889,993	51,409	1,159,362

民 間 人 被 害

死 亡	虐 殺	負 傷	拉 致	行 方 不 明	合 計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990,968

財 產 被 害

(단위 : 1,000환)

建 物			資 產 及 施 設	家 畜		總 被 害 額
建 物 數	延 建 坪	被 害 額		家 畜 數	被 害 額	
611,002棟	15,482,772坪	182,936,470환	220,870,030환	2,928,180頭	6,783,259환	410,589,759환

註 : 1953年度 大韓民國 統計年鑑, 對美換率 60 : 1

彼我使用兵力一覽表

設 階	時 期	我 軍			敵 軍		
		國 軍	U N 軍	計	北 傀 軍	中 共 軍	計
北傀南侵勃頭	1950. 6. 25	陸軍 94,974 海軍 7,715 空軍 1,897 海兵 1,166		105,752	陸軍 182,680 海軍 4,700 空軍 2,000 陸戰 9,000		198,380
反擊作戰初期	1950. 9. 30	104,048	94,163	198,211	97,850		97,850
中共軍侵入期	1951. 6. 31	273,266	281,311	554,577	211,100	248,100 (投入兵力)	459,200
戰線固着期	1952. 6. 31	376,418	301,533	678,051	268,300	639,800 (投入兵力)	908,100
戰爭末期	1953. 7. 27	590,911	341,628	932,539	287,900	503,000 (投入兵力)	790,900

彼我戰鬥序列(開戰當日)

我 軍	敵 軍
<前方사단> 제8사단(江陵) : 제10, 21연대 제6사단(原州) : 제2, 7, 19연대 제7사단(議政府) : 제9, 1연대 제1사단(서울) : 제13, 12, 11연대 제17연대(釜津)	<後方사단> 제5사단 : 제10, 11, 12연대 제549, 766특수부대 제7사단 : 제30, 31, 32연대 제2사단 : 제4, 6, 17연대 독립기갑연대 제3사단 : 제7, 8, 9연대 제4사단 : 제5, 16, 18연대 제105기갑여단 : (7. 5부, 사단승격) 제1사단 : 제1, 2, 3연대 제6사단 : 제13, 14, 15연대 제203기갑연대 제3 경비여단 제14연대(제6사단소속)
<後方사단> 제2사단(大田) : 제5, 16, 25연대 제5사단(光州) : 제15, 20연대 제3사단(大邱) : 제22, 23연대 수도경비사령부 : 제3, 8, 18연대 독립기갑연대	<豫備사단> 제15사단(華川) : 제48, 49, 50연대 제13사단(金川) : 제19, 21, 23연대 제10사단(肅川—平壤) 제16, 17독립여단(편성중)

# 第 1 章

## 開戰前의 一般情勢

### 要 旨

1. 政治情勢
2. 軍事情勢



## 第1章 開戰前의 一般情勢

### 要 旨

韓民族은 제2차 世界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祖國光復의 夙願 希望과 感激으로 美·蘇 兩軍의 進駐를 맞이하였으나, 38°線으로 隔하여 各該民族의 試鍊에 直面케 되었다.

38°線은 本是, 美·蘇 兩軍이 韓半島에서의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고, 進駐後의 軍政施行에 따르는 限界를 定하기 위하여 그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軍事的인 限界線은 U.S.S.R의 野望의인 對韓政策 — Asia政策의 一環으로서의 一 때문에 政治的인 不可의의 障壁으로 一變하고 말았다.

U.S.S.R은 對口參戰(1945. 8. 9)의 代價로서 舊帝政 Russia 이래의 極東南侵政策을 成事하려는 遠謀를 품고, 38°線 以北의 北韓全域에 共產基地의 構築을 서둘렀는데, 金成柱(金日成으로 둔갑) 등 U.S.S.R軍 出身의 共產黨員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共產傀儡政權을 造作하면서 南侵을 목적으로 하는 軍事力支援을 積極化하였다.

한편, 뒤늦게 38°線 以南의 南韓地域에 進駐한 美軍은 當初부터 無政見하고 無計劃한 軍政施行으로 政局의 混迷와 經濟의 停頓, 그리고 社會的인 無秩序를 해결하지 못한채, 共產侵略의 可能性을 過少評價한 뿐이었다.

本章은 이 政治 및 軍事的인 兩面에 걸친 一般情勢를 다루어, 韓國戰爭의 遠因이 어디에 孕胎해 있었던가를 究明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여, 韓國戰爭의 遠因은 이미 38°線의 策定때부터 孕胎해 있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U.S.S.R은 金日成의 一黨徒黨으로 하여금, 38°線을 不可의의 障壁으로 굳히게 하여, 政治的으로는 一黨獨裁體制의 Soviet化를 強行케 함은 물론, 北韓全域을 이른바 共產革命基地로 變革하면서 北傀의 軍事力強化에 拍車를

加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比하여, 南韓에 있어서의 美軍政은 政治 및 軍事的인 兩面에 걸쳐, 微溫의이며 短見的이었다.

그 結果, 南韓은 政界 및 社會的으로 蠶食한 左翼勢力의 跋扈로 因하여 亂脈에 빠진 政情을 克服하면서, 政府를 出帆시킨 때까지 수많은 迂餘曲折과 激甚한 難關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Moskva 3相會議의 信任統治案에 대한 決死反對의 鬭爭, 두 차례에 걸친 美·蘇 共委에 따르는 政界의 소용돌이, 民族의 力量을 集結시키기 위한 核心政黨의 構成, 北傀 및 U.S.S.R의 使囑을 芻蕘삼아 跋扈하는 左翼勢力의 芟除 등, 實로 冷汗二斗를 禁지 못할 險難한 고비가 大韓民國의 建國過程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험거운 大韓民國의 出帆에 比하여, U.S.S.R의 傀儡로 造作된 金日成 徒黨의 北傀는 共產獨裁의 基盤을 垣垣한 過程을 거쳐 일찌기 構築하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한 結果 國軍을 凌駕하고 絕對的으로 優勢한 軍事力을 이미 備蓄하였으니, 그 목적하는 바는 오로지 韓半島를 赤化統一하기 위한 全面南侵이었다.

이처럼, 北傀의 南侵은 제2차 世界大戰의 終結과 동시에, U.S.S.R의 遠謀로써 이미 準備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바꾸어 말하면, 英國의 Truman政府가 戰後에 있어서 Europe 優先의 世界政策에 拘束하는 나머지 Asia에 대한 政策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韓半島에 대한 共產侵略의 危險度가 높아감에도 不拘하고, 眼前의 彌縫策으로만 始終하였던 消極的인 對韓政策이 北傀의 全面南侵을 自招한 것이라고 指摘하게 된다.

## 1. 政治情勢

### 가. 北緯 38°線에 의한 韓半島 分斷

韓國戰爭의 遠因은 北緯38°線에 의한 韓半島의 分斷에서 비롯된다.

1945년 8월 15일, 軍國主義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와 더불어 한민족에게는 自主獨立의 새 역사의 黎明이 개막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한민족이 알지도 못하는 국제협정의 幕後에서는 韓半島를 南北으로 분단하기 위한 北緯38°線이 美·蘇양국간에 약정되어, 人爲的인 장벽이 출현한 것이었다.

#### (1) 제2차 大戰중의 國際協定

제2차 세계대전의 戰勢가 연합군의 勝勢로 굳어져 가던 1943년 8월, 美國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英國 Winston Churchill 수상이 大西洋憲章을 선언하여, 한국민처럼 국가주권을 강탈당하였던 모든 국민들에게 주권회복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이 大西洋憲章의 정신은 1943년 11월, 中國 蔣介石 총통을 추가로 참석시켜 戰後의 처리문제를 협의한 Cairo 선언에서 3大國은 韓國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韓國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임을 결의한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즉, 적당한 시기라는 但書가 붙기는 하였으나, 韓國의 민주적인 통일독립이 연합국에 의하여 약속된 것이었으며, 이 약속은 1945년 7월의 Potsdam 宣旨으로써 다시 확인되어, U. S. S. R도 1945년 8월의 對日宣戰布告와 아울러 이 宣旨에 동의하였다.

한편, 美·英·蘇 3국 首腦는 U. S. S. R의 對日參戰과 戰後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45년 2월 Yalta 會談을 가졌는데, 당시 日本과 중립조약을 맺고 있던 U. S. S. R은 對日參戰의 조건으로써 極東에 있어서의 U. S. S. R의 舊領土와 세력범위 및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는 약정을 굳히고 말았다.

이 결과, Yalta 會談은 歷史적으로 紛爭의 불씨를 自招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즉, U. S. S. R에 대하여 帝政 Russia 이래의 영원인 極東南進政策의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東北 Asia의 戰後 처리에 있어서 美國은 軍國主義 日本에 대신하여 U. S. S. R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韓半島의 불행을 가져오게 한 遠因이 되었으며, 東北 Asia의 불안을 낳게 한

것이였다.

또한, 韓國에 관하여는 美國 Roosevelt 대통령과 U. S. S. R수상 Josif V. Stalin이 Yalta 會談에서 「信託統治」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窮極的으로는 韓民族의 自主와 獨立에 異議가 없었다 하여도, Stalin의 遠謀는 이미 韓半島의 共產化를 계산하고 있었음이 此後의 歷史과정인 입증하고 있다.

## (2) 北緯 38°線의 劃定

1945년 8월 9일, U. S. S. R 제25군이 對日參戰의 포문을 열어, 滿洲와 韓半島의 日本軍을 공격하면서부터 東北 Asia 특히 韓半島의 政界가 급회전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의 露日戰爭 이래, 두 국경선에서 다투어 있던 Russia 세력이 洪水같이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에 軍國主義 日本은 廣島(Hirosima)와 長崎(Nagasaki)의 原子彈으로 因하여, 8월 10일에 무조건 항복을 수락하기로 통보하였는데, 美國 정부는 韓半島에 대한 軍事的인 고려로써 北緯38°線을 劃定하여, U. S. S. R軍 및 美軍의 進駐한계를 分할하였다.

이 결정은 美 極東軍의 「일반명령 제1호」로써 具體化(1945. 9. 7부) 하였는데, 美國 정부는 이에 앞서 U. S. S. R政府에 이 결정을 통고하여 동의를 얻고 있었다.

이로써 美軍은 38°線 以南에서, U. S. S. R軍은 以北에서, 各己 日本軍의 항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38°線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日本軍의 항복수락과 무장해제를 위한 純軍事的인 조치이며, 政治的인 의도는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U. S. S. R의 遠謀는 이미 발동하고 있었다. 제25군의 北韓進駐와 軍政시행의 과정에서 들어난대로 南進政策의 일환으로서의 韓半島赤化를 의도하여, 民族分斷과 領土分割의 政治的인 境界線으로 굳혀간 것이었다.

## 나. U. S. S. R軍의 進駐와 北韓의 政情

1945년 8월 9일 露時, U. S. S. R은 對日最後通牒을 내미는 동시에 極東軍으로 하여금 滿洲의 日本 關東軍을 공격케 하였다. 韓半島의 日本 제17方面軍에 대하여는 제25군이 羅津·淸津·雄基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慶興·琿春으로 地上軍을 투입하였다. 可謂, 破竹之勢였다. 日本軍을 일거에 격파하면서, 13일에 淸津에 삼륙하고, 22일에는 平壤에 진주하였으며, 8월 말까지 38°線 以北全域에 진주하였다.

U. S. S. R軍의 북한 진주는 단순한 군대진주가 아니었다. 進駐의 시초부터 38°線을 의식하며 政治적인 伏線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8월 24일~26일 사이에 京元線(서울—元山)·京義線(서울—新義州)·上海線(上城—海州)·沙里院線(沙里院—海州)의 南行鐵路를

모두 폐쇄하는 한편, 일체의 38°線 以南으로의 통행을 제한 또는 봉쇄하여, 北韓全域에 대한 정치 및 사회체제의 개혁 즉, 共產化 계략에 착수한 것이었다.

U. S. S. R의 北韓 共產化 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정치·경제의 모든 것을 韓國人에게 넘겨 준다는 美名下에 韓國名을 가진 U. S. S. R 共產黨員에게 넘겨 주었다.

② 北韓住民들을 무마키 위하여,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民主·民族陣營의 人士들을 포함한 民主政體를 假裝하였다.

③ 金成柱를 傀儡集團의 魁首로 등장시키기 위하여, 金日成의 이름을 盜用시켜 英雄으로 捏造하였다.

④ 基幹産業·철도운수·은행 등 주요경제기관을 國有化라는 口實로 共產黨이 독점케 하였다.

⑤ 北韓을 共產革命基地로 삼아, 傀儡軍 육성 등의 力量을 축적하였다.

⑥ 英雄으로 날조한 金成柱를 共產黨首 및 共產政權의 首班으로 앉혀, 一人獨裁의 기반을 굳혔다.

### (1) 人民委員會의 구성

U. S. S. R軍은 北韓進駐와 동시에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비롯한 北韓 各道의 人民委員會를 결성하여, 土着的인 民族陣營의 指導級人士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한편, U. S. S. R 共產黨 系列을 위주로 한 共產主義者들을 登用해 나가는 過渡的인 첫 政治的 布石을 하였다.

이 各道人民委員會의 구성은 民族陣營을 柔和케 하여, 北韓住民의 總意에 의한 共產政權이 수립되는 과정을 피하려는 것이었으나, 曹晚植을 비롯한 民族陣營의 지도급 人士들이 완강히 不應하므로 1945년 10월 8일에 이른바 北朝鮮 5道會議를 소집하고, 11월 19일에는 北朝鮮 5道 行政局을 설치하여, 5道를 통합한 行政機構를 발족시켰다.

이 5道行政局은 1946년 8월 8일에 결성한 이른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기초 작업이었다.

### (2) 金成柱(金日成)의 등장과 北朝鮮 共產黨의 출현

U. S. S. R軍은 이처럼 人民委員會—北朝鮮 5道會議—北朝鮮 5道行政局의 과정으로써 民族陣營勢力의 除去와 共產主義者 登用に 奸巧을 부리는 한편, U. S. S. R軍 소좌이자 U. S. S. R 共產黨員인 金成柱를 金日成장군으로 날조하여 요란하게 등장시켰다.

1945년 10월 14일, U. S. S. R軍政당국의 지시로 이른바 金日成 환영 군중대회가 平南 人民政治委員會의 주최로 平壤에서 벌어졌는데, 英名눈은 金日성장군을 가장한 金成柱가 등단하자 群衆들은 크게 憤怒하였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領導者然한 金成柱는 『北朝鮮을 분리하여 먼저 共產化하고, 이에 이어 南朝鮮까지도 共產化할 수 있는 北朝鮮民主基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要旨의 民主基地論을 吐하였다.

이 民主基地路線의 底意는 38°線을 恒久化하고 北韓을 共產化한 다음에 南韓을 赤化하려는 계획인 것이었다.

U.S.S.R軍政當局은 金日成의 날조 등장과 함께 10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이른바 朝鮮 共產黨道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를 비공개로 열게 하였다.

熱誠者란 곧 軍政當局이 지명한 者들로서 金成柱를 金日成으로 稱하게 하기 위한 계획적인 집회였던 것이다.

이들은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同年 12월 17일에 소집한 제3차 擴大執行委員會에서 北朝鮮共產黨으로 改稱하는 동시에 金日成을 責任秘書로 再確認하였다.

### (3) 民主體制를 標榜한 假面術策

金成柱(金日成)는 또한 共產黨 一黨獨裁를 완성하기 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民主主義統一戰線을 主唱하였는데, U.S.S.R 軍政當局은 이를 뒷받침하여, 『反日的이며 民主的인 政黨·社會團體의 結社 및 활동을 허가한다.』라고 聲明하기도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다수정당을 假裝 선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또 하나의 속셈은 北韓內 民族陣營의 정치적 團體의 움직임을 查察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聲明과 더불어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결사를 신청하였으나, U.S.S.R軍政當局이 허락할 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反日的이고 民主的인 社會民主主義路線을 표방하고 나선 民族社會黨과 중견 文化人들로 조직된 平壤藝術文化協會의 경우는 탄압당하기까지 하였다.

U.S.S.R軍政當局과 金日成의 최대 목표는 曺晚植 領導下의 北朝鮮民主黨이었다.

1945년 11월 30일에 창당된 北朝鮮民主黨은 당초부터 共產黨과의 合作을 완강히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 등장과 共產黨의 틀에 박은 조작에 분노한 北韓住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에 당황하고 초조해진 U.S.S.R軍政當局과 金日成은 民族陣營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노리던 차에 Moskva 3相會議의 韓國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었다.

1945년 12월 27일에 발표된 이 결정은 제3항에 있어서 「韓國에 대한 최대한 5년 기한의 4개국 信託統治에 관한 협정」을 작성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擧族的인 反託運動이 전개되었으며, 共產主義者들도 反託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Moskva로부터 「3相會議 결정은 U.S.S.R이 적극 추진하는 것이므로 共產黨은 절대 지지하라.」는 지령이 내리자, 恫연 贊託으로 표변하고 말았다.

1946년 1월 2일, 共產黨을 비롯한 外部團體가 連名으로 Moskva 決定 지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U. S. S. R軍政當局은 北朝鮮民主黨에 대하여 贊託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北朝鮮民主黨은 이에 굴복치 않고 反託路線을 굳게 지켜 北韓住民들을 영도하였다. 이에 당황한 U. S. S. R軍政當局은 平南人民政治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의 曹晚植의 이름을 贊託에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마저 거부당하자, 曹晚植을 감금하는 한편 北朝鮮民主黨의 幹部와 民族陣營의 人士들을 숙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朝鮮民主黨의 黨首 및 幹部를 共產分子로 代替시켜, 贊託하는 政黨으로 改造해 버리고 말았다.

#### (4)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구성

U. S. S. R軍政當局은 民族陣營의 지도자인 曹晚植의 利用가치가 反託주장으로 없어지자, 監禁 1개월 뒤인 1946년 2월 8일에 이른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구성하여, 金日成을 委員長에 앉힘으로써 北韓 5도를 통합하는 北朝鮮共產黨과 5道行政局을 一元化하여, 一人獨裁體制의 기반을 구축케 하였다.

金日成은 U. S. S. R軍政當局의 뒷받침으로 이 中央集權의인 執權機構를 造作함에 있어, 각 政黨 및 社會團體의 發起에 의한 것이듯이 날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당시, 北韓에는 北朝鮮共產黨밖에 延安派의 獨立同盟과 曹晚植을 제거한 北朝鮮民主黨, 그리고 天道教靑友黨 등이 政黨구실을 하였고, 社會團體로서는 職業同盟과 農民同盟을 비롯하여 民主靑年團과 女性同盟 등 共產黨의 外部團體에 지나지 않았으니, 金日成의 捏造劇은 獨舞台를 이루게 되었다.

U. S. S. R軍政當局은 그들 자체의 分割隸屬化政策보다도 더욱 性急하게 서두는 金日成의 分割共產化 野望에 부채질 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分割共產化가 실현되어 가고 있을 즈음, 南韓에서는 美軍政의 詰問에 응하는 韓國人機關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다. 軍政長官의 詰問 자적으로 협조하게 된 民主議院이 발족한 것도 北傀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조작한지 1주일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1946년 6월 3일에 『南韓만이라도 臨時政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李承晚의 井邑發言이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시의 南韓政治人들은 北韓의 야망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U. S. S. R軍政當局이 金日成一派로 하여금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서둘러 조작케 한 또 하나의 목적은 美·蘇共同委員會에 대비하는 政治的布石 때문이었다.

즉, 통일정부의 수립을 논의함에 있어, 이미 실현되고 있는 北韓의 共產改革制度를 反映 또는 既成事實化하자는 常套의인 手法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

실로, 金日成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구성되지 불과 半年동안에 이른바 民主改革이라

는 名目으로 각종 法令·政綱·決定書 등을 날치기 식으로 연이어 공포하였다.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共產制度의 찬성을 향한 盲進的인 개혁이었다.

北傀의 朝鮮中央年鑑에서도 『U. S. S. R軍이 진주한 北朝鮮에서는 U. S. S. R軍의 보장과 원조로 약속된 모든 기대는 그대로 실현되었다……人民委員會 창설을 도와주었으며……諸民主改革과 施策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결과는 U. S. S. R軍이 진주하여 적극적인 幫助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自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北傀의 分割隸屬化 내지 分割共產化 政策은 U. S. S. R의 術數에 의한 必然的인 과정이었다.

### 다. 美軍의 進駐와 南韓의 政情

U. S. S. R 제25군이 38°線 以北의 全域에 진주하여, 人民委員會 등 政治的인 布石을 제 빨리 쳐고 있던 1945년 8월 下旬 현재, 美太平洋地區의 地上軍은 韓半島에서 600mile이나 떨어진 沖繩(Okinawa)에 머물고 있었다.

北緯 38°度線의 설정을 U. S. S. R에 통고하여, U. S. S. R軍의 進駐限界를 못박기는 하였으나, 南韓의 실정에 비추어 너무나 빠른 感이 적지 않았다.

美軍 進駐의 遲延은 南韓政情의 過渡的인 紛糾를 더욱 助長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5년 9월 8일, 美軍 先遣部隊가 仁川에 상륙하고, 그 제24군단장 John R. Hodge 중장이 駐韓美軍司令官으로, A. V. Arnold 소장이 軍政長官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太平洋美陸軍 總司令官이며 聯合軍最高司令官인 Douglas MacArthur 원수는 9월 2일, 日本 東京灣의 戰艦 Missouri호 艦上에서 日本軍의 無條件降伏을 접수한 다음, 聯合軍最高司令部의 一般命令 제1호를 공포하였다.

이 一般命令 제1호는 Asia의 각 전선에서 日本軍의 항복을 수락하고, 그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聯合國間의 地域的 분포를 밝힌 것인데, 要旨 다음과 같은 제2항 및 제3항으로써 비로소 北緯 38°線에 의한 韓半島의 分割進駐가 공포되었던 것이다.

『제2항……滿洲·北緯 38°線 以北의 韓國·樺太 및 千島列島에 있는 日本軍의 先任指揮官과 모든 陸上·海上·航空 및 補助部隊는 Soviet 極東軍 最高司令官에게 降伏할 것(中略).

제3항……日本大本營·日本國本土에 인접한 諸島嶼·北緯 38°線 以南의 韓國·琉球諸島·Philippine 諸島에 있는 日本軍의 先任指揮官과 모든 陸上·海上·航空 및 補助部隊는 美合衆國 太平洋陸軍總司令官에게 降伏할 것(中略).』

#### (1) 美軍 進駐 이전의 국내사정

軍國主義 日本의 敗戰이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1945년 8월 12일부터 朝鮮總督府當局



〈聯合軍入城의 소식을 듣고 서울驛에 雲集한 서울市民들〉

은 無條件 降伏後의 治安유지에 관하여 宋鎮禹 및 呂運亨에게 협조를 의뢰하였다.

그들이 降伏後의 治安유지를 우려한 것은 주로 在韓 日本人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民族主義지도자인 宋鎮禹와 社會主義者인 呂運亨은 見解를 각기 달리하였다.

前者의 경우, 『① 倭政이 완전히 철폐할 때까지 참고 있어야 하며, 總督府가 聯合軍에게 政權을 인도하기 전에는 獨立政權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輕舉하지 말 것이며, ② 在重慶의 臨時政府를 正統으로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朝鮮總督府의 요청에 不應하였다.

後者의 경우는 『(1) 日帝는 이미 Potsdam 宣旨에 의하여 無條件降伏이 결정되었으니만큼 朝鮮民族이 自主·自衛的으로 당면의 保安·民生 문제를 위시하여 主權확립에 邁進하여야 할 것이며 ② 國內에서 敵과 抗爭하던 人民大衆의 革命力量을 중심으로 内外地 革命團體를 總망라하여 獨立政府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朝鮮總督府의 협력요청에 應하였다.

呂運亨은 結局, 1948년 8월부터 그가 중심이 되어, 국내의 進歩的 民族主義者와 온건한 社會主義者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오던 建國同盟을 基盤으로, 일부 共產主義者와 合作하여 朝鮮建國準備委員會(建準)을 조직하여 獨走하게 되었다.

建準은 1945년 8월 15일에 발족하였는데, 祖國光復과 더불어 全國到處에 自然發生的으로 조직되었던 治安委員會를 흡수하여, 8월末까지 145개소의 支部를 설치하는 등, 美軍進駐 이전에 있어서의 唯一한 政治團體로서의 求心力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建準의 구성요소는 不遠하여 暗鬪와 龜裂을 면치 못할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呂運亨을 중심으로 하는 建國同盟의 社會主義勢力과 安在鴻을 중심으로 하는 民族主義勢力, 그리고 李英과 鄭栢 등의 長安派 共產主義勢力과 朴憲永의 再建派 共產主義(南朝鮮 勞動黨의 前身) 勢力 등이 糾合된 政治團體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再建派 共產黨은 長安派를 瓦解시켜 朝鮮共產黨을 再建하는 등 左派自體의 암투까지도 벌이는 한편, 建準까지도 蠶食하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民族勢力이 脫退함으로써, 建準의 解散論까지 대두하였다.

이에, 朴憲永派의 共產黨과 建準 내부의 解放派가 주동이 되어, 人民共和國이라는 단체로 變身함으로써 建準은 10월 7일에 정식 해산하고, 建國同盟은 人民黨으로, 共產黨은 共產黨대로 발족하면서 合作하여 朝鮮人民共和國이라는 國號까지 내걸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들은 中央人民委員의 身출에 있어서, 李承晚·金九·金奎植·申翼熙·曹晚植·金性洙 등 海內외의 民族陣營指導者들의 이름까지도 盜用하였는데, 美軍이 서울에 進駐한 뒤에도 政府然한 행세를 하였으므로 美軍政當局은 10월 10일의 Arnold 聲明과 10월 16일의 Hodge 聲明으로써 이 左翼一色의 단체를 정식 否認하였다.

한편, 美軍의 진주와 臨時政府의 환국까지 超然한 입장을 견지하고, 汎民族勢力의 집결을 목적삼고 있던 宋鎮禹系의 民族主義勢力은 9월 1일에 大韓民國臨時政府 還國歡迎會를 조직하는 동시에 國民總意의 집결을 위한 國民大會準備會를 결성하였으며, 金性洙·金俊淵 등과 함께 9월 16일에 韓國民主黨의 創黨을 主導하였다.

## (2) 美軍政의 發足

1945년 9월 9일, 軍國主義 日本의 朝鮮總督 阿部信行(Abe Nobuyuki)가 美國太平洋方面 陸軍總司令官 MacArthur 원수의 대리인 駐韓美軍司令官 Hodge 중장에게 항복한 바로 그 때부터 南韓地域에 있어서의 美軍政이 시작되었다.

MacArthur 원수는 이날로 「朝鮮人民에게 告함」이라는 布告 제1호, 제2호, 제3호를 발표하여, 軍政施行의 긴급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밝혔다.

즉, 제1호는 38°線以南의 行政權이 당분간 MacArthur 司令部의 軍政下에서 시행된다는 것으로서, 朝鮮人民共和國은 물론 大韓民國臨時政府마저도 主權行使機關으로 인정치

않았던 것이며, 1947년 5월 17일에 공포된 南朝鮮過渡政府를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大韓民國政府수립을 선포함으로써 美軍政을 종결케 하였다.

布告 제2호는 軍政下에 있어, 韓國人은 軍政廳에 소속된 法廷에 의하여 재판받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3호는 軍政下에 있어 法貨는 朝鮮銀行券과 美軍票(MPC)로써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정한 對韓政策의 기준없이 軍政을 시행하기 시작한 Hodge 중장은 당초에 總督統治의 잠정적인 연장까지도 고려하는 등, 民心의 沸騰을 일으키다가 9월 12일에 阿部總督을, 14일에 政務總監이하 각 局長을 각각 해임하고, 18일에 軍政廳 각 局長을 美軍將校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朝鮮의 福利만을 念願하는, 愛國心에 불타는 韓國人의 솔직한 進言과 충고를 받는 한편, 韓國人이 요구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金性洙·宋鎮禹 등 11명의 指導級 人士를 軍政長官의 顧問으로 임명하였으며, 軍政廳 行政機構의 각 部署에 美軍人과 韓國人을 함께 등용하는 兩部長제도도 채택하였다.

이처럼 軍政廳의 機構를 정비하는 동안 美軍 각 부대는 開城(9.13)—釜山(9.17)—淸州(9.17)—春川(9.20)—大邱(9.23)—全州(9.29)—光州(10.5)—大田(10.21) 등 各地에 駐留완료하였다.

### (3) 政黨의 亂立과 共產黨의 跋扈

그런데, 美軍政當局은 布告令에 저촉되지 않는 限, 言論과 集會 및 結社의 自由를 인정하고, Hodge 중장 자신이 韓國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각 政治團體의 지도자들과 週 2회의 정기회견을 희망하였다.

이처럼 集會 및 結社의 自由가 보장되자, 雨後竹筍格으로 수많은 政黨 및 團體의 看板을 내어걸어 1945년 11월 1일 현재 美軍政廳에 등록된 그 數가 무려 250여에 달하는 亂立相을 나타내었다.

祖國光復 이후, 9월 8일의 美軍進駐까지는 대체로 左右翼의 세력집결이 基礎인 제1단계를 마친 感이 있었다.

즉, 社會主義的인 建國同盟이 재빨리 建準을 조직하여 8.15 직후의 南韓政界를 장악하였으며, 이에 便乘한 共產主義者들이 再建派와 長安派로 分立하면서도 朝鮮共產黨의 再建을 서둘러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民族主義 지도자들도 土着保守 세력을 기반으로 徐徐히 韓國民主黨의 發起를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建準발족으로부터 人共이 共產黨에 의하여 捏造될 때까지 左翼의 獨步期를 이루었으며, 이에 더하여 美軍政當局의 자유보장이 약속되자 群小政黨의 亂立은 政局을 더욱 混迷속으로 몰아 가기만 하였다.

이 亂立相은 우리 民族이 36년만에 自主獨立을 갈망하는 나머지 빚어진 현상이라기 보다는 不健全하게 생긴 政黨과 團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群小政黨 및 團體들은 개별적으로 存立할 意義와 能力이 稀薄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民族主義(右翼) 지도자들은 政黨統一 및 行動統一으로써 政局의 混迷 속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右翼의 중심을 이룬 政黨은 韓國民主黨이었다.

建準의 左傾과 獨走를 견제하고 대처할 목적으로 高麗民主黨(1945. 8. 18 發起)과 朝鮮民族黨(8. 28 發起)을 비롯하여 韓國國民黨(9. 4 發起)과 國民大會準備會(9. 7 發起) 그리고 臨政과 聯合軍 歡迎準備委員會 등 右翼의 各政黨이 合黨하여, 臨政支持를 표명하면서 1945년 9월 16일에 결성한 單一政黨이었다.

이에 앞서, 同黨의 發起總會는 9월 8일에 發起人 1천여 명의 名義로써 人共(9월 6일, 建準內의 일부 共產主義者 및 同調者들에 의하여 선포된 團體) 打倒를 결의하였으며, 9월 16일의 創黨大會에 있어서는 『朝鮮民族의 自主獨立國家 완성을 期함과 동시에 民主主義의 政體를 수립한다……』라는 綱領 및 政策을 채택하고, 李承晚·金九·李始榮·徐載弼·吳世昌 등 7명을 黨領袖로, 黨首格인 首席總務에 宋鎮禹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建準을 蠶食한 朝鮮共產黨(朴憲永派)은 이른바 人民共和國를 선포하고, 進步的인 民主主義國家의 건설이라는 美名下에 共產主義政權의 수립을 서둘렀다. 朝鮮共產黨은 世稱 再建派로 알려진 朴憲永系列의 共產黨이 白體의 派閥鬭爭을 전개한 끝에 世稱 長安派 共產黨을 제압함으로써 1945년 9월 11일에 발족하였다. 그 裏面에는 北韓에 進駐한 U.S.S.R 軍 政治指導部의 策動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이 밖에도 朝鮮人民黨 및 南朝鮮新民黨의 左翼政黨이 있었는데, 朝鮮共產黨은 3黨의 合黨을 主導하여, 1946년 11월 23일에 南朝鮮勞動黨(南勞黨)으로 탈바꿈 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이미 地下로 潛跡한 非合法的인 集團으로 暴動과 破壞路線을 치달고 있었다. 왜냐 하면 1946년 9월 7일을 期하여 美軍政當局이 共產黨幹部에 대한 逮捕令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 逮捕令은 南勞黨의 前身인 朝鮮共產黨이 美軍政의 布告令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韓의 民主化 形成과정을 沮害하고, 社會不安과 혼란을 피하는 暴力 및 破壞工作을 일삼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다.

美軍政廳 公報局의 발표에 의하면, 共產黨은 精版社 僞幣사건(1946. 5. 4~5에 檢舉)을 비롯하여, 鐵道(7. 24~30)·出版(9. 25~10. 3)·電信(9. 28~10. 4)·電話(9. 30)·電氣 및 電車(10. 1) 등 各 勞組의 總罷業을 선동 操縱하였으며, 심지어는 學閥에까지 손을 뻗혀, 國大案反對의 學閥亂動까지도 惹起케 하였다.

또한, 大邱暴動사건(10. 2~3)을 導火線으로 하여, 警察部長 趙炳玉의 暗殺未遂(10. 16)·開城 및 延白 暴動사건(10. 20)·廣州警察署放火사건(10. 20)과 全南의 光山—長城—和順

賓城—海南—咸平—羅州—靈光—潭陽—長興—靈岩—務安 등 各 警察署 습격 사건(10.31)을 동시에 일으키는 暴動을 恣行하였다.

이러한 共產黨의 暴動은 1946년 11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1947년에 들어서서는 右翼團體에 대한 衝突사건을 煽動하였다.

즉, 「國大案」反對의 再開(2.3)를 비롯하여, 永登浦에서의 大韓勞總과 全評의 충돌사건(2.7) 그리고 3.1節의 左右翼 충돌사건(3.1)과 이른바 南朝鮮解嚴暴壓反對鬪爭委員會의 指 습으로 2월 22일에 惹起된 南韓全域의 罷業 및 盟休를 배후조종하였던 것이다.

共產黨의 暴力路線이 이처럼 熾盛하자, 美軍政當局은 마침내 斷乎한 조치로써 南韓全域에 걸쳐 2,076명의 南勞黨煽動分子를 검거하였는데, 朴憲永을 비롯한 幹部들은 北韓으로 越北하거나 地下로 潛跡하여, 1948년 8월 25일의 海州에서의 北傀總選舉를 전후하여서는 全黨적으로 大舉 越北하였다.

地下로 潛跡한 南勞黨 殘留分子들은 계속 北傀와의 긴밀한 連繫下에 濟州島暴動(1948.4)과 麗水 및 順天叛亂(1948.10)을 일으켰다.

이 때에는 이미 大韓民國의 政府가 수립된 다음의 일이었는데, 政府는 1949년 10월 19일을 期하여, 南勞黨 및 前民主主義民族戰線 傘下의 133개 政黨·團體에 대한 登錄取消處分으로써 全左翼勢力의 뿌리를 芟除하여 버렸다.

#### (4) 海外指導者의 還國과 政情의 새로운 局面

36년만의 祖國光復을 맞았으면서도 民心은 암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38°線으로 因한 國土兩斷에 뒤이어 群小政黨의 亂立으로 인한 政情의 混迷, 그리고 共產黨의 跋扈로 인한 不安한 世情, 그 모든 것이 光復의 歡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思想과 主義를 초월하여 汎國民의인 單一政體를 摸索코자 左右合作의 움직임이 政界의 일부에서 싹트기는 하였으나, 그 모두가 結實하지 못하였다.

臨政의 法統을 존중하는 右翼政黨의 民族主義의 政見과 北韓의 共產化에 呼應하려는 左翼 共產黨의 共產主義의 策動이 서로 容納되지 않는 가운데, 政情의 새로운 局面은 金九를 비롯한 臨政要人과 李承晚의 還國에서 기대하는 수 밖에 없었다.

李承晚은 1945년 10월 16일에 還國하였다. 그의 還國은 美軍政施行에 어려운 문제들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美國務省의 非協調로 말미암아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獨立을 위하여 超黨派의으로 大同團結하자.」라고 呼訴한 歸國 第1聲은 全國民의 환호를 받았으며, 이미 國內 左右翼政黨의 主席으로 추대되고 있었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하는 各政黨의 求心의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朝鮮共產黨의 朴憲永마저도 직접 방문하여 黨首취임을 요청하였다.





〈李承晚의 還國 演說(1945.10.16)〉

海外에 亡命하여, 祖國의 光復을 領導하던 海外指導者로서의 地位와 名聲을 내세우려는 各 政黨의 競合이었으나, 李承晚 自身の 政見은 처음부터 明白하였다.

즉, ① 38°線의 철계 ② 信託統治制의 반대 ③ 自主獨立의 획득 ④ 全政黨의 劃一的인 통합 등으로 一貫하였다.

1945년 10월 23일, 左右翼의 政黨대표 200여명이 서울 朝鮮호텔에서 全政黨을 규합하는 대표기구로서 獨立促成中央協議會의 發起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李承晚을 會長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10월 20일)에 美國務省의 極東담당 要人이 美國 外交協會席上에서 『韓國에 대하여 信託統治를 실시할 可能性이 있다.』라고 示唆함으로써 國內의 여론이 들끓고 있었는데, 11월 2일에 李承晚은 各政黨·團體의 代表者會議을 소집하여, ① 朝鮮의 즉시 독립 ② 38°線의 철계 ③ 信託統治 절대 반대 등의 決議文을 聯合國 특히 美·蘇 兩國政府에 발송키로 하였다.

祖國光復後, 左右翼이 처음으로 合意하여 발표하는 公同된 意思表示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共產黨(再建派)은 하룻만인 11월 3일에 『……右翼團體의 주장만 반영되고……朝鮮人民의 民族의 敵愾心을 美·蘇 聯合軍에게 돌려 排他主義로 흐르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2일의 決議文을 반대하였다.

還國 직후에는 超黨의인 大義을 위하여 左翼系列에 신중하던 李承晩도 朝鮮共產黨과의 袞別을 작정하고, 共產黨이 제의한 人共 主席을 거부(11.7)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共產黨에 대한 나의 觀念」이라는 放送을 통하여, 『共產主義者들은 共產政府의 수립만을 위해 각 방면으로 煽動과 騷擾를 일삼으며, 韓國의 獨立에 방해를 가져오는 者들이니, 國民各白가 자각하여 선동에 誘惑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警告하였다.

이에 대하여 朝鮮共產黨(再建派)을 비롯한 左翼系列의 團體가 선동적인 反駁 성명을 거듭하게 되자, 李承晩은 12월 17일에 「共產黨에 대한 나의 立場」이라는 방송 제목으로 결정적인 단안을 내렸다. 『韓國은 현재의 형편상 共產黨을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共產黨의 極烈分子들이 共產名目을 憑藉하여, 國民을 기만, 협박하며, 共和國을 조작하여, 國民의 分裂을 획책하기 때문이다. ……』

李承晩은 본시 左右翼의 세력을 총망라하여 獨立促成中央協議會로써 最高政治指導機構를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11월 17일의 이 放送으로 左翼勢力을 완전히 배제키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2월 23일에 右翼政黨만이 참가한 獨立促成中央協議會(獨促中協)가 정식 결성되었다. 한편, 金九를 비롯한 在重慶 臨時政府(臨政)의 要人(金奎植·李始榮 등)은 1945년 11월 23일에 還國하였다.

이 무렵의 國內정세는 李承晩 중심의 獨促中協이 朝鮮共產黨(再建派)의 非妥協으로 政黨統一의 노력을 挫折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還國한 臨政要人(1945. 11. 23)>

그런데, 共產黨은 臨政의 遷國지전인 11월 20일에서 22에 걸쳐, 이른바 人民委員會 및 全國代表者大會를 열어 人共의 基幹을 구축함으로써 臨政과는 관계없이 共產黨의 일방적인 政權수립을 위한 主導權장악을 획책하고 있었다.

共產黨은 臨政이 遷國한 뒤에도 28일에 『民族統一問題는 民族統一戰線의 結成, 혹은 海外 政黨의 結核에서만 완성될 수는 없고, 대중단체 즉, 全評·全農·靑總·婦盟 등의 총참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統一政府의 수립도 政黨의 首領 혹은 個人간의 協議로 組閣하는 것은 不可한 것이며, 全 대중단체를 망라한 총의에서만 통일된 정부가 성립될 것이다.』라는 要旨의 성명으로 臨政에 대한 挑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亡命政府가 일종의 臨時政府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分裂을 助長하는 행동이다.』라고 臨政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 라. 韓半島 統一에 대한 美·蘇의 對立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北韓에 대한 U. S. S. R軍의 軍政시행과 南韓에 대한 美軍의 軍政시행은 38°線을 경계로 하여, 判異하고도 對照的인 두 갈래의 政情을 빚어내고 있었다.

즉, U. S. S. R軍은 北韓進駐와 동시에 金日成(金成柱)라는 特定人物을 지정하여 그를 魁首로하는 共產體制를 하루 속히 定立하기 위한 일정한 軍政시행의 路線을 뚜렷하게 具體化하고 있었으며, 美軍은 定見없는 軍政시행의 시초부터 民主主義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共產黨의 跋扈까지도 빚어내게 하는 不透明한 정책으로써 南韓政局의 混迷相을 收拾하지 못하고 있었다.

Hodge 중장을 비롯한 美軍政當局의 要路가 韓半島의 내일을 透視하는 遠大한 計策을 軍政面에 처음부터 반영하였더라면, 左翼勢力의 跋扈를 早期에 剪截하고, 右翼勢力의 統合과 政局의 安定을 조속히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兩者의 이러한 政見의 差異로 말미암아, 韓半島의 統一에 대한 見解도 스스로 對照的인 樣相을 지니게 되었다.

즉, Moskva 3相會議의 韓國信託統治案을 비롯하여, 제1차 및 제2차 美·蘇 共同委員會(共委)의 進程을 政略的으로 이용하면서 金日成의 共產獨裁體制를 서둘러,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武力수단으로써 韓半島를 赤化하려던 U. S. S. R의 재빠른 兇謀에 比하여 美國은 近視眼的인 現狀수습으로 左右翼의 分別없는 微溫的인 對韓政策을 彌縫하였을 뿐이었으니 이것이 38°線 以南에 第二의 38°線을 눈에 보이지 않게 劃定하는 根本要因이 된 것이다.

##### (1) Moskva 3相會議의 信託統治案

Cairo 宣言(1943. 12. 1)과 Potsdam 宣言(1945. 7. 26)으로 韓民族의 獨立이 公約되었음

에도 不拘하고, Cairo 宣言중의 “in due course(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次後의 국제협약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MacArthur 司令部의 一般命令 제1호로써 美·蘇 兩軍의 分割進駐와 그 軍政下에 있는 韓國民族은 그 최초의 국제협약인 Moskva 3 相會議의 결정에 당면하였다.

그런데, 1945년 12월 27일에 美國務長官 James F. Byrnes, 英國外相 Aneurin Bevan, 소련外相 V. M. Molotov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문제를 討議하는 자리에서 韓國문제를 결정하여 28일에 3개국 首都에서 동시 발표된 사항은 뜻밖에도 美·英·中·蘇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信託統治로써 韓國獨立의 준비단계로 삼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Moskva 3相會議 決定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朝鮮을 獨立國家로 再建設하며 朝鮮을 民主主義의 原則下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可及的 速히 長久한 日本의 朝鮮統治의 殘餘를 清算하기 위하여 朝鮮의 工業·交通·農業과 朝鮮人民의 民族文化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臨時朝鮮民主主義 政府를 수립할 것이다.

② 朝鮮臨時政府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適宜한 方策을 연구조정하기 위하여 南朝鮮 美合衆國 占領軍과 北朝鮮 蘇聯邦 占領軍의 代表者들로 共同委員會가 설치될 것이다.

그 提案作成에 있어 共同委員會는 朝鮮의 民主主義 政黨 및 社會團體와 협의하여야 한다(後略).

③ 朝鮮人民의 政治的·經濟的·社會 進步와 民主主義的 自治發展과 獨立國家의 수립을 원조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朝鮮臨時政府와 民主主義 團體의 參與下에서 共同委員會가 수행하되 共同委員會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信託統治(Trusteeship)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美·英·蘇·中 諸國政府가 공동참작할 수 있도록 朝鮮臨時政府와 협의한 後 제출되어야 한다.

④ 南·北朝鮮에 관련된 긴급한 諸問題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南朝鮮 美合衆國管區와 北朝鮮 蘇聯管區의 行政·經濟面의 恒久的 均衡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朝鮮에 주둔하는 美·蘇 兩軍司令部代表로써 會議를 소집할 것이다.』

## (2) 右翼의 反託鬭爭과 左翼의 贊託으로의 豹變

위에서 引用한 「朝鮮문제에 관한 Moskva 3相會議의 決定書」가 國內에 알려지자, 右翼의 「信託統治 決死反對」와 左翼의 「3相決定 絶對支持」로 政局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바꾸어 말하면, 左右翼의 대립이 「贊託」과 「反託」의 대립으로 變貌한 것이었다.

그런데 左翼의 信託統治案에 대한 反應은 처음부터 贊託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었다.

朝鮮共產黨을 비롯하여 모든 左翼系의 政黨 및 團體들도 일제히 右翼과 步調를 맞추어



<信託統治의 決死反對를 외치는 示威行進(1945. 12. 29)>

反託意思를 公式 表明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심지어 左翼系列만 따로 소집하여 이른바 反芟共同鬪爭委員會라는 임시조직까지 구성하면서 反託의 氣勢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1946년 1월 2일에 千萬뜻밖에도 돌연히 U.S.S.R側의 指令에 盲從함으로써 贊託이라는 賣國看板을 내걸기 시작하였다.

즉, 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영똥하게도 『Moskva 決定은 Cairo 決定을 더욱 발전 具體化시킨 것이다. 이러한 國際的 決定은 오늘날 朝鮮을 위하여 가장 正當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3國의 友誼的 원조와 협력(信託)을 흡사 帝國主義的 委任統治制라고 歪曲하는 所謂 反信託統治運動은 朝鮮을 위하여 극히 위험천만한 결과를 나타낼 것은

必然的이다. 하루 속히 民主主義의 原則「親日派·民族叛逆者·國粹主義者를 제외」을 내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朝鮮民族統一戰線을 완성함에 全力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해괴망측한 詭辯으로써 贊託으로 豹變하여, 擧族的인 反託戰線에 反旗를 들고 同族相殘의 血刀를 뽑아들었던 것이다.

이로써 右翼은 非常國民會議로 團合하고, 左翼은 이른바 民主主義民族戰線(民戰)으로 野合하여, 政局分裂의 熱度는 갈 수록 더욱 苛烈하기만 하였다.

右翼의 非常國民會議는 臨政을 중심으로 反託을 關鍵키 위하여 1946년 2월 1일에 소집되어, 韓國民族의 獨立方案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信託統治를 배격하는 自主的인 이 獨立方案은 國內외의 各界 代表로써 非常政治會議를 개최하여 過渡政權을 수립하고, 다시 國會에 해당하는 國民代表大會를 구성함과 아울러 憲法제정과 正式政府를 수립하는 節次를 明示하고 있었다.

이 會議는 또한 最高政務委員會를 구성하여 李承晩과 金九 등 政黨 및 各界 代表人士 28명을 政務委員으로 선출하였는데, 2월 14일에는 美軍政의 諮詢機關인 南朝鮮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으로 改編하여 일종의 立法機關의 역할을 하였으며, 李承晩이 議長에, 金九 및 金奎植이 副議長에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非常國民會議는 2월 17일에 民族統一本部 및 獨立促成國民會議와 통합되어 國民議會로 改稱하고, 5월 29일에는 다시 大韓國民會(主席: 李承晩, 副主席: 金九)로 改編하였다.

한편, 左翼의 野合體인 이른바 民戰은 朝鮮共產黨과 人民黨의 共同으로 1946년 2월 1일에 『過渡的인 臨時國會의 역할을 하며, 美·蘇 共委의 臨時的인 民主政府 조직에 있어 朝鮮民族의 유일한 正式代表이다.』라고 幟를 놓고, 金日成·朴憲永·金科奉 등 南北韓의 左翼分子들을 주어모은 準備委員會로써 15일에 결성하였는데, 左翼의 非常國民會議와 民主議院을 正面으로 공격하는 등, 射天의 獨拔과 民族의 分裂抗爭을 노리는 逆謀를 우선 反民族的인 贊託으로 나타내었다.

### (3) 제1차 美·蘇 共委의 決裂

國內政局의 分裂을 助長한 信託統治案에 대하여, 右翼의 「決死反託」과 左翼의 「絶對贊託」이 民主議院과 民戰의 대립으로 飛火하여 政情이 紛紛轉轉한 가운데, 美·蘇 兩軍司令部는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 사이의 예비회담을 거쳐, 3월 20일에 제1차 美·蘇 共委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美軍측의 首席代表는 A. V. Arnold 소장이며, U. S. S. R軍측의 首席代表는 T. F. Shtykov 중장이었다.

그런데, 兩側의 代表단은 韓國民族의 피어린 反託喊聲에도 아랑곳 없이, Moskva 決定



〈美·蘇 共委의 질자를 토의하는 美側 Hodge 중장(左)과 蘇側 Shtykov 중장(右)〉

대로 시행하려는 共委開催의 목적에만 共鳴하였지만, 根本的인 見解와 具體的인 方案에 있어서는 뚜렷한 異質性을 開會劈頭부터 나타내었다.

즉, 美國측은 言論의 自由를 최대의 목표로 하여, 反託이든 贊託이든간에 그 意思표시는 民主社會에 있어 個人的 自由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美國의 基本정책과 相馳되는 共產黨의 활동마저 쉽사리 허용하고 말았으므로, 이로 因하여 南韓에 있어서의 政局의 혼란을 더욱 加速化하는 結果가 되었던 것이지만, Moskva 決定의 실천에 있어서도 어느 特定한 소수의 政黨에게 置重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共產主義의 正體를 看破하지 못한 멍청한 머리 所有者의 白日夢의 一場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U.S.S.R측은 人民委員會 등 U.S.S.R式 體制를 根本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左翼系列에만 肯定一邊倒인 태도로 一貫하였다.

즉, Moskva 決定을 지지하는 政黨·團體만을 토의의 대상으로 고집하면서, 反託의 右翼系를 토의대상에서 排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끝내는 共委를 決裂케 하는 原因을 計劃的이며 意圖的으로 조성하였던 것이다.

美·蘇 共委의 개최에 관한 兩側의 基本 방침은 要旨 다음과 같은 兩側代表의 聲明 및 演說에서 밝혀져 있다.

## ◇ 美國代表 Hodge 證장의 성명(1946. 3. 11)

『……美軍의 목적은 韓國에 言論·集會·信仰·出版의 自由를 수립하여 영구히 지속시키자는데에 있다. ……이들 自由는 美國 民主主義의 근본 정신이다. ……韓國國民의 大多數가 이 自由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며, 共委 美側代表가 韓國 사람이 완전히 통일된 국민으로서 自由를 享受하도록 助力코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中略).

Moskva 성명에 발표된 것과 같이 共委의 목적은 韓國臨時政府의 수립을 원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委의 임무를 수행키 위한 제1요건의 하나는 韓國을 經濟的·政治的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이 美側 代表의 의견이다. (中略)……韓國의 臨時政府수립을 원조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特別團體나 左·右翼間 어느 便을 가려서 政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요, 다만 大多數의 의견에 부합한 政府를 수립하자는 것이 美國側의 목적이다. (後略)……』

## ◇ U. S. S. R代表 Shytikov 證장의 연설(1946. 3. 20)

『(前略)……朝鮮을 民主主義的 獨立國家로 창설하려는 위대한 목적은 全朝鮮人民의 광범한 정치활동을 전제시키고 있다. 朝鮮人民은 그들의 民主主義的 政黨과 社會團體의 人民委員會를 民主主義的 自治의 한 機關으로서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人民의 내부생활을 素的으로, 漸進的으로 民主主義化하는 路程에 있어서, 朝鮮內에 民主主義制度를 창설하려는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反動的 反民主主義的 黨派와 일부 分子의 맹렬한 반항으로 齟齬된 중대한 難關이 존재하고 있다. ……장래의 朝鮮臨時民主政府는 Moskva 外相會議의 決議를 지지하는 모든 民主主義 政黨·團體의 광범한 統一을 기초로 하여 창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政府만이 과거 日本의 政治·經濟생활 지배의 殘滓를 완전히 철폐하고 國內의 反動的 反民主主義的 分子에 대하여 決定的 鬭爭을 개시하며, 經濟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실행하며, 朝鮮人民에게 政治的 自由를 부여하고, 極東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後略)……』

이와 같이 黑白不相容으로 엇갈린 주장으로 시작된 共委는 처음부터 協議對象이 될 政黨 및 團體의 선택문제로 인하여 難航을 거듭하였다. 특히, 共委 共同聲明 제5호(1946. 4. 18)의 規程는 右翼에게 중대한 결단을 필요케 하였다.

왜냐하면, 共委의 協議對象이 될 政黨과 社會團體는 문제의 信託統治條項을 포함한 Moskva 決定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宣言書에 署名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左翼系는 朝鮮共産黨 및 北朝鮮人民委員會를 筆頭로 하여 속속 署名된 宣言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右翼系는 이 宣言書에 署名하는 것은 信託統治의 수락을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두 갈래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臨政의 韓國獨立黨(韓獨黨)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韓國民主黨(韓民黨)은 『臨時政府 수립에 應한 다음 信託문제가 토의될 때에 반대



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臨時政府 수립에는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立場을 취하였다.

결국, 李承晩도 『反託·贊託을 막론하고 會議에는 참가하고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히자 右翼 일부의 경향이 宣言書 제출로 기울게 되었으며, 특히 4월 23일의 Hodge증장의 성명과 27일의 Arnold 소장의 성명으로 『署名이 곧 贊託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反託의 조건을 留保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약속되자, 5월 1일에 非常國民會議와 韓民黨 및 韓獨黨 등 右翼系 20여 단체가 일제히 宣言書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美·蘇 共委는 5월 1일의 共同聲明 제7호로 各 政黨·團體에 대하여 試問問의 答申을 요구하였는데, 각기 軍政管轄 地域內에서 그 對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困難에 부딪혔다.

즉, 美國측이 선정한 南韓의 25개 政黨·團體에 대하여 U. S. S. R측이 트집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非常國民會議와 韓獨黨 및 韓民黨을 비롯하여 民戰과 朝鮮共產黨 그리고 朝鮮人民黨과 天主教에 이어 女子國民黨과 獨促中協 그리고 國民黨과 天道教 및 朝鮮基督教青年會全國聯合會 등 左·右翼의 주요 政黨·團體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反託運動을 추진하는 단체나 지도자를 일체 대상삼을 수 없다는 것이 U. S. S. R측의 주장이며, 근본적인 의사표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 美國측의 주장이었다.

바꾸어 말하여 U. S. S. R측은 『① 南韓측의 政黨·團體 名單에는 6개의 宗教團體와 極右 團體등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② 60만명의 勞組員으로 구성된 全評과 30만명의 女盟, 그리고 65만명의 全朝鮮民主青年同盟團體 및 3백만 이상의 農民을 대표하는 農民組合 등의 參加權이 박탈되어 있고 ③ 協議對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3개 뿐이다』는 생트집이었다.

이에 대하여 美國측은 『① 北韓측 名單에는 民族主義의 右翼團體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Shtykov가 주장하는 南韓의 左翼團體들은 共產主義 極烈分子들이 實數도 없이 一方의으로 내세우려는 破壞的인 暴力團體들 뿐이다.』라고 응수하였다.

이처럼 極端적으로 맞선 雙方의 주장이 妥協점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된다하여도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美國측 대표는 이 문제를 토의하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韓半島의 통일을 障害하는 38°線의 殘廢문제부터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U. S. S. R측 대표는 이것마저 拒否하였다.

이에, 美國측 대표는 不得已 無期休會를 제의하고, U. S. S. R측 대표단은 1946년 5월 9일에 平壤으로 철수함으로써, 제1차 共委는 개최 50일만에 결렬되고 말았으니, 이로부터 南韓政局은 또 한번 커다란 轉換點에 서게 되었다.

즉, 民族陣營(右翼)을 대표하는 3領袖 — 李承晩·金九·金奎植 — 의 指導路線이 제1차 共委의 決裂을 계기로 갈라지게 된 것이었다.

李承晚은 『美·蘇 共委의 전망이 模糊한 지금, 南韓만이라도 自律政府를 즉시 수립하여 獨立을 爭取하여야 한다.』라는 單獨政府의 수립을 목적으로 獨立促成國民會(獨促)을 중심으로 하는 民族統一總本部를 결성하였다.

臨政의 金九는 反託을 名分으로 固守하면서 統一政府의 수립을 추진키 위하여, 北韓과 南北에 걸친 臨政의 法統精神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民主議院의 副議長(議長인 李承晚의 辭任으로 議長代理)인 金奎植은 極左와 極右의 偏向路線을 배제하고, 中間派 勢力을 규합하는 左右合作으로 美·蘇 共委의 再開를 촉구하였다.

한편, 共產黨의 朴憲永派는 美·蘇 共委의 再開를 표면상으로 촉구하면서도 親蘇反美의 暴力路線을 전개하여, 南韓 전체의 혼란만을 일삼았다.

이처럼 右翼指導路線의 分派과 左右對立의 深化만을 남긴 제1차 美·蘇 共委의 결렬은 美國과 U. S. S. R의 韓半島에 대한 政策의 差異點을 더 한층 露呈시켰을 뿐이었다.

즉, U. S. S. R은 信託統治를 규정한 Moskva 決定을 실시하기 위한 共委이니만큼 反託을 주장하는 右翼의 政黨과 團體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臨時政府의 수립과정에도 참여치 못하게 하여야만 된다는 주장으로써 애당초부터 韓半島에 共產主義體制의 改權만을 수립코자 하는 본래의 野心을 如實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비하여, 美國측은 共委에 임하면서도 對韓政策의 貧困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여, U. S. S. R軍政의 궁극목적이 韓半島의 共產化에 있다는 야심의 正體가 共委에서 露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南韓政局의 조속한 定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百年河清格인 共委再開으로써 統諱적인 政局 수습만을 기대하였으니, 韓半島 문제의 해결은 遼遠할 수 밖에 없었다.

美國의 요청에 의하여 1947년 5월 21일에 제2차 美·蘇 共委가 역시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협의대상의 선정문제에 관한 雙方의 주장이 맞선채, U. S. S. R측의 「3相決定 固守」와 美國측의 「意思표시의 自由」라는 1년전 제1차 共委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가고 말았다. 非難과 反駁이 똑같은 爭點에서 제자리걸음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었다.

美國은 이 停滯된 共委의 進行을 打開하기 위하여, 새로운 案을 제기하였다.

1947년 8월 26일, 『U. S. S. R측의 주장은 自由意思표시라는 民主主義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하고, ① 停頓상태에 빠진 韓國統一-臨時政府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美·蘇·英·中 4大國이 9월 8일에 Washington에서 회담할 것. ② 普選法에 의한 선거로 南北을 각기 대표하는 立法機關을 설치할 것. ③ 이들 代表로 구성된 統一臨政이 占領軍의 철수와 完全獨立을 4大國과 협의키 하자는 등의 Moskva 決定에 代置할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U. S. S. R은 『美國의 새 제안은 南北의 分裂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怪異한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Washington 消息通은 이 새로운 제안이 U.S.S.R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韓國 문제가 UN에 상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하였다.

사실, 美國은 U.S.S.R의 거부태도가 확실하여지자, U.S.S.R과의 협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韓國 문제의 UN上程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처럼 UN으로 移管하게 된 韓國 문제를 共委에 더이상 회부하는 것이 無意味하므로 1947년 10월 21일에 U.S.S.R측 代表가 서울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써 再開 5개월만에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 (4) 韓國 문제의 UN으로의 移管

1947년 9월 21일에 UN總會의 運營委員會는 美國 務長官 George C. Marshall의 韓國獨立 문제에 관한 제안을 總會討議 사항에 挿入하자는 決議案을 12대 2로 可決하였다. 제2차 美·蘇 共委가 決裂(10월 21일)되기 전에 취하여진 美國의 새로운 조치에 대한 UN의 反應이었다.

Marshall은 이 UN의 可決에 앞서 『지난간 2년간에 美國은 Moskva 決定을 實踐하는 方途를 U.S.S.R과 합의하여 韓國을 獨立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韓國의 독립과업은 2년전에 비하여 조금도 進展된 바 없다.』라고 전제하고 『韓國 문제가 UN總會에 상정됨에 따라 信託統治를 거치지 않고 韓國을 독립시키는 방도가 강구되기를 바란다.』라고 聲明하였다.

이에 대하여 U.S.S.R의 UN代表인 Andrei Y. Vyshinskii는 『美國은 韓國에 대한 Moskva 협정에 의거하여 기정방침을 발전시켜, 이를 美·蘇·英·中 各국 정부의 공동 심의에 회부치 않고, 總會의 威信으로 일방적이며 결코 온당치 못한 행동을 은폐하려 한다.』라고 비난하고 『韓國 문제를 UN에 제의하는 것은 美·蘇間의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적극 반대한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런데, U.S.S.R은 韓國 문제가 美國의 제의로 UN總會에 上程되자, 「駐韓 全外國軍 철수」의 제안으로써 이에 응수하였으니 果然 쥐구멍 찾기의 名手임에 틀림 없었다.

이러한 經緯를 다시 追跡하여 본다면 같은 해 9월 29일의 일이었다. 이 날, U.S.S.R측의 요청에 의하여 再開된 美·蘇 共委 제61차 本會議에서 U.S.S.R측 首席代表인 Shtykov가 『1948년 初까지 美·蘇 兩軍이 韓國으로부터 철수하여, 韓國人 自體만으로 政府를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前提하고 『美國代表가 48년 初까지 全外國軍을 철수시키자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U.S.S.R軍도 美軍의 철수와 對等 같이하여 撤兵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UN總會의 U.S.S.R 대표인 Andrei Y. Vyshinskii도 『韓國 문제는 總會席上에서 토의될 근거가 없고, 美·英·蘇 3國間의 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며, 최선의 해결책은 美·蘇 兩軍의 철수 後에 韓國人 자신들의 손으로 韓國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撤軍주장은 國內外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는데, 右翼의 各界 各層에서는 『先決된 條件없이 내놓은 이 제안은 愚弄策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美·蘇兩軍의 철수는 統一政府가 수립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美國측도 『韓國인이 원치 않은 信託統治를 반대하며, 韓國獨立을 신속히 가져올 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闡明하면서 10월 17일에 『UN 臨時韓國委員團을 설치하여 48년 3월末까지 南北間의 自由選舉를 실시하고, 韓國에 國會 및 政府를 수립한 然後에 兩軍을 철수한다.』라는 要旨의 決議案을 제출하였다.

이에, UN의 政治安全保障委員會는 10월 30일, 『UN에 南北韓代表가 참석할 때까지 韓國문제 토의를 보류하자.』라는 U.S.S.R案을 否決시키고, 『UN에 韓國代表를 초청 할 것이 며 이의 추진을 위해 韓國에 파견할 UN臨時委員團을 설치하자.』라고 주장한 美國의 修正案을 41대 0(棄權 13, U.S.S.R블럭 6개국 포함)으로 可決하였다.

이처럼, 韓國문제를 중심으로 美·蘇 兩國의 대립이 尖銳化하는 가운데, 11월 4일에는 美國측이 『48년 3월 이내에 실시될 선거를 監視하고, 獨立政府를 수립한 다음 90일 이내에 美·蘇 兩軍철수를 감독하게 될 特別委員會를 설치하자.』라는 決議案을 UN政治委員會 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U.S.S.R측은 『駐韓 美·蘇 兩軍을 46년말까지 철수시키고, 韓國인이 外國의 간섭없이 자신의 政府를 수립토록 하자.』라는 動議案으로 맞섰다. 그러나 政治委員會의 表決 결과는 美國案을 46대 0으로 可決하고, U.S.S.R案을 20대 6으로 否決하였다.

이와 아울러, 政治委員會는 韓國에 파견할 特別委員會를 Australia·Canada·中國·El-Salvador·France·India·Philippines·Syria·Ukraina 등 9개 國으로 구성하자는 美國의 제의를 可決하였다.

이리하여 동년 11월 14일의 제2차 UN定期總會의 全體會議는 마침내 美國이 제안한, 信託統治를 거치지 않는 韓國 獨立과 UN監視下의 南北總選舉를 통한 韓國統一案을 43대 0으로 決議하였다.

이 決議에 따라, K. P. S. Menon을 議長으로 하는 UN韓國委員團(UN韓委, Ukraina 不參)은 다음해인 1948년 1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U.S.S.R은 UN韓委의 北韓訪問을 당초부터 拒否하는 非協調的인 태도를 고집하였다.

이 무렵, UN韓委의 着韓을 전후하여, 右翼指導層의 見解는 또 다시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金九 및 金奎植系는 『南北政治要人の 會談을 개최하여, 南北統一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統一總選舉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李承晚系는 종전부터의 南韓單獨選舉를 내세워 『南韓만이라도 우선 單獨選舉를 실시하여, 政府를 수립한 뒤에 漸進的으로 統一을 성취하자.』라고 주장하였다.

北韓訪問을 正面으로 拒否당한 UN韓國委도 南北韓에 걸친 統一政府 수립의 모색이 어

렵게 될 것임을豫見하고, 南韓만의 選舉 실시 與否에 關하여 UN小總會와 협의하였으니 동년 2월 6일의 일이었다.

이때 마침, Lake Success에서 개최중이던 UN小總會에 제시한 UN韓委의 韓國 문제 해결 4개 方案 — 世稱 Menon 4개 方案 — 은 다음과 같다.

『제1案……總選舉는 可能的 地域인 南韓에서만 추진한다.

제2案……制限된 목적을 위하여 즉,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人民代表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제3案……南北韓의 指導者會談과 같은 韓國의 民族的 獨立을 확립할 다른 可能性을 探究하며, 또한 최소한도로 그것을 注視한다.

제4案……UN韓委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 모든 문제를 總會에서 처리할 것』

동년 2월 26일에, UN總會는 『Menon 方案중 제1方案에 따라 UN韓委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可能地域인 南韓에서 總選舉를 실시하자.』라는 美國案을 31대 2(기권 11, 共產黨의 全票기권)로 可決하고, U. S. S. R이 주장하는 『兩軍 및 UN韓委를 철수시킨 뒤에 南北 總選舉를 실시하자.』라는 案을 否決하였다.

이로써 南韓의 美軍政 당국은 동년 3월 18일附로 總選舉法(1947년 6월 5일에 過渡立法議院에서 제정 통과된 法案)을 公布하였다.

그리고, UN監視下에 실시될 이 38°線以南地域의 總選舉口字를 1948년 5월 10일로 정하기로 UN韓委와 美軍政 당국이 合意하였다.

## 마. 大韓民國의 建國

UN總會에서 규정한 「UN韓委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地域」인 38°線以南의 南韓地域에서 UN監視下의 總選舉(5.10 總選)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 5월 31일이 制憲國會가 開院되었으며 7월 17일에는 憲法이 公布되고, 8월 15일에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었다.

### (1) 制憲國會의 開院과 憲法公布

5.10 總選이 끝남에 따라, 조속한 政府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5월 20일에 南朝鮮過渡立法議院(1946년 12월 12일에 民選議員 45명과 官選議員 45명으로 구성. 議長: 金奎植)이 開院하고, 5월 29일에는 民主議院(駐韓美軍사령관의 最高諮問機關)도 해산하였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에 制憲國會가 開院되어, 初代 議長에 선출된 李承晩은 開院式辭에서 主張하기를 『制憲國會는 1919년 3월 1일의 己未獨立宣言 이후 上海에서 조직된 臨時政府를 계승하는 것이며…… 北緯 38°線以北에 居住하는 450만 동포가 하루 속히 선거를 실시하여, 國會의 殘餘 100개 議席을 채울 수 있도록 祈願해 마지않으며…… 駐韓美軍



<初代 大統領을 選出하는 制憲國會(1948. 7. 20)>

會는 無記名 秘密投票로써 7월 2일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李承晩(大韓獨立促成國民會)을 180표로써 初代 大統領으로 선출하였다.

이와 아울러 副統領에는 李始榮(韓國獨立黨)을 선출하였다.

李承晩의 大統領 당선으로 關位된 國會議長の 補選에 있어서는 申翼熙가 제2대 議長에 당선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과정으로 선출된 正·副統領의 就任式이 7월 24일에 거행된 다음 李承晩은 強力한 大統領 中心制의 組閣에 착수하였는데, 그 初代 內閣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大 統 領	李承晩	副 統 領	李始榮		
國 務 總 理	李範奭	內 務 部 長 官	尹致暎	外 務 部 長 官	張澤相
國 防 部 長 官	李範奭 (總理兼務)			財 務 部 長 官	金度演
文 教 部 長 官	安浩祖	法 務 部 長 官	李 仁	農 林 部 長 官	曹奉岩
商 工 部 長 官	任永信	社 會 部 長 官	錢鎮漢	保 健 部 長 官	具永淑
遞 信 部 長 官	尹錫龜	交 通 部 長 官	閔熙植	無 任 所 長 官	李允榮
無 任 所 長 官	池青天	總 務 處 長	金炳淵	公 報 處 長	金東成
法 制 處 長	俞鎮午	企 劃 處 長	李順鐸	審 計 院 長	明濟世

은 韓國軍의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制憲國會는 6월 10일의 國會法 통과에 이어, 11일에는 國會의 성립을 UN에 통고하였으며, 憲法 및 政府組織法의 起草를 서두른 결과, 單院制 및 大統領 中心制를 骨子로 하는 全文 10章 103條의 憲法을 7월 17일에, 12개 行政部署를 骨子로 하는 政府組織法도 同日附로 法律 제1호로써 각각 公布하였다.

## (2) 政府樹立과 UN總會 및 國際承認

憲法과 政府組織法 및 國會法의 制定을 마친 制憲國會의 다음 課題는 行政首班이자 國家元首인 大統領선거였는데, 間接選舉法을 채택한 國

考試委員長 裴恩希 監察委員長 鄭寅普

이와 같은 組閣으로써 祖國光復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에 大韓民國政府의 수립을 世界萬邦에 宣布하였으니, 이로써 3년간에 걸친 美軍政도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大韓民國政府는 美軍政機構를 그대로 이양받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自體의 機構를 갖춘 뒤에 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韓國政府의 수립을 지원하여 온 美國은 즉각 이를 승인하고, UN韓國監視委員團은 UN總會에 이를 보고하였다.

UN總會는 臨時委員團의 모든 報告를 접수 승인하여 12월 12일에 韓國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稱하는 決議案을 46대 6으로 통과시킴으로써 大韓民國政府를 승인하였다.

이 UN總會의 승인은 첫째, UN韓委가 監視委員團과 협의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韓國國民의 多大數가 거주하고 있는 地域에 支配와 管轄의 效力을 가진 合法政府가 수립된 점, 셋째, 有權者의 自由意思가 정당하게 표시되었다는 점 등이 根據가 되었다.

UN總會의 승인에 뒤이어, 28개의 각국이 明示的으로 承認하였으며, 그 밖의 友邦國家들은 政府수립 이후의 外交로써 默示的으로 승인하였는데, 明示的인 승인국가의 友邦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1949. 8. 15) · Belgium(8. 15) · Bolivia(7. 14) · Brazil(6. 2) · Canada(4. 9) · Chile(5. 27) · China(1. 14) · Costa Rica(8. 12) · Cuba(7. 18) · Dominica(6. 20) · Ecuador(10. 4) · El Salvador(9. 3) · France(2. 5) · Greece(8. 4) · Haiti(8. 13) · Iceland(1950. 2. 12) · Iran(1949. 9. 24) · Luxemburg(8. 29) · Netherlands(7. 25) · New Zealand(6. 20) · Philippines(3. 3) · Thailand(10. 21) · Turkey(8. 13) · United Kingdom(1. 18) · United States(1. 1) · Uruguay(12. 8) · Venezuela(1950. 3. 3) · Vatican City(1949. 4. 13).

#### 바. 北傀政權의 造作

UN總會의 決議와 監視下에 大韓民國이 수립되자, U. S. S. R은 金日成體制의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造作하여, 大韓民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의 正統性을 否定하고 나섰다.

U. S. S. R軍政下의 北韓에서 金日成體制가 사실상으로 굳혀진 것은 1946년 2월 8일에 조직된 이른바 北朝鮮人民委員會이며, 이 때에는 이미 北韓地域內의 民族主義勢力의 除去工作을 一段落짓고, U. S. S. R系 共產主義者들을 중심으로 金日成體制의 基盤이 확고하여지고 있는 단계이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47년 11월 14일에 UN總會가 美國의 韓國獨立에 관한 제안을 絶對

多數로 통과시키자, U.S.S.R은 共產傀儡政權의 造作을 表面化하여, 그 具體的인 조치로써 4월 뒤인 18일에 이른바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조직케 하였다.

이 委員會는 이해 2월 17일에 조직된 이른바 北朝鮮人民會議를 기반으로 하여, 所謂 統一의(朝鮮民主國家) 憲法을 제정한다는 명목으로 발족시킨 것인데, 다음해인 48년 2월 6일에 起草를 마친 憲法草案을 「全體人民의 群衆討議에 붙인다」라는 형식으로 北朝鮮人民會議에 上程하였다.

그러나, 全體人民의 群衆討議라는 公開討論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뿐, 당시 U.S.S.R軍政의 森嚴한 경제속에서 「Stalin 憲法」을 모방한 同法에 異見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 없었다.

人民會議는 동 48년 7월 9일에 제5차 會議를 열어, 北韓에 單獨 共產政權을 수립할 목적으로 憲法을 최종 심의하여, 「全朝鮮이 통일될 때까지 同憲法을 北韓地域에서 실시할 것」과 「同法에 依據하여 最高人民會議 선거를 실시할 것」을 北朝鮮人民會議의 常任委員會에 위임하였다.

同年 8월 25일에 最高人民會議의 代議員선거로써 소집한 最高人民會議의 제1차 會議에서 憲法委員會(49명)를 조직하고, 9월 8일에는 本會議에서 原案대로 채택하여 同日附로 公布하였다.

이와 같은 脚本에 의하여, 金日成(金城柱)을 造作된 內閣首班에 올려놓는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傀儡集團을 이해 9월 9일에 捏造한 것이었다. 이 때의 北傀政權의 所謂 組閣名單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傀儡首相: 金日成, 副首相: 朴憲永·金策·洪命燕, 國家計劃委員長: 鄭準澤, 民族保衛相: 崔庸健, 國家檢閱相: 金元鳳, 外務相: 朴憲永(兼任), 內務相: 朴一禹, 產業相: 金策(兼任), 農業相: 朴文圭, 交通相: 朱寧河, 財政相: 崔昌益, 教育相: 白南雲, 遞信相: 金廷柱, 司法相: 李承燁, 文化宣傳相: 許貞淑, 勞動相: 許成澤, 保健相: 李炳南, 都市經營相: 李 鏞, 無任所相: 李克魯.

이 傀儡들의 우두머리에 올라앉은 金日成은 9월 10일에 8개 項目의 政綱을 발표하였는데, 그 제8項에 있어서 『人民軍隊를 百方으로 強化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南侵兇計의 馬脚을 드러내었으니 『法보다도 주먹』이라는 國際강패가 뱃속에 숨겨놓은 兇刀를 愚直한 兒女子格인 自由陣營에서 이를 早期에 看破할 까닭이 없었다.

이와 아울러, 제1항에서는 『統一된 民主主義 自主獨立國家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統一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兩軍 同時撤退에 대한 U.S.S.R政府의 제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美軍撤收後에 생겨날 것이 틀림 없는 南韓의 眞空管을 겨냥하여 爆彈의 雷管을 裝備하였던 것이다.

사실, U.S.S.R軍은 北韓進駐의 당초부터 秘密裡에 共產軍을 육성하고 있었으며, 1947년



9월 26일의 제2차 美·蘇共委의 席上에서 『1948년 초에 美·蘇 兩軍을 朝鮮에서 동시 철수하고, 朝鮮문제를 朝鮮人 白身의 손에 一任하자.』라고 제의한 것도, 이른바 人民軍의 育成과 相關되는 술책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北傀政權의 造作에 이어, U. S. S. R과 北傀는 또 하나의 脚本을 꾸렸다.

즉, 金日成의 政綱발표가 있은 뒤, 이른바 最高人民會議는 「U. S. S. R政府와 美國政府에 보내는 美·蘇 兩軍 撤退要求書」라는 것을 채택하였으며, U. S. S. R은 이 要求를 당연한 것으로 수락한다는 형식과 절차로써, 1948년 12월 26일에 3,000명의 顧問團만을 남겨놓고 철수하였던 것이다.

이 U. S. S. R軍의 北韓철수는 첫째, 朝鮮人民의 意思를 존중한다는 偽裝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 駐韓 美軍의 입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철수를 강요하려는 것이며 셋째, 南韓의 軍事力이 강화되기 이전에 北傀로 하여금 軍事力을 행사케 하는, 決定的인 時期를 早期에 포착하려는 속셈으로 취하여진 狡猾한 작난이었던 것이다.

실상, U. S. S. R軍에 대체하는 強力한 北傀軍事力을 秘密裡에 육성한 만큼, U. S. S. R軍이 철수하더라도 南侵을 피하려는 北傀의 毒劑處方에는 아무 지장도 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오히려 침략企圖를 앞당겨 촉진케 하는 하나의 前奏曲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人民共和國을 호칭하는 傀儡政權을 造作한 金日成 一味의 徒黨은 外交政策의 基本方向을 U. S. S. R을 위시한 共產圈 諸國과의 國際的 단결을 다지는 데에 두고, 共產陣營의 一員으로서의 背景과 地位를 확보하려는 執念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北傀政權이 造作되자 동년 10월 12일에 U. S. S. R이 승인하고, Mongolia(10월 21일) · Poland(10월 16일) · Czechoslovakia(10월 21일) · Rumania(11월 3일) · Hungary(11월 11일) · Bulgaria(11월 29일) 등 共產衛星國이 동년 중에 모두 승인한 것은 再言을 요치않을 것이다.

그리고 中國大陸을 赤化한 中共이 다음해인 1949년 10월 1일에 中華人民共和國을 宣布하고, 6월에 역시 北傀政權을 승인하였으며, Albania와 East Germany가 또한 이 年度에 각각 승인하였다.

그런데, 中共의 등장은 Asia의 정세를 일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北傀政權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威脅的인 背景이 되었으니, 北傀 集團의 南侵은 더욱 날카로운 豺狼의 爪牙를 加하게 된 것이다.

동년 12월일 U. S. S. R군은 北韓에서 철수하면서, 그 重裝備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北傀集團에 넘겨주었으니 美軍이 撤收할 때의 것과 比較한다면 霄壤의 隔差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2. 軍事情勢

### 가. 大韓民國의 軍備

#### (1) 陸軍의 濫觴期

祖國光復과 더불어 수많은 私設 軍事團體가 續出하였다. 1945년 11월 현재, 朝鮮臨時軍事委員會와 學兵同盟을 비롯하여 學兵團과 朝鮮軍事準備隊 그리고 光復軍과 陸海空軍出身 同志會 등 그 수효는 무려 30여개가 되었는데, 美軍政 당국은 11월 13일에 軍政法令 제28호로써 軍政廳內에 軍務局 및 警務局을 통괄하는 國防司令部를 설치하고, 다음 해 1월 15일에 南朝鮮國防警備隊를 창설함으로써, 모든 私設軍事團體를 1월 21일附로 解散케 하였다.

그 뒤, 軍政法令 제14호(1946. 3. 29附)로 國防司令部를 國防부로 改稱하고, 4월 9일에는 軍政法令 제63호로써 警務局을 분리시켜 獨白의인 治安業務를 담당케 하는 한편, 軍務局에는 새로이 陸軍部和 海軍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幹部要員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南朝鮮國防警備士官學校를 5월 1일에 창설하여 美國式 軍事訓練을 실시하였으며, 6월 14일에 國防部를 다시 統衛부로 改稱하였다. 이 改稱은 美·蘇 共委에서 U.S.S.R측이 國防部라는 명칭이 부당하다고 트집잡았기 때문에 취하여진 것이었다.

6월 15일에는 軍政法令 제86호로써 南朝鮮國防警備隊는 朝鮮警備隊로, 南朝鮮國防警備士官學校는 朝鮮警備士官學校로 각각 改稱되었다.

당시의 統衛部는 美軍政廳의 다른 部處와 마찬가지로 美軍將校가 담당하고, 韓國人은 顧問官에 불과하였으나, 9월 12일에 柳東說이 部長에 취임함으로써 韓國人에 의한 國軍의 濫觴이 시작된 것이다.

朝鮮警備隊는 募兵과 編制의 擴充에 拍車를 加하여, 南朝鮮國防警備隊로 發足한지 滿2년 뒤인 1947년 12월에 南韓 各道別로 1개 연대(9개 연대)씩 창설한 3개 旅團으로 增編하였다. 그리고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됨에 따라, 國軍으로 成長하기 직전인 1948년 7월 현재, 다시 5개 旅團(15개 연대)으로 增編하였으니, 國軍의 建軍에 이르기까지의 濫觴期와 建軍 이후의 增編상황을 연대별로 그 창설과 그 뒤의 예측관계를 主眼으로 一括 요약하면, 附表와 같다.

聯隊 및 旅團名稱	創設 日 字	沿革 概 要
제 1 연 대	1946. 1. 15	京畿道 楊州郡 泰陵에서 창설. 제 1 여단(1947. 12. 1)~제 7 사단(1949. 2. 1)에 연속변경.
제 2 연 대	1946. 2. 28	忠南 大田 飛行場에서 창설. 제 2 여단(1948. 12. 1)~제 6 사단(1950. 6. 20)에 연속변경.
제 3 연 대	1946. 2. 26	全北 鎭里에서 창설. 제 2 여단(1947. 12. 1)~제 5 여단(1948. 5. 1)~제 2 여단(1949. 2. 1)~제 5 여단(1949. 6. 20)~제 7 사단(1949. 6. 25)에 연속변경.
제 4 연 대	1946. 2. 15	全南 光山郡에서 창설. 제 2 여단(1947. 12. 1)~제 5 여단(1948. 5. 1)에 연속 변경. 1948년 11월 20일에 제20연대로 改編.
제 5 연 대	1946. 1. 19	釜山市에서 창설. 제 3 여단(1947. 12. 1)~제 2 여단(1949. 5. 25)에 연속변경.
제 6 연 대	1946. 2. 18	慶北 大邱市에서 창설. 제 3 여단(1947. 12. 10)에 연속. 제 1차 叛亂(1948. 11. 2), 제 2차 叛亂(1948. 12. 6), 제 3차 叛亂(1949. 1. 30)과 뒤이어 肅軍이 일단락되자 1949년 4월 15일에 제22연대로 改編.
제 7 연 대	1946. 2. 7	忠北 清州郡에서 창설. 제 1 여단(1947. 12. 1)~제 4 여단(1948. 6. 14)~제 6 여단(1949. 2. 1)에 연속변경.
제 8 연 대	1946. 4. 1	江原道 春川市에서 창설. 제 1 여단(1947. 12. 1)~제 4 여단(1948. 6. 14)~제 6 여단(1949. 1. 1)~首都警備司令部(1950. 6. 20)에 연속변경.
제 9 연 대	1946. 11. 16	濟州道 穩瑟浦에서 창설. 제 3 여단(1947. 12. 1)~제 2 여단(1948. 12. 15)~首都警備司令部에 연속변경.
제 1 여 단	1947. 12. 1	제 1·제 7·제 8의 3개 연대로 서울에서 창설. 제 1 사단(1949. 5. 12)으로 승격.
제 2 여 단	1947. 12. 1	제 2·제 3·제 4의 3개 연대로 大田에서 창설. 제 2 사단(1949. 5. 12)으로 승격.
제 3 여 단	1947. 12. 1	제 5·제 6·제 9의 3개 연대로 釜山에서 창설. 제 3 사단(1949. 5. 12)으로 승격.
機 甲 연 대	1948. 1. 1	京畿道 水色의 제 1 연대內에서 창설.
제 10 연 대	1948. 5. 1	제 8 연대 제 3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제 6 여단 소속). 제 8 사단(1949. 8. 20)에 연속변경.
제 11 연 대	1948. 5. 1	제 2·제 3·제 4·제 5 각 연대에서 兵力을 차출하여 京畿道 水色에서 창설. 제 1 여단(1948. 5. 4)에 연속.

聯隊 및 旅團名稱	創設 日 字	沿 革 概 要
제 12 연 대	1948. 5. 1	제 3 연대 제 2 대대를 基幹으로 群山에서 제 2 여단 예속으로 창설. 제 1 여단(1949. 2. 1)에 예속변경.
제 13 연 대	1948. 5. 4	제 2 연대의 일부 兵力을 基幹으로 忠南 溫陽에서 창설하여 제 1 여단에 편입.
제 14 연 대	1948. 5. 4	제 4 연대의 일부 兵力으로 全南 麗水에서 창설하여 제 4 여단에 예속. 제 5 여단(1948. 6. 1)에 예속변경.
제 15 연 대	1948. 5. 4	제 5 연대의 1개 대대를 基幹으로 慶南 馬山에서 창설. 제 3 여단~제 4 여단(1948. 6. 1)~제 5 여단(1948. 11. 25)에 예속변경.
제 16 연 대	1948. 10. 28	제 3 여단 소속 제 15 연대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馬山에서 창설하여 제 3 여단에 편입. 제 3 사단(1949. 6. 10)~제 2 사단(1949. 6. 20)~제 8 사단(1950. 4. 5)~제 2 사단(1950. 6. 10)에 예속변경.
제 17 연 대	1948. 11. 20	제 7 및 제 12 연대의 각 1개 대대를 기간으로 京畿道 始興에서 창설하여 제 7 여단에 예속. 제 1 여단(1948. 12. 5)~首都 旅團(1949. 2. 1)~首都 警備司令部(1949. 6. 20)로 예속변경. 1950년 3월 1일에 陸本直轄의 獨立연대로서 靈津地區 주둔.
제 18 연 대	1948. 11. 20	제 5 및 제 6 연대의 일부 兵力을 基幹으로 浦項 烏川飛行場에서 창설. 제 3 여단(1948. 12. 5)~제 2 여단(1949. 2. 1)~首都 警備司令部(1949. 7. 1)로 예속변경.
제 19 연 대	1948. 11. 20	陸士 제 7 기 출신의 新任將校 30명과 제 20 연대의 士兵 500 명을 基幹으로 全南 光州에서 창설. 제 5 여단(1948. 12. 5)~제 2 여단(1949. 2. 1)~제 7 사단(1949. 6. 20)~제 5 사단(1950. 1. 3)~제 6 사단(1950. 5. 1)으로 예속변경.
제 20 연 대	1948. 11. 20	제 4 연대를 개편하여 光州에서 창설. 제 4 여단에 예속.
제 21 연 대	1949. 2. 1	제 19 연대의 일부 兵力을 基幹으로 光州에서 창설하여 제 5 여단에 예속. 제 8 사단(1949. 6. 10)으로 예속변경하여 三陟으로 移動.
제 22 연 대	1949. 4. 15	大邱叛亂事件을 계기로 제 6 연대를 개편, 大邱에서 창설하여 제 3 여단에 예속.
제 23 연 대	1949. 6. 20	제 16 연대의 1개 대대를 基幹으로 馬山에서 창설하고 제 3 사단에 예속.
제 25 연 대	1949. 6. 20	제 19 연대의 1개 대대를 基幹으로 大邱에서 창설하고, 제 3 사단에 예속. 제 7 사단(1950. 6. 15)에 예속변경.
제 4 여 단	1948. 4. 29	제 7, 제 8, 제 10 연대로써 水色에서 창설하고, 忠州(1948. 5. 15)~淸州(1948. 9. 17)~江原道 原州(1949. 2. 20)로 移動. 1948년 11월 20일에 제 6 여단으로 改稱하고, 1949년 5월 12일에 제 6 사단으로 昇格.

聯隊 및 旅團名稱	創 設 日 字	沿 革 概 要
제 5 여 단	1948. 4. 29	제3, 제4, 제9연대로써 水色에서 창설하여, 光州로 移駐(1948. 5. 12). 1949년 5월 12일에 제5사단으로 昇格.
제 7 여 단	1948. 1. 7	서울 龍山에서 창설하고, 首都旅團으로 改稱(1949. 2. 1), 1949년 5월 12일에 首都師團으로 昇格된 뒤에, 다시 1949년 6월 20일에 제7사단으로 改稱.

즉, 建軍이전의 濫觴期에 있어서 5개 여단(15개 연대)을 창설한 뒤, 政府수립 後의 建軍에 따르는 國防力強化의 시급한 요청으로, 1948년 11월까지 4개 연대(제16, 제17, 제18, 제19의 각 연대)를 增編하고, 1949년의 2월과 6월에 제21 및 제23연대가 追加되자, 1949년 1월 1일에 제7여단을, 同年 6월 10일에 제8사단을 각각 增編하였다. 또한, 機甲聯隊와 砲兵部隊를 基幹으로 同年 6월 20일에 首都警備司令部(1950. 7. 5에 首都師團으로 改編)을 창설함으로써, 當初에 各道別 1개 중대의 基幹으로 發足하였던 南朝鮮國防警備隊 以後 3년 5개월만에 8개 사단(22개 연대)의 正規國軍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성장과정에서, 軍內部에 침투한 共產主義分子들로 因하여, 麗·順叛亂事件 및 大邱暴動事件을 비롯한 大小의 騷擾事件을 겪었으며, 部隊別로 下廻上事件이 頻發하였다.

이는 募兵初期에 있어서, 身元照會 및 思想內査를 소홀히 하고, 共產黨의 침투공작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던 탓으로 생겨난 濫觴期의 陣痛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걸친 肅軍을 단행하여, 軍內的 共產主義分子를 芟除하였으며, 특히 麗·順叛亂事件의 1개월 뒤에 新編된 제16, 제17, 제18, 제19연대와 1949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창설된 제21, 제23, 제25연대의 編成時에는 反共愛國團體의 추천을 거치는 등, 엄격한 身元保證制를 실시함으로써 共產主義分子들의 軍內침투를 막을 수 있었다.

## (2) 海軍의 濫觴期

한편 海軍의 濫觴期는 1945년 11월 11일에 美軍政廳 運輸部(海事局)의 요청에 따라 美軍政法令 제42호(1946. 1. 14)로써 美軍政廳 國防司令部에 정식 편입된 海防兵團을 嚆矢로 한다.

海防兵團은 "沿岸일부의 경비와 密輸방지 및 難破船의 救助 등을 당초의 主任務로 하였는데, 장차의 발전에 대비하여 幹部(將校) 양성이 시급하였으므로 1946년 1월 17일, 海軍兵學校를 鎭海에 설치하였으며, 艦艇의 修理를 위한 造兵廠을 2월 1일에 開設하였다.

海防兵團의 艦艇은 40ton級 1척과 100ton級 2척이 鎭海에, VP 若干이 仁川에 각각 배치되었을 뿐이며, 沿岸警備區域도 이 2개 港을 중심으로 하는 近海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軍政法令 제86호(1946. 6. 15附)로 統衛部가 軍政廳 國防部の 後身으로 발족하여

朝鮮警備隊와 朝鮮海岸警備隊가 설치됨에 따라, 海防兵團도 朝鮮海岸警備隊로 발전하였으며, 同年 9월 1일에 美顧問團이 설치되면서 부터는 艦艇導入과 機構擴充이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 導入된 艦艇은 다음과 같은 36척이었다(괄호안은 艦艇의 명칭).

LCI(上陸艇) : 6척(서울·晉州·春川·淸州·淸津·鎭南浦의 各號)

YO(油槽艇) : 1척(九龍號)

JMS(掃海艇) : 11척(大田·統營·大邱·太白山·豆滿江·丹陽·端川·土城·大同江·德川·通川의 各號).

YMS(掃海艇) : 18척(金剛山·慶州·光州·開城·金海·江景·江陵·江華·加平·江界·伽倻山·九月山·金泉·吉州·慶山·公州·高原·龍宮의 各號).

이와 같이 導入된 艦艇으로서 機構를 擴張한 警備隊는 1948년 8월 현재, 鎭海特設基地의 仁川·木浦·釜山·墨湖·浦項·群山 등 5개 基地를 설치하였다.

한편, 38°線以南의 海岸경비를 담당하던 미 제 7艦隊는 1947년 8월 30일에 이 임무를 인계하였다.

警備隊는 이 海岸경비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10월 15일에 釜山港을 根據地로 제 1特務艇隊를 편성하여, 忠武公·九月山·江陵·光州號 등 各艇을 배치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麗水港을 根據地로 제 2特務艇隊를 편성하여, 金泉·高原·江界·加平·金剛山號 등 5개 艇을 배치하였다.

### (3) 空軍의 濫觴期

1945년 11월 13일, 美軍政廳內에 國防司令部가 설치됨과 아울러, 南朝鮮國防警備隊와 朝鮮海岸警備隊가 창설되어 政府수립 후에는 國軍의 建軍과 더불어 각각 陸軍과 海軍으로 발전하였으나, 空軍은 陸軍에 예속되는 航空部隊로 편성되었다.

空軍의 濫觴期는 이 航空部隊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즉, 1946년 8월 10일에 民間團體인 韓國航空建設協會를 조직한 航空人들 중에서 金貞烈·崔用德·朴範采·張德昌·李根哲·金英煥·李英茂 등 7명의 幹部要員이 航空部隊 창설의 先驅를 맡게 되었다.

祖國光復 이전에 舊日本軍 및 中國軍의 航空部隊에서 활약하였던 이들 幹部要員은 장차에 있어서의 空軍創建에 대한 열렬한 念願으로 우선 朝鮮警備隊의 步兵學校와 朝鮮警備士官學校에서 將校候補生의 과정을 마치고, 1948년 5월 14일 附로 陸軍少尉에 임관된 다음에 統衛部直轄部隊로서의 航空部隊를 京畿道 水邑에서 창설하였으니 다음 날인 15일의 일이었다. 航空部隊 창설의 기틀이 잡히자, 航空經歷者를 엄선하여, 申應均의 77명의 航空兵 第 1期生을 모집하고, 朴元錫 소위(警備士官 5期生) 및 張志良 소위(司前)를 전속시키는 등의 兵力充員을 서둘렀다.

同年 7월 27일에 名稱도 航空基地部隊로 바꾸고, 京畿道 金浦郡 楊西面 松亭里로 部隊駐屯地를 移動하였다.

뒤 이어, 9월 1일에 다시 金浦飛行場內로 移動하여 基地勤務가 시작되었으며, 이로부터 金浦基地가 空軍의 發祥地가 된 것이다.

이 때의 兵力은 總員 105명이었고 飛行機는 한 닢도 없으며, 예산 및 장비도 거의 淸에 가까웠다. 그러나, 無에서 有를 창조하려는 志氣으로 職務訓練을 통하여 韓美合同勤務를 경험하면서 美空軍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飛行機 획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 (4) 國軍의 創設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고, 同年 11월 30일에 國軍組織法이 法律 제 9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朝鮮警備隊는 陸軍으로, 朝鮮海岸警備隊는 海軍으로 각각 새로운 發足を 하게 되었다. 즉, 大韓民國의 國軍이 陸軍과 海軍을 基幹으로 正規軍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된 것이었다.

政府는 國軍組織法으로 國軍 創設의 法的인 뒷받침을 마치고, 同年 12월 7일에는 國防部本部·陸軍本部·海軍本부의 職制를 규정하는 國防部職制를 大統領令 제37호로 公布하였다(研究欄 第1項 參照).

이러한 國軍組織法 및 國防部職制로써 國軍建軍의 法的 根據를 마련한 政府는 1949년 7월 15일에 國會 제11차 本會議에서 통과된 兵役法(法律 제41호: 1949.8.6 公布)으로써 國民皆兵의 兵役義務制를 확립하였다.

司法에 의하면, 大韓民國의 國民된 男子는 滿 20세에서 滿 40세까지 兵役에 복무할 義務를 지게 되었으니, 종전까지는 志願制로써 兵員을 충당하던 募兵방법을 義務制로 발전케 한 것이다.

兵役은 常備兵役(現役 및 豫備役)·護國兵役·後備兵役·補充兵役(제1 및 제2 補充兵役)·國民兵役(제1 및 제2 國民兵役) 등이며, 常備兵役의 服務年限은 現役이 陸軍 2년과 海軍 3년이며, 豫備役은 陸軍이 6년, 海軍이 5년으로 규정되었다.

#### (5) 陸軍의 發足

遷移期의 朝鮮警備隊가 國軍組織法의 제 2條로 國軍의 陸軍으로 發足할 당시, 5개 여단(제1, 제2, 제3, 제4, 제5)의 兵力이 將校 1,403명, 士兵 49,087명(計 50,490명)이었다.

正規軍으로서의 면모를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 陸軍은 계속 兵力增加에 박차를 가하고, 1949년 1월에 제 7 여단을 창설함으로써 6개 여단에 20개 연대를 보유하여, 여단 支援部隊의 편성이 急進展되면서 1949년 5월 12일에는 國軍組織法 제 3章 제13條로 각 여단을 사단으로 昇格시켰다.



<政府수립을 경축하는 陸軍部隊의 分列式>

이 사단의 편성은 本部 및 本部중대, 3개 연대, 通信중대, 兵器整備중대, 醫務대, 兵站중대, 工兵중대, 砲兵대로서 將校 625명, 士兵 9,936명, 計 10,561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이어, 1949년 6월 10일에는 제 8 사단을 창설하고, 同年 6월 20일에 首都警備司令部(首都警備사단)를 창설함으로써 8개 사단(22개 연대)을 保有하기에 이르렀는데, 각 사단 및 연대의 배치는 研究廳의 제 1項과 같다.

陸軍은 이처럼 正規軍으로서의 面貌를 갖추면서, 國軍組織法 제 3章 제 12條로 兵科를 制定함과 아울러, 國防部職制 제 10條에서 제 26條까지로써 陸軍本部 各局監室의 職制를 확립하였는데, 各局監室의 沿革을 要約하면 研究廳의 제 2項과 같다.

陸軍本部의 機構를 改編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有能한 人的陣容이 시급한 문제로 수반되었다.

國防部長官 李總奭은 이 문제를 중요시하여 과거의 日本軍, 滿洲軍 및 中國軍에서 활약한 바 있는 高級將校들의 參與를 적극 권장하였다.

본시, 이들은 美軍政當局의 교섭을 수차 받았으나 光復된 祖國에 대하여 自肅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中國軍과 光復軍 출신들은 建軍의 理想이 美軍政當局과 맞지 않음으로써



參與의 기회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政府수립과 더불어 國軍이 創設되자 祖國을 수호하는 國防力 強化에 참여하기 위하여 欣快히 大舉入隊하여 適宜의 職責을 맡게 되었다.

또한 兵力面에 있어서도 豫備兵力의 확보가 시급하였으므로 緊急大統領令으로 護國兵 役에 관한 臨時措置令이 公布(1948. 11. 20)되어, 護國軍을 창설하였다. 護國軍은 正規軍의 戰鬥力을 補強하는 豫備兵力으로써 戰鬥部隊과 特殊部隊의 2種으로 區分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正規軍에 편입토록 되어 있었다.

護國軍의 身分은 將兵 共히 豫備役이며, 各者 居住地의 연대에 소속하여, 生業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처럼 豫備兵力으로서의 사명을 지닌 護國軍은 1949년 1월 11일에 4개 여단(10개 연대)을 研究院의 제 3項과 같이 편성완료 하였다.

1949년 8월 6일에 兵役法이 法律 제49호로 公布됨에 따라 護國軍은 解編되고, 그 여단 本部의 人員으로써 各地區(서울·釜山·大邱·全州·光州·清州·大田·春川)의 兵事區司令部가 설치(1950. 3. 14에 다시 解體)되고, 兵役法 제77條에 『青年에 대하여는 兵役에 편입될 때까지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軍事訓練을 실시한다.』라고 정한 바에 따라 民兵 20만을 목표로 하는 青年防衛隊가 1949년 11월 初에 大韓青年團을 主軸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共匪討伐과 遊擊 등의 特殊任務을 수행키 위한 陸軍水色學校(獨立 제 1 대대로 改稱)·虎林部隊(一名, 永登浦學院)·陸軍報國대대(一名, 제 803獨立대대)·各旅團遊擊대대 등의 特殊部隊도 창설되어 활동하다가 각기 正規部隊에 편입 또는 해체되었다.

#### (가) 幹部要員의 養成

陸軍의 增編에 수반하여 幹部要員의 養成이 또한 시급하였으므로 陸軍士官學校를 비롯한 兵科別 教育機關(陸軍通信學校·陸軍憲兵學校·陸軍步兵學校·陸軍兵器學校·제 1, 제 2, 제 3 重火器學校·陸軍砲兵學校·陸軍工兵學校·陸軍軍樂學校·陸軍經理學校·陸軍兵站學校·陸軍情報學校·陸軍參謀學校·陸軍軍醫學校)의 編制 및 教科내용을 擴充하였다.

陸軍士官學校: 陸軍은 正規軍으로서의 發足과 더불어, 종전의 朝鮮警備士官學校를 陸軍士官學校로 改編함과 아울러, 短期教育으로 幹部候補生을 양성하던 教育方針을 止揚하고, 우수한 士官을 長期養成하는 正規 士官學校의 발족을 서둘렀다.

그동안 濫觴期에 있어서는 軍事英語學校(1945. 12. 5~1946. 4. 30)와 朝鮮警備士官學校(1946. 5. 1~1948. 9. 4)의 過剩을 거치는 동안, 通算 제 1 期에서 제 6 期까지의 士官候補生 1,237명(제 1 期 40명, 제 2 期 193명, 제 3 期 281명, 제 4 期 107명, 제 5 期 380명, 제 6 期 236명)을 輩出하였는데, 1949년 5월 23일에 제 8 期士官候補生(1,264명)을 배출한 뒤에는 正規 士官學校의 발족을 위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즉, 英語實力을 갖춘 우수한 將校를 4년制 士官學校의 敎官要員으로 양성하였으나 4년制 課程을 담당할만한 수준까지 未達하였으므로 1949년 7월 15일에 우선 1년制의 士官生徒(生徒 제 1期, 通算 제 10期)를 모집하고, 1950년 6월 1일에 이르러 4년制 士官生徒(生徒 제 2期)를 모집하였다. 그동안, 제 7期(560명), 제 8期, 제 9期(580명)를 배출하고,生徒 제 1期는 1950년 7월 10일에 大田에서 任官하였다.

이처럼 正規 士官學校가 발족된 뒤, 종전의 幹部候補生 敎育은 新設된 陸軍步兵學校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陸軍步兵學校**: 1948년 2월 21일, 水色 제 1여단 司令部內에서 統衛部 步兵學校로 발족된 同校는 1949년 7월 1일에 始興 제 17연대의 一部兵舍에서 改編된 뒤, 高等軍事班·初等軍事班·甲種幹部候補生·砲兵幹部候補生 등 여러 과정을 敎育중에 北傀南侵으로 일단 廢校하였다.

**陸軍參謀學校**: 1949년 7월 1일, 高級指揮官과 사단級 이상의 參謀들을 대상으로 美式 戰術敎理·火器學·參謀業務 등을 8주간 敎育하였다.

#### (나) 部隊敎育訓練

濫觴期의 基幹要員이 거의 舊日本軍 출신이었으므로 南朝鮮 國防警備隊 및 朝鮮警備隊의 時期에는 日本軍式의 부대敎育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훈련 方式을 美式으로 전환하기 까지는 內部的으로 많은 曲折을 겪어야만 되었다. 美式 훈련으로 통일된 것은 1946년 6월 이후부터였다. 즉, 警備士官學校의 제 1期 士官候補生이 任官輩出되고 (1946. 6. 15), 軍事英語學校 출신이 1개월간의 補修敎育을 마친 뒤에 비로소 徒手訓練을 비롯한 기초훈련에 있어서, 口令과 方式이 美式으로 통일된 것이었다.

그러나 戰術敎育에 있어서는 1947년도에 이르기까지 美軍事敎範의 번역부진으로 敎材로 채용되지 못하고, 舊日本軍의 軍事敎範을 이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여전히 日本式을 脫皮하지 못하였다.

그 뒤, 1948년 12월에 正規軍으로 成長함과 아울러, 駐韓美軍의 철수문제가 擧論됨에 따라, 그 裝備(일부)의 이양문제가 고려되면서 부터 受援대세의 준비가 시급하였으므로 步兵學校(水色)에서 각 연대의 將校들에게 M1 소총 및 CAR 소총의 기계조작과 사격술 등을 보수敎育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同년 6월 27일에 제 1(大邱), 제 2(龍山), 제 3(鎭海)의 3개 訓練學校(重火器學校)를 설치하고, 重火器(輕機關銃·重機關銃·迫擊砲·2·36" Rocket砲·0.5" 機關銃·57mm 對戰車砲·105mm 野砲)를 敎育하였다.

이와 같이 美製兵器의 操作法부터 시작하여 美式 軍事訓練이 비로소 本軌道에 오르면서 同년 7월 15일과 1949년 7월 19일에 제 1차 및 제 2차 渡美留學 高級將校를 파견하여, 美式 敎育訓練의 導入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渡美留學의 결과는 美式兵器의 戰術的 運用과 分·小·中隊의 戰術교육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는데, 各級 指揮官 및 參謀와 將校들은 步兵學校(始興)의 初·高等 軍事班에서 3개월간의 美式 補修教育을 받았다.

指揮官과 參謀 및 將校들의 資質을 向上시키는 동시에 各 사단에 대하여 1950년 3월末까지 分隊戰術에서 大隊戰術에 이르기까지의 부대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教育勅諭 제 1호를 하달(1950. 1)하였다. 이에 이어, 同年 3월 14일에는 教育勅諭 제 2호를 하달하여, 9월까지 연대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首都警備司令部 에하의 3개 연대, 제 7사단의 2개 연대, 제 8사단 제 8연대의 1개 대대만이 대대훈련을 마쳤고, 대부분의 연대는 중대훈련의 단계에 머물렀다.

부대 훈련의 進度가 이와 같이 不振한 이유는 38°線에 배치한 사단(제 8, 제 6, 제 7, 제 1사단 및 제 17연대)의 경우, 北傀의 계속적인 挑釁을 물리치기 위한 경계 때문이며, 後方사단의 경우는 濟州島暴動사건 및 麗·順叛亂사건과 共匪討伐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作戰 및 出動으로 教育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實戰을 겪으면서 部隊 및 兵力運用의 실제교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경험이였다.

美顧問團측에서는 다시 대대훈련을 7월 31일로, 연대훈련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연기하여, 부대훈련의 內實을 期하려 하였는데, 北傀의 全面南侵으로써 이 훈련 계획이 挫折되었으며, 陸軍의 各 사단은 평균 중대훈련을 마친 狀況下에서 出戰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 8연대(1946. 4. 1 창설, 1948. 4. 29 제 4여단 예속, 1950. 6. 20 首都警備司令部 예속)는 창설되자, 江陵—原州—春川에 걸친 廣正面에 駐屯하여 38°線 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1947년 7월에 이르기까지 特別教育 및 대대 野外訓練을 실시하여, 建軍濫觴期에 있어서의 部隊訓練을 窺知하는 뛰어난 實績을 기록하였다.

이 特別教育 및 野外訓練은 연대 作戰參謀 代理인 朴正熙 소위에 의하여 立案되고 실시되었다.

特別教育은 연대의 全將校들에게 各個戰鬪訓練·手榴彈訓練·分隊戰鬪訓練·小隊戰鬪訓練(攻防)·陣中勤務·遊擊戰訓練 등을 課하는 것이였다.

이 特別教育이 끝나자 現地戰術(대대 陣地攻擊)의 실습단계로 거쳐, 대대 單位의 野外演習을 1947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江陵—厚浦間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警備隊 창설 이후 최초의 野外機動 演習이었다(그 現地戰術 및 野外演習계획의 原文은 研究欄 제 5項을 參照).

이와 같이, 政府수립 後에 正規軍으로 改編된 陸軍은 8개 사단을 保有하면서 將兵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各 兵科교육과 部隊訓練을 계속하는 한편, 指揮官·參謀 및 將校들에 대한 補修教育을 실시하였으나, 國防警備隊 이후 4년간에 걸쳐 階級昇進이 飛躍하는 데에 比하면 軍事的인 識見이나 實務面에 있어서 階級에 알맞는 경험이 不足한 실정이었다.

이 사실을 감안한 美軍事顧問團은 本國 陸軍省에 건의하여, 韓國將校들을 駐日 美軍사단에 배치시켜, 行政·敎育·訓練·指揮 등 各分野에 걸친 見學과 實習을 갖도록 하였다. 당시, 駐日 美제 8군의 예하사단으로서는 제 1機甲사단(Tokyo)·제 7사단(Sendai)·제 25사단(Osaka)·제 24사단(Fukuoka)이 있었다.

이 實務敎育團은 제 1차로 4개 班(33명)으로 편성되어, 1개 사단에 8명(歩兵 3명·砲兵·兵器·工兵·通信·醫務 各 1명)씩 3개 월간 예정으로 1950년 4월 15일에 파견되었는데, 實務 2개 월만에 北使南侵으로 급거 歸國하였다.

### (6) 海軍의 發足

國軍組織法(1948. 11. 30, 法律 제 9호)의 公布로 陸軍과 더불어 國軍創設의 基幹이 된 海軍은 機構의 整備 및 重要部隊의 法的 措置 등을 추진하면서 正規軍으로서의 面目을 一新하였다. 海軍에 관한 法的 조치는 海軍士官學校令(1949. 5. 5, 大統領令 제 87호), 海軍基地設置令(1949. 5. 7, 大統領令 제 100호), 統制府職制令(1948. 6. 25, 大統領令 제 135호), 警備部職制令(1949. 6. 25, 大統領令 제 136호), 海軍基地法(1950. 3. 2, 法律 제 102호) 등이었다. 海軍은 海軍基設置令으로 嶺海特設基地에 唯一한 軍港으로써 統制府를 설치하고, 한편 海岸警備隊時期부터 이미 海軍의 基地로 使用하던 仁川·靑山·木浦·浦項·黑湖·濟州 등 各 基地에 各 警備府를 설치하였다.

#### (가) 敎育·訓練의 強化

濫觴期인 海防兵團의 時期부터 幹部要員의 敎育과 新兵訓練을 하던 海軍은 1946년 1월 17일에 海軍兵學校를 창설하여, 海岸警備隊士官學校(1946. 6. 15)에서 海岸警備大學(1946. 8. 10)으로, 그리고 海士大學(1947. 8. 14)에서 海軍大學(1948. 11. 16)順으로 改編한 다음 1949년 1월 15일에 海軍士官學校로 다시 改編함과 아울러 海軍士官學校令이 公布(1949. 5. 5)됨으로써 그 基礎를 다지게 되었다.

海軍士官學校: 規定된 修業年限은 4년이었으나 당초에는 幹部養成의 時急性에 비추어 제 1期(1946. 1~1947. 2. 7) 및 제 2期(1947. 2. 7~1948. 12. 15)는 1년간의 短期敎育을 실시하고, 제 3期(1947. 9. 2~1950. 2. 25)부터 4년의 規定年限을 실시하였다.

開戰當時까지 제 7期生이 入校하였는데 그 狀況을 期別로 보면, 제 4期(1948. 9. 4), 제 5期(1949. 3. 2), 제 6期(1949. 9. 3), 제 7期(1950. 6. 10)의 別로 이어져 있다.

士官候補生 特別敎育隊는 1948년 6월 29일에 士官養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최초의 의도는 兵曹長을 兵科將校로 승진시키고자 하였으나, 나중에는 特科(法務·經理·軍醫·船舶技術·政訓·航海·機關·施設·兵器·通信·水路·氣象)의 將校를 敎育하게 되었다.

이 敎育은 科目의 特技를 가진 人材를 將校로 任命하기 위하여 必要한 軍事知識과 指導能力을 短期間에 習得케 하는 目的으로 1950년 6월에는 이미 제 9期生을 輩出하고 제 10

期生을 教育중이었다.

한편 士官教育隊는 1947년 9월 1일에 下士官의 各 教育隊를 航海·機關·工作·通信·衛生·經理등의 各 學校로 昇格시키고, 1949년 11월과 12월에는 砲術 및 信號學校를 각각 增設하였다.

또한 教育으로는 新兵教育隊가 있어, 入隊志願者 중에서 適任者를 선발하여, 水兵各科인 甲板·機關·通信科의 各科別로 3개월간의 教育을 실시하였는데, 1950년까지 計 16期生을 輩出하였다.

그리고 看護將校候補生教育隊도 설치되었으며, 이 여러 教育機關에서 1950년 6월까지 輩出한 人員은 다음과 같다.

士官學校(제 1期~제 3期)—163명, 士官候補生特殊教育隊(제 1期~제 9期)—429명, 下士官 各學校—2, 145명, 新兵教育隊(제 1期~제 16期)—6, 137명, 看護將校教育隊(제 1期~제 2期)—27명.

#### (나) 艦艇의 導入

海軍의 發足과 더불어, 艦艇 제 1主義의 業務重點은 더욱 積極化하였다.

이미 海岸警備隊 時期에 入手된 艦艇들은 建造年限이 오래된 관계로 營繕과 정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고, 資材의 보급 및 기술부족 등으로 수많은 난관을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艦種도 대부분이 掃海艇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裝備도 37mm砲 2문씩을 수시로 장치하는 정도의 미약한 실정이었다.

그러면서도 國家財政面으로나 技術面에 비추어 艦艇을 購入 또는 建造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1949년 6월에 艦艇建造基金撥出委員會를 결성하였다.

그 최초로 導入된 艦艇이 701艦(1950. 4. 10 鎮海에 入港)이며, 이에 이어 PC(警備艦)型 제 702, 제 703, 제 704艦(1950. 7. 16 鎮海에 入港)이었다.

#### (7) 空軍의 發足

朝鮮警備隊가 陸軍으로 改編됨에 따라, 航空基地部隊도 陸軍航空基地部隊로 改稱되었다.

1948년 9월 13일에 陸軍航空基地部隊는 다시 陸軍航空軍司令部로 改稱하면서 機構를 全般적으로 改編하고 司令部 에 하에 飛行部隊와 航空基地部隊를 각각 汝矣島基地 및 金浦基地에서 창설하였다. 그리고 飛行部隊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機構의 改編과 아울러, 飛行機의 導入이 시급히 要請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9월 4일에 美軍의 連絡機(L-4型) 10대를 처음으로 引受하여, 9월 15일에 서울 上空에서 太極標識도 선명하게 최초의 編隊飛行(편대장 金貞烈 대위, 편대인원 李根哲 대위, 金信 소위, 張盛煥 소위, 申收浹 소위, 吳占石 特上, 朴熙東 上사, 金明燮 上사, 姜鎭倫 上사, 崔輝 上사)을 實施하였으며, 제 2 차로 偵察用 L-5型 10대를 引受함으로써 計 20대의 輕

飛行機(連絡 및 偵察用)를 갖추게 되었다.

### (가) 空軍의 獨立

陸軍司令部는 機構의 擴張과 兵力의 增員 그리고 飛行機의 確保等 戰力增強의 基반을 갖추면서 政府要路 및 軍高位層에 對하여 空軍의 獨立이 時局을 強調하였다. 그런데, 美軍事顧問團長 William L. Roberts 의 主張은 時機尙早라는 理由로 이를 반대함으로써 論難이 거듭된 끝에 國軍組織法 제23條에 本法에 依하여 陸軍에 屬한 航空兵이 必要한 때에는 獨立한 空軍으로 組織할 수 있다라는 條文을 삽입케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0월 1일에 陸軍航空軍司令部를 陸軍에서 分離하여 空軍으로 獨立하였는데 當時의 兵力은 1,600 명이며 保有飛行機는 L-4型 10대와 L-5型 10대였다.

이와 같은 空軍의 獨立은 建軍日淺한 國軍에 새로운 面目을 보이게 되었다. 李承晚 大統領은 美軍事顧問團의 반대를 반박하되 「北僞가 空軍을 增強하고 있는 이 場에서 韓國空軍의 必要性이 무엇보다도 切實하다. 하루 속히 空軍을 독립시켜 北僞空軍과 對等한 戰力을 갖추어야 방방할 것이다」라고 力言하였던 것도 陸·海軍과 더불어 現代戰의 主役이 될 空軍의 重要性을 痛感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리하여 空軍은 空軍本部職制(大統領令 제254호)로 空軍本部(總參謀長, 金貞烈 大령)를 設치(1949. 10. 1)하고, 陸軍航空士官學校를 空軍士官學校로, 飛行部隊을 飛行團으로, 航空基地部隊을 航空基地司令部로, 女子航



<空軍發足後의 L-4型機 練習場面(汝矣島基地에서)>

空教育隊를 女子航空隊로 각각 改編하는 한편, 空軍病院과 補給廠을 新設하였다.

#### (나) 基地의 擴張

또 한편으로 5개 基地(水原·群山·大邱·光州·濟州)를 增設하여, 獨立後에는 모두 7개 基地를 갖추게 되었다. 본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舊日本軍이 開設한 15개 基地(汝矣島—金浦—水原—平澤—大田—大邱—群山—水營—金海—浦項—蔚山—光州—鎮海—濟州—藝瑟浦)가 있었는데, 空軍은 이 모든 基地의 施設을 管轄하면서 장차의 擴充에 대비하였다. 이 基地管轄은 韓國戰爭 발발 後에 UN 空軍의 활동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 (다) 飛行機의 增強

그런데 空軍은 獨立되었어도 輕飛行機 20대로써는 本然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음을 歷·順叛亂事件에서 이 사실을 더욱 切感하였다. 大抵 戰鬥裝備을 갖추지 못한 連絡機로서는 다만 偵察과 傳單撒布 그리고 連絡 등에 不過한 役制만이 作戰任務가 소혀 不可能하였으며, 더구나 1949년 初에 이르러 北僞의 空軍이 이미 U. S. S. R製 YAK戰鬥機 20대를 保有하고, 계속 導入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空軍의 飛行機 增強은 喫緊之事が 아닐 수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政府要路와 空軍當局은 수차에 걸쳐 美國의 援助를 要請하였으나 美行政府는 당시 國軍에 대한 軍事援助의 수준을 小銃과 機關銃 그리고 81mm 迫擊砲 정도로 安易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飛行機의 援助란 都是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다.

1949년 2월에 訪韓한 美陸軍長官 Kenneth C. Royall과 Albert C. Wedemeyer 중장을 통하여 反應을 보인 美國의 公式의인 見解로서는 『韓國이 過度한 軍備로 因하여 經濟的인 負擔을 느껴서는 안되고, 오직 經濟安定에 全力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橫說豎說로서 軍備에 대한 無神經의 물골을 보였을 뿐이었다. 李承晚 大統領은 Claire L. Chenalt 소장 (예비)을 통한 幕後교섭으로 F-51 戰爆機 25대를 포함한 99대를 引受받으려 하였으나, 美極東司令官 MacArthur 元帥는 이를 反對하여 말하기를 『國內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큰 軍事力을 保有한다는 것은 南北韓間의 全面戰爭을 유발할 可能性을 증가시킬 뿐이며, 또 이러한 軍事力은 共產世界로 하여금 南北韓間의 武裝競爭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助成하게 된다』라는 理解할 수 없는 歪曲의인 見解로 말미암아 挫折을 보고 말았다.

擧國學軍의으로 바라는 美國의 援助의 길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막히게 되자, 政府와 國會에서는 窮餘之策으로 愛國機獻納運動案을 推進한 끝에 全國民의 積極呼應을 얻어, 高等練習機인 AT-6 10대를 직접 구입하고 1950년 5월 14일에 汝矣島에서 命名式을 거행하였다.

國家의 建設과 國民의 愛國心을 상징하기 위하여 總稱 建國機라고 부른 20대의 命名은 다음과 같다.

建國 제 1號(交通 제 1號)·建國 제 2號(全南學徒 제 1號)·建國 제 3號(全北學徒 제 1號)·建國 제 4號(專賣 제 1號)·建國 제 5號(忠南 제 1號)·建國 제 6號(遵信 제 1호)·

建國 제 7 號(國民 제 1 號) · 建國 제 8 號(農民 제 1 號) · 建國 제 9 號(南電 제 1 號) · 建國 제 10 號(慶北 제 1 號)

### (8) 海兵隊의 創設

國軍組織法으로 陸軍과 海軍이 發足되었으면서도 海兵隊에 관한 條文은 司法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麗·順叛亂事件(1948. 10. 19)을 鎮壓함에 있어 上陸戰을 전담하는 特殊部隊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되었으니 叛亂軍의 鎮壓을 위하여 陸軍은 제3, 제4, 제5, 제6, 제12, 제15의 각 연대를 급거 출동시켰고, 海軍은 忠武公·제510, 제304, 제302, 제305, 제516, 제505의 各艦을 鎮海 및 木浦基地에서 출동시켜 10월 22일부터 海岸封鎖作戰을 수행하였는데, 이 臨時艦隊(사령관, 李相奎)의 作戰告報에서 艦艇裝備의 強化 및 海兵隊의 必要性을 重點적으로 指摘하였던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이麗·順叛亂의 鎮壓에서 海軍은 海岸封鎖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萬若에 上陸戰部隊를 保有하였더라면 이 作戰을 보다 짧은 時日內에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海軍首腦部는 歐美諸國의 海兵隊에 뒤지지 않는 此種部隊의 創設을 위한 研究에 着手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마련된 研究建議案에 대하여 당시 國訪部參謀總長이던 蔡秉德 大령은 말하되 『陸軍과 같은 地上戰鬪를 하는 성질의 海兵隊는 不必要하다』라는 單純한 判斷로 말미암아 수정되어, 海軍基地警備를 主任務로 한다는 名目으로 겨우 승인받게 되었다.

이에 海軍本部는 1949년 2월 1일에 申鉉俊 中령을 海兵隊司令官으로 임명하는 한편, 海軍將兵들 중에서 志望者를 모집하는 創設단계를 거쳐, 1949년 4월 15일에 德山飛行場에서 創設式을 거행하였다.

이 때의 편성은 司令部(15명 : 人事·情報·作戰·兵器·通信·法務·醫務·憲兵)·經理隊(15명)·勤務중대(70명)·情報隊(10명)·제1 및 제2 중대(270명)의 380명 兵力이었다.

1948년 11월에 海兵隊 創設문제가 提起된 뒤 制度上 또는 法令上으로 제한을 받는 여타가지 隘路중에서 간신히 海軍基地의 警備라는 名目으로 1개 대대 基幹의 海兵隊가 滿 5 개월만에 창설된 것인데, 1949년 5월 5일에는 海兵隊令(大統領令 제88호)으로서 法的인 승인을 받았다.

(海兵隊令은 韓國戰爭 중 海兵隊의 機構編成이 擴張되고, 任務가 變更됨에 따라 1952년 8월 15일에 大統領令 제672호로서 全文 16條로 改正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條의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陸上戰鬪에 任하는 同時에 駐屯地域의 警備任務를 遂行한다』에서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上陸作戰을 擔當하여 必要에 依하여 一般 地上戰鬪에 從事할 수 있다』라고 修正됨으로써, 海兵隊가 上陸作戰을 爲主로 하는 部隊임을 法的으로 明文化하였다).



### 나. 北傀政權의 軍備

大韓民國 국군이 美령정부 및 南韓進駐 美軍政 당국의 消極과 退嬰으로 말미암아, 迂餘와 曲折이 극심한 創軍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에 反하여, 北傀政權은 그 軍備擴充의 과정에 있어서 U.S.S.R 政府와 軍政當局의 意圖的인 積極後援下에 계획된대로의 強化와 擴充의 길을 一路 踴躍할 程으로 보여진다.

즉, U.S.S.R 軍은 北韓進駐와 더불어, 당초의 政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北傀政權을 育成하며 그 軍備를 뒷받침한 것이었다.

韓半島에 대한 U.S.S.R의 政略은 半島全域을 완전히 赤化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바, 北傀政權의 軍備를 적극 지원한 것은 이러한 巨視的인 嚮本으로 不遑한 將來에 있어서 武力行使로써 그들의 政略目標을 解決하리라는 양심한 속셈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北傀政權의 軍備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南侵 軍事力을 蓄積하였다.

胚胎期(1945. 8. 15~1946. 8. 15) : 日本降伏에서 保安幹部訓練大隊의 창설까지의 期間.

創設期(1946. 8. 15~1948. 2. 8) : 保安幹部訓練대에서 傀儡軍 창설까지의 期間.

強化期(1948. 2. 8~1950. 6. 25) : 全面南侵을 恣行하기 까지의 軍備強化 期間인바 이 強化期를 다시 3개 期로 나누어, 제1期(發軔期, 1948. 2. 8~1948. 12. 31) · 제2期(再編期, 1949. 1. 1~1949. 12. 31) · 제3期(整頓期, 1950. 1. 1~1950. 6. 25)로써 南侵軍備에 狂奔한 것이었다.

#### (1) 胚胎期(1945. 8. 15~1946. 8. 15)

1945년 8월 15일에 日本이 降伏하자 北韓地域에서는 晝晚植을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의 인 愛國指導자들이 各 地域別의 自衛隊 또는 治安隊를 조직하여,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治安을 確保하였다.

그러나, 同年 8월 24일에 U.S.S.R 제25군 司令部 및 政治司令部가 平壤에 進駐하자마자 愛國團體의 治安隊 및 自衛隊의 활동에 制動을 걸기 시작하였다.

즉, 政治司令部는 北韓進駐와 동시에 地域別 人民委員會를 조직하였으며 그들의 傀儡 金成柱를 내세우기 前에는 國內 共產主義者인 玄俊赫系列이 橫行하면서 그들대로의 治安隊를 조직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治安隊로써 右翼系列의 오랜 上着勢力을 除去하는 行動隊로 내세워 公公然한 紛糾을 도발케 하였다.

政治司令部는 또한 蘇聯派 共產主義者들로써 各 道廳所在地를 중심으로 한 各 都市에 赤衛隊를 따로 편성케 하고, 舊日本軍으로부터 接수한 武器로써 이들을 武裝시켰다.

뿐만 아니라, 親蘇一色の 共產化를 서둘러 曹瑛植이 領導하는 民族系列과 玄俊赫系의 國內共產系列을 去勢하면서 蘇聯派 共產系의 傀儡들을 前面에 내세웠으니, 이들이 바로

U. S. S. R軍 출신인 金日成(金成柱)·金 策 등이었다.

### (가) 保安隊의 急造

1945년 10월 20일, U. S. S. R軍政當局은 ① 北韓內의 모든 武裝勢力의 解散 ② 一切의 武器·彈藥·軍需物資를 U. S. S. R軍 警務司令部에 搬入 ③ 各道(臨時人民委員會)는 U. S. S. R軍司令部와의 협의下에 규정된 人員의 保安隊조직의 許可등을 要旨로 하는 命命을 공포하였다. 이는 金成柱등의 허수아비들에게 實權을 장악케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10월 21일에 各治安隊와 自衛隊가 이 命命으로 해산되고, 새로운 軍事組織인 2,000명 규모의 保安隊가 11월에 등장하였다.

이로써 金日成 一派에게 血刀를 차게 하고 그 卒徒들의 武裝化로써 장차 있을 剝奪體制의 밑천으로 삼게 하였다.

이에 이어, U. S. S. R軍政은 保安隊만으로는 治安과 警備의 萬全을 期할 수 없다는 이유인지 1946년 1월 11일에 各道 單位로 鐵道保安隊를 急造하였다.

이 鐵道保安隊는 事實에 있어서 正規軍으로의 발돋움을 겨냥하여 편성한 것인 듯 하며, 7월 13일에는 北朝鮮鐵道警備司令部로 改編하여 13개 중대(日製 99式 小銃이 主裝備)로써 北韓全域의 鐵道와 橋梁 그리고 터널등을 경비하는 한편, 正規軍 편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羅南과 价川에 각각 鐵道警備隊訓練所를 설치, 隊員을 대규모로 모집 充員하였다.

이 때에 新規로 增編된 北朝鮮鐵道警備司令部에 하의 부대상황을 보면, 司令部가 平壤에 위치하고, 江界—陽德—元山—咸興—新浦—鶴川—咸津—上三峰—沙湍院—新城川등 各地에 각각 1개 중대가 주둔하였다.

한편, 同年 6월 초에는 价川에 价川保安訓練所를 신설하고 新義州에 제1分所를, 定州에 제2分所를, 江界에 제3分所를 각각 설치하여, 각 分所마다 地方靑年들을 모집·入所시켜, 保安隊員과 鐵道警備員을 양성하였다.

### (나) 幹部要員의 養成

그런데 金日成一黨은 初期의 基幹兵力을 充員함과 아울러 所謂 말하는 忠誠分子인 幹部要員의 확보도 시급하므로 平壤學院과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 및 保安幹部訓練大隊部 등의 教育機關을 연이어 設立하였다.

平壤學院: U. S. S. R軍政當局의 지시로 1946년 2월 8일, 島鶴里(鎭南浦 東쪽)에 설립된 平壤學院(1949년 1월, 平壤 萬鏡臺로 移動하여 제2軍官學校로 改稱)은 傀儡政權의 수립에 所要되는 政治幹部要員을 양성하기 위하여 金日成直系가 主動이 된 機關이었다.

즉, 日本敗戰 직후에 各外地에서 入北한 軍出身者들을 入校시켜, 短期的으로 思想 및 政治教育을 注入한 뒤 保安幹部와 黨幹部 그리고 各級 臨時人民委員會幹部등으로 배치하였는데, 그 일부는 軍幹部養成을 主目的으로 하는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의 창설에 主動이 되고, 일부는 鐵道警備隊의 幹部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价川—羅南—平壤에

위치한 保安訓練所에 배치되어 傀儡軍의 前身인 保安隊員養成에 종사하였다.

한편, 各機關의 幹部들을 短期入校시켜 共產主義思想의 統一은 물론 金日成 중심의 體制 확립에 注力하였다.

同校의 편성은 露語중대(通譯官 및 軍政治部員 양성)·女性중대(女性幹部 양성)·航空중대(空軍創設 要員 양성)·通信중대(通信技術 要員 양성)·對南班(對南 遊擊隊員 및 間諜 양성)등이며, 1947년 10월 5일에 輩出한 제1期中 20명이 선발되어 U.S.S.R의 Khabarovsk 極東軍官學校에서 U.S.S.R軍事教育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對南班은 분명히 그 시초부터 南韓을 겨냥한 것이었다. 즉, 主로 南韓出身인 南勞黨員을 대상으로 思想注入과 遊擊訓練을 課하여 對南 遊擊隊員 및 間諜을 양성한 것이다. 그 뒤 1949년 初에 南勞黨출신의 極烈分子들이 主動이 되어 江東에 遊擊養成學校(江東政治學院의 前身)를 分立시켜, 南韓에 대한 赤化工作의 兇策과 遊擊戰法을 6개월 동안에 걸쳐 철두철미 훈련시킨 다음, 38°線以南으로 계속 침투시킴으로써 入山共匪와 合流케 하였다. 이 南派人員은 南侵당시까지 무려 10차례 걸쳐 도합 2,385명에 달한다.

航空중대는 平壤 美林飛行場으로 이동하여 傀儡空軍의 母體가 되었다.

金日成一黨이 이 學院이라는 名稱下에 軍幹部를 秘密裡에 양성한 것은 南北軍政下에서는 軍有成이 許容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政治의 實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蘇聯派와 國內派 그리고 延安派(金科泰 系列) 사이에 軋轢이甚한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金日成一黨이 隱密裡에 武裝勢力을 양성하여, 北韓 全域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자 國內派와 延安派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蘇聯派에게 숙청을 당하거나 또는 흡수되고 말았다.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는 金日成의 直系인 이른바 빨치산 출신 30여명과 平壤學院 短期修了 10여명이 主動이 되어 1946년 6월 中旬에 창설한 軍幹部養成機關이다.

平壤學院이 表面的으로는 政治幹部의 養成機關으로 塗色된데 比하여, 이 機關은 당초부터 軍幹部養成을 목표로 地方保安隊員 및 地方人民委員會의 極烈分子로서 北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를 선발하였다.

그 편성은 步兵중대(3개)·砲兵중대(3개)·重機중대(1개)·工兵중대(1개)·經理중대(1개)·軍醫중대(1개)·通信중대(1개)·軍樂소대(1개)등이며, 제1期(1946. 10. 22~1947. 11. 10)로 輩出된 者들은 나중에 傀儡 人民集團軍이 편성된 다음에 소대장·중대장·교관 등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12월 초순, 人民軍창설이 公式的으로 선포된 뒤에 이 學校는 平壤에 이동하는 동시에 제1軍官學校로 改稱하여 各種 兵科를 종합한 綜合軍官學校로서의 機構로 擴張하였다.

특히 砲兵科가 다음해인 1949년 3월에 U. S. S. R製 122mm砲를 導入한 뒤부터 이미 本格的인 砲術訓練을 실시하는등, 2년의 短期間內에 各兵科 모두가 質적으로나 量的으로 급속한 擴張을 이루었던 것이다.

保安幹部訓練大隊部: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와 平壤學院 및 价川保安訓練所에서 軍官 및 戰士들이 輩出되어 各處에 배치됨에 따라 이들을 統合지휘하는 機構가 필요하게 된듯 하여 1946년 8월 15일에 保安幹部訓練大隊部(사령관, 崔庸健)를 창설하고, 그 隸下에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와 平壤學院 그리고 3개 訓練所와 3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訓練所는 价川保安訓練所를 訓練 제1所로, 羅南에 訓練 제2所를, 元山에 訓練 제3所를 각각 改編 또는 新設하고, 平壤의 北朝鮮鐵道營備隊를 訓練 제4所로 改編하였다가 나중에 大隊部司令部로 改稱하였다.

司令部 直轄의 3개 대대는 대대別로 4개 중대씩 편성하여, 北韓地域의 東部와 西部 및 東北部에 區分 배치되었다.

즉, 제1대대는 海州—沙里院—江界—新成川에, 제2대대는 城津—古州—端川—上三峰에, 제3대대는 咸興—新浦—陽德—元山에 각 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保安隊員의 모집은 당초 18세에서 25세까지의 青年을 志願形式으로 募集하였으나, 나중에 民靑員 및 黨員들을 集團의으로 入所시켰으며, 訓練은 舊日本軍의 38式 小銃에 의한 步兵訓練을 主로하고, 中대 單位로 輕機關銃 1정과 3명에 1정씩의 小銃을 배당하였다.

이처럼, 北韓內의 모든 武裝勢力을 統合하여 軍事的인 單一體制로 形成한 保安幹部訓練大隊部의 창설은 北傀軍의 사실상의 創軍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U. S. S. R은 軍事援助物資(蘇製 機關短銃·輕機關銃·重機關銃·迫擊砲 및 제2차 大戰의 戰利品인 獨逸製 軍服地등)가 1947년 初에 鎭南浦에 卸下되어, 保安幹部訓練大隊部의 各 隊하부대에 보급됨으로써, U. S. S. R軍에 의한 北傀軍 편성의 背後조종이 表面化되었으며, U. S. S. R軍事顧問團이 각 訓練所와 幹部養成機關등에 배치되어 전반운영에 關여하였다.

이로써, 保安幹部訓練大隊部는 U. S. S. R의 積極지원下에 傀軍의 母體가 되어 急速한 擴充의 길을 치닫게 되었는데 비록 名稱은 保安隊이지만 그 實에 있어서는 地上軍에 屬한 體가 아니었던 것이다.

#### (다) 海軍의 胚胎

한편, 1946년 7월에 1개 대대로써 海岸警備를 목적으로 東海水上保安隊를 창설(대대본부: 元山)하고, 東草—長箭—西湖津—新浦—庫底 等 地에 7개 地分隊를 배치하였으며, 다른 1개 대대로 西海水上保安隊(대대본부: 鎭南浦)를 창설하여, 西海岸의 각 主要 港口 및 島嶼에 배치하였다.

同年 8월, 元山の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平壤에 移轉하면서 機構를 擴大하고, 12월에 海岸警備隊로 改稱하였으며, 이에 따라 元山 및 鎭南浦의 水上保安隊를 警備衛戍司令部로

改編함과 아울러 淸津에도 衛戍司令部를 新設하였다.

兵員은 地方黨員을 爲主로 充당하고, 1947년 5월에 400명을 확보하였다. 兵員擴充에 따르는 幹部養成을 위하여 元山에 海岸警備隊幹部學校를 창設(1947.6.16)하고, 1948년 2월 8일에 이른바 朝鮮人民軍을 창설함에 따라, 6,000명 兵力으로 增員하면서 幹部學校를 人民軍海軍軍官學校로 改編하였다.

### (라) 空軍의 胚胎

1945년 10월 25일, 舊日本軍 航空學校 및 中國軍飛行學校 출신자인 50여명이 靑州航空隊를 발족시켰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共產黨 및 U.S.S.R軍政當局과는 아무런 連관도 없는 순수한 民間團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U.S.S.R 當局과 金日成 一 味徒黨은 장차의 空軍창설을 겨냥하여, 幹部들에게 民衆加入을 강요하는 등 政治的 압력을 加하면서 1946년 6월 이후에 平壤學院에 흡수함으로써 軍事的인 航空隊로 變身케 하였다.

平壤學院의 航空중대가 飛行대대로 승격하고, 1948년 2월 8일에 人民軍을 創設한 이후에 空軍의 최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서든 結果 9월의 北傀政權이 捏造되자 民族保衛省에 배속하였다.

1949년 1월에 平壤學院이 제2軍官學校로 改編되면서, 飛行대대로 獨立하여 연대로 增編되어, 平壤飛行場에서 襲擊機대대와 追擊機대대 그리고 教導대대와 後方支援대대의 名으로 再編하였다.

### (2) 創設期(1946.8.15~1948.2.8)

兵員과 裝備가 증강됨에 따라 北傀集團은 1947년 5월 17일에 保安幹部訓練大隊部 이하의 全員에게 일제히 階級章을 수여함으로써 軍으로서의 正體를 들어내었다.

이 階級章 수여와 더불어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이른바 人民集團軍으로 再編擴大하여, 이하 各 부대에 固有名稱을 부여하였다.

#### (가) 人民集團軍의 창설

舊日本軍의 제97연대가 主둔하였던 平壤 解放山에 總司令部(사령관, 崔庸健)를 設치한 人民集團軍은 이하 3개 訓練所를 다음과 같이 改編하였다.

价川 保安幹部訓練제1所: 人民集團軍 步兵제1사단(장, 전승화, 계급미상).

羅南 保安幹部訓練제2所: 人民集團軍 步兵제2사단(장, 소장 姜 健)

元山 保安幹部訓練제3所: 人民集團軍 제3獨立混成旅團(장, 소장 崔敏哲)

이 增編에 맞추어, 幹部養成機關도 本格的인 軍官學校로 발전하였는데, 北朝鮮中央保安幹部學校를 제1軍官學校로, 平壤學院을 제2軍官學校로 각각 改編하였다.

裝備面에 있어서는 중전의 日製 兵器를 모두 회수하여 保安隊 및 警備隊에 배당하고, 人

民集團軍은 U.S.S.R支援의 蘇製 裝備로 一新하였다.

즉, 각 사단은 76mm 曲射砲와 45mm 反戰車砲를 비롯하여 14.5mm 反戰車砲와 120mm 重迫擊砲를 그리고 82m 迫擊砲에 이어 高射機關銃과 重機關銃 및 輕機關銃과 多發銃·小銃 등으로 장비되었고, U.S.S.R軍事顧問團의 지휘로 操作訓練을 실시하였다.

U.S.S.R軍事顧問團은 각 軍官學校와 사단에 배치되어, 3개 월간에 걸쳐 U.S.S.R軍式 制式 및 各個訓練에 이어 小·中·大隊의 戰鬥訓練을 비롯하여 兵器學과 戰術學은 勿論이고 共產黨史와 參謀學에 이르기까지 再訓練을 本格化하였다.

1947년도에 이미, 이처럼 北僞軍의 창설이 本格化하고 있었음에도 北韓住民들은 소련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正式軍服과 階級章으로 단장한 正式 붉은 軍隊가 北韓地域 內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47년 7월 27일 이른바 青年節紀念日 날이었다.

이 날, 平壤公設運動場에서 共產圈의 國際民青大會에 參觀할 北僞代表選手團과 軍官學校代表團과의 歡送경기가 거행되었는데, 이 入場式때에 正裝한 一團의 이른바 人民軍이 그 存在를 誇示하였던 것이다.

#### (나) 僞 人民軍의 창설

金日成은 正規軍의 武力基礎가 준비되자 1948년 2월 8일에 이른바 北朝鮮人民委員會 委員長의 資格으로 統帥權을 발동시켜, 人民集團軍 3개 사단을 基幹으로 하는, 이른바 朝鮮 人民軍의 創建을 宣言하고, 同年 5월 1일에는 平壤驛 廣場에서 최초의 閱兵分列式을 行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1946년 8월 15일에 北韓內의 武裝勢力을 統合하여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만들고, 다음해 5월 17일에 人民集團軍으로 改編한지 9개 월만에 이 創軍을 宣言한 것이었으니, 可謂 急進의 軍備過程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른바 革命的인 武力手段에 의한 「南韓解放鬪爭」을 목표로 하는 그들 徒黨의 南侵準備가 本 戰爭開始 2년전에 이미 本格化되고 있으니, 남을 때부터 남의 눈을 避하는 私生兒로 남았고 키울 때부터 남강도의 根性으로 키웠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

#### (3) 強化期(1948. 2. 8~1950. 6. 25)

1948년 9월 9일, 이른바 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造作宣布와 더불어 人民軍總司令部를 民族保衛省으로 改稱하고, 종전의 人民集團軍 3개 사단을 改編強化하였다.

##### (가) 사단의 改編強化

人民集團軍 제1步兵사단을 人民軍 제1사단으로 改編, 그 예하에 제1·제2·제3의 3개 연대와 1개 砲兵연대를 편입시켜, 다음과 같이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사령부 : 平南 价川

제1연대 : 平北 新義州

제2연대 : 黃海道 戴寧

제3연대 : 平北 江界

砲兵연대 : 平南 价川

人民集團軍 제2步兵사단은 人民軍 제2사단으로 改編하였으나 1949년 8월에 東北義勇軍이 入北하자, 羅南에서 咸興으로 사령부를 이동시키고, 그 아래에 제4·제5·제6의 3개 연대와 1개 砲兵연대를 편입시켜, 다음과 같이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사령부 : 咸南 咸興

제 4 연 대 : 咸北 會寧

제 5 연 대 : 平南 平壤

제 6 연 대 : 咸北 羅南

砲兵연대 : 咸北 康德

人民集團軍 제3獨立混成旅團은 人民軍 제3獨立混成旅團으로 발족하고, 1948년 9월의 이른바 北傀政權의 신포와 더불어 제3사단으로 승격하였는데, 同年 10월에 제2사단에서 제6연대를 編入받아 제8연대로 改編함으로써 3개 연대 및 1개 砲兵연대로써 사단편성을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사단사령부 : 平壤→咸興→元山(明沙十里)

제 7 연 대 : 咸南 德源

제 8 연 대 : 江原道 平康

제 9 연 대 : 咸南 興南

砲兵연대 : 咸南 元山

그런데, 이 제3사단 예하 각 연대는 華川—鐵原—福溪—襄陽등의 38°線 警戒를 담당하였다.

1948년 10월 15일, 人民軍 제4獨立混成旅團을 3개 대대와 6개 直屬獨立部隊로써 창설하고,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으며, 1949년 末에는 다시 人民軍 제4사단으로 승격시켜, 1개 사단을 增編하였다.

여단사령부 : 平南 大同郡 柳沙里

제 1 대 대 : }  
直屬部隊 : } 平南 嶺南浦

제 2 대 대 : 平北 新義州

제 3 대 대 : }  
砲兵대대 : } 平南 平壤

## (나) 東北義勇軍의 入北과 사단의 增編

이처럼 軍事力을 本格的으로 增強하기 시작한 金成柱는 이른바 東北義勇軍(中共軍內에 있는 韓國人部隊)을 北韓에 끌어들이기 위한 哈爾濱會談에 代表團을 파견하였다.

1949년 1월에 北僞代表(崔庸健: 民族保衛軍 및 金武亨: 砲兵司令官 등)와 中共代表(周保中: 東北人民解放軍吉林地區司令官) 및 U.S.S.R 代表(軍事代表團: 北僞軍育成을 담당한 北韓駐屯軍事專門家들)가 會同한 이 會談은 中共軍內의 韓國人部隊 28,000명을 1949년 9월 末까지 前後 3차에 걸쳐 北韓으로 송환하기로 謀議하였다.

그런데, 金口成은 이 會談에 앞선 1947년 3월부터 吉林省政府內에 民族廳이라는 연락부 를 두어 中共側에 교섭한 것이었다. 同年 7월에 義勇軍內의 熱誠分子 60명을 入北시켜 思想注入을 하고, 10월에는 다시 戰鬥經驗者 1,500명을 선발하여 民族保衛省 및 內務省內에 배치하여 僞僞軍의 骨幹으로 삼았다. 이로써 哈爾濱會談에 앞선 1948년 9월부터 東北義勇 軍의 일부가 入北하였으며, 會談결과에 의하여 다음해인 1949년 7월부터 大舉 入北하였 는데, 그 入北 및 사단 편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제6사단 편성: 中共軍 제166사단(장, 方虎山. 舊 獨立 제4사단)의 10,000명 兵力이 同 年 7월 25일에 新義州로 入北하여 10월까지 安州地區로 이동함으로써 補充兵 800명을 받 아 僞僞軍 제6사단을 편성하고, 예하 各 연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사단사령부: 平北 新義州

제13연대: 黃海道 載寧

제14연대: 黃海道 沙里流

제15연대: 平北 新義州

砲兵연대: 平北 楊市

제5사단의 편성: 中共軍 제164사단(장, 金昌德. 前 人民解放軍 제11사단)의 10,000명이 1949년 8월 23일, 鐵道便으로 會寧 經 遼 羅南에 도착하여, 제10·제11·제12의 3개 연대 및 1개 砲兵연대를 基幹으로 제5사단(사령부: 咸北 羅南)을 편성하였다.

제7사단의 편성: 1950년 5월 초순, 中共軍 제20사단內의 義勇軍과 中國 各地에 散在한 中共軍 출신 韓國人義勇軍 10,000명을 규합하여 入北한 뒤, 제1사단 砲兵 1개 대대를 편입 받아 元山에서 제7사단을 편성하였다.

이 3개 사단외에도 1949년 8월에 義勇軍 2,000명이 入北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獨·蘇 戰에서 Stalingrad 戰鬥에 참가한 바 있는 U.S.S.R軍 출신 韓國人 2,500명도 入北하여, 各 사단의 基幹要員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中共軍 출신의 古參兵들이 중점적으로 제1·제4·제5·제6·제7의 各 사단에 집중되어, 僞僞軍官의 3분의 1을 占하였으며, 東北義勇軍 출신의 대부분은 제5·제6·제7의 各 사단에 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1 및 제4사단에는 各 各 義勇軍출신 1개 연대를 편



입케 하였다.

入北한 義勇軍은 일정기간에 U.S.S.R軍의 戰術敎範에 의한 再訓練을 받았다.

傀儡軍의 軍備는 急速度로 強化되었는데 南侵을 목표로 하는 訓練도 加速되는 가운데, 金日成은 다시 各道에 民靑訓練所를 설치하여, 北韓의 靑壯年에게 軍事訓練을 强要하면서 제2補充兵力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高級中學校 이상의 各學校에 配屬將校를 배치하여 學生들에게 軍事訓練을 실시하였으며, 黨의 熱誠分子들은 이른바 祖國保衛後援會를 조직하여 軍需物資를 強制로 바치게 하는 한편, 滿17세에서 滿40세까지의 男女를 軍事訓練에 총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各道の 民靑訓練所를 基幹으로 3개 사단을 더 增綴하였다.

제10사단의 편성 : 1950년 3월, 肅川의 제2民靑訓練所를 제10사단으로 편성.

제13사단의 편성 : 1950년 3월, 新義州의 제1民靑訓練所를 제13사단으로 편성.

제15사단의 편성 : 會亭의 제3民靑訓練所와 入北 義勇軍 1개 대대의 軍官 및 下士官을 基幹으로 제15사단을 편성.

이로써 1950년 5월까지 北傀集團은 10개 步兵사단을 急編完了한 것이다.

더군다나 入北 義勇軍출신으로 편성된 部隊는 傀僞軍에서도 最強部隊로서 南侵時에 東海岸 및 西海岸의 兩翼에서 挾攻태세의 主役이 되었다.

#### (다) 戰車部隊의 창설

1947년 5월에 平壤 寺洞1묘에 주문한 U.S.S.R軍의 1개 戰車사단은 傀僞軍 戰車技術兵을 양성하기 위하여, 傀僞軍 제115戰車연대를 창설하였다.

이 해 末부터는 이 基幹要員들이 각 地方黨과의 협력下에 主要都市의 高級중학교에 體育敎員の 명목으로 竊투하여, 유능하고 체력좋은 학생 400명을 선별한 다음, 이들에게 U.S.S.R 軍이 指導하는 戰車技術(조종·포격·修繕·지휘·통신)을 强訓주입케 하였다.

그리고 2年뒤인 1949년 初에는 U.S.S.R 軍 戰車사단이 먼저 竊투하면서 1개 戰車연대(32 ton 中型戰車 및 52ton 重型戰車 등 150대)와 兵員 300명을 殘留시켜 傀僞軍 戰車部隊를 창설하는 骨幹으로 삼았다.

제115 戰車연대는 1948년 12월에 이미 完全編制(2개 戰車대대·SU-76 白走砲대대·工兵중대·정찰중대·수송중대·수리중대·軍醫所 등)를 갖추었는데, 이는 殘留 1개 연대가 竊투하면서 顧問官 15명과 함께 인제한 裝備(戰車 60대·SU-76 白走砲 76.2mm 30대·Side Car 60대·自動車 40대)를 基幹으로 한 것이었다. U.S.S.R 軍은 또한 高度의 戰車 戰術을 傀僞軍에게 注入하기 위하여 特別軍事使節團을 편성하여 파견하였는데, 이 使節團의 대부분이 裝甲戰術의 權威者들이어서 南侵時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裝備의 引受와 동시에 戰車部隊의 軍官 및 戰士를 양성한 이 戰車연대는 1949년 5월 16일에 제105戰車旅團으로 改編하고, 그 예하에 제107·제109·제203의 3개 연대 및 제108



<蘇製 T-34型 戰車로 重武裝한 北傀의 戰車部隊(1947.5)>

教導연대 등을 편성하고, 1개 연대에 戰車 36대를 장비케 하였다.

또한, SU-76 自走砲 대대(64대)와 제303 機動偵察대대(Side Car 200대), 그리고 제 506 通條대대와 工兵대대를 비롯하여 運輸대대와 제206 機械化 步兵연대 등도 제105 戰車 旅團에 예속케 하였다.

이처럼 날로 強化된 이 旅團은 一名 虎穴寺洞部隊라 稱하며, 傀軍의 最强部隊로 自處 하였는데, 그 편성과정은 U.S.S.R 軍事支援의 代表的인 類型이었다.

그런데, U.S.S.R은 당초에 T-34型 500대로서 傀軍에게 2개 戰車사단을 保有케 할 계획이었으나, 河川과 山岳이 많은 韓國地形이 大規模의 戰車運用에는 不適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계획의 半數인 242대로써 1개 師단을 편성하였다가 南侵直後(1950.7.5)에 사단으로 改編하였다.

1950년 4월 末 현재, 제105戰車사단은 兵力 8,800명, T-34型(35.2ton) 戰車 242대, SU-76 自走砲(76mm) 154대, Side Car 560대, Truck 380대 등의 主裝備를 完備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예하 각 연대를 배치하였다.

旅團본부 : 平壤(寺洞)

제107연대 : //

제208연대(教導) : //

제109연대 : 黃海道 南川

제203연대 : 江原道 鐵原

由此觀之 連대 蘇軍政은 地上軍의 強化와 育成過程에 있어서 우선 무엇보다도 機械化部隊의 擴充策을 強力히 推進하고 一線의 火力을 增強하는데 注力한 事實을 明白히 알 수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 쪽에는 이미 살펴본대로 단 1臺의 廢品戰車도 없었고 쓸만한 對戰車裝備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現代戰의 寵兒인 戰鬪機 1臺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問題는 美側 特히 政治指導者들의 頭腦가 共產分子들의 思考方式을 恒常 自己네와 같은 水準에서 評價하고 看倣하는에서 커다란 誤謬의 씨가 뿌려진 것이니 그 當時의 當路者들은 입이 열 이 있다 하여도 敢히 아무런 변경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다음 項의 軍事力 比較를 一瞥하면 能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라) 傀儡 海軍의 發足

北傀의 海軍은 1949년 12월에 內務省 소속의 海岸警備隊가 民族保衛省으로 移管됨에 따라 이른바 人民軍 海軍이라는 명칭으로 正式 發足하였다.

總司令部 下에 제1衛戍司令部(淸津基地)와 제2(元山基地) 및 제3(鎭南浦基地)의 衛戍司令部, 그리고 海軍軍官學校와 技術訓練所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兵力은 道합 15,270명이었다(總司令部 1,000명, 元山基地 4,750명, 淸津基地 3,920명, 鎭南浦基地 5,000명, 軍官學校 500명, 技術訓練所 200명, 艇隊 200명).

裝備에 있어서는 1949년 12월에 U. S. S. R의 軍事援助로 35척 (5,560ton)의 小艦艇을 보유하게 되고, 1950년 5월에는 元山 및 鎭南浦基地에 각 1개 대대의 陸戰隊를 新設하였다.

그 중, 元山の 陸戰隊는 南侵때에 南海旅團으로 改編되고, 鎭南浦의 陸戰隊는 南侵직전에 제4사단에 편입되었다. 그들의 海軍의 根本弱點은 東西의 兩海로 分斷된 事實에 있으며 이러한 弱點의 補強策으로 補助小艦艇의 快速化가 重視된 것으로 보여진다.

#### (마) 傀儡 空軍의 發足

U. S. S. R이 傀儡軍을 育成함에 있어, 또 하나의 力點을 기울인 것이 空軍力의 急増이었다.

U. S. S. R의 軍事援助는 U. S. S. R製 IL-10 및 YAK-9型的 제공과 幹部要員의 教育훈련으로 大別된다.

1949년 3월에 金日成이 Moskva에서 南侵談議를 마치고 돌아온 뒤, IL-10型 및 YAK-9型 戰鬪機 30대를 지원받았으며, 1950년 4월에는 60대를, 南侵 1주일 앞둔 6월 18일에는 다시 60대를 지원받았다.

제3차의 60대는 U. S. S. R軍 조종사들이 직접 連浦飛行場까지 물고은 것이었다.

이처럼 急速히 增強된 傀儡 空軍은 南侵직전까지 兵員 2,000명(조종사 200명, 정비사 400명, 기타 1,400명)과 IL-10, IL-2, YAK-9型 戰鬥機 200대를 保有하였다.

基地는 新義州(平北)—安州(平北)—平康(江原道)—新幕(黃海道)—平壤(平南)—宣德(咸南)—連浦(咸南)—清津(咸北) 외에 10여 個所에 達하였다.

U.S.S.R의 支援으로 戰鬥機를 導入함에 따라, 飛行연대를 航空사단(사령부: 平壤飛行場)으로 增編(1949.12)하고, 그 外에 追擊機연대와 襲擊機연대 그리고 教導연대와 工兵대대를 편성하였다. 각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고, 工兵대대는 3개 중대 편성으로 주요 航空基地에 배치되었다.

南侵시기가 임박하면서 對南攻擊基地를 38°線에 가까운 平康 및 新幕基地 등으로 前進시켰는데, 襲擊機연대를 連浦 및 平康基地에, 追擊機연대를 平壤 및 新幕基地에 각각 배치하였다.

#### (바) 保安隊의 增編

北傀는 陸·海·空의 正規軍 外에 各道 治安과 38°線 警備를 전담하는 保安隊를 增編하여 軍備의 一角을 이루게 하였다.

保安隊는 1945년 10월, U.S.S.R軍政 當局의 承認下에 2,000명 兵力으로 鎭南浦에 設置한 保安대대를 시초로 하고 있다.

그 幹部는 各地에서 抗日鬪爭하던 共產黨員들이며, 철저한 政治·思想的인 敎化를 받아 시초부터 U.S.S.R軍政 當局과 北勞黨의 적극적인 支持下에 增編되었으며, 1950년 5월에는 50,000명을 保有하기에 이르러 38°線 警備隊와 朝滿國境警備隊 및 鐵道警備隊로 편성되었다.

38°線 警備隊: 1947년 7월부터 38°線 警備를 強化한다는 名目으로 이른바 38°線 警備隊를 조직하였으며, 1948년 1월부터는 本格的인 軍隊의 성격을 띠는 38°線 保安旅團을 沙里院에 設置하여, 各地의 警備隊를 통합하는 保安 第3旅團으로 改編하였다.

그리고 同年 9월에는 鎭南浦의 保安대대가 鐵原으로 이동하여 2개 대대를 新設하였는데 1949년 5월 1일에는 都合 4개 대대로써 江原道の 38°線을 담당하는 38警備 第1旅團(본부: 江原道 杆城)으로 改編하였으며, 沙里院의 保安隊 第3여단도 38警備 第3여단(본부: 黃海道 竹川)으로 改編하는 한편, 市邊里에 38警備 第7여단을 增設하였다.

그런데, 이 38°警備隊는 38°線을 경비한다는 口實下에 수시로 38°線을 侵犯하여 國軍과 의 충돌사건을 惹起시켰으며, 國軍의 배치상황을 探知하고 戰力을 평가하는 사전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 兵力은 제1여단이 5,000명, 제3 및 제7의 兩여단에 각각 4,000명 규모로서 計13,000명이며, 6개 대대와 偵察중대 및 45mm 反戰車砲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 3개 38警備여단은 1950년 6월 南侵直後에 人民軍 第7 및 第8사단으로 改編되면서 內

務省에서 民族保衛省으로 移管되었다.

· 朝滿國境警備隊 : 1948년 9월, 朝滿國境警備隊 3개 대대를 편성하여 朝滿蘇國境地帶에 배치하였다. 그 뒤에 7개衛戍司令部로 改編되어 그 兵力이 2,600명 규모로 迫擊砲와 輕機關銃의 輕裝備를 갖추었다.

· 鐵道警備隊 : 1947년 人民集團軍이 發足하면서 鐵道保安대대를 창설하고, 1948년 9월에는 다시 鐵道保安旅團으로 增編된 다음, 1949년 1월에 鐵道警備 제5旅團의 4개 대대로 改編하였다.

#### 다. 彼我 軍事力の 比較

위에서 一瞥한 바와 같이,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U.S.S.R側의 빈틈없는 軍事援助계획의 추진과 金日成(金成柱) 一黨의 軍備強化策動에 따라, 이른바 北傀集團의 人民軍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그 軍事力은 始終如一로 大韓民國의 軍備를 증가하는 기막히는 實情이었다.

이에 反하여 우리쪽의 軍備는, 美國의 安逸하고 微溫的인 對韓軍事援助라는 形式에 不適當한 政策의 餘弊로써, 兵力面과 裝備面에 있어서 현저한 遲拙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저 大韓民國에 대한 美國의 武器援助라는 것은 1948년 9월, 美軍의 철수에 앞서 체결된 韓美軍事協定에 의하여 裝備의 일부를 移讓한 것이 그 始初이었으나, 그 가운데서나마 重裝備라고 볼 수 있는 105mm 野砲와 57mm 對戰車砲마저도 廢品에 가까운 古物이었으며, 駐韓美軍이 사용하던 105mm M2 野砲 및 75mm 無反動銃등 高性能의 火砲란 單 1문도 移讓하지 않았으니 富者가 어찌던 이리도 吝嗇할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 痛嘆하지 않는 者 없으리라.

이렇듯, 당시의 美國의 對韓援助政策은 大韓民國(韓國)에 최소한의 裝備만을 한낱 걸치 예로 지원한다 하여, 治安維持가 겨우 可能할 정도의 軍備에 그치고 있었다.

1949년 4월, 韓國政府는 軍備의 劣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對美交涉代表(特使, 趙炳玉)를 파견하였으나, 美行政府는 『重裝備를 韓國에 지원하면, 全面戰爭을 誘發할 可能性이 있다.』라는 이유로 戰車 및 戰鬪機등의 지원요청을 외면하고, 兵力 50,000명분의 輕裝備와 6개월분의 補給品을 供與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로 因하여, 韓國은 당시의 國家的 與件으로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自力軍備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하나가 國民들의 獻納誠金으로 1950년 5월 14일에 購入한 T-6型 練習機(建國號) 10대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때에 이미 YAK-9型 戰鬪機 및 T-34型 戰車를 갖추고 있던 北傀에 比하면, 엄청난 落差의 劣勢를 免치 못한 實情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韓國과 北傀政權의 軍備의 落差는 곧 美國과 U.S.S.R의 對韓半島 軍事政策의 基本概念의 優劣에서 비롯된 必然的인 歸結로 나타난 것이었다.

## (1) 美國의 對韓軍事政策

美國의 對韓 軍事政策은 南韓進駐의 당초부터 韓半島의 極東에 있어서의 戰略的인 位置를 過少評價한데서 安逸性和 消極性을 띠지 못하고 있었다.

즉, 美國의 JCS(合同參謀本部—Joint Chief of Staff)는 1945년 8월 11일, 美地上軍의 南韓進駐에 앞서, 國務長官 J. F. Byrnes에게 進言하기를 『韓半島 南端의 地域(釜山)만 橋頭堡로 장악한다면, 該半島에서의 U. S. S. R과의 경쟁에서 有利할 수 있다.』라는 安易한 見解를 내어 놓았으며, 甚至於는 MacArthur 元帥마저도 終戰을 終戰하여 極東地域에 대한 U. S. S. R의 膨脹主義가 得勢할 것으로 豫見하면서도 韓半島를 포함한 極東地域에서의 戰略的인 價値를 過少評價한 듯 하였다.

이러한 過少評價는 美行政府와 軍高位層에 共通된 謬見이며, 南韓進駐가 遲延된 理由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駐韓美軍은 進駐당초부터 早速한 時日內에 철수할 것을 미리 前提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政治的인 문제(統一政府수립)를 해결하기 위한 제1·제2차 美蘇共同委員會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47년 5월, 美國은 戰後의 減軍을 大幅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軍費削減에 관한 議會의 壓力이 加重되고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美陸軍長官 R. Patterson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駐韓美軍의 철수를 美國防省에 건의하였다.

『① 削減된 陸軍豫算으로서는 駐屯에 필요한 經費를 지탱할 수 없다.

② 韓國은 相對的인 見地에서 戰略的 價値가 없다.』

또한, 同年 9월에 大統領 Truman의 特命으로 JCS가 極東地域에 파견한 Wedemeyer軍事使節團의 現地調查報告도 역시, U. S. S. R의 膨脹主義로 因한 緊張造成을 危險視하면서도 結論的으로는 要旨 다음과 같이 駐韓兵力의 철수를 중용하였다.

『軍事上의 安全이라는 見地에서 駐韓하는 現兵力이나 基地에 관한 戰略的 利益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極東에 있어서 敵對行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駐韓兵力이 軍事的인 負擔이 되며, 本格的인 增援이 없는 限 이를 유지할 수가 없다…… 만약, 韓半島에 敵의 海·空基地가 설치되어…… 美軍의 後方補給線을 威脅하게 되면 航空力(Okinawa 제5空軍)으로 容易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美軍의 現有兵力이 大幅 削減된 현재, 駐韓 2개 사단의 軍團兵力 45,000명을 他地域으로 轉用할 수 있으며…… 韓國의 治安을 목적으로 하는 現駐屯목적에 비하여 過多한 經費가 消耗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美國의 安全에 별로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駐韓美軍을 危險속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Wedemeyer 中장은 또한 그 自身이 작성한 秘密報告(1951. 5, MacArthur 解任에 관한 美上院外交軍事合同委員會에서 公開)에서, U. S. S. R軍의 北韓駐屯이 계속되는 동안

에는 駐韓美軍의 주둔이 필요할 것이라고 前提하면서도 역시,

『……極東에서 大戰이 일어날 경우에 駐韓美軍이 軍事的인 負擔이 될 可能性이 많으므로 韓國에 있어서 美國이 取할 軍事行動(철수)에는 세가지의 方策이 있다.

첫째, 單純히 철수할 것. 이는 U. S. S. R에 대하여 南韓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北韓 共產軍으로 南韓에 挑戰해올 것이다. 이 方策은 戰略的 見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無期限으로 계속 주둔할 것. 이 方案은 만약에 U. S. S. R軍이 北韓에서 철수해 버리면 美國이 國際的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셋째, U. S. S. R軍의 철수와 동시에 美軍도 철수시킬 것. 가장 적당한 방법이며, U. S. S. R과 협상을 맺어 철수의 절차를 정하면 좋을 것이다. 美國은 美軍철수에 앞서, 北韓의 威脅에 대처하기 위한 南韓의 防衛部隊를 창설훈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건의하였다.

이 報告書는 8월 2차 美·蘇共委가 難航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에 提出된 것이다.

그리고 美國의 對韓 軍事政策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要因이 된 建議였다.

#### (가) 駐韓美軍의 철수

駐韓美軍의 撤收與否에 關한 論議에 있어서는 撤收는 할지라도, 이에 앞서 韓國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限, 單純하게 철수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美國은 2차 美·蘇共委의 關鍵이던 兩軍同時撤收문제를 UN總會 제112차 本會議에 上程(9.17)시켜, 信託統治를 거치지 않는 韓國의 即時獨立을 주장하였다. 즉, UN의 주선으로 韓國政府를 세운 다음에 兩軍의 철수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U. S. S. R側은 同年末까지 무조건 철수한 然後에 韓國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U. S. S. R의 이 先撤收 주장은 뒤늦은 美國의 對韓援助— 韓國의 安全保障을 위한 國防警備隊의 조직훈련등 軍事的·政治的·經濟的 援助 —가 아직 着手단계에 있음을 노린 하나의 政治攻勢였던 것이다.

UN總회의 決議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에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고, 金日成(金成柱) 一黨의 傀儡政權이 9월 9일에 造作되었던 1948년의 後半期인 당시, 傀儡政權은 이미 U. S. S. R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軍事援助로 越等하게 優勢한 軍備를 축적하고 있었다.

U. S. S. R은 결국, 北傀儡政權의 軍事力을 南侵에 충분한 수준으로 強化한 다음, 1948년 12월 26일에 完全撤收를 公表하는 동시에 美軍의 철수를 强要하였다.

본시, 駐韓美軍의 철수는 美國으로서도 當初부터 계획한 것이었으나, 大韓民國政府가 탄생하기까지의 波瀾萬丈의 南韓實情에 비추어, 總會의 監視下에 撤軍을 실시키로 하며, 1949년 1월 15일에 駐韓 제24군단을 日本으로 철수케 하고, 同年 5월 28일에서 6월 29일까지 사이에 나머지 兵力마저 완전히 철수케 함으로써 이 撤軍문제를 매듭지었다.

그런데 撤軍完了에 앞서 美國의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는 對韓 軍事政策을 신중히 再檢討하고, 美國의 軍事援助에 수반되는 駐韓 美軍事顧問團을 撤軍後에 설치키로 건의하였는데, 이 建議案은 1949년 3월 23일에 大統領 Truman의 裁可를 얻었던 것이다.

#### (나) 對韓 軍援과 KMAG 설치

駐韓美軍의 철수가 진행된 1948년 末에서 다음해 初에 걸쳐, 韓國은 建國직후의 困境을 二重으로 겪고 있었다.

즉, 北傀政權이 南侵前奏로서 계속 南進하는 共產 계급라의 治安觀亂과 38°線上의 武力挑發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韓國자체의 經濟의 貧困과 工業生産力의 不振에 基因하는 自力安保 能力의 缺如가 바로 그것이었다.

美國은 이 不安한 韓國實情을 감안하여, 撤軍에 따르는 軍事政策의 一環으로써, 韓國의 防衛를 위한 最少限의 軍援(陸軍兵力 65,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所要裝備 및 海軍艦艇의 少數와 6개월分의 整備 補給品)과 美軍事顧問團(KMAG)의 설치를 基本政策에 반영시켰다. 北傀政權의 軍事力을 近代式으로 重武裝시킨 U. S. S. R의 軍事政策과는 對照도 안되는 消極的이고 近視眼의인 形便主義에 지나지 않았다.

韓國政府의 要路는 누차 美國政府에 대하여, 北傀의 南侵可能性을 지적하여 戰車·飛行機 및 155mm 曲射砲를 비롯한 重裝備의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美國政府는 이들 重武裝이 당초의 軍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전도 못찾도록 拒否하였는바, 其實은 對外援助資金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으로 Truman Doctrine 및 Marshall Plan으로 西歐에 置重하고 있었던 事實을 想起할 수 있으며,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美行政府 要路의 失마하는 誤判 때문이었다.

즉, KMAG(단장, William L. Roberts 준장)은 南韓의 地形이 戰車운용에 적합치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美陸軍長官 Kenneth C. Royall을 비롯한 일부 指導級人士들은 大統領 李承晩을 好戰的인 人物로 杞憂하여, 만약의 攻擊用 重裝備類를 제공한다면 틀림없이 北進統一하려는 軍事的 모험을 不辭할지도 모른다는 지나친 걱정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亦是 李承晩은 北韓의 共產勢力을 驅逐하기 위한 北進統一을 주장하고, 美國이 不應할 경우에는 單獨으로도 北進해 보이겠다는 政略的인 主動性을 占하려고 일부러 衝擊的인 發言을 던짐으로써 美國을 당황케 한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半는가달 馬車말式의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誤判과 消極性이 介在하기는 하였으나, 韓國을 방위하기로 政策을 굳힌 美國은 1950년 1월 26일에 서울에서 韓美相互防衛援助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協定은 그 前해인 1949년 4월에, 美國이 北大西洋同盟(NATO)에 加入하여, 同年度 相互防衛援助法(Mutual Defense Assistance of 1949)을 제정함으로써 NATO 加盟國에 대



한 軍事援助의 一環으로 軍援政策을 本格化한 韓國에도 適用시킨 하나의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相互防衛援助協定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對韓軍援이 改善된 것은 아니어서 兵站問題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武器와 裝備品은 계속 殆不足이고, 援助계획에 책정된 裝備의 補修와 정비도 전혀 使用不可能한 것을 再生使用하는게 不過하였으며, 다만 小火器의 彈藥만이 不足하지 않게 供給되는 실정이었다.

KMAG은 이에 駐韓 美國大使 John J. Muccio를 통하여, 對韓軍援의 再調整과 補充을 本國政府에 건의하였다.

1949년 12월 31일에 作成된 建議案은 F-51型 戰鬥機와 T-6型 및 C-47型 등의 飛行機와 海軍用 3"砲, 陸軍의 通信과 工兵의 裝備와 105mm 曲射砲와 4.2" 迫擊砲 및 機關銃등을 追加하는 것이었는데, 美國政府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Truman이 1950년 1월 5일에 發表하기를 『美國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臺灣의 蔣介石政府를 원조하지 않을 것이며, 예상되는 中共軍의 臺灣侵攻에 대비하는 一切의 軍事行動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重大宣稱과 아울러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過小評價하는 總論의 對韓軍事政策을 여전히 堅持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臺灣에 관한 Truman 宣稱의 1주일 뒤에는 國務長官 Dean Acheson이 또 하나의 專斷宣稱을 발표하여, 韓半島에서의 軍事情勢를 決定的으로 惡化시키고 말았다. 이른바 Acheson 宣稱으로 부르는 이 極東政策의 발표에서 韓國과 臺灣을 極東 前哨防衛線으로 부터 제외시킨 것이었다.

南援의 好機만을 노려오던 北僥의 一味徒黨과 그 後見者인 U. S. S. R의 Stalin에게 擊事의 決心을 加速시킨 중대한 契機를 美國 스스로가 마련해 안겨준 拙案의 極이 바로 이 愚昧無賴의 放言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渡河作戰에 있어서 橋頭堡의 必要性을 忘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sia 大陸의 一角인 韓半島가 赤化一色이 되는 경우 美國을 中樞로 하는 自由陣營이 Asia에서 總退却하는 動因이 되는 明若觀火의 現實을 外面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다) Acheson 宣稱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은 中國事態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終戰後의 中國內戰(1947~1949.5)에서 國府軍이 敗하고, 中共이 中國大陸을 席捲하게 되자, 極東地域에 대한 軍援의 無用論이 美國의 政策輿論을 支配하였다. 이 軍援無用論으로 因하여, 韓國에 대한 軍援마저도 결과적으로는 共產勢力에 利用당하게 될 것이라는 曲解들이었다.

共和黨의 Judd를 비롯한 대부분의 議員들은 『中國에 대한 軍援이 실제로 돌아간 이상, 戰略적으로 價値가 없는 韓國에 대한 軍援은 헛된 일이다.』라고 반대하고, 뒤에 駐日本美大使드 지낸바 있는 Havard 大學의 極東專門家라는 親日派의 Edwin O. Reishauer는 다음과 같은 戰略的인 評價를 하였는데 그의 妻가 日本人이라는 것을 勘案할 必要도 있을

것이다.

『政略的인 面에서 韓國은 美國에게 不必要하다. 南韓의 空軍基地는 U. S. S. R 地域에 그다지 가깝지도 않고, Okinawa 基地처럼 安全하거나 편리하지도 않다.

防衛面에서 볼 때, 韓國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된다…… 어느 정도의 陸軍 및 空軍力과 絶對的인 制海權으로 日本을 방위하는 것이 38°線에서나 豆滿江線上에서 陸路를 방위하는 것보다 훨씬 容易하고 簡便할 것이다…….』

한편, MacArthur 元帥도 1949년에 두 차례의 記者會見을 통하여, 美國의 極東防衛圈에서 臺灣이 분명히 제외될 것이라는 概略的인 暗示를 公表함으로써 極東戰略의 테두리를 나타내었으며 美合同參謀本部도 同年 8월에 『臺灣이 中共의 攻擊을 받더라도 아무런 對備策을 講究치 않을 것이다.』라는 종전의 政策을 再確認하였다.

당시, 美國은 戰後의 급속한 減軍때문에 海外 派兵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臺灣에서 事端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직접 介入이 困難하다는 것이었으며, 더군다나 西歐에 대한 U. S. S. R의 膨脹主義的인 進出企圖를 阻止하기 위한 NATO 強化에 注力하고 있는터이므로 極東에서의 防衛線의 劃定을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美國務長官 Acheson은 1950년 1월 12일, Washington의 National Press Club에서 행한 演說을 통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公式的인 태도를 밝혔다.

『……美國의 極東防衛圈은 Aleutian 列島에서 日本本州를 거쳐 Okinawa로 연장되는 線에서 다시 Phillipines을 연결하는 線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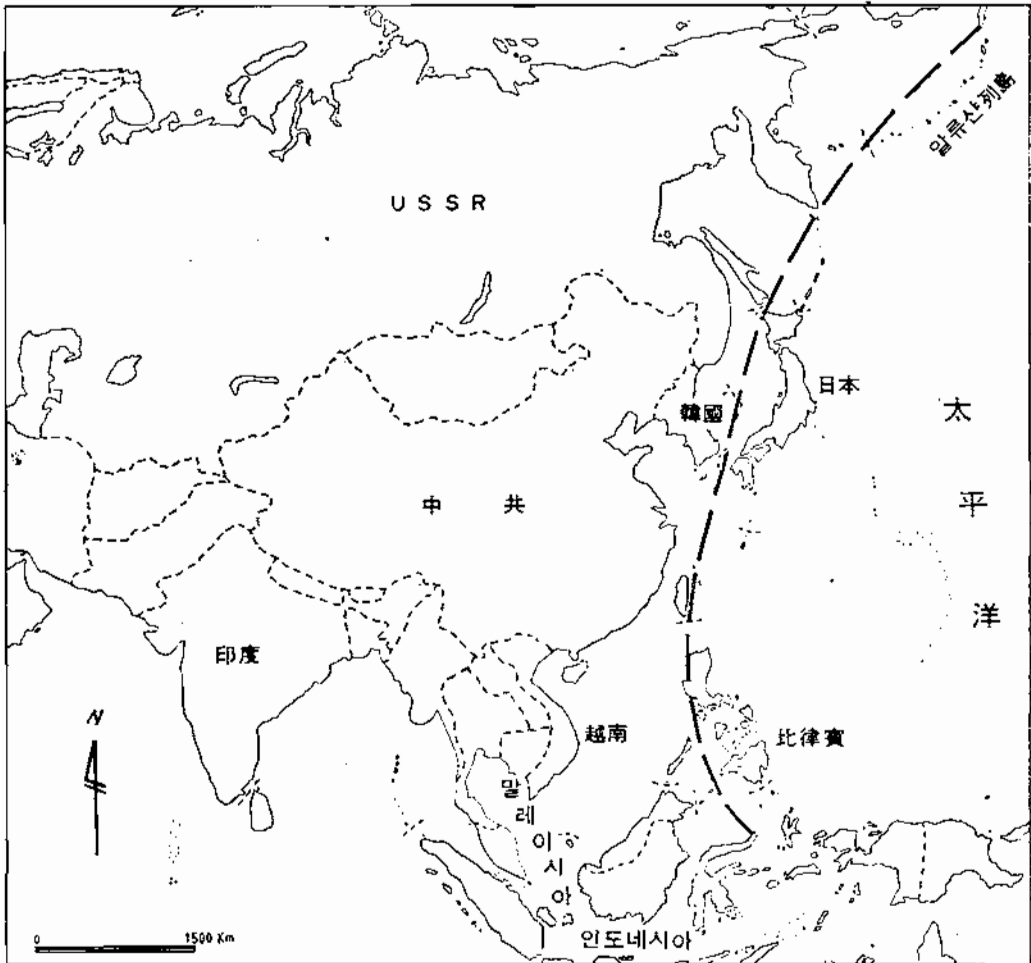
이 防衛圈外의 太平洋地域의 軍事的인 安全保障에 관한 限, 이 防衛圈外에 屬하는 諸地域에서 惹起되는 軍事的 攻擊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를 보장할 사람은 없다.

먼저 攻擊을 받는 國家에 대하여는 此後 UN憲章에 依하여 全 文明世界의 援助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것은 分明히 極東地域에 대한 美國政府의 消極的인 受動政策을 承認하는 덕두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韓國에 관하여는 『만약, 北韓側의 침략을 당할 경우, 韓國이 이에 저항할만한 力量이 없고, UN의 조치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南韓의 포기도 不辭할 것이다.』라고, 충격적인 說明을 주저하지 않았으니 이야말로 칼을 갈고 있는 殺人魔를 鼓舞하는 利敵行爲였다. 그러나 이러한 Acheson 宣言을 美國의 政界와 軍部가 全的으로 贊同하고 이를 支持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특히 共和黨側의 맹렬한 反駁을 불러 일으켰으며, 共產勢力이 韓國을 軍事的으로 侵犯하게 될 것이라는 옳은 예견과 판단을 주장하는 輿論이 없지도 않았다.

MacArthur 司令部는 北傀政權에 의한 南侵준비가 進行중에 있다는 정보를 入手하고 있었다. 그 例로서, 中國本土를 장악한 中共軍에 속해있던 韓國人 部隊들이 이른바 義勇軍의 이름으로 1949년 9월에 入韓하여 北傀軍의 核心體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重武裝을 갖춘 北傀軍이 1950년 1월부터 南韓에 대한 軍事的인 壓力을 加重하면서 「적당한時機」를 포

## ◇ 상황도 제 4호 Acheson 宣言으로 표시된 美國의 極東防衛線



착하여 南侵을 現實化하게 될 徵候가 露骨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探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同司令部는 同년 3월 10일附로 合同參謀本部에 제출한 情報報告에서 『今年 6월 頃에 北傀軍에 의한 南韓侵攻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한 사실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韓國의 不安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美國政府의 要路에서는 『北傀軍의 南韓侵攻可能性이 있더라도 時期的으로 臨迫한 것은 아니다.』라는 安逸한 意見이 支配的이었으며, 그 解明을 위하여 同년 6월 17일에 美國務省 顧問인 John F. Dulles를 特別使節로서 派韓케 하였다.

韓國의 不安한 실정과 38°線의 긴장된 情況을 직접 시찰한 Dulles는 韓國國會에서 다음과 같은 모호한 要旨의 演說을 남겼을 뿐이었다.

『美國국민은 人間自由의 목적에 충실하며, 어느 地域에서든지 그것을 영광스럽게 지지

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다……여러분은 외롭지 않다. 여러분은 人間의 自由를 追求하는 設計에서 自身の 임무를 값있게 계속 수행하는 限, 결코 외롭지 않다……」

마치 젓달라는 아기를 달래는 어떤 어머니의 一場面 같기도 한 이 演說에 一喜一悲한 選良들이 어찌 한 두 사람이었겠는가. 다만 問題는, 弱하다고 보면 實力以上으로 強暴하여지는, 共產徒黨들의 根性에 달려 있으니 다음 章에 나오는 開戰劈初의 緒戰狀況이 이를 能히 證言할 수 있을 것이다.

## (2) U.S.S.R의 韓半島에 對한 政策

제2차 世界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U. S. S. R은 세 갈래의 通路에 의하여 世界進出의 勢力을 伸張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Europe에 이르는 東歐圈의 完全掌握이며, 다른 하나는 中近東地域의 玄關인 Iran 및 Turkey에 대한 優勢한 影響力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세계로는 滿洲占領과 北韓進駐로써 極東 및 Asia 地域으로의 不凍港을 求하려는 南進策이 希望的인 曙光으로 비치게 된 事實이었다.

당시, U. S. S. R의 戰後政策을 展望하는 觀測通의 일부에서는 제2차 大戰에서의 國力消耗로 因하여, 수년 동안은 國內再建에 注力하게 됨으로써 影響主義的 進出이 늦어질 것이라는 豫見이었으며 이것은 특히 美國要路의 見解를 支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U. S. S. R의 頭目들은 이 豫見을 뒤집거나 하듯이 제3차 大戰의 危險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最大限의 線에서 膨脹政策을 재빨리 밀어나가기 시작하였으니 大戰으로 불어난 百萬 가까운 兵力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復員措置로 大幅 減縮된 美國의 實力을 會心의 微笑짓고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 (가) Europe 優先主義에서 Asia 優先主義로의 轉換

U. S. S. R의 戰後政策은 당초의 Europe 優先主義(1945년~1948년)에서 Asia 優先主義(1948년~1950년)로 전환하였다.

즉, 戰利國의 一員으로서 東歐와 Balkan半島에 莫大한 潛在力을 形成한 U.S.S.R은 戰後 勢力再編成에 있어서, 이 두 方面으로 注力하면서 西方陣營과의 對決을 피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Asia를 輕視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당시 Asia에 있어서는 毛澤東의 中共이 中國大陸에서 共產勢力의 擴張을 충분히 代行하고 있었기 때문에, 北韓進駐軍으로 하이금 金日成의 傀儡體制를 굳히는 外에는 별다른 策路를 쓰지는 않았다.

U. S. S. R의 西歐進出은 Germany에 焦點을 두었는데, 占領下의 東歐 7國—Poland, Hungary, Rumania, Bulgaria, Yugoslavia, Czechoslovakia, Albania에 共產政權을 세워, 衛星國으로 形成하는 한편, Iran과 Turkey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Dardaneils海峽으로의 進

出口를 포착하면서 Balkan地域과 연결하는 線에서 Greece를 위협하는 戰略的인 據點을 확보하였다.

U. S. S. R의 이러한 進出은 그들의 歷史上에서 空前絶後의 것이었으며 戰後世界의 安保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美國은 뒤늦게나마 그 者들의 膨脹勢力에 正面으로 對決코자, Truman宣言(1947년)과 Marshall Plan(1947년)으로써 西歐陣營에 대한 軍事 및 經濟的인 援助를 增強하였다. 어제의 被支援國이 하루밤 사이에 可恐할만한 危險存在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리하여 西歐陣營은 이에 이어, Brussels條約(England, France, Belgium, Netherlands, Luxembourg)을 체결하여 反共決意와 自由守護의 結束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이 西歐陣營의 障壁이 굳어지자, U. S. S. R은 Europe에서의 膨脹을 일단 斷念한듯이 1948년의 Berlin 危機를 造作하여, 世界의 耳目을 집중케 한 다음에 Asia를 舞台로 하는 進出(Asia 優先主義)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Asia의 新生國家들은 獨立國家로서의 經驗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政權조차도 安定되지 못하여 右顧左眄하는 터이었으므로 共產革命의 潛在的 溫床이 될 可能性이 컸으며 U. S. S. R의 魁首들이 이러한 虛點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 (나) 傀儡政權의 造作과 軍事基地化

1946년 2월, U. S. S. R은 金日成(金成柱)으로 하여금 이른바 北朝鮮人民委員會를 구성케 하고 『가까운 장래에 國際的인 反動勢力에 의한 諸要素를 打破하고, 民主國家로서 全韓國의 統一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要旨의 通牒으로써 韓半島를 赤化統一하려는 검은 속셈을 분명히 들어 내었다.

U. S. S. R軍의 北韓進駐와 더불어, U. S. S. R系 金日成一黨을 軍·政 兩面에 걸쳐 自己내 事業같이 적극지원한 U. S. S. R은 1948년 9월 9일에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를 造作하여, 共產衛星圈의 各國과 더불어 傀儡政權을 승인하고, 다음래 3월 3일에는 金日成등을 Moskva로 불러, 經濟文化協定등 4개 協定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一聯의 政治的인 布石은 첫째로 北傀儡政權의 國際性을 格上시키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極東地域 및 韓半島에 있어서의 鞏固한 軍事基地를 造成하기 위한 사전준비인 것이었다.

金成柱政權에 대한 軍事支援은 뚜렷한 맥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進度도 또한 따라서 재빠른 것이었다.

美·蘇 兩軍이 철수한 뒤에 必然的으로 될 軍事的인 空白時期에 大韓民國을 決定的으로 석권할 수 있는 北傀儡의 政權, 軍事力을 월등하게 축적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U. S. S. R軍은 北韓進駐의 당초부터 金日成體制의 急造를 위한 實權의 바탕으로써 保安隊를 비롯한 平壤學院과 北朝鮮中央幹部學校등 이른바 人民軍의 기초를 구축하

기 시작하였으며, 舊日本軍으로부터 맨손으로 몰수한 武器 및 장비를 供與하는가 하면, U. S. S. R軍 소속의 韓籍共產分子들을 대거 軍幹部로 起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말한대로 1946년 8월 15일에 保安幹部訓練대대를 창설함과 아울러 軍事顧問團을 各訓練所와 幹部養成機關 및 司令部에 배치하였으며, 1948년 2월 8일에는 이른바 人民軍으로 탈바꿈하면서 最新의 蘇製장비를 지원하여 2개 사단 및 1개 混成旅團을 完全武裝케 하였다.

이와같이하여 短期間內에 北傀政權의 軍事力을 구축한 U. S. S. R은 다음 조치로써 美·蘇兩軍의 同時 철수를 제2차 美·蘇 共委 및 UN에서 제의하여, 1948년 12월에 一方的으로 北韓進駐의 兵力을 철수시켰던 것인데, 그 裏面에 있어서는 첫째 大韓民國의 軍事力을 健全 能가하는 軍備를 갖추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北傀政權의 軍事力行使를 韓民族 白意에 의한 것으로 가능케 하고 자기는 뒷자리에서 覆面을 쓰고 허수아비의 끈을 操縱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U. S. S. R軍의 北韓철수後에 대비하는 特別戰路會議를 Moskva에 소집하여, U. S. S. R·中共·北傀의 各代表에 이른바 北傀 人民軍의 機械化훈련을 비롯한 모든 전쟁준비를 18개월내에 완료한다는 要旨 다음과 같은 秘密協定에 合意를 보았다.

① 6개 步兵사단을 突擊사단으로 편성한다.

② 突擊사단을 편성키 위하여, 中共은 韓人系 中共軍 20,000 乃至 25,000명을 귀환시켜 人民軍의 基幹要員으로 한다.

③ 戰車 500대로써 機甲部隊 2개 사단을 편성하되, 空軍은 國際的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당분간은 보류한다.

이른바 北傀人民軍의 增強계획을 이처럼 결정한 U. S. S. R은 1948년 12월의 北韓 撤軍과 때를 같이하여 Shtykov(前 北韓進駐 U. S. S. R軍 司令官, 現役대장, 撤兵과 동시에 駐北傀 大使)가 인솔하는 40명의 特別軍事使節團을 北傀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機甲 戰術과 情報 및 作戰分野의 專門家들이었다. 이렇게하여 그네들이 兪計한 대로 準備를 갖추고 있을 동안 美國은 팔장을 끼고 晏然하였고, 우리는 別無妙策으로 가슴탄을 조이고 있었으며 束手無策의 베글자가 가장 寔感나는 表現이었던 것이다.

### (3) 軍事力의 總攬

美·蘇兩國의 韓半島 및 極東에 대한 軍事政策의 차이는 결국 大韓民國과 北傀政權의 軍事力에 있어서 현저한 隔差를 나타내었다. 叙上의 경위와 進度로써 備蓄된 彼我的 軍事力을 1950년 6월 24일 현재로 總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兵 力

陸 軍	國	軍	北 德 人 民 軍	
	8개 사단(22개 연대) 支援 및 特科部隊 計	67,416명	27,558명	10개 사단(30개 연대) 支援 및 特殊部隊 計
海 軍		7,715명		4,700명
空 軍		1,897명		2,000명
海兵隊		1,166명	(陸戰隊)	9,000명
總 計		105,752명		198,380명

그런데, 1949년 12월 27일에 北德人民軍의 兵力에 관하여 陸軍本部가 年末綜合情報報告에서 推定集計한 數値와 1950년 5월 12일에 UN韓國委員團과의 會見時에 제출한 陸本情報局의 數値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1950년 6월 24일 현재로 集計된 數値와는 增減의 差異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區 分	正 規 軍	保 安 軍	其 他 計	
陸本年末綜合情報報告 (1949. 12. 27)	91,598명	60,424명	22,000명	174,022명
UN韓委 會見報告 (1950. 5. 12)	121,400명	24,000명	37,000명	182,400명
增 減	(+) 30,002명	(-) 36,424명	(+) 15,000명	(+) 8,318명

## (나) 裝 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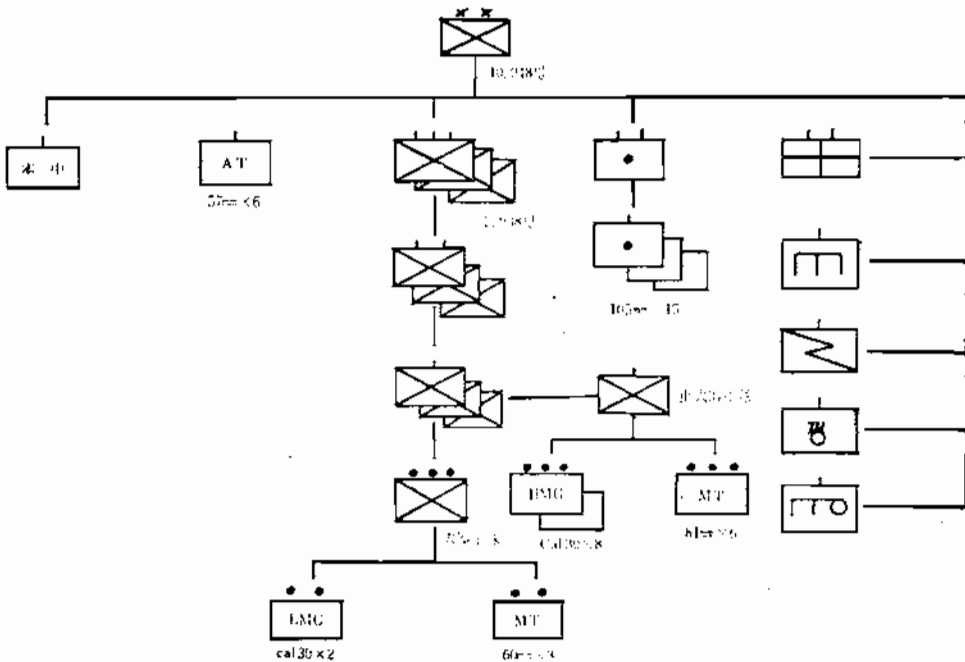
陸 軍	國	軍	北 德 人 民 軍		
	105mm M3曲射砲 57mm 對戰車砲 81mm 迫 擊 砲 60mm " " 2.36" Rocket砲 裝 甲 車	91門 140門 384門 576門 1,900門 27台	122mm 曲射砲 76mm " " 45mm 對戰車砲 120mm 迫擊砲 82mm " " 61mm " "	172門 380門 550門 226門 1,142門 360門	85mm 및 37mm 高射砲 T-34型 戰車 SU-76mm 自走砲 裝 甲 車
海 軍	YMS(掃海艇) LST(輸送艦) AKL(小型輸送艦) 油 槽 船	28隻 2隻 19隻 21隻	PT(魚雷艇)	30隻	

空 軍	L-4型 連絡機	8臺	YAK-9型 戦闘機	211台
	L-5型	6臺	IL-10型 戦闘機	
T-6型 練習機	10臺	IL-2型 戦闘機		
			練習 및 偵察機	
			計	

한편, 1949년 12월 27일의 陸本年未綜合情報報告 및 1950년 5월 12일에 UN韓委에 제출한 陸本情報局의 情報資料에서는 北傀 人民軍의 裝備를 다음과 같이 推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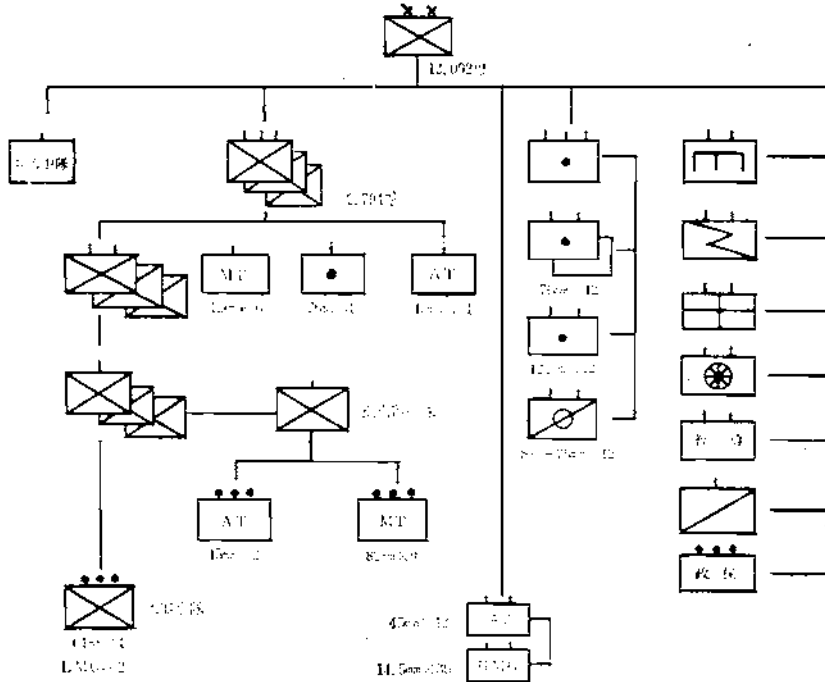
裝 備 名	數 量		裝 備 名	數 量	
	1949년	1950년		1949년	1950년
小 銃	75,653挺	?	85mm 曲射砲	?	24門
機關 短 銃	30,099挺	?	122mm "	73	120門
輕 機 關 銃	5,234挺	?	45mm 對戰車砲	?	586門
重 機 關 銃	2,287挺	?	自 走 砲	?	176台
82mm 迫擊砲	603門	1,223門	裝 甲 車	60台	60臺
120mm "	126門	172門	戰 車	120臺	173臺
37mm 高射砲	?	24門	飛 行 機	62臺	197臺
76mm 曲射砲	218門	464門	警 備 艇	30隻	30隻

(C) 國軍 步兵사단 編成表





(라) 北傀軍사단 編成表



§. 研 究

(1) 國軍組織法(1948. 11. 30 法律 제9호)

- 제 1 章 總 則
- 제 1 條 本法는 陸海空軍을 포함한 國防機關의 設置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정하여 軍政軍令의 有機的이고 體系있는 國防機能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條 國軍은 陸軍과 海軍으로써 組織한다.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에 服務할 義務가 있다.
- 제 3 條 大統領은 國軍의 最高統帥者이며, 大韓民國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國軍統帥上 필요한 權을 發할 權限이 있다.
- 제 4 條 (省略)
- 제 2 章 國防部
- 제 5 條 (省略)
- 제 6 條 (省略)

- 제 7 條 國防부에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和 海軍本部를 두며 必要에 依하여 其他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以下省略)
- 제 8 條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은 國軍現役將校중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參謀總長은 國軍의 現役最高將校이다.
- 제 9 條 參謀總長은 大統領 또는 國防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國防 및 用兵에 關하여 陸海軍을 指揮統轄하며 一切 軍政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보좌한다. (以下省略)
- 제 10 條 陸軍에 陸軍總參謀長, 海軍에 海軍總參謀長을 두며 이는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國務會議를 거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條 陸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陸軍本部를 統理하며 隸下 陸軍官衙學校와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海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海軍本部를 統理하며 隸下 海軍官衙學校와 艦隊 및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第3章 陸軍

第12條 陸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써 組織한다.

陸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戰時를 막론하고 法律에 依하여 항상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陸軍의 兵種은 步兵, 騎兵, 砲兵, 工兵, 機甲兵, 航空兵, 防空兵, 通信兵과 憲兵으로써 構成한다.

陸軍에 參謀, 副官, 監察, 法務, 兵站, 經理, 軍醫, 兵器 其他의 部門을 둔다.

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以下省略)

第13條 陸軍에는 平時에 師團과 國防上 大統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其他 部隊를 둔다.

陸軍은 師團單位로 編成하며 軍事行政과 戰略上의 目的으로 大韓民國을 數個 師團管區로 나눈다. 師團管區의 設置와 師團 및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陸軍護國軍의 兵力은 陸軍正規軍의 現役兵力에 準한다.

第14條 (省略)

第4章 海軍

第15條 海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써 組織한다.

海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戰時를 막론하고 法律에 依하여 항상 존재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海軍은 本科와 各部門으로써 構成한다.

各部門에는 技術, 軍醫, 經理, 法務 其他를 둔다.

海軍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

에 依하여 商船의 一定한 軍事訓練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以下省略)

第16條 海軍에는 平時에 艦隊 其他와 國防上 大統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其他 部隊를 둔다. 軍事行政과 戰略上의 目的으로 大韓民國 海域을 數個 海軍管區로 나눈다.

海軍管區의 設置와 艦隊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海軍護國軍의 兵力은 海軍正規軍의 現役兵力에 準한다.

第17條 (省略)

第5章 軍人의 身分

第18條 (省略)

第19條 (省略)

第20條 (省略)

第6章 其他

第21條 (省略)

第7章 附則

第22條 (省略)

第23條 本法에 依하여 陸軍에 屬한 航空兵은 必要한 때에는 空軍으로 조직할 수 있다.

第24條 (省略)

(2) 사단 및 연대의 配置

1949년 6월 10일에 제8사단을, 同年 6월 20일에 首都警備司令部(首都警備사단)를 각각 追加 창설함으로써, 國軍은 8개 사단을 保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1950년 6월 25일 現在의 指揮官 名單임).

首都警備司令部: 서울(李鍾贊 대령)

제 3 연대: 서울(李相根 중령)

제 8 연대: 서울(徐鐘喆 중령)

機甲연대: 서울(劉興守 대령)

제 1 사단: 水色(白善燁 대령)

제 11 연대: 水色(崔慶祿 대령)

제 12 연대: 開城(全盛鎬 대령)

제 13 연대: 汝山(金益烈 대령)

제 2 사단: 大田(李亨根 준장)

제 5 연대: 大田(代理, 朴基成 중령)

- 제16연대: 淸州(文容彩 중령)  
 제25연대: 溫陽(金炳徽 중령)  
 제3사단: 大邱(劉升烈 대령)  
 제22연대: 大邱(姜泰敏 중령)  
 제23연대: 釜山(金宗元 중령)  
 제5사단: 光州(李應俊 소장)  
 제15연대: 全州(崔榮壽 대령)  
 제20연대: 光州(朴基丙 대령)  
 제6사단: 原州(金鐘五 대령)  
 제2연대: 洪川(咸炳善 대령)  
 제7연대: 春川(林富澤 중령)  
 제9연대: 原州(吳丙權 중령)  
 제7사단: 議政府(劉載興 준장)  
 제1연대: 直洞—議政府(咸俊鎬 대령)  
 제9연대: 金橋里—議政府(尹春根 중령)  
 제8사단: 江陵(李正一 대령)  
 제10연대: 江陵(高根弘 중령)  
 제21연대: 三陟(金容培 중령)  
 제17獨立연대: 義津(白仁燮 대령)

### (3) 陸本 各局監室의 改編強化

陸軍本部는 國防部體制로써 各局監室의 職制를 改編強化하였는데, 그 沿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1950년 6월 25일 現在の 各局監室長의 名單).

人事局: 1946년 2월 9일, 南朝鮮國防警備隊 總司令部의 人事課로 발족, 1948년 8월 20일에 人事局으로 改編(申尙澈 대령).

情報局: 1946년 1월 14일, 情報課로 발족, 1948년 9월 15일에 情報局으로 改編(張道英 대령)

作戰教育局: 1946년 1월 14일, 作戰教育課로 발족, 1948년 12월 8일에 作戰教育局으로 改編(張昌國 대령).

軍需局: 1946년 1월 14일, 軍需課로 발족, 1948년 5월 1일에 軍需局으로 改編(楊國顯 대령).

高級副官室: 1946년 1월 14일, 高級副官室로 발족하여 同一名稱 存續(崔慶萬 중령).

法務監室: 1946년 7월 20일, 法務處로 발족하여, 1949년 5월 1일에 法務監室으로 改編(楊正秀 대령).

醫務監室: 1946년 5월 1일, 醫務局으로 발족,

1949년 5월 1일에 醫務監室으로 改編(尹致旺 준장).

財務監室: 1945년 12월 1일, 財務局으로 발족, 1949년 5월 1일에 財務監室으로 改編(鄭萬基 중령).

監察監室: 1946년 8월 20일, 統帥部 監察總監室으로 발족, 1946년 5월 1일에 監察監室으로 改編(安樹生 대령).

兵站監室: 1947년 1월 1일, 補給部隊의 兵站大隊로 발족, 1949년 5월 1일에 兵站監室으로 改編(尹秀鉉 중령).

兵器監室: 1948년 12월 15일, 兵器科 제정과 아울러 兵器處를 설치, 1949년 5월 1일에 兵器監室으로 改編(沈彦俸 대령).

工兵監室: 1948년 8월 19일, 工兵處로 발족, 1949년 5월 1일에 工兵監室으로 改編(崔昌植 대령).

調達監室: 1948년 8월 15일, 軍需局에 中央調達課를 설치, 1949년 6월 1일에 調達監室으로 獨立(金相福 중령).

通信監室: 1947년 6월 15일, 通信課로 발족, 1949년 5월 1일에 通信監室으로 改編(曹應天 대령).

厚生監室: 1949년 7월 5일에 설치(張好珍 중령).

改訂監室: 1949년 3월 1일에 설치(朴英俊 중령).

憲兵監室: 1946년 3월 15일, 軍監隊로 발족, 1949년 3월 1일에 憲兵司令部로 改編, 1955년 11월 1일에 憲兵監室으로 改稱(宋堯讚 대령).

### (4) 護國軍의 配置

護國軍은 1949년 1월 11일에 4개 여단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配置상황은 다음과 같다.

護國軍 제101여단(장, 吳光善 대령): 제101연대(서울)·제111연대(水原).

護國軍 제102여단(장, 劉升烈 대령): 제102연대(大邱)·제103연대(全州).

護國軍 제103여단(장, 安秉範 대령): 제113연대(溫陽)·제105연대(釜山), 제106연대(大邱)

護國軍 제106여단(장, 樞駿 대령): 제107연대(淸州)·제108연대(春川)·제110연대(江陵).

(5) 제 8 연대 演習計劃의 原本

[朴正熙 소위(당시)의 親筆로 記錄된 이 原文은 建軍 濫觴期에 있어서의 野外機動訓練의 規模를 窺知케 하는, 唯一한 現存資料로 尊稱되고 있다.]

現地 戰術(大隊陣地 攻擊)

1947년 7월 2일

於 江陵 南大川附近

朴 少尉

想定

1. 江陵을 占有할 企圖를 가진 敵(步 1대, 砲 2門을 基幹)은 昨夜 江陵邑에 到着, 南大川 北岸 일대에 陣地를 占領中.

2. 江陵附近의 敵을 擊滅할 任務를 가진 步兵 8聯隊 제3大隊(步 1대 A 8門 MG 4挺 基幹)는 三沙方面으로부터 北進하여 今朝未明 05.00 南大川 南側 ○○部落에 到着, 敵情을 偵察하고 攻擊을 準備中.

3. 今朝 08.00에 있어서 彼我的 態勢 要圖와 如하(要圖省略).

4. 08.30 大隊長은 93.5高地에서 當面의 敵을 攻擊하기로 決心하고 部下 各 隊長을 同 高地에 集會하여 攻擊命令을 下達함.

問題

第3 大隊長의 08.30의 攻擊命令.

◇ 步兵大隊 4中隊

◇ 提出時刻

準備

1. 編成 完全小隊 4個分隊 標旗 1

2. 對抗軍 10名

3. LMG 5挺

4. 手旗 1

5. 石灰 若干

6. 空砲 100發

原案(第3 大隊長의 攻擊命令)

3 大作命 第 號

第3 大隊命令 7月 日, 08.30 於93.5高地

1. 省略

2. 大隊은 南大川 北岸의 敵陣地를 一舉에 突破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게끔 迅速히 襄陽고개 方向에 突進한 다음 다시 主力으로써 敵의

左側背로부터 이를 包圍하여 海岸地區에 壓縮擊滅하러 함.

初期에는 攻擊의 重點을 93.5高地로부터 여름 陣地-트기-襄陽고개 方向에 指向함.

後期에는 襄陽고개에서 第3 大隊兵舍 南大川 河口方向에 指向함.

3. 第9 中隊는 右 第1 線 여름陣地를 奪取後 다시 트기에 突入, 襄陽고개로 前進.

4. 第10中隊는 左 第1 線 南大川 橋梁 南端部落附近에서 展開하여 가을陣地를 攻擊-고기陣地에 突入, 警察署附近의 敵을 驅逐하여 襄陽고개 附近으로 前進.

5. MG中隊는 戰鬪初期 저附近에 位置하여 第1 線中隊의 渡河를 掩護, 特히 第9 中隊의 正面에 主火力을 集中,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迅速히 여름 陣地附近에 陣地를 變換하여 爾後는 主力으로써 第9 中隊戰鬪에 協同.

6. A는 戰鬪初期 93.5高地 西南側地區에 陣地占領 第1線中隊 渡河時 여름, 가을陣地에 대하여 全火力을 集中, 爾後 主力으로 트기火點 一部로서 對砲兵戰에 火力을 集中, 特히 第1線部隊가 트기火點을 奪取後는 警察署方向의 敵의 逆襲部隊에 대하여 阻止射擊을 準備.

第1線部隊 트기火點을 奪取하면 逐次該地點附近에 陣地를 變換. 本戰鬪間에 使用彈數는 5基數로 함(여름 150, 트기 100, 阻止 150, 其他 100, 計 500).

7. 第11, 제12中隊는 豫備隊, 第11中隊長의 指揮로 第9中隊 後方을 前進, 第1線中隊 渡河時에는 豫備隊의 全自動火器로써 저堤防附近에 位置하여 主力으로 第9中隊 正面을 1部로써 봄, 겨울陣地를 制壓.

8. 戰鬪遂行 要領

第1線 突入時 障礙物은 各 中隊가 此를 處理.

豫備隊는 前進間 特히 봄, 여름陣地의 敵에 대하여 右側背를 警戒 1線中隊가 警察署附近에 進出時에는 兩中隊 緊密히 協調하여 連繫와 秩序를 維持할 것.

9. 彈藥補給班 省略

10. 攻擊開始는 09.30 豫定이나 別命令.

11. 余는 09.00까지 現在地에 있음. 09.30까

지는 저橋梁 南端附近에 있음.

第3大隊長 某少領 自印

第3大隊 蔚珍方面 演習經過概要

1. 時日 1947年 7月 22日~7月 24日(4日間)
2. 出動部隊(演習統監)
  - (1) 北軍 演習指導官 朴正熙少尉 演習中隊長 第9中隊長 姜太武 少尉(註, 1949年 5월에 越北한 者).  
4小隊 編成 203名(各大隊指揮班 7名)
  - (2) 南軍 演習指導官 宋堯讓大尉 演習中隊長 第11中隊長 金鍾勳 少尉(註, 1949年 5月 開城 松嶽山戰鬪時 戰死), 4小隊 編成 156名
  - (3) 軍樂隊 隊長 李鍾太少尉 以下 30名
  - (4) 補給隊 崔泳洙少尉 以下 若干名 트럭 1臺

7月 22日 行動

北軍 05.00 車輻 6臺로써 江陵出發 11.00 思湖着.  
08.00 竹邊上陸 20.00 蔚珍着 舍營 軍樂隊 同行 다시 平海로 前進  
南軍 14.00 平海着 宿營

7月 23日 行動

南北軍 06.00 宿營地出發, 望洋里로 向하여 前進, 戰鬪經過 要圖와 如함.

1. 敵情 友軍의 狀況
2. 中隊는 ○○-○○間에 陣地를 占領 ○○-○○間에 對하여 射擊을 準備, 當面의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려 함.
3. 第1小隊는 右支點 ○○-○○을 射擊할 수 있도록 ○○-○○에 陣地를 占領, △△方向과 △△에 對하여 火力을 準備.
4. …….
5. 第○小隊는 豫備隊 ○○附近에 位置 ○○方向에 火力을 準備.
6. 主抵抗地帶의 前線(陣地의 前線은 ○○-○○-○○, 火網의 前線)은 ○○-○○-○○.
7. 火力急襲地點은(中隊前面에는 12개) 1小隊 輕機 2, 2小隊 輕機 1, 輕機 5.

8. 右支點小隊에서 ○○附近에 長以下 8名의 監視部隊 1組를 派, 右支點에서 1組를 派. 監視部隊 撤退의 時機는 別命.
9. 工事는 晝間은 經始만 하라.  
日沒과 同時에 開始.
10. 中隊長은 저附近에 位置함.  
副官은 ○○에 監視哨 1組를 내라.
11. 搜索警戒 肉攻 等  
備考 1. 參加部隊의 編成 補給關係는 當該大隊의 報告書와 如함.  
2. 講評은 南北軍을 綜合하여 第5大隊에 古類交付 以上.

蔚珍方面演習에 對한 講評

1. 輸送行動

輸送計劃을 樹立하여 事前의 準備의 徹底를 期할 것.

輸送計劃에 있어서는 各各 分擔責任者를 任命하여 各其 責任者는 所定時間內에 各自任務를 完遂하고 全般의 行動에 支障없기를 期할 것.

2. 徒步行軍은 其 行動力 行軍軍紀 良好하다고 認定하나 部隊間의 連絡動作은 아직 未熟하며 더욱 教育과 演練을 要한다고 認定함. 特히 戰鬪를 위한 前進中에 있어서는 其 連絡 警戒部隊 警戒要領 不充分한 點이 많다고 認定함.

3. 7月 23日 午前의 遭遇戰

1. 雙方 指揮官의 戰鬪指導要領은 深重熟慮한 點은 可하다고 생각하나 遭遇戰에 있어 아직 敵을 發見하기 위해 雙方 各各 陣地를 占領하고 待峙狀態에 들어간 것은 積極性이 若干 缺乏하였다고 認定함.

2. 遭遇戰에 있어서 指揮官이 敵에 關한 詳細한 報告와 情報를 接한 後 決心과 處置를 하였음은 戰機를 捕捉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함.

將校特別教育實施後 所感

今般教育은 聯隊로서 最初에 實施한 將校教育이었는데만큼 效果의으로 成果의 多寡만으로 이것을 云謂할 것이 아니라 將校 將校教育에 있어서 좋은 參考가 될만한 資料를 많이 얻었다는 點만으로도 大端히 惹發가 甚었다고 思惟함.

1. 事前準備

1. 教育實施前 相當期間의 時間的 餘裕를 가지고 教育計劃 及 其他 準備를 充分히 가지고 實施할 것.

2. 教官은 1인이 全部를 擔當한 것은 若干 無理가 있음. 될 수 있으면 各 科目別로(戰術, 戰鬪教練陣中勤務等 部門別로) 教官을 달리하는 것이 效果的일 듯(此에 附隨하여 聯隊本部 S-3에도 將校 1名은 手不足함).

3. 教育資材, 教育用消耗品을 充分히 準備하며 이것을 支出하는데 吝嗇하지 말 것. 今般 教育에 있어서도 紙類不足 謄寫機의 使用不可能으로 必要한 教材의 印刷不可能하여 그 成果가 半減한 듯한 感을 不禁함(謄寫機使用不可能은 잉크의 不良 로오라의 破損 原紙의 短惡等의 意).

#### 2. 場所 및 時期

1. 今次 場所를 江陵으로 擇한 것은 聯隊內에서 가장 適地였다고 생각함. 그 理由는 宿所 給養 教育資材 演習場等의 關係上, 然이나 形便이 此를 容許한다면 聯隊 各駐屯地의 中心地域은 聯隊本部의 隣近地에서 實施하여 聯隊長 閣下 親히 臨場하시어 指導하시고 本部 各部將校도 자주 와서 見學할 수 있으면 理想的이며 效果的일 듯.

2. 時期는 秋季 或은 春季를 利用하여 農作物의 掣時를 받지 않는 時期를 擇할 것. 特別히 今般 蔚珍方面 演習에서 切感하였음.

#### 3. 各將校에 對한 印象

1. 一般의으로 研究心이 旺盛하고 熟識이 있었다고 認定하나 一部分 其 態度 眞摯味를 失하고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는 意慾 乃至는 研究心이 缺如함은 遺憾으로 생각함.

2. 將校로서의 實兵指揮能力 戰術能力이 너무나 低劣함. 將次 此種行事를 많이 實施하여 將校資質向上에 全力을 傾注하여야 될 것임.

3. 將校의 品性陶冶가 急務임.

野卑한 言語 低級한 趣味를 가지고 將校로서의

威信을 毀損하는 點이 많은 것을 볼 때 將校團 教育의 不振을 痛感하지 않을 수 없음.

4. 軍隊指揮官으로서 熾烈한 責任感이 缺乏함. 每事에 選取積極性이 不足함. 特別히 蔚珍方面演習에 어있서 兵士는 1名의 落伍者가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將校가 먼저 落伍하였다는 것은 兵士에 對한 將校의 權威의 失墜 이에 더 함이 없으리라. 狀況이 急迫하여서 急行軍으로 迂廻行動時에 疲勞因應한 兵士의 先頭에 서서 이틀 叱咤激勵하며 끌고 나가는 霸氣滿滿하고 씩씩한 指揮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痛嘆之事也. 要는 每事의 礎石이 되겠다는 것을 其因하는 것이나 建軍의 礎石이 되겠다는 것을 軍人으로서 信仰 視할만큼 透徹한 信念이 있느냐 없느냐, 問題는 여기에 歸一한 것임.

一步 더 깊이 들어가서 詮索하면 士官學校 教育에 一大革新의 焦眉의 急務임을 斷言하여 躊躇하지 않음.

#### 4. 綜合感

教育期間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함. 短時日內에 너무나 큰 成果는 過望이었으나 小隊戰鬪教練까지의 一般概念을 習得하였다고 認定함. 成果의 與否는 各自가 歸隊後 이것을 基礎로 하여 더욱 研究하여 實地에서 活用하고 研究하여, 實施하는가의 與否에 있음.

將校教育은 聯隊에서 統一實施外에 各隊長은 不斷히 機會를 타서 部下將校에 對한 教育을 實施할 것. 特別히 教育修了後 第3大隊 蔚珍方面演習에 參加한 것은 그 收穫이 多大하였다고 確信함.

蔚珍方面演習에 連日 暴雨를 무릅쓰고 演習을 始終한 것은 演習의 成果를 더욱 빛내게 하였다고 생각함. 以上.

1947年 7月 28日 夜

朴正熙 少尉

## 第 2 章

# 北傀의 侵略準備

### 要 旨

1. 政略的 準備
2. 戰略的 準備





## 第 2 章 北傀의 侵略準備

### 要 旨

本章은 北傀의 南役準備를 政略 및 戰略의 兩面에 걸쳐 概觀하였다.

즉, 北傀의 政略의 南役準備는 이미, U. S. S. R 極東軍의 北韓進駐와 더불어 着手되었던 것이니, 이는 Stalin의 對極東政策에서 비롯된 赤化統韓의 野慾을 앞잡이인 金日成과 그 一味徒黨으로 하여금 成事케 하려는 狡智와 奸計의 過程을 밟은 것이었다.

그 첫단계에 있어서 우선 金日成의 獨裁基盤을 구축하여 南役體制를 強化하기 위한 이른바 共產基地化의 路線을 確定하였는데, 여기에서 派生된 이른바 祖國戰線의 結成으로써 民衆組織 및 人民武力을 強化하고 經濟體制를 정비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對外的으로는 U. S. S. R의 極東進出政策에 寄生하여 이른바 朝·蘇經濟 및 文化協定을 假裝한 軍事協約과 이른바 朝·中共의 相互防衛協定을 맺었으며 Asia 및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共產勢力의 急激한 膨脹에 힘입고 있었다.

제2차 世界大戰의 戰後를 支配한 東西冷戰속에서 中國을 赤化制霸한 中共의 擡頭는 韓半島에 대한 커다란 危險이 아닐 수 없었으며 北傀의 南役野慾을 뒷받침하는 強力한 背景이 되었다.

北傀는 이와같은 政略의 準備와 아울러 戰略의인 南役體制를 굳혔는데 當時의 南韓情勢는 累卵의 禍難을 自招하는 形勢속에서 混迷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美軍政當局의 短見의이고 彌縫의인 施策으로 因하여 經濟의 沈滯와 政界의 不統一 및 左翼勢力의 政廳을 芟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北傀는 大韓民國의 이러한 脆弱點을 거당하여

春川·開城·滄津 등의 38°線上에서 武力挑發을 거듭하는 한편, 國軍의 內部的인 崩壞를 목적으로 하는 騷擾事件과 下剋上事件을 軍內部에 浸透한 細影眞으로 하여금 頻發케 하였다.

이러한 攪亂工作은 國軍의 育成過程을 不穩케 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防力을 凋枯케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와 併行하여 社會的으로는 南韓만의 單獨選舉를 妨害하고 治安攪亂과 民心離散을 노리는 叛亂事件을 惹起케 하였다. 그리고 政界를 비롯한 社會의 各界에 프락져야를 浸透시켜 左翼勢力의 助長에 狂奔하는가 하면, 武裝共匪를 大羣으로 南派시킴으로써 國軍 및 警察力의 分散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大韓民國의 國防力을 弱화시킴으로써 軍事力의 絶對的인 優勢를 노렸던 北傀는 1950년 6월 25일의 南役時機가 가까와짐에 따라 全面反攻의 野慾을 陰謀하기 위하여 一連의 偽裝된 軍政勢를 試圖하였으니 이른바 祖國統一戰線의 結成, 이른바 世界平和擁護運動에의 便乘, 南北總選舉의 提案, 要人交換의 提議 등이 그 主된 工作이었다.

이처럼 概觀컨대, 北傀의 南役準備는 U. S. S. R의 極東進出政策을 後光으로 하여 金日成과 그 一味徒黨들의 計劃의이고 劃一的인 對南工作으로써 大韓民國의 內部的인 崩壞를 노리는 한편 北傀自體의 軍事力強化와 政治的인 基盤造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美行政府의 無定見한 對韓政策으로 因하여 政治 및 軍事의인 脆弱性을 克服치 못하였던 大韓民國의 內的인 與件이 이 未曾有의 禍難을 自招한 것과 다를바가 없었던 것이다.

實로 無備偷安이 廢來하는 國家的인 危險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피어린 國難이었다.

## 1. 政略的 準備

北傀 金日成一味の 政略的인 南侵準備는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의 구축속에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 15일 以後 U. S. S. R 軍政下의 北韓地域에서는 共產黨의 黨權과 政權 및 軍權이 走狗인 加짜 金日成을 중심으로 形成되고는 있었으나, 初期에 있어서는 國內派(朴憲永系), 蘇聯派(金日成系), 延安派(一名 中共派, 金料奉系)가 內面的인 執權角逐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3개 派는 서로 相違한 背景을 지니고 있었으니, 國內派는 1920~1930年代에 國內에서 地下工作을 일삼으면서 國內的인 組織力을 蓄積하였으며, 延安派는 中共의 頭目 毛澤東 밑에서 抗日鬪爭하면서 獨立同盟이라는 政治結社로써 政治的인 同志組織體로 形成한 무리들이었다. 이에 비하여 蘇聯派인 金日成系는 U. S. S. R軍의 北韓進駐에 扈從하여 入北한, 이른바 朝鮮人系 U. S. S. R軍출신의 무리들이며, 當初에는 北韓住民들로부터 차가운 눈초리로 疏外당하며 꼬리 흔드는 存在에 지나지 않았다.

U. S. S. R軍政이 만약, 이 3개 派사이의 角逐을 그대로 放置하였다면, 金日成系는 國內 및 延安派의 相對로 同座조차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派의 背景에는 Stalin의 占領政策 — 韓半島에서의 共產黨의 主導權을 앞잡이인 金日成에게 掌握케 함으로써 U. S. S. R에 忠誠스러운 北傀政權을 造作하는 政策 — 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Stalin의 占領政策을 唯一하고도 最大의 後光으로 삼아 1945년 10월 10일~13일에 이른바 朝鮮共產黨의 北朝鮮分局(始初는 1925년에 設置)을 平壤에 다시 設置기로 決定하고 同年 12월 7일에 金日成을 責任秘書로 추켜올려 놓았다. 黨權을 한손에 넣게하여 北傀政權을 造作하려는 제1步인 것이었다.

當時, 北韓地域에서의 唯一한 民族主義勢力인 朝鮮民主黨(지도자, 曹晚植)은 사실상 空息당하고 있었으니, 이는 U. S. S. R軍政의 意圖的이고 惡辣한 抑壓때문이었다.

民族系列을 온갖 手段과 方法으로 去勢한 U. S. S. R軍政은 1946년 2월 8일에 이른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꾸며, 金日成一味에게 黨權 및 政權을 안겨주는 基礎作業을 마쳤으며, 나머지의 軍政마저도 掌握케 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8일에 이른바 人民軍이라는 武力組織을 作動하였는데, 이에 이르기 까지의 期間은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확립시키기에 필요한 準備過程에 지나지 않았다.

즉, 1945년 10월 12일에 北韓內의 모든 武裝組織을 解散시킨 U. S. S. R軍政은 金日成一味の 組織을 急造키 위하여 各道單位의 鐵道保安隊(1946. 1) · 中央保安幹部學校(1946. 6) · 保

安幹部 제3訓練所(1946.8)를 차례로 설치하고, 1946년 9월 以後부터는 이른바 人民集團軍을 편성해 나갔다.

이처럼, U.S.S.R軍政의 뒷받침으로 黨權과 政權 및 軍權을 장악한 金日成은 北韓地域을 共產基地(民主基地라고 呼稱)化하기 위한 구축작업에 狂奔하기 시작하였다.

이 共產基地化의 基本路線은 이미 1945년 12월에 公表되어 北傀政權의 進路를 예견케 하고 있었다.

### 가. 南侵體制的 強化

1945년 12월 17일에 소집한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의 제3차 擴大執行委員會에서 金日成은 要旨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咆哮하였다.

『첫째로 현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黨의 政治路線은 모든 民主主義的 政黨 및 社會團體가 聯合된 基礎 위에서 우리나라의 統一的, 民主主義的인 政權을 수립하고, 北朝鮮을 統一民主主義的獨立國家로 건설하기 위한 強力한 民主基地로 전환시키는데에 있다…….』

#### (1) 共產基地化의 路線

이 연설요지는 金日成의 입을 빌려 발표된 U.S.S.R의 對韓政策의 基本路線이었다. 北韓地域을 일반적인 뜻에서의 領土로서가 아니라 南韓地域을 統一하기 위한 共產基地로서의 特殊한 政治的인 의미를 설정한 것이었다.

換言하면 38°線에 의한 分斷상태를 政治的인 奇貨로 逆用하여 北傀政權의 軍備를 強化한 然後에 韓半島 全域을 統一케 한다는 「先分裂, 後統一」의 계획된 政略路線의 嚆矢였던 것이다.

金日成은 다시 1946년 4월 20일의 咸南擴大委에서 要旨 다음과 같이 共產基地路線을 叫號하였다.

『…우리 黨은 U.S.S.R軍이 進駐하고 있는 有利한 조건을 이용하여 共產黨의 力量을 擴大 強化하고, 北朝鮮에 民主主義的 基地를 鞏固히 構築하는 革命課業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이 만일 이 有利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南朝鮮의 民主化를 실현하는 것은 극히 곤란해진다. 그러나 國土와 人口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北朝鮮에서 黨의 力量을 強化하고 民主主義的 基地를 強固히 구축한다면 朝鮮 民主化의 실현은 용이해진다. 우리들은 朝鮮共產黨 北朝鮮委員會를 창설한 이래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우리들의 사업은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自誇自讚으로써 밝혀진 바와 같이 金日成은 이른바 北朝鮮民主基地의 路線을 公開的으로 擧論하고 北韓을 共產化 함으로써 南北統一의 基地로서의 性格을 명백히 부여함과 동시에 同路線을 計劃的으로 추진해 왔음을 聲明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3월 24일의 제2차 黨大會에서는 『朝鮮民族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U.S.S.R軍 進駐下의 有利한 조건을 이용하여 北韓地域에 공고한 民主基地를 구축해야만 하고 이를 더욱 強化하기 위한 決定的조건은 共產黨을 強大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豪言하였다.

그런데 金日成은 一連의 放言을 통하여 鬭爭의 對象이 「南朝鮮을 強占한 美帝」와 「美帝에 추종하는 李承晚徒黨」이라고 妄發하면서 다음과 같이 共產基地路線의 목표를 규정하였다.

『黨과 人民政權 및 社會團體를 더욱 強化시켜, 南半部人民들의 모든 愛國的 民主主義의 力量을 黨中心으로 굳게 단결시켜 그들을 美帝와 李承晚徒黨에 반대하는 全人民的 혁명투쟁에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들의 革命 源泉地인 北半部の 民主基地를 政治·經濟 및 軍事의 으로 보다 強化하고, 이 民主基地를 단순히 帝國主義와 그 走狗들의 침략에 대항하여, 共和國 北半部를 保衛하는 強力한 力量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統一獨立을 戰取하는 決定的 力量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革命基地路線은 또한 共產黨 自體의 權力鬭爭을 主導하는 ideology로서의 성격도 띠우고 있었다. 때문에 金日成一味는 黨權鬭爭에서 승리하고 國內派 및 延安派등의 政敵을 제압하기 위해서도 이 共產基地化의 路線을 당면한 政略으로서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 共產基地化의 路線은 1950년의 奇襲南侵時까지 줄곧 強化되었다.

## (2) 所謂 祖國戰線의 結成

U.S.S.R軍政은 傀儡인 金日成의 입을 통하여 共產政體의 急造를 위한 또 하나의 政略을 暴露하였다.

즉, 1945년 10월 18일에 平壤人民政治委員會로 하여금 金日成과 그 家族을 위한 慰安會를 열게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民主主義的 統一戰線을 결성해야 한다.』라고 U.S.S.R軍政을 代辯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共產黨은 共產主義라는 用語에 對하여 民主主義를 濫用하였는데, 北傀政權의 경우도 그 例外가 아니었으므로 金日成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民主主義는 곧 共產主義의 變造된 表現인 것이다.

따라서 1945년 10월에 이미 내세운 이른바 民主主義的 統一戰線은 곧 共產主義的 統一戰線을 뜻하는 것이었다.

1946년 2월 8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單獨 共產政權의 기초작업을 끝낸 金日成一味는 統一戰線의 이름으로 그 공격의 화살을 南韓의 右翼(民族)政黨에 집중하였다. 장차 統一的인 共產政權을 戰取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反民族勢力이라고

政略的인 공세를 취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여 南韓의 民族的인 有力政黨을 反民族勢力으로 몰아세워 民衆社會로부터 孤立시킬 수만 있다면 韓半島 全域에 있어서 共產革命이 성취될 것이라는 兇算이었다. 이것이 곧 U.S.S.R軍政下에서 계획된 共產黨의 統一戰略이었다.

平壤의 U.S.S.R進駐軍 司令部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南韓의 朝鮮共產黨은 1946년 2월 15일에 이른바 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民戰)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1945년 10월 17일에 金日成의 입을 통하여 共產黨 秘密會議(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제3차 擴大會議)에 전달된 U.S.S.R 軍政의 人民共和國 조직지침을 南韓에 적용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4월 14일에는 南北韓의 民戰代表를 소집하여 UN臨時 韓委의 統韓선거를 방해하고, 駐韓外國軍의 同時撤收를 요구하는 聲明書를 내놓았다.

제2차 UN總會(1947. 11. 14)의 決意로 UN監視下의 總選舉가 실시(1948. 5. 10)되어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자 北勞黨과 南勞黨은 統一戰線政府라는 糾合體를 平壤에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곧 1948년 9월 9일에 曄作된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金日成政權인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傀儡政權의 魁首로 등장한 金日成은 要件 다음과 같은 政綱을 내걸었다(1948. 9. 10).

『① 大韓民國은 民族叛逆者 및 反動賣國奴들의 集合體인 傀儡政權이다.

② 民族叛逆者들은 人民共和國의 法令으로써 處罰한다.

③ 大韓民國의 諸法律은 一切 無効하다.』

이 宣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傀政權은 그 造作된 첫 날부터 이미 大韓民國에 대하여 宣戰布告와 다름없는 行動表示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1949년 6월 25일에는 다시 南北韓의 民戰을 통합하여 이른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결성하였는데 祖統 또는 祖國戰線이라고도 略稱하며 北傀政權의 政綱을 실현키 위한 조직이었다.

이 때부터 北傀政權은 이른바 祖國戰線을 看板으로 내세워 南侵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祖國의 平和的統一이라는 가식된 호소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裏面에서는 U.S.S.R 支援下에 南侵準備를 急展시키고 있었음은 疑義를 要치 않는다.

### (3) 民衆組織의 強化

北傀政權의 權力構造는 U.S.S.R軍政의 뒷받침으로 지극히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U.S.S.R軍政이라는 外來勞力과 金日成一味의 傀儡徒黨은 北韓民衆을 強制的으로 복종시켜 이끌어왔을 뿐, 民主的인 合意에 의한 統治權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北韓社會를 조속히 장악하기 위하여 행사한 初期의 權力은 U.S.S.R軍政이 金日成一味로

하여금 代行계 한 國家的으로 조직된 힘이였다. 설사 拙速에 치우친 點이 있다해도 不可抗力으로 強力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종이 强要된 것이며, 비판과 抗拒가 介在할 수 없었다. 물론 1945년 11월의 新義州學生事件을 비롯한 民衆의 反抗事件이 있기는 하였으나 無差別한 탄압에 눌려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U.S.S.R軍政下の 民衆組織은 靑少年에서 農民·勞働者·文化人·運動家·文學藝術人·科學技術者·婦女子·宗教信者에 이르기까지 北韓住民은 한 사람이라도 이 社會組織網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全面化하였다.

『學生靑年들은 社會의 各階層에 屬하는 것이며, 결코 獨立的으로 존재하는 階級이나 階層이 아니다.』라는 前提下에 學生과 靑少年들을 韓靑傘下로 통합케 하였으며, 知識層과 文化人들에 대하여는 宣傳戰 및 文化戰의 隊列에 나서기를 强要하였다.

또한, 體育人大會·科學者 및 技術者大會등 각종 행사를 설정하여 共產黨政權에 忠實한 일꾼이 되라고 强요하였다.

이처럼 U.S.S.R軍政下の 民衆組織은 金日成體制를 強化하여 장차에 있어서 南北을 統一하는 共產政權의 母體로 한다는 목표에 一致시켰다. 처음부터 大韓民國의 民主體制를 革命對象으로 설정하고 美軍政한대 및 所謂 賣國奴打倒라는 看板으로 요란하게 선동하였다.

北韓社會의 一員으로써 存在하는 限, 住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共產黨傘下の 組織에 들어야만 했는데 反動分子로 명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等外人民의 딱지를 붙여, 人民證과



〈光復 1주년을 기념하는 平壤市街行進, 이 때까지만 해도 太極旗가 나뉘고 있었는데...〉

人民班組織으로 감시하고 구속케 하였다. 全住民을 二重三重의 각 組織網안으로 묶어놓고 共產黨의 지침에 복종케 않을 수 없게 회유와 위협, 격려와 고문을 번갈아 행사하였다.

일정한 제퇴기간이 지나자, 北韓住民의 생활질서는 共產主義式으로 변모해 갔다. 同化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된 住民들은 反人民(反動分子)으로 몰려, 무자비하게 숙청당하였다. 이른바 金日成體制에 대한 忠誠隊列이라는 것을 정비한 것이었다.

이 渦中에서도 宗教人과 信者들은 信仰의 힘으로 共產主義에 同化되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宗教家庭의 子弟를 대상으로 迫害를 加하는 악랄한 彈壓手法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이로써 北韓社會에는 共產黨에 반대하는 단체가 송두리채 根絶되고 말았으며, 놀라운 속도로 共產化하였다. 입만 열면 이른바 「金日成將軍의 노래」를 제창하고 討論場을 열면 美軍政 반대, 李承晩·金九 타도를 외치게 하는, 殺伐한 분위기를 高潮시켜 갔다. 金日成一味는 이 분위기의 滿潮期를 造成하면서 南侵의 好機를 선택한 것이었다.

#### (4) 所謂 人民武力의 強化

金日成一味는 이 民衆組織을 革命的, 鬭爭的 性格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軍事的인 분위기를 차츰 高潮시켰다.

1948년 2월 8일, 이른바 朝鮮人民軍의 閱兵式에서 이 者는 『朝鮮人民軍이 唯一한 統一祖國의 軍隊이다.』라고 妄發하였다. 그리고 『이 武力으로써 統一祖國의 安全을 自主的으로 守護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豪言하였다.

즉, 이러한 詭辯의 眞意는 南北分斷의 사태를 극복하는 길이 결국, 南韓에 대하여 北傀政權의 人民軍이 軍事的인 勝利를 거둠으로써 해결되고 이른바 祖國戰線의 깃발아래에 統一이 달성될 것이라는 幻想을 심어주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1948년의 前半期인 당시에, 金日成一味는 國際的으로 窮地에 몰리고 있었다. 즉, 1947년 11월 14일의 UN總會에서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統一韓國政府를 수립하기 위하여 UN監視下의 總選舉를 실시한다.』라고 決議하였기 때문이다.

UN總會의 權威에 시초부터 敵對해온 U.S.S.R軍政과 그 傀儡인 金日成一味는 이 UN決議로 因하여 對外的으로는 孤立되고, 對內的으로는 北韓住民들의 動搖에 부딪치게 된 것이었다.

특히, 1948년 3월 1일을 期하여 3·1運動을 再起시키려던 天道教 信者들의 抵抗은 U.S.S.R 軍政과 金日成一味의 分裂政策에 대한 北韓地域에 있어서의 強烈한 民族運動으로서 特記되어야 할 일이었다.

이처럼 內外的으로 單面的 孤立狀態를 벗어나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 바로 人民軍閱兵式이었다.

韓半島의 統一은 UN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共產黨의 實力行使에 의해서

만 실현된다는 露骨的인 暗示를 熱誠分子들에게 심어놓기 위하여 軍備의 實存을 誘示하려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金日成의 입을 통하여 統一政府의 수립이 결코 멀지않다는 것을 妄發케 한 것이었다.

이 人民軍閱兵式 이후부터 金日成一昧의 策略이 더욱 積極性을 띠우게 되었다. 表面上으로는 南北間의 政治協商등 非軍事的인 路線을 모색하려는 것처럼 假裝하고 內面的으로 이른바 人民軍隊의 軍事力을 強化하였다. Nikolai Lenin의 暴力革命에 起源한 軍事主義— 人民軍隊를 革命的 主力으로 하는 — 의 公公然한 登場이었다.

1948년 9월 9일 北傀政權이 造作되고 同年 12월에 U.S.S.R軍이 철수하자 金日成一昧의 統一政策은 ① 人民軍에 의한 反動勢力의 粉碎 ② 大韓民國의 打倒에 의한 全國上의 掌握이라는 大方針으로 公式化하였다.

1949년의 初頭に 金日成은 다음과 같은 妄言을 거듭하였다.

『人民軍은 祖國과 人民을 팔아넘기려는 反動勢力을 粉碎하고 祖國山河의 安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상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 祖國을 植地地化하려는 美帝國主義者들의 정책과, 祖國 및 民族을 팔아넘기려는 南朝鮮의 親日派 및 民族叛逆者들의 傀儡政府를 打倒하고 粉碎함으로써 가까운 將來에 國上의 회복과 自主獨立을 戰取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 「祖國」이라는 假面을 쓰고 거듭된 叫號만으로도 金日成一昧의 南侵野慾은 이미 1949년 이전부터 실현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거니와 그 軍事主義의 主力인 人民武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이른바 祖國保衛後援會를 조직(1949. 7. 15)하고 人民軍과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兵器를 獻納케 하는 民衆運動으로까지 大的으로 狂奔하였다.

北傀政權의 公式 발표에 따르면 그 결과로 1949년末까지 2,800,000,000원의 現金과 가마니 448,000개 分の 穀物, 그리고 3,000點 이상의 貴金屬이 獻納되었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北韓住民들의 自發的인 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共産黨의 組織網을 통한 強要에 의하여 울거낸 收奪임이 自明하면서도 金日成은 1949년 9월 9일의 政權造作 1주년의 報告演說에서 『全體人民들은 人民軍隊와 警備隊 및 保安隊를 強化하기 위하여 全力을 집중하고 모든 戰士와 下士 및 軍官들의 家族에 대한 救護事業을 더욱 強化하여 祖國保衛後援會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物心兩面에 걸쳐 人民軍隊를 強化하는 사업을 한층 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自讚하였다. 이와 같이 이른바 祖國保衛後援會라는 組織으로써 武力의 補強과 民力의 掠奪로 연결시켰다.

또한 道·郡의 行政區域마다 後援會의 指導部를 설치하여 18세에서 45세까지의 男女住民을 모두 會員으로 편입시켜 軍事訓練까지 실시하였으며 나중에는 墨까지로 확대시키면서 軍事動員을 위한 補助機關으로 올라가기를 써우게 하였다.



## (5) 經濟體制的 整備

金日成一味는 軍事力의 優位뿐만 아니라 軍備과 函數關係가 있는 經濟力에 있어서도 戰時體制下의 整備를 서두르고 있었다.

즉, 1946년 3월 5일에 土地改革을 실시하여 1,000,325町步의 土地를 沒收하고 그 중에서 981,390町步를 無償分配하였으며 同年 8월 10일에는 重要産業의 國有化法을 시행함으로써 工場과 製造所 및 鑛山, 그리고 炭礦과 發電所 및 鐵道等 1,034개의 産業機關을 國有化하였으니 이는 北韓 全産業의 9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U.S.S.R軍政下의 1946년은 共產主義를 法律的으로 北韓地域에 定着시킨 1년이었는데 이 土地改革과 産業國有化는 Russia의 Bolsheviki革命 이래 共產黨이 專用해 온 勞農同盟政策의 基本이었다. 이를 踏襲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른바 愛國米獻納이라는 名目으로 穀物의 備蓄을 서두른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備蓄米의 일부는 軍事援助에 대한 代價로써 U.S.S.R에 반출되고 일부는 戰爭物資로써 倉庫안에 쌓이게 되었다.

産業國有化는 北傀經濟의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의 體制를 可能케 하였으며 모든 生産力을 劃一的으로 높이는 한편 地下資源의 開發에 重點을 두었다. 北韓地域에는 有用鑛物이 풍부하며, 특히 現代兵器의 제작에 없어서는 안되는 稀元素鑛物의 埋藏量도 풍부한데 그 採鑛量의 全量이 U.S.S.R로 搬出되었으니 이 또한 軍援의 代價인 것이었다. 生産力을 높이는 데 있어서 新規資本 및 技術의 導入이 不可能하였으므로 舊工業施設의 復舊에 注重하였으나, 北韓地域에서의 代表的인 工業施設로 알려진 水豐水力發電所 및 興南肥料工場의 경우 그 施設의 대부분이 이미 U.S.S.R의 強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1946년까지는 그 施設復舊에 注力한 다음 1947년부터 제1차로 短期 1개년의 人民經濟를 계획하고 1948년에 제2차로, 1949년에서 1950년까지에 제3차의 2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에 관하여 金日成一味는 다음과 같이 自讚하였다.

『1948년도에 있어서의 人民經濟계획의 勝利的인 달성은 國內의 反動陣營에 막심한 打擊을 加했으며……人民經濟가 이처럼 短期間內에 급속히 復興발전된 것은 北半部の 計劃經濟體制가 優越함을 立證하는 것이며……이 사실은 北半部の 主權이 人民의 손에 의하여 행사되고 土地改革과 産業國有化를 비롯한 모든 民主改革이 실시된 결과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南韓의 經濟실정을 겨냥하여 그 優越성을 誇示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1949년에서 1950년까지 北傀의 經濟가 南韓보다 意慾的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른바 金日成一味의 제2권에 『1949년처럼 旱魃이 극심한 不利한 조건 밑에서도 우리들은 1944년에 비하여 626,490ton의 쌀과 잡곡을 증산하였고 棉花는 43,033ton을 增産하였다……또한, 石炭과 鑛石 및 肥料等 重要物資의 品種別 輸送을 완수하고 工場·鑛山 및

企業所에 대한 生産原料의 需要를 適時에 보장하였으며 農村에 肥料을 適時輸送하였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自讚宣傳의 과녁이 南韓이었음은贅言을 要치않는 바인데 金日成을 비롯한 北傀政權의 우두머리들은『北半部の 物力이 急速度로 強化되고 있는 反面에 南半部는 經濟的인 死滅의 길을 걸고있다.』라고 믿고 있었다.

1950년 1월 25일에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南半部에서는 産業 및 農村經濟가 차차로 破産의 길을 치닫고 있으며……人民들은 貧困과 飢餓에 허덕이고 있다.

李承晩의 傀儡政府에 대한 人民들의 不滿이 날로 폭발하여 土地와 自由를 위한 農民들의 烽起는 더욱더 치열해지고만 있다.』

결국, 이 一味徒黨들은 3차에 걸친 人民經濟계획의 실시로써 이른바 共產基地는 經濟的으로도 南韓을 壓倒하게 되었다는 幻想的인 自信으로 南侵의 統부리를 들이댄 것이었다.

#### 나. 秘密協定の 締結

위에서 概觀한 바와 같이 北傀政權이 南侵을 목표로 하는 內的體制를 強化한 1945년~1950년의 5개년 동안은 韓半島를 圍繞한 極東 및 Asia에 있어서의 東西 兩陣營의 力學關係가 中共의 中國大陸 席捲으로 말미암아 크게 變貌를 보여준 期間이기도 하였다.

韓國戰爭의 史的考察에 있어서 이 中共의 樞頭를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것이다.

첫째, 中國內戰이 1949년 10월 1일에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의 宣布로 終結됨으로써 極東에 있어서의 共產勢力이 눈부시게 膨脹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

둘째, 中共은 當初부터 철두철미하게 이른바 反美·反帝國主義로 一貫하여 U.S.S.R을 적극 지원하는 親蘇一邊倒의 政策을 밀기 시작하였다.

##### (1) 中共의 影響力

1950년 2월 14일 U.S.S.R과 中共은 30年間の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行政 및 財政協定에도 署名하였다.

특히, 友好同盟은『日本 및 日本과 협력하는 여하한 國家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一國이 戰爭상태에 돌입할 경우 軍事 및 經濟的으로 支援한다.』라는 骨子로써 맺은 30년 期限附의 條約이었는데, Asia에서의 共產勢力의 擴張에 주요 障礙가 될 日本과 그 後見者格인 美國을 共同의 敵으로 看做하여 共同防衛라는 美名下에 침략기도를 은폐한 軍事同盟이라는 특징을 지적하게 된다.

그런데, 北傀政權은 狐假虎威格으로 이 中·蘇同盟에 鼓舞되어 民族保衛相인 崔鍾健으로 하여금 『祖國의 統一과 獨立을 위하여 鬪爭하고 있는 朝鮮人民은 U.S.S.R과 中華人民共和國의 兩國間에 실현된 偉大한 友好에 勇氣를 얻어 더욱 李承晚 徒黨을 섬멸하고 美帝 侵略勢力을 追放하는 鬪爭에서 勝利할 수 있는 自信을 굳히게 되었다.』라고, 南侵野慾의 成事を 일찍부터 豪言壯談하기도 하였다.

당시 中·蘇問題의 專門消息通들은 同條約이 체결되는 동시에 특히 Asia의 戰後 新生國 Indonesia · Burma · Thailand · Malaya · India · Pakistan · Philippines · 日本 · 大韓民國에 대한 赤化顛覆을 中共에 專擔케 하는 文書外의 密約도 확인되었을 것으로 推測하였다.

이 推測의 근거는 毛澤東의 訪蘇直前に 열린 Asia 및 Australia 地區 勞動組合會議(極東情報局의 別稱)에서 『中國人民이 帝國主義者들을 打倒하고 中華人民共和國를 수립하기 위하여 걸어 온 길은 全植民地 및 半植民地의 獨立과 人民民主主義를 戰取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自讚한 劉少奇(中共主席)의 演說要旨에 두고있다. 이에 대하여 U.S.S.R은 全面的인 支持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Asia 諸國에 대한 赤化侵略은 中共의 直接介入 또는 補助的인 干涉으로 진행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推定이 可能한 것은 中·蘇間에 이른바 國際極東共產軍의 創設에 관한 密約이었다.

즉, Stalin은 毛澤東에게 막대한 軍事 및 經濟援助를 약속하는 그 代價로써 中共軍의 일부를 國際極東共產軍에 편입케 하였다는 說이 非公式로나마 公認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說에 따르면 50개 사단의 中共軍을 國際共產軍의 管轄下에 두어 Comin-form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國際的인 危機에 動員키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中·蘇 兩國은 雙方의 軍區調整에도 合意되었다는 說도 있다. U.S.S.R은 北傀軍의 指揮權을 中共軍 第4野戰軍(사령관, 林彪) 管下의 東北軍管區에 편입시키는 대신에 中共을 종전에 東北軍管區에 속하였던 第1 및 第2의 松花江 東北地域을 U.S.S.R의 沿海州에 割讓하여 이를 U.S.S.R의 極東軍管區로부터 獨立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密接하게 접근한 中·蘇 兩國間에 그 共同關心事로서 韓半島문제가 學論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推定되며 그 뒤에 일어난 事態의 발전과정이 이 推定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이에 관련된 公式發表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中共은 韓國侵略에 관한 종전의 U.S.S.R 計劃을 再確認하고 더 나아가서는 北傀軍의 南侵에 관한 具體的인 時間表까지도 作成한 듯하다. 즉, 1950년의 초여름에 우선 韓半島에서 軍事行動을 일으키고 이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臺灣을 侵攻키로 戰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其實, 中共은 同年 2월 이후에 東北義勇軍 隸下의 最強部隊(제4野戰軍의 제15獨立旅團)을 入北시켜 이른바 人民軍의 제7사단으로 變身시켰으며, 제4野戰軍의 제38軍 및 제40軍도 中國南端에서부터 北上하여 北傀政權의 南侵당시에는 제42軍(韓滿國境에 待機중)과 合勢케 하여 北傀軍의 背景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例만 보더라도 Stalin과 毛澤東은 韓半島에서의 赤化侵略에 관하여 이미 事前 合意와 了解에 到達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推定하게 된다.

美國의 著名한 蘇聯通인 Dallin의 著書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은 『北京과 Moskva는 北傀가 戰爭을 일으키는 것에 合意하였다. 그들은 北傀軍이 外部로 부터의 援助가 없어도 勝利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만 美軍이 介入할 때에만 中共軍이 U.S.S.R空軍의 支援下에 武力介入하기로 하였던 것이다.』라고 中·蘇의 關聯說을 주장하였으며 閻錫山(前國府軍의 首腦)도 『제3차 大戰의 展望』(1950.9. 10 日本의 改造誌에 掲載)에서 『中共은 北傀가 만일에 南侵에 失敗할 경우 10만의 兵力으로써 北傀軍을 지원키로 合意하였다.』라고 公言하였다.

## (2) 朝·蘇經濟 및 文化協定을 假裝한 軍事協約

U.S.S.R은 政治的으로 北傀政權을 造作하고 軍事 및 經濟援助로써 北傀地域에 共產基地를 構築하는 한편 中共을 지원하여 中國大陸을 赤化시키기 이르자 남은 문제 —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비롯한 全 Asia의 赤化侵蝕 — 의 목적달성에 拍車를 加하기 시작하였다.

즉, Stalin은 1949년 3월 4일에 허수아비의 淵首인 金日成을, 同年 12월 16일에는 中共의 毛澤東을 각각 Moskva로 불러들여 一連의 秘密協約을 맺었는데 그 要旨은 두 말할 것도 없이 赤化侵蝕의 指針과 戰略을 陰謀하는데 있었다.

同年 3월 17일에 U.S.S.R의 Pruda通信(U.S.S.R共産黨의 中央機關紙)은 이른바 朝·蘇經濟 및 文化協定이 체결되었음을 報道하였는데 同日附로 ① 物品交換과 그 支拂에 관한 協定(兩側은 特定物資를 교환하되 특히 1949년~1950년에는 그 額數를 增加시킬 것) ② 技術援助에 관한 協定(U.S.S.R은 Credit와 技術援助를 供與할 것) ③ 信用에 관한 協定(兩側은 1년 또는 1년 이상의 期限으로 通商信用에 관한 細則을 작성하고 兩側의 文化的 및 藝術的인 紐帶를 強化하는 조치를 체결키 위한 會談을 개최 할 것) 등의 短期協定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46년 이래 北傀에 대한 U.S.S.R의 經濟援助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나타내었다.

(1 dollar : 4 ruble)

1946年度.....740,000,000 ruble (185,000,000 dollars)

1947年度.....148,000,000 ruble (37,000,000 dollars)

1948年度.....265,000,000 ruble (66,250,000 dollars)

1949年度.....347,000,000 ruble (86,750,000 dollars)

1950년 度.....684,000,000 ruble (171,000,000 dollars)

즉, 5개년에 걸쳐 總計 2,184,000,000 ruble (546,000,000 dollars)에 달하는 이 援助額은 該年度에 있어서의 美國의 對韓援助額과 大差없으나, 그 거의 全額이 軍事費로 充當하였던 것이니 經濟援助를 表面上으로 빙자하여 南侵軍備의 急速한 強化에 날뛰었던 元兇들의 狂奔相을 如實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朝·蘇 經濟 및 文化協定도 역시 國際輿論을 감안하여 꾸며낸 假面劇에 지나지 않았고 其實에 있어서는 北傀의 軍備를 決定的으로 強化하기 위한 秘密協定이었음을 충분히 지적하게 된다.

이로써 推定컨대, 金日成은 1948년 12월의 Moskva 軍事秘密協定(北傀人民軍의 近代化를 위한 U.S.S.R 및 中共의 保障)에 依據하여 다음과 같이 哀乞하였음이 분명하다.

- ① 步兵 6개사단과 3개 機械化部隊 및 7개 機動保安大隊의 裝備와 武器 및 軍事施設의 追加援助
- ② 空軍의 強化를 위한 偵察機 20台, 機關機 100台, 爆擊機(中·輕)30台的 追加援助.
- ③ 105~120명의 軍事顧問을 1949년 5월 1일~20일안에 파견

또한 이 秘密協定과 관련하여 Stalin과 金日成이 南侵計劃에 대하여 具體的인 合意를 보았을 것으로 推斷된다.

遺憾스럽게도 이에 관한 文語的인 根據나 發表內容이 全無하기 때문에 推定에 의한 心



(北傀로 搬入되는 U.S.S.R製 T-34戰車)

證으로 그 가능성을 認知할 따름인데, 1970년에 發刊된 N.S. Khrushchev의 著書인 “Khrushchev Remembers”의 내용에 『金日成이 Stalin과 만났을 때에 南韓을 武力로 侵攻하겠다고 요구하자 Stalin은 金日成에게 具體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說得하였다.』라는 句節이 있어, 하나의 根據를 대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New York Times”의 1947년 3월 20일附 記事에 따르면 이 두 魁首는 U.S.S.R이 提供할 수 있는 軍事援助의 규모와 그 償還方法에 관해서도 논의했을 可能이었고, 極東通信(Tokyo)의 1950년 7월 1일附 記事는 『U.S.S.R은 潛水艦基地로 사용중이던 元山과 淸津 및 雄基 등 港灣을 25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따냈다.』라고 報道하였다.

그런데, U.S.S.R은 東歐衛星國들을 묶어 놓기 위하여 常套적인 수단으로 삼고있던 相互防衛條約의 縮結을 희피한듯 하여 주목을 끈다. 다만 U.S.S.R의 機關紙가 『朝鮮人民은 U.S.S.R에서 可能的한 모든 援助를 期待할 수 있다.』라고만 報道하였을뿐, 北傀의 安全保障을 뒷받침하는 具體적인 言質을 一切 公表하지 않았다.

속이 편한 이 假面的인 秘匿의 이유는 明若觀火하다. 즉, 大韓民國이 UN에 의하여 탄생되었고, 美國은 共產主義者들이 결코 全面侵攻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見地에서 駐韓美軍을 철수하였는데 만일 北傀와 軍事條約을 맺으면 大韓民國政府가 이를 口實삼아 美國과의 軍事防衛條約을 強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U.S.S.R의 계획이 크게 蹉跌을 보게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北傀의 頭口이 입만 열면 이른바 美帝의 侵略云云하고 뇌까리는 被害妄想症은 어떤 保障으로써 무마하였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 共產圈專門의 消息通은 U.S.S.R의 Albania에 대한 方式을 取하였을 것이라고 觀測하고 있다.

U.S.S.R은 東歐衛星國중에서 유독 Albania와의 直接的인 防衛條約을 맺지않고, Yugoslavia 및 Bulgaria로 하여금 Albania와 相互防衛 및 友好條約을 체결케 하였다. Albania가 Balkan에 位置하여 國際적으로 복잡한 問題點을 안고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方式을 北傀政權에 適用하였으리라는 見解가 支配的이며, 당시 上海에서 發刊되고 있던 國府의 機關紙가 1949년 5월 5일附 記事로서 『中共은 1949년 3월 18일에 U.S.S.R의 保護下에 있는 北傀政權과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였다.』라고 報道한 바와 같이 中共으로 하여금 北傀政權을 直接 擁護케 하는 形式을 取하였던 것이다.

### (3) 朝·中共의 相互防衛協定

國府機關紙의 記事를 引用報道한 New York Times(1949. 5. 6字)에 따르면 中共과 北傀의 相互防衛條約은 要旨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① 兩側은 여하한 성질의 侵略에 대하여도 共同으로 防衛한다.

또 어떠한 帝國主義的인 勢力이든 北韓 또는 中共의 一方을 攻擊하는 경우, 兩側은 이 帝國主義勢力에 대한 共同의 戰爭에 있어 共同行動을 取한다.

② 中國共產黨은 194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期間중에 滿洲를 保有한다.

③ 北韓은 滿洲에 있는 日本技術者와 雇傭員 및 日本軍需品을 最優先的으로 中國北部로부터 武器 및 兵力을 北韓에 提供받는다.

④ 中國共產黨과 北韓은 兩側의 經濟的인 必要性에 따라 物物交換을 한다.]

이 秘密協定은 實際로 北傀政權의 軍事力을 強化하고 南侵準備를 促進하는 데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 (4) 中·蘇의 友好同盟과 相互援助條約

1949년 10월 1일에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이 宣布되어 中國大陸이 中共의 掌中에 들자 U.S.S.R의 食指는 더욱 陰險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中共의 中國大陸制覇로 얻어진 Asia에서의 共產勢力의 膨脹趨勢를 韓半島侵蝕에 利用하려는 것이었다.

U.S.S.R은 1949년 12월 16일의 Stalin生日을 憑藉하여 毛澤東一行을 Moskva로 초대하였는데, 其實은 中共擡頭이후의 새로운 勢力構造를 調整하고 既存關係를 妥協하기 위한 두 頭目的 鳩首會同이었다.

月餘에 걸친, U.S.S.R 外相 A.Y. Vyshinskii와 中共外相 周恩來의 長期密談을 거쳐 1950년 2월 14일에 兩側은 30년을 時限으로 하는 友好同盟과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고 그 밖에도 몇 개의 行政 및 財政協定도 署名한 것은 前述한바와 같다.

이로써 中·蘇는 『日本 및 日本과 協力하는 如何한 侵略勢力도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一國이 戰爭狀態에 들어갔을 때, 이를 軍事 및 經濟的으로 即刻支援한다.』라는 約定을 骨子로 하여, 共同防衛라는 美名下에 侵略意圖를 隱蔽한 軍事同盟을 形成한 것이었다.

이 中·蘇同盟이 발표되자 千軍萬馬를 얻은듯이 狂喜雀躍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北傀의 金日成一味와 그 徒黨들이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祖國의 統一과 獨立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朝鮮人民은 U.S.S.R과 中華人民共和國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偉大한 友好에 의하여 勇氣를 얻었고 더욱 李承晚徒黨의 殲滅과 朝鮮으로부터 美帝侵略勢力을 國外로 逐出하는데 勝利할 自信을 얻었다.』라고 老獺 崔庸健이 保衛相의 看板으로 放談하게 된 까닭을 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다. 極東共產圈의 動向

#### (1) U.S.S.R의 背後操縱

U.S.S.R은 中共의 새로운 勢力을 韓半島赤化에 이용하는 한편으로는 國際舞臺에 있어

서의 策動도 同時에 弄하였다.

즉, 國際機構를 마비시킴으로써 美國의 影響下에 운영되는 UN의 威信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北傀의 南侵과 中共의 臺灣侵攻으로 惹起될 國際的 紛爭에 대한 國際機構의 介入을 不法化시키며, 技術的인 逃避口을 꾸미기위하여 중요한 國際會議에 과전했던 代表들을 차례로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13일 UN 安保理事會의 U.S.S.R代表인 Malik는 獨연『國府代表가 참석하고 있는 會議에 함께 同席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關여하는 어떠한 決定도 일체 無効하다.』라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退場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世界의 輿論은 때마침 進行中인 中·蘇會談을 거당하여 中共의 立場을 浮沈시키려는 U.S.S.R의 策으로 看做하였다.

그러나 U.S.S.R의 眞意는 其實 다른데에 있었다. 즉, 故意的으로 UN安保理事會의 機能을 마비시켜 極東에 있어서의 U.S.S.R의 계획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非難과 壓力을 事전에 除去코자 하는데 그 主眼이 있었던 것이다(1939년 12월에 U.S.S.R은 國際聯盟에 參席하는 것을 拒否하고 Finland에 대한 奇襲攻擊을 恣行한 바 있다.)

이 목적으로 U.S.S.R과 衛星國의 代表들은 同년 1월 16일부터 차례로 UN機構에 과전한 人員들을 철수케 하였다. 이 현상은 Washington의 13개 國 極東委員會와 東京(Tokyo)의 4개 同盟委員會까지 확대되었으며 U.S.S.R은 다시 同년 初부터 美國과 日本 및 北傀駐在의 外交官과 軍事專門家들을 Moskva로 소환하였다.

北傀駐在의 Shtykov (大使)는 이해 4월 初에 大韓民國政府가 제2대 國會議員의 總選舉를 5월 30일에 실시키로 公式發表하자 지체없이 Moskva로 떠나버렸다.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할 記錄은 없으나 U.S.S.R이 취하는 外交慣例에 비추어 볼때에 그의 歸國은 분명히 U.S.S.R國防省과 極東軍司令部가 짜낸 南侵에 關한 軍事戰略과 밀접한 關係가 있었으리라는 것으로 推斷된다.

당시 Shtykov는 韓國通으로 손꼽힐뿐만 아니라 그의 見解는 U.S.S.R의 極東全般에 걸친 戰略에 적지않게 影響을 끼쳤을 것이었다.

Shtykov外에 2명의 極東專門家들도 急遽 歸國하여 世界輿論의 注目을 끌었다. 하나는 駐美大使이자 極東委員會의 U.S.S.R 首席代表인 Panyvshkin이며, 다른 하나는 東京駐在의 4大國 同盟委員會의 U.S.S.R代表인 Derevyankov (現役 中將)이었다. 특히 後者는 首席補佐官인 Kislenkov(現役 少將)를 비롯한 50명의 駐口代表部 職員들을 모두 이끌고 同년 5월 27일에 歸國하고 말았다.

極東專門家로 알려진 이들의 突然한 集團的인 歸國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때가 時期的으로 보아도 南侵 1개월前이었다.

더구나 Derevyankov는 U.S.S.R 極東情報網의 總費이며, 駐日 U.S.S.R代表部가 그 情



報工作의 總本山이었음을 감안함에 이들의 歸國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는 駐美大使인 Panyvshkin을 身病 이유로 召喚한 것은 北傀南侵으로 提起될 美國의 抗議效能을 鈍化시키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北傀의 南侵이 成功할 것으로 確信하여 計略策定의 下手人들을 日本에서 事前에 철수시킬 奸策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日本共產黨의 改造

北傀의 金日成一味로 하여금 南侵을 恣行케 함에 앞서, U.S.S.R은 政略面에 있어서 中共과 日本共產黨(日共)을 相對로 두가지의 策動을 弄하였는데 그 하나는 日共의 改造이며, 다른 하나는 中共의 臺灣侵攻態勢를 지원한 사실이었다.

前者는 駐日美軍의 牽制를 저항한 것이며 後者는 美國을 비롯한 國際的인 視線을 臺灣事態로 吸收하기 위한 것이었다.

日共은 이른바 野坂參三(Nozaka Sanzo)의 戰略이라 하는 平和的인 革命論으로써 戰後의 日本社會에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U.S.S.R은 中共과의 Moskva會談을 進行中이던 1950년 初에 이 日共의 路線을 일제히 攻駁하기 시작하였다.

즉, Comin-form의 機關紙가 同年度의 제1號(1.6附)에서 「日本情勢에 관하여」라는 題下에 「日共의 野坂(Nozaka) 戰略은 Marx-Lenin主義의 日本化이다.」라고 辛辣하게 비판하고 Moskva放送도 同一한 非難을 퍼부었다.

이에 이어, 中共의 機關紙인 人民日報도 同年 1월 17일字의 「日本人民解放의 路」라는 論說로써 Comin-form의 主張을 支持하면서 「日共도 中國人民이 걸어온 武力革命의 路를 擇하라.」하고 惡意차게 使噉하였다.

日共은 이와 같이 國際的인 批判을 받게 되자 極東情勢의 變化가 심상치않을 것으로 過敏하게 판단하고, 野坂參三가 自己批判을 通하여 國際共產主義의 先鋒에 나설 것을 誓約하는 形式으로 Comin-form에 屈服하였다.

이 野坂參三의 屈服은 極東共產圈의 動向에 하나의 매듭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두가지의 사실이 크게 주목된다.

첫 째, 野坂의 自己批判에서 「日共에 重要한 使命이 부여되었다.」라고 實吐되었는데, 그 重要한 使命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던가?

둘째, U.S.S.R 및 中共의 日共攻駁이 時期的으로 Stalin과 毛澤東이 Moskva에서 南侵 戰略을 꾸미고 있는 무렵이었다는 點이다.

換言하여, 北傀가 南侵에 成功하면 그 餘勢로써 美國의 勢力을 日本에서 驅逐하려는 計略으로 그 中心役割을 日共에 指命하였던 것임을 推理하게 된다.

이로써 日共은 同년 1월 25일부터 非合法的인 地下鬭爭으로 전환하여 左派學生 및 勞動

者로 하여금 배모와 罷業을 展開토록 조종하였다.

그리고 同年 5월 18일에는 戰鬪的인 새로운 共產黨綱領을 발표함으로써 駐日美軍을 牽制하는 地下勢力을 形成하였다. 이와 함께 舊朝聯系의 움직임도 갑자기 눈에 띄우게 되었다. 北傀는 1950년 4월 10일부터 이들에게 指令과 鬪爭要綱을 빈번히 手交하였으며 南侵을 10일 앞둔 6월 15일에 舊朝聯系는 이른바 祖國防衛委員會라는 새 看板을 내걸었다.

Comin-form에 의한 日共의 改造는 結局 軍事的으로 直接的인 影響力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MacArthur 司令部의 日本占領政策을 險으로 妨害하는 國際共產勢力의 一班을 담당케 함으로써 그 駐口兵力의 韓國派兵을 牽制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3) 臺灣侵攻態勢의 支援強化

U.S.S.R은 中共의 臺灣侵攻態勢를 적극 支援強化하는 陽動的인 政略으로써 南侵을 앞둔 世界의 視線을 欺瞞하려 하였다.

其實, 1950년도에 있어서 中共의 最大課題는 이른바 臺灣解放이었으며 國際的인 關心도 또한 이 臺灣事態의 推移에 쏠리고 있었다.

당시 臺灣으로 撤收한 國府軍은 300台的 空軍新機種과 10餘隻의 軍艦으로 支援되는 步兵 6개 사단 100萬 규모의 兵力을 保有하고 있었으므로 近代의인 海·空軍을 保有치 못한 中共으로서는 U.S.S.R의 軍事支援이 없는 限 單獨으로는 侵攻치 못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同年 初에 中·蘇同盟이 締結되고, U.S.S.R의 援助가 增大됨에 따라 中共軍의 總司令官인 朱德이 『臺灣의 解放이 日睫에 놓여있다.』라고 豪言하는 등 樂觀的인 見解가 켜져왔다. U.S.S.R의 軍事支援은 특히 中國大陸의 東部 및 東南部の 海岸등 臺灣에 가까운 地方으로 집중되어 Radar 및 空軍基地가 눈에 띄우게 增設되었다. 또한 100萬ton 相當의 木造船을 臺灣의 對岸일대에 集積시키는 등 海上輸送計劃과 上陸演習이 실시되어 陳毅가 거느리는 제3野戰軍이 侵攻軍의 中樞가 될 것이라는 觀測이 자자한 가운데 New York Times는 『1950년 6월 5의 中旬까지 中共軍의 侵攻準備는 完了되었다.』라고 報道하였다.

이 記事는 中共軍 25萬의 兵力이 Junk 6,000隻, U.S.S.R製 YAK 21型 戰鬪機를 비롯한 300~400台的 空軍支援下에 集結된 것을 밝혔다.

中共의 人民政治協商會議(國會에 該當)는 北傀南侵의 2일前인 6월 23일에 『臺灣解放의 成就를 期待한다.』라는 要旨의 激動辭을 侵攻軍에게 打電하면서 北傀南侵을 事前に 欺瞞하는 U.S.S.R의 陽動政略을 꾸며낸 것이었다.

## 2. 戰略的 準備

### 가. 南侵決정의 內的與件

北傀의 金日成一味로 하여금 南侵을 恣行케 한 U.S.S.R의 意圖는 필경, 韓半島의 赤化로써 Asia 및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政略 및 戰略基地를 확보코자 하는데 있었지만 大戰後에 빚어진 時代相에 비추어 보면 韓半島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情勢變化가 곧 北傀南侵의 動機와 背景을 造成한 여러 素因이었음을 指摘하게 된다.

① 38°線으로 因한 南北分斷: 韓半島에 관한 戰後處理의 한 方案으로써 韓半島를 38°線으로 分斷하여 美·蘇 兩國의 進駐軍이 軍政을 施行하였는데 U.S.S.R은 對日參戰의 代價로 얻은 滿洲 및 北韓地域에 대한 軍事占領의 餘勢를 몰아 帝政 Russia 以來의 Asia 進出의 好機로 포착하였다.

② 北傀軍事力의 強化: U.S.S.R은 金日成一味를 走狗로 入北시켜 傀儡政權을 造作하는 한편, 軍事力을 急速히 強化시킴으로써 UN에 依하여 唯一한 合法政府로 탄생한 大韓民國을 진복시키는 直接的인 軍事對決을 꾀하였다.

③ 美國의 消極的인 對韓政策: 美國의 對韓政策이 消極的이고 新生 大韓民國이 軍事 및 經濟的으로 自衛力을 갖추지 못한 實情인데도 駐韓美軍이 철수함으로써 虎口앞에 好餌를 던져준 印象을 남기고 말았다.

④ 中共의 大陸席捲: 中共이 中國大陸을 席捲함에 따라 Asia의 共產圈이 確立해졌으며 그 東北軍(滿洲方面軍) 소속 韓國人系의 義勇軍 3개 사단을 增援받은 金日成一味 또한 南侵挑發에 鼓舞的인 野心을 품게 되었다.

⑤ 美國 極東防衛線의 後退: 北傀의 軍事力이 強化되고 그 南侵의 可能性이 急增됨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Acheson 宣稱으로써 韓國과 臺灣을 제외하는 極東防衛線을 太平洋으로 後退시킴으로써 U.S.S.R의 南侵戰略을 促進케 하는 결과를 自招하였다.

⑥ 美國의 反應에 대한 誤判: 韓國의 軍事力이 強化되기 前에 速戰即決로써 南韓을 席捲하면, 美國은 中國에서와 마찬가지로 袖手傍觀하게 될 것이라고 誤判하였다.

⑦ 南韓情勢에 대한 速斷: 1950년 6월 21일에 大韓民國이 公布한 農地改革法(有償沒收 및 有償分配)이 一般農民들에게 實利를 주지 못하리라고 臆測하였으며, 5.30 總選의 結果 「無所屬의 大舉進出」은 南韓國民의 反政府的인 表徵으로 速斷하였다.

⑧ 南韓軍事力의 脆弱性: 大韓民國의 國防力이 微弱할뿐만 아니라 軍內의 赤色叛亂과

南派遊擊隊 및 地方共匪를討伐키 위한 軍·警部隊의 分散使用으로써 38°線에 대한 有機的인 防禦能力이 未備하리라고 판단하였다.

⑨ 南韓 共產分子들의 呼應을 過信: 南韓에서 潛動하는 南勞黨 分子를 50만으로 概算하여 南侵時에는 이들이 即刻 暴動을 일으켜 南韓社會를 內部的으로 파괴함으로써 北傀의 正規軍에 呼應케 될것이라고 過信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素因을 다시 分析하면 外的與件과 相對的 및 內的與件의 세가지로 나누게 된다.

① 外的與件: U.S.S.R의 赤化野慾과 中共勢力의 擡頭로써 北傀의 背景을 이루었으며, 美國極東防衛線의 後退를 韓半島의 完全拋棄로 誤判함으로써 速戰即決의 南侵戰略을 굳혔을 것이다.

② 相對的 與件: U.S.S.R과 北傀의 利益이 元兇과 傀儡의 主從관계에서 一致됨으로써 北傀의 軍事力을 急進的으로 強化하여 그 絕對的인 優勢를 過信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南韓에서 遊動하는 南勞黨系列의 地下勢力으로써 大韓民國의 內部崩壞가 可能하다고 確信하였을 것이다.

③ 內的與件: 大韓民國 自體가 지닌 脆弱性으로서 北傀의 南侵挑發을 自招케 한 與件이 造成되었다.

즉, 後據없는 美軍의 撤收가 그 하나이며, 國軍威力的 劣勢와 軍內部的 赤色叛亂, 南派遊擊隊 및 共匪를 討伐키 위한 軍·警部隊의 分散, 配置 그리고 5.30總選에서의 與黨勢의 凋落과 社會의 混亂 및 經濟의 不振등이 그 內的與件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內的與件은 이른바 「南北韓의 先攻說」과도 관련시켜 大韓民國의 先攻說을 論駁하고 北傀政權의 先攻說이 正見임을 立證하는 論據도 되기때문에 糾明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된다.

### (1) 美軍政의 粗略

『戰爭이란 他手段에 의한 政治의 延長이며…政治의 基礎인 社會의 戰列化가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社會에는 敵對的인 感情과 相對的인 意圖가 造成되어야 한다. 그리고 戰爭을 수행하기 위한 人的 및 勤的인 資源이 준비되고, 有機的으로 組織되어야 한다(K.V. Clauswitz의 “Strategy of the World”)』라는 하나의 定論에 비추어, 당시의 大韓民國이 겪고 있던 社會相을 遡考컨대 여기에는 戰爭을 意圖할만 한 能力과 준비가 전혀 있을 수 없었다.

즉, 大韓民國은 全く 社會的인 混迷相을 벗어나지 못한채 北傀의 奇襲南侵을 當하였던 것이다. 그 主要한 原因은 美軍政當局의 消極的이고 無定見한 軍政施行의 蹉跌에 있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다.

美軍政은 한 마디로 『無計劃하게 시작되어 形便主義로 彌縫되다가 마침내는 北傀의 南

侵을 自招하고 말았다.』라고 短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美軍政施行은 우선 그 南韓進駐부터 受動的이었다.

즉, U.S.S.R이 1945년 8월 9일에 對日宣戰을 布告하고 短時日內에 北韓全域으로 進駐한 다음에 「朝鮮의 解放」을 布告한데에 反하여 美軍은 그 보다 1개 월이나 뒤늦은 9월 9일에야 일부 先發兵力으로 仁川에 上陸케 하였다.

美國이 韓半島에 대하여 全혀 關心을 두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Truman의 證言(The Memories of Harry S. Truman)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美行政府는 韓半島를 占領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였다.

사실, 同년 9월에서 10월에 進駐한 美軍政當局者들은 任務에 관한 訓練이나 韓國語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E. Grant Meade가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에서 『그들 대부분은 韓國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고, 韓國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盲目的으로 아무런 定見도 없이 暴論이 接하여 赴任한 軍要員들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腦裡에는 故山으로 凱旋하려는 단꿈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駐韓美 제24군단장인 Hodge 중장이 本國에 제출한 報告書는 그 自身の 無能 無策을 如實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상태와 상황으로서 美國의 韓國占領에 밝은 展望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도 극히 困難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로 미루어 極東에 있어서의 美國의 威信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에 어떤 矯正策이 加해 지지 않는다면 美國과 U.S.S.R이 동시에 韓半島에서 撤兵하고 韓國人自體의 처리에 맡긴 다음에 必然的으로 발생케 될지도 모르는 國內動亂을 警戒함으로써 스스로 淨化의 길을 발견케 할 수 있도록 U.S.S.R과의 協定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이처럼 한치(寸)의 앞조차도 내다보지 못하는 軍政責任者의 見解만 보더라도 進駐軍의 高位層이 南韓進駐를 단수한 軍事任務(日本軍의 降伏을 接수하기 위한 軍事占領)로만 해석하고 軍政施行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事前計劃도 없이 空手空拳으로 臨하였던 것임을 能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러한 渦中에서도 이해 9월 7일에 公布된 美極東軍司令部의 布告 제1호는 「解放이 곧 獨立」이라고만 믿고있던 韓國民들에게 限없이 失望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즉, 『…38°線以南의 行政權은 나의 管轄下에 들 것이며 이 地域의 全住民은 나의 署名으로 내려지는 모든 命令에 服從치 않으면 안된다…』라는 要旨의 MacArthur聲明은 北韓에 進駐한 U.S.S.R 제25군 사령관 Ivan Chistiakov의 入北 제1聲인 『朝鮮人民이여…朝鮮은 이제 自由國이 되었다…蘇聯軍은 朝鮮人民이 自由롭게 創作的인 努力에 着手할 수 있는 모든 條件을 줄 것이다…』라는 要旨에 비하면 너무나 差異진 對照를 이루는 것으로서 此

는 冷風으로, 彼는 暖風으로 사람의 胸襟을 열어보자는 것이지만 그 實은 此는 愚直하고 彼는 狡獪하다고 할 것이다.

勿論, Chistiakov 聲明은 Stalin의 戰略 및 戰術論에 따라 北韓을 Soviet化하기 위한 政治的目的을 僞裝하였지만, 北韓進駐後에 電擊적으로 咸南人民委員會(8.24)와 平南人民委員會(8.27) 및 平北人民委員會(8.31) 등 各道の 人民委員會를 Soviet方式으로 組織해 나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U.S.S.R의 北韓軍政이 그 始發부터 이미 뚜렷한 計劃下에 着手되었던 것만은 否認할 道理가 없다.

이처럼 蘇聯軍政이 이른바 『朝鮮人民의 손으로 朝鮮人民의 自由國을 自由롭게 創作케 한다』고 하여 共產主義者들을 鼓舞시켰는데 反하여, Hodge로 대표되는 美軍政當局은 『軍政初期의 行政秩序를 갖추기 위한다.』라는 名目으로 9월 12일까지 阿部信行(Abe Nobuyuki) 등 日本總督府의 官吏들을 留任케 하는 一大失策을 犯하는 등의 無能無策相을 들어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美軍政當局은 一切의 政治活動을 放任하여 共產主義者의 跋扈를 許容하는 愚策마저도 犯하였다.

본시, 舊朝鮮總督府는 韓國人의 政治活動을 禁止하는 政治犯處罰法(1919)과 豫備檢束法(1941) 그리고 治安維持法(1925)과 出版法(1910) 등의 惡法을 施行하고 있었는데, 美軍政當局은 法令 제11호(1945.10.9)로써 이 惡法을 모두 廢止한 것은 當然之事라 하였으나 共產黨의 活動을 規制하는 아무런 代案도 없이 다만 『種族과 國籍 및 信條 政治思想을 이유로 差別을 두는 一般法을 전부 廢止한다.』라는 廢法目的 때문에 共產黨의 활동을 合法的으로 保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

그 뚜렷한 實例로 共產黨에 대한 檢擧(1946.11.23)와 南勞黨의 출현(1946.10)을 들 수가 있다.

이른바 南勞黨의 출현은 共產黨에 대한 大대의인 檢擧가 단행된 뒤의 일이었다. 精版社의 僞幣事件과 鐵道勞組의 罷業(9.24) 및 大邱暴動事件(10.1) 등 一連의 反軍政事件을 단속하고자 共產黨員을 일제히 檢擧하면서도 共產黨 그 自體에 대한 不法化까지는 念頭에 두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共產黨의 不法化는 결국, 大韓民國이 수립된 뒤에 韓國政府에 의하여 戒嚴 단행(1948.12.1)에 國家保安法을 公布)되었으며, 南韓殘留의 地下幹部(金三龍과 李舟河 등)들이 소탕된 것은 南侵을 不過 3개월 앞둔 1950년 3월의 일이었다.

이처럼, 祖國光復—美軍政—大韓民國의 수립—北傀南侵에 이르기까지의 社會的인 混迷는 根本的으로 美軍政의 無計劃하고 無定見한 施策이 빚어낸 것이라 하여도 決코 過言은 아닐 것이다.

## (2) 南韓經濟의 後進性

祖國의 光復은 우리 社會經濟가 처음으로 日本의 經濟的인 羈絆에서 벗어나 自主로 統一된 國民經濟를 스스로의 意思대로 꾸려나갈 機會를 얻게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經濟面의 解放은 政治面의 解放과 같이 感激과 希望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日本의 勢力이 韓半島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그들이 占有하고 있던 絶對的인 經濟力 즉, 製造業部門의 94%에 달하는 資本額과 80%의 技術者가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韓國經濟는 한꺼번에 資本과 技術者를 잃은 셈이며, 雪上加霜으로 朝鮮總督府는 降伏直前에 故意的으로 貨幣를 濫發하였으므로 이 상처를 달고 回復하기에는 수많은 難關이 예상되었다.

朝鮮總督府는 1945년 8월 15일에서 9월 8일까지의 1개 월도 채 안되는 期間에 最後發惡으로 무려 37億圓을 찍어 내었다. 이 때 8월 15일 현재의 通貨量이 4,975,000,000圓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新規發行高가 얼마나 巨額이었던 가를 알 수 있으며 1947년 末까지의 29개월 동안에 通貨增發이 6.6배인 334億圓으로 늘어 남으로써, 韓國經濟는 抑制不可能한 inflation의 渦中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38°線에 의한 國土分斷은 北韓의 工業과 南韓의 農業을 分離시켜 經濟的인 不具狀態를 빚게 하였으며 그 打擊은 南韓쪽에 더욱 심각하였다.

1945년 현재 電力의 92%·石炭의 71%·金屬工業의 83%가 北韓에서 生産되고, 鐵業資源의 70%以上이 北韓에 偏在하여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産業生産의 唯一한 動力源인 發電量이 南北을 합하여 988,700KW중 南韓은 8%에 不過한 79,500KW 뿐이었던 것은 極히 深刻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北傀의 金日成徒黨은 이 致命傷에 七집라드 찌르듯이 1948년 5월 14일의 正午를 期하여 對南送電을 완전히 斷絶하고 말았다.

이 斷電의 口實인즉 『電力供給에 관한 北半部와의 契約을 履行하지 않았으며…南韓側이 北朝鮮으로 부터의 電力供給을 拒否하였다.』라는 더무니 없는 怪辯을 서슴치 않았으나 그 꾀에 있어서 美軍政當局은 1947년 5월 25일에 蘇聯軍政當局이 요구한 電力代金 5,000,000\$를 비롯하여 約定된 契約을 違背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다.

美軍政當局은 送電再開를 요구(1948. 5. 22) 하였으나 蘇聯軍政當局에 依하여 보기 좋게 拒否당하고 말았다.

이 送電中斷으로 韓國經濟가 입어야만 하였던 打擊은 너무나 甚大하였으니 蘇聯軍政當局과 金日成徒黨들은 이 斷電으로써 南韓經濟를 極度로 弱화시켜 그 防衛能力까지도 마비시키려는 하나의 豫備戰爭의 手段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産業生産의 動力源을 잃은 大韓民國이 直面하지 않을 수 없는 또하나의 문제는 社會的인 移動에 따르는 人

口의 激增이었다.

軍國主義 日本의 勞務 및 兵力動員으로 끌려갔던 人口가 祖國光復과 더불어 外地에서 歸國하였으며 그위에 160萬에서 180萬名의 北韓住民들이 共產壓制를 피하여 越南하였다.

특히 수많은 北韓住民들이 自由를 찾아 越南해 온 사실은 政治的으로 뜻이 깊지만 經濟的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外地에서 歸國한 人口 (2,000,000名 内外)와 합하여 4,000萬명에 가까운 이 人口의 激增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南韓의 生産水準이 年間 1.5~2%의 上昇率을 보여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動力源의 不足과 化學肥料의 飢饉으로 下向線을 나타낼 따름이었다.

그리고 經濟不況속에서 저절로 都市集中의 추세를 보임으로써 각종 犯罪과 社會混亂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大韓民國은 이 커다란 부담을 견머지고 出航하였던 것이며, 北傀南侵까지의 20개 월 동안에 아무런 經濟的인 進展을 보이지 못하였으니, 戰爭準備보다도 國民을 먹여 살리는 根本的인 生存問題가 急先務이기도 하였다.

結果的으로 1950년 3월 4일에야 가까스로 經濟安定의 15개 原則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이것 조차도 施行하여 보지 못한채 北傀의 南侵을 뺄하고 말았던 것이다.

### (3) 南韓政治思想의 混濁性

韓民族의 大多數는 政治思想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채 祖國光復과 더불어 갑자기 思想的인 冷戰對立의 最戰線으로 밀려난 셈이었다.

軍國主義 日本의 植民地支配로부터 벗어난 韓民族의 念願은 오직 即時獨立뿐이었다.

祖國光復의 直後에 수많은 政黨과 團體가 雨後의 竹筍格으로 亂立한 社會相을 뒤집어 보면 韓民族의 即時獨立에 대한 念願이 그만큼 열렬하였던 것이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獨立을 바라는 熱望에 比하여 獨立國家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民族的으로 어떤 進路를 擇하여야 할것인지 政治的인 준비가 너무나 貧弱하였다. 大衆은 물론이며 民族主義的인 指導層도 漠然한 政治觀을 지녔을 뿐이었으며 특히, 共產主義를 制御하며 大衆을 이끌어 갈만한 自由民主主義에 관한 基本知識이나 思想武裝이 確固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은 理論的으로나 組織的으로나 이들 右翼陣容을 앞서 나가고 있었다. 日本이 降伏한 하룻만에 벌써 朝鮮共產黨의 看板을 내걸고 이른바 朝鮮人民共和國의 前身인 朝鮮建國準備委員會(建準)를 結成한 사실이 그들의 鬪爭性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民族陣營은 守勢에 몰린 立場에서 共產主義와 對立하는 自由民主主義의 長點을 大衆에 啓蒙하고 積極的이며 肯定的인 概念을 定立하는 過程을 밟아야 하는 陣痛을 견지 않을 수가 없었다.



美軍政當局은 이러한 優劣에 대한 아무런 定見이나 對策도 없이, 玉石을 混着하는 政治活動의 放任으로 南韓의 政局을 混迷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 當局者들은 左傾中間派인 建準과 共產系인 人民共和國, 그리고 民族系列인 臨時政府에 대하여 同列同順으로 그 權威를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政治活動만은 아무런 規制없이 그대로 放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左右派間에 또는 指導者間에 抑制할 수 없는 無秩序와 混亂이 빚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祖國光復기후의 흥분속에서 政體의 如何를 막론하고 모든 戰勝聯合國을 하나같이 解放者로서 환영하기도 하였으므로 共產主義의 總本山인 U.S.S.R조차도 두차례의 美·蘇共委에서 그 野慾의 正體가 露呈될때까지 美·英·中과 同一하게 待遇되었던 것이다.

南勞黨으로 代表되는 南韓의 共產系列은 民族陣營의 民主主義的인 體系가 混迷를 거듭하는 동안에 「참다운 民主主義」를 自稱하면서 激烈한 宣傳攻勢로써 一般大衆을 煽動하고 懣惑하였다.

이와같이 그들의 空理空論이 白晝堂堂하게 橫行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素因은 당시 指導層의 知識人들이 自由民主主義의 眞意를 能히 指導하고 啓蒙할만한 見識의 넓이와 깊이를 갖추지 못한 탓도 있었다.

따라서 民主政體를 設計하는 具體的이며 制度的인 洞察力의 缺乏으로써 政局의 앞날에 대한 뚜렷한 主觀으로 나아가야 할 軌道를 敷設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民族陣營은 Moskva 3相會議에 뒤따른 美·蘇共委를 契機로 하여 民主陣營으로서의 本領을 찾아 共產黨의 「民戰路線」을 反民主的이라고 攻駁하면서 共產主義가 自稱하는 民主主義가 假裝된 것임을 大衆들에게 啓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하건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共產主義를 反民主 또는 獨裁主義로 規定하는 단계까지는 未達하였고, 共產黨에 빼앗겼던 民主主義의 이름을 되찾을 뿐이었으며, 그 뒤에 시간이 지날 수록 共產黨이 民戰의 이름으로 贊託支持를 계속하게 되자 그 者들의 非民主性을 詰難하는 소리가 表面化하기에 이르렀다.

그 두드러진 하나의 例로써 東亞日報의 社說(1946. 2. 24日)인 「思想界의 反省」이라는 題下의 한 句節을 引用해 본다.

『...가장 非民主主義的으로 樹立된 한 模倣國이 民主主義라고 宣傳되고 民族을 侮辱하는 信託統治支持가 國際民主主義路線을 支持하는 것이라고 宣傳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民族과 傳統을 사랑하는 것이 파시스트가 되고 民族的傳統을 無視하여 階級鬭爭을 論議하는 것만이 民主主義가 된다고 하니 뭐라고 더 慨嘆할 것인가...』

이 무렵부터 民主主義政府의 樹立이 論議되기 시작하고 民主政府의 具體的인 與件이 考慮되면서 憲政機構의 문제가 民族陣營의 政黨間에 提案되었는데 1946년 12월에 南朝鮮過

渡立法議院이 發足한 사실은 民主主義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었다. 美軍政當局이 立法議院을 設置한 제 1 목적이 韓國人에게 自治訓練의 機會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도 그 運營過程에 있어서 民主制度에 관한 認識을 다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立法議院은 左·右·中間의 三個派가 混合된 機構이었다. 그러므로 그 討議內容의 하나의 例로써 共產主義에 對抗하는 自由民主主義思想의 成長尺度를 測수가 있다.

즉, 立法議院의 速記錄(1947. 1. 14字)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記錄되어 있다. 左派議員들이 『…이 反民主主義勢力을 退治할 수 있는 者는 그 누구인가? 그것은 日帝時代에 가장 용감하게 鬪爭하였고 오늘날에도 용감하게 反民主主義勢力과 間斷없이 싸우고 있는 監獄에 投獄당한 鬪士들이 아니면 안된다. 이 鬪士들이 民主主義勢力의 領導權을 장악하지 않는 限, 親日派, 民族叛逆者, 謀利輩등 反民主主義勢力이 다시 擡頭하게 될 것이다…』라고 發言하자 他議員들이 일제히 怒聲을 지르면서 이를 糾彈하였다.

1년前만 하더라도 이와같은 發言은 아무 저항도 받지않고 公公然하게 橫行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共產主義者들이 自稱하는 民主主義와 民主陣營이 主張하는 民主主義가 異質의이라는 사실을 自覺하기 시작한 것이니, 그만큼 民主主義의 概念이 分明해진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立法議院에서 共產主義者들이 이와 같은 發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共產主義思想의 宣傳이 可能한 社會라는 點을 指摘하게 되는바, 民主制度에 대한 認識이 未熟한 가운데서 1948년 8월 15일에 大韓民國이 誕生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에 大韓民國은 政治思想面에 있어서도 北傀의 一味徒黨들이 노리는 南侵決定의 한 素因을 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奇襲的인 南侵으로 말미암아 共產主義의 正體를 목숨과 피로써 體驗한 다음에야 비로소 철저한 反共思想으로 武裝하게 된 것이었다.

## 나. 南侵戰略의 決定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大韓民國은 1945년 8월 15일~1950년 6월에 政治와 軍事, 그리고 社會 및 經濟등의 모든 面에 걸쳐 많은 脆弱點을 不甞하였으니 U.S.S.R의 傀儡인 金日成一味는 好餌를 노리는 豺狼으로서 餘裕있게 그 毒牙를 갈고 있었던 것이다. 既述한 바이지만 北傀政權이 本格的으로 南侵戰略을 確定한 것은 1948년 9월 9일에 그 가짜 政體를 造作한 以後부터이며, 그 以前에 있어서는 南侵基地의 造成등 軍事 및 經濟力의 伸張과 南韓에 대한 戰爭與件을 形成하는 準備段階로 消費하였던 것이다.

金日成一味の 이른바 「南韓攻略에 관한 3개 案」이라는 南侵戰略이 公然의 秘密로 擧論

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의 後半期부터였다. 그 첫째가 魁首인 金日成의 案이며 朴憲永和 金枋奉으로 대표되는 2개案이 뒤따랐다.

① 金日成의 案: 革命情勢를 高度로 높여 客觀的인 情勢가 韓半島의 共產革命에 有利하게 展開되는 時機를 포착 함으로써 打擊의 機會를 造成하고 軍事的인 方法으로 南韓地域을 一舉에 占領한다. 이 勝利를 얻은 뒤에 政治的인 方法으로써 北韓과 同一한 人民委員會의 政權形式을 南韓에 定立한다.

② 朴憲永의 案: 38°線에 沿한 紛爭地域을 占領하는 한편으로 南韓當局과의 政治的인 恫정의 餘地를 남기면서 南韓地域에서의 自然發生的인 人民烽起를 불지른다. 이렇게만 되면 外國의 干涉을 받지 않는 가운데 赤化統一할 수가 있다.

③ 金枋奉의 案: 金案 및 朴案과는 달리 武力行使에는 반대하였다. 즉, 平和的인 方策으로써 南韓社會의 反日革命遺族(子弟)에게 獎學金의 名目으로 資金을 供與하여 이들을 士官學校에 主로 進學케 한 다음에 제1線의 小隊長으로 傭부시킴으로써 南韓軍隊의 內部에 革命을 일으키게 하면 民族끼리 싸우지 않고서도 共產革命을 成功케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3개 案에 관한 文書的인 記錄이 있는 것은 아니로되, 당시 金日成一昧의 上位層에서 公然한 秘密로 떠든 사실이였다.

北僞의 南侵은 결국 罪目 金日成의 案으로 全面正規戰으로 恣行되고 結果的으로는 敗北을 自招하였을 뿐이었다.

金日成은 休戰直後에 朴憲永을 숙청하였는데 그를 有罪로 合理化한 眞因은 그 罪目羅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朴憲永案대로 南韓을 攻擊하였다면 成功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世論이 높아지기 前에 『朴憲永一昧의 反黨間諜行爲로 因하여 敗戰하였다.』라는 恫喝的인 분위기를 꾸며내기 위하여 殺戮의 손을 휘둘렀던 것이였다.

여하튼간에 이 南韓攻略의 3개 案은 結果的으로 金日成의 專權獨裁를 굳히는 鬭爭의 對象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 者의 가장 強敵이던 朴憲永和 金枋奉으로 하여금 自己案이 非革命的이며 機會主義的인 案이라고 自認, 撤回케 하는 形式을 強要함으로써 그 自身의 絶對性을 浮刻시켰던 것이기 때문이다.

金日成의 南韓攻略案이 U.S.S.R의 Asia 및 極東地域에 대한 戰略의 先鋒을 맡은 것임은 贅言을 요치 않는 것이며 僞僞의 頭口으로 나타날 때에 이미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任務받은 것이요 보면 이 一昧徒黨의 戰爭準備는 入北과 同時에 벌써부터 着手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마땅하다.

그러므로 全面南侵까지의 準備期間에 있어서 이른바 革命情勢를 高度로 높이기 위하여 그들이 取한 對南工作의 狂奔相은 ① 38°線上의 挑發 ② 軍內騷擾의 煽動 ③ 國內治安의 攪亂 ④ 僞裝된 平和攻勢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을 것이다.

### 다. 38°線上的의 挑發

1945년 8월 9일, 對日宣戰을 布告함과 동시에 北韓으로 侵入한 蘇聯軍의 先遣隊은 38°線을 향하여 一路 直行하였으니 우선 여기를 손에 넣고 閉鎖하기 위해서였다. 京義線 및 京元線의 鐵道幹線과 土海線(土城—海州) 및 沙里院線(沙里院—海州)의 地方線은 물론, 모든 道路와 河川까지도 遮斷하여버린 그들의 野獸群은 北韓同胞와 歸國同胞들의 越南 移住를 沮害하는 것부터 손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送電中斷(1948. 5. 14)을 비롯한 經濟斷絶의 높은 障壁을 쳐놓아 이 日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限界線을 政治的인 國境線으로 굳히고 말았다.

여기에는 北韓을 완전히 密閉함으로써 南侵基地로 強化키 위한 遠謀가 숨어 있었으므로 이 線을 곧 對南戰略의 前進基線化한 것이다.

北傀는 1947년 7월부터 이른바 人民軍外에 38警備隊를 편성하여, U.S.S.R軍과 交替하였으며, 1949년 2월 이후에는 警備隊를 旅團으로 昇格시켜, 제1旅團(江原道 杆城)과 제7旅團(黃海道 市邊里) 및 제3旅團(黃海道 竹川)으로써 38°線의 軍事力을 強化하였다.

한편, 駐韓 美제24군단은 제7사단의 일부로써 江陵—春川—議政府—開城—遼津의 各地區에 外廓哨所를 설치하고, 軍政警察의 創設(1945. 10. 21)과 더불어 38°線에 沿하는 行政區域別로 支署를 두었으나, 治安行政을 담당케 하였을 뿐으로서, 北쪽 U.S.S.R軍의 38°線 配臆를 의식하는, 특별한 裝備나 人員의 增加는 전혀 考慮의 對象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大韓民國의 政府가 수립된 뒤에 駐韓兵力을 철수함에 따라, 38°線의 警備를 韓國陸軍에 인계(1949. 1)하면서도, 幹線國道의 要所에 警備哨所를 세웠을 뿐으로서 戰術上의 防禦陣地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그 施設도 quonset建物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U.S.S.R軍 支援下의 北傀 38°線警備隊는 38°線上的의 戰術的 要地를 占領하여 頑強한 陣地를 構築하고, 國境線아닌 國境警備態勢를 취하였으니, 이는 政略 및 戰略的인 면에서 南侵時까지 南北韓의 統一政府를 沮害하여 北韓을 基地化한 다음에 南韓攻略을 꾀하려는 底意를 如實히 들어낸 것이었다.

國軍은 1949년 1월에 38°線의 警備任務를 引受하였으나, 全般의으로 不利한 地形條件과 警備概念의 심한 隔差로 因하여, 前哨陣地의 編成마저도 北傀側의 妨害行動(主로 射擊) 때문에 不振한 실정이었다.

相互間的 對峙距離는 평균100~300m이며, 非難과 辯說로 始終되는 心理戰에 이어 射擊戰으로 맞서는 紛糾의 日課가 되풀이 되었다.

이 紛糾의 主導權은 有利한 廠制地形에 戰術的인 陣地를 構築한 北傀側이 쥐고 있었으며, 뒤늦게 陣地工事에 着手한 國軍의 警備兵力은 受動的인 劣勢 속에서 挑戰을 물리쳐야

만 하였다.

北傀의 이 挑戰은 첫째로 革命的인 武裝力이라 일컫는, 이른바 人民軍의 實戰經驗을 쌓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國軍의 38°線 警備狀況과 戰鬥力을 打診키 위한 前哨戰이며 探索戰이었다.

바꾸어 말하여, 金日成一味는 38°線을 實戰訓練場으로 삼아서, 南侵直前까지의 侵犯 및 不法射擊의 回數는 無慮 847회에 達하였던 것이니, 1945년 이후 5년간으로 치면 사흘에 1회꼴이며, 1948년 9월(北傀政權의 造作) 이후로 치면, 매일 1회꼴이 넘는 頻度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런데, 奸計의 能手인 金日成一味는 賊反荷杖格으로 이 紛糾의 挑發責任을 항상 國軍 警備隊에 轉嫁하여, 그들대로 捏造한 이른바 祖國解放戰史에 記錄하기를 『……國防軍은 1949년 1월부터 12월까지 黃海道 碧城地域에서 江原道 襄陽地域까지의 38°線全域에 1,836회의 不法侵入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1년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5회나 되는 侵犯을 일삼았다는 계산이고 보면, 이 얼마나 荒誕無稽하고 非常識的인 虛言이며, 그들 白身의 不法侵犯을 糊塗하기에 얼마나 汲汲하였던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이다.

물론, 國軍警備隊가 38°線을 犯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는 主張할 수가 없다. 北傀의 侵犯을 擊退하거나, 侵犯의 機微를 先制하기 위하여, 地域적으로 作戰한 例가 없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不得已한 作戰을 誘發한 原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重要な 問題點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38°線 侵犯이 分明히, 國軍의 戰術과 戰鬥力을 測定하는 한편, 住民을 虐殺 또는 拉致함으로써 心理的인 효과를 거두려는 探索戰일진데, 이러한 盜賊배의 來襲을 어찌 扼腕坐視만 하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相對的인 濟慈과 報復은 있어 마땅한 일이었다.

이러한 38°線上의 挑戰扣을 하나하나 枚擧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두드러진 實績만을 간추리면 그 概要는 다음과 같다.

### (1) 春川地區

新南侵犯(1949. 8. 6~20)

麟蹄에서 南下하여 冠堡嶺(38°線 北쪽 1km)에 集結한 北傀 제1旅團(장, 吳白龍)의 1개 대대가 1949년 8월 6일 02.00에 82mm 迫擊砲의 集中掩護를 받으면서 新南(38°線 南쪽 1km) 北쪽의 △248 및 △682를 攻擊하였다.

38°線의 바로 北쪽에서 彎曲西流하는 昭陽江을 넘어, 春川駐屯 제7연대(장, 高時福 중령)의 1개 소대와 警戒兵力만이 배치된 틈을 타서 △682 및 △248을 손쉽게 掠占한 敵은 新南에 制壓射擊을 加하였다.

이에 대하여 急遽 출동한, 洪川駐屯의 제1대대(장, 金龍培 대위)가 다음날인 8월 7일에

△682와 △704(수리峰, 新南 東쪽 2km)를 무난히 奪還하였다. 그러나 △704의 東北쪽 連峰인 △600는 攻擊正面의 急傾斜와 敵의 火力으로 因하여 逆襲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20일이 되어서야 原州駐屯 隊 8연대(장, 李春景 中령)의 第11중대(장, 張錫錄 中위)가 同高地를 恢復하였다.

이 10餘日에 걸친 戰鬥에서 彼我間에 많은 兵力을 損失하였는데, △600의 反擊에 成功하여 殘敵을 掃討한 戰果만도 生捕 15명과 射殺 30명이나 되었던 例로써 그 兵力損失의 정도를 窺知할 수가 있다.

北傀의 38警備 隊 1旅團이 이처럼 不測한 兵力損失을 무릅쓰면서 侵犯한 목적은 다음에 列擧하는 開城 및 襄津地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春川地區의 第6사단(장, 劉載興 대령) 예하 第7연대의 戰力을 試探하는 동시에 昭陽江에 沿한 38°線上의 有利한 瞰制高地를 掠取確保하려는 데 있었다.

## (2) 開城地區

제 1 次 松嶽山侵犯(1949. 5. 3~4)

제 2 次 " ( " 7. 2~5)

白川侵犯 ( " 5. 17~19)

開城地區에 대한 北傀의 侵犯은 松嶽山과 白川으로 集中되었다.

松嶽山(△488)은 開城市街地를 擁護하는 要衝이며, 白川은 禮成江下流의 西쪽 流域에 펼쳐진 延白平野의 關門이기 때문이다.

1948년 11월, 第11연대(장, 崔慶祿 中령)가 水原에서 汝山으로 移動하여, 美 第7사단의 第32연대로부터 38°線警備區域(高浪浦—靑丹)을 引受하였을 때, 開城地區에 있어서는 不利한 상황을 甌치 못하고 있었다.

즉, 종전에 38°線警備를 담당하였던 美軍部隊가 開城防禦의 命脈인 松嶽山을 無防備狀態로 放置해두었기 때문이니, 당시의 美軍部隊들의 怠慢하고 姑息의인 마음가짐이 대개 이와 같았던 것이다.

△488—△475—△292의 連峰으로 이루어진 松嶽山은 38°線으로 兩分되어 最高峰인 △488를 그 北쪽에 넘겨 줌으로써 南쪽의 △475—△292가 瞰制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典型的인 橫隔室陣地를 이미 構築해 놓은 北傀 第1사단에하 第3연대의 壓力을 받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리하여 第11연대가 △292(38°線 南쪽 100m)와 주변 UN高地 및 비둘기高地에 防禦陣地를 構築하게 되자, 不法射擊으로 工事進行을 방해하던 北傀 第3연대의 增強된 1개 대대가 1949년 5월 3일에 拂曉奇襲으로 이 3개 高地를 掠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는 3개 중대로써 反擊을 敢行하여, 비둘기高地의 肉彈十勇士를 비롯한 여러 決死組의 肉迫攻擊으로써 5월 8일에 3개 高地를 奪還하였다.

그런데 同戰鬪는 38°線에서 最初로 벌어진 戰鬪이자 彼我의 戰力을 實戰으로써 試探한 結果가 되었으며, 國軍으로서는 갖가지 勇戰相으로 麗·順叛亂事件 이래의 國民의 不信感을 拂拭하는 機會가 되기도 하였다.

松嶽山에 대한 제1차 侵犯에 뒤이어 5월 17일에 1개 대대 규모로써 白川 北쪽의 38°線을 侵犯하여, 白川邑을 占領하고, 放火와 掠奪등의 蠻行을 부렸다.

이때, 禮成江 西쪽의 延白平野에는 연대 이하의 제5중대(장, 裒德鎭 중위)가 延安에, 제7중대(장, 李兢夏 대위)가 白川에 각각 駐屯하고 있었는데, 그 防禦正面이 55km나 되는 廣域이었으므로 兵力配置의 稀薄을 免치 못하였다.

그러나 兩중대는 迅速한 出動으로 白川方面에 兵力을 集中하여, 19일에 敵을 驅逐하였을 뿐만 아니라, 逆攻의 餘勢를 몰아 38°線 北쪽 200m의 軍糧洞까지 追擊하기도 하였다.

白川侵犯은 38°線에 沿한 國軍의 脆弱性을 探知키 위한 그들의 常套手法인바, 開城地區의 焦點은 역시 松嶽山의 對峙狀況에 집중되고 있었다.

제1차 侵犯이후에 彼我는 同高地의 38°線을 境界로 相距 200m의 近距離를 두고 맞서 있었는데, 北傀는 여전히 △488의 最高峰에서 제11연대의 △475를 비롯하여 開城市內까지 瞰制하면서 隨時로 不法射擊을 加함으로써 人命被害는 加重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488를 制壓치 않고서는 開城市內의 安全마저도 계속 威脅받는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제1사단(장, 金錫源 준장)은 연대로 하여금 同高地를 確保케 하였다.

攻撃部隊인 연대의 제1대대는 7월 25일의 未明에 突擊으로써 同高地를 일단 占領하였으나, 27일에는 敵의 逆襲으로 撤收하여, 다시 攻擊하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8월 3일까지 반복되어, 연대는 △488 下端의 燈台高地와 △292 및 비둘기高地를 確保한채 北傀의 全面 南侵에까지 同地區의 防禦를 持續하였던 것이다.

地形的으로나 裝備面에서 不利함에도 不拘하고 松嶽山을 固守한 연대 將兵들의 精神戰力은 北傀의 38警備部隊을 凌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 (3) 慶津地區

제 1 차 侵犯(1949. 5. 21~6. 29)

제 2 차 侵犯( // 8. 4~8. 8)

제 3 차 侵犯( // 10. 14~11. 15)

이 地區에 대한 北傀의 侵犯은 西海에 突出한 半島이자, 海州灣을 擁圍하고 있는 特殊性에 비추어, 38警備 제3旅團의 基幹을 總動員한, 正規戰의 樣相으로 恣行되었으며, 단순한 探索戰을 넘어 分明히 戰術的인 利點을 占하기 위한 作戰이었다.

즉, 同地區의 38°線은 鵝山(△356)—銀波山(△283)—國師峰(△277)—斗落山(△247)을 連하는 45km의 對峙線을 긋고 있었는데, 全般的으로 이 對峙線의 地勢는 國軍에 有利하

었다.

왜냐하면, 중앙에 솟아있는 國師峰이 비록 38°線 以北에 主峰을 두고 있다 하여도, 그 南쪽 稜線上의 連峰(一名, 忠武高地)이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東쪽에 있어서는 鶴山(一名, 까치山)이 38°線 北쪽의 銀波山과 그 너머의 翠野平野—海州平野까지도 瞰制하고 있으며, 西쪽에 있어서는 斗落山이 苔灘(38°線 北쪽 10km) 일대의 平野를 瞰制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北傀의 侵犯은 3차에 걸쳐 國師峰을 중심으로 鶴山 및 斗落山에 集中되었다.

이에 대하여, 國軍은 襄津地區戰鬥司令部를 1949년 6월 5일에 설치하고, 제1차 侵犯을 擊退하였으며, 제2연대의 基幹과 제18연대의 一部로써 제2차 侵犯을 破摧하였다.

北傀의 魁首인 金日成은 제2차 侵犯에 앞서, 제3旅團長인 崔賢을 특히 同地區에 파견하여 侵攻준비를 서둘러 할만큼 心중을 期하였다.

왜냐하면, 蘇聯軍 顧問官까지 동원하여 用意周到하게 계획하였던 제1차 侵犯이 國軍의 단호한 反擊으로 莫大한 兵力損失만을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軍의 遊擊隊가 反擊의 餘勢를 몰아 苔灘까지 奇襲하게 됨으로써 크게 唐慌하였던 때문이다.

金日成의 侵犯底意는 너무나 明白하였다. 즉, 全面南侵에 앞서 地形의으로 脆弱性이 가장 많은 襄津半島를 占領함으로써 北傀의 軍事力을 誇示하는 동시에 政略的인 主導權을 장악하여 政治協商의 米끼로 삼으려는 것이 그 첫째이고, 大韓民國이 協商을 拒否하고 軍事的인 反擊을 加한다면 同地區에서 韓國軍의 戰力을 消耗시키는 局地戰을 展開하려는 것이 그 둘째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延安半島와 開城地區(禮成江 및 臨津江을 東西에 貫 半島形 地域)를 席捲하여, 大韓民國의 首都圈에 쇄기를 박으려는 것이 셋째의 底意인 것이었다.

실상, 襄津半島에 대한 彼我的 軍事的인 長短點은 너무나 對照的이었다.

北傀는 陸路로써 兵力 및 裝備의 增援이 容易迅速할 수 있는데에 比하여, 國軍은 海上 輸送에 依支할 수밖에 없는 離島的인 位置에서 그 北半部가 敵의 占據下에 있었으므로 國師峰 南쪽의 中央部位를 突破當하면, 同半島의 確保는 危殆로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陸軍本部의 襄津半島에 대한 防禦計劃도 이 軍事上의 不利點을 考慮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3개 方案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局部戰일 경우에는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加하면서 現戰線을 固守할 것,

둘째, 敵의 攻勢가 局部的으로 熾盛할 경우에는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하면서 增援部隊의 到着時까지 遲延戰으로 現戰線을 維持할 것,

셋째, 敵의 攻勢가 同地區의 全面에 걸쳐 加해질 경우에는 敵에게 最大限의 打撃을 加하면서 同地區로부터 撤收하여 他方面으로 轉用토록 한다.』

그러나, 現地部隊인 襄津地區戰鬥司令部 隷下 各部隊의 將校들은 『17만의 襄津住民들



을 赤侵으로부터 救하기 위하여서는 全將兵이 全滅하는 限이 있어도 끝까지 固守해야 한다.』라는 強硬한 決意로써 撤收作戰을 念頭に 두지도 않았다.

北傀의 제2차 侵犯은 國師峰—忠武高地의 中央突破로써 遼津군의 掠占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6월 27일에 同地區를 引受한 제18연대의 2개 대대와 8월 5일과 9월 5일에 急派된 제2연대의 主力은 果敢한 反擊으로써 忠武高地를 確保하여 寸步도 讓步치 않았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侵犯이 莫甚한 兵力損失로 挫折되자 金口成은 본보기로 제3旅團長인 崔賢을 譴責하는 한편, 兵力 및 裝備의 補強을 서둘러 銀波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侵犯을 恣行하였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侵犯은 前者의 경우에 비하면 特異한 상황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銀波山(△283)은 38°線에서 700m 北쪽에 位置하며, 6월 29일에 제18연대가 占領한 뒤에 9월 5일부터 제2연대가 確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同高地의 位置로 보아서는 國軍이 越北하여 北傀의 陣地를 侵犯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北傀가 제1차 侵犯을 鵠山(△356)에 集中하였을 때, 이를 反擊하는 餘勢를 몰아, 앞으로의 南侵을 豫防하는 作戰上의 理由로써 同高地를 占領確保하였던 것이다.

鵠山(一名, 가치峰)은 同半島의 東部に 位置하여 海州灣과 翠野 및 海州平野를 瞰制하며 1km 北쪽의 38°線을 境界로 하여 敵陣인 銀波山과 맞서 있는 戰術的인 要關인 것이었다.

따라서 北傀로서는 銀波山을 奪取하고 나아가서는 鵠山까지도 다시 掠占하려는 底意로 1949년 10월 14일의 05.00에 제3旅團의 2개 대대와 砲兵 1개 대대로써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3차 侵犯에서 北傀의 攻擊部隊가 優勢한 火力을 갖추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步兵의 大部分이 多發銃(72發 裝彈, 蘇製 7.62mm 機關短銃)을 휴대하고, 82mm 迫擊砲(最大射距離 3,034m) 및 120mm 迫擊砲(最大射距離 5,997m)로써 國軍의 81mm 迫擊砲(最大射距離 3,007m)를 壓倒하였다.

더구나 제2연대의 防禦部隊는 美顧問官側의 非協調로 105mm 野砲의 支援을 받지 못한 가운데, 勢不利하여 10월 15일의 11.00에 銀波山에서 撤收하고, 수차에 걸친 逆襲도 成功치 못한 결과, 同年 11월 15일에 제17연대와 交代할 때까지 銀波山을 再確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美顧問官側이 105mm 野砲의 支援을 拒否한 것은 政治的인 理由 때문이었다.

38°線의 北쪽에 位置한 高地를 確保함으로써 惹起되는 武力衝突을 回避한 것인데, 38°線의 全域에 걸쳐 作戰上의 要地要部로 指目되던서도 이 政治的인 理由만으로 北傀에게 有利한 據點을 放任한 例는 非但 銀波山뿐만이 아니었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遼津地區에 대한 北傀의 3차에 걸친 侵犯은 결국 彼我間에 38°線상의 高地를 종전대로 確保한 것으로 일단 小康을 이루었으나, 北傀는 全面南侵에까지 散發的인 射擊戰과 宣傳 및 心理戰을 거듭하면서 그 露牙를 잘고 있었던 것이다.

### 라. 軍內 騷擾의 煽動工作

北傀는 南侵戰略의 一環으로서 國軍內部的 崩壞를 목적으로 하는 名種 騷擾事件을 散勃하게 煽動工作하였다.

즉, 國軍의 建軍過程을 妨害하고, 統帥系統을 紊亂케 함은 勿論, 軍과 民의 離間을 꾀하는 不信感을 造成키 위하여 左翼分子들을 軍內부에 浸透시켰던 것이다.

그 두드러진 事件으로서는 제1연대 제1대대의 示威事件(1946. 5. 23), 제2연대장의 不穩事件(1947. 2~9), 제3연대의 連隊長排斥事件(1946. 10), 제8연대 제3대대의 下剋上事件(1947. 4. 5), 제8연대의 2개 대대 越北事件(1949. 5. 4~5) 등을 들게 된다.

여러 事件의 年代가 가리키듯이 그 대부분이 建軍의 濫觴期에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큰 原因이 潛在해 있었다.

첫째, 濫觴期의 募兵過程에 있어서 人員確保를 서두른 나머지, 思想背景과 身上成分 등의 身元把握이 소홀하였던 탓으로 南勞黨 및 左翼系列의 不純分子가 玉石混同으로 入隊하였으며,

둘째, 軍의 紀綱이 定立되지 않아 上級者의 命令權이 尊嚴性을 갖추지 못한 混迷한 部隊氣風에 便乘하여, 左翼細胞分子들의 陰謀와 作黨行悖의 餘地를 남겼던 것이다.

#### (1) 제1연대의 示威事件

제1연대에 潛入한 李丙賢(副尉) 및 李尙振(准尉)등 左翼細胞賈이 朴根鎭·金智會·魏在高等의 熱誠分子들을 抱攝衝動하여, 1946년 5월 23일에 제1대대의 補給不正을 이유삼아 指揮官들을 糾彈하는 士兵들의 集團示威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 事件은 同년 1월 15일에 제1연대가 發足한지 4개월만에 일어났으며, 左翼細胞分子에 의한 軍內騷擾의 嚆矢라는 點에서 많은 問題點을 남게 하였다.

비록 本事件의 전달이 關聯者의 處罰과 糾彈對象이던 幹部의 轉補로 一段落지어지기는 하였으나, 美軍政當局이나 제1연대의 幹部級들은 事件의 本質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不偏不黨이라는 見地를 잘못 고집한 美軍政當局의 基本方針에 따라 左翼細胞의 철저한 索出과 그 芟除가 모호하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思想的인 不純分子를 處罰할 法的 根據가 없다는 理由로써 李丙賢 및 李尙振등을 그대로 中隊長職位에 남

겨운 處事등은 이러한 騷擾煽動을 接踵케 한 하나의 素地를 남겨놓은 것이었다. 이 당시의 美軍政當路者들의 덜빠진 思考方式은 共產主義에 대한 盲者요 靛者였다는 좋은 분보기가 아닐 수 없다.

### (2) 제 2연대장의 不穩事件

南勞黨 李舟河의 系列인 金鍾頤(중령)은 제2연대장(1947.2.29~9.22) 在職期間中에 연대 내에서 左翼細胞의 扶植에 全力을 기울이는 한편, 莫大한 公金과 補給品을 不正處分하여 南勞黨에 政治資金으로 提供하는 不隱事件을 惹起하였다.

그는 前職位인 제6연대장 당시부터 崔籍垣(副尉)과 함께 南勞黨細胞의 組織者으로서 暗躍하였는데, 同연대에 赴任한 뒤부터는 李尙振(소령, 제1연대事件의 主謀者) 및 左翼系商人과 結탁하여, 2,000만원이 넘는 公金과 補給品을 不正處分하였다.

또한, 연대의 將校級과 下士官級을 對象으로 抱攝工作을 추진하면서, 情報課와 憲兵으로 하여금 工作對象者들의 一舉一動까지도 公公然하게 內査케 하는 恐怖空調氣를 造作하였다.

金鍾頤의 제2연대 工作은 결국 後任 연대장인 崔德新소령에 의하여 摘發되었는데, 그 事件真相의 調査過程에서 擔當官인 吳東起대위(總司令部의 監察總監)는 本件을 不正事件의 一面에서만 調査를 進行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警備隊로서는 思想犯을 취급할 法的 權限이 없다는 美顧問官(James W. Hausman 대위)側의 見解와 統衛部 特別部隊長인 蔡秉德대령이 그의 身元을 보장한다는 情狀의 參酌으로서만 本件의 終結을 짓고 말았던 것이다. 이로써 돌이켜 보건대 左翼細胞의 擴散을 피하는 赤色分子가 可憎스럽기에 앞서, 警備隊 自體가 그러한 素地를 放置하면서 그 可恐性을 外面하는 愚를 스스로 보였던 것이니,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建軍濫觴期에 있어서의 赤色浸透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군다나 犯人의 言語公判에 있어서 軍法裁判部는 金鍾頤과 李尙振을 無罪로 宣告하였을 뿐만 아니라, 統衛部는 前者를 제5旅團의 參謀長으로, 後者를 제8연대의 副연대장으로 각각 昇進시키기까지 하였으니, 思想戰에 沒知覺한 一部幹部級이 赤色病菌을 溫床에서 培養하는 格이 되고 말았다.

### (3) 제3, 제8연대의 下廻上事件

제3연대의 연대장排斥事件 : 이 事件은 제1연대의 示威事件에 이은 두번째의 下廻上事件이었다.

그 表面上的 顛末은 연대장인 金白一正尉가 私事로운 일에 Ration을 비롯한 部隊給食品을 不正處分하였으므로 연대본부의 上士團과 群員의 제2대대가 主動이 되어, 연대장을 排

斥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肅軍단계에 있어서 새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本事件의 主謀자들이 모두 左翼細胞分子였음이 明白하게 들어났다.

그 眞相인즉, 裡里에서 창설된 제3연대에는 수많은 左翼分子들이 浸透하여 下士官級을 主對象으로 細胞組織을 擴大시키고 있었다.

연대의 內部的인 分裂과 統帥系統의 紊亂을 助長함으로써 그 紛糾의 責任을 有能한 幹部에게 돌려, 人事發令上으로 淘汰당하게 하는 奸巧스러운 선동을 노리고 있던 次, 1946년 10월에 연대의 副食사정이 惡化되고 연대장의 結婚式이 있었던 것이다.

이 偶然한 一致를 놓치지 않은 左翼分子들은 연대장이 副食品을 不正處分하여 結婚費用에 充當하였기 때문에 副食이 나빠진 것으로 流言을 造作煽動하였으니, 上部에서는 事件의 擴大를 우려한 나머지 眞否를 가리기도 前에 宋虎聲參領을 新任 연대장으로 赴任케 하고, 金白一正尉를 副연대장으로 格下시키고 말았다.

이 事件에서도 赤色分子의 浸透工作에 脆弱한 濫觴期의 痛嘆스러운 虛點이 如實히 露呈되었던 것이다.

제8연대의 대대장 毆打事件 : 1947년 4월, 제8연대(장, 元容德대령)의 제3대대(장, 宋堯讚대위)는 江陵에 駐屯하고 있었는데, 江陵地區의 南勞黨系列에 買收된 朴仁旭(상사)등의 左翼分子들이 主動이 되어, 5일 밤에 대대장을 集團毆打하는 事件이 突發하였다.

이 事件 역시, 表面上으로는 指揮官에 대한 下士官 및 士兵들의 不滿이 폭발한 것으로 塗色되었으나, 그 眞相을 조사한 결과 南勞黨系列이 背後操縱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

본시, 대대는 2연대의 1개 소대와 제5연대(釜山)의 제3중대(123명)가 基幹이 되어 1946년 9월에 江陵에서 창설되고, 1947년 9월 1일에 宋堯讚대위가 대대장으로 赴任하였다.

就任初부터 精兵育成을 목표삼은 대대장은 3개월간의 訓練을 強行한 나머지, 이에 대한 士兵들의 不滿이 점차 퍼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南勞黨의 江原道支部와 江陵地區 員들은 이 사실을 奸巧하게 이용하여, 대대 先任下士官인 朴仁旭상사를 買收함으로써 亂動을 教唆하였다.

南勞黨系列의 背後操縱으로 亂動에 나선 細胞分子들은 대대장을 集團毆打하고 武器庫를 파괴하여 威脅發砲하는가 하면, 將校들을 宿所에 軟禁하는등의 騷擾를 일으켰다.

이 騷擾事件은 결국 江陵駐屯의 美軍兵力에 의하여 鎮壓되기는 하였으나, 建軍過程의 警備隊를 對象으로 南勞黨이 劃策하는 陰謀의 眞相이 들어난 事件으로써 크게 注目되었다.

즉, 南勞黨은 名道の 警備隊를 個別的으로 痲痺시킴으로써 全體的으로는 國軍의 建軍過程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 (4) 제8연대 2개대대의 越北事件

위에서 보아 온 여러 事件에 비하여, 本越北事件은 여러 면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政府가 樹立되고, 正規軍으로서의 國軍이 發足된 뒤에 일어난 事件이며, 둘째로는 그 發想과 經過에 있어서 北傀와 완전히 內通되었다는 點에서, 國軍內部の 思想問題가 國防에 直結되는 重大한 興件임을 切感케 한 것이었다.

1949년 5월 4일, 開城地區의 松嶽山一帶에 걸쳐, 北傀의 제3연대 基幹이 大舉 侵犯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春川駐屯 第8연대(장, 金炯—중령)의 제1 및 제2 兩대대의 兵力 368명(將校 5명, 士兵 363명)이 左翼細胞員인 表武源(소령, 제1대대장) 및 姜太武(소령, 제2대대장)의 威誘引率로 拉北당하였다.

결코, 遇然의 一致라고만 볼 수 없는 兩事件이 38°線의 2개 處에서 동시에 發生한 것이었다.

表·姜의 두 細胞員은 본시 崔楠根(중령, 제6, 제8, 제15연대장 歷任)과 吳—均(소령, 警備士官學校의 區隊長) 및 金鍾碩(중령, 제2연대장, 제5旅團 參謀長 歷任)등 組織員의 思想的 感化로 各己, 대대內의 細胞擴大에 暗躍한 赤色忠誠分子들이었다.

그런데, 麗·順叛亂事件뒤에 聯軍이 斷行되면서 崔·吳·金등이 打盡되자, 表·姜은 自身들도 不遠하여 逮捕당할 것으로 豫測하고 大대兵力의 越北引率을 계획, 書院里 北쪽의 毛津橋(一名, 38橋)와 縣里 北쪽의 下番里를 통하여 北傀側과 事前에 內通하였던 것이다.

즉, 제1대대의 表武源은 5월 4일에 大대 夜間訓練을 憑藉하여 毛津橋까지 行軍한 다음에 미리 布陣潛伏중인 北傀軍에게 包圍당하도록 大대를 誘導하였다. 한편, 제2대대의 姜太武는 上南(縣里의 西南쪽 10km)에서 障地作業중인 제5, 제6, 제8의 3개 中대를 縣里로 移動시킨 다음(제7중대는 新兵教育중), 聯隊의 作命이라고 詐稱하여 『38°線上的 북지계峰(△402)을 北傀 保安隊가 占領중이므로 奪還하려 한다. 제8중대는 38°線 北쪽 12km까지 侵入하여 敵을 背後에서 攻撃하라. 제5 및 제6 兩중대는 제8중대의 攻擊에 呼應하여 正面에서 攻撃하라.』하는 虛偽命令을 下達함으로써, 미리 布陣待機중인 北傀軍에게 包圍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兩대대의 全兵力이 敵의 陷穽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제2중대장인 崔東涉중위와 重火器중대장인 韓貞熙중위, 그리고 제8중대장인 金仁植중위는 狀況의 突變으로 表·姜의 속셈을 재빨리 판단하자, 中대兵力을 이끌고 危機에서 脫出을 敢行하였다.

表·姜의 兩者는 결국, 出動兵力 750명중 388명을 北傀에 넘긴 셈이었으나, 過半數의 兵員이 重圍下의 敵陣에도 不拘하고, 各白의 武器를 휴대한채 原隊를 찾아 脫出하였다.

### 마. 國內治安의 攪亂

北傀의 侵略準備를 概觀컨대, 對南工作에 있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策略을 併進시키면서 그 綜合的인 効果로써 이른바 侵略을 斷行하려는 決定的인 好機를 釀성한 사실을 지적하게 된다.

첫째, 38°線에 대한 制限的인 軍事侵犯을 恣行함으로써 正規 및 遊擊部隊의 實戰經驗을 쌓고 地形을 熟知하려고 피하는 한편, 國軍의 戰力과 防禦態勢의 虛實點을 試探하였으며, 둘째, 建軍濫觴期の 警備隊에 細胞分子를 星羅雲布시켜 內部混亂을 일으킴으로써 國軍의 成長을 潤害하려 하였으며,

셋째, 大韓民國의 國內治安을 攪亂하여 政治面과 社會 및 經濟面등 各分野에 걸친 混亂과 痲痺를 일으킴으로써, 國力과 國防의 態勢를 委靡시키려 하였다.

그 者들은 특히 國內治安을 攪亂함에 있어서 遊擊共匪의 南派 및 地域的인 武裝叛亂으로써 國軍의 配備力을 分散하려 하였으며, 政界에 대하여서는 國會를 비롯한 政黨 및 行政府등의 各分野에 프락짜야를 넣어서 政情의 混迷化를 노렸으며, 社會 및 經濟의 分野에 대하여서는 罷業煽動과 共產宣傳등으로 不安과 不信感을 造成하려 하였다.

이렇듯, 侵略準備의 過程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國力伸張을 沮害할 목적으로 對南工作의 온갖 手法을 總動員하였으며, 窮極의으로는 國軍의 國防威勢를 無力化하여, 南侵의 短期決戰을 成事시키려는 것이었다.

#### (1) 南韓單獨選舉의 妨害工作

UN韓國臨時委員團(UN韓委)이 統韓을 목표로 하는 南北韓總選舉의 方案을 모색한 1948年初, 南韓의 政界는 激甚한 소용돌이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첫째, UN韓委 自體가 北傀의 入北拒否로 말미암아 選舉의 實施가 可能한 南韓地域에서의 單獨選舉를 監視下에 실시할 것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둘째, 李承晩의 獨促系는 『韓國의 主權回復은 韓國人自身의 當면한 權利이며, U.S.S.R 軍이 北韓에 있는 限, 南韓만이라도 單獨選舉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셋째, 金九 및 金奎植의 臨政系는 『南韓의 單獨選舉는 南·北韓의 國土分斷을 永久化할 것인즉, 共產黨일지라도 單一民族인 이상, 美·蘇·兩軍이 철수한 뒤에 全韓國을 통한 自由選舉가 있어야 한다.』라는 見解로써 南北協商을 추진하려 하였으며,

네째, 南勞黨을 비롯한 左翼系列은 北傀와의 緊密한 連繫下에 이른바 「2·7敎國鬭爭」이라는 名目으로 UN韓委의 활동을 반대하고 美·蘇 兩軍의 無條件철수를 주장하면서, 單獨選舉를 妨害하는 實力鬭爭으로 突入하였다.

1948년 2월 7일에 惹起된 이 「2.7暴動」은 南勞黨의 指令下에 京仁和 嶺南 및 湖南의 各地方과 濟州島에 까지도 波及되었다.

즉, 各工場과 生産機關 및 交通機關에 潛入한 細胞組織으로써 勞組員들을 煽動하여 일제히 罷業케 하였으며, 地方에 있어서는 地方赤色分子와 農民들을 使嚇하여 警察官署를 襲撃케 하여 放火와 破壞, 그리고 殺人과 掠奪등의 蠻行은 물론 電信電話線의 斷絶을 비롯한 公共施設의 破壞로써 地方行政의 麻痺와 民心의 攪亂등 恐怖雰圍氣를 造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UN安保理의 決議와 UN韓委의 決定으로써 南韓單獨選舉가 5월 10일에 실시키로 確定되자(3.12), 南勞黨은 4월 3일에 濟州島의 暴動事件을 일으켰다.

南韓의 한 地域인 濟州島만이라도 武力으로 攪亂하여, 5.10選舉의 一角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었으니, 이미 1947년 11월의 제9연대 創設當初부터 文相吉(중위)등의 軍內細胞員을 潛入시켜, 연대 士兵들을 포섭한 뒤에 南勞黨인 金達三등과 呼應하여, 濟州島의 全域에 걸쳐 全警察支署를 일제히 습격하였다.

放火와 破壞는 물론이러니와 특히 右翼人士들을 닥치는대로 虐殺함으로써, 良民들로 하여금 5.10選舉를 忌避케 하는 方向으로 恐怖心과 不安感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同 暴動事件은 결국, 제9연대를 主力으로 한 軍警의 擊滅作戰으로 鎮壓(5월 중순)되기는 하였으나, 南勞黨의 選舉妨害는 全國에 걸쳐, 始부터 計劃的이며 執拗하고 또 惡辣하였다.

選舉當日인 5월 10일에 決定的인 破壞行動을 取하기로 하고, 이에 이르기까지의 期間에 宣傳謀略과 部分的인 妨害工作을 밀어나가기로 하였는데, 南勞黨은 各道·郡黨部와 細胞分子들에 指令하기를 「38°線 以北에는 이미 人民共和國政府가 樹立되었다. 南朝鮮은 國防力이 微弱하고, 北朝鮮은 數10萬의 強力한 軍隊를 組織訓練하고 있다……그러므로 金日成이 不日內로 南朝鮮을 武力으로써 接受할 것이다……」라는 맹랑하고도 威脅的인 流言蜚語를 퍼뜨리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單獨選舉를 反對하지 않는 者는 民族叛逆者로서 處斷받게 될 것이라는 투의 洞喝과 脅迫을 곁들임으로써 社會的인 不安과 民心의 動搖를 彌漫시키고, 官公署의 襲撃과 右翼指導者의 殺害로써 5.10選舉를 破綻에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兇計下에 이른바 反選鬭爭委員會와 宣傳先行隊를 結成하여 그 細胞를 南韓全域에 投入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行動指令을 내렸다.

① 工場과 學校 및 生産機關에 대한 總罷業 ② 農村鬭爭 ③ 街頭細胞組織 ④ 大衆團體의 擴大 ⑤ 勞動組合의 鬭爭 ⑥ 學生鬭爭의 強化 ⑦ 情報活動의 機敏化 ⑧ 警察에 대한 民心反撥의 煽動 ⑨ 食糧鬭爭 ⑩ 國際情勢에 관한 歪曲宣傳.

이러한 行動指令은 특히 南勞黨員중에서도 精選分子로 組織된 宣傳行動隊에 의하여 1948

년 4월 1일부터 行動化하였는데, 「2.7 暴動」과 「濟州島暴動」에 이어 5.10總選에 이르기까지의 期間에 이 選舉妨害工作으로 因하여 發生한 被害는 人命被害만 하여도 被殺 388명, 負傷 712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歷史가 證明하는 바와 같이, 1948년 5월 10일의 自由總選舉는 그 3개월後인 8월 15일에 大韓民國을 出帆케 한 民主體制의 굳건한 기틀이 되었으니, 金日成一昧가 南勞黨으로 하여금 工作케 하였던 單選妨害도 民族의 슬기와 世界의 正論앞에서는 한낱 白日夢으로 化하고 말았다.

## (2) 麗·順事件과 大邱叛亂

北傀는 南勞黨에 의한 5.10 總選의 妨害工作이 水泡로 돌아가자 建軍이 日淺한 國軍內部에 潛入하고 있던 南勞黨의 細胞分子들로 하여금 麗·順叛亂(1948.10.19) 및 大邱叛亂(11.2)등 軍內의 一大武力叛亂을 惹起케 하였다.

麗·順叛亂事件: 이 事件은 麗水駐屯 제14연대(장, 朴勝燕중령)에 潛入한 細胞組織員인 池昌洙(上士), 金智會(중위), 洪淳錫(중위)등이 主動이 되어 일으켰는데, 이 主謀者들은 연대 士兵一部의 不平不滿을 이용한 煽動과 宣撫로써 部隊內의 細胞組織을 暗暗裡에 擴大하고 있던 차에 연대의 1개 대대가 濟州島叛亂의 討伐을 增援하는 部隊로 출동하게 되는 機會를 奇貨로 하여 10월 19일의 夜半에 銃부리를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同叛亂을 指令한 南勞黨의 計算으로서는 첫째, 麗水を 중심으로 叛亂의 제2戰線을 形成하여 增援部隊의 出航을 牽制함으로써 濟州島叛亂의 持續을 꾀하며, 둘째로는 연대의 叛亂이 成功하면 國軍 各연대의 細胞員에 指令하여 同一한 叛亂을 惹起케 함으로써 政府의 顛覆까지도 노리려는 것이었다.

叛亂의 主謀者들은 隱密한 事前計劃으로 이날 20.00에 事端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고, 順天派遣의 2개 중대에 연락하는 한편, 연대내의 核心細胞인 40명으로 하여금 武器 및 彈藥庫를 强占케한 다음 『...우리는 同族相殘의 濟州島出動을 反對한다. 우리는 祖國의 念願인 南北統一을 成就하자. 지금 朝鮮人民軍이 南朝鮮解放을 위하여 38°線을 넘어 南進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北上하는 人民解放軍으로써 行動한다. 美帝國主義의 앞잡이 將校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라고, 21.00에 濟州島로 出航豫定인 제1대대를 煽動하였다.

이를 阻止하려는 將校 및 下士官들은 叛亂分子들에 비하여 組織力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個別的으로 犧牲되는 慘變을 당하고 叛亂의 氣勢는 삼시간에 全연대를 휩쓸고 말았다.

叛亂分子들은 士兵들을 銃劍으로 威脅하면서 叛亂部隊를 新編하여 麗水地區의 南勞黨分子와 合勢하였으니 그 叛徒의 數자는 3,000명이나 되었다.

麗水市內로 亂入한 叛徒들은 다시 左翼分子 600餘를 吸收하자 武器를 分配하여 警察 및 官公署를 襲擊하는 동시에 機關長과 右翼人士들은 물론 社會的인 有志들을 일일이 索出하



었다. 한편, 洪淳錫(중위)이 이끄는 順天의 叛軍 2개 중대도 20일 10.00에 順天驛을 占據하여 麗水에서 鐵路便으로 北上한 叛軍主力과 合勢하였다.

麗水を 掠占한 叛徒軍主力은 20일 09.30에 6輛의 列車로 北上, 10.30에 順天으로 亂入한 다음에 同市街地에서도 地方 赤色分子들을 煽動하여 狂亂의 虐殺과 破壞 및 放火등의 蠻行을 恣行하였다.

그 狂亂의 蠻行은 筆舌로는 形容할 수 없을만큼 慘狀의 極을 이루었다. 警察官과 官公署員은 물론 右翼政黨의 指導級人士와 社會各界의 有志를 비롯하여 어제의 雇傭主를, 어제의 스승과 學友를, 그리고 어제의 親知들을 닥치는대로 惡質反動으로 되돌아 集團虐殺한 左翼分子들의 狂氣어린 跳梁은 共產主義의 殘酷無道한 本質을 如實히 들어내었다.

順天까지도 掠占한 叛徒의 主力은 다시 2개 隊로 나누어 1개 隊를 光陽—求禮—谷城—南原을 거쳐 全州로, 1개 隊를 茂橋—寶城—和順—光州—裡郞로 各各 進出시키며 하였다.

이에 대하여 政府에서 이틀뒤인 21일에 이르러서 겨우 叛軍討伐戰鬪司令部를 急編하고 22일에야 麗·順地區에 戒嚴令을 宣布하게 되었다.

叛徒들은 四散하여 智異山으로 逃走, 長期的인 遊擊戰을 치하여 一年餘에 걸쳐 國內治安을 擾亂하게 되었다. 이에 討伐戰鬪司令部를 다음 해 3월 1일부터 強化하여 이 事件이 勃發한지 6개월만에 金智會 및 洪淳錫등의 叛徒首魁를 射殺하고, 1950년 1월 25일에 智異山地區 戰鬪司令部를 解編함과 아울러 湖南一帶의 戒嚴令도 解除하였다(1950. 2. 5). 이리하여 叛徒들은 智異山의 共匪로 殘命을 부지하게 되자 南勞黨의 軍事擔當 總責인 李在福(1949. 1. 逮捕)은 大邱駐屯 第6연대에 한가닥의 期待를 걸고 同연대의 輔廳員인 郭鍾振(特務上士, 연대人事係)에게 叛亂을 指令하였다.

南勞黨은 본시 全軍規模의 叛亂을 劃策하고 이를 操縱하였으나 各연대의 細胞組織이 弱할 뿐만 아니라 國內情勢의 與件이 叛亂에 呼應하리만큼 造成되지않은 탓으로 우선 5.10 總選을 妨害할 목적과 叛亂의 內·外線을 形成하기 위하여 濟州道暴動을 惹起케 하였다.

즉, 選舉妨害를 且置하고서라도 濟州島鎮壓次, 國軍의 討伐兵力이 增援될 경우에 第14연대로 하여금 叛亂케 함으로써 國軍兵力을 二分하여 하나는 濟州島에 대한 增援出動을 牽制하고 다른 하나는 叛亂半徑의 擴大로써 全軍的인 呼應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國軍의 擊滅作戰으로 叛徒들이 入山共匪로 허덕이게 되고, 이에 뒤이은 全軍的인 大肅軍으로 軍內細胞가 剔抉되었으므로 3년간에 걸친 軍內工作이 瓦解되고 말았다.

1948년 11월 당시, 第6연대의 主力은 濟州島 및 麗·順地區에 出動中이었으므로 殘餘兵力으로는 永川 및 浦項地區의 2개 중대와 연대의 本部要員뿐이었다. 南勞黨과 연대內의 細胞員은 이 機會를 利用하였다. 연대本部에서 叛亂을 일으키면 出動中인 연대主力이 復歸할것이므로 이 復歸途中에 細胞分子들이 機會를 捕捉하여 連鎖的인 叛勢를 擴大하기로 計劃하였다.

따라서 연대本部에서 제1차叛亂(1948. 11. 2)을 일으키고, 제1대대의 復歸途上에서 제2차叛亂(12. 6)을, 그리고 浦項駐屯의 제4중대에서 제3차叛亂(1949. 1. 30)을 일으켰으나 그 勢力은 이미 餘喘마저 衰盡한 螻蟻之斧에 지나지 않았다.

急速 出動한 鎮壓部隊(제7연대 및 제5연대의 각 1개 대대)에 쫓겨 四散하고 그 일부가 八公山으로 潛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6연대 白體의 肅軍과 士兵들의 外面에 부딪쳐 熱誠分子들만이 날뛰다가 窮鼠의 身勢를 쫓치 못한 寸劇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濟州島暴動은 5. 10總選舉를 妨害할 목적으로 하였으며, 麗·順 및 大邱叛亂은 濟州島暴動의 延長으로서 樹立直後인 政府의 整地以前에 破綻을 助成코자 一連의 前哨의 武力行使이었다.

換言하여, 全面南侵을 앞두고 南韓에 武裝 guerilla의 뿌리를 박아놓기 위한 侵略準備의 段階의 戰略展開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叛亂事件은 結果的으로는 轉禍爲福의 段階를 겪은 셈이었다. 叛亂을 鎮壓함과 동시에 軍內의 赤色禍根을 芟除하는 大肅軍을 斷行한 까닭이다.

만약에 北傀가 軍內의 細胞組織을 露呈시키지 않고 全面南侵時까지 隱匿하였더라면 國軍은 初戰時부터 內部崩壞를 免치 못하였을 것으로 假定하지 않을 수 없으니, 本叛亂事件은 軍內部的 癌部를 철저히 拔本한 契機로서의 重大한 一面으로 看做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 (3) 南派共匪의 侵透

그러나 北傀는 執拗하게 全面南侵前의 對南武力工作을 계속하였다. 1948년 11월 14일~1950년 3월 28일의 期間에 2,400명의 武裝共匪(遊擊隊)를 10차에 걸쳐 南派侵透시킨 것이었다.

麗·順 및 大邱叛亂의 失敗로 國軍內의 細胞組織마저 拔本당한 北傀는 南勞黨에 指合하였던 武力工作을 共匪南派에 의한 遊擊戰으로 轉換하였다.

즉, 武裝遊擊隊(共匪)를 南派에 함으로써 南韓各地의 地下細胞網을 再興케 하고 이와 아울러 國內治安의 擾亂과 國軍兵力의 分散誘引을 노리는 遊擊戰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목적을 達成키 위하여 平壤郊外에 江東政治學院을 設置하고, 越北逃避한 南勞黨員을 모조리 遊擊隊員으로 養成하였다.

遊擊戰法은 물론 政治工作의 方法등 철저한 訓練을 3~6개월동안 실시한 다음에 다시 東部 38°線에 接한 이른바 襄陽人民遊擊隊訓練所에서 南派前의 再訓練을 실시하였는데 前後 10차에 걸친 그 南派經緯를 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1948. 11. 14) : 麗·順叛亂에 呼應하여 江東政治學院의 제1期要員인 180명을 襄陽一五嶽山一旌普으로 侵透시켰으나 제8연대의 討伐部隊가 이를 捕捉하여 대부분 擊滅하

였다.

제2차 (1949. 6. 1) : 제1차 侵透의 失敗原因을 검토한 뒤 南勞黨의 地下軍事部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400명을 먹시 五臺山출기로 侵入케 하였다.

제3차 (1949. 7. 6) : 200명이 五臺山地區로 다시 侵透하였으나 대부분이 射殺되고 殘匪 30명이 中峰山方面으로 逃走하였다.

제4차 (1949. 8. 4) : 金達三(濟州島暴動의 主謀者로서 脫出越北한 者)이 이끄는 100명의 共匪(一名, 金達三部隊)가 口月山(慶北 英陽郡)까지 侵透하여 地方共匪들을 吸收한 兵力으로써 普賢山(慶北 永川郡)에 이른바 東海聯區의 根據地를 두고 날뛰었다.

제5차 (1949. 8. 12) : 鐵原의 根據地를 둔 共匪의 一團이 明智山(京畿道 加平郡 北面)方面으로 侵透하여 그 先發隊 15명이 龍門山(京畿道 楊州郡)까지 到達하였으나 討伐部隊에 捕捉되자 越北逃走하였다.

제6차 (1949. 8. 15) : 제5차 南派의 主力 40명이 明智山—龍門山으로 後續하였으나 討伐部隊에 捕捉되어 孔雀山(江原道 洪川郡)에서 半數가 射殺되고 殘黨은 鷹峰山(江原道 麟蹄郡)을 거쳐 越北逃走하였다.

제7차 (1949. 8. 17) : 1949년 8월 6일에 北傀 38警備 제1旅團에하 楊口駐屯의 一部兵力이 冠嶺里—新南地區로 侵犯한 機會를 틈타, 李吳濟(江東政治學院長)가 이끄는 380명(이른바 人民遊擊隊의 제1軍團)이 太白山脈으로 侵透하였으나 討伐部隊에 捕捉되어 分散, 100명이 金達三部隊와 合流하여 제1軍團을 再整備하고 慶北一帶에서 出沒하였다.

제8차 (1949. 9. 28) : 50명이 襄陽郡 懸北面의 錦玉峙로 侵透하려 하였으나 제8사단 제10연대의 討伐部隊에 捕捉되어 分散逃走하였다.

제9차 (1949. 11. 6) : 100명이 慶北 迎日郡의 松羅面 地境으로 海上侵透하여 普賢山에서 金達三部隊에 合流하였다.

제10차 (1950. 3. 28) : 이른바 金尙昊部隊 및 金武顯部隊로 呼稱하는 700명이 五臺山脈으로 侵透하였는데 10차에 걸친 南派중에서도 가장 強力하였으며, 時期의으로 보아서도 全面南侵 3개월前에 이 強力한 共匪兵力을 投入한 것은 後方擾亂을 위한 事前準備의 一斑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遊擊隊員을 養成하고, 한편으로는 南派하던 北傀의 江東政治學院은 1950년 6월 上旬에 解體됨과 동시에 遊擊部隊인 제766부대(兵力 3,000명)로 改編되어, 全面南侵時의 東海岸上陸에 對備하였다.

또한, 1950년 6월 24일 現在の 殘存 武裝共匪는 地方共匪를 合하여 460명(五臺山地區에 70명, 太白山地區에 100명, 東嶽山地區에 20명, 普賢山地區에 80명, 智異山地區에 100명, 湖南地區에 90명)으로 推算되어, 南派遊擊隊의 10차에 걸친 2,400명에 比하면 顯저한 隔差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各地區의 國軍 討伐部隊가 거둔 戰果인 것이었다.

## (4) 프락찌야의 浸透工作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北傀의 戰略的인 南侵準備는 全面南侵의 機會造成에 集中되었는데, 그 對南工作의 各局面에 있어서 失敗와 挫折을 거듭하게 되자, 大韓民國의 政界를 攪亂할 목적으로 수많은 프락찌야를 國會 및 各政黨에 浸透시켰다.

이로써 北傀는 38°線上의 挑發一軍內騷擾의 煽動一國內治安의 攪亂一프락찌야의 浸透로 大別되는 對南工作의 全般에 걸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은 發惡相을 如實히 드러낸 것이었다.

프락찌야工作의 목표는 政界 및 行政府의 機密을 探知하고, 分裂 및 瓦解를 造作함으로써 政情을 混亂속으로 몰아넣는 데에 있었다.

南勞黨은 이미 地下로 潛踪하였으나, 北傀와의 連繫下에 地下組織을 強化하는 이른바 黨員 5倍加運動을 저는 한편, 國會와 19개 政黨 및 團體, 法曹界와 警察, 심지어는 行政 各部內에까지 投入한 프락찌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工作을 벌이게 하였다.

① 19개 政黨 및 團體(韓獨黨, 社會黨, 社會民主黨, 民族自主聯盟등)로 하여금, 5.10總選을 單獨選舉로 規定하여 이를 拒否하는 宣傳과 聲明을 發表케 하는 工作.

② 이른바 南朝鮮地下選舉(1948.8)를 主宰하는 南朝鮮地下選舉委員會에 贊成連名狀을 收集提出케 하는 工作.

③ 이른바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1948.8.25 海州에서 開催)에 南韓 各政黨 및 社會團體의 代表者를 派送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른바 朝鮮最高人民會議의 代議員이라는 架空의인 造作選舉에 參加케 하는 工作.

④ 南韓의 各政黨 및 社會團體로 하여금 U.S.S.R軍(1948.12에 撤收)과 같이 美軍도 撤收하여야 한다는 主張을 聲明케 하는 工作.

⑤ 南韓의 各政黨 및 社會團體로 하여금 美軍의 南韓撤收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UN韓委會에 제출케 하는 工作(1949.4).

⑥ 이른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結成(1949.6)함에 있어, 結成提案書를 各政黨 및 社會團體에 配布하고, 同結成을 支持하는 決議文을 제출케 하는 工作.

⑦ 美軍撤收(1949.6) 뒤에 軍事顧問團까지도 撤收해야 한다는 輿論을 喚起케 하는 工作.

⑧ 1949년 9월, 『北朝鮮人民軍이 不遠間 서울에 入城할 것이다.』라는 流高強語와 함께 各政黨 및 社會團體로 하여금 歡迎準備委員會를 結成케 하는 工作.

한편, 1949년 2월부터는 右翼政黨 및 團體의 動向과 內部紛糾에 관한 內幕을 收集하고, 右翼政黨들의 動向을 內查하는 등의 政治情報을 北傀에 連絡하는가 하면, 政府 各高處의 機密商取에 直眼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南勞黨은 地下行動隊를 武裝시켜 要人暗殺을 指命함으로써 有事時의 蜂起

에 對備케 하였다.

그러나, 北傀의 指令에 의한 프락져야工作은 역시 國會에 集中되고 있었다.

1949年初, 國會는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놓고, 李承晚(大統領)系인 大韓國民黨과 舊韓民黨系인 民主國民黨이 對立되어 있었으며, 金若水(副議長)·盧鎰煥·李文源등의 少壯派가 院內的 제3勢力을 이루고 있었는데, 南勞黨은 이들 少壯派(45명)의 中心人物들을 차례로 包攝하여, 프락져야로 심어 놓았다.

南勞黨이 國會프락져야에 내린 첫 指令은 『美軍撤收後에 생기는 南韓防備의 空白期를 利用하여, 南韓全域을 席捲할 것』을 목적으로 ① 外軍撤收案을 再上程하여 通過시킬 것이며, ② 同案의 上程 또는 可決에 실패할 경우에는 즉각 UN韓委에 同一한 主張을 提出할 것등이었다.

당시의 國內情勢에 비추어 外軍撤收案이 國會에서 可決될 理는 萬無하였다.

盧鎰煥등은 즉각 UN韓委에 提出할 連判狀(外國軍의 早期撤收를 主張)에 62명의 同意署名을 얻어, 金若水가 傳達하였다(3.19).

그런데, 同年 3월 22일에 記者會見을 白請한 이 무리들은 同連判狀의 內容을 公開하면서 『外國軍駐留下에서는 眞正한 民主的統一이란 期待할 수 없고, 이러한 統一은 새로운 分裂을 招來하는 것 뿐이나, 美軍의 早期撤收만이 先決問題인 것이다.』라는 要旨의 發言을 서슴치 않았다.

이 무렵, 南勞黨은 政府施策을 沮害하고, 內閣의 總辭退와 民心의 動搖를 목적으로 하는, 要旨 다음과 같은 指令을 다시 내렸다.

① 憲法을 改正하여 內閣責任制 및 大統領直選制로 할 것.

② 李承晚의 北進論을 反對하며, 美國의 戰爭走狗가 되는 對美武器援助의 要請을 反對할 것.

③ 政府의 食糧政策을 糾彈할 것.

④ 豫算案의 反對鬭爭을 展開할 것.

⑤ 內閣總辭退의 要求案을 貫徹시킬 것.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北傀가 全面南侵前의 準備段階에 있어서, 國會鬭爭을 通하여 그들의 侍女議員들에게 내린 指令을 分析하면, 要旨 다음과 같은 結論이 抽出된다.

첫째, 駐韓美軍의 早期撤收(軍事顧問團까지도 포함)를 促求하여, 全面南侵前에 단 한 명의 美國人도 남아서는 안된다.

둘째, UN韓委에 提出한 國會連判狀을 國際文獻으로 남김으로써 美國의 處地를 어렵게 만든다.

셋째, 內閣責任制의 改憲案과 政府不信任案을 계속 工作함으로써 頑強한 李承晚系의 地盤을 흔들어 놓는다.

내져, 右翼政黨內의 紛糾을 最大限으로 煽動하여, 民族系列의 不調和를 助長케 한다.

다섯째, 그들 走狗들의 國會議員이라는 身分을 利用하여, 政府의 不正腐敗와 食糧政策의 失敗 등을 誇張暴露케 하여, 民心의 離反을 圖謀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工作은 한편, 大韓民國의 政情을 혼들기는 하였으나, 國會를 비롯하여 各界各層에 浸透하였던 分子들이 연이어 檢舉됨으로써, 그들이 妄想한 決定的인 治安 攪亂을 造作하기 前에 拔本되고 말았다.

그리나, 北傀는 이미 T-34 戰車와 YAK 戰艦機를 비롯한 攻擊用 重裝備을 U.S.S.R으로부터 支援받아, 全面南侵의 挑發態勢를 갖추고 있었으며, 準備段階에서 弄奸부렸던 모든 對南工作은 獍猛한 野獸로서의 恐怖效能만은 能히 거두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偽裝된 平和攻勢

全面南侵의 準備를 갖춘 붉은 豺狼의 무리는 이제 그 毒牙만을 감추고, 不時에 獠牙를 露齒케 되었다.

즉, 魁首 金日成과 그 一味徒黨은 첫째, 南侵軍備를 陰蔽하고, 둘째, 南侵의 口實을 造作하며, 셋째, 世界輿論을 欺誑하는 偽裝된 平和攻勢를 南侵直前까지 併行시켰다.

그 두드러진 偽裝術策은 ① 이른바 祖國統一戰線의 結成 ② 世界 平和擁護大會에의 便乘 ③ 南北總選의 提案 ④ 南北要人의 交換등을 提案함으로써 能히 그 全貌를 헤아릴 수 있는 바, 이러한 모든 侵略準備가 完熟한 1950년 5월 17일에는 平壤의 牡丹峰劇場에서 最終的인 南侵會議를 召集하였다는 것이다.

##### (1) 所謂 祖國統一戰線의 結成

金日成一味는 1947년 3월에 Moskva에서 Stalin과의 密謀를 마치고, 武力南侵의 계획이 확립되자, 積極的인 戰爭準備를 추진키 위하여, 北韓의 實權을 蘇聯派에 集中시키는 工作을 強化하는 한편, 駐韓美軍의 早速한 撤收를 強要하는 方案으로써 이른바 祖國統一戰線의 結成을 大의으로 宣傳하였다.

말하자면, 『韓半島의 民主主義的인 統一은 朝鮮人民 自身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南韓의 美軍은 早速한 時日內에 물러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 宣傳의 主旨이었다.

1949년 5월 14일에, 北傀通信은 아래와 같은 長嘖舌를 늘어 놓았다.

『南韓의 모든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는 統一된 朝鮮民主主義 民族戰線의 單一體를 結成하여, 美軍의 早速한 撤收를 促求하자고 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에 呼訴해 왔다. 北朝鮮 民族中央委員會는 이 提議를 즉시 受理하고, 各政黨 및 機關의 代表로서 準備委員會를 構成하

여, 同年 6월 25일까지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祖統)을 結成하기로 決議하였다.」

이에 따라, 그 者들은 이른바 祖統을 結成하였는데 그 實踐計劃으로서는 『앞으로의 分斷이 더 계속되면 朝鮮民族에게는 最大의 危機가 닥칠 것이다.』라고 前提하고, 駐韓美軍의 撤收를 비롯한 10개 鬭爭目標를 決議하여 『將次的 統一戰線은 蘇系 朝鮮人들에 의하여 指導되고 實踐되어야 하며, 따라서 李承晚政府의 顛覆은 南勞黨의 計劃事業이 아니라, 朝鮮人民軍에 의한 大體한 戰爭方式으로써 遂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그러면서도 表面的으로는 同年 6월 30일에 祖統의 이름으로 이른바 「祖國의 民主的 方法에 의한 平和統一의 方案」이라는 것을 우리쪽에 提案하였다.

이는 南北統一에 관하여 그들이 보여준 最初의 具體的인 提案으로써, 그 要旨는 다음과 같이 매우 簡潔한 것이었다.

『① 朝鮮의 平和的 統一은 朝鮮人民 自體로써 決定되어야 한다.

② 美軍은 즉각 撤收하여야만 한다. 동시에 UN韓委도 朝鮮에서 떠나야 한다.

③ 1949년 9월 15일에 南北을 통한 總選舉로써 統一立法機關을 만든다. 이 立法機關이 朝鮮共和國의 憲法起草를 專擔하고 政府는 이 憲法에 의하여 組織된다. 그리고 이 政府가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하면 南朝鮮과 北朝鮮에 存在하는 政權을 解體한다.

④ 南朝鮮과 北朝鮮의 軍隊는 朝鮮共和國政府에 의하여 民主的 原則으로 統合한다.

이 提案은 당로부터 大韓民國이 考慮 또는 受諾할 것으로 보아서 대응은 것은 없으나 아니었다.』

民族自決的인 統一方案을 拒否하였으니, 實力으로라도 이른바 南朝鮮解放을 수행치 않을 수 없다는 口實을 심어놓기 위한 欺瞞宣傳이었던 것이다.

果然, 李承晚 大統領이 이 欺瞞宣傳을 一覽하고 제3차 UN總會(제87차會議, 1948. 12)에서 採擇한 統韓原則을 거듭 支持하자, 金日成은 1950년의 新年辭를 통하여, 南韓解放을 標榜한 武力統一의 必要性을 要旨 다음과 같이 叫號하였다.

『美帝와 李承晚徒黨의 叛亂으로……1949년에는 우리의 使命인 祖國의 統一을 完遂치 못하였다. 이러한 環境은 우리들로 하여금 祖國統一의 任務을 完遂하기 위해 北半部에 強力한 基地를 建設케 하였다.

1950년에는 人民軍隊 및 國境警備隊와 保安隊는 戰鬥態勢를 갖추는 것이며 언제든지 敵을 무찌를 覺悟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共和國 南半部에 있는 人民들은 祖國統一을 위한 그들의 鬭爭을 擴大시켜야 한다. 勝利는 統一과 祖國의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한 正義의 鬭爭을 하는 全體人民의 便에 있다.

1950년에는 祖國統一을 위한 해가 되기를 祝願하며, 『勝利를 向해 前進하는 全體 朝鮮人民에게 있기를 바란다…….』

狂悖一夫의 이와같은 妄言은 1950년의 年初에 U.S.S.R과 中共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즉, 中共과 U.S.S.R의 高位層 會談이 開催되어, 이 徒黨들의 南侵을 위한 兵力의 增強과 訓練의 強化, 그리고 都心地에서의 兵器生産工場의 疎開配置와 裝備 및 彈藥支援에 관한 準備등 實質的인 計劃을 發展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中·蘇友好同盟을 締結함으로써 中·蘇·北傀間의 三角同盟을 굳혀 南侵密計와 保障體制를 確立하여 時機의 選擇만을 남겨놓은 것이다(本章 제1節 4項 參照).

## (2) 外國製인 平和運動에의 便乘

제2차 世界大戰後, 美國과 U.S.S.R이 取한 世界政策의 樣相을 한 마디로 要約하면, 後者의 赤色膨脹主義에 대한 前者의 封鎖政策이 맞선 角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곧, U.S.S.R은 UN機構와 西方陣營의 平和模索에도 不拘하고, 西歐와 亞洲에 대한 赤化 浸蝕을 노려, 冷戰이라는 새로운 樣相의 世界緊張을 造成하였는데, 美國은 이에 대하여 歐亞의 民主諸國에 대한 經濟援助(Truman Doctrine & Marshall Plan)의 積極的인 推進과 對西歐軍備體制의 強化로써 赤化浸蝕을 防止하였다.

美國의 封鎖政策에 부딪친 U.S.S.R은 狡猾하게도 이번에는 各國의 共產黨을 總動員하여, 欺瞞的인 平和運動을 展開토록 하였으니 말하자면 羊頭狗肉格인 蘇製 平和運動을 宣傳케 한 것이었다.

그 代表的인 것이 1948년 8월 25일에 共產陣營의 文化人들을 糾合한 이른바 世界平和擁護文化人大會(Poland의 Vroslan에서 開催)이며, France의 Paris에 그 國際連絡委員會를 造作하였다.

北傀는 제발리 이에 呼應하여 支持大會를 召集(1949.3)하는 동시에 Paris 및 Prague의 이른바 平和擁護世界大會에 代表를 派遣하는등, U.S.S.R의 欺瞞的인 平和政策에 장단을 맞추어 傀儡로서의 本色을 들어 내었다.

그 要旨은 軍備競爭 및 戰爭豫算增加의 反對등, 어디까지나 假面을 쓴 一場演出에 지나지 않았다.

U.S.S.R은 다시 Stokholm의 平和大會를 召集(1950.3)하여, 原子武器의 禁止와 軍備縮少를 提唱케 하고, 美國(原子武器의 使用國으로서)을 戰犯으로 規定하는 贊成署名運動을 展開 시켰다.

이에 제1着으로 참가한 것이 바로 金口成追從의 무리였다. 이른바, 朝鮮平和擁護鬪爭委員會를 조직하여 北韓民衆들에게 呼訴署名을 強要한 것이다.

이리하여 1950년 4월 1일에 北韓의 各地方別로 委員會를 發足시켜, 署名運動을 일제히 強行하였는데, 그 設問중에 『당신은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願하십니까?』라는 一問을 添加시켜, 祖國統一에 대한 民衆의 所願을 表面化시키기에 하나의 그럴사한 虛偽를 造作하였다.



이 署名運動은 同年 6월 初旬까지 계속되었으며 全面南侵의 直前이라는 時宜의인 效果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 署名人口를 750만명이라 하였다. 당시의 北韓人口를 900만명으로 推算하면, 乳兒까지도 署名하였다는 數字이었다.

마꾸어 말하면, 北韓民衆의 男女老幼 모두가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願하였는데, 『美帝와 李承晩徒黨이 北侵해 왔으므로 不得<sub>不</sub> 38°線을 넘어치게 되었다.』라는, 南韓先政說을 造作하기 위한 事前脚本의 素料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 (3) 南北總選舉의 提案

1950년 5월 30일, 大韓民國의 제2代 國會議員選舉가 실시되었을 무렵, 北傀의 元兇들은 全面南侵의 勝算을 自負하면서, 또 하나의 煙幕術策을 弄하였다. 이른바, 平和統一의 方案으로써 南北을 通한 總選舉를 8월에 실시하자고 提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戰爭挑發의 直接的인 理由도 없이 無條件으로 全面南侵하면 國際輿論上의 不利點을 免치 못한다는 계산밑에서 UN監視下가 아닌 韓國人自決의 原則에 立脚한 南北總選案을 내놓았던 것이다.

물론, 大韓民國側에서 一蹴하리라는 點을 미리 예상한 假面劇이었다.

同年 6월 8일(南侵 17일前), 그 徒黨들은 對南放送으로 長廣播를 늘어 놓았으니 이른바 祖統에 의하여 採擇(6.7)되었다는 決議文 — 『1949년 6월 28일에 祖統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案을 提示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尙今까지도 同提案이 實現되지 못한 責任은 大韓民國側에 있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妨害하는 者는 美帝와 人民의 意思를 拒逆하는 李承晩徒黨들이다. 그러므로 祖統은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 을 電波로 퍼뜨림으로써 南侵意圖를 煙幕으로 遮障하였다.

그 者들이 내놓은 提案은 語不成說의 一方的인 主張임은 再論할 餘地조차 없다.

『① 1950년 8월 5일에서 8일까지에 統一立法機關을 위한 總選舉를 全國적으로 實施한다.

② 同年 8월 15일 서울에서 新設 立法機關을 開會한다.

③ 同年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사이에 海州 또는 開城에서 南北朝鮮의 代表가 會合한다. 이 會議에서는 平和的 統一을 위한 諸條件과 選舉를 管理하는 中央委員會 등을 討議한다.

④ 祖國統一을 妨害한 分子(李承晩系列 및 民政黨系列)들은 民族叛逆者로서 除外되어야 하며, UN韓委(UNCOK)의 介入도 容恕할 수 없다.』

南侵 15일前에 이러한 엉뚱한 提案을 放送電波로써 퍼뜨린 이 一味들의 奸計는 또 하나의 宣傳效果를 겨냥한 것이었다. 즉, 大韓民國이 6월 10일에 一顧의 價値조차 없는 것으로 默殺하고, 世界公論의 正道인 UN監視下에 北韓에서의 補選만이 正當하다고 應酬하자, 그 者들은 祖統의 決議文을 UN韓委와 反李承晩系 및 反金性洙系의 政治人들에게 傳達하기

위하여, 이른바 祖統特派員 3명을 6월 11일 10.00에 礪峴(黃海道 七城 北쪽 6km)으로 南派하겠다고 通告하였다.

일부러 時日과 場所를 豫告하여 逮捕當하기를 바라는 造作이었다. 果然, 政府에서 이 3名을 逮捕하였다는 事實을 報道하자, 그 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1주일동안이나 諷에 찬 非難과 辱說을 對南放送하더니, 마침내는 『特派員의 救命을 위하여 武力行進도 不辭하겠다.』라는 威脅的인 發言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6월 13일(南侵 12日前)에는 이른바 祖統中央委員會의 이름으로 對南放送한 發言속에서 『……全朝鮮人民은 同族相殘을 위하여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끝까지 挫折시키려는 美帝의 앞잡이 李承晚徒黨의 野蠻的인 行動에 대하여 激憤을 禁치 못한다. 全體人民은 이 들 祖統特使들의 救命을 위해 強力한 運動을 展開할 것이다.』라고 하여, 武力侵攻의 不可避性을 妥當化하는 口實을 造作하기도 하였다.

#### (4) 要人交換의 提議

北傀는 우리 政府 및 UN韓委의 關心을 吸收하기 위한 또 하나의 煙幕戰術으로써 要人交換을 提議하였다.

즉, 그들이 監禁하고 있는 民族指導者인 曹晩植을 불모로 하여, 南勞黨의 地下工作指導 責인 金三龍과 李舟河의 兩人과 38°線上에서 서로 交換하자는 것인데 당시 金과 李는 이미 우리쪽에서 逮捕中에 있던 巨物級 南派要員이었다.

그 者들의 常套的인 宣傳手法이라하여 一蹴하기에는 比重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政府는 節次의 一切를 UN韓委에 委囑하고, 6월 19일에 『曹晩植先生을 開城까지 보내면, 本人의 健康을 診斷한 뒤에 金·李兩人을 넘겨 주겠다.』라는 條件으로 6월 22일까지의 回答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그 者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回答도 하지않고 黙殺하고 말았다.

政府에서는 또다시 22일밤의 對北放送으로 24일에 礪峴에서 交換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고, 뒤이어 24일에는 『26일 14.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礪峴驛의 南쪽 3km (38°線 以南 1km)地點에서 交換하자. 만약에 또다시 應하지 않을 때에는 常套的인 陰謀로 看做하여, 此後로는 어떠한 要請도 拒否할 것이다.』라고 言明하였다. 이번에도 그 者들은 如前히 可答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回答할 必要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 마땅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해 6월 24일의 이 時點에 있어서 그 者들은 이미 38°線區域에 그 優勢한 侵攻兵力을 展開하여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南北總選이니 要人交換이니 하는 造作된 提議이야 말로 侵攻準備를 進蔽하기 위한 戰略的인 欺瞞策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贅言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結局, 우리 政府는 無備偷安속에서 붉은 이리떼들의 狡猾한 計策에 그스란히 현혹당한 것이고, UN은 共產陣營의 韓半島 赤化野慾을 看破하지 못한체로, 고요한 아침잠속에서 不意의 赤侵奇襲을 當하고만 것이었다.

## 第 3 章

# 北傀의 全面南侵

### 要 旨

1. 北傀의 先制攻撃
2. 江陵地區 戰鬪
3. 春川—洪川、東北地區 戰鬪
4. 抱川—東豆川—議政府地區 戰鬪
5. 高浪浦—汶山—奉日川地區 戰鬪
6. 甕津地區 戰鬪



### 第 3 章 北傀의 全面南侵

#### 要 旨

本章에는 北傀의 先制攻擊으로 惹起된 韓國戰 爭勃發 당시에 38°線을 整備하던 제8, 제6, 제7, 제1사단 등, 4個 步兵師團과 제17獨立연대가, 步戰砲空의 協同으로 全戰線에 걸쳐서 侵攻한 敵을 막아선 緒戰의 狀況을 收錄하였다.

그 概要를 一瞥하면, 東部の 제5사단(장, 李成佳 대령)은 江陵—注文津—芳巖山 一線에서 內陸으로 侵攻한 北傀의 제5사단(장, 소장 馬相堯)과 東海岸으로 上陸코자한 제766 및 제549部隊 등, 2個 사단 規模의 敵과 맞서 5일동안의 激突을 보게 되며, 春川 正面의 제6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소장 金光俠이 이끄는 이틀 제2군단과 春川 및 洪川 부근에서 對決케 된다. 그리고 議政府 正面의 제7사단(장, 梁載興 준장)은 이들 제3, 제4 兩步兵사단 및 제105機甲여단으로 構成된 攻擊集團의 銳鋒을 擋고자 抱川—東豆川—議政府 부근에서 血鬪를 벌이고, 汶山 正面의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이들 제1, 제6 兩사단의 侵攻을 막아 臨津江—汶山—春川 부근에서 險雉를 決하며, 襄津半島를 지키던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는 제3경비旅團(장, 소장 崔賢) 및 제14연대(장, 대와 韓恩來)와 맞서는 등, 38°線 거의 全域에서 同時に 攻防 激突을 보이게 된다.

당시에 北傀는 赤化統一의 野慾을 품고 미리 周到綿密한 計劃을 세워 그 準備를 마친 然後에 總力을 들어 變亂을 이르킨데 反하여 國軍은 아무런 對備도 없이 週末의 休務狀態에서 不期에 對決케 됨으로써 緒戰의 様相은 一方의인 侵攻과 그 防備로 一貫하다 싶이 하였다.

따라서 變轉無變한 戰況이 서로 連繫하여 鱗次之變을 보이게 되는 바, 그 全般的인 상황을

是述하는데 一助코자 戰況을 記述하기에 앞서 第一節에 先制攻擊의 真相을 밝히고, 以下 各節의 戰鬪經過 내용은 資料保存에 重點을 두어 分小隊 단위의 상황까지 追跡코자 해서 보았다.

이 期間中에 특히 제6사단은 春川 北쪽의 牛頭平野에서 北傀 제2사단(장, 소장 李南松)의 先鋒을 大破하여 中原의 要域을 固守한 바 있었으나, 敵의 主力이 侵攻한 議政府 戰線이 開戰이틀 사이에 崩壞됨으로써 그 餘波가 全戰線에 미치고 及其他는 首部防禦로서 北하여 中西部 전선에서 彼我間에 主方으로서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後方의 各 豫備사단이 急遽北上하여, 首都豫備司令部(사령관, 李純贊 대령) 隸下의 제3, 제18 兩연대와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의 3個 연대가 議政府 地域에 赴援하고, 제3사단(장, 劉升烈 대령)의 1個 대대를 비롯한 步兵學校와 陸軍士官學校의 教導隊가 汶山地域에 參加하였으며 마침내 生龍大塚까지 出動하여 襄陵 北쪽의 一隅를 말았다.

그동안에 襄津半島의 제17연대는 成功的으로 擷收하여 仁川과 群山에 分進 上陸하고, 江陵의 제8사단과 春川의 제6사단은 中部의 內陸으로 轉進케 되는 바, 그 內容은 各節에서 詳述하겠거니와, 다만 이들 各部隊는 首都圈의 戰況을 지켜보면서 自體의 作戰을 展開하는 段階에 隨마다 그 全過程을 一括하여 取扱하게 될 것이다.

結果적으로 볼 때에, 本章의 全戰은 防備悲勞의 未洽이 많은 하나의 戰鬪이요, 局地的 戰況은 節節히 戰鬪을 일러주고 있으나, 漏放知識의 거울로 삼아, 勝敗의 理·因을 分析함에 此를 새로운 뜻이 있을 것이다.

## 1. 北傀의 先制攻擊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外面的으로는 偽裝된 平和攻勢로써 野慾을 陰蔽한 金日成의 一味 徒黨에게는 이제 全面南侵의 時機를 決定하는 문제만 남았을 뿐이었다.

比喩하면,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이 齧餌를 눈앞에 놓고, 한꺼번에 兇할 순간만을 노리고 있는 樣相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大韓民國 軍部の 情報系統은 北傀의 軍事的인 動態에 관한 諜報 및 情報의 諸元을 分析하여, 南侵의 危機가 切迫하고 있다는 判斷으로써, 이에 對處하는 非常措置를 政府要路에 建議한 바도 없지 않았으나, 政府로서도 美行政府의 安易한 見解와 無關心에 막혀, 實質的인 對應策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제4장 제3절 軍部の 動向 참조)

### 가. 南侵最終準備의 完了

U.S.S.R 및 中共의 積極적인 軍事支援下에 戰爭準備를 완료한 北傀(제2장 北傀의 侵略準備 참조)는 1949년 末 부터 1~2개월에 걸쳐, 2개 段階의 綜合訓練을 마무리 함으로써, 先制 攻勢를 위한 最終措置만을 남기게 되었다.

#### (1) 最終的인 戰術評價

이 2段階의 綜合訓練은 最終的인 戰術評價를 兼한 것인데, 各 部隊別의 戰鬪訓練을 첫 段階로 끝내고, 이른바 民族保衛省의 戰鬪訓練局이 세운 計劃에 의한 合同訓練을 제2段階에서 실시하였다.

즉, 제1단계의 戰鬪訓練은 U.S.S.R 特別軍事使節團의 統轄下에 실시된 사단 攻擊이었으며, 鏡城(咸北)을 중심으로 제5사단(中共軍 제164사단의 東北義勇軍으로 編成)과 新義州 및 楊市를 중심으로 제6사단(中共軍 제166사단의 東北義勇軍으로 編成)이 각각 動員되었다. 그리고, 제2사단(羅南 駐屯)은 海岸線에서 防空 및 偵察訓練과 各 團 및 大隊單位의 戰鬪訓練을 評價받았으며, 제1사단은 北靑(咸南)을 중심으로 道路破壞 및 偵察訓練에 厝重하였다. 또한, 工兵旅團은 間島(滿洲)에서 築城地帶의 突破訓練을 마친 다음에 大同江 上流에서 渡河訓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綜合訓練에 대하여, 이른바 戰鬪訓練局長인 金 雄은 『제5 및 제6사단은 實戰經

驗이 많은 戰士로 편성된 만큼, 人民軍의 어느 部隊보다도 訓練成績이 優秀하다.]라고 好評하였으나, U.S.S.R 軍事使節團은 「비록 實戰經驗은 많을지 모르나 戰術面에서는 아직도 未熟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하건만, 1950년 2월에 실시한 「敵陣突破 및 敵荷後에의 侵透」라는 步·戰協同訓練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滿足스럽다.]라는 自贊으로써, 그들들의 奇襲南侵의 力量에 스스로 會心의 微笑를 짓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 合同訓練을 고비로 그 者들의 軍事訓練은 뚜렷하게 南韓을 겨냥하기 시작하였다. 즉, 南韓의 氣候·地形·山岳·河川·道路·鐵路·橋梁 등에 관한 分析要目을 訓練教科目에 짜넣었으며, 그 中에서도 특히 漢江 및 臨津江을 비롯한 서울 首都圈 등, 南侵 初頭의 作戰에 格的 存在가 될만한 要地帶에 관하여는 U.S.S.R 製の 戰術地圖(1:25,000)로써 남김없이 그 全貌를 把握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 무렵(1949末~1950初)에 있어서의 韓國軍의 訓練程度는 어떤 하였던가.

8개 사단 모두가, 中隊訓練을 겨우 마쳤을 뿐이었으니(제1장 제2절 軍事情勢 참조), 이 「無備로써 患難을 自招하였던 愚」를 뒤라서 自嘆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 (2) 重裝備의 搬入完了

北傀의 戰力을 만족스럽게 評價한 U.S.S.R은 殘餘 重裝備의 供與를 서둘렀다.

즉, 同年 4월 中旬, 122mm 曲射砲와 120mm 迫擊砲 및 82mm 迫擊砲를 비롯하여 76mm 自走砲와 45mm 對戰車砲로부터 機關銃과 各種 實彈 그리고 通信器材와 車輛 및 工兵器材 등에 이르는 重裝備와 補給品을 滿載한 U.S.S.R의 大型 貨物船 7隻이 Vladivostok港에서 北韓 東海岸의 여러 港口(淸津·羅南 등)로 入港하였는데, 이 모두가 U.S.S.R의 新製品으로서 最終的으로 補充되는 支援武器인 것이었다.

또한 北傀는 제5사단 兵力을 極秘裡에 動員하여, 이 거창한 戰爭物資를 荷役하는 즉시로 鐵原—漣川—福溪—平康—肅川—會寧 등의 各 補給所로 直送하였다.

또한, YAK 戰鬪機 등의 補充供與도 이 무렵에 完了하였는데, U.S.S.R 空軍의 操縱士가 新浦 및 美林飛行場으로 直接 飛來하는, 積極的인 支援을 서두른 것이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Acheson 宣言(1950. 1. 12)을 비롯하여, 短見의인 情勢判斷으로서 對韓政策의 誤謬만을 거듭하고 있던 美行政政府의 消極的인 支援實績에 比하면, 이 얼마나 열정난 後據였던가. 古語에 이르기를, 「勝兵은 先勝而後求戰하고 敗兵은 先戰而後求勝한다.」고 하였거늘 그 者들은 이미 準備에서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不時奇襲을 당하고난 다음에 비로소 눈을 부비고 勝利를 위하여 애를 쓰게 된 것이 그 眞相의 全部라고 할 것이다.

기실, 韓國을 포함한 極東情勢에 밝지 못한 美行政政府의 政策擔當 要路가 Europe 優先에 位置한 나머지, 韓半島의 38°線에 戰雲이 짙게 감돌고 있는 사실을 外面하고 있었다는 것

은 다음과 같은 事例만으로도 充分히 指摘할 수 있다.

즉, MacArthur司令部는 U.S.S.R 및 中共이 北傀를 使喚하여 南侵準備에 拍車を 加하고 있다는 情報을 入手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分析한 결과, 北傀에 依한 南侵이 1950년 6월에 있을 可能性이 甚다는 情報報告를 美合參에 제출한 바도 있었다(同年 3월 1일附). 그러나 美行政府는 『北傀의 南侵可能性이 있더라도 時期的으로 壓迫한 것은 아니다.』라는 엉뚱한 잡꼬대 같은 見解만으로 이를 對岸의 火災視하였으며, 同年 6월 17일에 Truman은 特別使節이라는 빚좋은 개살구格으로 John F. Dulles(美國務省의 顧問)를 보내어 『…美國民은 人間自由의 目的에 忠實하며, 어느 地域에서든지 그것을 榮光스럽게 支持하는 사람들에게 誠實하다…… 韓國民 여러분은 외롭지 않다. 여러분은 人間의 自由를 追求하는 設計에서 自身의 任務를 값있게 계속 遂行하는 限, 決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要旨의 國會議說로서 南柯一夢格인 對韓政策의 方向을 解明하려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韓半島를 一舉에 赤化하려는 共產陣營의 侵略野慾은 이미 이러한 撫摩調의 橫說整說단으로 주춤할 만큼 好爺型의 것은 決코 아니었다.

大韓民國의 이마와 목줄을 겨는 銃口에는 U.S.S.R製의 彈丸이 장전되어 있고, 남은 문제 는 다만 「방아쇠」를 당길 時間뿐이었다.

### (3) 戰費의 調達을 위한 強權發動

1950년 4월 현재로 重裝備의 搬入을 마친 北傀는 自體의 戰費를 充當키 위하여, 住民들 에 대한 터무니 없는 強權을 發動하였다.

農民組合聯盟과 女性同盟 및 民主青年同盟등으로 이른바 祖國保衛後援會를 조직하여 飛行機 및 戰車를 獻納한다는 名目으로 金品을 強募케 하는 동시에, 北勞黨의 全黨員을 일제히 動員하여, 15億圓(同年度 北傀總豫算의 4倍以上에 該當되는 額數)에 達하는 이른바 人民經濟發展債券(同年 5월 15일에 發行決定)을 發行하여 莫大한 金額을 收奪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人民軍隊를 위한 肉類誠出代金이라 하여 大衆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裁縫틀·무명버선·도토리등, 쓸만한 것이면 지저분한 日用品까지도 온갖 美名下에 強制로 供出케 하였다.

이처럼, 金錢收奪과 供出強要가 날로 甚하여지고, 武器輸送으로 因한 交通制限이 커지게 됨에 따라 北韓住民들은 疑惑의 눈물 돌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 一味는 倖必稱 『南朝鮮의 李承晚 軍隊가 쳐들어 온다.』라는 欺騙 宣傳으로써 南侵企圖를 糊塗하면서 38°線에 대한 工作을 서둘렀다.

그 하나가 住民들에 대한 強制疎開令이었다. 同年 3월 中旬부터 38°線에서 5km 以內의 地域에 居住하는 모든 住民들을 後方으로 集團疎開시킨 것이었다. 但, 38°線의 境界線上에 있는 住民들은 除外하였으나, 5km 以內의 모든 家屋에는 警戒兵과 遊擊隊員을 配置하



여, 南韓과의 隔離를 加一層 強化하였다. 南韓의 情報活動과 南北韓 住民의 接觸을 完全히 遮斷함으로써 部隊集結의 秘密을 유지키 위한 것이었다.

北傀는 이와같이 38°線 全域에 걸쳐 企圖秘匿을 위한 自家欺瞞을 철저히 하는 한편, 國軍의 警備部隊에 대하여서는 心理戰을 노리기 시작하였다. 즉 輕飛行機로 宣傳傳單을 뿌리는가 하면 擴聲機로써 『親愛하는 國防軍將兵 여러분, 美帝에 果敢히 抗拒하고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를 積極支持하자!』하는 투의 煽動策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平壤放送도 主로 國軍將兵에게 呼訴한다면서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銃을 들었으며, 누구를 打倒하려는 것인가? 당신들이야말로 人民의 惡毒한 敵인 美帝侵略者들을 打倒하여 당신들이 사랑하는 父母와 兄弟姊妹들을 위하여 그 武器를 使用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速히 武器를 들어 빨지산 部隊나 人民軍隊로 넘어 오라!』하는 調의 그 략듯한 逆宣傳과 煽動을 일삼는 狂態를 되풀이 하였다. 이야말로 疑心暗鬼의 愚昧性을 건 주는 그들의 常套의인 煙霧術數의 하나이었다.

#### (4) 牡丹峰 謀議

사실인즉, 同族屠戮의 下手人인 兇漢 金日成은 갖가지의 權謀術數로써 南侵企圖를 陰蔽하려고 하였는데(제2장 제2절 戰略的 準備 참조), 1950년 4월 1일에 發足시킨 이른바 平和擁護鬪爭委員會로 하여금, 署名運動을 強行케 할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협잡을 피하였으니, 이를하여 牡丹峰會議라는 것이었다.

즉, 同년 5월 17일(南侵開始 39일前), 牡丹峰劇場에 召集된 이 會議는 表面的으로는 이른바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達成키 위한 討論會』라고 粉飾하였으나 그 實相인즉, 하나는 南侵開始에 앞서 黨과 政府, 그리고 軍首腦들의 贊同과 決意를 다지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金日成 自身の 確固不動한 權座를 再確認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召集된 兇徒의 무리는 朴憲永(副首相 兼 外相)·崔庸健(民族保衛相兼 人民軍 總司令官)·朴一禹(內務相)·金一(民族保衛副相 兼 人民軍 文化部司令官)·金武亭(人民軍 砲兵司令官)·許貞淑(文化宣傳相)·姜健(人民軍 參謀長) 등과 各 師團長 全員이었다.

이 兇徒들의 職位만 보더라도 同會合이 南侵에 앞선 軍事密議이었음을 能히 推斷하게 된다.

이 謀議는 魁首 金日成이 指令한 脚本 그대로 進行되었다.

內務相인 朴一禹가 開口一贊으로 뇌까리기를 『祖國의 平和의 統一의 길은 막혀 버리고 말았다. 나에게 武力統一의 先鋒을 맡겨 준다면, 內務省의 兵力—38警備旅團 및 其他 警備隊—만으로도 20일 以內에 釜山까지 攻略할 수 있다.』라고 怪氣焰을 吐하는가 하면, 이에 맞장구치면서 일어난 金武亭이 『우리 人民軍은 強하다. 戰車와 大砲가 있고, 飛行機도 艦艇도 있다. 우리의 人民軍은 반드시 勝利할 것이다.』라고 長嘯睥睨하였다. 이에 뒤

질새라, 崔庸健이 일어서서 『南朝鮮 國防軍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것인가? 우리 人民軍이 정말 그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을까?』하고, 餘裕있게 능청을 떨자, 列座한 各 師團長들이 이때를 노칠새라, 기다렸다는 듯이 異口同聲으로 『勝利는 우리의 것이다. 人民軍 萬歲.』하고 咆哮하면서, 魁首 金日成의 눈치를 살렸다.

夜天에 皎皎한 明月을 向하여 울부짖는 이리데처럼, 피에 굶주린 兇徒들의 密謀에 맞장구치는 女狐도 있었으니, 즉 다름아닌 文化宣傳科 감투를 뒤집어 쓴 許貞淑이었다. 『여러 동무들의 發言을 贊同支持한다. 南朝鮮의 解放은 內務省이나 人民軍 어느 한쪽만이 맡을 것이 아니라, 兩者가 合一하여 貫徹하여야 할 正義의 課業인 것이다.』하고, 쇠소리를 내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魁首 金日成이 거드름 피우면서 『우리는 平和手段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로되, 武力手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時機가 來日이 될지 모래가 될지 모르는 이 마당에서 軍事關係 여러 동무들은 언제라도 迅速果敢하게 武力統一의 必勝을 期할 수 있도록, 이 會議가 끝나는 直後부터 萬端의 차비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미리 脚本으로 마련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研究欄 # 1 참조).

#### 나. 戰爭遂行의 基本計略

그러면, 金日成의 同類一黨들은 어떠한 計略으로써 全面南侵을 決定하였던가. 이들이 劃策한 戰爭遂行의 基本計略을 政略·戰路 및 戰術(作戰計劃)의 各分野에 걸쳐 概括하면 다음과 같다.

##### (1) 南侵政略의 決定

U. S. S. R이 使喚한 北傀의 南侵政略은 네가지로 大別되는 情勢分析을 바탕으로 決定되었다(제2장 참조).

첫째, 美國의 直接介入이 없을 것으로 判斷하였다. 왜냐하면, 제2차 世界大戰의 戰後에 있어서, 美國의 世界政策이 Europe 優先主義에 기울고, 極東 및 Asia에 대한 軍事力이 遞減될 뿐만 아니라, 駐韓美軍의 完全撤收(1948. 12~1949. 6. 28)와 Acheson演說(1950. 1. 12)으로 大韓民國을 美極東防衛圈에서 除外하게 될 것이라는 印象을 내비켰기 때문이었다.

둘째, UN機構의 無力化를 自信하였다. 즉, UN安保理에서의 拒否權을 最大限으로 行使함으로써 局地戰에 대한 UN의 集體的인 拘束力량을 牽制하는 한편, 이에 대한 美國의 操縱能力을 閉止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본 것이었다.

특히, 北傀에 의한 全面南侵을 韓民族 自體의 內戰으로 看做케 함으로써 一切의 外國軍의 介入을 拒否할 수 있을 것으로 探算하였다.

셋째, 大韓民國의 微弱한 單獨防衛能力에 비추어 南侵에 대한 短期席卷이 可能하리라고

白負하였다. 假使, 駐日 美地上軍이 渡海한다 하더라도 그 以前에 미리 決定的인 勝勢를 굳혀 南侵制覇를 既定事實化할 수 있을만큼, 速戰即決의 方針貫徹를 適信한 것이었다.

네째, 極東周邊의 軍事情勢가 더더모에 걸쳐 北傀에 有利하게만 變貌되고 있었다.

즉, 1949년초에 中國全土를 席捲한 中共이 莫強한 軍事力을 바탕으로 抬頭하면서 U. S. S. R.의 極東進出政策과 野合하여, 北傀의 背景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敗戰 日本은 波古領政策下의 不毛地를 밟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駐日美軍의 軍事力도 또한 事端의 自然發生을 豫防할만큼의 牽制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네가지로 要約되는 情勢分析으로 이론바 赤化革命의 政略을 決定한 北傀는 戰爭與件을 造成키 위하여 2段階의 對南工作을 執拗惡辣한 手法으로 쳐나갔다.

그 제1段階에서는 南勞黨의 地下勢力과 南派工作員의 工作으로 南韓大衆의 呼應을 피하였으며, 제2段階에서는 共匪投入으로 大韓民國의 內部崩壞를 피한 다음에, 제3段階의 正規戰(全而南侵)으로 赤化革命을 마무리하리는 것이었다(제2장 참조).

## (2) 基本戰略의 決定

北傀는 正規戰의 基本戰略을 短期速決方式으로 決定하였다. 이론바 「高度의 機動力」과 「集中된 打擊力」으로 國軍을 最短期內에 擊滅하기 위하여,

첫째, 首都 서울을 不時에 急襲함으로써 一擊에 奪取한 다음 곧 漢江 以南으로 戰果를 應急擴大함으로써 主攻軸線의 先制威力을 有利하게 휘두르며,

둘째, 東·西 兩海岸線과 南海岸一帶를 早期에 制壓함으로써 釜山까지의 急速한 主攻突進에 寄與케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首都 서울까지의 最短距離인 鐵原—漣川—議政府—서울의 軸線에 主力을 指向하고, 漢江 以北에서 國軍을 捕捉殲滅키 위하여 漣川—春川—加平—서울의 迂迴撥動을 策하였다.

이처럼 「서울占領」을 제1차 목표로 決定한 것은 U. S. S. R 軍事教理의 「決定的인 攻勢로 敵主力을 擊破하고, 領土를 占領한 뒤에 敵의 抵抗意志를 破碎한다.」라고 하는 基本概念에 따라 「大韓民國의 政治 및 經濟的 中心인 서울地區를 解放하고, 漢江線 以北에서 韓國軍主力을 擊滅한 뒤에 連續的인 攻勢로써 釜山까지 突進하여 南韓 全地域을 解放한다.」라는 基本戰略에 立脚한 것이었다.

## (3) 作戰指導의 基本方針

이 基本戰略은 다시 4次에 걸친 作戰段階로 區分되었다.

『제1차 作戰……38°線 突破後 2~3日內에 서울을 解放하고, 江陵 및 春川地區를 攻擊當口로 占領한다.』

제2차作戰……交通·經濟 및 軍事的으로 要衝인 平澤—忠州—堤川地區를 解放하고, 韓國軍 殘存部隊의 抵抗力을 粉碎키 위하여, 漢江線 以南으로의 戰果擴大와 追擊戰을 強要한다.

제3차作戰……果敢한 攻勢와 迅速한 機動으로 湖南平野와 東·西 兩海岸線 및 南海岸一帶를 掌握한다.

제4차作戰……最終目標인 大邱 및 釜山을 解放한다.』

北傀는 이와같은 作戰段階를 最短期間內에 遂行키 위하여, 攻勢의 主軸을 議政府—서울—水原—大田—大邱—釜山의 幹線國道로 指向하는 機動計劃下에 제1군단 이하의 제3 및 제4의 2개 사단과 제105戰車旅團(제107, 제109연대)을 全谷—東豆川—議政府—서울線으로 投入하고, 제1 및 제6의 2개 사단과 1개 機甲연대를 開成—汝山—서울線으로, 그리고 제2 및 제7의 2개 사단과 1개 戰車연대를 華川—春川—洪川線으로 각각 聲勢기로 하였다.

한편, 太白山脈으로 隔離된 東海岸의 江陵方面에는 제5사단과 제76부대(遊擊部隊) 및 제549부대(陸戰隊)를, 漣津地區에는 제6사단 이하의 1개 연대와 38警備 제3旅團의 一部兵力을 使用할 계획이었다.

그 總兵力은 111,000명이고, 各種 砲 1,610문, 戰車(T-34型) 130대, 自走砲(SU-76) 128대 이었다.

韓國軍을 壓倒的으로 凌駕하는 이 優勢로써 제1차作戰(서울占領과 橫城—利川—水原線까지의 進出)을 7월 3일까지, 제2차作戰(大田—安東線까지의 進出)을 7월 15일까지, 그리고 제3차作戰(浦項—大邱—馬山線까지 進出)을 7월 29일까지, 제4차作戰(釜山占領)을 8월 13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던 北傀는 各進出方面의 作戰指導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즉, 漢江線 以北에서는 首都 서울을 直衝함과 동시에 38°線에 배치된 韓國軍의 主力을 方面別로 殲滅하고, 서울 占領後에는 京釜幹線을 沿하는 主攻軸線과 아울러 4개 方面의 助攻線을 併行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助攻線의 最終目標도 역시 釜山이었으니, 原州—堤川—安東—永川—釜山線이 그 하나이고, 廣州—長湖院—忠州—尙州—軍威—永川—釜山線과 大田 以南에서 湖南 및 慶南地域으로 迂回하는 線, 그리고 東海岸의 蔚珍—浦項—慶州—釜山線등 南韓全域을 大縱斷으로 휩쓸 작정이었던 것이니, 말하자면 도마위에 올려놓은 생선을 제마음대로 料理하자는 수작이었다.

#### (4) 南侵時機의 決定

北傀는 이와같이 勝算을 自負하면서 戰爭遂行에 必要한 準備를 充分히 完了하고, 南侵時機를 1950년 6월 25일 04.00로 決定하였다.

무슨 理由와 어떠한 目的으로 이 時日을 擇한 것인지, 그 真相을 記錄한 文獻上的 典據는 없으나, 北傀의 金日成一黨이 U. S. S. R의 走狗로서 全面南侵의 戰爭準備를 서둘렀던 經緯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緣由로써 擇하였으리라는 것으로 推定하게 된다.

첫째, 1948년 中旬에 Moskva에서 U. S. S. R軍의 首腦와 中共 및 北傀의 軍事代表가 會同하여 極東侵略에 관한 戰略問題를 謀議하는 자리에서, 北傀의 軍事力을 育成하고 現代化하는데 필요한 期間을 18개월로 잡았는데, 그 完了時期가 바로 1950년 6월이었다.

이 18개 월간에 遊擊 및 戰鬪사단을 編成하고, 戰車部隊의 裝備과 空軍力의 強化, 그리고 燃料 및 各種 補給品을 支援함은 물론, 合同機動演習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訓練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U. S. S. R 및 中共의 積極인 支援進도로 北傀가 全面南侵에 充分한 戰備를 갖추게 된 것은 이미 1949년 8월末로 앞당겨졌으므로 殘餘期間은 戰備의 補充과 時機造成을 위한 對南工作으로 充當한 것이었다.

둘째, 奇襲攻擊의 最大效果를 노려 日曜日인 6월 25일을 擇하였을 것이다.

일찌기 舊日本海軍의 機動艦隊에 의한 Pearl Harbor奇襲成功과 Nazi 獨逸軍의 機械化部隊에 의한 Poland奇襲 成功의 先例가 있기는 하지만, 北傀가 노린 日曜日 奇襲은 Stalin의 持論인 軍事敎理에 따른 것으로 推定된다(研究欄 # 2 참조).

셋째, 이 日字는 軍事的인 面보다도 政治的인 效果를 計算한 것으로 보인다. 즉, 光復 50週年을 釜山에서 記念하여, 北傀에 의한 韓半島統一을 誇示하려는 金日成徒黨은 이 8월 15일에서 逆算하여 50일째가 되는 날인 6월 25일이 形便 좋게 日曜日과 겹친 點을 노린 것이었다.

50일간이란, U. S. S. R의 軍事顧問團과 北傀가 계산한 作戰期間이었다. 釜山까지 50일이면 足하다는 것이었다. 38°線에서 釜山까지 480km이니, 하루평균 10km의 進擊速度로 作戰할 수 있다는 概念에서 짜낸 計數이었다.

더구나 7월이면 韓半島 特有的인 雨季이어서, 機甲 및 砲兵部隊등의 戰術機動이 不利해질 것이라는 點을 알면서도, 이렇게 短期間을 계산한 것은 絶對的인 戰力의 優勢로써 豫定日字를 2~3週間이나 短縮시킬 수도 있다는 勝算을 內包한 때문이라고 하니 이러한 敵의 黑心을 善意로만 보아넘기려고 한 우리쪽이야말로 可謂 宋襄之仁의 愚昧性을 窺치 못할 것이다.

#### 다. 侵攻部隊의 戰鬪展開

그러나, 이 悖怪스러운 北傀의 侵攻野慾은 6월25일을 向하여 刻一刻, 同族相殘의 腥風을 몰아부치기 시작하였으니, 北傀의 民族保衛省과 U. S. S. R의 軍事顧問團은 牡丹峰의 密議를 契機로 侵攻開始를 앞둔 頭目들의 鳩首會議가 連日 벌어졌다.

그리하여 6월 11일에, 民族保衛省은 前後方의 全 師團長 및 旅團長級 以上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秘密會議를 열었다.

作戰局長인 金光俠(소장)이 『……戰鬪사단을 總動員하여 機動演習을 실시한다.』라는 要旨의 長廣舌을 늘어 놓았고, 參謀長인 姜 健은 『어떠한 敵의 攻擊도 물리칠 수 있는 準備態勢를 6월 23일까지 갖추라.』라고, 口頭命令을 내렸다(研究欄 # 3 참조).

換言하면, 全面南侵의 戰鬪展開를 위하여, 機動演習을 假裝한 秘密會議였던 것이다.

그 다음 날인 12일, 이른바 北傀人民軍은 2개 軍단의 戰鬪編制로 改編되어, 제1軍단장에 金 雄(중장, 前 民族保衛省의 訓練局長)이, 제2軍단장에 金光俠소장이 각각 任命되었다.

그리고 제2軍단의 政治委員에 金 燦(蘇系·前 財政副相)이, 南日(前 教育副相)과 金 烈(前 黨組織部長)이 後方擔當의 軍官으로 각각 起用되었다.

한편, 機動演習을 假裝한 各 사단(侵攻部隊)은 6월 23일까지 38°線 全域으로 移動配置되었는데, 그 移動 및 配置狀況은 다음과 같다.

#### (1) 侵攻部隊의 38°線 配置完了

東海岸方面을 專擔할 제5사단은 22일에 羅南을 출발하여 元山—襄陽으로 移動完了하였으며 元山에 駐屯중이던 제7사단은 6월 18일에 楊口로 配置되었다(研究欄 # 4 참조).

6월 12일, 元山을 출발한 제2사단은 鐵原—金化—華川으로 移動完了하였으며, 會寧에서 待機중이던 제766부대도 이날부터 移動을 시작하여 杆城으로 向하였다.

그런데 제766부대는 主로 南勞黨員 및 江東政治學院의 출신으로 編成된 遊擊部隊인데, 南侵開始와 동시에 江陵附近의 海岸線으로 上陸하여, 太白山脈을 타고 南下하면서 韓國軍의 後方을 攪亂衝擊하는 遊擊戰을 主任務로 하려는 것이었다.

위의 3개 사단과 1개 遊擊部隊 및 제549부대(陸戰隊), 그리고 38警備제1旅團을 基幹으로 하는 제2軍단은 華川에 軍團司令部를 설치하고, 韓國軍 제8 및 제6사단 正面에 대한 攻擊을 담당하였다.

한편, 金川(黃海道)에 司令部를 설치한 제1軍단의 이하 各 사단도 6월 23일까지 配置를 完了하였다.

즉, 제3사단이 23일에 平康을 출발하여 雲川里로, 22일에 鎭南浦를 출발한 제4사단이 平壤—南川을 거쳐 漣川으로 각각 移動하였다.

특히, 攻勢의 主軸을 이루게 될 제105戰車旅團 이하의 제109戰車연대는 平壤에서 南川으로, 제203戰車연대는 鐵原으로 각각 移動하여, 22일에는 이미 38°線에 接한 제1선 길속히 進出하고 있었다.

이로써 首都 서울을 2~3일 內에 直衝하려는 主攻軸線上에 제3, 제4의 2개 사단과 戰車部隊의 主力을 集中配置한 것이었다.

開城 및 鹽津方面으로 進出을 노리는 제1사단은 23일에 南川—九化里(高浪浦의 南쪽)로, 제6사단은 同日에 沙里院—鷄井(開城의 北쪽)으로, 同 사단의 1개 연대(제14연대) 및 38 警備제3旅團은 海州와 竹川으로 각각 移動하였다.

이와 같이 7개 보병사단과 1개 戰車旅團 및 2개 警備旅團, 그리고 2개 特殊部隊로써 侵攻제1선의 主戰部隊을 南侵開始 2일前인 6월 23일까지 38°線 一帶에 展開시킨 北傀는 戰略豫備로서 제10, 제13의 2개 사단을 新義州 및 肅川에 각각 控置하고, 會寧에서 急編한 제15사단을 제1군단의 豫備로서 華川으로 移動시키는 한편, 內務省소속인 38警備保安隊를 基幹으로 2개 사단(제7, 제8사단)의 增強을 예정하였다.

## (2) 偵察命令 제1호 下達

38°線 全域에 걸친 戰鬪展開가 計劃대로 進陞됨에 따라, 北傀의 民族保衛省은 6월 18일 附로 이른바 偵察命令 제1호를 각 사단에 下達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4사단장 앞으로 내린 命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研究欄 # 5 참조).

제4사단장 앞.

### 정찰명령 No 1.

1950. 6. 18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지도 1 : 50,000 · 1949년도판)

1. 야포대를 포함한 적 제7사단 제1연대는 임진강으로부터 538.5고지에 이르는 지역에 방어전을 치고 있다.

38선 방어전초는 동선상의 고지북방 사면일대에 포진하고 있다.

적 저항의 주력선은 217고지와 411고지의 북방측면인 색교리 및 630고지 서북방과 북방 측면에 걸쳐 포진하고 있다. 좌측의 적 방어전은 제1사단 제13연대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 좌측면에는 제7사단 제9연대가 포진하고 있다.

2. 공격태세가 완벽하게 되면 공격에 앞서 다음의 항목을 필요로 한다.

(1) 적 저항의 주력선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뢰시설과 철조망 그 밖에 바리케이트 및 참호간의 통로 그리고 무보루지대를 정확히 파악할 것.

(2) 참호의 시설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참호와와의 연결을 긴밀히 하고, DOT(註: 콩크리트 토오치카) · DZOT(註: 흙과 林木으로 쌓은 堡壘) · NP(註: 觀測所) · 방어화기 보급 및 집중사격조직을 정확하게 결정지을 것.

(3) 적 주력의 위치와 내일의 작전계획을 결정지을 것.

(4) 야포공격의 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소총사격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 지을 것.

(5) 공격개시후 2일이면 정확한 지도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 공병의 위치를 지도상

에서 파악할 것.

공격이 시작됨에 따라서 적 부대를 뒤덮는 새로운 공격목표를 예의 탐색하여, 적 저항의 중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분열된 적군이 어디로 후퇴하는가를 정확히 관측할 것.

일선부대가 적성지역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등진선으로 가납리와 적성방면의 신 공격부대를 조직하고, 의정부도로 연선에 따라서 적 방어진을 쫓아 후방으로 부터의 원병도착을 피할 것.

양주와 하가리에 도달된 후에는 하양—로혹리간과 가납리—부곡리 및 소도리간에 걸친 신공격을 위하여 부대를 구성할 것.

그리하여 수도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적의 가능한 모든 저항선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도록 할 것.

서울에 전격함에 따라서 서울주둔 적군의 집결상황 및 포진상황 정보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

3. 24시간 동안에 정보개요를 기필코 매일 19시까지 전화 혹은 부건으로 정보본부에 발신할 것.

일반정보서 및 적군의 서류 그리고 심문서등을 입수할 경우에는 매일 8시와 20시까지 정보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4. 3분의 1의 공격부대를 관측소 부근에 배치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적의 주력공격을 완수하는 병력으로서 배치할 것.

각 연대는 3내지 5인으로 구성된 분대를 편성하여 전선에서 노획한 적의 문서를 수집케 할 것.

(공 2부작성, 1부는 사단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보본부 사령관.』

이 偵察命令의 要旨인즉, 『南侵開始前에 韓國軍의 配置狀況과 防禦施設에 관한 正確한 作戰地圖를 作成키 爲하여 偵察行動을 取할 것과, 攻擊開始後에는 서울로 通하는 攻擊線에서 韓國軍의 抵抗中心地를 偵察報告하라.』라고 命令한 것이다.

### (3) 막바지의 口實造作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北傀는 38°線 全域에 걸쳐 全面侵攻의 戰鬥展開를 마치는 한편으로, 南侵口實의 막바지 造作을 위한, 政治的인 詐欺劇을 꾸며 내었다.

즉, 元兇인 金日成은 可憎스럽게도 1950년의 劈頭에 이른바 新年辭라 하여 『……1950년에는 人民軍隊 및 國境警備隊와 保安隊는 戰鬥態勢를 갖출것이며, 언제든지 敵을 무찌를



각오가 서있어야 할 것이다.……勝利는……正義의 鬪爭을 하는 全體人民의 便에 있다. 1950년에는 祖國統一을 위한 해가 되기를 祝願하며 勝利를 向해 前進하는 全體朝鮮人民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挑戰의인 덕두리를 늘어놓고 나서는 이른바 祖統으로 하여금, 對南工作의 經緯를 最高人民會議의 常任委員會(北傀의 憲法上, 宣戰布告할 수 있는 唯一한 機關)에 報告하는 形式을 取한 것이었다(제2장 제2절 참조).

羊頭狗肉格으로 내놓은 이른바 平和統一을 達成키 爲하여서는 國家權力機構를 통하여 可能한 모든 方法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6월 19일에 北傀의 最高人民會議는 『南朝鮮의 李承晚徒黨이 祖國의 平和統一을 妨害한다.』라고 公言하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決議하였다.

『(1)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最高人民會議와 大韓民國의 國會를 單一한 朝鮮共和國의 立法機關으로 統合함으로써만 成就된다.

(2) 위의 立法機關으로써 共和國憲法을 制定하고 政府를 定하여야 한다.

(3) ……(省略)……

(4) 民族叛逆者인 李承晚, 李範奭, 金性洙, 申性模, 趙炳玉, 尹致暎, 張澤相, 白性郁은 逮捕되어야 하고 모든 政治犯은 釋放되어야 한다.

(5) 立法機關에 의하여 組織된 政府는 民主的 基礎에 立脚하여 南朝鮮에 存在하는 軍隊와 警察을 各々 單一軍隊와 警察로 統合한다.

(6) UN韓委는 即時 朝鮮에서 撤收할 것을 要求한다. 朝鮮人民은 外勢의 介入없이 그들 自身만으로써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決定하여야 한다.

(7)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모든 措置는 1950년 8월 15일까지 完了되어야 한다.

(8) 大韓民國의 國會가 協商을 願한다면 朝鮮人民共和國의 最高人民會議는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協商을 갖기 爲하여 代表를 派遣할 準備가 되어 있다.』

이 얼마나 可憎스럽고 駭怪스러운 수작이었던가. 6월 21일을 時限으로 하여, 和·戰 兩者擇一을 可笑롭게도 強要한 最後通牒이었다. 大韓民國이 宜當히 一蹴할 것으로 계산하고 弄奸부린 막바지의 政治的인 假面劇이었다.

果然, 大韓民國 政府가 이를 正式으로 拒否하자, 北傀의 金日成一黨은 기다렸다는듯이 北韓全域에 걸쳐 大韓民國을 誹謗하고 糾彈하는 「強制示威」를 強行하였다.

이른바 最高人民會議의 提案을 支持하고, 李承晚 大統領을 비롯한 大韓民國의 政界要人을 即刻 處斷할 것과 早速한 時日內에 이른바 「祖國統一」을 達成하여야 한다는 人民의 소리라는 것을 요란스럽게 꾸며낸 南侵口實의 變裝術이었다.

이리하여 南侵開始 하루전인 6월 24일에 康良煜(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書記)으로 하여금, 『……腐敗하고 反動的인 分子가 如何한 手法을 取하든 常任委員會의 提案을 朝鮮人民으로부터 封鎖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 提案에 呼應하는 人民의 외침을 抑制하지

Противник Мана и дивизия.

Приказание на разведку №1 Геншта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16.6.1950 г. Карта 50000-1949.

1. Противник, 1 полк 7 дивизии в арванной арванерес обороняет участок от Индри-чон до вил. 530,5 (0625). Передний край обороны в 300 метров по сев. окраину вилы у параллели.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ва по сев. окраину вил 217,0 (0622). Силосы (0626), вилы вил. 411,5 (0623), с-з и сев. окраины вилы (0620, 0622). Восточная часть дорог от параллели на Гансонги (9824) и Бундунги арванной разведкой обнаружены оборонитель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озднее возможно разведка обнаружит в районе вил 249,7 (0026). Краевая оборона в 15 км и юг, сев. 9 км 7 дивизии.

2. С вилкой дивизии в исходной для наступления положении и до начала наступления наблюдатели и поиски в ночь перед атакой обеспечить:

- точно определить уклонный и прямой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наличие и расположение минных полей, проволочных заграждений и других препятствий, наличие и места незагражденных участков и проходов в заграждениях.

- точно определ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траншей, ходов сообщения, ДОТ, ВДОТ, КП, наличие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систем огня. Выявить до расположения основных позиций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и рывки дым.

- Выявить основн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минометов и кольтер наметить ориентиры. Выявить различные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е орудия, особенно на подступах к дзирге.

- К началу второго дня по вилке на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выработаны уточненные карты уклон и карты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С началом наступления:

Точно непрерывно уточнить наблюдатели до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данных ночью, прирывавшие дзирге; выявлять своевременно новые уклон и огни инженерных препятствия; следить куда отходят связи противника.

전후병정 181, 이따르와살모쿠 수키리에서  
1921년 6월 22일 14.00 적도 2000 1922년 6월 22일

수군의 표면은 연과는 적의 7분사... 인... 발사...  
북사단은 수군의 수직상관시... 2함선 관음(18.18) 18.20은  
(19.33) 에신... 수의... 발사... 19.11.11)  
19.11.11 (19.33) 제선...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수적...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당시...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19.11.11...

못할 것이다.』라고 暴言케 하면서 武力侵攻이 不可避하다는 印象을 풍기었던 것이다.

(4) 戰鬪命令 제1호 下達

그런데, 이 政治的인 막바지 演劇의 裏面에 있어서 U.S.S.R의 軍事顧問團은 6월 22일 字로 北傀의 이른바 民族保衛省에 命하여 「戰鬪命令 제1호」라는 것을 38°線 全域에 戰鬪 展開한 侵攻 제1선의 각 사단에 下達케 하였다.

不俱戴天의 民族의 怨讐인 金日成殺人徒黨들은 이로써 同族相殘의 慘劇을 빚어내는 全面南侵의 방아쇠를 잡아당기게 되었으니, 제4사단의 命令書로써 그 指畵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전투명령 No 1

제4보사참모부 옥제리에서

1950년 6월 22일 14.00

지도 1 : 50,000. 1948년도판

1. 아군의 공격전면에는 적의 7보사 1보련이 방어한다.

2. 본 사단은 군단의 공격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05.18) 아장동(23.38)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종임무로서 마지리, 536.2 교지굴 점령한 다음에 차후로는 의정부, 경성 방향으로 진출한다.

공격준비는 1950년 6월 22일까지 완료한다.

3. 우익에서는 제1보사가 공격하며, 그와의 분계선은 막태동, 노공리, 방정리, 피봉이며 막태동외의 기타 지점들은 4보사에서 제외한다.

좌익에서는 제3보사가 공격하며, 그와의 분계선은 부향동, 583.5교지, 534.6교지, 519교지, 337.1교지들이며, 이 모든 지점들은 4보사에서 제외한다.

4. 주공은 좌측 대도로 방향으로 지향하며,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한다.

5. 제18보련은 야포 1개 대대, 45mm포 1개 중대, 로켓트 1개 대대, 공병 1개 대대, 전차 1개 대대, 반전차포 2개 소대를 배속받아, 광동과 사함리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초임무로서 동명천 계선을 점령한 다음에 최후임무로서 마지리와 263교지 계선을 점령한 차후에는 향동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할 것.

전술한 각항의 작전은 제13보사 제13야포연대와 대전차포대대에서 파견되는 대전차포 중대의 엄호아래 수행될 것이며, 동시에 76mm포 1개 중대, 45mm포 1개 중대, 그리고 제5보련에서 파견되는 제2대대, 45mm포 1개 중대, 동대대 82야포중대의 엄호아래 수행될 것이다.

우익에 있는 제16보련은 음내리, 새집, 사장리, 289교지, 당내, 청패, 송강리에 연하

는 전투선에 있을 것이며, 이들 좌익선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확보책임은 동 18보련장에게 부과된다.

6. 제16보련은 사포련의 2·3대대, 사단야포대대의 1개 중대, 사단자주포대대의 2개 중대, 전차중대의 2개 중대, 45mm 포대대, 반전차포중대의 2개 소대, 공병대대의 1개 중대와 함께 사당리, 캐거리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초임무로서 양원리, 패하리 계선을 점령하고, 최후임무로는 362고지, 536.6고지 계선을 점령한 다음, 차후로는 의정부방향을 공격할 것.

연대의 전투를 13보사의 야포연대, 반전차포대대의 2개 중대, 76mm 연대포의 2개 중대, 연대 45mm포 2개 중대, 5연대의 76mm포 중대, 120mm포 중대, 82mm포 2개 중대가 지원한다.

좌익 분계선은 사단분계선이며, 보장책임은 16보련장이 진다.

7. 제5보련(1개 대대 제외)은 사단의 제2대대로서 제16보련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362고지와 532.6고지 계선에서 전투진입을 준비할 것.

제5보련 1대대장은 반전차포 1개 소대, 반전차포 2개 분대, 포기관총 2개 분대, 공병 1개 소대와 보병 1개 소대로 습격조를 조직할 것. 습격조 지휘관은 보병 소대장이다.

8. 제5보련의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를 받아 18보련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지리와 동명천 계선에서 전차진입을 준비할 것.

9. 군단포대대는 나의 수하대대로 한다.

포병준비사격은 30분간이며, 그 중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전반적 포병의 임무.

포병사격은 분간이며……(以下 空白不明)…….

돌격준비시기.

- (1) 적의 방어전면에 총력량을 집합할 것.
- (2) 적의 포병진지를 압도하며 토목화점 영구화점을 파괴할 것.
- (3) 적의 방어전면 장애물에 도로를 개설할 것.
- (4) 철방, 우점동, 조촌리에로의 적의 집결을 불허할 것.
- (5) 방어전면 감시소로부터의 적의 감시를 불허할 것.

돌격지원시기.

- (1) 보병과 전차 자주포의 공격을 마지리, 마차산, 535.6고지 후방까지로 할 것.
- (2) 경성으로 통하는 대로양측에 있는 적의 토목화점과 영구화점을 파괴할 것.
- (3) 적의 포병진지에 반포사격을 실시할 것.
- (4) 공사용으로 통하는 도로와 호사리,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적의 반돌격을 불허할 것.

(5) 등두천의 한사리 구역에 적의 집결을 불허할 것.

(6) 적의 지휘소를 파괴할 것.

중심전투시기.

(1) 퇴각하는 적의 퇴각로를 차단할 것.

(2) 반포사격을 계속할 것.

(3) 적의 후송로와 주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등두천 옆을 파괴할 것.

(4) 사단 최초임무 수행시는 대천, 요공리, 한사리, 기존 구역에 적의 집결을 불허할 것.

(5) 의정부방향으로 부티의 적의 반 돌격부대 집결을 불허할 것.

포사격준비완료는 1950년 6월 23일 24시 00분까지이다.

10. 항공대의 임무.

(1) 사단의 작전지구를 가능한 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한다.

(2) 적의 군사시설 역전을 파괴할 것.

(3) 적의 집결과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한다.

(4) 적의 도로를 파괴하며 접근을 불허한다.

11. 반항공대책은 각 전력자체의 고사기대로써 할 것이며, 적기 내습시는 보병무기의 30%를 동원할 것.

사단 항공감시 연락초소는……(以下 空白 不明)……고사기관포중대는……(以下 空白 不明)……사단지휘소지구를 엄호할 것.

12. 반전차에비대는 45mm 대대의 1개 중대와 공병중대로써 하며, 제2대대의 뒤를 따라 공격하면서 중심으로 침입하는 적 기계화부대의 침입을 불허할 것.

각 부대에서 자체의 반전차화력기재로써 반전차대책을 수립할 것.

13. 사단 군의소는 1950년 6월 20일 부터 지도상의 (23.30)에 위치하며, 21일 이후에는 (23.31) 구역에 위치한다.

14. 사단 지휘소는 협곡(13.27)이며 감시소는 (03.11)인바, 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15. 보고는

(1) 공격준비 완료 후

(2) 공격개시 후

(3) 1일 임무 완료후 각각 무전 및 서류에 의해 제출할 것.

(4) 그타 보고는 2시간에 1차씩 할 것.

(5) 서면보고는 매일 2차씩 하되 7시와 19시 정각에 도착될 것.

## 16. 기본신호

No	신 호 내 용	신 호 탄	전 화	부 건	
1	포 격 개 시		목	문	224
2	둔 격 개 시	목 색 신 호 탄			224
3	포 병 공 지 격 시	붉 은 신 호 탄	목	중	333
4	둔 격 지 원 격 시	루 색 신 호 탄			111
5	사 격 중 지	백 색 신 호 탄	사	격 중 지	222
6	화 력 호 활	격 색 · 녹색신호탄	방	라	444

## 17. 제1대리인 참모장, 제2대리인 16보련장.

(3부 작성)

제4보병사단장 이권무

참모장 허봉학

## § 研 究

## (1) 牡丹峰 密議의 한 斷面

北傀의 魁首 金日成(本名, 金成柱)이 南侵開始 39일 前인 1950년 5월 17일에 召集한 牡丹峰 密議는 사단장級 以上の 人民軍 頭目들로 하여금, 南侵遂行을 誓約케 하였다는 點에서 注目되는데, 이 자리에서 朴憲永만이 確鑿 緘口無言이었다고 한다. 對南戰略面에 있어서 『全面的이고 短期決戰의인 武力南侵만이 唯一한 統一遂行의 方策이다.』라고 主張하는 金日成의 持論에 對하여 『全面戰은 美國의 介入과 UN의 干涉을 招來할 것인 즉, 段階的인 局地占領으로써 南北協商의 主導權을 장악하여, 國內的인 自決形式으로 赤化統一을 達成하여야 한다.』라는 異見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제2장 제2절의 『對南戰略의 決定』 참조).

1949년 12월 初의 이른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이 兩者의 異見이 처음으로 表面化하였는데, 金日成으로서는 U. S. S. R의 使囑로 全面侵攻을 主張한만큼 『戰爭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장교대 같은 수작이다.』라고, 朴憲永의 異見을 잘아듣지 않으며, 『일단 軍事行動을 일으키면 全面的이고 電擊的이어야 하므로 나의 主張대로 戰爭을 遂行해 나갈 것이다.』라는 獨裁權을 發動시켰다.

牡丹峰의 密議는 이 主張을 다시 確認케 한 것이었다.

한편, 朴憲永으로서는 그나름대로의 對南戰略이 長期眼點에 비추어 妥當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謀議席上에서 까지도 異論을 提議하는 것이 身上의 危險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緘口無言으로 同意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결국, 戰爭失敗의 責任을 轉嫁당하여 李承燁과 더불어 肅清의 斷頭臺에 올라야만 하였지만, 그가 身負하였던 南勞黨勢 50만명 說은 金日成의 南侵野慾을 刺戟하는 하나의 要因이었다.

즉, 朴憲永과 李承燁등 南勞黨出身의 頭目들은 保身策의 하나로써 『南韓에는 50만명의 南勞黨員이 地下에 숨어 있다.』라는 架空數字를 捏造하여, 南勞黨의 隱然한 勢力을 誘示하려 하였으며, 『全面南侵을 決行하기만 하면, 南韓各地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地下勢力 50만의 南勞黨員이 일제히 暴起하여 暴動과 後方攪亂을 敢行할 것이니, 戰爭을 2주일안에 끝장낼 수가 있다.』라고 까지 放言하였던 것이다.

## (2) Stalin의 軍事敎理

Stalin은 제2차 世界大戰前까지만 하여도 『奇襲이 戰爭의 原則이 될 수 없다.』라고 主張하였

으나, 1941년 6월 22일에 Nazi 獨逸軍의 奇襲侵攻을 받고 나서는 從前의 軍事敎理(5개項: 後方의 完全·軍의 士氣·師團의 質量·軍의 武裝·指揮官의 組織能力)에 奇襲의 1개 項을 追加하여, 그 作戰上의 效果를 重要視하였다.

### (3) 金光俠의 長廣舌

1950년 6월 11일, 北傀民族保衛省의 作戰局長인 金光俠(소장)은 召集한 各 旅團長級 以上の 指揮官 및 參謀들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우리 人民軍隊는 지금껏 各 單位까지의 戰鬥演習은 해왔으나, 금번 戰鬥單位를 總動員하여 機動演習을 하게 되었다. 本演習에는 모든 基本部隊는 물론, 兵器의 一切와 全裝備가 示威될 것이다. 從前의 演習에 있어서는 指揮官級의 缺陷이 往往 지적되었으나, 이번에는 誰何를 막론하고 全力을 다 발휘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기 바란다. ……그리고 本機動演習은 多少 오래 걸릴지 모르겠으나, 2주일이면 足할 것이다.

그러나 各者는 雜多한 携帶品이 필요없으며, 期間中에 필요한 地圖와 書類정도면 充分할 것이다. 특히 本演習은 嚴秘裡에 舉行되는만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며, 家族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銘心하여 秘密을 지키라.』

### (4) 北傀 各 師團編成의 骨幹

北傀는 中共軍출신의 韓人系 兵員으로써 各 師團編成의 骨幹으로 하였다. 兵力補強과 質的向上을 위한 것이었다.

1949년 1월, 哈爾濱會議(U. S. S. R·中共·北傀)에서 約定된 바에 따라, 이른바 東北義勇軍의 이름으로 同年 7월부터 大舉 入北한 이들은 國共戰과 對日戰에서 얻은 實戰經歷을 報酬으로 삼아, 南侵軍勢의 骨幹이 된 것이었다.

즉, 同年 7월 25일에 新義州—安州로 入北한 中共軍 第 166사단 출신의 10,000명으로써 北傀 第 6사단(제 13, 제 14, 제 15의 3개 연대)을 編成하였으며, 同年 8월 23일에 會寧—羅南으로 入北한 中共軍 第 164사단 출신의 10,000명으로써, 第 5사단(제 10, 제 11, 제 12의 3개 연대)을 編成

하였다.

그리고 中共軍 第 20사단 출신과 中國 各地에서 急募한 10,000명을 1950년 4월 15일에 元山으로 入北시켜 第 7사단을 編成하였는데, 南侵初戰에서 洪川突破에 失敗하여 同年 7월 2일附로 第 12사단으로 改編되었다.

이 밖에도 第 2차 世界大戰 당시, U. S. S. R의 Stalingrad 防禦戰에 參戰한 바 있는 韓人兵員 2,500명을 支援받아 各 師團의 要職에 充當하는가 하면, 軍官의 3분의 1을 中共軍출신으로 充補하여 第 1, 제 4, 제 5, 제 6, 제 7의 各 師團에 重點配置하였다.

또한, 第 1 및 第 4의 2개 師團에도 이들 義勇軍으로 編成된 1개 連대씩이 編入되었던 것이다.

### (5) 偵察命令 第 1호의 內幕

1950년 6월 18일附로 北傀의 前方 各 師團에 下達된 偵察命令 第 1호는 U. S. S. R의 軍事顧問團이 起案作成하여 民族保衛省에 手交된 것이었다.

南侵開始前, 北傀의 作戰에 관한 一切의 命令權者는 U. S. S. R의 軍事顧問團이었는데, 諛問의 實情은 다음과 같은 一例로서도 충분히 짐작된다.

第 2군단 工兵部 副部長인 朱榮福(少佐, 露語通譯官 출신)은 華川으로 移動한 날인 12일 밤에 다시 平壤으로 召喚되었는데, 民保省의 顧問官에게 呼出되어, 南侵作戰計劃중 工兵部隊에 관한 作戰計劃을 翻譯하였다.

이 때, 顧問官은 朱榮福에게 『祖國과 人民을 위해, 國家機密 및 軍事機密을 嚴守한다.』라는 誓約을 받고난 다음에 露語로 作成된 工兵部隊의 作戰命令의 原本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 內容인즉, 「各 軍團에 하의 工兵대대 및 第 1군단 配屬 工兵연대는 6월 23일까지 戰鬥準備를 完了하여 陣地突破에 있어 障礙物 및 地雷地帶를 除去함으로써 攻擊部隊의 通路를 開拓하고 進擊路와 渡河地點을 계속 保障하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各 部隊의 前進經路, 集結地, 渡河場, 補給所 등이 詳細히 記錄되어 있었다.



2. 江陵地區 戰鬪 (1950년 6월 25일부터  
" 6월 28일까지)참조: 별책부도 제 2 호  
상 황 도 제 5, 6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8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제2대대	장 소령 曹 圭 英
제10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대위 崔 就 聖 (6월 29일부터)
제1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제3대대	장 소령 李 昌 律
제2대대	장	소령	趙 原 英	57mm대전차포중대장	중위 徐 鳳 勳
		소령	李 度 憲 (7월 3일부터)	지원부대	
제3대대	장	소령	河 炳 來	제18포병대대장(대리)	대위 李 南 求
57mm대전차포중대장	대위	金 燦 鎰			소령 張 庚 石
	중위	崔 冕 湖 (6월 26일부터)		야전공병대대장(대리)	대위 鄭 元 河
제21연대	장	중령	金 容 培		대위 金 默
제1대대	장	소령	朴 瑞 權		
				敵 軍	
北傀 제2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766부대	장 총좌 吳 振 宇
제5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549부대	
			(제10, 제11, 제12연대 基幹)		

## 나. 전투 전의 개황

奇襲의인 南侵을 개시하였을 當時에 東海岸에서는 北傀 제2군단隸下의 제5사단(장, 소장 馬相喆)이, 제766부대(장, 총좌 吳振宇)와 陸戰隊인 제549부대가 臨院津과 正東津 海岸으로 上陸함과 同時에,

東海街道로 主攻을 指向하였다.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東海岸에서 26km에 이르는 38°線상의 廣正面을 隸下 제10연대(장, 高根弘 중령)의 2개 대대로 그 경비를 담당케 하고 主力은 江陵—五臺山—臨溪—長省—北坪—三陟等地에 각각 分散되어 있었으므로 事前에 마련한 防禦계획에 의거한 戰術展開의 餘裕도 없이 陸本과 ใกล้ชิด인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과의 通信마저 杜絶된채 孤軍奮鬪하기에 이르렀다.

本節에서는 初期段階에서 兵力이 分散되어 苦戰을 免치 못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戰鬪力을 糾合하여 遲延戰을 벌여 開戰當日로 江陵을 奪取코자 하는 敵의 작전기도를 分쇄하고 戰鬪力을 恢復하여 次期작전에 貢獻한 제8사단의 戰鬪를 取扱한다.

敵軍의 狀況: 南侵前까지 사단과 對峙한 敵은 1949년 5월 1일에 鎭南浦 保安대대를 基幹으로 創設된 38경비 제1여단(장, 소장 吳白龍)이다.

이 여단은 杆城에 그 본부를 두고 東海岸에서 華川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하였는데 사단正面에서는 2개 대대 규모가 箕士門里—鎭東里—貴屯里를 連하는 高地一帶에 據點을 形成하고 빈번히 38°線以南으로 侵透하여 我 경비소스를 襲擊하거나 住民들의 農牛약탈, 그리고 右翼정년단원의 拉致, 放火等을 저지르면서 挑戰을 일삼아왔으나 그때마다 我 제10연대에 捕捉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險峻한 地形을 이용하여 襄陽에 所謂 인민유격대 재훈련소를 설치하고 江東정치학원에서 3~6개월간에 걸쳐 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받은 共匪들을 재훈련한 다음 계속 侵透시켰다.

즉, 北傀가 共匪南派를 本格化한 것은 麗·順反亂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14일부터 南侵時까지 11회에 걸쳐 2,400명의 共匪를 南派시켰는데 그 가운데 9회에 2,300명의 共匪가 五臺山을 거쳐 太白山脈으로 侵透하였다는 事實로 미루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8경비 제1여단의 主任務는 共匪의 南派와 北上掩護에 있었고, 그들 自體의 不斷한 侵攻은 이를 위한 陽攻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北傀는 1948년 8월 18일에 創設된 保安간부 훈련대대를 同年 9월 下旬에 所謂 人民集團軍 총사령부로 改稱하고 蘇聯의 積極적인 지원아래 軍비확장을 서둘러 1948년 2월 8일에는 傀儡政權의 形成에 앞서 所謂朝鮮人民軍을 創設하여 오로지 南侵準備에 狂奔하다가 그 준비가 완료하기에 이르자 南侵 20餘日前인 6월 初旬부터는 도리어 平和攻勢를 펴 南侵兇計를 음모하기에 汲汲하였다.

北傀 民族保衛省은 6월 10일에 사단장과 여단장급을 극비리에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 姜鎔은 大機動作戰훈련을 假裝한 자 사단 및 여단의 展開를 6월 23일까지 完了토록 명령하는 한편 2개의 軍단으로 編成하여 戰時體制로 改編하였는데 제1군단장에는 民族保衛省 훈련국장 소장 金雄이, 제2군단장에는 前 작전국장 소장 金光俠이 각각 任命되었다.

이리하여 北傀 제2, 제5, 제7, 제15의 4개 사단을 麾下에 두고 6월 12일에 創設하게 된 제2군단은 그 南侵戰略에 따라서 23일까지는 軍단 CP를 華川으로 推進하는 한편 제5사단이 襄陽, 제7사단이 冠峯里, 제2사단이 華川, 그리고 제15사단이 軍단에비로서 華川附近으로 각각 展開하여 南侵준비를 完了하였다.

이때 東海岸으로의 侵攻을 담당하게 된 北傀 제5사단은 그 前身이 中共 제164사단으로서 10,000명의 韓籍兵士가 1949년 8월 23일에 金昌德 지휘아래 長春으로부터 會寧을 거쳐 羅南으로 入北하여 제10, 제11, 제12연대로 改編하고 사단으로 發足하였다.

따라서 이 사단은 國共內戰을 通하여 2~3년으로부터 5~6년에 걸친 戰鬪경험을 가진 比較的 우수한 병사들로 구성되었으나 傀儡사단으로 發足과 동시에 咸北鎭城에서 蘇聯의 戰術敎範에 의거한 사단 공격까지의 재훈련을 마치고 그 評價會에서 傀儡 高위층으로부터 極讚을 받은바 있는 傀儡 最強을 자랑하는 精銳사단이었다.

이 사단은 北傀 제2군단의 左翼사단이나 太白山脈이 가로막힌 地形의인 條件으로 거의 獨自의인 侵攻을 담당하여야 하였는데 그 作戰企圖는 東海街道로 2개 연대 규모의 主攻을 指向하고 1개 연대 규모

의 助攻으로써 西林里 正面으로부터 山間道路를 따라 急進시켜 사단을 東西로 兩斷하면서 南侵當日로 江陵을 奪取하고 東海岸을 따라서 계속 侵攻하여 7월 29일까지에는 浦項線을 占領, 제2군단의 主力과 連繫하는 즉시로 最終段階의 攻勢를 敢行하여 8월 13일까지 浦項—慶州—釜山線으로 侵攻코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太白山脈 以東의 地形의인 特性을 고려하였음인지 그 以西地域에서와는 달리 戰車使用을 拋棄한 反面에 水陸兩用의 協同作戰을 劃策하였다.

즉, 會寧의 제3군관학교를 母體로 한 유격부대인 제76부대(장, 송좌 吳振宇)와 제549부대(陸戰隊)를 東海岸에 上陸시켜 東海街道를 遮斷하여 제8사단을 江陵과 三陟으로 兩分한 다음 各團擊破하고 上記 유격부대는 山嶽地帶로 南下하여 地方殘留 共匪와 提携하면서 非正規戰을 벌여 後方을 攪亂하고 我軍의 兵力을 分散시킴으로써 北傀 제5사단을 비롯한 제2군단의 南侵을 促進시키려는 뜻 하였다.

東海岸으로 侵攻한 제5사단과 제76부대 및 제549부대의 兵力은 20,000명으로 推定되고 그 主要 장비는 大要 다음과 같다.

SU-76 白走砲	16門
122mm 野 砲	12門
120mm 迫擊砲	18門
82mm 迫擊砲	81門
76mm 直射砲	36門
45mm 反戰車砲	48門
61mm 迫擊砲	數百門

我軍의 狀況 : 제8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1949년 6월 20일에 陸本 一般命令 제26호에 의거하여 제6사단隸下 제10연대(장, 宋堯讚 중령)와 제5사단隸下的 제21연대(장, 金冠五 대령)를 基幹으로 江原道 江陵에서 創設되었다.

그런데 이즈음 南侵의 機會만을 노리던 北傀는 南韓의 後方秩序를 攪亂하고 兵力의 分散과 民心離脫을 劃策하여 江東政治學院 出身의 共匪들을 사단이 擔當한 戰鬪地域內的 五嶽山을 通하여 계속 南派하고 太白山脈 一綫에서 準동하기에 이르자 陸本은 作命 제203호를 下達, 이를 阻止하고 捕捉격멸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단은 부대정비교육의 거를도 없이 동년 9월 22일부터 共匪擊滅作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는데, 38°線 경비를 擔當한 제10연대가 京江道路 北쪽의 五嶽山 一圓을 擔當하고, 제21연대는 그 南쪽 一圓의 광활한 地域을 擔아 共匪의 侵透路를 봉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50년 3월 16일부터는 濟州島 폭동사건의 魁首였던 金達三 지휘下에 所謂 人民유격대 제1군단 200여명의 共匪가 慶北 普賢山에서 敗走하여 38°線 以北으로 도망코자 北上中입을 探知하고 사단主力으로 擊滅戰을 벌여 同월 22일에는 제21연대가 金達三을 비롯한 그 主力을 捕捉 殲滅한데 이어 4월 9일에는 李吳濟가 지휘하는 200명을 또 다시 撲殺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前述한 金達三과 李吳濟의 越北을 掩護코자 2월 15일에 急遽南派된 金尙昊 지휘下의 300명을 제10연대가 淸溪洞 溪谷에서 殲滅하였다.

이처럼 到處에서 戰勝의 旗幟를 높이 올리기에 이른 사단은 餘勢를 몰아 全域에 걸쳐 수색전을 벌여 5월 初旬에는, 3월 26일에 麟蹄로부터 芳臺山을 거쳐 南下한 金武顯 지휘下의 350명이 제6사단 제8연대와 洪川경찰대의 邀擊을 받고 五嶽山으로 北上 潛入한 것을 또다시 捕捉 격멸함으로써 8개월間에 걸친 共匪격멸전을 一段落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不過 1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인 6월 中旬으로 접어들면서 北傀는 또다시 60명의 所謂 기관단총 共匪를 南派시켰는데 이들은 江東정치학원 출신자와 安州, 會寧等地에서 特殊훈련을 받은자들로서 5명 1개조로 하여 기관단총과 美製수류탄으로 무장하였으며, 그 任務는 南侵에 앞서 사단의 병력분산

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각조별로 安東—春陽—英陽—靑松—榮州等地까지 侵透하여 後方을 攪亂, 北傀 제2군단의 南侵을 促進하는데 있었다.

6월 10일에 제16연대장 兼 太白山地區 戰鬪사령관으로부터 제2대 사단장으로 赴任한 李正一大령은 共匪의 南侵보고에 接하자 제21연대의 1개대대를 珍富里로 急進시켜 敵의 侵路를 遮斷케 하는 가운데 제10연대로 하여금 수색격멸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연대예비인 제3대대의 2개중대를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에 배속하였다.

연대 左一線으로서 鼎足山—西林里—牛灘里—鑛墨洞에 이르는 12km의 38°線 경계를 담당한 제1대대는 배속된 제9중대(장, 朴錫權중위)로 하여금 西林里의 제1중대(장, 吳孝漢중위)陣地를, 제11중대(장, 李春植중위)는 牛灘里의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陣地를 각각 引受케 하고 珍富里로 急進進出한 제21연대 제2대대(장, 曹圭英소령)와의 協調下에 五嶽山一帶에서 수색작전을 벌여 5일만인 6월 20일에는 55명의 共匪를 포로 또는 射殺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오랜 동안 38°線 경비와 共匪격멸전으로 그 勞苦가 많은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轉換하기로 하고 23일부터 26일에 걸쳐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와 作戰任務를 交代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대대는 24일에 제4중대(장, 康權釋중위)를 江陵으로 移動시킨데 뒤이어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를 頭老峯—伏龍山—鐵甲嶺—注文津으로 移動케 하였는데 이것은 수색전과 아울러 제2대대에 배속중인 제10중대(장, 河相卓 중위)와 交代케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제2대대(장, 趙原英소령)는 通稱 注文津경비대로서 CP를 注文津에 두고 제10중대를 右 제1선 제5중대(장, 金同曾대위)를 中央 제1선, 그리고 제6중대(장, 金淳基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東海岸 北盆里 北쪽의 △46—大峙里—明池里—獐里—連花洞—鼎足山(△869)東麓에 이르는 14km의 正面를 담당하였는데 제3대대의 左一線담당으로 제10중대가 배속이 해제케 됨에 따라 24일에는 제7중대(장, 姜應高 중위)가 右제1선을 인수하고 제10중대는 注文津의 대대CP에 集結하였다.

比較的 敵과 近距離에 對峙한 대대는 共匪들의 主要侵透路인 南大川 溪谷을 掩扼하고 있어서 빈번한 敵의 襲攻을 받아 銃聲이 그칠 날이 거의 없었는데 特別히 元E出里에서 溪谷을 遮斷한 제5중대 제3소대(장, 張佑泰 소위)는 2~3일에 한번씩 敵의 侵攻을 받아 近 1시간씩 交戰하곤 하였다.

또한 이 地域에서는 南侵 1개월前부터 北傀병사들이 1개월 뒤에 보자고 말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開戰前日에는 내일 아침에 보자는 말까지 하였으며 15일前부터는 밤에 head light를 켜 車輛들이 東海街道를 따라 南下하는 것이 目擊되고 1주일 前에는 海岸線으로 南下 歸順한 傀儡兵士가 1주일 以內에 南侵할 것이라고 陳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事實들은 모두 연대를 통하여 사단에 보고하였으나 別段의 措置가 없어 다만 대대 獨白적으로 경계를 強化하여 왔을 뿐이다.

이때 제3대대(장, 河炳來 소령)는 연대 예비로서 연대 CP인 江陵비행장에 位置하였으나 제10중대가 제2대대에, 제9, 제11 兩중대가 제1대대에 각각 배속중이어서 其實 제12중대(장, 崔根和 중위)만이 殘留하였는데 26일附로 제1대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연대 左一線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25일에는 대대 본부와 제12중대가 廣院里로 移動코자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제21연대(장, 金容培 중령)는 8개월에 걸친 共匪격멸전이 5월 初旬에 一段落 짓기에 이르자 제11중대(장, 孟寶永 중위)를 臨溪里에, 제9중대(장, 崔泳龜 중위)를 長省에 각각 殘置하여 炭鐵을 中心으로 한 産業施設경비와 殘匪의 격멸을 계속 담당케 하는 가운데 연대 CP가 三陟 鳳凰洞에, 제2대대(장, 曹圭英 소령)가 三陟 세멘트회사 社宅地帶에, 제3대대(장, 李昌律소령)가 汀羅津油脂工場에, 그리고 제1대대(장, 尹泰錫소령)가 北坪 三和製鐵 社宅地帶부근에 각각 位置하였다.

그런데 前述한바와 같이 所謂 기관단총共匪가 또 다시 南侵하기에 이르자 6월10일에 연대장으로 赴

한 金容培중령은 사단계획에 따라 제3대대의 1개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하여 珍富里로 出動시켜 제10연대와 協同케 하였다.

이리하여 6월 13일에 珍富里로 進出한 제2대대(장, 裴圭英소령)는 下珍富里에 CP를 開設하고 제10중대(장, 李圭鉉중위)가 大關嶺—珍富里에 이르는 京江道路를 확보하여 敵의 侵路를 遮斷하는 가운데 제7중대(장, 金成彬대위)가 鷹峯(△1173)—大窮山(△975)에서 제6중대(장, 禹教鵬중위)가 桂芳山(△1577)에서 각각 소대별로 分散하여 수색과 潛伏의 互用으로 격렬戰을 벌여 20日에는 거의 殲滅하는 成果를 거두고 殘匪마저도 剔抉코자 最後의 拍車를 加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 제1대대만이 建制를 維持한채 北坪에 位置하고 제2대대는 제5, 제8중대가, 제3대대는 제12중대가 각각 三陟에 있었다.

이때 제1대대장 尹泰鉉소령은 步兵학교 OAC에 入校中이어서 연대 정보주임 朴瑞權소령이 代理근무중이고 OBC에 入校中인 제10중대장 黃基柁중위의 後任으로는 李圭鉉중위가, 三軍體育大會 선수로 派遣中인 제9중대장 崔泳龜중위의 後任으로는 梁允鎬중위가 각각 代理로 任命되었다.

한편 사단포병인 제18포병대대(장, 張庚石소령)는 49년 10월 28일에 陸本 作命제224호에 의거하여 제8사단에 配屬되었는데 소속 將兵의 學皆가 西北靑年團 出身으로 교육수준과 反共意識이 比較的 높은 대대로서 戰術射程 7,000m의 105mm M—3砲 15門을 장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GAT射法이 새로이 導入됨에 따라 소 포대장급과 선임하사관급이 大學 포병학교에 派遣교육중이고 대대장 張庚石소령은 陸本에 出張중이기 때문에 대대부관 李南求대위와 전포대장급이 각각 지휘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 야전공병대대(장, 金默대위)는 國本 一般명령 제17호 및 사단 一般명령 제1호에 의거하여 49년 8월 8일에 創設된 以來로 地境內의 作戰道路 및 橋梁의 補修와 경비를 담당하는 한편 共匪侵透에 상로와 38°線경계陣地 北方에 障礙物을 敷設하고 步兵과의 協同下에 主要地域에 交通線과 陣地를 構築하였다.

그런데 50년 3월에 이르러 사단 방어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단 主抵抗線과 예비陣地線에 進入路를 開設하고 交通線과 共用火器陣地를 構築하였으나 資材와 예산부족으로 中斷상태에 있었다.

사단의 戰鬪力을 概觀컨대 創設과 동시에 38°線경비와 共匪격멸전을 展開하여야만 하였던 사단은 體系的인 전투훈련을 充分히 받지는 못하였으나 實戰과 機會교육으로 소부대전투는 遂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評價되었다.

특히 38°경비 제1여단과 共匪들만을 相對로 한 전투경험만을 가진 장병들은 敵을 過少평가하여 장비와 전투력에 있어서 敵을 壓倒하는 것으로 過信하고 敵의 南侵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는 霧圍氣였다.

그러나 1개연대를 缺한 2개연대로써 창설된 사단은 26km에 이르는 넓은 38°線경비를 담당하여 계속적인 敵의 挑戰을 받는 가운데 공비격멸전을 아울러 遂行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敵의 南侵에 대비한 兵力의 集中이나 有機的인 運用의 妙를 期할수 없는 形便이어서 初代사단장 李亨根준장은 이에 대한 對策을 陸本에 強力하게 要請하였으나 默殺되자 辭意를 表明한 일까지 있었다.

要컨대 地域的인 特性으로 不可避한 作戰任務를 附加的으로 수행하고 兵士들의 훈련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었다고는 하나 敵의 南侵에 대하여서는 거의 無防備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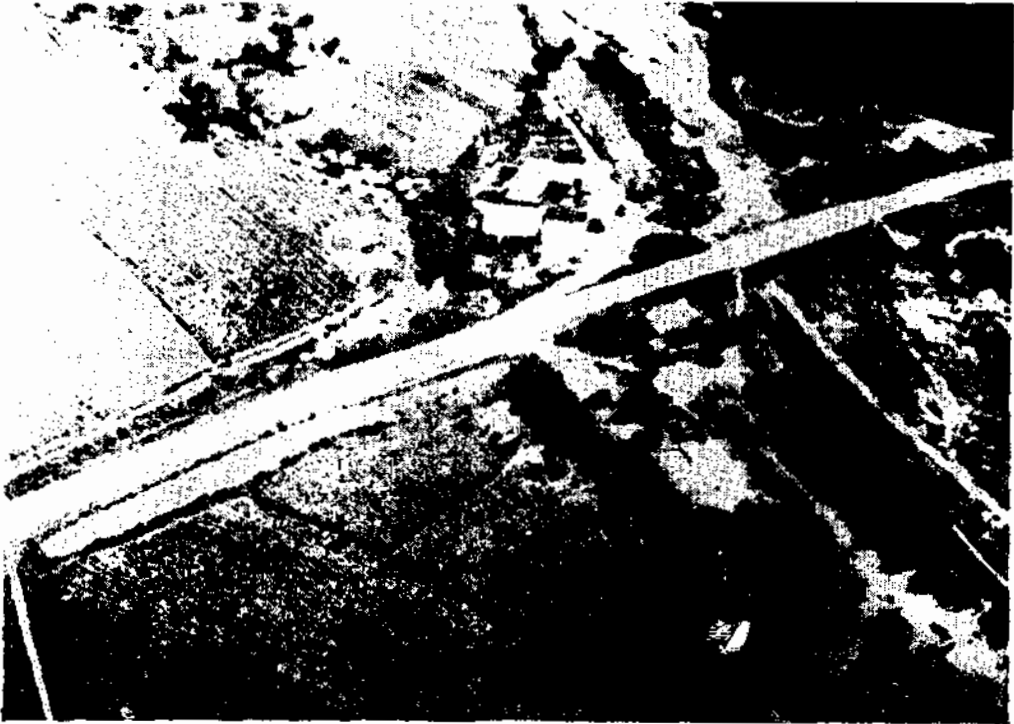
사단이 保有한 兵力과 장비는 大要 다음과 같다.

兵力	7,000명
主要裝備	
105mm 野砲	15門
57mm 對戰車砲	12門
81mm 迫擊砲	24門

60mm 迫擊砲	38門
2.36" Rocket砲	128門
1/4 Jeep 車	47臺
3/4 車	39臺
2½ truck	70臺

兵要地誌 사단이 담당한 戰線地域은 三陟—北坪—墨湖—下溪—江陵—注文津等 海岸都市를 包含한 東部 江原道—圓으로서 五臺山(△1,563)—桂芳山(△1,577)—東臺山(△1,434)—頭老峯(△1,422)—鷹伏山(△1,366)—柯仁峯(1,240)—祖峯(△1,182)—發旺山(△1,458)—石屏山(△1,055)—老楸山(△1,322)—大德山(△1,573)—太白山(△1,546)等の 峻嶺이 重疊된 太白山脈이 南北으로 흘러 西高東低의 地形을 이루었다.

따라서 共匪와 같은 소수병력의 은밀한 침투와 遮蔽 및 隱蔽는 良好하나 대부대 機動과 觀測 및 射界는 皮야간에 크게 制限되었다.



〈東海岸附近的 38°線〉

地境內의 主要 作戰路는 東海岸을 합하여 北上하는 제1번 道路와 江陵—大關峯—珍富里로 橫斷하는 京江道路가 그 主軸을 이루고 제431번 道路 및 제31번 道路는 그 傍系를 이루어 險峻한 山嶽地帶로서는 比較的 良好한 道路網이기는 하나 路幅이 좁고 屈曲이 甚한데다가 地勢마저 險峻하여 기계화부대의 機動이 또한 制限되었다.

38°線上에서 敵이 공격한다면 初期段階에서는 사단 全正面에 대한 侵攻이 可能한 것이나 前述한 바와 같은 地形條件과 北傀의 作戰企圖로 미루어 보아 迅速한 侵攻이 예상되므로 그 예상 接近路는 첫째로 東海街道와 그에 沿한 野山地帶, 둘째로 堂上洞—元日田里—漁城田里에 이르는 南大川溪谷, 셋째로

는 西林里—萬川里에 이르는 河川에 沿한 開豁地로 推斷되었는데 그 主攻은 東海街道로 指向될 것으로 判斷되었다.

海岸線은 青年防衛隊와 경찰에만 依存한 無防備상태이기 때문에 到處에 敵의 上陸이 可能的인 脆弱性을 露呈하고 있었다.

持히 地形的 條件으로 威脅을 주는 것은 南段한 敵이 比較的 良好한 接近路인 南大川 溪谷을 거쳐 蘇甲嶺—月精寺—珍富里로 侵攻하여 京江道路를 制禦하고 玉溪附近으로 上陸하는 敵이 栗阿와 掃塘嶺을 遮斷하는 가운데 그 主攻이 江陵으로 攻勢를 集中한다면 사단은 營後과 退路가 斷絶되자 各個擊破를 避하기 어려운 것이다.

期間中の 氣象은 6월 下旬으로 접어들어 高溫多濕하여 22°C—25°C분 으로 내리고 朝夕으로는 海岸線 特有的인 靑은 안개가 視界를 크게 制限할 것이며 雨期에 접어들어 때때로 비가 올 것이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사단이 創設될 무렵의 38°線경비를 담당한 각 사단의 一般的인 작전개념은 敵의 南侵을 38°線上에서 阻止적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9년 8월에 접어들면서 敵의 南侵준비를 위한 具體的인 情報가 收集되기에 이르자 陸本에서는 作戰指示를 하달하여 각 사단에서 自體방어 계획을 수립케 하고 그해 11월에는 각 사단장과 작전참모 그리고 美 首席고문관 參席裡에 평가회를 갖고 이 계획과 49년도 綜合情報보고서를 基礎로 陸本과 始興 참모학교에서 試案을 作成中에 있었다.

따라서 제8사단의 방어계획은 이때에 수립된 것으로써 50년 3월부터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陣地工事에 着手하고 5월에는 각 대대장급以上の 지휘관과 사단 참모가 現地를 踏査한 다음 참모장 崔甲中중령의 主宰下에 圖上演習을 실시 하기도 하였다.

이 방어계획의 基本概念은 38°線을 境界陣地로 하고 注文津 北쪽의 香湖—香湖里—下月川里에 이르는 橫隔高地群을 前進陣地로 하며 板橋里—石橋里를 連하는 連谷川線과 廣院里를 主抵抗線으로, 그리고 沙川線과 雲頭嶺을 예비陣地로 하여 敵이 侵攻時에는 逐次로 撤收하면서 打撃을 주고 그 攻勢가 鈍化하는 즉시로 反撃을 敢行, 38°線을 收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江陵을 확보하는에 있었다.

즉, 그 세부계획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38°線에서 南侵하는 敵을 阻止적멸하고 好機를 捕捉하여 反撃을 敢行, 38°線을 收復하고, 如何한 상황에서도 江陵을 固守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右一線으로서 東海岸—鼎足山 東端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하되 그 作戰段階는 다음과 같다.

㉑ 境界陣地線에서 火力의 集中과 逆襲으로 敵을 阻止적멸하고 38°線을 확보한다.

- ㉑ 境界陣地線이 돌파되면 注文津外廓의 前進陣地로 敵을 誘引하여 注文津수비대 및 예비대의 增援下에 포위격멸한다.
- ㉒ 敵勢에 밀려 撤收가 不得已하면 連谷川線의 主陣地로 逐次 진입하여 결정적인 打擊을 주고 반격을 敢行한다.
- ㉓ 主陣地 및 예비 陣地에서 陣內戰으로 敵의 전력을 소모시키고 攻勢로 轉換하여 一舉에 38°線을 收復한다.
- ③ 제21연대는 左一線으로서 鼎足山—鎮墨洞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하고 1개대대를 사단 예비로 抽出한다.
- 但, 그 作戰段階는 다음과 같다.
- ㉔ 火力的 集中과 逆襲으로 敵을 驅逐하고 鼎足山—鎮墨洞을 連한 一帶를 확보한다.
- ㉕ 力不及할때는 敵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면서 主陣地인 廣院里로 撤收하고 반격을 감행하여 38°線을 收復한다.
- ㉖ 主陣地가 돌파되면 雲頭嶺에서 부대를 수습하고 陣內戰으로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는 즉시로 攻勢로 轉換한다.
- ④ 제18포병대대는 1개포대가 제10연대를 直接支援하고 主力은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그 火力的 優先權은 제10연대에 賦與한다.
- ⑤ 57mm對戰車砲는 제10연대에 배속하여 戰車 및 장갑부대의 侵攻에 대비한다.
- ⑥ 야전 공병대대는 2개중대를 제10연대에, 1개중대를 제21연대에 각각 배속하여 障礙物과 地雷를 敷設하고 橋梁 및 道路를 파괴하여 拒否作戰을 실시한다.
- ⑦ 協諒事項
- ㉗ 別命에 따라서 山林을 燒却, 敵의 侵襲을 阻止할 수 있다.
- ㉘ 제10, 제21兩연대의 間隙이 돌파되었을때에는 제10연대가 松川에서 이를 阻止擊退한다.
- ㉙ 左右一線 兩연대는 正面으로 侵攻한 敵이 迂回하여 隣接연대 正面을 돌파한 敵과 合勢하는 것을 極力阻止하고 各個격파한다.
- ㉚ 反擊時의 中間目標은 襄陽—西山里이고 進擊限界線은 下達門里—上達門里이다.
- ⑧ 他사단 병력의 增援時는 사단에비인 제21연대 1개대대를 즉각 원대복귀 시키고 증원 부대를 사단에비로 하여 그 主力은 江陵에 그 一部는 墨湖에 각각 位置케 하여 상황의 변동에 對應케 한다.
- ⑨ 戰鬪발발과 동시에 경찰, 청년 방위대, 그리고 학도 호국단을 動員, 主要 산업시설과 발전소, 수원지 그리고 각 부락 外廓을 경비케 한다.
- ⑩ 海岸線경비는 사단 정보참모 主管下에 경찰 및 청년 방위대로 구성된 陸上監視員을 배치하는 동시에 墨湖 海軍경비부와 협조하여 漁夫 및 漁船을 動員하여 注文津—江陵



—墨湖—三陟—浦項에 이르는 海岸線을 巡航경비케 하고 無電 및 燈火信號로 陸地와 連絡을 維持케 한다.

但, 敵이 海岸線으로 侵透하였을 때는 사단에비대로 이를 邀擊한다.」

## (2) 작전 실시

**6월 25일** : 전날 밤중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어느덧 이슬비로 숨을 죽였으나 山野를 흥건히 적시고, 짙은 안개는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어둠과 더불어 視界를 가리고 있었다.

04.00, △188(棧橋里 西南쪽 2km)에 고요를 깨고 落下한 一發의 砲擊을 信號로 東海岸에서 連花洞에 이르는 제10연대 제2대대의 38°線경비陣地一帶에는 砲彈이 비오듯 集中하기 시작하였으며 04.30에는 射程이 延伸되면서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10연대 주변사령 崔冕湖중위로 부터 敵砲擊의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 정보참모 陸根洙 소령은 참모장 崔甲中중령의 指示로 제18포병대대 주변사령 金準소위에게 落下砲彈의 彈種확인을 指示하는 한편 사단 참모를 非常召集하였다.

이때 작전참모 鄭震소령을 비롯한 主要참모는 6월 20일부터 계속된 陸本의 교육집열을 마치고 전날밤에는 陸本 作戰局次長 朴林恒중령을 班長으로 한 集열반을 위하여 酒宴을 베풀고 江陵여관에 集團投宿中에 있었으므로 05.30에는 사령부에 出頭하여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였는데, 熾烈한 砲擊은 일찌기 없었던 것이나 恒用 있어온 敵의 局地的인 侵攻일 것으로 意見을 모았다.

그런데 이때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으로부터 「東海岸으로 공격중인 敵은 연대규모」라는 보고가 들어와 啞然 긴장하기 시작 하였는데, 05.40에 사단장을 訪問한 江陵경찰서장 全湖仁총경은 正東津에 이미 敵이 上陸하여 그 一部는 南下중이고 一部는 北上중임을 보고 하였다.

敵情이 심상치 않음을 直感한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06.00에 작전회의를 召集하였다.

이 자리에는 참모장을 비롯하여 G-1 李春燮소령, G-2 陸根洙소령, G-3 鄭震소령, G-4 辛大善소령 그리고 제18포병대대의 李南求대위와 사단 공병대대의 鄭元河대위가 參席하고 뒤이어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이 合席하였으나 正確한 敵情과 그 企圖를 判斷할 수 없어서 그때까지 入手된 斷片的인 상황을 上呈로 論難을 거듭한 끝에 사단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方針을 굳혔다.

『① 제10연대는 現戰線에서 敵을 極力 阻止한다.

② 三陟의 제21연대를 江陵으로 集結시킨다.

③ 사단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連谷川—沙川線에서 敵을 擊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江陵을 固守한다.

④ 陸本에 1개연대 규모의 增援과 連絡機의 支援을 要請한다.

⑤ 增援부대가 도착할때까지 最大限의 持久戰을 經, 敵의 侵攻을 阻止하는 즉시로 반격으로 轉換한다.』

이와 아울러 사단장은 사단 공병대대를 主軸으로 한 사단 直轄대로 臨時 예비대를 急編케 하는 한편 제10연대는 예비대를 急遽 출동시켜 安仁津쪽으로 北上중인 敵을 阻止격멸토록 명령 하였다.

이무렵 사단 사령부 二층에서는 계속 南下하는 敵의 艦團을 目擊할 수 있었다. 作戰會議가 끝나는 즉시로 사단장은 陸本과의 兪선연락을 試圖하였으나 滿線으로 如意치 못하다가 늦게야 참모장 崔甲中중령이 陸本 작전국 교육과장 李致業대령과 通話를 할 수 있었다.

이 通話에서 崔중령은 사단正面의 戰況과 아울러 增援부대 및 連絡機의 支援를 要請하면서 확고한 陸本의 作戰指導를 要望하였으나 李대령은 38°線全域에 걸친 南侵이니 江陵보다는 서울防禦가 問題라면서 兵力이나 連絡機의 支援는 어려우니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서 勇戰奮鬪하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바로소 38°線全域에 걸친 敵의 南侵임을 알게된 사단장은 제21연대의 北上을 즉각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斷案을 내렸다.

- ① 持久戰에 대비하여 모든 軍需品을 大關嶺 너머 珍富里로 移動시킬 것.
- ② 10.00를 期하여 사단 戰鬪地境內에 戒嚴令을 宣布한 것.
- ③ 軍醫家族을 後方으로 撤收시킬 것.
- ④ 民事部를 조직하여 行政을 管掌하고 모든 金融機關을 撤收시킬 것.
- ⑤ 民間車輛을 徵發하여 機動力을 最大限으로 확보할 것.』

### 1. 38°線의 崩壞

砲擊에 뒤이어 東海街道에 主攻을 指向한채 一齊히 공격을 개시한 北傀 제5사단은 棧橋里—大峙村—明池里—狹峯—誘足山—西林里에 이르는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의 38°線경계 陣地를 돌파하여 南侵을 시작하였다.

연대 右一線으로써 東海岸—鼎足山(△869) 東麓에 이르는 14km의 正面을 담당한 제2대대장 趙源英소령은 제10중대장 河相卓중위를 急遽出動시켜 仁邱里 北쪽에 收容陣地를 占領케하고 分散後退하는 병력을 收拾케하는 즉시로 注文津 北쪽의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敵의 南侵을 阻止코자 하였다.

이무렵 西林里를 總襲한 2개대대규모의 敵은 제9중대(장, 朴錫權중위)를 蹂躪하고 山間溪谷을 따라 九龍嶺으로 急進中에 있었다.

제2대대의 상황 : 30분간에 걸친 砲擊으로 38°線상의 경계陣地를 攪亂한 敵은 04.30에 이르자 2개대대규모를 先鋒으로 삼아 東海街道를 확보한 제7중대장 姜應高중위 정면에 主攻을 指向한채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38°線경비를 담당한 제7, 제5, 제6중대는 처음으로 敵의 熾烈한 砲격을 받고 戰列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급襲을 받아 瞬息間에 混戰의 회오리속에 말려들었다.

04.35 仁邱里의 제7중대장 姜應高중위로부터 「敵의 대부대 南侵개시」의 急報에 뒤이어 제5, 제6중대장으로부터의 戰況보고도 잇달았다.

이때 대대장 趙原英소령은 비록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대계획에 따라 廣院里로 移動하게 된 제10중대(장, 河相卓중위)를 출발시키고자 訓示중이 있다가 急報에 接하자 중대에 제8중대 기관총소대를 배속하여 즉각 仁邱里로 출동토록 명령하였다.

대대保有 GMC 2대가 2往復으로 수송한 중대가 仁邱里에서 戰列을 가다듬었을 때에는 이미 06.00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대대장이 戰況을 파악코자 SCR-300으로 각 중대를 呼出하였으나 北盆里에서 중대를 지휘중인 제7중대장 姜중위로부터 應答이 있어 日下 分散後 退중임을 파악하였을 뿐 제5, 제6兩중대와는 통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明池里—猿里—蓮花洞의 제5, 제6兩중대 正面에서도 제7중대 正面에서와 같이 陣地線이 崩壞되어 撤收중일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제7중대에 仁邱里로 撤收하여 再編토록 명령하는 한편 제10중대는 △294(北盆里 西쪽 2.5km)를 공격하여 제5, 제6兩중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이곳을 基點으로 反擊, 38°線을 恢復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제8중대(장, 鄭淳基대위)의 기관총소대가 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竹里(仁邱里 西北쪽)에서 돌진한 제10중대가 △184(仁邱里 西北쪽 2km)에 이르렀을 무렵 敵의 直射砲擊이 集中되어 그 衝勢가 무더졌는데 이때 注文津으로 나아가 陣頭指揮에 나선 연대장 高根弘 중령으로부터 『敵의 一部가 海岸線에 上陸中임. 然이나 사단은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江陵을 固守할 것임. 貴대대는 逐次 撤收하면서 敵에게 打擊을 주고 注文津을 固守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대대장 趙原英소령은 戰況이 意外로 擴大하여 深刻한 局面에 접어 들고 있음을 實感하고 1개중대규모로서의 공격이 無謀한 것으로 判斷, 現進出線에서 敵을 阻止하면서 主力을 收拾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10중대는 展開線을 東海岸의 △39로 넓혀 敵의 主接近路인 東海街道를 遮斷하면서 分散되는 병력의 撤收를 掩護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통신이 杜絶되어 戰況을 알 수 없었던 左 제1선인 제6중대장 金淳基대위로부터 『중대는 日下 分散後 退중임. 南大川溪谷을 돌파한 1개대대규모의 敵이 東南進하고 있음.』이라는 戰況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제5중대와 더불어 注文津 北쪽의 前進陣地로 즉각 進入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仁邱里에서 再編중인 제7중대는 海松川 上流의 △325를 확보하여 東南쪽으로 迂回한 敵侵에 대비토록 하였다.

그런데 08.00가 좀 지났을 무렵에 2門의 直射砲를 北盆里高地로 推進한 敵이 仁邱里와 제10중대의 陣地線으로 포격을 퍼붓는 가운데 1개소대규모의 騎馬偵察隊가 海岸線을 따라 나타나자 제10중대는 集中사격으로 이를 一擊에 擊退한데 이어 제7중대에서 배속이 변경

된 2門의 81mm迫擊砲로 사격을 집중하여 直射砲 1門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때 大峙里—明池里正面을 돌파하고 迂回한 敵의 一部가 亭子洞으로 侵襲하여 △325의 제7중대를 공격하자 彼我間에는 熾烈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대장 趙原英소령은 山嶽地帶로 侵攻한 敵이 깊숙히 迂回하는 가운데 北盆里로 南侵한 敵이 그 衝鋒을 東海街道로 집중코자하는 것을 看破하고 퇴로가 차단되기에 앞서 사단의 前進陣地이자 대대 主抵抗線인 香湖—香湖里—下月川里로 後退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0중대의 △325에서 敵을 阻止, 하는 제7중대의 掩護下에 東海街道를 따라 逐次撤收하면서 仁邱里住民의 避難을 돕고 鷹湖 東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臨湖里高地에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 姜應高중위는 劍拂里로 急進한 제8중대의 기관총소대와 81mm 迫擊砲의 支援下에 敵의 迫擊을 阻止하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和尚川을 건너 香湖里 北쪽의 △170—△185에 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무렵 연대계획에 따라 제10중대와 交代하여 대대에 배속키로된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가 注文津을 거쳐 下月川里에 進出한데 이어 漁城田里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6중대장 金淳基대위가 도착함으로써 대대는 비로소 戰力을 糾合하였는데 여기에 崔崑湖중위가 지휘하는 57mm 對車戰砲 2門마저 進出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5중대(장, 金同曾대위)는 正面을 돌파한 敵이 南쪽으로 계속 侵襲하자 退路遮斷의 威脅을 받고 각 소대가 漁城田里로 後退하여 草田峙—高積峙를 확보하고 分散된 兵力을 수습하면서 敵의 계속적인 南侵을 阻止코자 하였는데 滿月山(△628)을 奪取한 1개대대 규모가 方向을 바꾸어 東南進하자 무전기의 고장으로 대대장과 통신을 維持하지 못한 中대장은 注文津으로의 退路가 이미 遮斷되었을 것으로 判斷하고 京江도로 나아가 江陵으로 進入키로하고 獨斷으로 鐵甲嶺을 넘어 後退중에 있었다.

이날의 제5중대의 상황에 대하여 當時의 제2소대장 李洪眞중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우리중대는 대대의 中央—線으로서 明池里—獐里에 이르는 5km의 正面을 담당하여 제2소대가 右 제1선으로 明池里에, 제3소대가 中央 제1선으로 元日田里에, 그리고 제1소대가 右 제1선으로서 獐里—帶에 각각 38°線경계陣地를 확보 하였는데 이곳은 共匪의 侵透가 가장 빈번한 곳이었다. 明池里—帶에는 比較的 陣地공사가 잘 되어있어서 火力據點이 2個所나 있고 前方에는 鐵條網과 地雷가 敷設되어 있었다. 그런데 6월 25일 04.00가 조금 지나서 明池里부락의 소대본부에서 자고 있던 나는 天地를 震動하는 포격에 놀라 깨어보니 △282의 제2火力據點으로부터 砲彈이 前後左右로 비오듯이 쏟아진다는 보고에 뒤이어 제1火力據點으로부터 敵이 새까맣게 공격하여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대기분대에 즉각 비상을 걸어 △133로 출동케 하면서 漁城田里에 位置한 中대장

에게 戰況을 보고하였다. 이때 대기분대는 2.36"Rocket 1門과 砲彈 7發을 갖고 나갔는데 제1火力據點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05.00이고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미 △133를 奪取한 2개소대 규모의 敵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가 우리를 보자 기관총을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즉각 2.36"Rocket砲를 사격케 하여 單1發로 기관총을 沈默시키는 즉사로 交通壕로 進入하면서 一齊사격을 퍼부어 一進一退의 격전을 벌였으나 漸次로 增強된 敵이 兩翼을 포위하면서 近迫하는데 實彈이 거의 떨어져 눈물을 머금고 소총사거리를 벗어나면서 東쪽의 溪谷을 내려다보니까 1개대대규모의 敵이 集結中에 있어서 2.36"Rocket砲 6發을 계속 사격하여 瞬息間에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소대본부로 돌아와서 중대에 전화를 걸었더니 중대장은 이미 81mm迫擊砲班을 지휘하여 明池里로 출발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분산되었던 소대원이 거의 集結하게 되자 나는 소대를 △248에 배치하고 敵侵에 대비하였는데 중대장이 도착하자 81mm迫擊砲를 敵線에 퍼부으면서 逐次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漁城田黑에서 兵力을 수습한 중대는 草田峙—高積峙線을 확보하고 敵의 南侵을 阻止코자 하였는데 敵은 그 一部가 △352(漁城田 北쪽)를 占領하고 기관총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 主力은 滿月山을 거쳐 東南進하고 있었다. 이때 제6중대는 이미 撤收한 뒤였고 중대의 무전기가 고장이 나고 유선이 斷絶되어 대대와의 連絡이 維持되지 않아 장교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東海街道로 主攻을 指向하였을 敵은 이미 注文津까지 侵攻하였을 것이고 滿月山에서 東南進한 敵은 退路를 遮斷하였을 것이니 중대는 一旦 京江道路로 나아가 江陵으로 進出하자고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鐵甲嶺—松川을 거쳐 月精寺를 目標로 後退하였다.』

그런데 이때 張佑奎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는 元口田里附近의 △230를 점령하고 포위 공격하는 1개중대규모의 敵과 血戰을 거듭하였는데 兵士 1人當 5~6발의 實彈밖에 남지 않게 되자, 白兵戰을 벌여 포위망을 돌파하고 漁城田을 거쳐 主力을 後續하고 있었다.

한편 注文津에서는 제10중대(장, 河相卓 중위)를 右 제1선, 제7중대(장, 姜應高 중위)를 中央右 제1선, 제6중대(장, 金淳基 대위)를 中央左 제1선, 그리고 제2중대(장, 安東勳 중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사단 前進陣地이자 대대 主抵抗線인 香湖—臨湖里—香湖里—下月川里線을 連한 高地群을 확보하고 57mm 對戰車砲중대 제1소대(장, 崔冕湖 중위)를 兩涯里로 推進하여 기갑부대의 南侵에 대비케 하였다.

이때 대대장 趙原英소령은 注文津 경찰서장과 읍장을 불러 경찰관과 청년방위대를 즉각 소집하여 自體방어에 臨하고 住民을 沙川線以南으로 避難시키며 邑保有 食糧은 可及의 全量을 搬出하되 그 殘畧은 燒却토록 명령하고, 경찰관 2명과 군인 1명으로 10개의 偵察組를 急編하여 敵情을 探索토록 하였다.

그런데 15.30에 이르러 SU-76 自走砲 3臺가 東海街道를 따라 鷹湖부근으로 접근하자 △59에 布陣한 57mm 對戰車砲 2門은 一齊히 砲門을 열어 先頭車를 계속 命中시켰으나

거리가 좀 멀었던 탓인지 그럭도 하지 않고 계속 南下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橋梁이 파괴되어 어찌 할 수 없었던지 砲門을 열어 사격을 계속하면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런데 18.00에 이르자 4발의 砲彈이 注文津燈臺부근에 集中한데 이어 注文津市內와 대 陣地線에 포격이 雨注하더니 2개대대규모의 敵이 和尚川對岸의 俗稱 버림말—陽地村—△173—△260로 南下하여 對峙하는 가운데 10臺의 자동차에 분승한 敵이 3臺의 小型 장갑차를 先頭로 東海街道를 따라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南涯里부근에서 撤收한 57mm 對戰車와 81mm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의 掩護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공격을 牽制하였는데 20.00부터는 120mm 迫擊砲와 76mm 直射砲를 集中, 陣地線을 攪亂하면서 공격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戰況의 推移를 보고 받은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불과 1개대대兵力으로 더우기 夜間에 防禦線을 支撐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連谷川의 사단 主抵抗線으로 逐次 撤收토 勅명령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8중대의 기관총을 비롯하여 각중대에서 抽出한 기관총과 자동소총으로 編成되고 1개중대가 曳光彈만으로 敵線에 기단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20.40에는 대대본부와 軍需品輸送차량을 先頭로 1개중대씩 逐次로 撤收하기 시작 하여 23.00에는 連谷川南岸



〈敵을 阻止하는 自動小銃〉

의 板橋里一帶 主抵抗線으로 진입하였는데 이 過程에서 注文津 南쪽 1km에 있는 교량을 또 파괴 하였다.

이때 主抵抗線에는 제12중대장 崔根和중위와 사단 공병대대를 主軸으로 한 混成에비대 대장, (鄭元河대위)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때 제18포병대대의 제1포대가 石橋里에, 제2포대가 美老里에 所在한 沙川국민학교에 각각 布陣하여 決戰태세를 갖추었으며 사단장은 沙川道路邊의 草家까지 진출하여 지휘소를 開設, 제10연대장과 參謀를 帶同하고 陣頭지휘에 나섰다.

이무렵 敵은 대대의 牽制作戰이 奏効하였음인지 23.40에야 香湖里로 侵襲하였고 그 主力은 조심스럽게 注文津으로 南下하고 있었다.

제1대대의 상황 : 대대는 배속된 제9, 제11兩중대로 하여금 鼎足山—西林里—牛灘里—鎭靈洞에 이르는 12km 正面의 38°線경계임무를 담당케 하고 예하 각중대는 所謂 기관단총 共匪를 격멸중에 있었는데 그 작전이 20일에는 一段落짓기에 이르자 연대계획에 따라서 26일附로 연대에비인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에 작전임무를 인계코자 23일부터 交代準備에 着手하고 있었다.

즉, 제4중대(장, 康槿輝중위)는 先遣隊로서 24일에 이미 江陵으로 이동하였고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는 제2대대에 배속중인 제10중대와 그 任務를 교대코자 頭老峯—鐵甲嶺一帶를 수색하면서 注文津으로 이동중에 있었으며 제1중대(장, 吳孝漢중위)는 이날 06.00에 開戰事實도 모른채 江陵을 목표로 廣院里를 출발하였다.

다만 대대에비인 제3중대(장, 朴龍鶴중위)만이 交代前에 5명으로 推定되는 殘匪를 剔快코자 이날로 五臺山에서 擊滅戰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08.00에 鼎足山—西村里를 連한 正面을 담당한 제9중대장 朴錫樞중위로부터 『중대는 敵의 공격으로 目下 撤收중임.』이라는 무전보고가 있었다.

筱배속 부대장인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은 흔히 있는 北傀 38경비여단의 국지적인 侵攻일것으로 생각하고 때마침 이동준비를 위하여 軍需品을 truck에 積載中이던 보급관 閔庚重중위에게 실탄을 제외한 모든 軍需品을 下車시키고 이를 제9, 제11兩중대에 推進보급하는 한편 陣頭지휘코자 廣院里를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10.00에는 九龍嶺을 넘어 葛川里的 俗稱 비둘마을에 이르렀을때 길을 메운 一團의 避難民을 만나게 되어 戰況을 물었더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른 西面面長은 『새벽에 敵의 奇襲을 받아 격전이 벌어지자 옷도 갈아 입을 사이도 없이 住民들은 待避하였으며 敵의 무리는 계속 南下中』이라는 것이었다.

戰況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부근稜線에 올라 望遠鏡으로 北쪽을 觀察하였더니 증강된 1개대대규모의 敵이 南下중이고 그 北쪽에도 병력이 계속 後續하고 있었다.

이에 朴致玉 소령은 즉각 九龍嶺으로 돌아와 보급관 閔중위를 Jeep車로 대대본부에 보내어 共匪격멸중인 제3중대를 긴급 소집하여 廣院里的 主陣地를 점령토록 하는 한편 分散撤收중인 20명의 兵士들을 수습하여 때마침 後退한 어느 소위의 지휘아래 九龍嶺을 확보케 하였는데, 이윽고 敵의 포탄이 落下하기 시작하고 많은 병력이 近接하자 대대장의 怒號도 아랑곳 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대대장은 後策을 圖謀키로 하고 13.00에는 廣院里로 돌아가 때마침 집결한 제3중대와 대대본부要員 그리고 收拾된 제9중대 一部兵力을 奮勵하여 桂芳川 南岸의 △799(石壘洞)－△795(廣院)에 이르는 主抵抗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는 한편 廣院里的 住民과 軍人家族을 珍富里로 撤收시켰다.

이보다 앞서 제9중대장 朴錫權 중위는 CP를 下西林에 두고 제2소대를 右 제1선, 제1소대를 中央 제1선, 그리고 제3소대를 左 제1선으로 하여 鼎足山(△869)－西林里 北쪽에 이르는 38°線경계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04.30에 몇발의 砲撃을 퍼부으면서 2개 중대규모의 敵이 제3소대 正面으로 集中공격하는 가운데 1개 중대규모는 중대 CP를 急襲하였다.

38°線경계 爲主의 據點을 확보한 제3소대와 중대 CP에서는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였으나 포위 공격하는 敵勢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上西林부근에서 제3소대와 화기소대의 병력을 一旦 수습한 중대(一)는 △554頂上에 據點을 확보하고 중대장의 陣頭지휘아래 溪谷으로 火力을 集中하여 계속 밀려드는 敵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중대장 朴錫權 중위가 重傷을 입고 쓰러지는데 뒤이어 敵이 直射砲를 集中하면서 포위 공격하자 중대(一)는 分散된채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右 제1선인 제2소대는 右隣接인 제6중대(장 金淳基 대위)의 경계 陣地가 무너질때 이미 分散되어 祖峯(△1,182)쪽으로 撤收중에 있었고 中央제1선인 제1소대는 地形관계로 敵侵을 받지 않고 계속 陣地를 확보하였으나 소대만이 孤立된 것을 알게되자 16.00에는 珍富里를 目標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날의 狀況에 關하여 당시의 제1소대장 孟仁吉(舊名 相道)소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우리소대는 중대 中央제1선으로서 鼎足山의 頂上부근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04.30에 몇발의 포성이 울려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때 左隣接인 제3소대와 西林里쪽에서 요란스러운 銃聲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敵이 또다시 挑發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중대에 전화를 걸었더니 중대장 朴錫權 중위가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鼎足山을 固守하라는 것이었다. 銃聲이 漸次로 멀어지는것 같아서 또다시 電話를 걸었으나 不通이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연락병을 중대 본부로 보냈더니 11.30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중대에는 이미 아무도 없고 敵의 대부대가 南侵하여 住民들도 老人몇사람을 除外하고는 全部 피난가고 있는데 敵의 後續부대가 계속 南下中이다.」는 것이다.



나는 普通일이 아니구나하고 생각 하였으나 아무런 명령도 없이 任意 撤收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陣地를 확보하다가 16.00에는 이대로 있다가는 敵에 포로가 되거나 全滅할 뿐이라고 判斷하고 撤收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祖峯—鷹伏山—頭老峯—月精寺를 거쳐 4일 後에야 珍富里에서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대대본부가 있는 廣院里쪽으로 撤收하지 않은 理由는 敵이이미 그곳으로 侵襲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左 제1선인 제11중대(장 李春植중위)는 CP를 牛灘里에 두고 △769—△918를 連한 一帶의 38°線경계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正面으로는 砲彈 한발도 낙하하지 않고 공격도 없어 開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계陣地를 계속 확보함으로써 西海岸에 이르는 38°線全域에서 唯一하게 陣地를 확보한 중대가 되었다.

이 중대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의 被배속부대장인 朴致玉소령은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西林里와 牛灘里의 제9, 제11兩중대와는 右線이 勿論 架設되어 있었으나 平常時에도 共匪 또는 通匪分子의 所行인지 자주 단결되어 통신은 제9중대가 보유한 SCR—694 무전기에 依存하고 있었다. 즉, 대대와는 제9중대가 통신을 維持하고 緊急時에는 제9중대에서 제11중대로 연락병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제11중대도 必是 敵의 공격을 받거나 제9중대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撤收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敵의 急襲을 받은 제9중대는 連絡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대로 撤收함으로써 砲撃은 勿論 공격을 받지 않은 제11중대는 戰況을 알길 없어 그대로 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 2. 敵의 上陸

6월 初旬에 이미 東草에 集結한 北傀 제766부대(장, 총좌 吳振宇)와 제549부대(陸戰隊)는, 魚雷艇4隻의 掩護를 받는 1,000噸級 무장수송선 1隻과 發動船 30隻, 帆船 40隻, 그리고 牽引用 貨物船 4隻으로 船團을 이루고, 海上으로 南侵하여 04.30에는 正東津에, 07.00에는 臨院津에 각각 上陸을 開始하였다.

즉, 陸戰隊인 제549부대의 1개 중대가 正東津海岸으로 急速 上陸하여 橋頭堡를 擴張하는 가운데 1개연대규모의 敵은 海岸에서 3~4km 떨어진 海上에 머물러 輸送船으로부터 發動船과 帆船으로 逐次上陸한 다음 吉元八대좌의 지휘아래 1개대대규모가 江陵을 目標로 山頭谷쪽으로 徐徐히 北上하고 1개대대규모는 梁峙隧道를 遮斷코자 南下하였으며 1개대대규모의 敵은 부근의 黑鉛鑛山을 점령, 트럭과 住民을 強制動員하여 補給品을 揚陸하고 玉溪를 목표로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07.00에 臨院津海上에 到達한 한부리의 船團은 牽引貨物船 3隻과 發動船으로 또다시 上陸을 開始하였는데 이때 제766부대의 1개대대규모는 臨院津을 휩쓸면서 南下하고 제549부대의 증강된 1개중대규모는 三陟을 목표로 北上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東海岸으로 上陸한 敵의 作戰企圖는 전투전의 개황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東海街道를 遮斷하여 제21연대의 增援을 阻止하면서 江陵을 東側方으로부터 威脅하여 병력의 集中을 妨害하고 유격부대는 沔川—胥松地區로 浸透하여 主力의 南侵에 앞서 殘匪와의 提擄로 後方을 攪亂하여 南侵을 促進코자 하는듯 하였다.

한편 江陵경찰서장 全湖仁총경으로부터 『上陸한 敵의 一部가 北上中』임을 報告받은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作戰會議를 마치는 즉시로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에게 이 敵을 阻止적멸토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敵情을 모르고, 可用병력이 제4중대와 제12중대뿐인 연대장은 연대본부 要員으로 急編한 1개소대로 增強된 제4중대(장, 康槿輝중위)를 우선 出動시켰다.

이리하여 07.00에 연대CP인 江陵비행장을 출발한 중대는 08.00에는 大浦洞—△247에 阻止陣地를 占領하였는데 11.00에 1개중대규모의 敵이 北上하자 4門의 迫擊砲와 8정의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여 機先을 制하는 즉시로 중대장 陳頭지휘아래 1개소대가 공격을 敢行, 敵을 擊退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대는 敵 40명을 射殺하고 重機 1정과 소총 8정, 기관단총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戰況보고를 받은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敵主力의 逆襲과 迂回를 憂慮하고 57mm 對戰車砲중대 主力을 즉각 出動시켜 제4중대를 掩護하면서 새로운 敵의 上陸에 대비케 한데 뒤이어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의 先遣隊로써 大關嶺으로부터 急進한 제10중대(장, 李圭鉉중위)와 사단 混成예비대대 제2중대(장, 李信彭중위)가 연대에 배속되기에 이르자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의 統合지휘아래 安仁里—茅田里—彦別里를 連한 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上陸한 敵의 侵襲을 阻止적멸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混成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는 사단예비대대(工兵대대主軸)의 제2중대에 예비대로써 安木을 확보하여 海岸線을 경비하는 가운데 제4중대는 群仙江 北岸의 △108(安仁里 西南쪽 1.5km)를 점령하여 江陵에 이르는 主接近路를 遮斷하고, 제21연대 제10중대는 △140(茅田里 西南쪽 1.5km)—△148(彦別里 西北쪽 2km)를 점령하여 敵의 迂回에 대비코 하였다.

그런데 江陵을 출발한 제21연대 제10중대가 14.00에 茅田里에 도착하였을 무렵 江東支署 北쪽 高地로 이미 侵襲한 1개소대규모의 敵이 사격을 집중하면서 挑戰하자 중대는 즉각 공격을 敢行하여 이를 격퇴하고 △140—△87를 連한 稜線을 확보하였으나 이때 先頭에서 突進하던 金悌民소위가 負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18.00에 이르자 두차베에 걸친 交戰에서 苦盞를 마신 敵은 2개중대규모로써 또 다시 제21연대 제10중대 正面을 공격하였으나 1시간만인 19.00에는 드디어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무렵에 桂芳山에서 殘匪를 격멸중이던 제21연대 제6중대(장, 禹激鵬중위)가

대대장 曹圭英소령 지휘아래 사단 사령부에 當到하자 사단장 李正-대령은 敵情을 헤아릴 길 없는 江東地區의 進向을 憂慮하여 彦別里로 急進, 제10연대로부터 復歸하는 제10중대를 統合지휘하여 茅田里-彦別里를 連하는 一帶의 방어를 강화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20.00에 彦別里로 進出한 曹圭英소령은 제6중대를 右 제1선, 제10중대를 左 제1선으로 하여 제10연대 混成 제3대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茅田里-彦別里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3. 제21연대의 北上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은 06.00가 조금지나서 三陟경찰서로부터 敵의 상륙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에 연대장은 美 고문관 George D. Kessler 소령과 작전주임장교 金壽哲대위를 帶同하고 海岸線을 따라 墨湖北쪽의 嶺峰里까지 나아가 南下하는 敵船團을 확인, 07.30에 연대 본부로 돌아 오는 즉시로 57mm 對戰車砲중대를 海岸線에 배치하는 한편 北坪에 位置한 제1대대(장, 朴瑞權소령)에 즉각 출동하여 上陸한 敵의 南下를 閉止, 北坪을 固守토록 명령하였다.

이때 연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제2대대主力과 제10중대가 기관단총共匪를 격멸차 珍富里에 출동중에 있었고 제3대대의 제9, 제11兩중대가 產業시설경비와 아울러 殘匪의 潛侵 阻止를 위하여 長省-臨溪里에 각각 위치함으로써 제1대대만이 建制를 維持한채로 있었으며 제2대대는 제5, 제8중대가, 제3대대는 제12중대만이 각각 대대CP에 있었다.

그런데 10.00에 이르러 사단장으로부터 『제21연대는 즉각 江陵으로 集結하라』는 電文명령이 下達되자 연대장은 수송관 鄭冀澤중위로 하여금 三陟鐵山地帶과 各공장의 車輛을 緊急 徵發케 하는 한편 제1대대장 朴瑞權에게는 接敵을 避하고 北坪에 集結하여 江陵으로의 이동을 준비토록 명령하였다.

民間車輛 30대가 徵發되어 기동력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우선 제1梯隊로써 제1대대와 제2대대(-2) 그리고 57mm 對戰車砲중대(장, 徐鳳教중위)가 出發하고 제3대대와 연대본부는 부연대장 金永晷중령 지휘아래 追及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19.00에 三陟을 출발한 제1梯隊는 北坪에서 제1대대와 合勢한 다음 白峰嶺의 峻險한 山길을 넘어 臨溪里-插塘嶺-木界里-邱山洞으로 밤을 새우며 強行軍하였다.

제1대대의 상황: 대대는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자 08.30에는 北坪 北쪽의 東海岸-泉谷里에 이르는 △118-△356-△531를 連한 稜線一帶를 占領하고 제1중대(장, 梁輔중위)를 玉溪쪽으로 推進시켜 望雲山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敵情을 探索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중대는 제1소대를 望雲山에 殘置하고 主力은 玉溪쪽으로 수색전진 하였는데 15.00에 道直里부근 海岸高地에 이르렀을 무렵 1개중대규모의 敵이 南下하는 것을 目擊하였다.

이에 중대장 梁 輔중위는 兵力을 그 자리에 遮蔽케 하고 敵을 200m거리로 접근시켜 一齊사격으로 潰滅의인 타격을 加하였으나 이때 後續하는 1개대대규모의 敵이 迫擊砲사격을 集中함으로써 激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포격과 무세한 敵勢에 밀려 중대는 望雲山으로 撤收하여 이곳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敵의 南侵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敵은 一部만이 견제공격을 계속하면서 主力은 玉溪로 侵襲하였다.

이무렵 연대장으로부터 『北坪에 集結, 江陵으로의 이동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 朴瑞權소령은 主力의 撤收를 명령하는 한편 通信이 維持되지 못한 제1중대에는 2명의 通信兵을 보냈으나 중대가 복귀하기 前에 연대장이 지휘하는 車輛이 도착하여 더 以上 遲滯할수 없어서 그대로 主力만이 江陵으로 출발하고 말았다.

이날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의 제1중대장 梁 輔(現在名 梁完輔)중위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나는 道直里附近에서 치열한 交戰을 벌이면서 望雲山으로 後退하여 敵의 계속적인 南侵에 대비하였는데 이때 敵은 一部가 牽制공격하면서 主力은 玉溪로 侵襲하여 群衆大會를 열고 所謂 人民재관을 하는듯 하였다. 날이 점점 어두어지고 敵의 병력은 漸次로 증가하는듯 한데도 대대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나는 任意撤收키로 決心하였다. 그 理由は 萬昔에 敵이 南侵을 계속한다면 우리 1개중대만으로는 도저히 支撐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22.00에 墨湖에 到達하였는데 이때 海軍 경비부사령관 金斗燦중령이 나를 불렀고 海軍은 병력이 없으니 오늘밤만 墨湖를 방어하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망서렸으나 海軍基地를 확보하는 것도 重要的 일일 것으로 판단하고 墨湖北쪽의 △218—△283를 점령하여 그날 밤을 보냈다. 그 다음날 새벽에 北坪으로 갔더니 대대본부와 다른중대는 이미 없었다. 나는 대대가 必是 江陵으로 移動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白峰嶺을 넘어 臨溪里로 갔는데 이때 마침 江陵으로 移動하는 兵力을 만나 便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江陵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뒷날 들어 보니까 대대장이 우리중대에 보낸 連終兵이 砲擊에 戰死하였거나 砲擊이 무서워서 중대까지 오지 못하고 돌아간것 같다.』

제2대대의 상황: 대대는 所謂 기관단총共匪가 또다시 南侵하자 6월 13일에 下珍富里로 진출하여 제10연대 제1대대와 緊密한 協調下에 제7중대(장, 金成彬대위)가 大窮山(△975)—鷹峰(△1, 173)에서 제6중대(장, 禹教鵬중위)는 桂芳山(△1, 577)에서 각각 侵略을 차단하면서 수색전을 벌여 20일에는 南侵共匪 60명중 55명을 擊滅하는 戰果를 거두고 殘匪를 剔抉키 위하여 이날도 수색에 拍車를 加하고 있었으며 제5, 제8兩중대는 三陟의 대대본부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10.30에 사단으로부터 『賈대대는 즉각 江陵에 集結하라』는 作戰指示와 함께 6대의 GMC가 支援되자 대대장 韓圭英소령은 連絡이 維持되는 제6중대를 우선 江陵으로 進出시키고 제7중대에는 연락명을 보내어 兵力이 集結되는 즉시로 追及토록 명령을 하였다.

병력이 각소대별로 분산된 제6중대는 16.00에 倉洞에 集結하는 즉시로 食事を 끝내고 출발하여 18.00에 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이때 示達된 사단장의 直接명령에 따라 20.00에 彦別里로 진출, 제10중대(장, 李圭鉉 중위)를 統合지휘하여 海岸線으로 상륙한 敵의 北上을 阻止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미처 連絡을 받지 못한 제7중대(장, 金成彬 대위)는 開戰사실도 모른채 共匪적멸전을 계속하였고, 三陟의 대대본부에 있던 제5, 제8兩중대는 제1대대와 더불어 江陵을 目標로 移動중에 있었다.

이날의 江陵進出에 관하여 당시의 제6중대 소대장 金洙重소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우리중대는 桂芳山一帶에서 所謂 기관단총 共匪를 격멸중에 있었는데 25일 새벽에 중대장 禹敎鵬중위로부터 전날밤에 부근부락의 黃牛 1頭가 없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共匪가 아직 멀리 가지 못한듯 하니 수색戰을 벌여 이를 捕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래서 소대는 수색전을 벌였는데 11.00에 즉각 수색을 중지하고, 倉洞으로 集結하라는 명령이 또 내려왔다. 이리하여 13.00에는 倉洞으로 내려 갔는데 이때 돌으니까 敵이 全面南侵을 개시하고 1개연대 규모는 玉溪부근 海岸에 상륙하여 江陵쪽으로 北上중이라는 것이었다. 소 중대가 집결하자 食事を 마치고 GMC 6대에 分乘하여 출발하였는데 大關嶺에서 撤收하는 美 高문관들을 만났고 18.00에는 사단연병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대대장이 사단장으로부터 直接명령을 받고 중대는 彦別里로 진출하여 上陸한 敵의 北上을 阻止하기에 이르렀다.』

**제3대대의 상황** : 대대는 5월 初旬에 共匪적멸전을 一段落짓자 제9, 제11兩중대를 長嶺, 臨溪里에 殘存하고 산업시설과 殘匪의 준동을 봉쇄, 격멸케 하고 제10, 제12兩중대는 三陟 汀羅津의 대대CP에서 교육중에 있었다.

그런데 6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所謂 기관단총 共匪가 또다시 南侵하자 제10중대(장, 李圭鉉중위)는 제2대대와 더불어 出動하여 邱山洞—大關嶺—珍富里에 이르는 京江도로를 경비하면서 敵의 潛侵을 차단하였다.

이날 敵의 南侵과 더불어 戰況이 악화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江陵에서 가장 近距離에 位置한 중대에 江陵集結을 명령함으로써 13.00에는 사령부에 도착하였다가 14.00附로 제10연대에 배속 되었다.

이무렵 正東津海岸으로 上陸한 敵의 一部가 北上하다가 제10연대 제4중대의 強襲으로 격

되되었으나 그들이 병력을 增援하면서 茅田里—彦別里線으로 迂回하는 徵候를 보이기에 이르자 제10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중대로써 茅田里로 급진하여 彦別里에 이르는 △140—△149를 連한 稜線一帶를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14.00에 茅田里로 진출하였는데 이때 江東支署쪽의 野山으로 이미 襲擊한 1개소대규모의 敵이 사격을 集中하면서 挑戰하자 이를 擊破하고 障地線을 확보하였다.

한편 三陟 汀羅津의 대대본부에서는 연대장으로부터 『예하중대를 三陟에 집결시켜 江陵으로의 出動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자 대대장 李昌律 소령은 『제9, 제11兩중대는 民間車를 徵發, 三陟으로 즉각 集結하라』는 명령을 連絡兵편에 下達하는 한편 대대본부와 제12중대의 移動준비에 착수케하였다.

이날 저녁에야 명령을 받은 제11중대(장, 孟寶永 중위)는 旌善嶺山으로, 제9중대(장, 景允鎬 중위)는 長省炭嶺으로 각각 장교를 보내어 車輛을 徵發케 하고 분산된 각 소대를 중대 CP로 集結시키고 있었다.

#### 4. 제18포병대대의 상황

차단포병인 제18포병대대는 대대장 張寅石 소령이 陸本에 출장중이고 각 포대장과 참모 장교 그리고 선임하사관급 10餘명이 새로이 導入된 GAT射法の 교육을 받기 위하여 포병 학교에 派遣중에 있었다.

따라서 대대는 선임장교인 대대부관 李南求 대위의 指揮下에 작전장교 吳定錫 중위, 그리고 소위급이 中心이 되어 소장교 및 하사관이 영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04.30에 주변사령 金準 소위로부터 『敵의 砲擊開始』의 보고를 받은 李南求 대위는 사단 정보참모 陸根洙 소령의 요청에 따라 金準 소위를 仁邱里로 내 보내고, 즉각 非常召集하여 08.00에는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

06.00부터 열린 사단 작전회의에서는 敵의 主力이 侵襲중인 注文津 北쪽에 대한 砲兵支援에 意見を 모았으나 明池里—獐里中間의 南大川溪谷으로 侵攻한 1개대대규모가 山嶽地帶로 迂回하였다는 戰況보고가 뒤이어 들어오자 東海街道뿐인 기동로의 차단을 고려하여 注文津쪽으로의 推進을 留保한채 戰況의 推移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0연대 제2대대가 仁邱里線에서 撤收하기 시작하자 사단장은 공병대대(장, 鄭元河 대위)를 主軸으로 편성한 混成예비대대의 連谷川 主障地 점령과 포병의 沙川線進出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제3포대를 사단사령부에 控置하고 제1, 제2兩 포대는 11.00에 沙川線南岸의 美老里에 있는 沙川국민학교로 進出, 布障하였다.

이때 李南求 대위의 명령으로 注文津 北쪽으로 나아가 敵情과 地形을 偵察한 제2포대의 金龍雲 소위는 첫째로 M—3砲의 戰術射程으로 미루어 現障地線에서는 제10연대 제2대대



〈砲兵사격 효과를 측정하는 FO〉

에 대한 效率的인 支援이 困難하고, 둘째로는 同一距離에서 2개포대가 사격할때 陣地가 露出되기 쉬운 敵의 砲火로 打擊을 受하기 어려운 것으로 究斷하고 1개 砲隊를 沙川級 北쪽으로 推進하여 分散運用토록 建議하였다. 이리하여 제1포대는 13.00에 沙川橋를 건너 石橋驛의 뒷골부근으로 推進함으로써 2,000m의 射程을 伸張하게 되었다.

그런데 20.40에 이르러 제10연대 제2포대가 連谷岬의 主抵抗線을 目標로 撤收하자 一齊히 砲門을 열어 이를 掩護하고 1.正 부령부에서는 往文津으로 포격을 집중하여 敵의 공격을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 5. 사단공병대대의 상황

敵의 南侵에 이어 유적대와 육전대가 正東津海岸으로 상륙하여 南北의 夾擊하기에 이르자, 예비병력을 保有키로한 사단장은 工兵대대를 主軸으로 한 사단南進隊로서 混成여비대대를 編成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부대대장 鄭元河 대위는 사단 작전참모 鄭 震소령의 區處下에 대대와 통신중대 그리고 병기중대 병력으로 3개중대를 編成하고 제1중대장에 李用求 중위, 제2중대장에 李佑彭중위 제3중대장에 黃麟洽중위를 각각 임명하였다.

각 중대장은 08.00부터 수류탄 투척법을 비롯한 각개전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제10연대 제2대대의 正面을 突破한 1개대대규모의 敵이 滿月山(△628)에서 자취를 감추고 山嶽地帶로 迂回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敵의 後方侵透를 우려하고 2개 중대를 連谷川의 主抵抗線으로 즉각 출동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3 兩중대는 車輛으로 기동하여 10.00에는 連谷川 南岸의 俗稱 사이구라미—상구라미에 이르는 3km의 稜線에 陣地를 점령하였는데, 12.00에는 제10연대 제12중대(장, 崔根和 중위)가 진출하여 대대(一)의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사단 사령부에 잔류하였던 제2중대(장, 李佑彫 중위)는 14.00附로 제10연대에 배속되어 安木附近으로 進出, 57mm 대전차포중대(장, 金燦鎬 대위)와 협동하여 敵의 새로운 상륙에 대비하면서 제10연대 제4중대에 대한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 5. 後方兼收 준비상황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10.00附로 사단戰鬪地境內에 警備戒嚴令을 單獨으로 宣布하고 李蘇 대위를 민사부장으로 임명하여 江陵의 民政업무를 管掌케 하였는데 特히 전황의 推移에 따른 主要 행정기관의 疎開와 金融機關의 保有現札 및 職員의 大邱로의 철수를 준비케 하였다.

한편 기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恤兵장교 李俊模 중위를 寧越炭鑛으로 急派하여 광산보유 車輛을 最大限으로 徵發케 한 것은 寧越炭鑛에 新品 日産트럭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江陵隣近의 차량을 동원하였을 때의 市民들의 怨聲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江陵—注文津—圓에 家族을 둔 將兵들이 後顧의 念慮가없도록 各 單位부대별로 家族撤收계획을 수립케 하고 6개월분의 糧食과 食糧을 支給하였다.

한편 군수참모 辛大善 소령은 최악의 경우 五壘山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도 持久戰을 展開케 하도록 한 사단장의 方針에 따라 13.00부터는 動員된 江陵농업과 상업학교 학생 200명의 支援를 받아 軍糧米, 實彈 油類等의 軍需品을 차량에 積載하고 언제라도 移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료 하였다.

6월 26일 : 밤을 새운 제18포병대대의 포격이 奏効하였음인지 注文津까지 侵襲한 敵은 攻勢의 徵候를 보이지 않은채 새아침을 맞았다.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10.30에 제21연대장 金容培 중령이 지휘하는 제1梯隊가 사령부에 到着하자 제10연대主力과 사단混成에비대대로 하여금 계속 連谷川의 主抵抗線을 확보케 하고 제21연대는 그 一部를 사단에비로 控置하는 한편 主力은 江東地區로 진출하여 상륙한 敵의 北上을 阻止격멸토록 하였다.

이무렵 제17연대가 海州로 진격하였다는 風聞이 나돌았으며 當面の 敵 또한 攻勢의 徵候



를 계속 보이지 않자 사단장 自身도 전날의 敵의 공격이 限定된 一時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後方撤收의 명령을 한때 後悔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에는 『1개 연대를 증원하여 준다면 元山까지 反擊할 수 있다.』는 전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陸本에서 아무런 應信이 없자 이날 밤에는 제10연대 一部병력으로 敵이 前進地를 점령한 天馬峯을 奪取하여 注文津으로의 공격基點을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開戰當일에 江陵을 탈취키로 한 敵이 注文津에서 攻勢를 계속하지 않은 理由를 헤아릴 길은 없으나 추측컨대 戰車의 衝力이 없고, 제10연대가 예상외로 善戰함으로써 공격준비에 慎重을 期하느라고 注文津에서 時間을 所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한편 正東津 海岸으로 上陸한 제766부대와 제549부대 主力은 江陵 東側方을 계속 威脅하는 한편 王溪에 侵入한 1개 連대규모의 敵은 이날 13.00에 墨湖쪽으로 南下하기 시작하고 臨院津으로 上陸한 敵은 1개 連대규모가 春陽—靑松을 目標로 계속 山嶽地帶로 侵透하였으며 1개 中대규모는 三陟으로 北上중에 있었다.

그러나 三陟의 제21연대가 江陵으로 진출하거나 移動준비중에 있음으로써 이들에 대하여서는 何等의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1. 主抵抗線의 戰況(連谷川)

제10연대의 상황: 연대는 전날밤에 連谷川線으로 물러선 제2대대(장, 趙源英 소령)가 제2, 제10 兩중대를 통합지휘하여 東海街道東쪽의 沙川津一帶의 △35—△35—△36—△34群을 점령하고 道路西쪽의 사이구라미—상구라미를 連한 一帶의 稜線을 확보한 사단 混成대대(장, 鄭元河 대위)와 連繫를 유지한채 포병의 熾烈한 지원아래에 決戰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전날에 廣院里를 출발한 제1중대(장, 吳孝漢 중위)가 07.00에 連谷川으로 進出한데 이어 12.00에는 安仁里附近으로 출동하여 상륙한 敵을 阻止중이던 제4중대(장, 康權輝 중위)가 到着하자 연대장은 제3대대장 河納來 소령으로 하여금 제1, 제2, 제4중대와 제12중대를 지휘하여 主抵抗線 北쪽에 橫隔을 이룬 △28一帶를 확보케 하였는데 이때 제12중대는 混成 대대를 제4중대는 제1, 제2 兩중대를 각각 支援키로 하였다.

한편 安木附近으로 나아가 海岸線을 封鎖하다가 제4중대와 더불어 진출한 57mm 대전차포중대(장, 金燦鎬 대위)와 三陟에서 北上한 제21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장, 徐鳳教 중위)는 연대에 배속되자 主陣地線인 東海街道 左右側稜線에 布陣하였다.

그런데 13.00에 1개 分대규모로 推定되는 偵察隊가 坊內里로 侵襲하여 제10연대의 前哨 소대와 交戰이 벌어졌는데 이를 信號로 한동안 沈黙을 지키던 敵砲의 사격으로 彼此間에는 熾烈한 포격전이 벌어졌으며 이때 陣地가 露出된 제10연대 57mm대전차포중대는 敵의 集中砲擊을 받아 中대장 金燦鎬 대위가 戰死하고 砲 1門이 파괴되었다.

砲擊間에 南下한 1개 소대규모의 騎兵隊는 海岸線으로 迂回하여 冬德里부근까지 侵襲

하였으나 이때 指向된 81mm迫擊砲의 집중사격과 제7중대의 陣前出擊으로 敗走하였다.

그러나 注文津으로부터 계속 南下한 一部가 領津里—坊內里에 이르는 一帶의 高地를 占領하자 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제2대대에 이를 驅逐하고 橋頭堡를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趙原英 소령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20.00를 期하여 제7, 제10兩중대로 하여금 공격을 敢行토록 하였다.

兩중대는 포병과 57mm대전차포, 그리고 迫擊砲의 熾烈한 掩護사격아래 連谷川을 敵前徒涉하면서 공격을 開始하여 21.00에는 領津里를 席捲, △33를 확보하였다.

이때 2개 중대규모의 敵이 直射砲를 集中하면서 坊內里로부터 역습하므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였으나 敵의 포화로 말미암아 더 以上 支撐할 수 없어서 後退하고 말았다.

이무렵 제8중대장 鄭淳基 대위가 지휘하는 20명의 特攻隊가 敵情을 探索하고 敵線을 攪亂코자 連谷川을 은밀하게 徒涉하는 즉시로 松羅寺를 거쳐 △88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一團의 敵과 부딪쳐 白兵戰을 벌여 傀儡군관 2명과 병사 3명을 사살하고 陣中 2정과 소총 3정을 鹵獲한 다음 陣地로 복귀하였다.

이때 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陣本에서 병력의 증원이 없으면 單獨으로라도 반격을 敢行하여 38°線을 收復키로 決心을 굳힌 사단장 李正一 대령의 指導에 따라 제2대대장 趙原英 소령에게 敵이 占領한 天馬峯(△121)를 奪取하고 注文津으로의 공격基點을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領津里로부터 돌아와 戰死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23.00에 連谷川 南岸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한 대대는 迅速한 기동으로 다음날 01.00에는 목표를 無血占領하였다.

이때 血氣旺盛한 젊은 중대장들은 餘勢를 몰아 注文津까지 一擊에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대대장은 敵이 감쪽같이 사라진 情況으로 미루어 보아 暴風前夜の 靜寂처럼 感知되어 즉각 四周防禦에 突入토록 명령하였다.

한편 전날에 대대와 통신이 杜絶된채 珍富里로 單獨 撤收한 제5중대(장, 金同曾 대위)는 이날 18.00에 江陵에 도착한 다음 연대장의 配慮로 예비로 轉換되어 江陵농업학교에서 待機하였다.

**사단混成대대의 상황** : 전날 10.00에 連谷川主抵抗線으로 進出한 공병대대主軸의 混成대대(一)는 제1중대(장, 李用求 중위)를 右 제1선, 제3중대(장, 黃麟治 중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제12중대(장, 崔根和 중위)의 支援下에 사이구라미—상구라미에 이르는 橫隔稜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59—△207에 각각 경계소대를 推進하여 西側背를 掩護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安木부근으로 나아가 海岸線을 防守중이던 제2중대(장, 李佑彭 중위)가, 12.00에 復歸하자 △89까지 陣地線을 伸張하여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제18포병대대의 상황 : 제3포대를 사단 練兵場에 控置한채 沙川 국민학교로 進出한 대대는 사격효과의 擴大와 敵의 對砲兵사격에 대비하여 제1포대를 石橋里 뒷골로 推進하고 擾亂사격을 계속하여 敵의 공격을 牽制하였다.

이때 M-3砲의 射程이 짧아 對砲兵사격의 効果を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裝藥5號의 변칙射法으로 瞬發信管을 使用하였는데 樹木이 우거진 地域에서 나무가지에 接觸되면서炸裂함으로써 VT信管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날 13.00부터 敵의 砲擊이 漸次로 熾烈하여지면서 제1포대陣地가 集中砲擊을 받기에 이르자 16.00에는 沙川국민학교로 물러서서 제1, 제2兩포대가 合勢하였는데 이곳에는 江陵의 男女학생들이 나와 炸裂하는 砲火속을 꿰고 포탄을 運搬하거나 飲料水와 빵을 將兵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단장도 때때로 들러 『이 戰鬪의 勝敗는 오로지 砲兵에 달려 있다.』고 격려하였다.

彼我間의 포격이 漸次로 熾烈하여지자 彈藥下士官 李錫權 상사는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졌다.

포병대대의 彈藥運搬車만으로는는 需要量을 充當하기에 어렵게 되었다.

사단 사령부에서 後方 CP의 移動을 위하여 軍需品과 행정문서를 積載한 車輛이 長蛇陣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한 李上사는 때마침 練兵場에 있던 사단장에게로 달려가 『有事時에는 北進공격을 한다고 하더니 왜 後退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저것은 뭘 입니까? 文書가 戰鬪을 합니까? 포탄이 있어야 전투를 합니다. 포탄 運搬車를 주십시오』하고 一個하사관으로서 無禮한 行動을 取하였다.

사단장은 『네 말이 옳다』고 이를 받아 들이고 옆의 참모에게 즉각 充分한 彈藥運搬車를 支撥토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옆에서 이 光景을 목격한 참모들을 憤慨하였다.

一個하사관이 사단장에게 그와 같은 行動을 取하였으니 당장에 총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헌병부장 金仁京소령이 지휘하는 一團의 헌병에게 체포되어 총살이 거의 확정되었다.

그러나 李上사는 『사단이 공격하는 장면만 볼 수 있다면 당장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하며 泰然自若하였다.

軍人다운 그의 태도에 깊은 感銘을 받은 참모들은 즉각 그를 석방하고 充分한 車輛을 배당하여 砲彈運搬을 도왔다.

이날의 砲兵의 勇戰이 있었음은 오로지 李錫權 상사의 獻身的인 努力이 있기 때문이라고 당시의 장병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2. 廣院里의 戰況

鼎足山—西林里—牛灘里에 이르는 12km의 正面을 담당하였던 제10연대 제1대대(장, 차

致玉 소령)은 西林里正面이 崩壞되어 2개대대규모의 敵이 溪谷의 도로를 따라 급진하자 대대장은 共匪격멸중이던 제3중대(장, 朴龍鶴 중위)를 集結시켜 대대본부 要員과 수색대 그리고 分散後退한 제9중대의 一部병력으로써 桂芳川南岸의 △799—△795—△767에 이르는 主陣地를 점령하고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연대 및 사단과는 통신이 杜絶된채 江陵方面의 전황은 알길 없이 25일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제9중대를 直接支援중이던 제4중대의 81mm迫擊砲 2門이 復歸하였고, 09.00에 이르자 淸道里로 南下한 敵은 1개대대 규모를 先鋒으로 삼아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砲板이나 가늠대도 없이 直接照準으로 支援하는 81mm迫擊砲의 命中率은 놀라운 것이었다.

유리한 地形의인 조건과 앞서 구축한 一部の 陣地가 큰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장병들의 勇戰으로 15.00까지 세차레나 거듭된 敵의 공격을 격쇄하고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에 큰 타격을 받은 敵은 공격을 포기한채 牛灘里쪽으로 물러서 再編하는 듯 하였다.

이때까지도 牛灘里正面을 담당한 제11중대(장, 李春植 중위)는 대대에 합세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대대장 朴致玉 소령은 제9중대가 제11중대에 미처 連絡을 하지 못하고 分散撤收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11중대도 必是 敵의 공격을 받고 山間道路로 급진하는 敵이 退路를 遮斷하자 左隣接인 제6사단地域으로 撤收中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제11중대는 牛灘里의 38°線경비陣地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의 중대장 李春植 중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25일 새벽에 砲聲과 銃聲을 들기는 하였다. 그래서 중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突入하였으나 포성과 총성도 멎고 우리중대正面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어 無心히 지냈다. 牛灘里는 깊은 山中인 地形조건도 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觀測이 좋지 않아 敵의 南侵사실을 쏘려 알지 못하였다.

또 무슨 상황이 있으면 隣接 제9중대나 대대본부로부터 連絡이 있을 것인데 아무 연락도 없어 恒用있어온 敵의 一時的인 挑發이거니 하고만 생각하였다. 그런데 주위가 너무나 조용하고 뒤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여 연락병을 廣院里의 대대본부로 내려보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대대 CP에는 北傀旗가 걸려 있고 이미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나는 미친 소리하지 말라고 연락병을 크게 나무랐으나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周邊의 情況이 모두 이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나는 軍人, 더우기 2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인데, 명령도 없이 後退하여야 할 何等의 상황도 없이 後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陣地를 固守기로 決心하였다. 그러면 대대로부터 무슨 措置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리하여 나는 連絡兵에

계는 賊口습을 내린 다음, 각 소대장과 선임하사관을 불러 중대가 孤立된 사실을 말하고 陣地固守를 명령하였다.』

한편 廣院里의 主陣地에는 20.00에 연대로부터 連絡將校가 도착하여 예비陣地로의 撤收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대대(一)는 雲巖嶺으로 逐次移動하기 시작하였다.

### 3. 제21연대의 상황

**江東地區의 상황** : 正東津海岸으로 상륙한 敵의 一部가 江陵으로 北上하여 挾擊의 威脅을 받기에 이르자 사단은 전날에 제10연대 제4중대를 安仁里로 急進시켜 이를 擊退한데 이어 사단 混成예비대대 제2중대와 제21연대 제10중대를 제10연대에 배속, 安仁里—茅田里—彥別里를 連한 線을 확보토록 하였다.

그런데 一旦 擊退된 敵이 그 병력을 糾습하면서 迂回의 徵候를 계속 보이자 이때 江陵으로 進出한 제6중대를 彥別里로 躍出케 하여 제2대대장 曷圭英 소령이 제10중대를 統合指揮토록 한바 있었다.

이날 02.00에 이르자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은 예측한대로 茅田里—彥別里를 連한 방어 正面으로 공격하였으나 제6, 제10兩중대의 果敢한 近接戰으로 06.00에는 이를 擊退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기관총 1정과 소총 8정 그리고 기관단총 1정과 屍體 10餘具를 遺棄한 채 潰走하였다.

그런데 10.30에 연대장 金容培 중령이 지휘하는 제1梯隊가 江陵으로 진출하자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安仁里—安木一帶를 확보한 제10연대 제4중대와 사단 混成예비대대 제2중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여 연대장 지휘아래 敵의 北上을 阻止하고 江陵에 대한 側方威脅을 排除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金容培 중령은 제3, 제5兩중대를 예비대로 江陵농업학교에 殘置하고 연대 지휘소를 雲山里로 推進하여 제2, 제4, 제8의 3개중대로 하여금 제10연대 一部병력의 陣地를 인수, 安仁里—茅田里—彥別里에 이르는 陣地線을 재편토록 하였다.

이무렵 사단 사령부에서 待機중인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雲山里로 進出하자 曷圭英 소령이 지휘하는 제6, 제10兩중대는 이 포대의 支援下에 수색전을 벌여 萬德峯(△781)—鷹峯山(△817)까지 진출하였다가 夜間에는 彥別里—邱井洞에 이르는 綫으로 물러섰다.

**殘留부대의 상황** : 제3대대장 李昌律 소령은 전날에 臨溪里와 長省에 連絡兵을 보내어 제11, 제9兩중대의 三陟集結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1중대(장, 孟寶永 중위)는 선임장교 姜大煥 중위를 旌善광산으로 보내어 6대의 口産트럭을 徵發하여 개인당 240발의 소총실탄과 200발의 迫擊砲彈을 積載하고 14.00에 臨溪里를 출발, 16.00에 三陟 汀羅津의 대대 CP에 도착 하였다.

이무렵 長省의 제9중대장 景允鎬중위는 峯越炭鑛에서 徵發한 車輛便으로 이미 도착하여 대대는 연대本部 및 輜重隊와 더불어 부연대장 金永魯중령 지휘아래 北坪—白峯嶺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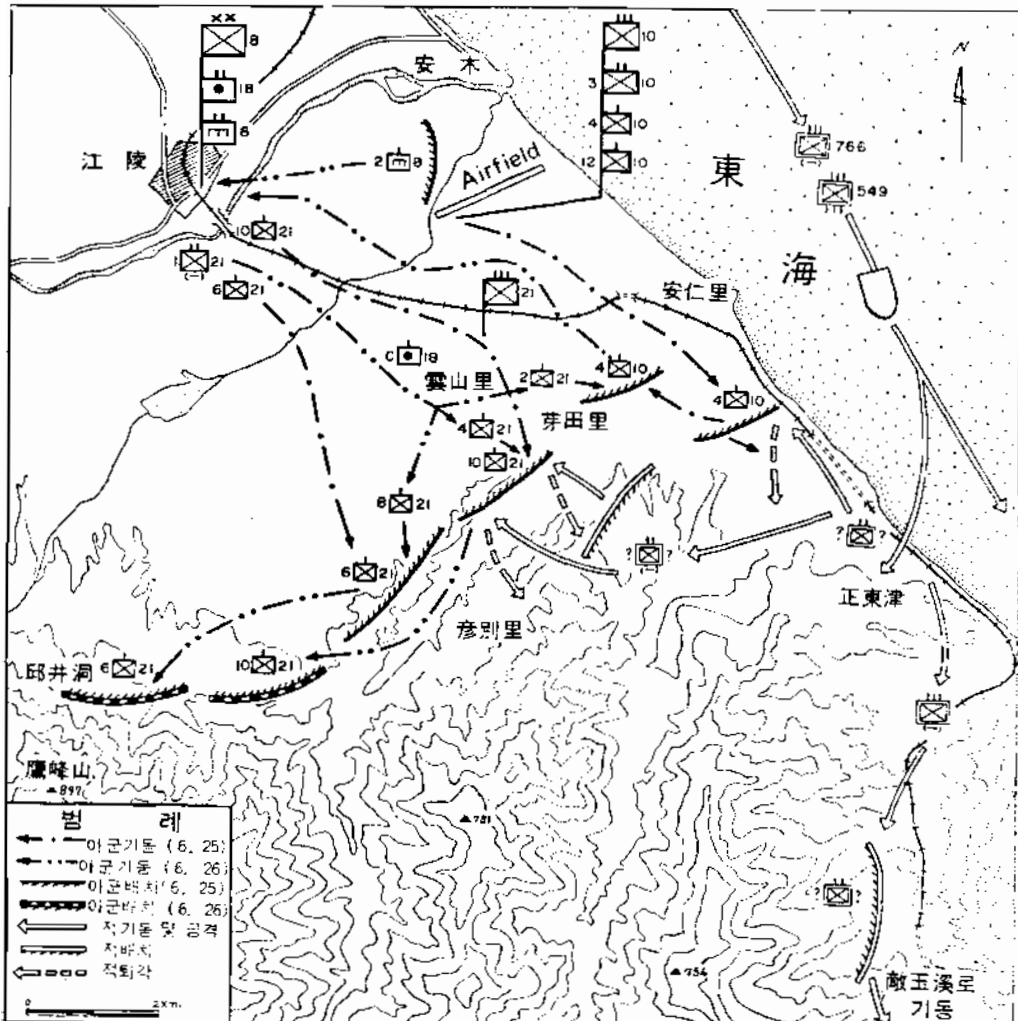
臨溪里에 到達하였는데 이때 이곳으로 徒步 進出한 제1중대(장, 梁輔 중위)를 合勢시키고 揮塘嶺을 넘어 一路 江陵으로 北上中에 있었다.

한편 이날 아침에야 『敵의 大部대가 南侵중, 즉각 江陵으로 集結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을 받은 제7중대(장, 金成彬 대위)는 大窮山(△975)—鷹峯(△1,173)—一帶에 분산중인 소대를 集結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所要되어 20.00에야 邱山洞으로내며와 마침 通行중인 民間車 3대를 徵發하여 22.00에 江陵 사령부에 到着하였는데 사단장의 直接 명령에 따라 사단에 비가 되어 江陵농업학교에서 待機하였다.

#### 4. 後方撤收

최악의 경우에는 五臺山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도 持久戰을 展開키로 결심한 사단장

◇ 상황도 제5호 江東地區戰團 狀況(6.25~26)



李正一대령은 06.00에 後方支援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사단保有車輛 15대와 1차 徵發車輛 65대에 彈藥, 食糧, 油類等 主要 軍需品을 積載한 後方支援부대는 사단 軍수참모 辛大善소령 지휘아래 07.00에 江陵을 출발하여 20.00에 榆川에 補給所를 開設하였으며 뒤이어 寧越炭鑛에서 徵發된 130대의 truck은 殘餘 軍需品을 계속 輸送하였다.

이때 사단 각 참모부의 행정문서도 본부중대장 李應徹중위 지휘아래 20.00에는 邱山洞 부근의 감나무골로 一旦 疎開되었다.

한편 軍人家族은 각부대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撤收가 시작되었는데 하사관 또는 장교가 割當된 車輛으로 인솔하였다. 사단 사령부소속 將兵의 가족은 恤兵장교 李俊模중위가 引率하였는데 다른 單位부대 가족은 大邱 또는 釜山으로 向한데에 反하여 서울로 撤收함으로써 敵治下에 들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들의 撤收는 장병들의 後顧의 念을 배제할 수 있어서 士氣를 크게 북돋아준 要因이되었던 것이나 여기에도 疎漏한 點이 있어서 少將兵이 沙川으로 불동한 제18포병대대의 가족들은 27일까지도 撤收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돌아온 대대장 張庚石소령에 의해서 後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民事부장 李 蘇대위는 江陵市內의 舍금용기관의 職員과 현찰을 車輛便으로 堤川을 거쳐 大邱로 後送하였는데李大위는 이 過程에서의 非行이 적발되어 뒷날 사단 高등군법회의 판결에 따라 銃殺刑이 執行되었다.

**6월 27일** :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제10연대 제2대대(장, 趙原英소령)가 天馬峯(△121)을 奪取하여 공격 基點을 확보하고 敵이 別다른 公세徵候를 보이지 않은채 沈默을 지키자 反擊을 감행하여 우선 注文津을 탈환하고 상황의 進展에 따라 38°線을 一舉에 恢復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27.05.00를 期하여 注文津을 공격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 天馬峯을 확보한 대대로서 注文津을 공격하라.

㉡ 1개대대는 主障地를 계속 확보하되 명령에 따라 注文津 北쪽으로 進격할 태세를 갖추라.

③ 제21연대는

㉠ 1개대대로서 江東地區의 敵을 계속 阻止, 擊滅하라.

㉡ 사단에비로부터 복귀하는 1개대대는 05.00를 期하여 天馬峯으로 進출, 제10연대의 공격을 支援하되 이를 超越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 三陟으로부터 進出하는 1개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차후명령에 대비하라.

- ④ 공병대대 (混成대대)는 계속 一線으로서 主抵抗線을 확보하라.  
 ⑤ 제18포병대대는 H-30에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하되 명령에 따라 連谷川 北쪽으로 進出할 태세를 갖추라.』

그러나 04.30에 敵이 砲撃을 집중하면서 先制공격함으로써 이 계획은 霧散된채 攻防戰을 벌였으나 主陣地인 連谷川線이 崩壞하고 말았다.

沙川線으로 물러선 사단 混成대대장 鄭元河대위의 掩護下에 병력을 收拾한 사단은 제10연대 混成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를 鏡浦臺—蘭谷里에 이르는 東海街道 東쪽 稜線에, 제21연대의 混成대대를 蘭谷里—下檢川에 이르는 東海街道 西쪽 稜線에 각각 急編陣地를 점령케 하여 敵의 진격을 阻止하기 시작 하였다.

그런데 이때 사단장 李正一大령은 작전방침을 결정하는데 크게 주저하였다. 陸本과의 通信杜絶로 그 작전지도방침을 헤아릴 길 없어 오직 사단장 自身の 決斷만이 強要되는 狀況에 直面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江陵固守를 우선 想定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市街戰을 前提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市民의 많은 財産과 人命의 損失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地形的인 조건으로 미루어 退路遮斷의 威脅이 뒤따를 것으로 判斷하고 一旦 大關嶺으로 撤收하여 後策을 圖謀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14.00부터 一部 掩護부대와 砲兵支援下에 主力으로써 大關嶺으로의 撤收를 開始하였다.

### 1. 主抵抗線의 崩壞

제10연대 제2대대의 상황 : 대대는 이날 01.00에 天馬峯을 無血占領하고 四周방어에 들어갔는데 注文津공격의 명령을 받자 兵士들은 뿔뿔이 기뻐하며 그 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04.00가 조금 지나자 그간에 沈黙을 지키던 敵砲가 미친듯이 불을 吐하기 시작하여 天馬峯一帶를 瞬息間에 暴風의 회오리속으로 몰아넣더니 2개대대규모가 三面으로 포위공격 하였다.

대대는 砲火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怒號하는 대대장 趙原英소령의 陣頭指揮下에 全火力을 집중하면서 근접하는 敵에는 手榴彈을 던지고 陣內로 侵入하는 무리와는 白兵의 血戰을 벌렸다.

그러나 後續하는 무리가 漸次로 陣內로 侵襲하자 더 以上 支撐하지 못하고 포위망을 헤치며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一團의 敵이 杏亭里—坊內로 迂回하여 連谷川의 主抵抗線으로 공격중이어서 대대는 主抵抗線으로 後退하지 못하고 杏亭里 西쪽에서 連谷川 上流를 徒涉하는 즉시로 △207—△192로 물러섰으나 敵이 急追하므로 병력을 收拾할 사이도 없이 분산된채 계속 撤收하여 이날 저녁에야 大關嶺에서 병력을 收拾하였다.



이때의 전황에 관하여 당시의 대대장 趙原英소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있다.

『우리대대는 1개중대규모의 敵이 占領한 것으로 본 天馬峯을 공격하였으나 敵은 이미 後退한 뒤여서 無血占領하였다. 젊은 중대장들은 餘勢를 몰아 注文津쪽으로 계속 공격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나는 즉각 四周방어에 돌입토록 명령하였다. 四周방어중이던 대대는 一齊히 火力을 퍼부었으나 壕도 構築치 못하여 漸次로 損失이 增加하는데다가 우세한 敵이 波狀공격을 계속하므로 手榴彈投擲에 뒤이어 白兵戰을 벌였다. 그러나 陣地線이 돌파되면서 混戰의 洶오리속으로 말려들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兵力은 분산된채 포위망을 돌파하고 後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一部의 敵이 天馬峯을 迂回하여 主抵抗線으로 공격중이어서 대대는 杏亭里 西쪽에서 徒谷川을 徒涉하였다.

맨 後尾에서 撤收하던 나는 注文津공격은 始捨하고 兵力마저 분산되어 主抵抗線에 威脅을 주게된 책임을 痛感하고 어느 산 기슭에 가서 糧食장을 빼고 所持品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自殺하고자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대었다. 그런데 이때 퍼뜩 생각이 났다. 기왕에 죽을바에야 敵 滅놈이라도 더 죽여버리고 죽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부근을 위장하고 敵이 接近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開戰以來로 한칼도 자지 못한 心身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잠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多發銃소리에 놀라 깨어 보니 敵의 무리가 새카맣게 몰려 오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精神이 번쩍 들었다. 注文津을 공격하지 못한 전황을 보고 하고 堂堂하게 處罰을 받자는 것이었다. 나는 稜線을 타고 大關嶺을 目標로 뛰기 시작하였는데 나를 본 敵이 집중 사격을 퍼부었으나 용케도 맞지 않았다. 途中에 後退하는 병력을 만나 大關嶺으로 가서 兵力을 수습하였는데 이때가 저녁때였다』

**제10연대 제3대대의 상황** : 전날에 廣說里로부터 交代次 移動한 제1중대(장 吳孝漢 중위)와 安仁津으로 출동한 제4중대(장, 原權繩 중위)가 徒谷川線으로 進入하자 연대장은 제3대대(장, 河炳來 소령)으로 하여금 제1, 제2, 제4중대와 제12중대를 統合지휘 △29(板橋里)를 확보하면서 海岸線과 水田地帶를 嚴制케 하였다.

그런데 主陣地를 확보한 제2대대가 天馬峯으로 진격하자 대대는 제2중대(장, 安東勳 중위)를 △29에 殘置하고 主力은 △35—△36—△34를 連한 主抵抗線으로 물러서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이때 제4중대는 제1, 제2 兩중대를 지원하고 제12중대는 계속 사단 混成대대(공병대대 主軸)를 지원하였다.

敵의 砲擊은 시간이 흐를수록 漸次로 熾烈하여지더니 04. 30부터는 砲擊間에 이미 徒谷川을 徒涉하고 開豁地를 橫斷한 증강된 1개대대규모가 敵이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대대는 즉각 전환된 砲兵의 掩護사격아래 81mm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그 一波를 一波 擊退하였으나 이때 이곳으로 直射砲사격이 集中되어 陣前을 크게 攪亂하면서 一團의 敵이 陣內로 侵襲함으로써 △29에서는 混戰亂鬪의 白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漸次로 增援되는 敵의 壓迫으로 제2중대는 그 南쪽의 主陣地로 물러섰는데 이때 左隣接인 公병대대의 陣地線에서 後退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은 撤收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錯覺하고 任意로 물러섬으로써 좀더 支撐할 수 있었던 主抵抗線이 08.00에는 맥없이 崩壞하고 말았다.

지휘체계가 이미 무너진 대대는 沙川을 건너 10.00에는 山帶月里로 進出한 제5중대(장, 金同會대위)의 掩護下에 蘭谷里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부근稜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다.

사단 混成대대(공병대대主軸)의 상황: 대대는 25일 10.00에 連谷川線으로 進出한 以來로 사이구라미—상구라미—△89에 이르는 東海街道 西쪽이 主抵抗線을 확보하였는데 이날 04.00부터 敵의 포격이 集中되더니 04.30부터는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交戰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때 注文津으로 공격키 위한 제21연대 混成 제1대대(장, 朴瑞權소령)가 陣地線으로 進入하자 이와 協同하여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고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였는데 天馬峯에서 後退하는 제10연대 제2대대(장, 趙原英소령)를 急追한 1개소대규모가 △116—△109—△207를 連한 稜線으로 侵襲하여 側背를 威脅하자 대대장 鄭元河대위는 제3중대(장, 黃麟洽 중위)에게 즉각 主抵抗線에서 물러서서 이 敵을 剔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07.00에 △65—△89에 이르는 陣地線에서 물러서서 南쪽 溪谷에서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207로 공격을 開始하였는데 이때 중대가 물러서는 것을 撤收로 誤認한 중대들이 波狀的으로 물러서자 것잡을사이도 없이 07.30에는 主抵抗線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3중대도 공격을 中止한채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09.00에는 대대가 沙川線에서 병력을 收拾하였다가 명령에 따라서 江陵으로 물러 서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敵의 砲擊이 아주 정확하여 많은 兵力의 損失을 보았다.

제21연대 混成 제1대대의 상황: 江陵농업학교에서 待機중이던 제3, 제5, 제7중대로 編成된 混成 제1대대(장, 朴瑞權소령)는 03.00附로 사단에비로부터 復歸와 동시에 注文津공격을 위하여 連谷川으로 진출하였다.

04.30에는 사단 混成대대 陣地線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砲擊이 집중하면서 連谷川을 徒涉하는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敵이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대대는 공격을 保留한채 混成대대와 협동하여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07.00에 이르러 제10연대 제2대대를 追擊한 一部가 △207부근까지 侵襲함으로써 이를 剔抉키 위한 공병 제3중대가 主抵抗線으로부터 물러서서는 것을 撤收명령이 下達된 것으로 誤認한 병사들이 連鎖反應을 일으켜 물러서게 되어, 장교들의 怒號도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07.30에는 主抵抗線이 무너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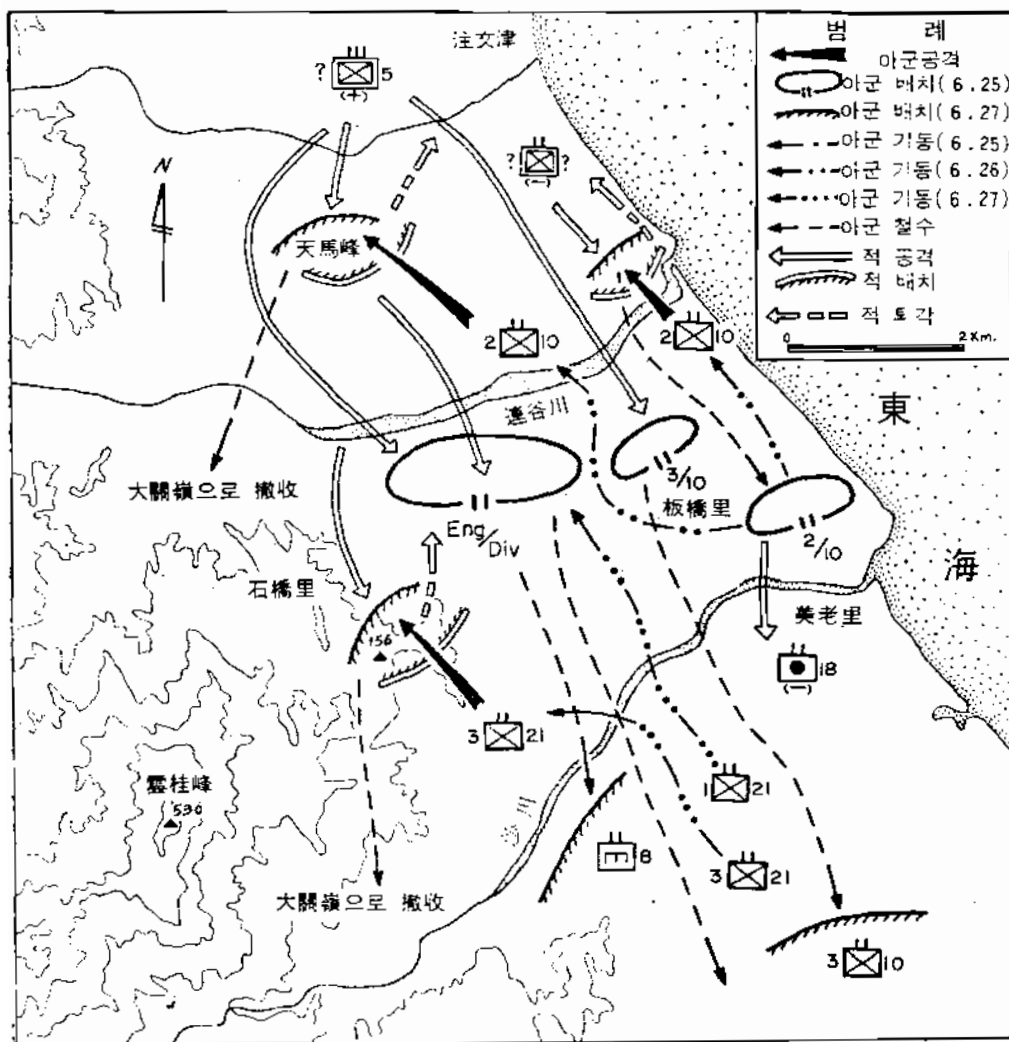
이리하여 대대는 石橋里와 蘆洞下里부근 高地에서 遲延戰을 벌이면서 沙川을 건너 그

南쪽 高地에서 병력을 收拾하고 △78—△82 急編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제21연대 제3대대의 破摧공격: 전날 18.00에 연대의 後發隊로서 三涉을 출발한 대대는 白峯嶺—臨深里—插塘嶺의 險峻한 70km의 山間도로를 밤새워 強行軍하여 09.00에 江陵 사단사령부에 도달하였는데 이때 漸次로 치열하여지는 砲聲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市民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兵士들의 우렁찬 軍歌소리에 맞추어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고 太極旗를 휘둘러 將兵들을 환영하였다.

이때 마침 主抵抗線이 무너져 沙川線 南岸에서 分散後退중인 兵力을 收拾하고 戰勢를挽回코자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대대에 破摧공격을 敢行토록 명령하였다.

◇ 상황도 제6호 主抵抗線의 戰況 (6.27)



이에 따라 대대는 休憩할 사이도 없이 그대로 沙川線으로 進出하여 沙川線 堤防에 散開한 제1중대(장, 梁輔중위)와 제12중대(장, 金榮俊 대위)의 掩護下에 제9중대(장, 景允鎬 중위)를 右 제1선, 제11중대(장, 孟寶水 중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09.50에 沙川線을 徒涉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彈雨속을 뚫고 제9중대는 蘆洞 北쪽 稜線으로, 제11중대는 蘆洞下罅 北쪽 稜線으로 각각 躍進, 11.00에는 △156의 7部稜線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頂上을 점령한 增強된 1개 소대규모가 一齊히 사격을 집중하면서 수류탄을 퍼부어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血戰이 벌어지자 제11중대는 60mm 迫擊砲와 2.36" Rocket砲 사격을 集中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의 戰況상황에 대하여 당시의 제11중대장 孟寶水 중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우리 중대가 △156의 7部稜線으로 突進하였을 무렵 敵은 수류탄을 集中투척하면서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血戰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제3소대장 成鉉模 소위가 頭部를 負傷한데 이어 腹部貫通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나는 60mm 迫擊砲와 2.36" Rocket砲를 一齊히 集中케 하여 敵線이 攪亂되는 刹那에 一齊히 돌격을 감행하여 一舉에 頂上을 奪取하였는데 敵兵 4명을 포로로 하고 많은 小銃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우리중대가 미처 戰列을 가다듬기도 前에 1개대대 규모로 推定되는 敵이 石橋嶺과 西쪽의 △207로부터 그야말로 새카맣게 불려 왔다중대는 뒤이어 頂上으로 進出한 제9중대와 협동하여 소 기관총과 迫擊砲 그리고 2.36" Rocket砲 사격을 집중하여 40분간은 無難히 支撐하였으나 이곳으로 轉換된 敵의 砲擊으로 더 以上 버틸 수가 없어서 後退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敵의 砲擊이 어찌나 正確하게 우리의 退路를 遮斷하는지 死傷者가 續出하는데 잠시만 머물러도 砲擊이 集中되는 바람에 負傷者를 이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撤收를 施行하여야만 하였다. 이때 나의 連絡兵이 「아이쿠」하고 悲鳴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그대로 버려둔채 물러시아 하였으니 그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斷腸의 感を 禁할 수가 없다.』

이처럼 後退한 대대(一)는 연대장의 無電명령에 따라서 13.00에는 下楡川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그 一帶의 稜線에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제11중대는 그 左 제1선으로써 △149를 확보하였다.

**제18포병대대의 상황** : 美老嶺의 沙川국민학교에 布陣한 제1, 제2兩포대는 이날 04.00에 敵의 砲擊이 시작되자 對砲兵사격을 開始하는 한편 天馬峯의 제10연대 제2대대를 掩護하였는데 戰術射程이 짧은 M-3砲의 制壓사격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天馬峯에 대한 공격에 이어 主抵抗線으로 敵의 무리가 殺到하자 사단 연병장에

待機중이던 제3포대마저도 緊急 출동하여 3개 포대 15門의 砲가 一齊히 불을 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각 포대장의 명령은 『各砲 계속 썩!』라는 變則的인 것이었다.

砲彈의 제한 없이 퍼부어 連谷川沿邊을 彈幕으로 뒤덮고 달려드는 敵의 頭上을 계속 強打하였으나 08.00에 主抵抗線이 崩壞되자 砲兵陣地는 步兵의 掩護없이 突出되었다.

이때 퇴로의 遮斷을 우려한 사단장은 砲兵의 撤收를 명령하였으나 대대의 全將兵은 이를 頑強하게 拒否하고 陣地를 계속 固守하면서 더욱 치열한 사격을 敵線에 퍼부었다.

그도 그럴것이 대대將兵의 90% 以上이 西北青年團出身들로서 北進하여 하루라도 빨리 故鄉을 찾겠다는 一念으로 上下가 굳게 뭉친 부대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때 海岸線으로 상륙한 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제3포대는 사단장의 긴급명령으로 江陵으로 移動하고 [제1, 제2兩포대만이 계속 砲擊을 퍼부어 連谷川을 유린한 敵을 板橋里—石橋里에서 一旦 阻止하였는데 10.00에 이르자 敵은 全砲를 砲兵陣地로 集中하면서 海岸線으로 迂回한 무리가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砲兵陣地 北쪽 50m의 稜線에 敵이 侵襲하자 一部の 砲가 直接照準으로 사격하기 시작하고 一角에서는 陣內로 侵入하는 敵과 白兵戰을 벌였다.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의 제2포대 觀測장교로서 實質的으로 포대를 지휘하던 金龍雲 소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은 정말로 淒絶하였다. 敵의 砲擊이 어찌나 熾烈하였던지 砲의 閉塞器를 잡은 兵士의 몸뚱이가 포탄에 날려 끊어진 손목만이 남으면 다른 兵士가 살점이 영겨붙은 閉塞器의 손목을 떼어내고 또 사격을 계속하였는데 陣內로 敵이 侵襲하자 砲사격을 위한 최소한의 人員을 제외한 全將兵이 敵의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다치는데도 때려부셨는데 이때의 勇戰相은 어느 나라, 어느 戰鬪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程度로 勇敢無雙한 것이었다.』

이때 金龍雲 소위는 頭部에 破片傷을 입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앞으로 달려들면서 肉迫戰을 벌였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건어 차고 머리로 받아 넘겨 일찌기 新義州학생사건을 主導하고 西北青年團 別動隊長으로서의 貫祿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敵의 무리가 계속 밀려 들어 포위망을 압축하자 제18포명대대의 將兵들도 撤收치 않을 수 없는 緊迫한 상황에 빠졌다.

그 修羅場속에서도 兵士들은 사격을 계속하면서 白兵戰을 벌이는 一方, 다른 한쪽에서는 砲를 一門 一門 沈着하게 빼내기 시작하였다.

다만 제1포대의 제1번砲와 제3번砲의 2門만을 極限상황에 빠져 빼내지 못하였으나, 兵士들은 閉塞器와 tire를 파괴, 使用不能케 하고 撤收하였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한떨기 아름다운 軍人의 꽃이 피었다.

대대의 壯士로 이름높던 兵士가 DR-4 Wire dram을 陣地에 놓고 나왔으니 가져오겠다



〈105mm M3 곡사포를 사격하는 砲兵〉

고 하였다.

주변의 장교와 병사들은 극력 이를 말렸다.

그 兵士는 『몽신병인 나의 무기는 그것인데 군인이 어찌 무기를 버리겠는가』 하면서 동료들을 뿌리치고 敵中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요란한 銃聲과 더불어 그 兵士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처럼 撤收한 대대는 13.00에 烏竹軒부근에 다시 布陣하고 포격을 퍼부어 敵의 攻勢를 牽制하면서 分散 撤收하는 보병을 掩護하였다.

한편 서울에 出張중이던 대대장 張庚石 소령은 砲兵監 대리 金桂元 중령으로부터 議政府方面으로 나아가 砲兵을 지휘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陸本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을 찾아가 自己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제18포병대대로 복귀시켜 달라고 直訴하였다.

이를 快諾한 金白一 대령은 L-4航空機를 周旋하여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如意치 않아 다음날인 26일에 民間트럭 1대를 徵發하여 富平조병창에서 기관총을 장치하고 이때 까지도 江陵으로 출발치 못한 포병대대의 被교육將兵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아침에 사단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대대장은 우선 砲兵家族의 撤收상황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單位부대 가족들은 이미 後送된데 反하여 포병가족은 이때까지도 撤收치 못하고 있어서 사단장에게 100萬원의 現札을 要請하여 下士官 引率下에 後送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이때 江東地區의 敵이 120mm 迫擊砲사격을 퍼부으면서 공세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자 긴급히 하달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제3포대가 江東地區에 出動하기에 이르자 대대장은 陣頭지휘에 나섰고 사단 작전참모 鄭震 소령도 작전통제차 同行하였다.

이리하여 제3포대는 12.00에 雲山里에 布陣하여 山頭谷—仰掌山(△132)—△211—△266一帶로 사격을 퍼부어 敵의 공세기도를 擊碎하면서 제21연대의 방어부대를 掩護하기 시작하였다.

## 2. 江東地區의 戰況

사단이 注文津으로의 反擊을 계획하기에 이르자 雲山里에서 陣頭지휘중이던 연대장 金容培 중령과 제1대대장 朴瑞權 소령은 사단예비로서 江陵농업학교에 대기중인 混成 제1대대(제3, 제5, 제7중대)를 지휘하여 連谷川의 主抵抗線으로 진출함으로써 江東地區의 작전지휘는 제2대대장 曺圭英 소령이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 부대대장 崔就璣 대위가 지휘하는 제2, 제4, 제8중대는 安仁里—茅田里—彥別里에 이르는 一帶를 점령하고 제6, 제10 兩중대는 彥別里—邱井洞에 이르는 稜線을 각각 확보하여 北魏 제766부대와 제549부대의 北上을 阻止하고 있었다.

그런데 連谷川의 主抵抗線이 崩壞되자 江陵을 側背에서 威脅코자 함인지 2개중대 규모가 △211(山頭谷 西南쪽 1km)—△266(彥別里 東北쪽 1km)를 連한 稜線一帶로 侵襲하여 제2, 제4, 제8중대와 對峙한채 120mm迫擊砲사격을 집중하면서 探索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曺圭英 소령은 제6, 제10兩중대에서 一部の 兵力을 抽出하여 金光里로 急進시켜 茅田里—彥別里를 連한 正面에 대한 증원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포병지원을 緊急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2.00에 雲山里로 推進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는 道路邊에 布陣하고 대대장 張庚石 소령의 陣頭지휘아래 山頭谷—仰掌山(△132)—△211—△266 一帶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공세企圖가 霧散된듯 한 敵은 別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3. 江陵 撤收

天馬峯에서 注文津으로 공격키로 한 제10연대 제2대대(장, 趙原英 소령)가 敵의 先制공

격으로 分散된채 大關嶺으로 물러서고 主抵抗線이 崩壞된데 이어 제21연대 제3대대(장, 李昌津 소령)의 破掃공격 또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사단은 一部兵力의 掩護下에 蘭谷里—한밭線에서 一旦 兵力을 收拾하였다.

즉, 山帶月里로 急進한 제5중대(장, 金同曾 대위)의 掩護下에 蘭谷里에서 再編한 제10연대 混成 제3대대(장, 河炳來 소령)는 △29(鏡浦臺 西北쪽 1km)—△32(鏡浦臺 西쪽 1.5km)—△88(亭洞里)—△119(蘭谷里 西北 1km)에, 제21연대 混成 제1대대(장, 朴瑞權 소령)는 △78(俗稱한밭 東쪽)—△82(한밭 南쪽)에, 제3대대(장, 李昌律 소령)는 △122(원통이 南쪽)—下榆川—△149에 각각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사단 混成대대(공병대대 主軸)는 사단에 비로서 江陵에 控置하였다.

이때 제18포병대대 主力과 제10, 제21兩연대의 57mm 대전차포중대는 烏竹軒—蘭谷里부근 道路邊에 布陣하여 계속적인 砲擊으로 敵의 공세를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28세의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江陵固守를 위하여 이곳에서 決戰을 強要할 것인가, 大關嶺으로 一旦 後退하여 전열을 갖추고 後策을 圖謀할 것인가를 결심하는데 크게 주저하였다.

제10, 제21兩연대장과 사단 참모를 緊急召集하여 提起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檢討한 사단장은 大關嶺에서 사단을 整備한 다음 戰勢를 挽回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4.00를 期하여 殘留補給品수송차량을 先頭로 역수같이 퍼붓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撤收를 개시하였는데 이때 사단 練兵場으로 移動한 제18포병대대 主力은 사격을 계속하면서 보병부대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사단의 撤收를 눈치챈듯한 敵은 포격을 시작하여 隸下 各급부대는 질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險峻한 京江道路는 차량과 병사가 뒤범벅이 되었다.

그런데 이 撤收과정에서 山帶月里로 推進되었던 제10연대 제5중대와 △149를 占領하였던 제21연대 제11중대(장, 孟實永 중위)는 미처 철수명령을 받지 못하고 계속 陣地를 확보하다가 뒤늦게야 철수하였으며 鐵道관사지대에 있던 야전병원과 道立병원에 收容중인 戰傷장병중 步行不能者에 대한 後送措置가 소홀하였던 것은 比較的 後方철수가 완벽하였던 사단에 있어서는 도리킬 수 없는 큰 過誤라고 하겠다.

즉, 연대예비로서 江陵농업학교에서 待機중이던 제10연대 제5중대(장, 金同曾 대위)는 敵의 공세로 主抵抗線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연대장 高根弘 중령의 명령으로 08.00에는 山帶月里的 △52를 진출하여 철수하는 混成 제3대대를 掩護하다가 사단이 蘭谷里—下榆川線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阻止陣地를 급편하기에 이르자 戰鬪前哨로써 敵의 공세를 牽制하면서 敵情을 探索하였다.

그런데 18.00가 넘고 連谷川線을 蹂躪한 敵이 또다시 공세기동의 徵候를 시작할 무렵까지 연대로부터의 철수명령이 없어 無電交信을 시도하였으나 이것마저도 如意치 않자 중대,



장은 철수를 명령하였다.

蘭谷里에서도 主力을 만나지 못한 중대는 江陵의 사단 사령부로 急進하였으나 이미 그곳에서도 撤收한 뒤여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중대가 落伍된 것으로 판단하고 大關嶺으로 向하였다.

그러나 主力의 철수방향을 짐작할 수 없었던 중대장은 邱山洞부근의 酒幕에서 住民들에게 부대의 行方을 물었더니 插塘嶺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金同會 대위는 敵이 大關嶺쪽을 이미 遮斷함으로써 사단이 插塘嶺쪽으로 철수한 것으로 判斷하고 臨溪里를 目標로 強行軍을 시작하였다.

한편 △156로 破摧공격을 감행하던 제21연대 제11중대(장, 孟寶永 중위)는 下楡川부근으로 물러서 △149를 확보하였는데 이때 마침 비가 억수로 퍼붓고 무전기마저 故障이 나서 대대나 연대와 通信이 杜絶되어 밤중이 되도록 까지 아무런 連絡이 없었다.

이상히 여긴 중대장 孟寶永 중위는 右隣接인 제9중대로 連絡兵을 보냈으나 이미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중대장은 철수를 결심하였다가 망설였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이 無斷히 陣地를 離脫할 수 있겠는가하고 自問自答한 뒤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2.00까지도 아무런 連絡이 없자 중대는 落伍된채 孤立된 것으로 判斷하고 撤收를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邱山洞을 거쳐 亦是 臨溪里로 撤收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 江東地區에서 敵과 對峙한채 협공을 阻止중이던 제21연대의 混成 제2대대는 사단 主力이 철수완료한 18.00에야 포병대대 金千根 중위의 연락으로 大關嶺으로 철수를 開始하였다.

제21연대의 제2, 제4, 제8중대는 敵이 이미 侵入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江陵을 迂回하여 博月里—長峴里—濟飛里—邱山里에 이르는 논길을 따라서 撤收하고 제6, 제10兩중대는 새재—마수리재를 넘어 大關嶺으로 向하였다.

한편 雲山里로 出動하여 제21연대의 混成 제2대대(장, 曹圭英 소령)를 支援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의 철수에 대하여서는 이곳으로 直接 나아가 陣頭지휘한 당시의 대대장 張庚石 소령이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나는 제3포대를 지휘하여 雲山里로 나아가 제21연대의 제2대대를 支援하였는데 저녁 때 S-2인 金千根 중위가 와서 사단은 이미 大關嶺으로 철수하였고 지금쯤은 敵이 江陵에 侵入하였을 것이니 빨리 撤收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사단 G-3 鄭震 소령과 상의하여 보병부대를 먼저 철수케 하면서 이를 掩護하고 포병의 철수로를 決定하는데 고민하였다. 이때 金千根 중위는 成德저수지쪽으로 해서 大關嶺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곳을 가본 사람이 없고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道

路的 사정도 알길 없어 多少 위험은 있더라도 敵中을 突破키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Cal50 기관총을 장치한 先頭車에 내가 타고 江陵市內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때 市內에 侵入한 敵이 少數였던 까닭인지 別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우리는 悠悠히 市內를 橫斷하여 무사히 大關嶺으로 철수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사단이 大關嶺을 넘어 집결하기에 이르자 사단은 지휘소를 榆川里에 개설하고 사단 공병대대의 掩護를 받는 57mm대전차포 2개 중대가 江陵쪽으로 攪亂사격을 계속 하는 가운데 제21연대(장, 金容培 중령)는 橫溪里에, 제10연대(장, 高根弘 중령)는 榆川里에서 각각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이때 雲頭嶺의 예비陣地를 확보중이던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 소령)는 연락장교 便에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18.00에는 下珍富里로 철수하였다가 榆川里로 나아가 分散되었던 주력과 合勢하였다.

한편 敵은 小規模 정찰대만을 江陵쪽으로 推進하다가 21.50에야 1개 중대 규모의 先遣隊가 비로소 市內로 侵入하고 이들의 信號彈으로 子正을 넘어서야 主力이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은 江陵 경찰서 Siren을 울려 避難民의 귀환을 強要하면서 右翼人士들의 虐殺을 시작하고 있었다.

**6월 28일** : 사단은 江陵공격을 감행하였으나 陸本명령에 따라 原州로의 이동준비에 착수하였다.

### 1. 01.00에 일어난 銃聲

역수같이 퍼붓던 비는 어느 덧 그 氣勢가 수그러져 가랑비로 변하였으나 칠혹같은 어둠은 咫尺을 분간키 어려웠다.

25일 以來로 눈을 붙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때 突然히 1발의 銃聲이 울린데 이어 걸잡을 수 없는 銃聲이 榆川里溪谷의 靜寂을 깨뜨렸다.

兵士들은 비상을 걸 사이도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로 닥치는 대로 사격을 시작하였다.

이무렵 제18포병대대에서는 敵에게 등을 돌리고 撤收한 痛憤을 풀길없이 敵의 砲兵陣地를 夜襲키로 하고 金千口상사를 대장으로 한 1개 분대 규모의 特攻隊를 편성하고 출동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銃聲이 계속되면서 曳光彈이 하늘에 수를 놓자 대대장 張庚石 소령은 敵의 奇襲으로 直感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敵이 連谷川 上流의 溪谷을 따라 侵襲하였다면 退谷里-一月精寺를 거쳐 바로 榆川-珍富里쪽으로는 侵襲이 可能하고 더우기 西林里 溪谷으로 侵攻하여 五嶽山으로 潛跡한 2개 대대 규모의 敵은 언제라도 侵襲이 可能하였기 때문이다.

平素에 沈着膽大하고 寡黙한 張소령도 多少 唐愴하였다.

敵의 奇襲이라면 迅速한 대응조치를 取하지 않을때는 狹少하고 周邊高地서 俯瞰되는 不利한 地形에서 兇猛적인 타격을 避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危急한 순간을 打開하는 길은 오직 砲兵의 威力發揮에 있다고 確信하였다. 그리하여 大號一聲 『砲方向 北方向, 사격준비!』라는 명령을 내렸다.

張庚石 소령의 別名 「砲方向 北方向」은 바로 이것에 緣由하는 것이다.

한편 사단장 李正一 대령과 참모장 崔甲中 중령은 道路邊의 草家에서 連 3일간에 絶心身의 피로를 풀고자 잠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銃聲과 더불어 이리뛰고 저리뛰는 兵士들의 騷亂스러운 발자국소리에 눈을 뜨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銃聲은 四方에서 나는데 曳光彈이 前方으로만 날아갈뿐 飛來하는 敵彈은 한발도 볼 수가 없었다.

그 瞬間에 사단장은 fittings가 잘못된 誤認사격으로 判斷하고 사격중지를 명령하면서 砲兵陣地로 달려와 사격준비를 완료한 砲兵의 사격도 中止시켰다.

果然 사격이 잦아들자 我方의 一方的인 射擊이었음이 立證되었다.

이때 兵士 1명이 敵을 포로로 하였다고 連行하여 왔다.

이때의 상황에 關於하여 당시의 사단장 李正一 大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포로를 잡아오자 砲兵대대장 張庚石 소령이 당장에 봐 죽이라고 高함을 치는 것을 말리고 데려다가 電池를 비추어 보니까 국군복장을 하고 있어서 소속을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으면서 제10연대소속이라고 하기에 중대장의 官等姓名을 물었더니 제대로 맞혀서 우리 兵士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가 步哨交代次 나가다가 誰何를 當하였는데 그 瞬間에 暗口號를 잊어버려 대답을 못하니가 그 步哨가 사격을 시작하자 다른 步哨들도 敵侵으로 連斷하고 사격을 함으로써 사태가 크게 번졌다는 것이었다.』

如何間에 5분간에 걸친 銃聲의 소란은 사단장의 판단에 의해서 무사히 수습되었다.

그러나 砲兵대대 特攻隊의 夜襲은 이 사건으로 實行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 2. 江陵 攻擊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사단이 비록 大關嶺너머로 撤收하기는 하였으나 落伍된 一部の 병력을 除外하고는 예상외로 建制를 維持하고 장병들의 士氣 또한 왕성하여 戰鬪力이 健在함을 확인하자 江陵공격을 敢行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28일 08.00를 期하여 江陵을 공격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主力으로서 江陵을 공격하라.

③ 제10연대는 一部병력으로 五峯山을 확보하면서 공격부대의 側方을 掩護하라.

④ 제18포병대대는 57mm 대전차포중대를 統合지휘하여 공격을 支援하다.』

이와 같은 공격명령을 받은 제21연대장 金容培 중령은 제2대대가 京江도로 北쪽 稜線을 따라서 江陵으로 直衝하는 가운데 제1대대는 鏡浦臺로 迂回하여 西쪽과 北쪽으로부터 挾攻키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21연대는 釜洞부근까지 推進한 포병대대와 57mm 대전차포의 掩護下에 04.00에 橫溪里에서 기동하여 08.00에는 제2대대(장, 曹圭永 소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朴瑞權 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邱山里의 공격 개시선을 躍進하였다.

전날 밤에 江陵을 탈취한 敵은 처음에는 逆襲에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듯 沈黙을 지켰으나 砲擊이 集中되어 江陵市內에 불기둥이 치솟자 비로소 唐慌한듯 各種砲를 應射하기 시작하였다.

右一線인 제2대대는 散發的인 敵 경계부대의 抵抗을 격파하고 城山里를 거쳐 13.00에는 江陵市內를 굽어보는 洪濟洞으로 돌진하여 △66一帶를 확보하였는데 이때 허겁지겁 出擊한 듯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120mm迫擊砲와 76mm 直射砲를 集中하면서 反擊함으로써 彼我間에는 熾烈한 사격전이 벌어졌고 그 主攻을 指向한 제6중대(장, 禹教鵬 중위)正面에서 手榴탄 투척전이 벌어진 끝에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였다.

한편 左一線으로써 俗稱 맹새-매엽새-잡나무촌의 溪谷을 따라 돌진한 제1대대는 別다른 抵抗을 받지 않고 鏡浦臺부근까지 進擊하였으나 主攻인 제2대대가 執拗한 敵의 반격으로 血戰을 거듭하여 江陵突入의 時機가 遲延되자 俗稱 모삿골 一帶의 高地를 점령하고 四周방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原州의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訪問한 陸本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으로부터 原州로의 撤收명령을 받은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비로소 左隣接인 제6대단을 비롯한 全戰線의 戰況을 알고 無謀한 공격으로 兵力의 損失을 自招하여 戰鬪力을 消耗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軍의 작전계획에 따라 全軍의 戰線整齊에 寄與하는 것이 當面한 사단의 急先務인 것으로 判斷하고 『제21연대는 즉각 공격을 中止, 大關嶺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洪濟洞一帶에서 奮戰중이던 제2대대(장, 曹圭英 소령)는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면서 逐次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이 迫擊砲와 直射砲사격을 집중하여 대대의 退路를 遮斷하면서 迫擊하므로 △171(觀音里 北쪽)―△151(觀音里 北쪽 1.5km)로 물러설 무렵에는 치열한 포화에 휩싸여 苦戰하였다.

이때 橫溪里에 到着하였다가 연대장의 요청으로 急遽 지원된 기갑연대의 장갑차 3臺가 돌진하면서 37mm砲와 기관총사격을 鼎峯(△159)까지 迫擊한 敵에 集中하자 그들은 我軍의 장갑차지원에 크게 당황한듯 東쪽 稜線너머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71—△151의 稜線을 넘어 △282—△296—△276에 急編陣地를 設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敵은 裝갑차의 지원으로 迫勢가 頓挫되기에 이르자 1개소대규모의 Motor Cycle의 掩護를 받는 SU-76自走砲 3대가 邱山里쪽으로 急進하면서 砲擊을 퍼붓기 시작하고 이에 氣勢를 올린 敵은 反擊을 再開하였다.

이때의 戰況에 관하여 當時의 제7중대장 金成彬대위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우리대대가 急編陣地를 設치하자 敵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였으나 그들은 쓸어지고 또 쓸어지면서도 계속 달려 들었다. 이때 右 第1선으로써 △282를 設치한 제6중대(장 禹敦鵬중위)가 敵의 衝勢에 밀려 △296를 확보한 우리중대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平素에는 倅 沈着하고 冷徹하던 대대장 曁圭英소령이 이때에는 鬻을 어떻게 錯覺하였던지 撤收명령을 내리면서 먼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를 본 兵士들이 驚駭하여 撤收하기 시작 함으로써 事態는 견잡을 수 없이 混亂상태에 빠져 버렸다. 내가 생각컨대는 상황이 그렇게 危急한 것은 아니고 固守하려 하였다면 能히 敵을 擊滅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우리중대도 全部 撤收하여 버리자 나도 할수 없이 京江道路를 따라 大關嶺으로 向하였는데 이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장교 2명이 拳銃을 뽑아 들고 戰場을 離脫하니 銃殺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내가 困境에 빠져 있는 것을 본 중대원들이 몰려 들어오는 어렵지 않게 勇力을 그 자리에서 守衛하였으나 大勢는 이미 기울어 그대로 大關嶺을 넘어 갔다. 대대장 曁圭英소령은 이로 困하여 職位가 解除되고 제1대대 부대대장 崔就聖대위가 後任 대대장으로 就任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朴瑞權소령은 鏡浦臺까지 進擊하여 俗稱 모삿골 一帶의 高地를 확보하고 제2대대의 江陵突入과 때를 같이하여 北쪽으로부터 挾攻코자 그 때를 待機하고 있었는데 난데 없이 공격을 中止하고 즉각 撤收하라는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逐次로 撤收하기 시작 하였다.

그런데 이때 江陵으로부터 出擊한 敵이 砲擊을 加하면서 퇴로를 차단코자 하므로 대대는 제4중대(장, 金光哲중위)를 掩護부대로 하여 蘭谷里—下楡川—멍어峙—普光리에 이르는 山嶽地帶를 거쳐 이날 밤에는 大關嶺으로 물러섰다.

그런데 掩護부대인 제4중대가 기관총과 迫擊砲사격으로 敵을 阻止하다가 철수명령이 下達되었을 때는 敵의 一部가 이미 退路를 遮斷한 다음이었다.

이에 一部勇力은 중대장 金光哲중위의 陣頭지휘아래 기관총의 집중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血路를 打開하면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申榮徹중위가 지휘하는 迫擊砲소대와 金漢榮 중위가 지휘하는 기관총 제2소대는 敵線을 돌파치 못하고 落伍하였다.

이때 申중위는 金중위에게 夜間突破를 主張하였으나 즉각 撤收를 固執한 金중위는 들마를 試圖하다가 敵의 集中사격을 받아 소대가 分散된채 行方不明이 되고 迫擊砲소대는 계획대로 夜間에 敵線을 突破하기는 하였으나 落伍가되어 千辛萬苦끝에 丹陽에서야 合勢하기 이르렀다.

또한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연대계획에 따라 08.00에는 五峯山(△542)을 占領하고 個人據를 구축하는 한편 수색대를 京江道路로 推進시켜 敵情을 探索하면서 제21연대 제2대대의 側方을 掩護하였다.

그런데 敵의 自走砲가 進出한데 이어△282-△296-△276를 확보한 제21연대가 철수하기에 이르자 이를 掩護하면서 逐次로 물러서 主力과 合勢하였다.

### 3. 장갑차의 赴援

全戰線에 걸친 戰況이 漸次로 惡化하자 육군본부는 敵의 戰車에 對敵할 性能을 갖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將兵들의 士氣를 振作시키고 장갑차에 裝備된 性能좋은 무전기로서 通信維持에 寄與케 하고자 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에게 38°線을 담당한 각 사단에 1개 소대씩 緊急지원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장갑대대 제1중대(장, 朴吉龍 대위)의 제3소대는 26일 08.00에 장갑차 3대, 2 1/2彈藥車 1대, 3/4무전차 1대, Jeep車 6대로써 隊伍를 이루고 漢南洞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原州를 經由, 28일 14.00에는 大關嶺 西쪽의 橫溪里에 到着하였다.

그런데 소대가 珍富里에 到達하였을 때 소대장 趙소위가 그곳에 待機중이던 군수사기관원에게 思想關係로 連行됨으로써 소대는 선임하사관 李汝常 상사가 지휘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사단장 李正一 대령과 사단참모, 그리고 將兵들은 千軍萬馬의 援兵을 얻은듯이 받게 되었다.

이때 江陵을 공격중이던 제21연대가 공격을 中止하고 大關嶺으로 철수하게 되자 사단장은 이의 掩護를 명령하였다.

소대는 장갑차를 除外한 全車輛을 橫溪里에 殘留하고 江陵을 목표로 출동하였다.

소대가 邱山洞을 거쳐 觀音里에 도달하였을 무렵 제21연대 제2대대가 敵의 포화가 集中되는 가운데 東斜面稜線에서 迫擊하는 敵의 集中사격을 받아 進退維谷의 어려운 상황아래 苦戰하고 있어 소대는 산개하는 즉시로 37mm砲와 Cal 50 및 Cal 30 기관총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비록 37mm砲이기는 하나 人馬殺傷用的 散彈의 威力을 發揮하여 敵은 瞬息間에 앞을 다투어 東쪽 稜線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는 敵을 迫擊하면서 사격을 계속하였으나 이때 敵 포화가 장갑차주변에 집중하여 소대장 李汝常 상사는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1번차가 故障을 일으키면서 停車하고 말았다.

李상사는 2,3번차를 계속 철수케 하고 修理에 착수하였으나 쉽게 故障이 排除되지 않자 4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주변을 경계토록 하고 自身이 直接 수리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李汝常 상사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이때 江陵쪽에서 戰車소리가 나고 포격이 漸次로 熾烈하여지자』 나는 계급장과 신분증을 모두 감추고 直接 수리에 着手하였는데, 어느 틈에 接近하였는지 敵兵이 多發銃을 들이대고 나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들의 臼砲로 끌려갔는데 이때 大關嶺에서 쏘는 野砲와 57mm 대전차포가 集中되자 敵은 당황하면서 분산하였다.

나는 이 瞬間을 놓치지 않고 反對쪽벼랑으로 굴러 떨어져 도망하였으나 方向감각을 잃고 大關嶺쪽을 오르내리다가 어느 住民의 도움을 받아 插峴嶺을 넘어 臨溪里쪽으로 빠져 제8사단이 榮州에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때 군수참모 全富一 소령이 Jeep 車를 내주어 大田에 내려가서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때 연대에서는 나의 戰死보고서를 이미 내고 있었다.』

#### 4. 사단의 撤收명령

사단은 開戰당일인 25일아침에 陸本 작전국 교육과장 李致業 대령과 잠시 通話한 以來로 通信이 杜絶된채 全軍은 물론 隣接사단의 戰況도 제대로 모른채 孤戰 奮鬪하였다.

그런데 이날 14.00에 경찰 경비전화를 통하여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난데없이 『제8사단은 28일중으로 原州로 철수하여 이곳을 확보할 것』이라는 陸本 작전지시가 전달되었다.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陸本の 작전지시이니 제8사단은 즉각 原州로 移動하여 原州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사단이 지금 江陵을 공격중이고 接敵중인데 어떻게 오늘중으로 移動할 수 있겠는가? 시간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다. 金대령은 제6사단이 忠州로 移動하니 무조건 오늘중으로 原州로 移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明日中으로 移動할터이니 1개연대를 殘置하여 原州를 확보하면서 제8사단의 移動을 掩護토록 強力하게 요구하였더니 이곳에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이 와 있으니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張대령과의 通話로 다음날까지 原州로 移動키로 合意를 보았다. 나는 긴급 작전회의를 召集하고 先後策을 論議하였다. 血氣旺盛한 젊은장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陸本이 지금에 와서 後退하는 다른 사단의 戰區를 引受케 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으니, 사단은 江陵을 奪還하고 38°線을 收復하거나 如意치 못할 경우에는 五嶽山에서 유격전이라도 벌여 사단의 戰鬪地帶를 單獨으로라도 固守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陸軍本部의 작전지시에 順應키로 決心하였다. 그 理由는 사단이 달당한 戰鬪地帶의 固守도 重要하지만 全軍이 撤收중에 있는 이 마당에 戰線의 整齊를 위한 陸軍本部의 작전계획에 蹉跌이 생겨도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不必要한 兵力損失로

戰鬪力을 消耗할 것이 아니라고 判斷하고 제21연대의 공격 中止를 즉각 명령하는 한편 明日의 移動준비에 着手토록 명령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6월 29일 06.00를 期하여 300대의 車輛隊를 이루고 原州를 목표로 珍富里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소병력이 車輛기동 할 수는 없어서 一部の 보병부대는 徒歩로 行軍하였는데 大部대기동의 經驗이 없어서 時速 5miles로 移動하였기 때문에 豫상외로 시간이 所要되고 車輛사고 또한 頻발하였다.

陣頭지휘차 先頭에 나선 사단장이 大和에 이르렀을 무렵 民間車輛과 一團의 피난민을 만나 狀況을 물었더니 敵이 이미 橫城—安興里로 侵入하여 原州道路가 遮斷되고 原州의 失陷도 시간問題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進路를 바꾸어 堤川으로 移動키로 하고 平昌으로 進入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平昌에 到達한 사단은 一部車輛을 廻送하여 徒歩행군중인 보병부대를 輸送토록 하고 一部兵力이 四周방어를 담당하는 가운데 宿營준비에 들어 갔다.

이때까지도 제10연대 제11중대의 行方이 杳然하자 被배속 大隊장인 朴致玉소령은 責任을 痛感하고 牛巖里쪽의 地形에 익숙한 大隊 수색대원 5명으로 特攻隊를 편성하여 牛巖里로 출발시켰다.

이 特攻隊는 무사히 牛巖里로 進出하여 陣地를 계속 固守중인 該중대를 誘導하여 月浦에서 主力과 合勢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 深刻한 문제가 提起되었는데 그것은 堤川까지 移動할 揮發油가 不足한 것이었다.

사단장은 28일에 被告육중에서 복귀한 사단 병참부장 馬雄臺대위를 불러 無條件 所要 揮發油를 調達토록 명령하였다. 馬대위는 병참부의 許소위를 帶同하고 堤川으로 急行하여 어느 住民의 提報로 防空壕속에 隱匿한 揮發油 200 D/R과 白米 10,000呎를 찾아내고 其中 150D/R을 平昌으로 運搬하여 이 難境을 克服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찾아낸 白米는 뒷날 釜山으로 後送하여 軍糧米調達에 크게 貢獻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공병대대는 이날 不安에 떠는 平昌住民들을 車輛便으로 堤川까지 後送하는 對民奉仕를 벌이기도 하였다.

다음날에 또다시 移動하기 시작한 사단은 寧越을 거쳐 7월 2일 11.00에야 堤川에 移動완료 하였는데 이때 제10연대는 東明국민학교에, 제21연대는 堤川중학교에, 그리고 제18포병대대는 堤川농업고등학교에 각각 集結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다음날 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原州로의 移動명령을 履行키 위하여 제21연대 (一)로 하여금 寧越쪽으로 迂回하는 敵을 阻止케 하는 한편 제21연대 1개대대로 增強된 제10연대는 神林里에서 사단의 撤收를 掩護한 제6사단 제7연대(장, 林富澤중령)와 協同하여 原州를 奪還토록 명령 하였다.

이리하여 長坪里로 進出한 제10연대는 제7연대와 協同하여 神林特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제7연대가 緊急히 下達된 명령으로 忠州로 철수하게 되자 이를 掩護하고 제1, 제2兩 大隊가 △559에, 제3대대가 △705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소수의 敵의 夜襲으로 제3중대 正面이 突破되고 방어선이 崩壞되자 연대장 高根弘 중령은 그 責任을 물어 다음날 아침에 소대장 2명을 即決處分하기도 하였다.

이무렵 사단에서는 작전 참모 鄭 震 소령이 『제8사단은 즉각 大邱로 移動할것』이라는 陸本의 電文 各령을 받았다. 鄭 소령은 陸本의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移動한 사단이 日下 接敵中인데 또 다시 大邱



로 移動하라는 명령이 이상하고 도무지 理解가 가지 않았으나 陸本의 작명이어서 사단장에 보고하고 移動명령을 下達하였다.

이리하여 堤川에 다시 集結한 사단은 列車便으로 출발하여 그 先發隊는 大邱에 到着하고 主力이 安東에 이르렀을 무렵 大邱의 陸本으로 先行하였던 사단장이 大邱로 飛來하여 陸本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下達한 사실이 없으니 사단은 즉각 堤川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다.

기관차를 돌려 또 다시 北上한 사단은 7월 6일 18.00에 丹陽에 到着하여 遲延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작전참모 鄭 慶 소령은 한때 赤色分子로 몰려 囚境에 빠졌으나 사단 통신에서 틀림 없이 受信한 사실이 확인되어 敵의 無電攪亂에 달린 것으로 結論을 짓고 一段落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 江陵을 奪還하고 別다른 抵抗없이 南侵을 계속한 北傀 제5사단은 7월 4일에는 臨院津으로 上陸한 敵을 先鋒으로 삼아 蔚珍을 거쳐 平海로 侵攻中에 있었고 東海岸으로 上陸한 北傀 제766부대는 春陽으로 侵透하여 이곳에서 共匪를 격멸중이던 제25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중령)와 激戰中에 있었다.

또한 제6사단 正面을 突破한 北傀 제2, 제15兩사단은 忠州—堤川으로 南下中에 있었고 38°경비 제1여단을 基幹으로 增編된 北傀 제8사단은 그 主力이 原州—주昌을 거쳐 堤川으로 後續中에 있었으며 그一部는 寧越—醴泉으로 迂回하고 있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8사단장 李正—대령(改名 成佳)

(1965. 3. 17 自傳에서 예, 소장)

나는 제16연대장 겸 太白山地區戰鬪사령관으로 있다가 1950년 6월 10일에 제8사단장으로 任命되었다.

太白山地區 전투사령관으로 있을때에 捕虜로 한 共匪幹部들의 陳述에 의해서 北傀가 不遠한 時日內에 南侵할 것이라는 事實을 짐작하고 上部에도 報告한바 있었다.

戰爭발발 얼마전에 所謂 기관단총共匪가 또다시 南侵하여 一部兵力이 이를 격멸중에 있었고 또 38°線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外出外泊은 一切 禁止시키고 있었다.

6월 25일 05.00에 敵의 南侵報告를 받았을 때 南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나도 설마하니 全面戰爭이겠는가? 아마도 恒用있어은 局地侵襲이겠지 하고, 애써 樂觀의으로 생각하려 하였다.

그러나 05.40에 江陵경찰서장이 긴급히 달려와서 正東津海岸線으로 上陸한 敵이 北上中에 있다는 報告를 할데 이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戰況보고가 심상치 않아 敵의 本格的인 南侵으로 비로소 判斷하였다.

그래서 긴급히 作戰會議를 소집하는 一方 江陵비행장에 位置한 제10연대의 57mm 對戰車砲를 海上으로 搬送시켜 하었는데 이것은 江陵 쪽에 많은 병력과 火力가 있는 것으로 誤認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제10연대로 하여금 사단 작전계획에 따라 逐次撤收하여 主抵抗線으로 進入케 하고 一部병력으로 安仁津쪽으로 北上하는 敵을 阻止케 하는 한편 三陟의 제21연대를 즉각 江陵으로 集結토록 명령하였는데 나의 作戰계획은 제21연대의 集結즉시로 主抵抗線에서 決戰을 強要하여 敵의 戰力을 消耗시키고 38°線으로 反擊을 敢行하거나 不得已할 경우에라도 五嶽山에서 持久戰을 벌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10.00에 職權으로 戒嚴令을 公布하고 民間車輛을 徵發하여 軍需品을 大關領하여 後送하는 한편 民事부장으로 하여금 金融機關의 職員과 現札을 大邱로 後送케 하였으며 家族이 江陵一區에 있어 가지고는 時時刻刻으로 달라지는 戰況下에서 將兵들이 마음놓고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서 各單位구대별로 撤收케 하였다.

27일날 아침에도 主抵抗線에서 장병들이 잘 싸와 敵의 先制공격을 能히 阻止하고 좀더 支拂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任務를 받고 撤收하는 공병 중대를 보고 덩달아 몰려섬으로써 맥 없이 主抵抗線이 무너진 것은 憤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砲兵은 끝까지 잘 싸웠다.

大關嶺으로 물러선 다음날 제21연대가 江陵으로 反擊을 敢行하여 거의 奪還하였는데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이날 밤중으로 原州로 撤收하라는 陸本 作命의 傳達이 있어서 옥신 각신하다가 그때 마침 그곳에 와 있는 작적국장 張昌國 대령과 妥協이 되어서 그 다음날 移動하게 되는 바람에 공격을 中止시키고 撤收케 하였다.

그 다음날에 原州로 출발하는데 300대의 車輛行軍이어서 5哩의 速度로 移動하는데도 事故가 계속 發生하여 내가 先頭에 나섰는데 大扣에 갔을때 民間車와 避難民이 길을 메우고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敵이 이미 安興理—橫城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堤川으로 撤收하기로 決心하였는데 뒷날 생각하니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原州쪽으로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여 진다.

이리하여 사단은 堤川으로 移動하여 神林리까지 내려온 敵을 부찌르고 原州를 奪還코자 作戰을 벌였는데 이때 가짜 陸本 電文으로 作戰을 中止하고 大邱로 移動하였다가 다시 北上하여 遲延戰을 벌이면서 逐次撤收하게 되는 것이다.

이 電文件으로 해서 작전참모를 權泰順중령으로 바꾸었는데 이 電文件은 敵의 無電攪亂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제8사단 정보처 보좌관 鄭夢虎 중위

(1977. 3. 23 海運公社에서 예, 대령)

戰爭발발 20餘日前부터 實施되었던 非常경계가 6월 24일에 解除되어 나는 오래 간만에 新婚가정으로 돌아가 쉬었다.

그런데 25일 05.00에 사단 사령부의 비상 Siren이 계속 울리고 連絡兵이 달려와 召集을 通報하였다.

나는 또다시 非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당초에 解除하지나 말지 이것이 쫓겨나고 不平하면서 사령부로 들어갔다.

그런데 普通비상이 아니라 연대규모 이상의 敵

이 사단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20분 程度 경과 하나까 어디서 入手된 情報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敵이 全面南侵을 開始하였다고 하여 全 장교가 바짝 긴장하였다.

뒤이어 東海岸으로 上陸한 敵이 江陵쪽으로 北上中이라는 情報가 또다시 入手되자 事態가 심상치 않음을 實感케 하였으나 사단장은 제10연대에 이에 대한 對策을 講究토록 명령하였다.

이와 並行하여 사단에서는 戒嚴令을 宣布하고 後方秩序와 民心收拾에 나서는 한편 全 지휘부가 나서 戰鬪指揮에 臨하였으나 戰況은 漸次로 惡化하여 一線부대가 連谷, 川線으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6월 26일에 民事부장 李 蘇 대위의 指導下에 軍인가족의 撤收와 主要 행정기관 및 金融기관 의 疎開가 이루어졌는데 서울로 撤收한 가족들은 다음날에 敵侵을 맞아 九死一生의 苦境을 겪고야만 하였다.

李 蘇 대위는 金融기관의 疎開과정에서의 非行이 摘發되어 뒷날에 統殺이 執行되었다. 나는 이때 立會하였는데 그 犯行은 可惜스럽지만은 그 최후의 태도는 저극히 男子다운 大韓民國단세를 三弔하기도 하였다.

連谷川에 主抵抗線을 編成하였을 때 나는 마침 사단장 側近에 있었는데 이때 제18포병대대 彈藥下士官 李 錫 權上士가 拳銃을 뽑아 들고 『사단장님 내가 彈藥受領次 끌고온 truck 2대를 돌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接近하였다.

周慮에 있었던 우리들은 크게 慍惱하여 全部 銃을 뽑아들고 차근히 말하라고 달랬더니 彈藥 수송차를 어떤 소령이 撤收用으로 使用하겠다고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砲彈을 싣고 가지 못하면 우리 戰友는 모두 죽으니 빨리 車輛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사단장은 내가 곧 찾아줄 터이니 너는 참모장실에 가서 좀 쉬라고 하니까 참모장실로 가기는 하였으나 如前히 拳銃을 뽑아들고 잠고대처럼 車輛을 當場에 찾아내라고 되뇌이는 것이었다.

확인 하여 보니까 그 車輛은 사단의 어떤 一般참모가 撤收用으로 사용키 위하여 끌고간 것이 확인되어 당장에 되찾아 砲彈을 싣어 砲兵 陣地로 推進하고 그 상사의 責任感과 戰友愛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사단장에게 拳銃을 드리던 罪過는 묵과할 수 없어서 헌병부장이 說得 끝에 무장을 해제하고 憲병대에 구속하였다.

그런데 砲兵대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嚴重항의하고 그 軍人精神을 높이 산 사단장의 배려로 석방되었는데 그는 뒷날 現地任官하여 中領까지 進級하였다.

사단 사령부는 6월 27일 17.00에 철수개사하여 19.00에 大關嶺터머로 移動하였다.

28일에 陸本소속으로 推定되는 L-4가 上空에 나타나 通信筒을 떨어뜨려, 空襲接인 제6사단이 原州로 後退中임을 알려 주었다.

사단장은 나에게 당장 原州로 가서 제6사단의 상황을 直接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Jeep車로 당장에 달려 갔는데, 橫城근부에 갔을무렵 어떤 부대가 無秩序하게 後退하고 있어 所屬이 어디이며, 어디로 撤收하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제6사단 예하연대인데, 原州로 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제6사단이 原州로 撤收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以上 더 遲滯할 必要가 없어서 珍富里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사단은 隰川으로 移動하기에 이른 것이다.

#### ◇ 제8사단 작전참모 鄭 贊 소령

(1977. 3. 17 泰陵自宅에서, 예, 대령)

나는 宋堯讚 대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의 작전주임장교를 하다가 제8사단 創設과 동시에 작전참모로 就任하였다.

사단의 防禦계획은 1949년 8월이 北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陸軍本部의 작전지시에 의거하여 38°線 담당사단이 一齊히 作成하고 11월달에 陸軍本部에서 사단장, 吳 수석 고문관 그리고 작전참모가 會同하여 그 評價會를 열었는데 제8사단계획은 極讚을 받는다.

그 概念은 38°線一帶의 地形이 一般적으로 不利하여 敵域으로부터 戰制當하기 때문에 이곳을 警戒陣地로 하고 注文津 北쪽 香湖 堤防을 連한 線을 戰鬪前哨線으로, 그리고 連谷川 南岸의 板橋里-前橋里를 連한 線을 主抵線으로, 沙川線 南쪽 一帶를 예비陣地線으로 하여 敵의 南段時에

는 逐次撤收하면서 敵을 격멸하고 그 공세가 鈍化하는 즉시로 反擊을 敢行하여 38°線을 收復하되 어떠한 境遇에도 江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 自體의 방어 계획이지 陸本에서 확정된 韓國全圖방어계획의 一環으로서의 계획은 아니었다.

사단에서는 50년 3월頃으로부터 工兵대대를 動員하여 陸地工事に 着手하였는데 장비와 예산 관계로 完全한 공사를 하지 못하고 戰爭발발當口에는 거의 中斷상태에 있었다.

初代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38°線을 直視하고 그 防禦와 有事時에 대비하여 恒時可用한 예비대를 확보하였고, 共匪擊滅에 出動할 때도 非常상태에 대비하여 兵力을 크게 分散運用하지 않았다. 要는 共匪의 擊滅戰보다 敵의 南段에 대비하는 作戰을 遂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李正一 대령은 共匪擊滅戰에 優先權을 두고 作戰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나는 強力하게 反對하였는데 이것이 나와 사단장 李正一 대령과의 人間關係를 惡化시킨 要因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遂時에 可用한 예비兵力을 保有하지 못하고 兵力이 分散되었던 사단은 戰爭이 발발하자 作戰계획은 쓸모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단은 6월 20일부터 陸軍本部 G-3 차장 朴林恒 중령을 班長으로 한 교육검열단의 檢閱을 받았다.

24일에는 검열을 마치고 講評을 받은 다음 검열단을 위한 酒宴을 밤늦게까지 베풀고, 우리 一般참모들은 검열단과 같이 江陵여관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다음날 05.00頃に 緊急연락이 왔는데 敵이 南段을 開始하였다는 것이었다.

敵의 小規模 挑戰은 항상 있었던 터라 크게 悲愴하지 않고 非常을 절도록 한다음 사단으로 달려 갔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戰況보고가 심상치 않더니 07.00頃에는 제10연대 제2대대의 仁邱線 後退가 보고되었으나 그 左一線인 제1대대와는 通信이 維持되지 못하여 상황을 알지 못하고 掌握할 수 없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陸本에 戰況을 보고하고 제 21연대의 江陵集結을 명령하였으나 通信疏通이 如意치 못한 各級부대에서는 連絡兵을 보내어 명령을 傳達하는 情形이었다.

이리하여 兵力集結이 遲延되자 建制를 無視하고 集結되는데로 兵力을 輸送함으로써 사단에서도 到着되는 병력을 亦是建制를 無視한채 投入하여 指揮體系를 확립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東海街道에 敵의 自走砲가 出現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나는 제 10연대에 배속중인 57mm對戰車砲를 注文文으로 推進시켜 이에 對備케 하였으나, 敵의 계속적인 壓迫으로 제 10연대 제 2대대는 24.00頃에 連谷川의 主抵抗線으로 撤收하였다.

이날 밤에 彼我間에는 近接戰은 없고 砲擊戰만이 계속되었다.

26日에는 敵의 偵察隊가 海岸線과 坊內里쪽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해 反擊을 敢行하고 比較의 小康상태를 維持하였는데 27日 未明에는 사단의 계획된 反擊에 앞서 敵이 先制공격을 敢行함으로써 激戰이 벌어졌다.

그런데, 側方을 威脅하는 敵을 공격코자 물리서는 公병중대를 보고, 撤收명령이 下達된 것으로 錯覺해 兵士들이 멋대로 撤收함으로써 主抵抗線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堀川에 移動하였을 때 陸本으로부터 『제 8사단은 大邱로 移動할 것』이라는 電文을 받았다. 나는 좀 異狀하다고 생각하였으나, 陸本의 命令이라 사단장의 決裁를 받고 사단의 移動명령을 下達하였다.

그런데 陸本으로 先行한 사단장으로부터 陸本에서는 그런 명령을 下達한 事實이 없으니 사단은 즉각 丹陽으로 北上하라고 하여, 기관차를 돌려, 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問題를 놓고, 내가 共產黨으로 물렸다.

나는 억울해서 糾明하기 시작하였는데 通信部에서 拷問없이 受信한 事實이 밝혀져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이 問題가 契機가 되어 사단장과 나의 人間關係는 決定的으로 惡化하여, 내가 사단을 떠났다.

## § 戰 訓

### (1) 作戰任務와 부대배치에 대하여

38°線 방어가 主任務인 사단은 南侵共匪의 侵透路를 掩扼한 地形의인 조건 때문에 擊滅戰을 계속하다가 敵이 노리는 바 그대로 兵力이 分散된 채 南侵을 맞아 作戰上의 混亂을 惹起하였다.

陸本에서 이에 대한 適切한 배대와 支援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且論하고라도 사단自體는 마땅히 基本任務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부대를 배치하고 副次的인 任務인 擊滅戰이 展開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指摘한다면 제 21연대를 三陟에 배차(駐屯)시킬 何等의 理由가 없었다.

산업시설과 海岸線경비가 그 名分이 있는지는 몰라도 實際에 있어서 臨溪里와 長省에 2개 중대를 派遣하였을 뿐이고 海岸線경비를 위한 兵力 배치는 全혀 되어 있지 않아 6.25 當日의 敵의 上陸에 대하여 實効性있는 對應措置를 하지 못한 것이 이를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三陟駐屯은 오로지 共匪擊滅을 위한 基地로서의 價値학에는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단 스스로가 主任務를 소홀히 하고 副次的인 任務에 執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6km에 이르는 正面을 不過 2개 대대로 담당케 하고 効用性있는 예비대마저도 保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戰鬪前에 이미 勝敗를 가늠할 수 있는 要因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 (2) 부대교대에 대하여

제 10연대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에 걸쳐 左一線을 담당한 제 1대대와 연대예비인 제 3대대가 作戰任務를 交代케 하였다.

이로 因하여 제 3대대의 2개 중대를 이미 배속받아 38°線 경비를 담당케 한 제 1대대는 24일에 2개 중대를 江陵으로 출발시켰고, 25일 새벽에도 1개 중대를 또다시 출발시킴으로써 6월 25일 現在의 可用兵力은 배속된 2개 중대와 예하 1개 중대인 反面에 江陵의 연대CP로 移動한 중대는

單體기동한 제4중대 1개중대 뿐이었으나 제1대대와 제3대대는 모두建制가 무너지고 兵力이 分散된채 戰爭을 맞은 것이다.

연대에서 戰術原則 그대로 기동력을 제공하여 제3대대가 作戰任務를 引受完了한 다음에 제1대대를 迅速히 撤收케 하였더라면 兩대대는 建制를 維持한채 보다 나은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예비대 運用에 대하여

開戰當時에 38°線 방어를 담당한 제10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가 左一線인 제1대대와 交代中에 있었기 때문에 實質的인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하였고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는 江陵 南쪽 46km (직선거리)인 三陟에 위치하였는데 그나마도 5개 중대가 後方경비 또는 共匪격멸을 위하여 分散中에 있어 이날 活用한 병력은 제10연대 1개 중대와 제21연대 2개 중대뿐이었다.

모름지기 예비대는 예기치 않은 突發狀況에 대하여 有効適切하게 活用하는데 그 存在意義가 있는데 사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前項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基本任務를 倒錯한 結果라 하겠다.

6월 27일 主抵抗線인 連谷川에 있어서도 効用작있는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하여 主抵抗線에 배치된 공병 1개 중대를 抽出, 側背를 威脅하는 敵을 邀擊케 하고자 함으로써 이를 撤收로 誤認한 다른 병사들이 連鎖撤收하게 되어 主抵抗線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 (4) 指揮의 統一에 대하여

連谷川の 主抵抗線편성에 있어서 25일에 사단 공병대대를 主軸으로 한 混成예비대대를 左一線으로 投入한데 이어 注文津으로부터 撤收한 제10연대 제2대대와 廣院里에서 移動한 제1대대 主力이 右一線으로서 板橋里一帶를 占領하였는데 이때 사단 混成대대를 제10연대에 배속하지 않고 指揮를 二元化함으로써 有機的이고 融通性인 作戰을 遂行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제21연대 混成 제1대대가 연대장 指揮

하에 공격차 連谷川에 進入하였을 때에 同一地域인 主抵抗線상의 指揮系統이 三元化하고 있었던 것이다.

勿論 사단장이 陣頭지휘에 나섬으로써 形式上의 指揮계통은 單一化한 것이 되겠지만 同一한 作戰任務를 갖는 사단 混成대대는 마땅히 제10연대에 배속되어야 할 것이다.

### (5) 기동계획에 대하여

三陟에 殘留하였던 제21연대 後發隊의 기동에 있어서, 제3대대는 江陵으로의 移動路인 臨溪里에 設置한 제11중대를 三陟으로 移動시켰다가 또다시 臨溪里를 經유하여 江陵으로 移動함으로써 출발시간이 遲滯되어 主抵抗線이 무너질 무렵에야 連谷川線으로 進入하게 되어, 큰 役割을 하지 못하였다.

江陵에 이르는 至近路인 東海街道가 上陸한 敵에 의하여 이미 遮斷된 以上 機動路는 白峯嶺—臨溪里—插塘嶺—邱山洞—江陵인데 제11중대를 三陟으로 復歸케 한 것은 分明히 기동계획에 誤謬를 犯하였던 것이다.

### (6) 부대의 建制維持에 대하여

主抵抗線인 連谷川과 江東地區(安仁里—步丘里—彦別里) 戰鬪에서 建制를 제대로 維持한 대대는 제10연대 제2대대와 뒤늦게 도착한 제21연대 제3대대(一)뿐이고 餘他대대는 混成편성되어 있었다.

군인은 배속되거나 混成편성되었다고 하여 戰鬪力을 제대로 發揮하지 말라는 法은 없다.

그러나 建制를 잃고 지휘권이 生硬한 경우 大隊감과 소속감을 잃은 병사들은 孤獨하고 不安感이 앞서게 되어 陣勇의 勇戰을 期待케 어려워지는 것이다.

操亂스러운 狀況에 對處키 위하여 兵力을 逐次投入하지 말고, 建制를 維持시켜 각부대를 運用할 수 있었다면 좀더 나은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春川—洪川 東北地區 戰鬪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6호  
상 황 도 제7~9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6 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3 대대	장 소령 卍 聖 瑄	제 2 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 7 사단	장 소장 全 宇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6월 25일 부터 步兵學校派遺)		제 2 사단	장 소장 李 尙 松	제 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秉 鎭	소령 李 南 浩					
	중령 朴 魯 圭	(검무, 연대 S-3 6월 25일 부터)					
	(6월 25일 부터)	대전차포중대	장 대위 宋 廣 保				
	소령 金 柱 亨	수색중대	장 소위 尹 鍊 庸				
	(6월 26일 부터)	제 19연대	장 중령 兪 丙 權				
	소령 金 秉 鎭	제 1 대대	장 소령 崔 炳 默				
	(6월 30일 부터)	제 2 대대	장 소령 崔 錫 洛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尙 龍	제 3 대대	장 소령 金 漢 德				
	소령 文 正 植	수색중대	장 중위 朴 準 秀				
	(6월 26일 부터)	제 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聖				
	중령 朴 魯 圭	사단공병대대	장 소령 朴 正 采				
	(6월 29일 부터)	사단수색중대	장 중위 金 玄 煥				
제 3 대대	장 소령 李 雲 山	右인접부대					
대전차포중대	장 중위 李 勳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수색중대	장 중위 文 章 煜	左인접부대					
제 7 연대	장 중령 林 富 澤	제 7 사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 1 대대	장 소령 金 龍 培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鍾 洙						

## 나. 전투전의 개황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1949년에 淸州에서 原州로 移動한 다음 縣里로 부터 附近에 이르기 까지 84km에 이르는 中部戰線을 擔當하고 있었으나 다음해 6월 25일 北滿의 全面南侵에 부딪쳐 當面한 敵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과 角逐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本節은 激戰속에 3日間을 固守한 春川 및 洪川 東北地區 戰鬪를 주로 다루고 戰線의 整齊를 위하여 遲延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戰機가 捕獲된 때마다 치고 물러선 것이 小戰鬪이지만 많은 戰鬪을 남겼기에 遲延戰에서 詳述키로 하이다.

敵軍의 상황 : 1950년 6월 11일에 所謂 북괴民族保衛省은 제2군단장에 소장 金光然, 同참모장에 소장 崔麟, 그리고 同작전부장에 대좌 李學九를 각각 任命하고 기간요원의 편성은 이미 완료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것으로 추단되는데 다음날 12일 05.00에 이들은 10여대의 추력에 分乘하여 春川으로 이동하여 사령부를 개설하였다.

이와 전후하여 同 군단 예하의 4개사단 및 독립전차연대는 각각 대부대 훈련을 가장하여 38°線 南後方으로 開進한 다음 22일에는 展開를 完了하였다. 同 군단의 主攻正面은 國望峯(淸江 西北쪽 15km)을 境界로 하여 그 以東의 東海岸까지 이른 것으로 추단되었다.

즉, 그들의 제2사단은 군단의 右一線이 되어 春川을 占據할 목표로 國望峯—鶴鳴山간을, 제7사단은 左一線이 되어 洪川을 침공하기 위하여 1개의 戰車연대를 지원받아 鶴鳴山—下峯간으로 전입하고, 편성 중에 있던 제15사단은 군단의 예비로써 春川에 控衛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6월 25일 현재 北滿제2군단의 병력은 總合 40,100명으로서 軍단사령부에 5,000명, 제2 및 제15兩사단에 각각 11,000명, 그리고 제7사단에 12,000명과 독립전차연대에 1,100명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同 군단을 지원하는 火力로서는 122mm 野砲 36문, 76mm 野砲 108문을 비롯하여 120mm 迫擊砲 243문, 82mm 迫擊砲 243문으로 推定되었으며 독립전차연대(30대)가 지원충임을 아울러 발휘했다.

각 사단의 訓練정도를 一瞥하건대 敵 제2사단은 45年 下旬에 창설된 羅南보안간부 제2훈련소를 前身으로 發足하여 1949년말 부터 東海岸에서 대대훈련으로 부터 軍단급의 空地協同訓練에 이르기 까지 本格的인 전투훈련을 거쳤는데, 특히 山岳戰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그들 제7사단은, 다음해 3월에 國共 및 對日戰에 참가하여 實戰경험이 많은 韓人系 中共軍出身 10,000명을 元山으로 끌어들이 이들을 符號으로하여 편성하였는데 南段 2개월을 앞두고 급격한 관계로 協同作戰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실전경험이 많은 兵員들로 編成되었으며 개개인의 전투능력은 비교적 높게 평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冠岳里—洪川간의 山岳路를 直進하기 위하여 山岳訓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兵力도 他 사단에 비하여 1,000명이 더 많았다.

한편 同 사단에 突進力을 加하기 위하여 독립戰車연대를 배속하고 南韓실정에 어두운 그들로 하여금 南段간 전투를 유익하게 誘導코자 南韓出身 유격대 500명을 地帶내에 사전에 침투시키기도 하였다.

그들 제15사단은 같은해 3월에 會戰에 있던 제3民防훈련소를 母體로 하여 U.S.S.R에서 入北한 韓人系 軍官 및 하사관을 기간요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창설이 日淺하여 전투사단으로서는 名色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까닭으로 同사단은 主力전투사단에 후속하면서 보통대 역할을 맡았으며 6월말에 편성이 종료되면서 戰線으로 投入하였다는 것이다.

독립戰車연대는, 같은 해인 6월 初旬에 羅南에서 창설하였는데 그들은 U.S.S.R의 Khabarovsk에 있는 戰車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韓人二世들로 편성하였다.

따라서 同 연대의 主力이 洪川으로 南侵하였을 때 我軍에 의하여 박살난 그들의 戰車와 屍體를 目擊한 사단에서는 U.S.S.R軍으로 착각하고 한때는 그들이 韓國戰線에 참전하였다고하여 계급장과 소지품을 서둘러 육군본부에 후송하는 寸劇도 있었다.

北傀제2군단의 攻攻企圖는, 6월 25일 12.00까지 春川을 占據한 다음 主力을 水原부근으로 南西進시켜 南部로 부터의 我 증원을 遮斷하고 漢水以北의 我 主力軍을 포위하려는 것이었고, 그들 제7사단은 신속한 기동으로 洪川을 壓控하여 地帶內의 사단主力을 一蹴한 다음 계속 直南侵하여 我軍을 東西로 兩斷한 兇策이었다.

我軍의 상황: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指揮所를 原州에 두고 右翼은 △789를 경계로 하여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과 그리고 左翼은 赤木里를 사이에 두고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과 각각 連繫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의 右一線인 제2연대(장, 咸煥善 대령)는 指揮所를 洪川에 두고 그 이하의 제3대대는 연대의 右제1선으로 △789-石岾里간을, 그리고 제1대대는 左제1선으로 △873-鷄鳴山 東麓간을 각각 防守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연대 예비로써 當浦里에 控置하였다.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는 春川에 指揮所를 두고 제2대대는 제2연대 제1대대와 連繫하여 移通里까지, 그리고 제3대대는 이에이어 赤木里까지 각각 陣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중 제11 및 제12 兩중대는 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와 함께 春川에 있었다.

한편 제19연대(장, 閔右權 중령)는 사단의 예비로써 原州에서 교육훈련과 부대정비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단의 豫하 연대들은 創設당시부터 熊成상의 建제부대가 아니라 必要에 따라 他사단의 연대와 수시로 교체하여 편성한 까닭으로 一律적으로 그 戰鬪力을 評價할 수 없었다. 즉 제19연대는 南原지구공비격멸전으로 轉戰하다가 1950년 5월 1일에 原州로 진입하고 제2연대는 甕津의 銀波山 전투(49.8.13~11.15)를 끝마치고 서울로 복귀하여 이해 6월 20일에 洪川으로 移動하여 사단에 예속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兩연대는 당면한 戰鬪正面의 地形은 고사하고 짐도 풀지 못한채 敵의 南侵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7연대는 그 전해인 1949년 2월 20일에 사단으로 예속되어 淸州로부터 原州로 跋涉하여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다음, 이해 5월 3일에는 琿진지(春川)로 進入하여 제8연대(장, 徐鍾誥 중령)로부터 領受받고 3개월 뒤인 8월 6일에는 新南으로 侵襲한 1개대대규모의 敵을 포착 殲滅하는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3개월간에 걸친 防鬪로 該지역의 지형을 숙지하게 되고 또한 軍官民의 紐帶가 어느곳보다도 공고하였다.

당시에 사단의 兵力은 T/C에 93%(9,300명)였으며 裝備는 105mm 野砲 15문(이중 2문은 고장으로 후송)과 57mm 對戰車砲 12문, 그리고 2.36" Rocket砲 276문을 장비하고 있었다.

사단의 教育 訓練실태는 제2 및 제19兩연대는 創設과 同時에 轉戰한 관계로 체계있는 教育이 곤란하였으며 기회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는데 중대전투훈련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19연대는 對戰車무기가 전연없음을 감안하여 과거 對戰車공격에 경험이 있는 연대수석대장 朴準亮중위를 비롯한 장교 및 하사관을 교관으로 하여 肉迫공격요령을 敎育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7연대는 대대전투훈련을 마쳤으며 우수한 장교의 피교육처출을 기피하는 당시의 풍조를 깨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該當학교에 파견하여 보수과정교육을 마치도록 하였다.

한편 제16포병대대장 金聖 소령은 포병학교 OAC를 마치고 돌아오자 즉각 3개포대장을 입고시킨



다음, 대대將兵으로부터 훈련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야간 훈련을 강행하였는데 심지어는 군의관까지도 포사격을 할수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3개포대장이 모두 교육에 파견되어 공격중이 있음에도 續戰에 있어서의 戰鬪力 발휘에는 지장이 없었다.

陣地工事に 있어서는 春川正面은 제7연대가 進入하자마자 戰線으로부터 市內가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을 勘案하고 工事を 서둘렀는데 陸軍本部에서는 예산상 工事を 支援할 수 없다는 通報를 받아 自體 人力만으로 解決하기로 決定하고 사단으로부터 공병 1개중대를 支援받아 春川市民과 學生들의 도움으로 9箇所(長在洞: 1개소, 仁巖里로 부터 春川간: 6개소, 西上里: 1개소 芝岩里: 1개소)에 有蓋 concrete와, 그리고 중대마다 2~3개소의 통나무로 만든 有蓋驛을 마련하고 驛間에는 연락호로 연결하였으며 陣前에는 지붕形 鐵條網을 雙線으로 치고 그 중간에는 對人地雷를 물었다.

그러나 제2연대 正面은 concrete陣地가 없고 통나무로 쌓은 有蓋驛을 제8연대로 부터 引受받아 修築하였는데 이곳은 鐵條網이나 對人地雷가 없었고, 그렇다고 이를 새로이 가설한 시간의 여유도 없었다.

그림에도 38橋(洪川으로 이르는 첫 길목) 南쪽은 연대장 候補 內령이 陣前에 있었던 新南事營을 교훈삼아 既存진지에다 몇갈지의 통나무를 쌓고 그위에 흙을 단단히 다져 놓게 함으로써 續戰 3시간을 支撐하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

그러나 敵에게 戰車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拒否할 對戰車地窟은 사단내에 한 개도 없었다.

補給은 原州에 本營을 두고 洪川과 春川에 각각 支營을 설치하여 지원하였다.

1950년 3월 31일 현재 陸軍本部에 보고한 사단 비상용준수품보유 실태를 보면 白米 및 精麥은 없었고, 乾糧이 657상자(1일분), 휘발유가 소모 800D/M에 보유 359D/M(2 ton으로 143,600km운행분)뿐이었다.

彈藥은 M1소총, 1基數, CAR을 비롯하여 60mm, 81mm 迫擊砲彈, 105mm 야프탄 각 2基數이고 기타 57mm에 對戰砲彈과 輕機關銃彈은 충분한 量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통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戰鬪간 일부 孤立된 소부대를 제외하고 食糧이나 彈藥의 부족으로 전투에 지장을 준바는 없으며, 제19연대의 경우에는 北進할때 사용하여야 한다는 연대장 閔丙權중령의 지시로 휘발유 50D/M를 지하에 비축하였는데 철수할 때에는 차량관개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氣象 및 地形을 살펴보면 6월의 氣溫은 平均 22°C이며 高溫 多濕하고 이달 中旬부터는 雨季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降雨量은 平均 100~250mm이고 濕度가 높다 이 기간에는 낮은 안개구름이 끼어 敵의 행동을 용의케 하나, 바람은 東南風으로 我에 유리하다.

地形은 험준한 山岳과 불규칙한 지형의 조건 및 울창한 森林으로 觀測에 제한을 주고 直射화기 보다 曲射화기의 사격효과를 증대시킨다.

地帶內에는 西流하는 昭陽江과 南流하는 北漢江이 있는데 降雨期의 증수로 徒涉이 곤란하고 또한 厚儀山은 昭陽江의 北岸一帶를 戰鬪할 수 있는 要域인 분 야기라 天然의 堡壘이기도 하다.

道路網은 春川을 中心으로 南西로 뒀는 京春街道 및 南쪽으로 뻗어내려 原州—忠州로 이르는 一車線道路가 있으나 路面은 나쁘고 東西간의 橫斷道路의 結構은 橫의 연락 및 作戰지원에 불리하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사단이 최초로 戰線을 담당하였을 당시에는 創設이 日淺한 탓도 있겠으나 별단의 계획이 없었고 自體에서 作戰指導方針을 成案하여 部隊를 운용하였으니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방어의 重點을 春川에 두며 敵이 侵攻시에는 이를 擊破한 다음 公세로 移轉한다.

② 제8연대는 右一線에서 敵의 侵襲을 防止하고 公세로 移轉할 준비를 하라.

③ 제7연대는 左一線에서 敵의 主力을 격과하고 公세로 移轉할 준비를 하라.

④ 제19연대는 명에 의하여 역습부대로 투입될 준비를 하라.

⑤ 포병대대는 敵의 主力방향에 집중 운영한다.

⑥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중대를 배속하라.』

그후 陸軍本部에서 방어계획이 마무리되어 사단은 作命제42호(50.5.18)로 이를 確定하였는데 이 命令이 各연대에 下達되어 채 익히기도 前에 38°線 一帶에는 妖氛이 감돌면서 緊迫感이 한층 더해 갔고 6월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그 熱度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즈음 사단에 들어온 첩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5월이래 그들의 挑發행위가 한 건도 없다. (제7연대 보고)

② 6월부터 敵의 포 진지 구축작업이 활발하여 졌다. (제7연대 보고)

③ 敵은 야간차량운행시에는 반드시 消燈하였는데 수일전부터는 Head Light를 전혀 南下하고 있다. (제2연대 보고)

④ 敵의 砲가 앞으로 추진 방열되고 兵력을 수용하는 天幕이 증가하고 있다. (제7연대 보고)

⑤ 敵의 軍官들이 地圖를 펴고 南쪽을 향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제2 및 제7兩연대 보고)

⑥ 冠岱嶺부근에 1개대대 규모의 敵이 集結하여 있고 밤에는 戰車가 굴러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제2연대 보고)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날이 갈수록 빗발쳐 들어오는 그들의 徵候를 심상치 않게 注視하고 있었는데 6월 19일에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으로부터 『北傀 제2사단 소속의 戰車兵 한 명이 歸順하였는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23일부터 38°선 接境에서 野外演習을 하기 위하여 一週間의 야간행군으로 戰車 40대와 함께 華川에 도착 하였는데 이곳에는 많은 兵力과 砲가 集結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사단장은 1개 포로의 진술만으로는 정보의 정확도가 미약함을 認知하고 연대장에게 다시 확인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尹鍊庸 소위를 長으로 한 搜索隊(30명)를 華川 및 楊口쪽으로 潛入시켰는데 그들의 귀대보고에 따르면 『華川에 車輛 400대 및 楊口에 300대가 각각 春川으로 南下할 태세를 갖추고 출지에 있음을 목격하였고 그 兩쪽에는 大兵力이 속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직접 敵情을 살피기로 하고 23일 08.00에 S-2 金東門 대

위 및 S-3 李南浩 소령을 대동하고 제3대대 제9중대 觀測所로 올라갔다. 여기에서 그는 母津橋 北쪽에서 대병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돌아왔는데 때마침 初度순사 차 來到한 사단장 金鐘五 대령에게 敵情을 보고한 뒤에 불원 어미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덧 불렀다.

當面한 연대 正面의 敵情을 듣고난 사단장은 적정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에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사령부에 당도하여 陸軍本部 情報局長 張道英 대령을 전화로 불렀다.

그러나 그는 출타하고 同屬의 美고문관 대위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에게 당면한 正面의 적정을 알린 다음 다른 地域의 敵情을 물었더니 그는 매우 평온하며 敵은 절대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이때의 心情을 그는 『나 自身도 敵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對策도 세우지 않았다.』고 덧날 述懐하였다.

그러나 이미 導火線에 불이 붙은듯한 예감 속에서 제2 및 제7 兩연대장은 거의 같은 시각에 각각 深夜 작전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하고 있었다.

즉, 제2연대 S-2 宋大厚 소령은 全面戰의 조짐이 뚜렷하다고 具申하여 참모들을 긴장시키기도 하였으며 연대장 咸炳善 대령은 『이곳 저곳으로 轉戰하며 나와 함께 惡戰苦鬪를 이겨낸 諸官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낯새를 느낄 것이다. 상황은 절박하다. 제7연대장도 나에게 무엇이 2,3일내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제관들은 지금부터 돌아가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強調하였다. 또한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도 『敵은 局部的인 공격을 할 징후가 濃厚하니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라.』고 指示하였다.

이때 사단은 陸軍本部로부터 軍糧米의 부족을 이유로 외출, 외박을 적극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1/3이상의 병력이 빠져 현존 병력을 수습하여 전투태세를 갖추 수 밖에 없었으나 요행히도 개전 5시간 뒤에는 전원 소속대로 복귀하였다.

이와같은 混迷한 상태에서 사단은 그들의 기습적인 大攻勢에 직면하게 된 까닭으로 이미 하달된 作命제42호를 기초로 하여 敵侵에 대비 할 수 밖에 없었다.

## (2) 작전실시

6월 25일 새벽 03.30,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敵의 大口鎗포탄이 사단의 예비 및 주진지 一帶에 쏟아졌다.

50분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으로 말미암아 通信은 두절되고 交通線은 온데간데 없이 매물된데다 거개의 有蓋壕마저 파괴됨으로써 鎗戰부터 지휘체계가 마비된채 소대별 거점 위주의 단독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사단장의 作戰指導 :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兩 연대장으로 부터 敵이 大的으로 침공을

개시하였다는 보고에 접하자 사태가 위급함을 직감하고 예비인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에게 出動準備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때까지도 그는 敵의 全面挑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단절되었던 有線이 회복되어 陸軍本部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과 통화가 이루어 졌는데 그는 『全敵線의 戰況이 매우 불리하다. 당신은 江原道地區 戒備사령관이다. 人的, 物的 모든 動員권한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시오.』라는 지시를 받고 비로소 全面戰爭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긴급히 작전회의를 소집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다음 G-3 梁仲鎭 중령을 대동하고 격전중인 春川으로 直行하여 14.00에 鳳儀山에 설치한 제7연대의 指揮所를 찾았다.

이때 敵은 泉田 및 玉山浦로 밀려들어 연대와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전투様相을 직접 목격한 그는 자신에 찬 調語로 春川을 固守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제31호(50.6.25)를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南侵하는 敵을 現 戰線에서 捕捉 殲滅하려 한다.
- ② 제2연대는 現 陣地에서 侵入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1개대대를 급속히 於論里로 進出시켜 迂回하려는 敵을 擊滅하라.
- ③ 제7연대는 現 陣地에서 南侵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 ④ 제19연대는 급속히 春川으로 出動하여 제7연대를 지원하라.
- ⑤ 제16포병대대는 2개포대를 春川으로 出動시켜 제7연대를 지원하고 1개포대를 洪川境 兪 於論里로 進出시켜 제2연대를 지원하라.
- ⑥ 行政支援 : 제19연대는 列車로 수송하며 실탄은 사단 차량으로 운반한다.
- ⑦ 指揮 및 通信 :  
㉠ 通信은 이미 하달된 SOI에 의하며  
㉡ 사단 指揮所는 碩石里에 在함.』

#### (가) 洪川 東北地區 戰鬪(제2연대)

6월 25일 :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不意에 虛를 찢러, 昭陽江邊을 피로 물들이게 되었다.

##### 1. 제1대대의 상황

대대(장, 金秉鎭 소령)는 洪川에 이르는 道路의 幹線을 중심으로 하여 石屯臺(冠峯巒 東南쪽 6km)로부터 (大洞里 西北쪽 11km)에 이르는 사이에 陣地를 占領하고 있었는데 이날 01.00에 연대로부터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자, 며칠 전 부터 똑같은 지

시를 받아 온 병사들은, 또 그 애기군 하고, 저녁 늦게까지 진지보수작업으로 심신이 疲勞하여 보초만을 남긴 채 쓰러지다시피 곤히 잠들고 있었다.

이윽고 03.30, 때아닌 轟폭에 놀라겐 이들은 소낙비가 즐기차게 내리는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포탄이 작열하여 그 겁광으로 바깥이 췌함을 볼수 있었다,

50분간에 걸친 敵의 포격으로 인접된 壕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놓인 바로 이때 연대장으로 부터 戰鬪態勢로 突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대대장 金秉鎭 소령은 이 명령과 더불어 현 진지를 절대 고수하라고 종이 쪽지에 써서 연락병을 각중대에 급파하였으나 敵의 포탄으로 말미암인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음을 뒤에 알았다.

**38橋 戰鬪(제1중대)**: 제2소대장 朴炳浩 소위는 동료들로부터 부대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연대장 威炳善 대령이 平時부터 敵이 侵攻한다면 冠岱里 南쪽 500m에 있는 38橋(현재는 水浸)가 그 目標로 될 것이라고 추단하고 이를 扼守하고 있는 제2소대에 LMG 2정, 2.36" Rocket포 4문, 60mm 박격포 2문, 그리고 2개 분대의 병력을 追加로 백속시켰기 때문이었다.

朴炳浩 소위는 항상 연대장의 뜻깊은 配應에 책임을 통감하고 진지를 점령한지 불과 5일만에 기존진지 위에 통나무를 三重으로 쌓고 그 위에 1m 이상의 흙을 덮어서 다지고 敵의 사격으로부터 일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04.30에 그들의 포격이 주춤하여진 틈을 타 銃眼으로 38橋를 바라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눈 앞에는 심한 濃霧가 끼어 아무것도 안 보였으나 兩岸의 자갈소리로 대병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소대원에게 『나의 信號에 의해서만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한 다음 左측의 작은 능선을 기어내려가 中腹에서 응시하였다.

敵은 한 손에 수류탄을 다른 한손에는 銃을 들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면서 蟻集하여 건너오고 일부는 南岸으로 건너와서 이미 산개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때라고 판단하자 『사격개시!』를 號令하니 소대의 一齊사격으로 敵群을 모조리 휩쓸었다.

敵의 狂波를 一擊에 물리친 그는 소대원들에게 敵이 再侵할 공산이 크니 더욱 분발하라고 격려하면서 사상자를 확인하였던 바 2명의 경상자가 났을 뿐이었다.

朴炳浩 소위가 예측한 대로 敵은 이 地域으로 主力을 投入하여 함인지 一次침공이 실패하자마자 연막탄까지 쏘아대며 砲撃을 加하니 壕에서 한 발자욱도 나올 수가 없었다.

이에 이르자 병사들의 士氣는 위축되는듯 하였는데 이를 感知한 그는 『이 고지야말로 우리가 固守해야 할 땅이며 사단장의 명령없이는 一歩도 후퇴할 수 없다.』고 不退轉의 결의로 號令하였다.

敵은 洪川通路의 關門이 풀리지 않자 迂回를 기도하는듯 한부리는 東쪽의 修理峰으로,

또 한무리는 西쪽의 俗稱 막장리의 제2중대(장, 鄭相錄 대위)를 뚫고 上水内里로 침공함으로써 대대는 후방과의 연락로가 遮斷될 직전에 놓였다.

敵은 東西의 兩翼으로 迂回가 이루어진듯 하자 다시 正面突破를 시도하고 狂波를 몰아쳐 壓迫을 加하였다.

朴炳浩 소위는 부하들을 奮勵하여 二波, 三波, 그들의 무리를 南岸에 발 붙이기 전에 쓰러뜨렸는데 이에 따라 그들의 지원포화는 그 극에 달하였다.

증강된 1개소대에 불과한 高地에 퍼붓는 大口徑砲擊으로 右蓋嶺의 뚜껑은 날아가고 彈藥은 고갈되는데다 주변을 돌아보니 5명이 생존하였을 뿐이었다.

이때, 동무, 동무 하면서 北쪽 절벽으로 기어올라오는 敵을 선입하사 李圭辭 중사가 射殺하고 보니 17세 정도의 北傀 소년병이었다.

朴炳浩 소위는 많은 부하를 손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령없이 진지를 敵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罪責感에 한때는 自決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李中土가 『생존자를 救出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권고에 따라 自決하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於論嶺로 철수하여 연대장 威炳善 대령을 만났다.

연대장은 뜻밖에도 『정말 朴소위가 血戰으로 敵은 2시간이나 지체시켰기 때문에 예비대를 투입할 수가 있었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이 戰鬪의 공적이 인정되어 鬪將 金星花郎勳章이 授與되었다.

연대장은 아직 그들의 戰車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本格的으로 侵攻할 때에는 戰車를 앞세울 것이라고 추단하고 新南으로 直行하면서 自隱里에 있던 57mm 대전차포중대 제1소대(장, 朴培燮 소위)에게 뒤따라 新南으로 추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新南으로 躍進한 同 소대는 放列할 위치를 찾다가 適當한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 저리 배회하던중 大隊병력이 三三五五로 뒤로 빠지게 되자 그 길로 돌아서서 거리뿔길로 無斷히 철수하고 말았다.

△585附近 戰鬪: 敵은 洪川通路의 길목이 뚫리자 제2선에 控置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戰車를 끌어내어 步戰砲協同으로 新南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參謀學校에 入校명령을 받고 出發하려던 朴魯圭 중령(발령전에는 제1대대장임)은 연대장에게 간청하여 제1대대의 지휘를 다시 맡게 되었다.

그는 三面으로부터 敵의 압력을 받아 상황이 위급하기에 이르자 06.20에 自隱里에 控置하였던 제3중대(장, 安日順 대위)를 출격시켜 △585(於論嶺 東쪽 2km)에 산개시켜 그들의 道路接近을 阻止케 하는 한편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제1 및 제2중대와 제5중대를 該線에서 흡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 및 제2 兩중대는 11.30에 제3중대와 合勢가 이루어 졌고, 제5중대는 △585 길 건너 △402(웃마을 北쪽 1km)로 철수하여 道路 兩쪽을 防守하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즈음 敵의 戰車는 아랫다브리 까지 南下하여 병사들은 이 怪物의 出現에 놀래고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본 대대장 朴魯圭 중령은 2.36" Rocket포의 威力을 과시할 때가 到來하였다고 생각하고 8문을 길 兩쪽에 배치시켜 至近거리에서 발사하였으나 數發이 命中하였음에도 울칠하였을 뿐, 대대의 火線을 뚫고 亂射함으로써 射手 2명이 그자리에서 散華하고 포 3문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의 사기는 중요하고 전차에 대한 공포심은 순간에 대대를 壓倒하는듯 하였다.

## 2.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는 △789(縣界 東北쪽 9km)로 부터 俗稱 오목골(冠堡嶺 東쪽 8km)에 이르는 사이를 防守하고 있었는데 04.00에 연대장 威炳善 대령으로부터 戰鬪태세에 突入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시간이 경과 하여도 그들의 徵候가 없자 이번에도 共匪 侵透(6월 24일에 대대 정면으로 침투한 共匪 3명을 발견하고 2명을 射殺)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05.30이 되자 박격포 및 直射砲彈이 쏟아지는 가운데 2개대대 규모의 敵이 下岫에서 제9중대(장, 南白峯 대위) 정면으로 縱隊를 이룬채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南白峯 대위는 左제1선의 제11중대장 蔡洙龍 대위와 협동하여 그들을 至近距離까지 유인한 다음 最後阻止사격의 十字火線으로 이들의 一波를 潰滅하는데 突功하였다.

이때로부터 敵의 大群은 衆勢를 빌고 道路를 따라 直衝하여 兩중대를 차단할 氣勢로 밀려들었다.

兩중대는 側方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격방향을 돌려 斜射로써 敵屍를 쌓아올렸으나 衆寡不敵으로 한발 한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대장 李雲山 소령은 兩 중대를 일단 敵으로부터 離脱시켜 예비대와 습격하여 縣界線에서 이들을 阻止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嚴守洞에 控置하였던 제10중대(장, 金善鎰 대위)를 右(輔)으로 이동시켜 縣界 西쪽(昭陽江 上流의 西岸)의 △558를 점령케 하는 한편 진다리에 접결한 제11중대(장, 蔡洙龍 대위)로 하여금 △520를 점령토록 하였는데 이무렵 제9중대는 有無線이 杜絶되어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 놓였다.

兩중대는 13.00에 각각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躍出하여 제10중대가 敵影도 없는 △558를 占領하였고 한편 제11중대는 8부능선에 이르렀는데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쳐 進退를 주저하고 있던 중 제12중대장 崔熙泰 대위가 이곳으로 올라와 연대主力이 洪川으로 철수하였다는 말을 하게되자 (이 말의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음) 제11중대장 蔡洙龍 대위는 獨斷으로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를 명령하게 되었다.

이 命을 받은 소대장 및 중대원들은 왜 後退를 해야 하느냐고 항의가 빗발쳤는데 이에 대하여 蔡대위는 우리는 敵을 誘引하기 위해서라고 궁핍한 변명을 하고 철수를 囑하

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대장 李雲山 소령으로부터 중대가 너무 突出하였으니 △521(縣隄 東쪽 1km)로 물러나서 방수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蔡洙龍 대위는 이번 일에 贖罪라도 하려는 뜻에서 인지 선두에서 지휘하며 △521로 약진하고 있었는데 同 高地에는 벌써 수명의 敵이 先占하고 있었다.

이를 發見한 蔡대위는 『너희들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들은 『우리는 제9중대다.』고 應하는 순간에 그들의 服裝을 얼핏보니 敵이었다. 『오, 그래!』하면서 蔡洙龍 대위는 手榴彈을 집어던져 一擧에 박멸하고 同 高地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압력은 시간이 감에 따라 強烈하여져 21.00에 대대는 부득이 嚴守洞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縮職을 장식하였던 제9중대(장, 南白峯 대위)는 교전 數分만에 潮水와 같이 밀려드는 敵에게 후방이 차단된데다 그들의 치열한 포격으로 有無諒마저 파괴 및 단절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惡戰苦鬪하다가 대대의 行方마저 잃은채 芳巖山으로 내려와 사단右翼의 제8사단 제10연대의 철수병력과 함께 水安堡에 이르러 100%의 명령을 유지한채 대대에 흡수하게 되었다.

### 3. 웃마을 附近의 戰鬪

新南으로 추진하여 진두지휘하던 연대장 咸炳善 대령은 제1대대의 戰況이 時時 刻刻으로 惡化되자 05.00에 當浦里(洪川 東北쪽 3km)에 예비로 控置하였던 제2대대(장, 金尙龍 소령)을 移動토록하여 09.00에 어구촌(白隱里 北쪽 4km)으로 진입하였다. 이리하여 同 대대는 道路를 사이에 두고 兩쪽 능선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제1대대(장, 朴魯圭 중령)의 철수를 掩護하였다.

또한 연대 指揮所는 洪川으로부터 白隱里로 옮겨 행정지원의 신속을 期하도록 하고 觀測所를 △585로 옮겨 兩대대를 지휘하였다.

이때 철수하는 연대를 追尾한 敵의 戰車 10대가 敵兵과 分離된채 웃마을로 접근중이었는데 이를 본 장병들은 對戰車 장비가 없음을 한탄만 하고 束手無策일 따름이었다.

이를 알아챈 연대장은 『이제 祖國의 運命은 저 戰車와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의 한 판에 달렸다. 저 戰車를 때려 부술 용사는 없느냐?』라고 외치기에 이르자 제5중대 姜承鎬 소위가 나타나며 『제가 하겠습니다.』고 나서자마자 上士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20명이 너도 나도 지원하였다.

姜 소위는 2.36" Rocket포로 무장한 이들 特攻隊員에 1발씩 試射시킨 다음 2개반으로 나누어 道路兩쪽에 잠복하였다.

眼下無人격인 敵의 戰車群은 砲塔을 열어서친채 射程거리내로 다가 왔다.

姜承鎬 소위의 힘찬 사격개시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제1 및 제2번 戰車가 화염에 싸



여 그 자리에서 擧坐하고 千萬 意外의 사태에 직면한 나머지 8대의 戰車는 北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特攻隊員들은 擧坐한채로 있는 戰車를 수류탄으로 완전히 爆破하는데 奏功하였는데 이 功으로 제5중대 金昌成 상사는 金星花郎勳章을 받았다.

이 光景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한때나마 士氣가 충천하고 中隊의 火器로도 戰車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병사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다.

#### 4. 主陣地 確保와 反擊준비

이 동안에 當面한 情勢은 점차 惡化되어 현 急縮진지에서의 防守가 至難한 것으로 판단한 연대장은 攻防에 유리한 주진지로 일단 물러나서 分離된 제3대대를 흡수하여 집중된 병력으로 그들의 虛勢를 꺾어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날 12.30 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즉, 제3대대를 白隱里로 招致하는 한편 제2대대의 엄호아래 제1대대들 △585에서 陣地를 變換하여 연대의 左제1선을 삼아 △828—△560선을, 그리고 제2대대는 예하의 제5중대를 흡수, 左제1선으로 하여 △402—△454로 連하는 선에 布陣시켰다.

이때의 主陣地는 미약하나마 情勢에 應接 및 연락호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兩대대가 진지를 보수하고 있는 사이에 S-4 金容然 대위는 白隱里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주먹밥을 짓고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장병들은 오랜만에 생기가 솟아오른듯 하였다.

어둠이 깔리자 戰線은 暴風前夜와도 같이 적막이 흐르고 간간히 交叉되는 피아의 銃彈만이 虛空을 날았다.

21.00에 연대장은 참모들과 반격작전을 숙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무렵에 보병학교 OAC에서 피교육중이던 金柱亨 소령과 文正植 소령, 그리고 曹精鍊 소령이 戰線으로 달려와 到着申告를 하였다.

연대장은 즉석에서 金柱亨 소령을 제1대대장으로, 文正植 소령을 제2대대장으로, 그리고 曹精鍊 소령을 공석중인 S-3로 각각 보직하였다.

그러나 朴魯圭 중령의 보직문제에 대하여 장본인이 뒤에 故人이 되어 確認할 길이 없으나 威炳善 대령은 이번 補職에 대하여 戰況이 급하여 제1대대를 돕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연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戰車를 앞세우고 南侵하는 敵 2개연대 규모를 捕捉殲滅하고 於論里 北쪽의 高地群을 탈취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38°선을 회복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585(於論里 東北쪽1km)를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593(於論里 西쪽2km)를 탈취하라.

④ 제3대대는 白隱里로 집결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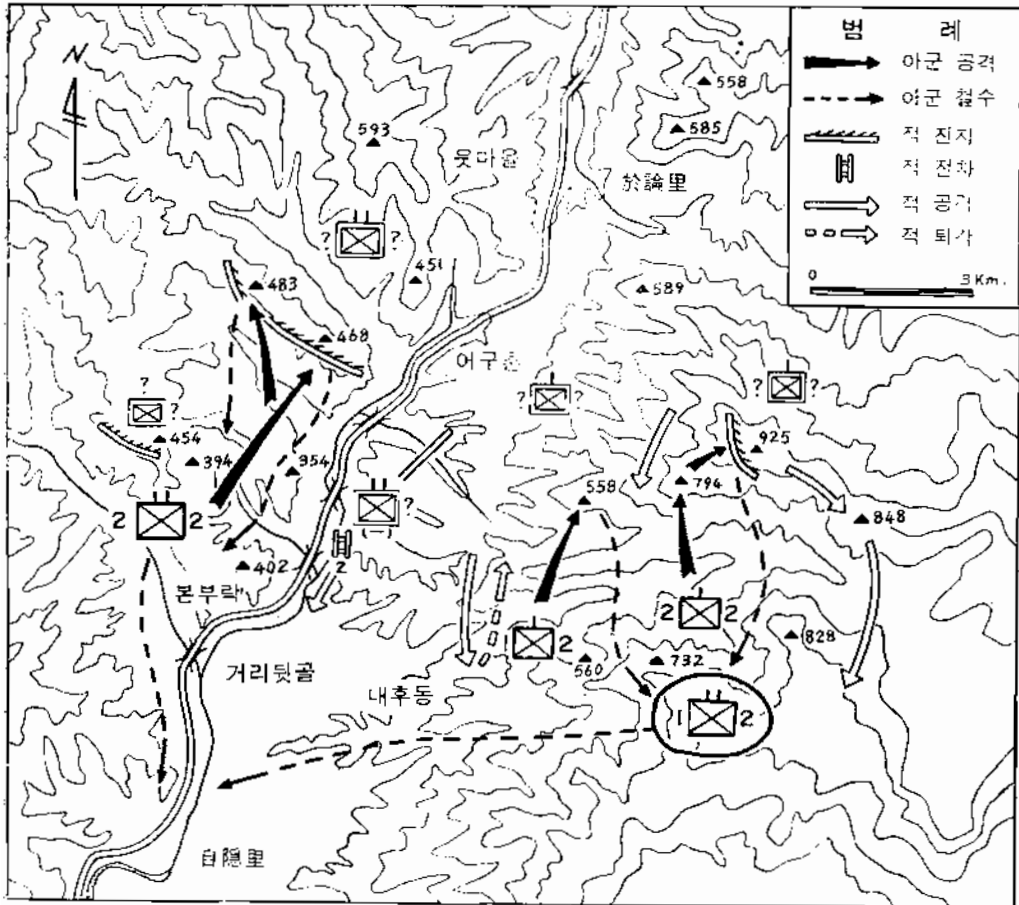
⑤ LD는 현 접촉선이고 공격개시시간은 26일 06.00이다.』

6월 26일 : 北傀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은 전투初口에 春川을 占據한 다음에 漢水以北의 我主力軍을 포위하기 위하여 西南進하려던 企圖가 사단의 善防으로 말미암아 霧散하기에 이르자 그들은 洪川奪取가 遲滯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全般的 侵攻目標에 부합시키려 하였음인지 전날 21.00에 洪川으로 南侵중에 있던 敵 제7사단(장, 全宇 소장)에서 2개연대 및 독립戰車연대에서 戰車10대를 抽出하여 楊口를 거쳐 敵 제2사단(장, 李吉松 소장)의 左翼인 泉田부근으로 投入하고 春川正面에 대한 總攻勢를 企圖하였다.

한편,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미약한 병력으로 敵을 釘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동안에 제19연대의 제1 및 제2 兩대대가 續續 도착하였으므로 이에 힘입고 1개대대를 昭陽江 北岸으로 赴援하고 1개대대를 同江 南岸에 배치케 하여 사단의 제2선을 형성하였다.

이날 사단은 그들에게 기습적인 反擊戰을 감행하여 出血을 증가시켰으나 부득이 春川에서는 同江의 南岸으로, 그리고 洪川 東北쪽에서는 寒溪黑線으로 각각 隨意 철수하여 戰列을 가다듬으면서 反擊의 機會를 기다렸다.

◇ 상황도 제 7호 제2연대 제1대대의 反擊狀況(6. 26)



## 1. 제1대대의 상황

06.00에 두터운 안개속을 뚫고 제1대대(장, 金柱亨 소령)는 右제1선에 제2중대(장, 鄭招錄 대위)를, 左제1선에 제1중대(장, 金尙用 대위)를 각각 현 接觸線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併進으로 躍出토록 하고, 제3중대(장, 安日順 대위)는 예비로써 공격중대에 후속케 하였다. 한편 제4중대(장, 李柱興 대위)는 내후동(白隱洞 北쪽 1km)에서 火力로 支援하였다. 이제 대대는 開戰후 밀리기만 하던 전투에서 처음으로 反擊戰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니 사병들의 士氣는 冲天하였다.

제2중대는 10.00에 中間口標인 가마봉으로 躍進중 △794(가마봉 西쪽 800m)에 있던 1개 소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이를 奪取하였고 제1중대도 같은 시간에 △558(△794 西쪽 1km)를 手中에 넣었다.

이무렵 敵은 가마봉에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놓고 기타 주변 일대의 고지에는 소수의 병력을 배치하여 側方을 경제하는 듯 하였다.

이보다 앞서 △560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은 △794가 手中에 들어 올 무렵에 左제1선으로 併進공격하던 제2대대장인 △454에서 音을 복는듯한 銃聲이 요란하여 그곳 제2대대장 文正植 소령에게 『상황이 위급하냐?』고 물었던바 그는 『연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려 할때 敵이 먼저 공격하여 苦戰中.』이라는 말을 듣고 수화기를 놓으려는 刹那에 △925로부터 그들의 機關銃과 小銃사격이 쏠아졌다.

이때부터 彼我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展開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一隊은 兩중대사이로 침투하여 먼저 제1중대와 白兵戰이 벌어져 混戰格鬪끝에 이를 물리쳤는데 중대장 金尙用 대위는 敵彈으로 愛惜하게도 戰歿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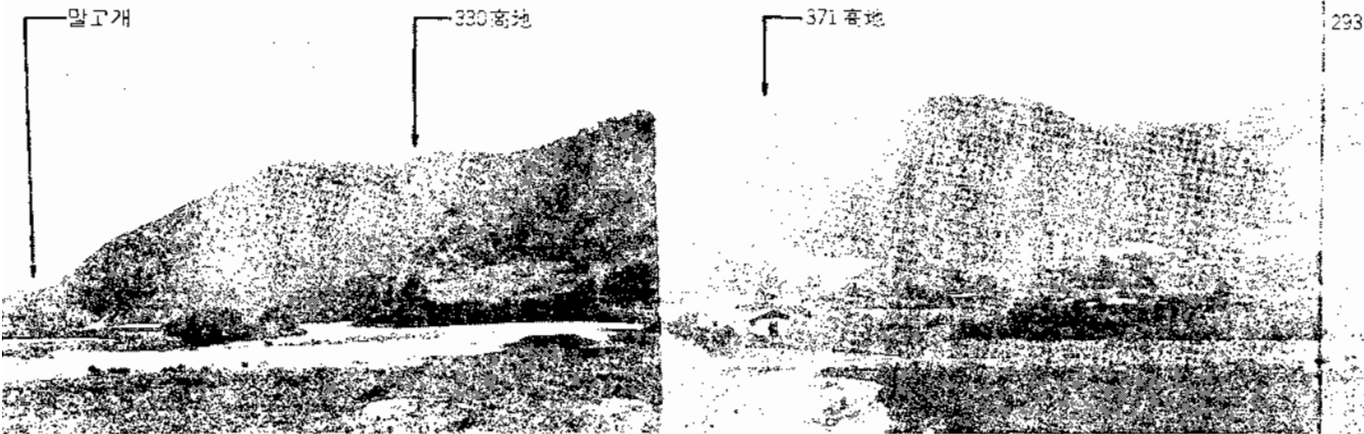
또한 그 一隊은 내후동 東쪽 1km의 무명高地로 迂回침투하여 同高地로 추진하였던 대대 觀察所를 기습하여 分散된 直前に 제3중대가 급히 反轉하여 이 醜敵을 擊退시켰다.

11.30부터 敵의 壓力이 加熱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그들은 침투병력대신에 포격으로 대대의 躍進을 阻止하려 하였음인지 兩고지에 砲擊을 퍼붓더니 戰車 2대를 앞세운 2개중대 규모로써 兩대대의 連繫점을 끊고 俗稱 거리뒀골로 서서히 침공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같이하여 가마봉의 무리들이 제1및 제2 兩중대를 放置한 채 △848(東南쪽 1.5km)로 迂回하여 대대의 右側背를 위협하려는 듯 하였다.

△560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 咸炳善 대령은 제2대대의 공격이 사실상 頓挫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제1대대마저 敵의 挾擊에 직면하기에 이르자 兩대대장에게 敵으로부터 離脫하여 主陣地로 물리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각 중대는 이미 침투한 그들과 뒤엉킨 가운데 亂鬪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아 분대, 소대별로 무질서하게 主陣地로 後退하게 되었다.

당시, 제1중대 화기소대 선임하사였던 劉永福중사는 『안개가 끼어 피아를 분간 할 수가



〈△371—말고개 부근 遠景〉

없었으므로 말(言語)의 억양이 강(強)하면 敵으로 알아서 찌르고 쏘고 하였으며 유(柔)하면 戰友로 알아야 하는 混戰이 벌어졌다.』라고 증언하였다.

13.00에 대대 指揮所를 白隱里우측국으로 정한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三三五五로 흩어져 돌아오는 병력을 수습하던중 사단 參謀長 高時福 중령으로부터 체신부 電話를 통하여 전화가 걸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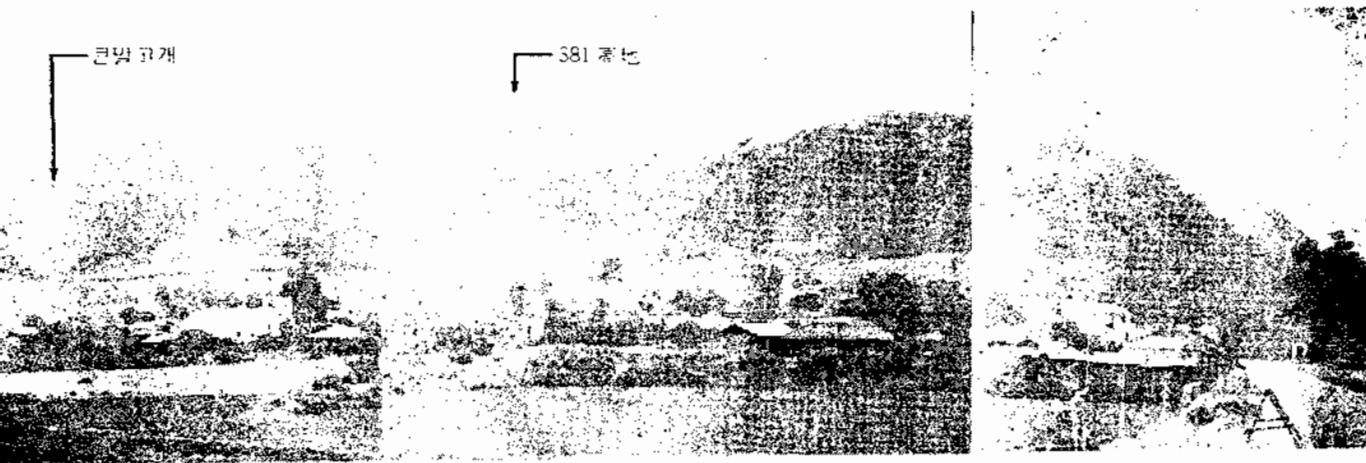
그는 『연대장이 그곳에 안계시다니 賁官에게 사단장의 명령을 傳한다. 연대는 즉시, 洪川전방으로 철수하여 방수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 명령을 연대장을 만나는 즉시 보고하라.』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金柱亨 소령은 『연대는 현재의 능력으로 敵을 擊退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高중령은 全戰線의 戰況이 이를 허락치 않으니 명령대로 履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제2대대의 상황

한편 06.00에 대대(장, 文正植 소령)는 두터운 안개의 벽을 헤치고 연대의 左제1선에서 △394—△402선의 北쪽계곡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東에서 西로 제5, 제6, 제7중대 併列으로 躍進을 시작하려 할때 敵이 먼저 포탄을 亂舞하면서 강습함으로써 공격이 頓挫 직접의 衝였다.

이때 마침 대대에 배속되었던 57mm 대전차포중대 제1소대장 朴培燮 소위는 그들의 彈藥을 훔고 砲2문을 △402 東麓으로 추진 방열하고 △354 및 △468, 그리고 敵戰車의 예상 접근로인 어구촌(白隱里 北쪽 5km)—圓을 速射로 강타하여 그들의 小火器 사격을 屏息시켰다.

이 사이에 대대장은 突貫을 명령하여 그들의 前哨진지를 蹴하고 餘勢를 몰아 △468—△483간의 지근거리로 접근하였는데 敵은 이 連峰에 강력한 방어선을 쳐고 요란 및 저지 사격으로 맹격하여 대대는 숨피물 하나 없는 급경사에 붙어 應戰하였으나 사상자만 속출



〈寒溪里—큰밭고개 부근의 遠景〉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연대장 威炳善 대령이 보낸 S-3 보좌관 田東植 대위가 당도하여 傳하기를 『연대 全般의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主陣地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이곳을 점령할때 까지 많은 사상자를 내어 울분이 북받쳤으나 火力지원 하나도 없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 되었으므로 次期 戰鬪를 위하여 撤收키로 決心하고 즉각 중대에 연락병을 급파하여 12.00에는 主陣地로 철수한 다음 급편 방위에 임하였다.

### 3. 연대장의 措置

연대장 威炳善 대령은 13.30에 自隱里의 연대 指揮所에서 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作戰을 討議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1대대장은 『寒溪里線이 要域일 뿐만 아니라 縣으로 부터 철수중에 있는 제3대대를 수용하기 쉽고 迂曲이 심한 이 地形은 敵의 戰車를 격파하는데 가장 適合한 곳이다』고 건의 하였고 S-3 曹精鍊 소령은 『중간 중간에서 방어전성을 펴서 猪突的으로 挑戰을 하느니 보다 敵으로부터 일단 離脫하여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疲勞困憊한 병력에게 휴식을 주면서 隊伍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장 威炳善 대령은 이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 하였다.

- ① 연대는 현 진지로부터 北倉(寒溪里 東南쪽 2km)—寒溪里선으로 晝間撤收하여 방어 진지를 편성한 다음 敵을 진지에서 阻止殲滅하려 한다.
- ②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엄호아래 철수하여 △330—△293간의 진지를 점령하라.
- ③ 제2대대는 축차 지연전을 수행하여 △293—△359간에 진지를 점령하라.
- ④ 제3대대는 城山으로 철수하여 연대의 예비가 되어, 측방경계에 임하라.

⑤ 제16포병대대 제1포대는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이리하여, 北倉—寒溪로선을 「死守高地」라는 別稱이 붙게 되는 激戰이 展開하게 되는 데 이 地形을 一瞥하던 寒溪로 부터 洪川으로 내려가는 道路左側에 큰갈고개와 말고개가 大小連峰으로 城山里까지 이어져 있고, 道路에 沿하여 右側에는 徒涉이 可能한 華陽江이 흐르고 있다.

이 地帶에서 道路의 頂點은 △230이며 이로부터 寒溪里까지는 連續的인 S字形 回曲이 많고 겨우 車한대가 通過할 수 있는 一車線이다.

또한, 이 高地群에서는 6km 앞의 白隱로부근까지 瞰制할 수 있고 山後線에서 派生한 橫溝支線線이 東西로 疊疊히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森林이 울창하다.

#### 4. 연대의 再編成

연대의 철수는 14.00부터 제1포대에 의한 掃蕩砲擊을 信號로 하여 제2포대부터 거시되었는데 제2대대는, 한 차례의 집중사격을 끝으로 나누정 골짜기를 따라 白隱로쪽으로 縱隊行列을 이루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무렵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연대의 철수를 探知해서인지 戰車 5대를 앞세우고 연대의 中央에 배기를 막을 태세로 침공하고 나머지 數臺의 戰車는 거의 뒷줄로 亂入하여 左右 野山을 亂射하는가 하면 일부의 무리들은 △402로 蟄集하여 밀려들었다.

同 高地를 扼守하고 있던 제5중대장 李鍾基 대위는 앞으로는 敵兵을 맞고, 뒤로는 敵의 戰車를 맞아 병사들의 動搖가 심하자 이곳으로 추진하였던 57mm 대전차포중대소속의 Cal 50 기관총 1정을 직접 사격지휘하여 앞의 敵을 쓸어버렸다. 이 동안에 제6 및 제7 兩 중대는 이 기회를 好機로 삼고 연락도 없이 철수함으로써 제5중대는 고립된채 孤島를 벌이게 되었다.

앞의 敵으로부터 攻撃을 받으면서도 李鍾基 대위는 右側1선의 제1대대가 철수를 완료할때 까지 同高地를 扼守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砲戰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대대장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비로소 敵과 離脫하여 白隱로에 이르러 대대의 後衛중대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 및 제2 兩대대는 敵의 迫擊을 극한 火網에 휩쓸린데다 그들의 急한 退避으로 말미암아 白隱로線서 부터 支離滅裂 상태가 되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빠져 무질서하게 뒤로 빠져 나갔다.

이 情景를 지켜본 연대장은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하여 재편성하기로 결심하고 옆에 있던 제5중대장 李鍾基 대위에게 3연대의 運命은 貴중대가 얼마나 敵을 오래 支撐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한다면 남기고 그길로 寒溪로로 돌아가 憲兵을 동원하여 落伍兵 수습에 全力을 기울였다.

한편, 敵의 迫擊을 阻止할 임무를 맡은 李鍾基 대위는 30명에 불과한 중대원리까지 全生死

를 걸고 최후의 불쌍를 지키자. 그리고 외치고 방어가 유리한 地域을 偵察하였다. 그는 敵이 道路를 따라 침공하는 態勢을 잘 알고, 이 地點을 이용키로 하고 俗稱 천간(白頭里 南쪽 2.5km)에 Cal 50 기관총을 배치하고 중대원을 잘 兩쪽 도랑에 매복시켰다.

15.00 정각에 그들의 Side Car 3대가 생체(천간 北쪽 0.5km)까지 나타나는가 하더니 10분 뒤에는 병력을 滿載한 차량이 行進을 이루고 적적히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視野에 들어온 車輛만 26대, 이윽고 先頭車輛의 聲이 들자기를 돌아 200m의 近距離로 접근하자 마자 Cal 50 기관총은 불을 쏘었다.

불의의 기습을 받고 先頭車輛이 擱留하자 車輛위의 병력들은 四方八方으로 分散하기게 이르렀다.

이를 놓칠터 없는 병사들은 一齊히 사격을 가하여 그들을 一時나마 阻止하는데 突攻하였다.

그러나, 이 戰鬪에서 중대장 李鍾基 대위는 그들의 兇彈으로 팔미암아 顔部에 貫通傷을 입게 되어 그 자리에서 陣歿하였다.

연대장 曺炳燾 대령은 16.00에 寒溪國民學校 校庭에서 병력을 수습하자 연대의 행정요원을 포함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하사관 및 병사는 원소속으로 分類하고 손실이 많은 장교는 원소속과 關係없이 階급에 의하여 직책이 부여되었는데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한 연대에서 병영생활을 한 까닭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지휘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다.

17.00에 연대는 재편성을 마쳤는데 병력손실이 심한지다. 갈고개의 地形이 疊疊重重한 丘陵을 직접 偵察한 연대장은 당초에 계획한 廣正面 방어를 수정하여 집중적인 據點방어를 力기기로 決心하였다. 즉, 右側1선의 제1대대는  $\triangle 230 - \triangle 330$ (北쪽 100m)간을, 그리고 2대대는, 左側1선을 삼고 이와 連繫하여  $\triangle 371 - \triangle 293$ 간을 據령토록 하였다.

진지로 進入한 연대는 개인호 및 交通壕를 파며 진지구축에 注力하였는데 땅을 팔 수 있는 器具는 물론 森林이 우거져 作業은 예상외로 遲延不續하였다.

그럼에도 기간중의 戰鬪에서 個人擦의 役割을 때려다게 느낀 병사들은 晝夜兼行의 강행으로 왔는지, 射界정소나 鐵條網가설, 그리고 地雷배설 등은 기대 할수도 없었다. 다만 제1포대가 연대에 附속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 5. 제3대대의 습勢

전날 23.00에 연대와 무전이 회복되어 연대장으로 부대 兩營行軍으로 寒溪里로 이동하다. 그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 李鍾山 소령은 병력 수습관계로 이날 04.00에 대대에게 離脫한 제9중대(장, 南白峯 대위)를 제외한 3개 중대를 기피하여 徒步로 先發하고, 대대 S-4 曺東俊 중위는 뒤에 처져 車輛 8대에 부장병과 보급품을 싣고 實際의 뒤를 따랐다.

대대가 모종촌(寒溪黑 東쪽 9km)에 이르렀을 때 연대에서 보낸 誘導장교의 안내로

18.30 寒溪里에 도착하여 연대의 左제1선으로 進入하여 △293—△381간을 방수하였는데 이때 대대의 손실병력은 30%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本隊를 뒤따른 車輛제대는 車輛의 빈번한 고장으로 다음날 08.00에 誘導兵도 없이 寒溪里로 進入하다가 敵 戰車의 사격으로 先頭車(補給品 積載)가 파괴되자 李東俊 중위는 全 車輛을 되돌려 將帥院(寒溪里 東쪽 12km)으로 빠져 橫溪에서 대대와 合勢하게 된다.

연대장은, 激戰 40시간만에 全 兵力을 集中 運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힘을언어 우선 점령한 진지의 확인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1대대에는 연대 S-3 傭精練 소령을, 그리고, 제2, 제3 兩대대는 同 보좌관 田東植 대위를 각각 보내어 전투태세를 재확인 하였다.

이때의 情況에 대하여 제2대대장 文正植 소령은 『여기서 부터 본격적인 태세가 이루어졌고 戰鬪다운 戰鬪를 하게 되었다.』고 술회 하였다.

6월 27일 : 北傀 제2군단장 소장 金光峽은 지난 밤에 於論巽부근으로 부터 끌어들이 제7사단의 병력과 戰車가 泉田에 도착하자 滿身瘡痍가된 제2사단의 殘存병력을 糾合하고 昭陽江 縱河작전을 破함으로써 彼我는 그 類例를 찾기 힘든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그들의 魁首들은 春川 占據가 遲遲하자 督戰으로 發惡하였는데 이것으로는 憤을 참을 수 없었던지 이른바 그들 總司令部는 民族保衛相 崔鎬健을 前線으로 보내 침공日程에 차질을 준 제2군단장을 叱責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時間마다 침공상황을 보고 하라고 狂態를 부리기도 하였다.

즉, 北傀 제2군단 참모장 소장 崔麟은 『하루에 몇 km씩 進擊할 것인가에 대한 日程까지 짜놓고 있었다. 우리 군단은 48시간 내에 春川 및 洪川을 점거한 다음 서울 東쪽으로 침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萬事가 순조로히 진행되는듯 하였는데 道路가 험한데다 國防軍의 저항이 意外로 頑強하였다. 따라서 計劃과 實踐의 一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上部에서는 시간마다 나를 불러 왜 예정시간대로 침공을 못하는가라고 督促이 이만 저만 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嘖嘖하였다는 것이다.

### 1. 사단장의 作戰指導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07.00에 城山里로 제2연대 指揮所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사단장은 제19연대와 포병의 主力을 洪川으로 轉用하여 말고개를 防수키로 決心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사단장은 春川 狀況은 전날의 戰鬪에서 敵에게 致命的인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제7연대는 昭陽江의 障礙物을 앞에 놓고 此岸에 진용을 갖추었으므로 일단은 安定된 상태에 놓였다고 본 반면에, 洪川의 제2연대는 많은 戰車를 앞세운 敵의 壓力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萬一에 洪川이 그들의 손으로 넘어 간다면 사단主力의 後方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니, 이때까지도 사단장은 이 方面의 敵2연대가 春川으로 빠져나간 첩보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단 G-3 梁伸鎬 소령은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에게 同 연대의 轉進사유를 제2연대의 상황이 긴박하며 萬一 赴援이 늦어 洪川이 包圍된다면 主力이 포위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아도 이를 立證하고 있다.

이때에 하달된 사단 作命 제32호(50.6.27)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일부병력을 신진지로 이동시켜 차기 작전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 ② 제2연대장은 현 진지에서 남하하는 敵을 계속 포착 섬멸하라.
- ③ 제7연대장은 현 진지를 강화하고 기습을 기도하는 敵을 계속 분쇄하라.
- ④ 제19연대장은 현 진지에서 부대를 철수하여 洪川부근에 제2선으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 ⑤ 제16포병대대의 이동은 후명한다.
- ⑥ 제19연대는 철수간 특히 행동비역에 유의하고 신진지에 진입하면 철저한 陣營을 실시하라.
- ⑦ 수송은 자체에서 담당하라.
- ⑧ 사단 指揮所는 洪川에 在함.』

敵情이 五里霧中한 가운데 취한 사단장의 轉用조치는 1개 分隊의 向背가 決戰을 판가름할 이 귀중한 시기에 그들의 集中된 主力 앞에서 병력을 抽出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 2. 연대의 反擊 준비

北傀 제7사단은 一部 兵力의 繞廻를 감추고 春川에서의 총공격에 步調를 맞추며 4월 12일부터 제2연대에 대한 포격을 加하면서 戰車를 先頭로 하여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그들의 陣內까지 깊숙히 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敵의 正面突破를 企圖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S字形으로 屈曲된 道路에 57mm 대전차포를 배치하는 한편 09.00에 城山으로 轉進한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로서 峯谷里에 集中포격을 가하게하여 그들의 初動을 粉碎하고 夜間에 다시 침투하려는 敵을 陣前에서 擊滅함으로써 연대는 陣營을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二次에 걸친 침공이 失敗하자 말고개일대를 포격으로 뒤집어 얹으며 하얏음인지 밤새 大口徑砲와 戰車砲를 亂射하여 이 地域은 벌거숭이 山으로 化하고 말았다.

이날의 敵砲火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이곳 酒飲峙里 陸軍 金成德(방위 소위, 예편)은 『本來 말고개의 稜線에는 몇10年씩 묵은 울창한 森木이 있는데 이날 敵의 砲擊으로 하루 사이에 赤土가 되고 말았으며 지금의 나무는 4年前에 植木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연대는 照注하는 敵彈속에서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면서도 진지보강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즈음 연대장은 反擊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再편성과정에서 초급지휘관들이 모두

바뀌어 부대과약도 안된대다 부대정비가 아직 未洽하여 주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휘관들이 앉아서 당하느니 보다 공격으로 移轉하여 38°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의가 빗발치자 그는 이를 받아들여 局部的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要領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일부병력으로 內村川을 徒涉, 복골을 기습 공격하여 敵의 예상되는 지휘소와 보급소를 격멸하여 한다.

② 제1대대(一)는 △499를 奪取하라.

③ 제2대대는 1개 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라.

④ 제3대대는 공격대대의 좌측방을 엄호하라.

⑤ 제1포대는 공격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공격제시간은 28일 05.30, LD는 內村川을 潛하는 선이다.

⑦ 작대는 기도비익에 유의하고 공격기도가 폭로될 때까지 무전기는 침묵을 기하라.』

제1대대의 兵士들은 敵彈下에서나마 충분한 休息으로 생기를 되찾은데다 反擊의 主役을 맡게되자 뿔뿔한 기쁨으로 준비를 서둘렀고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敵中突破나 다름없는 장쾌한 모험을 앞두고 分隊長급 이상을 불러 목표까지에 이르는 지형과 공격대형, 그리고 공격간 준수할 사항등을 설명한 다음 『대대는 영예의 선봉대대가 되었다. 名譽를 걸고 敵을 무찌르자.』고 다짐하고 LD 展露點의 整찰을 위하여 1개소대를 內村川으로 先發시켰다.

그런데 대대가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을대인 22.00에 제19연대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가 △330로 進入하여 대대와 混合되기에 이르렀다.

6월 28일 : 北傀 제2군단(장, 소장 金光陝)은 14km를 침공하는데 3日間이나 소비하고 많은 出血을 消耗하면서 春川을 手中에 넣었으나 洪川 東北쪽의 戰線은 釘着되쳐 進退維谷에 빠져 허덕이자 그들의 魁首들은 叱咤와 督戰으로 몰아친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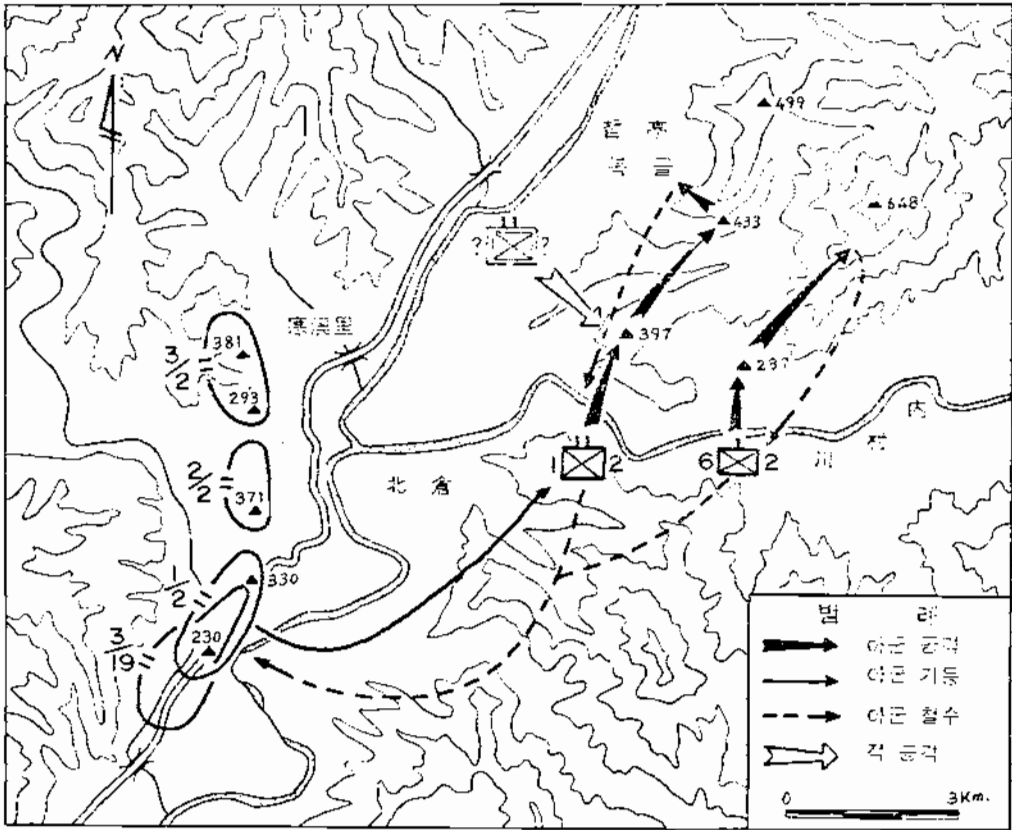
즉, 이날 아침 該地區의 敵은 제2연대의 破摧공격으로 말미암아 震盪되어 맞고 熱病을 앓은 患者와 같은 樣態에서도 戰車群을 앞세우고 中央突破를 劃策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當初, 春川의 戰況이 일단 好轉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9연대를 洪川으로 轉用하였던 것인데 전날 春川이 失陷되고, 陸軍本部の 作戰方針이 戰線 整齊를 위하여 부득이 現線에서 물러서야 할 새로운 局面에 접어 들므로써 더욱 더 洪川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全力으로 이에 對處하면서 後退이동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게 되었다.

### 1. 제1대대의 奇襲

중장년 대1대대(장, 金柱亨 소령)는 05.30에 있을 反擊을 앞두고 새벽 03.00 연대장 咸炳龍 대령과 참모들의 뜨거운 진송을 받으면서 △330를 勇躍 出擊하여 先發한 수색대의

◇ 상황도 제 8 호 제 2 연대 제 1 대대의 奇襲 상황(6. 28)



誘導로 內村川을 단숨에 徒步하여 展開하였다. 이때의 공격 機動計劃을 보면 中間 目標인  $\triangle 397$ 의 敵을 一蹴하고 계속 躍出하여 最終目標인  $\triangle 499$ 를 탈취한 다음 別命을 대기케 하였고, 벱속된 제 6 중대(장, 崔熙大 대위)는 主力이 공격각 右側方으로 부터의 威脅을 배제하기 위하여  $\triangle 287$ 를 거쳐  $\triangle 648$ 를 탈취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05. 30에 尺寸을 분간 할 수 없는 자욱한 濃霧를 해치고 공격개시선을 踏出하였다. 아무리 심한 안개라고는 하나 敵의 中央을 突貫해야 했기 때문에 절저한 無聲함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進出速度는 牛步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 潛進 행동은 奏效하여  $\triangle 397$ 에 前哨로 나와 있던 20명의 敵에게 接近하여 一擧에 처부실 수 있었고 08. 45에는 俗稱 북골을 완전히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1개 중대를 稜線에 배치하여 掩護토록 하고 2개 중대를 풀어 兩쪽에서 一齊히 함성을 지르며 북골로 突入케 하였다.

여기저 않았던 奇襲에 震를 절련 무리들은 아직 잠에서 깬어나지 않은듯 눈을 비비며

右往左往 하다가 대부분의 敵은 銃劍의 祭物이 되니 그 數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戰鬪에서 口徑未詳의 砲 2門, HMG 5정, 小銃 37정, 기타 車輛 5대분의 補給品(主로, 被服과 彈藥)을 노획하여 이를 현지에서 파괴하였다.

한편, 제6중대도 이 시각에 소수의 敵을 擊退하고 目標 △648로 躍出中 그들에게 發覺되어 對峙한채 사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때 混亂상태에 빠졌던 그들은 戰意를 되찾았는지 복골에 集中포화를 퍼부으면서, 대대의 進出路를 차단할 기세로 △397에 狂波를 이루어 侵攻하고 또한 一群은 △499에서 복골을 壓倒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敵의 頑強한 反擊에 부딪쳐 隊伍를 수습하여 공격을 再開할 여유는 물론 逆包圍될 것을 우려하고 연대장의 승인밑에 철수를 명령하여 이때부터 연대의 適時的인 火力支援과 엄호를 받으면서 말고개로 돌아갔는데 이번 奇襲의 成功으로 위축되었던 병사들의 士氣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후일 면담에서 『그때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奇襲한 곳은 그들의 指揮部가 아닌가 한다. 어떻게 參戰者들은 이 戰鬪에서 200명 이상의 敵을 殺傷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 2. 敵 戰車群의 殲滅戰(제2및 제19연대)

敵은 막심한 손실을 입고 春川을 占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洪川으로의 침공이 遲滯되고 있을 뿐 아니라 頓挫된 상태에서 허우적 거리자 그들의 魁首들은 드디어 협戰에 나선듯 하였으니 이날 아침에 제2연대에 의하여 큰 損失을 보았음에도 다시 09.10부터 그 露牙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포격은 말고개일대를 마치 兪단폭격이나 하듯이 北麓으로 부터 山頂으로 몇차례에 걸쳐 주름잡더니 불쑥 寒溪里쪽에서 Side Car 3대가 나타나 500m쯤 南下하다가 돌아갔다.

이들은 道路邊에 배치하였을지도 모를 我軍의 火力配置를 수색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상 그들의 盲砲聲에 머리를 돌 수가 없어 이를 놓쳤던 것이다.

잠시 뒤에 敵의 戰車群은 서서히 兩연대의 視野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敵은 이 地方出身의 共匪였던 尹某의 세밀한 提報에 따라 말고개에 대한 地形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谷地에 步兵의 投入을 배제하고 1개소대 규모의 小數병력만 戰車後尾에 後續시켰을뿐 戰車의 強力한 衝擊力과 SU-76 自走砲의 직접적인 火力엄호로 말고개를 突破하려고 하였다.

이날 따라 일찌기 (09.20) 안개가 걸려 그들의 行動을 觀望하기에 용이하였는데 △371에서 敵戰車를 目撃한 제2연대장 咸炳善 대령은 즉각 57mm 대전차포를 同高地 東南쪽

500m의 S字形屈曲지점에 放列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敵戰車의 速度를 遲滯시키고 그들의 歩兵과 分離시키기 위하여 연대의 全 火力을 집중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57mm 대전차포중대(장, 李勳 중위)는 명령없이 세갈(城山)로 東北쪽 1.5 km)로 철수한 뒤였으므로 激憤한 연대장은 옆에 있던 連병대장 崔永燾 대위에게 『빨리가서 중대를 돌아오게 하라.』고 嚴命하였다. 이때의 勝敗는 敵의 戰車가 먼저 말고개를 침공하느냐, 아니면 57mm 대전차포가 先制의 위치에 서느냐에 달려 있었다.

한발 앞서 李勳 중위가 제2소대(장, 金思賢 소위)를 이끌고 당도하자 이를 본 연대장은 『너는 軍法에 돌려야 마땅하나 위급한 상황이니 戰功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싸우겠느냐?』하고 叱責하니 李 중위는 『敵 戰車를 격파하고 醜敵들의 首級을 擄物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달려나갔다.

연대장은 비장한 그의 覺悟를 首肯하고 直接 現場에서 『제1번포는 S屈曲점에서 80m 앞에, 그리고 제2번포는 同 屈曲점 80m 뒤에 포위치를 각각 선정하고 敵을 최단거리로 끌어들이어 그 軌道를 擊破하라.』고 파피요령까지 세심 가르쳐 주었다.

한편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의 肉彈 11勇士(뒤에 제19연대 戰鬪經過에서 詳述)는 S屈曲지점을 頂點으로 하여 寒溪를쪽으로 2명이 1개組가 되어 10~20m의 거리를 두고 道路 兩쪽에 屍體를 假裝하고 누어 있었는데, 高腔에서는 병사들이 敵의 戰車가 나오니



〈肉彈 11勇士：前列 右端이 趙達珍 일병〉

빨리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이러는 사이에 兩연대의 사격으로 모병과 分離된 敵의 戰車는 砲와 機關銃을 말고개를 向하여 亂射하면서 달려들었는데 일부의 戰車는 이미 肉迫特攻隊員이 潛伏하고 있는 맨 앞을 통과하여 기어 올라 오기 시작하였다.

肉迫特攻隊의 趙達珍 일병은 살머시 머리를 들어 앞을 응시하니 先頭戰車가 는 안에 들어왔다. 이때 57mm 대전차포의 제1번포가 불을 관하였지만 빛나가 버리자, 그들은 戰車砲를 휘갈겨 제1번포는 날아가고, 砲手는 탈주하는데 성공하였다.

敵의 戰車는 肉迫特攻隊員들이 자기네 바로 발밑 道路兩쪽에 있는 줄도 모르고 妨害物인 對戰車砲가 제거되었다는 우월감에서 砲塔을 일어제치고 氣高萬丈하게 處勢를 부리며 先頭戰車가 趙達珍 일병의 앞을 通過하여 S屈曲지점을 돌려고 徐行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무렵 同 지점에서 80m의 거리를 두고 照準鏡으로 透視하고 있던 제2번 砲射手 金學斗 하사(同 하사는 본래 제2소대 선임하사였으나 이번 대전차공격에 사수로 나섬)는 순간에 제1탄(鐵甲彈)을 戰車 軌道에, 제2탄(鐵甲彈)을 正面에, 그리고 제3탄(爆發彈)을 각각 連續 사격으로 명중시켜 先頭戰車는 움질하고 機動이 停止 되었을 때 趙達珍 일병이 先頭戰車에 오르자마자 수류탄 2발을 砲塔으로 집어 넣고 버랑으로 굴렀다.

趙일병은 잠간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광광하는 爆發聲에 깨어 보니 자신은 버랑에 있는 소나무에 걸려 있고 先頭戰車는 爆發하여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先頭戰車가 爆破하여 2번 戰車가 비껴나갈 수 없는 隘路를 가로막자 後續하던 戰車들은 미친듯이 날 뛰며 이를 밀어 부치고 突破하려 發惡하였으나 제2번포의 阻止사격과 肉迫特攻隊員들의 수류탄 집어넣기 공격으로 停止된 상태에서 斷火砲의 몸부림을 쳐 戰場은 삼시간에 阿修羅場이 되었다.

進退兩難케 빠진 敵의 一部 살아남은 戰車兵들은 砲塔을 열고 戰車밖으로 뛰어나와 도주하려 하였으나 高地위에서 兩 연대가 남김없이 射殺함으로써 戰車 및 SU-76 自走砲 10대를 노획 및 파괴하고 40명 이상을 사살하는 큰 戰果를 올린 반면에 兩 연대는 57mm 대전차포 1문이 파괴되고 경상자 1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兩 연대는 비록 계획적인 協同戰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같은 時刻에 같은 場所에서 이루어 놓은 肉迫勇士와 57mm 대전차포중대의 勝戰聲은 燎原의 불길처럼 全軍 장병에게 전파되었으며 『우리는 맨손으로도 敵의 戰車를 古鐵化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敎訓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沈滯하였던 士氣에 活力素를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다.

이 戰車과포에 有功한 제2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 金學斗 하사는 1계급특진된 영예를 차지하였고, 한편 제19연대 肉迫特攻隊員 趙達珍 일병의 2명은 2계급씩, 그리고 元根澄 일병 외 7명은 각각 1계급씩 특진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記錄이 남아 있지 않아 이름을 일일이 밝혀지지 못하였다.

특히, 제19연대 肉迫特攻隊員 趙達珍 일병은 韓國戰爭발발이후 처음으로 美銅星勳章이 수여되어 國軍의 희생정신과 戰技를 誇示하였던 것이다.

北隴內에서도 이곳의 敗戰으로 심각한 反應을 일으켰는데 당시 北隴제105戰車사단(7월 5일 사단승격)정처군관 吳基完 대위는 『洪川 戰鬪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되고 그 方面의 戰車主力이 國軍에 의하여 潰滅되었다』는 말이 군관들 사이에 돌았다고 면담에서 밝혔다.

### 3. 말고개의 攻防戰(제2 및 제19연대)

敵은 일시에 戰車 10대가 파괴되어 正副突破가 挫折되기에 이르자 간간히 懸박된 砲擊을 하여 颯風—逼格이 되었는데 28일 22.30에 다시 각종 砲火를 말고개에 집중 砲打하면서 부터 戰線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제2연대장 咸福善 대령은 敵이 夜間침공의 징후를 나타내자 각급 지휘관에게 戰鬪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잠시 假眠하고 있었는데 그의 戰場에서 얻은 體驗은 現實로 나타났다.

즉, 左제1선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가 방수하고 있는 △381에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西北쪽에서 迂回침투하고 있었고 또한 一帯는 中央의 제2대대(장, 文正植 소령)의 左側 △293를 침공하여 △371를 위협하였다.

한편, 數대의 戰車는 暗夜를 틈타 寒溪里 南쪽 700m까지 最近距離로 接近하여 말고개에 집중사격을 砲打했는데 文正植 소령의 연락병 宋仁燮 상병은 그들의 戰車가 굴러오는 소리라고 보고 하였더니 그는 이 高地 밑에 있는 물방아(이 地域에는 물방아가 많음)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戰車砲彈이 速射砲와 같이 날아 들었다.

제2대대는 침투한 敵과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角逐戰을 展開하였는데 그들의 火力과 兵力을 더 이상 막을길 없어 △371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文正植 소령은 △371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全面방어 태세를 갖춘 뒤 연대장에게 「전황이 위급하며 특히 탄약의 부족으로 결전방어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마치는 순간에 왼팔에 贯通傷을 입고 손에 잡았던 受話機를 떨어뜨렸다.

연대장은 곧 朴魯圭 중령을 同 대대로 急行시켜 지휘를 맡도록 하는 한편 文正植 소령을 후송하였다.

연대장은 朴魯圭 중령이 비대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右제1선 제1대대(장, 金柱亨 소령)와 協同하여 敵에게 反擊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左제1선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는 당면한 敵을 固着시켜 놓고 그들로 하여금 寸步도 움직일 수 없게 阻止하고 있었다.

연대장의 反擊명령에 따라 제1 및 제3 兩포대는 一齊히 △371東麓의 무명高地에 붙어있는 그들의 頭上을 強打하는 한편 兩대대는 突貫으로 移行하였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인데다 溪谷에 불린 그들은 集中砲擊과 兩대대의 猛射에 걸려 左衝右突하는 悲鳴이 골짜기를 메웠는데, 드디어 勢窮力盡하여 潰退하고 24.00에 戰場은 다시 조용을 되찾고 연대는 主抵抗線을 회복하였다.

醜敵들은 이날 하루동안에 연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두들겨 맞고 쉼이 없고 혼비백산하였는데 특히 말고개 일원은 물론 쫓기는 그들의 피비린내가 코를 절렀다.

6월 29일 : 敵은 08.00를 期하여 春川 및 洪川에서 分進合擊의 總공세를 發했는데 그들은 共產黨의 本性을 내 놓았으니 白旗를 들고 投降을 假裝하는가 하면 M1 小銃을 쏘면서 『우리는 ○중대다.』등 友軍인양 잔적을 부리기도 하였다.

사단은 本戰鬪에서 最後의 堡壘이자 要域인 洪川을 斷乎히 지켜 兵力 및 裝備의 安全撤收을 위하여 注力하는 한편 말고개와, 原窟고개에서 그들에게 最後의 一擊을 加하고 主力은 洪川 以南으로 撤收하여 다시 遲延戰으로 出血을 增大시켰다.

### 1. 연대의 撤收

敵은 春川 外廓線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08.00에 침공을 시작하여 洪川街道로 突破戰을 企圖하면서 전달과 같은 양상으로 衝擊을 가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右翼의 春川부근 戰鬪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洪川도 쉽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는지 中央突破를 반복하였다.

敵은 兩연대의 補給路를 차단하려는 뜻이 挾擊을 피하고 一群은 東쪽의 △451로, 그리고 다른 一群은 西쪽의 俗稱 양지밭로 迂回 南下하면서 말고개 앞에는 소수의 병력과 戰車로 兩연대를 固着 牽制하려 하였다.

연대장 威炳善 대령은 그들의 計策을 看破하고 도리어 敵과는 反對로 그들의 脆弱한 中央 寒溪溪로 突貫 楔入하여 指揮部를 麻痺시킴과 同時에 敵을 東西로 兩斷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戰機가 되고 바로 이것이 活路를 찾는 길이라고 다짐하기에 이르자 각 대대장에게 反擊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이 지시로 연대의 全 장병은 물끓듯이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는데 後日 威대령은 『얼어 만 맞다가 反擊한다는데 큰 충격을 준 것 같으며 軍人이란 防禦보다 攻擊이 士氣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이 동안에도 正面의 敵은 優勢한 火力을 밀고 桴戰으로 몰아 세웠으나 激戰 4시간만에 擊退하는데 奏効하였다.

그러나 西쪽의 溪谷으로 侵透하고 있는 數를 알 수 없는 敵의 動態는 울창한 森林과 谷地로 말미암아 何時 何處에서 威脅할지 不安이 쌓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연대장은 惡戰苦鬪하는 가운데에서도 反擊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14.00에 사단장 金鐘五 대령이 來訪하여 洪川으로 撤收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장은 즉각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現線에서 16.00부터 敵으로부터 離脱하여 城山國民學校에 集結한 다음 21.00 洪川을 철수하려 한다.

② 철수順位는 제3대대, 제1대대, 포병대대(一), 제2대대로 한다.

③ 제3대대는 철수하면서 1개 중대를 △494에 배치하여 측방을 경계토록 하고 塹에 의하여 철수시키라.



④ 각 梯隊는 기도비익에 유의할 것이며 천수 1시간前에 예하 장교에게 알리라.」

연대의 晝間철수는 兩 포대가 一齊히 砲門을 열고 擾亂 및 阻止사격으로 부디 시작하였다.

左隊1선 제3대대(장, 李雲山 소령)는 西쪽의 溪谷으로 침투하는 敵보다 한발앞서 俗稱 큰바골의 골자기를 따라 城山으로 빠지면서 제11중대(장, 蔡沫龍 대위)로 하여금 敵의 稜線 및 溪谷接近을 阻止하기 위하여 △494로 급파하였다. 同 대대의 뒤를 이어 右隊1선 제1대대(장, 金柱亨 소령)가 撤收하고 中央의 제2대대(장, 朴魯圭 중령)는 1개소대를 △371에 최후의 堡壘로 남겨 追尾하는 그들에게 一擊을 加하도록 殘留시키고 主力이 撤收하였다.

제1 및 제2 兩대대장은 同소대와 같이 행동하기로 하고, 해가 西山에 질 무렵까지 있으면서 敵의 動態를 살피다가 頑強한 敵의 侵攻으로 兩대대장은 소대와 함께 同高地를 떠났다. 이리하여 21.00에 兩 대대장이 새말부근에서 대대의 後尾에 이르렀을때 이곳에 와 있던 연대장으로부터 「제1대대는 말고개로 反轉하여 △371를 再奪取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즉, 그의 의도는 敵이 천수하는 연대를 急追擊하여 급습한 것을 우려하고 연대 主力이 安否하게 洪川으로 빠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천수중에 있던 대대를 다시 돌리 △230에서 展開를 마치자 1개소대 규모가 점거하고 있는 △330를 一擊에 유린한 다음 餘勢를 몰아 말고개의 最高峰인 △371로 肉迫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연대가 철수한 뒤를 따라 放心한 채 南侵하다가 대대의 기습을 받고 △371의 敵과 함께 四散함으로써 24.00에 무난히 同高地를 奪取하였다.

敵은 여의 없이 中央에 구멍이 뚫리자 砲擊으로 突破口의 擴張을 막으며 狂奔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續出하였으며 부대대장 金秉鎭 소령이 破片傷을 입었다.

1시간에 걸친 그들의 포격이 끝난듯 하더니 1개대대 규모가 △371의 北쪽 무명고지로부터 기어올라와 이룬 맞이한 대대는 얼키고 설키 가운데 찌르고 질리우는 白兵戰으로 변했다.

그들의 一波가 潰滅되자 二波부터는 잔피를 弄給하였으니 「우리다. 우리야!」하고 소리 치는가 하면 M1 소총을 사격하는 등으로 我軍을 가장함으로써 한때는 我軍간의 交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격을 一時 中斷한 사실까지 있어 대백의 손실을 더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彼我 混戰때에는 말의 사투리(敵은 中國 및 北韓出身으로 역양이 강하였고 대대는 대부분이 忠淸道出身이었음)와 頭髮(北傀병사는 削髮이었고 대대의 병사는 長髮)을 만져 彼我를 판가름하여야 했기 때문에 서로 戰鬪帽을 벗기는 寸劇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30일 未明에 시작한 그들의 強襲은 이 戰鬪를 통하여 가장 強烈하였는데 이때 연대장으

로 부터 「연대主力이 洪川을 철수하였으니 대대는 즉각 城山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서를 연락장교로 부터 받고 同日 05.00에 城山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敵도 이번에는 대대의 철수를 默通하지 않으려는 뜻이 至近距離로 따라붙어 亂撃함으로써 철수대열은 분산상태에서 무질서하게 城山으로 달렸다.

대대장 金柱亨 소령은 이 光景을 目撃하고 後尾로 돌아가 疲勞에 지친 落伍者를 督勵하며 06.00에 集結地인 城山國民學校에 이르렀는데 이때 날아온 敵彈은 그의 左腿 大腿部를 貫通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연락병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대대의 철수를 지휘한 다음 마지막 Truck에 몸을 싣고 연대主力에 후속하여 橫城으로 철수하였다.

## 2. 分散 脫出(제3대대 제11중대)

同중대(장, 蔡洙龍 대위)는 16.00에 본대로 부터 떨어져 △494로 躍出하여 左側方에서 威脅하는 敵을 阻止하라는 임무를 띠고 △278로 부터 △445를 거쳐 稜線을 넘어 △430에 이르렀다.

蔡대위는 이로부터 그들과의 衝突을 예상하고 散開隊形으로 同高地의 東端쪽 8부 稜線으로 躍進하였는데 여기에서 頂上을 先占하고 있던 2개소대 규모의 敵으로 부터 집중사격과 手榴彈投擲에 對하여 두번에 걸친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모두 失敗하고 말았다.

蔡洙龍 대위는 敵을 끌어내어 擊破하기로 決心하고 일단 △430로 물러나서 全面 방수태세를 갖추었다.

다음날인 30일 아침 東天에 해가 솟아 오르면서 맑고개 부근에서의 격심하던 銃擊이 북풀치고 洪川쪽에서 간간히 砲擊이 울려 퍼지면서 부터 그는 不安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는 09.00에 斥候組를 城山으로 1.5km의 △339로 潛行시켜 敵營을 정탐시켰더니 道路에는 그들의 車輛行列이 줄을 이어 洪川으로 南下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는 중대가 敵中에 고립되었음을 직감하고 이 混中을 풀고 脫出키로 하였는데 집단행동으로 混中을 풀기 하느니 보다 夜間에 소대별로 突출하는 것이 병력의 손실을 최소로 줄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밤 본대장 이상을 모아놓고 중대가 敵中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 「그동안 많은 戰鬪를 겪으면서 나와 함께 잘 싸웠다. 이제 우리는 敵中을 탈출하여 原州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強調하고 1개 소대를 이끌고 선두역 나섰다.

城山으로 앞을 흐르는 華陽江은 다행히도 물이 얇아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병력은 原州에서 本隊와 會勢하였는데 일부의 병력은 20일 뒤에 新寧부근에서 本隊에 會勢하였다.

## (나) 春川地區 戰鬪(제7연대)

6월 25일 : 04.00 부터 仁嶺里 및 近岾里일원에 퍼붓는 敵의 集中砲火는 그 例를 볼 수 없었던 극렬한 포격이었다,

敵은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射鬪을 연설하는 듯 하더니 蟻集한 大群이 가랑비와 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속을 뚫고 敵田里—淸平—古香里—仁嶺里—近岾里의 各道路를 따라 怒濤와 같이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 1. 연대장의 措置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敵의 徵候 및 行動으로 보아 그들의 攻勢를 阻截하였으나, 그 侵攻方向을 찾지 못하다가 砲擊이 仁嶺里로 集中하기에 이르자 敵의 主力은 5번道路로 指向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05.00에 다음과 같은 要領의 명령을 下達하였다.

- ① ① 연대는 현 진지에서 敵의 침공을 저지 격퇴하려 한다.
- ② 제2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여 敵을 진전에서 격퇴하라.
- ③ 제3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고 명에 의하여 仁嶺里의 敵 側方을 강타할 준비를 갖추라.
- ④ 제1대대는 현 접결지로 부대 出動하여 △164를 점령하고 전투대위를 갖추라.
- ⑤ 제16포병대대는 제2 및 제3 兩대대를 직접 지원하고 명에 의하여 제1대대를 火力 지원하라.

이에 앞서 사단장에게 敵情을 보고하였는데 각대에 作命을 下達하자마자 각 대대와의 有無線이 두절되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 昭陽江 넘어 牛頭山으로 觀測所를 추진하였다.

## 2. 제2대대의 상황

3개 대대로 추산되는 敵이 敵田里(春川 東北쪽 19km) 및 芙蓉山(敵田里 西쪽 8km)의 左側 계곡으로, 그리고 鉢山里의 小路를 따라 침투함으로써 각 중, 소대는 거점에 고립된 채 苦鬪하고 있었다.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戰況이 심상치 않음을 直感하였으나 각 중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상황을 알수가 없어 S-3 崔益洙 중위를 태동하고 芙蓉山으로 직행하여 500m에 이르러서 부대 同高地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개1선중대의 격정을 살피기 위하여 후를 돌려 西쪽의 鉢山里로 갔는데 08.00에 泉田에 이르렀을때 제6중대장 鄭永三 대위가 대대장 앞으로 급파한 연락병을 단과 비로소 敵의 大舉 침입으로 촉박 될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였다. 그러나 그로서는 束手無策이었으며 다만 연락병으로 하여금 퇴대한 적을 저지 격퇴하라고 指示하고 牛頭山으로 돌아가 事實時態를 熟考하였다.

이즈음 제16포병대대 제1포대(장, 金長燮 중위)는 泉田里 支隊앞에 포를 敷設하고 鉢山里—水利峯에 대하여 阻止사격을 하고 있었다.

대대장의 지휘가 미치지 않은 가운데 각 중대는 무질서하게 철수를 거듭하여 11.00에는 牛頭山麓에 집결하였다가 대대장의 지휘아래 昭陽江西岸의 가마골—양재일간의 主陣地에 배치하여 河川線 방어에 임하였다.

이번 철수전에서 長在洞 西北의 △503를 固守하고 있던 제7중대 제1소대(장, 金應來 소위)는 唯一한 concrete진지에서 血戰을 거듭하면서도 一步도 讓步치 않고 敵을 擊破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迂回하여 同高地에 대한 정면공격을 피하였다.

그뒤 소대장 金應來 소위는 殷殷히 들려오는 砲聲으로써 소대가 敵中에 고립되었음을 직감하고 이를 突破하여 內坪里를 거쳐 14.00에 枝內里에서 대대와 合勢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대대가 當面한 敵은 都合 1개연대로 추산되었으며 北岸의 泉田里일대에 집결하고 渡河를 서두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릴 무렵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제5중대장 金相興 대위에게 『逆渡河하여 敵을 破摧하라.』고 명령하였는데 金대위는 평소 이 地域에서 渡河作戰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金相興 대위는 중대에서 병사 30명을 선발하여 1시간에 걸친 實戰교육을 마치고 3대로 나누어 敵陣으로 挺身突入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渡河준비에 狂奔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수류탄과 小銃의 火力을 퍼부어 놓고 同 대위의 綠色 信號彈에 의하여 全員 무사히 돌아 갔다.

대대장은 그때를 회상하여 『金대위는 무슨 일에도 굽히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불행히도 夜間이기 때문에 戰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鳳儀山에서 이를 지켜 본 나는 銃擊과 함성, 그리고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놈들은 中國平原에서 많은 戰歷을 가졌다고 하나 아마 이런 맛은 처음 겪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제8대대의 상황

04.00부터 시작한 敵의 砲擊은 소낙비와 더불어 뒤범벅이 되어 쏟아져 이로 말미암아 5番道路(華川—春川間)의 要域을 扼守하고 있던 제9중대장 李來興 대위는 攀索에서 1개분대와 같이 일시에 散華하는가 하면 각 有蓋據는 뚜껑이 날아가고 交通據는 메워진데다 빛물로 가득차 有無線통신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05.00가 되자 1개연대 규모의 敵은 SU-76 自走砲를 앞세우고 仁嵐里와 古呑里로 殺到하였다.

간헐을 지체할 수 없었던 중대부관 金植圭 중위는 즉각 지휘에 나서 병력을 수습한 다음 醜敵의 접근을 기다렸다.

이러기를 30분, 마침내 敵은 北傀旗를 앞세우고 橫隊의 波狀을 이루고 올라오고 있음을 目擊하였다.

金중위의 사격명령이 떨어지자마자 最後阻止사격에 걸린 敵들은 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은 砲兵射擊의 威力을 받고 올라온듯 한데 중대의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를 내고 敗走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敵은 자신의 병사까지 희생시키면서 공격하는 그들 특유의 근접포지원을 亂舞하면서 돌아 부렸다. 이때 차폐물 하나없이 露出된 중대는 이 포격으로 半이상의 병력손실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敵의 大兵力은 이미 5번 道路를 따라 龍山里로 내려가고 있다는 觀測보고를 받은 중대장(대리) 金楨主 중위는 退路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부상병들을 먼저 보낸 그는 최후의 한발까지 그들의 頭上을 강타하고 09.00에 敵과 離脫하여 水利峰을 넘어 鉢山里로 내려가다가 저 2대대 제6중대의 後尾소대와 만나 昭陽江南岸의 俗稱 양재일에서 隣接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한편 대대의 左제1선이었던 제10중대(장, 河相道 대위)는 仁嵐里로 부터 赤木里에 이르는 20km의 戰鬪正面을 擔當하면서도 華川에서 加平에 이르는 關門인 교서락교개(母津橋 西北쪽 5km)에는 同중대에서 제1소대(장, 李漢鍾 소위)만을 올려놓고 主力은 19km 뒤인 加平에 위치하고 있었다.

05.00에 1개대대 규모로 추산되는 敵이 攻擊하여오자 이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主陣地로 敵을 誘引하여 격파하라. 나는 主力을 이끌고 沐洞里로 가서 合勢하겠다.』고 한마디를 끝으로 통신은 두절되고 말았다.

主陣地는 同 교개로부터 5km 南쪽의 紅磧嶺 北麓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개소대가 방수할 수 있는 concrete전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소대장 李漢鍾 소위는 同 전지로 전 대원을 수용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위장에 여념이 없었는데 09.00에 前方으로 추진하였던 潛伏組로 부터 『敵이 行軍隊形으로 남침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李漢鍾 소위가 바라본 敵은 과연 長蛇를 이룬 密集행군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深山 隘路의 利點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던 同 소위는 그들이 100m 앞에 도달하였을 때 사격을 명령하였다.

비록 小火器사격에 불과하였으나 피할수 없는 狹谷으로 말미암아 맹습에 부닥친 敵은 左衝右突하면서 아우성을 치다가 累累하게 屍體를 남긴채 退散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개소대 규모로써 소대 앞에 견제시키고 主力은 兩分하여 소대의 左右側 능선을 타고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른 李漢鍾 소위는 그들의 奸計를 알아차리고 중대 主力과 合勢하기 위하여 14.00에 敵으로부터 離脫하여 16.00에 △339(沐洞里 西北쪽 4km)에 이르러 중대와 合勢하였다.

한편 窟川에 있던 제11중대(장, 印聖勳 중위)는 19.00에 車輛으로 이곳에 도착하여 俗稱 뽕내 앞에 전지를 점령함으로써 대대의 右제1선이 되었는데 이때 兩중대의 지휘는 선

임자인 제10중대장 河相道 대위가 맡았다.

이무렵 대대장 印聖瑢 소령은 6월 25일부터 步兵學校에 被教育次 출발한 뒤여서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S-3 李南浩 소령으로 하여금 짐직토록 하였으나 春川부근 戰鬪가 위급할 뿐 아니라 S-3를 대항할 장교가 없어 사실상의 대대 지휘는 河相道 대위에게 一任하였던 것이다. 또한, 同 대대 제12중대는 春川正面에 대한 火力支援때문에 春川에 있었고 제9중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昭陽江 南岸으로 撤收중이었으므로 이곳에는 제10 및 제11 兩 중대 뿐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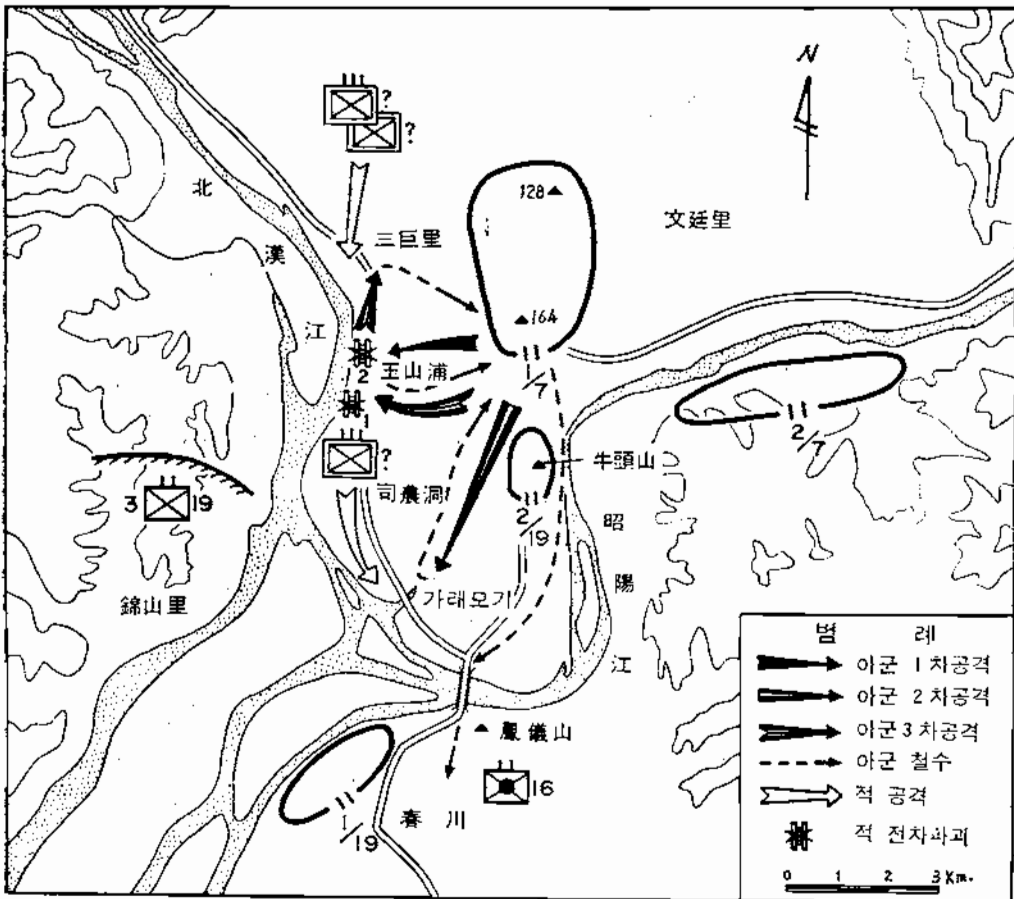
이같이 兵力이 分離된데다 지휘체계마저 混線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대대의 戰鬪力은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었다.

#### 4. 제1대대의 상황

보슬비가 내리는 새벽 05.00, 비상나팔이 練兵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戰況이 들변해지자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영의

◇ 상황도 제9호 昭陽江 北岸의 攻防戰 (6.25~26)



겨주 장병을 소집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연대장으로 부터 出動命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장교 및 하사관은 집합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外泊중이었으므로 연대의 街頭방송으로 일부의 병사들은 出動시간에 맞추어 돌아갔고 나머지는 昭陽江 北岸의 戰場으로 직접 달려갔다.

대대장은 말하기를 『敵은 우리 연대를 正規軍으로 공격하는 듯 하다.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고 활막하게 強調하고 즉시 昭陽江을 건너 07.00에는 △128로부터 △164에 이르는 線에 縱深으로 방수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仁嵐岬 및 富昌岬쪽으로 敵의 絞透가 예측되는 路목을 重點扼守케 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同 대대에 火力를 증강하기 위하여 제3대대 제12중대를 松觀黑(玉山浦 南쪽 1km)로 추진시키고 부연대장 崔泳洙 중령으로 하여금 火力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때에 敵은 SU-76 自走砲를 앞세우고 5번道路를 따라 침공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57mm 대전차포 중대장 宋廣保 대위는 제2소대(장, 沈 鑑 소위)를 俗稱 보대이버무 渡船場(池內里 南쪽 1.5km)로 급파하여 絶壁과 S字形 屈曲地點을 이용하여 砲를 放列하자마자 2彈을 발사하여 모두 敵 戰車에 命中하였는데도 끄덕도 하지않고 계속 밀고 내려오므로써 부득이 砲를 거두어 玉山浦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때부터 대전차포의 기습공격을 意識하였음인지 尖兵을 앞세우고 區間약진으로 침공하여 10.00에는 그 先頭가 玉山浦에 도달하였다.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그들의 企圖를 알아 차리고 1개소대를 차출하여 이들과 접촉시키면서 司農洞 쪽으로 誘引하여 그들 主力의 中腹部가 露出되기를 기다렸다.

이즈음 제16포병대대 제2포대장 李今烈 중위는 出動준비가 완료된 제3포대에서 2문을 이끌고 司農洞으로부터 敵前 500m에 추진방열하고 사격명령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윽고 12.00에 敵의 主力이 玉山浦를 통과하고 그 腹部가 넓은 보리밭에 드러 내 놓았을 때 대대장으로부터 『사격개시!』 口令一下에 歩砲協同으로 一齊사격을 加하면서 躍進하였다.

無風地帶를 가듯이 意氣揚揚하게 南下하던 敵은 불의에 강습한 대대의 突擊에 걸려들어 右往左往하다가 많은 遺棄屍體를 남겨 놓은 채 望風散走의 기색을 엿보이자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대대장은 陣頭에 나서 계속 突進을 號令하여 순간에 池內堤線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牛頭山에서 戰鬪의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대대가 砲支援거리 밖으로 벗어날 우려와 대대의 側方이 露出될 것을 염려하고 主陣地로 복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대대는 13.00에 主陣地로 돌아와서 다시 방수를 굳혔다.

沈鑑 小隊의 肉迫攻撃隊: 敵은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고 침공이 頓挫되자 이번에는 SU

-76 白走砲(T-70 型 戰車의 變型) 10輛을 몰아 14.00에 다시 玉山浦로 밀어 닦쳤다.

병사들은 戰車의 威勢에 놀라 戰戰兢兢하고 연대장과 참모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귀추를 注視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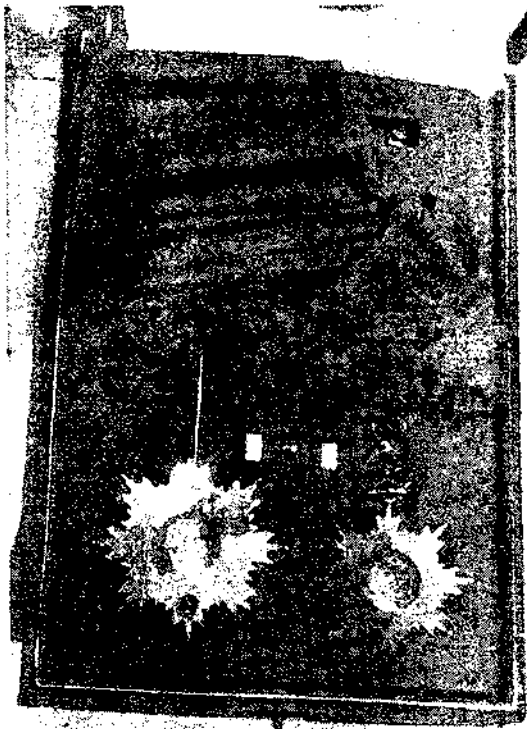
이때 玉山浦로 철수한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沈 鎰 소위는 砲를 放列하고 한숨을 돌리려는 刹那에 『戰車가 나온다. 戰車가 나온다.』는 병사들의 고탈소리에 놀라 前方을 응시하였던바 과연 2대의 戰車가 먼저 눈에 띄었다.

2번車와 3번車의 사이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同 소위는 즉시 포위처로 돌아가 사격준비를 명령하고 사거리를 측정하였다.

200m, 150m, 100m 드디어 사격개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불꽃이 튀면서 1번車에 2발이 命中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움찔하고는 다시 踏破하기 시작하면서 砲火를 휘두르는 것이었다. 이를 악물고 이를 지켜본 沈 鎰 소위는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리 준비하였던 휘발유瓶과 수류탄을 움켜쥐고 決死를 自願한 대원 5명을 이끌고 兇惡한 敵 戰車를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戰車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내가 뒤따르는 2번車를 습격하고 다음에 1번車를 박살낼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掩護하라.』고 지시하고 水路를 따라 一步一步 接近하여갔다.



<沈 鎰 소위에게 수여된 太極武功勳章>

1번車와 2번車의 車間거리가 20m, 同 소위는 1번車가 앞을 통과하자마자 2번車의 砲塔 위로 올라가 수류탄과 휘발유병을 집어넣고 이어서 1번車로 달려가 같은 方法으로 습격하니 2대의 戰車는 순간에 火염으로 휩싸였다.

이에 당황한 몇 戰車兵들은 戰車에서 뛰어내려 逃走하려 하였으나 掩護하던 병사들이 한놈도 남김없이 사살하고 후속하던 8대의 戰車는 先頭戰車가 火염에 싸여 爆發음이 震動하자 北쪽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으나 이를 지켜보던 我軍전지에서는 一齊히 환호성이 터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號泣하였다.



더우기 牛頭山에서 이 情景을 내려다 보던 연대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한참동안이나, 말문이 막힌채 癡然한 시간이 흘렀다고 포병대대장 金 聖 소령은 술회하였다. 한편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沈소위가 肉迫공격으로 戰車 2대를 파괴한 사실은 6.25가 난지 몇 시간이 안되지만 이것이 처음일 것이며, 우리 장병들은 그때부터 戰車를 파괴할 수 있다는 白負心을 갖게 되고 뒷날에도 많은 戰車를 古鐵化 시켰다.』고 證言하였다.

沈 鎰 소위는 이 功勳으로 1951년 9월 17일 創軍以來 처음 軍最高의 榮譽인 太極武功勳章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해 1월 26일 中部戰線에서 散華하여 이미 故人이 되었으므로 그의 父親 沈基淵이 대신하여 李承晚 大統領으로 부터 勳章을 받았다.

대대의 反擊: 敵은 步戰協同侵攻이 頓挫되자 이를 반회하려고 미친듯이 砲擊을 함으로써 대대는 물론 牛頭山까지도 敵彈이 雨注하여寸步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16.00에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그들이 기어코 昭陽江의 北岸을 탈취코자 狂奔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공병 1개 중대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보수공사를 마친 鳳儀山으로 연대 觀測所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포병대대도 南岸으로 陣地轉換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포병대대는 17.00에 제1포대(장, 金長根 중위)가 春川驛 앞으로, 제2포대(장, 李奎烈 중위)가 鳳儀山 뒤로, 그리고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가 牛市場으로 각각 전지를 轉換하였는데 이때 대대의 관측소는 鳳儀山에 설치 하였다.

18.00에 이르러 敵의 정찰活動이 活潑化하자 대대장은 필시 그들은 夜間공격을 기도할 것이라고 추단하고 錯雜한 現 지형조건으로 보아 敵을 먼저 破摧하는 것만 못할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던 무렵에 제19연대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가 대대의 左側1선으로 증원되어 錦山一帶에 展開하고 있다는 通報를 接하게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대대장은 장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19.00부터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敵도 5번道路로 침공하였다가 潰滅的인 타격을 받음에 衝擊을 받았음인지 이번에는 5번道路 兩側에서 南北으로 흐르는 小川과의 사이로 펼쳐진 俗稱 가래모기의 보리밭을 바라 그 銳鋒을 돌려 침공하였다.

彼我의 激突은 삼시간에 이루어 졌다. 움푹한 차폐물 하나없는 곳으로 밀려드는 1개연대 규모의 敵에게 증강된 대대의 전 중화기와 개인화기는 一齊히 사격을 퍼부었으며, 이와 함께 全 砲兵도 관측할 사이도 없이 目測으로 명격을 가하여 敵을 완전히 도가너로 몰아 넣고 두들겼다.

그들에게 發砲할 기회도 주지 않고 때려 부수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悲鳴소리가 높았다.

이때에 포병은 射距離가 짧아 대대와 前進 後退를 같이하면서 歩兵과 同列에서 步砲協同으로 포격하니 끝내 이들 大群은 潰滅直前に 놓이게 된듯 하였다.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戰機가 무르익었음을 看破하고 追擊을 명령하니 生存한 일부의

敵 병력은 北漢江으로 달아나려 하였으나 물이 깊어 빠져죽고, 北上하여 逃走한 者들은 헤아릴 정도로 지나지 않았으니 벌판에는 無數한 敵屍가 가득차 있었다.

포병대대장 金 聖 소령은 『보리 밭은 누런데 敵은 꺼렇게 파리메와 같아 區別이 용의하여 目測으로 사격하였다. 언제 照準이고 무엇이요 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砲彈은 VT彈이 없어 瞬發信管을 썼다.』고 하였다.

연대 S-3 李南浩 소령은 『그들은 이미 師團戰鬪訓練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步戰砲協同이 엉망이었다. 우리를 약보고 侵入하였겠지만 애당초 그들은 地形地物을 도외시 하였고 戰術따위는 없었다. 우리가 1개연대로 敵의 1개사단을 막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이길수 있는 戰鬪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병사들은 너무도 毅然한 자세로 싸웠다.』고, 이때를 회상하였다.

어떻든 대대는 뒷쪽 泉田里에 敵의 大兵力을 牽制하면서 앞에서 驍兵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 5. 포병대대의 상황

05.00에 대대장 金 聖 소령은 제7연대 S-2 金東明 대위로 부터 『敵이 華川 및 楊口쪽에서 침공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아 즉각 대대에 出動준비를 갖추도록 電話로 명령하고 본부(現, 春川農大)로 달려가 보니 이미 30%의 병력이 練兵場에 집합하고 있었다.

먼저 현 병력으로 사격할 수 있는 포 4문을 갖고 임시 편성하여, 2문은 泉田支署 앞으로 보내고 또한 2문은 司農洞으로 추진 放列케 하고 각각 제7연대를 직접 支援토록 하였다. 13.00에 砲兵學校에서 被교육중이던 3명의 포대장이 歸隊하였을 뿐 아니라 外出하였던 병사들이 달려옴으로써 이때부터 建制가 유지되었고 또한 砲彈의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歩兵의 火力支援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이즈음 대대의 彈藥보급소는 昭陽江 北岸의 製糸工場(現存) 앞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대대 S-4 金雲漢 소위는 대대로 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는데도 不拘하고 崔甲錫 上士와 鄭基百 上士를 거느린 다음 春川市內에서 民間車를 징발하는 한편 自願한 春川師範學校 學徒護國團 學生들의 도움을 받아 敵砲彈이 雨注하는 가운데 도합 5,000발에 달하는 砲彈과 이 근처에 저장하였던 機關銃 및 小銃類의 각종 실탄을 남김없이 昭陽江 南岸으로 운반함으로써 彈種에 제한을 받지 않고 敵의 頭上에 명타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포병의 전투상황에 대하여는 前述하였거니와 敵도 대대의 포격으로 決定的인 타격을 받았음을 是認하였다.

즉, 春川을 占據하고난 醜敵들은 金 聖 소령이 묵고 있던 下宿집 主人을 국군 포병대대장을 하숙시켰다는 罪目으로 反動分子로 몰아 체포 하였었다.

다행히도 그는 脫出하여 피신하였다가 수복후 金 聖 소령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음(金 소령) 때문에 1개연대가 소멸당하였다.』는 말을 여러 傀儡軍들한테서 들었다고 한다.

**6월 26일** : 전날 저녁 19.00에 실시한 대대의 반격으로 敵은 많은 손실을 본듯하여 玉山浦 일대에 集結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었다.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제19연대 제2대대가 牛頭山으로 赴援하자 이에 힘을 얻고 玉山浦를 手中에 넣은 敵을 破摧하기로 결심하고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에게 08.00를 期하여 이를 攻勢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너무 突進하여 側方이 露出하지 않도록 躍進限界線을 三巨里로 統制하였다.

### 1. 제1대대의 상황

08.00에 대대는 포병의 공격지원 사격과 제19연대 제2대대 측방엄호사격 밑에 반격전을 개시하여 躍出하였다.

玉山浦에 있던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어제의 敗北을 만회나 하려는듯이 침공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대대의 기습적인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대부분의 병력이 사살되고 殘存병력은 역골로 北上潰走하고 少數의 병력은 北漢江 東岸의 뚝을 의지하여 대대에 대항하다가 潰滅하고 말았다.

이때, 좌제1선에서 공격하던 제3중대(장, 金明益 대위)는 馬山里로 突入하였는데 그곳에서 戰車兵들이 누어서 雜談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자 銃을 버리고 投降하라고 소리쳤는데 그중에서 2명이 대항할 태세를 취하므로 모두 射殺하고 그 옆에 있던 戰車에 手榴彈을 잡아넣어 파괴하였다.

뒤에 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전날까지의 戰鬪로 潰滅的인 打撃을 받은 北傀 제2사단은 赴援할 제7사단과 협동공격을 위하여 이날 아침에는 침공준비에 狂奔하고 있었다고 한다.

玉山浦를 一擧에 탈취한 대대는 三巨里에 이르기 까지 중심진지를 구축하면서 그들의 來襲에 대비하고 있었다.

13.00가 되자 敵은 판에 박은듯이 치열한 砲撃을 함으로써 三巨里와 玉山浦를 뒤집어 놓더니 射程을 延伸하면서 戰車 5대를 앞세우고 일단의 무리가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제3중대에 있던 2.36" Rocket포 6문을 三巨里 초입에 있는 草家안에 숨겨 발사케 하였는데 命中한 1,2번 戰車는 아무런 被害도 입지 않은듯 戰車砲와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突進하였다.

대대장은 戰車파괴가 무위로 돌아가자 三巨里에 배치한 제3중대를 玉山浦에 合勢케하여 재배치가 끝나자 그들과 一進一退의 混戰을 전개하였다.

對戰車地雷 하나없이 대대의 火力만으로 그들과 한시간에 걸쳐 寸土도 양보하지 않고 血戰을 벌였으나 끝내 寡不敵으로 14.00에 敵으로부터 離脫하여 △164로 복귀하기에 이

트렸다.

이리하여 迫躡한 소수의 敵과 接戰중에 15.00 언대장으로 부터 昭陽江 南岸으로 철수하라는 命令에 따라 제19연대 제2대대의 엄호밑에 昭陽橋를 건너 일단 春川 南쪽의 碩士洞(現 師範學校)에 集結하여 잠시동안의 休息과 彈藥의 재보급을 받고 다음날 09.00에 同江 南岸으로 躍出하였다.

## 2. 사단장의 緊急措置

鳳儀山에서 戰況을 지켜보던 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이번 제7연대 제1대대의 戰鬪에서 敵의 攻擊力이 예상외로 強力하였을 뿐만 아니라 東쪽 泉田里 부근의 敵이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와 이날 잡은 捕虜로부터 그들은 楊口로부터 兵力을 增援받아 금명간 총공격을 할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敵이 불된 兵力을 集中하여 공세로 이전할 것으로 추단하고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分散되어 있는 사단主力을 집중적으로 運用하는 것만이 艱難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判斷하게 되었다.

실상 이때 사단主力의 배치상태를 一瞥하면 ① 제7연대 제1대대는 3차에 걸쳐 惡戰苦鬪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粉碎하고 있는 반면에 생생한 제19연대의 3개대대는 敵影도 보지 못한채 錦山과 昭陽江 南岸 그리고 牛頭山 一帶를 각각 分占하여 遊兵이나 다름바 없었고 ② 萬一에 敵이 교두보(昭陽江 北岸에 있는 제7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를 形成하고 있는 2개대대에게 夜間공격으로 挾攻한다면 이를 救出할 方途는 莫然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自然 장애물인 昭陽江을 사이에 두고 一大 방어전으로 轉換하여 敵을 攻破하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즉차 철수하여 昭陽江 南岸에 진지를 구축하고 敵을 江岸에서 擊破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昭陽江 南岸의 제1교(西쪽 200m)로부터 後坪里에 이르는 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敵을 阻止 擊滅하라.

③ 제19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南岸으로 철수하여 槿花洞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즉방으로부터 侵入하는 敵을 격멸하라.

④ 제16포병대대장은 제7 및 제19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라.

⑤ 철수개시 시간은 26일 15.00임.』

## 3.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가마골—양계일에 전개하여 敵의 渡河침투를 저지할 태세를 갖추면서 隊伍를 정비하고 있었으나 그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17.00부터 昭陽江 北岸의 泉田에는 數未詳의 戰車를 비롯하여 많은 병력이 牛頭洞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目擊하자 迫擊砲로 집중사격하고 있었는데 18.00에 연대장 林富澤 중령으로부터 『後坪里(鳳儀山 東南쪽 1.5km)으로 이동하여 방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春川의 東쪽을 扼守하기 위하여 강행군으로 전진하여 19.00에 전개를 끝마쳤다.

이 철수 시간에 대하여 연대장은 『사단장은 15.00에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牛頭山에서 격전중인 제19연대 제2대대의 철수엄호를 고려하여 18.00에 철수하였다.』고 밝혔다.

연대장은 敵의 主力이 昭陽橋로 指向할 것이라는 것은 明若觀火이므로 유일하게 전 火力을 保有하고 있던 제8중대(장, 金燦柱 대위)(81mm 박격포 6문, Cal 50 기관총 2정, HMG 4정, LMG 2정)를 집중 운용하라고 지시함으로써 同橋 南岸바로 옆 범박위(높이 4m 길이 6m인데 그뒤 道路擴張공사로 제거됨)를 방패삼아 집중매치하고 그 대신에 제3대대 제12중대를 대대에 추가로 배속 받았다.

#### 4. 제8대대의 상황

지난 밤에 제11중대가 赴援하자 중대장 河扣道 대위는 제10, 제11의 兩 중대를 지휘하여 밤을 새워가며 개인호를 파서 몸을 음폐할 정도가 되었다.

07.00에 심한 안개와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敵은 一齊히 포문을 열고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兩 중대는 地利를 이용하여 그들을 그때마다 물리치곤 하였는데 중요한 敵은 치열한 사격전을 계속하였다.

이무렵 陸軍本部로 부터 戰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급파된 제1기갑연대 제1중대 1개소대(장갑차 3대)가 나타났으니 이를 처음 본 병사들은 戰車가 증원왔다고 환성을 올렸다.

장갑소대장 李雲鶴 소위는 兩중대가 惡戰苦鬪하고 있음을 보자 울분을 참지못하고 陸軍本部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本然의 임무도 잊은 채 장갑차와 위력(소대 화력 37mm포 3문, Cal 50 기관총 8정, 81mm 박격포 1문)을 발휘할때라고 다짐하고 사격을 명령하였다.

左右능선에 달라 붙은 醜敵의 掩蓋는 날아가고 土砂를 건어올려 一瞬 山頂이 焰煙으로 뒤덮였다. 兩 중대는 惡戰을 거듭하였으나 寡弱한 병력으로 戰勢를 역전하기에는 力不足하였으니 14.00부터 지연전을 展開하면서 加平 北쪽으로 물러나 제11중대는 右제1선이 되어 △434를 그리고 제10중대는 左제1선이 되어 玉女峰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 5. 제8연대의 赴援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議政府方面의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과 當 사단간에 이르는 30km에 間隙이 생기자 이를 메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陸本作戰命令 제94호(1950. 6. 26. 11. 30)』

① ④ 敵은 침공을 加速化하고 있음.

④ 제6사단은 春川地區, 제2사단은 抱川地區에서 今朝 공세로 이전 하였음.

② 軍은 一部병력을 轉用하여 防守態勢를 強化하려 함.

③ ④ 首都경비사령관은 예하 제8연대를 즉시 加平으로 轉進시켜 제6사단장의 指揮를 받게하라.

④ 기갑연대장은 예하 徒步 1개중대를 즉시 加平에 이동케하여 제6사단장의 指揮를

받게 하라.』

제8연대(장, 徐鍾喆 중령)는 당초 전쟁발발과 동시에 서울 北쪽 水落山의 방수를 위하여 地形偵察까지 마쳤는데 이 명령에 따라 급히 징발한 bus 및 일부의 자대 車輛에 의하여 加平으로 轉進하였다.

연대장은 指揮所를 加平郡廳에 두고 사단장 金鐘五 대령에게 병력의 배치상황등 緊要한 事項을 보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기갑연대 제3도보수색대대 제8중대(장, 金一錄 중위)는 자대 車輛으로 北上하였으나 加平부근의 敵情이 杳然하여 上色驛(加平 南쪽 4km)에서 下車하고 上馬場里로 躍出하여 이 지역을 扼守하고 있던 제3대대(一)와 合勢함으로써 河相道 대위는 混成부대나마 증강된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뒤에 河대위는 加平에 많은 병력이 도착하였다는 보고에 접하고 선임장교 金成培 소위로 하여금 확인시켰던바 그는 돌아와서 『집결한 병력은 제8연대 제2대대이며 대대장 高白圭 소령을 만났는데 내일 아침에 전투배치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同연대와 기갑연대 1개중대는 이날밤 陸軍本部로부터 서울로 다시 轉進하라는 急電을 받고 연대는 다음날인 27일 03.00에 그리고 기갑연대의 제8중대는 07.00에 각각 서울로 向하여 출발하게 된다.

## 6. 포병대대의 상황

07.30에 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제7연대 제1대대가 08.00를 期하여 玉山浦를 強襲하게 되었는바 포병대대는 全火力으로 直接 지원하라는 口頭命令에 따라 07.40부터 最大사정을 놓고 공격준비사격으로 玉山浦 일대의 敵은 粉碎하기 시작하였다.

기습적인 포격에 虛를 절린듯한 敵은 잠시 沈黙하였는데 그로 부터 數分뒤 그들의 大口徑砲彈이 鳳儀山의 연대 觀測所 및 포병관측소 그리고 제2포대를 맹타하여 관측장교는 제2포대의 사격지원이 敵의 砲火로 중단상태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

대대장 金聖 소령은 쏟아지는 포탄망을 뚫고 제2포대에 당도하여 본바 同 포대는 명령도 없이 진지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大怒한 대대장은 『무슨 짓을 하는거야. 다시 放列하고 사격 해!』 하고 돌아서는데 관측장교 한명이 달려 오면서 鳳儀山의 관측소에 포탄이 너무 떨어져 내려왔다는 기막힌 보고를 하였다.

대대장은 『너는 戰場이탈장교로서 軍法으로 다스려 마땅하나 戰功을 세우면 용서하겠으니 빨리 올라가 임무를 완수하라.』고 호령하여 올려보냈는데 끝내 그는 전쟁 공포증에 걸린 환자로서 후송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격대대가 玉山浦를 탈취하고 三巨里로 躍出하기에 이르자 12.30에 사단장으로 부터 『洪川 北쪽의 戰況이 불리하여 제2연대가 苦鬪중이 있으니 1개 포대를 同 연

대에 배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대장은 뒤에 있던 제1포대(장, 金長根 중위)를 抽出하여 14.00에는 洪川 北쪽 원편(城山 東北 1.5km)에 포를 放列하고 배마침 寒溪국민학교로 철수중인 제2연대를 火力으로 掩護하였다.

한편 제2 및 제3 兩포대는 14.00부터 이루어진 玉山浦로 부터의 移動과 昭陽江 南岸으로의 철수에 있어서 달아오른 砲身에 물을 부어 가면서 擾亂 및 阻止사격으로 그들의 追尾企圖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射程이 짧아 對砲兵사격으로 그들의 砲를 制壓하지 못한것이 恨이었다고 참전자들은 異口同聲으로 證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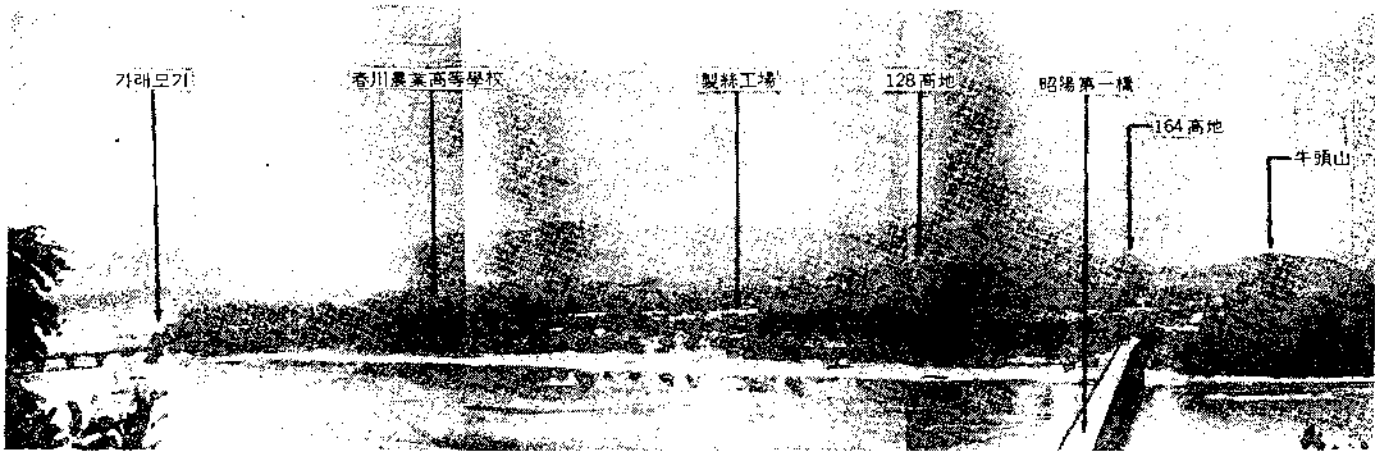
### 7. 공병대대의 상황

戰勢가 불리하여 이날 26일 20.00에 사단主力이 昭陽江 南岸의 堤防에서 진지를 가다듬고 있을 때 공병대대장 朴正采 소령은 사단 作命제42호(50.5.18부)로 계획된 昭陽橋(현재 昭陽橋)의 파괴를 사단장 金鐘五 대령에게 건의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만 하여도 서울方面의 戰況을 알수 없었을 뿐 아니라 報道에 의하면 제17연대가 饒津 및 海州선을 突破하였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深思熟考하던 사단장은 一時 春川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反擊할 경우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대장의 爆破건의를 기각하는 한편 橋梁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敵 기갑부대의 통과를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미리 준비 하였던 爆破장치를 제거하고 파괴된 truck 4대를 橋梁위에 밀어 부쳐 장애물로 삼았다.

6월 27일 : 05.00부터 敵의 大口徑砲 및 戰車砲는 一齊히 昭陽江의 南岸과 鳳儀山 일대를 亂打하는 한편 市內에도 砲彈이 集中하여 焰煙이 온 市內를 덮었다.



〈鳳儀山 北麓에서 본 昭陽江 北岸〉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敵이 총공세로 이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었으나 鳳儀山과 昭陽江의 장애물을 최대로 이용한다면 能히 그들을 阻止 殲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敵의 砲火가 시간이 흐를수록 격렬하여짐에 따라 제7 및 제19의 兩 연대는 더욱 더 兇敵必殺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敵을 凝視하고 있었는데 突然 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제19연대와 1개포대를 洪川으로 轉用한다는 간단한 통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장의 心情은 착잡하였으나 上部의 作戰指導를 이해하고 즉각 이의 補完策으로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제19연대로 부터 2개중대를 배속받는 한편 연대본부 행정요원과 在春川 지원부대 (공병 1개중대 및 소수의 병참, 병기군부대)를 통합하여 1개대대를 편성하고 경리장교 金根好 대위로 하여금 이를 지휘케 하여 빠져나간 제19연대 제1 및 제2대대의 戰鬪區域(昭陽 제2橋—槿花洞간)을 彌縫하였다.

10.00부터 敵은 공격의 시기가 무르익었음인지 戰車 및 SU-76 自走砲를 同江北岸의 至近距離에 방열하고 直擊彈을 퍼부어 鳳儀山의 연대 觀測所는 물론 同山中麓 및 堤防을 끼고 前斜面에 배치한 火器陣地는 하나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끝내는 벌집과 같이 구멍이 나고 말았다.

이때, 敵彈雨를 뚫고 躍出한 57mm 대전차포 제2소대장 沈鎰 소위는 砲1문을 제2昭陽橋 南端(舊 昭陽橋 西南쪽 300m)에 배치하고 斜射로써 敵의 戰車群을 連射하였다. 순간, SU-76 自走砲로 보이는 先頭車와 2번車에서 火焰이 일고 戰車병들이 기어 나오는 것을 범바위 뒤에서 待機하고 있던 제8중대(장, 金燦柱 대위)의 Cal 50 기관총 2정이 불을 토하여 사살하였다.

정각 11.00에 敵은 一齊히 渡河를 企圖하여 1개연대 규모의 무리들이 가래모기로 徒涉하고 또한 부리는 직접 昭陽橋로 밀어 닦쳐다.

이 好機를 노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2포대(장, 李燾烈 중위)는 모든 砲로써 集中사격하고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대대에 배속된 제8 및 제12 兩 화기중대의 火力을 集中하여 橋梁 위로 突進하던 敵을 쓸어버린 다음 가래모기로 침투하는 敵兵力을 半渡를 노리고 猛射하니 昭陽江은 순식간에 鮮血로 붉게 물들고 橋梁위는 屍體가 싸여 敵兵이 건너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奮戰에 휘몰린 敵은 南岸에 據點을 만들기 위하여 三波 四波가 쓸어졌음에도 發狂을 멈추지 않고 屍體를 밀어 제치고 徒涉하였다.

이때 제2포대의 直接조준사격과 그리고 兩 중화기중대의 火力은 그들의 數波에 걸친 침공기도를 挫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몇차례에 걸쳐 밀어닥친 狂波가 막 가라앉을 무렵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연대 觀測所에 당도하였는데 연대장으로 부터 自信에 넘친 戰況을 들은 그는 能히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여 春川 市民에게 약속한 『春川固守』를 完遂하여야 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있던 순간에 陸



軍本部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과 기적적인 通話가 이루어 졌다.

이때의 通話內容에 대하여 후일 사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단장; 『서울은 어떤한가?』

副長; 『撤收 하려한다.』

사단장; 『그러면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副長; 『西部戰線은 완전히 무너졌다. 6사단은 健在한가?』

사단장; 『그렇다. 나는 데대까지 장악하고 있고, 장비와 기동력도 있고 糧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副長; 『그러나 戰線의 균형을 위하여 당신의 판단에 의하여 中央線을 따라서 遲延戰을 하라. 특히 접촉을 유지하면서 경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驪州쪽으로 부터 포위될 우더가 있으니까……』

백없이 受話器를 내려놓고 한참동안이나 思索에 잠겼던 그는 비로소 全戰線의 局面을 알고 露出된 사단의 위기를 打開하기로 決心하기에 이르자 옆에 있던 연대장 林富澤 중령에게 通話내용을 설명한 다음 敵으로부터 現線을 離脫하여 原陽 고개에서 제2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남긴 채 洪川으로 달렸다.

그는 洪川의 固守만이 제7연대를 安全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 1. 春川 一角의 侵攻

敵은 1시간 30분 동안이 血戰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突破企圖가 水泡化되자 연대에 의하여 昭陽橋가 爆破될 것을 우려하였음인지 火力支援에만 運用하던 戰車를 橋梁위로 밀어 부치는 한편 西쪽으로는 2개연대 규모의 敵이 가래모기로 強行徒涉하면서 1개연대 규모는 春川 東北쪽의 元津나루터를 건너, 연대의 補給路를 遮斷할 기세로 九鳳山(△441)으로 南侵하기 시작하였다.

敵의 戰車는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同作하고 昭陽橋入口까지 침투하였으나 橋梁 위에 山積한 그들의 屍體를 짓밟고 넘어올 수는 없었던지 右往左往하면서 걸어 들일려고 하였으나 이때마다 범바위 뒤에서 집중사격하는 火網에 支離滅裂되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의 戰車群은 屍體를 江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일부는 屍體를 軌道로 넘어온 다음 同江 南岸의 一角을 占據하고 가래모기로 徒涉한 敵도 근무대대(장, 金根好 대위)의 最後阻止 사격의 火網을 뚫고 槿花洞까지 侵入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春川 東쪽을 방수하고 있던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敵과의 접촉이 없었다.

### 2. 연대장의 措置

연대장은 南岸一角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一群의 敵은 春川을 迂回한채 연대의 右側背를 위협하면서 南侵을 계속하게 되자 연대 補給路의 遮斷을 우려하고 일단 春川을 포기

하고 大龍山의 울창한 森林을 據點으로 하여 그들을 이 地域으로 誘引 殲滅한 다음 反擊을 再興하여 春川을 奪還하겠다고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연대의 左右側方에 각각 20km 이상의 間隙이 있으며 反擊을 고려할때 兵力을 溫存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說得함으로써 이에 順應키로 한 연대장은 逐次 지연전을 위한 作命을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現陣地로 부터 철수하여 原昌고개를 確保하고 敵을 陣地에서 捕捉섬멸하려 한다.
- ② 제1대대는 △486(大龍山 西쪽 1.5km)로 轉進하여 右側方으로 침투하려는 敵을 擊破하고 명에 의하여 金屏山을 점령하라.
- ③ 근무대대는 제3대대 제9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303를 방수하고 명에 의하여 原昌고개의 右側方(△341—△410)을 점령하라.
- ④ 제2대대는 제1 및 근무 兩 대대의 철수를 幷護하고 철수완료와 동시에 △158로 轉進하고 명에 의하여 原昌고개의 左側方(△602)을 점령하라.
- ⑤ 연대 수색중대는 大龍山 일대를 수색하고 연대의 右側方을 경계하라.
- ⑥ 배속부대
- ㉠ 제19연대 제5중대는 原昌고개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대의 철수를 幷護하라.
- ㉡ 제19연대 제1중대는 國師峰—中—里를 점령하고 연대의 左側方을 경계하라.
- ㉢ 제16포병대대 제2포대는 碩士里로 轉換하여 주력의 철수간 幷護로 幷護하고 명에 의하여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⑦ 철수개시시간은 別命한다.』

이리하여 연대는 晝間에 隨意철수를 앞두고 欺瞞策의 一環으로 全火力을 一齊히 集中強打하고 그들이 蠶食한 據點에 反擊을 거듭하여 殺傷을 강요하였는데 敵은 狂의으로 對抗하는데다 增援병력이 속속 投入되어 突破口가 逐次로 擴大함으로써 戰況이 惡化되어 가자 이를 注視하던 연대장은 17.00에 철수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 3. 春川의 撤收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는 玉山浦 및 昭陽江 南岸에서의 攻防戰에서 敵에게 潰滅的인 打撃을 안겨주었는데 逐次로 밀려드는 敵에게 彈幕사격을 퍼붓고 그들로부터 이탈하여 春川 東쪽으로 빠져 △486를 점령하여 급편방어진을 폈다. 雜多한 兵科로 편성되었음에도 의연하게 싸운 근무대대(장, 金根好 대위)는 △303로 轉進하여 5번 道路의 左側을 扼守하였다.

한편 연대수색대(장, 尹鉄庸 소위)는 他隊에 앞서 大龍山으로 急行하여 同山 西麓으로부터 등반하기 시작하였는데 8부 稜線에서 비로소 그들도 무리를 지어 △814로 부터 頂上을 向하여 올라가는 敵을 目擊하자 피아가 頂上의 先占을 위한 爭奪戰이 벌어졌으나 그들

이 먼저 占據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을 연대장에게 보고하자 그는 △341로 내려와 연대 觀測所를 경계하라는 명령에 따라 19.00에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兩 대대의 철수 엄호를 마치자 방금 放列을 마친 제2포대(장, 李壽烈 중위)로 하여금 예상되는 敵의 집결지에 포격을 誘導하고 春川 南쪽 2.5km의 △158에 급편방어진지를 퍼면서 그들의 침공을 阻止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同 대대와 進退를 같이 하면서 春川의 撤收戰을 指揮하였는데 대대가 阻止陣地를 점령하였다는 보고에 접하자 △341에 새로 開設한 연대 觀測所로 돌아감으로써 3日 동안이나 軍官民 協同으로 피흘려 지켰던 春川市는 18.00에 醜敵의 手에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加平부근에서 苦鬪중인 제3대대는 예하의 제10 및 제11중대(통합지휘는 제10중대장 河相道 대위)는 06.00에 짙은 안개속을 헤치고 침공하는 敵과 치열한 사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그들은 제10중대가 固守하고 있는 △434를 탈취하는 것만이 서울로 通하는 46번 道路를 掌握할 수 있어 北傀 제2사단의 西南侵을 促進할 企圖에서 인지 玉女峰을 扼守하고 있는 제11중대(장, 印聖勳 대위)에는 일부 소수 병력만으로 견제하고 砲火力支援도 없이 濃霧를 이용하여 奇襲해 옴으로써 도처에서 白兵戰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河相道 대위는 現 陣지를 固守하여 제8연대(장, 徐鍾諒 중령)에 인계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들의 波狀적인 奇襲을 陣前에서 擊碎하였다.

그들은 기습공격이 폭로되어 사상자만 累增하고 頓挫상태에 빠지자 一齊히 砲門을 열고 高地頂上을 亂打하기 시작하여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대는 그들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일시 사격이 中斷하게 되자 南北 兩쪽으로 挾擊하여 옴으로써 巨波를 맞이한 중대는 孤立無援한 상태에서 苦鬪를 면할수 없었다.

河相道 대위는 중대 獨力으로는 이 危機를 打開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火力支援을 要請하기 위하여 선임장교 金成培 소위를 제8연대에 急派하였던 바 同 연대는 이미 撤收한 뒤였다.

뒤에 確認된 바에 의하면 議政府가 失陷되고 敵이 서울로 치달자 陸軍本部에서는 同 연대를 서울 防衛戰을 위하여 轉用하였던 것이다.

중대장 河相道 대위는 당시의 心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8연대가 赴援하였다 하여 兵士들의 士氣는 衝天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兵士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河相道 대위는 加平을 固守하기 위하여서는 △434보다 屹立한 自然의 要域인 寶納山(△717)으로 끌어드려 그들에게 出血을 강요하기로 결심하고 즉각 敵과 離脫하여 同 高地로 부터 물러서기 시작하고 左제1선의 제11중대는 加平 北쪽 0.5km의 丘陵에 陣지를

占領토록 하였다.

그들은, 兩 중대가 철수하는 순간부터 據點 확보의 여유를 박탈하려는 뜻이 間一髮의 사이를 두고 계속 追跡함으로써 중대가 寶納山에 이를 무렵에는 手榴彈 投擲거리에서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제1소대장 張興燮 소위는 敵彈에 致命傷을 받고 쓰러져 捕虜(休戰 때 捕虜명단에서 밝혀짐)가 되기도 하였다.

이같이 混戰을 展開하고 있는 동안에 兩 중대의 中間위치에서 火力지원하던 기갑연대 제8중대(장, 金一錄 중위)는 제8연대가 加平을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뒤따라 서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敵은 재빨리 兩 중대의 철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間隙을 알아차리고 물밀듯이 侵濫하여 兩 중대는 兩斷分離된 직전에 놓였다.

河대위는 연대와 通信이 두절되고 彈藥의 고갈은 물론 극도로 지친 현 상황하에서의 계속 單獨전투는 병력의 손실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本隊와 連絡이 가능한 곳까지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兩 중대는 일단 上色里(加平 南西쪽 3.5km)에서 집결한 다음 撤退를 시작하여 12.00에 俗稱 논밭고개(淸平 東北쪽 2.5km)를 넘고 있을 때 L-4연락기가 上空에 날아와 兩 중대를 발견하고 『어느 부대인지 標識하라.』는 姜文奉 대령의 署名이 든 通信筒를 받고 手巾을 모아 『제7연대 제3대대』라고 道路에 표시하자 『너희 대대는 孤立되었으니 原州로 철수하여 연대와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淸平을 거쳐 橫城으로 직행하여 본대와 合勢하게 되었다.

#### 4. 포병대대의 상황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作命제32호(50.6.27)의 要旨에서 포병대대의 임무에 대하여서는 後命하기로 하였거니와 洪川地區의 戰勢를 危急視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金璜 소령에게 1개 포대를 洪川으로 돌려 제2연대(장, 威炳善 대령)를 火力지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金 소령은 08.00에 春川驛 앞에 위치하였던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를 洪川으로 轉換케 하여, 10.00에는 城山里支署 앞에 放列하고 據點사격을 할 수 있었다.

대대장은 대대의 主力(2개 포대)이 洪川 北쪽으로 轉換케 됨으로써 그 自身도 城山으로 추진하여 제2연대 觀測所에 위치하여 지휘하였다.

한편 春川 權花洞에 계속 남아 제7연대를 지원하던 제2포대(장, 李壽烈 중위)는 11.00부터 침공하기 시작한 敵을 맞이하여 연대와 進退를 같이 하면서 6시간동안이나 半渡逆擊으로 敵을 集中壓制하다가 17.00에 同 연대장 林富澤 중령으로부터 碩土里로 轉換하라는 명령에 따라 18.00에 그곳 節範學校 校庭에 다시 砲를 放列하고 연대의 撤收戰을 掩護하였다.

6월 28일 : 敵은 08.00에 步戰砲協同으로 세 方面으로 침공하였는데 그들의 展開양상으로 보아 연대를 原昌고개 부근에서 포위遮斷하려는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 1. 春川 外廓線의 戰鬪

즉, 그들은 主力을 5번道路(春川—洪川간)로 指向하고 戰車 및 砲兵을 여기에 集中하여 연대의 正面으로 直衝하고, 다른 두개의 무리들은 東西로 分進하여 그 하나는 △897를 침탈한 다음 계속 南下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北漢江을 따라 南下하다가 연대 左側中腹을 찌를 듯이 金屏山으로 파고 들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303로 扼守하고 있던 근무대대장 金根好 대위는 西쪽 3km의 道路(46번 道路)에 긴 車輛行列을 이루면서 加平으로 향하는 敵軍을 目擊하였는데 뒤에 確認된 바에 의하면 이는 敵 제2사단이 서울東部를 目標로 西南進하는 것이었다.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그들의 主力의 침공을 맞아 제2포대(장, 李승烈 중위)의 직접 支援밑에 狂波를 四進五退하는 치열한 사격전을 3시간동안이나 벌였으나 力不足하여 더 이상 支撐할 수 없는 難戰을 하고 있었다.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野山地帶에서 抵抗하게 된 불리한 地形조건과 劣勢한 火力 그리고 主補給路를 遮斷하려는 그들의 兇策을 看破하자 사단장이 강조한 原昌고개線에서의 방수를 결심하고 각 대는 제2, 제1, 근무대대順으로 選定한 陣地를 占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12.00에는 原昌고개에서 固守대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는데 그 配備는 다음과 같았다.

右제1선(△410—△341간) : 근무대대, 연대수색중대, 제3대대 제9중대, 제19연대 제5중대, 57mm 대전차포중대

中央(△602稜線) : 제2대대

左제1선(金屏山稜線) : 제1대대, 제19연대제1중대

제16포병대대 제2포대 : 九岩洞

그런데 敵의 壓縮은 예상외로 加速化하여 補給路의 차단이 目睫에 다가옴을 느낀 연대장은 사단장 金鍾五 대령의 승인밑에 原昌線에서 좀더 물러나서 沙峴線을 確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의 업호밑에 연대主力과 제2포대를 沙峴으로 집결케하였는데 이때에 연대장은 掩護대였던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에게 『現위치(原昌고개)를 別숨이 있을 때까지 固守하여 敵을 阻止擊破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최대한 釘着시키라.』고 命令하였다.

原昌고개는 標高가 600m이며 凹形 橫隔室을 이루고 北麓은 急傾斜인데 樹木이 없어 赤土地帶나 다름 바 없었다. 春川으로부터 이 고개의 頂上까지는 많은 屈曲을 이루고 있어 防者에게는 觀測과 射界가 양호한 要域이 었다.

대대장은 이 고개를 언제까지 扼守하여야 할지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敵으로부터 完全

히 포위될 위험과 極限상황을 고려하여 疲勞에 지친 병사들을 激勵하면서 全面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이즈음 5번 道路로 直衝하고 있던 敵의 主力은 沙岩岬에 이르러 각종 火力을 原昌고개로 集中하면서 威力搜索으로 대대에 접근하여 사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沙岩岬에 침입하여 비로소 原昌고개가 攻者에게 鐵壁의 一線임을 알아차렸던 것 같았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砲兵과 戰車砲를 頂土岬까지 추진하고 밤을 새워 이 고개를 亂打함으로써 그 일대는 土塊가 微粉化하여 越尺의 砂礫으로 뒤덮혔고, 이로 말미암아 대대의 壕溝축은 遲遲不振하여 겨우 直射彈을 피할 수 있는 은혜호를 봤을 뿐이었다.

**6월 29일**: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主力철수의 엄호를 마치자 敵과의 一戰을 다짐하면서 戰力을 굳히고 때가 到來하기를 고대하였다. 이때 대대의 병사들은 昭陽江攻防戰에서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철수만 거듭하여 不平을 터뜨리고 있었다.

### 1. 原昌고개의 血關

그들의 포격이 점점 熱度를 加하기 시작하더니 06.00에 射程이 延伸되면서 2개 大隊 규모가 視野를 메우고 올라왔다.

이들을 目擊한 대대장은 『陣前 200m로 接近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沈黙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北傀旗를 앞세우고 數波의 물결을 이루며 밀려들어 드디어 最後阻止射擊圈내에 들었다.

대대장의 사격개시 號令이 떨어지자 마자 一齊히 全 砲口는 불을 吐하고 小火器는 交叉 사격으로 집중강타하니 戰場은 순간에 屠戮場으로 化하여 醜敵들의 悲鳴은 하늘을 찢었다. 악랄한 督戰員에 四波가 쓰러지면 五波가 다시 비집고 나오는 連續的인 波狀 공격으로 突破를 기도하였으나 끝내 屍體만 累増시켰을 뿐으로 鎗공이 頓挫된채 彼我는 사격전으로 對峙하게 되었다.

이윽고 11.00에 1개 大隊규모가 再侵하기 시작하여 대대는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근접하기를 기다렸다.

바로 이때, 대대장은 제5중대장 金相興 대위로부터 『敵이 白旗를 들고 올라옵니다.』라는 보고를 접하고 앞으로 나가 보았더니 큰 白旗를 흔들면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는 敵이 投降하려는 것으로 連斷하고 사격을 중지시켰는데 병사들은 처음보는 그들의 投降에 撥박으로 튀어나와 빨리 올라오라고 歡聲을 지르며 맞이할 채비를 하였다.

그들은 서서히 웃음을 띠며 20m 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작스럽게 白旗를 내던지자마자 어께에 숨겼던 多發銃을 꺼내 亂射를 加함으로써 一瞬間에 白兵戰이 벌어졌다.

彼我が 얻킨 混戰으로 兩側모두 사격은 제쳐놓고 銃劍과 주먹의 對決場이 되었으며 대

대장도 敵兵과 맞붙어 덩굴다가 연락병이 날썩게 이를 사살하고 危機一髮에서 救出되었다.

亂戰格鬪끝에 敵을 擊退하는데 突効하였는데 비록 병력면에서는 互角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병력이 分散되는데 戰意가 상실된 가운데 奮戰으로 몰아친 까닭으로 허수아비나 다를바 없음에 반하여 대대는 대부분의 據를 즉각 방패로 삼아 露出된 그들을 射殺할 수 있었고 더우기 대대장이 危機를 면한 즉시 陣頭에서 대대를 수습한데 더욱 勇戰할 수 있었다.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이때만 하여도 戰鬪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白旗만 들면 投降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그들의 어깨에 걸머진 銃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아 완전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이다. 이 사실을 陸軍本部에 보고하여 이러한 敵의 기만에 속지 말도록 全軍에 下達한 바 있다.』고 술회하였다.

## 2. 華陽江 南岸의 防禦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질서있는 철수를 하여 13.00에 沙湫에서 연대主力에 습하였다.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연대 全 병력이 질결하여 철수준비가 완료하자 각 지휘관을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華陽江(洪川邑을 南쪽으로 끼고 흐르는 江) 南岸으로 隨意 철수하여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제2연대의 철수를 얼호하는 한편 追尾하는 敵을 陣前에서 擊碎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371(原州街道의 右側)에 신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③ 근무대대는 △418(同街道의 左側)에 신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三馬峙에 신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⑤ 연대 觀測所는 △371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13.30에 연대는 車輛과 徒歩행군으로 沙湫을 出發하여 24.00에 각각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에 임하였다.

### (다) 사단 예비대의 운용(제19연대)

6월 25일 : 07.00에 소낙비가 한차례 가고난 다음에 갑작스러운 싸이렌소리가 原州邑을 뒤 흔들었다.

官舎에 있던 연대 S-3 朴柱根 소령은 연대본부에 전화를 걸고 『원 싸이렌소리가 요란하냐?』고 문의하였으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30분 뒤에야 현병대에서 車가 들이 닥치면서 彼我의 激突이 最戰線에서 일어났다고 알려 주었다.

이때 연대장 閔丙權 중령은 參謀學校에서 교육중이어서 부연대장 朴堯瑞 중령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병력의 대부분은 外出중에 있었다.

그러나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만은 이날따라 대대장의 명령으로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까닭에 先陣으로 出動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연병장에 집합이 끝나자 연대 S-4 安用鶴 소령은 각개인마다 彈藥 1기수, 건빵 3일분, 기타 甘味品과 필요한 보급품을 창고문을 열어 놓고 풍부하게 지급하였다.

이어서 軍裝검사를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히 마치고 대대와 연대수색대(장, 朴準秀 중위)는 연대에서 보낸 차량 20대(이중 5대는 寧越광업소에서 징발)에 分乘하여 14.00에 春川으로 先發하고 제1 및 제2대대는 車輛이 부족한 탓으로 20.00에 부연대장 朴煥璠 중령이 지휘하여 列車便으로 原州를 출발, 淸涼里를 경유하여 春川으로 向發하였다.

한편 연대 S-3 朴柱根 소령은 대대와 함께 春川으로 直行하였는데 이는 부재중인 연대장을 대신하여 작전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사단 및 제7연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함이었다. 그는 春川에 도착하자 즉시 제7연대 觀測所가 있는 鳳儀山에 임시로 연대 觀測所를 개설하고 同市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兩연대가 合同으로 운영하였다.

同대대가 17.00에 春川市內에 들어설 무렵부터 敵의 포탄은 市內 到處에서 炸裂하고 있었다.

대대장 金漢德 소령은 상황이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同市の 南쪽一角에서 兵力을 下車시키고 急行軍으로 春川驛 뒤를 돌아 허리까지 차는 北漢江을 건너 18.00에 橫隔을 이룬 △217(錦山里 北쪽) 일대에 포진하였다.

대대장은 當面한 正面에 敵影이 없자 威力探索으로 索出한 다음 이를 擊破하기로 決心하고 母津橋를 目標로 右제1선에 제10중대(장, 金斗逸 대위)를, 그리고 左제1선에 제9중대(장, 崔俊鎬 대위)를 각각 散開시켜 대대장의 陣頭 指揮아래 併進隊形으로 △217를 經由하여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西上一層에 이르러 작은 稜線에 위치한 concrete 有蓋壕에 대대 觀測所를 정하고 兩중대로 하여금 계속 北上토록 하여 梧月里까지 躍進하였다.

여기에서 제10중대장 金斗逸 대위는 東岸의 玉山浦 부근에서 彼我間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情景과 敵이 바로 눈앞의 龍山里 道路邊에 砲를 放列하고 激戰場에 포격을 퍼붓고 있음을 目擊하였을 때에 대대장으로부터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을 目捷에 둔채 切齒扼腕한 心情으로 다시 錦山里로 돌아 갔으나 敵과의 접촉은 없었다. 한편 연대수색대는 연대의 主力이 도착할 때까지 제7연대와의 間隙을 경계하는 임무를 받고 春川驛 西北쪽 2km까지 약진하고 있었으나 이도 敵과의 接觸은 없었다.

**6월 26일** : 06.00에 列車편으로 春川에 도착한 제2대대(장, 崔錫洛 소령)는 驛頭에서 기다리던 연대장 閔炳權 중령으로부터 『즉시 牛頭山으로 躍進하라.』는 口頭명령에 따라 간간히 敵砲彈이 炸裂하는 것을 옆으로 보며 강행군으로 昭陽江을 건너 이로부터 40분 뒤에



는 牛頭山에 이르렀다. 이때 불과 1km 正面의 山麓에 방어태세를 갖춘 대대는 右側1선에 서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와 連繫를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 1. 제2대대의 상황

그리하여, 제5중대(장, 金旭篆 대위)는 北麓에, 그리고 제6중대(장, 韓正一 중위) 및 제7중대(장, 朴昌樹 중위)는 이에 이어서 右로부터 左로 각각 배치하고 제8중대(장, 朴二鍾 중위)는 南麓에서 火力支援태세를 갖추었다.

대대의 戰況은 위급하지 않았으며 소낙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敵의 포탄이 가끔 集中하고 또한 流彈이 交叉할 뿐이었다.

잠시후에 鳳儀山에 위치한 연대장으로부터 『제2대대는 08.00에 제7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진지에서 엄호하며, 東쪽으로부터의 예상되는 敵의 침공을 粉碎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은 대대장 崔錫洛 소령은 攻擊대대가 玉山浦로 躍進할 때 대대 重小火器의 火力을 퍼부어 側方을 엄호하고 同대대가 目標을 탈취하고 三巨擘로 進出하였을 때에는 北上 逃走하는 敵에게 6문의 81mm 박격포로 打擊하였다.

또한 14.00에 공격대대가 △164로 철수할 때에도 火力으로 이를 엄호하였는데 이같이 공격대대와 유기적인 협동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다시 연대장으로부터 『대대는 昭陽江 南岸으로 철수하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엄호하고 대대에 賦與된 임무가 종료되면 南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敵은 우리의 철수企圖를 알아 차렸는지 牛頭山 일대에 一齊히 포문을 열어 그 硝煙이 視界를 가렸다.

이때를 노린 敵들은 별관을 가로 질러 潮水같은 기세로 밀려들면서 指呼之間에 그 銳鋒을 들어내니 대대장은 戰機가 무르익었음을 看破하고 사격을 號令하였다.

포병과 대대화기의 협동사격은 極致를 이루어 一波가 쏟아져 나가자 철수대대는 直射火器에 의한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철수를 할 수 있었다.

이것도 잠시간이었다. 철수하는 대대를 急迫한 一群이 울미(玉山浦 東쪽 0.5km)에 침공하여 대대와 角逐戰을 벌였는데 그들은 지형이 불리하여 正面공격이 곤란하기에 이르자 일부의 병력만 앞에 내세우고 主力은 司農洞을 휩쓸고 昭陽江을 向하여 波狀을 이루어 接近하였다.

그들은 대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포탄을 雨注하였으니 이 情景을 보고, 겪은 참전자들은 피아의 포탄이 上空에서 부딪칠 정도로 극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웅단포격과도 같은 敵의 火網에 휩쓸린 대대는 제1대대의 철수엄호를 마치자 壕속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판단한 대대장 崔錫洛 소령은 17.00부터 각 중대장에게 南岸으로 철수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6, 제7, 제8의 3개 중대는 물려드는 敵을 反轉逆擊으로 물리치면서 南岸으

로 철수하였으나 제5중대는 대대장이 보낸 연락병이 途中에서 戰死함으로써 철수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대장 金旭篆 대위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연락병을 제6중대(장, 韓正一 중위) 및 대대 觀測所로 보내 보았으나 아무도 없다는 보고였다.

그는 중대가 고립무원상태에 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敵의 동태를 살폈는데 北岸은 이미 그들의 手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단되었다.

그리하여 중대장은 하사관 2명을 選拔하여 『이 渡河地點을 정찰할 시간도 없다. 나는 그대들이 徒涉하는 곳으로 중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때문에 그대들은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敵을 피하여 江을 건너가라. 엄호는 문제 없다.』라고 強調하고 출발시켰는데 그들은 敵과 접촉없이 쉽게 南岸으로 徒涉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소대별로 逐次 엄호하면서 牛頭山 東北쪽 300m까지 올라가 무난히 南岸으로 徒涉하여 21.00에 대대와 合勢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철수전에서 제6중대장 韓正一 중위는 어깨에 銃傷을 입고 擔架에 실린채 중대의 철수를 지휘하였고 同중대 화기소대장 李昌鎭 소위는 重傷을 입고 연락병의 부축으로 겨우 철수하였는데, 그는 『그나마 壕를 파고 들어간 병사는 살았고, 파지 않은 게으른 병사는 戰死傷한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敵中에서 活路를 찾아 한명의 손실도 없이 脫出에 奏功한 金旭篆 대위는 이 戰鬪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25 전만 하여도 연대취사가 통상이었는데 전투가 벌어져 자 대대취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대에서는 전투중인 중대위치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식사를 보급할 인원이 없어 우리는 原州에서 출발할 때 乾빵 두봉지인가를 받고 牛頭山에서 적전술을 치른 뒤까지 식사를 못하다가 대대와 합세하였을 때 처음으로 取食하였다. 때문에 전투시에는 중대식사가 가능하도록 평소부터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通信인데 이때에 대대장은 연락병을 여러번 보냈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본일이 없으며, 유무선이 두절될 때를 고려한 연락방법 즉 신호탄 또 간단한 手旗활용책을 숙달시켜야 한다.』고 슬 회하였다.

## 2. 제3대대의 상황

玉山浦 부근에서 피아가 血戰을 거듭하고 있을 때 대대정면인 錦山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아 戰場에서 겪는 兵士들의 심리는 오히려 불안한 感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09.00에 저울골(玉山浦 北쪽 3km) 부근에서 그들의 砲擊이 요란하더니 그 일부가 대대를 亂打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미 대대장 金漢德 소령의 엄명으로 개인호와 영성하나마 교통호를 파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擾亂射擊을 능히 피할 수 있었다.

20분간에 걸친 포격이 끝나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막은골(母津橋 南쪽 3.5km)에서 散

罷하여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9중대장 崔德鎬 대위로부터 받았다.

대대장은 全員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명령과 함께 敵이 火繩에 들어올 때까지 사격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敵은 1시간 이상이나 대대의 有効사거리내에 들어오지 않고 左右로 움직일 뿐 침공의 기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은 비로소 그들의 기도가 玉山浦전투에 대대가 加勢할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因着견제할 目的으로 弄奸을 부리고 있음을 깨닫고 예비인 제11중대(장, 金永吉 중위)로 하여금 앞으로 迎擊하도록 명령하였다.

진지를 막차고 躍出한 同중대는 그들을 西山으로 추격하였으나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로 빼면서 사격만을 加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戰況을 중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대장은 左側方의 敵情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計略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敵으로부터 이탈하여 복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다시 소수의 敵과 교전으로 對峙하다가 연대장으로부터 北漢江 東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15.30에 철수를 개시하였는데 敵으로부터의 기습에 대비하여 제11, 제10, 제12, 제9중대 順으로 同江 西岸을 따라 元堂里에 이르러 衣岩橋로 渡江한 다음 18.00에 연대의 左제1선이 되어 槿花洞(春川驛 北쪽 0.5km)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 3.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崔炳默 소령)는 06.00에 서울을 돌아 春川에 도착하여 昭陽江과 北漢江의 合流點인 槿花洞으로 進入하여 南岸의 堤防을 방패삼아 방수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는 北漢江줄기를 타고 春川市內로 침투가 예상되는 敵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대는 앞으로 必發 攻防戰에 대비하여 當面한 전투구역뿐만 아니라 昭陽橋에 이르기까지 堤防앞뒤에 個人壕와 交通壕를 파고 15.00 以後부터 제7연대 제1대대 및 제19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兩 대대가 철수를 완료한 19.00부터는 피아의 砲擊戰만이 交叉하였을 뿐, 접적은 없었다.

이 砲兵戰에서 제1중대 선임장교 成福吉 중위가 敵의 포화로 散華하였는데 연대로서는 참전후 첫 將校戰死者로 記錄되었다.

**6월 27일** : 사단作命 제32호(50.6.27)에 의하여 洪川으로 轉進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閔丙權 중령의 腦裏에는 投入할 場所 및 먼저 投入할 대대의 決定 그리고 敵戰車과 괴에 대하여 汙沒하였으나 그는 S-3 朴柱根 소령으로 하여금 先發시켜 地形偵察 결과에 따라 병력을 誘導하도록 하고 先鋒대대는 제3대대를 指定하였다. 그 이유는 최초 출동시에도 同대대가 先發되었듯이 戰鬪力을 높이 評價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사람의 부상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 1. 연대장의 措置

그럼에도 不拘하고 敵戰車를 擊滅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妙策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現地에 가서 직접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현 임무를 제7연대에 인계하고 洪川으로 轉進하여 제2방어선을 구축하려 한다.

## ② 행군서열

㉑ 제1梯隊 : 제3대대(집결 및 出發地 : 西部洞)

㉒ 제2梯隊 : 제2대대(집결 및 出發地 : 鶴谷里)

㉓ 제3梯隊 : 제1대대(집결 및 出發地 : 鶴谷里)

㉔ 지휘부 : 제1대대 뒤에 위치.]

이리하여 연대는 春川에서 敵으로부터 離脫하여 洪川으로 赴援하였는데 연대장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回顧하였다.

『敵과는 10 : 1의 劣勢라 할지라도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싸울만 하였는데 戰車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2.36"Rocket포나 57mm 대전차포의 파괴력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洪川으로 가는 車中에서 고민끝에 얻어낸 結論이 겨우 肉迫공격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陸軍本部 정보보고에서 敵에게 戰車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平素부터 對戰車 공격을 위한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있었다. 다만, 우리에게 對戰車파괴 장비가 없어서 부하를 戰車앞에 내세웠다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는데 地形만 잘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았다. 사실상 이때의 상황은 百尺竿頭에 선 危機였던 것이다.』

## 2. 肉迫特攻隊의 編成

10.00에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는 敵과의 접촉을 끊고 西部洞(春川市 西端)에 집결한 다음 16.00에 정비 및 이동준비를 마치고 연대장 閔丙權 중령이 직접 지휘하여 車輛이동으로 19.30에 洪川國民學校 校庭에 이동하였다.

先發하였던 S-3 朴柱根 소령은 地形정찰결과를 연대장에게 보고하기를 『作命上에 지적한 지역은 방어선을 펼곳이 못되고 城山里 北쪽 말고개(城山里 東北쪽 2.5km)는 防者에 有利한 지형일 뿐더러 그 밑을 通過한 洪川街道는 車輛이 빗겨 나갈 수 없는 狹路인데다 S字形의 屈曲이 많고 그 右側은 斷崖를 이뤄 對戰車공격上의 要地 要部이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出發준비를 서두르는 연대본부 및 대대 앞으로 나가 『우리는 오늘을 위하여 닦은 戰技를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발휘할 때가 왔다. 우리 앞에 있는 敵의 戰車를 파괴할 勇士는 없는가?』라고 외치자 너도 나도 自願하는 병사가 30명 이상이나 나왔다.

피끓는 부하들의 呼應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었던 그는 未婚者와 無依托者, 獨子, 그리고 家庭環境上 必要한자를 제외하고 11명을 선발하였다.

寸刻을 지체할 수 없었던 緊迫한 상황 밑에서도 隊員들은 재차 舊日本軍出身 李澤圭 중사로부터 戰車에 대한 취약점과 파괴방법을 듣고 각자는 수류탄 2개와 안전핀을 뺀 81mm 박격포 1발씩을 갖고 연대수색대장 朴準秀 중위의 인솔下에 出動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장은 隊員들과 乾盃하는 자리에서 『다만 그대들의 성공을 빌 따름이다.』고 激勵하였다.

이윽고 特攻隊는 雨中을 뚫고 城山嶺 파출소에 이르러 下車한 다음 徒歩로 口的地인 말고개에 이르러 11명의 隊員은 2명이 1개조가 되어 말고개 頂點을 기점으로 하여 寒溪里쪽을 向하여 道路兩편에 10~20m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그러나 道路 兩쪽은 岩石일 뿐 아니라 左側은 絶壁이고 右側은 斷崖인 까닭으로 隱蔽한 곳이 없고 據를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露出된채 屍體를 假裝하여 누운 자세에서 敵의 戰車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敵戰車群의 殲滅戰에서 詳述)

### 3. 洪川地區로의 赴援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는 肉迫特攻隊의 出發에 이어 車輛으로 洪川國民學校를 뒤로 하고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22.00에 말고개에 이르러 道路를 기점으로 左側능선에 東으로부터 西로 제9, 제10, 제11중대 順으로 展開하고 敵營에 대비하였으나 이날 그들과의 接觸은 없었다.

한편 제1 및 제2 兩대대는 昭陽江南岸에서 제7연대의 左제1선(昭陽제2橋—槿花洞)을 形成하여 防守中 연대장 閔丙權 중령의 口頭命令으로 鶴谷里의 春川師範學校에 集結하게 되었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그 뒤에 사단장 金鍾五 대령으로부터 2개 중대를 제7연대에 배속하라는 명령에 따라 兩 대대에서 각각 1개 중대(제1 및 제5중대)를 殘置하였는데 兩 대대는 병력수습관계로 짐결이 늦어 18.00에 車輛으로 鶴谷里를 出發하여 洪川 西北쪽 3km인 덕고개에서 下車, 望嶺山에 이르기까지 扇形을 이루어 5번 道路(春川—洪川간)와 44번 道路(冠峯里—洪川간)의 交叉지점을 扼守하는 陣營을 갖추었다.

**6월 28일~29일** : 연대장 閔丙權 중령은 사단장의 口頭명令에 따라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를 말고개 東端에 配置케 하여 敵이 夜間침공을 기도할 때에는, 右側方으로의 침공에 대비케 하였으나 敵과의 접촉은 없었다. 한편 제2대대(—)(장, 崔錫洛 소령)는 5번 道路(春川—洪川간)와 44번 道路(冠峯里—洪川간) 사이로 接近하려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望嶺山(洪川 北쪽 3km)으로부터 △304에 이르는 稜線에 배치하였고, 제1대대(장, 崔柄猷 소령)는 제7연대의 철수를 대비하여 이를 엄호하기 위한 태세로써 5번 道路(春川—洪川간)를 中心으로 하여 △311로부터 △179간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兩 대대도 그들과 접

측은 없었다.

다음날 29일 09.00부터 제2연대에서는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斜射로써 同연대를 지원하다가 사단장으로부터 『연대는 現전지를 제2연대에 인계하고 主力은 橫城에 集結하는 한편 1개 대대로 하여금 三馬峙를 방수하여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팔고개를 방수하고 있던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는 제2연대와 교대한 다음 洪川으로, 그리고 제1 및 제2 兩대대는 덕고개에서 철수하여 각각 洪川國民學校에 集結하였다.

#### (라) 사단의 遲延戰(6.30~7.4)

北傀 제2군단은 春川에 이어 洪川을 手中에 넣자 계속 中央路를 따라 사단이 철수하는 後尾에 따라붙어 原州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제까지 遲滯하였던 侵攻速度를 만회하거나 하려는 듯이 예비로 控置하였던 제15사단을 原州에서 부터 分離시켜 陰城부근으로 南侵케 하는 同時에 春川戰鬪에 나섰던 제2사단을 利川으로 방향을 돌려 安城을 指向함으로써 敵의 3개 사단이 同列에서 我 사단의 正面으로 併侵하기에 이른다.

한편 사단은 春川 및 洪川戰鬪에 이어 계속 그들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好機가 捕捉될 때는 反轉逆擊으로 후려치니 7월 1일에는 神林고개(原州 東南쪽 1.5km)에서, 同월 2일에는 昆池岩里(利川 西北쪽 10km)에서, 그리고, 4일에는 屏岩里(陰城 西北쪽 13km)에서 각각 큰 戰果를 올리면서 敵의 戰意를 挫折시켜 忠州—陰城—鎭川線을 確保하게 된다.

그러나, 사단도 遲延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轉進目標의 決定을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즈음 陸軍本部 및 右翼 제8사단과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엉켰던 실마리가 풀려 나게 되었다. 먼저 그 緣由를 밝힌 다음에 각대의 遲延戰상황을 記述코자 한다.

##### 1. 사단장의 決心

北傀 제7사단(장, 奎宇 소장)은 洪川을 占據할때 까지 사단의 강력한 反擊에 부딪쳐 그때마다 致命的인 打撃을 받고서도 氣盡脈盡한 상태에서 車輛 120대에 分乘하여 철수하는 사단을 追尾하여 30일 07.00에 洪川으로 밀려들어 비로소 春川 및 冠岳里에서 分侵하였던 병력을 糾合하고 南下를 劃策하였다.

이즈음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通信이 두절되어 左右 隣接사단의 상황은 물론 陸軍本部의 움직임 조차 알수가 없어 作戰指導에 많은 難關을 안고 있었다.

다만 前日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과의 통화에서 中央線을 따라 遲延戰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土臺로 하여 앞으로의 計劃을 세울수 밖에 없었는데 어느線에서 防守해야 할지는 兩翼側사단의 撤收先이 杳然하여 概略의인 整齊線의 策定마저 至難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시라도 猶豫할 수는 없었다.

進退兩難에 汨沒하고 있을때 G-2 柳陽洙 중령은 右隣接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이 깎  
 들부근에 도달하고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漢水이남에서 戰鬪중이라고 보고 하였다.

사단장은 兩側背에 큰 虛空이 생겨 언제 敵으로 부터 側背에 대한 威脅이 있을지 예측  
 할 수가 없음을 판단하고 우선 그들의 強壓圈으로부터 벗어나 再補給으로 부대를 정비한  
 다음에 敵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遲延戰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09.00에 다음과 같은 要旨  
 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當面의 敵을 驅逐하고 현 접촉선으로부터 離脫하여 橫城에 선방어진지를 점  
 령하려 한다.

② 제2연대는 영거리(橫城 南쪽 6km)에 집결 하라.

③ 제7연대는 현 임무(主力은 華陽江 南岸방어, 1개 대대는 三馬峙 방어)를 계속하되 철  
 수時機에 關하여서는 別命한다.

④ 제19연대는 三馬峙의 방수임무를 제7연대에 인계하고 橫城에 집결하라.

⑤ 제16포병대대는 橫城으로 철수하라.』

## 2. 陸軍本部的 作戰方針

이날 02.00에 原州의 사단 指揮所로 急來한 陸軍本部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사단장에  
 게 『原州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右隣接 제8사단의 철수를 幷호하는 한편 1개 연대  
 를 利川으로 抽出(뒤에 陸本作命 제6호 50.6.30로 확인)하여 露出된 西側背의 間隙을 補填  
 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兵力抽出에 대하여는 異見이 없으나 현 戰鬪力로서는 原州를 支撐하  
 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原州방어의 불필요성과 이의 포기를 異議하였는데 결국은 三者(제8  
 사단장과 通話가 이루어짐)合議下에 사단主力은 忠州線으로 철수하고 일부의 병력으로 原  
 州에서 제8사단의 철수를 幷호기로 결정하였다.

이 作戰方針에 따라 사단장은 華陽江(洪川) 南岸에서 激戰中인 제7연대(장, 林富澤 중  
 령)에 즉각 敵과의 접촉을 끊고 原州로 철수토록 하는 한편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는  
 利川으로 轉進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사단은 原州로 부터 利川에 이르는 60km의 戰鬪區域  
 을 담당하게 되었다.

## 3. 神林 및 陰城地區 戰鬪(제7연대)

敵은 30일 07.00에 洪川에 들어서자마자 砲兵支援밑에 1개 대대규모로써 洪川橋를 넘어  
 南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陣前 200m 앞에까지 壓制할 수 있는 有利한 隘路인 △371 와  
 △481간을 扼守하고 있던 제1 및 근무兩대대는 敵主力을 至近距離까지 끌어들이고 揆  
 擊으로 殲滅하기로 協調하였는데 前哨로 나가 있던 潛伏組가 敵의 尖兵이 俗稱 장승백이  
 에 머리를 내밀자마자 사격을 加하게 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早期에 展開시키는 결과를  
 招來하여 이 計劃은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

彼我는 대치한 상태에서 치열한 사격전을 交換하고 있었는데 10시간이상의 休息으로 戰鬪力을 회복한 兩대대는 玉山浦 전투에서 보여준 강력한 反擊戰으로 別관에 捲어진 敵을 一擧에 무절려 潰退시키고 말았다.

연대가 谷地의 險목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들은 12.30에 연대의 側方을 노리고 1개대대규모를 束쪽 開運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 움직임을 △371에서 目撃한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이에 대한 對備策을 짜고 있었는데 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1개대대로 하여금 橫城부근에서 阻止戰을 펴고 主力을 神林으로 轉進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은 兩대대장을 불러 사단장의 意圖를 설명한 다음 先任인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에게 철수 指揮를 당부하고 그는 主力에 앞서 橫城으로 달렸다.

이곳에는 연대와 分離된채 加平전투에서 孤戰奮鬪하다가 淸平을 거쳐 방금 도착한 제3대대(통합지휘는 河相道 대위)가 隊伍를 가다듬고 本隊가 있는 洪川으로 出發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자리에서 연대장은 河相道 대위 이하 대대장병들의 戰功을 높이 致賀하는 한편 공석 중인 同 대대장에 帶同하였던 S-3 李南浩 소령으로 하여금 맡게하고 △162-△149간(橫城南쪽 1.5km)을 점령하여 방수진지를 굳혀 연대主力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명령하였다.

華陽江南岸에서 敵과 離脫한 兩대대와 三馬峙에 布陣하였던 제2대대는 이날 22.00 原州에 집결하고 배속되었던 제19연대 제1 및 제5兩 중대를 원대로 復歸초치하는 한편 전투대대에 比肩하리만큼 奮戰한 근무대대(장, 金根好 대위)를 解體하여 本然의 임무로 복귀시켰다.

제3대대의 包圍網突破 : 한편 俗稱 앞내물(橫城앞江) 南岸을 방수하던 제3대대(장, 李南浩 소령)는 철수하는 연대後尾가 대대앞을 通過한 뒤 間一髮의 사이를 두고 밀어 닦친 敵의 戰車群과 앞내물을 사이에 두고 攻防戰이 벌어 지다.

그들은 번번이 연대의 埋伏戰에 걸려 손실을 보게되자 正面으로 直衝하던 것을 피하는 것 같았으니 이번에는 交戰이 시작되기가 바쁘게 일단의 무리를 鶴谷里로 부터 蟾江의 左岸으로 침공시켜 衣冠里를 질러 대대는 또다시 敵中에서 孤立하기에 이르렀다.

대대장은 原州부근에서 요란스럽게 銃聲이 나자 대대가 이미 포위작전에 있음을 직감하고 연대에 확인하려 하였으나 通信이 두절되어 있었다.

대대장은 包圍網을 突破하기로 決心하였는데 原州로 直南下하는 突破는 無謀할 뿐 아니라 희생이 많을 것으로 推斷하고 敵影이 보이지 않는 虛弱한 東北쪽으로 逆進하였다가 敵情을 보아 山路를 따라 南下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帳幕을 친듯한 캄캄한 밤에 대대장이 先頭에 서서 東北進하여 俗稱 가라울(橫城 東쪽 8km)에 이르렀는데 縣里로 부터 내려오던 敵으로 추단되는 1개대대 규모와 遭遇하여 混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不規戰 끝에 그들을 격퇴하는데 奏功하였으나 深夜인 까닭에 대대도 일부병력이 分散되어 수습하지 못한채 主力은 山路로 南下하여 原州에서 연대와 合勢하였으나 제10중대장 河相道 대위 以下 일부병력은 忠州에서 合勢하게 되었다.

연대에서는 河相道 대위를 비롯한 소수의 병력이 戰死 또는 失蹤하였을 것으로 보고 S-1 趙鏞洛 대위로 하여금 陸軍本部에 日報報告토록 하였는데 부연대장 崔泳洙 중령은 『그는 이번 戰鬪보다 더 심하였던 加平戰鬪에서도 奮戰 끝에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서둘러서 失蹤으로 報告할 것이 아니라 좀더 기다리라.』는 意見을 내어서 보고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敵의 先鋒隊殲滅 : 연대는 原州에서 大략적인 準備을 마치고 7월 1일 아침에 同地를 출발하여 神林고개에 이르러 道路를 사이에 두고 제3대대(장, 李南浩 소령)는 右제1선이 되어 △564를, 그리고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는 左제1선이 되어 △818에 각각 방수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는 예비로하여 神林고개 南麓 3km에 控固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春川撤收이후 처음으로 全 연대가 함께 主抵抗線을 設게 되었다.

20.00, 해가 西山에 기울무렵에 前哨로부터 『敵의 장갑차 發見.』이라는 報告가 날아 들었다.

이즈음 연대장은 同고개 南麓의 어떤 農家에서 저녁을 들고 있다가 이 긴급보고를 접하고 즉각 57mm 對戰車砲 중대장 宋廣保 대위에게 迎擊態勢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고개로 올라갔다.

이때만 하더라도 병사들은 戰車만 보아도 달려들던 배이라 장갑차정도는 문제시도 하지 않고 그들의 접근을 기다렸다.

兩 대대장은 이번 만큼은 華陽江 南岸에서와 같은 失敗를 되풀이하여서는 않된다고 서로 굳게 다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發射信號가 없이는 사격치 말도록 嚴命하였다.

그들은 先頭에 Side Car를 내세워 놓고 장갑차가 뒤따르며 1개 중대규모의 敵兵이 이를 後續하였다.

이윽고 57mm 對戰車砲는 前方 200m에 近接하였을 때 砲門을 열어 先頭의 Side Car를 박살냄과 동시에 兩高地에서 一齊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죽음의 도가니속에서 몸부림치는 醜敵들은 사격방향을 잃고 左衝右突하는 동안에 빗발 같은 銃砲彈은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꿰고 나가니 布袋안에 든 쥐 格으로 두들겨 잡아 全滅시켜 버렸다.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때마침 연대를 방문한 헌병부장 曷赫煥 소령과 함께 現場으로 나가 파괴된 Side Car 3대 및 장갑차 2대 그리고 쓰러진 敵의 屍體 150具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刹那에 曷소령이 流彈으로 팔에 貫通傷을 입었다.

이날밤에 敵은 산발적으로 침공을 기도하였으나 이를 陣前에서 격퇴하고 7월 2일 05.00에 제8사단 제10연대(장, 高根弘 중령)가 神林으로 進入함으로써 現진지를 同연대에 인계하고 列車이동으로 丹陽에 이르렀는데 忠州線에서 敵을 阻止하라는 사단장의 口頭命에 의거 그 길로 忠州로 直行하여 이곳 忠州中學校에서 再편성하게 되었다.

#### 4. 忠州西側地區 戰鬪

사단장은 同월 3일에 있는 利川戰鬪에서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의 戰勢가 불리하여 安城으로 철수함으로써 사단中央에 40km의 間隙이 생기게 되자 이를 우려한 그는 이날 20.00에 5연대는 7월 4일 08.00를 期하여 主力으로써 陰城을 거쳐 無極里로 躍進하여 南下하는 敵을 阻止擊滅하고, 1개 대대로써 屏岩里로 直衝시켜 迂回하는 敵을 擊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제2대대로 하여금 屏岩里로 直進토록 하는 한편 제3대대는 陰城으로 迂回시켜 屏岩里부근에서 지대내의 敵을 挾擊토록 하고, 제1대대는 예비로 控置하였다.

각 대대는 同월 4일 08.00에 忠州를 출발하여 삼거리(忠州 西쪽 10km)에서 分進한 다음 각각 目標를 향하여 躍進하였다.

제2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10.00에 同樂里에 이르렀을 무렵 毛陶院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南下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를 道路兩쪽의 稜線으로 展開시켜 交戰數合에 그들을 一蹴하고 追擊戰을 벌였다.

그러하여 退却하는 敵을 追尾하여 西進中 19.30 毛南里(屏岩里 東南 4km)에 1개 연대로 추산되는 敵이 南侵하고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자 同樂里로 물러나 급편진지를 점령하고 그들의 침투에 대비하였다.

연대장은 敵 1개 연대규모가 東進中이며 忠州를 겨냥한 것 같다는 보고를 접하고 예비로 控置한 제1대대(장, 金龍培 소령)를 急速 車輛이동으로 赴援키로 하고 이날 21.00에 忠州를 出發시키는 한편 제3대대(장, 李南浩 소령)에게는 屏岩里로 北上하라고 명령하였다. 즉, 그는 屏岩里부근에서 敵을 包圍擊滅하려는 것이었다.

#### 5. 利川地區 戰鬪(제19연대)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는 橫城에 集結하여 休息할 사이도 없이 6월 30일 13.00에 사단장으로부터 利川으로 轉進하여 敵의 南侵을 阻止하라는 명령에 따라 잠시 原州에 머물면서 제7연대에 배속하였던 제1 및 제5중대를 다시 복귀조치하는 한편 연대보급창고를 열고 충분한 보급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節約하고 또 節約하면서 地下에 숨겨 貯藏하였던 前述한바 揮發油 50D/M는 輸送관계로 포기하고 말았다.

연대는 列車便으로 忠州에 到着한 다음 車輛과 徒歩이동으로 利川으로 進進하여 7월 1일 24.00 利川 △194(昆池岩里 南쪽 0.5km)간에 東에서 西로 제1, 제2, 제3대대順으로

陣地를 占領케 하고 春川으로부터 南下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敵 제2사단의 침공을 阻止하기 위하여 철야로 陣지구축에 拍車를 넣었다.

敵 補給부대의 殲滅: 同월 2일 07.00에 제3대대 제10중대(장, 金斗遠 대위)는 계속된 行軍과 철야에 걸친 진지공사로 피곤에 지쳐 잠시 쉬고 있을 때 바로 밑에 昆池岾를 건너 리에는 牛馬車에 補給品을 가득히 실은 1개 중대규모의 敵이 北쪽으로 올라가다가 경비병도 세우지 않고 休息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행동을 △194에서 口擊한 중대장 金斗遠 대위는 『오랜만에 敵과 만난 것은 반가우나 어디에서 이따위 보급부대를 만나게 되었느냐. 그러나 닭잡는데도 소잡는 칼을 휘둘러야지.』하고 2개 소대로써 완전히 포위한 다음 脫走가 예상되는 道路에는 특히 병력을 두텁게 배치하였다.

이윽고 중대장 金대위의 사격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중대의 기습에 놀라 民家에서 뛰어나와 逃避하려 하였으나 四面楚歌격인데다 중대는 위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盲目사격을 일삼다가 교전 數分만에 全滅하고 말았다.

이 기습전에서 사살 100명(확인), 포로 5명, 牛, 馬 40匹(牛馬車포함) HMG 15정 및 同發彈 40상자, 122mm 야포탄 500발의 戰果를 올렸으며 중대의 손실은 없었다.

이로부터 2시간 뒤에 右側1선의 제1대대는 2개 대대규모의 敵과 龜河川(利川 北쪽 3km에, 東西로 흐르는 냇가)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交戰을 벌였다.

敵은 행군대열을 짓고 남하하다가 대대의 기습에 봉착하여 散開도중에 粉碎되어 潰退하였으니 累累한 敵屍는 利川벌을 메웠다.

이로부터 그들은 數次에 걸쳐 探索戰을 벌였으나 失敗하고 대치상태에 있었다.

7월 3일 未明에 그들은 大口徑砲를 들이대고 一齊히 砲擊을 加하면서 1개 연대규모가 狂波를 일으키고 제1대대에 엄습하기에 이룸으로써 그 壓力을 支撐하지 못하고 물러서기 시작하였는데 이즈음 사단장은 同연대를 奮發으로 轉進시켜 사단의 제2선을 굳히기로 결심하고 『연대는 敵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鎭川으로 철수하여 待命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대는 그들과 逐次 지연전을 벌이면서 4일 12.00에 安城을 거쳐 險城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 6. 南漢江 南岸의 防守(제2연대)

6월 30일 아침에 제2연대(장, 威炳善 대령)는 洪川으로부터 영거리(橫城 南쪽 6km)에 접결하여 再편성중 이날 13.00에 사단장으로부터 『忠州로 철수하여 南漢江 南岸을 방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車輛으로 이동하여 20.00에 忠州에 도착하자 『洞橋—牧杏橋간의 직선거리 3km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때에 연대의 임무는 驍州 및 神林사이로 침투가 예상되는 敵을 阻止하는 한편 空虛한

사단의 右側方을 경계하는 것이었으나 7월 5일 同地를 철수할 때까지 큰 접촉은 없었다.

### ㄱ. 포병대대의 상황

대대(장, 金 鏞 소령)는 6월 30일 06.00에 제7연대주력이 華陽江 南岸에서 제2연대의 철수를 일호할 때에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로 하여금 직접 지원토록 하였으나 사단의 兩側面(右는 平昌 및 左는 楊平)으로 威脅하는 敵에 의하여 언제 철수로가 차단될지 모르는 현 실태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하에 橫城으로 철수하여 該地에서 비로스 3개 포대가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13.00에 사단장으로부터 神林고개를 防수할 제7연대를 支援하라는 口頭 명령에 따라 同연대의 이동에 한발 앞서 神林으로 直行하여 3개 포대를 放列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인 7월 1일 20.00 敵이 Side Car와 장갑차를 先頭로 1개 중대 규모가 침공하고 있다는 觀察장교의 보고를 접하고 步砲協同으로 이를 全滅하고(제7연대의 상황에서 詳述) 同월 2일 05.00 제7연대가 忠州로 이동할 때 車輛으로 該地에 도착하여 4일까지 부대정비에 注力하였는데 큰 戰鬪의 支援는 없었다.

### ㄴ.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5일간에 걸친 春川 및 洪川 東北地區의 線戰과 이에 이은 4일간의 遲延戰에서 그들의 제2군단에게 殲滅的인 打撃을 줌으로써 그들이 企圖하였던 速戰即決의 妄想은 송두리채 뒤집어 놓고 말았다.

더우기, 사단이 保有하고 있는 對戰車火器가 無力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肉迫戰으로 그들의 戰車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特筆大書할만한 사실이었다.

이번 戰鬪에서 사단이 勝戰鼓를 울릴수 있었던 주요 動機로서는 각 연대가 38°線상에서의 衝突을 통한 전투와 후방지역에서의 共匪擊滅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얼마간의 전투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병사들의 자질이 우수하였던 것이며, 특히 병력 및 장비가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河川線방어와 山岳지리의 지형을 최대로 이용하여 防禦의 主導權을 掌握한데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敵은 高地帶로 迂回공격을 하지 않고 正面道路를 따라 正面突破를 시도 하였으나 그 한 例가 春川地區戰鬪에서 闊綽한 보리밭으로 蟻集함으로써 포병의 좋은 目標物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正面에서 침공을 꺾어버리다가 제2사단이 瓦解되고 제7사단을 轉用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또 한가지는 事實報道하던 제17연대의 海州占領 및 제7사단의 議政府奪還과 北進中이라는 報道는 사단 장병들에게 士氣를 고취시키는 淸涼劑가 되기도 하였으니 陣地를 固守하고 이어서 38°線으로 反擊하여 北上하고자 昭陽橋까지 爆發하지 않고 戰鬪를 挽回하려 한 점이다.

비록 戰勢는 逆轉되었지만 昭陽江 北岸일대에는 그들의 屍體가 山積하여 敵의 戰車機動이 여의치 않아 江속에 쓸어넣었는가 하면 끝내는 無限軌道로써 갈아통기고 넘어와 渡江하였으니 激戰을 상상할 수가 있고 敵의 손실이 막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作戰期間中을 통하여 사단은 陸軍本部와의 通信이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全體的인 戰況을 파악할 수 없어 作戰指導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豫하 부대에서 通신폰선의 부족으로 심지어 洪川에서는 靑信부의 靑信線을 부대별로 할당하여 유선통화를 하여 中평을 모면하는등 가장 困難한 것이 通信문제였다.

한편 北進 제2군단은 서울출발에 집착한 나머지 제7사단을 洪川 東北쪽에서 逆轉시켜 洪川으로의 침공이 지연되고 군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한데다 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에 불려 그들 戰車의 衝擊力은 사라지고 追尾에 불과 하였으며, 또한 側方打撃이나 迂回追擊에 失敗함으로써 사단 戰鬪能力의 회복이 여상의로 빨랐던 것이다.

어떻든 사단은 전사있는 運送戰으로 期間中에 忠州를 占據하여 我軍을 東西로 兩斷하려던 그들의 企圖를 露散시키는데 奏功하였던 것이다.

그들 魁首들은 이와같은 作戰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물어 軍團長 金光俠 소장을 解任하고 그 後任으로 金武亭 중장을 임명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7월 초에 제2사단장 李靑松 소장은 崔賢 소장으로, 제7사단장 全宰 소장은 崔忠國 소장으로 각각 交替되었고, 7월 3일에는 제7사단을 제12사단으로 개칭하여 散戰의 汚辱을 씻으려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이 어찌 제6사단 장병들의 奮戰의 結果가 아니겠는가.

그들 자신이 제6사단 특히 제7연대의 奮戰앞에 부릅눈 꿇고 『春川마뉘』라고까지 別名을 붙이게 된 것도 이를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다.

期間中 사단이 집계한 戰果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 및 부상	포 로	전차 및 SU-76차주포	장갑차	Side Car	45mm 반전차포	박격포	HMG
6,792	122	18	2	3	2	8	15

※ 牛馬車, 彈藥, 小銃類 및 補給品은 제외

**損 失**

전 사	부 상	실 증	57mm 대전차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2.36" Rocket포	Cal 50	H H G	L M G
200 (8)	353 (27)	1,299	2	5	11	30	4	7	8

※ ( ) 內는 장교며, 失蹤者는 대부분 복귀됨

※ 소총류 제외

**§ 參戰者의 證言**

◇ 제7연대 S-3 李南浩 소령

(1977. 7. 10 戰史編纂委員會에서, 豫대령)

6월 25일 04.00에 前方의 자 대대로 부터 『敵大擧侵攻』이라는 상황보고가 계속 날다 들었다.

나는 그동안에 敵의 徵候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그들이 南侵을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집을 나서는데 갖가지 눈치 채고 불안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나는 『연대에 나가 보아야겠오.』라

고 한마디 남기고 나왔는데 이날 저녁에 잠깐 들렸더니 生後 20일 밖에 안되는 長男을 업고 어딘가 가고 없었다.

뒤에 알았지만 이날 어딘지도 모를 산골짜기로 피난갔었다고 하였다.

나는 즉각 春川驛에 연락하여 장병의 휴가, 의출을 중지시키고 機動力확보를 위하여 獨斷으로 民間車輛의 동원을 서둘렀는데 당시 연대본부에는 古裝에 가까운 車輛 10대 밖에 없었다.

처음 참하는 큰 戰鬪였기 때문에 연대장을 비롯하여 當황하는 表情이 懸懸하였으며 두엇부터 손을 써야할지 몰랐다.

그러나 제1대대를 昭陽江 北岸으로 赴設시키  
고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때 放送에서는 『제17연대는 沙里院을 占領  
하였다. 海州를 占領하였다.』 하여 우리만 形便  
없는 연대가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서로 激動하  
면서 싸웠다.

#### ◇ 제19연대 S-3 朴柱根 소령

(1975. 12. 10 海南빌딩에서, 豫 대령)

우리는 사단의 예비연대였는데 1950년 6월 10  
일에 각대대 S-3와 함께 처음으로 淸川의 제7연  
대 正面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開戰과 동시에 연대를 投入하  
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예비연대이기 때문에 開戰 情報도 늦  
게 傳達되었으며 답답하여 이날(25인) 07. 30에  
사단 사령부로 달려갔더니 同 G-3보좌관 朴昌源  
소령이 『알리 淸川으로 出動할 준비를 갖추라』는  
口頭命令을 받고 즉각 연대지휘부를 이끌고 淸  
川으로 가서 제7연대 지휘소와 합동으로 있게 되  
었다.

이때 제3대대는 車輛에 의하여 淸川으로 갔으  
나 제1및 제2 兩대대는 車輛이 부족하여 부득이  
列車편으로 서울을 거쳐 淸川으로 갔다.

말고개 戰鬪때의 부대배치에 대하여 나는 確  
言할수 있는데 우리 연대가 同 고개의 右側으로  
배치되었고 제2대대는 우리 연대의 左側으로 連  
繫하고 있었다.

이 事實을 내가 確實히 記憶하는 것은 그때  
우리 연대 바로 左側의 제2연대 중대장이 李某  
대위인데 나하고 同期生이고 日軍出身 吳巨均의  
妻男이었고 생각이 불순한 者였기 때문에 잘 알  
고 있다.

#### ◇ 제2연대 보급관 金世教 중위

(1966. 7. 15 제1군사령부에서, 준장)

1950년 6월 14일에 연대先發隊로 洪川에 들  
어가 施設과 일부 補給品을 준비하고 다시 原州  
로 돌아가 同月 23일에 서울로 出張갔다가 戰爭  
을 맞이하였다.

이날 11.00에 방송으로 戰爭이 난 것을 알고  
비행기로 原隊에 돌아갈수 있을까하고 汝矣島

로 가다가 中途에서 敵機 4臺가 同 비행장을 爆  
擊하고 있음을 보았다. 마침 이때 옆에 있던 空  
軍의 金貞烈 준장에게 『空軍은 무엇하는 것입니  
까? 올라가서 떨어뜨려야지요.』하고 말하였더  
니 그는 『建國號 가지고 저놈을 상대할 수 있느  
냐?』고 한탄 하고 있었다.

淸涼里에서 列車로 楊平에 이르러 연대車輛을  
만나 副食을 購買하여 26일에 自隱里로 들어 갔  
다.

그후 말고개에서 激戰이 벌어졌는데 勞務者를  
동원하여 주먹밥에 깨소금을 발라 지급하고 일  
부는 同 고개의 길가에 쭉 놓고 병사들이 먹도  
록 하였다.

사실상 나는 그때부터 연대보급관이란 본연의  
임무를 떠나 병력수습하는데 더 注力하였다. 왜  
냐하면 補給支援을 위한 車輛支援이 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연대는 洪川 이후부터 忠州까지 한번도 戰鬪  
가 없었고 이곳 忠州에서 南漢江의 南岸을 5~6  
일간 방수하다가 永安堡로 빠졌다.

#### ◇ 제16포병대대 부대대장 梁遠燮 대위

(1964. 8. 25 제1군 情報參謀室에서, 준장)

우리의 砲는 射程이 짧아 거의 步兵과 같은 위  
치에서 火力支援을 하였기 때문에 正確한 사격  
을 할수 있었다. 또한 步兵지휘관들이 포병관측  
장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協調해준 덕분으로 그  
많은 成果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이때만 하여도 어떤 사단에서는 포병의 운용  
원칙을 몰라 山頂에 울터 놓고 直射를 하라는  
일까지 있었으니 될 일인가?

이 戰鬪에서 敵의 포병은 主로 우리의 後方길  
속히 擾亂사격에 중점을 둔것 같은데 내가 볼때  
에는 그들의 步砲協同은 시원치 않았다고 보았  
다.

#### ◇ 洪川郡 內務課長(當時) 李章鎭

(1977. 7. 1 洪川邑 希望里 白宅에서)

6월25일에 38°線에서 戰鬪가 벌어지자 年前  
新南事件때 北傀軍의 만행을 눈여겨본 住民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南下하여 洪川은 피난민으  
로 洪水를 이루었다.

나는 이들의 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하여 江原道廳에 피난민 救護食糧을 要請하였더니 道廳에서는 全面戰爭이 터졌으니 郡에 備置한 食糧으로 代替하라고 하여 그대로 실행하였다.

26일에는 道에서 연락오기불 美軍爆撃機가 戰線을 폭격하니 집집마다 太極旗를 달라고 하여 이를 받고 피난도 안갔는데 폭격은 없었다.

29일 06.00 北傀의 平壤放送은 洪川을 占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郡廳을 固守하고 있던 郡守는 『나는 두개의 郡守職(韓國과 北傀의 뜻)을 맡았군』하고 말한 것도 있었는데 郡守와 同郡의 경찰서장은 郡民의 철수를 指導하고 29일 부터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一切의 문서를 소각하고 동월 23.30에 洪川을 떠났다.

#### ◇ 沈基淵(沈鑑소위의 父親)

(1977.7.2 江原道 原州市 鶴城洞 自宅에서)

家兒는 入隊前에 서울大學校 師範대학을 2년 중퇴하였다.

어렸을 때도 좀 엉뚱한데가 있었는데 6살때 國民學校에 다니는 이종사촌에게 수박을 주어 씨까지 먹게 한 다음 『너는 씨까지 먹었으니 씨가 자라서 머리끝으로 나온다』고 골려준 일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軍隊에 入隊한다고 얘기하기에 『왜 教育者가 된다더니 포기하느냐』고 물었더니 『男子는 艱難하게 살아야 할터인데 38°線이 있고 共產黨이 北韓에 있는 한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때문에 學業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잡는 것이 先務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므로 나는 그의 決心을 기쁘게 생각하고 승락하였다. 이때 나는 家兒에게 『入隊하고 3년간은 營內에서 살라』는 다짐을 하였는데 家兒는 任官後에도 그것을 지켜 한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그후 1951년인가 생각되지만 釜山에서 피난생활을 할때 어떤날 한 장교와 사병이 찾아왔기에 이들을 따라가서 李承晚 대통령으로부터 太極武功勳章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비로소 子息이 敵 戰車를 파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번은 제6사단이 北進하면서 原州에 있던 나를 찾아 왔으나 『내 아들만 만나서 되겠느냐?』고 만나주지 않았으며 그 部隊는 그대로 北進하였다.

## § 戰 訓

### (1) 兵力의 分割배치에 대하여

제7연대 세3대대는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5번 道路(尙川—春川間)를 포함하여 東쪽은 同대대 제9중대를, 그리고 西쪽은 同대대 제10중대를 각각 分割배치함으로써 兵力의 集中사용에 慮點을 露呈하였다.

이미 사단 및 연대에서는 敵의 主力이 春川으로 指向할 것이며 특히 接近이 용이한 5번 道路를 擇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同道路에 沿하여 龍山里—正山浦間에 도합 5개소에 이르는 縱深진지를 구축하고 또한 제16포병대대를 該地區에 集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要域을 專擅한 同 대대에게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兩分하여 配置함으로써 戰術에 戰鬪力을 發揮하지 못한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徒涉不可能한 河川을 境界로 하여 대대를 分割配置함으로써 兵力의 集中應用과 統合指揮가 困難케 되어 早期에 要地를 喪失케된 戰鬪를 남겼다.

### (2) 指揮官의 빈번한 交代에 대하여

進襲, 제2연대는 開戰初에 제1대대장을 세 번이나 交代시켰다.

즉, 開戰당시의 대대장이었던 金秉顯 소령을 戰爭발발 2시간 만에 朴魯圭 중령으로 交代시켰고, 또한 이날 23.00에는 步兵學校(被고육중)에서 돌아온 金柱亨 소령으로 하여금 同대대를 지휘케 하여 다음날 06.00에 있을 交際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런한 措置로 인하여 上下間에 生疎感이 생기고 指揮上의 不利를 自招하였던 것이다.

예컨 들면 당시 交戰하였던 同 대대장명들은 『時間마다 대대장이 바뀌었다』고 述懐하고 소대 및 중대장들도 面談에서 『누가 대대를 指揮하였는지 대대장의 官等姓名을 아는자가 없었다.』고 立證하고 있다.

때문에 渡江中에 말(馬)을 바꿔타는 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일단 지휘관으로 選定한 이상

은 有故時 또는 어느 기간동안의 能力평가결과에 따라 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 (3) 戰鬪員의 給養에 대하여

이번 戰鬪를 통하여 장병들은 한결같이 給養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現象은 예비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대, 대대의 統籌취사로부딪기 갑자기 소부대 단위로 취사로 分離하게 되면서 일어난다고 있다.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제19연대에서는 3食分の 乾糧을 지급하였으나 병사들은 移動간에 間食用으로 消費하였을 뿐만 아니라 戰鬪地域이 喪失한 관계로 春川市民의 도움도 못받고 3~4食 缺食하는 결과를 빚었다. 또 제2연대에서는 應急對策으로 自隱里(洪川 東北쪽 20km)의 道路邊에 놓고 飢餓중인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支給하였으나, 이 또한 一部 少數병력에 대한 給食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은 缺食문제에 대한 主因을 分析하여 보면 ① 소단위부대에 대해 독립취사를 할수있는 器財의 준비와 취사훈련이 되어있지 않았고, (대부분 出動時 單獨武裝을 하였기 때문에 個人用 食事用具인 飯盆도 지참치 않았음) ② 통신 및 연락이 끊겨 부대의 소재를 파악치 못하여 추진 보급의 길마저 막혔던 것이며 ③ 지휘관의 두관실과 行政要員을 實戰에 투입한 사실은 給食지원에 더욱더 混亂을 이르게 하였다.

제2차 世界大戰때의 英雄 Archbalt Wevel이 「先 給養, 後 戰鬪」이라고 말한것은 理正있는 것이다.

## § 研 究

### (1) 戰鬪諜報의 收集문제

6월 27일, 사단장은 사단主力을 昭陽江 南岸으로 끌어들여 階地占領을 마치고 제7연대 單獨으로 능히 당면한 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洪川地區의 戰況을 우려한 나머지 激戰中인 제19연대 및 砲兵의 주력을 그곳으로 派兵시켰다.

그러나 공포관계로 北僞 제2군단은 이와 反對

로 洪川地區에서 2개연대를 뽑아 春川으로 投入하여 2개사단의 병력으로 이날 아침부터 總공세를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春川地區에서는 火力은 고사하고 5:1의 劣勢한 兵力으로 싸우다가 끝내는 春川을 내어놓게 되고 또 洪川地區에서는 피아 1:1의 比等한 戰力으로 膠着상태에 빠지고, 제19연대는 이를 趁機코자 總일 行軍함으로써 어느 地區에도 쓸모 없는 遊兵이 되고 말았다.

제2연대 S-2 宋大原 소령은 開戰이후 敵情에 대하여 全然 알수 없었다고 實吐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모든 記錄을 보아도 그렇거니와 사단의 정보입부가 얼마나 虛點을 드러냈는가를 알수 있다.

威力探索을 강화하여 포로의 획득과 敵文書의 分析, 그리고 획득한 포로에 대한 심문을 체계 있게 하였다면 그들 大兵力의 이동에 대한 敵情 파악으로 이에 對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제19연대의 轉用을 中斷하고 제7연대와 協同作戰을 꾀는 한편 제2연대로 하여금 反擊을 시도하였다면 兩地區의 戰況은 달라졌을 것이다.

정보는 作戰의 耳目이므로 一元化되어야 하여 斷絶되어서는 안된다.

### (2) 예비대 運用문제

戰前 作戰指導方針에서 예비연대는 集中키로 되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開戰과 동시에 예비인 제19연대는 分割使用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作戰실시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 첫째가 昭陽江北岸으로 派入한 제19연대 제2대대를 공격중인 제7연대 제1대대의 엄호부대로 운용하였고 그 다음은 제19연대 제3대대를 敵影도 없는 錦山(北漢江 西岸)으로 보내 遊兵化하였던 것이다.

첫째에 있어서는 제7 및 제19 兩연대장간에 「매속이다」 「아니다」라고 지휘에 混亂을 가져왔다고 證言하고 있는 바와같이 混戰과 亂戰으로 미로에 저침 제7연대 제1대대를 現 陣地에서 엄호하도록 하고 新銳인 제19연대 主力으로 하여금 單一 指揮官 밑에 超越공격 내지는 昭陽江의 北岸을 專斷시켰다면 이러한 難點의 해소는 물론 戰鬪力發揮에도 協同하였을 것이다.



다음, 逆襲方面이나 投入兵力規模에 다소 差異는 있겠으나 제7연대 제3대대는 北漢江 西岸을 따라 母津橋부근까지 이르러 咫尺之間에 集結한 그들의 병력과 砲를 散列하고 射擊하는 光景을 보면서도 撤收命令에 따라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萬一 이때 戰前에 차여진 逆襲제1안(古呑으로 迂回躍進)을 발동하여 母津橋로 道渡江한 다음 古呑으로 躍出하였다면 그들의 主補給路의 차단은 물론이려니와 제7연대와와 協同作戰으로 능히 敵을 包圍擊破할 公算도 컸던 것이다.

이즈음 玉山浦에서는 제7연대 제1대대가 單獨으로 그들의 大部에게 正面으로 맞서 擊破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제3대대로 하여금 그들의 中腹部나 背後를 강타하기는 힘들다고만 할수 없었던 것이다.

즉, 예비대는 敵을 阻止하는데 籠絡策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訪查가 主導權을 可靠보함에 기초를 두고 어디까지나 主導的으로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 (3) 제19연대의 增援與否 문제

제19연대가 洪川北쪽 밭고개에서 苦戰중인 제2연대를 增援하기 위하여 春川으로부터 洪川으로 移動하게된 經緯에 대하여 甞날 이곳의 配置 문제를 놓고 兩연대가 모두 相對편의 연대의 配置를 否認하고 있는데 參戰者の 證言을 上으로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연대側の 證言: ① 우리는 제19연대와 協同作戰인가 하였다. (부연대장 金斗逸 중령) ② 29일 10.00에 城山里 냇가에서 병력을 그 부근에 集結시키고 지형정찰을 하기 위하여 왔다는 제19연대 제1대대장을 만났다. (제1대대장 金桂亨 소령) ③ 우리 右側에는 제19연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제2대대장 文正植 소령) ④ 우리 戰野地域인데 兩연대가 들어올수 있겠는가, 만일에 들어왔다면 상대방 연대장과 人事라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연대장 成炳善 대령)

제19연대側の 證言: ① 우리중대가 올라가 보니 제2연대 병력 100여명이 있었는데 우리와 混입이 되어 있었다.

이때 병력배치를 놓고 제2연대 제1대대장 朴某 중령과 우리 대대장이 말다툼 끝에 兩대대는 우리 左側을 맡았다. (제10중대장 金斗逸 대위) ② 日時는 기억에 없는데 城山里 부근에서 제2연대장을 만났더니 너의 대대는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서 격려하였고, 제12중대장 成炳善 대위가 여기서 戰死하였다. (제3대대장 金漢德 소령) ③ 우리 제9중대는 대대의 左제1선에서 道路를 扼守하였다. (제9중대장 대령 黃漢詰 소위) ④ 28일 03.00에 兩연대가 서로 誤認하고 사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마침 나는 觀측용 有線을 끌고 가서 비로소 이를 확인하고 兩연대의 교전을 말한 일이 있다(제16포병대대 제3포대장 鄭五敬 중위) ⑤ 城山과 春川 앞에서 제2연대장을 만나 『연대장님이 추천하여 임관한 朴準秀 중위입니다. 지금 特設隊를 이끌고 갑니다』고 人事드렸더니 “수고해”하고 격려하여 주었다. (연대 수색대장 朴準秀 중위)

이와같은 混亂은 戰場에서 흔히 惹起되는 일로써 兩연대가 말고개 언덕에서 함께 戰蹟을 하였음은 作命으로 보아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다만 제19연대 S-3 朴桂根 소령이 現在에 地形 偵察차 갔을때 鎭野와 鎭山 濃霧로 인한 鎭野의 제한으로 찾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被지된 부대장 成炳善 대령을 만나서 彼我의 상황을 교환하고 대대를 誘導하였다면 이러한 混線은 및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壁上加霜으로 비다가 進入할 무렵에는 제2연대 제1대대가 다음날인 28일 未明에 反擊을 앞두고 出擊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였으므로 옆에 누가 오고 갔는지 雙方이 모두 알기 힘들었을 것으로 推想된다.

제19연대장 閔右權 중령도 該지역에서는 他연대의 병력을 볼 수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이곳 地形은 主後線에 構構을 이룬 支後線이 數없이 많기 때문에 誤認하여 말하기는 힘들다고 부인하고 있다.

### (4) 通信疎通의 문제

이런 戰蹟에서 結局같이 敵의 포탄 몇발에 通

행이 두절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휘는 마비되고 몇개의 부대는 孤立無援의 상태에 있다가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면서 脫出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加平戰鬪에서의 제7연대 제3대대와 縣里戰鬪에서 離脫한 제2연대 제9중대, 城山戰鬪에서의 제2연대 제11중대, 昭陽江 北岸戰鬪에서 제19연대 제5중대, 橫城 南쪽戰鬪에서의 제7연대 제3대대 등이다.

비록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側方사단 및 육군본부와의 連絡杜絶로 作戰指導에 차질을 가져왔음은 本文에서 밝힌것이나 中樞神經이 끊어지면 그 밑 部分이 마비된다는 것은 어떤 組織이나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어느 戰線이고간에 防禦初期에는 견고한 陣地에 器材를 두고 保管하거나 地上과 地下로 有線을 가설하여 완벽한듯 하나 일단 戰況이 好惡으로 前進 後退를 하게되면 그 時刻부터 이 問題가 되풀이 된다.

이번 戰鬪에서도 例外가 아니며 陣地를 決死 固守한 예는 많이 있어도 연락을 위하여 決死를 다짐한 예, 즉, 고립(포위)된 부대에 철수할 연락한다던가, 또는 측방사단에 決死의 法行으로 往來하여 정보를 교환한 기록 및 증언이 없음을 볼때 不通이면 百方手段으로 通하도록 개척하는 정신이 아쉽다.

#### (5) 敵 戰車 파괴 臺數의 문제

洪川北쪽 말고개 戰鬪에서의 敵 戰車 파괴 臺數를 確認하기 위하여 本 委員會에서는 그 現場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그들은 이 戰鬪에서 戰車승무원으로 死亡한 24명의 시체를 洪川郡 化村面 酒飲峙里 561번지(先頭戰車가 파괴된 위치로부터 東쪽 30m)에 묻고 그 墓群에는 少佐 또는 大尉로 표시하였는데 이로부터 그들의 軍官이 많이 損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當時 洪川郡 內務課長 李章鎬는 그들의 屍體로부터 가져왔다는 炭色종이에 『南韓 解放戰線參戰紀念章』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였다.

戰車파괴 臺數에 대하여는 자자마다 구구하나 現地住民과 面談한 結果를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추리된다.

즉, 北傀의 T-34 戰車는 승무원이 5명, SU-76 自走砲는 4명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매장수 24명과 비추어 볼때, 최소 6대의 戰車는 파괴되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戰後까지 放置하여 있던 戰車의 대수는 6대였다.

그러나, 北傀는 말고개 戰鬪가 끝나자 사용할 수 있을만한 戰車 5~6대를 陣地에서 수거하여 後送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臺數는 알수 없으나 大略 11~12대가 파괴내지는 파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春川市民的 疎開문제

사단장은 春川을 固守하겠다고 市民들에게 마라 約束하였다. 그러나 開戰初日부터 市内에 敵의 포탄이 떨어져 市民들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참을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곧 反學할 것이라는 希望으로 피난을 앓고 참았다.

그러나 26日에는 더욱 戰鬪가 치열하여져 道知事와 警察局長이 洪川으로 撤收하게 되자 各機關과 市民들이 그 뒤를 따라 避難하려고 騷動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론 사단장以下 장병들은 春川을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大部分의 市民들은 作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이 騷動을 막기 위하여 戒嚴司令官으로서 헌병부장 鄭剛 소령으로 하여금 道知事와 警察局長을 洪川에 가서 다시 春川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市民들의 浮動한 心理를 鎮靜시킬수가 있었다.

그러나 問題는 軍官民協同으로 春川을 固守한다 하여도 非戰鬪員은 事前에 安全地帶로 일단 피난시켰어야 할 것이다.

戰勢가 惡化하자 한번의 市街戰도 하지 않고 軍이 먼저 後退하는 모습을 市民들 앞에 露呈하였다는 것은 作戰上的 요구라 할지라도 市民들에게 적지 않은 不信과 疑惑을 주었을 것이다.

報道에 있어서도 危險은 危險대로 市民들에게 사실을 正確하게 報道하고 啓蒙하는 것이 國民들로 하여금 軍을 信賴케하는 捷徑임은 再論할 여지가 없다.

## (7) 軍人家族의 疎隔문제

이 문제를 놓고 一部에서는 軍의 上級을 위하여 優先的으로 後送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단作命 제42호 50.5.18에 따른 行政命令 제4호(50.6.9) 5項人事 (사) 民事軍政에 기록된 기록

『① 敵이 我主抵抗線侵入이 예상될 때에는 住民철수를 실시한다.

② 各地區 住民철수에 대한 責任者는 該地區 連(連)에 부관임(以上) 撤收장교, 守繼지역, 引繼官, 住民集結場所, 住民撤收確證 발행은 省略』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軍人家族撤收에 대하여는 應及될바 없으며 住民들과 같이 철수케 되어 있었던 것이니 이번 戰鬪에도 軍人家族이라고 하여 별도로 후송한 事實은 없다.

이에 대하여 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후일 면담에서 『내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春川 및 洪川市民에게 한 군은 약속을 어기고 後退한 사실과 軍作戰上이라고는 하나 住民들과 軍人家族들을 피난시키지 못한 것이 죄스럽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 戰鬪에서 軍人家族의 한사람으로서 겪은 당시의 제7연대 경리장교 金根好 대위(저전중에는 근무대대장으로 舊職) 夫人의 手記를 실어 피난길의 쓰라림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註) 제7연대 金根好 대위의 夫人 洪아다의 手記에서

『1950. 6. 24(土)

오랫만에 新婚초기의 단란한 한때를 보내기 위하여 낮에는 그이와 함께 극장구경을 갔다 왔다.

저녁때 市場에 들러 튀김재료를 사왔다.

내일 그이와 단 둘이서 요리를 하려 지낼일을 생각하며 비록 작을새 밤에서도 가벼운 흥분을 이트리면서 잠들었다.

1950. 6. 25(日)

아침 새벽 요란히 두드리는 대문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부대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연락병이

왔다.

아빠는 급히 옷을 주섬 주섬 입고 대문을 나서자 나는 영문도 모르고 어안이 빙빙한채 오를 있을 줄거운 행사(튀김)가 깨어졌다는 생각에 몸서 서운했다.

소문을 들으니 昭陽江 북쪽에서 인민군이 총을 쏘면서 남침한다고 한다.

조금 있으려니 아닌게 아니라 총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밤에 남편한테서 인편이 왔다. 「인민군이 38° 선을 넘어와 전쟁이 났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용감히 무찔러 버릴테니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요」라고.

그런데 총소리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다.

1950. 6. 26(月)

동네사람도 술렁대기 시작하고 피난을 가지 시작했다.

나도 동네사람을 따라 나도 모르게 입은 옷차림 그대로(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따라 나섰으나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줄 알았지, 그것이 春川과 永遠히 이별이 될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날밤은 山에서 사람들과 함께 담요나 덮을 것도 없이 싸늘한 추위속에서 오들 오들 떨면서 지새웠다.

1950. 6. 27(火)

이미 그들(註：北德軍)이 春川 가까이 와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東西南.上위치도 모르면서 정처없이 산길을 가던중 제7연대 軍인가족과 연대장(註：林富澤 중령)부인 등 5~6명을 만났다. 아는 사람을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앞으로는 서로 헤어지지 말고 같이 행동하자고 약속하고 그들과 아무 목표도 없이 피난민들을 따라 산으로 산으로 걸어 갔다.

아무런 식량도 없고 누구도 없어 떠나오다보니 모두들 허기가 겠고 옷차림도 남루해져서 그야 말로 거지 꼬락서니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연대장 부인은 아이가 들이 있고 아

이들이 배가 고파 지쳐 있었다 안되겠다 싶어 산 속진가에 들어가서 「떡다남은 밤이래도 있으면 주십시오」하고 구걸했다.

그는 전쟁이 난줄도 모르고 거지가 왔다고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보리밥과 상치, 고추장을 건네주었다.

6월의 태양빛은 사정없이 하얀 피부를 내리 쫓고 ……벌써부터 고무신 밑바닥이 달아 발가락이 튀어 나올 정도가 되었다.

1950. 6. 28(水)

楊平이 가까와져 온다. 그런데 楊平결문소에 이르니 서울행 “통행금지”라는 현병들의 말을 듣고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어 버렸다.

이미 서울에는 인민군이 들어 왔다고 한다.

한수없이 군인가축끼리 그제 마침 忠洞道로 가는 車便에 몸을 싣고 滿州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는 市廳에 가서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들의 힘에 맞는 일자리를 달라고 간청하자 여관만 추천하고 일자리는 없다고 하였다.

사실은 구걸은 더 못하겠고 우리의 힘으로 벌여 먹으며 하였던 것인데……』

—이하 省略—

## § 遠 話

### ◇ 無名勇士의 偉勳

6월 29일 16.00 제2연대는 말고개(洪川 東北 쪽 11km)에서 敵으로부터 難脫하여 洪川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이때, 同연대 제2대대(장, 文正植 소령)는 同고개에서 연대主力의 撤收업호의 임무를 맡고 마지막 까지 血戰을 거듭하면서 敵을 阻止격파하였는데 同대대 LMG사수 및 부사수(모두 姓名未詳)는 寒溪里南西쪽 400지점까지 나가 下水口土管우에 火器를 擱置하고 潛伏하고 있었다.

敵은 이곳까지 대대의 潛伏組가 나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않았음인지 1개대대 규모가 寒溪里로 부터 行軍대형으로 나와 바로 潛伏組 앞에서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한 潛伏組는 LMG의 경쾌한 擲射로 그들은 무리를 지어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寒溪별판은 敵屍가 즐비하였고 流血은 낭자하여 별판을 물들였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의의 기습을 받은 敵들은 潛伏組를 제거하기 위하여 2차, 3차에 걸쳐 습격을 기도하였으나 그때 마다 良好한 隱蔽



〈말고개에 세워진 肉彈 11勇士 功績碑〉

물에 뛰친한 이들에게 발견되어 사상자만 추가하였다.

당황하여 右往左往하던 그들은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戰車를 드리대고 砲를 亂射하기에 이르니 1명은 現場에서 戰死하고 다른 한 명은 華陽江을 따라 本隊로 돌아갔다.

現地를 탐사하여 부명 勇士가 LMG를 거치하였던 곳에서 그들이 展開한 곳을 바라보니 銃口 앞 300m까지는 三面이 특터 있었고 은폐물이라곤 草家집 몇채가 드문드문 있었으니 두 勇士가 선정된 사격위치는 감히 敵이 덤벼들 수 없는 要地였다.

寒溪里住民들은 최후까지 敵과 맞싸워 1개 중대 이상의 敵을 사살한 두 勇士의 전투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口傳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에게 實彈과 주먹밥을 날라준 이곳 住民 申萬鎭, 元兵準 兩人的 證言에 의하면 두 勇士 모두 現場에서 散草하여 마을 青年들이 바로 陣열에 參與하였는데 1959년 美제2사단 공병대대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비석도 없었던 壕으로 두 덩을 던져 버렸다고 한다.

이로부터 寒溪里 住民들은 오늘날까지도 매해 6월 27일이 되면 두 부명 勇士의 무덤위치(現 韓亭里 韓亭檢問所에서 內村方向의 다리 밑쪽)를 어렵하여 간소한 祭를 올려 護國의 靈을 위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 § 洪川 東北地區 戰鬪의 聽問會 (戰車破壞을 中心으로)

이 記錄은 戰鬪 洪川東北地區 戰鬪에서 敵 戰車 10대 破壞을 報告, 參戰하였던 兩연대(제2 및 제19연대)간의 主張이 엇갈려 끝내는 陳情 및 告訴事件으로 까지 번지게 됨으로써 戰史에 正確한 記錄을 남기기 위하여 聽問會를 열고 그 是非를 가렸을

① 問題의 發端 : 50.6.28 洪川北等 報告에서 敵의 戰車 10대를 파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洪川郡民들은 제6사단 이하 제19연대의 肉彈 11 勇士에 의한 戰功으로 길이 빛내기 위하여 郡費 일부와 郡民의 誠金으로 功績牌를 세웠던바 同 사단 제2연대는 57mm 대전차포로 單獨 破壞하였다고 主張함으로써 제막(1975. 12월 14일경)이

延期되었을 뿐 아니라 陳情 및 法廷으로 까지 끌고가 軍의 感情을 추락시키었음.

② 委員會의 措置 : 本委員會에서는 1975.4.14 洪川郡으로 부터 이를 밝혀 달라는 건의를 받고 관계 文書와 證言을 上盛로 分析, 檢討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의견의 一致를 보고 同年 12.15 回信 하였음.

③ 계획적인 協동작전은 아니나 兩연대의 協동으로 敵 戰車를 파괴한 것으로 判斷됨.

④ 韓國戰爭史 제1 및 제2권개정시 一插 修正할 예정임.

#### ③ 聽問會 開催

① 日時 : 1977. 7.22, 14.00~16.00

② 委員構成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室長)  
參戰作戰課長  
陸軍戰史室 戰史課長  
海軍戰史擔當官  
空軍戰史擔當官  
陸軍士官學校 戰史教授  
陸軍作戰參謀部 機甲課長  
陸軍兵器監室 野戰整備將校  
擔當編修委員

③ 證言者 參席

제2연대 參戰장병 7名  
제19연대 參戰장병 6名

④ 場所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會議室

#### ④ 聽問會 進行順序

① 一般狀況說明

問題가 惹起된 動機  
戰鬪狀況

② 兩연대의 狀況說明과 主張

③ 現地實地分析結果發表

④ 質疑 및 討論

⑤ 結 論

本 聽問會에서 다음과 같은 意見의 結論을 얻었음.

『2개 연대의 部隊路史記錄을 근거로 하이 제2 연대의 57mm 對戰車砲와 제19연대의 肉迫特攻隊의 공격에 의하여 戰車 9대가 擊破됨.』

## 4. 抱川—東豆川—議政府地區 戰鬪 (1950년 6월 25일부터 // 6월 26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7, 8호

상황도 제10~12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7사단 (6월 26일 14.00附近 議政府地區 戰鬪司令部)	장 준장 劉 毅 興	機甲聯隊 裝甲車 1個小隊	
제1연대	장 대령 威 俊 鎭	砲兵學校 對戰車砲 2個 中隊	
제1대대	장 중령 韓 泰 源	제2사단	장 준장 李 亨 根
제2대대	장 소령 李 義 明	제5연대 장 (대리) 중령 朴 基 成	
제3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제1대대 장 소령 李 貞 道	
제9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제2대대 장 소령 車 甲 俊	
제1대대	장 소령 柳 桓 博	제16연대 장 대령 文 容 彩	
제2대대	장 소령 田 舜 基	제1대대 장 중령 俞 義 濬	
제3대대	장 소령 李 哲 源	제2대대 장 중령 金 憲	
제5포병대대	장 소령 李 奎 三	배속부대	
배속부대		제25연대 장 중령 金 炳 徽	
首都警備司令部,		제2대대장 (대리) 대위 羅 熙 弼	
제3연대	장 중령 李 尙 根	제3대대 장 소령 高 東 晰	
제1대대	장 소령 任 百 振	포병학교 제2教導大隊 장 소령 金 豐 益	
제2대대	장 소령 朴 楠 杓	陸軍士官學校 장 준장 李 俊 植	
제3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生徒대대 장 중령 趙 岩	
제18연대	장 중령 任 忠 植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張 春 權	서울市警 戰鬪警察대대	
제3대대	장 소령 安 致 一	隣接部隊	
報國大隊 제2중대	장 중위 朴 蒼 岩	右隣接: 제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左隣接: 제1사단 장 대령 白 善 輝	

## 敵 軍

北傀 제1군단	장 중장 金 雄	제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5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8연대	장 중좌 金 秉 鍾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제105機甲旅團	장 소장 柳 京 洙
포병연대	장 대좌 安 白 成	제107, 109 戰車연대 基幹	

## 나. 전투 전의 개황

本戰鬪은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 勃發 당시에 서울 北쪽 17km의 議政府 正面에서 劉載興 中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과 李亨根 中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北傀 제1군단(장, 중장 金 雄) 隸下的 2 個사단과 1個 機甲旅團으로 構成된 攻擊集團의 侵攻을 막다, 이를 擊滅코자 한 防禦戰이다.

그 經過의 大要를 보면, 勞頭에 제7사단이 抱川과 東豆川 附近에서 緒戰을 치룬데 이어, 大田에서 赴援한 제2사단이 議政府 附近에서 激突케 되는 바, 바로 이 地域은 首都 서울의 關門과도 같아 我軍에 主力으로써 對決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敵은 처음부터 여기에 攻擊의 重點을 두고 兵力과 火力을 集中投入한데 反하여 我軍側에서는 아무런 對備없이 이와 맞섬으로써 緒戰의 樣相이 轉變無雙하고 展開速度가 造次之間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 地域은, 京元 本道인 3번 도로를 비롯하여 東側의 43번과 西側의 316번이 모두 良好한 路面에 築을 지은 듯 南北으로 뻗힌 데다, 廣川山脈과 天寶山脈이 縱壑을 이루어, 防禦에게는 橫의 連繫와 縱深配置에 不利한데 比하여 攻者는 機械化 部隊의 運送과 縱擊突入이 容易하였다.

따라서 交戰 40시간 사이에 30餘km의 振幅을 보이게 되는데, 抱川과 東豆川 그리고 議政府 附近에서 展開되는 局地的 戰況이 서로 密接한 連繫를 맺게 되는 까닭에, 本營에서 이를 一括하여 취급키로 하였다.

敵軍의 狀況: 本戰鬪의 策源地인 平康附近에 北傀 제1군단의 指揮所가 開設된 것은 6월 1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에 敵은 機動部隊을 憑藉한 戰鬪展開를 꾀하였는데, 이 무렵 同군단장 중장 金 雄은 平康으로 나와 中區部戰線의 作戰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미 民族保衛省의 訓練局長을 지낸자로서 이번 전투에 主役을 맡아 屬下의 4個 보병사단과 1個 戰車旅團으로 서울 攻路을 劃策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3, 제4 兩사단과 제105戰車여단을 攻擊集團으로 묶어 集中的으로 議政府 正面을 穿貫하려는 듯 하였다.

그 첫단계 工作으로, 戰鬪兵力을 一線으로 推進하였거니와 그 機動狀況을 살펴보면, 元山에서 平康으로 내려온 제3사단은 6월 23일에 다시 澗川으로 移動하고, 제4사단은 同월 22일에 鎭南浦를 出發하여 平壤에서 제5연대와 合流한 뒤로 南川을 거쳐서 澗川으로 移動하였으며, 제105戰車여단은 이 보다 먼저 平壤을 出發하여 南川과 市邊里를 거쳐 鐵原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22일에 벌써 제109 전차연대는 澗川에서, 제107전차연대는 澗川에서 각각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戰線 갈수록 과고 들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제4사단은 東北 義勇軍 出發연대를 母體로 한 飄浮한 부

리들로서 準備을 지키던 부대이며, 제105전차여단은 가장 瓦礫한 分子들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鐵原에 補給品 集積所를 다련하여 攻擊直前까지 38°線 부근에 所要物資를 推進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와 같이 部隊機動을 마친 後는 24일 밤에 다시 第一線으로 攻擊部隊을 推進하였다고 하는데, 그 展開進度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3사단은 소장 李英鎬의 지휘아래 抱川 北쪽의 永平川 부근으로 나와, 제7연대(장, 대좌 金昌烈)와 제9연대(장, 대좌 金萬益)를 左右 一線에 두고 제8연대(장, 중좌 金秉鍾)를 豫備로 保有하였으며 同사단의 砲兵연대(장, 대좌 安白成)는 楸亭里 부근에서 支援態勢를 갖추었다.

그리고 제4사단은 소장 李權武의 지휘아래 제16연대(장, 대좌 朴勝熙)를 先鋒으로 삼아, 京元本道를 따라 進出し던 豫定으로 全谷부근에 待機케 하고, 제18연대(장, 대좌 金熙俊)는 그 西陲에서 臨津江을 건널 수 있도록 準備케 하였으며 제5연대(장, 대좌 崔仁德)는 漣川에 豫備로 控置하였다.

이와 並進을 같이하여 소장 鄭京深가 이끄는 제105機甲營團은, 제109전차연대를 제3사단과 協同攻擊케 하고 제107전차연대의 1個 대대를 제4사단에 配屬하는 한편 남은 戰車를 機動豫備로 保有하였다.

이들의 總兵力을 보면, 제3사단이 12,000명에, 제4사단이 12,000명 그리고 제105機甲여단이 4,000명으로서 總計 28,000명으로 밝혀졌으며, 主要裝備는 戰車 156輛을 비롯한 自走砲 62문과 122mm 榴彈砲 48문에 76mm 曲射砲 72문 그리고 45mm 反戰車砲 96문과 120mm 박격포 52문 및 82mm 박격포 162문 등, 이들이 戰爭初期에 動員한 全體火力의 1/3을 여기에 集中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 밖에도 牛馬車를 動員하여 補給 物資를 推進하고 戰鬪간에 勞務者를 強制로 徵用하여 各種補給品을 운반케 하였다.

그리고 宣傳工作隊가 뒤따라 다니며 活動하는가 하면, 便衣隊를 運營하여 매양 諜報收集에 狂氣를 보였다.

侵攻 當面에 이들의 東側에는 제2사단(장, 소장 李吉松)이 春川으로, 西側에는 제1사단(장, 소장 崔光)이 汶山쪽으로 각각 同時에 併攻하였다.

我軍의 狀況: 한편 議政府 地域을 擔當한 제7사단은 亂戩興 준장의 指揮下에 제1, 제9 兩연대가 社稷里-鳴城里-積城간의 47km에 達하는 廣正面을 警備하고 있었다.

本團 사단은 서울에서 제7여단으로 創設된 뒤로, 1949년 2월에 首都여단으로 改稱되었다가 同年 5월에 사단으로 昇格되고, 다시 6월에 제7사단으로 改稱됨과 더불어 이 地域을 擔當케 되었는데, 이때에는 隊下에 제1, 제3, 제9, 3個 연대와 砲兵 및 工兵등을 合하여 總兵力이 9,698명이었다.

그런데 戰爭勃發 3週前인 6월 1일附로 陸軍本部에서 一般命令 제43호를 下達하여 一部部隊의 練配 關係를 調整함에 따라,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가 首都警備團 傘下로 隸屬이 변경됨으로써, 同연대의 3,050명이 사단을 떠나고, 이날 現在 제1, 제9 兩연대와 砲兵 및 工兵 등, 6,788명의 兵力이 이 地域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뒤로 陸本 作戰命令 제79호(50.6.13)에 依據하여 6월 15일附로 제2사단의 제25연대(장, 金炳徵 중령)가 사단에 編入키로 豫定되어 있었으나, 同연대는 亂戩에 推置한 狀에 議政府로 移動키 위하여 準備하던 바, 駐屯地로 選定된 堤院里 一帶가 民營地인 관계로 그 徵發분계와 幕舍 및 食水문제 등 一連의 事情으로 말미암아 7월 15일로 移動口字를 延期한 차에 本戰鬪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同연대는 開戰後에 다시 제2사단에 復歸되었다.

이러하여 사단은 豫備隊가 없이 兩연대를 一線에 배치워, 李尙根 중령이 지휘하는 제9연대는 抱川 正面인 右一線을, 咸俊鎬 대령이 지휘하는 제1연대는 東亞川 正面인 左一線을 各各 擔當케 한 가운데, 38°線警備와 部隊教育을 併行 실시하였다.

그런데 一線 警備보다도 教育訓練에 더욱 注重하여, 各 연대로 하여금 1個 대대를 警戒陣地에 配置하고 2個 대대를 議政府 부근으로 移아 所定의 教育을 실시케 하되, 3個月마다 循環交代 방식으로



戰技를 練習케 하였던 것이다.

當時에 陸軍本部에서는 그 해 봄부터 部隊教育에 着手하여 3월까지 分隊戰術로부터 大隊訓練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共匪擊滅과 周地的 衝突 등으로 말미암아 延遲되자 다시 9월까지 延長하여 이번에는 연대훈련 過程까지 畢하도록 措置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라 師단에서는 交代制로 所屬의 教育을 실시한 끝에 6월 15일 現在 제1연대는 大隊訓練 過程을 모두 마치고 제9연대는 2週 대대만이 大대練習을 끝낸 실정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해 봄철부터 陣地工事を 推進하여, 在京 大韓青年團員과 學生들의 勞力奉仕 지원아래 主陣地와 警戒陣地를 構築하였는데, 제9연대는 梁文里—楸洞里間에 境界柵柵을 改築하고, 炭場부근의 天柱山(△424)과 加郎山 사이에 主陣地를 新築하였으며, 제1연대는 砲城里—兩邊里 間에 境界柵柵을, 그리고 逍遙山(△526)—磨父山(△587)間에 主陣地를 각각 築하였다.

施工程度는 兩연대 모두 警戒陣地에만 4~6層의 有蓋壕를 構築하고 남은 全陣地에 個人壕와 交通壕 정도를 築하였다.

그리고 砲兵은 全地域을 踏査하며 測地를 實施하고 觀測所를 選定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本戰鬪에 임하게 되는데, 當日 師단의 실경을 살펴보면, 師단장이 赴任한 지 2週밖에 되지 않은데다, 제1연대의 戰1대대장, 韓察淵 중령을 비롯한 高敎官 崔世寅 소령과 情報參謀 李思鎭 소령이 高軍營에 入校中이고 同제1연대의 戰3대대장 安攻一 소령은 30일附로 參謀學校에 入校命令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6월 11일 16.30附로 下達된 非常警戒令이 解除됨에 따라 農繁期 休暇와 外出 및 外泊이 許可된 탓으로 師단의 實兵力이 4,500餘명에 止나지 않았다.

裝備面에 있어서도 中古車輛이 모두 富平으로 移送되어 40% 정도 밖에 있는 까닭에 非常發令에 따르는 즉각적인 陣地占領이 遲遲不預하였으며, 各種 重火器의 25%를 修理차 反납하는가 하면 彈藥마저 定數未達로 많은 虧缺을 받고 있었다.

結果적으로 師단은 增強된 連대규모의 兵力과 裝備로써 敵의 攻擊集團과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議政府의 全景>

이같은 狀況下에서 兩연대가 血戰을 벌이는 동안에 首都警備團 隷下의 2個 연대가 赴援하여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는 抱川으로,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는 東豆川으로 各各 增強되고, 그 뒤를 이어 大田에서 北上한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이 議政府를 막아서는가 하면, 砲兵學校의 제2 教導隊(장, 金豊益 소령)와 2個 對戰車砲 중대 및 機甲연대의 裝甲小隊 그리고 陸軍士官學校의 生徒대대까지 加擔하여 이 地域에서 激突케 되는 바, 이들 各部隊의 動靜에 對하여서는 本文의 參戰過程에서 詳述키로 한다.

다만 이 部隊들도 大同小異한 與件으로 말미암아 2/3程度의 兵力이 出動한 데다, 彈藥과 裝備 그리고 時間上의 蹉跎이 큰 原因이 되어 劃一的인 作戰을 展開치 못하고 難局에 처하자 及其餘는 陸本 指揮部의 直接指導下에 反擊을 決行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당시에 사단 右隣接에는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이 春川 正面에서 北傀 제2군단의 侵攻을 阻止하고 左隣接에는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臨津江 南岸에서 이들 제1, 제6사단의 侵攻을 막고 있었다.

##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北傀는 戰爭勃發 2週前인 6월 10일에 平壤의 民族保衛省에서 秘密裡에 軍事指揮官會議을 開催하여 機動訓練을 憑藉한 전투병력의 一線展開를 꾀하였는데, 이때에 벌써 이들은 主力의 侵攻經路를 鐵原—漣川—東豆川—議政府 軸線으로 決定한 듯 하다.

이는 그 會議 直後에 斷行된 병력의 移動狀況으로 볼 때, 이른바 그들의 精銳라고 하는 제3, 제4 兩사단과 唯一한 機甲部隊인 제105機甲여단을 鐵原—雲川—漣川 부근에 集結시켜 京元線 周邊에서 攻撃態勢를 갖추게 한 點과 戰爭中에 入手한 鹵獲文書 가운데 漣川—議政府를 거쳐 早期에 서울을 占領한다고 밝혀진 點 그리고 開戰以後의 部隊機動등을 綜合하여 判斷할 때, 그들의 侵攻企圖는 처음부터 主力으로써 議政府로 指向한다는 計策을 세운 것으로 推斷된다. 즉, 제1군단(장, 中將 金雄) 隷下의 2個 사단과 1個 機甲여단으로 議政府 正面을 集中攻撃하는 동시에, 東側의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과 西側의 제1, 제6 兩사단과의 協調아래 首都 서울을 侵奪圖謀코자 하였던 것으로 分析된다.

따라서 當사단의 責任地域이 그 主目標로 浮上케 되었거니와, 이들은 다시 具體的인 施行方案을 마련키 위하여 同월 18일附로 人民軍 最高司令官(金日成: 本名 金成柱)의 명의로 된 偵察命令 제1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概要를 보면, 小隊單位 以下의 兵力 배치선까지 偵察토록 하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특히 有蓋障地와 兵力配置狀況 그리고 障礙物 地帶 및 예상집결지 등을 確認토록 하였으며, 여기에 이어 攻擊目標의 選定과 部隊의 機動計劃을 마련토록 明示하였던 것이다(本章 第一節 本文 參照).

이와 같이 偵察을 마친 그들은 同월 22일 14.00附로 戰鬪命令 제1호를 하달하여 23일 12.00까지 모든 攻擊準備를 完了토록 促求하였다. 그 詳細한 內容은 同 第一節에서 既述

한 바 있으므로 省略하거나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사단의 警戒陣地와 主陣地를 빠짐 없이 공격목표로 選定한 點과 砲兵을 비롯한 工兵과 反戰車砲 및 航空등의 支援아래 서울까지 一舉攻略하려는 計劃을 미리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제4사단의 攻撃準備상황과 抱川으로 侵攻한 제3사단의 움직임을 士台로 하여 이들 제1군단의 議政府 正面으로 指向코자 한 侵攻計劃의 大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初一擊에 砲兵火力으로써 警戒陣地를 一蹴한 다음, 各1個 사단의 병력으로 抱川과 東豆川을 攻撃한다.

㉞ 제3사단은 제109 戰車연대와 協同으로 抱川을 奪取한다.

㉟ 제4사단은 제107 戰車연대 소속의 1個 대대를 統合指揮하여 東豆川을 奪取한다.

② 中間目標을 탈취하면 차후 명령에 依據하여 兩사단의 分進合擊으로 議政府를 攻略한다.

議政府 공격시에는 各 사단 모두 豫備隊를 投入한다.

③ 議政府에 突入하면 곧 漢城으로 進擊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듯 敵은 짜여진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比하여 사단의 對備態勢는 너무도 未洽하였다.

陸軍本部에서 教育覺醒 제2호에 따른 教育을 실시케 함으로써, 이에 注重하여 38°線 南緣의 前進陣地에 1/3 병력만을 配置하고 主力은 28km 後方の 議政府 부근으로 集結시켜 대대급 이하의 基礎訓練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各聯隊의 指揮所도 主力과 함께 모두 議政府 부근에 位置하고, 一線大隊는 각각 20km 內外의 廣正面을 警備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6월에 접어들면서 敵의 侵攻徵候가 漸増함에 따라 情報系統에서는 敵의 主攻方向이 『議政府냐?』 『汶山이나?』 할 程度로 檢討된 바 있었으나 戰爭當日까지 軍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敵이 侵攻하면 遲延戰을 펴면서 後方の 豫備사단을 北上시켜 反擊한다는 漠然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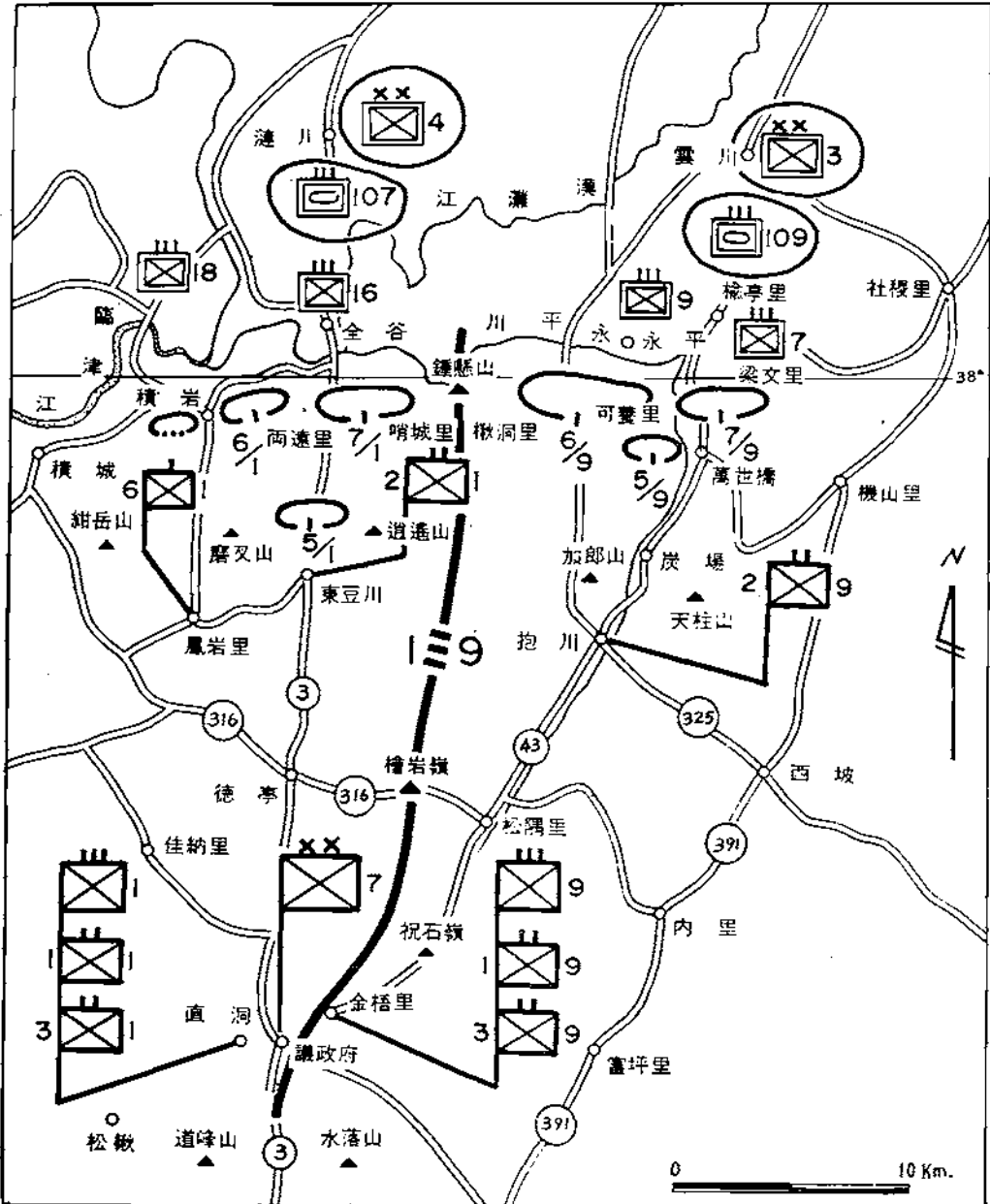
그러나 사단의 境遇는 安逸할 수가 없어, 前任 사단장 李俊植 准장은 蹙下的 연대장들과 熟議 끝에 몇차례에 걸친 主陣地 占領訓練을 실시한 然後에 概要 다음과 같은 自體의 防禦計劃을 樹立하였다.

〔① 사단은 陸本 교육각서 제2호에 따른 教育訓練을 실시하면서, 제9, 제1 兩연대로써 社稷里—哨城里—積城간의 責任地域을 防禦하려 한다.

兩연대간의 戰鬪地境線은 鍾懸山—國師峰—海龍山—天鼓山에 連하며, 線上은 제9연대에 屬한다.

② 제9연대는 抱川正面의 社稷里—鍾懸山간을 방어하되, 1個 대대로써 梁文里—楸洞里간을 警備케 하고 主力은 金梧里에서 所定의 教育을 실시하라.

◇ 上 황도 제10호 戰前 彼我의 展開狀況



交戰狀況에 突入하면, 主力으로써 天柱山—加郎山간의 陣지를 占領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 ③ 계1연대는 東豆川 正面의 鍾懸山—積岩간을 방어하되, 1個 대대로써 哨城里—積岩간을 警備케 하고 主力은 直洞에서 所定의 教育을 실시하라.

交戰狀況에 突入하면 主力으로써 逍遙山—磨叉山간의 전지를 占領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 ④ 제5포병대대는 狀況에 따라 配屬 또는 直接支援한다.
- ⑤ 兩연대는 機動打擊隊를 編成하라.
- ⑥ 兩연대의 主陣地帶에 破綻이 생기면 松隅里—德亭간의 제2선을 占領하고 이를 固守하라.
- ⑦ 以後의 撤收線은 祝石嶺—佛國山간으로 豫定하되, 增援部隊가 參加할 때까지 最大限으로 遲延한다.
- ⑧ 余는 議政府 中央十字路 附近에 位置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단의 方針은, 同월 10일附로 劉載興 준장이 새로 赴任한 以後에도 그대로 踏襲되었으나, 여기에 보다 더 具體的인 시간계획과 火力計劃 그리고 障壁計劃 및 豫備隊運用的 補充等 細部の 施行方案이 뒤따르지 못한채로 엉성한 狀態에서 本戰鬪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작전실시

6월 25일 : 6월의 마지막 日曜日인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濃霧가 山谷을 메워 曉明이 더디었다.

여기에, 全軍에 下達된 非常警戒令이 23일 24.00附로 解除됨에 따라 各部隊는 平常勤務로 돌아와 將兵들에게 外出과 外泊을 許容하고 殘留兵力들을 休務케 하니, 조용한 週末을 맞아 아직 단감에 들어 있었다.

이같은 無神經은 劉載興 준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一線 警戒임무를 맡은 2個 대대와 非常待機중대를 除外한 나머지 병력들은 연대장의 裁量에 따라 休務에 들어가고, 當直근무자만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에 사단 사령부에서는 작전참모 李暎圭 중령이 當直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이 시간에도 狀況板을 정리하고 第一線의 근무상태를 電話로 確認하는 등, 每양 安息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를 전부터 38°線 北쪽의 雲川—漣川—全谷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상의 集團兵力이 隨時로 機動하고 車輛隊列의 이동이 頻繁하다는 諜報를 入手한데다, 특히 전날밤 21.00에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으로부터 『檢亭里 北쪽의 43번 道路(一名, 解放道路)上에 30여대의 戰車가 나타났다.』는 報告에 接하고 보니, 心中에 敵의 徵候가 凡常치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에 사단에서는 敵의 動向을 注視하던 터이므로, 전날 外出 실시에 앞서 各연대에 非常待機중대를 編成케 하고 제5포병대대(장, 李奎三 소령)의 M-3 牽引車를 대기시키는

동시에 貯藏燃料 200 Drum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陸軍本部의 지시에 따라 配屬中인 報國大隊 제2중대(장, 朴蒼峯 중위)로 하여금 雲川부근의 敵情을 探索케 하는 등, 一連의 非常措置를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平常時의 局部的인 挑發에 對備하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47km에 達하는 廣正面에 2個 대대 병력만으로 專擔케 하고 사단 主力이 30km 後方에 있으니만큼, 內心으로 憂慮되는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를 實證이라도 하려는 듯, 이날 04.00을 前後하여 第一線에서 敵侵樣相이 速報되기를, 抱川正面의 제9연대 제2대대(장, 田舜基 소령) 지역에서는 03.40에 시작된 敵의 砲擊이 梁文里와 可養里 一帶에 熾盛할 뿐만 아니라 그 東쪽의 機山里 溪谷에 까지 미치고 있으며, 東豆川 正面의 제1연대 제2대대(장, 李義明 소령) 지역에서도 거의 같은 時刻에 시작된 砲擊이 哨城里와 兩達里 一圓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當直司令인 李暎主 중령은 陸軍本部에 이 狀況을 報告하는 한편 곧 非常에 突入하여 營外居住者를 소집하고 待機중대로 하여금 出動態勢를 갖추게 하였는데, 敵은 04.30을 期하여 砲擊의 延伸과 더불어 第一線의 警戒陣地로 侵攻하였으니, 제9연대 地域에서는 永平川을 넘어선 戰車가 梁文里로 밀려들고, 제1연대 地域에서는 哨城里와 花房村(兩遼里 東北쪽 마을) 부근에서 벌써 交戰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續報된 戰況을 綜合하여 보면, 通例인 局部的인 衝突事件과는 달리 苛烈하고 또 그 規模가 龍大할 뿐만 아니라 展開方式이 時時刻刻으로 急轉하여 狂波처럼 밀려 들었으니, 이때에 敵은 2個 步兵사단과 1個 機甲여단의 物量을 動員하여,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은 제109戰車연대와 協同으로 43번 道路를 따라 抱川쪽으로 侵攻하고,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제107戰車연대와 더불어 京·元街道로 侵襲하여 장차 議政府—서울 軸線으로 指向코자 하였던 것이다.

사단장 劉載興 준장이 이와 같은 戰況을 報告받은 것은 05.15이었다. 그는 전날밤 陸軍會館 開館 Party에 참석한 뒤로 新堂洞 自宅에 돌아와 있다가 當直司令으로부터 電話報告를 받고 곧 그에게 『陸本에 狀況報告를 하고 兵力을 出動시켜 主陣地에 配圖토록 하라.』는 指示를 내리는 즉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議政府로 直行하였는데, 사단本部에 당도하고 보니, 이미 06.00가 되었다.

이무렵 사단 參謀陣의 動靜을 살펴보면, 參謀長 金鍾甲 대령은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의 部隊移動문제와 創設記念口 행사관제로 溫陽에 내려가 있고, 정보참모 李世鎬 소령과 고급부관 崔世寅 소령은 步兵學校의 高軍班에서 被教育中이었으며 군수참모 尹永模 소령은 서울 梨泰院 숙소에 있었는데 通信連絡이 되지않아 梨泰院 消防分所의 協助로 14.00에야 겨우 通報되었으니, 사실상 사단의 參謀機能은 一線의 危急을 適時에 支援키 어려운 狀態에 있었다.

여기에 사단의 豫備兵力은 一兵도 없으니, 이제 제9, 제1 兩연대가 抱川과 東豆川 地

域에서 各各 單獨으로 이 敵과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 (가) 抱川 부근의 戰況

사단의 東半部인 抱川地域은 尹春根 중령이 지휘하는 제9연대가 맡아 社稷里(機山里 東北쪽 5km)—殷洞里(抱川 西北쪽 11km)간의 26km에 달하는 責任地域을 防守케 되었는데 本是 이 지역은 金化에서 雲川과 抱川을 거쳐서 議政府에 이르는 43번 道路를 中央에 끼고 東側의 廣州山脈과 西側의 天寶山脈이 縱으로 뻗어 長方形形을 이룬 地帶로써 正常的으로 2個 사단의 防禦正面에 該當될 것이다.

이러한 戰鬪正面을 3,400명의 兵力을 保有한 제9연대가 專營하여 北僞 제109戰車연대와 協同으로 侵攻한 제3사단과 對決케 되었는데, 당시에 연대는 사단의 方針에 따라 1個 대대로써 一線警備를 담당케 하고 2個 대대를 38°線에서 26km 뒤에 떨어진 金橋里의 연대 指揮所 부근으로 뽑아 小部隊 戰術교육을 실시하는 상태인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一線警비를 맡은 대대는 全正面配置가 困難하여 通行의 要路만을 限定코 據點防禦태세를 取하였으니, 이날 第一線에는 [田舜基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가 2일 前인 23일 附로 제3대대(장, 李哲源 소령)의 陣地를 引受하여, 대대本部를 前과 多름없이 抱川에 두고 제7중대(장, 宋寧煥 중위)를 右第一線으로 하여 43번 道路와 38°線이 接하는 梁文里一帶에, 제6중대(장, 李仁鎬 대위)는 左第一線으로 그 西쪽의 小道인 325번道가 永平川에 이르는 可養里와 楸洞里 부근에 각각 配置하는 한편 제5중대는 예비로 4km 後方의 新坪里(萬世橋 西쪽) 부근에 控置하였다.

이렇게 볼때, 대대의 實兵力이 配置된 地域은 6km의 占領地帶에 不過하며 그 나머지 19km에 該當하는 山麓과 野地는 거의 無防備상태로 있었으며 특히 東側의 機山里 北쪽은 391번道 沿邊에서 1個 分隊의 搜索隊가 動哨할 뿐이었다.

그리고 朴蒼岩 중위가 이끄는 報國대대 제2중대가 前日부터 38°線 北쪽의 檢亭里 부근에서 活動하고 있으나 대대와는 有機的인 協調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아래에서 이날을 맞이하게 되었거니와, 多幸히도 연대의 少將兵이 營內待機상태에 있었으니, 이는 연대장 尹春根 중령이 前日 사단으로부터 『救急에 따라 週末外出을 실시토록 하라.』는 通報를 받고, 오랫동안의 緊張속에서 待機한 바 있는 병사들에게 外出과 外泊을 許容할까 생각하다가 當面의 敵情이 殊常한 故탐으로 營內에서 休務토록 措置하였던 것이다. 그는 뒤에 당시를 回顧하며 述懷하기를, 『오랫만의 外出이라 처음에는 제2대대만 除外하고 모두 許容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敵情이 심상치 않았다. 一週口 前부터 鐵原에 機甲部隊가 나타났다는 諜報가 있는가 하면 北僞의 正規軍이 38警備隊와 交代하였다는 所聞이 떠돌고, 23일 밤에는 제2대대장으로부터 雲川에서 車輛隊列이 檢亭里로 移動한다는 報告에 이어 바로 永平川 부근에 戰車가 나타났다고 續報되

는등, 모든 면에서 平常時와 달랐다. 그레에 제1, 제3 兩대대의 병사들이 外出準備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一드 중지시키고 異常이 없으면 明日(25일) 晝間에 시행토록 하자고 하였더니 대대장들도 내 뜻에 따라 모두 營內에 남았으며 나도 感氣로 微熱이 있었지만 淸涼里 宿所에 電話連絡만을 하고 營內에서 待機하였다.』고 하니, 一線 指揮官의 心愜을 헤아리고 남음이 있다.

이같은 조치로 연대의 主力은 金梧里에서 待機하고 제2대대는 더욱 警戒를 嚴히 하던라, 이날 拂曉에 北傀 제3사단은 大佐 金昌鳳이 이끄는 제7연대를 先鋒으로 삼아 제109 戰車연대와 協同으로 一時에 掩襲하니, 突然 抱川 正面의 38°線 沿邊이 불길에 휩싸였다.

### 1. 제9연대 제2대대의 戰況

제2대대(장, 田舜基 소령)는, 3個月마다 相互交代하는 方式으로 一線 警戒任務를 遂行케 하는 연대의 方針에 따라 23일附로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既設陣地를 占領하였음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때에 대대장은 제6, 제7 兩중대를 第一線에 配置하기에 앞서 『近間에 敵의 動向이 尋常치 아니하니 警戒를 徹底히 하고 別途의 命令이 있을 때까지 陣地를 더욱 補強하라.』고 強調함과 아울러 重火器중대의 機關銃 소대를 分割하여 각각 1個 소대(기관총 1個班과 81mm 박격포 2門)씩 配屬시켰다.

그리고 대대의 남은 火力은 예비인 제5중대 진지의 東側에 配置하여 萬世橋에서 紫霞洞으로 通하는 43번 道路上에 警戒 重點을 두고 제7중대의 火力을 補強토록 措置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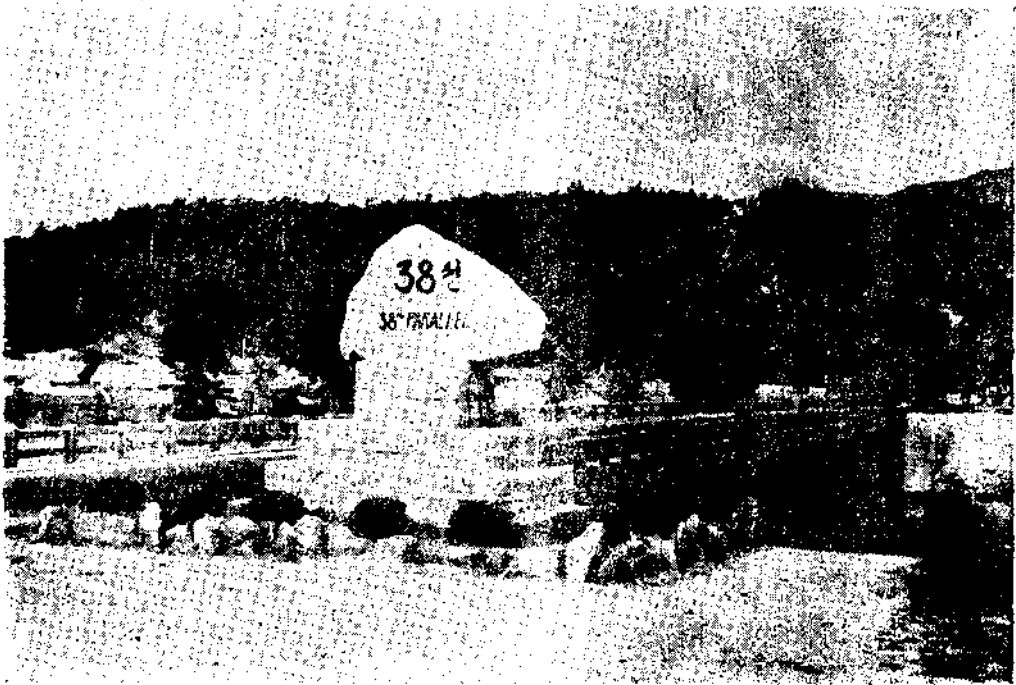
그런데 이날 03.40을 前後하여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한 敵은 미리 대대의 兵力 配置狀況을 探索한듯 警戒陣地만을 골라 砲擊을 集中하였으니, 右第一線인 제7중대(장, 宋寧煥 중위) 지역에서는 梁文里 一帶와 그 西쪽의 △287 北麓에 鐵火가 集中하고 左第一線인 제6중대(장, 李仁鎭 대위) 지역에는 可養里—注院里—楸洞里 일원을 硝煙으로 뒤덮어 마치 山腹을 무너뜨릴듯 하였다.

이 砲火는 122mm 榴彈砲를 비롯한 76mm 野砲와 120mm 및 82mm 迫擊砲에 戰車砲까지 配合된 綜合火力으로 여겨지는 바, 30餘分 동안에 걸친 集中射擊으로 警戒陣地를 強打하니, 機關銃진지를 除外한 대부분의 散兵壕가 無蓋 交通壕로 이어진 兩중대 지역에서 크게 混亂이 惹起되어 據點간의 連繫가 무너지고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같은 狀況이 指揮系統을 따라 速報되는 동안에 공격준비사격을 마친 敵은 이윽고 04.30을 期하여 砲擊의 延伸과 더불어 兩중대의 陣前으로 밀려들었는데, 이들은 戰車를 앞세워 進路를 開拓코자 步戰協同으로 43번 도로와 325번道 沿邊의 陣地를 圍繞코 集中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7중대 正面에는 梁中橋(一名, 三八橋)를 넘어선 3臺의 戰車가 梁文橋부근까지 侵襲하여 砲口를 東南쪽으로 指向코 同중대 제1소대의 진지를 強打하는가 하면 바로 그 西쪽의





<38°線上的 梁文橋>

喜樂寺 부근에서 數次詳의 敵이 側後方으로 侵攻하여 단숨에 이 小隊陣地를 삼키고자 하였다.

이때에 同小隊는 小隊長이 空席이므로 선임하사가 지휘하여 梁文里 南쪽 500m에 있는 無名稜線 西端에 배치한 機關銃소대와 함께 이 要線을 지키고 있었는데, 慮外의 強襲을 받게 되자 可能한 모든 火力을 活用하여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交戰 30分 동안에 이미 過半數의 兵力을 잃고 어둠속에 分散되고 말았다.

이 無名稜線에서 機關銃사격을 지휘한 제8중대의 소대장 崔允鎰 소위는 體弱에서 回顧하기를 『나는 陣地交代를 앞두고 23일附로 제7중대에 베통되어 기관총 1個班과 81mm 박격포 2門을 끌고 梁文里로 들어가서, 24일에는 砲陣地 작업을 마치고 그날밤에 기관총 진지로 내려가 있다가 敵의 공격을 받았다. 25일 새벽에 砲聲에 잠이 깨어 射擊態勢를 취하고 있던 바 敵이 밀려드는데 처음에는 梁文橋 부근에서 轟音과 더불어 어둠속에 怪物이 나타나기에 火木 運搬車가 아닌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戰車였다. 그래서 기관총 사격을 퍼 부었더니, 3臺의 戰車가 동시에 멈추어 서면서 東南쪽 方向의 우리 진지에 砲擊을 連發하였으며, 그 뒤에는 세 필(匹)의 말(馬)이 牽引하는 山砲가 튀어나와 砲擊을 加하고 이어서 步兵이 까맣게 밀려드는데 아무리 쏘아도 허사였다. 여기에서 나는 大部分의 部下를 잃고 하나 밖에 없는 有蓋陣地마저 무너져 할 수 없이 退路를 摸索한 끝에 山中腹을 따라 겨

우 萬世橋쪽으로 빠질 수 있었지만 아마 歩兵들은 거기에서 거의다 玉碎하였을 것으로 본다.』고 하니 一發의 野砲도 지원받지 못한 緒戰의 樣相을 推察할 수 있을듯 한다.

어떻든, 이로부터 중대는 43번道路를 敵에게 빼앗기고 △823의 西쪽 稜線으로 물러서서 分散兵力을 收拾하던 바, 天明과 더불어 이들은 陣地공격을 中止하고 戰車隊를 몰아 萬世橋로 直行하자, 남은 병력을 거두어 居士里부근으로 抱川江을 건너 그 西南쪽의 錦華峰을 목표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同중대 제2소대의 小銃手인 吳炳煥 下士는 당시의 撤收상황을 더듬기를 『이날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고 濃霧가 溪谷에 짙게 깔려 敵의 後方에서 抱川江을 건널 수는 있었으나 砲火의 衝擊과 戰友를 잃은 慘禍에 모두 말이 없었으며, 居士里를 지나 1km쯤 내려왔을 때에 萬世橋쪽에서 靑色 信號彈 3발이 오르는 것을 보니 不吉한 豫感이 들었다. 그 뒤로 우리는 山 稜線을 따라 抱川쪽으로 내려오는데, 마치 進路를 아는듯 砲彈이 줄곧 뒤따랐으며 敵의 侵攻速度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여겨졌다.』고 述懐하였다.

한편 左第一線인 제6중대(장, 李仁鎬 대위)는 成日永 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가 楸洞里에서 한차례 交戰을 벌인데 이어, 長者洞으로 集結한 중대의 主力이 그 西南쪽 三叉路를 막아 △287에 連한 防禦陣地를 急編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또한 325번 道路를 따라 侵攻한 戰車隊의 強襲으로 말미암아 大同小異한 樣相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敵의 戰車隊가 그 南쪽 2km의 長丞거리를 넘어서자 分散兵力을 收拾하여 武夾山(抱川 北쪽 7km)쪽으로 轉進케 되었는데, 이때부터 대대本部와 通信이 杜絶되어 狀況을 파악하지 못한채로 三星堂里 溪谷을 따라 抱川쪽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제7, 제6 兩중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을무렵에 12km 後方인 抱川에 位置한 대대본부에서는 대대장 田舜基 소령이 一線의 危急한 戰況을 연대장에게 報告함과 아울러 增援兵力과 特別 對戰車 火器의 支援를 요청한 다음 제8중대장 朴基淳 중위를 帶同하고 萬世橋 哨所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06.00에 여기에 도착한 대대장은 곧 예비인 제5중대로써 北萬世 左右側方의 △160와 △208에 沿한 阻止陣地를 急編케 하여 연대의 主力이 進出할 때까지 遲延戰을 꾀기로 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梁文橋를 넘어 萬世橋쪽으로 指向하고 있었으니, 43번道路를 따라 主力으로써 侵攻하리라고 判斷한 대대장의 豫見은 適中하였으나, 小銃만을 들고 稜線을 지키는 병사로서는 이 機械化부대를 堪當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 2. 萬世橋里 부근의 遲延戰

연대장 尹春根 중령이 첫 報告를 받은 것은 04.30이었다.

그는 대대장의 有線報告를 받는 瞬間에 近來에 惹起된 一連의 事件이 연상되어 이것이 곧 敵의 大規模 攻擊일 것으로 判斷하고 이 사실을 사단에 報告하는 한편 聯隊非常에 突

入하였다.

그리하여 金梧里에 待機中인 제1, 제3 兩대대로 하여금 『天柱山(△424)—加郎山(△350) 간의 主陣地를 占領하여 既定方針에 따라 敵을 阻止, 擊滅토록 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 田舜基 소령에게 現位置에서 최대한의 遲延戰을 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兩대대가 出動態勢를 갖추는 동안에, 許鉉 대위가 지휘하는 57mm 對戰車砲 중대로 하여금 萬世橋로 直行하여 戰車隊의 銳鋒을 擊碎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2.36"Rocket 砲 12門을 모아 역시 萬世橋부근의 要線을 지키도록 後續, 急派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의 사정이 如意치 않아, 對戰車砲중대는 牽引車輛이 없기 때문에 3 門만을 于先 Jeep차에 끌고 올라갔으며, 2.36"Rocket 砲를 들고 나선 特殊任務부대도 20 餘발의 彈藥만을 携帶한채로 그 뒤를 따랐다.

뿐만 아니라 제1, 제3 兩대대가 05.30까지 彈藥과 비상食糧의 支給등 출동태세를 갖추었으나 輸送車輛이 없어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 까닭은 이때에 연대는 100餘 Drum의 貯藏燃料을 確保하고 있으면서도 大部分의 차량을 修理次 返納하여 이 시간 現在 2 $\frac{1}{2}$ ton 5台밖에 可動차량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3km 前方의 主陣地로 2個 連대 兵力의 同時輸送이 困難한 까닭에, 우선 제1대대의 一部兵力을 先發시킨 다음 남은 主力은 民間車輛을 徵發하여 後續기로 결정짓고 憲兵을 議政府 邑內로 急派하였다.



<遲延戰을 展開한 萬世橋>

이렇듯 時間이 지연되다가 09.00에야 主力이 向發케 되었으니, 사실상 제2대대의 支援은 對戰車砲 3문과 Rocket포 12문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4시간 동안을 홀로 孤軍奮鬪한 제2대대는 一線 分散兵力의 수습에 힘쓰며 北萬世線의 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08.00를 前後하여 다시 侵襲하기 시작한 敵이 43번 道路를 따라 밀고 내려왔다.

그런데 이들은 陣地공격 보다도 急速進出을 爲主로 삼아 例의 戰車를 앞세우고 밀려들자, △208 北麓의 제5중대 제2소대(장, 李學鳳 소위) 진지에서 機關銃 逆射火力으로 集中打를 加하니, 先頭戰車가 萬世橋 北쪽 300m 거리에서 一프 멈추어 서면서 砲口를 돌려 陣地를 反擊하였다.

이로부터 중대는 可用한 모든 火力으로 敵의 戰車에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實彈만 消盡케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연대에서 急派한 對戰車砲 중대(一)가 萬世橋에 다나왔다.

千軍萬馬보다 더 期待되는 3門의 對戰車砲를 同중대장 許 鉉 대위가 직접 지휘하여 萬世橋 南쪽 20m의 路邊에 放列하니, 이제 勝敗의 關鍵은 이 一戰에 걸린듯 하였다.

이리하여 陣前 50m까지 敵을 유도한 同중대(一)는 緒彈으로 先頭車를 命中시키고 歡聲을 지르며 기뻐하였으나 그것은 一瞬뿐으로 破壞된줄 알았던 戰車는 오히려 暴露된 진지에 砲擊을 連發하며 계속 陣前으로 肉迫하는 것이었다.

이에 左側砲가 다시 數發을 더 命中시켰으나 아랑곳없이 目前으로 殺到하니, 驚怯한 병사들이 照準鏡만을 빼어들고 新垆(抱川 北쪽 5km)쪽으로 급히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敵의 戰車隊가 萬世橋를 넘어 다시 抱川쪽으로 指向하자, 이번에는 新垆(炭場 北쪽 2.5km) 부근에 潛伏한 2.36"Rocket砲 特攻隊가 이를 노려 先頭に 나타난 2臺의 戰車에 集中打를 加하였다.

그러나 이도 또한 3.25 inch 鐵板을 貫通치 못한채로 機銃의 逆射에 휘말리고 말았으니, 결국 57mm 對戰車砲와 2.36"Rocket砲마저 T-34型 戰車앞에 無力하게 되어, 새로운 對策이 講究되지 않는限 이 驕醜를 阻止키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反面에 敵은 威勢를 돋우어 新垆 阻止線을 突破한 다음 다시 炭場線으로 侵攻하니, 이때가 09.40으로 萬世橋 부근의 遲延戰은 2시간을 채 지나지 못하였으며 제2대대 제5중대의 將兵들은 丘陵에서 이를 俯觀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 3. 제9연대 제1대대의 赴援

이상과 같이 緒戰에 苦役을 치른 제2대대는 北萬世 진지가 突破된 뒤로 退路가 遮斷되어 體索있는 撤收을 하지 못하고 各個 分散된채로 丘陵을 따라 轉進케 되었으며, 43번 道路上에는 南으로 向한 避難民 隊열이 줄을 이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新塋을 넘어선 敵의 戰車隊가 炭場으로 밀려오고 있었는데, 忽然 內村로 부근에서 柳桓博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2)가 나타나 이를 가로 막아섰다.

同대대(-2)는 前述한 바와 같이 이날 05.00에 非常에 突入한 뒤로, 車輛사정으로 말미암아 出動이 遲延됨에 따라 대대장이 직접 81mm 박격포 3문과 제3중대의 兵力 100명으로 先發隊를 편성하여 待機中인 5臺의 연대 차량편에 先發한 바 있거니와, 危局에 處한 제2대대를 救援코자 抱川을 지나 萬世橋로 急上하던 바, 炭場 北쪽 1km의 內村로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敵의 砲擊이 激甚하여 여기에서 激擊態勢를 취하고 있다가 先頭 戰車를 掩擊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대대(-2)는 崔春三 중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를 △219(炭場 東北쪽 1.5km) 西麓에 短促시키고 1個 迫擊砲班을 바로 그 西쪽 溪谷에 放列케하여 待機하던바, 新坪里 부근에서 步兵의 掩護도 없는 2臺의 戰車가 나타나 제3중대 陣前으로 近接하자 同時集中 火力로 強打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兩戰車는 더 이상 進入하지 않고 四面으로 몇차례 發射을 휘두르다가 다시 萬世橋쪽으로 後退하고 말았다.

이는 推測전대 機械化 偵察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거니와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때에 敵은 避難民 隊列속에 偽裝된 便衣隊를 投入하여 연대 後方의 動靜을 探索하였다고 하니, 이들은 分明히 北萬世 진지를 突破한 然後에 戰列을 整備하면서 抱川 부근의 兵力 配置상황을 窺察코자 한 것으로 分析된다.

어쨌든, 接敵 以後에 最初로 이를 물리친 대대(-2)는 계속 陣地를 補強하면서 主力의 來到를 苦待하던바, 제1중대의 博수가 달려와, 『지금 대대의 主力이 炭場에 當到하였다.』라고 急報하였다.

이 本隊는 제1중대장 李載鉉 중위가 지휘하여 議政府에서 徵發한 12臺의 民間車輛편에 推進되었거니와 이제 대대의 全兵力 650명이 合勢하자 대대장 柳桓博 소령은 연대의 指示에 따라 主陣地를 占領키로 하였다.

이러하여 이날 아침 殊勲을 세운바 있는 제3중대에서 1個 小隊를 뽑아 △219 西麓에 前哨로 남기고, 主力을 한걸음 뒤로 물러세워 天柱山(△424) 西쪽의 △195 一帶에 마련된 主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제1중대와 제2중대(장, 尹炳俊 중위)를 左右 第一線으로 삼아 그 北麓에 배치하고, 제3중대(-)는 43번道路에 沿한 西側陣地를 精력케 하는 한편 重火器 중대는 바로 그 南쪽 溪谷에서 支援토록 조치하였다.

바로 이무렵 연대장 尹春根 중령이 現地로 나와, 제5포병대대(장, 李奎三 소령)의 2個 砲隊가 抱川에 當到하여 支援態勢를 갖추고 있다는 朗報와 함께, 期必코 이 炭場線(天柱山—加郎山간의 主陣地)에서 敵을 阻止擊滅하자고 다짐하여 將兵들을 激勵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또 제3대대가 後續하였는데, 同대대는 대대장 李哲源 소령의 지휘아래

現地에 進出하는 즉시로 新北大橋 西側의 加郎山으로 뛰어올라 陣地를 急編하였다. 즉, 林允善 중위가 지휘하는 제10중대를 右第一線으로 同山 東麓에, 崔奎鎭 중위가 지휘하는 제9중대를 左第一線으로 그 北麓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1중대(장, 대좌 李昌秀 중위)를 加采里의 五壯洞 마을에 控置함으로써 동대대는 43번 道路 西쪽에서 연대의 左一線 陣地를 占領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연대는 驍敵이 戰列을 가다듬는 好機를 틈타 天柱山을 背景으로 主抵抗線을 形成케 되었으며, 그 동안에 이들은 攪亂射擊을 퍼부어 이 主陣地帶는 勿論이요, 그 後方의 砲陣地 부근까지 휩쓸었다.

이같은 激浪속에서도 연대는 警戒陣地에서 苦戰을 치룬바 있는 제2대대를 收容하며 여기에서 一戰을 決할 態勢를 취하던바, 緒戰에 梁文里를 지키던 제7중대장 宋寧煥 중위가 6명의 兵士와 함께 血路를 뚫고 德嶺山(△350) 골짜기로 내려왔다.

이에 연대장이 직접 그를 面接하여 前方의 狀況을 確認하여 보니, 『甚한 砲擊으로 말미암아 過半數의 兵力을 잃고 戰車가 警戒陣地를 突破한 以後에는 병사들의 士氣가 極度로 저하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으며, 通信마저 杜絶되어 大대本部나 隣接中隊의 상황도 알 수 없이 敵中에 孤立되고 보니 不得已 철수케 되었다.』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撤收하기에 앞서 貯藏彈藥과 補給品을 破棄한 다음 西南쪽의 錦華峰으로 集結기로 하였는데 3km 쯤 뛰어 올라와보니, 병사들이 各個 分散되고 말았으며 그 뒤로는 秩序를 잡을 수가 없어 抱川에서 收拾할 예정으로 下行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敷衍하기를, 『지금 제2대대는 戰鬥力을 거의 喪失한 실정이며 남은 병력은 누구의 指揮도 없이 旺方山(△737) 기슭을 따라 議政府쪽으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였다.

그뒤로 여기에서 收容한 제2대대의 兵力이 30명도 못되었으니, 同대대의 情況을 推察할 수 있을 듯 하다.

어쨌든 이제 연대(一)는 제1, 제3 兩대대로써 炭場線에서 北傀 제3사단과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 4. 敵 機械化 部隊의 先攻

北傀 제3사단은 이날 拂曉에 38°線을 突破하여 10km 南쪽의 萬世橋 부근까지 突入한 後에 一旦 멈추어 戰列을 整備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10.30을 期하여 再攻擊에 나섰다.

이번에는 제7연대(장, 대좌 金昌原)로써 43번 道路를 따라 正面공격을 꾀하는 한편, 제9연대(장, 대좌 金萬益)를 西側의 325번 道路로 迂回시켜 一擊에 抱川을 奪掠코자 企圖한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이들은 本道에 공격의 重點을 두고 砲兵部隊(장, 대좌 安白成) 火力을 여기에 集中하는 동시에 機械化 부대를 先鋒으로 삼아 연대 主抵抗線의 中央地帶

를 突貫하여 장차 크게 攻圍코자 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런데 연대(一)는 兵力의 不足으로 43번 道路 兩側方의 天柱山과 加郎山에 陣地를 選定함으로써 西側方이 空白상태로 남은데다 對砲兵 장비나 對戰車 火器가 없으니,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그 歸趨如何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대(一)는 鎗戰의 例에 비추어 戰車隊의 先攻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2.36"Rocket砲를 新北大橋 부근에 重點配置하는 한편 제5포병대대의 火集點을 路上에 選定케 하여 對決態勢을 취하고 있던바 果然 內村里 부근에서 戰車 2대가 나타났다.

이 兩戰車는 後續部隊도 없이 機也里를 넘어서는데 白旗를 달고 있었으며, △195 前方 500m의 거리에 이르자 兩대대 陣地에서 集中사격을 加하고 또한 砲擊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抵抗없이 陣前으로 유유히 다가 왔다.

이때에 어디선가 “投降이다” 하는 말이 튀어나왔으며, 이로부터 一瞬이 지나자 제3대대 장의 射擊中止 명령이 떨어졌다.

이무렵 연대지휘소에서도 똑같은 現狀이 惹起되어,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情報課 先任 下士官인 尹永模 상사에게 『尹上士 가서 案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명령을 받은 선임하사가 道路쪽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이때에 投降을 假裝했던 兩戰車가 四面으로 一時에 機銃射擊을 加하였다.

推測컨대 이 兩戰車는 本隊를 引導코자 投降을 가장하여 進路를 開拓한 偵察隊로 分析되거니와 이 어이없는 失手로 말미암아 射擊軍紀가 흐트러지고 目前의 要路를 송두리채 내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때의 상황을 回顧하며, 당시 제9중대 機關銃소대의 先任下士官이었던 金壽元 상사는 말하기를 『敵이 白旗를 달고 投降을 가장하여 돌아온 迂回路가 戰車를 擊破하기에 좋은 位置였는데 놓치고 말았다.』고 아쉬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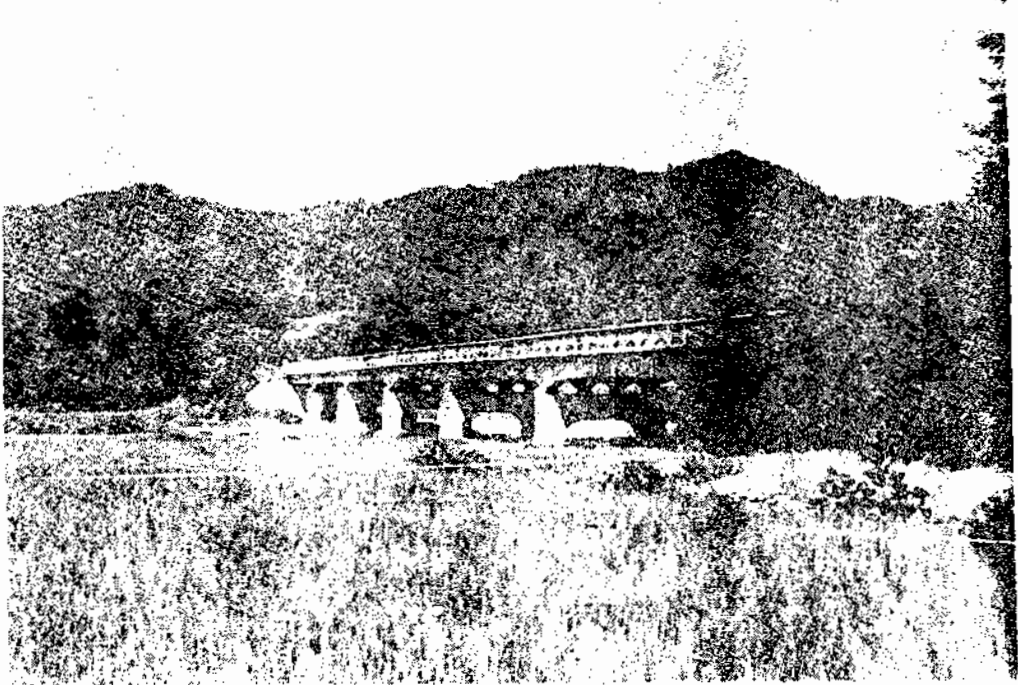
이로부터 敵의 戰車縱隊가 잇따라 殺到하는데, 그 先頭陣은 8台임을 헤아릴 수 있었으나 長蛇와 같이 뻗친 後陣은 그 數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리하여 그 先頭車가 新北大橋 부근에 이르자, 여기에 埋伏한 제3대대 제10중대의 Rocket砲 射手 李珍成하사가 第一彈을 그 軌道에 命中시켜 攔坐시키고 말았다.

이에 先頭車가 軌道를 잃고 路邊으로 미끄러지자 後續하던 先陣이 동시에 멈추며 右往左往하였으며, 이 好機를 捕捉한 Rocket砲 陣地에서 다시 第二, 第三彈을 連射 하였다.

그러나 이 戰車縱隊는 一瞬을 지나자, 미끄러진 先頭車를 灌溉水路에 밀어버리고 南進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橋梁부근에 위치한 Rocket砲 陣地에 砲擊을 퍼부음으로써, 여기에서 最初로 戰車를 破壞한 李珍成하사가 砲身을 안고 壯烈히 戰死하였다.

李珍成 하사는 全軍射擊대회에서 三等으로 入賞한 바 있는 名射手로서 “驚部隊”(제9연대의 別稱)의 將兵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模範士兵이었는데, 對戰車 공격의 先鋒에 나서 挺



<敵의 戰車를 破壞한 新北大橋>

身奮鬪의 垂範을 보였던 것이다.

제10중대의 제2소대장 王圭翼 중위는 當時의 상황을 回顧하되 3우리 소대가 新北面 事務所 뒷산에 配置되어 있었는데, 新北大橋 北쪽20m 直前方으로 敵의 戰車가 다가 서다가 一發砲擊과 함께 눈두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 뒤로 戰車砲火가 集中하는 것도 二彈 三彈이 계속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실로 感歎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그 勇戰相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勇戰도 보람없이, 이제 敵의 戰車縱隊가 新北大橋를 넘어 연대 主抵抗線의 中央地帶를 突破하기에 이르렀으니, 잇따라 밀려드는 騎兵과 Side Car 그리고 Truck 및 自走砲 등 後續隊列이 2km 長程에 펼쳐졌다.

草木으로 짙은 偽裝을 한 이 機械化 부대는 步兵砲火나 105mm 野砲에도 아랑곳 없이 一路 抱川으로 直行하였는데, 王圭翼 중위가 確認한 바에 따르면 69승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 威勢에 壓倒되어 兩대대의 將兵들은 이를 지켜보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陣内に 不安이 감뜰자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병사들의 戰意를 일깨워 後續步兵과 對決키로 決心하고 각 대대의 陣地를 補強토록 督勵하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左一線인 제3대대와 交信이 杜絶되어 傳令편에 命令이 下達되고, 또한 사단과도 有無線이 모두 끊겨 連絡將校편에 이같은 敵侵狀況을 報告토록 急派하였다.



이무렵 主抵抗線을 突破한 敵의 機械化부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一路 南進하여 11.00에 抱川을 無血占據하였으며, 敵 제9연대(장, 대좌 金萬益)는 加郎山 西쪽의 怨營峰(俗稱 무럭고개)을 넘어 이와 合流하니, 抱川에 위치한 제5포병대대(-)가 이 壓力으로 말미암아 魚龍洞(抱川 南쪽 1km)부근으로 물러서고 하나밖에 없는 退路가 막혀 연대(-)는 敵의 重圍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 5. 제9연대 主抵抗線의 崩壞

一陣狂風이 지난 뒤로 연대(-)의 將兵들은 後續 徒步부대만은 期必코 擊滅키로 다짐하고 現陣地를 固守하던바, 機械化부대가 지난 1시간 뒤에 이윽고 敵의 步兵이 侵攻하였다.

이들은 연대 主力의 配置線을 窺知한듯 먼저 砲擊을 加하였는데, 120mm 박격포를 비롯한 122mm 榴彈砲와 76mm 野砲 등 曲射火力으로써 特히 제1대대의 진지인 天柱山 西麓에 集中砲擊을 加한 다음 43번드로를 따라 二列縱隊로 進을 지어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사단의 제5포병대대(장, 李奎三 소령)는 이때에 抱川에서 戰車의 壓力이 밀려 撤退케 됨으로써 一發의 砲擊도 加하지 못하니, 2,000餘명으로 推算되는 驕驍는 아무런 障礙없이 계속 陣前으로 다가왔다.

이리하여 그 先頭가 炭場 南쪽 400m의 “ㄷ”字型 回廊으로 접어들자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의 信號에 따라 一齊히 同時 集中射擊을 퍼부으니 그 先端이 흩어져 東南쪽 隸線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2중대(장, 尹炳俊 중위)의 제3소대장 金周泰 소위는 △219 西麓에서 側射火力을 휘두르고 제3중대(장, 崔春三 대위)의 제2소대(장, 車圭憲 소위)와 제3소대(장, 金一起 소위)는 △195 中腹에서 溪谷과 稜線 下端으로 해매는 무리를 強打하니, 兩面 挾攻속에 先攻一團이 滅裂되어 炭場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後續 主力은 십사리 물러서지 않고 現地에서 散開한채로 한동안 沈默을 지키더니, 12.00를 期하여 再攻撃을 敢行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제1대대의 진지를 攻圍하는 한편 主力으로써 中央突破를 企圖하여 43번 도로 兩側方에서 匍匐과 躍進으로 野地를 橫斷코자 하였다.

이에 제1, 제3 兩대대의 將兵들은 可用한 모든 火力으로 力鬪를 벌이던 바, 12.40을 前後하여 突然 側後方에서 4臺의 戰車가 나타나 威脅射擊을 加하였다. 이 戰車隊는 抱川을 占據한 기계화부대의 一部가 步兵의 進路를 打開키 위하여 反轉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바로 加郎山 東南쪽의 加采邑 부근까지 다가서서 背後를 위협하니, 兩대대의 진지에 混亂이 惹起되었으며, 특히 集中사격을 받은 제3대대(장, 李哲源 소령)는 一部의 병사들이 陣地를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敵의 先頭가 新北大橋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제3대대와는 通信

마저 杜絶되어 情況을 把握할 수가 없었으며, 제1대대도 이날 세 차례에 걸친 對決 끝에 42명이 戰死하고 80여명이 負傷케 되는데 携帶한 彈藥을 모두 消耗하고 보니 戰意가 떨어져, 보다 積極的인 防守策을 취하지 못한채로 現陣地를 지키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에 反하여 敵은 陣地 공격보다도 南下進出에 主眼한듯 戰車의 掩護下에 主力으로써 新北大橋를 通過하니, 이때가 14.00로서 3시간 동안에 걸친 奮鬪도 보람없이 끝내 연대의 主抵抗線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무렵 抱川 부근에서도 제5포병대대가 激浪에 휘말리고 있었다.

同대대는 敵의 機械化부대가 抱川근으로 殺到할 무렵 松隅里로 撤退하기 시작하였는데, 先頭 戰車隊의 急速한 侵襲으로 말미암아 魚龍洞(抱川 南쪽 1km)부근에서 그 後尾가 拚히 7門의 砲를 버리고 西南쪽 山麓으로 分散케 되었으며 겨우 砲 2門만이 松隅里로 빠져 나왔던 것이다.

이에 이르자 同대대장 李奎三 소령은 責任을 痛感한 나머지 권총을 빼들고 自決하려 하니 朴鍾吉 상사가 挽留한 끝에 鎮靜케 되었으나, 이로부터 同대대는 사실상 機能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 뿐만 아니라 부연대장 崔錫鏞 중령이 金梧畝의 本部에서 行政要員으로 戰鬪小隊를 편성하여 炭場으로 急派하였는데, 抱川 南쪽에서 이 戰車隊와 부딪혀 다시 反轉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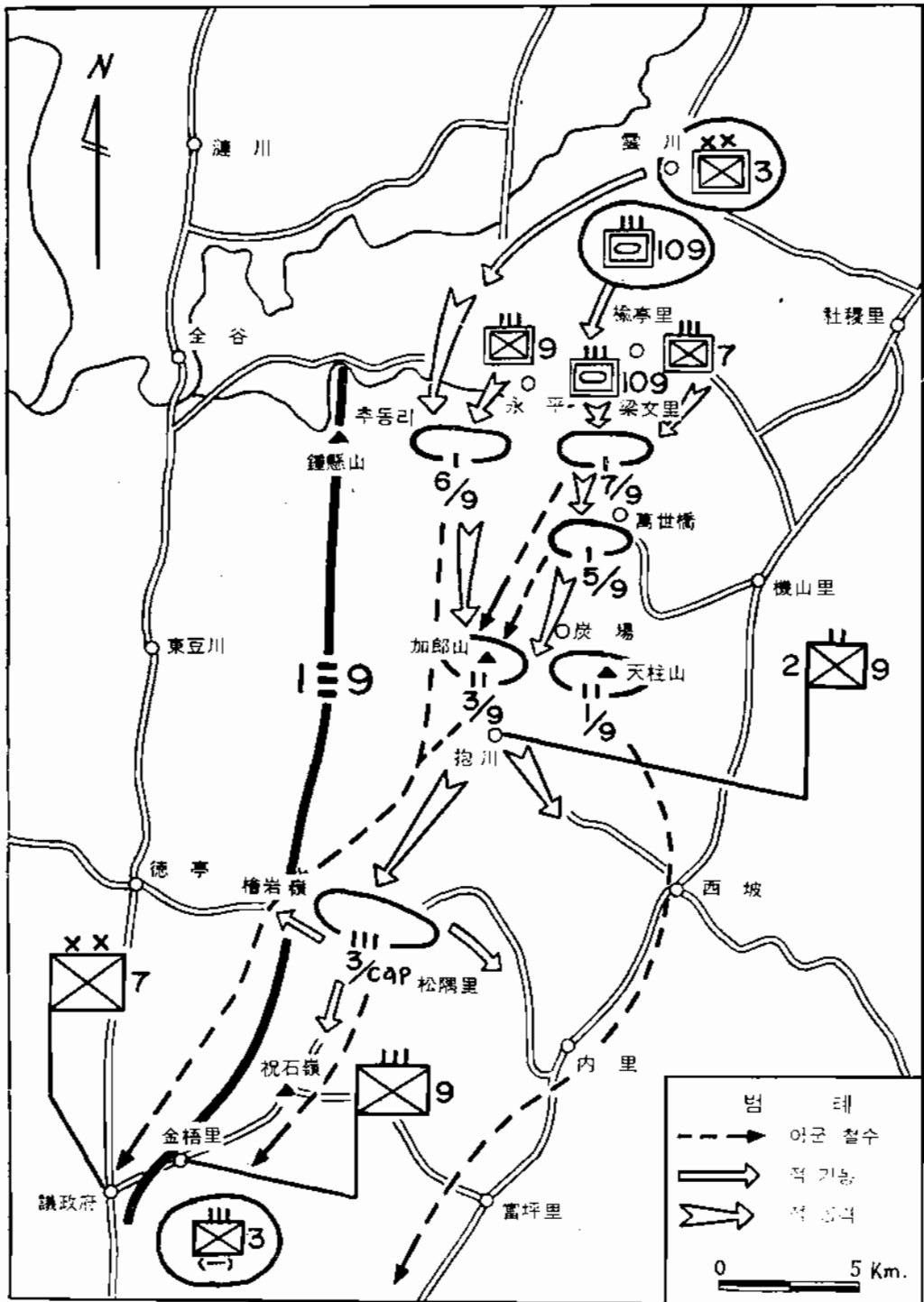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戰況이 크게 기울고 있을 때 비로소 사단에서 첫 명령이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를 보면 『지금 제3연대가 抱川으로 出動中이니 이와 協調하여 炭場線에서 敵을 阻止擊滅토록 하라. 萬一 現地에서 阻止不可하면 豫備陣地에서 이를 擊滅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곧 연대의 主陣地인 天柱山—加郎山간에서 敵을 阻止하거나 不然이면 예비진지인 抱川 東西 兩側方의 靑城山—△180線에서 막으라는 內容으로서, 連絡將校편에 口頭로 傳達되었는데, 이 兩陣地가 모두 敵線 後方에 놓여 아무런 뜻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으니, 실로 暗膽한 일이었다. 더구나 抱川을 떠난 뒤로 사단과 交信이 끊어져 今後의 對策을 問議할 수도 없으니 막연하기만 하였다.

이 명령 自體만 보더라도 明確性을 缺하여 通信이 杜絶된 狀況下에서 指揮措置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듯 하거니와 21km 後方에 位置한 사단장으로서의 一線 指揮官의 裁量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든, 이 命命에 接한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한동안 苦心하다가 斷案을 내려, 敵이 靑石嶺을 넘기 전에 增援部隊와 合勢키로 決心하고, 그 進路를 抱川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光陵 敬유 議政府로 直行할 계획 아래,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에게 『現 陣地를 離脫하여 光陵으로 集結하라.』는 命命을 하달하였다.

◇ 상황도 제11호 제9연대의 戰況



그러나 제3대대(장, 李哲源 소령)와는 通信이 杜絶되어 끝내 連絡을 취하지 못한채로 연대본부는 제1대대와 함께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은 各中隊長을 불러 撤收경위와 進路를 說明한 다음, 제2중대장 尹炳俊중위에게 尖兵任務를 賦與함과 아울러 『지금 直後方の 稷頭里 溪谷에 敵의 流動兵力이 있으니 天柱山 東側으로 돌아 西坡로 빠지라.』고 지시하고 自身은 연대장과 함께 그 뒤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4중대장 權鍾 중위에게 重火器를 먼저 뽑아 先行토록 하는가 하면 모두 陣地 離脫時에는 小路를 따라 敏捷한 行동을 취하도록 당부하는 등 行動指針을 分明히 하였다.

그러나 이제 機動하려고 하니, 白晝에 敵前에서 대대병력의 移動이 쉽지 않아 信號를 보내지 못하고 躊躇하던 바, 17.00를 前後하여 마침 먹구름을 등진 驟雨が 쏟아져 10m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天明을 가리자 이 틈을 타 雨中에 兵力을 뽑아 芝峴里—明德里—西坡로 強行軍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날밤 21.00에 內里부근에 當到하니, 陸軍士官學校의 生徒大隊(장, 趙岩 중령)가 泰陵으로 通하는 交叉路 南쪽에서 陣地를 占領하고 있는지라, 그 西쪽의 八夜里 부근에서 하루밤을 露宿하고 다음날 光陵으로 내려왔는데, 이때에는 議政府가 이미 敵手中에 떨어져 倉洞線으로 밀리게 됨에 따라 다시 東南쪽으로 轉進 끝에 26일 밤에 同士官學校로 集結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命숨을 받지 못한 제3대대는 남은 병력으로 加郎山의 陣地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날 밤에 單獨으로 撤收하여, 旺方山 기슭을 따라 槍岩嶺을 넘은 다음 東豆川 街道의 德亭부근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轉進중에 대부분이 落伍되어 다음날 아침에 玉井里로 集結한 兵力이 100餘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로 이 兵力은 제1연대와 合勢하여 議政府로 後退하다가 天寶山 北쪽에서 다시 分散되어 그 一部만이 牛耳洞으로 集結케 되는바, 그 過程은 제1연대의 反擊狀況에서 詳述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抱川 正面에서 北傀 제3사단과 對決끝에 衆寡不敵으로 分散되어 戰鬥力을 거의 喪失하고 제1대대만이 泰陵으로 集結케 되었던 것이다.

## 6. 제3연대의 戰鬪參加

抱川 正面에서 제9연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인 이날 上午에 사단에서는 제5포병대대(-)만을 增派하고 後續 豫備兵力이 없어 기울어지는 戰況을 지키보던바, 육군본부에서 首都警備司(司令官, 李鍾贊 대령) 隸下의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를 急派하였다.

즉, 陸本作命 제85호(1950. 6. 25. 14. 00附)로써 下達된 出動命令의 要旨를 보면,

『① 敵은 38°線 一帶에 亘하여 南侵하고 있다.

② 軍은 一部の 兵力을 移動하려 한다.

③ 首都警備사령관은 隸下의 제3연대를 議政府로 即時 出動시켜 제7사단에 配屬하라.

④ 제7사단장은 前項의 제3연을 統合指揮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命令은 文書上으로 볼 때에 14.00에 下達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其實은 이날 10.00에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이 當사단으로 來訪하여 戰況을 淸취한 자리에서 사단장 劉載興 준장에게 同연대의 配屬을 約束한 뒤로, 서울로 돌아가 11.00에 口頭로 出動命令을 下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同연대가 當到하면 戰況이 危急한 抱川 正面에 增強키로 이미 腹案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同연대는 本是 제7사단의 隸屬부대로서 戰爭勃發 10일 前까지 사단의 豫備로 있다가 陸本 一般命令 제43호에 依據하여 6월 15일附로 隸屬이 변경되어 首都警備司 傘下로 編入된 까닭에 어느 부대보다도 그 實情을 잘 아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出動에 즈음하여 사단장의 期待에 副應할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였다. 在京部隊로서 將兵 대부분이 週末外出中이거나 休暇中인 까닭에 非常에 突入한 05.00 現在 營內의 兵力이 450명 이었으며, 11.00까지 非常召集된 연대의 總兵力이 65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과 제2대대장 申彦國 소령이 아직 歸隊치 않아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이 홀로 出動準備에 東奔西走하고, 各 중대의 경우에도 중대장을 代理하여 先任將校가 指揮케 된 중대가 6個 중대나 되었다. 그리고 보다 根本的인 문제는 兵力이 殆不足하여 3個 대대의 병력으로 1個 대대를 混成 急編함으로써 各 兵士들 사이는 勿論이요, 中·小隊長이 面識조차 없는 부하를 거느리는 형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代表的인 例로 제12중대의 경우를 보면, 중대장 朴英杰 대위가 아직 歸隊치 않아 先任將校인 金玆經 중위가 맡아 3個 소대를 편성하였는데, 各 大隊의 重火器 要員으로 階級과 職責만을 보고 射手와 副射手 및 彈藥手를 각각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다른 부대보다 먼저 대대훈련까지 마쳤다는 自負心이 있어 一戰을 決할 태세로 12.30에 西水庫에 있는 연대본부를 출발하였는데, 20臺의 徵發車輛 편으로 分乘하여 市街를 지날 때 沿道の 市民들이 『成功하여 돌아오라.』고 歡送하니 더욱 士氣가 드높아 14.00에 議政府에 當到하였을 때에는 자못 기세가 당당하였다.

여기에서 사단 作戰參謀 李暎圭 중령으로부터 大體的인 戰況說明을 들은 다음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9연대의 激戰場인 炭場으로 直行하였는데, 東北쪽으로 13km를 달리 15.00에 抱川 西南쪽 2.5km의 自作里 부근에 다다르니, 벌써 敵의 砲火가 여기에 미치고 抱川 邑內에 放火의 불길이 치솟았다.

뿐만 아니라 避難民 隊列이 南으로 줄을 잇고 제9연대의 負傷兵 200餘名이 擔架에 실려 내려 오는데, 그 사이에 對戰車砲와 몇문의 105mm 野砲가 빠져 나오면서 抱川에 敵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당시에는 이미 제9연대의 主抵抗線이 무너져 敵의 徒歩部隊가 炭場을 通過한지 1시간이 지나고 機械化부대가 이보다 3시간 전에 抱川에 突入하였던 것이니, 이제 공격의 화살이 곧 目前에 다다른 急況이었다.

그러나 사단장으로부터 炭場으로 直行하라는 명령을 받은 연대장 李尙根 중령은 敵情을 確認키 위하여 搜索소대장 金哲淳 중위로 하여금 소대병력을 지휘하여 抱川까지 威力偵察토록 지시하고 自身은 周圍의 地形을 살피던 바, 15.30에 이르러 수색소대장으로부터 魚龍洞(抱川 南쪽 1km) 부근에 敵의 戰車가 나타났다는 報告가 入手되자 곧 主力을 反轉시켜 3km 後方인 松隅里에서 急編防禦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 松隅里는 西쪽으로 檜岩嶺을 넘어 東豆川 街道의 德亭과 橫으로 연결되는 要地로서, 萬一 이 목을 지키지 못한다면 祝石嶺까지 8km 사이에 다시 防守陣을 構築할만한 適地가 없는 까닭에 연대(-)는 華峰山(△182)과 海龍山 東南쪽의 △178를 防牌삼아 이 要線을 固守키로 打집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松隅橋를 中心으로 左右 側方에 각각 2個 中대씩 配置하는 한편 李尙根 중위가 지휘하는 混成 제11중대로 하여금 43번 도로를 包含한 中央地帶를 擔當케 하여 陣地作業에 着手하였는데, 이때에 마침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이 現地에 當到하자, 그에게 東側의 2個 中대를 指揮케 하고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은 제11중대를 포함한 西側의 3個 中대를 맡아, 兩대대로써 防禦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연대장 李尙根 중령은 長松隅 北쪽의 △134에 연대 觀測所를 設定하여 제3대대장과 함께 同高地로 올라가 本隊를 掌握하고, 57mm 對戰車砲 2門을 그 東側의 路邊에 配置하였으며, 연대 通信隊長 金聖奎 중위와 제1대대의 通信소대장 金德壽 소위는 通信網을 構成하는 등 對決태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各中隊는 混合編成된 脆弱性을 지니고 또한 對戰車 防禦策의 不備 등으로 아직 許多한 문제點을 안고 있었다. 당시의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은 이때를 回顧하며 證言하기를, 『내가 15.00에 議政府에 到着하여 사단장 劉載興준장으로부터 “너의 部隊가 抱川쪽으로 나갔으니 빨리 가보라”는 激勵와 함께 地圖 한장을 받아들고 16.00에 이곳에 당도하니, 一部의 配置된 兵力과 後續兵力 그리고 各 中대의 混合된 兵士들이 뒤범벅이 되어 秩序를 잡을 수가 없고, 指揮官들은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채로 戰車, 戰車하면서 여쭙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하니, 兵力의 多寡에 못지 않게 組織力의 重要性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렇듯 難題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兩대대는 混線兵力을 再調整하면서 계속 진지를 構築하던바, 17.00을 前後하여 敵의 砲擊이 激烈하게 불을 뿜고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심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때에 兩대대에서는 個人擦의 경우, 2/3程度 掘鑿하였을 무렵이었는데, 이같이 砲擊이

激增하자 陣前을 살펴보니, 2,000m 直前方의 道路上에 一團의 機械化 부대가 나타났다. 이들은 마치 나무단을 쌓아올린 牛馬車 隊列과 같이 짙은 偽裝을 하고 南進을 계속하는데 어느덧 그 先頭가 仙檀里를 지나 1,500m 前方으로 다가섰다.

이에 兩대대의 陣地에서 一齊히 射擊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연대의 重火器가 集結된 제 12중대는 중대장 代理인 金玆經 중위가 直接 陣頭지휘하여, 『거리 1,300』을 불러 81mm 박격포 1個班의 砲火를 誘導하는가 하면, 同小隊長 崔少樹(本名未詳)는 다른 1個班을 맡아 砲手 陳三燮 일등 중사에게 高爆彈을 쓰라고 외치고 다시 距離가 가까워짐에 따라 同 중대의 機關銃 射手 李在哲하사는 長松隅 부근에서 機銃을 휘드르는데 重火器 火力을 퍼부었으며, 이와 더불어 각 小銃중대도 60mm 박격포와 各種小銃으로 同時 集中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 機械化부대는 아랑곳 없이 계속 車前으로 밀려 들더니, 先頭에선 2臺의 戰車가 長丞거리 부근에 멈추어서면서 제3대대의 觀測所에 砲擊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8臺의 戰車가 이에 加勢하여 砲擊과 機銃으로 兩대대의 陣地를 威嚇하는데, 특히 重火器진지에는 포격이 심하여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때에 57mm 對戰車砲가 불을 뿜어 長丞거리 부근에 비티고 선 전차에 一擊을 가하고, 또한 제11중대(장, 李泰根 중위)의 火器소대장 李政寅 소위가 이끄는 2.36"Rocket砲의 直擊彈으로 鐵甲을 命中시켰으나 이 亦是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敵의 逆射火力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敵의 戰車隊가 松隅里의 防禦陣을 突破케 되자, 後續 步兵만이라도 擊滅코자 하였으나, 잇따른 後續縱隊는 步兵뿐만 아니라 戰車와 白走砲를 비롯한 各種車輛이 長蛇陣을 이루어 밀려드니, 더 이상 抗拒의 手段을 잃고 말았다.

제3중대(장, 趙在俊 중위)의 제3소대장 金鶴石 소위는 여기에서 150餘臺의 各種車輛을 헤아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701호를 標識한 戰車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戰況이 急轉하여 當面한 對策이 火急한데 아무도 다음 行動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18.30에 이르러 敵의 步戰協同부대가 侵攻하자 兩대대의 陣地가 무너져 東西 兩側方으로 分散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때의 狀況을 回顧한 제2대대의 人事將校 柳範相 중위는 證言하기를 『戰車와 步兵이 正面 對決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몇 차례 機銃射擊에 휩쓸리고나니, 恐怖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때에 步戰協同부대가 밀려들었다. 그런데 연대장의 行方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으로부터 撤收명령을 받고 議政府 쪽으로 빠져 나왔으나 이때에는 兵力이 크게 分散된 狀況이었다.』고 하였으며, 제12중대장 代理인 金玆經 중위도 大同小異한 經緯를 證言함과 아울러 撤收의 適機를 놓쳤다고 아쉬워 하였다.

그 뒤로 연대(-)는 各大隊長의 單獨決定에 따라 撤收케 되었는데, 대체로 제1대대는 43번 道路 東側에서, 제3대대는 그 西側에서 각각 退路를 모색케 되었으나 兵力이 크게 分散되어 이 過程에서 대부분이 本隊와 離脫하여 議政府를 目標로 轉進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이 이날 밤 20.00까지 祝石嶺에서 收容한 混合兵力이 150명 밖에 되지 않아, 21.00에 다시 이곳을 떠나 金梧里 南쪽의 △155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제3연대의 松隅里 戰線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抱川地域은 敵의 獨舞台로 化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議政府 東北쪽의 防備가 急迫한 狀況에 이르렀다.

#### (나) 東豆川 부근의 戰況

抱川 地域에서 제9연대가 血戰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이날 拂曉에 東豆川 地域에서는 北傀 제4사단이 제1연대(장, 咸俊鎬 대령) 正面으로 侵攻하였다.

同사단은 소장 李權武의 지휘아래, 연대규모의 사단砲兵과 제107戰車연대 등 步戰砲의 三者協同으로 京·元街道를 따라 侵襲한 것이다.

이들은 抱川 地域에서와 마찬가지로 30분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으로 연대의 警戒 陣地인 哨城里—兩遠里—積岩 一帶를 強打한 다음, '제16연대(장, 대좌 朴勝熙)를 先鋒으로 삼아 舍谷—東豆川간의 3번 道路를 따라 正面直衝케 하는 한편 제5연대(장, 대좌 崔仁德)를 그 西側의 積岩—鳳岩里 軸線으로 併進시켜 東豆川을 포함한 周邊의 要路를 一舉에 掠取코자 한 것으로 推斷된다.

당시에 연대는 사단 賈任地域의 左側인 鍾懸山(△588)—哨城里—積城간의 21km에 達하는 廣正面을 맡아, 李義明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로 하여금 一線陣地를 專擔케 하고,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와 제3대대(장, 金煌穆 소령)는 연대 指揮所(議政府 西쪽 1km)의 直洞) 부근으로 集結시켜 小部隊訓練을 실시하였는데, 이같은 일단의 무리들이 侵攻한 것이다.

이날은 마침 日曜日이라 全軍에 週末 外出을 許容하였음은 이미 詳述한 바 있거니와 연대의 경우에는 20일을 前後하여 前方의 敵情이 混迷해지자 24일(土) 外出 施行에 앞서 이 문제를 論議한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情報主任 金明善 대위는 『外出을 中止하고 營內休務토록 하자.』고 強調하는 反面에 人事主任 金萬振 대위는 『오랫동안의 非常警戒令이 解除된 만큼 병사들의 士氣를 고려하여 施行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함으로써 한동안 議論 끝에 結局 제2대대와 1個 非常待機중대만을 남기고 實施키로 결정하여 1/2 병력이 外出 또는 外泊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指揮系統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제1연대장 咸俊鎬 대령은 赴任한지 1個月 餘 밖에 안되어 아직 部隊實情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데다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은 歩兵學校



高等軍事班에 被教育中이었고 제3대대장 金煌穆 소령은 30일附로 參謀學校에 入校命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에, 연대는 제2대대가 홀로 哨城里—積城간의 一線진지를 專擔하여 警備하고 28km 後方의 연대本部에 1個 非常待機중대가 殘留한 상태에서 增強된 사단규모의 敵과 對決하게 된 것이다.

### 1. 제1연대 제2대대의 戰況

제2대대는 本戰鬪가 勃發하기 3個月 前인 3월 下旬에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와 任務를 交代하여 警戒陣地를 맡게 되었다.

당시에 대대장 李義明 소령은 제5중대(장, 金鍾相 대위)를 右第一線으로 삼아 東豆川北쪽의 哨城里 부근에, 제6중대(장, 崔春楨 중위)는 兩邊里—積岩간의 左第一線 진지에 각각 配置하는 한편 제7중대(장, 金東勳 중위)는 예비로 대대본부와 함께 東豆川에 控置하였다.

이리하여 1個月마다 1個 중대씩 交代키로 方針을 세우고, 5월 27일附로 右第一線인 哨城里 진지를 제7중대로 하여금 擔當케 함으로써 결국 이날 現地에는 제7, 제6 兩중대가 第一線에서 警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5중대장 金鍾相 대위는 그 동안에 연대 情報主任으로 轉補되었다가 다시 6월 19일附로 東豆川에 臨時 設置된 聯合情報處—各部隊의 情報要員이 東豆川 부근에서 많이 活動하고 있는 까닭에 서로 協調하고 調整키 위하여 設置한 臨時機構—의 責任者로 拔擢된 바 있었는데, 그는 40명의 搜索隊員과 20명의 情報要員으로 積城—積岩—高浪浦—胥山里등, 제2대대의 진지간에 暴露된 據點을 골라 1個 分隊씩 배치하여 諜報收集 활동을 함으로써 대대와 密接한 관계에 있었다.

이 밖에도 당시 情報系統에서는 非常상태에 突入하여, 陸軍本部 戰鬪情報課 소속의 諜報隊 1個班 20명이 崔學模 중위의 引率下에 24일 밤 21.30을 前後하여 哨城里를 거쳐서 全谷으로 들어가 敵의 動靜을 살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아래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集中砲擊으로 먼저 警戒陣地를 強打한 다음, 一隊는 全谷에서 漢灘江을 건너 哨城里로 侵攻하고 다른 一團은 東梨里(全谷 西쪽 6km) 부근에서 臨津江을 건너 都監浦—花房村간의 小路를 따라 侵襲하였다.

이같은 敵侵襲列을 맨 먼저 발견한 것은 諜報收集차 全谷으로 潛入한 첩보대 소속의 崔學模 중위로서 그는 공격준비사격이 감행되고 있을 때에 全谷 西南쪽 1km의 砂浪里 부근에 潛伏하고 있었는데, 이슬비 내리는 어둠속에 群兵의 움직임이 보이자 確認하여 본 결과 南進을 재촉하는 攻擊隊列이 分明하여 이를 곧 哨城里의 제7중대 哨所로 連絡코자 하였으나 砲擊으로 말미암아 有線이 끊겨 傳命을 哨所로 急派하였다. 그러나 이 傳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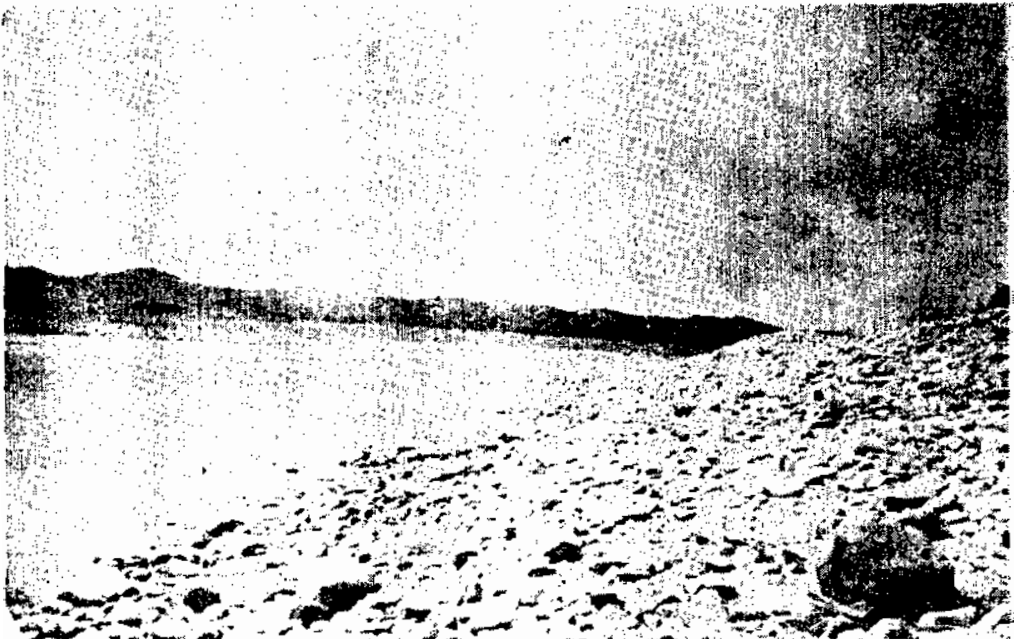
哨城里에 當到하였을 때에는 이미 狂波가 여기에 밀려 警戒陣地에서 自兵對決을 벌이고 있는 實情이었다.

이때에 제7중대(장, 金東勳 중위)는 哨城驛 부근에 本部를 두고, 崔文榮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를 그 東北쪽의 △204—鶴潭間に 配置하는 한편 2個 分隊의 哨兵으로써 漢灘江 南岸의 要路를 警備하고 있었는데, 敵은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主力으로 漢灘江을 건너선 다음 大대규모의 靑鋒으로 前哨小隊를 集中攻擊 함으로써 소대장 이하 32명의 小隊員들이 血鬪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同時에 戰車隊를 몰아, 3번 道路를 따라 哨城驛쪽으로 侵攻하였으니, 04.50 現在 그 先頭가 哨村橋 北쪽 500m까지 近接하고 있었다.

한편 東豆川에 位置한 大대본부에서는 04.10에 敵侵報告를 받은 뒤로, 必是 敵의 主力이 哨城里 부근에 侵攻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비인 제5중대의 1個 小隊와 제8중대의 迫擊砲 소대장 張西浩 중위가 지휘하는 重火器小隊(박격포 1個班과 機關銃 1個班으로 編成)로 하여금 제7중대를 지원토록 措置한 바 있었는데, 바로 이무렵에 同支援隊가 哨城驛에 당도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의 1個 소대는 哨城驛에서 靑山里로 들어가는 △173 北麓에 陣지를 急編하고, 重火器 소대는 그 直南方의 淸川(東豆川에서 漢灘江으로 흐르는 개울) 東沿에서 邀擊態勢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哨村橋를 넘어서는 敵의 戰車隊에 機關銃과 迫擊砲 그리고 小銃등으로 集中射擊을 加하였으나 이들은 火網을 뚫고 悠悠히 南進하여 哨城驛 부근에 이르더니, 四面으로



<敵의 渡河地點인 都監浦>

機銃의 불길을 휘두르는데 특히 중대의 露出된 重火器진지에 戰車砲擊이 苛烈하였다.

이로부터 중대(+)는 四分五裂되어 第一線 警戒陣地와 連絡도 취하지 못한채로 逍遙山(△526)의 陣地로 撤收케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回顧한 張西浩 중위는 말하기를, 『우리는 戰車에 對한 知識이 너무 없었다. 步兵火力으로 이를 破壞한다는 것은 無理였으며, 차라리 工兵으로 하여금 哨村橋를 爆破케 하거나 對戰車壕(Anti-tank ditch)를 掘開하여 阻止했어야 마땅하였다. 한번 戰車砲에 휩쓸리고 보니 風散되고 말았으며 누구의 命숨을 기다릴 餘裕도 없이 東豆川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내려오다가 下鳳岩里 부근에서 前哨小隊의 兵士를 만나 狀況을 물어보니, 거의 다 戰死하고 몇명만 血路를 뚫게 되었는데 自身은 靑山里쪽으로 빠져 死線을 넘었다고 하였다. 아마 내가 알기에는 籍戰에 이를 막으려다가 중대병력의 2/3 이상이 哨城里 戰線에서 玉碎한 것으로 본다.』고 述懷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7중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에, 左第一線인 제6중대는 兩遠里(哨城里 西쪽 3,5km) 부근에서 北傀 제5연대의 先鋒과 對決케 되었는데, 同중대는 本部를 東豆川 西쪽 3km의 鳳岩里에 두고 梁泰潤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8km 떨어진 이 警戒陣地를 홀로 지키고 있다가 이 무리들과 激突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一決에 무너져 敵中에 孤立케 되자, 鳳岩里에서 急報를 받은 중대장 崔春楨 중위가 主力으로써 干坡里(東豆川 西北쪽 7km)에 當到하니 敵의 先頭가 이미 兩遠橋를 넘어 積岩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干坡橋 左右側 丘陵에 진지를 急編하여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1시간 동안에 걸친 血戰도 보람없이 이 阻止陣地마저 무너지고 말았으니, 여기에서 陣頭指揮하던 중대장 崔春楨 중위가 戰死하고 兵士들도 各個分散되어 07.00 現在 篋芳里(鳳岩里 北쪽 2km) 고개를 넘고 있었다.

이렇듯 交戰 3시간 사이에 一線 警戒陣地를 잃어버린 대대는 이제 연대의 主力이 當到할 때까지 主陣地(逍遙山과 磨叉山으로 連한 연대의 主陣地) 前方에서 遲延戰을 펴기도 다짐하고, 제5중대(-)와 重火器중대의 남은 병력을 모아 同莫谷—下鳳岩里간에 阻止陣地를 急編하는 한편 一線 分散兵力의 收拾에 心血을 기울였다.

이무렵, 崔學模 중위가 引率한 諜報要員과 金鍾相 대위 指揮下의 搜索隊員들도 東豆川으로 續續 集結하여 前方의 狀況을 確認하여 보니, 敵은 사단規模 이상인 것으로 推斷되었으며 西側의 320번 道路上에도 敵의 戰車가 出現하였다는 것이다.

## 2. 제1연대 主力의 出動

聯隊本部에서는 이날 새벽에 제1대대의 제4중대장 朴贊兢 중위가 當直司令으로 있었다. 그는 전날(24일) 12.00附로 當直任務를 交代引受하여 연대 指揮部에서 勤務하던 바, 이날 따라 突然한 事態가 잇따라 일어났다. 즉, 전날 15.00에 陸本情報局에서 電話로 『지금 全

谷 부근에 敵이 集結한다는 諜報가 있으니, 그 兵力이 正規軍인지? 아니면 保安隊인지? 確認하여 報告하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戰車가 나타났다는데 몇輛인지 確認하라.』는 등 指示가 紛紛하였다.

이에 그는 當直系統으로 一線警備를 強化토록 지시하는 한편 연대 情報主任 金明善 대위에게 이를 通報하였던바, 이 任務가 東豆川의 聯合情報處로 下達되어 結局 金鍾相대위가 情報要員으로 이를 偵探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새벽에 이르니, 東豆川의 제2대대 本部에서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다는 急報가 날아오고, 곧 이어 04.20에 연대장으로부터 『聯隊非常을 發令하라.』는 緊急指示가 떨어졌다.

이때에 연대장 威俊鎬 대령은 바로 部隊 正面앞 官舎에서 새벽 04.10에 제2대대장 李義明 소령으로부터 前述한 바와 같은 敵侵狀況을 報告받고 非常을 發令토록 措置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非常에 突入한 연대는 主力의 出動態勢를 갖추면서, 于先 待機中인 제3중대를 東豆川으로 急派하였다. 이때에 同 비상대기중대는 마침 중대장 李基衡 대위가 步兵學校 初軍班過程에 被教育中이라 先任將校인 韓중위(本名未詳)가 引率하여 待機車輛편에 東豆川으로 直行하였다.

이리하여 06.30에 제2대대 본부에 當到하니, 대대장 以下 指揮本部가 이미 同莫洞 뒷산의 觀測所로 올라가고 連絡을 취할 길이 없어 다시 哨城里 쪽으로 繼走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先頭車가 故障으로 落後되자 이때부터 제2소대장 朴鍾熙 소위가 先頭に 서서 東豆川 國民學校를 지나 哨城里로 北上하던 바, 哨城驛 南쪽 2km의 △176를 지나면서부터 敵의 激甚한 砲擊으로 말미암아 車輛 機動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여기에서 下車하여 前方을 살펴 보니, 바로 直前方의 龍淵洞 고개에서 信號彈 2발이 오르고, 이어 대대규모의 敵이 二列縱隊로 大路를 따라 悠悠히 南下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2台的 戰車가 그 先頭에서 이와 併進하고 있었으니, 이때가 07.10으로, 推測컨대 이들은 哨城里 부근의 제7중대 진지를 휩쓴 다음 그 餘勢를 몰아 東豆川을 侵奪코자 步戰砲의 協同攻擊을 감행한 것이 分明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시 △176 北麓에 散開하여 不期 遭遇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敵의 行列 先頭に 集中射擊을 퍼부어 隊伍를 깨치고 상당한 損傷을 주기도 하였으나 步戰의 協同 火力으로 말미암아 火器소대장 安太燮 중위가 戰死하고 死傷者가 續出하여 더 이상 支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에 제2대대 觀測所에서 傳令이 달려와 『逍遙山 入口로 轉進하여 逍遙洞 뒷산에 兵力을 配置하라.』는 명령을 傳하였으니, 이는 대대장의 指示없이 單獨으로 前進한 까닭에 중대의 現位置가 대대의 配置線을 지나 홀로 危險한 溪谷에 떨어짐으로써 이를 調整

키 위하여 斷行한 대대장의 緊急措置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急히 兵力을 뽑아 逍遙山 入口의 指示된 稜線에 再配置케 되었거니와 그 동안에 中대의 後尾를 跟隨한 敵은 狂波처럼 제2대대(-)의 陣前으로 밀려들어 激突케 되었으니, 特히 莘川 西쪽의 △159 一帶에서는 熾烈한 攻防戰이 벌어져 硝煙으로 온통 뒤 덮이였다.

이 硝煙에 쌓인 陣地는 제2대대 제8중대의 先任將校인 玉昌鎬 중위가 機關銃 1個 소대를 지휘하여 江西쪽으로 侵攻하는 敵을 무찌르고 있었던 것이니, 同莫洞 南쪽 稜線에서 機銃射擊을 지휘하는 同중대의 제2소대장 尹泰根 소위와 함께 最後阻止사격으로 交叉火力을 휘둘러 처음으로 痛快한 一擊을 加하였다.

이렇듯 대대(-)는 이제 제3중대의 增援을 얻고 또한 一線分散병력의 一部를 收拾한데다 대대의 本部要員까지 總網羅하여 渾身の 力戰을 거듭하였으니, 이 一戰에서 제5중대장 李중위(本名 未詳)와 同중대의 소대장 金泳 소위가 戰死하는가 하면 제7중대의 기관총 射手 李龍植 하사와 李迎一 하사가 抗戰中 憤死하고 또한 제5중대의 기관총 소대장 尹泰根 소위를 비롯한 金萬成 하사와 衛生兵까지 負傷하는 등, 血戰의 연속으로 11.00가 넘도록 이 陣地를 固守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대대가 血戰을 벌이고 있을 무렵에 연대본부에서는 主力을 出動시켰으니,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는 제3중대를 除外한 300餘名の 殘留兵力을 부대대장인 金鳳龍 대위가 지휘하여 軌道車(Truk을 改造하여 鐵道에 運行할 수 있도록 製作한 車)便에 東豆川을 向하여 出發하고, 제3대대는 參謀學校 入校命을 받았던 대대장 金煌穆 소령이 09.00 現在까지 集結된 200명의 兵力을 끌고 연대의 左一線인 鳳岩里로 向發하였다. 그리고 사단에서도 제5포병대대의 제2포대(장, 金漢柱 중위)로 하여금 東豆川으로 直行하여 연대를 支援토록 措置하나, 결국 제1대대(-)와 제2포대는 東豆川으로, 제3대대(-)는 德亭을 거쳐서 鳳岩里로 각각 急進케 된 셈이다.

그리하여 제1대대(-)가 09.00에 東豆川에 當到하니, 陣內에까지 敵의 砲火가 미쳐 金融組合과 郵便局, 驛舍등이 破壞되고 避難民 隊列이 南으로 줄을 이었으며 제2대대 陣地에서는 熾烈한 交戰이 거듭되었다.

여기에서 同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8Imm 박격포 1個班과 기관총 4정 및 一部의 2.36"Rocket砲를 뽑아 제2대대를 支援토록 하고 主力은 磨叉山 전지를 占領키로 하였으니, 이것은 연대의 主陣地가 逍遙山—磨叉山간에 編成된 까닭에 左側方의 虛隔을 매우 고자 취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目前에 敵의 狂波가 미치는 것을 보고 제4중대장 朴贊煥 중위는 『磨叉山(△587) 頂上까지 오르느니 보다 그 東麓의 鳳洞부근에 전지를 占領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建議하기도 하였으나 부대대장 金鳳龍 대위는 연대장의 명령에 좇아 本陣地를 占領키로 하여 主力이 同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12.00까지 그 9部稜線에 병력을 配置하고 보니, 이곳에는 敵의 隻影도 보이지 않고 그 左右側方에서 싸우는 상황을 觀望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朴贊鏡 중위는 뒤에 面談에서 回顧하기를 『東側에는 제2대대의 交戰이 熾烈하고 西側에는 干坡里쪽으로 敵이 侵攻하는데 총한발 쏘아보지 못하고 頂上에서 바라다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心情은 形言키 어려웠으며 특히 我軍의 105mm 野砲보다도 敵의 122mm 榴彈砲가 後方 깊숙히 떨어질 때마다 憤함을 禁할 길이 없었다.』고 하니, 既設陣地의 占領만을 固執하여 狀況에 對處한 融通性を 缺한 一局面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比하여 金漢柱 중위가 지휘하는 제2포대는 09.30에 東豆川에 당도하는 즉시로 主陣地 南쪽 5km의 保山里 부근에 5門의 砲를 放列하고 效果的으로 砲擊支援을 提供하였다. 즉, 同 砲隊가 250餘발의 砲擊으로 제2대대 陣前의 敵線을 强打하는 동안 저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撲殺이 되거나 空中에 치솟는 屍體를 目擊할 수 있는가 하면 △159 前方의 무리는 정성없이 內村 東側溪谷으로 潰走하는 등, 豫期키 못한 集中砲火에 戰列이 瓦解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에 金漢柱 중위는 自身이 직접 前方의 觀測手が 되어 目標의 誘導로 効力射를 加하였다 고 하거니와 당시의 目擊者들은 한결같이 『이 地域에서 敵은 최소한 대대규모의 병력을 잃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렇듯 殲殺을 加한 제2포대의 殊勲으로 제2대대는 陣前의 敵을 擊退할 수 있었으며 연대 主力의 陣地占領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驕敵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12.00를 期하여 다시 侵攻하였으니, 이번에는 戰車隊를 앞세워 3번 道路를 따라 中央突破를 企圖하였는데, 이도 또한 俗稱 창말고개(東豆川 北쪽 2km)에서 尹鍾浩 중위가 지휘하는 對戰車砲중대의 砲火에 막혀 1臺의 戰車를 잃고 哨城里쪽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이 對戰車 공격상황을 목격한 제2대대 제8중대의 기관총 소대장 尹泰根 소위의 證言에 따르면, 그가 同莫洞에서 負傷을 입고 “창말” 어느 國民學校 校庭으로 後送되었을 때, 敵의 戰車隊가 연대의 主抵抗線을 突破하여 學校 西北쪽의 고개를 넘어서자 개울가에 布陣한 對戰車砲중대가 第一彈에 先頭車의 軌道를 破壞하여 攔坐시키니, 後續車가 進路를 잃고 한동안 서성대다가 물러서고 말았다고 하니, 萬一 이 戰車隊를 擊退키 못했다면 연대의 主力이 敵中에 빠지고 負傷將兵도 救出키 어려웠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로써 연대(-)는 北傀 제16연대의 제1차 侵攻을 물리치게 되었거니와 이 東豆川 勝利의 快報가 陸軍本部和 國防部를 거쳐 及其也는 電波를 타고 反擊說로까지 飛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의 實情은 携帶한 彈藥을 모두 消耗한데다 補給이 뒤따르지 못하고, 死傷者의 續出로 戰力이 半減된 상태이며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砲兵 제2포대는 1發의 포탄도 없

이 再補給을 苦待하고 있으니, 새로운 增援策이 講究되지 않는 限 결코 展望이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 左一線으로 달려간 제3대대(-)는 11.00에 鳳岩里에 當到하는 즉시로 內安興—梧金洞간에 兵力을 配置하여 磨叉山 西側으로 侵攻하는 敵을 막고자 固守態勢를 취하였는데, 正午를 지나도 아무런 敵情이 없었다.

이에 대대장 金煌穆 소령은 제9중대의 先任將校인 金在奎 소위를 偵察隊長으로 任命하여 鳳岩里에서 積岩에 이르는 320번 道路를 따라 北上 偵察케 하였던 바, 干坡里 부근에 2個 중대 규모의 敵이 集結中이라는 報告가 들어왔다.

이리하여 대대(-)는 81mm 박격포로 筮芳里와 干坡里 부근에 威脅射擊을 加하며 계속 진지를 補強하던 바 14.00가 지나도록 敵은 沈默을 지키고 偵察隊와의 交信도 끊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當面の 敵이 干坡里에서 磨叉山 南쪽 溪谷으로 潛入하여 東豆川으로 通하는 峽路機動을 서두르는데다 偵察隊가 또한 溪谷으로 跟隨하여 交信이 不通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敵이 進路를 바꾸어 東南쪽으로 轉進한 것은, 3번 道路로 侵攻한 그들의 主力이 東豆川 北쪽에서 打擊을 받고 물러서자, 側後方の 挾攻을 노려 먼저 東豆川을 侵襲코자한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이때에는 그 企圖를 看破치 못하고 15.00에 저들이 再攻撃을 敢行함에 있어 3번 道路上의 機械化부대와 더불어 干坡里—安興里 軸線에서 側方突入함을 보고 對處하려 할 때에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이때에 萬一 磨叉山 主峰의 金鳳龍 대위가 지휘하는 제1대대(-)를 뽑아 安興里 부근에 配備하였더라면 다른 一局面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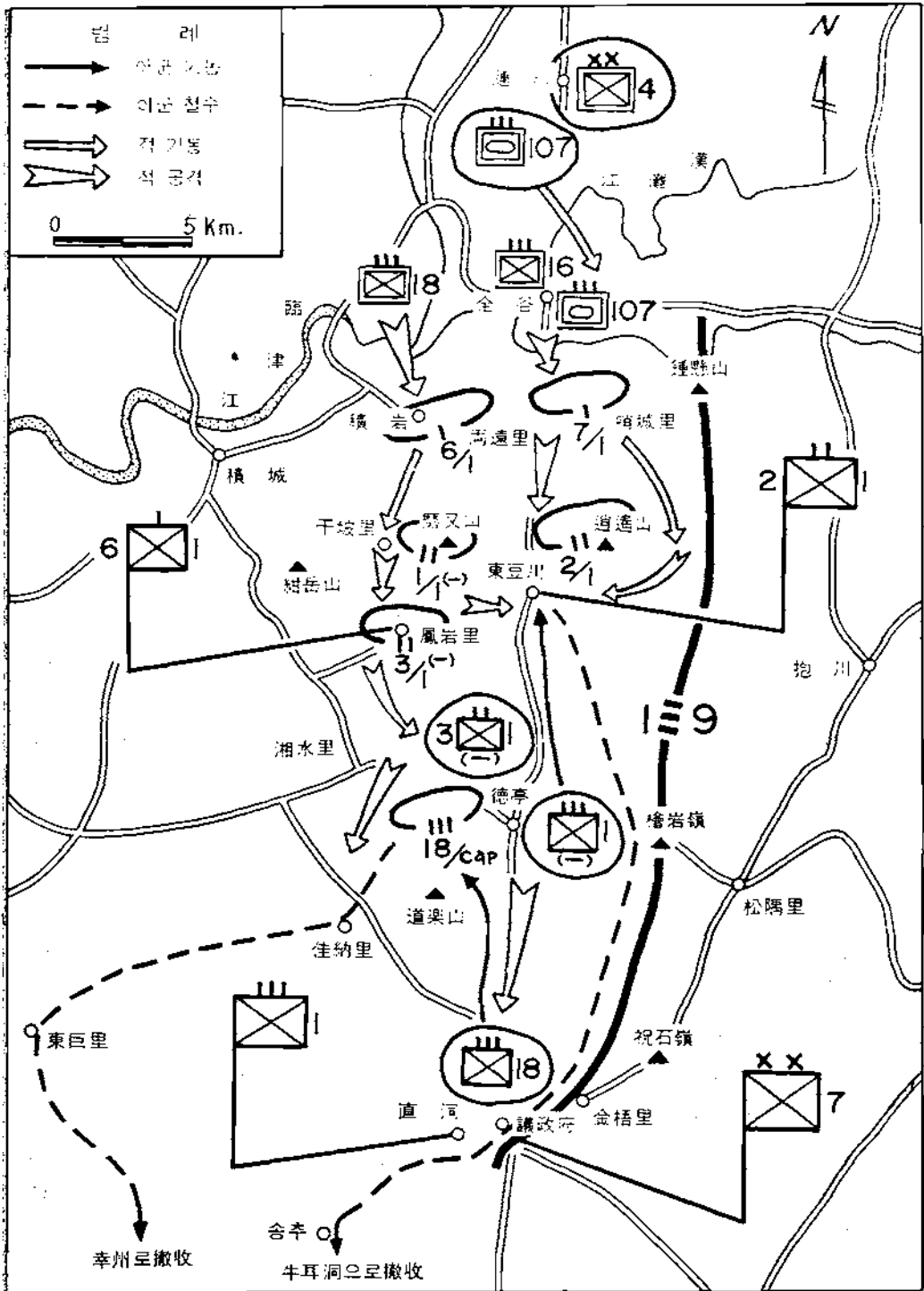
어쨌든, 이와 같이 兵力을 轉用함에 따라 제3대대(-) 正面에는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계속 진지를 補強하였다.

### 3. 敵의 再侵

이상과 같이 敵의 銳氣를 꺾어놓은 연대는 이제 戰力을 補強하여, 外出에서 復歸한 병력을 續續 第一線으로 急派하였다. 즉, 제1대대는 步兵學校 被教育中에 복귀한 대대장 韓泰源 중령이 1個 중대 병력을 急編하여 東豆川으로 出發하고, 제3대대는 外出中에 歸隊한 부대대장 姜婉埰 대위가 역시 混成 중대병력을 끌고 德亨을 거쳐서 그 西北쪽의 316번 道路로 나아가 鳳岩里로 通하는 要線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부연대장 李喜權 중령은 연대본부에서 歸隊兵力을 收拾하는 한편 연대 參謀要員들로 하여금 一線支援에 全力로써 하니, 補給官인 高南俊 중위는 東豆川驛으로 나아가 兵力이 到着할 때마다 乾糧과 筒조립을 分配하고 勤務중대장 李相漢 중위는 兵力輸送에 餘念이 없었으며 醫務중대장 申載謹 대위는 德亨救護所에서 戰傷者 治療와 後送에

◇ 상황도 제12호 제1연대의 戰況





盡力하는 등, 저마다 本務에 奔忙하였다.

이때에 연대장 威俊鎬 대령은 東豆川의 제2대대 本部에서 難局을 打開코자 힘쓰고 있었는데, 抱川地域의 제9연대가 北傀 제3사단과 對決끝에 이날 11.00에 抱川이 敵中에 떨어지고 지금 松隅里 부근에서 苦戰을 치르고 있다는 通報가 있어, 東側方의 敵侵狀況에 留意하면서 東豆川의 防守에 專念하던 바, 마침 사단의 下士官敎育隊에서 急編한 1個 중대 병력(4個區隊 120名)이 12.00에 당도하자 이 병력을 東豆川 東南쪽의 紙杏里 부근에 배치하고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이 引率한 병력은 14.00에 逍遙山으로 올려 보냈다. 그리고 韓泰源 중령은 磨叉山의 本隊로 直行 시키려다가 연대의 實情을 가장 잘 아는 까닭에 本部에서 연대장을 補佐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노력에도 不拘하고 연대는 當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첫째가 實彈문제인데, 一線대대의 補給官들이 지금 東豆川驛으로 달려와 彈藥補充을 哀願하나 輸送차량의 未着으로 束手無策이었으며, 특히 砲兵 제2포대는 1발의 포탄도 없이 鶴首苦待하는 실정이었다.

둘째는 中隊編成 문제로서, 時差別로 復歸한 병력을 混成急編한 까닭에 指揮系統이 亂脈을 이루고 組織力이 微弱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兵力配置 문제인데, 21km의 廣正面에 2個 대대 병력으로써 據點防禦態勢을 취하니, 到處에 虛隙이 드러나 戰鬪展開가 未備한데다 機動力마저 없었으며, 여기에 제1대대(-)는 磨叉山의 主峰에 배치되어 相互 연결이 不充分하였다.

이밖에도 對戰車 防備策이 微弱하고 機動豫備隊가 없어 突發事態에 대한 方策이 全無한 실정 이었다.

이상과 같은 難題를 안고 있으면서도 將兵들의 氣概는 드높아 모두 이 고비만 넘기면 오히려 攻擊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를 걸고 이 戰線을 固守키로 하였는데, 北傀 제4사단은 이윽고 15.00를 期하여 再攻擊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제1차 공격시와는 달리 제107戰車연대를 先鋒에 내세워 3번 道路를 따라 東豆川으로 直行하는 한편 제5, 제16 兩연대로써 左右側方에서 兩翼을 包圍攻擊하려 한 것으로 推斷된다.

이리하여 逍遙山—磨叉山간의 主陣地帶에서 攻防의 血鬪가 再演되었는데, 이들은 步戰協同으로 中央突破를 企圖하여 同莫洞—逍遙洞간의 混成 제2대대의 陣지를 集中 공격함으로써 10餘시간의 激戰을 치른바 있는 同대대는 兵力과 彈藥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이 狂波를 阻止치 못하고 且戰且退의 遲延戰을 하면서 東豆川쪽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磨叉山의 제1대대(-)가 漸次로 敵中에 떨어지고, 轉進中에 混亂이 惹起되어 마침내 17.00에는 敵의 先頭가 “창칼”고개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砲彈 300발이 推進되어 金漢柱 중위가 지휘하는 제2포대의 砲擊이 再開되었으나

戰況은 이미 기울어, 敵의 戰車가 日沒과 더불어 邑內 一角에 突入하는가 하면 東側의 保山里 부근에서 逍遙山을 迂回한 一團이 保山橋쪽으로 侵襲하고 또한 西側의 安興里 부근에도 數未詳의 敵이 나타나 機銃을 휘두르며 主要建物에 放火하니, 건잡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虎部隊(제1연대의 別稱)의 將兵들은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夜暗속에 市街戰까지 벌이며 極力 抵抗하였으되, 시간이 경과할수록 損失만이 漸增케 되자 22.00를 期하여 『德亨으로 集結하라.』는 撤收命令을 下達하기에 이르렀다.

이 명령은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이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各隊에 傳하였는데, 東豆川 周邊의 제2대대와 各級 支援部隊에는 速達되었으나, 磨叉山의 제1대대(-)와는 無線交信마저 끊겨 下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開戰 18시간만에 東豆川을 拋棄하고 德亨으로 물러서게 되었거니와 이 過程에서 제2포대장 金漢柱 중위는 『步兵과 砲兵을 同時에 철수시키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抗辦하면서도 5門의 砲를 8km 後方의 德亨까지 무사히 끌고 나왔으며, 병사들은 分隊 또는 小隊단위로 各個 躍進하여 大部分이 目標地에 集結케 되었다.

그러나 命令을 받지 못한 제1대대(-)는 부대대장 金鳳龍 대위 以下 200명의 將兵들이 이시간 現在 同高地의 9部稜線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日暮와 더불어 東豆川 邑內에 불이 일자 소대장 1명을 派遣하여 연대의 動靜을 確認케 하였던 바, 敵이 邑內에 들어왔다는 事實만을 探知하고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한채로 되 돌아오고 말았다.

그뒤로 대대(-)는 사단의 反擊이 있으리라는 期待를 걸고 現地에서 이날 밤을 지나 다음날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連絡이 없자, 將校들이 모여 熟議한 끝에 撤收키로 結論짓고 26일 夕陽에 退路를 찾아 나섰다.

당시의 제4중대장 朴贊兢 중위는 이때의 撤收過程을 더듬어 回顧하기를 『우리는 소대단위로 나누어 議政府를 목표를 철수키로 하였는데, 물 한 방울 없는 頂上에서 이들을 굶고보니 氣盡한 상태로 行軍하기가 어려워 農家에서 보리밥과 몇알의 감자를 얻어 虛氣를 채웠으나 다시 食困症에 빠져 어둠속에 落伍者가 續出하였다. 여기에 몇차례의 遭遇戰을 벌이다 보니 부대대장 金鳳龍 대위가 戰死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分散되어 隊伍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그래도 希望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議政府에 당도하니 市街가 불타고 있었으며, 27일 밤에 彌阿里 戰線에 到着하였을 때에는 1個分隊 병력도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東豆川 부근에서 紛戰을 벌이고 있을 무렵, 左一線인 제3대대(장, 金煌穆 소령)는 內安興—梧金洞간에 2個 중대 병력을 배치하여 鳳岩里 戰線을 지키고 있었는데, 東豆川에서 보다 3시간 뒤인 18.00에 2個 대대 규모의 敵이 一時에 밀려들었다.

이들은 10餘分 동안에 걸친 集中砲擊으로 兩중대의 진지를 強打한 다음 △256(鳳岩里

北쪽 2.5km)에서 靑色 信號彈 3발을 올리더니 兩側方으로 分進突入하는데, 東側의 대대 규모는 安興里에서 上牌里쪽으로 侵襲하고, 西側에서는 步戰協同으로 篋芳里 고개를 넘어 梧金洞쪽으로 侵攻하였다. 특히 이들은 陣地攻撃 보다도 急進出에 注力하는듯 一路 鳳岩里로 突入하니, 稜線을 占領한 兩중대는 漸次로 敵의 包圍網에 빠져 들었다.

이에 대대장 金焯穆 소령은 將兵들을 督勵하여 內安興 溪谷으로 侵襲하는 徒步部隊를 저지코자 힘썼으나, 2시간동안의 奮鬪도 보람없이 △252(鳳岩里 뒷산)의 진지가 무너지고 말았으니, 이로부터 兩중대는 크게 混亂이 惹起되어 收拾키 어려운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여기에, 연대본부와 通信마저 杜絶되어 後續對備의 길이 막히자 대대장은 20.00를 期하여 『德亭으로 集結하라.』는 명령을 下達하고, 自身도 小隊兵力을 帶同하여 下牌里—龍岩里를 거쳐서 德亭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21.30에 同 集結地에 당도하니, 연대장 威俊鎬 대령이 栗亭里—德亭—龍岩里線에 收容線을 設定코 分散兵力을 德亭國民學校에 集結토록 收拾하고 있었으므로 곧 戰況을 報告하였던바, 『더기에서 대대의 병력을 收拾하라.』는 새로운 任務를 맡았다.

이로부터 그는 集結된 대대규모의 混成兵力을 再編하여 비로소 食事を 시키고 休息케 하던바, 子正이 다 되었을 무렵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이 現地에 당도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 兵力을 韓泰源 중령에게 引渡하였다.

그런데 제3대대는 이날 아침에 主力이 出動한 뒤로 뒤늦게 復歸한 중대병력을 부대대장 姜琬堦 대위가 지휘하여 바로 德亭 西北쪽의 龍岩里 부근에 진지를 編成하고 있었으므로 대대장 金焯穆 소령은 現地로 찾아가 이 병력을 掌握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初一戰에 敵의 銳氣를 꺾은바 있었으나, 衆寡不敵으로 끝내 東豆川과 鳳岩里를 내놓고 德亭으로 물러서서 戰列을 整備하며 後鬪를 策하기에 이르렀다.

#### (다) 指揮部의 動靜

##### 1. 사단사령부의 實情

아무런 準備態勢도 없이 週末의 休息에 들어갔던 사단은, 交戰이 시작된지 4시간 밖 안되는 08.00 現在, 一線 兩연대의 警戒陣地가 무너졌다는 飛報와 함께 敵의 戰車隊가 無人之境을 휩쓸듯 南進한다는 報告를 받고 크게 唐慌하였다.

이에 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陸軍本部에 增援을 要請하는 한편, 作戰參謀 李陝圭 중령에게 제5포병대대를 分割하여 主力으로써 抱川의 제9연대를 支援케 하고 1個 砲隊는 東豆川의 제1연대를 直接支援토록 措置케 하는 동시에 工兵대대의 제1중대장 李殷碩 중위를 直接 불러, 東豆川으로 直行하여 主要 橋梁을 爆破토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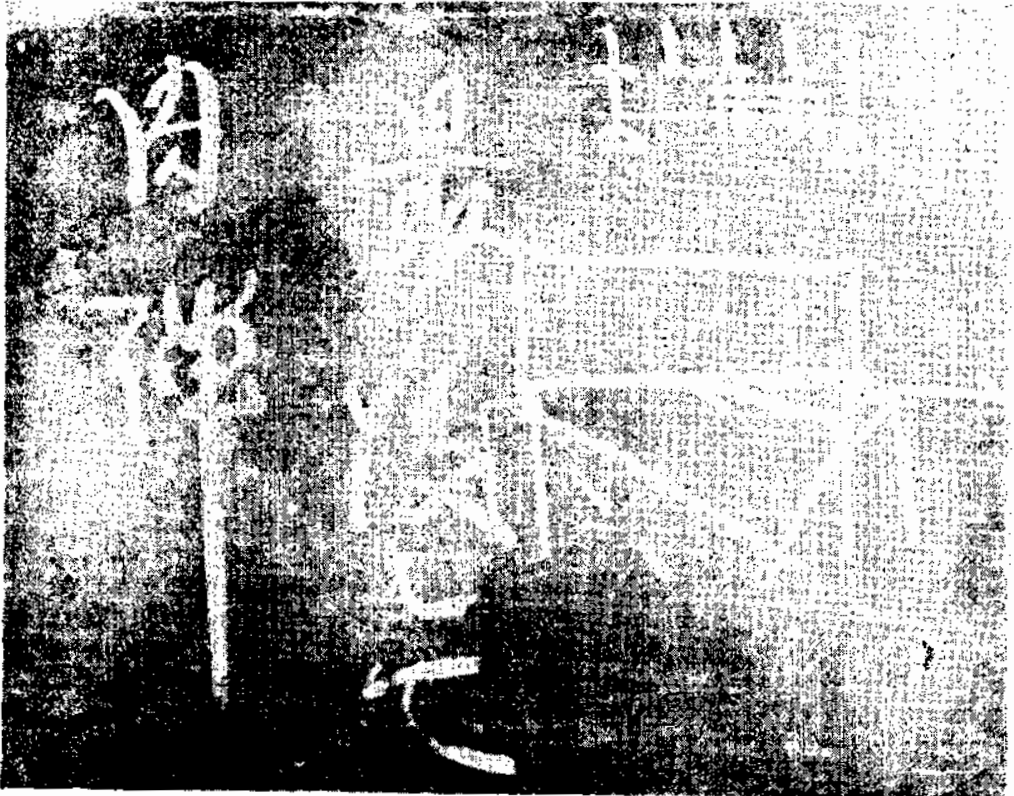
그리고 關係參謀들에게 彈藥과 給食문제를 우선하여 解決토록 하는가 하면 歸隊將兵을 지체없이 本隊에 輸送토록 지시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10.00에 이르러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이 司令部로 來訪하자, 戰況을 說明한 다음 兵力의 增援과 對戰車 裝備의 支援을 요청하였던 바, 그는 首都警備司 이하의 제3연대를 配屬하겠다는 約束과 함께 對戰車 肉薄攻擊을 總憑하고 퇴 돌아갔다.

그러나 사단은 攻擊資材가 手榴彈 밖에 없음을 勘案하여 肉薄攻擊에 懷疑를 느끼고 于先 57mm 對戰車포와 2.36"Rocket포로써 對應키로 하였는데, 戰況은 漸漸 기울어 11.00에 抱川이 敵手中에 넘어가는가 하면 3번 및 43번 兩道路上에 敵의 戰車隊가 밀려드는 反面에 사단에는 一兵의 豫備도 없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9연대와는 抱川邑에 敵의 戰車가 突入하였다는 報告를 마지막으로 通信이 杜絶되어 戰況을 把握할 수 없게 되자, 정보참모 李世鎬 소령(高軍班 과정 被教育中에 복귀함)을 派遣하여 狀況을 推尋하던 차에, 總參謀長이 약속한 제3연대(-)가 14.00에 당도하여 同연대를 炭場戰線으로 急派하였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 뒤로, 溫陽에 내려갔던 參謀長 金鍾甲 대령이 歸隊한 日沒 무렵에는 戰況이 더욱 기울어 제3연대 마저 松隅里에서 撤退하는가 하면 東豆川의 제1연대가 敵中에 떨어져고 말았으니, 이제 議政府의 危機가 目前에 이르게 되었다.



<사단 特攻隊의 決意>

이때에 情報參謀 李世鎬 소령이 報告하기를, 『祝石嶺 北쪽에 敵의 戰車가 나타났다.』고 하자 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비로소 手榴彈과 揮發油瓶으로 肉迫攻擊으로라도 이를 阻止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참모장 金鍾五 대령은 사단사령부의 高級下士官 즉, 본부중대 선임하사관 白玉濬 상사를 비롯한 作戰處 선임하사관 崔承烈 상사와 포병대대 선임하사관 李鍾喆 상사등 30여명을 集合시켜 特攻隊를 編成하는 즉시로 祝石嶺으로 急派하는등 이제 挺身攻擊을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戰況이 急轉함에 따라 一線의 彈藥補給 要請이 빗발치고 負傷兵輸送이 急하여, 軍需參謀 尹永模 소령은 議政府驛에서 列車를 統制코 作戰우선으로 充當하는가 하면 龍山驛에서 推進된 “주먹밥”을 一線으로 急送하고 또한 陸軍本部 軍需局의 지시에 따라 富平의 제1彈藥 倉庫중대에서 推進된 105mm 砲彈을 急送하기도 하였는데, 이 砲彈은 대부분이 自燐연막탄으로 당시의 不贊한 一面을 말해주기도 한다.

## 2. 陸軍本部の 措置

戰鬪이 勃發한지 하루 사이에 사단은 議政府 正面에서 苦戰을 치르렀으나, 右隣接인 제6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春川 正面의 牛頭平野에서 北魏 제2사단(장, 소장 李青松)의 侵入을 擊破하고 左隣接인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臨津江線의 防守陣을 固守하였으며 東海岸의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저들 陸戰隊인 제549部隊와 제766 계릴라部隊의 上陸을 물리치는 등 그 樣相이 달랐다.

이것은 敵이 京·元街道에 攻擊의 重點을 두고 機甲여단을 投入하여 議政府—서울 軸線으로 指向함으로써 惹起된 現象이거니와 陸軍本部에서도 이날 上午에 그 企圖를 看破한 나머지 對備策을 講究하기에 奔忙하였다.

이에 앞서 陸軍本部에서는 이날 拂曉에 非常에 突入하여 後方의 예비사단을 一團 北上토록 措置한 바 있었는데, 그 作戰命令 제84호(1950.6.25.12.00)의 概要를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敵은 38°線 全正面 및 東海岸에서 進攻을 開始하였음.
- ② 軍은 豫備사단을 서울地區에 集結하려 한다.
- ③ 제2사단은 既히 제7사단에 隸屬중인 제25연대를 統合指揮하여 1個 대대를 安東에 殘置하고 主力을 서울로 即時 移動하라.
- ④ 제3사단은 사단 工兵隊와 通信隊 및 제22연대를 集結하여 사단 參謀長 引率下에 即時 서울로 移動하라.
- ⑤ 제5사단은 제15연대의 1個 대대와 제20연대의 1個 대대를 各各 殘置하고 全兵力을 集結하여 即時 서울로 移動하라. 以下省略』

이 命令은 文書上으로 볼때 이날 12.00에 下達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其實은 08.00를 期

하여 作戰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이 電話로 各部隊에 直接 下達하고 後에 成文化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後方의 各 사단이 移動 準備에 奔走할 무렵인 이날 10.00에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은 議政府 戰線을 돌아보고 戰況의 危急함을 直感하여 于先 在京部隊로써 當사단을 支援키로 하였다. 즉, 11.00附로 首都警備司(司令官, 李鍾贊 대령) 예하의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를 사단에 配屬하고(陸本 作戰命令 第85호), 이어서 作命 第87호로써 육군포병 학교의 對戰車砲 2個 중대와 機甲연대의 裝甲車 1個 소대를 增派키로 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 戰況이 急轉하여 마침내 抱川이 敵中에 떨어지자 그 對策을 檢討한 끝에, 지금 大田에서 北上中인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이 서울에 당도하는 즉시로 議政府 戰線에 增援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이날 17.00附로 首都警備司 隸下의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를 다시 配屬(文書命令은 作命 第96호로써 27일 10.00附로 下達됨)시켜 주면서 當面의 敵을 阻止 擊滅하라고 指示하였다.

뿐만 아니라 抱川 東側의 西坡一機山里간에 露出된 側方威脅을 除去키 위하여 이날 13.00附로 육군사관학교장 李俊植 준장에게 生徒대대와 軍에 配屬된 警察 1個 대대를 統合指揮하여 內里(泰陵 東北쪽 20km) 부근의 391번 道路를 막으라고 命令하였다(文書命令은 作命 第90호로써 이날 20.00에 下達됨).

結局, 議政府 正面으로 增強된 2個 사단과 砲兵 1個 대대 그리고 側方 掩護部隊로써 生徒대대와 警察대대까지 出動시켜 이 驍驍를 擊滅키로 하였는데, 사실상 이 部隊들은 機動中에 있거나 兵力集結이 늦어져 제3연대를 除外한 다른 兵力들은 適時赴援을 期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먼저 제2사단의 境遇를 보면, 사단장 李亨根 준장이 이날 08.00에 大田에서 陸軍本部 作戰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으로부터 『지금 敵이 全面南侵하고 있으니 兵力을 끌고 빨리 올라와 달라.』는 連絡을 받았을 때, 當場 可用兵力은 大田 飛行場을 警備中인 1個 대대 밖에 없었다. 즉, 大田에 있는 제5연대(장, 대리 朴基成 중령 : 연대장 白南權 대령은 渡日中)는 始興 步兵學校의 教導隊로 派遣된 제3대대(장, 金秉化 소령)를 除外한 2個 대대 兵力이 大田에 있었으나 대부분이 外出하여 前述한 警備대대인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淸州에 位置한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는 제1대대(장, 俞義濬 중령)가 忠州에, 제2대대(장, 金憲 중령)와 제3대대(장, 姜泰奉 중령)는 淸州에 各各 있었으나, 亦是 1/3 兵力 밖에 없는 形便이었고, 統合指揮하라는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는 安東에 나간 제1대대(장, 林益淳 소령)를 除外한 연대의 主力이 溫陽에 있었으나, 마침 甘雨가 내려 일손이 모자라는 農村의 移秧작업을 돕고자 分散되어 勞力奉仕중에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寸刻을 다투는 戰況에 비추어 即時出動이 힘든 까닭에 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먼



〈我軍의 57mm 對戰車砲〉

저 大田에 있는 제5연대의 제2대대만을 帶同하고 京釜線 急行列車편에 先行하면서 參謀長 崔昌彦 中령에게 各聯隊에 督勵하여 主力으로써 後續토록 指示하였는데 豫想外로 遲延되어 이날 밤에 모두 現地를 떠나게 되었다. 즉, 大田의 제5연대(一)는 사단사령부와 함께 19.00에 京釜線 列車에 오르고, 淸州의 제16연대는 제3대대장 姜泰奎 中령으로 하여금 現地에 남아 主力이 떠난 以後의 復歸兵力을 收拾토록 한 다음 제1, 제2 兩대대를 文容彩 大령이 直接지휘하여 역시 19.00에 忠北線 열차에 올랐으며, 滌陽의 제25연대는 21.00에 야 長項線 열차에 乘車하였다. 특히 제25연대는 제7사단에 隸屬命을 받고 있는 더이타 駐屯地 이동과 다름없이 모든 器物과 裝備를 同時輸送키 위하여 더욱 지연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先發隊는 18.00에 龍山驛에 到着한 뒤로 사단장은 狀況把握차 陸軍本部에 들리고 제2대대는 대대장 車甲俊 소령이 지휘하여 作戰局의 지시에 따라 議政府로 直行하였는데, 20.00에 제9연대의 本部인 金梧畝에 當到하였다.

결국 사단은 이날 밤에 1個 대대만을 戰地에 당도케 하고 主力은 列車移動中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大邱의 제3사단(장, 劉升烈 大령)과 光州에 位置한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의 경우도 大同小異하여, 제22, 제20, 제15연대 등, 大邱—光州—全州에 있는 部隊들이 모두 이날 늦게 現地를 出發하는 實情이었던 것이다.

한편 在京 配屬部隊의 情況을 살펴보면, 제3연대(장, 李尙根 中령)가 이날 14.00에 議政府에 당도하여 松隅里 戰線으로 直行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그 뒤를 이어 포병학

교의 2個 對戰車砲중대가 또한 同戰線으로 增強되고, 機甲연대의 裝甲소대는 이날 夕陽에 당도하여 戰線 連絡任務를 맡았다.

그리고 士官學校의 生徒大隊(장, 趙 岩 중령)는 이날 20.00에 車輛機動으로 內里 부근에 到着하여 391번 道路 兩側의 △372 一帶에 진지를 急編하였으며 警察대대는 아직 消息이 없었다.

이때에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는 17.00附로 命令을 받은 까닭에 19.00에 龍山 駐屯地에서 徵發된 民間車輛편에 出發하였는데, 同연대는 壘津에서 撤收한 뒤로 部隊整備 기간을 이용하여 제1대대(장, 朴哲用 소령)를 集團的으로 休暇措置하였기 때문에 張春權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 550명과 安致一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 450명, 都合 1,000명의 兵力만이 21.00에 議政府에 당도하여 綠楊洞 부근의 野地에서 이날밤을 露宿케 되었다.

이 밖에도 포병학교(장, 데리 金桂元 중령)의 제2教導대(장, 金豊益 소령)는 이날 22.00附로 『제2사단을 直接支援하라.』는 口頭命令을 받고(文書命令은 作命 제95호로써 6월 27일 01.00附로 下達됨) 徹夜 出動準備에 奔忙하였다.

이상과 같이 陸軍本部에서는 議政府 正面에서 敵의 主力을 擊破코자 總力을 傾注하였으나, 10km 內外의 거리에 敵이 蟠據한 이 時點에서 實質的인 可用兵力은 3,000명을 넘지 않았으며, 또한 對戰車 攻擊方案이 微弱하니, 이때부터 軍指揮部의 一角에서 漢江線 防禦論이 擡頭하기 시작하였다.

**6월 26일**: 첫날 戰鬪에서 抱川과 東豆川이 무너져 이제 敵火가 議政府를 威脅하니, 이 地域의 堅守與否는 곧 首都 서울의 存立문제와 直結되어 이날부터는 陸軍本部 指揮部의 直接 指導下에 제7, 제2 兩사단이 이를 阻止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제7사단은 過半數의 兵力을 損失한데다 殘兵이 分散상태에 있고, 제2사단은 當장 可用兵力이 1個 대대 밖에 없으니 兵力과 裝備의 優劣도 문제이지만 보다 火急한 要件은 後方의 豫備사단이 現地에 進出하여 戰鬪展開할 수 있는 時間문제였다.

따라서 軍 指導層의 一角에서 『兵力을 逐次로 投入하느니 보다 北上中인 豫備사단을 漢江 南岸으로 集結시켜 漢江線 防禦陣을 構築함과 아울러 一線 分散兵力을 收拾하는 것이 可하다.』는 強力한 主張이 있는가 하면, 首腦部에서는 『政治的인 意義와 心理的 影響을 配慮한 戰略面에서 首都 서울의 拋棄는 있을 수 없다.』고 이에 대하여 不同意하기도 하였다.

#### (가) 反擊의 決意

전날 두 차례에 걸쳐 議政府 戰線을 視察한 바 있는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은 前述한 바와 같은 建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議政府는 固守하여야 한다.』는 決意를 굳게 하고 이날 새벽 01.00에 다시 제7사단 사령부로 尋訪하여 사단장 劉載興 준장과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 제91호(文書命令은 1950.6.



26. 08.00附)를 下達하였다.

『① 軍은 議政府 正面에서 反擊을 開始하여 敵을 38°線 北쪽으로 驅逐하려한다.

② 空軍은 이를 支援할 것이다.』

③ 제7사단과 제2사단의 戰鬪地境은 現 제1, 제9연대의 戰鬪地境과 同一하다.

④ 제2사단은 6월 26일 08.00를 期하여 現 接敵線으로부터 제9연대를 超越하는 즉시로 議政府—抱川 軸線으로 進擊하여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恢復하라.

⑤ 제7사단은 6월 26일 08.00를 期하여 現 接敵線으로부터 議政府—東豆川 軸線으로 進擊하여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恢復하라.

⑥ 제2사단이 超越 後 步兵 제3연대는 제7사단의 豫備가 되라.

⑦ 제2사단이 超越 前進 後 제9연대는 原隊로 復歸하라. 以下省略』

이 명령은 제2, 제7 兩사단으로, 失地를 恢復코자 한 總參謀長의 決意에 찬 反擊命令으로서, 밤이 깊은 이날 01.00에 議政府 現地에서 直接 口頭命令으로 下達되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제7사단장 劉毅興 준장은 一瞬 困憊의 氣色을 보이며 熟考하다가 곧 決然한 태도로 『決行하겠다.』는 意思를 밝혔으나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現狀況으로서는 逆襲에 성공키 어렵다는 自信의 見解를 밝히고, 明朝에 사단의 主力(제5, 제16, 제25연대)이 當到하면 集中 運用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建議함과 아울러 漢江線 防禦의 妥當性을 具申하였다.

그러나 總參謀長은 이 建議를 받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高聲의인 強硬한 語調로 逆襲을 強行토록 再促求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李亨根 준장을 隨行한 제5연대의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에게 直接 命令하기를 『大韓民國의 運命은 議政府에 달려있다. 지금 祝石嶺 北쪽에 敵의 戰車 30량이 있으니 費官이 特攻隊를 編成하여 이를 擊破토록 하라. 成功하면 中領으로 特進시키겠다.』고 確固한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새로운 特殊任務를 賦與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指揮部의 動靜을 말해주는 듯 하거니와 이 反擊문제에 對하여는 現實情으로 보아 命令權者나 受命者나 다같이 無理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만, 總參謀長 自身도 이날의 反擊이 반드시 成功하리라고 確信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니, 推測컨대 그는 後方의 增援部隊가 當到할 때까지 敵을 議政府 北쪽에서 阻止, 抑留키 위한 方案으로 攻勢的 防禦를 計劃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것이 果然 이 時點에서 至上妙策이었느냐 하는 點은 다른 角度에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며, 陸軍의 總責任者인 그가 議政府 固守를 決意한 것만은 分明하였다.

#### (나) 제7사단의 反擊狀況

이상과 같이 深夜에 反擊命令이 下達되고 있을 때, 當面의 敵은 새로운 攻擊準備에 狂

奔하였다.

즉, 抱川 正面으로 侵攻한 北傀 제3사단은 主力이 松隅里에 陣을 치고, 그 一部를 30臺의 戰車와 함께 祝石嶺 北쪽 3km의 二東橋里 부근까지 進出시켜 繼戰準備을 서둘렀으며, 東豆川으로 侵襲한 제4사단은 여기에서 進路를 바꾸어 西側의 316번 道路를 따라 鳳岩里—德亭 軸線으로 突入코자 兵力을 移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7, 제2 兩사단은 이같은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채로 分散兵力을 收拾하거나 列車機動中에 있었으니, 제7사단의 境遇를 보면, 炭場에서 물러선 제9연대(一)의 主力이 이 時間 現在 西坡를 지나 退溪院쪽으로 轉進中에 있는가 하면 松隅里에서 分散된 제3연대(一)는 祝石嶺 부근에서 150명의 兵力을 收拾하여 金梧里 南쪽 1km의 △155—△211線까지 물러섬으로써 抱川 方面이 事實상 空白狀態로 있었으며, 東豆川의 제1연대는 대대규모의 混成兵力을 德亭國民學校에 收容하고 磨叉山의 200명과 龍岩里의 150명이 각각 4~13km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分散상태에 있는 등, 有機的인 連結이 거의 不可能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同사단에 配屬된 제18연대(一)는 아직 議政府에 머무르고 있는 까닭에 德亭의 제1연대 主力보다도 25km 後方に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제2사단은 金梧里에 先着한 제5연대의 제2대대를 除外하고 모두 北上中에 있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狀況아래, 이제 兩사단이 反擊에 나서게 되었는데, 제2사단장 李亨根 准장은 命을 받은 뒤로 金梧里의 指揮所로 돌아와, 사단 主力의 移動狀況을 점검하며 對策을 樹立코자 하던 차에, 總參謀長으로부터 直接 命을 받은 바 있는 제5연대의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이 行動指針을 問議하자, 『命을대로 履行하라. 祝石嶺에 가면 제3연대가 있을 것이니 이와 協調토록 하라.』는 指示를 내리고 自身은 主力이 당도하면 後圖를 策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제3연대(一)는 이미 祝石嶺에서 撤收하여 金梧里 南쪽에 集結하고 있었으니, 그 情況을 모르고 이날 03.00에 그곳을 出發하여 祝石嶺으로 向한 同대대는 여기에서 敵의 先鋒과 不期遭遇하여 急編防禦태세로 轉換케 되는바, 이 過程은 議政府의 防禦와 直結되는 까닭에 次項의 議政府 부근 戰鬪에서 一括하여 취급키로 하고 于先 이날 反擊에서 東豆川을 奪還한 바 있는 제7사단의 戰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7사단장 劉載興 准장은 제2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反擊命을 받은 뒤로 곧 그 施行에 着手하였다. 즉, 이날 새벽에 사단본부에서 제1연대장 威俊鎬 대령을 비롯한 제18연대장 任忠植 中령 및 관계참모들과 더불어 그 方策을 熟議한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26일 08.00를 期하여 東豆川을 奪還한 다음 逍遙山—磨叉山간의 原陣地를 恢復하여 한다.



〈제1연대의 集結地, 德亭國民학교〉

- ② 攻撃間에 空軍의 支援이 있을 것이다.
- ③ 제1연대는 現 集結地인 德亭에서 3번 本道路의 兩側方으로 突進하여 東豆川을 奪取하라.
- ④ 제18연대는 現 集結地인 綠楊洞에서 德亭—龍岩里 軸線으로 進擊하여 鳳岩里를 奪取하라.
- ⑤ 제5포병대대는 1個 포대로써 제1연대를 直接 支援하라.』

#### 1. 제1연대의 東豆川 奪還

제1연대장 威俊第 대령이 이 命令을 받고 作戰主任 宋星三 대위를 帶同하여 연대 主力의 集結地인 德亭國民學校에 當到한 것은 이날 아침 06.00였다.

여기에서 그는 제1, 제3 兩대대장을 召集하여 공격명령을 下達하였는데, 그 概要를 보면,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으로 하여금 現地에 集結된 混成 1個 대대 兵力을 지휘하여 松內里—紙杏里를 거쳐서 東豆川의 南南方으로 進擊케 하는 한편, 제3대대장 金煥穆 소령에게 龍岩里의 중대병력으로써 이와 併進하여 側方을 掩護하면서 西側에서 挾攻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兩대대는, 이윽고 08.00를 期하여 反擊의 信號를 올렸는데, 이때에 어느 指揮

官이나 參謀도 敵情을 把握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左側에서 제18연대가 併行攻擊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로 오직 東豆川 奪還만을 목표로 一路 北進하였다.

그리하여 韓泰源 중령이 지휘하는 混成대대가 右一線에서 躍進한 끝에 鳳陽里 北쪽의 △299를 넘어 松內里 부근에 이르렀으나 아무런 敵情이 없었으며, 10.00를 前後하여 主力으로써 東豆川 邑內에 突入함에 있어서도 몇명의 警戒兵이 散發적으로 抵抗할 뿐 敵의 行方이 杳然하였다.

이에 대대는 特記할만한 交戰이 없이 東豆川을 되찾고, 이어서 다시 逍遙山의 原陣地를 목표로 進擊하였는데, 전날까지 제2대대의 觀測所였던 同山 入口의 △219에서 數末詳의 敵이 抗拒하자 이를 一蹴함과 아울러 여기에서 敵의 觀測將校 1명을 包含한 5명의 敵兵을 사로잡고 逍遙山 一帶의 陣지를 모두 恢復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東豆川 奪還의 任務을 完遂케 되었으나 여기에서 千載一遇의 機會를 놓치고 말았으니, 전날 東豆川 西北쪽의 磨叉山을 占領한 제1대대(一)의 先遣隊가 아직도 부대대장 金鳳龍 대위의 지휘아래 陣지를 固守하고 있었건만 이와 連結을 짓지 못하고, 오직 38°線 恢復의 方法을 마련하기에 餘念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14.00에 이르자 연대장으로부터 突然 無電連絡으로 『迅速히 倉洞으로 撤收하라.』는 緊急命令이 떨어졌다.

이 青天의 霹靂과도 같은 撤收命令은, 이날 13.00에 抱川쪽에서 밀려든 北傀 제3사단이 祝石嶺을 넘어 議政府로 突入한데다, 鳳岩里로 侵攻한 제4사단의 一隊이 또한 德亭線을 突破함으로써 취하여졌던 것이니, 이제 대대는 홀로 敵의 重圍속에 떨어지고 만 셈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兵力을 거두어 急히 反轉코자 하였으나 將兵들은 한결 같이 撤退를 反對하여 38°線으로 進擊하자고 呼訴하였으니, 別稱 『虎部隊』라고 불리우는 제1연대는 西青出身이 많은 까닭에 『내가 38°線을 넘어 올 때에 後退하려고 온줄 아느냐? 죽어도 여기에서 죽자.』하고 울부짖으며 痛恨을 금치 못하는등 激情에 어리어 한동안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리하여 後日에 期하자고 說諭한 韓泰源 중령은 끝내 磨叉山의 金鳳龍 대위와는 連結치 못한채로, 다시 德亭으로 轉進케 되었는데, 17.00에 同 國民學校에 당도하니 아침에 벗어놓은 背囊이 그대로 남아 積함이 더하였으며, 南으로 議政府쪽에서 들려오는 砲聲이 不吉한 狀況을 말하여 주었다.

이로부터 同대대는 500餘명의 兵力으로 日暮와 더불어 行軍을 시작하여 高岩里—玉井里—古色里를 거쳐서 議政府를 目標로 下行하던 바, 玉井里 부근에서 제9, 제3 兩연대의 後退兵力의 一部와 合勢하여 21.00에 天寶山(議政府 東北쪽 2km)의 北麓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夜暗을 利用하여 議政府 市街를 橫斷突貫키로 작정한 대대장은 대대 情報官 李鍾允 중위로 하여금 分隊兵力의 搜索隊를 끌고 天寶山으로 올라가 敵情을 探索토록 하는 한편, 自身은 主力으로써 俗稱 “비석거리” 부근으로 近接하던 바, 同山의 7部稜線에서

不時에 2個 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盲射의 불길을 휘두르니, 이 渦中에서 情報官 李鍾允 중위가 戰死하고 어둠속에 隊伍가 무너져 分散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大抵 退群의 脆弱性은 이와 같으니, 攻擊에 못지 않게 撤收의 어려움을 말해주기도 하거니와 그 뒤로 대대장은 300여명의 병력을 收拾하여 議政府 西側으로 迂回機動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3번 道路를 넘어 綠楊洞 부근에 다다르자, 直洞의 연대본부에 搜索兵을 潛入시켜 聯隊旗를 收拾케 하였던 바, 『本部建築物 불타고 있다.』는 報告를 받고 이로부터 倉洞을 目標로 一路 強行軍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연대는, 이날 14.00에 議政府를 떠나 倉洞 西쪽 3km의 牛耳洞으로 指揮所를 移設한 然後에 一線 兵力을 收容하고 있었는데, 철수 당시에 李奎奎 상사가 主要文書는 埋沒하고 聯隊旗는 警護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重圍를 뚫고 退路를 모색한 대대는 道峰山 西側의 松楸에서 사단 工兵小隊와 合勢하여 다시 白雲峯 溪谷으로 夜間行軍을 強行한 끝에 다음날 09.00에 牛耳洞의 연대本部에 다다랐다.

한편 이날 아침에 左一線에서 併攻키로 한 제3대대(장, 金煥穆 소령)는 08.00에 龍岩里에서 出擊하여 華川을 건너 다음 東豆川 西側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亦是 여기에도 아무런 敵情이 없어 仙岩里—下牌里를 단숨에 踏破하여 어느덧 先頭가 新興洞(東豆川 西쪽 1km) 부근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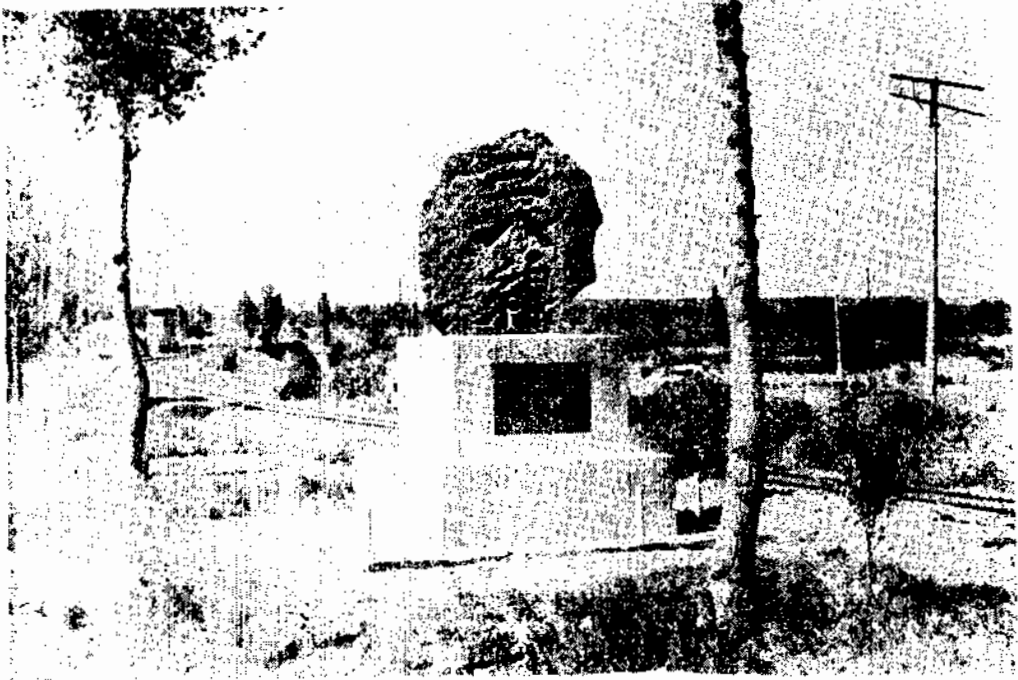
그런데 뜻밖에도 現 進出線보다 西南쪽으로 4km 떨어진 胎峰山(雲岩里 東쪽 500m) 기슭에 長蛇陣을 친 一群의 車輛隊列이 南進하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이때가 12.20으로 대대(一)는 여기에서 進路를 멈추고 偵察隊를 急派하여 이를 確認하였던 바, 雲岩里에서 下牌里로 指向한 敵의 機械化 부대가 長程이 2km에 뻗히고, 연대규모로 推算되는 徒步部隊가 德亭으로 通하는 316번 道路를 따라 南進을 재촉하는데, 歩兵들은 아예 小銃을 거꾸로 둘러메고 거침없이 南進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장 金煥穆 소령은 연대본부에 情況을 報告코자 하였으나 無線通信의 杜絶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바, 突然 上牌里 부근의 側後方에서 數未詳의 敵이 逆攻을 가하여 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150명의 兵力으로 巨岩의 一角에 부딪치니, 벌써 兵士들은 그 威勢에 戰意가 꺾이어 交戰 30분만에 四分五裂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로부터 各個分散되어, 대대장 金煥穆 소령은 소대병력을 끌고 德亭으로 나와 高嶺山(△173)—廣沙里를 거쳐, 韓泰源 중령의 下行經路와 비슷하게 이날 밤 牛耳洞으로 철수하였으나 연대장의 命에 따라 다시 北上하여 五峰山을 占領하는가 하면 부대대장 姜旼採 대위는 議政府 北쪽에서 天寶山을 넘어 水落山—佛岩山—泰陵으로 撤收하고 제10중대장 金朋煥 대위는 道樂山(德亭 西南쪽 4km)을 넘어 계속 山稜을 따라 倉洞으로 내려오는 등



<東豆川 正面의 38°線 境界碑>

사실상 支離滅裂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제1연대는 東豆川을 奪還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軍 指揮部의 狀況判斷이 빛나 오히려 二重의 苦礎를 본 끝에 牛耳洞으로 集結케 되었는데, 다음날 12.00까지 倉洞—牛耳洞線에서 收容한 兵力이 4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니, 제2대대장 李義明 소령을 비롯한 남은 병력은 이 時間 現在 널리 蕩어져 그 行方을 알길이 없었다.

## 2. 제18연대의 戰況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는 이날 反擊에서 사단의 左一線을 맡아 鳳岩里를 奪取키로 하였는데, 主力이 議政府에서 宿營한만큼 中間 集結地인 德亭으로 移動키 위하여 拂曉機動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宿營地인 綠楊洞을 떠난 뒤로 3시간 半에 걸친 強行軍 끝에 09.00에 德亭까지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一旦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이윽고 10.00를 期하여 攻撃에 나섰는데, 張春植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를 先鋒으로 삼아 316번 道路를 따라 鳳岩里의 直南方으로 進擊케 하고, 安致一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後續케 하여 防禦골(龍岩里 西쪽 마을) 삼거리에서 당도하는 즉시로 그 西쪽의 湘水里—笠岩里로 돌아 側方에서 挾攻토록 措置한 가운데 一路 西北進하였다.

그리하여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계속 進出한 연대(-)는 12.00에 이르러 그 先頭가

際縣國民學校(德亭 西北쪽 4km) 부근을 지나게 되었는데 突然 사단장 劉載興 준장으로부터 『現地에서 防禦態勢로 轉換하라.』는 緊急命令이 下達되었다.

이 명령은 無電交信으로 연대장이 直接 受領하였거니와 이렇듯 突然한 연대의 任務轉換은, 이날 10.00에 제1연대가 東豆川을 奪還하였으나 空室로 化하여 敵의 行方을 알 수 없는데다, 右翼인 제2사단이 祝石嶺에서 苦戰을 치른 끝에 그 本部인 金梧里가 破綻之境에 이르러 議政府가 危機에 빠짐으로써 취하여졌던 것이니, 이제 攻擊보다도 議政府의 防衛가 더욱 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연대장 任忠植 중령은 곧 방어태세로 轉換하여, 先鋒인 제2대대로 하여금 現位置에서 龍岩里—△157간에 陣地를 急編成 하고, 제3대대는 그 西端에 連하여 杏亭(德亭 西쪽 5km)까지 이르는 道下里 一帶에 병력을 配置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체로 13.00까지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제2대대는 제6중대(장, 金斑鬚 중위)와 제7중대(장, 李圭大 중위)를 左右 第一線으로 삼아 頂洞 突出線의 兩麓에 陣지를 마련하고, 제3대대는 제10중대(장, 金鳳俊 대위)와 제11중대(장, 元治男 중위)를 第一線에 내세워 道下里 一帶을 막아서니, 이로써 연대(-)는 道樂山(△440) 北麓에 새로운 陣지를 編成케 된 셈이었다.

이로부터 연대(-)는 議政府 西北쪽의 要線을 막아 陣地作業에 着手하였는데,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난 14.00에 제2대대에서 報告하기를 『지금 雲岩里에서 邊岩洞으로 通하는 道路上에 一群의 機械化 부대가 나타났는데, 그 長程이 2km를 넘는듯 하며, 戰車가 先頭에서 이를 誘導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연대장 任忠植 중령은 自身이 直接 確認하여 본 결과, 과연 300餘台의 各種車輛이 陣地 西北쪽에서 轟然히 東南進하는데, 이들은 步兵의 掩護도 없이 機械化부대만으로 316번 道路를 따라 德亭쪽으로 直行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의 搜索隊와 2.36"Rocket砲班으로 編成된 別動隊가 邊岩橋를 넘어서는 敵의 先頭車에 集中砲擊을 加하였다. 이 別動隊는 이날 攻擊에 앞서 부연대장 韓信 중령이 直接編成하고, 指揮하여 部隊의 先導와 對戰車 掩護의 임무를 遂行하다가 前述한 바와 같이 守勢로 轉換함에 따라 여기에서 潛伏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기계화부대가 밀려들자 一擊을 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別動隊는 敵對手가 되지 못하여 戰車縱隊의 同時集中 포격으로 말미암아 一擊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以後로 敵은 無人之境을 휩쓸듯 一路 德亭쪽으로 疾走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이 機械化 부대를 通過시킨 然後에 後續步兵과 對決키로 決心하고 潛伏待機토록 措置하였던 바, 그 通過시간이 無慮 1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이 隊列이 지나간 뒤로 다시 1시간이 經過하여도 後續部隊가 出現하지 않았으니, 이때에 敵의 徒步부대는 제1연대의 제3대대와 一戰을 벌인 뒤로 幸川 江邊의 野地를

橫斷하여 德亭으로 直行하고 機械化부대만이 316번 道路를 利用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어떻든 敵의 步戰協同부대가 17.00에 德亭 南쪽 2km의 梅亭里 부근에 나타난 點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부대에 隱縣面을 通過한 것만은 分明하였다.

이와는 관계없이 연대(-)는 機械化부대가 지나간 뒤로 一部の 陣地를 調整하여 제2대대의 1個 中대를 316번 道路 北쪽의 龍岩里 부근에 配置한 다음, 계속 陣地를 固守하던 바, 16.30에 이르러 다시 敵의 牛馬車부대가 이 道路를 따라 내려오는데, 이들은 이 지역을 自己들의 占領地域으로 誤認하였음인지 別段의 掩護도 없이 悠悠히 東南進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2대대의 제6, 제7 兩中대가 陣前 300m 直前方까지 誘導한 다음 同時に 掩襲하여 이를 一網打盡하였는데, 特別히 제6中대의 제3소대장 金顯穆 소위가 先頭에서 攻取하여 戰果를 確認하여 보니, 12臺의 牛馬車에 戰車砲彈이 滿載하고 總尉 1명과 少尉 1명 그리고 戰士 11명이 이를 끄는지라 人馬는 모두 사로잡아 연대에 押送하고 탄약은 溝渠에 拋棄하여 버렸다.

그런데 이 補給隊를 지휘한 總尉의 휴대용 地圖板에 漢江 以南까지 전투지경선이 明示되고, 水原까지 進出 예정일자가 7월 3일로 明記된 點등을 勘案할 때, 이들의 侵略兇計를 말하여 주는 듯 하였다.

이렇듯 연대(-)는 敵의 後方 補給線을 遮斷한 바 있었으나 戰況은 이미 기울어 이 부련에는 사단 지휘부가 議政府에서 지금의 倉洞派出所인 蘆海面支署로 移設하고, 이로 말미암아 交通이 杜絶될 뿐만 아니라 後方에서 砲聲만이 은은히 들리오니 將兵 모두가 초조한 가운데 日暮가 가까워졌다. 더구나 敵情을 헤아릴 길이 없으니 後續手段을 講究하지 못한채로 現地에서 夜間警戒태세로 들어갔다.

이때에 연대장 任忠植 중령은 부연대장 韓信 중령과 제2대대장 張春權 소령 그리고 作戰主任 高光道 소령 등 관계장교들과 더불어 當面의 對策을 熟議한 끝에 議政府가 敵手中에 넘어간 것으로 判斷되는 이 時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結論 짓고 單獨 撤收키로 決定을 내렸다.

그리고 撤收經路는 議政府를 西側으로 멀리 迂回하여 高陽을 거쳐서 서울 西北쪽의 舊把撥 부근에 一旦 集結한 다음 狀況을 보아 後進를 策하기로 하였으며, 出發시간은 다음 날(27일) 拂曉에 機動躍進키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27일 01.00附로 제2, 제3 兩대대장에게 『高陽을 經유하여 三松里로 集結하라.』는 명령을 下達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연대(-)는 西南쪽으로 進路를 돌려 退路를 모색케 되었는데, 이 地域은 제1사단(장, 卍善燁 대령)의 責任區域으로서 미리 協調함이 마땅하나 그 方法이 없으니 이를 留意하면서 대체로 良好한 道路를 따라 南行케 되었다.



즉, 연대본부와 제3대대(장, 安致一 소령)는 27일 02.00에 道下里 부근의 現地를 出發하여 廣積面 梧山里를 지난 다음 石岾里를 거쳐 日迎里에 이르러 一宿하고, 28일 08.00에 三松里(舊把撥 西北쪽 2km)에 당도하였으며, 제2대대는 대대장 張春權 소령의 지휘 아래 現地를 出發하여 佳納里—比岩里—廣灘面 東巨里로 이어지는 西向도로를 따라 當日 18.00에 東巨里에 이르러 여기에서 하루밤을 지나고 28일 새벽에 다시 1B도로를 따라 高陽 경유 三松里로 천수하여 이윽고 28일 09.00에 三松里에서 연대의 主力이 合勢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轉進過程에서 제2대대는 倉滿里(東巨里 東北쪽 3km) 부근을 지나다가 가벼운 迫擊砲 彈火에 부딪쳐 情況을 確認하여보니, 제1사단 隸下의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 陣前을 通過케 된지라 곧 友軍임을 通報하여 損失없이 이곳을 빠져 나오게 되었는데, 特히 여기에서 同연대장으로부터 防禦陣地의 一端을 맡아달라는 懇懇을 받은 바 있었으나 本隊와 合勢키 위하여 左隣接 사단의 戰況만을 認知한채로 다음날 아침에 三松里로 直行 하였던 것이다(第5節, 高浪浦—汶山地區 戰鬪參照).

제2대대의 제6중대장 金挺雲 중위는 이상과 같은 撤收狀況을 回顧하며 證言하기를, 『우리가 撤收命令을 받았을 때, 대대장 張春權 소령은 연대본부에 있었고, 부대대장인 尹鏞重 소령이 각 중대에 下達하였는 중대장인 나 自身도 高陽쪽으로 간다는 것 밖에 몰랐다. 그리하여 倉滿里 부근에 이르자 突然 박격포탄이 날아오는데 南에서 北으로 向한 것을 보고 友軍임을 直感하여 相互 連絡 끝에 제13연대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食糧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뻐하였으나 如意치 않은데다 연대장이 당장 陣地를 占領하라고 하여 補給과 指揮權 문제로 한동안 옥신각신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部隊도 補給實情이 切迫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결국 우리는 그날 밤에 個別接觸하여 饑渴을 매우고 다음날 本隊와 合勢하였다.』라고 述懷하였다.

어떻든 이제 三松里에 集結한 연대(一)는 여기에서 다시 연대장 任忠植 중령을 비롯한 부연대장 韓信 중령과 제2대대장 張春權 소령 및 제3대대장 安致一 소령 그리고 人事主任 李秉衡 대위와 作戰主任 高光道 소령 등, 관계지휘관과 참모들이 意見을 모아 다음 對策을 協議하던 바, 이날 새벽에 彌阿里 戰線이 부너져 敵의 戰車가 서울에 闖入하였다는 報告가 들어왔다.

이에 부연대장 韓信 중령은 『서울로 直行하여 南山을 占領하거나 아니면 中隊單位로 分進하여 市街戰을 展開하자.』고 建議하는가 하면, 人事主任 李秉衡 대위는 『지금 實彈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市街에 兵力이 흩어지면 戰力을 상실할 憂慮가 있으니, 幸州로 渡河하여 漢江線 防禦에 參加하는 것이 옳겠다.』는 意見を 具申하기도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다시, 제1사단의 主力이 奉天川에서 高陽 南쪽으로 撤退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니, 연대장은 一團 主力으로써 漢江을 渡河키로 결심하고, 李秉衡 대위로 하여금

幸州로 先行하여 渡船場의 偵察과 아울러 船隻을 確保토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28일 밤에 幸州 나루터에서 金浦半島로 渡河케 되거니와 이로써 연대(-)는 當사단에 配屬된 뒤로 德亨부근에서 一戰을 치르고 3일만에 漢江을 건너 서기에 이르렀다.

#### (다) 議政府 부근의 戰況

前項, 제7사단의 反擊狀況에서 讀者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그 撤收過程까지 取扱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26일로 되 돌아와 제2사단의 反擊作戰의 一環인 祝石嶺 防禦를 비롯한 議政府 부근의 戰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제2사단의 祝石嶺 防禦

前述한 바와 같이, 이날(26일) 01.00에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으로부터 反擊命令을 받은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金梧里의 指揮所로 돌아와, 北上機動中인 사단의 主力(제5, 제16, 제25연대)이 追及하기를 苦待하면서 于先 제5연대의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에게 總參謀長의 명령대로 祝石嶺 北쪽에 있는 敵의 戰車를 奇襲하여 破壞토록 指示하였는데, 이것은 反擊이라기 보다는 對戰車 特殊任務부대와 같은 性質의 것이었다.

如何튼간에 사단의 先鋒이 된 同대대는 이날 03.00에 金梧里를 出發하여 밤길을 달며 祝石嶺을 指向하였는데, 이때에 대대의 實情은 戰車 공격임무를 遂行할만한 아무런 準備를 갖추지 못하였다. 爆藥은 姑捨하고 수류탄 1발도 携帶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小銃彈도 個人當 M1 실탄의 경우 8~16발과 Carbin彈은 15~30발 정도 밖에 없었으며 重火器 실탄은 아예 없어 後續措置키로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장이나 대대장까지도 地圖 한장 없었으며 通信手段은 모두 傳言傳單만으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祝石嶺에 가면 제3연대(-)가 配置되어 있을 것으로 豫測하였으나 이때에 同연대는 이미 이곳을 철수하여 金梧里 南쪽에 集結中이었으니, 이 공격은 벌써 計劃樹立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狀況을 回顧한 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逃愾하기를 『總參謀長의 서울固守 意圖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戰況으로 보아, 漢江線 防禦가 妥當하다고 생각되어 建議하였더니 一言之下에 默殺되고 말았으며 특히 反擊命令을 받고 兵力과 裝備와 彈藥의 實情을 들어 時間餘裕를 달라고 하자 軍法會議에 회부하겠다고 호통을 치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니, 사단장 自身도 이같은 實況을 알았으나 窮餘之策으로 先措置, 後補充키로 한 듯하다.

그러나 事前偵察에 依한 緻密한 계획을 마련치 못한 대대는 아무런 敵情을 모르고 一路 祝石嶺을 오르던 바, 그 先頭가 本白逸 北쪽 300m까지 進出하였을 때 敵의 戰車가 먼저 이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렇듯 不期遭遇케 되자, 대대장 車甲俊 소령은 곧 병력을 △208 부근으로 誘導하여 방

어태세를 취하는 한편 사단에 連絡將校를 急派하여 狀況報告와 아울러 增援을 요청하던 바, 天明과 더불어 대대의 진지가 暴露되니, 戰車隊가 고개 마루에 멈추어 서면서 砲擊과 機銃으로 이 配置線 一帶에 集中射擊을 퍼부었다.

이로부터 視石嶺 南麓에서 遭遇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대대의 重火器는 彈藥이 없어 모두 無用之物로 化하고, 몇발의 소총彈은 戰車砲의 散手가 되지 못하여 交戰 30분만에 陣地가 瓦解되고 말았으며, 이를 突破한 敵은 다시 白逸洞쪽으로 南進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대대는 洛陽洞 溪谷으로 내려와 本白逸 南쪽의 △131 부근에서 兵力을 收拾하던바, 어느덧 08.00에 이르러, 李貞道 소령이 이끄는 제5연대의 제1대대가 增援코자 本白逸쪽으로 달려왔다. 同대대는 이날 새벽에 사단 參謀長 崔昌彦 중령의 引率로 議政府에 到着하여(연태장 代理人 朴基成 중령은 釜山에서 아직 歸隊치 못하였음) 金梧里에 당도하는 즉시로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出擊케 되었거니와, 이 대대도 또한 제2대대와 마찬가지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채로 『白逸洞에 가면 彈藥車가 있을 것이다.』는 通報만을 받고 進出하다가 여기에서 戰車隊와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兵力을 展開할 겨를도 없이 敵의 急襲을 받아 分散되고 말았으니, 당시의 狀況을 回顧한 제2중대의 鞠碩祚 二등상사는 證言하기를 『우리가 이날 아침에 金梧里에 當到하니 어떤 중령이 나와서 “白逸洞에 가면 彈藥을 補給할 것이다”고 通報하기에 바로 그곳으로 直行하였는데, 그 부락으로 넘어가는 南쪽 고개를 1/3쯤 통과하였을 때 敵의 戰車의 機銃射擊을 받아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四方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특히 先頭에 섰던 우리 중대는 打撃이甚하여 거의 各個 分散하다 싶이 되었는데, 나중에 天寶庵(白逸洞 西쪽의 庵子) 부근에 集結하여 보니 40여명 밖에 안되었으며 여기에서 敵의 戰車 5臺가 南下하는 것을 目擊하였지만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그 뒤로 대대와 連絡이 끊겨 現地에서 待機하다가 夕陽에 金梧里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또한 同중대의 小銃手였던 徐二洙 일등병은 『M1 실탄 16발 밖에 없었지만 共匪擊滅의 體驗을 살려 自信感을 가지고 있었는데, 戰車砲의 強襲을 받고 보니 그만 맥이 풀려 버렸다.』고 吐露하였다.

이상과 같이 兩대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 사단에서는 60mm 및 81mm 박격포와 2.36"Rocket砲 등 重火器로써 特攻隊를 편성하여 白逸洞으로 急派하였다고 하는데, 現地에서 交戰상황이 없었던 點으로 보아, 前記 兩대대와 힘쓸려 撤退한듯 하며, 彈藥補給車도 敵의 手中에 넘어간 것으로 推斷된다.

이무렵 사단 사령부의 動靜을 살펴보면, 參謀長 崔昌彦 중령이 인사참모 趙藝鶴 소령과 정보참모 賓哲顯 중령 그리고 군수참모 車光轉 소령 등 관제참모를 帶同하고 金梧里에 당도하여 參謀活動을 시작하였으나 現地の 實情을 몰라 一部の 軍需支援 활동을 除外하고는 거의 束手無策상태로 있었으며, 特別 敵情을 把握하지 못하여 뚜렷한 對策을 세우기 어렵

은 형편이었다.

이때를 돌이켜 崔昌彦 중령은 述懐하기를 『사실상 우리는 아무런 補佐役割도 하지 못했다.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대부분 Khaki服 차림으로 올라와, 하나 밖에 없는 狀況板 주위에 모여 對策을 樹立코자 하였으나 敵情을 確認할 길이 없으니 交代로 金梧里 뒷산의 觀測所를 오르 내리며 안타까워 했으며, 겨우 後續兵力을 一線에 增派하고 綜合하여 報告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아쉬워하며 敎訓삼아 苦惱해 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議政府 東北쪽의 關門이 열리어 危機에 處했을 때, 砲兵學校의 제2敎導대대(장, 金豐益 소령)가 金梧里로 急遽 進出하였다.

同대대는 陸本作命 제95호로써 이날 01.00附로 당사단에 配屬된 뒤로, 서울 龍山洞 本部에서 出發하여 戰線으로 나오게 되었거니와 現地에 當到하는 즉시로 上金梧里로 移動하여 砲를 放列코 自逸洞 부근의 敵線에 集中砲擊을 加하였는데, 105mm 野砲의 火力도 T-34型 戰車의 前進를 막지 못하여 驕驕의 威脅이 곧 문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이르자 대대장 金豐益 소령은 戰車와 正面에서 對決키로 決心하고, 제2포대(장, 蔣世豐 대위)의 砲陣으로 뛰어가 戰砲隊長 崔鎮植 중위에게 基準砲를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는데, 마칠 기준포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자, 6番砲를 끌어내어 砲隊長 蔣世豐 대위와 함께 同포대원들을 帶同하고 敵陣으로 달려 갔다.

이리하여 自逸洞 西南쪽 1km의 橋梁 부근에 이르자 43번 道路上에 砲를 配置하고 待機하니, 이때가 09.40으로 敵과의 거리는 200m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는 挺身決斷의 態勢를 취하고 있던 바, 敵의 先頭戰車가 50m 直前方으로 다가서자 第一彈에 그 軌道를 命中시켜 破壞하니, 비틀거리면서 路邊으로 미끄러졌다.

이를 지켜본 一同은 다시 제2탄을 裝填하던 바, 後續 戰車隊의 砲火가 여기에 集中하여 이로 말미암아 대대장 以下 全員이 이 戰線의 一隅에서 護國의 防牌로 散華케 되었는데, 이 死地에서 唯一하게 生還한 運轉兵의 진술에 따르면, 金豐益 소령은 마지막 運命의 순간까지 砲身을 더듬어가면서 大韓民國 萬歲를 외쳤다고 한다.

이러한 崇高한 砲兵의 鬪魂을 기리어 後에 대대장 金豐益 소령을 中령으로, 포대장 蔣世豐 대위를 소령으로 각각 追叙하고, 당시 6번 포대원들의 殺身成仁의 精神이 오늘날 全砲兵의 龜鑑으로 推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로 敵은 進路가 막혀 汗동안 滯留되자 이 好機를 놓칠세라 포병대대의 全火力이 여기에 集中하니, 掩護없이 허둥대던 그 者들은 危險을 느낀 나머지 進路를 돌려 祝石嶺 北쪽으로 退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사단은 砲兵大隊의 殊勲으로 一且 敵을 물리치게 되었으나, 步兵이 모두 分散되어 有機的인 戰線形成이 힘들게 되고 그위에 時時刻刻으로 危險이 漸增하니, 祝石嶺 방어의 새로운 對策이 火急한 실정이 되었다.

## 2. 제16연대의 急編防禦

이상과 같이 敵의 제1차 侵攻을 물리친 사단은 제5연대의 分散兵力을 收拾하여 祝石嶺에 다시 防禦陣을 構築코자 하고 있을 때, 文容彰 대령이 지휘하는 제16연대(一)가 金梧攄에 追及하였다.

同연대는 전날 밤 19.00에 忠北에서 出動하여 즉, 제2대대(장, 대령 金永哲 소령 : 대대장 金憲 중령은 步兵學校 高軍班過程 被教育中임)는 연대본부와 함께 淸州에서, 제1대대(장, 俞義濬 중령)는 忠州에서 각각 夜間列車 편으로 北上하여 이날 새벽 04.00에 제2대대가 먼저 倉洞驛에 到着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先着대대가 徒步機動으로 議政府를 거쳐 金梧攄에 當도하였는데, 10.00 現在 忠州에서 올라온 제1대대는 같은 經路를 따라 議政府 南쪽의 白石橋를 지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姜泰奉 중령은 아직도 淸州에 남아 歸隊兵力을 收拾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연대의 可用兵力은 2個 대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同연대도 또한 제5연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龍山驛에서 愛國婦人會의 奉仕에 依하여 주먹밥을 給食받은 以外에는 아무런 補給도 받지 못한 까닭에 各個 兵士들이 携帶한 8~30발의 小銃彈과 몇발의 迫擊砲彈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到着 즉시 사단장으로부터 『祝石嶺을 防禦하라.』는 任務를 賦與 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가 當到할 때까지 時間餘裕를 줄것과 그 사이에 彈藥문제를 解決하여 주도록 建議하였으나, 同 要衝이 空白상태로 있는 急迫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先占領 後措置키로 하는 約束만을 받고 現地로 直行하였다.

이리하여 現地에 當도하는 즉시로 43번 道路 東側의 △208 一帶에 제2대대를 配置하여 陣地를 構築하던 바, 11.30를 前後하여 俞義濬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가 倭續하자, 同대대를 그 西側의 白石高地 南麓에 配置하여, 兩대대로써 急編防禦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彈藥이 推進되지 않아 實彈없는 2.36"Rocket砲가 路邊陣地를 지키고, 敵의 豫想接近路로 銃口를 指向한 기관총 진지에서는 不安과 焦燥속에 탄약보급만을 嚮待하였다.

이에 反하여 當面の 北僞 제3사단은 祝石嶺에서 물러선 뒤로 二東橋里 부근에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再攻撃을 敢行하였으니, 이번에는 步戰協同으로 43번 도로를 따라 直貫突破를 꾀하는 한편 一部の 兵力을 西側으로 크게 迂回시켜 槍岩嶺을 넘어 議政府의 正北으로 突入케 할 企圖아래 이 時間 現在 陣前으로 近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敵情을 모르고 연대나 사단에서는 갑자기 增強된 敵의 砲火에 當惑하여 對砲兵 射擊의 요청과 지시가 오르내리던 바, 이윽고 12.00를 期하여 一團의 步戰協同부대가 祝石嶺으로 밀려들었다.

이들은 4臺의 戰車를 앞세워 進路를 誘導하면서 陣前으로 다가서자, 兩대대의 陣地에서

同時에 小銃과 박격포 사격을 加하고 또한 第2教導大隊의 105mm 野砲가 불을 뿜어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先頭의 戰車隊가 機銃을 휘두르며 고개를 넘어서더니 左右 兩側方의 配置線에 몇차례의 砲撃을 加한 다음 白逸洞쪽으로 그대로 直行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連絡將校 李相煥 중위를 사단에 急派하여 戰況을 報告케 하는 한편 現地에서 歩兵만이라도 擊滅코자 하였으나, 벌써 實彈을 거의 消耗한데다 後續하는 敵의 騎兵과 歩兵 그리고 戰車와 自走砲 및 各種 車輛등이 잇따라 그 威勢앞에 아무런 抗戰도 퍼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켜보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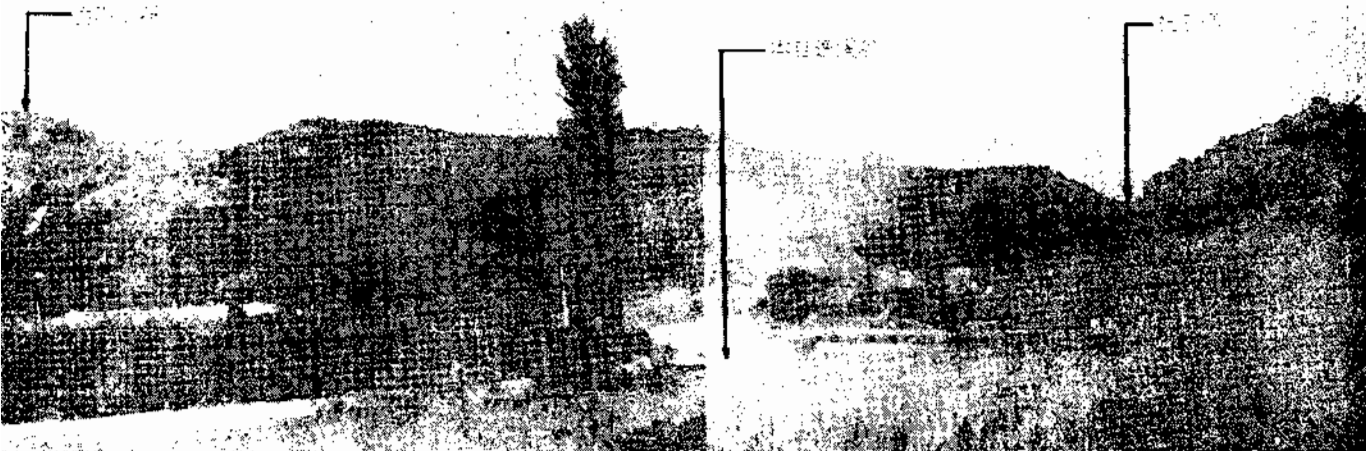
이에 反하여 敵은 이제 金梧里 附近으로 射程을 延伸하며 一路 薙進하니, 議政府의 危機가 寸刻으로 迫頭하게 되었다.

### 3. 金梧里의 破綻

제2사단의 祝石嶺 방어는 제5, 제16 兩연대가 逐次로 加入되어 分散되거나 敵線 後方に 遊離된채로 戰鬪다운 戰鬪 한번 치르지 못하고 議政府의 東北쪽 關門이 열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自衛力이 없는 金梧里의 指揮所가 危局에 直面케 되자 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白逸洞 西北쪽의 △202—金谷 線에서 驕敵을 阻止코자 힘썼으나 時間과 兵力과 裝備와 彈藥등 錯綜된 未備點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混亂만이 거듭되었다.

즉, 제5연대장 代理인 朴基成 중령이 家故로 釜山 本家に 外泊中, 急遽 上京하여 이 무렵에 비로소 來着하자 『연대의 兵力을 收拾하여 △202를 지키라.』라고 사단장이 指示하니, 同연대장은 自隊의 人事主任 趙南樞 대위와 軍수주임 車載敦 대위 및 작전장교 玄啓龍 중위 등 關係참모들을 引見코 부대의 實情을 把握하는가 하면,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은 家兄인 사단장을 찾아와, 現在 연대 병력의 一部가 △155에 配置되어 있음을 報告함과 아울러 逆襲命수를 내려달라고 建議하자 『지금 逆襲의 時機가 아니니 現陣地를 固守하라.』고



<祝石嶺全景>

親諭하여 돌려 보냈으며, 또한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이 관제참모를 帶同하고 現地에 당도하여 『지금 연대의 主力이 倉洞驛에서 下車하여 彈藥受領과 不必要한 裝備를 整理하고 있다.』고 報告하는 등 連대, 연대, 사단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데모여 右往左往할 뿐, 뚜렷한 當面의 妙策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이때에 砲兵學校長 代理인 金桂元 중령이 이끄는 105mm 野砲 1個 連대가 金梧里 南쪽의 新村部落에서 敵線에 砲擊을 加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기에서, 倉洞驛에 待機中이라는 제25연대의 情況을 좀더 살펴보면, 同연대는 安東에 派遣된 제1대대(장, 林益淳 소령)를 除外한 제2, 제3 兩대대가 前날 밤에 溫陽에서 出發하여 이날 아침에 龍山驛에 寄着하였는데, 連대장 金炳徽 중령의 總督에 따라 그 以後의 사항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나는 龍山驛에 당도한 즉시 陸軍本部에 들러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에게 到着報告와 아울러 彈藥補給을 建議하였던 바, 「寶彈이 없으면 途中에서 打電이라도 할 일이지 이제 와서 그렇게 無責任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叱責하면서,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기에 다시 그에게로 갔더니, 「議政府의 제2사단으로 가라. 彈藥문제는 現地에서 解決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다.

이리하여 다시 그 列車便에 議政府로 올라오는데 淸涼里驛에서 交行관계로 遲延되어 11.00에야 倉洞에 다다르니, 더 이상 北上할 수 없다고 하여 여기에서 一旦 下車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彈藥補充이 어려워 軍需主任에게 優先적으로 이 문제를 解決토록 지시하고, 그 동안에 각 대대는 不必要한 裝備를 整理하면서 戰鬪態勢를 갖추도록 措置한 다음 나는 情報將校 姜應燮 대위와 작전주임 曹南喆 소령을 대동하여 金梧里로 올라가 사단장에게 申告하였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12.00까지 兵力을 到着시킬 수 있느냐고 反問하기에 時間을 보니 12.00가 거의 다 되어, 시간여유를 달라고 建議하던 차에 敵이 밀려들었다.』 이렇게, 時間의 蹉跎과 戰況의 急轉으로 말미암아 腐心하고 있을 무렵인 12.30에 敵의 直擊彈이 金梧里의 指揮所로 날아 들었다. 이 砲擊은 白逸洞을 通過한 敵의 戰車隊가 어느덧 上金梧까지 侵襲하여 43번 道路上에서 東北쪽으로 亂射하는 戰車砲擊이었으니, 戰車의 恐怖症에 걸린 將兵들은 一瞬에 指揮體系가 마비되어 收拾키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에 敵의 後續部隊는 悠悠히 議政府쪽으로 蔭進하고, 이어서 雪上加霜으로 이들의 榴彈砲火가 여기에 集中하니 더 이상 支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議政府로 指向하던 戰車隊가 邑內突入 1km쯤 앞두고 砲口를 逆으로 돌려 길목에 버티고 서서 四面으로 威脅射擊을 加하자 더욱 混亂이 惹起되어, 撤收하던 兵士들이 被害를 입는가 하면, 제5연대장 朴基成 중령을 隨行하던 同연대의 軍需主任 車載敦 대위가 여기에서 戰死하고 部隊간의 連絡이 杜絶되는 등 사실상 破綻之境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사단장을 비롯한 主要指揮官과 참모들이 撤收케 되었는데, 議政府를 通할 수 없는 까닭에 그 東側의 小路를 따라 徒步로 新村부근에 다다르니, 金桂元 중령이 金炳微 중령의 손을 잡고 『歩兵이 撤收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呼訴하기도 하였으나 사태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이로부터 一行은 倉洞쪽으로 撤收케 되었는데, 14.00에 議政府 南쪽 5km의 京元線 鐵路와 陸路의 交叉路 부근에 당도하자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이 憲兵司令官 宋堯讚 대령을 帶同하고 路頭에 서서,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에게 後退의 責任을 물어 詰責하는 동시에, 양팔을 벌이고 周圍의 將兵들에게 『이 以上 一步도 後退할 수 없다.』고 高聲大喝하였다.

그리고 이어 측석에서 口頭命令으로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을 사단장 職에서 解任하고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을 議政府地區 戰鬪司令官으로 임명하여 兩사단을 統合指揮하라고 命令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사단의 제5연대장 代理인 朴基成 중령도 即席에서 解任하고 同사단의 參謀長인 崔昌彦 중령을 연대장으로 任命하여 兵력을 收拾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25연대장 金炳微 중령에게 『貴官의 部隊는 어디 있느냐?』고 所在를 確認하여 倉洞에 있다는 報告에 接하자 『白石川으로 直行하여 敵을 阻止擊滅하라.』고 嚴命하였다.

그런데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이 자리에 同席치 않아 아직 命令을 받지 못한 까닭에 (이날 17.00에 蘆海面 支署에서 正式으로 被任됨) 劃一的인 部隊 展開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于先 제25연대의 2個 대대가 金炳微 중령의 지휘아래 白石川 堤坊을 따라 15.00까지 진지를 急縮하고 新任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은 長岩洞(議政府 南쪽 4km) 부근에서 混成兵力 187명을 引受하여 해질 무렵에야 水落山 西麓에 진지를 마련케 되었다.

그리고 제16연대의 제2대대장 金憲 중령이 이 무렵에 現地에 追及하여(高軍班被教育中) 虎院里(議政府 南쪽 2.5km) 부근에 案内標識板을 세워놓고 兵력을 收拾하였으며, 제3연대의 混成兵力 1個 대대는 任百振 소령의 지휘아래 아직도 金楛崇 南쪽의 △155를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議政府 東北쪽의 襲衝을 내놓고 그 南쪽의 水落山과 白石川간에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케 되었거니와 本隊와 떨어진 分散兵力은 대체로 이날 밤에 分隊 또는 小隊 단위로 分進하여 다음날(27일) 아침에 대부분이 倉洞 부근으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 4. 議政府의 喪失

祝石嶺과 白逸洞 부근에서 제5, 제16 兩연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는 무렵인 이날 上午에 左翼인 제7사단은 反擊을 斷行하여 제1연대(장, 威俊鎬 대령)가 東豆川을 奪還함으로써 上下의 비상한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國防部 政制局에서 勝鬪內容을 發表하는가 하면 中央放送은 特報로 民心의 鎮靜과 市民의 團結을 呼訴하고 京鄕의 各新聞 특히 東亞日報를 비롯한 朝鮮日報와 서울신문은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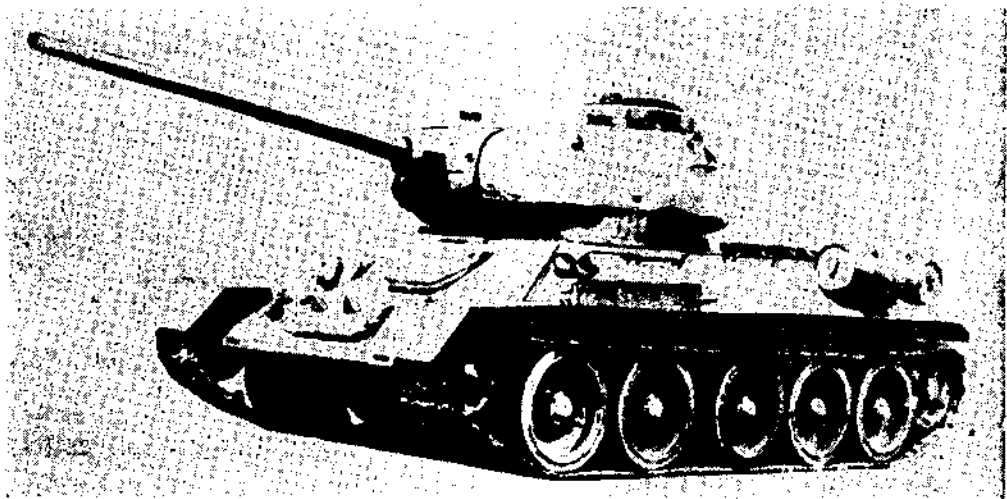
段記事로 反擊狀況을 報道하는 등 議政府戰線의 好況을 애써 鼓吹하였다.

그러나 指揮部의 狀況判斷이 크게 빗나가 오히려 이 時間 現在로 議政府가 危機에 直面하였으니, 이날 12.00에 祝石嶺을 突破한 北僞 제3사단이 제109戰車연대를 앞세워 金梧里를 強行通過한 다음 그 東郊에 侵襲하는가 하면, 東豆川 西側으로 迂回한 제4사단이 淵岩里에서 德亭으로 밀려들어 3번 道路를 따라 南段하고 또한 松隅里에서 槍岩嶺을 넘어선 一部の 무리가 天衡山으로 突入하는 등 軍단규모의 병력이 議政府를 삼키고자 덤벙된 것이다.

제7사단장 劉截興 准장이 이같은 情況을 確認한 것은 敵의 戰車隊가 金梧里까지 侵襲한 12.40이었다. 이에 그는 本部要員까지 出動시켜 工兵과 함께 東側의 橋梁을 爆破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제1, 제18 兩연대로 하여금 急히 反轉하여 倉洞으로 集結토록 명령하였는데, 제18연대와는 交信이 杜絶되어 連絡將校를 急派하고 제1연대 本部에만 이 命令이 傳達되었다. 그 뒤로 제18연대가 撤收命令을 받지 못한 點으로 미루어 볼 때에 連絡將校가 途中에서 敵과 遭遇하여 當該任務를 遂行치 못한 것으로 推測된다.

이와 더불어 사단장은 또한 負傷兵의 後送과 議政府驛에 滿積한 補給品을 逆輸送토록 지시하는 등 緊急措置를 취하던 바, 이윽고 13.00에 敵의 先頭戰車 4臺가 市街의 一角에 突入하였다.

이때에 市街 內에는 後方에서 北上한 兵力과 一線에서 南下한 負傷兵 그리고 指揮所로 찾아온 分散兵力 및 避難民이 서로 얼키고 설켜 戰鬪力이 없는 人波의 洪水로 混亂을 빚게 되었는데, 여기에 無差別 砲擊을 加하니 도저히 收拾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고 말았



<敵의 T-34 戰車>

다. 特別히 東側에는 벌써 敵의 砲兵이 推進된 듯 各種砲火가 全市街를 威壓하니, 이제 議政府 곳곳에는 걸차로 불길로 뒤 덮이게 되었으며, 더구나 戰車의 突入位置가 市街의 南쪽이고 보니, 어느덧 退路가 遮斷되기에 이르렀다.

節團司令部的 撤收: 金梧里 戰線이 무너진 뒤로 不過 1시간 사이에 退路가 막히고 司令部 廣場에 砲火가 날아들어 더 이상 支撐할 수 없었다.

이때에 사단장은 東側의 戰況을 確認키 위하여 新谷橋 부근으로 나오다가 退路가 遮斷된 사실을 認知하자 곧 사령부로 되돌아가 참모장 金鍾甲 대령에게 指揮所를 倉洞으로 移設토록 지시하고 自身은 작전참모 李陟圭 중령을 帶同하고 먼저 議政府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京元 本道가 遮斷된 까닭에 西쪽의 上直洞 고개를 넘어 松楸에 이른 다음, 다시 牛耳洞 溪谷으로 돌아 17.00에 蘆海面支署(倉洞과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總參謀長과 만나 議政府지구 戰鬪사령관으로 任命된 다음, 그 以後에는 倉洞에서 새로운 防禦陣을 形成코자 兵力收拾에 나섰다.

한편 참모장 金鍾甲 대령은 인사참모 白台信 소령과 정보참모 李世鎬 소령 등 本部要員을 끌고 直洞의 제1연대 본부로 一扈 옮긴 다음, 여기에서 연대장 威俊鎬 대령과 함께 역시 사단장이 지나간 經路를 따라 이날 19.00에 尙支署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軍需參謀 尹永模 소령은 議政府驛에서 兵力 수송과 補給物資 정리에 힘써 貨車一輛은 淸涼里로, 一輛은 倉洞으로 각각 回送케 하고 可動되는 모든 차량편에 負傷兵을 後送하는 등 統制하던 바, 여기에 戰車가 突入하자 3번 道路를 따라 倉洞으로 내려와 本部로 찾아왔다.

이리하여 19.00 以後로 正常的인 參謀機能을 되찾아 倉洞 阻止線에서 對備케 되었다.

제1연대의 撤收: 한편 제1연대는 이날 反擊의 先鋒에 나서, 韓泰源 중령이 지휘하는 混成大隊가 東豆川을 奪還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때에 연대장 威俊鎬 대령은 德亨에 있었다.

그런데, 突然 議政府에 戰車가 突入했다는 急報에 接하자, 즉시 直洞의 本部로 달려가니, 東豆川의 韓泰源 대대를 倉洞으로 撤收시키라는 명령이 下達되었다.

萬一 연대장이 德亨에서 20분만 더 遲滯하였더라면, 鳳岩里에서 南侵한 敵의 機械化부대와 부딪칠 形便이었으니, 이같은 一連의 狀況을 確認한 연대장은 곧 無電으로 主力의 撤收를 命命하였는데, 이때가 14.00로서 이미 退路가 遮斷된 상황이었다.

이렇듯 目前의 危急한 實情과 主力의 退路를 打開할 掩護對策이 없어 腐心하던 차에, 사단 참모장 金鍾甲 대령이 本部로 찾아와 사단本部の 撤收를 通報하였다.

이에 이르자 연대장은 斷案을 내려 指揮所를 牛耳洞에 移設토록 命命한 다음, 그 自身은 作戰主任 宋星三 대위를 帶同하고 金鍾甲 대령과 함께 먼저 牛耳洞으로 빠져나갔다.

이때에 연대本부에서는 부연대장 李崑樞 중령의 지휘아래 主要文書를 모두 燒却 또는

埋沒하고 연대旗를 收拾하여 곧 뒤를 따랐는데, 唯一한 活路인 松楸—橋梁—牛耳洞 線으로 徒步機動끝에 21.00에 現地에 당도하였다.

이리하여 2시간 前에 到着한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倉洞—牛耳洞간에 落伍者線을 設定코 分散兵力을 收容키로 한 끝에 여기에서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과 제3대대장 安政—소령을 비롯한 400餘명의 병력을 掌握한 다음 倉洞 戰線의 一角을 擔當케 되었다.

#### 5. 白石川の 血鬪

議政府의 失陷과 함께 3번 道路가 遮斷되고 보니, 一線에서 싸우던 各部隊 즉, 제1, 제9, 제3, 제18, 제5, 제16연대 등, 6個 步兵연대와 제5砲兵대대가 각각 分散되어, 倉洞을 目標로 迂回 機動하거나 멀리 西쪽의 高陽方面으로 迂回하는 등 모두 各個 分離하는 過程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에 오직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만이 倉洞에서 待期하던 중에, 總參謀長으로부터 白石川畔을 固守하라는 命을 받고 이날 15.00를 前後하여 2個 大대의 병력으로 여기에 새로운 阻止線을 마련하였음은 既述한 바 있거니와 이제 그 配置狀況을 좀더 仔細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議政府에서 南쪽으로 1km쯤 떨어진 白石橋를 中心으로 하여, 그 東쪽의 堤防을 따라 東幕까지 이르는 800m 正面에 高東嶺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配置하고 그 西쪽의 下直洞으로 잇닿는 堤防에 제2대대(장, 데리 羅熙弼 대위)를 展開하는 한편 中央의 同 橋梁은 제2대대로 하여금 직접 擔當케 하여 2.36"Rocket砲를 여기에 配置토록 하였다. 그리고 연대 觀測所는 제2대대 진지 直後方의 果樹園을 지나 △61(仙龍洞 附近)에 選定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제2대대는 대대장 裴雲龍 소령이 倉洞驛에서 下車할 때까지 있었으나 白石川에 나온 뒤로 그 行方을 알 수가 없어 先任將校인 제5중대장 羅熙弼 대위가 代理하여 指揮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의 右第一線인 橋梁 附近의 要域을 제5중대가 맡게 되고 同중대의 Rocket砲 4門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兩대대는 각각 小隊規模의 搜索隊를 편성하여 當面の 敵情을 探索케 하였는데, 제5중대의 제1소대장 朴辰根 소위가 指揮한 搜索대의 報告에 따르면, 議政府驛 廣場에 2臺의 戰車가 버티고 있을 뿐 아직 步兵은 보이지 않으나 어느 國民學校 校庭에 赤旗가 揭揚되었음을 確認하였다고 하였다.

이같은 狀況아래 연대(제1대대欠)는 陣地作業에 着手하였는데, 아직까지 彈藥을 補給받지 못하여 甚한 制限을 보인데다 특히 Rocket포의 경우에는 1門당 2~4발 밖에 없는 까닭에 한편으로 이를 周旋하면서 계속 진지를 強化하던 바, 17.00를 期하여 3번 道路上에 敵의 戰車縱隊가 나타났다. 이들은 步兵의 掩護도 없이 30~50m 간격으로 列을 지어 陣前으로 닥아왔다.

이때에 兩대대의 진지에서 모두 이를 目撃할 수 있었으나 2.36"Rocket砲 진지까지 誘導

키 위하여 射擊을 統制하였는데, 突然 제2대대의 진지에서 一發의 銃擊이 울리자 一齊히 사격을 시작하였다.

이 銃擊은 誤發이었지만, 이제 사격은 시작되고 陣地가 暴露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兩대대는 各種小銃과 기관총 및 박격포 등으로 同時 集中사격을 加하였는데, 특히 左側의 果樹園 부근에 위치한 제8중대(장, 金白泳 대위)의 소대장 崔基洙 소위가 지휘하는 2挺의 기관총과 右側 제12중대(장, 李泰克 중위)의 重機關銃 射手인 成洛鉉 一等中士가 휘두르는 交叉火力이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나, 敵은 이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陣前으로 밀려들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先頭戰車가 白石橋로 다가서자 여기에 潛伏한 제5중대의 2.36" Rocket砲 4門이 차례로 불을 쏘아 연속 打撃을 加하였으나 이 砲擊마저 아무런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1번 戰車가 橋梁을 通過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승의 전차가 다시 지나갔다.

이에 이르자, 火器小隊의 分隊長(姓名未詳)이 射手의 砲를 빼앗아 들고 直接 橋梁 西南 쪽으로 달려가, 5番戰車가 다리에 올라서는 틈을 타서 그 軌道를 命中시켜 裂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橋上에 擱坐된 전차를 보고 歡呼하는 瞬間에 6番車가 다가와 砲擊을 連發하니, 이로 말미암아 無名의 分隊長과 射手가 現地에서 戰死하고 副射手를 비롯한 彈藥手들이 크게 戰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挺身護軍의 鬪魂 앞에 10여승의 後續戰車가 進路를 잃고 한동안 당황하던니, 同僚車를 그대로 내어버린 채로 議政府쪽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이 光景을 직접 목격한 대대장 羅熙弼 대위는 뒤에 述懷하기를, 『이 無名의 分隊長이 一等功勳者다. 萬一에 여기서 戰車隊를 通過시켰다면 彌阿里 戰線이 하루 먼저 危機를 맞았을 것이며, 그러면 서울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결국 이 勇士의 힘으로 하루 밤을 더 遲延시킨 것이다. 그 뒤로 混亂中에 이 分隊長의 身元을 確認하지 못하고 負傷당한 부사수마저 끝내 찾지 못하여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主力은 물리쳤으나 先行한 4승의 戰車는 계속 南進하여 虎院洞 東쪽의 鐵橋 부근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이곳은 白石川 堤防에서 南쪽으로 뻗혀진 小路가 3번 道路에 잇닿는 交叉地點으로서, 여기에서는 제16연대(장, 文容彰 대령)의 混成 제2대대가 金憲 중령의 지휘아래 潛伏하고 있다가 이와 맞부닥치게 되었다.

대대장 金憲 중령은 步兵學校 敎育中에 復歸命을 받고 이날 14.00에 倉洞에 到着한 뒤로 연대의 主力이 祝石嶺에서 分散되었다는 사실을 確認하자 長水院부근에 『第十六聯隊 集結地』라는 標識板을 세워놓고 兵力을 收拾한 끝에 300餘名의 병력을 集結시켜 再

編成한 데대였다.

따라서 각 대대의 병력이 혼합되어 있으나 結構은 제2대대로 하여 3個 中隊를 편성하였는데, 제5중대는 安英浩 대위가, 제6중대는 尹在淵 중위 그리고 제7중대는 盧炳烈 중위가 맡아 각각 100명의 병력을 지휘하였으며 부대대장 金永喆 소령과 金 憲 중령이 이를 統轄하여 여기에 配置하였던 것이다.

陣地占領에 앞서 砲兵學校長 代理인 金桂元 중령이 金 憲 중령에게 『내가 砲兵支援을 해 줄터이니 나가 싸우라.』고 激動한 바 있었으며, 또한 대대장은 精神訓話를 통하여 『서울이 떨어지면 끝장이니, 이곳을 死守하자.』고 다짐한 다음 여기에서 決戰態勢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戰車가 侵攻함에도 不拘하고 물러서지 않고 小銃과 機關銃 및 박격포 등으로 저항하며 一陣 二陣이 이를 막아 30餘分 동안의 血鬪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부대대장 金永喆 소령과 제7중대장 盧炳烈 중위가 戰死하고 제5중대장 安英浩 대위를 비롯하여 제6중대장 尹在淵 중위와 李京熙 상사 등 대부분의 將兵들이 戰傷을 입는가 하면 대대장 金 憲 중령도 여기에서 負傷으로 精神을 잃고 現 友石병원으로 後送되었다가 後에 大田의 제63병원에서 그 뒤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무릇 戰車와 步兵의 對決方法이 이것만은 아니로되, 急迫한 시간과 不備한 條件下에서 要線을 지키겠다고 한 將兵들의 精神만은 높이 본 받아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兩陣대의 血鬪로 전차의 侵攻을 막아, 다음날 倉洞戰線의 戰鬪展開가 未始 하나마 可能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 제25연대(一)는 이날 밤에 夜間警戒태세로 들어가 계속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다음 날인 27일 拂曉에 敵의 步戰砲 協同부대가 大擊侵攻함에 따라 白石川과 藥水庵 부근에서 且戰且退의 지연전을 펴며 撤收케 되었는데, 그 過程에서 混亂이 惹起되어 연대本部와 제3대대는 彌可里로 빠지고 제2대대는 道峰山을 넘어 舊把撥과 陵谷을 거쳐서 幸州 나루를 건너게 된다.

#### (라) 內村面 附近의 戰況

抱川과 東豆川 그리고 議政府 부근에서 交戰이 거듭되는 동안에 이 東側方의 內村面과 接界面 一帶가 완전히 遊離狀態로 놓여져 있었다.

이 地域은 제7사단의 責任區域 가운데에서 右翼의 한 것에 해당하는 곳으로, 平時에는 제9연대의 搜索中隊와 情報要員들이 出入하였으나 議政府 正而의 戰火가 急하여 主力이 모두 여기에 集中하고 보니, 東側方의 要線이 자연 空白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內村面의 內照 부근은 抱川과 機山里에서 西坡를 지나 退溪院에 이르는 391번 道路上的의 分岐地點으로, 萬一에 이곳이 敵手中에 넘어가 狂波가 서울의 東北쪽을 휩쓸다면

議政府의 保有가 아무런 뜻이 없는 까닭에 그 防備가 時急하였다.

그러나 戰鬪部隊는 敵의 醜鋒을 막아 議政府와 汶山地域에 集中運用 됨으로써 及其也는 士官生徒와 警察대대까지 出動시켜 이 地域을 固守케 되는 바, 이제 25일로 다시 돌아와 生徒大隊의 出動經緯와 함께 內隄 부근의 戰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生徒大隊의 出動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이 25일 上午 10.00에 議政府 戰況을 돌아보고 온 뒤로 首都警備司令部 豫하의 제3연대를 제7사단에 配屬토록 命令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와 더불어 다시 機甲연대의 裝甲대대를 각 사단에 分割配屬하고 보니 首都의 警備가 새로운 문제로 擡頭케 되었다.

이에 그는 在京 各 軍事학교의 基幹兵力을 集結시켜 首都警備를 擔當케 할 豫定으로, 步兵學校의 俞海濱 중령으로 하여금 該校의 教導隊와 陸軍士官學校의 教導隊 및 生徒大隊를 統合하여 首都防衛特別연대를 編成토록 지시하였다. (陸本作命 제85호로써, 文書命令은 1950년 6월 25일 14.20附로 下達됨)

그러나 中·西部戰線의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急轉하여 後方 豫備사단의 赴援을 기다릴 餘裕가 없이 急迫한 상황에 이르자, 그는 다시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에게, 同命令을 취소하고 이들 部隊를 出動시켜 步兵學校의 교도대와 士官學校의 教導隊는 제1사단에 配屬시킵과 동시에 汶山으로 急派케 하고 生徒대대는 제7사단의 東側方을 防禦토록 措置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指示를 받은 金白一 대령은 곧 士官學校長 李俊植 准장에 通報함과 아울러 同校의 廻番司令인 李俊鶴 소령을 陸軍本部로 出頭시켜 13.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文書命令은 作命 제90호로써 6월 25일 20.00附로 下達됨).

『① 敵은 依然히 38°線 及 東海岸에서 계속 侵攻하고 있음.

② 警察 1個 大대가 軍에 配屬되었음.

③ 陸軍士官學校長은 麾下의 生徒隊로써 1個 大대를 編成하는 동시에 警察대대를 統合 指揮하여 △372—△330간에 侵攻하는 敵을 阻止 擊滅하라.』

이 命令을 받은 李俊植 准장은 士官生徒를 小銃手로 出動시킨다는데 對한 錯雜한 心懷가 없지 않았으나 當장의 危急을 救한다는데 異議를 提起할 수가 없어, 敎務處長 趙岩 中령을 大대장으로 任命하여 生徒대대를 編成케 하였다.

이때에 同校에는 任官을 2週日 앞둔 1期生 263명과 入校한지 25일이 되는 2期生 334명으로 都合 597명이 있었는데, 1期生은 2/3 병력이 外出中이고 2期生은 前일에 이어 資格記 錄射擊차 모두 營內에 있었다.

이리하여 于先 戰鬪編成에 착수하는 한편 貯藏武器를 끌어내어 防腐油를 닦아내고 實彈을 分配하는가 하면 또한 外出中에 歸校한 兵력을 按配하는 등 3시간 동안에 걸친 편성끝

에 거의 全兵力이 集結하여 出動態勢를 갖추었다.

그 部署를 보면, 대대장 趙 崐 중령을 비롯하여 부대대장에 孫官道 소령 그리고 제1중대장 宋仁律 대위와 제2중대장 朴應奎 소령, 제3중대장 李元燾 대위가 각각 小銃中隊를 맡고 朴正瑞 대위가 重火器 중대를 맡았다. 참모要員은 S-1에 崔載明 대위, S-3에 李承雨 대위, S-4에 崔英圭 소령이 任命되었으며, 各中隊는 대체로 1期生이 小隊長과 班長 또는 分隊長 및 射手가 되고 2期生이 小銃手 및 彈藥手가 되었다.

이와 같이 編成을 마친 대대는 이윽고 16.00를 期하여 出動케 되었는데, 이보다 2시간 前에 同校의 敎導隊가 汶山으로 떠나면서 白隊의 車輛을 모두 利用한 까닭에 학교 본부에서 民間車輛을 周旋하여 이 편에 橫山里 쪽으로 차량移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대대는 아무도 前方의 敵情을 모르고 漠然히 抱川이 危急하다는 通報만을 받았으며 더구나 대대장까지도 地圖 한장이 없으니, 退溪院을 지나면서부터는 移動이 더디어 富坪里(秦陵 東北쪽 17km)를 지날 때에는 이미 19.00가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391번 道路를 따라 庵峴里에 다다르니, 바로소 砲聲이 울려오고 避難民이 내려오는데, 이들의 諜報에 따르면 이미 抱川이 敵手中에 넘어가고 이곳을 지키던 제9연대가 撤收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부대대장 孫官道 소령의 提議로 여기에서 멈추어, 391번 도로와 326번 도로가 맞닿는 “Y”字型 交叉路 南쪽高地(△372)에 陣地를 急編케 되었는데, 이 地域은 西坡와 松隅驛로 通하는 要地로서 제7사단 作戰區域의 東側 後方に 해당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대대는 日沒과 더불어 同高地를 占領하여, 제3중대를 東側 稜線에, 제2중대를 北斜面에, 그리고 제1중대를 西側 稜線에 각각 配置하는 한편 重火器 중대는 그 南쪽 溪谷에 砲陣地를 選定토록 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날이 어두어지자 一部の 彈藥運搬兵을 제외하고 모두 陣地에서 遊敵토록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內里 부근에 警戒兵을 配置 하였다.

이로부터 夜間 警戒態勢로 들어갔는데, 이날 밤에는 아무런 敵情이 없었으며 協同 防禦 키로 한 警察대대도 아직 當到하지 않았다.

## 2. 內里 부근의 戰況

徹夜 警戒態勢로 25일 밤을 지낸 대대는 26일의 天明과 더불어 陣地作業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06.00에 이르러 이윽고 警察대대가 現地에 當到하자 趙 崐 중령이 이를 統合指揮하여 同대대로 하여금 △372 東北쪽의 △330를 占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가 함께 진지작업을 시작하였는데, 警察대대는 작업 道具가 不實하다는 구실로 진지 구축을 怠慢할 뿐만 아니라 兵力의 配置方法도 소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同대대는 首都警察局 傘下의 別動隊(戰鬪警察隊)로서 300명이 現地로 나온것인데, 그 모두가 99式과 Carbin 小銃을 携帶한데다 實彈도 個人當 10~15발 밖에 없었으며 重火器는

全無하였다.

이에 孫官道 소령의 建議에 따라 生徒대대의 機關銃 1個班을 兩대대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兩대대간의 交叉射擊이 可能토록 配置케 하고, 또한 一部の 兵力을 調整하여 俗稱 “사기막” 부근까지 配置線을 延長토록 하는 등, 一連의 補強措置를 취하였으나 아직도 未洽한 點이 많았으며 심지어 불을 피워놓고 젖은 上衣를 벗어서 말리는 정도였다.

이에 反하여 生徒대대는 主陣地와 豫備진지 및 補助진지까지 構築할 뿐만 아니라 射界를 淸掃하고 偽裝을 실시하면서 『陣地의 規格이 맞느냐?』고 웃음짓는 餘裕를 보였으며, 敎理대로 機關銃 진지를 選定하여 最低표적 사격이 可能토록 배치하는 등 生徒다운 面貌가 躍如하였다.

이와 같이 진지 構築에 힘쓰던 바, 10.00를 前後하여 朝食이 推進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의 제1대대(장, 柳恒博 소령) 소속인 소대장 1명이 分隊兵力을 이끌고 眞木里 부근으로 내려 왔는데, 그의 陳述에 따르면 전날 밤에 대대 병력이 모두 撤收하고 自身은 負傷으로 落伍되어 小隊員과 함께 後續中이라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가까운-거리에서 敵이 있을 것으로 推測되었으나, 아직 보이지 않고 散發的으로 避難民과 낙오병이 陣前을 通過할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兩대대는 계속 陣地를 補強하면서 一部兵力으로 地雷를 埋設하였는데, 특히 제1중대장 宋仁律 대위는 小隊兵力을 自身이 直接指揮하여 內里 西쪽의 325번 道路上에 對戰車壕를 掘開하고 李錫泰생도(2期生)을 비롯한 9명의 小銃수들은 眞木里 부근에 對人地雷를 埋設하는 등 다른 地域에서는 볼 수 없는 障壁作業까지 실시하였다.

그런데 抱川地域으로 侵攻한 北傀 제3사단은 이무렵 靑石嶺 南쪽에서 議政府를 侵襲코자 血戰이 된 까닭에 餘念이 없었음인지 15.00가 넘도록 이 地域에는 아무런 敵情이 없었다.

이러하여 兩대대는 계속적으로 陣地強化에 注力하던 바, 이윽고 16.00를 期하여 眞木里의 警戒哨所에서 大대규모의 敵이 國師峰(△547) 南쪽으로 迂回機動한다는 報告가 들어왔다. 이 무리는 그들 제3사단 隸下의 제9연대 소속으로 대과 金萬益이 지휘하여 사단의 東側方에 侵攻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 機動方向으로 보아 內里 北쪽에서 警察대대의 陣前으로 侵襲코자 함이 分明하였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避難民을 假裝한 鎧衣隊를 미리 投入하여 兩대대의 配置상황을 窺視하였다고 하거나와 특히 경찰대대의 진지인 △330를 先攻口標로 노린 것은 警察官 自身들이 스스로 진지를 暴露한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로부터 交戰이 시작되어 內里 東쪽 溪谷이 銃砲聲과 硝煙에 싸이더니 10分쯤 지나자 警察兵力이 同高地 南쪽의 庵峯里 부근으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경찰관은 『彈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변명하기도 하였으나 이 대대는 戰鬪兵力으로써



期待할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

이때에 生徒대대는 射擊統制를 嚴히 하여 東北쪽의 戰況을 지켜보고 있던 바, △330를 奪取한 敵은 그 餘勞를 몰아 곧 대대의 正面으로 殺到하였다.

이리하여 그 主力이 82mm 박격포와 45mm 反戰車砲 및 機關銃 등의 掩護下에 內照 西南쪽의 閑豁地를 橫斷하려 하자, 사격계시 信號가 오르고 이어 대대의 全火力이 불을 뿜어 同時集中사격을 加하였는데, 특히 陣前 300m의 거리를 두고 最後阻止사격을 加하니, 이 火網속에서 허덕이던 驕驍는 風飛雹散이 되고 말았다.

제1중대의 機關銃 射手였던 金連新 생도는 이때를 回顧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적어도 200명 以上の 敵을 때려 눕혔다.」고 證言하거나와 이 痛快한 一擊으로 先攻 一波를 물리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內照 北쪽의 △312 부근에서 分散兵力을 收拾하면서 砲擊을 增強하여, 122mm 榴彈砲를 비롯한 120mm 박격포와 82mm 박격포 등으로 대대의 全陣地를 전동시켰다.

이에 맞서 대대의 81mm 박격포 6문이 또한 불을 뿜으니, 마치 內村面 一帶를 무너뜨릴 것 같은 砲擊戰으로 化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敵은 이 틈을 타서 再攻撃을 敢行하였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兵力을 投入하여 東西 兩側方의 山麓을 따라 隱密히 陣前으로 接近시킨 다음, 18.00를 期하여 대대의 左右 兩側面으로 突入하였다.

이리하여 東側의 제3중대와 西側의 제1중대가 激突케 되었는데, 至近거리에서 手榴彈의 投擲이 오고가며 30餘分 동안의 激戰이 거듭되는 사이에, 제1중대의 西端陣地가 무너져 그 一角에서 陣内の 白兵 對決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突破口를 막아선 同중대 제2소대의 分隊長 崔聖源 生도가 大兵肥滿型의 體軀에 합성을 높이며 敵線으로 뛰어들어 3명의 驕驍를 刺殺하고 壯烈히 散離하는가 하면 남은 分隊員들이 銃劍을 휘두르면서 挺身力鬪하는 등 血戰을 反復하면서도 끝내 진지를 지켰다.

바로 이 무렵에 連營將校 金弘진 중위가 學校長의 命을 들고 대대본부로 달려왔다. 그런데 대대장 趙岩 中령이 現地에 없어 부대대장 孫官道 소령이 命을 受領하고 보니, 『生徒大隊는 즉시 撤收하여 學校本部로 集結하라.』는 內容이었다.

推測컨대, 이같은 撤收命이 下達된 것은 讓政府 戰線이 크게 무너져 이 시간 現在 敵의 主力이 白石川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倉洞—佛岩山—九陵山間に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키 위한 措置의 一環인 것으로 여겨지거나와 交戰中인 現時點에서 撤收하기란 실로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부대대장 孫官道 소령은 斷案을 내며 각 중대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을 下達하였다. 즉, 『대대는 19.00를 期하여 現陣地를 離脫하는 즉시로 學校本部에 集結한다.

철수순서는 中央의 제2중대가 먼저 빠지고 그 뒤를 이어 제3, 제1 兩중대가 同時에 陣地를 離脫하되, 1期生 생도가 接敵牽制하고 2期生이 先行할 것이며 마지막 철수시에는 迅速한 行動을 취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9.00부터 撤收하기 시작하였는데, 제2, 제3 兩중대는 東側의 391번 도로를 따라 대체로 無難히 轉進케 되었으나 西側의 제1중대는 진지 離脫時에 一部兵力이 分散되어 光陵—龍岩里를 거쳐 退溪院으로 내려오는 등 混線을 빚음으로써 交戰時보다도 더욱 많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당시 제1중대의 60mm 迫擊砲 사수였던 田鎭洙 생도는 證言하기를 『混亂中에 砲를 버리고 退溪院까지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제9연대의 병사들이 機關銃을 메고 오는 것을 보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生徒로서의 矜持와 撤收時의 艱難을 동시에 말하여 주는 듯 하다.

이로써 대대는 제7사단 地域에서의 作戰에 終止符를 찍고 이날 밤 21.00에 學校本部로 集結케 되었는데, 이 戰鬪에서 27명의 士官生徒가 小銃手로서 나라에 몸을 바쳤다.

그뒤로 대대는 倉洞戰線의 一隅를 擔當케 되는 바, 그 戰況은 第4章 第1節의 倉洞—彌阿里 부근 戰鬪에서 詳述하게 될 것이다.

#### 라. 전투 후의 개황

議政府 戰線이 무너진 뒤로 그 波及影響은 거의 全戰線에 미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特別히 左隣接인 제1사단(장, 白善輝 대령)은 아직 臨津江 防禦陣을 堅守하고 있는데, 東側方이 暴露되어 그 威脅으로 말미암아 撤退를 強要당하는 狀況에 놓이고, 泰陵 正面에서도 生徒대대가 敵線 後方에 位置케 되는가 하면 春川의 제6사단과 江陵의 제8사단까지도 首都 서울의 危機에 따른 戰術的 및 心理的인 衝擊으로 作戰指導에 混迷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敵은 서울 制霸를 第一目標로 삼아 議政府 地域의 戰果擴大를 劃策하는 한편 一部の 兵力을 27일에 벌써 金浦半島로 上陸시켜 西側方에서 위협을 加하였다.

敵의 動向: 이때에 議政府 地域으로 侵入한 先攻集團은 主力으로써 倉洞—彌阿里—서울 軸線으로 指向한 直衝突破를 꾀하는 동시에, 一部の 兵力을 左右側方으로 併攻시켜 增援을 遮斷함과 아울러 主方의 進出을 掩護코자 한 것으로 分析된다.

그것은, 抱川地域으로 侵入한 제3사단이 제9연대(장, 대좌 金萬益)를 泰陵 正面으로 進出시켜 서울의 東北쪽으로 攻圍케 한 點과 東豆川 地域으로 侵入한 제4사단이 제18연대(장, 대좌 金熙俊)를 高陽—芮把撥線으로 分派시켜 제1사단의 서울 集結을 牽制케 한 點 그리고 平壤을 지키던 部隊로 알려진 제5연대(장, 대좌 崔仁德)로 하여금 제107戰車연대와 協同으로 倉洞—彌阿里 軸線으로 突入케 한 點등을 勘察할 때 能히 그 企圖를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當初에 이들은 『議政府를 占領하면 곧 漢城에 突入할 態勢를 갖추라』고 指示한 바 있었는데, 그 以後의 指針樣相으로 미루어 볼 때에 대체로 水落山과 佛岩山을 包含한 東側을 제3사단이 맡고, 3번 道路를 포함한 西側을 제4사단이 擔當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특히 彌阿里에서 攻防戰이 展開되고 있을 때에 제3사단 隸下의 제8연대(장, 중좌 金秉鍾)가 里門洞쪽으로 先攻한 것을 보면, 이들은 앞 다투어 서울 侵入을 서두른 듯 하다.

그리고 砲兵火力은 集中的으로 倉洞戰線에 運用한 듯하며, 左右 兩側方面에는 步兵火力으로써 侵襲하였는데, 다만 秦陵 北쪽에서 野砲 1個대대가 活動한 양상이 엿보인다.

結局 이들은 議政府를 占領한 以後에도 그 戰力을 堅持하며 계속 서울 入城을 노렸는데, 그 過程에서 軍의 兵力集結을 不許하고 退路를 遮斷하여, 漢水 以北에서 我軍의 戰鬪力을 꺾고자 한 것으로 推斷된다.

我軍의 狀況: 한편 軍에서는 議政府 戰線이 崩壞되자 超非常狀態에 突入하였다. 一線 兵力이 모두 分散된 데다 可用한 豫備병력이 없으니, 큰 難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陸軍本部에서도 金白一 대령의 지시로 將校연대(基幹編成)를 急編하여 孔國鎮 中령의 指揮下에 倉洞으로 나가는가 하면, 參謀學校 要員인 李龍文 大령을 비롯한 金炳吉 中령 등 100餘名의 將校들이 兵力 收拾次로 現地에 달려가고 또한 前 作戰局長 姜文春 大령이 陸軍本部의 前哨指揮所를 開設하여 現地에서 指揮하는 등 이제 陸軍의 指揮部가 倉洞으로 옮긴듯 하였다.

그러나 通信의 杜絶로 各연대의 行方을 알지 못한채, 26일 밤에 收拾된 戰鬪兵力이 1個 연대를 넘지 않으니, 倉洞戰線의 전투전개가 사실상 不可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은 可能하면 速히 兵력을 收拾하여 議政府를 奪還코자 하였다 하니, 아직도 그는 서울의 固守 一念으로 大勢의 推移를 誤判한 듯 하다.

이때에 議政府地區 전투사령관 劉載興 中장은 蘆海面 支隊에서 병력수습과 아울러 倉洞 戰線의 固守策을 마련코자 하였는데, 指揮體制의 混亂과 絕對兵力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26일 밤에는 劃一的인 戰線을 構成치 못하였다.

특히 연대장급 이상의 指揮官이 現地에서 隨時로 交替됨에 따라,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어느 命令에 좃아야 할지 當惑하는 事例가 許多하였으며, 이것은 混成部隊에 더욱 混亂을 助長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惡循環이 거듭되었건만 26일 밤 사이에 대부분의 兵력이 倉洞 부근으로 集結하여 27일 아침에 여기에서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케 되었다. 즉, 제1연대(一)는 威儀鎭 大령의 지휘 아래 牛耳洞 부근에 集結하고, 제9연대(一)는 尹春根 中령의 지휘로 秦陵에 集結하였으며, 제5연대(一)는 崔昌彦 中령이 收拾하여 倉洞으로 내려가고 제16연대(一)는 文容彩 大령이 率領하여 역시 倉洞으로 後續하는가 하면 제25연대(장, 金炳徹 中령)는 白石川에서 그 뒤를 따라, 이 部隊들이 힘을 합하여 秦陵—佛岩山—倉洞間에 阻止線을 마련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生徒대대와 警察대대도 이에 參加하여 秦陵—佛岩山間의 一隅를 맡았으며 砲兵學校의 教導隊도 끝까지 이를 支援하였는데, 오직 제18연대(장, 任忠植 中령)만은 退路가 다투어 高陽쪽으로 轉進케 되었던 것이다.

敵侵當일부터 27일 早朝 白石川 阻止線까지의 本戰鬪 期間中の 綜合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敵射殺	2,741명	戰死	{ 確認 958명
重火器鹵獲	10挺		{ 推定 1,732명
小火器 "	120挺	負傷	2,220명
		失蹤	3,117명

## §. 參戰者의 證言

## ◇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

(1977. 4. 4 大韓石油公社 社長室에서, 예, 중장)

나는 사단장으로 赴任한지 2週밖에 안되어 아직 部隊의 實情도 照譯하게 把握치 못한 상태에서 이 戰況을 차렸다.

大田에서 제2사단장으로 있으면서 共匪擊滅에 注意하다가 一線部隊을 맡게 되었는데, 올라온 직후에 狀況을 파악해보니, 敵의 攻勢徵候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部隊移動이 빈번하고, 戰車가 第一線에 나타나는가 하면 正規軍이 交代한다는 등 諜報가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予先 偵查投入 훈련을 실시하고, 육군 본부에 對戰車 裝備과 地雷를 달라고 建議하였더니 전혀 反應이 없었다. 당시에 美 顧問官들은 韓國의 地形條件下에서는 戰車의 運用이 不可能하며, 또한 敵이 美國에 挑戰하지 못할 것이라는 判斷 아래, 一線의 部隊移動 상황은 어떤 訓練일 것이라고 推斷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陸本 情報室에 들렀을 때에 顧問官을 붙들고 對戰車地雷를 달라고 하니까 가버려 웃어 넘기는 정도였다.

그런데다가 당시에 우리 사단은 豫備연대가 없었다. 제3연대가 예비로 있다가 바로 얼마전에 首都警備河 隸下로 編入되고, 溫陽에 있는 제25연대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24일 밤에 陸軍會館 開館 Party에 참석하러 갔다 하여 서울로 나왔다가 25일 새벽에 新堂洞 집에 서 보고를 받았다.

탈려와 보니, 사단의 一線 全域에서 交戰이 시작되어, 이제 南侵하는구나 하는 直感이 들었다. 그리하여 陸軍本部와 또 제3사단장으로 계시는 家親(劉升烈 대령 : 筆者註)께 연락하여 빨리 美軍의 支援를 받아야 한다고 強力히 建議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쭉쭉 밀리는데 건잡을 수가 없었다. 總參謀長이 다녀

간 뒤로 제3연대가 增援하여 松陽里로 急派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龜州과 東豆川이 떨어지고, 이어서 우리가 反擊도 해보았으며, 또한 제2사단이 올라와서 視察를 막아보기도 하였지만 끝내 議政府를 잃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戰車 앞에 採擧을 치렀던 것이다. 제9연대의 顧問官인 Moor 중위가 직접 자기가 해보겠다고 2.36" Rocket砲를 들고 나가서 쓰다보고 고개를 저으며 당황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 뒤로 倉洞派出所에 CP를 옮겼을 때, 作戰參謀 李英宗 중령이, 내가 議政府地區의 戰鬥而 士官으로 任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戰勢가 기울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너무 對備를 못하였다. 그것은 狀況判斷을 그르켰기 때문이다. 언제나 相對의 能力을 알고 우리의 不利한 點을 찾아서 賢明하게 對處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 ◇ 제2사단장 李享根 준장

(1977. 4. 7일 反共聯盟本部에서 예, 대장)

나는 제2사단장으로 赴任하기 直前까지 江陵에서 제8사단을 맡고 있었다.

그때에 벌써 敵이 戰爭準備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50년 늦은 봄철부터 敵의 遊擊隊가 東部の 山岳地帶로 侵透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李吳濟, 金達三부대 등 江東政治學院 출신들이 끼어 있었으며 이들은 계속 大關嶺—旌善—平昌—寧越—三陟 등지로 스며들었다. 이리하여 그 중 69명을 사로잡아 審問하여 본 결과, 전쟁준비를 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陸軍本部에 누차 對備策을 세워달라고 建議하였으나 한가지도 反映되지 않고 계속 默殺되자, 나는 師團長 職에서 물러나겠다고 辭意를 표하였더니 李應俊 소장이 現地까지 와서 對策이 있을 것이라고 挽留하는 바깥에 鬱鬱한 일이 있었다.

이리하여 제2사단장으로 命命을 받고, 大田으로

로 내려온 뒤에도 비교적 昭詳하게 前方의 狀況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突然 金白一 대령으로부터 『38°線 全境에서 敵이 侵攻한다.』는 通報를 받고 보니, 不吉한 豫感이 들었다.

이날은 休日이었지만 아직 初度巡視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部隊의 實情을 把握하려고 사무실에 나왔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首先 大任에 있는 車甲俊대대를 끌고 올라오면서, 참모장 崔昌彦 중령에게 곧 수습하여 뒤따라 오라고 알려놓고 龍山驛에 당도하니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陸軍本部에 들러 보니까, 벌써 一線에서 混戰이 벌어져 38°線 南쪽으로 크게 밀리고 있었으며 특히 中西部 戰線이 危局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때에 나는, 廣濶한 地域에서 적은 兵力으로 抵抗하기 어려울 것으로 느껴져, 秩序있는 退却과 強力한 防禦線의 構築이 緊急하다고 判斷되었다. 그래서 總參謀長에게 『後方の 豫備사단이 올라오는 동안에 一線의 兵力을 빨리 뽑아 漢江線 防禦陣을 構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萬一에 兵力을 逐次로 投入한다면 不必要한 犧牲이 있을 뿐이다.』고 建議하였더니 一言之下에 拒絕당하고 말았다.

그 뒤로 金梧里(제9연대의 指揮所: 筆者註)에 올라와 보니, 제9연대와 제3연대가 이미 무너져 敵이 目前에 다가오는데, 可用兵力이 없는지라 실로 딱한 일이었다.

여기에 將上加霜으로 總參謀長이 反擊하라고 하여, 다시 建議했다가 軍法會議에 회부하겠다는 問責만을 듣고 사단장 職에서 解任당하게 되었다. 結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現場에서 사단장 職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軍을 떠날 수는 없어 다시 陸軍本部에 들렀더니, 漢江을 爆發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敵이 폭파하는 것으로 誤認하였으나 우리 工兵이 폭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張昌國 대령에게 爆發를 中止시키라고 말하고 다급하여 現場으로 달려 갔더니 50m 前方에서 爆發과 함께 터지는 것을 보고 慨嘆을 금할 길이 없었다.

지금 도리켜 보면 當時에 未浴했던 사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이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失手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

(1977. 5. 4 嶺南化學株式會社 理事室에서, 역, 소장)

우리 연대는 6월 15일 附로 제7사단에 編入로 隸屬變更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駐屯地 徵發문제와 食水 및 暮宿문제 등 移動準備가 되지 않아 7월 15일로 延期한 상태에서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開戰 前에, 以前의 所屬部隊인 제2사단에 隸屬되어 議政府로 올라갔는데, 溫陽에서 出發할 때에 駐屯地 移動을 겸하여 모든 裝備과 什器를 積載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져 26일 11.00에 倉洞에 到着하였다.

여기에서 彈藥을 補充토록 지시해 놓고 내가 먼저 金梧里로 올라가 到着申告를 하였는데 바로 이 무렵에 敵의 砲彈이 指揮所 부근에 集中하여 사단장 李亨稜 준장과 함께 倉洞쪽으로 다시 내려오다가 總參謀長으로부터 白石川을 막으라는 命을 받았다.

이때부터 白石川과 倉洞 사이에서 遲延戰을 展開하였는데, 白石橋 부근에서 戰車 한輛을 擱坐시켜 이날 밤에 敵의 侵攻을 막았다. 특히 이날 밤에는 敵의 便衣隊가 몹시 날뛰어 우리의 馬階를 뺨들면서 檢査하자 심지어 대대장들까지도 撤收하자고 建議하였으나 우리 연대 밖에는 없기 때문에 비장한 작오를 하고 徹夜 진지를 지켰다.

그 다음날 敵의 大部隊가 侵攻하여 결국 우리도 철수케 되었는데, 이 轉進過程에서 混戰이 惹起되어 제2대대가 率州쪽으로 빠져지 되었다.

이때를 回顧해 보면 누구도 자랑스랄만한 것이 없지만, 裝備의 不足과 訓練의 未熟 그리고 作戰指揮의 缺陷等 體験으로 얻은 이 教訓은 가버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 ◇ 제1연대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

(1977. 3. 7 大韓住宅公社 監查室에서, 역, 소장)

나는 步兵學校 校教育中에 復歸命을 받고

25일 11.00에 議政府에 도착하였다. 가니카 主力은 이미 東豆川으로 나가고, 外出中에 歸隊한 병력 100여명이 있기에 이 병력을 끌고 올라갔더니, 연대장 咸俊鎬 대령이 반가워하면서 『金鳳龍 대위가 麁及山에 있으니 올라가 보라』고 하였다.

이 명령을 받고 가려고 하니가 다시 『내 곁에서 도와달라』고 하여, 이때부터 연대장과 함께 이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것은 道達山에서 激戰이 展開되고 있을 때에 金漢柱 중위가 지휘하는 제2砲隊가 效果의인 支援을 한 것과 撤收時의 混亂속에서도 5門의 砲를 다 끌고 나온 點이다. 그는 참으로 責任感이 強한 훌륭한 장교였다.

그리고 26일에 反擊命令을 받고 東豆川을 奪還하였는데, 다시 철수명령이 떨어져 反轉하려고 하니, 將兵들이 모두 38°線으로 進擊하자고 하여 애를 먹었다.

당시에 우리 兵士들은 精神面에서는 強했다. 裝備가 없고 訓練이 未熟하여 戰車 앞에 苦戰을 치렀지만 비겁하게 戰列을 離脫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指導層에서 事前對備를 못하여 이같은 結果가 되었는데도 모른다.

撤收하면서 天寶山 北쪽에서 敵의 奇襲을 받아 크게 分散되었는데, 다음날(27일) 오전에 牛耳洞 골짜기로 내려오니, 많은 병사들이 와 있었다.

결과적으로 緒戰에 우리가 苦役을 치렀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狀況이었으며, 다시는 이런 前轍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 ◇ 제9연대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

(1977. 4. 7 大林産業 安全管理部에서, 예, 내령)

이 戰爭이 勃發하기 2個月 前부터 北傀의 動靜이 尋常치 않다고 說往說來하였다. 그래서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머리를 깎고 또 술을 끊으면서 南北統一이 되면 기쁘겠다고 하였다.

當日에도 연대장은 營內에 있었으며, 전날 外出문제가 論議될 때에도 『豫感이 좋지 않으니 中止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모두 이에 따랐다.

나도 그날 營內에서 잤는데, 새벽에 非常이 걸머서 일어나 불을 켜니까 불을 끄라는 통보가 왔다. 그리고 이어서 연대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38°線이 터졌네, 어서 나갈 準備를 갖추게』라는 指示가 떨어졌다.

그런데 準備를 마치고 出動하려 하니 車輛이 없었다. 당시에는 어느 부대나 厚生事業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도 어찌될 영문인지 一時에 모조리 後送하여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뒤 늦게 炭場으로 올라가니 벌써 敵의 戰車가 萬世橋를 지나 抱川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전차와 한차례 싸우고 또 전차가 지나간 다음에는 歩兵과 싸우며 하루 종일 抗拒하였으나 力不足으로 끝내 後退하게 되었다.

그 뒤로 陸軍J官學校에 進級하여 비로소 食事를 한 다음 26일 밤에 다시 佛岩山으로 올라가 여기에서 또 한차례 싸웠다.

交戰時나 撤收時를 勿論하고 通信疏通이 안되어 문제가 많았다.

#### ◇ 제5연대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

(1977. 5. 25일 서울 新村에서, 예, 내령)

이날 아침에 나는 忠南 道廳 옆에 있는 將校宿所에서 參謀長 崔昌彦 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때에 指示 內容은 『敵이 38°線 全域에서 侵攻하여 지금 開城이 떨어졌으니 빨리 出動 準備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先發隊를 끌고 13.00에 大田을 出發하였는데, 서울에 오니까 張昌國 대령이 『議政府로 가라.』하여 龍山驛에서 주먹밥 하나씩 給食시킨 다음 다시 議政府로 올라갔다.

그런데 陸軍本部에서 말하기를, 議政府에 가면 彈藥을 준다 하더니, 그것은 姑捨하고 제7사단 作戰參謀 李騷圭 중령이 『東豆川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나는 사단장 李亨根 준장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분이 陸軍本部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날 밤 20.00에 사단장의 지시로 金梧里로 들어갔다.

그 뒤에 제7사단 사령부에서 出頭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 보니까, 總參謀長과 제2, 제7 兩사단장이 同席하여 深夜의 會議를 하고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符號隊를 편성하여 祝石嶺 北쪽의 戰車를 破壞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實彈事情이 말이 아니었지만 一교 명령이 떨어진 이상 肉薄攻擊이라도 해 볼 예정으로 대대 병력을 끌고 出發하였는데, 祝石嶺에서 26일 새벽에 戰車隊와 遭遇하여 苦戰을 차르게 되었다. 제1대대가 그 뒤에 도착하여 막아 보았지만 결국 이날 13.00에 議政府가 敵手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26일 밤에 徹夜行軍으로 水落山을 넘어서 27일 아침에 倉洞에 다다라 倉洞戰鬪에 參加하게 되었다.

#### ◇ 제3연대 제12중대장 金玆經 중위 (1966. 7. 11 육군본부에서, 대령)

나는 그날 大將 週番司令을 지냈는데, 새벽 04.30에 陸軍本部에서 非常待機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非常召集을 하라고 하여 城外居住者 宿所에 傳令을 내 보내고, 그 뒤로 계속 食事와 彈藥을 分配하는 등 出動대세를 갖춘 끝에 11.00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이때에 集結된 연대의 總兵力이 1교 대대 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混合編成하여 제3대대장 金領翔 소령의 指揮下에 抱川쪽으로 出動하였는데, 重火器 중대는 중대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12중대의 先任將校인 내가 갈아서 指揮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6.00쯤, 抱川 가까이 다다르니 砲聲이 殷殷하고 邑內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데 道路上에는 避難民과 負傷兵이 출몰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戰況을 探聞하여 松隅里로 내려와 防禦陣을 쳤으나 戰車의 攻擊에 달리 흠어져고 말았다.

문제는, 混合編成으로 말미암은 脆弱性과 適切한 狀況措置의 缺如로 뒤죽 박죽이 되어 分散케 되었던 것이다. 戰地에서는 적은 병력이라도 自己部下를 거느려야 戰鬥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 뒤로 槍岩嶺을 넘어서 議政府쪽으로 나오

다가, 제1연대와 만나 半耳洞으로 撤收하였는데 兵力이 너무 크게 分散되어 사실상 部隊建制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漢江 以南으로 철수한 후에, 제1대대장 任百巖 소령이 金梧里 南쪽에서 兵力을 收拾하여 兩水里로 돌아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 ◇ 제18연대 제6중대장 金斑雲 중위 (1977. 5. 7 在鄉軍人會에서, 대, 준장)

우리 연대(一)가 龍山을 出發한 것은 當日 19.00였다. 제1대대는 金兵 休戰中이었으므로 제2, 제3 兩대대가 徵發車輛편에 議政府로 올라갔다.

여기에서 그날 밤에 露宿하고 다음날(26일) 德亭으로 前進하여 다시 그 西北쪽으로 3km쯤 더 올라가다가 頂洞부근에서 陣地를 編成하여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더대 正面에는 特殊한 敵情이 없고 右側에서 계속 砲聲이 깃전을 울렸다. 그 砲聲이 점점 右側 後方으로 移動하고 있음을 볼 때, 漠然하나마 敵의 前進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上部의 指示가 없기 때문에 一部の 陣地만을 調整하고 現地에서 계속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17.00에 敵의 補給部隊가 半馬車에 牽引하여 陣前을 通過하려 하였다.

그러서 奇襲의으로 이를 覆滅한 끝에 괴뢰군 大尉 以下 13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더위는 내대의 補給官이었고 半馬車에는 많은 戰車砲彈이 積載되어 있었다.

이같은 痛快한 戰果에도 不拘하고 大局의 戰況은 크게 기울어 바침내 27일 黎明을 期하여 撤收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高陽을 目標로 轉進中에 東豆川 부근에서 제13연대와 遭遇하였는데, 協助는 커녕 오히려 防禦陣地의 一部를 맡아달라고 하여 옥신 각신하나가 本隊로 찾아 내려와 다음날(28일) 三松里에서 연대본부 및 제3대대와 會勢케 되었다.

여기에서 敵이 서울에 入城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에 연대장 任忠植 중령을 비롯한 부연대장 韓信 중령과 張春權 소령 등 幹部들이 熟識한 끝에, 『美軍이 參戰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빨리 漢江을 지키자.』고 結論짓고 寧州 나루를 건넜다.

당시에 우리 將兵들은 義憤이 치솟아 서울을 되찾겠다는 覺悟가 가슴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었다.

#### ◇ 梁文里 住民 廷圭文氏(當63歲)

(1977. 8. 27 抱川郡 永中面 城洞里 白宅에서)

倭政末期에 나는 部落 里長을 맡아 住民들의 심부름을 했고, 또한 租上으로부터 물려받은 土地를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집은 近洞에서는 主戶로 알려진 家庭이었다.

따라서 解放直後 赤治下에 놓였던 이 부락에서 苦心의 나날을 보내다가 46년 3월 19일에 北傀가 제1차 肅清을 단행하자 38°線을 넘어 萬世橋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梁文里에서 6.25를 겪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大韓青年團員들이 自治制로 부락을 整備하였기 때문에 24일 밤에도 나는 평시와 다름 없이 團員들을 配置해 놓고 12.00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우리 哨所 앞에는 崔上士(本名未詳)가 1個 小隊를 지휘하여 진리를 占領하고 있었다. 그때에 제9연대 所屬인 이 小隊는 永中橋에서 萬世橋로 넘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唯一한 경계 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5일 새벽에, 그러니까 04.00쯤 된 것으로 記憶하는데, 前方에서 小銃소리가 무수리 들려왔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여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아마 05.00쯤 되었을까? 당나귀와 말(馬)을 탄 軍人들이 南으로 내려오는데 我軍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敵의 砲擊이 어찌 강한지 발불일 곳이 없었으며 我軍小隊는 간 곳이 없고 다만 崔上士가 부락으로 찾아와서 民間服 한벌을 달라기에 協謀해주었더니, 이때 崔上士의 말이 『우리 소대는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빨리 避亂 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알기에는 이때에 敵이 我軍 진지를 奔襲의므로 包圍 공격하여 유린한 듯 하므로 그 후에

砲擊을 시작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런데 이때에는 敵의 戰車가 이미 梁文里를 지나간 뒤라 10리만 사람들은 避難할 사이도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永中鐵山으로 避하여 洞窟 속에서 9.28 收復까지 살았다.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 것은, 戰車가 이틀동안에 120臺 가량이 길로 지나갔는데 이 전차가 다시 올라오면 我軍이 온 것으로 알고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9.28 收復 때에 2臺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 梁中橋는 北傀가 撤退하면서 爆破하였다. 지금 우리는 自由天地에 살고 있지만 이 受難期에 無辜히 희생된 住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 5. 戰 訓

### (1) 敵主力部隊侵攻을 豫見한 我軍의 防禦態勢

本戰鬪의 全過程을 概觀하여 볼 때에 兵力과 裝備의 相對的인 優劣을 가리기에 앞서, 敵의 主攻方向이 이곳에 集中되리라는 判斷에도 불구하고 防備態勢를 疎忽히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痛感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陸軍本部를 爲始한 政策當局이나 사단 自體의 未治點을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當時에 陸軍本部 情報局에서는 49년 末에 벌써 敵의 南侵企圖를 警告하고 있으며, 一線指揮官들은 한결같이 3個月 前부터 敵의 攻勢徵候가 나타났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目前에 敵의 機動樣相과 戰車가 露出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防備策을 세우기에 疎忽하였으며, 主體性이 없이 美顯開團의 偏見에 좇아 安逸姑息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것은 第一線의 施行部隊 보다 오히려 政府當局이나 軍 指揮部의 責任 있는 指導層에서 政策上의 基本計劃을 마련치 못한 比喩이 더 크거나 그 몇가지 點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政策上의 未備點

첫째: 國家防衛의 基本計劃과 軍事防禦의 細



部計劃이 樹立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人力動員과 物資動員을 包含한 動員 體制가 未備하다. 特히 兵事區司令部를 解體하고 (50년 3월 14일附) 徵兵 實施를 中止하였다.

셋째: 過半數의 兵力을 後方에 分散시키고 제 8사단과 제 6사단의 一部兵力까지 共匪擊滅에 轉用하여 兵力運營上의 輕重을 가늠지 못하였다.

네째: 裝備와 彈藥의 戰鬪貯藏量을 確保치 못하였다.

다섯째: 教育訓練이 不振하였다.

여섯째: 人事政策이 無理하였다.

#### (나) 施行上의 虛點

첫째: 決定的인 時機에 非常警戒令을 解除하였다.

둘째: 前方의 戰車數를 確認토록 指示해 놓고 外出과 外泊 및 農繁期 休暇를 同時에 施行하였다.

셋째: 50%의 車輛과 25%의 重火器를 一時에 後送하였다.

네째: 非常待機中隊와 機動打擊隊를 編成해 놓고 機動裝備를 對備치 못하였다.

다섯째: 戰車의 出顯을 確認한 以後에도 對戰車 防備策을 마련치 못하였다.

여섯째: 陸軍會館 開席宴會에 一線 指揮官까지 끌어 들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點 以外에도 政治的인 對外 活動이나 陣地工事 등 보다 積極的인 對策을 마련치 못함으로써 스스로 虛點을 드러내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 (2) 사단의 防禦對策 未洽

敵役에 대한 一次의 防禦責任은 當然히 사단 自體에 있을 것이다. 勿論 그 能力이 超過될 때 또는 이를 豫見한 때를 考慮하여 이에 대한 偶發對策을 미리 講究한 뿐 아니라 上部에 建議하여 豫備隊의 事前確保가 이루어져야 하며 不如意하면 臨時豫備隊를 編成하여 投入하는 措置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地域이 敵의 主攻部隊가 侵入할 可能

性이 가장 큰 方向이라고 判斷한 事實에 비추어 사단은 後方 3개 사단의 投入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第9, 第1 兩연대를 抱川과 東豆川 地區에 近接 配置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開戰初期에 사단이 이 地域에 각 1個 대대씩만 配備하고 그 主力은 議政府와 金橋里에 配置시켰고, 미주나 24일(토요일)에 그 主力部隊 將兵들의 外出을 許容함으로써 即刻 敵役에 對備치 못하였다는 것은 重要한 失策으로 오늘에 警鐘을 주는 戰訓이 아닐 수 없다.

#### (3) 對戰車 防備策의 不實

무릇 步兵火器와 戰車가 正面 對峙한다는 것은 正常的인 狀況이 아니라 戰地에서 突變事態에 對處하려는 步兵은 거의 萬能이어야 한다.

비록 對戰車 裝備가 微弱한지라도 고기만 하면 鐵走하는 步兵은 最後의 勝者가 될 수 없다.

本戰鬪에서 旅團規模의 戰車隊가 侵攻한만큼 그 阻止對策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나, 57mm 對戰車砲와 2.36" Rocket砲가 無力하다고 하여 그대로 물러선 것은 教育訓練의 未熟에서 온 結果일 것이다.

抱川 正面에는 28개의 橋梁이 있고 東豆川 正面에는 16개가 있다. 萬一 이 교량을 모조리 燒破하였더라면 적어도 제 2사단이 戰鬪展開할 수 있는 時間은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萬世橋와 新北大橋 및 硯石嶺等, 通行 要害地를 골라 對戰車를 擧發하거나 障壁을 構築하였다면 火器보다도 더 效果的으로 崖岸에 빠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哨村橋와 柳泉橋 및 滄川 부근의 單一通路를 골라 道路 大火口를 施設하였더라면 그렇게 된 사리 다가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戰車는 機動性을 喪失하면 하나의 釘着된 火器에 不過하다. 그 脆弱點을 捕捉하지 않고 반드시 鐵板만을 破碎하겠다는 一念으로 汲汲하다 보니 衝撃만 倍加하였을 뿐이다.

30km 前方에 나타난 戰車를 놓고 이같은 對策은 세우지 못한 것은 看過할 수 없는 일이다.

## 5. 開城—汶山—奉日川地區 戰鬪 (1950년 6월 25일부터 // 6월 28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9~11호

상 황 도 제 13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振 暉		
제 11 연대	장 대령 崔 慶 祿	제 2 대대	장 소령 尹 千 奉		
제 1 대대	장 대위 高 漢 祚	제 3 대대	장 소령 劉 載 成		
	대리 대위 高 林 鉉	제 6 포병대대	장 소령 盧 載 鉉		
	(6월 26일부터)	공병대대	장 소령 張 治 殷		
제 2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배속부대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在 命	제 15 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 12 연대	장 대령 全 盛 鎬	제 3 대대장	소령 崔 炳 淳		
	중령 金 點 坤	제 20 연대 제 3 대대장	소령 朴 熙 東		
	(6월 26일부터)	서울특별연대	장 중령 俞 海 濬		
제 1 대대	장 소령 申 鉉 洪	보교교도대	장 소령 金 秉 化		
제 2 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육사교도대	장 소령 金 應 勇		
제 3 대대	장 소령 李 茂 重	인접부대			
제 13 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제 7 사단	장 준장 劉 載 興		
		敵		軍	
傀北 제 1 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6 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 1 연대	장 대좌 黃 石	제 13 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제 2 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 14 연대	장 대좌 韓 日 來		
제 3 연대	장 총좌 李 昌 權	제 15 연대	장 대좌 金 顯 基		
포병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포병연대	장 총좌 林 海 民		

## 나. 전투전의 개황

본 전투는 당시 高浪浦—靑丹간의 西部 38°線지역에서 整備임무를 遂行하던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1950년 6월 25일 未明에 北僞 제1사단(장, 소장 崔光)과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으로부터 開城과 高浪浦지역에서 同時에 奇襲공격을 받아, 開城以西지역의 我제12연대(장, 全盛鎬 대령)가 西海로 海上撤收를 敢行하는 한편 高浪浦, 汶山지역의 我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가 水色으로부터 急速投入된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와 後方 각지에서 急派된 赴援부대들과 더불어 臨津江방어선과 奉天川지구에서 侵襲한 敵을 맞아 싸운 初戰이 된다.

특히 본 전투는 사단이 열세한 戰力으로 敵의 2개사단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을 漢江 北쪽에서 遲延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再編成을 強要하여 美軍이 參戰할 때까지 南下速度를 激減케한 데 그 意義가 컸다. 따라서 本戰에서는 38°線경비부대의 撤收로부터 漢江渡河까지의 상황을 서술하고, 漢江以南에서의 상황은 便宜上 따로 취급하였다.

敵軍의 狀況: 開戰直前까지 제1사단 前面의 敵은 제3 및 제7경비여단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U.S.S.R軍으로부터 38°線의 경비를 引受하기 위하여 1947년 7월에 창설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38°線 경비대를 그후 保安旅團으로 改編하였다가 1949년 5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이를 母體로하여 제1, 제3, 제7의 3개경비여단으로 增編한 부대들이었다. 이중 제3경비여단은 본부를 竹川에 두고 金川 北쪽으로부터 禮成江 以東 開城—高浪浦를 포함한 中部지역까지 배치하여 이 지역간의 38°線上에서 사단 이하의 제12 및 제13연대의 경비대대와 對峙한 것으로 推斷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배치상황을 一瞥하면 積城 北쪽의 △137로부터 西로 △282(大院里—松嶽山(開城)—△325(白川)~△120(延安 北쪽)—△98(靑丹 北쪽)등을 연하는 38°線上의 戰鬪地形을 따라 陣地를 陣設하고 特別히 지역내의 開城市街를 完全히 戰鬪할 수 있는 松嶽山과 그 周邊 高地에 強力한 방어진지(방카)를 構築하여 南侵의 발판을 굳히는 一方 이들 경비여단을 掩護하듯 그 後方 南川에는 1946년 9월에 保安幹部대대를 人民集團軍 總司令部로 改編할 두렵에 价川에 위치한 保安幹部 제1훈련소를 正規사단 급으로 개편한 제1사단(장, 소장 崔光)이 위치하여 그 예하에 제1, 제2, 제3연대와 포병연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沙里院에는 1949년 7월 25일부터 동년 10월 사이에 中共軍 제166사단 衛戍: 제4사단)의 병력 10,000여명으로써 新義州로 入韓한 것으로 알려진 方虎山이가 北僞軍 800여명을 보충받아 개편한 제6사단이 그 예하에 제13, 제14, 제15연대와 포병연대를 두고서 南侵을 위한 부대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들 중 南川의 제1사단은 1949년 5월 4일에 그 예하의 제3연대로 하여금 松嶽山에서 진지공사중이던 我제11연대 제2대대(일부병력)에 대하여 不意의 奇襲사격을 加함으로써 俗稱 松嶽山 전투를 惹起시킨 부대이다. 이들은 그 뒤로도 지역내 到處에서 마치 我軍의 戰力이라도 試探하듯 屢번한 挑發을 자행하다가 1950년 봄에 와서는 거의 매일같이 開城과 白川 등 38°線 沿邊都市에 迫擊砲사격을 加하였다. 그리고 靑丹지역에서는 解放前부터 農業用水로 사용한 鳩岩貯水池의 水路를 一方의으로 끊음으로써 靑丹平野의 營農을 못하도록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한편 이부럼 政治적으로는 南勞黨의 李丹河, 金龍龍등과 그들이 監禁중인 卞晚植을 交換하기 위한 南北協商에서 6월 23일을 一方의으로 定해놓고 기실 交換日宇인 6월 23일을 期하여 當면의 2개사단을 大部隊 機動훈련으로 假裝하여 南侵 集結地인 38°線上에 移動시켰던 것이다.

즉, 그들의 제1사단을 南川에서 高浪浦 北쪽의 九化里로, 그리고 제6사단을 沙里院에서 驪峴 北쪽으로 各各 南下 集結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南侵企圖를 南北協商이란 美名으로 은폐하려는 策案이었다.

이들 兩개사단의 병력은 都合 21,000명 내외이며 裝備는 122mm 유탄포 24문, 76mm유탄포 72문,

45mm 대전차포 168문, 그밖에 그들의 總司令部 직할의 제105기갑여단에서 지원된 제203전차연대의 전차 40대와 기타 自走砲 32문이 이들 사단의 지원거리내에 集結된 것으로 推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이 38°線에 대한 最初의 경비대를 파견한 것은 1948년 1월 초순이며 아무런 少數의 美軍만이 배치되었던 汶山 北쪽 臨津江나루에는 경비의 소홀함을 틈타서 北傀軍의 侵犯이 잦았던 때문에 당시의 初代 여단장 宋虎聲 준장이 경제강화책으로 보병 1개중대를 출동시켜 美軍과 合同勤務케 한 것이 始初이다.

이로부터 한달후인 2월 5일에는 李應俊 대령이 제2대 여단장으로 赴任하고 이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駐韓美軍이 撤收하기 시작하자 사단은 11월에 들어 水原에 위치한 예하 제12연대(장, 崔慶祿 중령)를 汶山으로 推進시켜 38°線 경비임무를 美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인수케 함으로써 高浪浦 以西의 西部 38°線의 경비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

이 무렵의 38°線경비란 主要幹線도로의 要地에 경비초소만을 設置하였을 뿐 戰術적으로 유리한 38°線상의 要衝地는 그대로 비어둔 관저로 無防備상태였다. 이로 비추어보아 당시의 경비상태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하여 北傀軍은 이러한 要衝地를 事前에 占據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9년 1월 7일부로 金錫源 대령이 제3대 여단장으로 부임하자 지역내에서 北傀軍의 侵犯을 막을 수 있는 戰術진지의 必要性을 느껴 그 뒤 봄 解凍과 더불어 松嶽山을 위시하여 그 밖의 지역에서도 要地를 선정하여 진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해 5월 1일에는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고 金錫源 대령이 그대로 사단장직을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5월 4일에는 徐富德 상사의 9명의 肉彈 10勇士를 내는 世稱 5.4松嶽山 衝突事件을 치루었다. 이어서 漣津지구에서는 이해 1월초에 파견한바있는 제12연대 예하의 제5중대(장, 朱汝俊 중위)가 5월 21일에 國師峰에서 그들의 도발로써 一戰을 치르는 등 점차 共產主義者들의 侵略靛性이 滋養되자 이에 사단은 같은 달 26일부로 仁川에 위치한 제12연대(장, 姜英勳 대령)와 水色の 제13연대(장, 金烈烈 대령)에서 1개대대를 뽑아 漣津지구에 急派하여 該지구의 전투력을 증강시켰고, 30일에는 제11연대의 主力을 汶山에서 開城으로 推進하였다. 또 6월 1일에는 水色の 제13연대(결 1개대대)를 汶山으로 移動시킨다음 大院里(開城 東쪽) 以東지역의 38°線경비를 제11연대로부터 인수케 하여 38°線을 2개연대로써 分割경비토록 하였다.

한편 漣津지구에 출동한 부대는 육군본부 작명에 의하여 동년 6월 5일부로 창설된 漣津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金白一대령)에 배속되었다가 동월 26일부로 제18연대가 同사령부에 새로 배속됨으로써 그 임무를 교대받던 滿1개월만에 사단 지휘하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1일에는 劉升烈 대령이 제4대 사단장으로 부임한 뒤 그 이듬해인 1950년 4월 12일을 기하여 仁川의 제12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와 임무를 교대케 하고 제11연대를 開城에서 사단사령부가있는 水色에 사단에비로 控置하였다.

이리하여 1950년 4월 22일부로 白善燁대령이 제5대 사단장으로 赴任하였다. 新任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곧 사단의 守지역을 돌아본 뒤 高浪浦—靑丹에 이르는 100km의 廣正面을 방어하기위한 現행 작전계획이 사단의 방어限界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곧 새로운 방책을 講究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敵의 主攻방향을 高浪浦附近이 될것으로 判斷하고 사단의 主戰場을 臨津江線으로 轉移한다면 방어경면이 20餘km로 縮少될뿐만 아니라 여기서 병력과 화력의 열세는 臨津江의 自然장애물로서 補完할 수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예하 각급지휘관 및 참모들과의 討議를 거쳐 새로운 방어계획을 成案하였는데 이 계획은 有事時에 開城, 延白, 靑丹등의 主要地區를 포기하는 結果가 되므로 즉시 陸軍本部에 출두하여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의 承認을 얻게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臨津江선의 새로운 방어준비에 들어갔는데 당시의 사단병력은 10,100명대의이며 장비는 105mm곡사포(M3) 15문, 57mm대전차포 18문, 81mm박격포, 36문, 60mm박격포 54문, 이

밖에 편제상의 2.36" Rocket포와 각종 기관총 43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에 제11연대가 장비한 공용화기의 30%가 陸軍本部指示에 의하여 5월하순부터 6월초순간에 후방기지창으로 후송된 비켜 되어 該연대는 주로 개인화기만을 保有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右側은 제7사단(장, 劉載興준장)과 인접하여 그 이하의 제1연대(장, 咸俊鎬 대령)가 積城東端에서 我제13연대와 경계를 이루면서 그 以東지역의 38°線경비와 緋嶽山(△675)—濟又山(△587) 등의 瞰制고지군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중이었다. 또한 甕津半島에는 1949년 11월에 제18연대와 교대한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가 陸軍本部직할부대로써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단 作戰지역내의 地形은 38°線을 잇는 北側이 그 闊遠地勢의 영향으로 丘陵에서 점차 北으로 高地群이 형성된 反面에 그 以南은 白川 및 靑丹平野를 비롯하여 臨津江 및 禮成江 流域이 低地帶를 形成하고, 坡半山(△496)이 臨津江 南쪽에서 江流를 따라 南西로 稜線을 펼쳐 江과 더불어 緋隔室을 이루었으며 기타지역은 丘陵내지는 平地이다.

河川은 臨津江이 北東側에서 사단의 主障地전방을 數回의 彎曲部를 形成하여 南西로 蛇行으로 흐르며, 禮成江이 사단의 中央지대를 北에서 南으로 흘러 西海에 이룸으로써 臨津江—禮成江사이의 開城 지역과 禮成江 以西의 延白, 靑丹지역이 北쪽을 제외한 三面의 바다와 江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半島가 되고있다.

또한 靑丹 南端의 島嶼지역은 干滿의 차이가 심하여 靑龍半島로부터 龍巖島에 이르는 海上7km는 하루 두차례씩의 干潮때에는 갯벌을 通하여 人馬의 通行이 可能하였다.

氣象은 夏季 特有의 高溫多濕한 날씨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1950년 5월초에 사단 책임지역내의 38°線경비와 敵의 侵攻에 對備하는 사단의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는데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사단은 지역내의 高浪浦—靑丹간의 38°線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敵侵時에 積城汶山浦간에 편성된 진지를 固守하려 한다. 必要에 따라 坡州 南쪽에 構築된 제2방어선을 점령할 준비를 한다.

② 제13연대

④ 高浪浦—大院里간의 38°線경비임무를 계속수행하라.

⑤ 敵侵攻時 의명 積城—花石洞(臨津나부包含)간의 진지를 점령, 방어 및 제12연대의 臨津江 撤收를 掩護하라.

⑥ 依命, 전방 경비대대의 撤收후 연대예비로 전환하되 그 사용은 사전에 사단장의 승인을 要한다.

⑦ 依命, 현방어선에서 撤收하여 坡州 南쪽에 준비된 제2방어선의 右—線에 배치될 준비를 하라.

③ 제11연대

㉗ 현임무(부대교육)를 계속수행 하라.

㉘ 敵侵攻時 의명 花石洞—汶山浦간의 진지를 점령, 방어 및 제12연대의 臨津江 撤收를 掩護하라.

㉙ 依命 현방어선에서 撤收하여 坡州 南쪽에 준비된 제2방어선의 左一線에 배치될 준비를 하라.

④ 제12연대

㉗ 大荒里—靑丹간의 38°綫경비임무를 계속 수행 하라.

㉘ 敵侵攻時 의명 지역내에서 敵을 최대한으로 遲延시키면서,

㉙ 禮成江 以東(開城지역)부대는 臨津江(橋)으로 撤收하고 상황이 긴급할時 鎮井浦를 경유 海軍舟艇으로 汶山부근에 撤收하라.

㉚ 禮成江 以西(延白—靑丹지역)부대는 石浦(白石里)를 경유, 海軍舟艇으로 汶山부근에 撤收하라.

㉛ 연대가 汶山으로 撤收한 다음 사단예비가 될 준비를 하라.

⑤ 제6포병대대

㉗ 현임무(부대교육)를 계속 수행하라.

㉘ 敵侵攻時 依命

제1포대 : 제11연대를 직접지원

제2포대 : 제3포대를 화력지원

제3포대 : 제13연대를 직접지원

⑥ 공병대대

㉗ 현임무(부대교육)를 계속 수행하라.

㉘ 지역내의 주보급로를 유지하라.

㉙ 1개 중대로써 제12연대를 지원하라.

㉚ 敵侵攻時 依命

㉛ 1개 중대씩 각연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

㉜ 臨津江橋를 爆破할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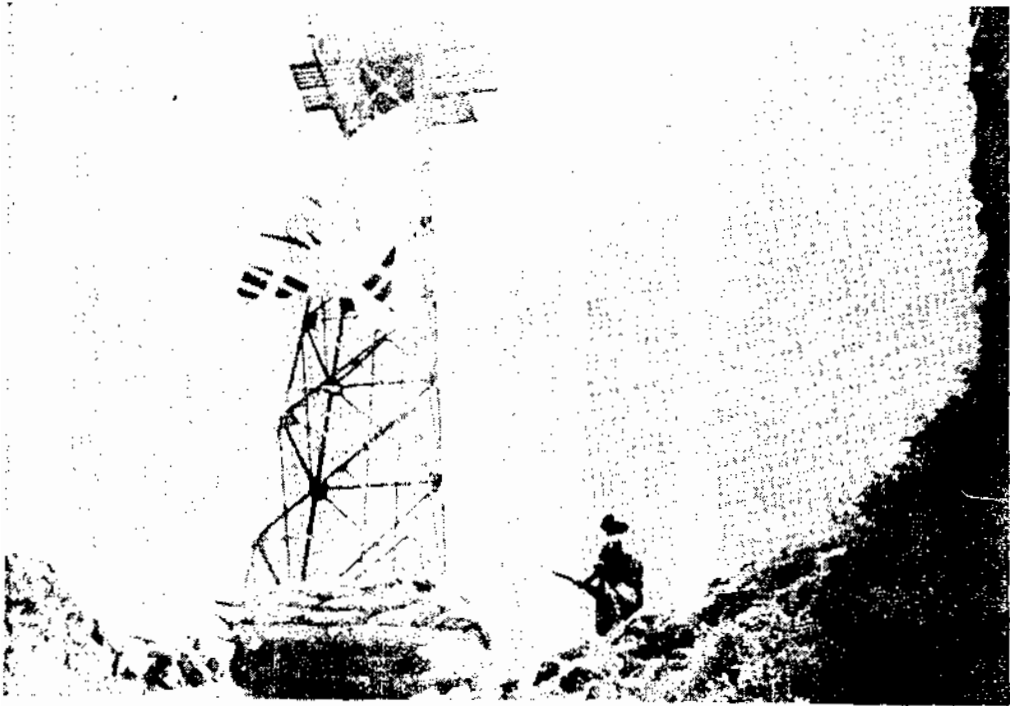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13연대는 예하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로써 高浪浦—大院里(28km)간의 38°綫 경비를 계속수행케 하는 한편 花石洞의 연대본부지역에 위치한 제1대대(장, 金振晔 소령)를 연대 右一線으로 삼아 馬智里(坡平山: 積城 南쪽)—金波里간에 배치하고,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를 연대 左一線으로써 金坡里 西端—栗谷里(△208)간에 배치하여 각각 主陣地를 편성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敵 機械化부대의 接近路로 豫想되는 방어전면 東西를 橫斷한 320번도로와 主陣地 전방에 突出된 紫下里부터의 敵의 접근을 妨害하는 한편 臨津江 北쪽

부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고 제3대대가 臨津江 以南으로 撤收한 다음 연대예비로서 金谷洞(坡平山 側後方)부근에 控置토록 하였다.

그리고 水色의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는 사단의 左一線으로 예하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를 연대 右一線으로 삼아 花石洞—栗谷里간에 배치하여 臨津江 나루터 以西의 敵의 예상도하지점을 방수케 하고 제1대대(장, 高漢祚 대위)를 연대의 左一線으로하여 臨津江橋 南岸의 馬井里일대에 배치하여 臨津江 北쪽부대의 撤收掩護와 同 橋梁을 通하는 敵의 접근을 막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臨津江 南岸에 沿한 새로운 방어진지에 대한 공사를 5월초부터 착수하여 月餘間에 걸친 끝에 一段落을 보게 되었다. 기간중 부대병력외에도 서울地區에서 學徒護國團의 學生 1,000여명이 連日動員되어 臨津江의 陣地와 제2방어진의 陣지를 구축하였다. 방어진지는 鐵條網이나 地雷가 없는 交通線과 無蓋壕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臨津江의 陣地에는 山에서 伐木한 통나무등을 사용하여 觀測所와 火器陣지의 일부를 有蓋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開城의 제12연대(장, 全盛鎬 대령)는 제2대대(장, 韓順華 소령)를 大院洞—松嶽山—禮成江 東岸(20km)간에,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를 禮成江 以西의 延白—靑丹



〈敵侵前 松嶽山の 我軍 哨所〉

(42km)간의 경비임무를 계속수행케 하고, 제1대대(장, 申鉉洪 소령)를 연대본부와 같이 開城 南쪽의 康陵에 控置하여 연대에비로서 有事時에 대비케하였다.

또한 開城에 위치한 제6포병대대(장, 盧載鉉 소령)를 새로운 방어개념에 따라 대대본부와 함께 2개포대를 水色의 사단사령부 附近에 移動시키고 그 예하 제3포대는 계속 汶山에서 제13연대지역에 있는 105mm탄약고의 관리와 敵侵攻時 該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火力을 提供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공병대대(장, 張治殷 소령)는 水色에 대대 본부를 두고 예하 제2중대를 開城의 제12연대지역에 계속 駐留시켜 該연대의 공병지원임무를 수행케 하고, 제3중대는 이 무렵부터 시작된 사단 후방 보급시설에 대한 공병 건설공사를 위하여 鳳樓(汶山 南쪽 1km)에서 공사에 임하게 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써 臨津江橋에 대한 爆破計劃을 施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西部 38°線지역의 北傀軍에 대한 武力示威과 住民의 宣撫를 위하여 開戰 1개월전인 5월 25일부터 1개월간의 예정으로 수도경비사령부(사령관, 李鍾贊 대령)예하의 기갑연대(장, 劉興守 대령)에서 朴道探 대위가 지휘하는 裝甲 1개 중대(裝甲車 9대)를 동원하여 開城, 白川, 延安, 靑丹지방을 순회한 뒤 6월 24일에 서울에 복귀시켰다.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이보다 10일이 앞서 始興, 보병학교의 高級指揮官課程에 入校명령을 받아,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에게 부재간의 직무를 代行케 하고 사단을 떠났다. 6월 23일에 이르러서는 이 무렵까지 實施되었던 非常경계(曹晚植의 身柄引受문제로 취하여진 措置)가 解除되어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그간 營內待機중이던 將兵들의 外出, 外泊이 실시되어 사단의 1/3 병력이 營外로 나갔다. 또한 同일밤에는 龍山에 세워진 陸軍會館의 落成式에 많은 高級指揮官이 초대되었는데 사단장대리로 있던 崔慶祿 대령도 이에 參席키위하여 잠시 부대를 비우게 되었으며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도 外出중에 있었다. 이러던 중에 그 이튿날인 25일 未明을 기하여 砲擊과 더불어 北傀軍의 全面 奇襲南侵이 시작되었다.

## (2) 작전실시

**6월 25일** : 이날 未明에 高浪浦와 開城지역은 지난밤부터 내린 비가 가랑비로 변하여 땅을 적시고 있었는데, 아침의 靜寂을 깨고 砲聲이 震動하기 시작하더니 38°線경비 전지와 그 周邊부락이 敵의 砲煙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砲擊은 그 以前에도 여러차례 겪은지라 단순한 威脅사격으로만 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兇惡化하더니 이어서 戰車를 앞세운 北傀軍이 38°線을 순식간에 突破하였다.

이렇게 不意의 奇襲공격을 받은 全 경비부대는 敵의 戰車와 병력의 優勢에 눌려 이렇



다할 저항도 하지못한채로 分散하게 되었으므로 사단은 汶山의 제13연대로 하여금 우선 主陣地를 점령케 하고 이어서 水邑의 제11연대를 逐次로 진지에 投入하여 臨津江線에서의 決戰을 준비하였다.

### (가) 西部 38°線에 대한 奇襲南侵

#### 1. 高浪浦 부근의 상황(제13연대 제3대대)

高浪浦에서 大院垌간의 38°線 경비임무를 맡은 제13연대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는 대대 指揮所를 阿谷洞(長淵 北쪽)에 두고 그의 예하중대를 대대의 中央前面에 있는 杜梅洞(俗稱: 박골)에서 南으로 新長淵에 이르는 小路를 境界線으로 하여 配置하였다. 즉, 그 以東에 제10중대(장, 朴亨洙 중위)를 右一線으로 하고, 그 以西에 제11중대(장, 李元根 중위)를 左一線으로 하였으며, 대대 예비로써 제9중대(장, 李鍾根 중위)를 대대본부 附近에 控置하였다.

右一線中隊의 戰況: 그런데 이날 새벽 右第一線인 제10중대장 朴亨洙 중위가 사내洞(高浪浦 西南쪽 3km)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砲擊에 눈을 뜬 것은 04.30이었다.

이에 중대장은 EE-8 전화기로써 진방 각소대에 무슨 砲擊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이때 △112의 제1소대(장, 張載滿 중위)로부터 電話가 걸려왔다. 즉 敵이 △112일대에 砲擊을 加하기 始作하였다는 상황 報告였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옆에 있는 內務班쪽을 向하여 『非常! 非常!』을 連發하는 同時에 각 소대에 『敵은 △112에 대하여 砲擊을 開始하였다. 각소대는 敵砲擊에 즉각 대비하여 현재시간으로 전투태세에 突入하라.』라고 有線으로 指示한 다음 이를 대대주변사령(제12중대부편)에게 報告하였다. 이로부터 잠시 뒤에 다시 제1소대장 張중위로부터 2차보고가 들어왔는데 『敵 1개중대가 안개를 헤치면서 진지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마지막으로 敵砲擊에 有線이 杜絶된 듯 언타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당시의 중대 배치는 제1소대(장, 張載滿 중위)를 중대 右側 38°線上의 △112(高浪浦 北東쪽 2km)를 점령케 하여 主로 진방의 蛇尾川 溪谷과 南北을 通하는 周邊道路를 경비하였는데, 이 △112는 한때 南北交易이 盛行한 당시 일일 數10台的 車輛이 來往하던 곳이다.

그리고 제2소대(장, 林憲德 중위)는 중대 左側에있는 △104에 배치되어 그 北쪽인 杜梅洞 그 周邊지대를 경비하고 있었다. 또한 제3소대(장, 鄭世雄 소위)는 중앙의 △126에 배치되어 중대 OP와 함께 그 전면에 대한 경비에 任하였는데, 소대간의 배치空間이 3~5km나 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중점배치는 廣正面인 까닭에 不得已하였으며 傘사단의 경비부대가 안고

있는 共通的인 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중대와 소대간에는 EE-8 전화기 하나 로써 연락이 維持되었으며, 그나마 소대와 소대간의 側方通信은 없었다. 그리고 소대에 裝備된 SCR-536無電機는 時間交信을 하였던 탓으로 緊急時의 소통은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112의 張載滿중위로부터 2차보고에 接한 중대장 朴亨洙중위는 이를 대대에 보고한 다음 △112에대한 赴援이 時急하다고 보고, 중대본부요원과 화기소대 병력으로 출동준비를 서둘게 하였는데 이때, 대대장 劉載成소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중대장은 最善을 다하여 高浪浦지역을 死守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중대장 朴亨洙중위는 중대의 출동을 대대장에게 보고한다음 중대를 直接지휘하여 補給차량으로서 △112를 向하여 急히 달려갔다. 그러나 出동부대가 高浪浦시내에 접어들자 敵의 先頭부대가 高浪浦 北쪽 外廓의 丘峯을 侵襲하여 중대에 사격을 집중하였다. 狹地에 사격을 받은 중대는 急히 차량을 反轉시켜 南쪽 臨津江邊으로 移動한 다음 △59 앞 稜線에 부대를 배치함과 同時에 各 60mm迫擊砲로써 이들의 頭上에 火力을 集中하였다. 그리고 전날 내렸던 비의 탓인지 아직도 高浪浦지역엔 雨를 적실 程度의 가랑비와 얽은 안개가 視野를 가렸으므로 중대의 水冷式機開銃으로는 照準사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112로 通하는 道路에 固定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彼我的 交火가 오고가는 가운데 점차 銃聲이 衰退해지고 어느 덧 江邊의 안개가 부분적으로 걷히자 이때 下高浪浦쪽에서 臨津江을 渡河하는 한 集團이 視野에 들어오게 되었다.

멀리서 바라본 이들의 服裝은 회고 또 검기도하여 처음에는 彼我的 識別이 어려워 我隊1소대의 撤收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가졌으나 이들의 先頭가 臨津江 南쪽 800m에 있는 △53頂上에 오르자마자 곧 赤旗를 흔들면서 萬歲를 외치는 것이었다.

이때 비로소 敵으로 確認한 중대는 高浪浦로 指向하였던 迫擊砲와 機開銃의 사격방향을 各 東側力의 △53에 돌려 一時에 全火力을 集中하자 그들은 크게 당황한듯이 四方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뒤에 應戰태세를 갖춘 이들의 自動화기가 불을 뿜는데 이어 迫擊砲를 쏘아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臨津江을 사이에 두고 피아가 砲擊戰을 벌이자 순식간에 南岸 일대가 硝煙에 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迫擊砲戰은 오래가지 않아 끝나고 말았으니 중대가 砲彈을 用盡한 것이다.

이에 그들은 我중대의 抵抗이 없음을 알았던지 곧 隊伍를 길게 뻗쳐 紫下黑쪽으로 南下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가 06.00가 지났을 때였다.

그런데 이때 중대본부가 위치한 左前方으로부터 一群의 小集團이 중대가 있는 쪽으로 移動하고 있음을 目擊하자 곧 이에 대한 警戒態勢를 갖추었으나 近距離에서 본 이들은 敵이 아닌 중대에 남아 있던 본부요원과 제3소대의 일부병력이었다.

이들은 중대장이 △59에 출동한 얼마뒤 數未詳의 戰車를 先頭로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제2, 제3소대간에 있는 長湍에 이르는 道路를 따라 侵攻함으로써 중대가 兩斷되고 또한 包圍의 威脅마저 받게 되어 臨津江쪽으로 철수하던 참이었는데 제2소대와는 연락이 杜絶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중대장 朴亨洙중위는 이 敵이 중대와 가까운 兩谷洞의 대대본부지역까지 侵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대를 이끌고 一屯 石浦(臨津江邊)로 撤收한 다음 이날 오후에 東坂를 臨津나루대 對岸)에 도착하여 전방에서 撤收하는 대대에 合勢하였다.

**左一線中隊의 戰況** : 한편 대대의 左第一線인 제11중대(장, 李元根 중위)는 제1소대(장, 趙徹權 중위)를 중대 右端에 있는 大德山(△236)에 배치하고 제2소대(장, 李信國 중위)를 中央에 있는 △154와 同高地를 中心으로 한 左右側(2~3km)간의 無名봉우리에 각각 1개분대씩 分割배치하고 1개소대는 중대본부와 함께 大德山 南쪽 2km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이날 04.30 大德山일대에 떨어진 敵砲彈의 震動으로 就寢處에서 쉬고 있던 소대장 以下 非番근무의 소대원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에는 敵砲彈이 散發적으로 落彈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소대선임하사관 朴九緒 중사가 소대장에게 다가오면서 말하기를 『소대장님! 敵의 砲彈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니 전방에 배치된 경계분초가 위험합니다...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하려 하자 이때 소대장 趙徹權중위는 『지금은 위험하니 砲擊이 그친 다음 다녀오라.』라고 만류하였는데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잠시 砲擊이 멈춘듯하자 이틈을 본 朴九緒중사가 성급하게 진지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陣前 1呎之間에서 炸裂하는 敵砲彈 1發로 全身 破片傷을 입고 쓰러졌다. 이에 趙徹權중위는 즉각 부근의 兵士와 함께 그를 진내에 옮겨 應急處置하였으나 出血過多로 곧 숨졌다.

이로부터 잠시뒤에 敵의 主力으로 보이는 3개소대규모가 赤旗를 先頭로 한 縱隊태형으로 北쪽 杜梅洞—長湍道를 따라 大德山 東麓의 路上을 행진하는 한편 이들의 尖兵인듯한 분대 규모가 경계分哨의 側後背에 있는 東側稜線을 타면서 소대진지에 접근하였다. 이에 朴중사의 戰死로 敵愾心に 불타있는 전 소대가 이들을 陣前 200m거리까지 誘引한 다음 『저 敵을 쏘아라!』고 외치는 소대장의 怒氣에 찬 사격명령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驟雨와도 같은 소대의 전화력이 이에 集中되자 그들은 驚動한 나머지 山麓의 茂盛한 수풀속에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敵의 尖兵을 격퇴한 소대는 그 즉시 敵 主力으로부터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이미 이때는 그들의 主力은 大德山 南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다.

이에 소대장 趙徹權 중위는 敵의 砲擊時에 이미 중대와의 有線이 두절되었던지라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령 2명을 뽑아 敵에게 발자되지 않도록 注意를 喚起시킨

다음 중대본부로 출발시키고 일부 병력을 대동하여 전방 경계分哨에 급히 가 본측 분초는 한사람의 負傷者도 없이 소대장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이들도 한차례의 사격전을 치른듯 그 周圍에는 小火器의 彈皮가 흩어져 있었다.

이리하여 分哨의 병력과함께 소대진지에 돌아온 소대장은 이로부터 얼마 뒤 어떤 현지住民으로부터 중대본부에서 傳한다는 쪽지를 받았는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중대본부는 상황이 위급하여 撤收한다. 소대는 이 연락을 받는 즉시 臨津江으로 撤收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는 중대장이 철수시에 現地住民을 遁하여 傳해준 連絡文이었다.

그리하여 소대는 이날 正午전에 大德山에서 撤收를 개시하여 이미 敵이 侵攻한 것으로 보이는 長湍을 迂回하여 稜線을 따라 移動한 다음 이날 午後늦게 汶山浦 對岸에서 小型木船으로 臨津江을 건넜다.

大隊宿營地附近의 戰況 : 한편 이날 새벽, 대대본부를 포함한 제9중대(장, 李鍾根 중위)와 제12중대(장, 韓麟聖 대위)등 阿谷洞의 대대숙영지에서는 전방에서 들리는 砲聲과 더불어 戰鬥準備에 餘念이 없었고 대대장 天禧에는 전방중대로부터 잇따라 敵의 南侵보고가 有線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 劉載成 소령은 北傀軍의 侵攻규모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큰 것을 보고 전방중대장에게 『현진지를 死守하라.』고 強調한 다음 즉각 각 天禧으로 연락케 하여 대대의 참모와 각중대장을 대대장 천막으로 긴급 소집하여 대대非常을 發令하는 동시에 각 중대별로 출동준비를 指示하고 아울러 전방중대로부터 후속 상황이 들어올때까지 가능한 限 빠른 時間內에 朝食을 畢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숙영지내의 전 중대가 출동준비에 잠시 소란하였는데 얼마뒤 연대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으로부터 電話가 오기를 『敵은 未明을 期하여 本格的인 南侵을 開始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3대대는 현위치에서 最大限으로 敵을 遲延시키면서 主力은 臨津나루터로 撤收토록하고 高浪浦지역 중대는 坡平山 東側으로 撤收케 하여 金谷里부근의 예비대 위치로 集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를 다시 각중대에 再指示하려고 할때에는 이미 전방중대와와의 有無線이 杜絶된 뒤였다.

이에 대대장 劉載成소령은 전방중대가 必是 敵의 攻撃으로 如意치않는 事態에 直面한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에 대한 意見을 잠시 대대참모들과 交換하였는데 이 結果 대대의 可用병력으로서 春陽洞(대대 숙영지 전방 2km)에 있는 △91와 그 西側무명봉우리(△181東麓)를 점령, 이 兩高地에 併據함으로써 長湍까지 通하는 道路를 통제할 수가 있어 여기서 我중대의 撤收掩護와 이를 追躡하는 敵에게 一撃을 加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리하여 제9, 제12兩중대로 하여금 즉각 行動을 開始토록 하여 숙영지를 出發하려는 순

간 요란한 轟음과 함께 數發의 敵砲彈이 속영지 周圍에 떨어지면서 敵戰車 7대가 北쪽 1km 거리에서 南下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瞬間 동요의 빛을 보였으나 곧 泰然을 되찾고 제9중대장 李鍾根 중위로 하여금 敵포격에 散開중인 병력을 收拾하여 대대 속영지 左右側方의 稜線을 占領케 하는 한편 제12중대장 韓麟聖 대위에게 『敵의 戰車를 直接조준 할 수있도록 대대 81mm迫擊砲를 彈藥庫가 있는 稜線(대대장 天幕뒤)에 設置하라.』고 命令한데 이어 2.36" Rocket砲의 射手와 副射手들을 전원召集하여 道路邊에 중심배치토록 하였으니, 06.00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로부터 얼마뒤에 長湍으로부터 대대 속영지옆을 지나 高浪浦쪽으로 올라가는 長湍경찰서 소속의 3/4톤 추력 1대가 500m 전방의 모퉁이 길에서 敵戰車의 直射砲에 맞아 大破되었다.

그런데 뒷날 알려진바로는 이는 長湍경찰서의 경비주임 金基泰 경위가 무장 경찰관 21명을 이끌고 高浪浦지역으로 출동중이었던 것인데 이때의 生存者는 我軍에게 救出된 6명의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그 真相을 알 수가 없다. 敵戰車와 我軍장갑차를 분간치못하던 당시의 光景을 目撃한 제12중대 기관총반장이었던 金一河 병장의 證言에 의하면 『稜線에 배치된 병사들끼리 저것이 我軍이나? 敵軍이나? 하면서 떠돌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지금 올라가는 저 경찰차량을 射擊하면 敵軍이고, 그대로 通過시키면 我軍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모퉁이 길에서 砲撃을 當함으로써 我軍장갑차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述懐하였다.

한편 我軍 경찰차량을 파괴한 敵의 戰車가 잠시 路上에 서게되자 후속戰車가 그 뒤를 이어 縱隊를 이루었는데 이에 제9중대장 李鍾根 중위는 『戰車공격의 시기가 바로 이 때다.』라고 判斷하고 稜線에 배치된 2.36" Rocket포를 향하여 즉각『사격개시!』를 외치자 이에 81mm 박격포까지 이 사격에 가담하여 순식간에 砲火가 戰車를 휩싸고 말았으나 잠시후 硝煙을 헤치듯 戰車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 때에 戰車의 車邊에서 散開한 1개중대의 敵이 사격과 함께 공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속영지 전방의 개활지를 사이에 두고 交戰상태에 들어갔으나 左側方의 道路를 따라 7台的 戰車가 계속 南下함으로써 대대장 劉載成 소령은 제9중대 제1소대장 張斗植 중위를 隊長으로 하는 8명의 特攻隊를 선발하여 이를 攻撃케 하였으나 攻撃행동중에 모두 散華하고 말았다.

여기서 대대장은 다시 特攻隊공격을 要望하자 數많은 志願者가 손을 들고 나왔는데 이 가운데 同 화기중대의 金一河 병장등 7명으로써 수류탄과 개인화기만으로 공격케 하였다. 特攻隊가 周圍의 茂盛한 草木을 利用하여 10m거리까지 肉迫하여 전차의 옆구리에 수류탄을 投擲하기도 하였으나 亦是 失敗하고 原位로 돌아 왔다.

이렇게 2차에 걸친 戰車공격이 無爲에 그치자 이에 대대장은 현위치에서의 支撐은 어렵다고 보고, 缺 2개중대의 대대를 南쪽 2km인 △85로 撤收시켰다. 대대 兵力은 이날 17.00 東坂里(臨津나루터 對岸)에서 제10중대와 合勢한 다음 日月峰(△191)에 병력을 再배치하였다가 薄暮후에 나루배를 利用하여 江을 건너 金谷里부근에 集結하였는데 이 때가 22.30이었다.

## 2. 開城 부근의 상황(제12연대 -1)

開城 以西지역에 대한 38°선 경비임무를 수행중이던 제12연대(장, 全盛鎬 대령)는 63km에 달하는 연대의 경비전면을 2개대대로써 專擔케 하고, 잔여 1개대대를 연대 예비로써 康陵에 있는 연대본부지역에 控置하였다.

연대 右一線에 배치된 제2대대(장, 韓順華 소령)는 東側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와 境界를 이룬 大院里로부터 西側 禮成江 東岸까지의 경비구역에 東에서 西로 제7, 제6, 제5중대순으로 一線배치하여 地帶內的 瞰制高地인 松嶽山과 그 周邊경비에 力點을 두었다.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는 연대의 左一線으로서 禮成江 西岸에서 靑丹까지 제9, 제11중대를 一線배치하고, 대대의 예비로서 제10중대의 1개소대(중강)를 중대본부와 함께 대대본부지역에 控置하여 白川 北쪽의 △325와 정자천 周邊, 그리고 靑丹 北쪽의 △89(敵陣地)를 監視하는 한편 特別 禮成江鐵橋 경비에 重點을 두고있었다.

그런데 이날새벽 04.00에 제2대대장 韓順華소령이 그의 宿所(대대 衛兵소 옆)에서 포성에 잠을 깬 직후 작전장교 金子烈 중위로부터 電話를 받았는데 『04.00부터 敵이 砲擊과 함께 前方중대지역에 侵襲을 加하여 왔으므로 交戰상태에 있다.』라는 보고였다. 작전장교는 전날부터 대대주변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쉽게 상황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대장은 동 작전장교에게 대대장이 사무실에 도착시까지 우선 본부지역에 있는 중대도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이른 다음 상황실로 나갔다. 이때가 04.30으로 지난 밤부터의 비가 이 무렵에는 가랑비로 변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이를 연대장에게 電話로 보고 한 뒤에 작전장교로 하여금 각중대장에게 指示하기를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現陣地를 固守하여야 한다.』라고 強調하고 前方상황을 계속 注視하였다.

한편 이무렵 開城市內에서도 敵彈이 落下되기도하여 市內는 온통 벌집을 쑤신듯 騷然하였다. 대대본부가 市內 중앙의 子男山(△103; 舊 開城神社跡)에 位置하였던 관계로 이러한 상황은 한눈으로 觀望할 수 있었던 것이다.

右一線中隊의 戰況: 한편 대대의 右第一線인 제7중대장 金永先 중위는 이보다 1시간 이 앞선 03.00에 비둘기 高地의 소대로부터 敵과 銃擊戰이 벌어졌다는 報告에 接하자 그 즉시 연락병을 대동하고 중대로부터 西北쪽 1km의 거리를 급히 달려 갔었는데 현장에 이

르렀을 때에는 이미 銃擊戰이 그친 뒤였다. 이때 소대장의 보고는 『소대전면에서 敵影이 蠢動함을 發見하여 그 즉시 사격을 加하였더니 그들이 應射함으로써 銃擊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다.

이 비둘기 高地는 배치 병력의 先端이 38°線에서 不過 200m內외의 거리였던 관계로 평소에도 彼我가 자주 擧說을 퍼부었던 곳이다.

이에 대하여 중대장은 『계속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다.』고 強調한 다음 돌아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몇줄기 閃光이 低雲에 비치더니 敵砲彈이 요란하게 高地주변에 炸裂하는 것이었다. 敵의 砲擊은 소대지역만이 아니라 그 후방과 東쪽 1km거리의 중대 觀測所부근에도 集中되는듯 하므로 중대장은 중대의 指揮를 위하여 그 길로 중대본부로 가려던 方向을 돌려 觀測所로 直行하였는데 그 附近에 當到하였을 때는 一隊의 敵이 그 頂上에 이미 赤旗를 꽂아 놓고 賊聲을 지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다시 500m후방의 중대본부까지 돌아오니 敵勢가 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요원에게 즉각 철수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EE-8전화기로써 대대본부를 불러 대대작전장교 金子烈 중위에게 상황을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同중위는 『遲滯없이 병력을 수집하여 역습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뒤 다시 同중위는 電話連絡으로 『敵은 현재 尙 38°線에서 奇襲공격중이며 그들의 일부가 開城市內까지 侵入하였으니 중대는 敵을 遲延시키면서 대대본부(子男山)로 철수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비로소 敵의 大舉南侵을 알게된 중대장은 小數병력이나마 본부요원으로서 중대 側後方に 있는 △56를 점령하여 分散된 병력을 수집하는 한편 敵의 進出을 阻止해보리라는 腹案으로 곧 待機中인 본부요원 10餘名을 指揮하여 △56를 점령하였다.

여기에서 제7중대의 경비상황을 살펴보면 중대는 開城에서 東北으로 水廻洞(38°線 北쪽 17km)을 거쳐 市邊驛에 이르는 南北으로 通하는 國道 東側에 제1소대를 배치하고 이 道路 西側 △292 南麓(松嶽山과 連結)까지에 제2, 제3소대순으로 一線배치 하였는데, 제1소대를 別稱 大院里 派遣隊라고도 하였다.

이 제1소대(장, 安哲模 중위)는 38°線 北方의 △282로부터 南으로 벌은 2개의 稜線에 진지를 편성하고 그 후방 1km에 있는 丘陵에 예비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道路와 그 주변 개활지에 대한 統制가 容易하였으나 △282로부터의 瞰制를 당하는 不利한 點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의 제2소대도 △292의 南麓을 이어 東으로 길게 뻗친 稜線의 右半部를 점령하여 그 주변의 丘陵과 개활지를 制壓하는 한편 右端 무명고지(推定 標高 150m)에 있는 중대 觀測所를 경비하였다.

제3소대는 △292南麓에서 또 하나의 稜線이 南東으로 뻗쳐 東側 稜線(제2소대)과의 分岐

를 이룬 곳에 배치하여 △292南麓은 南北으로 通하는 道路와 그 주변지대를 경비하였다.

그런데 제3소대가 배치된 稜線이 비둘기(鳩形)처럼 생겼다고하여 分岐點에 있는 봉우리를 언제부터인지 비둘기高地라고 불리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비둘기高地와 연결된 稜線 中央部位에 있는 △56를 중대장 金永先 중위가 이끄는 본부요원이 점령케 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동중대의 前方진지를 유린한 敵은 이 稜線 兩邊의 小路와 畦道를 따라 1개 중대 규모가, 그리고 제1소대 左側方의 開城—水廻洞간의 大路를 1개 중대 규모 이상으로 南下中이었다. 이것을 目擊한 중대장은 이제는 大院洞의 제1소대마저 저들에게 瓦解된 것이라고 判斷하고 『射擊을 하라!』라는 號令에 따라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대원이 一齊히 射擊을 集中시키니 이에 이들의 隊伍가 삼시간에 흩어지기도 하였으나 곧 다시 이를 수습한 뒤 방향을 바꾸어 開城市內쪽으로 長蛇의 꼬리를 감추어버렸다.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生死가 杳然하였던 제2, 제3소대의 落伍兵들이 그간 부근 부락에서 隱身한 듯이 銃聲을 듣고 중대장이 있는 △56로 모여들었다. 이에 중대장은 30여명으로 증가된 병력을 이끌고 대대본부가 있는 子男山(△103)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때 그곳을 敵이 占據한 듯 그 주변을 北傀兵들이 徘徊中이었는데, 이때가 07.00로서 내리던 가랑비가 어느덧 그칠 무렵이었다.

그리하여 다시 行動을 개시한 金永先 중위 등 일행은 南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같은 時刻의 開城에서는 通勤列車인 듯한 서울行 列車이 피난민을 滿載하고 계속 驛을 배우는 피난민 때문에 發車가 늦어져 騷亂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들이닥친 北傀軍의 先遣隊로 보이는 한 무리가 列車의 출발을 制止하려는 듯 機關車를 向하여 機關銃을 亂射함으로써 混亂이 벌어졌다. 중대장 金永先 중위 등은 이러한 光景을 멀리 바라 보면서 汶山으로 가는 道路邊에 나왔을 때 짐차에 탄 대대장 韓順華 소령을 만나게 되었다. 짐차에는 중화기중대장 徐중위도 같이 타고 있었으며 그부근에는 子男山에서 撤收한 대대본부와 同化기중대의 일부병력(약 30명)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 子男山지역에 있던 병력들은 이날 05.30에 연대장 全盛鎬 대령이 대대본부에 들러 상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대대장에게 『松嶽山지역은 반드시 固守하여야만 한다.』라고 強調하고 대대를 떠났는데, 이미 이때는 전방중대들이 分散되고 있었음에도 相互연락이 끊어졌던 관계로 대대가 상황을 미처 모르고 있었을 뿐 그실 분산철수하는 중대들을 追躡한 敵이 子男山 隣近까지 進出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敵으로부터 子男山이 奇襲을 받게 되어 본부와 중화기중대가 汶山行 道路邊까지 철수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였다. 또한 대대장은 이 道路上에서 병력수습을 위하여 東奔西走하다가 金永先 중위 등과 만나게 된 것이었다. 마침 대대작전장교 金子烈 중위가 연대와의 연락임무를 띠고 연대본부에 출두중에 있으므로 중화기중대장 徐중위가 側近에서 대대장을



보좌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순종위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보고받은 뒤 다시 낙오병 수습에 나섰고, 收拾된 兵力과 함께 康陵으로 撤收하였는데 一行이 연대본부 隣近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연대본부 쪽에서 검은 煙氣와 함께 火焰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이리하여 金永先 중위는 10.00가 지난다음에 연대본부 南쪽에 있는 進鳳山(△310)을 점령하여 앞으로의 事態를 觀望키로하였다.

한편 이날 正午전에 進鳳山 2km전방 道路上에는 이미 開城을 점령한 敵의 主力이 汶山 쪽으로 縱隊行列을 지어 南進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同중위는 個人火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력을 再編하여 敵의 行列이 뜰해진 17.00에 汶山으로 철수키로 결심하고 南下하는 敵輜重隊의 移動空間을 橫斷하다가 한 때 追擊을 받기도 하였으나 臨津江까지 到着한 다음 夜陰을 이용하여 臨津江을 헤엄쳐 渡江하였는데 이때가 26일 03.00였고 병력은 10餘명에 不過하였다.

한편, 大院里의 제1소대(장, 安哲模 중위)는 전날밤까지도 진지의 보완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대원을 진지의 경비를 위하여 殘留시키고 나머지 소대원은 그 후방 예비진지의 就寢壕에서 새벽잠에 취해있었는데 이날 04.00에 벌어지기 시작한 敵彈에 놀라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때 소대장 安哲模 중위는 즉각 전방 경비초소를 TS-10 野戰電話機로 呼出하였으나 應答이 없고 砲彈이 炸裂하는 轟音만이 TS-10에서 들렸는데 이것도 잠시후 杜絶되자 소대를 이끌고 전방으로 急進하였다.

그런데 소대 예비진지는 1개월전까지도 주진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산병호, 화기호, 교통호, 그리고 就寢壕까지 준비된 것이었으나 이 진지가 38°線으로부터 1km餘가 떨어져 있는데다가 △282 南쪽에 있는 2개의 無名高地(推定標高: 東側 130m, 西側150m)로 인하여 그 전면에 대한 觀測의 制限을 받았으므로 진지의 推進이 필요하다는 대대장 韓順濬 소령의 결심으로 이 無名高地에 새로운 진지를 構築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공사는 敵의 觀測을 避하여 주로 야간에만 실시하였던 까닭에 병력수용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였으므로 從前까지의 진지 즉, 예비진지를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소대는 중대로부터 60mm박격포 1문이 배속되고 병력은 54명이나 되었다. 安哲模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가 高地 南麓에 이르러 분대별로 진지에 진입하였는데 左側분대가 △150에 到達하기도전에 1개중대가 넘는 敵이 北쪽 △282로부터 左側稜線을 따라 △150目前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급히 분대를 右側 △282로 이동케 하여 먼저 △150를 占領한 병력으로 하여금 이들의 側背를 一齊히 집중 射擊케 하니 이들은 크게 당황한 듯하여 일부 무리들은 稜線너머로 隱遁하고 高地에 진출한 先頭의 일부는 赤旗를 頂上에 세운 다음 달아나듯 山麓으로 내려가는 동시에 이들의 후속부대인듯한 한 집단이 稜線上에

서 집중사격으로 對決함으로써 瞬息間에 사격을 交換하다가 잠시후 그들의 본대가 여기서 離脫하였기 때문에 소대도 그뒤를 따라 下山하고야 말았다.

이에 소대장은 급히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휴대한 무전기 (SCR-536)로써 중대와 의 交信을 試圖하였으나 失敗하자 즉각 특별 전령 2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뒤를 따라 중대로 출발시키고 계속 진지를 방수하였다.

그러나 이날 正午무렵까지도 중대로부터의 연락도, 傳습도 돌아오지 않자 --그 후방 에 비진지로 철수하여 계속 상황을 觀望키로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는 소대장 安哲模중위 以下 54명이 본대와 의 연락이 杜絶된채 뒤늦게 敵渾속에 孤立되었음을 알고 작개행동으로 南으로 脫出을 試圖하게 되었다.

**中央 一線中隊의 상황** : 한편 대대의 중앙第一線인 제6중대(장, 白源淡 중위)는 松嶽山 ( $\Delta 488$ )에서 南으로 별친 稜線(推定標高 470m)에 제1소대를 배치하고 이 稜線 西端에 있는  $\Delta 365$ 에 제2소대, 그리고 제1소대 側後背의 南端에 중대의 殘餘병력을 배치하여 松嶽山과 西衛方의 1번道路(開城--金川間)에 대한 경비에 上限을 두고 있었다.



〈松嶽山〉

그런데 이날 04.00부터加해진 敵의 砲撃으로 中대는 처음부터 負傷者가 發生하여 적지 않게 混亂을 빚었는데 여기에 소대의의 有無線통신의 杜絶과 안개와 가랑비로 인한 흐린 視界때문에 더욱 不利한 狀況에 있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敵 1개중대가 제1소대에 대하여 奇襲사격을 加하여 소대를 圍着시키는 同時 이 틈을 利用한 敵의 일부병력이 이 제1소대 東側方을 迂回하여 中대(결:2개소대)를 直衝하므로 中대는 이와 對決할 겨를도 없이 진지의 右端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陣內가 混亂에 빠져들었다.

이 渦中에서 빠져나온 隊伍를 수습하다가 中대장 白源淡 中위가 敵彈에 쓰러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中대원이 部署를 離脱하게 되어 끝내 中대(결:2개소대)는 前方소대에 앞서 南麓으로 分散되었는데, 그 후에 알려진바로는 中대를 襲擊했던 敵이 곧 開城市內로 侵攻을 계속하였으므로 松嶽山의 소대는 이들의 뒤를 이어 철수하는 途中에서 分散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左側 제2소대는 그 무렵 金川쪽으로 부터 1번도로를 따라 侵攻한 敵의 主力에 의하여 제2소대 左隣接에 배치되었던 제5중대의 1개소대와 함께 分散된 것으로 推測되었다.

**左一線中隊의 상황:** 한편 대대의 左第一線 中대로서 9km의 경비전면을 맡은 제5중대는 1개소대를 東側 1번 道路 西側에 있는 △228전방에 배치하고 2개소대를 驪峴里부근의 京義本線 철로 兩邊에 1개소대씩을 배치하여 主로 南北으로 通하는 交通路 統制에 任하였다.

그리고 제5중대 후방 4km에 있는 △103 (土城 北쪽 700m) 南麓에는 6월 23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曹晚植의 身柄引受를 위한 警備때문에 제1중대(장, 禹鉉 中위)로부터 禹濟善 中위가 指揮하는 제1소대가 선발되어 待機中이었다. 禹中위 등은 다른 1개소대와 함께 6월 20일부터 派遣되어 身柄交換장소인 驪峴驛(38°線 北쪽 500m)을 2km후방에서 直線으로 바라볼 수 있는 鐵路 兩邊의 丘陵에 萬一의 事態에 對備하는 陣지를 構築하였으나 身柄交換이 決裂됨으로써 1개소대는 原狀復歸되고 제1소대만이 別命時까지 한때 美軍이 사용하였던 こん실幕舎(△103南麓에 位置)에 待機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제5중대는 1개대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分散되었는데 最初의 상황보고 以後에 有無線이 모두 杜絶됨으로써 그뒤의 상황은 알수가 없으나 中대의 位置上으로부터는 禮成江邊에 지우쳐있을 뿐만아니라 地域內의 驪峴과 馬蹄等地는 北쪽 모谷과 食津里로부터의 道路와 이어져있어 그들에게는 良好한 接近路로 利用될수 있었을 것으로 볼때에 필시 이 兩個의 道路로 侵攻한 敵에 의하여 蹂躪된 것으로 보였다.

**土城附近 (△103)의 戰況:** 그리고 同중대 後방 △103의 제1중대 제1소대는 이날 05.30부터 土城邑內와 그 南쪽 일대에 集中하기 시작한 敵砲彈으로 즉시 出動태세를 갖추었

는데, 이때는 벌써 제5중대나 原隊와도 有無線의 杜絶로 連絡이 끊어진 다음이다. 소대장 禹濟善 중위는 상황을 알기 위하여 즉시 연락병을 시켜 제5중대지역을 다녀오도록 指示하였는데, 때마침 제5중대 지역으로 부터 撤收한 數名의 병사가 황급히 소대에 뛰어들어 왔다.

이들은 소대장을 보자마자 『제5중대는 오늘새벽에 敵의 奇襲을 받아 모두 흩어졌고 지금 우리의 뒤를 따라 새까맣게 敵이 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소대장 禹濟善 중위가 놀라면서 이들의 말을 確認하기 爲하여 즉각 소대향도 朴東順 중사로 하여금 뒷산(△103)에 올러보낸 즉, 잠시후 『敵이 온다! 대부대로 보인다.』라고 아래쪽을 向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敵의 侵攻을 알게된 소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原隊에 알리기 위하여 소대선임 하사관 徐正日 중사에게 開城行 機關車편으로 속히 다녀오도록 指示한 뒤 自身은 소대를 지휘하여 뒷산에 올랐다. 그런데 소대장이 이러한 연락을 徐중사에게 맡긴 것은 당시 土城驛에는 客車가 없는 機關車 1輛이 每日밤 開城에서 들어와 早期에 되돌아가고 있었으므로 이 機關車를 便乘하려면 下士官이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03)에 오른 소대장은 1km 北쪽에서 鐵路와 鐵路邊 道路를 따라 南下하는 대대규모의 敵을 응시하면서 전소대원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내려오는 저 敵을 이 陣地전방에서 阻止하여야만 된다. 저들은 우리의 戰友를 짓밟고 내려오니 우리는 기필코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騎馬隊를 선두로 한 長蛇의 대대가 岡高地 東側面에 이르자 즉각 사격명령을 내려 소소대가 一齊히 高地아래로 사격을 集中하자 寸前까지도 悠悠히 行進하던 무리들이 갑작스러운 奇襲사격에 당황한듯이 路邊에 흩어지더니 곧 뒤따른 一隊가 高地 西側方으로 迂回하는 동시 또 하나의 다른 무리가 稜線 北麓을 따라 侵入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그들의 迫擊砲彈이 高地頂上에 있는 高架監視臺(木材로 製作된 約 7M높이의 哨所 幕인데 解放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에 命中되기까지하자 이에 소대장은 상황이 不利해진 이 마당에 더 이상의 支撐은 어려워며 더우기 南麓으로의 退路를 敵이 막기전에 撤收하여야만 할것이라고 判斷하여 곧 了後退하라.』고 외친뒤 잠시 소대의 철수를 M2 CAR銃으로 掩護다가 소대의 뒤를 따라 土城 南쪽까지 撤收하였다.

이와같이 소대가 敵襲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음은 오직 △103 南麓에 이르는 通路가 그 周邊의 草木으로 은폐되고 또한 現地 村落이 市內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가 08.00가 지났을 때였다. 이날 10.30에 소대가 土城 南東쪽(2.5km)에 있는 無名 高地에 도착하여 金川에서 開城에 이르는 明倫洞의 三叉路부근에서 아침 일찌기 土城驛을 떠난 機關車가 검은 煙氣를 吐하면서 停車한 것을 目擊하게 되었으므로 소대장은 徐중사에 의한 原隊와의 연락이 실패로 돌아간 事實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開城으로부터 西쪽으로 4km떨어진 明倫洞 三巨里에는 憲兵檢問所가 있었는데 이날 새벽 敵戰車 3대가 金川으로부터 1번도로를 따라 南下하여 檢問所앞을 通過하려는 것을 본 哨所憲兵이 無心코 我軍裝甲車가 前方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方向을 돌리는 마지막 제3번 戰車로부터 사격을 받는 동시에 이 戰車가 檢問所를 直衝하여 建物を 순식간에 갈아뭇김으로써 잠을자던 憲兵수명이 壓死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戰車는 開城을 侵攻한 先頭부대인 것으로 推斷되었는데 이들이 鐵路와 相接한 도로에 나와 機關車 通行에 制限을 준 것이라고 보였다.

**연대 後方地域의 상황** : 한편 제12연대의 예비대인 제1대대(장, 申鉉洪 소령)는 24일 오후부터 장병들의 外出 外泊으로 일부 잔류인원만이 兵舍에 남았을뿐 거의 비어있었다.

25일 아침, 연대 주변사령인 제1대대 부대대장 丁範鎭 대위는 自身이 20일전에 赴任한 뒤 처음 맡은 주변근무이므로 06.30에 가랑비를 무릅쓰고 日朝點呼를 취하였다. 이때 開城쪽에서 날아온 砲彈 한발이 練兵場으로부터 南쪽 300m 지점에 떨어지는데 이어 계속 연대본부지역에 散發의으로 떨어졌으므로 이에 丁範鎭 대위는 練兵場에 集畵된 병력을 緊急待避시킨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于男山의 제2대대본부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感度가 좋지 않아 말이 通하지 않자 延安의 제3대대본부를 다시 불렀다. 그러나 有線이 두절된듯 通하지를 못하였는데 이때 연대장 李感鎬 대령이 제2대대지역을 다녀서 연대본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대에 돌아오자마자 본부병력과 제1대대의 殘餘병력으로 하여금 연대 外廓地帶에 대한 경계가 緊要하다고 보고 그 즉시 병력을 출동시켜 古南里(康陵 北쪽 2km)에 배치하여 開城으로부터 敵侵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09.00에는 한무리의 敵騎馬隊가 古南里에 接近하므로 이를 사격으로 擊退시키고 계속상황을 注視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아침에 제12연대의 美顧問官인 Joseph R. Darigo 대위는 開城 東北쪽에 있는 成均館내의 宿所에서 起寤하는 단 한사람의 美軍將校인데, 이날 새벽 요란한 砲彈소리에 잠을 깨자 急히 옷을 입고 마침 그를 깨우려고 달려온 雇傭人과 함께 Jeep로 開城市內에 들어가서 서울에 이르는 道路交叉點에 이르렀을때에 開城驛쪽에서 敵의 銃聲이 들려오고 있었으므로 곧 汶山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연대장은 멀지않아 敵勢가 康陵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연대본부를 汶山으로 撤收키로 결심하였다.

이에 연대참모를 본부에 集합시켜 撤收준비를 서둘러 하고 車輛부족으로 인하여 不要不急한 물자는 모두 破棄토록 아울러 指示하였는데 이때 參謀들이 연대장에게 建議하기를 『軍人家族을 빨리 南下시켜야 하겠읍니다.』라고 한즉 연대장은 大怒一喝하기를 『開城市民을 避難시킬 아무런 對策도 없는 이 마당에 軍人家族이라고 무슨 特權이 있어 不足한 車輛

을 주겠느냐?』라고 하여 이를 許容치 않았다.

연대장 全盛鎬 대령은 過去 中國 東北救國義勇軍의 소장출신으로서 대륙을 전전하면서 抗日戰을 계속한 獨立鬥士였고, 1945년 解放과 더불어 歸國한 다음 53歲의 高齡으로 다시 軍에 入隊하여 소령으로 任官한 다음 제18연대 부연대장을 거쳐 제12연대장으로 拔擢되어 西部 38°線의 要衝인 開城지역의 경비를 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軍歷이 말하듯 性品 또한 剛直하였다.

그는 撤收를 위한 필요한 指示를 한뒤 다시 落伍兵 收拾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1대대가 배치된 前方으로 떠나고 연대본부와 제1대대본부는 撤收준비에 들어갔는데 각 單位隊 별로 必要한 文書와 資材를 燒却하기 시작하자 瞬息間에 營內에 치솟는 火焰이 마치 연대 본부가 불타고 있듯이 보였다.

이러한 光景을 때마침 연대본부 지역으로 撤收중이던 제7중대장 金永先 중위 등 일행이 目擊함으로써 이들은 그 길로 進鳳山에 進出하기에 이른것이다.

한편 제2대대대의 分散병력 수습에 나섰던 대대장 韓順華 소령이 康陵으로 오다가 占南洞 부근에서 연대장 및 제1대대장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잠시 이들 指揮官과 연대의 事後策을 論議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연대장은 敵의 騎馬隊를 擊退한 餘勢를 몰아 開城市內에서 敵을 強襲하자는 것이었다.

즉, 어차피 無備有患을 당한 지금, 劣勢한 戰力으로 情勢를 好戰시키기는 어려울것이므로 연대의 可用병력으로 敵에 一擊을 加하여 可能한 限의 打擊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장의 결심에 따라 이 자리에서 이의 大任을 맡은 韓順華 소령은 때가 대인 만큼 一刻의 遲滯할 틈도 없이 이 鳩首協議에서 결정한대로 禹 鉉 중위가 指揮하는 제1중대(결: 제1소대)와 일부 수습된 병력으로 편성한 特攻隊를 統合指揮하여 이날 10.00에 開城市 南大門까지 直衝하였다.

때마침 敵은 開城市를 점령한뒤 계속 南下할 口의으로 長蛇의 隊列을 整備중이었는데 그들의 側方에 대하여 至近거리에서 一齊사격을 加하자 이에 隊列 中央部位의 많은 무리가 一時에 路邊에 墜落했고 이와함께 南大門 石垣에서 튀기는 跳彈이 이들의 頭上에 亂飛하니 南大門廣場은 瞬息間에 混亂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들은 前衛와 後衛병력으로써 東西兩面에서 挾擊을 함으로써 特攻隊는 衆寡不敵으로 撤收하였는데 이의 撤收병력을 開城 南쪽에 위치한 中和國民學校에 一旦 수습하여 負傷兵과 共用火器등의 重量物輸送을 위하여 그 附近부락에서 住民의 협조로써 獲得한 數隻의 牛馬車와 대대장 Jeep車에 分積하여 康陵을 거쳐 嶺井浦로 철수하는 途中에 대송리(嶺井浦 北쪽 4km)부근에 이르러 迫擊砲는 手榴彈으로 砲身을 破壞하고, 機關銃은 完全分解한 뒤 도로변 논에 묻고 말았다.

이리하여 17.00에 嶺井浦에 도착하여 漁船을 얻어 19.00에 金浦로 渡江하였다.

한편 연대장 全盛鎰 대령은 이틀 強襲부대가 철수하자 곧 연대본부와 古南里의 제1대대 殘餘병력을 汶山으로 移動케 하는 동시에 군수주임 朱汝俊 대위와 군무중대장 李鳳吉 대위로 하여금 後送이 困難한 연대彈藥庫의 일부탄약을 爆破토록 命令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命令을 받은 李鳳吉 대위는 國家의 莫大한 財産을 한마디의 口頭命令만으로 擧과한다는 것은 輕率하다고 느껴 그 자리에서 白紙에 爆破命令書를 작성하여 이에 署名을 연대장에게 具申하자 이에 연대장은 李대위에게 『貴官의 責任感을 높이 讚揚한다.』라고 하면서 署名을 한뒤 後事를 當부하고 철수부대의 뒤를 따랐다.

이로부터 얼마후 군수주임 朱汝俊대위와 군무중대장 李鳳吉대위 그리고 연대 탄약고 요원은 탄약고에 揮發油를 꺼였져서 放火한 다음 待機시켜놓은 차량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는데 이들이 철수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탄약고에서는 하늘로 치솟는 黑煙과 함께 爆音이 連鎖的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臨津江橋로 철수하였는데 이로부터 얼마 뒤 敵의 主力이 汶山으로 南下하게 되었다.

### 3. 延白—靑丹 부근의 상황(제12연대 제3대대)

제12연대의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는 禮成江에서 靑丹 西쪽의 海岸까지 총 50km의 대대정면중 白川—延安—靑丹등 3개소에 1개중대씩을 駐屯시켜 이들 間 北쪽 外廓이 되는 38°線경비에 중점을 둠으로써 實際 병력이 配置된 警備區域은 39km에 達하며 靑丹以西 11km의 外廓을 벗어난 地域은 경비상의 空白지대이다.

右一線中隊의 상황 : 대대는 제9중대(장, 金斗烈 대위)를 白川에 駐屯케 하여 대대의 右第一線으로써 禮成江에서 浦雲里(白川 北쪽 4km)간에,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를 中央第一線으로써 浦雲里에서 大興里(靑丹 東쪽 11km)간에 그리고 제11중대(장, 韓普錫 중위)를 左第一線으로써 大興里에서 靑丹(靑丹)간의 경비를 각각 擔當케 하고 제10중대의 2개소대(화기소대포함)를 대대의 예비병력으로서 중대본부와 함께 延安에 위치한 대대본부지역에 控置하였다.

그리고 각지역에는 管下 警察署의 경비초소를 設置하였는데 白川署管下에 3개소, 延安署 管下에 4개소, 靑丹署 管下에 1개소가 軍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 常設되어 경비력을 補強하였다.

그런데 右第一線인 제9중대는 중대장 金斗烈 대위가 歩兵學校에서 被教育中에 있었으므로 선임장교 趙建錫 중위가 중대장 부제간 대리근무를 하고있었다. 25일 03.00에 白川驛前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禮成江 派遣隊(제1소대장) 金중위로부터 北쪽에서 많은 車輛들이 “라이트”를 켜채 南下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趙建錫 중위는 이것을 傀儡軍들의 夜間훈련 정도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였는데, 다시 04.30에 白川 北쪽에 배치된 제2소대로부터 『敵砲彈이 떨어진다.』라는 報告에 接하

계됨으로써 事態가 尋常치않음을 느꼈는데 곧 白身이 砲聲을 感知케 되자 敵侵이라고 直感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趙중위는 즉각 예비소대로 하여금 출동준비를 갖추게 하여 보급차량인 3/4톤 車輛으로 현장에 急派시켰다. 당시 제9중대는 禮成江의 경비를 위하여 橋梁 東쪽 錢浦里에 제1소대를 배치하여 同 橋梁을 通行하는 人員 및 車輛을 檢問檢索하는 한편 該소대의 1개 분대가 橋梁 北쪽에 있는 五鳳山(推定標高 150m)을 確保하여 禮成江 上流지역을 경비 하였으며 또한 제2소대는 白川 北쪽 1.5km의 雉岳山(△361)에 배치되어 그 隣近의 경찰 경비초소와 더불어 白川 外廓지대를 경비하였다.

05.20에는 白川驛 부근에 3發의 敵砲彈이 集中되어 事態가 惡化되고 있었는데 이무렵에 얼마전 출동하였던 소대가 分散되면서 중대로 돌아왔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소대가 白川邑內를 벗어났을때부터 이미 雉岳山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 敵으로부터 迫擊砲의 集中砲擊을 받아 人員은 즉각 待避하였으나 끝내 타고갔던 차량은 積載函에 直擊彈을 맞아 破壞되었고 병력 또한 衆寡不敵으로 對抗할 餘地도 없이 그대로 撤收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이때는 중대와 각 소대간의 통신이 부절된 뒤인지라 전방상황을 알수가 없었다.

이에 趙建錫중위는 一트 병력을 白川驛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鐵路 南쪽邊에 待避케한 다음 몇사람의 본부요원과 함께 계속 상황의 推移를 알아보기위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날이 밝자 白川경찰서장으로부터의 電話를 받게되었는데 『나는 白川署長인데, 人民軍이 우리를 解放시키려 왔으니 경찰과 國軍은 다같이 人民軍에게 降伏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趙建錫중위와 白川署長과는 平素부터 서로가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그것이 謬長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는 누구냐 바론대로 말하라!』라고 소리를 치자 곧 『나는 警備隊에 있었던 ○○○다……동무! 人民軍의 서울入城式에 다 같이 解放戰士로서 參與합시다.』라고 지꺼리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趙建錫중위는 白川경찰서가 이미 敵에게 점령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白川署와 중대본부와는 至近거리에 있었으므로 事態의 切迫함을 느껴 대대와의 연락을 위하여 계속 有無線통신을 試圖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런데 이때 부대대장 朴寬榮 소령이 忽然히 중대에 나타나 趙建錫 중위에게 이르기를 『중대는 最善을 다하여 江華島로 나오라.』라고 하면서 떠나가버렸다.

이에 同중위는 이미 전방의 각소대가 지역내의 경찰경비초소와 함께 敵에게 유린 당한 것으로 보고 즉시 중대를 撤收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禮成江橋梁의 破壞여부도 未確認한채로 待機中이던 단 한대의 21/2톤 추력으로 待避병력을 싣고 그 南쪽 馬泉里(白川 南쪽 2km)에 나온 뒤 그 전방 △70를 점



령하여 事態를 觀望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이날 EENT(海上薄明終)에 白川 Hotel에서 火災가 일어난 것을 보고 다시 행동을 개시하여 延安을 경유 敵과 접촉없이 石浦(白石里)까지 철수한 다음 여기에서 船隻便으로 江華島로 건너가게 되었다.

**中央一線 中隊의 상황**: 한편 延安에 본부를 둔 제10중대는 주로 北에서 延安에 이르는 道路統制가 可能的 要地에 병력을 배치하여 比較的 高地帶를 형성하고 있는 中央지대에는 경찰관 경비초소로써 경비를 보완하였다.

즉 제3소대(장, 李珪鉉 중위)를 東側의 △209(延安 東北쪽 7km)에 배치하여 雲谷里(△209 東北쪽 5km)로부터 南으로 △209 東麓을 거쳐 延安에 이르는 道路에, 제2소대(장 洪載希 중위)를 西側에 위치한 △207(延安 西北쪽 8km)에 배치하여 同高地 東麓을 南北으로 通하는 延安—濯纓간의 道路를 각각 統制한 것이며 경찰관 경비초소가 東으로부터 38° 線을 연하여 雲靈山(△147), 龍東里의 無名高地(雲靈山 西쪽 2km), 龍角山(△365) 西麓, 龍南里의 △119등 4개지점에 설치되어 각각 山間小路를 警備하였다.

그런데 이날 04.00를 전후한 이른새벽에 花山里(龍東里 北쪽 3km)로부터 2개중대 규모의 敵이 砲擊과 더불어 雲靈山과 龍東里에 侵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時刻에 濯纓으로부터 道路를 따라 南下한 것으로 보이는 1개대대규모가 일부병력으로 제2소대가 배치된 △207를 掩襲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소대장 洪載希 중위가 전날 오후에 중대장의 指示를 받고 延安의 중대본부까지 출두중에 있었으므로 대신 소대선임하사관 趙上士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소대병력의 半數가 전날 日暮時부터 진지전방에 설치된 야간감복초에 배치된 탓으로 15명정도를 收容할 수 있는 진지의 就寢壕에는 나머지 병사들이 쉬고있었는데, 敵의 砲彈 소리에 일찌기 눈을 뜬 趙上士가 이를 중대본부에 EE-8 전화기로써 보고를 마친 뒤 전소대원을 就寢壕와 연결된 交通壕로 내보내자 서로가 앞을 다투어 밖으로 뛰쳐 나갔다. 바로 이때에 咫尺之間의 전방 능선으로부터 소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와 거의 동시에 소대의 後方稜線에 侵透한 것으로 보이는 한 集團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趙上士는 순식간에 소대가 前後, 兩面에서 挾擊을 받게된 것은 이미 진지 全體가 完全포위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즉각 소대를 敵의 집중 火力이 弱해보이는 稜線 東麓으로 撤收키위하여 大聲으로 『소대는 지금 곧 東쪽으로 철수하자!』라고 소리쳤다. 이리하여 不過 10餘名밖에 되지않는 소대원을 이끌고 陣地 東邊의 茂盛한 草木을 헤치면서 窪地線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의 부대행동이 어려워지자 分散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石山에 배치된 제3소대는 龍東里쪽으로 侵攻한 例의 2개중대규모의 敵에 의하여 그

곳에 배치된 경찰관 경비초소와 함께 분산된 듯하였다.

**左一線 중대의 상황** : 한편 靑丹에 배치된 제11중대(장, 韓普錫중위)는 38°線으로부터 北쪽 1km에서 鳩岩 貯水池의 水門을 바라볼 수 있는 稜線(文化洞)에 제1소대를 배치하고 그 兩側 1km거리에 제2소대를, 그리고 제3소대를 제2소대 西側 1km거리에 있는 果樹園 전망高地(一名, 猛虎高地)에 배치하여 중대의 中央전면에 있는 △98에 배치된 소대규모의 敵과 對峙하고 있었으며 경찰관 경비초소가 중대의 東側 4km에 위치한 無名高地(推定標高 170m)에 設置되어 그 周邊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01.00에 중대의 左제1선인 제3소대장 朴圭頌 소위가 猛虎高地의 전망초소에 대한 야간순찰을 마치고 소대장寮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04.30에 갑자기 일어나는 機關銃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 朴圭頌 소위는 즉시 각 분대장에게 前方경계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는데, 이 銃聲이 頃刻으로부터 점차 가까워지더니 05.00에는 소대전면에서도 일기 시작하자 朴圭頌 중위는 다시 분대장에게 『敵이 사격을 加하면 우리도 사격을 하라.』라고 指示한 다음 이를 중대장에게 有線으로 보고 하였다. 그러자 이로부터 얼마후 銃聲이 차차 衰退하더니 그들 진지(△98)에 설치된 擴聲機에서 對南放送이 요란하게 퍼져나왔다.

즉, 『議政府와 開城지역은 이미 人民軍에 의하여 해방이 되고 禮成江도 파괴되었다. 國防軍의 大대본부가 있는 延安도 앞으로 얼마후이면 해방이 된다. 현재 國防軍은 완전히 포위되었으므로 속히 人民軍에게 降伏하라.』라고 계속 지껄리는 것이었다.

이런 대남방송이 몇번이고 되풀이되는 동안에 이를 중대에 보고한 朴圭頌 소위는 06.00가 지나서 중대장 韓普錫 중위로부터 電話를 받았는데 『지금 경찰관이 차량으로 猛虎高地로 출발하였으니 소대는 이들에게 진지를 즉시 인계하고 중대로 철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3소대는 잠시후 舊된 bus편으로 도착한 6명의 靑丹警察署員과 임무를 交代한 즉시 그 차량을 利用하여 全소대원이 중대에 철수하였는데, 이때가 07.30을 前後한 무렵이었다.

소대가 중대에 도착하자 중대장 韓普錫 중위는 곧 소대장에게 命令하기를 『지금 대대본부가 있는 延安지역이 敵에게 段攻당할 憂慮가 있으니 제3소대는 즉각 延安으로 출동하라』라는 새로운 임무를 賦與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소대가 待機中이던 2 1/2톤 트럭으로 延安쪽으로 출동하였는데 延南國道를 따라 延安外鄕의 飛鳳山 南麓에 접어들기 直前에 때마침 延安쪽에서 나오는 한대의 軍用트럭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들은 소대에 앞서 출동한 화기소대였는데 이들이 傳하는바에 따르면 화기소대가 延安市內에 들어서기도 전에 鳳舞臺(延安 西쪽 1.5km) 앞 路上에서 飛鳳山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게 되어 되돌아 나오는 것이며 이미 飛鳳山은 敵이 점령한 것 같다

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3소대 亦是 방향을 돌려 중대본부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전방에 배치되었던 병력의 일부가 천수한듯 하였고 이들과 함께 중대는 중대장 韓齊錫 중위 지휘하에 靑龍半島의 龍井里(荷丹, 11km)南쪽으로 撤收를 開始하여 이날 正午무렵에야 龍井里에 위치한 靑龍支署부근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靑龍支署에서 경찰경비전화를 利用하여 延安의 제3대대본부에 전화를 하니 이때는 대대본부도 철수한 뒤인듯 전화를 北傀軍의 한 將校가 받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장은 전화를 끊고 병력을 점검하여보니 160餘名이나 되었는데 이 중에는 제18연대 제1대대소속의 崔圭鉉 중위等 총63명의 타부대소속의 장병이 休暇 및 外出次 靑丹에 왔다가 중대의 행동을 함께 하여 龍井里까지 撤收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경찰지서와 주민의 협조로 15:00경에 晝食을 마치게 되었는데 때마침 1개소대규모(30餘騎로 推斷)의 敵騎馬隊가 靑龍半島의 西岸을 따라 龍井里부근에 나타났으므로 중대장의 즉각적인 명령에 따라 이 무리들을 사격으로 擊退한 뒤 敵의 南侵을 早期에 警告할 수 있도록 1개소대규모의 병력을 抽出하여 靑龍支署를 中心으로 한 外廓線에 배치하고 이날 밤을 맞이하였다.

대대의 一般의인 상황: 한편 延安의 제3대대본부와 제10중대(결: 2개소대)는 이날새벽 전방소대로부터 들어온 敵侵보고에 따라 營外 100m의 民家에 居住하는 중대장 趙基伯 중위가 뛰어들어온데 이어 대대장 李茂重 소령이 대대상황실에 나타났는데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와 주변사령으로 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즉각 대대非常을 命命한 다음 延安支署와 협조하여 「싸이렌」을 吹鳴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른아침부터 延安市內가 緊張된 空襲氣속에 휘말려 들어갔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영외거주 將兵이나 外出將兵, 그리고 非番勤務中인 경찰관까지도 일찌기 召集되었다.

이에 제10중대의 제1소대와 화기소대가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장 趙基伯 중위 指揮下에 05.00에 전방으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출동에 앞서 趙중위는 제3소대장 洪載希 중위에게 『possible한 限 빠른 時間內에 彈藥과 食事を 전방소대와 출동부대에 補給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指示하였다.

그런데 전날 洪중위가 중대장의 지시를 받게된 것은 洪중위가 6월 26일부로 제2중대附로 轉屬명령에 났기때문에 이의 준비를 위하여 호출한 것이나, 돌변한 事態에 洪중위가 출발을 못함으로써 중대장이 보급지원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들 출동부대가 대대의 보급차량으로 전방에 急遽출동한 뒤 洪중위는 취사장과 탄약고간을 뛰어다니면서 준비된 주먹밥과 탄약을 推進키위하여 活動하던중 때마침 무슨 일인가 하고 부대위병소에 모여든 부대附近의 住民가운데서 自進협조에 나선 10여명의 壯丁과 함께 이를 牛馬車와 손수레에 分載하

려고 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한편 이책 앞서 이날 05.00에 출동한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는 平素에 제3소대지역보다 防守의 立地條件이 不利하다고 보아온 제2소대에 대하여 增援이 緊要하다고 판단하여 2대의 트럭에 分乘한 부대를 石山 쪽으로 急派케 하였다. 그러나 부대가 乾支山(△238) 東麓을 지나 壽福里 西側 路上에 이르렀을때에 갑자기 500m전방 봉우리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趙基伯 중위는 즉각 차량을 도로변에 停車시키는 동시에 병력을 그 周邊에 散開시켰는데 이때에는 이미 △209 東麓에 배치되었던 제3소대가 瓦解된 듯이 보였는데 그 까닭은 花山里 方面으로부터 侵攻한 敵의 일부가 同高地 頂上을 점령하여 그 南쪽 봉우리까지 進出한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主力인듯한 一隊가 高地 南쪽 도로를 따라 중대의 전방 800m까지 近接하고 있었다. 중대가 茂盛한 草木으로 은폐된 까닭에 잠시 敵의 射擊은 中斷되었으나 周圍가 눈과 밭으로 된 道路위에서 兩面の 敵을 迎擊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중대장 趙基伯 중위는 1km 후방의 乾支山을 早期에 確保키로 決心하였다.

그 까닭은 여기를 占領한다면 東側뿐만이 아니라 西側으로부터의 敵의 南下를 阻止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즉각 중대를 오던길로 치달게하고 차량은 回轉하여 중대를 뒤따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06.00 이전에 同山 東麓에 당도하여 그 右側方의 △80에 일부병력을 배치하여 敵이 有効射程내에 들어오는 즉시 迎擊토록 態勢를 取하는 한편 남은 병력을 乾支山에 오르게 하였는데 바로 이때에 突然 同山の 頂上으로부터 自動火器의 奇襲사격을 받게 되었다. 제2소대지역을 돌파한 敵이 이미 이 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으로 오르던 병력이 東麓으로 밀려난데이어 △80의 병력이 산위로부터 瞰制 射擊을 받게되고 마침 전방 도로상에 나타난 敵의 主力으로부터 同時に 집중사격을 받는 등 兩面の 敵에 의하여 一時에 死傷者가 續出됨에 따라 곧 南으로 分散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로부터 수시로 無電보고를 받아온 대대장 李茂重 소령은 危機에 直面한 延安으로부터 최소한 軍官민의 撤收를 위하여서라도 時間획득이 필요하다고보고 延安外廓의 瞰制高地인 飛鳳山(△282)을 점령하여 敵의 侵攻을 遲延하면서 市街戰까지도 벌일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비교적 상황이 경미한 靑丹의 제11중대장 韓普錫 중위로하여금 2개소대 병력을 延安에 急派토록 하였으나 이들 소대가 靑丹에서 延安(鳳舞里)에 이르렀을때는 이미 飛鳳山은 敵手中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 梯隊간의 연락이 끊어졌던 관계로 이러한 접촉 상황을 모르는 대대는 계속 증원병력의 도착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대대장 李茂重 소령은 제10중대의 分散으로 洪載希 중위에게 『朝食과 彈藥의 推進을 中止하라.』고 指示한 뒤 전방상황을 계속 注視하는 한편, 延安市街圖를 내어놓고 병력배치를 構想하고 있었는데 08.00가 지났을 무렵에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가 半數의 병력을 이끌고 氣盡脈盡하여 대대에 돌아왔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중대는 延安郊外로부터 農路와 水路를 따라 歸營하였으나 이미 敵은 延安 北쪽의 高地群을 점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제11중대의 병력이 도착하지 않는 事由를 알게된 대대장은 즉시 대대본부지역내에 있는 全 장교를 召集시켜 대대본부요원까지 포함한 3개 소대규모로써 市街戰을 決行하겠다는 意思를 表明하자 여러 將校들이 이를 반대하였다.

즉, 장교들의 의견은

『첫째 : 市街戰을 결행하려면 延安邑을 蹴制할 수 있는 飛鳳山을 確保하여야만 되나 이미 敵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계속 支撐하기 困難할 것이다.

둘째 : 열세한 現兵力으로서는 對抗할 餘력이 없을 것이다.

셋째 : 他지역의 상황을 알수가 없으나 집중 攔수가 撤收한 것으로 본다.』 등을 대대장에게 提示하였는데 특히 제10중대장 趙基伯 중위는 『勝算이 없는 無謀한 市街戰으로 죽어 恥辱을 당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自決하겠다.』고 하면서 所持하였던 小銃으로 自決하려고까지 하자 이에 놀란 周圍의 將校들이 옆에서 달려들어 銃을 췌기도 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소령은 자리를 鎮靜토록하면서 自身の 決心을 纔意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대대가 이날 10.00가 넘은 다음 撤收를 개시하여 13.00에 石浦(白石里)에 도착하여 4隻의 漁船中 2隻을 경찰관에게 引渡하고 2隻의 漁船으로 江華島로 撤收하게 되었다. 한편 靑龍半島의 제11중대는 이날 밤을 보낸 다음 南쪽 海邊에 集結하여 중대장 韓普錫 중위 指揮下에 현지에서 얻은 대형木船 1隻으로 半數병력이 喬洞島로 撤收하였다. 그리고 朴圭鏞소위등 殘存병력은 같은 날인 26일밤 19.55의 干潮에 맞추어 물이 빠지면 海上 7km가 陸地로 變하는 龍媒島까지 數많은 현지 避難民과 함께 海床행군으로 進軍 다음 다시 龍媒島에서 船便을 얻어 仁川으로 撤收함으로써 제12연대는 일부병력을 제외한 全主力이 海上으로 철수한 것이다.

#### (나) 臨津江線의 防禦

이날 未明을 기하여 高浪浦—靑丹간의 제1사단 책임지역내의 38°綫을 戰車와 더불어 2개 사단의 主力으로 突破한 敵은 該지역에 배치된 我 경비부대가 衆寡不敵으로 撤收하게 되자 90km의 경비正面에서 20餘km로 줄어든 臨津江 防禦綫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高浪浦—長湍방면으로부터 侵攻한 敵 제1사단(장, 소장 崔 光)은 臨津江 上流지역에 배치된 我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에 그 衝鋒을 指向하는 한편 開城을 席卷한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臨津江 突出部에 배치된 我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正面을 直衝하였다.

이에 사단은 積城—德峴里—長坡里를 잇는 坡平山(△496)전방과 汶山 北쪽의 臨津江邊에서 同時에 兩개사단의 主力을 맞아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

### 1. 제13연대의 상황

사단의 右一線 방어전면을 擔當한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는 예하 제3대대(장, 劉截成 소령)로써 계속 38°線 경비에 임하는 가운데 지역내의 瞰制高地인 坡平山(△496)을 主據點으로하는 연대의 主陣地편성을 完了하였다. 그 뒤에 사단 교육지시에 의하면 6월 中旬부터 제1대대(장, 金振暉 소령)가 主陣地 전방의 紫下里일대에서 8일간의 機動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은 휴가 및 외출중에 있었다.

제1대대의 進지점령: 대대 기동훈련으로 24일밤을 汶山國民學校의 紫下里 分校부근에서 野營하던 제1대대는 25일 04.30에 高浪浦 方面에서 일어나는 砲聲으로 野戰전막에서 쉬고 있던 장병이 한명 두명씩 깨기시작하다니 급기야는 宿營地의 守員이 일어나 天幕밖까지 나오게 되고, 대대장 金振暉소령도 또한 天幕에서 매아닌 砲聲을 듣고 『傀僞軍들이 또 作亂질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즉시 대대 참모들을 天幕으로 불러 砲擊 상황을 연대에 알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연대와의 有無線의 疎通이 如意치않자 대대장은 즉각 通信隊로 하여금 有無線을 疎通시키도록 指示하고 各중대장(제1, 제3중대는 先任將校가 指揮)에게는 『朝食後에 즉시 행동을 개시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얼마 뒤에 砲聲이 아주 가깝게 그리고 熾烈하게 들리자 대대장은 再次 各중대장에게 연락령을 내어보내 『대대숙영지 外廓哨所로 하여금 北쪽지역에대한 監視를 徹底히 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로부터 얼마가 지난뒤 『北쪽으로부터 많은 병력이 내려온다.』라는 報告가 哨所로부터 傳達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數名の 장교와 같이 宿營지 뒤 언덕에서 彼我를 分辨할 수 없는 한 集團의 南下를 目擊하였는데, 잠시후 그들의 先頭에서 赤旗를 든 者를 發見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南侵입을 確認한 대대장은 현상황하에서는 무엇보다도 陣地점령이 急先務라고 判斷하여 즉각 各 중대장을 集합시킨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訓練을 中斷하고 준비된 陣地를 점령하여 戰鬪態勢에 突入한다.

② 各중대는 즉각 출발준비를 갖추고 驅歩로 陣地에 投入하라.

③ 彈藥은 陣地에서 分配한다.』

이리하여 各중대를 陣地에 投入케 하고 연대와의 通信疎通이 늦자 通信兵으로 하여금 宿營地옆 民間 電柱에 오르게 하여 전화선으로 보이는 線에다가 EE-8 전화기를 연결시켜 시험삼아 몇번 信號를 보내게 하였는데 뜻밖에도 汶山우체국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決戰을 부르면서 交換책임자에게 『지금 北傀軍이 攻擊中이니 제1대대 陣地에 彈藥을

緊急 推進해달라는 내용을 연대본부에 傳해 달라고 말하고, 중대의 뒤를 따라 진지를 目標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가 末期에 진지를 占領한 다음 연대와의 直通전화로써 再次탄약보급을 독촉하기도 하여 이로부터 훨씬뒤에 탄약이 到着하였는데, 뒷날 그 電話線이 汝山우체국과 紫下里國民學校의 分校간에 설치된 有線回線인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장의 措置 : 한편 이날 새벽, 연대주변사령인 정보주임 崔赫培 소령은 제3대대로부터의 接觸상황을 보고받자 이를 즉각 부대앞 숙소에 있는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에게 알렸다.

당시 연대장 金益烈 대령은 外出中이었고, 부연대장 金振權 중령은 步兵學校에서 被교육중에 있었으므로 主務參謀인 작전주임 崔大明소령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다.

이에 작전주임은 이미 飽弊을 듣고 부대에 나가는 차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가는 중이요.』라고 하면서 연대본부에 달려 갔는데,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全有無線網을 동원하여 『연대 非常!』을 命命하는 동시에 정보주임으로부터 개략적인 그간의 상황을 들은 뒤 사단 및 인접연대와도 상황을 交換하여 敵의 大舉南侵임을 確認하였다. 그리하여 崔大明소령은 제3대대장에게 敵을 지연시키면서 계획된 集納地로 撤收하라고 指示하고, 제2대대에게는 外出 및 휴가중인 장병은 귀대즉시 진지에 투입시키되, 우선 殘留병력으로서 진지를 점령하도록 指示하였다. 또한 훈련중인 제1대대와도 뒤늦게 유무선이 開通됨으로써 진지점령을 確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전방 제1 및 제3대대지역에 彈藥의 推進보급을 군수주임 吉春光대위와 협조하여 可能限한 빠른 시간내에 實施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제1대대로부터 탄약보급에 대한 독촉電話가 빗발같았으므로 崔大明소령이 군수주임 吉春光대위와 함께 탄약추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본부위의 洞窟 彈藥庫에 가본즉 연대 탄약장교 金錫培 중위가 彈藥箱子를 하나하나 풀어서 셈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崔大明소령은 『상황이 危急한데 무엇을 하고있느냐! 빨리 싣고 떠나라.』고 호통을 쳐보았는데 이는 平素 연대장이 『한발의 彈丸일지라도 管理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強調하였으므로 이에 責任感이 강한 同중위가 상황이 위급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08.00를 전후한 무렵에 연대장 金益烈 대령이 外出에서 歸隊하자 작전주임은 그간의 처리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연대장은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한 뒤 主陣地의 병력배치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전주임을 帶同코 전방으로 나갔다. 연대장 일행이 臨津江邊의 1번 道路를 따라 花石洞 北方 4.3km地點의 박석고개를 넘어섰을때에 散發的인 敵砲彈이 그 一帶에 편성된 제2대대 진지와 道路邊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Jeep차가 金坡

北北쪽의 介石洞(제1대대 진지)에 이르러서는 敵의 砲擊이 甚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에 차량을 뒤로 돌려 박석고개 北쪽 三叉路(長坡里와 積城방면의 도로 分岐點)에 와서 그 附近도로변에 沿하여 4문의 57mm대전차포가 縱深배치된 연대 대전차포중대에 들러 전투태세를 점검하고 연대에 돌아왔다.

**1차 敵攻擊의 擊退** : 한편 연대로부터 탄약보급을 받은 제1대대가 탄약을 각개인에게까지 분배가 끝난 것이 10.30을 전후한 무렵이었다. 이때에 高浪浦—紫下里지역으로부터 侵攻한 것으로 보이는 1개대대규모의 敵이 제1대대 정면으로 侵襲을 開始하였다.

이들은 坡平山 전방의 德峴里일대로부터 散開하면서 대대 陣前을 가로 지르는 320번 도로를 一齊히 橫斷하여 右第一線인 제3중대와 中央第一線인 제1중대전면에 소총사격을 加하면서 東西로 흐르는 냇가에 接近하였다. 이를 제1중대 側後背에 위치한 대대 觀測所에서 지켜본 대대장 金振暉소령은 그때 까지 沈默을 지키게 한 대대 指揮官인 SCR-300 無電機로써 「敵이 냇물을 건너올때까지 射擊을 抑制하라.」고 각중대장에게 指示하는 한편, 옆에 있던 중화기중대장 金玉山 대위와 이날 아침 金谷里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바 있는 제6포병대대(장, 虛載鉉 소령)이하의 제3포대 관측장교에게 즉각 遮斷사격을 加하도록 命命하였다.

이리하여 대대 陣前에 蟻集하는 敵의 頭上에 105mm와 81mm砲彈을 퍼붓게 되니 一瞬 이들의 隊伍가 흩어지면서 냇가 南岸의 地帶에 기어붙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小河川은 대대화력계획에 의한 彈幕地帶였던 관계로 이 機會를 놓칠세라 각중대가 60mm迫擊砲의 포문을 여니 瞬息間에 냇가에는 砲彈의 炸裂로 물기둥이 치솟았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무리가 彈幕을 避하여 南岸에 기어오르는 것을 各중대의 直射 火鏈이 기다렸다는듯 一齊히 불을 吐하자 이에 허겁지겁하게 된 者들이 德峴里쪽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한편 제2대대(장, 尹千幸소령)는 非常소집으로 集結되는 병력을 逐次로 전방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10.40가 지나자 한 무리의 騎馬隊가 長坡里로부터 江邊 1번道路를 따라 三叉路쪽으로 南下하는것을 目擊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대전차포중대가 이들을 근거리에서 기다리다가 57mm砲로써 不意의 사격을 集中하니 이들은 뒤도돌아 보지 못한채로 北으로 敗走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이날 正午가 지난다음에야 제2대대는 不足한 병력을 再調整하여 겨우 전투준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한편 연대의 軍人家族들은 아침부터 연대 炊事場에 集合하여 전방에 보급한 주먹밥을 준비하는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부대를 돕기도 하였다.

**제1대대의 敵戰車 破壤** : 이날 14.00연대의 左, 右第一線대대가 연대로부터 推進된 주먹밥으로 한 끼니를 재운 얼마뒤에 積城쪽으로부터 地軸을 흔드는 요란한 軌道소리와 함께



敵戰車가 제1대대 陣前 도로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縱隊대형으로 320번 도로 상에 積城 北쪽까지 길게 뻗어 있어 그 數를 헤아릴수 없었는데 이를 先頭의 5대가 德峴里 앞 路上에서 停車하더니 砲塔를 回轉시키면서 砲門을 열었다. 이와같은 戰車의 砲擊이 加해지자 陣地到處에서 포탄이 炸裂하는 轟音도 그렇거니와 發射時의 砲聲 또한 強烈하여 坡平山일대를 震動시켰는데 이에 대대장 金振暉소령은 敵戰車가 나타날때부터 始終 觀測所에서 그 動態를 지켜보다가 그들이 路上縱隊로서 砲塔만을 回轉하고 그 側方이 露出되고 있는 것을 보자 즉각 제1 및 제3중대장에게 有線으로 命令하기를 『각중대의 2.36" Rocket砲로써 戰車의 左側方을 사격하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德峴里로부터 高士洞에 이르는 小路쪽에 배치된 제3중대의 左側소대와 제1중대의 右側소대지역의 2.36" Rocket砲가 一齊히 사격을 加한데이어 중대가 全 Rocket砲가 鎗지를 變換하여 뒤따라 이에 加擔하였다.

그러나 진지로부터 500내지 600m가 넘는 거리의 突인지 戰車에 命中은 불과 몇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敵戰車가 Rocket砲의 集中사격이 시작되자 露出된 側面을 保護라도 할듯이 方向을 轉換함으로써 두터운 裝甲을 破壞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砲彈이 戰車에 命中함을 보고 곳곳에서 함성이 오르기도 하였으나 破壞된 줄 알았던 戰車가 잠시 뒤에 다시 움직이더니 方向을 돌려 대대 左第一線에 배치된 제2중대 前方의 介石洞쪽으로 徐徐히 西進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光景을 目撃하게된 병사들이 이로부터 戰車에 대한 恐怖心을 갖은 듯이 보였는데 이에 대대장 金振暉소령은 어떠한 難關이 있어도 기필코 저 戰車를 破壞하여야 한다고 결심한 결과 즉시 각중대에 연락하여 特攻隊 志願者를 선발케 하였다.

이리하여 가까운 제1중대로부터 志願한 30餘名中에서 2개 분대를 嚴選하여 일부요원에게 2.36" Rocket砲를 裝備시키고 殘餘요원은 81mm砲彈과 수류탄을 分配하여 電話線으로 움직이지 않게 이를 단단히 얹어매게 한 다음 迫擊砲와 手榴彈의 安否핀은 각개인이 戰車에 接近할때 除去하도록 교육한 뒤 출발시켰다.

한편 대대 左第一線인 제2중대(장, 申鉉祚 중위)는 德峴里로부터 介石洞까지 進出한 敵戰車에 대하여 중대의 2.36" Rocket砲로써 사격을 集中하는 同時에 60mm 迫擊砲로써 威脅사격을 加하듯 이들의 頭上을 強打하자 이에 砲塔 覆蓋를 굳게 닫은 채 村落 한가운데에 停車하더니 戰車砲로써 應射하였다. 이러한 틈을 利用한 特攻隊는 제2중대 左側소대의 제1소대가 배치된 △125의 西麓을 迂回하여 金坡里로부터 介石洞으로 潛入하였다.

이때에 대대로부터 射擊中止 命令이 각중대에 下達되었다. 그러나 사격중지 명령이 각 소대까지 傳播되었는지의 與否는 分明치 않으나 金黃鳳 중위가 指揮하는 제1소대는 2.36" Rocket砲와 自動火器로서 계속 사격을 加하다가 한참 뒤에 소대가 사격을 中止하였을때에는 曳光彈에 의하여 몇개의 草塚가 불타기 시작하고 敵戰車의 砲擊이 끝난 때였다.



〈農作物을 마구짓밟는 敵의 戰車〉

그러던 이때 한대의 戰車가 무엇에 놀란듯 갑자기 道路 南邊의 한 草家에 뛰어 들었다. 이에 草家는 完破되고 戰車는 草家에 파묻혀졌는데 이를 目擊한 金黃鳳중위는 즉시 1개 분대를 이끌고 현장에 급히 가보니 그 草家는 기둥과 흙벽이 戰車밑바닥에 깔아뭉개졌고 지붕과 부러진 서까래 등이 砲塔에 얽힌채 戰車를 偽裝하듯 덮었으며 그 사이를 砲身이 길게 밖으로 나와있었다.

그래서 金중위등은 수류탄을 들고 다른 4대의 戰車에 올라 內部를 뒤졌으나 이미 敵兵은 밖으로 脫出한 듯 한명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戰車에서 獲得한 日記帳과 若干의 機關砲 發彈을 鹵獲한채로 진지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로써 제1대대가 陣前에서 敵戰車 5대를 機動不能토록 破壞내지 捕獲하게 된 셈인데 당시의 제13연대 제1대대장 金振暉 소령은 그의 證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날 대대 陣前에서 敵戰車가 我軍의 2.36" Rocket砲에도 破壞되지 않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보병학교 高等軍事班의 課程을 나온지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 分明히 교육서에는 2.36" Rocket砲로서는 어떠한 戰車라도 破壞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나는 戰車를 破壞하려면 사람이 直接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特攻隊를 선발하였는데 많은 志願者中에서 2개분대 程度를 엄선키로 하였다. 그리고 迫擊砲彈 몇개씩을 함께 묶은 것을 携帶시키고 Rocket砲가 따라 갔는지는 記憶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 特攻隊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나 4대 내지 5대

의 敵戰車의 軌道를 破壞하여 다음날 新聞에도 報道가 된것으로 記憶한다.』

또한 당시의 제2중대 제1소대장 金黃鳳중위는 證言에서 말하되, 『나는 당시 제1소대장으로서 △125전방에서 중대와 더불어 중대 전면에 나타난 5대의 敵戰車에 대하여 集中火力을 퍼붓고 있었는데 한참뒤에 原因 모르게 敵戰車가 砲擊을 中斷함과 同時に 그중 1대가 한 草家에 뛰어들 것을 目擊하게 되었다. 나는 그 瞬間, 「異常하다! 敵戰車가 破壞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疑心 때문에 1개분대가량의 部下를 이끌고 現場에 가서 각 전차마다 砲塔를 열고 안을 뒤졌으나 한명의 敵兵도 發見할 수가 없었으며 이미 그들은 戰車에서 빠져나와 그 附近에 숨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狙擊의 위험도 느껴 戰車가 어떻게 破壞되고 特攻隊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確認하지 못하고 다만 戰車속에서 獲得한 日記帳과 若干의 實彈을 가지고 진지에 복귀하는 즉시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이에도 또 다른 후속戰車가 대대 전면에 나타났으나 앞서 破壞된 戰車로 길이 막혀 방향을 돌려 온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한때 戰車로부터 砲擊을 당한바있는 散兵隊의 병사들중에는 다시 나타난 전차를 목격하자 크게 動搖되었으므로 이에 대대장 金振暉소령은 大怒하여 『진지를 버나는 자는 即決處分하라.』고 각중대장에게 無電지시를 함으로써 순식간에 銃殺云云하는 말이 傳播되었는데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대대는 곧 正常을 되찾게 되었다.

**2차 敵攻撃의 擊退:** 그런데 얼마뒤에 아침에 擊退한것으로 보이는 대대규모의 敵이 다시 德峴里와 介石洞 北쪽의 無名高地간에서 散開하면서 공격을 再開하였다.

이들은 320번 道路 北쪽에서 2개 梯隊로 兩分하여 한 梯隊는 아침때와 같이 德峴里로부터 320번 道路를 橫斷하여 대대 右第一線인 제3중대와 중앙의 제2중대간에 물려왔고, 또 한 무리는 介石洞 北쪽의 無名高地 東端으로부터 左第一線인 제2중대 전면에 있는 介石洞부락으로 侵入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는 연대의 지원포병인 제3포대와 제2포대 (제3중대의 화력증원을 위하여 이보다 앞서 金谷里에 도착)화력까지 지원받는 대대의 전화력으로 이를 30분만에 道路 北쪽으로 擊退하였으나 중대 전면의 敵은 道路와 냇물을 건너자마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무명고지의 무리들에게 새로운 砲擊을 加하는 한편 露出된 대대의 右側方에 대한 掩護를 연대에 건의하였는데 이무렵까지도 대대右側方의 △357에는 可用병력이 없었으므로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비단 여기만이 아니었다. 이무렵 右隣接인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측은 △357와 一連의 橫隔稜線으로 잇는 紺嶽山(△675)을 비어둔채 該지역의 제1연대(장, 威俊鎭 대령)를 東豆川—議政府 쪽으로 急遽移動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를 건의받

은 연대장은 작전주임 崔大明소령으로 하여금 東側方에 대한 掩護에 必要한 追加의인 병력을 사단에 要請케 하고 補充병력이 당도할 때까지 우선 포병화력으로써 이를 補強토록 措置하였다.

제2대대의 상황 : 한편 연대의 左一線인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는 이날 正午무렵에 대대장이 外出에서 歸隊하게됨으로써 병력을 調整하여 배치를 完了하였다. 그 배치상태를 보면, 介石洞 南쪽으로부터 臨津江邊에 沿하여 南西 방향으로 斜線으로 편성된 진지에 3개 중대를 建制순으로 一線배치하고, 대대 81mm迫擊砲는 中央의 제6중대가 배치된 △143 후방의 窪地에 배치하는 한편 機關銃소대들을 연대 대전차포중대가 布陣하고 있는 三叉路 부근과 박석고개에 각각 배치하여 대대의 北쪽 田畝과 개활지로부터 侵攻하는 敵에 對備하였다.

그리하여 右一線 제1대대가 敵戰車를 맞아 一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 右第一線인 제5중대(장, 金洛洪 중위)간의 長坡里로부터 道路를 따라 南下하는 중대규모의 敵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마루附近까지 이르렀을때를 기다려 중대의 全自動화기를 이에 指向하는 동시에 중대에 배치된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화력을 집중케 하여 이를 15분만에 擊退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20분도 못되는 15.00에는 이들의 일부병력이 다시 장마루쪽에 나타난 것을 自動火器로써 集中사격을 퍼붓자, 이들 또한 自動火器로써 應射하여 왔다. 그러나 道路 兩邊이 水田地帶였으므로 路上에서 散開가 어려웠던 그들은 곧 뒷편에있는 교량 쪽쪽에 位置를 變換하여 사격을 계속하고 主力인듯한 병력은 교량으로 부터 兩側으로 약간 떨어져있는 堤防으로 돌면서 射擊을 加함으로써 彼我가 400~500m거리를 사이에 두고 射擊戰이 계속되었다.

연대戰術指揮所의 설치 : 臨津나루 (花石洞 부근)에 위치한 연대본부는 그 戰術指揮所(TACCP)설치를 위하여 이날 오전, 인사주임 韓淳萬 대위가 이끄는 設營隊가 白石洞에 設營을 마친다음 14.00에 指揮所要員이 移動함으로써 開所를 보게되었다. 이 戰術指揮所는 汶山에서 法院里에 이르는 320번 道路의 中間지점에서 金谷里쪽으로 1km남짓 들어간 곳으로 연대의 방어 계획상 미리 豫定된 곳이다.

그리고 日沒이 가까워질때에 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이 指揮所에 들러 야간방어책을 검토한뒤 돌아갔는데 이무렵에 그간 步兵學校에서 被教育中이던 將校가 복귀하였다. 이들 중 제1중대장 張德守 대위와 제3중대장 白南垣 대위 등은 연대장에게 原隊復歸 申告도 생략한채 즉각 隸下部隊에 再配置되었는데 해가 넘어가자 彼我 砲兵의 擾亂射擊까지 걸드는 가운데 제1대대 전면에서도 射擊戰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대의 全前面에서는 작기로는 敵偵察隊의 정찰로부터 크기로는 중대규모가 侵攻을 피하는등 사격전으로 밤을 지새웠다.

## 2. 제11연대의 상황

연대의 出動: 이날 水色에 위치한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는 사단으로부터 하달된 非常警報에 의하여 休暇와 外出등으로 殘留兵力만이 남아있는 營內에 非常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로부터 2시간뒤인 08.30에 非常召集된 영외거주 장병과 일부 復歸한 外出兵力이 集結되어 연대 인사주임 金正烈 대위 指揮下에 人員點檢에 이어 각 대대별로 軍裝檢査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때 總參謀長 蔡秉德소장이 예고없이 연대 練兵場에 나타나 연대장을 찾았다. 그러나 사단장 不在間 代理를 맡고있는 연대장이 아직 사단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이에 인사주임 金正烈 대위가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總長앞으로 뛰어 나갔으나 蔡秉德 總長은 연대장의 不在에 介意치 않고 『제11연대는 松嶽山 戰鬪때와 같이 勇敢하게 싸우라.』고 하는 激勵의 말을 남기었다.

이런 사이에도 外出兵力은 계속 돌아오고 있었으며 출동준비를 갖추는대로 소속중대의 隊列속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 『汶山으로 鐵道이동하다.』는 연대장의 口頭命令이 사단으로부터 傳達됨에 따라 우선 출동준비가 끝난 병력부터 水色驛으로 이동하기시작하고 뒤늦게 復歸하는 병력은 驛으로 直行토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驛構內와 그 附近 鐵路쪽에서 이들에게 개인화기를 支給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얼마뒤에 사단으로부터 水色驛으로 直行한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각급 지휘관을 召集한 자리에서 部隊移動을 위한 口頭命令(연대 作命제1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연대는 사단命令에 의거 臨津江 南쪽에 準備된 진지를 점령키 위하여 汶山으로 鐵道 移動하려 한다.
- ② 각대대장 및 연대직할대장은 現有兵力을 장악하여 汶山으로 移動하라.
- ③ 연대 대전차포중대는 自隊車輛으로 移動하라.
- ④ 연대 군수주임은 연대의 현보유 彈藥全量을 汶山으로 輸送하라.
- ⑤ 연대 前方指揮所는 赤田里 12.00까지 開所한다.』

이에 따라 1차로 병력 488명, 2차로 131명, 3차로 361명이 이날 11.00부터 15.00간에 臨時列車편으로 汶山에 輸送되었다.

그리하여 汶山驛과 그 北쪽에서 下車한 부대들은 基本携帶量의 彈藥을 보급받고 각대대장 指揮下에 行動을 開始하였다.

한편 연대본부는 車輛과 列車편으로 赤田里(汶山 南쪽 1km)에 移動하여 指揮所를 開設하는 一方 작전보좌관 崔一嶽 대위로 하여금 指揮所앞 丘陵에 觀測所를 설치케 하였다.

이 觀測所는 汶山市街와 汶山驛 그리고 서울에 이르는 1번道路를 左邊에 내려다 볼수있

는 곳이기도 하나 雨後의 탓인지 이날따라 臨津江邊을 안개와도 같이 뿌옇게 뒤덮인 때문인지 전방대대까지는 觀測이 미치지못하였다.

**警戒部隊의 配置** : 연대장은 開城으로부터 철수하는 제12연대의 掩護와 연대의 境界부대로써 臨津江 北岸에 부대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正午가 지날무렵에 右一線인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로 하여금 1개중대를 抽出케 하여 臨津江 北쪽에 병력을 배치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은 제7중대(장, 李肯夏 대위 ; 步校派遣中)의 姜昌鎭중위로 하여금 중대를 指揮케 하여 臨津江 北쪽의 丘陵을 점령케 하였는데 이때가 13.00전후이었다. 중대는 우선 急編진지를 편성하면서 丘陵의 左右側方에 早期警報를 위한 觀測組를 配置하였다.

그리고 중대가 배치된후 제12연대의 철수부대인듯한 여러대의 我軍차량이 通過함을 보고 손을 흔드는자도 있었으나 徒步부대의 철수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15.00가 되었을때 한 무리의 敵騎馬隊가 開城—汶山간의 도로를 따라 먼지를 울리면서 陣前으로 接近하였다. 이에 姜昌鎭 중위도 중대가 휴대한 탄약에 1基数뿐인지라 다음에 또 닥쳐올 敵에 대비해서라도 여기서는 탄약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여 즉시 각소대에 전달하기를 『100m以內에 들어올때까지 射擊을 하지말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를 先頭 騎馬隊가 100m에 들어올때를 기다려 姜중위는 自身이 裝備한 CAR 小銃으로 白光彈 1發을 發射함과 함께 『사격 개시!』라고 소리쳤는데 이 命令一下에 道路 兩側 丘陵에서 隱蔽하고 있던 全중대가 一齊히 사격을 집중하니 이에 놀란 그들은 이 瞬間에 얼굴을 치켜든 자와 이에 부딪치는 者로 隊伍가 어지럽게 흩어지더니 곧 騎首를 돌려 오던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중 半數의 騎馬는 方向을 잃었던지 長湍쪽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들이 潰走한지 얼마뒤에 豫想대로 長蛇의 부대가 臨津江 3km 전방에 이르자 이에 중대는 敵襲의 早期警報를 위하여 本陣으로 撤收하였는데 이때 閔昌植중위가 이끄는 일부는 연대의 지시에 따라 제2중대장 金奉權 중위 指揮下에 合同하였다.

**연대의 配置** : 한편 연대는 逐次로 推進된 병력으로 오후 늦게까지 이미 마련된 主陣地의 방어력을 補強하였다. 이때의 각대대 배치는 연대의 방어계획에따라 右一線에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 左一線에 제1대대(장, 高漢祚 대위) 그리고 제3대대(장, 金在命 소령)를 연대 예비로써 赤田里(汶山 東南쪽 1km)의 丘陵附近에 배치하였다.

연대의 전면은 三面이 臨津江의 彎曲部로써 둘러 싸인 自然障礙物로 圍繞되었으나 彎曲部の 左側 窪地部位인 汶山浦以西지역은 防禦手段이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 西側方 防護에 필요한 추가병력을 요청하는 가운데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薄暮무렵부터 散發的으로 敵의 砲彈이 臨津江邊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 3. 육군본부의 措置

이날 육군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共產軍의 全面南侵에 對應키 위하여 후방 각지역에

주둔하고있던 소사단에 대하여 즉시 서울에 移動하라는 작전명령 제84호를 하달한데 이어 이날 午後에는 작전명령 제85호를 추가로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①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集結시키려 한다.

② 육군보병학교장 및 육군사관학교장은 隸下 교도대 및 사관후보생(생도)대를 즉시 龍山國民學校에 이동시켜 육군중령 俞海濬(보교)의 지휘를 받게하라.

③ 육군중령 俞海濬은 위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즉시 서울特別聯隊를 편성하라.』

서울特別聯隊의 出動: 이에따라 보병학교(장, 閔機植 대령) 學生聯隊長 俞海濬 중령은 육군본부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으로부터 聯隊編成에 關한 指針과 함께 編成 즉시 汶山으로 移動하여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 指揮下에 들어가라는 指示를 받은 뒤 始興의 보병학교와 泰陵의 육사에서 龍山國民學校로 集結하는 兵力으로 混成聯隊를 編成하였다.

당시 보병학교 教導隊는 金秉化 소령이 指揮하는 제5연대 제3대대가 教導隊의 임무를 遂行하였던 까닭으로 比較的 建制가 維持되고있었다. 그러나 일부 外出장병의 부대복귀가 늦었던 탓으로 不足병력을 후보생으로 充當하는 實情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俞중령은 보병학교와 육사의 兩教導隊를 基幹으로 混成編成한 서울特別聯隊를 이날 午後 늦게 鐵道(龍山—汶山)편으로 出發시킨뒤 일부 본부 요원을 이끌고 bus 便으로 汶山에 直行하였다.

제15연대의 增援: 한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에 의하여 光州에 駐屯한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의 일부 부대가 제1사단을 增援케 되었는데 먼저 全州에 있는 제15연대(장, 崔榮翕 대령)의 연대에비로서 교육중에 있던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가 이날 17.00에 연대의 先遣隊로 龍山까지 進出하였다.

당시 연대장 崔榮翕 대령은 보병학교에서 被教育中에 있었으므로 이날 아침 서울에 있는 그의 宿所에서 『全將兵은 즉시 原隊復歸하라.』는 radio의 臨時 news를 聽取한뒤 순히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등 몇몇 참모들로부터 『상황이 긴급하니 연대를 서울에 올라오게하고 부대지휘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10.00에 육군본부에서 直接 연대에 전화연락하여 우선 교육중인 제3대대부터 즉시 출동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당시 교육중이었던 대다수의 高級指揮官들이 취한 臨機應變策으로 보였다.

이에대한 事後의 確認조치로써 이날 12.00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가 正式으로 하달된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장 崔榮翕대령은 예하 제3대대가 龍山驛에 도착하는 즉시 이를 指揮하여 列車편으로 一路 汶山으로 向하였다.

그러나 列車가 水色驛을 지나 陵谷驛에 다다랐을 무렵 敵의 YAK전투기 3대로부터 機銃掃射를 받고 7名의 負傷兵을 내었기 때문에 계속 列車移動은 不利하다고 보고, 敵機가 사

라진 後에는 陵谷驛에서 全員이 下車한 다음 연대장은 車便으로 사단에 直行하고, 부대는 대대장 지휘하에 糧軍을 계속하여 金村 北쪽에서 연대장의 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20연대 제3대대의 增援** : 한편 光州에 위치한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는 마침 白雲山지역의 共匪討伐을 위하여 이날 아침 列車로 順天으로 출발한 예하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서울에 출동시키고자 順天驛으로 緊急연락하여 이날 12.00무렵에 順天驛에 도착한 그 列車을 松汀里까지 回車시킨 다음 대대병력은 그대로 列車內에 待機시킨채 대대장을 연대본부에 돌아오게하여 서울출동에 대한 移動명령과 함께 추가적인 補給措置를 갖추게하여 당일인 25일 後半夜에 松汀里를 떠나 다음날 汶山에 당도하게 되었다.

#### 4. 사단장의 措置

보병학교에서 被教育中에 있던 사단장 白善濤 대령은 이날 07.00 그의 宿所에서 작전참모 金德俊 소령으로부터 北傀의 南侵으로 전방부대가 交戰中에 있다는 전화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自身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단의 指揮權 行使를 확인할 兼 전방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급히 車便을 얻어 龍山の 陸軍本部에 출두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自身の 原隊復歸를 確認한 다음 美顧問官 Rockwel 중령과 사단장 대리로 있던 崔慶祿 대령을 陸軍本部로부터 帶同하고 水色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돌아왔다. 崔慶祿대령도 이날 陸本에 들린 것이다.

사단장은 사령부에 돌아온 다음에야 1/3의 병력이 휴가와 外出중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에게 우선 병력이 集結되는대로 逐次的으로 前方에 投入토록 指示하는 한편 참모장 石柱岩대령으로 하여금 汶山에 사단前方指揮所를 設置토록 措置하였다. 그리하여 연대가 水色으로부터 汶山으로 鐵道移動하여 汶山突出部에 미리 편성된 진지에 投入될 무렵 사단 戰術指揮所를 汶山國民學校에 設置하였는데 이날 正午가 지나 다시 披州로 옮겼다.

指揮所의 披州 移動은 戰術的으로 汶山邑이 臨津江邊에 치우쳐 있을뿐만아니라 開城의 제12연대(장, 全盛鎬 대령)와의 有無線이 두절되어 該연대의 撤收상황이 五里霧中인데다가 만약 臨津江철수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可用한 사단예비가 없어짐으로써 汶山과 그 西側方面에 대한 防護策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앞서 미리 對應策으로서 移動케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제12연대의 部隊補充을 陸軍本部에 建議하였다.

이날 14.00가지나 제12연대장 全盛鎬대령이 撤收途中에 車輛事故를 당한듯 顔面에 負傷한몸으로 臨津江橋를 건너 사단에 돌아왔다. 그는 보고하되, 『敵의 奇襲공격으로 연대는 早期에 瓦解되었으며, 有無線의 不通으로 禮成江 以南의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상황은 全然 알 길이 없고, 제1, 제2兩대대 또한 분산철수한 관계로 兵力의 收拾이 어려웠다.』라



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우선 의부대장 白台浩 중령으로 하여금 負傷을 당한 全盛鎭 대령을 즉시 후송토록 措置한뒤 계속 前方상황을 注視하고 있었는데 얼마뒤에 增援부대가 사단에 來着하였다.

**增援부대의 來着** : 이날 薄暮무렵에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의 兵力으로 混成편성된 서울 特別聯隊가 사단에 도착하였다.

이때의 사단은 左右側方이 모두 敵으로부터 威脅을 받는 實情이었으므로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增援부대를 전방연대에 分割배속키로 결심하고 申告가 끝나는 즉시 金應勇 소령이 指揮하는 육사교도대를 右一線 제13연대에, 그리고 金秉化 소령이 指揮하는 보병학교교도대를 左一線 제11연대에 각각 再配屬토록 命令하고, 연대장 俞海濬중령을 同行한 부연대장 金東斌 중령(陸士)에게 砲兵운영에 대한 指導를 하도록 이르고 작전주일 李龍 대위(步校)는 작전참모 金德俊 소령을 補佐하도록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연대를 兩分키 됨에 따라 自身은 兩개연대지역을 來往하면서 연대를 돌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늦게 제15연대장 崔榮濶 대령이 사단에 도착하여 제3대대가 金村에서 行軍中임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단장이 全般的인 상황을 놓고 判斷하기를 『사단의 右一線이 지역내의 瞰制地形인 坡平山을 確保하는 限 敵의 侵攻이 더 퍼올 것이지만 左一線은 汶山突出部라는 地形條件때문에 時間이 갈수록 西側方의 威脅이 더욱 增大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敵이 臨津江을 渡河한다면 그 優勢한 戰力으로 汶山에 侵據한뒤 1번道路上에 攻撃力을 集中하여 南下를 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二次的으로 그들의 衝鋒을 阻止하려면 道路兩邊에 있는 高地群을 可用병력으로 事前에 미리 점령함이 緊要하다고 보고있었으므로 이 무렵에 도착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로 하여금 金村 北쪽의 高地群을 점령시키기로 결심하고 이를 연대장 崔榮濶 대령에게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混成연대에 이어 제15연대 제3대대가 이날밤에 金村 北쪽의 高地群을 점령하게 되므로 西側方에 버치될 보병학교교도대로써 防禦의 縱深을 維持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14.00에 首都警備司令部소속의 대전차포 1개중대와 장갑차 1개소대가 서울을 출발하여 16.30에 제1사단지역으로 進出하였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이를 뒤늦게 작명 제86호(16.30부)로 제1사단 버속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이에 사단은 대전차포중대를 汶山지역에 태치하고, 장갑소대는 사단의 정찰임무를 專擔케하여 이날은 奉日川 南쪽에서 此後命令을 待機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裝甲소대는 기갑연대 제1장갑수색대대 제3중대(장, 朴容實 대위) 소속의 崔元謙 소위가 指揮하였는데 裝備는 裝甲車 3대 1/4톤 Jeep 6대, 그리고 소대장 裝甲車에는 長距離 通信이 可能한 SCR-506와 508 無電機가 裝備되었으며 각 裝甲車에는 37mm 砲 1문과 輕機과 重機가 각각 1정씩 裝備되었다. 이 밖에 소대에는 1문의

迫擊砲와 각 Jeep車에 重機 1정이 裝備되어 있어 火力과 通信手段의 兼備로 偵察活動에 適格인 것으로 評價되었다.

臨津江 鐵橋의 爆破: 한편, 사단공병대대(장, 張治殷 소령)는 사단장의 鐵橋爆破에 대한 준비명령이 내려지자 대대장은 대대 작전과장 鄭極徐 대위로 하여금 既存 爆破계획을 시행토록 指示하였다. 이에 鄭대위는 爆破책임부대인 제3중대의 駐屯地인 鳳樓里(汝山 南쪽 1km)까지 3/4톤 트럭으로 直行하여 중대장 金東日 대위를 찾았다.

그러나 그의 行方이 杳然하자 중대장을 대신하여 自身이 직접 決行키로하여 爆藥과 爆破組를 싣고 正午무렵에 현장에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北岸쪽 橋脚에 爆藥을 장진하고 待機하였는데 이로부터 얼마후에 대대장 張治殷 소령이 나타나 爆藥장진을 點檢하더니 『비겁하게 왜 此岸쪽에 폭약을 장진하였는가! 즉시 對岸쪽에 再장진하라』고 號令하고 돌아가자 이에 鄭대위등 爆破組는 다시 對岸쪽 3번 橋脚에다가 장진을 마친 다음 本隊로부터의 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日暮가 되어도 사단이나 대대로부터의 爆破명령의 傳達되지 않았다.

이에 鄭대위는 교량의 爆破時機가 제12연대의 撤收直後에 시행토록 된 대대 작전 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判斷하여 이로부터 얼마동안 연대의 主力이 通過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덧 해가지고 上弦달이 떠올랐을때 突然 對岸에서 跳梁하는 敵影을 發見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자 鄭대위는 이제 必死의 時機가 왔다고 믿고 이를 獨斷으로 決行키로 決心하여 爆破組로 하여금 兩側 鐵橋中 먼저 南쪽 鐵橋인 京義線 鐵道부터 爆破토록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南쪽 橋梁을 폭파한데 이어 北쪽 橋梁을 폭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配線이 끊어질듯 失敗하고 말았다. 이에 鄭대위는 즉시 爆破兵 2명을 뽑아 導爆索을 폭약과 연결시켜 爆破케 하였는데 바로 이 瞬間에 對岸쪽으로부터 奇襲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鄭대위등은 이를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敵彈을 避하여 現場을 떠나고 말았다.

따라서 교량의 파괴상태가 어느程度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醜敵의 일부가 이 날밤 이 橋梁을 利用하여 此岸쪽으로 侵透하게 됨으로써 橋脚이 破壞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 推斷컨대 당시의 교량폭파가 사용 不可般할 程度에 完全파괴는 못되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공병대대 작전과장 鄭極徐 대위는 그의 證言에서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당시 臨津江橋의 폭파는 제3중대장 金東日 대위가 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6월 25에 아침부터 金대위가 行方不明이 되어 不得已 본인이 代身하게 된 것이다. 臨津江 鐵橋는 2개인데 南쪽은 京義線 鐵道이고 北쪽은 人道橋이다. 나는 먼저 南쪽부터 폭파하고 다음에 人道橋를 爆破하였던 바 1차 폭파는 실패하고 2차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철수하였으므로 파괴상태가 어느정도였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分明爆破는 된 것이다. 당시 본인의 심정은 이 교량을 명령없이 파괴했다고하여 軍法會議에 회부가되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後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獨斷으로 決行한 것이다. 그리고 禮成江橋의 爆破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월 26일 : 前날의 緒戰에 이어 接戰 제2일째 彼我が 激突하는 臨津江邊에는 鐵火가 亂舞하고 硝煙이 6월의 햇살을 가리게 하였다.

### 1. 제13연대의 상황

육사 교도대의 東側方 防護 : 밤사이 몇 차례 치른 사격전으로 연대의 左右·線대대는 이날 새벽녘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그나마 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敵襲에 대비하는 彈藥의 再補給과 崩壞된 陣地의 一角을 손질하여야만 되었다.

그런데 전날 薄暮무렵에 연대에 배속된 서울 特別聯隊(장, 俞海濬 중령)에하의 육사 교도대(장, 金應勇 소령)가 汶山으로 부터 밤새 行軍한 끝에 이날 拂曉에 坡平山 右側方에 있는 西麓에 도착하였다.

교도대는 잠시 休息을 取한 다음 △357를 점령키 위하여 金應勇 소령 指揮下에 該高地 西麓으로부터 草木사이를 헤치면서 산을 타기 시작하였는데 中腹에 오르기도 前에 頂上에서 敵의 射擊을 받게 되었다.

교도대가 汶山으로부터 移動하는 밤사이 該高地의 頂上을 이미 占據한 것이다.

이에 교도대장 金應勇 소령은 잠시 부대를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隱蔽시킨 뒤 黎明을 利用하여 該高地 西麓에 솟은 無名高地(推定標高 230m)를 점령하였다.

이 無名高地는 △357와 연결된 稜線으로 1km 程度가 떨어져 있으나 이 사이에 △357頂上에서 西側으로 벌은 또 하나의 高地(推定標高 : 310m)가 500m거리에서 교도대가 배치된 高地를 側方에서 瞰制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敵은 相對的으로 有利한 위치에서 天明과 더불어 이들 高地 곳곳에 突出된 岩石 사이를 跳梁하며 射擊을 再開하였는데 사격전이 치열하게 되자 어느덧 교도대 西側方에 배치된 제1대대(장, 金振晔 소령)가 이 射擊戰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 까닭은 雙方의 交戰中에 적지않은 敵火가 제1대대 右側方을 威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該대대가 判斷하기를 전날밤에 배치된 교도대가 밤사이 頂上의 撤收한 것으로 알고, 射擊戰에 끼어든 것이었다.

이러한 誤判은 교도대와 대대간에 直接통신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推斷되는데 倥倥이도 교도대가 배치된 △230가 제1대대 側後背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我軍끼리의 銃聲은 免할 수 있었으나 兩부대간의 연락은 끝내 維持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로 제1대대로부터 右側方 威脅에 대한 보고에 接한 연대장 金益烈 대령은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과 연대의 右側方 防護策을 熟議하였는데 이 結果 연대 直轄隊병력을 動員하자 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이날 10.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직할대의 일부병력을 동원하여 연대 右側方을 방호하려한다.

② 연대 소직할부대장은 전병력을 本 명령 접수와 동시에 연대본부에 집결시켜 柳重秀 대위의 指揮를 받게하라.

③ 柳重秀대위는 직할대 병력을 混合편성하여 坡平山 右側方에 투입할 준비를 하라.』

이러하여 보병학교에서 被教育中에 原隊復歸한 前 헌병대장 柳重秀 대위는 집결된 병력으로 2개중대를 편성하여 출동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357의 敵과 제1대대가 새로운 接戰을 벌이는 동안, 교도대는 兩高地의 窪地에서 사격으로 敵을 견제할뿐 敵의 瞰制下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金谷으로부터 △211후방(교도대 直後方 1km)까지 推進된 포병제2중대(장, 全南植 중위)의 105mm곡사포 2문의 支撥사격으로 겨우 진지를 支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正午가 지나자 △357로부터 1개중대 규모가 △357 南麓으로 迂回하여 교도대의 側後背를 強襲함으로써 교도대장 金應勇소령은 철수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하여 교도대가 三三五五로 분산되면서 △211 西側方의 峽谷으로 나오게 되자 이를 追跡하는 敵勢에 밀려 이곳에 배치되었던 지원포병이 放列된 2문의 105mm곡사포를 미처 태내지 못하고 말았다.

이때에 교도대 제1중대 선임장교 崔在均 중위는 △230에서 貫通傷을 당한 陸士의 중대장 金철수 대위를 중대원과 같이 부축해 나오다가 金谷에 이르렀을때 끝내 出血過多로 戰死하자 중대를 대신 이끌고 奉日川으로 나왔으나 교도대장 金應勇 소령은 △230에서 失蹤된듯 撤收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또한 포병제2중대장 全南植 중위에 대하여는 그 후에 砲를 잃은 自責과 痛憤을 참지 못하고 奉日川으로 나오는 途中에 수류탄으로 自爆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대대의 敵 擊退: 한편 坡平山의 제1대대(장, 金振暉 소령)는 右側方(△357)의 敵을 牽制하는 가운데 이날 13.00가 넘자 대대 右前方 道路邊에 蟻集하는 새로운 대대규모의 敵을 맞게 되었다. 그들은 대대陣前을 東西로 흐르는 노리川을 東으로 迂回하여 △353의 敵과 더불어 대대의 右第一線인 제3중대를 直衝하였다.

이에 중대장 白南垣 대위는 右제1선소대로 하여금 계속 東側方의 敵을 경계토록 하는 한편 남어지 중대의 全火力을 陣前에 集中시킨뒤 대대장에게 지원 火力을 要請하였다.

이러하여 중대前面에는 순식간에 피아의 鐵火가 交叉되었는데 여기에 대대 81mm迫擊砲의 집중에 이어 金谷里에 布陣한 105mm曲射砲가 咆哮하자 陣前에 산개한 그들의 隊伍가 줄이 끊어지듯 이그러지더니 오래되지않아 피 비린내와 같이 도처에 屍體를 남긴채 △357 北麓으로 敗走하고 말았다.

전날에 이어 該대대가 여러차례의 敵 공격을 擊退할 수 있었음은 將兵들의 敢鬪精神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이 보다도 坡平山이라는 敵보다 相對的으로 有利한 瞰制地區에 戰爭전에 미리 진지 편성을 完了한데 있다고 하겠는데, 이날의 전투에서도 대대 東側方의 敵들은 傾斜도가 가파르고 山麓邊에 突出된 岩石등으로 東側方으로부터의 侵攻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제2대대지역의 敵優透 : 한편 연대의 左一線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는 高浪浦쪽에서 臨津江을 渡江한 것으로 보이는 대대규모 이상의 敵이 이날 아침부터 長坡里와 介石洞 北쪽의 무명고지間に 展開하여 該대대지역에 사격을 집중하더니 右一線 제1대대 지역에 공격을 개시한 같은 時刻에 例의 江邊 1번道路를따라 數未詳의 戰車와 더불어 縱隊를 이룬 한무리가 대대 中央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交叉路부근에 배치된 연대 대전차포에 이어 대대가 一齊히 사격을 개시하였는데, 57mm대전차포의 화력에도 不拘하고 敵의 戰車는 불을 吐하면서 地軸을 울리며 陣前에 迫到한 것이다. 이에 대전차포의 無力을 慨嘆하면서 同중대가 撤收를 開始하자 그뒤를 따를듯 敵戰車가 박석고개에 밀어닥쳐, 砲身을 돌리면서 威脅사격을 가하니 이와 銳氣가 挫折된 병사들이 個別的으로 隊伍를 離脫케 되어 굵기야는 대대의 右一線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醜敵의 한집단이 侵襲하자 끝내 右一線중대가 분산이 되어 右隣接 제1대대와 사이에 侵透路가 擴大되고 말았다.

연대장의 措置 : 한편 연대본부는 이 急報에 接하는 즉시 전날밤에 金谷里에 集結한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로 하여금 逆襲을 敢行코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可用병력으로써 제2대대지역에 형성된 侵透口에 대하여 역습을 준비하려한다
- ② 제3대대장은 依命 D일 H시를 期하여 逆襲을 개시, 제2대대지역에 侵透한 敵을 擊滅하고 主陣地를 奪還할 준비를 하라.
- ③ 제2대대장은 최대한으로 敵의 侵透를 阻止하고 제3대대의 逆襲에 대한 화력 지원을 준비하라.
- ④ 제1대대장은 대대의 西側方을 警戒하고 제3대대의 逆襲에 대한 화력지원을 준비하라.
- ⑤ D일H시는 후달한다.』

이리하여 대대는 金谷里에서 逆襲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1대대지역의 敵優透 : 연대의 左右一線에서 敵의 侵攻이 계속되는 가운데 17.00에 앞서 한차례의 敵襲을 擊退한바 있는 제1대대지역에 이번에는 介石洞 北쪽으로부터 대대규모가 中央第一線인 제1중대(장, 張德守 대위)지역에 一齊사격과 함께 直衝하였다. 중대장의 사격명령 一下에 火力이 이에 集中하는 同時에 대대 觀測所에서 戰況을 始終 지켜보고있던 대대장 金振暉소령의 지원사격 명령에 따라 대대 81mm迫擊砲와 105mm 曲射砲가 集中

砲擊을 개시함으로써 이의 轟音이 戰野를 震動시켰다. 그들의 후방에는 督戰隊가 뒤따르듯 隊伍가 瓦解되면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를 다시 整齊하여 執拗하게도 그들 중의 일부가 砲擊의 간격을 利用하여 제1중대 진지에 亂入하려는 것을 그 直前に 중대장 張德守대위의 陣頭指揮로써 간신히 阻止하였는데 이때의 상황을 당시의 중대본부요원이었던 崔興圭 하사는 그의 證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당시 중대장 張德守 대위와 함께 觀測所에 있으면서 이 전투에 參戰하였다. 我軍의 集中砲火를 뚫고 결사적으로 진지에 육박하는 소대 미만의 敵을 중대장 지휘하에 다른 요원들과 함께 수류탄으로 격퇴하였다. 敵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보관된 수류탄 箱子를 열어 놓고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닌데 수류탄의 安全 pin을 뽑는 者와 던지는 者가 나누어져서 이를 投擲하게 되었는데 수류탄을 던지고도 炸裂時까지의 2~3초 동안의 時間이 늦는 感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중대장은 投擲組의 組長이기도하여 直接 던지면서 싸웠다. 이때의 敵은 중대 觀測所를 目標로 삼아 공격해온 것으로 記憶한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一波가 左側 제2중대(장, 申鉉祚 중위) 전면에 물리게 되자 이에 배치된 중대가 左隣接인 제2대대의 金坡里지역에 侵透한 敵과의 挾擊으로 끝내 陣地의 一角을 侵蝕당하고 말았다.

이에 이르자 연대는 이날 前半夜에 敢行키로 企圖한 제2대대지역에 대한 逆襲을 역습부대의 능력과 규모로 보아 不得已 중단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날 日沒전에 柳重秀 대위가 指揮하는 直轄隊의 병력으로 金谷里 北쪽 2.5km의 稜線에 배치하여 연대 側後背를 경계 시키고 계속 상황을 注視하게 되었다.

## 2. 제11연대의 상황

제1대대의 接戰: 전날 汶山 突出部의 最先端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 제1대대(장, 高漢祚 대위)는 國道の 右側인 馬田里에 제1중대(장, 張根述 대위)를 배치하여 대대의 右第一線으로 삼고 제2중대(장, 金奉權 중위)를 그 左側에 배치하여 左第一線으로 삼았다. 또한 제3중대를 대대의 예비로써 전방중대 후방에서 예비진지를 점령케 하여 대대의 중심을 維持케 하였다.

이와 同時에 연대로부터 뒤늦게 當到한 57mm대전차포 2문을 제1, 제2兩중대간의 國道兩邊에 배치하여 戰車에 대비 시킴으로써 부대배치가 끝나게 되었다.

어느 덧 밤이 되어 陰歷 10일의 上弦달이 中天에 떠올라 臨津江邊을 대낮 같이 밝히기 시작하자 이에 대대장은 대대 前面에 대한 夜間觀測이 良好함을 보고 진지로부터 200~300m 거리에 설치한 각중대의 聽音哨를 觀測이 可能한 거리까지 推進하도록 指示하여 敵侵을 早期 警報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子正이 지나고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뒤 江邊 가까이 推進된 哨所가 撤收하면서 『臨津江 鐵橋로부터 敵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警報가 △64(제3중대 西側背에 位置)

의 대대 觀測所까지 傳達이 되었다. 이 報告에 接한 대대장 高漢祚대위는 즉각 각중대장에게 命令하기를 『敵이 陣前에 近接할때까지 사격을 금한다.』라고 하고, 앞서 57mm대전차포의 진지와 각중대 진지의 병력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무렵 제2중대지역에 나와 있던 부대대장 高林鉉 대위를 無電機로 불러 이를 확인토록 지시하였다. 제2중대에서 이에 대한 無電연락을 받은 대대장은 이미 該중대에 있으면서 중대장으로부터 直接 보고를 받은지라 그 즉시 소대장 1명을 帶同하여 鐵橋부근까지 나가 이를 확인하였는데 果然陷兵의 報告대로 규모未詳의 敵이 전교를 건너온 다음 北岸 左右側으로 散開하고 있었다. 또한 鐵橋에는 戰車로 보이는 검은 物體가 中間에 걸쳐 있음을 目擊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本陣에 돌아와 이에 대한 邀擊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뒤에 鐵橋를 건너듯한 5대의 戰車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진전 500m까지 肉迫하는 것을 본 대대장은 즉시 대전차포 소대장에게 射擊을 호령하였다. 이때에 이들 대전차포병이 기다렸다는듯이 즉각 砲 1문으로 射擊하자 첫발에 先頭 戰車의 앞면에 命中하여 불꽃이 四方에 튀기었다. 그러자 道路에 갇힌 진지에서는 『敵의 戰車가 깨졌다!』는 喊聲이 臨津江邊에 메아리치고 瞬息間에 이러한 朗報가 각 진지에 傳播되었다. 그러나 그 直後에 破壞된 줄만 알았던 戰車가 機關銃을 사격하는 동시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다. 意外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이에 포병에 또 한 문의 대전차포로 그 즉시 射擊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전과 같았다. 2발의 砲彈을 맞고도 戰車가 再次 움직이니 상황이 달라졌다.

이리하여 대전차포소대는 진지에 대기시켜놓은 3/4톤 추력에 매어달고 철수하려 하자 이를 본 대대장 高漢祚 대위가 『撤收하지 말라』고 외쳤으나 이들은 異口同聲으로 『대전차포는 한발을 사격하면 즉시 陣地를 變換하여야만 됩니다.』라고 하면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뒤를 따르듯이 도합 5대의 敵戰車가 기관총 사격에 이어 砲聲까지 곁들여서 대대의 中央을 突破하여 그 후방까지 侵透한데다가 여기에 전차를 뒤따른 대대규모의 敵이 일거에 掩襲함으로써 치열한 交戰상태에 突入하였다. 이때에 제2중대장 金泰捷 중위는 戰車 破壞의 失敗로 因함인지 兵士들의 士氣가 沈滯된 것을 보고 중대 觀測所에서 뛰쳐나온 다음 각 散兵隊를 찾아 『중대장은 너의들의 옆에 있다.』고 병사들을 激勵하면서 중대의 陣頭 指揮에 나섰는가 하면 소대장 閔昌植중위등은 機關銃진지의 銃匣에서 上體를 露出한채로 機關銃을 兩손에 들고 敵에게 集中사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奮戰에도 不拘하고 상황은 不利하게만 되어 날이 밝을 무렵에는 대대의 左右一線이 대대 觀測所가 있는 △64 전방까지 밀리게 되고 09.30에는 汶山 外廓에 있는 丘陵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步兵學校교도대의 投入 : 한편 전날 오후 늦게 제11연대에 배속된 서울特別聯隊(장, 俞海潐중령)에하의 步兵學校교도대는 연대장 崔慶祿 대령의 명령에 따라 교도대장 金秉化 소령

이 그의 예하인 제1중대(장, 金東根 대위, 보교)와 제2중대(장, 朴慶東 대위, 육사)를 直接지휘하여 汶山으로 移動하는 同時에 나머지 제3중대(장, 李榮培 대위, 보교)와 중화기중대(장, 黃圭高 대위 보교)를 교도대부대장 林元錫 대위(보교)로 하여금 指揮케 하여 汶山浦 西側方의 굴촌裏에 出陣시켰는데 이날 새벽녘에야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연대장의 措置** : 한편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汶山突出部の 제1대대 主陣地가 무너지자 臨津江線을 연하는 前防禦線에 至大한 影響이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한시라도 빨리 恢復시키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逆襲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汶山突出部내의 主陣地를 恢復하기 위하여 역습을 敢行하려한다.

② 제1대대장은 10.40을 期하여 현접축선에서 역습을 敢行하여 主陣地의 右半部를 奪還하라.

③ 제3대대장은 10.40을 期하여 제1대대의 左側에서 逆襲을 敢行하여 主陣地의 左半部를 奪還하라.

④ 제2대대장은 현진지를 계속 固守하라.

⑤ 步兵學校교도대장은 최초 연대의 예비가 되었다가 별명에 따라 前方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

⑥ 공격준비사격 : H-15분

⑦ 역습간 화력 및 道路사용의 優先權을 西側대대에 附與한다.

⑧ 역습개시후 各대간의 直接통신을 허가한다.』

이리하여 赤田里의 제3대대(장, 金在命 소령)는 제1대대의 阻止線까지 2km의 距離를 急遽移動하여 제1대대와 더불어 역습을 감행케 되었다.

그런데 제1대대장 高漢祚 대위는 燧所山(汶山 南쪽 1km)에 위치한 연대 觀測所로부터 無電으로 역습명령을 받게 되자 지금 대대는 渾身의 힘을 모아 겨우 敵을 阻止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습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激憤하여 그 길로 연대로 내려가고 말았다. 대대장이 진지를 떠나자 그 周圍의 병력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부대대장 高林鉉대위가 『자리를 떠나는 者는 即決處分한다.』고 大聲一喝하자 동요의 빛이 수그러졌는데 잠시후 연대로 부터 온 無電연락은 『지금부터 대대는 부대대장 高林鉉 대위가 지휘하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부대대장이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제3대대의 進出에 따라 이날 13.00에 △64와 雲泉里間을 잇는 線까지 進出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제3대대 左側方에서 중대규모 이상의 敵이 새로 나타나자 該대대의 進出이 如意치않게 되었는데다가 여기에 제3대대 右側方에서 併行하던 제2중대의 중대장 金奉攪 중위가 陣頭에서 敵彈에 右側大腿部에 貫通傷을 입고 쓰러지게 되자 一時 指揮의 空白이 생기는등 頓挫狀態에 이르게 되.



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이에 步兵學校교도대를 사용키로 결심하고 즉각 교도대장을 無電機로 불러 了金秉化 소령은 可用병력으로 즉시 제3대대 左側方에서 역습을 개시하라.」고 命命하였다.

이리하여 汶山 北쪽에 위치하였던 교도대의 2개중대가 金秉化소령 指揮下에 勇躍 역습을 개시하여 비오듯 쏟아지는 敵彈속을 헤치면서 敵의 무리들을 무찌르게 되니 마치 대대 공격의 示範을 보여주듯 短時間내에 左側方의 威脅을 除去하고 일거에 盤靈里(臨津江 南쪽 江邊)까지 進出하였는데 제1, 제3대대의 奮戰도 이에 못지않았다.

즉, 당시 연대는 松嶽山 戰鬪이후의 慣例로써 모든 共用火器에 대하여서는 非常發令과 동시에 개인화기와 함께 각기 職責에 따르는 화기의 主要部品, 즉 81mm 迫擊砲의 경우 射手는 砲身을, 副射手는 砲脚을, 그리고 1번 彈藥手는 砲板등을 携帶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戰鬪발발과 동시에 연대는 外出에서 귀대한 병력을 逐次로 前方진지에 올려 보냄으로써 어떤 迫擊砲분대는 副射手의 外出귀대가 늦자 砲脚없는 砲身과 砲板만으로 사격에 임하였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鐵糸을 砲身에 감고 角度를 調整하는 方法으로 危急에 對處하였던 것이다. 비단 迫擊砲만이 아니라 機關銃의 경우도 이와 같았음을 전지 到處에서 發見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날 薄暮전에 右隣接인 제13연대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쪽으로부터 戰車와 함께 一群의 敵이 1번도로를 따라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右側方을 直衝하는 동시에 대대 側後方으로 迂回하여 汶山에 壓力을 加하는 것이었다.

### 3. 사단장의 措置

한편 사단은 左一線 제11연대가 역습을 成功的으로 敢行하고 있을 무렵에 右一線 제13연대의 상황을 注視하고 있었는데 該연대의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가 右端에 形成된 侵透口의 阻止에 置重하는 동안 戰車를 앞세운 敵의 集團이 1번도로를 따라 제2대대 陣前을 橫斷하여 南下함으로써 연대 右一線의 安危와 함께 萬若의 경우 연대의 退路마저 遮斷이될 威脅에 直面하게 되어 사단장은 참모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을 熟議하게 되었다.

그런데 高浪浦로부터 汶山浦까지 河川線을 따라 이어 지는 사단의 主抵抗線은 이그리진 黃牛의 兩角인양 크고 작은 數개의 彎曲部때문에 이에 配置된 사단의 左右一線 어느쪽이던 먼저 敵手中에 들어갈때에는 相對的으로 反對쪽 부대가 退路遮斷의 威脅을 받는 戰術上的 脆弱性을 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均衡이 維持되지않는 限, 不得已 兩개부대의 同時 撤收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 白善燁대령은 狀況이 이에 이르자 사단의 방어선을 奉日川의 제2선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撤收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6월 26일 19.00를 期하여 현방어선으로부터 계획된 제 2방어선을 점령하라 한다.

② 제13연대는 金谷—奉日川간의 307번도로 및 坡州 東側邊의 도로를 사용하여 제2방어선의 右—線전지를 점령하라.

③ 제11연대는 汶山—金村간의 도로 및 坡州 西側邊의 도로를 사용하여 제2방어선의 左—線전지를 점령하라.

④ 제12연대는 汶山 南쪽에서 부대정비를 계속하고 별명에 의하여 사용될 준비를 갖추라

⑤ 제15연대(-2)는 金村 北쪽에서 전방부대의 철수를 掩護하라.

⑥ 제20연대 제3대대는 金村 東北쪽에서 진지를 편성하라.

⑦ 기갑연대 장갑소대는 지역내에서 계속 敵情을 수집하라.

⑧ 공병대대는 대전차攻擊을 위한 特殊임무부대를 편성하여 1번도로상에서 敵戰車의 校攻을 擊退하라.

⑨ 사단전방지휘소는 21.30이후 奉日川國民學校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전방연대가 撤收를 개시하고 예정대로 사단전방지휘소는 21.30에 奉日川國民學校에서 開所하였다. 이러한 撤收명령을 받으면서도 敵과의 接觸中이던 제13연대 제1대대는 마지막 撤收부대로써 이날 後半夜인 27일 黎明에 坡平山에서 비로소 撤收를 개시하였다.

한편, 사단은 이에 앞서 이날 早朝에 金村 北쪽의 「용산골」에 到着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로 하여금 진지점령과 동시에 充分한 工事を 이날 낮동안에 完了토록 強調하는 한편 오후 늦게 光州로부터 到着한 제20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제15연대 제3대대가 배치된 그 右側方에 배치케 하여 一次的으로 流動的인 전방상황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날 全盛鎬대령의 後任으로 金點坤중령이 제12연대장으로 赴任하였다. 그는 사단에 도착하는 즉시 汶山 南쪽에 集結한 開城에서 撤收한 同연대의 일부 병력을 장악하여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대전차특공대의 편성과 그 活動: 사단으로부터 대전차 공격을 위한 特殊임무를 부여받은 사단공병대대장 張治殷소령은 奉日川 國民學校부근에 위치한 대대본부에 돌아오는 즉시 부대대장 金永錫 소령으로 하여금 特攻隊편성을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金永錫소령은 대대본부 요원과 전방으로부터 撤收한 일부병력중에서 特攻隊의 志望者 30餘名 가운데서 21명의 사병을 선발한 뒤 1개분대 7명씩 도합 3개분대를 편성하고, 통신병 1명과 대대본부의 徐世成 상사를 선임하사관으로 임명하고 特攻隊長 요원의 人選이 如意치않자 自身이 스스로 特攻隊長으로 나섰다. 金소령은 이 날밤 대대본부의 野戰天幕안에 이들을 모아놓고 殉國을 다짐하는 한잔 술로써 서로가 입술을 적신 뒤 전원의 遺書 23통을 대대부관 李時鍾

# 遺書

三方民族의 協定은

自由와 平等의 理想을 實現

하는 志氣가 萬分 높으나

먼저 協定이라

언제나 誠心 誠意로 行하되

한 이 事를 爲해 大해 苦勞

한 功을 爲하야 地下에서 感謝 들었나

다 老年의 苦勞와

誠信 楊等이

가 人生의 末路인 故에 故

아무 功을 爲하야 幸福

하오나

楊永錫 八月二十六日

突入을 爲하야

남현 김영석

<특공대장 김영석 소령의 遺書>

소위에게 말기면서 이를 뒷날 각 遺族에게 傳해줄 것을 부탁하고 곧 22명의 隊員과 함께 미리 준비된 爆藥을 車輛에 싣고 一路 汶山방면으로 향하였다.

이리하여 대전차공격에 有利하다고 判斷된 鳳岩里(汶山 南쪽 5km)에서 車를 돌려보낸 뒤 北으로 700m거리에 있는 △82 西麓에 沿한 道路邊에 개인호를 파고 敵戰車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特攻隊員 각자가 휴대한 爆藥은 TNT I과운드 짜리 20개를 한류음으로 묶고 四角形을 이룬 그 속에 手榴彈 1개를 끼어넣어 만든 것으로서 사용시에는 수류탄의 안전 펜을 뽑고 戰車에 突入하도록 考案한것인데 그 原理는 간단하나 펜을 除去하고 폭발시까지 3초의 시간 여유밖에 없었으므로 擧事後 隊員自身の 起死回生과 같은 요행은 아예 바랄 수 없도록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特攻隊라고 부르기보다 決死隊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들 特攻隊는 대전차공격에 단반의 態勢를 취하고 四周경계에 임하였는데 이날 子正을 넘기고 어느덧 拂曉가 되었을때 突然 △82 頂上에서 彼我를 識別할 수 없는 1개소대규모의 병력이 山麓을 向하여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金永錫소령은 즉각 각개인호에 傳達하여 命令一下에 一擊必殺의 태세를 취한 다음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山麓에 到達한 그들은 警戒의 빛도 없이 以北의 方言을 마구쓰면서

道路邊에 나오자 이에 金소령등은 즉각 敵이라고 直感하고 20~30m 거리에 모여든 그들을 향하여 金소령의 銃聲一發의 사격신호에 따라 一齊사격을 加하였는데 이에 그들은 미처 도망할 틈도 없이 마치 標的을 넘어뜨리듯 周圍에 쓰러지고 말았다. 不過 10분 안밖의 銃擊이었다.

이때가 上弦달이 西山에 기울고 바야흐로 날이 밝아오는 무렵이었으므로 空際線에 露出된 敵을 陰地에 있던 特攻隊가 쉽게 捕捉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들은 特攻隊의 은밀한 행동에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날이 밝자 金永錫소령은 몇 사람의 隊員으로하여금 그 一帶를 搜索하여 그들이 裝備하였던 화기를 모았는데 水冷式기관총 1정, 多發銃 8정, 蘇製소총 5정, 권총 2정 등 도합 16정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金소령은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위하여 通信兵을 대동하여 △82에 올라가 奉日川의 대대본부와 無電交信을 試圖하였으나 되지않자 隊員들의 朝食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밤사이엔 죽음을 覺悟하여 나온 탓으로 휴대용 乾빵조차 갖지않았던 것인데 生命이 延長된 까닭에 給食을 취하여야만 된 것이다. 이에 金永錫소령은 該고지에서 汶山을 바라다보았으나 1번도로상에 좀체로 敵影을 찾지못하자 이 틈을 利用하여 本隊에서 朝食을 취하여 다시 出陣기로 결심하고 徐上士가 부락에서 끌고온 수레에다가 鹵獲品을 싣고 이날 09.00에 撤收하고 말았다.

**6월 27일** : 전날 臨津江방어선으로부터 撤收를 개시한 사단의 예하부대들은 이날 아침사이엔 奉日川전방의 제2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사단의 새로운 방어선은 東으로부터 西로 倉滿里(金村 東北쪽 8km)一新山里-△151-△47-△229를 연하는 線인데 이곳은 汶山一帶에서 南下하는 敵을 敵制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陣前에는 汶山川을 中間에 끼고 南北으로 闊豁한 水田地帶를 이루고 있어 防禦에 有利한 輿件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내에는 汶山에서 서울에 이르는 國道(1번도로)와 坡州에서 高陽에 이르는 支線道路(307번)가 있어서 敵戰車의 機動路가 될것으로서 防守에 不利한 一面도 있을 것이었다.

제15연대장 崔榮禧 대령의 1개대대와 제20연대의 제3대대는 제11연대전방에 事前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의 左一線은 2重방어선으로 편성된 셈이었다.

이리하여 이날 10.00에는 左一線전방의 제15연대가 汶山으로부터 南下하는 敵 제6사단 예하의 2개대대와 激突한 것을 始初로 12.00에는 그들의 增援戰車를 1번도로상에서 擊破하고 또한 右一線 제13연대는 이날 19.00부터 戰車를 同伴한 敵제1사단의 연대규모와 激戰을 벌이는등, 그들의 火箭이 首都圈의 마지막 堡壘인 奉日川線으로 옮겨져 彼我的 血雨가 霏霏하는 決戰場으로 化하였다.

한편 右隣接인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전날에 議政府지역에서 後退함으로써 彌阿里

外廓에서 敵을 阻止하게 되었다.

### 1. 제15연대의 상황

전날 金村 北쪽에서 진지를 편성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는 제10중대를 1번 道路 東側方(韋田里 南쪽 丘陵)에 배치하고 대대의 主力을 龍山谷의  $\Delta 229$ 와  $\Delta 119$ 에 배치하여 1번 道路와 그 西側方에서 南下하는 敵에 대비하는 한편 밤을 이용하여 진지공사를 하는등의 奔走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特別히 1번 道路에 대한 대전차방어를 위하여 각중대에서 抽出한 6문의 2.36" Rocket砲를  $\Delta 119$  東麓의 道路邊에 縱深배치하고 사단으로부터 支撥된 57mm대전차砲 6문을 제10중대 西側方의 1번 道路邊 東側에 3문단위로 分割배치하는 가운데 全대대가 이날 早朝까지 진지공사를 完了하였다.

또한 제15연대 제3대대보다 뒤늦게 金村에 도착한 제20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는 제15연대의 제10중대 右側方인 都内里에 배치하여 이날 10.00까지도 계속 공사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 10.00무렵에 1번도로와 그 西側方의 丘陵地로부터 각각 1개대대규모가 진전에 나타났다.

道路上의 一群은 韋田里일대의 水田을 피하여 도로와 京義線 鐵道の 曠을 따르고, 또 한 무리는 汶山川 西邊의 小路를 따라 제3대대 진지에서 일단 丘陵을 越령한 다음 그 일부가 一齊사격을 加하면서 대대의 左第一線인 제9중대 전면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Delta 119$ 의 대대 觀測所에 위치한 대대장 崔炳淳소령은 즉각 제9중대로 하여금 射擊을 開始토록 하는한편 中央 第一線인 제11중대의 60mm迫擊砲를 제9중대 전면으로 指向시켜 이를 지원케 하고 屯田洞 뒷산에 진지를 편성한 중화기중대장으로 하여금 대대 81mm迫擊砲의 集中사격을 加하게 하여 이들을 30분만에 擊退하고 말았다.

이러한 戰況때문인지 한편의 도로상의 무리는 縱隊대형으로 내려오다가 突然 일어나는 이 砲聲에 隊伍를 멈추어 汶山川 對岸邊의 도로와 鐵道에서 산개하였다.

이리하여 敵과 800~1,000m의 거리를 두고 對迫擊砲戰이 展開되었는데 그들은 右一線 我軍과 遭遇하자 水田地帶에서 散開를 못하고 汶山川邊을 擇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砲擊戰은 오래가지 않고 衰退해졌는데 12.00가되자 100騎가량의 騎馬隊를 先頭로 한 戰車가 1번도로를 따라 汶山川邊까지 南下하였는데 그 後方 鳳岩里까지 잇는 敵戰車는 18대에 달하였다.

이에 대대장 崔炳淳소령은 대전차화기를 사용할때가 왔다고 直感하고 그 즉시 옆에 위치한 제11중대장 李善道 대위에게 『敵이 300m이내에 들어올때까지 射擊을 하지말라.』고 이른 뒤 이어서 『射擊명령은 대대장이 赤色신호탄 1발을 發射한다.』라고 하고, 이를 다시 道路건너편에 배치된 제10중대장에게 無電으로 指示한 다음 戰車가 接近할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무렵 도로변의 2.36" Rocket 砲전지에서는 각기 掩體壕속에서 砲彈을 裝填한채 開放된

無電機에 귀를 기울여 사격명령이 내려오기를 待機하고 있었다.

이윽고 敵戰車가 서서히 砲 進전에 다가오를 지켜본 대대장이 이에 『사격개시!』를 連續으로 외치면서 연락병이 準備한 赤色불꽃信號彈 1발을 쏘아올리게 하자 그 瞬間에 긴 拋物線을 그리는 絢爛한 赤色の 불꽃이 四方으로 飛散하였는데 이에 맞추어 6문의 Rocket 砲가 一齊히 불을 대하였다.

이에 先頭의 1번 戰車가 주춤하면서 서게되자 그 뒤를 잇는 戰車가 동시에 進전에서 서고 말았다.

그러나 破壞된 줄 알았던 戰車는 그 直後에 機關銃사격을 加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몇대의 戰車는 사격도 잇은 채 Rocket砲 진지를 急衝하더니 위로 부터 掩體壕를 갈아 뚫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路邊 가까이 위치한 몇개의 진지는 崩壞되어 흙을 파헤치듯 軌道에 할킨 뒷자욱 속에서 我軍의 兵士가 기어나오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와같이 突變하자 이에 대대장 崔炳淳소령은 여기에서 自身이 躊躇逡巡함은 곧 대대가 全滅하게 된다고 白覺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敵 戰車를 破壞할 方法은 手榴彈을 戰車속에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고 直感하고, 매마침 그들이 6월의 酷暑에 못견디 타인지 戰



〈진지를 이동중인 我軍의 對戰車砲〉

車의 覆蓋를 열어채치고 示威라도 하듯 半身을 내어밀고 있는것을 보게되자 즉각 手榴彈으로 공격키로 결심하고 제11중대장 李대위에게 『지금부터 제11중대는 手榴彈으로 突擊하라. 대대장은 6번 戰車를 目標로 突擊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自身이 먼저 數發의 手榴彈을 몸에 지니고 앞장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突擊명령을 하달한 제11중대장 李善道 대위도 함께 그 뒤를 따랐는데 이때에 제10중대 西側方 路邊에 배치된 57mm대전차砲가 敵戰車를 사격으로 固着시키고 있었다.

이리하여 突擊부대가 一時에 路邊에 도달하자 그들은 戰車의 覆蓋를 다시 닫고 機關銃을 마구 쏘기시작하였는데 이때 道路전너편에 배치된 제10중대의 西側方소대마저 이에 加勢되어 제11중대와 더불어 自動火器사이를 헤치며 四方에서 戰車를 掩襲하니 마치 굼주렸던 독수리떼가 먹이를 찾은듯 하여 瞬息間에 戰車에 오르는 者가 있는가 하면 그 直前에 쓰러지는 者가 있고, 戰車에 올랐다가도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 중의 어떤 隊員은 回轉하는 砲塔에 매어달린채 열리지 않는 覆蓋를 열다가 뒷 戰車의 自動火器에 戰車아래로 굴러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적지 않는 死傷者가 나오는 奮戰끝에 1번과 6번 戰車의 砲塔속에 手榴彈을 집어던짐으로써 隊列속의 4대의 戰車와 함께 6대의 戰車를 捕獲하였다.

그러나 이 渦中에서 제11중대장 李善道대위가 壯烈하게 戰死하는 동시에 30여명의 死傷者를 내었으며 또한 대대장 崔炳淳 소령도 6번 戰車에 올랐다가 砲塔의 갑작스러운 回轉으로 落傷을 입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17.00무렵까지 전면의 敵을 阻止, 擊退하게 되었으나 밤이되자 砲擊과 함께 주간보다 많은 戰車를 同伴한 연대규모의 敵이 汶山川을 渡河하여 一齊공격을 加함으로써 연대장 崔榮壽 대령이 陣頭指揮에 나섰으나 얼마되지 않아 彈藥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더 以上の 支撐이 어렵다고 判斷한 연대장은 保有한 彈藥을 모두 射盡한 다음 亞하대대를 奉日川으로 撤收시켰다. 그런데 연대의 右一線인 제20연대 제3대대가 撤收한 뒤를 따라 敵의 일부가 사단 右一線인 제13연대의 西側背(제3대대지역)로 迂回侵透함으로써 때마침 내리는 빗속에서 彼我的 夜間混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 2. 제13연대의 상황

臨津江방어선으로부터 奉日川으로 撤收한 제13연대는 이날 아침에 到着한 제1대대(장, 金振暉 소령)를 倉滿里의 丘陵을 점령토록 함으로써 이에 앞서 △151를 점령한 左一線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에 이어 右一線의 병력배치가 끝났는데 比較的 戰力의 消耗가 컸던 제2대대(장, 尹千泰 소령)는 연대의 예비로 돌려 東巨里주변에 예비진지를 편성케 하였다.

그리고 白石洞으로부터 移動한 연대指揮所를 이날 아침에 △277(東巨里 南쪽 2km) 南麓에 設置하여 연대는 早朝부터 진지 공사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그러나 該연대의 작전상의 脆弱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 東側方은 右隣接인 제7사단이 그

의 主力을 陸軍本部의 指示에 따라 議政府 北쪽에 投入케 함으로써 守방어선을 잇는 사단간의 前線調整은 고사하고 兩부대간의 전투지경선 조차도 없는 狀態였다.

따라서 연대는 右一線 제1대대로 하여금 東側方방호에 留意하여 進지를 편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연대의 左隣接인 제15연대가 이날 10.00무렵부터 敵과 交戰상태에 있는 동안 제13연대 前線에서는 보기 드문 小康상태가 持續되어 進지공사에 置重하면서 제15연대의 상황을 銳意 注視하였다. 이날 공사가 끝날때인 19.00가되자 突然 연대前線으로부터 數미상의 戰車를 앞세운 一群의 敵이 進전을 東西로 흐르는 汶山川 北쪽에 나타나 砲擊과 더불어 공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戰車는 연대의 左右一線대대간을 南北으로 通하는 307번 道路를 따라 南下하였으며 그 戰車를 掩護하듯 주위에 보병이 따랐다. 이에 연대의 左右一線대대가 約定이라도 하듯 各각 全火力을 集中한데 이어 제1대대 西側方 路邊에 배치된 57mm대전차포가 集中火力을 퍼붓고 이어서 지금까지 東巨里 西南도로상에서 제15연대를 지원하던 포병 제3중대의 105m폭사포가 연대의 사격요청으로 方向을 돌리니 이에 戰車를 뒤따르던 무리가 瞬息間에 周圍에 흩어지는 동시에 戰車를 掩蔽物로 삼는 者도 있었다. 그러자 이중 先頭의 戰車 1대가 我軍의 集中砲火에도 不拘하고 隊伍를 벗어나 제1대대 西側方에 單獨으로 急衝하였는데 이에 路邊에 배치되었던 제2중대(장, 申鉉祚 중위)의 3문의 2.36" Rocket砲가 至近距離에서 戰車左側軌道에 一齊사격으로 砲彈을 集中하자 連鎖폭음과 함께 連結部位에 命中한듯 戰車가 움직이다가 連結쇠가 끊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自走力을 상실한 戰車 1대를 捕獲한 뒤 도망치려고하는 승무원을 射殺하였다.

이리하여 到處에서 외치는 快哉소리에 그간 沈滯되었던 士氣가 鼓舞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이에 敵은 退潮와도 같이 汶山川 北岸으로 물러났으므로 어느 덧 彼我的 사격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張春權 소령이 指揮하는 제18연대 제2대대가 연대의 東側方으로부터 연대지역에 撤收하였다. 이들은 앞서 德亭里부근에 출동하여 道樂山(△441)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東豆川을 侵襲한 敵이 3번도로를 따라 議政府지역에 侵入함으로써 撤收의 時機를 놓친채 한때 敵地에서 孤立되었다가 奉日川쪽으로 退路를 찾은 것이다. 이리하여 東巨里 東側方에 나오다가 여기에 배치된 제13연대 제1대대(장, 金振暉 소령)에게 처음에는 敵으로 誤認되어 몇발의 사격을 받았으나 太極旗를 흔들면서 我軍임을 밝혀 제1대대의 將校가 제18연대 제2대대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연대지역으로 引導되었다. 이들이 연대指揮所 부근에서 휴식에 들어가자 연대장 金益烈 대령은 병력부족이 極甚한때인지라 이들로 하여금 연대 東側方방호에 사용코자 張春權소령에게 연락하여 병력의 支援를 要請하였는데, 이에 張소령은 부대대장 尹鐸重 소령을 보내, 이를 拒絕하였다. 그 理由는 병사들이 2日間이



나 給食을 못받는데다가 疲勞가 겹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보다 먼저 이들에게 食事를 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金益烈대령은 연대 亦是 補給事情이 어려워 2일간이나 食事를 못한채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撤收를 그대로 두어야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음날인 28일 아침 議政府로부터 高陽으로 撤收한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과 劇的으로相逢케 되어 本隊에 合勢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薄暮무렵부터 한바탕 소나기를 퍼부을듯한 黑雲이 하늘을 덮었는데, 이로부터 얼마뒤에 周圍가 어두어진 다음 연대의 左—線인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 西側背로 侵透한 규모미상의 敵이 △151후방으로부터 제3대대에 대하여 夜襲을 加한데 이어 대대규모 이상이 右—線 제1대대 東側方을 迂回하여 연대 예비가 배치된 東巨里까지 侵透하므로 연대에는 마침 쏟아지는 驟雨속에서 漆夜의 亂戰을 치루었다. 비가 그친 새벽에는 一群의 敵 騎馬隊가 지휘소 부근의 연대 通信所를 奇襲하는 등의 事態까지 먼저 天明이 되었을 무렵에는 主陣地의 殆半이 敵에게 점령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金益烈대령은 예비인 제2대대(장, 尹千奉 소령)로 하여금 右側方의 敵을 固着시켜 이름을 이용하여 전방대대를 東巨里 東쪽으로 뿔고 맡았다.

그리고 연대는 지휘소를 4km후방의 龍尾岬에 다시 設置하는 동시에 앞서 撤收한 예하 제1대대를 석방동의 △163에, 제3대대를 東巨里 南方(1km)의 △89~△143에, 그리고 제2대대를 옥교동의 △248전방에 再配置하여 阻止진지를 편성케 하였다.

### 3. 사단장의 措置

전날 19.00, 臨津江방어선으로부터의 撤收를 명령한 사단장은 奉日川—金村간에 계획된 제2방어선으로 誘導키 위하여 사단의 參謀장교와 憲兵병력을 동원하여 지역내의 交通要所와 진지 進入路상에 배치하는등 부대 철수의 원활을 期하였다. 이에 따라 左—線의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도 이날 아침사이에 誘導兵의 案内로 계획된 진지를 確保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제11연대는 臨津江방어선의 態勢와 같이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를 右—線으로 삼아 奉日川 뒷산에, 제1대대(장, 대리 高林鉉 대위)를 左—線으로써 △107(金村 東側方)에, 그리고 앞서 역습에 참가한 제3대대(장, 金在命 소령)를 연대의 예비로써 金村 南쪽에서 예비진지를 편성케 하였는데, 該연대의 全대대가 敵과 一戰을 치루었던 관계로 비교적 戰力의 消耗도 컸었다. 그러나 제15연대가 該연대 전방에 배치된 까닭으로 많은 시간을 부대정비와 진지보완에 보낼 수가 있었다.

또한 金秉化 소령 指揮下에 역습에 참가한 步兵學校교도대의 2개 중대는 撤收도중에 隊伍가 흩어져 그 일부가 이날 오후에 신선洞(奉日川 南쪽 3km)에 集結하고, 제13연대에 배속된 陸士교도대의 撤收병력도 여기에 合勢하게 되었다.

그런데 汶山浦 西側方의 굴촌리에 配置되었던 林元錫 대위 指揮下의 步兵學校교도대의 殘餘중대가 밤새 汶山川 西側方의 稜線을 타면서 이날 11.00에 金村 삼거리까지 나오게 되어 여기에 있던 작전주임 李龍 대위를 만나 撤收부대들이 奉日川방면으로 내려간 것을 알고 13.00무렵에야 奉日川 國民學校부근에 集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 교도대들은 각기 相異한 場所에서 부대정비에 임하였는데, 이날 薄暮무렵에 제13연대로부터 『제18연대 제2대대가 제1대대의 東側方으로 부터 사단지역에 撤收해 왔다.』고 하는 報告를 받은 사단장은 이에 대하여 『議政府방면의 我軍부대가 사단지역으로 撤收한다면 敵도 이어 追躡하여 侵透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즉각 작전참모 金德俊 소령으로 하여금 전방지역은 勿論, 후방지역의 東側方경계를 강구토록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右一線 제13연대에 東側方경계를 強調하는 한편 金秉化 소령 指揮下에 있는 교도대 제1중대(장, 金東根 대위)를 高陽里 東側의 △206를 점령시켜 議政府로부터 鎭蹕에 이르는 312번 道路를 봉쇄케 하고, 신성洞의 나머지 병력을 鳴鳳山(△248)西麓에 控置하여 사단後方地域에 대한 경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林元錫 대위가 이끄는 2개중대의 步兵學校교도대는 이날 저녁무렵에 사단의 지시를 받아 五山里(東巨里 西南쪽 2km) 西側方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그 전방에 배치된 제20연대 제3대대와 제13연대 제3대대와의 空間을 메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밤 제20연대 제3대대가 撤收한 뒤를 따라 夜陰에 侵透한 敵에 의하여 分散되어 미처 撤收치 못한 黃圭高 대위등 일부 중화기중대 요원들은 無名高地의 峽谷에 있는 獨立農家에 隱蔽하여 敵의 一齊사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요행히 하루밤을 보낸후 빠져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特別聯隊長인 俞海濬 중령은 이렇다 할 任務도 없이 전방연대지역을 다니다가 이날 午前에 사단 指揮所인 奉日川 國民學校에 돌아왔는데 이때 步兵學校에서 나온 美顧問官이 俞海濬중령을 보고 하는 말이 『當身은 연대장으로서 兩校의 훌륭한 교도대를 指揮하여 나왔는데, 왜 部下들을 판 부대에 빼앗기고 혼자서 彷徨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장에게 建議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이 뜻을 사단장에게 具申하였다. 그리하여 兩개연대에 배속되었던 부대들을 收拾하라는 사단장의 指示를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俞海濬중령은 이미 연대의 指揮를 벗어난 奉日川 南쪽에 集結된 병력과 金東根 대위가 이끄는 △206의 병력등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밤 奉日川의 사단指揮所에서 제15연대장 崔榮禧 대령으로부터 該연대의 撤收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왜, 명령없이 撤收하였는가!』고 大怒하여 연대장과 대대장을 叱責하였는데 이에 대한 崔대령의 戰況실명을 듣고서야 분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날 午後에 金弘壹 소장과 閔繼植 대령등 陸軍本部의 作戰指導班의 一行이 사단을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사단의 全般的인 戰況을 說明한데이어 金弘壹 소장에게 『이 地域을 固守하기 위하여 反擊을 計劃하고 있으나 漢江線

防衛를 爲한 撤收는 總長의 下命이 있어야 하므로 곧 가서서 下命이 있도록 건의 바랍니다.』라고 具申하자 이에 대하여 金弘壹 소장은 『陸軍本部에 돌아가서 總參謀長에게 建議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一行이 돌아간 다음에도 輕航空機에 의한 通信連絡文이나 電話 指示는 『계속 現防禦線을 死守하라.』고 하는 내용뿐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그의 건의가 必是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野戰指揮官은 오직 最善을 다하여 방어전을 遂行할 뿐이라고 自身을 체적질하면서 부대지휘에 沒頭하였는데, 제15연대가 撤收하게 되자 앞서 사단장 自身이 構想한바 있는 反擊계획을 具體化할때가 왔다고 보게 되었다.

즉, 奉日川에서의 사단장의 作戰腹案은 奉日川 주위의 野山을 연하는 원래의 방어선보다도 제15연대가 배치된 金村 北쪽 高地群을 잇는 線에서 防禦를 遂行함이 地形의인 立地條件으로나 부대의 縱深배치면에서 相對的으로 有利할 뿐아니라 攻勢로 移轉할때에 이들 高地群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臨津江선까지의 進擊이 容易하다고 判斷하여 左—線인 제11연대 전면에 제15연대를 배치한 것인데, 이제 제15연대가 撤收하였다고하여 現방어선을 포기하고 제11연대가 배치된 제2선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보아온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제15연대가 撤收하게 될 경우에는 사단의 可用병력으로써 反擊키로 미리부터 決心한 터이므로 이날 밤에 그의 作戰概念에 의한 要旨 다음과 같은 反擊명령을 하달하였다.

『①사단은 28일 08.00를 期하여 現접촉선으로부터 反擊을 開始하여, 지역내의 敵을 擊破하여 倉滿里—都內里—△229(金村 北쪽)를 연하는 線을 확보하고, 北으로 계속 공격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13연대는 現접촉선에서 공격으로 轉換하여, 사단의 右—線으로써 倉滿里—都內里 間の 汶山川 南岸을 확보하고 별명에 따라 北으로 계속 공격할 것을 준비 하라.

③ 제11연대는 現접촉선에서 공격으로 轉換하여 사단의 左—線으로써 都內里—△229 間的 線을 확보하고 별명에 따라 北으로 계속 공격할 것을 준비하라.

④ 제15연대 및 서울특별연대는 최초사단예비가 되어 별명에 따라 前方부대를 超越공격을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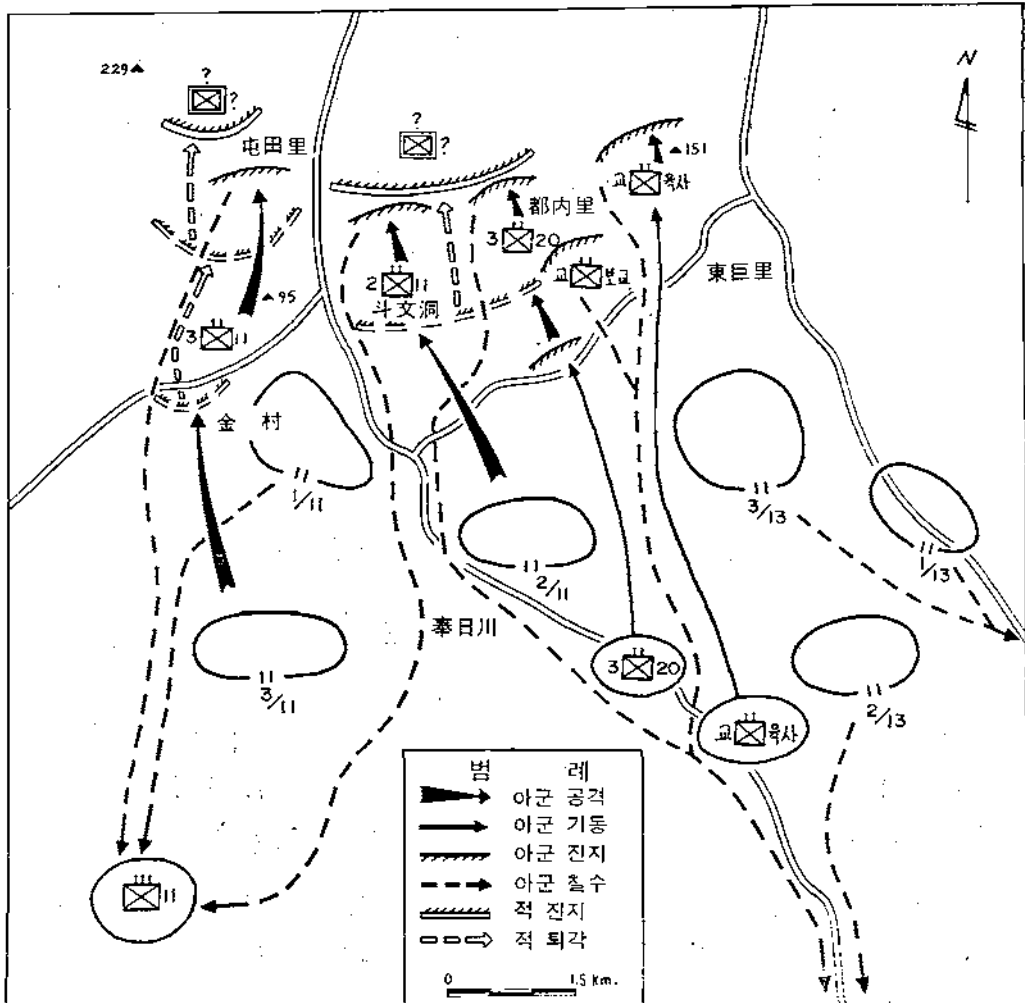
이리하여 사단의 예하부대들은 明日의 反擊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에 陸軍本部로부터 通信文이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28일부터 美軍이 參戰하니 前부대는 이를 全將兵에게 熟知시키라.』는 것이었다. 마치 사단의 反擊을 뒷받침하듯한 이 通信文이 때를 맞추어 前예하부대에 示達되자 지금까지 거들었던 撤收로 沈滯되었던 士氣가 一時에 高潮되기도하여 反擊의 前兆가 자못 밝아지는 것 같았다.

**6월 28일** : 전날 제15연대의 撤收에 따라 사단은 金村 北쪽의 주진지 회복을 위한 反擊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밤사이에 迂回침투한 敵의 夜襲으로 右—線 제13연대가 殆半의 주진

지를 상실하여 天明과 더불어 東巨里 南쪽에서 阻止진지를 편성케 되었다. 한편 제2선에 배치된 제11연대가 밤사이에 난데없이 主抵抗線부대가 되어 이날 05.30에는 左一線 제1대대가 敵의 侵襲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該대대는 1번도로상으로 直衝하는 大대규모의 敵을 陣에서 阻止코자 全火力을 集中시키는 동시에 포병화력까지 支援받아 이들의 衝勢를 꺾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또한 우리의 醜敵이 西側을 威脅하였다.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대대로부터 緊急보고를 받아 金村北쪽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제3대대(장, 金在命 소령)로 하여금 예정된 攻擊開始시간보다도 40분이 빠른 07.20에 제1대대 西側으로 機動케 하여 敵을 側方으로부터 驅逐토록하는 한편 08.10에는 奉日川에 배치된 제2대대(장, 鄭永洪 소령)를 登院里방향으로 攻擊케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의 각梯隊가 一齊히 前方에 나서게 되자 사단장은 該연대와 제13연대와

◇ 상황도 제13호 奉日川 地區 反擊 상황(6.28)



의 벌어지게 될 간격을 補塡하기 위하여 제20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제11연대의 東側에서, 그리고 서울특별연대의 混成병력을 다시 그 東側에서 攻擊토록 措置하였다.

이리 하여 이날 11.15에는 이들 梯隊가 내화산—△79—斗文洞, 그리고 國道 東側의 屯田洞을 연하는 線까지 進出하였다. 그런데 이날 正午무렵에 서울陷落 소식을 傳해들은 사단장은 이의 對策을 講究키 위하여 예하 主要指揮官을 사단 指揮所에 緊急召集하였는데 이때에 入手된 諜報는 敵이 서울시內에 侵入하고, 이미 漢江橋가 爆破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諜報를 뒷받침하듯이 사단의 患者後送車輛이 서울시內에 들어가다가 敵戰車가 礮礮리에서 道路를 遮斷하고있는 것을 보고 사단으로 되돌아왔고, 또한 水色에 彈藥수령차 갔던 補給차량이 途中에서 射擊을 받고 돌아오는 등으로 서울에 이르는 後方要所가 遮斷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孤立된 상황하에서 如何히 行動하느냐가 焦眉의 問題로 擡頭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단장이 내린 決心은 30일 08.00까지 전부대를 始興으로 撤收集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장 白普輝대령은 渡河場의 선정에 대하여 선임연대장인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과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에게 意見を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崔慶祿 대령은 二山浦를 崔永喜 대령은 幸州나루터를 각각 建議하게 되었다. 이렇듯 2개 渡河場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사단의 主力을 同時에 撤收시키려면 最小限 2개 渡河場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들 兩연대장에게 細部的인 渡河地點의 선정과 渡河場의 事前준비를 위하여 현지를 實地偵察할 것을 指示하고, 사단장 自身도 이날 午後에 二山浦와 幸州등지를 돌아보았는데 幸州의 渡河준비를 맡은 崔榮喜대령은 그 부근의 倉庫를 헐어서 그 材木으로 船着場을 만들고 배 2隻을 묶어서 車輛을 운반할 수 있겠끔 준비하였다. 또한 吳敎驥 중위로 하여금 金浦쪽에 대한 偵察을 시켰던바 이미 대대규모의 敵이 飛行場을 점령한 事實을 알게되어 渡河場 부근에 集結된 부대중에서 병력 1개소대를 뽑아 對岸과 此岸邊에 대한 境界에 임하도록 아울러 措置하였다.

한편 앞서 會議에서 撤收명령이 내려지자 각부대별로 빠르게 撤收한 부대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날 15.30에서 16.00사이에 撤收하게 되었다. 그러나 攻擊中인 最前線부대까지 명령이 잘 전달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즉, 서울특별연대장 俞海濬 중령은 전방에 나갔다가 作戰會議에 參席치 못한 관계로 撤收에 關한 事情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제20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은 攻擊途中에 隣接부대가 없어진 것을 알고 뒤늦게 撤收해야만 하였다. 특히 이들 제5사단에서 增援된 부대들은 該지역의 軍事地圖를 보급받지 못한채 前方에 投入된 까닭으로 撤收時의 병력수습에 어려운 고비를 여러번 넘겨야만 하였다.

한편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은 사단의 作戰會議가 끝난뒤 高陽 南쪽 河川 堤防에서 연대 自體의 指揮官會議를 열고 撤收문제를 論議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1대대장 金振暉 소

령은 최후의 一刻까지 싸우다가 玉碎하자고 提議한데 反하여 제2대대장 尹千奎 소령과 제3대대장 劉載成 소령은 三角山에 들어가서 遊擊戰을 展開하여 友軍이 反擊하여 올때까지 抗戰하자고 하였다. 또한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은 『四面楚歌인데 별수있느냐, 차라리 部下들을 各個行動케 하고 우리는 自決을 하자.』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自決문제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反對하였다.

그런데 이때 美軍爆擊機가 汶山지구를 爆擊하는 것을 보고 『美軍이 參戰한 以上 우리가 躊躇할 것이 없다. 漢江을 건너서 싸우자.』고 연대장 金益烈대령이 結論을 내려, 우선 연대 砲병대장 朴忠治 소령으로 하여금 砲兵을 지휘하여 幸州에서 연대의 渡河준비를 하도록 措置하고 부대의 撤收는 제2, 제1, 제3대대 順으로 결정하였으며 제3대대는 연대본부 병력까지 統合지휘하여 主力부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에 撤收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각대대는 撤收하기 시작하고, 연대장 自身도 작전주임 崔大明소령을 帶同하여 연대의 無線指揮網인 3/4ton 通信車 1대를 뒤따르게 하여 幸州에 내려와 渡河場을 確認한 다음 無電機로써 撤收부대를 陵谷—幸州방향으로 誘導하였으나 交信상태가 좋지않아 幸州에서 다시 奉日川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陵谷에 올라왔을때에는 이미 奉日川—陵谷간의 312번도로가 撤收車輛과 병력등으로 길이 막혔으므로 陵谷에서 내려오는 2개대대와 연대 직할대를 幸州로 誘導하다가 이들과 함께 이날 밤 小型砲 5隻을 擡當받아 渡河하게 되었다

한편, 제11연대는 사단의 작전회의가 끝나는 즉시 攻擊中인 前方대대에게 撤收명령을 하달하는 등으로 撤收준비를 서둘러 있었는데, 이날 15.30이 되어 突然 연대의 후방으로부터 敵의 迫擊砲사격을 받게 되었다. 敵 騎馬隊가 연대 東側方에있는 “은골”로부터 연대 후방지역을 奇襲하는 한편 그들의 일부 步兵부대가 撤收時의 混亂을 틈타 이날 아침까지 제2대대가 確保하고 있던 奉日川의 △111에 나타나, 연대 觀測所가있는 同側地 西側方의 獨立高地와 △107 南麓에 있는 연대 指揮所지역에 迫擊砲사격을 開始한 것이다. 마치 연대가 敵의 包圍網속에 갇히게된양 敵砲彈이 후방으로부터 날아오자 一大혼란을 빚게 되었다.

즉, 觀測所에서 撤收준비 중이던 崔一際 대위는 재빠르게 觀測所 要員을 引率하여 敵의 砲擊을 避하면서 一山으로 撤收하고, 연대 指揮所주변에서 補給品을 後送하려던 보급장교 韓根浩중위는 보급하사관 尹基烈 중사등과 같이 우선 待機시켜 놓은 車輛에 銃器類부터 積載하고 이어서 彈藥과 食糧(白米 100餘隊)을 차에 실으려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敵砲彈이 그옆에 쌓아둔 彈藥箱子 틈에 落彈하였으므로 이의 連鎖爆發을 避하여 그길로 차를 몰아 一山으로 빠져나왔다. 이무렵 사단 指揮所가 撤收한 뒤의 奉日川 國民學校에서는 原因 모르는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제11연대의 主力은 이러한 光景을 멀리 바라보면서 一山을 거쳐 이날 저녁무렵에 二山浦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부근에서 수집한 小型漁船으로 渡江하였는데 幸州 나루터나 二山浦할 것 없이 雲集한 각부대의 戰鬪要員들은 앞을 다투어 渡河에 血眼이

되었다. 이러한 要因은 배가 對岸에 건너가기만 하면 제대로 돌아오지않는데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보다도 소속을 달리하는 여러부대가 統制를 無視하고 渡河순서를 지키려 하지않는데에 根本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上流나 下流지역을 더듬어서 배를 求하여 渡河하거나 뱃목을 만들어 건너는등으로 아예 秩序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擧營의 將校가 계급장을 빼고있어 누가 將校인지 알 수 없었을뿐 아니라 어느새 私服을 한 사람도 적지않았으니, 여기에는 上官이나 部下도 없었고, 더우기 각부대의 撤收차량이 이곳에 集中되어 遺棄되었던 관제로 차량으로 이곳까지 後送된 戰傷者에 대하여서도 渡河의 優先權이나 이들을 위하여 손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諒念한 나머지 車內에서 自決하겠다고 수류탄을 달라고 했고 더러는 차라리 썩달라고 呼訴하는 者도 있었다. 여기에는 다만 對等한 人間으로서 어떻게하면 배를 求하여 渡河하느냐 하는 理性을 잃은 人間들의 삶의 追求만이 온 江邊을 支配하였다.

그리고 제13연대 수색중대의 金 濠 소위, 제7중대의 金洪柱 소위 그리고 高某 중위등은 幸州를 目標로 撤收하다가 戰勢의 不利를 慨歎한 끝에 自決하였다. 金 濠 소위는 그의 신임하사관 洪完基 상사에게 먼저 가라고 한다음 3명만이 운명을 같이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北韓共產治下에서 越南하여 언젠가는 北韓에있는 父母兄弟들을 救하겠다고 軍門에 들어 왔던 것인데 이제 赤狗들에게 首都가 陷落되고 國軍이 悲慘한 撤收하는 마당에 우리의 갈곳이 어디냐고 서로 論議한 끝에 自決하였다는 것이다.

九死에서 一生을 擇하여 血路를 뚫고 나오는 것이 眞正한 勇士의 긍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自決行爲가 果然 適切한 處事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戰場心理의 하나로 極度로 悲觀하게 된다면 이와같은 措置가 나올수도 있다는 하나의 例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제13연대 제3대대는 掩護부대의 임무를 마치고 夜間철수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9일 날이 밝을 무렵에 水色洞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부대행동이 不可하다고 判斷한 대대장 劉載成소령은 대대를 水色洞 北쪽 山에 集合시켜 一場訓示로써 그간의 勞苦를 致賀한 다음, 『지금부터 대대는 小集團으로 행동하여 始興방면에 집결하여야 한다.』고 強調하고 携帶武器를 그 부근에 埋沒한뒤 부대를 解散시켰다. 그리하여 자신은 몇명의 部下와 함께 私服으로써 이날밤 廣壯橋로 빠져나갔다.

또한 27일밤 金村 北쪽에서 철수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는 흩어진 병력을 奉日川 南쪽에서 수집하다가 28일 아침에야 陵谷 부근까지 내려간 병력을 겨우 수집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대는 이날의 反擊에도 除外된 채 撤收도 池부대보다 빠른 수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晝間에 水色驛을 거쳐 蘭之島로 나왔는데, 대대의 병력은 水色에서 수집한 池부대의 병력까지를 합하여 1,200여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江邊에서

병력을 풀어 배를 찾게 하는 한편 이무렵 蘭之島내 도처에서 原因 모르게 불타고 있는 집들과 主人이 없는 草家를 헐게하여 여기서 얻은 板子나 통나무 千個씩을 全員이 갖게한 뒤 渡河組를 편성하여 이날 19.00에 永登浦의 鹽倉洞쪽으로 渡河하였다. 그러나 板子나 통나무에 매어달린채 건넌 관계로 大部分이 물에 떠내려가 △55(鹽倉洞 北쪽 1.5km) 아래 江邊에서 上陸하였는데 個人兵器는 全員이 携帶한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밖의 부대도 28일 저녁부터 29일 아침사이에 幸州와 二山浦로 渡河하였으며, 사단장 白善燁 대령도 사단사령부와 함께 幸州나루를 건너 撤收하였다.

그런데 앞서 27일에 사단을 방문한 金弘壹 소장은 당일 陸軍本部에 復歸하는 즉시 제1사단의 撤收문제를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에게 具申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무렵 敵의 衝鋒이 彌阿里지역으로 集中되어 首都防衛의 成敗가 頃刻之間에 놓여 있는 超緊迫한 상황下에 몰려있었으므로 總參謀長 스스로가 이에 대한 明確한 指示조차 내리지 못한채로 水原으로 後退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전투후의 개황

6월 28일 저녁부터 6월 29일아침 사이에 각부대가 幸州와 二山浦附近에서 混亂속에서도 그런대로 漢江을 渡河할 수 있었으나 天明이 되자 敵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탓인지 此處를 떠난 배들이 對岸에서 묶인채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江을 건너지 못한 병력도 적지않았다. 따라서 渡河의 배를 승친 이들은 자개행동으로 옮겨 僥倖히 은신처를 찾은 자도 있을 것이나 대다수가 敵의 兇鋒에 의하여 殘虐한 最後를 마친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漢江을 渡河한 병력은 소속부대와 함께 同一한 梯隊로서 渡河한 부대도 많으나 한 배에 混乘한 부대나 개인은 對岸에 당자마자 자기 原소속대를 찾아 개인행동에 들어가기가 일수있을 것이고 또한 同乘한 者들 끼리 小集團을 形成하면서 비교적 秩序있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8일밤에는 이미 一群의 敵이 金浦비행장을 장악한듯 그들의 소규모가 對岸상의 瞰制지형인 開花山(△130)과 그 아래를 南北으로 흐르는 水路와 堤防을 占據하여 我軍부대가 接近함을 보고 一齊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들 敵의 무리들은 6월 25일에 開城으로부터 그 南端에 있는 嶺井里(浦)로 撤收한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頤華 소령)를 追尾한 것으로 보이는 敵 제6사단 여하의 부대로 推斷되었는데, 이들은 韓頤華 소령이 이끄는 대대가 江軍을 거쳐 金浦半島 西端에 있는 通津으로 撤收한 다음 다시 6월 27일에 金浦—稻橋洞 지역으로 나오게 되자 그 뒤를 이어 金浦지역을 侵攻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6월 28일전에 幸州와 開花洞일대의 개활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開花山과 二山浦 西北쪽 7km의 金浦半島 對岸邊에 있는 峯城山(△129)등을 점령하여 漢江下流 지역을 통제하는 한편 新玉洞에 있는 △138를 장악하여 金浦街道 주변지대에 先據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幸州나루로 渡河한 부대중에서 여러 부대가 混成이되어 秩序를 찾지 못한 부대나 指揮者가 없는 鳥合之衆은 이러한 敵의 不時射擊에 直面하자 江邊에 있는 갈대밭에 뛰어들어 끝내 자개행동으로 분산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13연대의 渡河부대도 開花山을 避하여 永登浦방면으로 야간행군을 계속하였는데 날이 밝을 무렵에야 길을 잘못들어 永登浦의 東麓이 아닌 南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은 이를 연대장 金益烈대령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尖兵중대인 제7중대에 달력가 중대장 張造 대위에게 方向을 바로 잡도록 하였으나 이미 이때에는 △138(新玉洞)알까지 나오게되어 不得已



金浦街道를 橫斷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先頭가 道路에 나서자 該高地로부터 機關銃의 사격을 받았는데, 이에 부대는 一列縱隊로써 砲臺를 타고 나왔으므로 그 즉시 兩邊에 흩어져 應射하는 한편 敵으로부터의 離脫을 試圖하여 東側길을 擇하게 되었다. 이때에 崔大明소령은 즉시 이 방향으로 撤收한 我軍끼리의 誤認射擊이 아닌가하여 이를 確認하려다가 본대와 떨어져 버렸다.

이리하여 얼마뒤에 金浦방면으로 출동하는 機甲연대 소속의 裝甲車에 救出되어 본대의 뒤를따라 始興보병학교에 接洽하였으나 많은 병력을 여기에서 잃게 되었다.

또한 二山浦에서 渡河한 제11연대는 金浦半島로 오른 뒤 小集團으로 行動하여 始興과 水原으로 撤收하였으며 該연대의 마지막으로 건너게된 漁船 한隻에는 100여명의 戰鬪要員이 搭乘하였는데 여기에는 제11연대의 후반대와 앞서 臨津江을 渡河한 하 있는 제12연대의 일부병력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밖의 부대들도 29일오후에 始興보병학교에 接洽하여 먼저 撤收한 부대들과 合勢한 다음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의 再編成에 들어갔으며, 또한 이날 午前에 美軍機銃가 卍州와 二山浦지역에 遺棄된 我軍의 砲와 車輛등에 爆擊을 加하였다.

한편 靑龍半島와 仁浦(延安)로부터 西海로 脫出한 제12연대 제3대대(장, 李茂桓소령)는 江華島, 瑞山, 蔚山 등지에 上陸하여 7월 4일까지 水原에 集結하게 되었다. 사단의 撤收에 뒤따르다시피 南侵한 敵의 主力은 碧蹄一嶺北邊방면으로부터 서울에 侵入하고 그들의 일부는 卍州나루를 확보한 뒤에 美軍機의 爆擊을 避하면서 계속 南侵을 위한 渡河준비에 狂奔하는듯 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2연대 제7중대 소대장 安哲模 중위  
(1977. 5. 4 大韓鐵業振興公社에서, 예대령)

나는 25일의 오후 늦게야 소대가 고립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소대는 일명 大院頭과전대라고도 호칭되고 있었는데 소대는 중대의 右側 1선으로써 이날 중대규모의 敵을 맞았던 것이다. 이들이 우리가 배치된 진지를 유린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사격을 받고서 開成방면으로 내려갔다고 하는것이 옳을 것 같다. 이들의 目標은 小隊의 진지가 아니라 開城인듯 後線을 내려올때나 내려갈때에도 砲臺를 선두로 한 縱隊隊形이었다. 따라서 소대가 예비진지에서 接敵狀況 없이 있다가 뒤늦게 孤立된 것을 안 것이다. 그러나 砲臺가 南쪽에서 들먹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反擊을 하는구나 하고 기대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날 16.00경에 小隊후방지역을 偵察하게 되었는데 이미 이제는 敵의 行軍부대가 故山行 도로를 따라 南下중이었다. 이에 나는 포위된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 전소대원을 집합시켜 우리의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60mm박격포와 기관총을 땅에 埋藏한 다음 소대를 이끌고 다시 大路邊에

나왔는데 아직도 敵의 騎馬隊와 驅逐부대가 南下中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 이상의 부대행동은 어렵다고 보고 개인화기까지 그 洞窟에 埋藏하고 水色에 있는 사단사령부에 개인행동으로 接洽하라고 소대원에게 지시한뒤 소대를 해산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는 서울에 潛行하기까지는 成功하였으나 끝내 漢江을 넘지못하고 9.23 撤復時까지 온선하였다가 原隊로 복귀하였는데 그후의 소대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

(1977. 4. 14 國會外務分科委員長 個人事務室에서, 예증장)

나는 開戰直前 全州에 위치한 제15연대장직에 있다가 보병학교(高級將校班 課程)에서 被교육중에 6.25를 맞았다. 마침 그 전날이 土曜日이라서 學校에서 나와 서울의 孝悌洞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날야침 「國軍將士는 즉시 原隊로 복귀하라」고 하는 放送을 듣고서 급히 諸軍本部에 갔다.

나는 誌本에서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등 몇몇 參謀들과 만나 北寇의 南侵 상황을 알게 되었고 또한 나와 같은 被교육자는 속히 原隊復歸하여

部隊를 指揮하라는 지시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陸軍本部에서 電話로 原隊와의 連絡연락을 한 다음 이날 午後, 崔炳淳 소령이 이끄는 제3대대와 龍山驛에서 合流하였는데 이 대대는 연대의 先發隊였다. 마침 陸軍本部로부터 汶山地區에 출동하라는 指示를 받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들과 같이 제1사단으로 향하였는데 사단에 도착한 다음 白善燁 사단장으로부터 받은 命수는 우리가 金村 北쪽에 있는 高地群을 佔領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擊滅하는 任務였다.

나는 먼저 제3대대를 左一線에 배치하고 主力부대가 도착하면 右一線에 배치할 意圖였는데, 다음날인 26일 오후에 朴熙東 소령이 指揮하는 제20연대 제3대대대가 도착되어 右一線에 배치하였다. 그 후에 알게된 것은 나의 主力부대들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陸軍本部의 命수로 彌阿里지역에 投入된 것 같았다. 따라서 그날밤에 제20연대 제3대대대가 제15연대에 배속이 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27일 오전부터 金村 北쪽에서 敵의 主力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만하여도 나는 陸軍本部인사국장과 砲兵사령관등의 職位를 經驗했을뿐 연대장으로서의 經驗이 不足하였던 탓으로 내가 위치한 관측소 주위에 敵의 砲火가 集中되어 적지 않은 被害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部下들은 意外에도 沈着하게 비오듯 쏟아지는 敵彈속에서도 잘싸웠을 뿐 아니라 敏捷한 행동으로 傷兵者를 處理하였으며 나 자신도 『德萬大敵을 만났어도 精神을 차리고 主觀을 새우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家親의 말씀이 거리에 떠올라 더욱 힘을 낼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날 우리는 몇대의 戰車를 파괴하는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彈藥의 缺乏과 增援된 敵 大部隊의 攻擊으로 끝내 이날밤에 奉日川으로 撤收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奉日川에서 사단의 作戰會議가 있는 뒤 나는 驛州로 내려가서 사단의 撤收를 위한 渡河준비를 하게 되었고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二山浦지역에서 渡河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

이리하여 사단은 28일부터 29일 새벽사이에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

#### ◇제13연대 작전주임 崔大明 소령

(1977.8.2 現代建設 專務室에서, 예 소장)

제13연대가 제1사단의 右一線연대로서 北傀의 奇襲攻擊을 받은 것은 6월 25일 새벽 04.30 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38°線 整備를 위하여 제3대대가 臨津江北쪽의 高浪浦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1대대는 披平山 앞에 있는 紫下里란 곳에서 野外訓練을 하고있었다. 그리고 그전날이 土曜日이어서 제2대대의 병력 殆半이 外出한 까닭으로 우선 殘有 병력으로써 진지를 佔領시켰지만 그래도 예정보다 佔領시간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事情때문에 처음에는 苦戰도 각오하였으나 意外에도 披平山에 배치된 제1대대의 苦戰으로 數發의 戰車를 파괴하는 戰果를 올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연대는 戰況이 不利하여 26일 밤을 기해 奉日川으로 撤收하였는데 여기서도 연대는 사단의 右一線이 되었다. 그리고 27일밤, 再次 敵의 攻擊을 받아 彼我が 熾烈한 戰鬪를 벌여 또 한층의 戰車를 擊破까지 하였으나 迂回攻擊하는 敵때문에 28일 아침사이에 진지의 殆半을 잃게 되었다.

그런데 27일 日暮무렵에 德亭里방면에 출동하였던 제18연대 제2대대가 연대 지역으로 撤收하여 이무렵 연대指揮所 부근에서 쉬고 있었으므로 연대장 金益烈 대령은 1대대의 사용으로 不利한 戰況을 打開하고자 대머장 張春權 소령에게 즉시 사람을 보냈는데, 同대대는 『食糧을 주지 않으면 싸울수가 없다.』고 하면서 부대대장인 尹鏞重 소령을 연대에 보내왔다.

이무렵 연대 亦是 食糧부족으로 며칠씩 먹지 못한 者가 많았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支援를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28일 아침에는 연대가 배치되었던 東門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않은 南쪽에서 阻止 진지를 殲滅하였으며 또한 이날 正午前에 主要指揮官會議가 사단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結課, 각부대별로 漢江을 건너 始興에 集結키로 되었다. 따라서 나는 연대장과 함께 먼저 二山浦의

渡河地點을 偵察한 다음 辛州로 나오다가 陵谷에서 사단장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예하부대를 辛州로 誘導하여 配當된 5隻의 배로써 이날밤에 渡江을 하였으나 제3대대는 늦게 나오다가 29일 아침에 水色부근에서 부대를 解散하여 작개행동으로 撤收하였다.

◇제18연대 제2대대장 張春權 소령  
(1977. 10. 27 冠岳區 上道洞 自宅에서,  
에 소장)

제18연대 제2대대가 議政府 北쪽에 출동하였다가 제13연대 地域으로 撤收한 것은 27일 薄暮 무렵이었다.

우리는 전방에 배치된 어떤 將校의 案内를 받으면서 연대指揮所 부근에서 集結하였는데 나는 대대가 集結하는 즉시 연대장인 金益烈 대령을 찾아가서 부대의 撤收經緯를 說明한 다음 제18연대 본부가 어디로 撤收하였는가를 묻고 또 우리는 食事を 못하였으니 우선 食事부터 시켜달라고 연대장에게 具申하였다.

우리의 연대 위치를 물은 것은 그 當時 議政府 지역은 敵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연대가 撤收한다면 必로 제1사단 지역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또 食事문제는 이날 아침까지 겨우 攜帶했던 乾糧으로 끼니를 이니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3연대에서는 제18연대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食事문제는 연대장이 그 자리에서 軍수주임을 불러 『빨리 食事を 시켜주다.』고 指示하였기에 나는 感謝하다는 말을 드린 다음 거기에서 나와 集結地의 將兵들에게 食事が 올때까지 休息을 取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食事소식이 오지않자 나는 陸上官인 何연대의 부연대장이 金振權 중령에게 『食事준비가 어떻게 되었는가?』고 물은 즉 그의 대답이 『연대장이 하는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냐? 우리도 벌써 몇끼를 먹지 못하였는데...』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연어가 없어서 그 즉시 작중대별로 부근 部落에서 쌀을 얻어 炊事하라고 指示하였는데 이미 이때는 部落民의 지의가 避難자 뒤였다.

이러하여 이날 正午무렵에야 겨우 주먹밥 1개씩을 給食한것으로 記憶을 한다.

그런데 이날 後半夜이라고 생각이되는데 何연대에서 出動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으나 이에 부대대장 尹鍾順 소령이 연대에 들어가 저질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尹鍾順 소령이 다녀온 다음 내 自身이 다시 한번 연락에 갔을 때에는 연대가 移動준비중에 있었으므로 나는 이 渦中に 뛰어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判斷하여 대대를 이끌고 바로 撤收하였는데 28일 正午무렵에 舊把撥 北쪽에 있는 어느 橋梁上에서 때마침 議政府쪽으로부터 撤收해나오는 연대장 任忠植 중령을 비롯한 연대의 主力과 合流하였으며 이날 16.00경에 辛州나루에서 漢江을 渡河하게 되었다.

## § 研究

### (1) 開城 陷落경위에 대하여

開戰當日, 開城市가 北傀軍에 의하여 陷落된 당시의 經緯에 대하여 既刊된 諸史籍에는 京義線 鐵道에 乘乘한 北傀軍이 彌峴에서 開城驛으로 突入함으로써 얻게된 奇勳效果로 同市가 占領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說은 여러 證人들의 推想의인 證言과 整理되지않는 史料에 의하여 謠傳된 것임을 다음 史實에 立證하여 立證할수가 있다.

즉, 本節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당시 上城일대를 職制하는 △103에는 我軍 1개소대(제12연대 제1중대)가 배치되어 京義線의 鐵路와 道路를 따라 南下하는 대대규모의 敵을 맞아 이날 08.00까지 高高地를 防守하면서도 南下하는 列車을 볼수가 없었고, 또한 이들 소대가 上城 南쪽으로 撤收한 뒤 이날 아침 上城驛을 떠난 機關車1輛이 明倫洞(開城 西쪽 4km)부근에서 이날 20.30이 지나도록 停車하고있는 것을 目擊한 證言은 同 機關車에 앞서 나른 列車가 지나가지 않았음을 間接的으로나마 證明하는 것이며, 또한 開城市의 陷落시간등을 勘案한다면 敵이 그 時間以前에는 鐵道를 利用하지 못한 것이 分明하다.

그런데 既傳된 記錄에 의하면 당시 제12연대 美顧問官이었던 Joseph R. Darigo 대위가 이날 아침 開城市內에 들어와 汶山에 이르는 道路交叉

點에서 開城驛방향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또 그들이 列車에서 下車함을 目撃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아무런 開城驛에서 서술된 列車의 출발을 制止키 위하여 北傀軍이 機關車에 대하여 射擊을 加함을 보고 마치 自己에게 사격을 加하는 양 錯覺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驛構內를 來往하는 北傀軍을 보고, 列車에서 下車云云한 것으로 分析이되는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때마침 驛부근을 通過한 金永先 중위(제12연대 계7중대장)등 一行이 이 光景을 보게된 證言으로 解明이 되는 것이다.

#### (2) 臨津江 鐵橋폭파에 대하여

臨津江橋의 爆破는 사단장의 爆破준비명령에 의하여 爆破준비를 일찌기 完了할 수 있었으나 同橋梁으로 撤收토록된 제12연대의 각부대가 開城 지역에서 早期에 分散, 瓦解됨으로써 사단은 主力의 通過만을 기다리다가 爆破進行명령을 同時에 못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21.00를 전후한 시간에 爆破組 단독으로 이를 決行함으로써 폭파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셈이나 여기에 重視하여야 할 점은 동 橋梁의 파괴가 어느 程度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날 밤사이에 많이 이 교량의 渡河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說도 있으나 우선 교량폭파에 대한 당시의 工兵能力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관계자 證言에 의하면 폭파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美顧問官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협조와 技術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당시의 사단공병으로서도 그 方面의 技術水準이 알았던 탓으로 계획의 單獨완성이 곤란하였다는 증명을 勘案할때에 必是 計算上에서 차이가 있었거나 혹은 爆藥의 장진작업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分析되는 것이다. 따라서 敵은 일부 破壞된 곳을 車道板 등으로 補修한 다음 渡河한 것으로 推斷되는 것이다.

#### (3) 首都防上 外廓地帶의 經視에 대하여

國勢上 한 首都의 安危問題가 곧 國家의 存亡과도 直結된다면 우리는 38°線의 警備와 더불어 有事時에 對備한 首都서울의 防備策을 講究했

야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8.15解放後 北傀가 軍備強化에 着眼이 되어 南侵의 機會를 엿보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고작 監視形式의 38°線 警備에 그쳤을 뿐, 그들의 南侵徵候를 判斷하면서도 後方병력의 前方推進이나 首都圈 防衛를위한 外廓警備에는 별다른 對策없이 지내온 탓으로 敵侵 3日만에 首都서울이 陷落되는 歷史上的 恥辱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要因을 가져오게한 당시의 軍部動向을 確實히 밝힐 수는 없으나 共產不純分子가 도처에서 暗躍하던 그무렵의 國內事情을 볼때에 이러한 失策을 非單 國防關係者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國家防衛의 大役을 맡은 軍의 責任을 他에 轉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首都圈을 圍繞한 外廓線의 防守策 亦是 前方주저항선 못지 않게 重視하여야 함은 勿論, 或者가 말하듯 洛川의 遲延지진편성만으로 首都外廓地帶에 대한 防守策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4) 兵力의 分割使用에 대하여

兵力의 分割使用은 옛부터 兵家의 常識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어떠한 作戰에서도 한 部隊의 戰鬪力을 決定的인 時間과 場所에 集中시킴으로써 優勢한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다는 戰爭의 集中原則에 根據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6월 25일當時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의 교도대로써 混成편성된 서울특별연대가 제1사단에 도착하는 즉시 사단은 同연대를 兩分하여 左右一線연대에 각각 分割배속시킴으로써 同연대가 지닌 戰鬪力을 스스로 分散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당시의 戰況으로 보아 不得已한 措置였는지 모르나 右一線연대지역에 赴援된 陸上교도대가 坡平山 東側方에서 防護의 役割을 제대로 遂行하지도 못한채 分散될수한 事例가 이를 證明해준다. 따라서 이들 部隊를 최초로 集中運用하였더라면 26일에 감행된 汶山突出部에 대한 逆襲이나 이밖의 殊死의 병력장악 등 부대의 戰術的인 運用面에서 보다 效率를 높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6. 襄津地區 戰鬪 (1950년 6월 25일부터  
" 6월 30일까지)참조 : 별적부도 제 12 호  
상 관 도 제 14, 15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7연대	장 대령 白仁燁	대전차포중대	장 대위 盧敬憲
제 1대대	장 소령 金禧泰 (6월 25일 전사)	공병대	장 중위 朴俊熙
제 2대대	장 소령 宋虎林	야전병원	장 대위 池世康
제 3대대	장 소령 吳益慶	병참보급소	장 소령 申先均
배속부대		헌병대	장 대위 咸成烈
제 7포병대대	장 소령 朴廷鎬		
敵		軍	
北德제 6사단	장 소장 方虎山	제 3경비여단	장 소장 崔 巖
제 14연대	장 대좌 韓日來		

##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17연대(장, 白仁燁 대령)는 1948년 11월 20일 京畿道 始興에서 창설되어, 다음 해 6월 20일 首都 경비사령부 예하로 轉編과 同時에 서울 龍山(현 陸軍本部)으로 이동, 首都 서울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綠下 1개대대를 南原으로 派遣하여 그곳의 共匪擊滅작전 임무를 수행케 하고 있던중, 다시 陸軍本部 밑에 의하여 그해 11월 15일 全部隊가 襄津으로 이동하여, 동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李綱鎬 대령)의 右一線부대로서 제 2연대(장, 咸炳善 대령)의 뒤를 이어 鎭波山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제 제 17연대의 隣接 左一線 부대는 제 18연대(장, 金鍾甲 대령)로서 襄津以西지역을 防衛하고 있었다.

그 후 전투는 제 17연대가 鎭波山의 一部인 洞 高地를 확보함을 契機로 종결되고, 사령관 李綱鎬 대령이 同年 12월 초에 陸軍本部로 복귀함에 따라, 제 18연대장 金鍾甲 대령이 同 연대를 부연대장 任忠植 중령에게 인계하고, 襄津地區전투사령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그도 10일 후에는 제 7사단 참모장으로 轉補되고, 다시 그 후임에 白仁燁 대령이 제 5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950년 6월 25일 敵의 全面南

앞에 直面하여, 同 戰鬪를 수행케 된다.

敵軍의 狀況: 薺津지구에서 38°線을 사이에 두고 我軍과 對峙한 敵은 北傀 제3경비여단(장, 소장 崔 賈)으로 그 사령부를 竹川(薺津 北쪽 22km)에 두고, 白川(開城 西쪽 22km)에서 薺津半島의 西端까지의 38°線 接境에 5개대대를 投入하였으며, 1개대대는 竹川에 控置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당시 判明된 情報에 의하면 北傀는 1947년 7월 所謂 38°線 경비를 위한 38경비대론 組織하여 U.S.S.R로부터 38°線 경비임무를 인수하고, 그 후 이 지역의 경비를 強化할 目的으로 점차 그 兵力을 증강하여 1949년 5월 1일 경비여단으로 증편하였다.

그동안 이들은 38°線 접경의 主要地形을 占領, 堅고한 陣地를 구축하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해 5월 中旬에 들어 서면서 부터는 수시로 38°線을 월경하면서 我軍 哨所에 대한 습격, 良民학살 및 掠致, 家財 약탈과 放火등 갖은 만행을 恣行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은 그간 U.S.S.R로부터 익혀온 戰技와 兵器조작의 기술이 상당 水準에 도달한 것으로 自負한 나머지, 그들은 我軍과의 충돌을 일으켜 我軍의 兵力 탐지와 戰鬪능력을 평가해보려는데 그 底意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이 薺津지구를 鞏固하게 占領하려고 한 것은, 南韓에 대한 全面침공에 앞서 地理적으로 취약성이 가장 많은 薺津半島를 占領함으로써, 그들의 戰力을 과시하는 同時에 政略的 險상을 試圖하려는 그 어떠한 計略이 숨어 있었음을 推斷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北傀는 기회만 있으면 薺津탈취를 企圖하였으나 그때마다 我軍의 反擊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때는 그들 지역내의 요충인 銀波山을 我 제18연대(장, 崔 錫 대령)에 피탈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 해 11월 초에 이를 다시 確保한 이후로는 침범행위가 없어졌고, 1950년 초부터는 편성된 진지에서 銃擊이나 砲擊이 계속되었으나 越境행위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4월부터는 銃擊事例도 차츰 줄어들고 6월에 들어서는 日課처럼 되어 있던 婦說방송마저도 없어져, 沈默을 유지하여 軍情을 가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南侵준비의 脚本대로 실행한 것 뿐이며, 이미 밝혀진 바와같이 北傀統一을 위한 전쟁준비를 1949년 8월 말에 완료하고, 1950년도에 접어들면서 南侵계획을 극비리에 具體化하여, 3월에는 38°線에서 5km 이내의 住民들을 內陸지역으로 疎散시키는가 하면 南侵시행일을 6월 25일로 定한 연후, 同월 11일 大部隊 機動作戰編隊이라는 명목하에 사단장과 여단장 등 지휘관을 平壤으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武力南侵을 위한 非常태세를 갖추게 하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으로서, 12일부터 全 전투부대가 38°線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과 同월 18일 그들 총사령부에서 하달한 偵察 命令 제1호가 이를 立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 전투부대는 23일을 전후하여 各진 지정된 38°線 접경으로 이동 완료하였던 것인데, 後日 알려진 바로는 제17연대 전면에는 沙里院에 위치한 北傀 제6사단 예하의 제14연대(장, 대좌 韓 仁亮)와 제105戰車여단의 1부가 夜陰을 利用하여 22일 翠野(薺津 北東쪽 23km)로 이동하였고, 또 제3경비여단은 이보다 1일 앞서 3개 대대를 玉洞(玉洞 北쪽 4km)부근에 집결시켜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던 것으로 포도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23일에는 大韓民國에서 北侵을 계획하고 있다고 虛傳宣傳하면서, 훈련을 假裝했던 부대들에게 戰鬪준비를 서두르게 하는 일방, 38°線 접경에 남아있던 全 住民을 強制철거시키는 동시에 戰鬪부대는 총공격태세를 갖추고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我軍의 狀況: 薺津地區 戰鬪사령관 白仁燁 대령은 사령부를 康徳에서 薺津銀山(薺津 北쪽 2km)의 廢施設로 옮기고, 各 대대본부는 天幕으로, 중대급 이하는 各진의 陣內에 Bunker를 구축케 하여 그들 진지와 같이 있게 하고, 軍紀를 嚴正하게 하는 한편 只수까지 정말 사용해온 各種 施設들을 地方官署에 환원시켜 民弊事例를 根絶케 하였으며, 老幼者와 극빈자에 대한 대민진로 및 對民支援事業을 展開하여 住民들의 軍에 대한 信賴感을 增進시킴으로써 한때 軍의 薺津 철수설로 不安해한 주민들에게 安堵감을 갖게 하는데 힘 썼다. 한편 사령관은 陣地工事에도 注力하여 全병력의 動員은 물론 農閑期를

맞은 住民들까지도 動員하여 얻어붙은 땅을 파헤쳐 交通壕와 散兵壕의 구축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 工事期間중 敵의 妨害사적으로 住民 5명이 희생당하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住民들은 이 진지工事に 협조하여 完了하게 되었는바, 이에 動員된 延人員은 60,000여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사령관은 機關長들과 협조하여 지금까지 勞力다툼에만 일삼아온 鴨鵝團, 白骨團, 西北青年團, 大韓青年團 등의 단체를 單一체제로 통합하여 鄉土防衛隊라 命名케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교육문제도 힘의하여, 幹部要員으로부터 시작하여 順次的으로 軍에서 2週間の 短期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이들이 丕業 生業에 종사하면서 자기 마을을 지키고, 不純分子의 색출과 申告는 勿論 有事時 軍 작전에도 적극 협조하는 일을 맡게하였다.

陸軍本部는 魏津地區에 小康狀態가 계속되자 1950년 3월 1일부로 同地區 사령부를 解編하는 한편, 同日부로 제18연대를 首都경비사령부 예하로 編製變更하고 同地區의 防守任務는 제17연대와 사령부에 配屬하였던 支援부대로 전담수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연대장 白仁燮 대령은 2개 연대가 맡아온 45km에 달하는 廣正面을 2개 대대로써 제조정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교육 훈련을 시키며 前後方 근무와 戰鬪力 균형유지를 위하여 隔 2개월 마다 부대교대를 시켰는데, 6.25 前의 부대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右一線은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로서, 東은 海岸인 草洞(康翎 北東쪽 14km)부터 西는 藤遠山(魏津 北東쪽 8km) 西端까지의 18km를, 左一線인 제1대대(장, 金鶴泰 소령)는 제3대대와의 制限點에서 西海岸까지 27km의 正面을 맡게 하였으나, 실제 부대가 占領한 것은 斗落山(魏津 北西쪽 14km)까지로서 그 以西의 海岸지역은 警察兵力으로 하여금 맡게하고,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는 예비로서 사령부 지역에 控置하여 교육에 임하게 하였다.

配屬된 제7포병대대(장, 朴廷鎭 소령)의 1개 砲隊씩을, 그리고 對戰車砲 중대(장, 盧敬億 대위)의 1개 소대씩을 各 各 제1, 제3대대에 배속시키고, 殘餘砲隊와 대전차포소대는 融通性을 期하기 위하여 연대본부 지역에 배치하고 工兵대(장, 朴俊熙 중위)는 兵力이 40명에 지나지 않아 3개 步兵대대의 탄약작업소내요원을 여기에 통합하여 연대에서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대대본부를 康翎에 설치하고, 제11중대(장, 金宗崙 중위)를 草洞—牛嶺간, 제9중대(장, 韓 興 중위)를 鶴山(康翎 北쪽 9km)에, 그리고 제10중대(장, 安濟徵 대위)를 藤遠山에 各 各 배치하고, 제12중대(장, 鄭圭漢 대위)의 追擊隊는 各 소총중대에 2분씩, 기관총소대는 제9, 제10중대에 1개 소대씩 배속운용하였다.

배속된 제2포대(장, 徐碩鎧 중위)는 道洞(康翎 北쪽 7km)에서 대대를 一般支援케 하고 대전차포소대는 제9중대에 배속하여 同 중대의 左右側方에서 翠野(康翎 北쪽 18km—陽院 北東쪽 16km)에 이르는 道路를 견제케 하였는데, 이때 제2포대장 金榮福 대위가 砲兵學校 副교육중이어서 大隊 S-3 徐碩鎧 중위가 제2포대장을 겸무하였다.

제1대대장 金鶴泰 소령은 대대본부를 馬嶺(魏津 北쪽 4km)에 설치하고, 제3중대를 △429(忠武高地로 呼稱)에, 제2중대(장, 韓 勳 중위)를 隱洞(魏津 北西쪽 8km)과 斗落山간에 진격하고, 제4중대(장, 孫昌遠 중위)의 박격포 2문을 제3중대에, 4문은 제2중대에, 기관총소대는 제2, 제3중대에, 各 各 1개 소대씩 배속 운용하였으며, 제3포대(장, 金元吉 중위)는 東谷洞(魏津 魏山 西쪽 1.5km)에 佈陣하여 主로 忠武高地—隱洞간을 엄호케하고, 金東根 중위가 指揮하는 제3대전차포소대는 대대본부가 있는 馬嶺에 두고 苔灘(魏津 北쪽 18km)—魏津간의 道路에 指向케 하였다.

예비대대장인 宋虎林 소령은 부대를 연대본부와 같은 嶺山시설에 집결시켜, 基礎 훈련에서부터 小部隊 戰術훈련을 실시하면서, 全員 특동사수 양성을 目標로 사격술 훈련에 重點을 두고 △117(魏津 西쪽 6km)에 사격장을 設置하여 直, 曲射火器의 射撃사격訓練을 실시하면서 연대 교육계획에 따라 西部 해안지역의 경비를 담당한 警察隊 및 鄉土防衛隊요원에 대한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駐屯하고 있는 부대는 헌병대(장, 成威烈 대위), 兵站 보급소(장, 申先均 소령), 특무대(장, 羅公成 중위) 및 野戰病院(장, 池恒康 대위) 등이 있었으며, 경비행장이 冷井里(靈津 東쪽 3km)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전투병력은 同 연대의 2,719명(96%), 제7포병대대의 526명(100%), 대전차 포중대의 129명(100%)으로써 3,300여명이며, 기타 支援부대 병력을 합하면 3,600여명에 달하였다.

주요 장비로는 105mm 榴射砲(M-3) 15문(그 중 3문은 사용불능), 57mm 대전차포 6문, 81mm 迫擊砲 12문, 60mm 迫擊砲 18문, 2.36" Rocket砲 60문의외에 各種 기관총 25정을 保有하고 있었다.

그동안 침묵으로 一貫하던 敵은 6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20일을 전후하여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들 진지의 여러 高地에 砲臺으로 보이는 冑들이 자주 나타났으며, 22일 밤부터 그 翌日 黎明時까지 海州방면에서 窺野로 이동하는 車輛의 대열이 계속되었는데, 海州와 窺野의 중간 지점부터는 防光下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部隊이동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때부터 約一個月前 北傀 제3여단 砲兵部 작전참모 소좌 康昌男이 그의 連絡兵을 대동하고 歸貢한 바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戰鬪序列과 배치상황 및 訓練상태등을 알아냈을뿐 별 다른 계획이나 微談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後인지라, 그들의 움직임을 단순한 機動路線으로 判斷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날로 急進하여 최근에는 차량의 急激한 왕래, 진내에서의 부대이동이 日間에도 公然하게 이루어졌고, 밤에는 車輛의 대열이 38°線에서 5km밖에 안되는 窺野로 이동하고 있음이 觀測되고 소리가 들려왔을 뿐 아니라, 平常時 每日같이 볼 수 있었던 倭民의 그림자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敵의 움직임과는 달리 陸軍本部에서는 5월 말부터 내리진 특별경계령은 6월 23일 24.00부로 해제하고, 그간 營內에 묶여있던 將兵들에게 休暇, 外出, 外泊 등을 허용하였다.

연대장은 그간 敵의 동향을 陸軍本部에 數次 보고한 바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데 놀라움을 표시 못하고, 소 부대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무렵 UN 韓委委員團 요원 5명이 연대를 訪問하고, 연대장으로부터 근간 峯外一路에 있는 窺野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다음, 各 觀測所를 觀察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따라 全 戰線이 조용하고 北傀軍의 그림자 하나도 窺見하지 못한데 反하여, 我軍의 各 重火器중대 重機鎗과 81mm 박격포가 前方으로 추진 배치된 것을 보고 동 委員團은 『38°線상이 이렇게 平穩한데 緊張을 造成케 하는것은 역효과만 낳뿐, 특별경계태세를 취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고 指摘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이에 따라 연대장도 그들 主張에 同意할 수 밖에 없어 전방에 배치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비상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地形: 國師峰(靈津 北쪽 8km)은 半島의 中央部에 있어서 그 支脈을 東西南北으로 뻗고 地帶內를 曠制하고 있다. 38°線을 境界로 北에는 主峰인 國師峰(標高 527m)에서 東으로 秀堡고개(標高 302m), 銀波山(標高 283m), 西로는 達明山(標高 267m), 鶴鳴山(標高 279m) 등이 聳立하여 그들 根據地를 提供하고, 銀波山 東쪽에는 窺野平野가, 達明山 西쪽에는 蒼龍平野가 있어 그들 後方지역에 대한 觀測을 용이하게 하였다. 窺野와 蒼龍은 敵 補給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窺野(靈津 北東쪽 24km)는 康謁(靈津 東쪽 14km)과 陽波(靈津 東쪽 7km)에 이르는 道路의 分枝點을 이루고, 海州—靈津간을 연결하는 海靈線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으며, 峯外—竹山을 이어주는 交通의 要衝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38°線 南쪽에는 忠武高地라 불리는 △429가 國師峰과 不過 7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東으로는 蘇達山(標高 459m), 講山(까치산 이라고도 하며, 標高 350m), 그 南쪽에는 秀堡山(講山이며, 標高 432m), 白雲峰(標高 382m), 그리고 西쪽에는 隱洞의 △412와 斗落山(標高 247m) 등이 東, 西로 뻗어있어 忠武高地를 除外하고는 比較的 有利한 조건에서 敵 地域을 曠制하고 있다. 그러나



北쪽을 除外한 3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孤島와 같이 孤立되어 있기 때문에 背水の 陣으로 不利를 克服해야 하였으며, 半島의 南東쪽에 있는 釜浦(甌津 南東쪽 30km)는 이곳 부대의 生命線과도 같은 存在로서 兵力과 補給品을 支援하는 唯一한 關門을 이루었으며, (仁川까지는 定期연락선으로 9시간이 소요되었다.

지역내의 主要道路는 翠野에서 沙津(甌津 南쪽 13km)에 이르는 50년 道路와 苔灘에서 釜浦에 이르는 道路가 對角線을 이루어 驛院에서 交叉하고, 半島를 東西로 횡단하는 康翎-首洞(甌津 西쪽 12km) 간의 道路가 幹線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문어(文魚) 다리와 같이 갈라진 各 突出部에 小道路網이 形成되어 있다.

氣象: 기간중의 평균 氣溫은  $C20^{\circ} \sim 28^{\circ}$ 로서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때가 많아 09.00까지는 霧靄에 靄靄을 주어 防者에 不利한 條件이었으며, 月齡 10의 月光은 防者에 有利한 條件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곳은 干滿의 差가 심하여 LST와 같은 大體 船隻의 入港은 1일 2회로 限定되었으며 당시의 潮汐 諸元은 다음과 같다.

일	과	潮汐時	潮高	일	과	潮汐時	潮高
6.25		00.39	774cm	6.26		02.00	800 "
		06.44	290 "			08.00	300 "
		13.00	780 "			14.15	777 "
		19.20	238 "			20.30	213 "



〈聯隊旗를 앞세운 제17연대 장병〉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敵은 23일 38°線 접경에 집결완료하고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24일에도 여전히 그들은 頻繁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한 對南 방송을 통하여 『大韓民國의 國防長官 申性模가 以北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며 마치 我軍의 攻擊에 對한 對備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欺瞞放恣을 하였다.

一連의 상황을 銳意 주시한 연대장은, 비록 그들이 혼란 또는 부대교대에 그친다 하더라도 萬一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만은 강구하여야겠다는 決心을 하고, 11.00에 3개 대대장과 배속부대장 그리고 참모들을 집합시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1950. 6. 24. 18.00를 期하여 일부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경계를 강화하려한다.

② 제1대대 : 1950. 6. 24. 18.00부로 전원 진지를 점령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라.

③ 제3대대

㉑ 1950. 6. 24. 18.00부로 전원 진지를 점령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라.

㉒ 동시부로 1개 포대와 대전차소대를 추가 배속한다.

④ 제7포병대대 : 1950. 6. 24. 18.00부로 1개 포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라.

⑤ 대전차포중대 : 1950. 6. 24. 18.00부로 1개 소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라.

⑥ 제2대대 : 1950. 6. 24. 18.00부로 현행임무를 중지하고 별명이 有할시까지 출동대세를 갖추고 대기하라.

⑦ 연대근무중대 : 제2대대 출동에 소요되는 차량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⑧ 협조지시

㉑ 敵의 활동상황을 수시 보고하라.

㉒ 각대는 충분한 량의 실탄을 확보하라.』

연대장이 이와 같이 제3대대 지역에 置重하여 부대배치를 조정한 까닭은,

첫째, 翠野에서 康翎, 陽院으로 이어지는 道路를 敵의 제1接近路로 보았고,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敵情을 보더라도 이 지역에 새로운 부대가 投入된 것으로 判斷했기 때문이다.

만일 敵이 主力으로 早期에 康翎 또는 陽院을 強取하면, 사령부의 戰鬪力은 東西로 양분되고, 撤收路가 遮斷되는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는 考慮에서 平素에도 연대장의 作戰

概念은 東側方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有事時에는 예비대까지도 이 지역에 배치하려는 腹案이었다.

戰線에 대한 一段의 조치를 취하고난 연대장은 陸軍本部 정보국장 張道英(뒤에 都峽으로 改名) 대령에게 鹽津에서 일어나고 있는 敵情을 상세하게 알리고, 『推斷컨대 敵은 금명간 鹽津침공을 피하고 있는 것 같으니 兵力 증원조치를 속히 취하여 달라.』는 要旨의 要辭를 電話와 電文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연대장은 萬一의 事態에 대처하기 위해 부대 운영을 구상하고 제반 작전계획을 검토하였는데, 陸軍本部에서 이곳 부대에 하달될 작전계획은 3단계 작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그 內容要旨는 다음과 같다.

『제1호작전 : 局部戰인 경우에는 敵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며 陣 戰線을 固守하라.

제2호작전 : 敵이 극부적으로 攻勢를 취할 경우 敵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加하면서 증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연전으로 支撐하라.

제3호작전 : 敵이 全面공격을 취할 경우, 敵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加하면서 鹽津에서 철수, 他방면에 轉用되도록 하라.』

위와 같은 陸軍本部 계획에 따라 自體계획도 여기에 맞추어 3단계로 구분 수립하였으나, 여하한 경우라도 제3호작전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대장의 決意이자 覺悟였다.

그 理由는 한치의 방이라도 敵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오직 사령부의 존재만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反共精神으로 굳어진 주민들에게 混亂과 失望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연대장은 제1, 제2호 작전에 대비하여 지역내 주민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部落單位 대피훈련을 軍民合同으로 실시한 바 있었으나, 全面철수를 뜻하는 제3호 작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發說하지 않고 有事時에는 釜浦를 通하여 철수할 腹案만을 세우고 있었으며, 別途로 住民철수계획은 없었으나 公務員과 그의 家族들은 軍과 같이 行動하기로 하고, 一般 住民은 상황과 船舶의 收容능력이 許하는 限度內에서 철수시킬 것을 考慮하고 있었다.

## (2) 작전실시

**6월 25일** : 전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一線부대의 全兵力은 진지를 占領하여 경계태세에 임하고, 연대본부 지역에 있던 제1포대와 제2대전차포소대도 제3대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각종 탄약도 추진 분배하고, 제2대대 練兵場의 각 중대 幕舎 앞에는 1 1/2톤 차량4대씩을 정렬시켜, 不安하고 緊張하였던 24일의 밤에 대비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한 上弦의 달빛이 어두움으로 감돌기 시작하였을 때, 버란간 38°線 상공에 赤, 綠의 신호탄이 絢爛한 빛을 발하며, 東西로 교차하면서 流星처럼 흘러, 미처 그 꼬리

를 감추기도 전에 砲聲이 터지면서 寂寞한 38°線의 새벽 空氣를 흔들어놓았다.

### (가) 臺津附近의 戰況

이날 北傀는 그들의 오랜 野慾인 赤化統一을 달성할 目的으로 04.00를 기하여 南侵의 포문을 열고, 全戰線에서 기습침공을 자행하였다.

臺津지구에 投入한 것으로 알려진 醜敵은 앞서 언급한 北傀 제6사단 이하의 제14연대(장, 대좌 韓日來)와 제3경비여단(장, 소장 崔賢)으로써 그들의 주요 장비는 戰車와 裝甲車 各 8대, 122mm 曲射砲 12문, 76mm 曲射砲 36문, 기타 각종 砲를 합하여 총 196문이었고, 이에 動員된 병력은 15,000여명에 달하였다.

北傀는 04.00에 그들 지원포병으로 하여금 공격준비사격을 실시케 하는 한편, 제14연대로서는 제105전차여단의 戰車와 裝甲車를 선두로 하여 東側에서, 그리고 제3경비여단로서는 騎馬隊를 앞세우고 西側에서 各各 침습케 하였다.

한편 연대장 白仁燁 대령은, 數週간에 걸친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엇인가 劃策하고 있는 것으로 察知하고는 있었으나, 臺津 전역에 직접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豫期하지 못한 까닭으로, 事態의 진전에 따라 그들의 主力 방향에 예비대를 운영할 腹案으로 04.40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에게 『出動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는 要旨의 준비명령을 하달하고, 포병대대장 朴廷鎭 소령에게는 제1, 제3대대 전면에 지원사격을 제공하게 하였다.

05.30에 연대장은 제1대대장 金禧泰 소령으로부터 『05.00 현재 紫洞—隱洞 전면에 2개 대대, 斗落山에 1개 대대로 추산되는 敵이 침습하여 교전중이나, 05.10부터 각 중대와의 연락이 杜絶되어 대대 예비인 제1중대를 紫洞 방향으로 轉換시켜 이들을 阻止케 할 계획이니, 제2대대의 赴援을 요청한다.』라는 要旨의 보고에 이어, 작전주임 安東燁 대위로 부터도 『05.30 제3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翠野에 새로운 부대가 投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대대의 戰況이 마음에 걸렸던 까닭에 06.00에 작전장교 趙善衡 중위를 鶴山の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에게 急派하여 『현 진지를 固守하고, 通信연락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이르는 한편, 예비대를 언제 어느 대대지역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다가, 06.10 제1대대장 金禧泰 소령의 戰死보고를 받고서야 제2대대를 제1대대에 赴援할 것을 決心하였다. 이와 같은 斷案을 내리게 된 까닭은 敵이 제3대대 전면에 새로운 부대를 投入하여 陽動作戰을 퍼면서, 주 목표는 臺津 탈취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에게 口頭로 『1개 중대를 사령부 예비로 확보하고, 대대(一)는 지체없이 제1대대를 赴援하여 전선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대대가 07.00에 出動한지 2시간이 지난 뒤 제3대대에 갔던 趙 중위가 復歸하여 『제3

대대는 主 전지로부터 2~3km 철수한 곳에서, 數10대의 戰車를 전두로 한 1개 연대로 추산되는 敵을 阻止하고 있다.』는 要旨의 보고를 하였다.

處를 쫓리게 된 연대장은 趙 중위를 다시 제3대대장에게 보내어 『증원 병력이 갈때까지 현 확보선을 固守하라.』고 이르게 하고, 제2대대의 작전을 지원하던 제3포대(장, 金元吉 중위)와 제8중대의 박격포소대(장, 全成珪 중위)를 차출하여, 사령부의 唯一한 예비인 제6중대(장, 郭聖範 중위)와 같이 康翎을 확보하게 하였다.

10.00가 지나면서부터 戰線에서 縱深이 5km도 안되는 사령부 周邊에도 敵 砲彈이 떨어지기 始作하고 제2대대의 追擊과는 反對로 제3대대는 11.00에 石溪里(康翎 北쪽 5km) —치마山(陽院 北쪽 4km)線마저 突破당하게 되어, 연대장은 即時 연대본부를 康翎으로 이동하게 하고, 자신도 12.00에는 康翎으로 이동하여 연대본부를 제3대대본부와 같이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동중에 있는 제6중대와 제3포대를 富岩里(康翎 北쪽 3km)로 急轉시켜 제3대대의 철수를 掩護하게 하는 同時에 그들의 進出을 지연시키도록 하였으나, 後發隊로 남은 本部要員과 제1대대 및 이를 扞禦하기 위해 出動한 제2대대와는 連絡이 杜絶된 상황속에서 東과 西에서 混戰과 血戰이 전개되었다.

### 1. 연대본부의 動向

연대장 白仁燁대령은 北僞가 黎明을 期하여 鹽津 전역에 침공하고 있는 상황을 05.00에 陸軍本部(作戰局)에 보고하고 아울러 병력의 증원 요청도 한바 있거니와 이곳에 派遣된 美 軍事顧問官 Frank Brown 소령도 06.00에 美 軍事顧問團(KMAG)에 『제17연대는 敵의 강력한 침공에 부닥쳐 戰線의 유지가 困難하다.』는 것을 알렸다.

연대장은 作戰初期에 그들의 主攻방향이 左一線 正面에 指向한것으로 판단하고 唯一한 예비대인 제2대대를 이곳에 扞禦케 하였는데 敵은 戰車와 裝甲車로 구성된 1개 연대규모로 右一線 正面을 위협하고 있음을 뒤 늦게 알고, 일부 부대를 轉換하여 이들을 極力 阻止하려 하였으나 이미 흩어진 隊列은 전 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左一線 正面에서 제2대대의 진격과는 正反對로 右一線의 제3대대는 分散된 상태에서 철수만 거듭하여 戰勢는 時時刻刻으로 惡化一路에 놓여있었다.

연대장은 10.00에 當面하고 있는 危急한 戰況을 陸軍本部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 달라고 要請하였던바, 陸軍本部에서는 『敵을 무찌르면서 陸地를 돌아서 철수하라.』는 理解할 수 없는 지시를 전하였다.

이러한 對話가 있을때, 鹽津에 用務次왔던 聯合新聞社 소속의 崔起德 記者가 다녀 갔고 10.35에는 顧問官 一行 5명도 서울에서 飛來한 Lloyd Swink 소령과 Brown 중위가 조종하는 2대의 L-5 경비행기에 分乘하여 떠났는데, 연대장은 이들 조종사를 통하여 北僞가 全面침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무렵부터는 연대본부 지역에도 砲彈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戰車와 裝甲車를 선두로 한 醜敵은 거의 無抵抗상태의 右一線 正面을 뚫고 康翎과 陽院으로 肉迫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鹽津거리에는 부상 장병과 이들을 부축하여 따라 나온 사병들과 피난민들로 길을 메웠으며, 이때에 의무대장 秋亨燮중위와 군의관 安奇燮 소위는 郡廳의 方在善 厚生課長과 地方의료요원을 動員하여 부상장병의 응급처치와 後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安 소위는 철수과정에서 失踪됨) 冷井리의 野戰병원에는 벌써 收容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陸軍本部로부터의 증원을 바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된 연대장은 연대본부를 康翎으로 옮길것을 決心하고 11.00에 본부중대장을 겸하고있는 인사주임 盧義淳 대위와 군부중대장 元義常중위에게 12.00까지 사령부를 康翎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는 한편, 군수주임 全禹榮 대위로 하여금 이들을 총 지휘케하였는데, 특히 기밀서류와 각종 보급품, 시설물들을 그들이 사용 못하도록 파기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대장은 鹽津을 떠남에 앞서 郡廳으로 가서 郡守 金泰元에게도 사령부를 康翎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通告하고 關係機關長과 住民들도 一時 安全지대로 피난시키도록 일렀다.

부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月餘前에 步兵學校 피교육자로 차출되어 空席인지라, 연대의 철수의 총 지휘를 맡게된 全禹榮대위는 運搬가능한 物品은 車輛에 적재케하고 그렇지 못할 物品이나 시설들을 燒却하도록 수송관 曺成鉉 중위, 병기관 金忠九 중위에게 업무를 分擔시켜 군수주임 보좌관 겸 본부중대 선임장교 鮮于燿 중위를 後發隊요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인사, 정보, 작전요원과 군수요원의 一部를 인사주임 盧義淳 대위의 지휘로 먼저 出發케하고 의무대장 秋亨燮 중위에게는 2 1/2 톤 車輛 5대를 배당하여 野戰병원에 수용된 患者수송을 지원케하였는데, 步行이 困難한 重傷者만이 優先的으로 후송되고 제2차로 계획된 患者들은 陽院이 遮斷되어 康翎 南쪽까지 나올 수 있었던 者만이 救出되었다.

後發隊를 지휘한 鮮于 중위는 사령부내의 油類저장고와 탄약고 기타 시설물들을 정리하고 14.00에 105mm 포탄을 가득 실은 2 1/2톤車 5대를 引率하여 沙串으로 나가 住民들의 피난선에 포탄과 사병 10명을 태워 이날 21.00에 釜浦港으로 上陸, 本隊와 合勢하였다.

## 2. 제3대대의 狀況

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전일 追加로 배속된 제1포대(장, 金水山 중위)를 廣東(陽院 北쪽 3km)에, 제2대전차포소대를 제11중대(장 金宗崙 중위)에 배속하여 翠野-康翎街道를, 그리고 제9중대(장 韓興중위)에 배속한 바 있는 제1대전차포소대에게는 海鹽線과 병행한 翠野-陽院街道를 전제하도록 任務를 분담시켜 전원 진지를 접령 경계토록 하였다.

날이 밝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赤綠의 신호탄이 空中에 떠오르는 同時에 砲彈이 작열하면서 高요한 山川을 진동하였다. 鶴山(一名, 까치山)의 대대 觀測所에서 이를 觀測한

대대장은 『또 이놈들 發作하는구나.』 하며 시계를 보니 04.00였다. 지금까지도 수시로 그들의 砲擊이나 銃擊을 받고있던 터이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熾盛度가 심하였다. 例事일이 아님을 直感한 대대장은 곧 각중대에 확인한 바, 모두 敵의 포탄의 集中으로 상당수의 死傷者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대장은 3개중대장에게 『敵의 공격이 예상되니 경계를 계속 철저히 하고, 敵이 나타나면 전전에서 阻止 擊退하여 진지를 固守하라.』 명령하는 한편, 사태의 緊迫性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砲兵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당시 105mm 포병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면, 砲彈 사용은 이곳에 파견된 美 고문관의 통제를 받고있는데이므로 그의 承認이 있어야 비로소 사격이 可能하였다. 이와같은 절차를 받게한 것은 韓國軍의 선제공격을 억제하여 美, 蘇간에 야기될수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전제하겠다는 생각에서 取해진 조치라고 한다.

연대에는 顧問단장 Frank Brown 소령을 포함한 3명의 고문관과 운전병, 통신병 각 1명을 합하여 5명이 나와 있었는데, 이들도 사태의 긴박성을 직감하고, 연대장의 사격요청이 즉각 승인되어, 제7포병대대 예하의 각 砲隊에서도 05.00를 期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고 불을 뿜기시작하였다.

대대장은 빗발 치듯한 敵의 포격으로 05.30에 대대관측소가 파괴되는 同時에 有無線기계가 파손되어 猝地에 지휘기능을 상실하였으며, 隣接한 제9중대장의 지휘망인 SCR-300무선기로써 各 중대와의 연락을 유지할 수 밖에 道理가 없었다. 그러나 연대와는 有無線이 단절되었던 까닭에 상황보고나 救援요청을 할수없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各 중대는 안개속을 이용하여 侵攻한 敵과 混戰이 계속되고 있었다.

主陣地에서의 撤收: 北傀 제3경비여단의 掩護를 받은 제14연대는 濼野에서 發進한것으로 알려진 戰車와 裝甲車를 앞세우고 康翎과 陽院에 이르는 道路를 따라 侵攻하였는데, 날이 밝고 안개가 걷혀감에 따라 이들의 正體가 비로소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38°線에서 各各 1~2km 南쪽으로 侵入하였던 때라 그들은 戰車砲와 45mm대전차포 그리고 기관총등 각종砲의 火力을 驅使하여 제3대대에하의 各 중대에 집중하고側, 背射로서 孤立시키고있었다.

이때 전권의 敵만을 상대로 熱戰을 벌이고 있던 各 중대는 戰勢不利하여 南으로 향하여 血路를 찾아 분산하였고, 鵲山에서 제9중대와 같이 石溪里(康翎 北쪽 4km)로 철수한 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제9중대장의 SCR-300 무선기로 各 중대를 호출, 현 위치를 확인한 바 右側1선의 제11중대는 △217(康翎 北쪽 7km)에, 제9중대의 1개 소대는 石溪里에, 2개 소대는 치마山(陽院 北쪽 4km)에, 그리고 右側1선의 제10중대는 藏達山에서 建制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報告되었으나 다른 2개 중대는 분산된 상태였다.

이때가 08.00의 상황인데 대대장은 때 마침 康翎街道를 南下하는 兪軍을 發見하고 이를

제지하여 확인한 바, 연대장의 명령을 휴대한 趙 중위가 鶴山으로 가던중 戰車와 조우하고 연대본부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趙 중위는 연대장의 명령이라 하며 『제3대대는 현 진지를 固守하고, 빨리 통신 소통을 이루게 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대장은 『산산 조각이난 이 막당에 나 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지금 대대 전면에는 數10대의 戰車와 1개 연대가 넘는 敵의 大병력이 康翎과 陽院街道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 빨리 예비대를 이곳에 보내주도록 하라.』고 일러, 趙 중위를 돌려 보냈다.

그리고 대대장은 康翎과 陽院 北쪽에서 敵을 阻止할 腹案을 세우고 무전기로 다시 各 중대를 호출하여 口頭명령을 하달하기를 『제11중대는 板西(康翎 北쪽 4km)에서, 제9중대는 石溪里(康翎 北쪽 5km)에서, 제10중대는 치마山(陽院 北쪽 4km)에서 各各 진지를 편성하고 南下하는 敵을 阻止 격퇴하라.』고 大號한 다음, 증원부대가 곧 到來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침체된 부대 士氣를 鼓舞시키고 敵의 戰車과 파괴에 力點을 두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제11중대의 전황 : 대대장과 연락이 유지된 병력은 중대의 左제1선을 맡고 있던 제1소대와 화기소대로서 金東石 중위가 지휘하고있었다. 草洞에서 右제1선을 맡고있던 제2소대장 金宗燮 소위와 梧南里(康翎 北東쪽 10km)에서 海岸線 경비로 담당하던 제3소대는 중대장 金宗燮 중위와 같이 海岸을 따라 철수하였음인지 연락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217까지 철수하였다.

그리고 중대에 배속된 대전차포소대는 牛峴에서 敵의 戰車를 發見하자 이에 砲擊을 가하였으나 아무런 反應도 없이 계속 전진하는것을 보고 康翎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217에서 隊伍를 정비한 金東石 중위는 제1소대와 화기소대를 지휘하여 08.30 板西의 △270에 진지를 편성하고 石溪里에 진지를 편성한 제9중대와 협조하여 康翎街道에 모든 火力을 指向하고 敵戰車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敵의 戰車는 제9중대 지역을 돌파하고 11.30 소대전면으로 나타나 미처 사격자세도 취하기 전에 砲塔을 휘두르며 포격과 기관총을 亂射하였던 까닭으로 위축되었던 소대는 응사도 못하고 各個분산하여 진나무山(康翎 東北쪽 5km)으로 철수하였는데, 여기서 제10중대장 安濟徵 대위를 만나 그의 지휘하에서 이날 21.00 廣岩里(釜浦 北쪽 7km)로 철수하였다. 2개 중대를 합한 60명은 25일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漁船편으로 安濟徵 대위가 지휘하는 제10중대원 20명이 1차로 떠나고 또 한척의 漁船을 求한 金東石 중위는 소대선입하사관 및 상사(이름 未詳)로 하여금 20명의 사병을 지휘하여 먼저 이곳을 빠져 나가라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기 때문에 金 중위는 및 상사의 손을 굳게 잡고 後日의 相逢을 期約하면서, 28일 06.00 소대원 20명을 廣岩里에 남긴채 延坪島로 향하였다.

제9중대의 전황 : 중대장 韓興 중위는 치마山으로 철수한 약 2개소대 병력을 제1소대장 金東漢 소위의 지휘하에 石溪里로 이동하게하여 09.30 石溪里 北方의 △200에 진지를 편



성하였는데, 康翎街道의 右側은 湖水이고 그 左側은 깎아 세운듯한 급경사로 되어있어 南北間 1km는 道路以外的 餘地가 없는 험로였다.

중대장은 地理的인 利點을 살려 敵의 戰車를 湖水에 몰아 넣을 心算으로 험로 北端에 Rocket砲 2문을, 그 南端인 石溪里 入口에는 4문을 배치하고, 배속된 중기관총과 중대의 경기관총 및 60mm박격포등의 射向을 이곳에 집중하게하여 명령에 따라 一齊 사격케하였는데, 배속된 제1대 전차포소대는 초전에 戰車파괴에 失敗하고 陽跪方向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11.00가 되어 果然 나무가지와 풀로 全身을 위장한 戰車의 隊列이 黃塵과 요란한 소음을 내며 중대전면으로 서서히 다가서는데, 徒步부대는 보이지않았다. 그들은 우거진 深線으로 我軍의 배치를 알아채지 못하였음인지 아무런 경계조치도 없이, 다만 各 戰車마다 1명의 戰車兵이 포탑위로 上半身을 내밀고 주위를 살피가며 石溪里 入口까지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好機를 포착한 중대장은 發射신호와 同時에 포탑위의 戰車兵을 사살하였다. 맥를 같이하여 道路 左右側의 움푹된 곳에 있던 6문의 2.36"Rocket포에서 발사한 포탄은 後爆風을 일으키며 空中을 날아 그 중 3발이 선두 戰車의 앞부분에 명중하여 機動을 停止시키고 後續하던 裝甲車 2대도 命中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어 火焰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를 지켜보고있던 全 중대원은 賊聲을 울리며 기관총과 박격포등을 집중하여 彈雨를 이루게 하였으나 험곡에 들어선 戰車들은 일제히 포탄을 중대가 배치된 山으로 돌리고 20餘分간 亂射를 加하여 草木에 가리웠던 山巒를 들어내게 한 다음 파괴된 裝甲車는 湖水에 밀어제치고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제9중대장의 戰車파괴를 위한 계획도 허사가되고 중대는 많은 死傷者를 남긴채 康翎으로 향하여 各個分散하였으며 제1소대장 金東漢소위도 이 戰鬪에서 다리를 負傷하여 野戰病院으로 후송되었다.

제10중대의 전황 : 중대장 安濟徵 대위는 대대장의 철수명령을 받고, 『앞에는 敵이요, 뒤에는 바다인데 차라리 여기서 한놈이라도 더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철수할 것을 不應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의 지엄한 명령을 再三 거역하지 못하고 09.30 陽跪街道에 잠한 치마山 西麓에 3개 소대를 一線 배치하여 敵의 南下에 대비하였다.

중대가 배치되었던 祿達山에는 포탄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고 지형이 험하여, 銀波山에서 뻗어나온 돌산(중대의 右側)에 배치된 제3소대(장 金東華 소위)에서 10명의 死傷者를 낸 以外에는 建制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대에서는 가장 強力한 戰鬪力을 보유하고있는 중대였다. 중대는 10.40 右제1선의 제1소대장 崔泰炳 중위의 『戰車 발견』 신호에 따라 계획된 全 火力을 이에 집중하여 戰車파괴에 專力하였으나 마치 바위에 제란 던지는 것과 같아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砲火에 制壓 당하는 바 되어 裝甲車 1대만을 파괴하고 各個分散되고 말았다.

## 3. 제1대대의 狀況

25일 04.15 포성으로 잠을 설친 대대장 金禧泰 소령은 근간 敵의 활동이 활발하여전대다 未明의 포격이 常스럽지 않음을 直感하고 급히 상황실을 찾았다. 이때 상황실은 전화 통마다 사병들이 붙어서 상황청취에 바빴고, 교육관 金熙濟 중위와 정보관 洪性璇 중위는 상황기록을 검토하며 상황판 위에 落彈지점을 圖示하고 있었다.

교육관이 대대장에 보고하기를 『敵은 04.00를 기해 포격을 시작하였는데 只今까지와는 달리 낙탄 빈도가 심하고 대대 전역에 번져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포격은 더욱 더 熾盛하여 대대본부 지역에도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아직 敵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없어 좀 더 事態를 觀望키로 하고 전방에 배치된 제2, 제3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계를 철저히 하고, 敵 포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警告심을 불러 일으켰다.

04.40 제3중대장으로부터 『중대의 左전면 토끼高地의 死角지대에 敵 1개소대 병력이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놈들을 남김없이 生捕할 터이니 잘 지켜 보고 있으라. 내가 거기에 직접 나가겠다.』라고 이르고 정보관 洪 중위를 불러 『내가 지금 前方으로 나가 놈들을 捕獲해올 터이니 手匣을 있는대로 갖다 車에 실어 奉토록 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된 것은 당시 대대에서 수색정찰이나 不純分子 색출작전시는 꼭 手匣을 휴대하게 하였던 관계로 20여개의 手匣이 정보과에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대장은 出動한 以來로 이렇다할 戰鬪도 없이 無寥하게 지냈으므로 이 기회를 노칠새라 05.00에 彈雨를 뚫고 제3중대 본부가 있는 紫洞(馬嶺 北쪽 1.5km)을 향해 單身으로 떠났다.

대대장이 紫洞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중대본부의 Bunker가 파괴되어 修羅場을 이루고, 본부요원도 볼 수 없었는데 토끼高地가 있는 梨洞 전면에서는 치열한 交戰이 벌어지고 있는듯 피아의 銃聲은 고막을 찢는듯 하였다.

車에서 내린 대대장은 운전병과 車를 隱蔽된 곳에 있게하고 敵이 숨어 있다는 토끼高地를 향해 700m가량 걸어갔을 때 부상자와 이를 부축한 제3중대원이 마구 쏟아져 내려가면서 敵 大병력의 侵攻으로 제2소대장 金鎬京 소위가 戰死하였다고 急報하였다. 대대장 金禧泰 소령은 그제서야 數週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그들의 움직임이 이날의 침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대 지역에 있는 제1중대로써 이들을 阻止시켜야겠다는 急한 마음에서, 거기서 대대 본부까지 2km가 넘는 거리를 單숨에 뛰었다.

이때의 상황을 教育관이었던 金熙濟중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05.30이 지났을때 대대장은 上衣를 벗어 들고 汗에 흠뻑 젖은채 대대본부 영문을 들어서면서 숨이 찬 목소리로 『熙濟야, 熙濟야! 제1중대를 빨리 紫洞에 배치하라.』라고 이르고 人事장교 金錫一 소위에게는 道路로 나가 철수 兵력을 수습하도록 지시한 다음 연대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제2대대의 赴援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제2, 제3중대와는 05.00를 지나면서 有無線이 두절되어 그 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나, 두절 직전의 제2중대장 韓 赫 중위의 최종 보고는, 隱洞 정면에서 1개 대대, 斗落山 정면에서 1개 대대로 추산되는 醜敵과 교전중에 있다고 하였다.

06.00 대대장은 제1중대(장, 龔隱德 대위)의 출동을 확인하고서도 흥분이 진정되지 않은듯한 표정으로 『제1중대를 직접 지휘할터이니 교육관 너도 따라오라.』하고 齧門을 향하여 10여m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짹”하는 소리와 함께 대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 金禮泰 소령은 敵의 82mm 迫擊砲의 直擊彈에 맞아 散華한 것이며, 그의 팔목에 찔던 時計만은 남아서 그의 傳令 金榮錫 병사에게 傳해졌는데 이때가 06.10이었다.

**제3중대의 전황** : 중대장(姓名 未詳)은 赴任한지 3일째 되는 날인 25일 토끼高地의 金鎬京 소위로부터 敵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05.00 중대를 떠났으며, 그 직후 중대 본부 요원은 Bunker의 파괴로 서무계 崔文植 중사의 지휘하에 대대본부로 철수했기 때문에 중대의 전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當時 제3소대장 尹鍾漢 중위는 後口 이때의 전황을 다음과 같이 追憶하였다.

『중대의 右側1선은 제1소대(장, 李泰一 중위)가, 左側1선은 제2소대(장, 金鎬京 소위)가 그리고 中央에 제3소대가 배치되었고, 제4중대의 기관총소대(장, 金有熙 중위)는 제2소대 지역에, 박격포소대(장, 李弘根 중위)는 82mm 박격포 4문을 馬岷에 두고 중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날 04.00부터 敵의 포격이 始作되었는데, 중대 본부를 포함한 제2소대 지역에서 가장 熾盛하여 05.00에 有無線이 두절되고, 國師峰으로부터의 접근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제1분대(장, 李瑪求 중사)의 경계초소가 直擊彈에 맞아 파괴되었을 뿐, 그 후는 심한 포격도 없었고, 피해도 없었다. 06.00에 左側의 제2소대원과 기관총소대원으로 혼합된 25명이 뛰어 와, 數미상의 敵의 大병력이 침습하여 소대전지를 유린하고 藥洞으로 南下중에 있으며, 토끼高地에서 중대장과 兩소대장도 戰死하였다고 報告하였다.

나는 3개소대를 통합하여 15.00까지 무려 11차에 걸친 醜敵의 波狀공격을 물리치고, 소대지역으로의 침습을 許容하지 않았다. 어느 곳과도 連絡이 안되어 靈津 전역에서 北僞의 南侵 사실을 알길이 없는 소대는, 오직 말은 전면에 대한 防守에만 專力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부터는 周圍가 조용하고 그들의 기관총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었다.

아침과 점심밥을 먹지 못한 兵士들은 지쳐 있었고, 실탄 또한 消盡적이어서 傳令 安勝七 상병을 시켜, 動情을 살피오게 한바, 사령부는 불에 타 연기만이 자욱하였고, 陽院쪽에는 敵이 列을 지어 걸어오고 있다고 하였다. 本人이 직접 확인한바도 傳令의 보고내용과 같았고, 陽院 3거리에는 戰車 2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철수를 決心하고, 이곳 地理에 밝은 冷井 출신인 제1분대장 李瑪求 중사와 傳令 安勝七 상병의 案内를 받기로 했는데, 제3중대는 靈津에서 募兵하여 증원한 부대이기 때문에 사병의

大部分은 이 地方출신이었다. 소대는 18.00에 비행장 南쪽 海岸으로 철수하고, 3隻의 漁船으로 26일 08.00에 龍湖島에 도착,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또 중대의 右제1선인 제3소대(장, 李泰一 중위)의 상황은 당시 제3중대를 지원한 제4중대의 迫擊砲 소대장 李弘根 중위의 證言을 통하여 헤아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총 소대장 金有熙 중위와 같이 제3중대를 지원했는데, 金 중위는 左側소대 지역에서 交戰중 05.40에 戰死하고, 나는 4문의 81mm迫擊砲를 馬嶼에 放列하여 04.30~14.00까지 2 1/2톤 2車분의 포탄을 벌겁게 달은 砲身에 물을 부어가며 사격에 열중하였는데, 탄약이 떨어져 宋虎林 대대장의 명에 따라 반장 柳英一 중사로 하여금 탄약을 가져오게 하였던 바, 사령부는 이미 불타서 없어지고 敵의 戰車가 邑內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 대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대전차포 소대장 金東根 중위와 같이 또 2문을 끌고가 戰車를 향하여 사격을 加하였으나, 오히려 그들 포사격을 받아, 대전차포의 공이 뭉치만 분리하여 간신히 빠져 나왔다. 그후 철수 문제로 제7중대장 趙慶鶴 중위와 無線 교신을 하고 있을 때, 忠武高地右側에서 堅守하고 있던 제3중대의 제1소대장인 李泰一 중위가 개입되어 混信을 이루었는데, 이때 李泰一 中尉에게 「지금 전 대대가 철수하니 빨리 馬嶼으로 철수하라.」 하던 터니 李泰一 중위는 「敵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철수냐 李 중위 너 北傀軍에 물이 들어 나를 陷阱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냐? 하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제2중대의 전황** : 중대 지역에는 唯獨 포탄의 落下가 熾盛하여 초전부터 有無線이 단절되어 各 소대는 獨自의으로 물밀듯이 밀어 닦친 2개 대대 규모의 醜敵을 상대로 血戰을 전개하였다.

이 戰鬪상황에 관하여 소대장중 唯一한 生存者인 제2소대장 賓龜頭 중위의 證言을 통하여 當時의 중대 상황을 알아보면

『北傀 제3경비여단 예하로 밀어지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은 05.00에 38°線을 南侵하여 隱洞을 防守하고 있는 제1소대(장, 金喆洙 중위)를 유린하고, 05.40에는 喊聲을 울리며 소대 전면을 闖습하였다. 그들은 赤旗를 先頭로 하고 旂을 지어 그 뒤를 따랐는데, 마치 술에 취한 者와 같이 비틀거리며, 그들 동료들의 屍體를 넘어서 無作定 기어 올라왔다. 이에 소대는 全 火力를 집중하여 그들 제1波를 물리쳤으며, 이에 勇氣를 얻자 계속 밀어 닦치는 醜敵의 제5波까지를 격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소대도 5명이 戰死하고 8명의 부상자를 내는 손실이 있었고, 실탄의 餘分量도 바닥이 나 있었다.

이때 제3소대(장, 尹基周 중위)가 占領하고 있는 左側前面의 斗落山頂에는 赤旗가 펴려 있고, 소대 전면의 道路에는 騎馬隊를 선두로 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徒步로 유유히 중대 본부가 있는 儒城洞(薳津 西北쪽 12km)을 향해 행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일단 本隊와 합류하기로 決心하고, 사령부가 있는 薳津을 향해 15명의

소대원을 지휘하여 철수중 13.00에 天長山(甑津 西北쪽 6km) 東端에서 부대대장 朴周用 대위를 만났다. 朴 대위는 전날 대대장 金禧泰 소령의 명령을 받고, 제2중대의 경계 태세를 확인차 나갔다가 變을 당하여 본대로 가는 길이었다. 朴 대위와 나는 명령도 없이 戰地를 이탈한 罪責感에서 自決할 것을 決心하고, 아무 罪도 없는 兵士들을 먼저 철수하라고 하였으나 兵士들도 따라서 죽겠다고 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날 16.00 冷井黑에서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을 만나, 다른 부대의 撤收병력과 合勢하였다. 卽 라는 것이다.

거기서 賓 중위는 제2대대장으로부터 陽院—康詔간의 敵情을 살피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소대원 15명을 지휘하고 1km를 전진하였을 때, 병기장교 金忠九 중위가 탄약상자를 가득 실은 3/4톤차량위에 사병 5명을 태우고 內쪽으로 질주하면서, 陽院과 康詔은 敵手中에 있으니, 가지 말라는 말을 남긴채 가버렸고, 이 말을 들은 賓 중위는 그 길로 소대를 비행장 東쪽 海岸으로 誘導하여, 康詔으로 가던중 漁船을 만나게 되어 그 배로 26일 06.00 釜浦로 상륙하였다.

제1중대의 전황 : 06.00에 出動한 제1중대(장, 姜憲德 대위)가 대대 본부 來側 稜線을 따라 07.30에 紫洞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敵은 벌써 대대본부를 占領하고 있을 터였다. 그때까지는 안개가 걸리지 않아 원거리 觀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이 밝으면서 그들 包圍網에 들게 된 것을 알았다. 進退維谷에 빠진 중대는 前後方에서 突擊하는 敵을 左衛右突로 무찌르는 2시간 餘의 血鬪를 계속하였다. 이때 불안간 天地를 전등하는 賊聲이 퍼지면서 醜敵들은 포위망을 풀고 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제5중대(장, 金致錫 중위)는 追擊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대 역시 제5중대와 連繫하고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의 지휘하에서 逆襲에 가담하였다.

#### 4. 연대 예비대의 反擊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06.20 에하 중대장을 집합시키고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① 대대는 6.25.07.00를 기하여 紫洞—隱洞 지역에 침습한 敵을 격퇴하고 主 전지를 회복하려 한다.
- ② 제5중대(1개 기관총소대 배속)  
6.25.07.00를 기하여 목표 제1을 공격 탈취하고 목표 제3으로 진출하라.
- ③ 제7중대(1개 기관총소대 배속)  
6.25.07.00를 기하여 목표 제2를 공격 탈취하고 목표 제4로 진출하라.
- ④ 제8중대  
④ 6.25.06.40을 기하여 제5, 중7대에 각각 기관총 1개 소대를 배속하라.  
④ 박격포 소대는 대대의 공격을 일반지원 하라.

⑤ 제6중대 : 6.25.07.00를 기하여 현 위치에서 사령부 예비가 되라.

⑥ 협조지시

㉑ 제1대대를 초월시 긴밀하게 협조하라.

㉒ 안전을 고려 車間 거리와 隊間 거리를 유지하라.』

이미 하달한 바 있는 준비명령에 따라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던 대대는 공격대기지점을 제1대대본부 부근으로 定하고, 각 중대를 車輛化하여 06.40에 出動, 그 선두 車輛이 馬峴(속칭 팔계)에 이르렀을 때, 北傀 제3경비여단 예하로 믿어지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이 行軍隊형으로 南下하고 그 선두는 제1대대 본부의 영문 앞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대장은 兵力을 下卑시켜, 秀坐山에서 西側으로 뻗어 내린 稜線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제5중대를 道路의 右側에, 제7중대를 그 左側에 展開케 하고, 正刻 07.00에 공격개시의 신호를 올렸다.

제1대대 본부에는 아무도 없는듯,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속속 영내로 들어가고, 화염이 치솟고 있는것으로 보아 닥치는대로 放火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대대의 觀測所로 定한 馬峴의 道路邊에는 제4중대의 李弘根 중위가 지휘하는 81mm 迫擊砲 4문과 金東根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 2문, 그리고 이보다 700m 南쪽에는 5문의 105mm 曲射砲가 있었는데, 그간 對砲兵戰에 熾盛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彈皮와 탄약상자로 길이 막혀 있었다.

여기에 제8중대의 全成珏 중위가 지휘하는 81mm 迫擊砲 6문이 加勢하여, 17개의 포문은 敵이 집결하고 있는 제1대대의 練兵場을 目標로 一齊히 火焰을 吐하기 시작하고, 敵陣은 순식간에 阿鼻叫喚의 소용돌이로 化하였다.

氣高萬丈한 그들에게 一針을 加한 제2대대장은 제5중대로 하여금 이들을 迫擊케 하고, 제7중대로 하여금 砂洞으로의 진격을 서두르게 하였는데, 09.00 연대장 白仁燁 대령이 馬峴觀測所로 進出하여 대대의 작전을 격려하고, 이르기를 『제3대대의 전황이 위급하니 1개 중대를 더 차출하라.』하였는데, 勝勢를 잡고 迫擊중에 있는 중대를 뺄수가 없어, 제8중대의 迫擊砲소대(장, 全成珏 중위)와 제3포대(장, 金元吉 중위)만을 康翎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대대장은 10.00에 觀測所를 제1대대 본부의 東側稜線으로 추진, 迫擊하는 제5중대를 격려하고 있을때, 한발의 AK소총탄은 그의 左側顔面部를 스쳐 귀를 貫通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조금도 흐들어지지 않는 凜凜한 자세로 위생병을 불러 응급치로케 한 다음 계속 작전을 지휘하여 14.00에는 제5중대를 柴洞으로, 제7중대를 砂洞으로 각각 진출시켜 退却하는 敵을 迫擊케 하고, 대대 보급관 朴元根 중위로 하여금 탄약과 건빵등을 추진시켜, 부대의 士氣를 진작케 하였다. 이무렵 정훈장교 韓瑞漢 중위가 연대장이 署名한 철수 명령을 가지고와 말하기를, 『지금 敵은 大병력으로 薺津 전역을 휩쓸었고, 그들의 戰車가 곧 陽院에 도달할 거리에 있으며, 연대본부는 12.00에 康翎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며 철

수를 서두르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대장은 大怒하여 『우리가 戰勢를 逆轉시켰는데 무슨놈의 철수야!』하며 계속 抗戰의 뜻을 나타내고 韓 중위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12.00에 들어간 탄약 추진車가 오지 않아, 李弘根 중위를 시켜 연대본부에 연락하여 탄약을 추진케 하였던바, 그의 보고도 『연대본부는 12.00에 康翎으로 철수 하였고, 건물들은 불타고 있어 탄약지원이 困難하다.』라는 것이었다.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그제서야 事態가 심각함을 直感하고, 부대를 安全하게 철수시켜야겠다는一念에서, 于先 가까이 있는 제5중대장 金敎錫 대위를 先發隊로 하여, 撤收路를 開拓하게 하는 한편, 정보 교육장교 李亨柱 중위에게는 제7중대와 아직 작전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제1대대의 각 중대에게도 철수명령을 전달케 하였다.

**제5중대의 전황**: 제5중대장 金敎錫 중위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를 馬現으로 철수시켜, 선임장교 겸 화기소대장 權正龍 중위에게 병력을 指揮하게 하고, 15.00에 自身은 2 1/2톤車 1대에 제2소대장 柳洪植 중위와 2개 분대 兵力을 탑승시켜, 野戰병원 앞에 이르렀을 때, 어느 住民이 高喊을 지르면서 손 짓으로 車를 세우라는 것이었으나, 운전대에서는 이를 보지 못하였는지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있을때, 보리밭에 潛伏하고 있던 北僞軍의 기관총 사격을 받아, 중대장을 포함한 5명이 戰死하고, 柳洪植 중위는 右跔다리에 貫通傷을 입었다. 이들 生存者 15명은 포북으로 비행장 南쪽의 海岸으로 나가, 仁川에서 나온 고기잡이 배를 타고 26일 새벽녘에 延坪島에 上陸하여, 거기서 羅公成 중위가 지휘하는 特務隊員과 같이 27일 밤에 仁川에 到着하는 즉시로 本隊와 合勢하였다.

한편 2개 소대 남짓한 병력을 지휘하여 중대장의 뒤를 따르던 權正龍 중위는 海岸을 따라 各個躍進으로 25일 20.00에 中基洞(康翎 南東쪽 8km)에 도착,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 지휘하에 들게 되었는데, 중대는 이날 전투에서 醜敵 300餘(隨殺體 200여명 포함)를 射殺하고, 많은 戰傷 포로와 各種장비를 노획하였으나 철수시에 이들 노획품을 拋棄하였다. 反面에 중대에서도 중대장 金敎錫 중위, 제3소대장 李春滿 중위 외에 사병 20餘명이 戰死하고, 柳洪植 중위를 포함 30명이 戰傷을 입는 손실이 있었다.

**제7중대의 전황**: 중대장 趙慶衡 중위는 隱洞으로부터 침습한 敵을 격퇴하고 13.00에 중대의 제1 목표인 砂洞을 確保하였다. 제2 목표인 隱洞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隊伍를 정비하고 그들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대대에서 탄약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차에, 대대 본부에 急派한 傳습이 14.00에 중이 쪽지 한장만을 가지고 歸隊하였다. 그 쪽지에는 卍대대장 李東浩 대위의 필서로 『康翎으로 撤收하라.』고 적혀 있을뿐, 아무런 理由나 說明이 없어 어찌 할바를 몰라 無電機로 대대장을 呼出하였으나, 연결이 안되고, 제4중대의 追擊砲 소대장인 李弘根 중위의 感이 잡히면서, 대대가 철수하게 된 것을 알았다. 이에 따라 철수를 결심한 趙 중위는 현재 接敵을 유지하고 있는 제1소대(장, 吳乘珍 중위)를 掩護부대로 하고, 제8중대 기관총소대(장, 李東吉 중위), 火器소대(장, 金三萬 중위), 제2소대(장, 吳

成煥 소위는 10.00에 戰死), 제3소대(장, 趙有同 소위)順으로 철수하게 하였는데, 이때 중대 인사제 李春植 상사는 제1소대와 같이 중대의 철수를 掩護하겠다고 自願하였다. 어쨌든 중대는 계획대로 축차적으로 철수하여, 제3소대가 제1소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는데, 소대장 趙有同 소위가 敵의 狙擊으로 머리에 銃傷을 입고 戰死하자, 切齒하고 일어난 소대선임하사 高龍出 중사가 CAR(M-1)소총을 亂射하며 敵陣으로 뛰어들어 奮戰하다가 그도 또한 頭部에 貫通傷을 입고, 영영 일어날줄 몰랐다. 그리하여 吳秉珍 중위는 제1, 제3소대 병력을 收拾하여, 중대의 主力과는 만나지 못한채 冷井里로 철수하였다.

**제8중대의 전황:** 중대장 李東洙 대위는 부대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날 제1기관총소대(장, 沈怡燮 중위)는 제5중대에, 제2기관총소대(장, 李東晉 중위)는 제7중에 각각 배속되고, 81mm 迫擊砲소대(장, 全成珏 중위)만을 지휘하며 대대장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迫擊砲 소대가 10.30에 康翎으로 이동하고난 다음부터는 대대장 명령으로 대대 본부에서 인사장교 元容五 중위와 보급관 朴元根 중위를 직접 지휘하여, 戰線에 탄약과 급식지원을 감독하였다. 12.00에 연대본부가 철수할 때 元容五 중위 지휘하에 본부要員을 康翎으로 철수시키고, 빈 建物에다 『康翎으로 철수하라.』는 쪽지를 써 붙인 다음 대대장을 찾으러 나섰으나 만나지 못하고, 15.00에 李亨柱 중위를 만나 戰線에서 철수한 제1기관총소대와 기타 병력등 70명을 지휘하여 그날 21.00에 沙串(溇津 南쪽 13km)에 도착 本隊와 合勢하였다.

#### (나) 연대장의 作戰指導

연대는 이날 敵의 기습적인 全面侵攻을 맞아 衆寡不敵한 劣勢속에서도 奮戰敢鬪하여 敵에게 多大한 被害를 加하였으나, 그들의 戰車를 當해내지 못하고 開戰 8時間만에 陽託이 차단되기에 이르러 연대본부와 支援부대를 康翎으로 이동시키고, 제1, 제2대대의 撤收路를 確保하기 위해 敵을 康翎 北쪽에 阻止擊退코자 1개 소총중대와 1개 105mm포대, 그리고 81mm 박격포소대를 左一線 正面에서 轉換시켰으나, 右一線인 제3대대가 11.00를 前後하여 瓦解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效果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3대대의 철수를 掩護하는 것으로 끝났다.

연대장은 分散된 제3대대의 병력의 收容과 再編成을 서둘러 하였는데, 14.00에는 그들 戰車가 窟岩里까지 侵透하였다는 急報에 따라 于先 연대본부를 釜浦로 이동시키고, 康翎으로 나오지 못한 제1, 제2대대는 宋虎林 소령 지휘하에 沙串으로 철수하라는 要旨의 命을 韓瑞漢 중위로 하여금 傳達케 하여 臨時方便으로 부대를 2개 方向에서 철수키로 決心하였다.

그리고 當面한 敵에 대하여는 康翎이 平野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對敵할만한 곳이 못되었으므로 防守에 有利한 中基洞(康翎 南쪽 7km)—竹橋里(中基洞 西쪽 1km)線에 防禦陣地를 編成하여, 여기에서 그들을 殲滅시켜 釜浦港의 確保를 圖謀키로 하였다.



## 1. 康翎과 釜浦附近의 戰況

各 戰線에서 各個分散된 제3대대는 12.00~14.00 사이에 3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康翎의 대대본부에 收容되었는데, 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인사장교 朴鍾漢 중위와 정보장교 李敏洙 중위의 부축을 받으며 集結地로 돌아왔으나, 제10중대장 安濟徵 대위와 제11중대장 金宗尙 중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10중대는 선임장교인 柳致文 중위가, 제11중대의 殘留병력은 제12중대장 겸 부대대장인 鄭圭漢 대위가 각각 지휘하도록 하여 再編成중이었는데, 이무렵 甕浦로 앞길에 敵 戰車가 出現하여, 대대는 숨돌릴 餘裕도 없이 中基洞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연대장은 대전차포와 이를 조작하는 射手 및 副射手요원만을 除外한 소 전투병력은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 지휘하에 中基洞으로 이동하게 하고, 中基洞-竹橋里線에 阻止진지를 편성할 준비를 하는 同時에 落伍兵을 수집하여 戰鬪兵力을 확보하라고 일렀다. 그런 다음 연대장은 Cal 50 기관총이 장치된 3/4톤車에 탑승하여 대전차포 중대장 盧敬億 대위를 지휘, 4문의 대전차포를 康翎江 東岸堤防에 배치하고 戰車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들 戰車는 몇차례 我軍 방어線を 突破할때마다 비록 위력은 없으나 대전차포와 2.36" Rocket砲의 공격을 뺀 바 있었으므로, 겁을 먹은듯 徐徐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15.00에는 康翎入口에까지 와서는 一旦 停止하여 周圍를 살펴보는 기세였다. 好機를 捕捉한 盧敬億 대위의 「사격 개시!」의 大號와 함께 4문의 대전차포에서는 불을 뿜으면서 戰車의 가장 脆弱한 側方을 強打하여 戰車 3대와 裝甲車 2대를 파괴하는데 成功하였다. 이 射擊으로 Caterpillar가 단절되고 機能이 마비된 戰車는 擱出되고, 탑승하였던 戰車兵들이 脫出을 꾀하였으나 이들도 Cal 50 기관총의 標的이 되고 말았다.

甕津전투 以來 처음으로 戰車 파괴의 凱歌를 올린 연대장은 대전차포와 사수 요원들을 中基洞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다음 작전에 대비케 하였는데 그들은 파괴된 戰車로 길이 막혀서인지 追擊하지 않았다.

이때 中基洞에 당도한 연대장은 徒步부대의 이동 完了를 확인한 다음, 防守에 有利한 中基洞-竹橋里線을 最終 방어선으로 하여, 釜浦港 확보를 위한 背水の 橋頭堡를 치기로 決心하고, 16.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甕津 撤收시까지 中基洞-竹橋里線에서 抵抗하면서 釜浦港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3대대 : 新坪里(中基洞 東쪽 5km)-中基洞에 진지를 편성하고, 敵을 阻止 擊退하라.

③ 제6중대(제8중대 박격포소대 배속)

竹橋里에 진지를 편성하고, 敵을 阻止 擊退하라.

④ 대전차포중대 : 中基洞에 위치하여 진전으로 南下하는 機械化부대를 破摧하라.

⑤ 제7포병대대 : 中基洞에 布陣하여 사령부를 일반지원하라.

⑥ 공병대 : 朝村(康翎 南쪽 4km)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복귀하여 본부대장 지휘하에 입하라.

⑦ 본부대 : 군수주임 지휘하에 사령부를 방호하고 釜浦港을 확보하라.

⑧ 협조지시

㉓ 각 부대간에 협조와 연락을 유지하라.

㉔ 통신은 유선과 전령에 의한다.

㉕ 落伍兵을 수집, 전투병력을 확보하라.

㉖ 탄약과 식사는 추진보급한다.』

명령하달이 끝난 연대장은 無電으로 제2대대를 呼出하였으나 應信이 없었다.

이어서 陸軍本部에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였던 바, 『병력철수를 위한 艦艇이 곧 도착할 것이니 철수하라.』는 전문회신을 받았다. 그뒤 제5중대의 權正龍 중위 지휘하에 中基洞으로 철수한 2개 소대병력은 車輛化하여 釜浦로 이동시켜, 그곳의 防護를 보강케 하고, 제3대대의 落伍兵 100餘명을 수집, 각己 소속대로 유도하여 戰鬥力을 強化하게 하였으며, 공병대는 朝村의 교량을 파괴하고 20.00에 釜浦에 도착, 군수주임 지휘하에 釜浦港의 防護에 입하였다. 또한 연대장은 甕津을 奪取한 敵이 餘勢를 몰아 계속 追跡을 強行한다면 극도로 士氣가 沮喪된 병력으로 勘當할 道理가 없는 까닭으로 그들로 하여금 夜襲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方法을 구상하였다.

그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과 포병대대장 朴廷鎬 소령에게 박격포에서 野砲에 이르기까지 全 砲로써 날이 밝을 때까지 擾亂사격을 계속하게 하고, 수송관 曺成鉉 중위에게는 釜浦港에 집결시킨 全車輛(100대중 15대는 甕津에서 나오지 못함)을 空車로 中基洞까지는 Head Light를 켜채 가고, 돌아올 때는 불을 끄게 하여 반복 往來를 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我兵力이 增援되는 양 假裝케 하였다. 연대장의 이러한 計策이 奏效하였음인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들의 夜襲氣勢는 없었고, 인근 住民이나我軍에게까지 士氣를 鼓舞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23.30 釜浦港에는 海軍 LST-801艦이 接岸되고, 艦長 金玉卿 대위는 연대장을 방문하여, 병력 철수임무를 떠고 왔다는 것을 밝히면서 『明朝 08.00에는 배가 모래위에 얹히게 되므로 그 전에 떠날 수 있도록 승선시켜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장은 『다음 日 沒時까지는 승선 완료하도록 조치할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대답하고 다시 戰線으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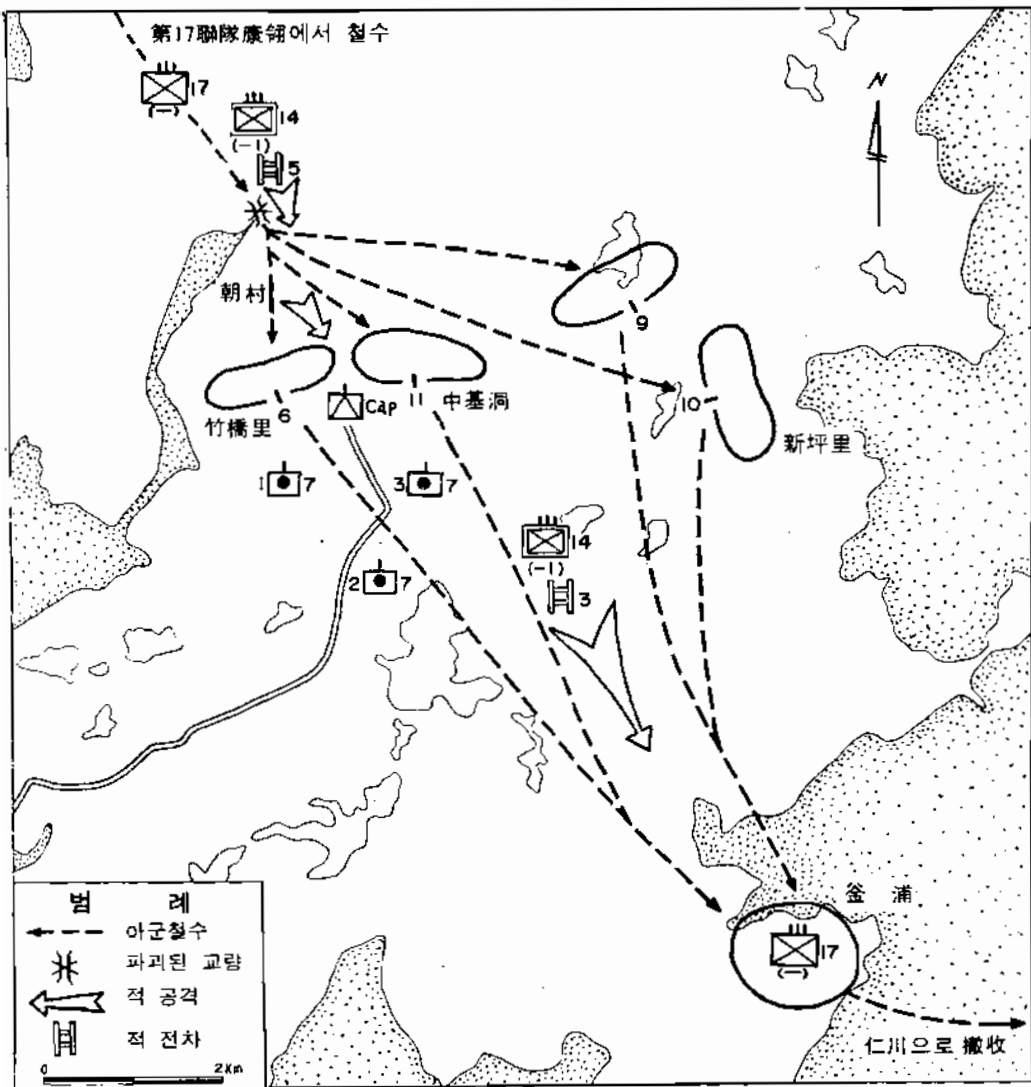
26일 00.30 戰線으로 돌아간 연대장은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과 포병대대장 朴廷鎬 소령을 불러,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海軍 艦艇이 와 있음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시간을 기하여 병력을 철수한다. 各隊는 敵이 察知하지 않도록 계속 사격을 실시

하면서 1개 중대씩 車輛으로 철수하라. 釜浦까지는 月光을 利用하고, 등화관계를 철저히 하라.』

이로써 各隊는 銃砲의 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01.00부터 1개 중대씩 철수하기 시작하여 05.00에는 제3대대에서 1개 중대, 포병대대에서 1개 포대와 대전차포중대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敵이 05.00부터 砲撃을 加하면서 침공을 재개한 까닭으로 車輛이동을 中止시키고 기동력이 없는 제11중대(장, 鄭圭漢 대위 겸무)를 徒步로 철수케 하는 한편, 대전차포와 105mm山射砲로써 사격을 계속케 하여 그들의 진출을 저지케 하였으나, 그들의

◇ 상황도 제14호 康翎, 釜浦부근의 戰況(6. 25~26)



戰車는 彈雨를 뚫고 06.00에는 朝村의 교량 파괴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迂回路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량복구를 위해 住民을 動員한듯 住民들이 모여들어, 作業을 서둘러 하고 있는것 같이 보였으나 我軍의 砲擊이 심한 탓으로 3시간이 지난 뒤에야 戰車의 움직임이 觀測되었다.

연대장은 朴廷鎬 소령에게 남아있는 全兵力과 砲를 釜浦로 이동케 하고, 盧 대위를 시켜 2문의 대전차포를 釜浦로 들어서는 갈림길의 음폐된 곳으로 옮기게 하여, 연대장 자신이 盧 대위와 함께 각 1분씩을 맡아 그들의 접근을 기다렸다. 09.30 그들의 戰車는 中基洞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고 我軍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인지 다시 시동하여 方向을 釜浦入口로 전환하려 하였다. 이 기회를 捕捉한 연대장과 盧 대위는 200m 전방에 보이는 先頭車와 2번車의 側面에 연속 사격을 가한 다음, 대전차포의 격발장치를 제거하여 대기시켰던 Ca1 50 기관총이 거치된 3/4톤車르 철수하였다.

## 2. 海軍艦艇의 赴援

한편 金玉卿 대위가 지휘하는 제801艦은 釜浦港에서 撤收하는 兵力을 收容하고 있었으나 05.00부터 退潮하는 海水를 따라 08.00에는 5km 떨어진 洋上에 닻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철수병력은 제801艦의 VP 4隻과 厓邊에서 수집한 大小의 漁船으로 20~50명씩 乘船하여 LST에 옮겨타게 되었다.

釜浦의 총 지휘를 맡은 全禹榮 대위는 헌병대장 咸成烈 대위로 하여금 철수병력의 정리와 승선장으로의 유도를 담당케 하고, 인사장교 崔俊明 중위에게는 승선병력의 파악, 정보장교 金成煥 중위에게는 保安업무를, 鮮于 燿 중위와 曹成鉉 중위 및 통신보좌관 權興洙 준위들에게는 彈藥庫, 油類貯藏庫, 車輛과 보급품등을 소각 파기케 하면서 최종 승선을 目前에 두고 연대장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장이 釜浦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全 병력이 철수한 뒤였으나,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100여명이 남아있었고, 멀리 바다위에는 2隻의 LST가 碇泊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정보주임 柳昌燮 대위를 시켜 1隻의 LST는 沙串으로 보내 제1, 제2 대대의 병력을 수송하게 하고, 埵頭에 정렬하고 있는 105mm曲射砲와 대전차포는 分解하여 바다속으로 버리게 하였다.

10.30이 지나면서 釜浦港 周邊에 敵 砲彈이 集中하기 始作하였고, 최종 철수병력을 실은 漁船들이 연대장의 승선을 기다리며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대장과 朴廷鎬 소령은 아직 破棄하지 않은 1문의 105mm 曲射砲로써 敵의 接近路를 向하여 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砲火는 熾盛化되고, 멀리 바다위에까지 跳彈이 날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金元吉 중위와 戰砲대장 朴勝王 소위는 『砲 사격은 저희들의 任務이니, 저희들에게 맡기고 연대장님과 대대장님은 빨리 배에 타 부대지휘를 하십시오.』라 하고, 참모와 헌병대장도 연대장의 승선을 懇請하였으나, 연대장은 『명령이다.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내

가 너희들의 철수를 업호하겠다.』고 말하고 연대장 자신은 직접 격발하며 朴 소령은 포탄을 裝填하도록 하고 포사격을 계속하였다.

연대장의 決心을 꺾이지 못한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 및 참모요원, 그리고 최종 승선원은 눈물을 흘리며 11.00에 釜浦港을 떠나 대기하고 있는 LST로 향하였다. 이들 최종 철수船이 危險地帶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연대장은 남은 1문의 砲도 분해하여 바다쪽으로 밀어 넣고, 朴 소령과 같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멀어져가는 그의 部下들의 武運長久와 戰鬪에서 散華한 部下들의 冥福을 빌며 戰爭에서 단 3일도 支撐하지 못하고 國土를 敵에게 넘겨준 罪責感에서 조용히 拳銃을 빼어들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朴 소령은 총을 든 연대장의 손을 뿌리치면서 『우리가 南으로 내려와 軍인이 된 것은 共產黨을 때려잡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개 죽음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며 自決하려는 연대장을 極口 타일러 진정시키고, 元來 水泳의 名手인 朴 소령은 인근 섬에까지 水泳하여 漂流하고 있는 조각배 1隻을 끌고 왔다.

그리하여 연대장과 朴 소령은 외로운 敗將의 모습으로 뚝도 없는 조각배에 몸을 싣고 26. 14.00를 마지막으로, 恨많은 鹽津半島와 그를 적극 도와주고 共產黨을 싫어하는 住民들을 남긴채, 물결 치는대로 흘러 海洋속으로 멀어져 갔다.

이리하여 이들은 茫茫大海로 밀려가다가 漁船의 救助로 그날 19.00에 延坪島에 도착하고, 그가 組織한 바 있는 延坪面 郷土防衛支隊장을 찾아, 敵의 上陸에 對備하여 防衛隊員을 集合시켜 延坪島의 防衛策을 강구하고 있을때, 延坪島와 海州사이의 어둠속을 맴돌고 있는 軍艦 2隻을 발견하였다. 이때 이곳에는 個別的으로 칠수한 제3중대 서부계 崔文植 2등중사를 선임자로한 40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白仁燁 대령은 이들 軍인과 防衛隊員으로써 敵襲에 대비하는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고, 支隊長으로 하여금 船籍을 확인하게 하였던바, 잠시 뒤에 太極旗가 나부끼는 艦艇이 접근하여 닻을 내리고, 海軍 장교 2명이 『白仁燁사령관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하고 다가왔다. 이 두 海軍 장교는 申性模 國防部長관으로부터 『白仁燁 대령을 救出하라.』는 特命을 받은 JMS-302艦장 廉厚生 대위와 JMS-307艦장 白雲企 대위였다.

그리하여 白 대령과 部下 41명은 海軍 掃海艇의 救出을 받게된 것이나, 白 대령은 鹽津의 재탈환을 計劃하고, 먼저 떠난 本隊에 『鹽津으로 돌아오라.』고 無電을 보냈는데, 이때 江華近海를 航進중이던 LST-801艦으로부터는 그가 敵에게 捕虜가되었거나, 또는 이 無電이 그들이 造作하는 欺瞞策으로 알았음인지 몇번 확인하는 電文이 오고 갔을뿐 돌아올 氣色이 보이지 않고 交信마저 끊어졌던 까닭으로 하는 수 없이 白대령은 27일 02.00에 延坪島를 떠났다.

또 한편으로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柳昌燮 대위는 대기하고 있는 다른 1隻의 LST에 승

겨타고 船首를 沙串으로 돌리게하였는데, 이 배는 海軍 艦艇이 아니라 부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타고온 海洋大學 실습船이었다. 이 실습船이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步兵學校 피교육자로 있는 金 중령이 25일 官舎에서 北傀軍의 全面南侵한 사실을 연대장 숙소에 나와 있던 郭貞煥 중사로부터 듣고, 곧 陸軍本部의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과 군수국장 楊國鎭 대령을 만나 부대에 복귀할 飛行機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고, 그 대신 仁川地區 砲兵대장 趙興萬 대위에게 연락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海洋大學 실습船이었다고 한다.

25일 18.00에 同船은 仁川을 出航하여 26일 04.00에 甕津 前洋에 이르렀으나 설물때문에 釜浦港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本隊의 철수船인 海軍 LST-801艦을 만나 여기에 옮겨 타게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 柳 대위는 14.00에 沙串 前洋으로나가 望遠鏡으로 沙串부두를 세밀히 觀察하였으나 北傀軍이 순찰하는 騎馬隊만 보이고, 제1, 제2대대의 去就를 알지 못한채 仁川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고 한다.

LST-801艦(장, 金玉卿 대위)의 金熙濬 중령과 1,200여명의 철수병력들은 혹시 연대장이 뒤 늦게라도 나오기를 기다리며 甕津 前洋에서 16.00가 지나도록 기다렸으나, 연대장이 나오지 않아, 不得已 船首를 仁川으로 돌려 航進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 3. 연대본부 및 제3대대의 大田 집결

이리하여 金熙濬 중령이 지휘한 本隊는 27일 04.00 仁川에 上陸하여 永登浦紡績工場 창고를 집결지로 定하고, 配屬 및 派遣부대들을 해체시켜 원대복귀조치하는 한편, 700餘 철수병력에 대하여는 吳益慶 소령으로 하여금 再編成하게 한 다음 金 중령 자신은 철수결과 보고차 陸軍本部로 갔다.

한편 海軍 艦艇의 救助를 받은 白仁燁 대령은 이날 08.00 仁川에 上陸하고, 陸軍本部에서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과 國防部長官 申性模에게 철수결과를 보고하였는데, 國防部長官은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에게 『제17연대로써 大田에 피난중인 政府 警호임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보 다앞서 金熙濬 중령이 보고차 갔을때의 陸軍本部는 제17연대를 彌阿里 또는 金浦半島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 계획이 變更된 것이다.

어떻든 白仁燁 대령은 그날 16.00 永登浦 紡績工場에서 그의 部下들과 相逢하고, 沈痛에 잠긴 그들에게 活氣를 불어일으켜 새로운 任務를 띠고 大田 宣花國民학교로 이동 집결시켰다.

#### (다) 제2대대장의 作戰指導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제1대대 防守지역으로 侵襲한 北傀제3여단 이하로 밀어지는 2개대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고, 14.00에는 戰線의 回復단계에 이르러 연대본부에 탄약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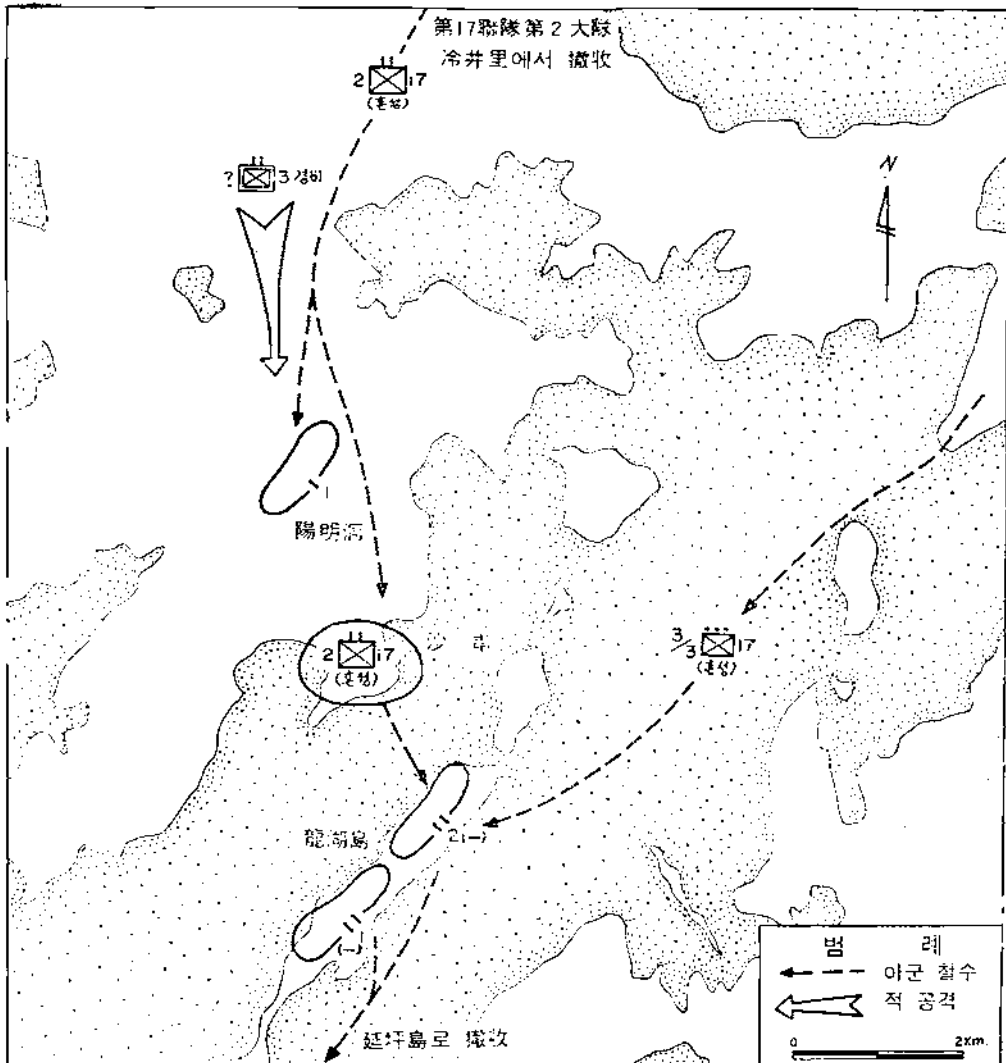
援을 促求하였으나 연대본부는 이미 康詔으로 철수한 뒤였으며, 이무렵 北傀제14연대는 陽院을 占領하고 그 餘勢로 璽津으로 肉迫하였는데, 제3여단은 基洞方向에서 璽津을 挾攻하였던 까닭에 14.30 全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여 冷井里에 集結케 하였다. 그리하여 康詔으로의 철수를 強行하려하였으나 이미 敵의 戰車 4대가 陽院 3거리를 封鎖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로를 沙串으로 定하고, 建制가 흩어진 제1, 제2대대와 제3대대 및 연대의 一部병력을 糾습하여 統合 지휘하였다.

### 1. 沙串附近의 戰況

철수명령을 하달한 宋虎林 소령은 제5중대장 金敦錫 중위에게 撤收路의 打開 임무를 부여한 바 있으나, 그들 戰車를 制壓하는 것이 時急하였기 때문에 李弘根 중위 지휘하의 81mm 박격포 4문중 2문과 탄약 10발, 사수요원 4명을 Jeep車로 冷井里에 이동시켜, 戰車를 制壓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대대장은 15.00에 車를 돌려 다시 馬峴으로 가는데 道路邊에 포진하고 있던 李 중위도 병사들도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道路의 兩側 高地에는 빨간 旗가 꽂혀있고, 北傀 병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瞬間 대대장은 『놈들의 포위망에 걸렸구나.』 생각하고, 운전병에게 車를 서서히 돌려 세우는척 하면서 全 속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라 하였다. 車가 100여m 빠져 나갔을때 멍하니 보고 있던 그들은 猛射를 加하면서 迫擊하였으나 車를 잡지 못하였다. 危機를 모면한 대대장은 冷井里의 佛堂山 南麓에서 철수병력과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各 대대병력이 混合된 400餘명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動搖하고 있었으니 실로 烏合之卒 狀態였던 것이다. 宋虎林 소령은 큰 소리로 『대대장은 여기 있다. 제1대대장은 戰死했고, 敵은 璽津으로 肉迫, 우리의 退路를 차단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과 내가 한데 뭉쳐 힘을 合하여 敵을 무찌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하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절대 복종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于先 장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확인한 바, 모두 45명이었고 그중 先任者는 제1대대 副대대장 朴周用 대위가 있었다. 宋虎林 소령은 4월에 제2대대장으로 轉任하기 전까지 제1대대장으로써 銀波山 공격, 진지공사 등으로 제1대대의 장병과 生死苦樂을 같이 한 터이라 下士官級以上은 個個人의 성격, 능력 등을 잘 알고있는 處地였다. 그리고 지난 麗·順叛亂事件 진압시에 敵陣속에 포위된 金白一 대령이 『이러한 때는 活動이 簡便하고 機動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分隊의 構成을 5명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포위망을 無事히 뚫고나온 그때의 일을 연상하여, 1개분대를 5명, 3개분대를 1개소대, 5개소대를 1개중대로하는 7개중대로 再編成하고; 제2중대의 賓龜顯 중위를 偵察隊로 하여 陽院의 敵情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賓 중위는 돌아오지 않고, 병기장교 金忠九 중위가 康詔으로 가려다가 陽院길이 막혀 갈 수 없어 되돌아 오는 중이라 하였다. 이때 北傀 제14연대는 康詔과 陽院을 이미 占領하고, 제3경비여단은 제1, 제2대대를 跟隨하여 璽津으로 侵入하고 있는 중이었다.

宋 소령은 철수로를 沙串으로 定하고 7대의 2 1/2톤 車輛에는 기관총을 거치하게 하여 선두에서 5대는 戰鬪병력, 2대는 부상患者, 그리고 金忠九 중위가 인솔하는 탄약車を 뒤따르게 하였다. 朴周用 대위를 先頭로 하여 甕津거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各車輛의 기관총과 소총으로 一齊사격을 加하면서 突進케 하고, 徒步부대들은 趙慶鶴 중위 지휘하에 甕津市街를 피해 집결지에서 바로 連根山(甕津 南쪽 3km)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朴周用 대위가 지휘하는 車輛化부대는 주민들이 없는 廢墟와도 같은 市街를 突進하면서 사격을 加하자, 先發隊로 보이는 醜敵들은 唐惶하여 應射도 못하고 基洞方向으로 逃走하였다.

◇ 상황도 제15호 沙串부근 戰況(6.25~26)





대대장은 車輛을 沙串으로 나가는 삼거리에 停車케 하고, 兵力을 要所要所에 배치하여 後續차량과 徒步부대의 이동을 掩護하고 있는데, 이때 韓瑞漢 중위가 연대장 명령을 갖고 달려왔다.

쪽지에 적힌 개요는 『제1대대와 제2대대는 宋虎林 소령 지휘하에 沙串으로 철수하라.』라는 것이었다. 이때가 18.00있는데, 韓 중위는 進言하기를 『지금 漣津邑內에 敵이 얼마나 들어와있는지 敵情을 살펴올터이니, 대대장님의 권총과 저의 CAR소총과 잠시동안만 바꾸어 주시고, 또 Jeep車를 저에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韓 중위는 평소에 착실하고 評判이 좋았으며, 康詔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것을 嘉尙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후 그의 行方은 杳然하였다.

19.30에 車輛化부대가 連根山에서 徒步부대와 合勢하였을 때에는 제4중대의 鄭得萬 중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와 제7중대의 吳秉珍 중위가 지휘하는 2개 소대병력, 기타 개별적으로 철수한 병력이 모여 700餘명이 되었다.

대대장은 제7중대(장, 趙慶鶴 중위)와 제4중대의 박격포소대(장, 李弘根 중위)를 連根山에 殘留시켜 掩護부대로 하여, 本隊는 沙串으로 철수케 하고, 掩護부대로서는 그들의 追擊을 阻止키 위하여 漣津을 향하여 全火器을 集注케 하였는데, 이때에 李弘根 중위는 7문의 박격포를 지휘하게 되었다. 즉 그것은 주진지에서 分散 사용한 砲가 모두 모였고 鄭得萬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에서 노획한 82mm 박격포 1문이 추가된 때문이었다. 그 뒤에 趙 중위는 그들의 追擊이 없는 것을 確認하고 20.00에 부대를 지휘하여 본대의 뒤를 따르게 하였으며, 대대장 宋 소령은 제1중대를 白景奭 중위 지휘하에 陽明洞(沙串 北쪽 2km)에서 경계에 입하게 하여, 21.00에 부대를 沙串(漣津 南쪽 13km)으로 철수케 하였다.

沙串은 작은 漁港으로서 岩石이 깔려 있어 大型 船舶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이나, 1km 바다 건너에는 龍湖島가 있어, 거기에는 漁業組合聯合會, 海事局, 稅關, 海產物檢事所, 水產學校, 國民學校, 警察支署와 東南面 出張所등의 기관과 軍 부대로는 정보대, 헌병대의 派遣隊가 있어서 이곳과의 往來하는 배가 많았고, 水產物의 集散地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漁船들이 많아 釜浦 다음가는 港口였다. 그러나 이날은 午前부터 이곳 各 機關員과 그들 家族들이 피난하는데 모두 動員되어 沙串에는 한척의 배도 없고, 태가 진 埠頭에는 그 뒤로 밀어닥친 군인, 경찰, 피난민들의 배를 찾는 混雜狀이 달빛 아래 들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속에 700餘명이 뒹어돌았으니 이곳의 混雜狀은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러한 光景을 본 宋虎林 소령은 그의 상체를 돌보거나 피로를 달랠 겨를도 없이 漁販場의 空Drum 통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協調을 要請하였으나 反應이 있을리 萬無하였다. 하는 수 없이 鎗銃을 꺼내들고 空中을 향하여 연속 5발을 쏘 올리니까 周圍가 비로소 조용하여 졌다. 이에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제563부대장 宋虎林이요( 제563부대는

제17연대의 통상명칭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안전을 내가 맡을터이니 떠들지 말고 내 명령에 복종하십시오.』라고 하고, 군인, 경찰, 민간인을 따로 따로 整列케 하여 질서를 바로 잡게 하였는데, 이때 군인 數는 제1중대를 제외하고도 1,100명을 초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漁販場의 막사를 헐어 뗏목을 만들게 하고, 空Drum을 쥘어 물위에 띄워 最善을 다 하였으나 물위에 떠 있을뿐 나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時間은 흘러 23.00가 되었는때 그렇다고 별 다른 計策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天主教 신자인 宋 소령은 人事를 다하고 天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諦念하고 열심히 祈禱를 올리고 있는데, 경찰간부 한사람이 찾아와 署長대행을 하고 있는 金善鎭 경감 입을 밝히고, 『이 건너 龍湖島에는 支署用 경비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내라고 하여도 안보내주니 대대장께서 요청해 보시오.』라고 하였다. 金 경감의 말에 따라 대대장은 龍湖支署主任을 전화로 呼出하고, 『내가 제563부대장 宋虎林이다. 여기에는 軍, 警, 民을 합하여 2,000餘名이 있는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萬一 배가 배를 늦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아서 敵으로부터 損失을 입게 될 경우에는 너는 씻을 수 없는 逆賊이 되며 3族이 滅하게 될 것이다. 얼마 안있으면 서울에서 支援兵力이 當到할 것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그곳에 있게해 달라.』고 하였는데, 天佑神助이라 할까 같은 경찰관이며 그의 上官이 懇請하여도 『없다.』로 一貫하던 龍湖島에서 검은 그림자가 잔잔한 물위로 接近하면서 배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것을 확인한 대대장은 埠頭에 세워진 車 15輛을 불태우게 하고 배의 接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群衆들은 제 각기 먼저 타려고 또 한차례 隊伍가 무너지면서 混亂이 일어나고 말았다. 대대장은 다시 拳銃을 쏘아 鎮靜시키고 또 한차례 強調하기를 『秩序를 어기고 먼저 타려는 者, 또는 定員을 無視하고 타려는 者는 銃殺에 處한다. 승선 順位는 軍人, 警察, 民間人順으로 하되, 여기 있는 사람은 全員 수송할 것이니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라.』고 呼訴하였다.

이와 같은 群衆의 소동으로 接岸을 하지 않았던 배가 隊伍가 정돈되는 것을 보고서야 서서히 陸地에 닿았다. 여기에는 지서주임 金斗儀 경사, 申泰元 신장, 기관장 李在鉉 外에 4명의 船員이 타고 있었고, 船名은 大成號, 排水噸數는 20噸의 소형 機關船으로서 9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이 배는 지서주임의 요청으로 이날 12.00부터 21.00까지 慶津의 官吏와 警察官 그리고 그들의 家族들을 安全지대로 수송하고, 이들도 船主 朴 勳根을 포함한 船員 家族들을 태우고 23.00에는 이곳 龍湖島를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一部 선원의 승선지연으로 待機中 지서주임이 찾아와 『우선 國軍장병부터 安全지대로 옮겨야 하니 빨리 짐들을 내리고 沙串으로 가자.』는 督促에 못이겨 沙串에 오게된 것이었다.

## 2. 大成號의 活動

沙串에 集結하여 渡海를 待機하는 兵力은 제1, 제2대대와 제3대대 및 本部요원의 一部를 合한 1,300여명이며, 警察 및 民間人등 포함 2,000여명에 達하였다. 이것을 收容人員 90명의 大成號로 龍湖島까지 海上 1km를 1왕복 30분을 20여회, 敵을 至近에 두고 往復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宋虎林 소령은 '安全을 考慮하여 1회에 80명씩 태우고, 下船시는 船着場이 아닌 水面에서 뛰어나리게 하여 時間을 단축시키고, 수송 도중의 事故豫防을 위하여 그는 傷處의 苦痛을 참으며 每回마다 직접 船頭에서 지휘하였다.

이리하여 26일 07.00에는 부두에 있는 軍人, 警察의 海上철수가 끝나고 白景爽 중위 지휘하에 警戒에 임하고 있던 제1중대가 승선할 무렵부터는 敵의 포탄이 集中하기 始作하여, 이 중대의 渡海가 끝날 무렵에는 그 落彈 빈도가 심하여,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500여 피난민을 철수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 무렵 1隻의 기관선이 이끄는 木船 2隻에 60명을 태우고 龍湖島에 上陸한 제3중대의 尹鍾漢 중위와 기타 個別的으로 철수한 병력등 100여명이 더 늘어났다.

龍湖島로 철수한 장병은 저서주임 金斗儀 경사의 配慮로 2일만에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

宋 소령은 식사를 마친 이들에게 警戒임무를 부여하여 四周에 배치하였으나, 釜浦에 있



<沙串撤收에 動員된 大成號: 船長 申泰元 提供>

을 本隊와의 合勢가 時急한 까닭에 보급관 朴元根 中위를 시켜, 이곳에 철수한 全 兵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배를 求하도록 명령하였다. 朴中위는 09.00에 大成號를 타고 나가, 그로부터 4시간뒤인 13.00에 20ton噸級 기관선 1隻과 大型荷物 운반선 6隻을 끌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 무렵 柳昌燾 대위가 이끄는 LST가 沙串 앞바다 4km까지 接近하여 이들을 찾았던 것인데, 이를 알 까닭이 없는 이곳 부대는 敵의 艦船이 近接하는 것으로 알고 伏地 不動의 姿勢로써 怪船舶의 동태만을 감시하게 하였고, 그 배는 2時間을 땀들다 水平線 너머로 사라졌다. 그 후부터 出發준비를 서둘러 하여 기관선 1隻에 荷物船 3隻씩을 Rope로 연결하고, 各 荷物船에는 200명씩을 各 기관선에는 患者와 金斗儀 경사 및 大成號요원의 家族들을 타게 하여 15.00에 釜浦로 向해 出航하였다. 그로부터 4時間 뒤 釜浦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高賊을 지르며 쏘살같이 달려오는 小型 배를 發見하고 이를 확인한바, 제3대대의 兵士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釜浦에는 敵이 들어와 있어 갈 수 없다고 制止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태운 船團은 배들이 낡았기 때문에 밑 바닥에서 스며드는 물을 鐵帽로 퍼내면서 어려운 航海를 계속하였는데, 延坪島 近海에 접어들 때부터 물결이 거칠어지고 비바람마저 쳐서 매었던 Rope가 끊어져, 떠내려가는 배를 붙잡아 연결하기를 數次 거듭하면서 千辛萬苦끝에 延坪島에 도착하였으니, 그 배가 27일 07.00이었다.

### 3. 제1, 제2대대 大田에서 本隊와 合勢

宋虎林 소령은 延坪島에서 全 兵力에 食事物을 하게 하고 機關船의 給油와 Rope의 交替, 故障部分의 修理 등으로 萬般의 준비를 가누게 하였는데, 여기서 또 1隻의 機關船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3隻의 機關船에 兵力수송선 2隻씩을 연결 조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海上에서 敵과의 遭遇를 피하기 위해 이날 20.00에 延坪島를 떠나 航海를 계속하였다. 航海途中 海軍의 無電을 청취하였는데 『仁川으로 가는 모든 船舶은 敵의 艦船과 조우할지도 모르니 分散하여 航海하라.』는 內容이어서, 이때부터 各 船團간의 距離를 1時間 路程으로 조정하여 航進케 하였다. 先頭의 大成號는 宋虎林 소령이 직접 지휘하고, 둘째배는 李東浩 대위가, 셋째배는 朴周用 대위로 하여금 지휘케 하였던 까닭으로 이후 各 船團의 位置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전날과는 달리 航進速度도 빨랐고 Rope도 끊어지지 않아 先頭를 달린 大成號는 28일 06.00 仁川港에 滲入하였다.

宋虎林 소령이 上陸하여 動靜을 살핀바, 住民들이 피난소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兵력을 船上에 대기시킨채로 仁川지구 현병대장 趙興萬 대위를 찾아 그 연유를 알아보았다. 그는 『北傀의 全面南侵으로 政府와 陸軍本部가 首都 서울을 비우고 철수하였다.』며 자신도 철수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蹺津을 그들 手中에 넘긴 몸으로 國民앞에 辨明할 口實조차 찾지 못하고 있던 宋 소령은 비로소 그 한사람만의 試練이 아니라 擧國의으로 겪고 있는 艱難임을 알았다. 그는 當

面한 急先務가 兵士들의 給食問題였으므로 隣近 市民을 動員하여 1,400명분의 食料준비를 하게 하고, 또한 本隊의 철수여부조차 알길이 없었으므로 그가 지휘한 병력으로 獨白의인 遊擊戰으로 抗拒하리라는 決心아래 米倉에서 쌀 15駄를 入手하여 據點의 확보시까지의 食糧으로 糶腹案을 세웠다. 이 같은 일을 마치고 埠頭에 돌아왔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經過되었던 탓으로, 대기시켰던 殆半의 兵力은 陸地로, 또는 海上으로 하여 各各 南으로 간 碇였고, 잠시 뒤에 李東浩 대위가 지휘하는 제2船團이 入港하였다. 이때 港口內에는 民衆들이 많이 碇泊하고 있었으므로, 李 大위로 하여금 제일 크고 시설이 좋은 배로 負傷兵을 포함한 全兵力을 옮겨 타게 하여 준비한 食料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軍醫 1,500명의 生命을 救出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던 金斗儀 경사와 大成號 船員一同에게는 深甚한 謝意를 포함하여 아울러 難局에 處한 그들의 앞날에 幸運을 빌면서 作別하였다.

그 뒤 이들은 제3船團의 安着을 바라며 해가 지도록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그날 20.00 航路를 南으로 하여 航進中 德積島 近海에서 海軍 YMS-513艦(장, 朴敬哲 大위)를 만나 政府가 大田에 있음을 알았다.

宋 소령은 배를 靜山으로 돌리게 하여 29일 07.00에 上陸하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埠頭에는 歡迎의 人波가 물결쳤고 食料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食料를 마친 이들은 준비된 列車로 大田으로 가서 집결지인 宣花國民學校에서 본대와 合勢하였다.

한편 29일 11.00 仁川에 上陸한 朴周用 大위는 撤市상태인 市街를 보고 驚異하여 仁川警察署로 찾아갔다. 이때 警察署는 마치 移徙하는 집과 같이 混雜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28일 水原으로 철수하였다가 UN軍이 參戰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다. 朴周用 大위가 이끄는 兵力은 警察이 周旋한 車輛으로 1部는 水原을 經유하여 大田으로, 다른 1部는 船便으로 唐津에 上陸하여 柳昌熙 大위의 案內를 받아 6월 30일 宣花國民學校에 合勢함으로써 6일간의 철수작전을 끝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제17연대는 1개 大隊규모의 兵力을 6월 28일 大田 宣花國民學校에 集結시켜 政府(忠淸南道 道廳所在)의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29~30일에는 新兵 5,000명을 募集하여 補어진 部隊의 再建을 圖謀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무렵에 제1, 제2대대의 병력이 集結完了됨으로써, 6월 30일 연대의 총 병력은 2,180명으로 81%선(負傷者 9/362명 제외)을 유지하고 장비는 戰死者의 장비까지 수집하였던 까닭으로 全 장병이 完全武裝을 하고서도 新兵에게까지 支給하여 建制部隊을 유지하는데 遜色이 없었다.

그 後 戰勢는 惡化하여 7월 3일에는 濱江防禦線이 무너지는 바 되어, 연대는 新任 總참모장 丁一權 소장의 명을 받고 1개 大隊는 宋虎林 소령 지휘하에 政府를 계속 經호케하고, 연대(-1)로서는 南進하는 醜敵을 阻止할 任務를 띠고 7월 4일 西井里로 轉進하여 그들의 阻止策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綜合戰果 및 損失

장교/사병

구 분 부 대	戰 果				損 失		
	射 殺	幽 獲	破 壤		戰 死	負 傷	失 踪
		82mm 砲	戰 車	裝 甲 車			
제 1 대 대	92	1			5/33	3/126	2/60
제 2 대 대	353				4/23	2/101	
제 3 대 대	136			3	3/45	4/135	
본 부			5	2			2/
계	581	1	5	5	12/101	9/362	4/60

§ 參戰者의 證言

◇ 제17연대 제4중대 선임장교 겸 기관총소대장 鄭得萬 중위

(1977. 2. 25 제3管區사령부에서, 소장)

鹽津은 45km가 넘는 廣正面이어서 正常의인 防禦체계를 취할 수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重火器중대의 81mm 迫擊砲소대는 2문씩 또는 半半씩 분활하여 기관총소대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관총소대장인 나는 水冷式 重기관총 4정과 81mm 迫擊砲 2문으로 제2중대를 지원하면서 중대의 右端에 대한 地域 責任까지 맡고 있었고, 기관총소대장 金有熙 중위와 박격포소대장 李良植 중위는 제3중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서면서 계속 비상상태하에서 긴장해 있었으나 戰鬪行爲는 없었고, 20일부터 그들의 車輛이동이 빈번하여진데다 부대의 움직임이 많았으나 우리는 그들이 機動訓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25일 04.00부터 陣內에 砲聲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총성이 그치지 않아, 05.00에 박격포소대장 李文宗 중사를 지휘하여 81mm 박격포 2문을 隱洞前方向으로 추진시켜 사격을 계속하게 하였는데, 07.00 밀집대형을 유지한 그들 大部隊가 길을 따라 馬鬣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北傀의 大攻勢임을 알았다. 敵의 砲擊은 熾盛하여 左·右側의 小銃중대 및 중대본부와도 連絡이 杜絶된 상태에서 砲사격을 계속하고 있

을 때, 100m 전면에서 赤旗가 나타나면서 1개 중대규모의 敵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때가 09.00가 좀 지났을 무렵인데, 前方으로 추진할 때 탄약수들이 포탄 1발이라도 더 많이 運搬하기 위해 그들의 個人火器를 Bunker에 두었던 관계로 不得已 철수가 시작되었다. 敵은 꼬리를 물고 뒤 따르고 있어, 自己 몸하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판국에 Bunker에 두었던 장비와 器械들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部下兵士들의 責任感念과 武器를 자기의 生命처럼 所重히 여기는 마음 가짐에 歎服했고, 주춧 고육의 重要性을 實感하였다.

16.00 「장군 高地」라 불리우는 訓練場에 이르렀을 때, 基洞方向에서 騎馬隊를 앞세운 敵의 隊列이 鹽津으로 尙해오는 것을 發見하고, 박격포소대장 李文宰 중사는 2문의 迫擊砲로 탄착점을 그곳에 集積시켜 삼시간에 1개 중대정도의 敵을 격살시켰다. 그후 小隊는 連樹山으로 철수하고 있는데, 머리에 봉대를 두른 사람이 『대대장은 여기있다. 全員 이리로 오라.』고 외치고 있어 확인한 바,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이었다. 여기서 부대대장 朴周用 대위도 만나게되어 士氣를 돋구워 宋 소령의 지휘하에서 鹽津을 철수하게 되었다.

戰鬪다운 戰鬪는 못했으나 特히 여기에 防諜하고 싶은 것은

첫째 : 사령관 白仁燁 대령의 平素부터 軍紀嚴

正, 武器愛好, 教育徹底의 強點이 있었기에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위기에 處해서도 말은 바 賁務를 다 한것으로 본다. 鹽津에서 철수時는 集團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各樣 各色으로 이루어졌으나, 大田에 집결했을 때는 90%에 達하는 兵力이 完全武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迫擊砲와 機關銃까지도 不足됨이 없었던것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제1, 제2대대의 철수병력이 右往左往하고 있을때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이 나타나 自身의 負傷을 돌보지 않고, 지휘체제를 確立하여 한사람의 離脫者도 없이 安全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部下愛와 機智 그리고 勇氣의 所産으로써 높이 讚揚되어야 할 것이다.

◇海軍 LST-801艦 甲板士官 겸 砲術長 鄭元錫 소위

(1965. 4. 19 參 J-4 중령)

6월 25일 海軍本部로부터 鹽津에 있는 제17연대를 撤收시켜 仁川에 入港하라는 作戰명령을 受領하고, 滿期를 타서 그날 23.00 釜浦港에 入港하였다. 艦長과 나는 제17연대장 白仁燦 대령을 訪問하고 撤收할 것을 勸誘하였으나 연대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수하지 않겠다고 答復하며, 그의 部下들의 철수만을 催促하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서 敵의 포탄이 배尾邊에 集中하기 시작하여 배를 船頭에서 5-6km 떨어진 곳에 投錨하고, 철수병력은 801艦의 VP와 그 近處에서 수집한 大小의 漁船들로 收容하고, 巡兵과 警察이 動員되어 整理하면서 民間人의 所持品 檢査 등을 하였는데 26일 11.00에는 제17연대의 철수병력과 決死의으로 빠져나가는 避難民(警察公務員 포함)을 合한 4,000餘명이 승선 완료하였다. 이때까지도 연대장이 타지 않고 野砲를 직접 사격하고 있었다.

그후 3시간을 海上에서 기다렸으나 敵의 砲탄이 배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철수병과, 避難民의 安全을 고려, 艦長의 명에 따라 出航하여 翌日 아침에 仁川港에 入港하였다. 航海途中 延坪島 近海에서 부터는 我軍 비행기의 護衛를 받게 되었으며, 用水가 不足하기는 하였으나 最低을 다해 食事(주먹밥)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부연

대장 以下 참모들은 沈痛한 表情을 짓고 食事를 하지않아 艦長 以下 우리가 難處했었다.

◇ 鹽津警察署 龍湖支署長 金斗儀 경사

(1977. 3. 7 戰史編纂委員會에서, 경위로 퇴직)

6. 25 直前까지 龍湖지서장으로 있었는데, 서장은 李海鎭 총경이었으나 6. 25 1개월전에 서울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경부계장인 金斗儀 경감이 서장대행을 하고 있었다. 龍湖島는 東南面에 屬하여 漁業組合, 海事局, 稅關, 海産物檢査所, 郵遞局, 水産學校, 國民學校, 面出張所와 支署가 있었고, 軍 부대로서 현병대, 정보부대의 派遣隊등이 있는 要地로서 沙串과는 海面으로 1km 이나 船着場간은 1.5km가 더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支署用 경비정이 3척외에도 沙串과 往來하는 船隻이 많았고 沙串은 漁港이기 때문에 漁船들이 많았다.

이곳 鹽津은 美軍이 철수한 以來 北傀軍과의 충돌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砲聲을 듣는 것을 例事로 알고 있었으나 6월 25일은 아침부터 요란했고, 避難民들이 밀려오고 公務員, 경찰도 그들 家族과 같이 沙串으로 밀어닥쳐 그곳에 있던 모든 배는 피난선이 되고, 高位 官吏와 경찰의 一部는 3隻의 경비정으로 收容하게 했는데, 이 배들은 그후 돌아오지 않았다. 12.00가 지나면서는 軍人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여 배를 要請했기 때문에 龍湖島에 있는 배들을 動員하여 그들을 收容했으나,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은 배들이 많아 해질 무렵에는 많은 피난民들이 沙串에 雲集하게 되었다.

이때 支署에는 4명의 순경이 있었는데 20.00가 지난후부터는 이들도 보이지 않고, 本署와는 連絡이 絶絶되어 陸地의 事情은 알질이 없어 不安해하고 있었는데, 沙串에서는 배 보내라는 電話가 빗발치듯 했다. 勿論 이중에는 경부계장 金斗儀 경감의 呼聲도 들렸으나, 이미 日沒한지 오래고 그속에는 北傀軍들이 거어있을 생각도 들어 無條件 『배가 없다』로 拒絶하였는데, 23.00 受話器를 드니까 『나 제563부대장 宋虎林이다. 國軍들이 살아야 當身들도 살고, 이곳 住民들도 살게 될 것인만큼 거기있는 모든 배를 이곳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 너

를 죽이고 말겠다.』는 무시 무시한 소리였다. 나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신이 國軍인지 人民軍인지 어찌 알고 배를 보내겠느냐? 여기에는 배도 없고 갈 사람도 없다.』고 拒絕하자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康翎에 있을때 警察은 코육한 宋虎林이다. 멀리 앉아 서울에서 增設兵力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龍湖島에 가 있을 것이니 빨리 배를 보내라.』는 호통이었다. 宋虎林 이라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國軍이 困境에 處해있음을 깨닫고 埠頭에 나가 보니 『大成號』라는 機關船이 船主 林勳根의 家族과 같이 피난하기 위하여 짐을 싣고 있는 중이었다. 船主에게 國軍을 先先 龍湖島까지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을 說得시켜 짐과 家族들을 내리게한 다음 직접 배를 타고 沙串으로 나갔더니 보급품, 車輛들을 불태우고 있고 國軍이 整理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拳銃을 쓰며 부대를 指揮하는 軍人이 宋虎林 소령으로서 머리에 붕대를 감았으나 全身이 피투성이였다. 宋虎林 소령은 승선시마다 번호를 붙이게하여 80명씩을 태우고 나와 같이 밤을 새워가며 수송하였고 警察은 다른 배를 求히 수송케 하였는데, 民間人들은 날이 밝으면서 砲彈이 집주했기 때문에 수송을 못하였다.

그때 내 家族은 이날 12.00 警察家族와 같이 巡視島로 피난시킨 뒤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26일 15.00 軍人들과 같이 철수하여 28일 아침 仁川에 도착하여 大成號를 떠나 美 海兵隊에 入隊하였다.

#### ◇제17연대본분 軍需장교 鮮于 燮중위 (1977 2. 21 戰編委에서, 豫 대령)

나는 鹽津에서 撤收時 연대본부의 各種施設과 油類등을 燒却하고 2 1/2ton truck에 105mm 砲彈을 가득 싣고 釜浦쪽으로 박지려하였으나, 그때가 12.00가 좀 지났을 무렵인데 冷井里에 번서 敵 戰車가 들어왔다고하여, 8~9명의 上兵들과 같이 沙串으로 나가게 되었다. 길목에는 많은 避難民들이 나와 있었으나 우리에게 길을 비켜주며 잘 싸워달라고 激勵해 주었다. 沙串에는 警察官, 民間人들이 帆船을 타고 埠頭를 떠나려던 참이었는데도 우리가 가니 배를 세워 兵員과 砲彈을 다 싣어주었다. 15.00에 떠난 배는 巡視

島에서 警察官과 民間人을 下船시키고 우리 一行은 이날 19.00에 釜浦로 上陸하였다. 다음 날 海軍 L S T로 釜浦를 철수키로 되었는데 연대장 白仁燮 대령이 乘船하지 않아 애먹은 일이 있었다. 연대장은 자기몸을 돌보지 않고 하도 실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연대참모들과 打合하기를 『어떻게던지 연대장님을 乘船시켜야 하는데, 그리로는 안되니까 失辭시킨 다음 배고 올라가자.』고 하였는데, 그 任務를 내가 맡게되었다. 나는 機會를 보아 연대장을 데려 남히려고 계속 따라 다녔는데, 연대장은 拳銃을 들고 未乘船兵力을 찾아다니며 빨리 「배에 따라.』고 大號하며, 나에게도 『명령이다. 빨리 L S T에 타라.』 거듭 명령하여 하는 수 없이 연대장만을 남긴채 떠나게 되었다.

## § 戰 訓

### (1) 병력의 適正配置

38°線이 생기면서 彼我는 이곳의 경계 目的을 위하여 少數의 경계부대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離島인 鹽津에도 1개 중대를 駐屯시켜 이곳의 경비임무를 수행케 하였던 것인데, 1949년 5월 以來로 北傀가 間斷없이 越境 侵襲을 恣行하였던 까닭에, 이때부터 鹽津地區 戰鬪司令部를 설치하고 2개 연대병력을 增強시켰던 것인데 그 뒤 陸軍本部는 1950년 3월 1일부터 戰鬪司令部를 解編하는 同時에 1개 연대와 1개 포병대만을 남기고 1개 연대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鹽津을 하나의 前進基地로 보고 그들이 全面侵攻을 加할 때에는 이곳 부대를 撤收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同 연대는 5개 사단의 正常방어正面에 對當하는 60km 以上の 廣正面을 맡아 少數의 병력을 要點配置하여 任務를 遂行하게 되었으므로 이곳 鹽津은 3면이 바다로 된 하나의 離島이어서 더욱 脆弱성이 加重되었던 것이다.

敵은 이러한 脆弱點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不斷히 위협을 加하였던 것이며, 그 緣故로 彼我의 能力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對備策으로 2개 연대를 배치하였던 것인데, 그후 이 地域을 1개 연대만으로 防守任務를 遂



행케 하였다는 것은 任務의 過小인 點더러 敵을 너무 過小評價한 所致의 結果가 아닌가 分析된다. 그러기 때문에 開戰 當時에 敵은 據點配置하고 있는 我軍의 警戒망을 避하여 隱蔽된 地域이 아닌 坦坦大路로 용이하게 侵透할 수 있는 戰術을 擬하게 하였다.

## (2) 撤收計劃

韓國戰爭 3年間은 攻擊, 防禦, 撤收作戰의 連續라 하였다. 그만큼 撤收作戰은 攻擊이나 防禦에 못지않게 重要な 戰術이다. 撤收는 敵을 그들이 願하지 않는 곳으로 誘引하거나, 戰線을 整頓하고 兵力을 集中使用하기 위하여 敵과 接觸中 또는 接觸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이다. 따라서 철수는 事前에 周到綿密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關係부대간(軍間)에 緊密한 協議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부대에서 이를 熟知하고 있어야 함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釜津 駐屯부대를 有事時 철수시킨다는 것이 陸軍本部 계획이었고 또 全體防禦戰術面에서 原則的인 것이라 한다면, 本 戰鬪를 通하여 이 계획이 適正하게 施行되었느냐 하는點에 疑問點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檢討하여 再犯의 過失을 戒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當時의 모든 계획이 保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具體的인 內容은 알수 없으나, 1950년 3월 總참모장 主席下에 開辦된 作戰會議에 참석한 제 17연대 부연대장 金熙濶 中령은 이 會議에서 『釜津 부대는 敵이 全面攻擊時, 海軍 LST 2隻으로 철수한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 보고하라.』는 것을 確認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철수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작성에 着手하였으나 이의 完成을 보지 못한채 6.25를 맞게된 것인데, 그 구상內容은 단지 釜浦를 通하여 철수한다는 정도이고 當時로서는 철수한다는 문제가 實感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상황은 考慮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釜津철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撤收路가 單一路였다는 點이다. 즉 제1, 제2대대가 釜浦로 철수를 試圖하였으나 敵이 연대의 中間地點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는 沙田으로 철수하여

여기서 다시 民間船隻으로 철수로를 開拓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연대장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LST를 沙田 앞바다까지 보냈으나 事前 계획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곳 대대는 이를 敵의 船隻으로 誤認하고 오히려 發見되기를 避하여 1,400餘명을 小型木船으로 無慮 5일간이나 航海를 하게하였다.

또한 陸軍本部는 계획을 하달하고 이의 시행상태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北傀의 全面南侵상황을 判斷하였고 釜津으로 부터도 敵侵상황을 보고 받았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17연대를 포함한 釜津에 있던 부대들이 適時適所에 活用될 수 없었고 많은 人命과 裝備의 손실만을 가져오게한 要因이 되었다.

## § 研 究

### (I) 海州 進攻說

國防部는 開戰1期인 6월 25일 『釜津의 제17연대가 海州로 突入했다.』고 발표함으로써 北傀의 기습南侵으로 苦戰을 하고 있는 軍과 不安에 떨고있는 國民을 鼓舞시키고자 하였으나, 戰務는 惡化一路로 오히려 國民들로 하여금 混亂을 惹起시킨 要因이 되었고, 北傀가 北進說을 날조하는데 利用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다투어있는 談話가 나돌게된 經緯는 당시 聯合新聞社 崔德德 記者가 이 地區의 北傀 侵襲實態를 取材次 日날 釜津에서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과 만난 다음 그날로 서울에 돌아와, 그와의 對話內容을 國防部 報道課長 金賢濬 대령에게 전한 것이 根據이되어 放送課程에서 『海州 進攻』으로 訛傳보도되었던 것인데, 당시 崔記者가 報道課長에게 傳하였던 要旨는 『白仁燁 대령이 서울에 가기던 이만 한마디만 전해주슈. 白仁燁이는 部隊를 指揮하여 海州로 進擊하겠 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제17연대장 白仁燁 대령은 『崔記者가 연대를 訪問하였을 무렵에는 연대본부 지역에도 敵砲彈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左1線 대대는 이미 무너져 연대에비대리 扞禦中이었는데, 그뒤 右1線 대대도 戰車와 裝甲車를 先頭로 한 1개 연대규모의 敵에게 突破 당하는 바

되어 苦戰을 쫓지 못하고 있는 緊急한 상황하에서, 崔 記者와 광황하게 얘기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려니와 海州 進攻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를 否認하고 있다.

어떻든 이로 因하여 北傀에게 南韓이 先制攻 擊하였다는 口實을 갖게 하였고, 그들은 이를 合理化 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그들 地帶內의 銀波山과 茄川面 一帶에 砲擊을 받아왔다고 主張하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2) 蘆津砲擊說

韓國戰爭은 北傀가 1950년 6월 25일 未明을 기하여 奇襲南侵을 恣行한데서 發端이되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거니와, 그들은 主張하기 를 蘆津地區의 南韓軍이 6월 23일부터 砲擊을 加하기 始作하여 25일에 이어진 것이라하며, 이 捏造된 內容을 26일 日本의 朝日新聞, 共同通信社, アカハタ(赤旗) 등에 掲載 宣傳케 하였던 것이나 이는 모두가 平壤發로써 AFP持報, 朝鮮中央通信社, 建設通信 등을 通하여 提報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反論을 하자면 보다 根本的인 問題부터 다루어야 하겠으나, 이곳 蘆津地區의 事實만으로도 그들의 主張이 虛荒된 捏造임을 알 수 있다.

첫째 : 6월 23일 UN韓委委員團 一行이 蘆津의 제17연대를 訪問하고 아무런 異狀이 없음을 直接 確認하였고,

둘째 : 이곳 연대에는 Frank Brown 소령을 단장으로 한 美軍事顧問官 5명이 나와 있어, 軍事部門에 대한 訪問은 물론 各種 砲彈을 統制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탄使用에 앞서 이들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했다. 北傀는 前述한 보도기관에서 南韓側에서 23~25일 未明까지 700餘발의 105mm 野砲와 81mm 迫擊砲 사격을 加하였다고 主張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一方의 砲擊만 當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美 軍事顧問官들은 그들의 職分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째 : 蘆津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들의 立場에서 보면 全戰線을 通하여 침습이 가

장 용이한 곳이고, 大大的인 攻勢를 취한다면 연세든지 탈취할 수 있는 곳인데 反하여, 南韓에서 볼때는 하나의 離島로써 兵力과 補給品을 仁川에서 9時間이 소요되는 海上輸送을 하여야 하는 가장 不利한 條件이었던 故에, 그들이 挑戰을 하면 不得已 이에 대한 防禦策으로 應戰하여 그때마다 그들을 격퇴시켰던 것이나, 萬一 敵이 蘆津全面에 걸쳐 侵攻할時는 이곳을 撤收하는 것이 陸軍本部의 계획이었다.

네째 : 60km가 넘는 廣正面을 1개 연대와 1개 포병대대로써 38°線의 경비만으로 過重한 任務인데, 陸軍本部에 보고나 指示 한마디 없이 1개 연대장의 獨斷으로 700餘발이나되는 砲彈을 浪費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섯째 : 그들은 25일 그들이 生捕獲했다는 韓 副中尉를 제17연대의 作戰指導 擔當이라고하여 그의 手記를 南韓側의 先攻物證으로 그들 公刊 史에 收錄하여 機會있을때마다 金科玉條처럼 이를 내세웠던 것이나, 이는 韓 中尉가 捕虜가 된 45日만에 發表한 것으로써 그 內容은 앞뒤가 맞지 않아 戰術的으로 矛盾투성이의 것이었다. 그 몇가지를 例示하면

『① 우리는 緊張된 상태에서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리고 25일 未明 새벽부로부터 38°線 以北지역을 攻擊하라는 秘密命令이 우리에게 傳해졌다. 蘆津으로부터 突然 攻擊開始한 모든 부대는 38°線을 突破하여 1~2km씩 前進했다.

② 韓國軍은 翠野와 茄川(斗落山 北쪽)의 2개 正面에 攻擊했다.』

따라서 이 手記에는 攻擊開始 時間이나 그 以前の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言及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연대의 作戰指導를 擔當하였다는 韓 中尉의 手記는 그 內容은 어떻게 간에 한때 그들의 至寶的인 存在였던 것이나, 그후 그들 外務省은 文件集의 再版時 이 手記를 削除하였던 것이다. 削除한 理由는 推察컨대, 그들도 그 手記는 矛盾으로 充滿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軍事的識見이 있는 者가 보면 時間的으로 物理的으로 全然 不可能하다는 것을 一見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主張에 逆效果를 招來할 것을 憂慮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第 4 章

# 首都圈의 戰況과 各界의 動向

### 要 旨

1. 倉洞—彌阿里附近 戰況
2. 서울撤收 狀況
3. 軍部の 動向
4. 政府指導層의 動向
5. 社會各界의 動向



## 第 4 章 首都圈의 戰況과 各界의 動向

### 要 旨

本章은 首都圈의 防守를 위한 최후阻止線인 倉洞—彌阿里地區戰況과 首都서울의 철수, 이에 따른 軍部의 動向 三府의 動向 및 社會 各層의 動向을 網羅한 首都圈의 戰況을 收錄하였다.

이제 前章에서 본바와 같이 北寇는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을 左翼으로하여 그 예하의 4個사단 1개 戰車聯隊로써 東部邊戰(春川以東)에, 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을 右翼으로 하여 그 예하의 5개 사단 1개 戰車旅團으로써 西部戰線에 展開하고 1개 사단을 豫備로 控置한 가운데 6월 25일 末明을 期하여 38°線 全境의 我 前哨障地를 急襲, 韓國戰爭을 誘發하였다.

西部戰線은 比較的 地形이 緩慢한데다 京元, 京義 등의 國道는 그들 機械化부대 運用을 容易하게하였던 까닭에 그들은 그곳에 主攻을 指向하였던 것이며, 이에 임한 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은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鎭),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 제1사단(장, 소장 崔 光),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을 戰線에 投入하고 제13사단(장, 소장 崔庸鎮)을 豫備로하여, 제105戰車旅團(장, 소장 柳京株)로써 이들을 先導케 하였다

이 正面의 我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 및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各己 該正面에 2개 대대 規模의 兵力으로써 38°線경비 任務를 遂行케하고 있던중, 그들의 急襲을 받아 미처 戰鬪 준비도 취하기 前에 서울의 北側關門인 議政府와 汶山을 喪失하고 倉洞—奈日川線으로 물러서 이들을 阻止하게 되었다.

한편,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議政府地區 전투사령단 劉載興준장으로 하여금 同地區에 投入

된 總兵力을 지휘하여 38°線을 恢復토록 嚴命하였으나, 그들은 27일 04.00 倉洞線을 急襲하고 我軍의 攻勢移轉企圖를 挫折시켜 守勢로 물아나게 하였다. 사령관 劉載興 준장은 敗退한 兵力과 증원부대를 收拾하여 그들의 南下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敵의 戰車와 優秀한 砲火로 말미암아 이 線을 支撐하지 못하고 同일 14.00 彌阿里—奈凌線에서 兵力을 收拾하여 서울防守의 최후阻止線을 構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戰線 역시 脆弱하기 이물데 없어 28일 01.00를 期하여 突破되었고 兵力은 四散된 채 漢江以南으로 各개 撤收하는바 되었다.

한편, 이날 02.00에 敵이 市內에 突入하였다는 急報에 接한 蔡秉德 總參謀長은 前方부대의 撤收뿐만 아니라 서울市民들의 避難 조치를 講究하지 못한채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게 漢江橋의 爆破를 早急히 命令하였다. 이로써 02.30에 漢江人道橋를 비롯한 3개의 鐵橋가 切斷되기에 이르고 當初 敵의 渡江을 막기 위하여 계획된 同 爆破는 도리어 我軍撤收를 차단하는 結果를 낳게 하여 마침내 撤收兵力은 小舟 등으로 渡江케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兵力 및 裝備의 損失은 莫算한 바 있었다.

이와같이 되어 首都서울은 我軍의 戰鬪이 ulti는 가운데 開戰 4일만에 敵手에 墜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避難길에 닦힌 서울 市民은 共產魔手에 침싸이는바 되었는데, 魁首 金日成은 이에 便乘하여 이른바 無慈悲한 투쟁이란 口號를 내세워 그들 司法租인 李承燾을 서울市인민위원회 委員長으로 任命하고, 愛國市民의 虐殺과 私 有財產의 掠奪등 갖은 橫行을 恣行하였다.

# 1. 倉洞—彌阿里 地區 戰況 (1950년 6월 27일부터 " 6월 28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6, 17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倉洞地區>  
議政府地區戰鬪司令官 兼

제7사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1연대	장	대령	威 俊 鎬 (6월 27일戰死)
		중령	李 喜 權 (6월 27일부터)
제2대대	장	중령	韓 泰 源
제3대대	장	소령	金 煥 穆
제2사단			
제5연대	장	중령	朴 基 成
"	장	중령	崔 昌 彦 (6월 26일부터)
제2대대	장	소령	車 甲 俊
제16연대	장	대령	文 容 彩
제1대대	장	중령	俞 義 濬
제3대대장(대리)	대위		崔 敏 燮
제25연대	장	중령	金 炳 徽
제2대대장(대리)	대위		羅 熙 弼
제3대대	장	소령	高 東 階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	장	중령	李 尙 根
제2대대	장	소령	申 彦 國

제3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포병학교장(대리)	중령		金 桂 元
공병학교	장	중령	嚴 鴻 燮
<彌阿里地區>			
彌阿里地區戰鬪司令官 兼			
			(左一線部隊)
제5사단	장	소장	李 應 俊
제20연대	장	대령	朴 基 丙
제1대대	장	소령	金 漢 柱
제2사단			
제16연대(혼성)	장	대령	文 容 彩
제25연대(혼성)	장	중령	金 炳 徽
수도경비사			
제3연대(혼성)	장	중령	李 尙 根
議政府地區戰鬪司令官 兼			
			(右一線部隊)
제7사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1연대(혼성)	장	중령	李 喜 權
제5사단 제15연대			
제2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			
제2대대	장	소령	高 白 圭
포병학교장(대리)	중령		金 桂 元

공병학교	장	중령	嚴	鴻	燮
제3사단 공병대					
제1소대	장	소위	李	鍾	斗
병참학교	장	중령	白	善	鎭
헌병사령관		대령	宋	堯	讚
〈泰陵地區〉					
陸軍士官學校	장	준장	李	俊	植
生徒대대	장	중령	趙		岩
제1중대	장	대위	宋	仁	律
제2중대	장	소령	朴	應	奎

제3중대	장	대위	李	元	燁
제4중대	장	대위	朴	正	瑞
增援부대					
제7사단					
제9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제1대대	장	소령	柳	桓	博
右隣接부대					
제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左隣接부대					
제1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敵 軍

北傀 제1군단	장	중장	金		雄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8연대	장	중좌	金	秉	鍾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포병연대	장	대좌	安		白 成

제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제5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105戰車여단	장	소장	柳	京	洙

나. 전투전의 개황

北傀의 기습적인 全面 南侵으로 38°線에 沿한 全 戰線이 부너지자, 陸軍本部는 38°線으로부터 45 km에 不遇한 首都 서울에 對한 위협에 直面하고, 議政府의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과 汶山(서울 西北쪽 4(km)의)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에 急遽出動한 後方 사단을 集中 投入하여 38°線의 恢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戰車와 對戰車장비가 없었던 我軍은 속수무책으로 撤收만 거듭하여 마침내 議政府와 汶山까지도 차례로 喪失하고 말았다.

敵軍의 狀況: 北傀는 南韓의 赤化統一을 목적으로 金策을 前線사령관으로 하여 그들의 右翼을 제2군단(장, 소장 金光煥)으로, 右翼을 제1군단(장, 중장 金雄)으로 하여 6.25 未明을 期하여 南侵을 恣行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그들 제1군단은 예하의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과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을 議政府 北方에서, 제1사단(장, 소장 崔光)과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을 汶山 北方에서 各各 南侵시키고 제13사단(장, 소장 崔鏞鎭)을 機動예비로 하는 同時에 제105戰車여단으로써 이들을 先導케 하여 首都 서울을 포함한 西部지역의 險山을 피하였다. 또 제2군단은 예하의 4개 사단을 東海岸-春川間に 展開시켜 제1군단과 併行하여 東部지역을 侵奪하려는 것이 그들의 計策인듯 하였다.

그들은 1次的으로 서울 奪取를 目標로 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이 획책하였던 것과는 달리 我軍의 抵抗이 意外로 頑強하였음에 當황하였음인지, 서울 北方에 대한 我軍의 增援을 차단하기 위하여 麟蹄 地區에서 洪川 方面으로 指向시켰던 제7사단(장, 소장 全宇)을 그날로 春川 方面으로 迂回하여 제2사단(장, 소장 李靑松)과 같이 我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強襲케 한 다음 그 一部兵力을 漢江 兩岸으로 迂回시키려는 것으로 보였고, 제1군단은 이와 함께 서울을 短時日내에 攻略케 하여 漢水 以北에서 我軍을 打擊하려는 듯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兇策에 따라 제1군단은 抱川—東豆川—開城—延安 등의 我 前哨基地를 일거에 침탈하고, 26일에는 議政府와 汝山을 차례로 攻取한 뒤 그 餘勢를 몰아 그들 先頭 戰車는 서울을 目標로 南下하였다.

이때 이 正面에 投入된 부대는 北魏 제3, 제4 兩사단으로써 이들은 서울 侵奪을 先頭다름하는 양 18개 대대에 122mm 曲射砲 24門, 76mm 曲射砲 84門, 120mm 박격포 54門, 76mm 自走砲 24門의 지원과 戰車 80여대의 先導를 받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議政府에서 撤收한 제7사단장 劉載陔 준장은 26일 19.00 陸軍本部 前方指揮所가 設置된 倉洞의 蘆海支署에서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으로부터 議政府地區 戰鬪司令官으로 任命을 받았다. 이와 同時에 『제2사단을 포함한 이 地域에 投入된 全부대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行使하여 議政府를 奪還하다.』는 命을 直接口頭로 받게 되었다.

그러하여 同 준장은 議政府地區 戰鬪사령관으로서 이 地域의 全부대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領하게 되었으나, 지휘수단인 通信網은 癱痺된지 이미 오래였고, 可用부대의 所在와 병력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情形이었다. 그러므로 陸軍本部 연락장교단장 李龍文 대령으로 하여금 各 연대의 所在를 把握케 하고 연대장을 지휘본부로 召集토록 하는 한편, 21.00에 倉洞에 當到한 長교연대(장, 孔國顯 중령)로서는 落伍兵을 收容케 하여 再練성을 촉진케 하였다.

그러는 한편 27일 未明을 期하여 反擊으로 轉移할 腹案을 세우고, 陸軍本部 前方지휘소장 姜文奉 대령의 협조를 받았으나 反擊開始時間은 各 부대와 접촉이 이루어진 然後에 결정키로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이나 可用할 時間으로 보아 협조된 機動計劃이나 火力支援 및 軍需支援計劃, 그리고 부대간의 협조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따라서 彈藥補充과 給食問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反擊으로 轉移하려면 부대를 展開시키고 各 부대는 최종적인 攻擊준비를 갖추어야 할 27일 02.00에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이, 04.00에는 제1연대장 咸俊諱 대령이 各各 지휘본부로 參集하였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부대의 所在把握에 時間을 보내고 있던차에 04.00 倉洞지역은 敵의 戰車 4대로부터 기습 攻擊을 받고 또 한차례 分散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때 水陰里부근에 駐紮하고 있던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와 그 隣近에 철수하였던 부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게 된 敵戰車는 몇차례 盲射를 加한 뒤 後續부대가 없음을 確認하였음인지 되돌다 가고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加한 盲射로 인하여 일부 부대가 分散되어 議政府 脫환계획이 空文化되고, 白石川에서 敵을 阻止하고 있던 제25연대(장, 金炳徵 중령)도 07.00, 倉洞線으로 철수하였다.

08.00에 사령관이 把握한 倉洞지역의 부대는 5개 연대규모를 헤아렸지만 그 實在兵力은 1개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이 地域附近에는 확인되지 못한 相當數의 兵力이 連繫未成으로 個別的인 交戰裡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때까지 겨우 確認된 各 부대의 위치는 제1연대가 牛耳洞(倉洞 西北쪽 4km)에, 제3연대가 △92(水陰里)에, 제5, 제16연대가 △278(水落山 西南端) 일대에 있었고, 제25연대는 白石川에서 철수한 다음 牛耳洞에 제1연대와 近接하여 駐紮중이었다. 그리고 抱川地區에 配置되었던 제7사단 예하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는 이곳을 經由하지 않고 그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만으로써 26일 16.00에 泰陵으로 철수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抱川 北쪽에서 初戰에 분산되었거나 他부대에 吸收되었다. 또 德亭 方面으로 進出한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는 같은날 18.00에 제1사단 後方지역인 高陽方面으



로 철수하였으므로 倉洞地域에 집결한 부대들이 建制를 그대로 維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實情이었다.

즉, 제1연대는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를 제외한 각 대대가 東豆川 北쪽에서 分散되고, 제3연대의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는 金梧里에서 光復으로 철수하여 27일 15.00에 兩永里에서 北漢江을 건넜으며, 水谿里에 집결한 연대 主力도 實兵力 1개 대대에 미달하였다. 제5연대는 제3대대(장, 金秉化 소령)가 步兵學校 교도대로 派遣중 汶山方面으로 出動한데다, 제1대대(장, 李貞道 소령)의 所在도 杳然하였다. 제16연대는 後發梯隊인 제3대대(장, 姜泰奉 중령)가 未暇상태에 있고, 제2대대가 白石川邊에서 交戰중 대대장 金憲 중령의 負傷으로 後送됨에 따라 그 병력이 分散되었으며, 연대장 文容彩 대령도 本隊에서 離脱된 상태이어서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이 이를 併合지휘하는 形勢이 되었다. 그리고 제25연대는 제1대대(장, 林益淳 소령)가 安東지역에서 共匪擊滅作戰중에 있었으므로 本 전투에 참여지 못한데다 白石川에서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던 제2대대(장, 내리 羅熙弼 대위)가 倉洞으로 철수중, 北으로 되돌아가던 戰車로부터 사격을 받자, 道路山을 넘어 西大門 方面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의 狀況은 어느 면에할 것 없이 1개 대대규모가 고작이었고 그것도 300名에서 700명 内外에 不過하였다는 것이다.

25일에 退溪院 方面으로 北上한 機甲연대의 騎兵대대(장, 張哲夫 소령)는 26일 10.00에 靑石嶺부근에서 敵의 戰車가 議政府 方向으로 突進하는 것을 目擊하자, 接觸을 維持하면서 泰陵으로 撤收한 다음 명령에 따라 27일 15.00에 漢南洞에서 그들의 勳種用 舟艇으로 漢江을 건너 그 南岸에서 防禦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되어 倉洞線에 집결한 부대의 장비는 小火器뿐이고, 對戰車 火器로써 갖고 있는 것은 오직 砲兵學校長 代理 金桂范 중령이 지휘하는 105mm 曲射砲(M-3) 6門 뿐이었다.

한편 25일 內里(抱川 南쪽 13km)를 占領한 士官生徒대대(장, 趙岩 중령)는 抱川에서 後退하는 敵을 阻攔 격퇴한 다음 계속 固守하고 있었으나, 陸軍士官學校 교장 李俊植 준장은 제7사단 여하의 전투부대와 騎兵隊에 이어 戰鬪警察隊가 泰陵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生徒대대만이 최근밤에 殘留된 것으로 判斷하여 同일 19.00에 同 대대를 철수케 하였다.

그러는 한편, 同地域으로 철수한 제9연대 제1대대로서는 佛岩山(泰陵 北쪽 3km) 東南端의 △210를 占領케한 다음 退溪院 方向으로 侵入이 예상되는 敵에 對備케 하고, 21.00 以後부터 士官學校에 복귀한 生徒대대는 1개 중대로써 △93(當時는 △92과 同稱)와 學校 주변의 警戒임무를 담당케 하고, 잔여 主力을 再編成케 하였다.

이우렵 東海岸의 제8사단과 津川의 제6사단은 通信유지가 잘 안되었으나 健闘中인듯 하였으며, 臨津江邊에서 扼守中인 제1사단과는 通信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唯獨 議政府正面의 제7사단과는 通信疎通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참모장은 敵의 壓力이 집중 指向되고 있는 제7사단 方面의 歸趨를 重視하였던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그는 開戰直後부터 議政府까지 빈번히 往來하면서 戰況을 直接확인하고 現地에서 作戰을 指導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政府와의 連絡유지 등으로 바쁜 時間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全般적인 상황 파악이나 이에 對한 策案을 세울만한 餘力이 없었울것으로 推察되며 이러한 관계로 全般적인 상황조치나, 부대운영에 關하여는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의 건의에 의존하였거니와 이 正面의 作戰을 보다 效率의으로 統制하기 위하여, 건 작전국장이며 美 참모대학 留學대기중인 姜文泰 대령을 26일 07.00부로 陸本 전방지휘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正面의 제2, 제7사단의 作戰을 協調케 하고 統制하는 한편 戰況을 陸軍本部에 보고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전방지휘소가 어떻게 制度化되고, 어떠한 責任과 權限이 賦與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실상 統制를 받아야 할 제2, 제7의 兩개 사단은 陸軍本部 전방지휘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방지휘소장으로 임명된 姜文泰 대령은 지휘소를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孔液洞)에 설치하고, 議政府를 往來하면서 그의 主任務인 兩개 사단의 작전을 協同시키고 統制하는 것 보다는 전황파악에 注

力하였던 것이나, 전황이 緊迫하여짐에 따라 倉洞의 蘆海支署로 지휘소를 옮겼던 것인데, 동일 17.00부터는 同建物에 議政府지구 전투사령부가 開設되어 이와 같이 있게 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時間에 陸軍本部에서는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은 各局, 監室의 전 장교를 집합시켜, 議政府의 失陷과 敵의 戰車가 不遠間에 首都에 나타날 수 있는 戰況에 이르렀음을 설명한 다음 『이 戰車와 부닥쳐 싸울 勇士는 손을 들고 나오라.』고 외치면서 全 장교의 呼應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金白一 대령은 陸軍의 行政이 麻痺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嚴選한 장교 100여명으로써 1개연대 基幹을 편성, 연대장을 孔國鎭 중령으로 임명하여 21.00에 倉洞의 전투사령부로 急遽出動케 하였다. 그러나 將校연대는 대대장급 以上 지휘관에게만 拳銃으로 武裝되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非武裝인데다, 여기에 보직된 소대장, 중대장 및 참모장교는 各種兵科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새로 編成한 隊員들은 擧皆가 落伍兵을 現地에서 收拾하는데로 充當하게 되었다. 무릇 戰爭의 勝敗는 精神과 兵力을 포함한 物量 그리고 訓練의 程度에 따라 左右된다고 하였는데, 精神만으로 武裝된 이 부대에 期待하는 成果는 어느 정도일지 예기할 수는 없으나, 陣주먹으로라도 敵과 싸우겠다는 氣概와 累卵의 위기에 處한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不辭한다는 그 精神만은 가특한 것이었다.

또한 陸軍本部는 當初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을 汶山방면에 增援할 계획으로 同 사단의 先發隊로써 같은 날 午前중에 서울에 進出한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와 제20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 지휘하에 汶山방면의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에 急遽增援케 하였는데, 議政府를 喪失한 뒤부터는 可用, 總力量을 이곳으로 轉換한 것으로 보였다.

즉, 이날 늦게 進出한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策 소령)와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 장악하에 彌阿里의 丘陵지대에 配置하여 倉洞 방어線의 縱深을 補強케 하였고, 또 加平附近에 出動케한 바 있는 제8연대(장, 徐鍾鼎 중령)를 복귀시켜 그 1개 대대를 清凉里 北쪽 △143를 占據케 한데 이어 이날 夜半에 서울에 當到한 제16연대 제3대대(장, 대위 崔敏燮 대위)를 倉洞線으로 直行케 하였다. 그리고 工兵學校(장, 嚴鴻燮 중령)의 一部 병력으로서는 倉洞—彌阿里간의 교량을 爆破하는 任務를 부여하고, 서울에 있는 兵站, 經理부대까지도 動員하여 이곳의 後方支撥 任무를 遂行케 하였다.

이와 같은 軍部의 動向과는 달리 戰線에서 不遠 7km 南쪽에 있는 서울 市民과 三府 要人들까지도 軍首腦에서 發表한 『國軍은 安穩중이며, 戰勢는 好轉되고 있다.』라는 말에 敵의 砲聲이 들리는 不安속에서도 國軍을 信賴하고,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한 말자욱도 서울을 離脫하는 者 없이 조용한 가운데 27일의 새 아침을 맞게 되었다.

地形: 議政府는 서울에서 17km 距離에 있으며, 서울을 固守하기 위해서는 絶對的으로 確保되어야 할 要衝이다. 서울—議政府간은 京元(서울—元山) 街道인 3번道路와 京元線이 平行을 이루며 南北으로 이어졌으며, 이 道路의 東側에는 水落山(△638)과 佛岩山(△507)이 北에서 南으로 이어져 泰陵과 서울 東側外廓에 이르고, 西側에는 險峻한 道峰山(△717)과 北漢山(△716)이 聳立하여, 그 南端은 中央寬을 한눈에 내러볼 수 있는 北岳山(△342)에 이르고 있다. 東西의 兩高地群은 縱隔室을 이루면서 議政府 回廊을 둘러싸고 있어 議政府—倉洞에 이르는 10km중 5km는 道路 左右로 400—700m의 低谷地를 이루고 있어, 防者가 이 兩側 高地를 要挾한다면 敵의 步戰활동에 至大한 影響을 줄 수 있는 要地이나, 反對로 敵이 이곳을 확보한다면 防者는 漢江 南으로 철수를 強要 당하지 않을 수 없는 地勢이다.

議政府에서 서울에 이르는 機動路는 3번道路 以外에도 東으로 退溪院(서울 東北쪽 8km)에 이르는 312번 道路가 泰陵을 通하여 서울로 이어지고, 西로는 碧蹄(서울 北西쪽 14km)에 이르러 1번道路와 交叉되며, 松楸(서울 北쪽 13km)에서 310번 道路로 分岐되어 銜把撥(서울 北西쪽 6km)에 接續되고 있다. 이들 主要道路는 機械化부대에 良好한 接近路를 提供할 것이다.

北岳山 南麓에는 人口 150萬명을 包容하는 서울 市街地가 東西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市街에

는 東, 西, 南, 北으로 道路網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울 南端을 東—西로 貫流하는 1,600여m幅의 漢江에는 2개의 人道橋와 3개의 鐵橋가 있어서 서울을 南北으로 연결하는 大動脈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중 漢江橋와 3개의 鐵橋는 서울 中心部와 直結된 龍山에서 鷲梁津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의 人道橋는 廣莊洞—千戶洞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교량은 攻, 防간의 要部가 될 것이다.

氣象: 27, 28일 兩日間의 氣象은 흐린 날씨에 間歇的인 降雨로 機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視界에 制限을 주어 防者에게는 不利한 條件인데 反하여 攻者에게는 기습의 효과를 增大시키는 有利한 條件이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27일 04.00에 白石川의 阻止線이 무너지고 04.30에 敵의 戰車가 倉洞線까지 진출함에 따라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 劉載興 준장과 陸軍本部 전방지휘소장 姜文奉 대령은 이 對策을 熟議하고 있을 무렵인 05.00에 총참모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 深夜부터 여기 나오기 直前까지 國防首腦회의를 비롯하여, 非常國務회의와 非常國會등 연이은 회의에서 『軍은 反擊중이며, 서울은 固守한다.』고 몇번이나 다짐하였던 터이므로 그가 명령한 바 있는 議政府 탈환作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으로부터 報告된 바에 따르면 議政府 反擊작전의 발판이 되는 白石川의 阻止線마저 喪失하였다는 것이므로 크게 激憤한 그는 사령관에게 『倉洞線에서 敵을 阻止擊破하고 攻勢로 轉移하라.』고 嚴命한 다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線을 固守하라.』고 거듭 強調면서 來日이면 美軍이 參戰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든지 내일까지 만이라도 支撐하라고 要求한 다음, 지칠대로 지친 장병을 慰安하면서 여기를 떠났다.

이에 따라 사령관은 水落山 西南端—牛耳洞에 이르는 盆地에 阻止線을 편성할 것을 구상하고 관계 지휘관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 『① 余는 議政府方面의 모든 師團以下의 全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倉洞線에서 敵을 阻止擊退한 다음, 攻勢로 轉移하려 한다.
- ② 제5연대(一): 제16연대를 통합하여 새말(倉洞 北東쪽 2km)—△158(倉洞 西北쪽 2km) 간에 展開하여 敵을 阻止 擊退하라.
- ③ 제3연대(一): △154(△158 西쪽 1km)에 展開하여 敵을 阻止 擊退하라.
- ④ 제25연대(一): 牛耳洞(倉洞 西쪽 3km)에 展開하여 敵을 阻止 擊退하라.
- ⑤ 포병학교(포대): △71 南端에서 사령부를 일반지원하라.
- ⑥ 제1연대(一): 사령부 예비가 되어 최초 △71에 直결하여 역습에 대비하라.
- ⑦ 공병학교(공병대): 各隊의 工兵을 통합하여 倉洞—彌阿里간의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敵 戰車가 교량상에 이르면 폭파하라.

## ⑧ 협조지시

㉔ 각 부대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㉕ 탄약과 식사는 추진보급한다.

## ⑨ 지휘 및 통신

㉖ 통신은 傳言으로 한다.

㉗ 사령부 지휘소는 蘆海支署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建制上的 各 사단장이 없는 가운데에 사령관이 직접 各 聯隊長以下에 命令하였다. 당시의 사령관의 작전 개념은 議政府—서울간의 3번 道路와 道峰山 줄기를 東南으로 횡단하여 牛耳洞에 이르는 無名道路에 重點을 두고 4개 연대를 一線으로 展開시키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하여 사령부 附近에 控置하였는데 兵力의 統合으로, 한 聯隊長이 다른 聯隊를 兼合指揮하는 등의 混線을 빚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은 방어계획을 완성하기에 앞서 지난밤 倉洞에 進出하여 집결중인 제16연대 제3대대에 경계 임무를 賦與하여 3번 道路를 따라 進出시켜 敵과의 접촉을 유지케 하고, 그들의 활동상황을 早期에 通報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령관의 措置에 따라 各 부대는 할당된 지역에 부대를 展開시켰는데,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은 同연대의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를 右 제1線으로 하여 善말—3번 道路간에, 제16연대의 제1대대(장, 俞義溶 중령)를 左 제1線으로 하여 △158에 展開시켜 제3연대와 連繫케 하고,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은 제2대대(장, 申彦國 소령)를 右 제1線으로,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를 左 제1線으로 하여 △158—△154간에 展開시켰으며,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1개 대대병력을 牛耳洞에 展開시켜 橋峴里(倉洞 北西쪽 10km) —牛耳洞에 이르는 無名道路를 堅守케 하였다.

그리고 사령부의 예비가 된 제1연대는 △71에 집결하여 사령부의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逆襲에 投入될 태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사령부의 唯一한 砲隊는 砲兵學校 교장대리 金桂元 중령 지휘하에 △71(倉洞) 南麓에 布陣시키고, 제2, 제7사단 工兵의 殘留兵과 工兵學校의 工兵으로 混合편성한 工兵隊는 교장 嚴鴻燮 중령의 지휘하에 교량 폭파조를 편성, 倉洞—彌阿里간의 大, 小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敵의 戰車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또한, 지난 밤 倉洞에 당도한 장교연대장 孔國鎭 중령은 사령관에 申告한 後, 제2대대(장, 邊應楮 소령)를 3번 道路의 東側에, 제3대대(장, 張虎崗 소령)를 그 西側에, 제1대대(장, 陳龍坤 소령)를 中央에 散開시켜 落伍兵을 收拾하여 完全편성을 이루도록 命令하고, 부연대장 申元植 소령에게는 이들에 대한 行政支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大部分의 落伍兵은 비무장인 장교연대의 장악하에 들기를 거부하고, 各自의 原所屬隊 복귀를 希求하였기 때문에 밤 사이 收容한 落伍兵은 70여명에 不過하였다. 이날 아침 이를 確認한 總참모장은 落伍兵을 全員原隊로 引繼케 하고 장교연대는 해산시켜 사령부와 各 연대에

數명씩 배치하여 연락업무를 遂行케 하는 한편, 잔여 人員은 李龍文 대령이 지휘하는 연락장교단에 合勢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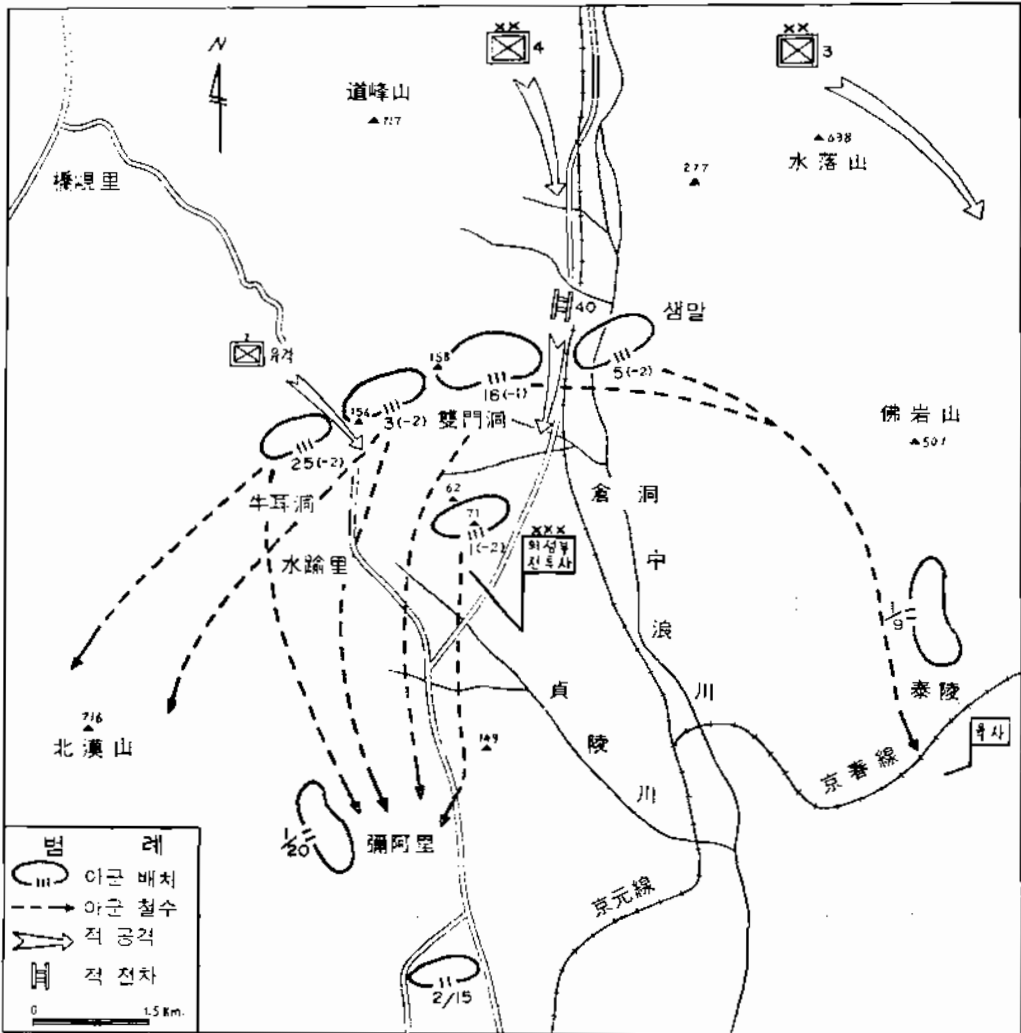
(2) 작전실시

(가) 倉洞地區의 戰況

1. 倉洞地區 阻止線의 形成

阻止 명령을 受領한 各級 부대장은 接敵이 없는 가운데 사령관의 作戰概念에 따라 割當된 지역에 부대를 展開시키고, 阻止진지를 急編하여 敵의 侵襲에 대비케 하였다. 이와 같이 協調된 저지진지를 編成하게 된 것은 開戰以來 처음 보는 일이며, 美空軍과 地上軍이

◇ 상황도 제16호 倉洞地區의 戰況(6. 27)



참전한다는 소식으로 連日 不眠 不休속에서 敗退만을 거듭하여 士氣가 극도로 沮喪된 장병들도 歡聲을 울리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제5연대의 狀況** : 연대장 崔昌彦 중령은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를 右 제1線으로 하여 善말—3번道路간, 제16연대 제1대대(장, 俞義濬 중령)를 左 제1線으로 하여 3번道路—△158간에 展開시켰다.

崔昌彦 중령은 제2사단 참모장으로서 金梧里에서 사단장과 같이 철수중 26일 14.00에 議政府 南쪽 4km 街道에서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으로부터 제5연대장으로 任命된 것이다. 前 연대장 朴基成 중령으로부터 引受한 병력은 장교 4명을 포함한 187명뿐이었다.

그는 于先 철수병력을 善말附近에 집결시키는 一方으로 落伍兵을 收拾하고 있었는데, 28일 01.00 陸軍本部에서 派遣된 연락장교로부터 『倉洞으로 進결하라.』는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의 명령을 전달받고, 同 연락장교의 案内로 同일 02.00 蘆海支署에서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姜文奉 대령과 朴基成 중령이 보였으나 다른 연대장은 보이지 않았는데, 姜文奉 대령은 사령관을 대리하여 『今朝 黎明을 期하여 議政府에 對한 反擊작전을 실시한다. 공격개시 時間은 後達한다.』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細部の인 계획은 없었다. 또 同 대령은 附言하기를 『제5연대장은 제16연대까지도 통합지휘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제16연대의 지휘체제가 없었고 그 병력이 제5연대와 混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연대장 崔昌彦 중령은 그가 戰鬪경험이 없음을 理由로 前 연대장 朴基成中령을 부연대장으로 任命하도록 건의하였던바 사령관의 承認을 받게 되었다.

이날 05.00를 前後하여 車甲俊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와 俞義濬 중령이 지휘하는 제16연대 제1대대가 合勢하게 되어 兩個 연대병력을 1개 대대씩 2개대대로 再編成하고, 부연대장 朴基成 중령과 작전장교 玄啓龍 중위의 補佐를 받아 阻止진지를 편성케하였던 것이나, 同일 09.00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의 복귀로 同 연대장에게 同 연대의 지휘권을 引계하고, 車甲俊 소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만을 지휘하게 되었다.

**제16연대의 狀況** : 俞義濬 중령이 지휘하는 제16연대는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의 作戰統制下에서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3번道路의 右端에서 △158 일대에 展開시켜 전투태세하에 있던 09.00에 연대장 文容彩 대령의 복귀와 後發隊로서 崔敏燮 대위가 지휘하는 제3대대(一)를 掌握하게 되어 活氣를 되찾았다.

연대장 文容彩 대령은 어제 金梧里 北方에서 부대의 철수를 지휘하고 있던 중 抱川쪽에서 議政府로 侵入하는 敵의 戰車와 그들의 主力으로 말미암아 退路가 차단되어, 側近의 小數병력과 해가 지는 것을 기다려 夜暗을 이용하여 水落山을 넘어 이곳에서 本隊를 찾게 된 것이며, 제3대대는 이날 早朝 사령관 명에 따라 경계부대의 임무를 띠고 議政府 方向으로 轉進중 南下하는 敵戰車와 遭遇하여 倉洞방어線에서 本隊에 合勢하게 된 것인데, 대대장 姜泰奉 중령이 휴가중이어서 부대대장 崔敏燮 대위가 2개 중대규모의 대대를 지휘하

고 있었다.

이로써 연대는 사령부 예하에서 병력이 가장 많은 부대가 되었으며, 연대장은 제3대대로써 연대 右 제1線 正面을 보강하여 3번 道路를 따라 南下중인 敵의 侵襲에 대비케 하였다.

제3연대의 狀況 : 연대장 李尙根 중령은 제2대대(장, 申彥國 소령)를 右 제1線으로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를 左 제1선으로 하여 △158—△154간에 展開시켜 右는 제16연대와 左는 제25연대와 各各 連繫를 유지하면서 主로 道峰山 줄기를 타고 南下하는 敵에 對備케 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는 水陰里에 집결中인 04.30에 盲射를 加하면서 倉洞으로 侵入하는 敵戰車에 대하여 集中사격을 加함으로써 이를 되돌아가게 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제25연대의 狀況 : 연대장 金炳微 중령은 白石川에서 撤收한 제3대대(장, 高東暎 소령)와 제2대대의 落伍兵을 收拾하여 牛耳洞의 隘路에 展開시키고, 道峰山脈을 東西로 횡단하는 無名道路에 防守陣을 치고 있었다.

연대는 議政府가 失陷된 뒤 總참모장의 명에 따라 白石川邊으로 轉進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하고 있던중, 敵은 이날 04.00에 戰車를 先頭로 하여 南侵을 再開한 까닭으로 突破당하고 말았는데, 연대의 左 제1선을 담당한 제2대대(장, 대위 羅熙弼 대위)는 전날 議政府 橋(白石川上의 橋梁)上에서 戰車 1대를 擱坐시킨데 이어 戰車의 뒤를 따라 闊豁地를 횡단하는 2列縱隊의 步兵을 目擊하자, 이들을 至近距離까지 유인한 다음 大대의 건화력을 集中시켜 剿殺시켰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의 後續부대가 단절된 것이며, 大대는 道峰山 東麓을 따라 倉洞으로 철수중 北上하는 戰車로부터 사격을 받고 道峰山 줄기를 넘어 舊把撥로 철수하게 된 것이나, 이로 緣由하여 倉洞線의 부대들은 阻止陣地 편성에 時間的 여유를 얻게 되었다.

제1연대의 狀況 : 연대장 咸俊鎬 대령은 명령을 受領하고 09.00에 그의 本隊가 있는 牛耳洞으로 가는 길에 議政府 正面에서 철수한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을 만났는데 이 大대를 먼저 △71에 배치할 腹案을 세웠다.

이에 앞서 연대장은 지난 밤 연대지휘부가 있었던 牛耳洞 溪谷에서 제3대대장 金焯穆 소령이 지휘하는 100여명을 收容하고, 이 大대를 五峰山(道峰山 西쪽 1.5km)에 展開시켜 防守케 하는 同時에 그곳으로 철수하는 兵力을 收容토록 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연대가 兩分되는 바 되어 通信대장 金舜政 대위를 시켜 제3대대도 △71로 이동하도록 指示하였다.

연대장은 牛耳洞에 集結한 제1대대가 △71로 이동하기에 앞서, 300여명의 장병을 向하여 『지금 우리의 首都 서울은 風前의 燈火와 같다. 우리는 祖國을 지키는 干城으로서 마땅히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죽어야 할 時機가 온 것으로 안다. 목숨을 걸고 서울을 死守하자.』는 激勵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生前에 남긴 마지막 遺言이 되고 말았다.

장교연대의 狀況 : 孔國鎭 중령이 지휘하는 장교연대는 編成時의 氣概와는 달리 一戰의



〈倉洞戰線에서 散華한 第1연대장 故 威俊鎬 准장〉

交合도 없이 총참모장에 의하여 解體되어, 사령부와 각 부대의 연락장교로 分散배치 되었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同 연대의 군수주임으로 補職된 金貞武 소령은 이곳에 出戰하기 前까지 軍需局 보급과장으로 있으면서 戰鬪부대에 必須的인 彈藥과 食糧 등의 보급품을 軍用 및 民間車輛을 動員하여 不足함이 없도록 推進하였다. 그러나 現地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確認하고 그는 지체없이 군수국장 楊國鎭 대령에게 이곳 倉洞—彌河里 地區부대들의 彈藥과 給食문제를 時急히 해결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陸軍本부의 情況 : 총참모장은 議政府지우 전투사령관에게 倉洞線을 固守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이날 새벽의 國防部 首腦會議에 參席하였는데 國防部長官 申性樞는 이 자리에서 國防부와 各軍본부는 水原으로 이동한다고 決定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各自의 良識에 따라 行動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最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총참모장은 이어서 개최된 陸軍本부의 회의에서 『政府는 移動하더라도 陸軍만은 서울을 固守한다.』는 本來의 決意를 다시 한번 闡明하고, 회의가 끝난 09.30 『倉洞線이 언제까지 支撐할 수 있겠는가?』라는 要旨의 密封을 情報局 北韓班長 金鍾泌 중위에게 手



交하여 이를 劉載興 준장에게 전달케 하였다.

총참모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倉洞阻止線에 一縷의 희망을 걸고 다음날까지만이라도 支撐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金 중위를 倉洞으로 보내어 이를 確認코자 함에 있었던 것인데, 金 중위가 Jeep車로 水陰里부근에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敵 砲彈이 集中하기 始作한지라 이를 피하면서 車를 倉洞으로 몰았으나, 끝내 劉載興 준장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가게 되었다. 金 중위의 倉洞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총참모장은 서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의 決意도 부너지고 말았는지 11.00에는 在京부대장을 召集하여, 各級 부대를 始興(서울 南쪽 10km)의 步兵학교 부근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金貞武 소령으로부터 報告받은 군수국장 楊國鎮 대령은 兵站학교장 白善鎭 중령에게 緊急지시하여 倉洞—彌阿里지역 부대에 대한 給食지원을 強行토록 指示하고, 富平의 제1兵器대대(장, 金昌培 소령)에게는 倉洞線에 彈藥추진을 계속하도록 措置하였다.

給食지원업무를 遂行하게 된 白善鎭 중령은 이날 早朝부터 敦岩洞 電車終點의 廣場에 大型 가마솥 100여개를 설치한 急造野戰 炊事場을 마련하여, 愛國婦人會에서 動員한 100여명의 婦女들의 協力을 얻어 주먹밥을 만든 다음, 在京 兵站 및 經理부대 要員등이 거두어온 비광주리에 담아 數대의 3/4ton 車輛에 적재케 하여 彈藥운반차량과 함께 倉洞線으로 추진케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倉洞線에는 敵의 攻撃을 예고하는 砲聲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보급차량은 彌阿里에서 더 나가지 못한채 車에 실린 주먹밥은 이미 이 지역에 배치된 부대와 철수한 병력들에 의해서 없어지고, 실상 먹어야 할 戰線부대 장병들에게는 推進供給될 수가 없었다.

## 2. 倉洞阻止線의 崩壞

서울 强占에 白眼이 된 敵은 전날 議政府—汝山線을 略取하자 이날 04.00부터 南侵을 再起하여 退溪院—倉洞—奉日川동 3개 方向으로 그 龍鋒을 指向하였다.

즉, 議政府 回廊을 통하여 서울로 進出한 것으로 보이는 北傀 제4사단은 이날 拂曉를 期하여 侵襲을 再開하였으나, 그들 先頭부대가 我 제25연대에 의하여 擊退되어 一時 攻撃을 中斷하고 再編成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로부터 數時間이 지난 10.00에는 倉洞線 일대에 砲彈을 集注시키면서 11.00에는 그 先頭 戰車로써 陣前으로 肉迫하였다.

이무렵 倉洞線의 제1선 戰鬪부대 뒤에는 督戰隊, 그리고 제3선에는 憲兵을 배치하여 병력철수의 統制와 落伍兵의 收容임무를 부여하여 陣容을 가다듬고 있었으나, 이곳 장병의 渴望하는 彈藥과 給食문제가 解決되지 않음은 勿論, 美空軍機의 爆音도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失望속에 敵彈의 集中은 熾盛하고, 各 부대와외 연락 유지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金桂元 중령이 지휘하는 6門의 105mm 曲射砲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그들의 隊列을 분산시키고 진출을 鈍化시키는데 渾身の 힘을 다하였으나, 1時間 뒤에는 砲彈이 射盡되고 數의으로 優勢한 敵에게 力不及하여 11.00에는 砲車와 더불어 彌阿里 교개로 철수하였다.

戰況을 注視하고 있던 사령관은 地勢의 不利한 倉洞線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各 부대를 철수시켜 彌阿里 고개에서 極力 阻止할 것을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各 부대를 適當한 연락장교로 하여금 『彌阿里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케 한 다음 11.00에 사령부를 △149(倉洞 南쪽 2km) 南端으로 이동하였는데, 狀況의 急變으로 명령을 받은 연락장교들은 이를 關係부대에 전달하지 못한 채 직접 사령관의 뒤를 따르게 되고, 督戰隊와 落伍者統制線에 配置되었던 憲兵들도 흩어지고 말았다.

사령관은 사태의 急變에 따라 12.00에는 지휘소를 彌阿里 고개로 옮기고, 隨行한 장교들로서는 철수병력을 收容케 하는 한편, 同 고개의 左右側에 阻止진지를 堅固할 계획으로 地形偵察중 △103에서 李應俊 소장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兩 지휘관은 3번 道路의 右側은 劉載興 준장이, 그 左側은 李應俊 소장이 各各 分擔 지휘하기로 合意를 봄으로써 各己의 正面으로 철수한 병력을 收容하여 이곳을 防守하게 되었다.

제5연대의 狀況: 이날 아침 물러간 것으로 보았던 戰車는 40여대로 增強되어 다시 倉洞線에 나타나 道路의 左右側에 盲射을 加하면서 제16연대와 虛隙을 踏고 3번 道路를 따라 侵入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장 崔昌彦 중령은 점차 肉迫하는 戰車를 目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를 向하여 拳銃 사격을 加하면서 『사격 개시!』를 외쳤다. 瞬息間에 700여의 銃口에서 鐵丸을 날렸으나 戰車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敵은 我軍에게 戰車에 對敵할 火器가 없음을 잘 알았던 탓인지 道路 左右側에서 小火器 사격을 加하는 我 阻止部隊에 介意치 않은 듯 盲射을 加할 뿐 부대 前面을 通過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30여분 뒤에는 10여대의 Side Car와 騎馬隊가 先導하는 步兵의 대열이 陣前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연대장은 또 한차례 拳銃을 發사하면서 사격명령을 내렸으나, 이때에는 이미 사격할 실탄이 없었던 터이라 연대의 防禦陣容은 敵의 近接에 따라 점차 부너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狀況은 連鎖的으로 波及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3.00였는데 대대장 車甲俊 소령은 이에 對한 責任을 痛感하고 拳銃을 이마에 대고 自決하려고 하였으나, 연대장이 이를 制止하여 흩어진 병력을 佛岩山 계곡에서 收拾하여 泰陵의 陸軍士官학교를 目標로 철수하였다.

제16연대의 狀況: 敵의 戰車 40여대는 제3대대의 꼬리를 물고 11.00에 陣前에 이르렀을 때, 金桂元 중령이 지휘하는 105mm 곡사포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그 隊列에 龜裂이 생겼는데, 이때까지 모두 戰車로만 보였던 隊列속에는 戰車로 위장한 車輛과 그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兵員들이 我軍의 砲射擊에 의하여 空中으로 飛散하는 修羅場을 이루었다. 그들은 다시 물러서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我軍의 砲擊이 점차로 疎散되는 것을 看破하였음인지 破壞된 車輛들을 몰아제치고 倉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砲擊을 加하였던 까닭에 연대는 分散하여 南쪽으로 철수하였고, 그 일부 병력은 俞義濬 중령의 지휘하에 3번 道路를 橫斷하여 泰陵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제8연대의 狀況: △154에 陣地를 編성한 제9중대장 李元桂 대위는 11.00에 同 高地의

西端에서 民間人 服裝을 한 수상한 者들을 摘發하고 그들의 所持品을 조사하려 하자, 그들은 사격을 加하며 도주하려 하기 때문에 곧 應射하여 그중 5명을 殺傷하고 身元을 확인한 바 敵의 偵察隊員임이 밝혀졌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 右隣接의 제16연대 지역의 雙門峴에서 銃聲이 메아리 치더니 잠시 뒤부터는 銃聲이 南쪽으로 移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밝혀둔 各 부대의 共通的인 문제점의 하나는, 장교에서 兵에 이르기까지 元來의 編成要員이 아닌 集團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生疎한데다 서로가 이름도 모르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兵士가 戰場을 離脫한다 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이를 制止하기도 어려운 指揮體制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제16연대가 추수하는 것을 본 兵士들은 하나, 둘 離脫하기 始作하였다. 上下와 左右關係가 生疎한 急編部隊의 弱點을 그대로 露呈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25연대의 狀況 : 연대에서도 11.00에 敵의 偵察隊로 보이는 한 무리를 發見하고, 연대장은 이들에게 集中사격을 加하게 하였으나 이때 各個 兵士들은 彈藥이 이미 消盡되었거나 남은 것이 數發에 지나지 않은 까닭으로 效果的인 사격을 하지 못하였는데, 敵이 곧 사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成果나 損失없이 끝났다.

그런데 隣接한 제3연대의 철수들 보게 된 연대는 그대로 分散하여 一部는 彌阿里로, 나머지는 荷把撥쪽으로 철수하고 말았으나 彈藥의 補給이 뒤따르지 않는 戰況의 急轉直下の 眞相을 能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제1연대의 狀況 : 연대장 威俊鎬 대령은 제1대대(장, 韓泰源 중령)를 △71에 展開시켜 各個 兵士의 散兵壕에 이르기까지 點檢확인하면서 제3대대(장, 金煥穆 소령)가 來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무렵 五峰山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장 金煥穆 소령은 砲聲과 銃聲이 後方地域에서 들려왔고 연대본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까닭에 道峰山 줄기를 따라 南下中이었던 배인 지라, 金舜政 대위는 이를 찾지 못하고 11.00에 聯隊本部로 돌아왔다. 이때 倉洞지역에는 敵砲彈이 兩注하기 始作하였고 제3대대의 撤收가 時急하였던 까닭에 연대장은 그곳의 부대지휘를 부연대장 李憲權 중령에게 위임한 다음 作戰주임 宋星三 대위, 통신장교 金舜政 대위 그리고 호위 헌병 1명을 帶同하고 그의 指揮車로 牛耳洞쪽으로 向하여 달렸다. 이들이 水陰里 附近에 이르렀을 때 不意의 銃聲과 함께 鐵丸이 車에 集注하기 始作하여 연대장은 運轉兵에게 車를 세우도록 命命하였으나 그 瞬間 運轉兵이 負傷하여 車는 民家를 들이받고 急정거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瞬間的으로 發生한 일이었기 때문에 精神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車가 急정거하는 衝動으로 宋星三 대위는 언덕진 개울로 떨어지고, 金舜政 대위와 運轉兵은 民家로 뛰어들어 九死一生으로 生命을 扶支하였으나, 호위 헌병과 연대장은 敵 정찰대의 銃彈에 맞아 그 자리에서 陣歿하였다.



〈故 威俊鎬 准장 顯忠碑, 國軍墓地〉

연대장 威俊鎬대령은 서울 東大門區(昌信洞) 出身으로 이때 나이 29세였다. 일찌기 軍門에 投身하여 1946년 1월 15일 軍事英語학교를 거쳐 國防경비대 제17연대의 創設, 제3연대장, 智異山지구 전투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共匪討伐에 이어 麗·順叛亂軍의 平定과 軍育成에 기여하였으며, 陸軍參謀학교를 修了하고, 1950년 4월 30일 제1연대장으로 赴任하여 58일째되는 6월 27일 11.30 倉洞戰線의 一隅에서 戰死한 것이다.

그는 25일 開戰以來 최초로 戰歿한 연대장으로서 陸軍준장으로 追叙되었으며, 軍은 그의 愛國忠節을 기리기 위하여 1958년 6월 27일 그가 戰死한 水陰里(109번지)에 顯忠碑를 세웠다. 그러나 1968년 4월 都市計劃의 一環으로 同 顯忠碑는 國軍墓地(장군 묘역)로 옮겨졌다.

## (나) 彌阿里地區의 戰況

### 1. 彌阿里地區 阻止線의 形成

彌阿里 阻止線의 右戰線 지휘관이 된 劉載興 준장과 左戰線 지휘관이 된 李應俊 소장은 이곳의 地勢로 보아 하루 밤의 支撐은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淸涼里-一月谷洞-鍾岩洞-彌阿里를 연결하는 線에 所謂 彌阿里지구 阻止線을 形成하였다.

彌阿里는 現在 서울시로 編入되어 市街地로 발전되어 옛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當時에는 京畿道 楊州郡 蘆海面에 屬하여 그 일대가 共同墓地였으며, 서울 東北郊의 敦岩洞에서 고개 하나로 境界되어 있어, 俗稱 이를 「彌阿里 고개」라 하였다. 이 고개의 北側에는 北漢山系를 水源으로 하는 貞陵川이 東南으로 흘러 中浪川으로 流入하고 있으며, 이 小川은 30m 幅에 兩岸이 3~4m의 斷崖를 이루고 있어 倉洞-彌阿里를 연결하는 吉音橋와 京春街道上의 中浪橋만 爆破한다면 對戰車防壁으로 適格이었으며, 3번 道路가 이 고개를 東西로 갈라 서울로 進入하고 있다.

當初 이 地域의 戰鬪지휘관으로 임명된 李應俊 소장이 議政府地區 戰鬪司令官과 指揮權을 分割하게 된 것은 지역이 넓고 錯雜할 뿐만 아니라 通信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이곳의 防守를 보다 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인다.

12.00가 지나면서 倉洞線에서는 軍人, 피난민들이 앞을 다투어 山으로 들로 밀려들기 始作하고, 敦岩洞 電車終點에는 婦人團體에서 만들어낸 주먹밥이 數10개의 机床위에 山더미 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彌阿里 阻止線에는 헌병사령부의 헌병과 각 사단 헌병으로 된 落伍者 統制線과 收容所가 설치되었으며, 倉洞線에서 철수한 병력은 일단 여기에서 收容되어 取食한 다음 장교 3~4명에 사병 80~90명으로 중대를 臨時편성하여 指定된 진지로 재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16.00에는 阻止線의 輪廓이 잡히게 되었으나, 그 總兵力은 제5사단의 2개 대대 및 제8연대의 1개 대대 병력까지 합하여도 3,000명에 未及하였으며, 이를 支援하는 火器로서는 105mm 曲射砲 6門, 57mm 對戰車砲 8門, 81mm 迫擊砲 15門이 그 全部였는데, 그중 57mm 對戰車砲 2門과 81mm 迫擊砲 5門은 中浪橋 부근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吉音橋의 폭파에는 宋鍾泰, 康昌祚 중위등이 지휘하는 工兵학교 교도대를 배치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들은 倉洞線의 교량폭파에 임하였으나 기술未熟으로 成功하지 못하고 分散된 것이며 彌阿里에 집결한 工兵部隊 兵力은 2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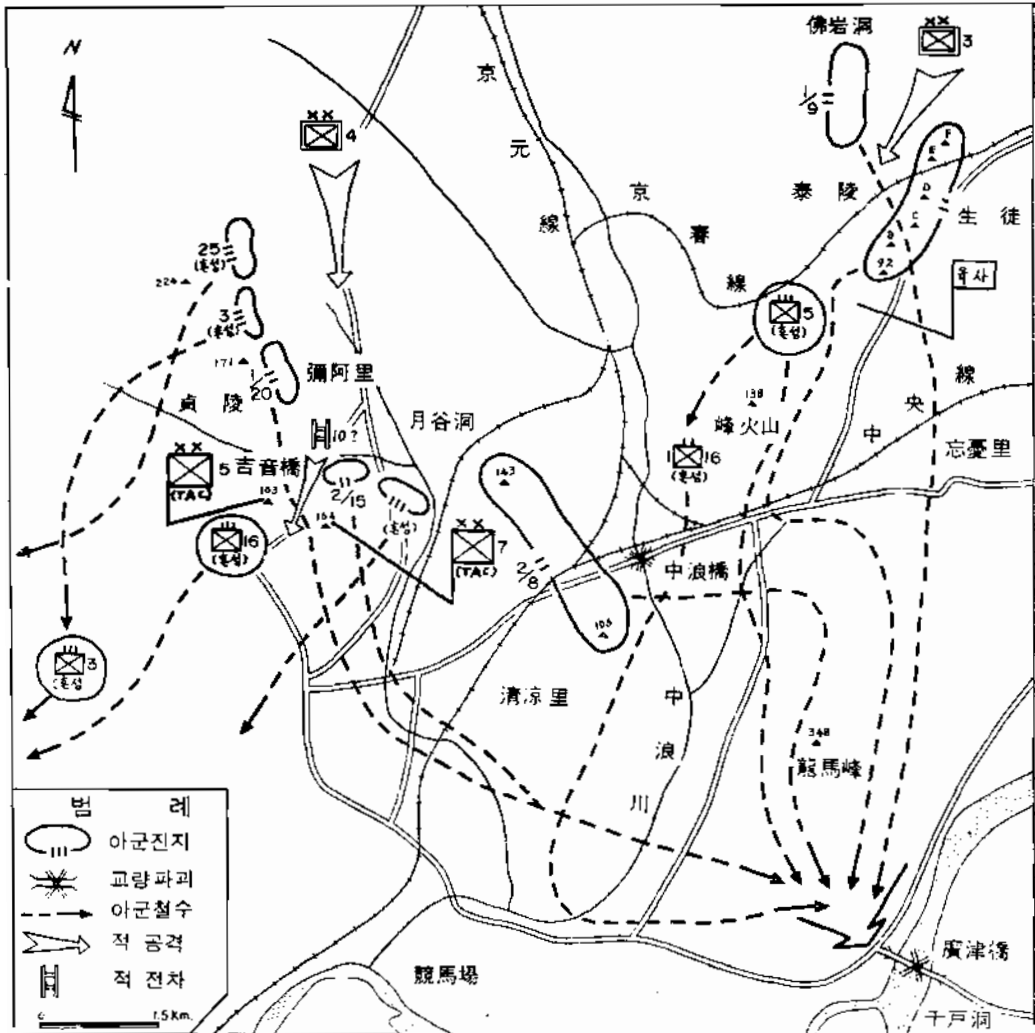
한편 倉洞線을 휩쓴 醜敵은 20여대의 戰車를 앞세우고 騎馬를 後續시켜 同일 17.00에 彌阿里線으로 肉迫하였으나, 그 最左戰線을 담당한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의 一齊사격에 이어 이곳 全兵力의 集中사격으로 그들은 1대의 戰車를 유기한채 逃走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20연대는 緒戰을 勝利로 장식함으로써, 계속 밀리기만한 이곳 장병에게는 士氣와 勇氣를 불려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金桂元 중령이 지휘하는 6門의 105mm 曲射砲가 계속 그들의 退路를 차단하였던 까닭에, 이것이 奏效하였음인지 日沒 뒤까지도 그들의 再侵을 볼 수 없었다.

이무렵 戰線에 慰問次 나온 市民人士들은 擴聲器를 통하여 『國軍장병 여러분! 서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敵을 물리쳐 주십시오.』하는 內容의 街頭放送을 반복하면서 彌阿里街道에서 哀情어린 呼訴로써 激動하였으며, 어린 女學生들도 慰問品을 들고나와 장병을 위문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총참모장은 이 보다 증군은 19.00에 彌阿里 戰線을 찾아 李應俊 소장과 劉載興 준장에게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美極東 사령부는 John H. Church 준장으로 하여금 前進지휘소(ADCOM)를 水原에 설치케 하고, 來日부터는 B-29 重爆擊機 100대가 軍을 지원한다. 美軍이 올 때까지 이 線에서 敵을 阻止하라.』고 決意를 表明하였다. 그리고 그를 隨行한 헌병사령관 및 참모들도 밝은 表情으로 落伍兵을 收拾하여 戰力을 補強하는데 拍車를 加하였다.

이와 같이 이 最後阻止線에서 軍은 首都防守의 最終態勢에 임하였으나, 모든 市民은 이러한 事實을 모르고 있음인지 아니면 18.00부터 放送하기 시작한 『美極東사령부 前進지휘소 來韓』이라는 內容을 報道하는 都下 各 新聞의 號外에 慰安이 되었음인지 조용한

◇ 상황도 제17호 彌阿里-秦陵地區 戰況(6.27)



가운데 밤은 깊어갔고, 두텁게 깔렸던 구름은 빗 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5사단의 狀況 : 사단이 이곳에 出動하기 前까지는 사령부를 光州에 두고 제15연대를 全州에, 제20연대를 松汀里(現 尙武臺 부근)에, 獨立대대(장, 金琮舜 중령)를 咸陽에 두어 智異山 및 白雲山 등지에서 蠢動하는 共匪擊滅작전에 임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08.00 陸軍本部로부터 『38°線 全域에 北傀軍 侵入, 제5사단은 全 兵力을 12.00까지 龍山驛에 集結시키라.』는 急電에 따라 各 地域에 分散된 부대를 緊急召集하여 出動시켰던 것이다.

사단장 李應俊 소장은 陸軍本部의 緊急出動명령에 따라 제15연대(장, 崔榮禧 대령)를 全州에서 서울로 急進토록 부연대장 趙在美 중령에게 이르고,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에 대하여는 이날 長城에서 順天地區로 出動한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順天驛에서 回

轉徙하여 26일 午前에, 또 光陽에서 복귀한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同日 午後에 各各 출동시켰으나, 白雲山(光陽)에서 討伐중에 있는 제2대대(장, 李昌求 소령)가 당도하지 않아 殘留隊長으로 任命한 李承勳 대위에게 『제2대대기도착 즉시 서울로 출동하도록 조치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날 夜間特別列車便으로 上京하여 27일 07.00 총참모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였는데,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命令하되 『사단장께서 도착하기 前에 휘하의 1개 연대를 汝山 方面에, 또 다른 1개 연대를 議政府 方面에 投入하였는데, 이는 戰線상황이 危急하여 取한 조치이니 사단장은 彌阿里로 나가 議政府정면에서 撤收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淸涼里 北方에 배치할 제8연대의 1개 대대도 統습지휘하여 首都 서울을 防守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陸軍本部는 이 사단을 汝山 方面에 投入할 계획으로 먼저 龍山에 도착한 제15연대의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와 제20연대의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그때 마침 參謀 학교 副교육자로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제15연대장 崔榮善 대령으로 하여금 지휘케 하여 제1사단(장, 白濟燁 대령)에 배속하고, 그 뒤를 이어 도착한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도 제15연대장의 지휘하에 들게 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急變하여 議政府의 尖陷을 확인하게 된 陸軍本部는 水色까지 進出한 同 大대를 急回轉케 하여, 그 뒤에 당도한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와 같이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으로 하여금 지휘케 하여 彌阿里고개에 배치하여 倉洞線을 보강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事由로 사단장은 휘하 부대의 所在도 確認하지 못한채 참모장 朴炳權 대령,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을 帶同하고 헌병대장 朴昌錄 대위와 함께 10.00에 彌阿里에 당도하여 △103를 前方지휘소로 정하고, 군수참모 徐慶澤 소령에게는 제18연대(現 陸軍本部)에 설치한 後方지휘소를 지휘케 하였다.

11.00에 사단장은 △103에서 제20연대장으로부터 부대배치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제15연대 제2대대가 3번 道路 右側의 △132(現 예술고등학교)에, 제20연대 제1대대가 그 左側의 △171(당시 共同墓地)에, 그리고 제8연대 제2대대(장, 高白圭 소령)가 △143(阿基洞)에 各各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사단 工兵대대장 梁宗益 대위에게 隣近 住民을 動員하여 各 大대의 陣地工事を 지원케 하였다.

제20연대 제1대대의 狀況 : 대대장 金漢柱 소령은 倉洞지역 부대의 掩護임무를 띠고 지난밤 △224—△117에 제1중대(장, 金成龍 대위), 제2중대(장, 金龍鳴 대위), 제3중대(장, 金昌德 중위),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를 右로부터 左로 1線배치 하였으나, 날이 밝은 27일 07.00에 地形偵察을 다시 하여 3번 道路의 瞰制가 容易한 共同墓地인 △117의 東側으로 재배치하였는데, 6挺의 水冷式 重機鎗은 3번 道路에서 交叉사격이 可能하도록 하고, 81mm 迫擊砲 5門은 △171의 南端部에 配置하여 3번 道路의 삼거리에서 대대 左前面의 교량간에 彈幕을 형성토록 하였다. 이때에 대대 前面에는 小橋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工

병이 배치되어 폭파장치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50m 떨어진 道路의 左側에는 金明煥 대위가 지휘하는 57mm 對戰車砲 3門이 이 교량을 目標로 指向하고 있었다.

대대는 그간 共匪擊滅에 從事하고 있었기 때문에 重火器중대인 제4중대도 小銃으로 장비되어 있었으며, 出動時에 연대兵器庫에 堆藏하였던 81mm 迫擊砲와 機關銃, 그리고 2.36"Rocket砲 등은 列車에 搭載하고 온데 不過하였다. 그런까닭으로 대대장 金漢柱 소령은 직접 지인 제18연대 幕舍에서 장비조작에 경험이 있는 者들로 再編成하고, 중대장도 金周鳴 대위에서 步兵학교 초급반 교육을 履修한 金用琳 대위로 交替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사단 工兵隊와 西北青年團이 動員한 住民의 지원을 받아 △171에 陣地 陣設을 完了하고, 연대 通信장교 韓泰勲 소위 指揮로 연대와의 通信架設도 끝났는데, 이때 사단장으로부터 『곧 美軍이 오고, 增援부대가 갈터이니 陣地를 固守하라.』는 電話에 이어 연대장으로부터도 같은 內容의 話電을 받았다. 이날 아침 1대의 L-19 輕飛行機가 『오늘부터 美空軍機가 出擊하니 安心하라.』는 空中放送이 있었던 터이므로, 곧 美 爆擊機가 出擊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었는데, 飛行機의 爆音은 들리지 않고, 12.00가 지나면서 부터는 倉洞線에 배치되었던 병력이 밀리기 始作하여, 陣地의 制止에도 不拘하고 대대 방어지역을 通過하면서 後方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避難民도 撤收兵'속'에 섞여 나오고 있었다.

我軍의 철수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는 17.00에 20여대의 戰車와 騎馬隊列이 陣前으로 肉迫하기 始作하므로 대대장은 이들이 陣前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다려 橋梁에 戰車가 이르렀을 때 『사격 개시!』 명령을 하달하여 一齊 集中사격을 加하게 하였다. 同時에 工兵은 爆藥의 導火線에 點火를 시켰으나 橋梁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끝나고, 57mm 對戰車砲도 先導戰車에 側射을 加하였으나 오히려 戰車로부터 反擊을 받기만 하여 그중 1門이 破壞되고 그 사격組員 6명이 敵彈으로 戰歿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가 陣設한 2.36"Rocket砲의 戰車特攻組는 操作 미숙으로 한발도 發射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본 연대 정보장교 文鍾燮 중위는 直接 Rocket砲를 조작하여 先頭戰車 1대를 擱坐시켰다. 이로 인하여 길이 막힌 그들은 狹路에서 戰車를 돌려 되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때 나무와 풀로써 戰車를 假裝하였던 裝甲車와 車輛들은 雨注하는 我軍의 砲擊과 銃擊으로 撲滅되었고, 10여대로 보이는 戰車만 退却하였다.

이때에 여기에서 俘虜한 北傀 戰車兵은 말하기를 『威力偵察중 체포되어서 분하다. 우리 指揮部에서는 초전에 國防軍 步兵의 저항이 意外로 頑強하였음에 놀랐으나, T-34 戰車에 相對하는 火器가 國防軍에 없음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步兵의 戰鬪를 極力피하고 戰車를 主로하는 戰法으로 轉換하였다.』라고 陳述하였다. 당시의 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이러한 일이 있는 뒤부터 비가 몹시 오고 敵이 接近하는 氣色이 없어서, 그들의 再侵을 다음날 早朝로 豫想하였다.』라고 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의 狀況 :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는 26일 03.00에 全州를



出發하여 同日 11.00에 龍山驛에 到着하였는데, 同驛에서 『汶山 方面으로 直行하라』는 총참모장의 명령을 받고 곧 水色驛에 이르렀는데, 再次 復歸하라는 陸軍本部의 命令에 따라 대대를 서울市內로 後退시켜 제18연대 幕舍에 收容하였다.

27일 07.00에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대대장 安光榮 소령에게 『寶대대는 이제부터 내 指揮를 받을 것이며 彌阿里고개 右側의 △132(現 藝術高等學校 뒤 高地)를 占領한 다음 이를 固守하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命令을 받은 대대장은 이날 08.00부터 대대를 彌阿里 高개로 이동시켜, 제7중대(장, 裴益成 대위)를 同 高地의 東麓에, 제5중대(장, 金 淳 대위)를 北麓에, 제6중대(장, 金國柱 대위)를 西麓에 展開하였다. 그리고 제8중대(장, 安政熙 대위)가 保有하는 81mm 迫擊砲와 小銃중대의 60mm 迫擊砲로서는 砲兵火力 계획에 맞추어 삼거리에 火集帶를 형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 14.00를 期하여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의 指揮에서 벗어나 右側에 隣接한 제1연대(장, 李喜權 중령)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口頭上의 指揮權 변경이며, 통신시설이 없었고 부대의 所在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1연대와는 아무런 接觸도 없이 獨自의인 부대지휘를 하게 되었다.

대대는 사단 工兵과 隣近 住民의 협조를 얻어 陣地구축을 完了하고 대대觀測所를 △132에 설정하였다.

제8연대 제2대대의 狀況 : 제2대대장 高白圭 소령이 27일 08.00에 연대장 徐鐘喆 중령으로부터 受領한 命令의 要旨에 이르기를 『대대는 淸涼里 北쪽 要線에 展開하여 서울 東北郊를 방호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鷲梁津에 집결한 부대를 淸涼里로 이동시켜 同日 10.00에 제5중대(장, 安泰甲 중위)를 右 제1線으로 하여 △106(淸涼里 東쪽 1km)에, 제6중대(장, 金福經 대위)를 中央 제1線으로 하여 中浪橋(淸涼里 東北쪽 1km) 부근에, 제7중대(장, 金鳳俊 대위)를 左 제1線으로 하여 △143(淸涼里 北쪽 2.5km)에 各々 展開시켜, 제8중대(장, 鄭昇和 대위)의 機關銃소대는 제5, 제7중대에 各々 1개 소대씩 배속하고 81mm 迫擊砲소대는 △143 東端에 배치하여 대대를 一般支援케 하였다.

이에 앞서 대대장 高白圭 소령은 25일 10.00에 陸軍參謀학교 피교육중 복귀한 연대장 徐鐘喆 중령을 따라 水落山(議政府 南東쪽 5km) 일대의 地形을 偵察하였는데, 再次 陸軍 총참모장으로부터 하달된 연대의 任務는 『加平으로 이동하여 제6, 제7사단간의 露出된 側方을 防護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대는 연대의 先發隊로서 同日 16.00에 加平으로 이동하여 寶納山(加平 北쪽 1km)에 進지편성중 26일 19.00 『漢江南岸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이날 07.00 鷲梁津에 集결한 것인데, 그 직후에 서울 東北郊의 防禦임무를 받고 다시 北上하게 된 것이며, 이때에 제3대대(장, 朴泰云 소령)는 金浦지구 방어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대는 敵과의 接觸도 없이 세번이나 부대이동만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戰鬪力만을 分散시키는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대대가 陣地에 進入하여 築城이 完了될 때까지의 敵情에 대하여서는 말할 나위없고 我軍의 全般 상황도 杳然한 상태였으며, 다만 兵士들의 耳目을 통하여 左隣接에 제5사단이 배치되었음을 알았고, 이날 15.00에 제3사단 공병 1개 소대가 中浪橋부근에 나와 있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철수부대의 狀況 : 倉洞線에 배치된 부대는 各自分散으로 그 一部는 泰陵과 舊把撥의 두 方向으로 철수하였으며, 彌阿里로 철수한 병력만은 大體로 落伍者 收容所에서 所屬이나 建制에 拘礙됨이 없이 80~90명 1개 중대로 편성하여 재배치하였다. 따라서 各 연대는 그 主力의 所在에 따라 제1연대 혹은 제25연대 등으로 呼稱되었는데, 제1연대는 3번 道路 右側인 △164의 東端(鍾岩洞)에, 그리고 제3연대는 貞陵에, 제25연대는 彌阿里 고개에 各 各 배치되었으며, 제16연대는 예비로써 敦岩國民학교에 集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며칠만에 처음으로 給食을 받게 되었고, 彈藥도 分配되었으나 山을 따라 철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대에게는 아무런 後方支援도 없었던 것이다.

陸軍本部의 情況 :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金鍾泌 중위의 상황보고에 따라 서울 固守에 대한 그의 信念을 顛覆하고 陸軍本部와 在京부대를 12.30부터 始興으로 철수토록 하여, 15.00에 歩兵학교로 이동하였다. 陸軍本部의 뒤를 따라 始興으로 이동한 美 軍事顧問단장 대리 William H. S. Wright 대령은 東京의 MacArthur 元帥로부터 『重大한 決心을 할 段階에 이르렀으니 原位置로 復歸할 것. 狀況을 樂觀해도 좋다.』라는 指命을 받고, 이를 총장에게 전하였다. 이에 따라 총참모장은 그의 決心을 또다시 변경하여 復歸명령을 하달하게 되었고, 이미 철수한 부대들은 17.00를 前後하여 原位置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各 부대는 철수할 때에 通信시설을 모두 破壞하였기 때문에, 相當 時間 通信의 마비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거기에다 軍의 뒤를 따랐던 一部 市民들도 다시 서울로 歸還의 길을 재촉하는 동으로 漢江橋와 龍山 일대는 車輛隊列과 往復人波로써 混雜의 極을 이루게 되었다.

## 2. 彌阿里 阻止線의 崩壞

彌阿里에 阻止線을 形成한 李應俊소장과 劉載興 준장은 各各의 담당 지역내의 방어진지를 확인하고, 敵 戰車의 진출을 遲延시킬 목적으로 현병으로 하여금 動員케한 各種차량 數10대로써 삼거리일대의 大路를 閉鎖케하는 한편 모든 曲射火器로써 이 일대에 火集帶를 형성케 하였으며, 57mm 對戰車砲와 2.36" Rocket 砲등 對戰車火器는 同 高개에 左右側에 배치하여 古晉橋上에 指向케하고 各種小火器는 夜間에도 最低標尺사격이 可能하도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工兵장교 宋鍾泰, 康昌祚의 兩중위가 지휘하는 工兵은 古晉橋에 배치하여 戰車가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폭파시키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이의 실시가능성을 數3차 點檢하고 確認하여 倉洞線에서와 같은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兩 指揮官이 防守태세를 굳히고 敵의 夜襲에 대비하였으나, 이들 부대를 統轄지휘할 수 있는 通信手段이 없었다. 特히 夜間作戰에 있어서는 通信의 依存度가 增大되는데 唯一한 연락수단인 傳令의 活用도 증가하게 쏟아지는 暴雨와 漆黑같은 夜暗으로 無爲하게 되었으며 各 부대를 統制할 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빗물에 잠긴 散兵壕內의 장병은 穴 밖으로 나와있게 되고, 路邊에 배치된 병사들은 隣近民家의 처마밑에서 바를 피해야 하는 實情에 있었다.

이때에 여러 지휘관들은 『敵이 夜襲을 敢行하지 않을 것이라』고 推斷하였다는 것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38°線을 突破한 以來로 夜襲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이날 17.00 한차례 크게 敗退한데다 暴雨로 인하여 機動的 制限을 받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3.00가 지나면서 비는 점차 멎기 始作하였으나 戰鬪位置를 이탈한 者들은 잠이 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무렵 서울의 곳 곳에서는 銃聲이 울리면서 曳光彈의 불꽃이 空을 누볐다. 이는 피난민으로 假裝하여 潛入한 것으로 보이는 敵 遊擊隊의 所行으로써 그들의 戰鬪부대와 呼應하는 信號를 보내는 것이었으나 我軍은 이를 漠然히 看過함으로써 江 건너 불 求景과 같이 지나치고 말았다.

한편 汶山 方面으로 侵襲한 敵은 我 第1사단에 依하여 奉日川 北쪽에서 阻止되고 있었으나, 倉洞을 侵襲한 北傀 第4사단은 그 餘力으로 서울을 強占하려고 彌阿里를 目標로 肉迫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頑強한 抗拒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退却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은 미리 潛入시켰던 遊擊隊의 呼應을 받아 24.00를 前後하여 彌阿里를 急襲하였다.

이때 이를 目擊한 第15연대의 朴東甲 이등상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삼거리에 設置한 장애물을 除去하고 偵察兵의 유도를 받으면서 古昔橋로 接近하였다.』고 하였다. 戰車의 爆音에 놀란 兵士들은 줄음에서 깨어나 敵의 接近을 알리는 銃聲을 울렸고, 致岩洞 電車 終點에서 6門의 105mm 曲射砲를 지휘한 金漢柱 중위는 이를 確認키 위한 照明彈을 發射하였다. 비와 안개로 因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戰車로 보이는 10여개의 物體가 照明下에 浮刻되자마자, 고개 左右側에 配置되었던 57mm 對戰車砲와 2.36" Rocket砲 및 機關銃등이 一齊 사격을 加하여 이 戰車에 명중시켰으나 오히려 泰然하게 고개로 接近하면서 戰車砲와 機關銃을 亂射하여 어둠속의 彌阿里 고개를 불바다로 化하게 하였다. 그들은 사격을 加하면서도 悠悠히 고개를 넘어 서울로 闖入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28일 01.00의 일이었다. 이를 確認한 모든 장병들은 驚愕한 나머지 各個 分散하고 말았으며, 丘谿지대에 배치된 大部分의 부대들은 날이 밝은 다음 敵 步兵부대의 急襲을 받고 비로소 徐徐히 退却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서울의 最終堡壘인 彌阿里 阻止線이 虛無孟浪하게 崩潰되고 말았다.

가) 右戰線의 狀況: 彌阿里 阻止線의 右戰線을 담당한 劉載興 中將은 △164(彌阿里고개

右側)를 前方 指揮所로 하여 同 高地의 西端에 對戰車火器와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姜文奉 대령으로써 道路障礙物 설치와 吉音橋 폭과장치의 준비상태를 확인 점검케하여 對戰車 방어책을 강구하는 한편, 右戰線에 배치된 부대와는 傳令으로써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右제1선의 제8연대 제2대대와는 數次에 걸친 傳令의 派遣에도 不拘하고 연락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러는 동안 폭우와 함께 밤은 깊어갔다.

劉載興 준장은 敵의 夜襲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날이 밝으면 大攻勢가 예상되는 그들의 戰車와 大兵力을 堪當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陸軍本部의 계획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2,200에 陸軍本部에서 總참모장을 만났다. 그러나 總참모장으로부터 그의 물음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하고 『陸軍本部를 漢江以南으로 철수할 것이니, 劉 준장은 빨리 돌아가 李應俊 소장과 相議하여 彌阿里戰線을 固守하라.』는 叱責만을 받고 戰線으로 돌아갔는데, 總참모장의 腹案으로 보아 終局은 서울을 拋棄하고 陸軍本部를 漢江 南쪽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措處로서 彌阿里 戰線을 形成시켜 掩護일부를 수행케 하였던 것으로 推察하였다.

戰線으로 復歸한 劉載興 준장은 즉각 軍수참모 尹永模 소령을 前方지휘소로 불러 必要한 指示를 하고 明朝에 敢行할 作戰에 대비케 하였다.

한편 참모장 金鍾甲 대령은 倉洞線에서 사령부要員과 같이 철수하여 사단장과는 連絡을 유지하지 못한 채, 연락장교단장 李龍文 대령과 함께 철수병력 收拾에 입하고 있었던 것이며, 軍수참모尹永模 소령은 軍需支援要員들과 같이 敦岩派出所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當時의 軍수참모 尹永模 소령은 그때의 狀況을 述擧하기를 『나는 軍需支援 特別참모들과 倉洞線에서 철수하여 敦岩派出所에 있었는데, 2,300에 연락장교로부터 사단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 彌阿里고개 南쪽에 자리한 사단 前方지휘소로 갔다. 사단장은 나에게 『明朝를 期하여 反擊할 것이니 彈藥과 給食分配를 05.00以前에 完了하도록 하되, 제6사단 병력까지도 이에 包含시켜 준비하라.』고 지시한데 이어「사령부의 不要不急한 行政要員과 重要書類들은 곧 驍梁津으로 철수시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미 夜深한 때인지라 給食問題는 兵站중대장 崔昌燁 대위에게, 兵器 및 彈藥問題는 병기부장 李載龍에게 各各 分擔시켜 이를 05.00以前에 完了하도록 強力히 지시하고, 城北警察署에서 참모장을 만나 사단장의 뜻을 傳하였는데, 이 때에 참모장은 經理참모에게 一部 行政要員과 사단 運營資金 및 重要書類등을 3/4ton車에 실어 떠나게 하였던 것이나 그 뒤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漢江橋 폭과시 變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본다.

이와같은 措置를 取하는데 1時間이 經過되었을 무렵 彌阿里고개에서는 交戰하는 銃砲聲이 요란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車를 몰아 지휘부로 달렸으나 敦岩洞 電車길에 이르렀을 때 轟轟과 함께 고개를 넘어오는 戰車의 隊列과 부딪치게 되었으며, 이에 놀라 車를 急回轉시켜 戰鬪준비에 餘念이 없는 軍需支援要員들을 帶同하여 西水庫

에서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서울 防護를 위하여 지휘관 참모가 東奔西走한 보람도 없이 事態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運이요, 命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제8연대 제2대대의 狀況: 彌阿里 阻止線의 右側1선인 대대 정면에는 27일 敵과의 接觸상황이 없었으나 이날 夕陽부터 以北地帶에서의 피난민들이 中浪橋를 通하여 서울 市內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高白圭 소령은 敵情이 없는데도 피난민이 물러옴을 殊常하게 여기고, 제5중대장 대리 安泰甲 중위에게 그들의 所持品을 철저히 調査케 하였는데, 當時 이를 直接 지휘하던 同 중위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난민으로 보았는데, 대대장의 명에 따라 그들의 所持品을 조사한 결과, 多發銃(PPSH)과 機關短銃 등 武器를 은닉하고 있는 者들을 相當數 적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我軍의 火線을 피하여 市內로 潛入하여 要所 要所에서 後方지역을 攪亂 및 차단하였던 까닭에 사령부와 연대본부에서 보낸 연락요원과 보급차량등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日沒뒤에는 曳光彈으로 그들 戰鬥부대에 信號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한 後方 攪亂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였다.

同 중위가 밝혔듯이 대대 보급관 方龍乙 중위는 연대로 부터 탄약을 수령하고 대대로 가던중 淸涼里 부근에서 그들 便衣工作隊의 사격을 받고 戰死하였는데, 이는 車에 同乘하였던 士兵 3명중 1명이 살아옴으로써 밝혀졌고, 대대 정보관도 이를 確認키 위하여 그 곳으로 가다가 그들의 사격을 받고 되돌아 왔다.

대대가 敵과 交戰한 것은 28일 02.00로서, 그들은 △143 北麓에 설치한 제7중대(장, 金順俊 대위)의 경계초에 依해서 발견된 것이며, 81mm 迫擊砲의 照明下에 들어난 것은 1개 대대 규모의 步兵부대였다. 그들은 京元線을 따라 侵入한 것으로 보였는데, 대대로 부터 기술적인 사격을 받고 鐵路邊에 흩어졌으나, 그곳은 周邊이 논 밭으로 되어있어 대대의 集中사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못되었다. 그들은 1時間여의 射擊戰으로 對應하였으나, 續用하는 被密를 감당할 수 없었음인지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날이 밝은 다음 확인한 바, 그들이 있었던 곳에는 100여구의 屍體가 遺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戰鬥에서 대대에서도 戰死 10명과 戰傷40여명의 損失을 보게되어, 淸涼里 衛生병원에 後送되었다.

이때에 中浪橋에는 제3사단 공병대대(장, 朴基錫 소령)의 1개 소대가 李鍾斗 소위 지휘하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陸軍本部로 부터 『陸軍士官학교가 철수완료하면 中浪橋를 폭파시키라.』는 임무를 띠고 나와 있었던 것인데, 대대의 左前面에서 交戰하고 있음을 알고, 同 교량으로 부터의 敵侵을 예상하여 준비한 爆藥에 點火하여 同 교량을 폭파할 것인데, 이는 漢江橋가 폭파된지 1時間 뒤의 일이었다.

이무렵 서울 市街地에는 敵의 戰車가 이미 要所 要所를 占據하고, 我軍은 退路를 찾기에 汲汲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곳 대대는 그러한 事實을 모르고 오직 戰鬥정면에 대한 防

守態새를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대대는 夜間戰鬪에서 共用火器의 탄약을 全部 消耗하고, 小銃兵들도 數發에 지나지 않는 탄약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143에서 觀測된 바로는 彌阿里 고개를 통하여 敵의 戰車와 騎馬隊 그리고 歩兵의 隊列이 市內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確認한 대대장 高白圭 소령은 중대장 鄭昇和 대위와 金鳳俊 대위를 呼出하여 앞으로의 對策을 강구한 結果 일단 이곳을 철수하여 연대의 지휘를 받기로 뜻을 모아 철수로는 廣津橋를 통하여 漢江 南쪽에 집결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13.00에 제6중대(장, 金福經 대위)를 掩護부대로하여 龍馬峰(廣莊洞 北쪽 2km)에 배치하고, 부대를 철수시켜 廣莊洞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廣津橋도 이미 폭파된 뒤였고, 이 곳에 雲集한 피난민들은 3隻의 나룻배를 놓고 서로 먼저 타려고 餓鬼 다툼을 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대대가 이 배를 引受하여 漢江을 渡江完了하였을 때는 19.00였다.

제1연대(훈성)의 狀況 : 제1연대(장, 李崐權 중령)는 △164의 東麓에 배치되었으나, 27일 밤의 暴雨와 함께 그 一部는 市內로 潛入하여 참모장 金鍾甲 대령에 의하여 城北경찰서에 收容되고, 殘餘병력이 精神을 가다듬었을 때에는 이미 敵의 戰車가 侵入한 뒤였으므로 各個 分散하여 各 渡船場을 찾아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

제15연대 제2대대의 狀況 :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는 彌阿里 고개 入口에 該當하는 △132에 전지를 편성하고, 敵의 夜襲에 對備하여 晝間에 高地에 배치한 機關銃이나 2.36" Rocket砲를 低地로 옮겨 射向을 吉音橋에 指向케 하였다. 그러나 敵의 戰車가 陣前에 肉迫하였을 때는 대대의 大部分이 잠 들고 있었으나, 當時 吉音橋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5중대원의 目擊談에 따르면 한 兵士가 接近하는 敵의 偵察兵에게 『停止 누구냐!』고 誰何하자 相對方은 威鏡道の 사투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哨兵의 가슴에 銃劍을 찌르고, 戰車를 誘導하며 앞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며 또한 附言하기를 『1개 분대로 보이는 偵察兵이 戰車보다 30~40m 앞을 前進하였는데, 吉音橋에 이르러서는 먼저 교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뒤로 돌아가서 戰車兵에게 異狀이 없다고 전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戰車를 먼저 발견한 제5중대 哨兵들의 銃聲이 울리면서 고요했던 彌阿里 고개에는 또 한차례 彈雨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5중대장 金淳 대위는 戰車가 눈앞에 다가옴을 目擊하자 곧 手榴彈을 들고 戰車에 뛰어 올랐으나 그들이 發射한 機關銃으로 壯烈하게 戰死하였다. 이른 본 선임장교 李昌道 중위는 朴東甲 이등上士와 같이 戰車에 뛰어오르려 하였으나 該 戰車群은 이미 고개 중턱을 오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제6중대장 金國柱 대위도 2.36" Rocket砲를 비롯한 全 火器를 戰車를 目標로 集中發射케 하였으나, 鐵甲에 맞아 反射를 이룰뿐으로 그대로 速力을 加하여 고개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20여分間の 咆哮도 사라졌고 同 고개는 다시 고요속에 묻히게 되었다.

나) 左戰線의 狀況: 彌阿里 防禦線의 左戰線을 담당한 李應俊 소장은 △103(彌阿里 右側 左側)를 前方 지휘소로 하여 제20연대(-2)를 △171의 東麓에 제3연대(-2)를 △224와 △171간에, 그리고 제25연대(-2)를 △224 東麓으로 調整 배치 하고, 제16연대(-2)는 이미 말한대로 敦岩國民학교에 집결시켜 예비로 하였다. 對戰車 방어 대비에 있어서는 右戰線과 같이 확인한 바 있거니와 심한 소낙비가 내리기 때문에 敵의 侵襲에 상 時期를 다음 날 今朝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22.00가 지나면서 後面의 市街地 곳곳에서 曳光彈이 오르기 始作하고 前方에 배치한 一部 兵士들이 同 高地로 물러들었다. 李應俊 소장은 한 兵士를 붙들고 『왜 후퇴 하느냐?』 하고 물으니 그 兵士는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면서 市内로 들어가 버렸다. 이상히 여긴 同 소장은 연락장교를 보내 狀況을 확인해오도록 하였는데, 漆黑같은 夜暗으로 인하여 隣接부대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던 까닭에 다시 사단 참모장 朴炳權 대령과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으로 하여금 陸軍本部로 가게하여 이 阻止線을 固守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하는 것인지 陸軍本部의 확고한 方針을 알아 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朴炳權 대령이 陸軍本部에 당도하였을 때는 23.30이었다. 狀況室에서 作戰국장 張昌國 대령을 만났는데, 同 대령은 『나로서는 어떠한 措置를 取할수 있는 立場이 못된다.』고 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과 車를 타고 敦岩洞 電車終點에 닿기도 前에 前方에서 戰車의 輻도 소리가 들렸다. light를 끄게 하고 金 중령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戰車임이 分明하였는데 4대를 확인하였다. 車를 돌려 길 가에 세워 놓고 포박을 하다 시피 하여 前方지휘소까지 갔을 때에는 이미 李應俊 소장은 보이지 않고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과 몇몇 장교들이 남아서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참모장 朴炳權 대령은 工兵대대장 梁宗益 대위에게 『各 부대를 景武臺 뒷 高地로 철수하도록 전달하라.』라고 이르고 參謀要員과 같이 01.30에 △103를 떠나 “아리랑 고개” 經由로 서울 市街地를 횡단, 西水庫에서 漢江을 건넜으나, 예하 부대에게는 철수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한편 李應俊 소장은 △103에서 참모장 朴炳權 대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24.00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잠시 뒤 專屬부관 崔德彬 중위는 『사단장님 벌써 敵 戰車가 통과했읍니다.』라고 보고한데 이어 옆에 있던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도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陸軍本部의 動靜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李應俊 소장은 작전참모 文亨泰 中領에게 『28일 00.30를 期하여 現 戰線을 철수한다. 全 부대는 鶯梁津으로 집결토록 전달하라.』는 口頭명령을 하달하고 △103를 떠났다. 그뒤 文亨泰 중령은 철수명령을 전령편으로써 전달케 하였으나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當時를 회상하여 李應俊 소장은 말하기를 『首都 서울 防守를 위한 最後의 保衛

를 단 하루도 支撐하지 못하고 물러서야하는 心情은 錯雜하기 限이 없었다. 헌병대장 朴昌錄 대위의 호위를 받으면서 陸軍本部에 당도한 것은 02.00였는데, 나를 본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은 「이거 어찌된 일이나」고 당황해 하였다. 그 옆에는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도 있었으나 敵 戰車가 市内로 侵入한 事實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사단後方지휘소에 있던 군수참모 徐慶澤 소령은 이날 밤 雨中임에도 曳光彈이 계속 오르고 있음을 수상히 여기고 戰線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本部중대장 崔民燾 중위와 같이 사단 前方지휘소를 訪問키로 하였다.

이들이 彌阿里 고개를 오르고 있을때, 고개를 넘어오는 戰車와 마주치게 되었다. 車를 세운 徐慶澤 소령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닦아오는 戰車에 接近하였는데, 이때 不意에 機關銃射擊을 받은 徐慶澤 소령은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를 보고있던 崔民燾 중위는 急히 車를 回轉시켜 사단後方 지휘소로 돌아가 철수를 서두르게 하였으나 이미 漢江橋가 폭파되어 西水庫에서 배便으로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

**제25연대(훈성)의 狀況** :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27일 19.00에 混成兵力 500여명을 收拾하여 彌阿里 고개 左端에 展開시켰으나, 그 뒤 藝文奉 대령의 指示에 따라 부대를 三峯洞으로 이동시켜 배치하였다.

이날 初夜半에 偵察隊로 보이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대대 前面에 나타났으나 그들은 戰鬪를 회피하는 듯이 곧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戰線은 소낙비만 내릴뿐 고요하였다. 그로부터 3時間이 지난 뒤 검은 物體의 대열이 3번 道路를 따라 彌阿里 고개로 接近하고 있었으나 大部分의 장병이 졸고 있었던 까닭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

연대장 金炳徽 중령도 그간의 疲勞가 겹친 탓으로 깜박 잠이 들었는지 東天이 밝았을 때는 敵 戰車대열과 歩兵부대의 대열이 南下中에 있었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부대를 永登浦 方面으로 철수시킬 腹案으로, 작전주임 曹南德 소령과 정보주임 姜應燾 대위 등 本部要員을 시켜 부대를 北岳山(中央廳 뒷山)으로 철수 시켰는데, 이곳에 집결한 兵力은 300여명이었다. 거기서 내려다 본 서울 市街의 곳 곳에는 이미 北傀旗가 제양되고, 靈泉派出所 앞에는 戰車 3대가 보였으며, 西大門 形務所 쪽에서는 萬歲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해가 진 다음 小集團으로 漢江을 渡江하도록 侵透시켰는데, 마지막 남은 50여명은 敵 偵察隊에 의해서 發覺되어 紫霞門에서 分散되었으며,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北漢山에서 2일간을 보낸 뒤 變服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廣莊洞에서 漢江을 건넜다.

**제3연대(훈성)의 狀況** : 貞陵洞으로 철수한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는 敵 戰車가 물러간 뒤△224—△171간에 推進 배치되었으나, 이들도 다른 부대와 같이 一部는 作戰지역에 남아 있었으나 또 다른 一部는 이미 離脫하여 22.00에는 安國洞의 豐文女子중학교에 200



여명이 접결하게 되었다.

當時 제11중대장인 李泰根 중위는 證言하기를 「27일 밤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을 포함한 200여명이 豊文女子중학교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23.00에 裝甲車 소리가 나면서 李致業 대령이 나타나 「三角地에는 部隊가 없는데 너희는 여기서 자고 있느냐!」고 호령하는 까닭에 대대는 학교를 떠나 中央廳 앞으로 나가던중 西大門쪽에서 오는 4대의 Jeep車와 마주치게 되었다. 彼我의 識別을 할 사이도 없이 어느 쪽에서 먼저 發射하였는지는 몰라도 銃擊戰이 벌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四分五裂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제3중대장 趙在俊 대위는 이날 밤 彌阿里 고개 右側에 배치되어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 지휘하에 敵과 交戰中 負傷하여 제3소대장 金鶴石 중위의 부축을 받으면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제20연대 제1대대의 狀況** : 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總戰에서 勝利를 거둔바 있는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격려하면서 연대 군수주임 金濞載 대위로 하여금 彈藥과 食事를 推進케 하였다.

대대는 그 뒤에도 我軍의 배치상황을 探索하려는 1개 중대 규모의 敵 偵察대를 물리쳤으며, 夜間전투에 대비하여 그 右半은 부대대장 吳泰泳 대위가 그 左半은 대대장 金漢柱 소령이 직접 지휘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대대에서도 밤 사이에 敵戰車가 阻止線을 뚫고 서울로 侵入한 事實을 모르고 있다가 28일 날이 밝아서 敵의 大部隊가 南下하고 있음을 發見하고 狀況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대대장은 即時 EE-8 電話器로 연대장과 사단지휘소를 呼出하였으나 應答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周圍에 있었던 部隊들도 보이지 않은 까닭에 傳書를 보내어 연대와 사단지휘부를 確認케 하였으나 그 所在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당황한 대대장은 부대대장과 각 중대장을 거느리고 現 進지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자리에는 지난 밤 彈藥과 食事를 運搬하고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돌아가지 못한 군수주임 金濞載 대위도 같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28일 06.00 서울 地理에 밝은 제1중대장 金成龍 대위를 先頭로하여 철수하기 始作하였는데, 先頭 부대가 三仙橋 부근에 이르렀을 때 敵 戰車가 砲擊을 가하면서 迫擊하였다. 이에 당황한 대대는 安岩川으로 뛰어 내려서 개울을 따라 曠野로 빠져 나가게 되었다. 대대가 漢江邊에 와서 나룻배로 漢江을 건너기에 앞서 點檢한 결과 殆半의 병력과 各種 共用火器를 잃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損失중에는 威鶴詰 대위, 朴淑淸 중위, 金深寬 중위 등을 포함한 20여명의 死傷者를 냈다. 철수제대의 뒤를 따르던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와 제3중대(장, 金昌德 중위)는 先頭부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北上하여 北岳山, 紫霞門 쪽으로 철수하였던 것인데 이 事實을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損失이 發生한 것으로 推斷되었던 것이다.

**제16연대(혼성)의 狀況** : 연대장 文容彩 대령은 27일 19.00에 1개 대대 미달의 混成병력으로써 敦岩國民학교에 집결하여 彌阿里지구 전투사령부의 예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2.00가 지나면서 부터는 市内의 여러 곳에서 曳光彈이 오르기 시작한 까닭에 傳書를 시켜 어느쪽에서 올리는 信號인지를 確認도록 指示하였으나, 보낸 傳書는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曳光彈의 信號만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이때에 부연대장 李源長 중령은 연대장에게 意見を 具申하되 『戰線은 조용한데, 지금 曳光彈이 오르고 있는 것은 褻褻한 敵의 信號로 보이며, 우리는 敵의 포위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니 그들에게 全滅을 당하느니 보다 安全한 곳으로 철수하였다가 後圖를 策할 것이 可하다고 思料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연대장은 『上部의 命令없이 是를 철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頑強히 이를 拒否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曳光彈은 더 심하게 오르는 것 같이 보였고 周圍의 조용함은 더욱 더 不安感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부연대장 李源長 중령은 철수할 것을 再次 건의한 結果 연대장은 이에 同意하고 부대를 漢江南쪽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되어 연대는 同日 24.00를 期하여 철수를 強行하였으며, 同 대열이 鷲梁津水源地를 통과할 때에 後方에서 “광”하는 爆音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反面에 彌阿里 고개에 分散 배치되었던 연대의 일부 병력은 敵 戰車가 서울에 侵入한 뒤에도 철수치 않고 抗戰하여 國軍의 氣概를 高揚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는 同 연대 제3대대장 대리 崔敏燮 대위와 同 대대의 韓金錫 중위 등이다.

崔敏燮 대위는 同 대대 정보관 金熙碩 대위가 지휘하는 混成 1개 소대와 같이 제25연대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敵의 戰車가 防禦정면에 통과하자 철수하려는 소대를 制止시켜 28일 06.00에 後續하는 敵 1개 대대 규모와 交戰한 結果 30여명을 射殺하였다. 그러나 衆寡不敵인 소대는 敵 機關銃 사격에 制壓당하여 흩어지고 말았으며, 철수時機를 잃은 崔敏燮 대위는 끝내 漢江을 건너지 않고 敵 治下의 奉日川, 汶山 등지에서 遊擊戰으로 그들의 治安을 攪亂시키고 있다가 9.28 收復 以後 그의 功績을 인정받고 軍에 復歸하게 되었다.

또한 韓金錫 중위는 28일 07.00 그의 左右側 隣接부대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소대를 昌信洞 돌산(활터)에 배치하고 市内로 침습하는 敵 歩兵에게 集中사격을 加하게 하여 그들을 分散 지연시키게 하였다.

## (다) 泰陵地區의 戰況

### 1. 泰陵地區 阻止線의 形成

士官학교장 李俊植 준장은 戰線부대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보아 戰況이 不利함을 直感하고, 內里(抱川 南쪽 13km)로 推進한 生徒대대(장, 趙 崑 중령)를 26일 19.00를 期하여 철

수시켜, 이보다 먼저 萬世橋里(抱川 北쪽 8km)에서 철수한 제9연대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와 같이 佛岩山 南東麓의 康陵(泰陵 北쪽 1km)일대에 展開시켜 士官학교를 防護키 위한 防禦陣地를 편성하여 退溪院 쪽으로 부터 侵襲하는 敵에 對備케 하였다.

이에 앞서 同 준장은 25일 陸軍本部의 명령에 따라 教導대대(장, 金應勇 소령)를 汶山 方面으로 轉進시키고, 生徒대대를 內里의 △372에 展開시켰던 것이다.

**生徒대대의 狀況** : 대대장 趙 岩 중령은 內里에서 철수한 生徒대대를 再編하고 外出로 부터 늦게 복귀한 生徒로써 戰力を 補強한 다음 27일 08.00에 戰術訓練場으로 利用한 A 高地(一名 △92)—F 高地 간에 부대를 展開시키고 戰鬥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生徒대대는 26일 內里로 出戰하였는데, 이곳에서 南下하는 敵 歩兵을 격퇴시키고 26일 19.00 교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同일 23.00 학교본부까지 後退하게 되었다. 그러나 斥候임무를 하고 있던 生徒와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던 一部 生徒는 명령의 전달이 늦어 27일 아침에 복귀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소대장, 분대장, 반장 등 職責을 遂行 하던 제1期生은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분대원이며 그들의 後輩인 제2期生을 먼저 철수케 하고 이들의 철수를 엄호하여 先鋒로서의 任務를 발휘한 까닭에 제2期生은 2명의 손실만을 내었으나, 제1期生은 27명의 손실을 보았다.

이때의 편성을 보면, 대대장은 趙 岩 중령, 부대장대는 孫官道 소령, 제1중대장은 宋仁淮 대위, 제2중대장은 朴應奎 소령, 제3중대장은 李元濶 대위, 重火器 중대장은 朴正瑞 대위였고, 參謀로서는 정보, 작전주임이 李承雨 대위, 군수주임이 崔英主 소령, 인사주임이 崔載明 대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生徒들은 一部 소대장職을 제외하고는 全員 士兵의 身分으로 出戰하였던 것이다.

**제9연대 제1대대의 狀況** :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는 26일 16.00에 陸軍士官학교로 철수하였는데, 萬世橋里 戰鬥에서 40여명을 喪失하고 600여명이 이곳에 集結하였다. 대대장 柳 소령은 前 제7사단장이며, 陸士 교장인 李俊植 준장에게 이곳으로 철수하게된 경위를 보고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食事を 마친 다음 休息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同일 23.00 교장 명령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車輛으로 부대를 康陵으로 이동시켜 △210를 占領하고 날이 밝은 다음 陣地를 편성하였다.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이날 09.00 교장 李俊植 준장의 案内로 대대를 찾게 되었다. 연대장은 同일 02.00 側近의 小數병력을 지휘하여 陸軍士官학교로 철수한 것인데, 議政府 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관은 사령부로부터 접결하라.』는 연락장교의 전달에 따라 08.00에 開催된 議政府地區 전투사령부 作戰회의에 참가하였다.

當時의 연대장 尹春根 중령은 그때를 회고하기를 『開戰以來 처음으로 劉載興 준장, 咸俊鎬 대령 그리고 제2사단의 연대장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北僞가 全面南侵하였음을 알았다. 이 회의는 倉洞지역의 防禦명령의 하달이었으나, 나의 제9연대(—2)는 陸士교장

李俊植 준장의 작전지휘하에서 泰陵지역 방어에 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곧 泰陵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咸俊鎬 대령의 戰死통보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 2. 泰陵지구 阻止線의 崩壞

李俊植 준장은 生徒대대와 제9연대(-2)로서 이 地域의 防守에 임하던 바 27일 夕陽에 敵 騎馬隊 數名이 退溪院 삼거리를 徘徊하고 돌아갔을뿐 陣前에서의 접촉은 없었다. 倉洞戰線에서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와 제16연대 제1대대(장, 俞義濬 중령)의 300여명이 이날 19.00에 士官학교 부근으로 철수하였으나, 이들은 同일 23.00 학교지역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에 이 正面에 投入된 것으로 알려진 敵은 北傀 제3사단으로써 서울 侵攻을 目標로 議政府街道의 제4사단과 先頭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나 이들의 進出速度는 遲遲하였다. 그 까닭은 推斷컨대, 이들 正面에는 機械化부대가 機動할 良好한 道路網이 없었던 것이 그 첫째 理由이고, 內里 戰鬪에서 我 生徒대대로 부터 받은 被害가 컸던 것이 둘째 理由로 들 수 있는데,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越等하게 優勢한 이들도 戰車없는 步兵만의 戰鬪에 있어서는 결코 我軍보다도 優越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斷面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內里 戰鬪以來 아무런 抵抗도 받음이 없이 28일에는 서울 東北郊의 中泐川邊 까지 進出하였던 것이며, 이날 05.00부터 泰陵지역에 砲撃을 加하면서 08.00에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으로 偵察을 試圖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무렵 교장 李俊植 준장은 京元線을 따라 大部대가 行軍하고 있음을 觀望하게 되고, 이를 雙眼鏡으로 確認한즉 이들은 北上하는 我軍이 아니라 南下하고 있는 敵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同 준장은 부교장 李翰林 대령과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등 3者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對策을 협의하였는데, 여기에서 決議된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余는 麾下部隊의 損失을 輕減하고 再擧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선 漢江 南岸을 目標로 現戰線을 離脫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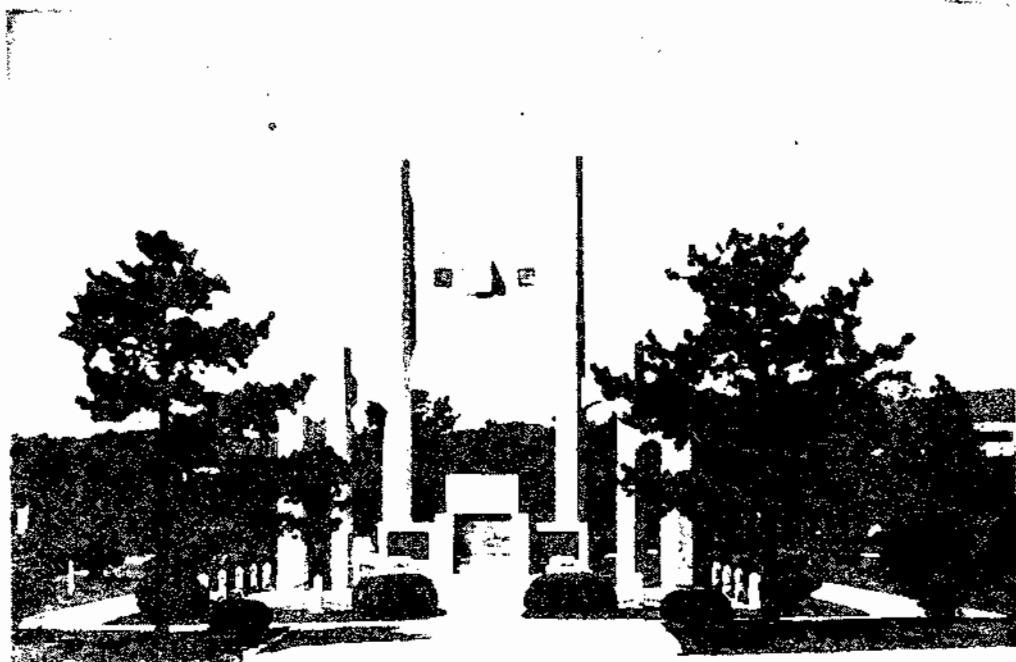
② 철수의 순서는 生徒대대, 제9연대(-2)순으로 하되 제9연대는 현 위치에서 生徒대대의 철수를 幷護하라.

③ 철수개시 시간을 10.00로 豫定하고 第一次 接결지를 廣莊洞으로 豫定한다.

④ 余는 生徒대대의 後尾를 續行한다.』

이 당시 陸軍本部와는 27일 12.00부터 通信이 杜絶되고, 학교본부는 총참모장의 命令에 따라 다른 在京부대와 같이 始興 步兵학교로 철수한 뒤였으므로 戰鬪부대만이 남아 있었으며 兵力輸送用 車輛은 전혀 없었다.

生徒대대의 狀況: A高地—F高地에 배치된 生徒대대(장, 趙 崐 중령)가 撤收명령을 受領한 것은 28일 10.00였으나 最前方인 F高地에 배치된 제2중대(장, 朴應奎 소령)에는 12.00에 전달 되었으며 各個生徒들에게까지는 14.00가 지나서였다. 그런 까닭으로 먼저 전



〈生徒 一期生の 參戰 不滅塔, 陸士校庭〉

달을 받은 중대와 늦게 받은 중대 사이에는 撤收開始에 많은 隔差를 보였으며, 生徒대대가 철수할 무렵부터는 敵 砲擊이 熾盛한 탓으로 部隊行動을 취할 겨를도 없었으려니와 철수 경로나 집결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교정으로 向하여 各個 躍進하였다. 이때 학교본부의 講堂과 其他 建物들은 이미 破壞되고, 練兵場 일내에도 敵彈이 無數히 集中하고 있었으므로 時間을 지체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一次的으로 집결한 150여명은 부대대장 孫官道 소령 지휘하에 廣莊洞으로 철수하여 먼저 철수한 교장과 본부要員을 만나게 되었다.

孫官道 소령이 兵力을 지휘하여 忘憂里 고개로 올라갈 때에 이의 뒤를 따랐던 대대장 趙岩 중령과 李承雨 대위, 崔英圭 소령, 崔載明 대위 등 3명의 참모要員이 同乘한 Jeep 車가 앞질러 고개로 올라갔고, 孫 소령이 指揮한 主力은 龍馬峰의 稜線을 따라 廣莊洞으로 철수하였는데, 대대장이 탄 Jeep車는 고개의 중턱에서 숲속에 숨어 있던 敵 偵察兵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唐突한 대대장 趙岩 중령은 反射的으로 車에서 뛰어내리고, 車에 탔던 참모요원은 車를 急히 몰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趙岩 중령의 그뒤 行方은 杳然하였다.

이리하여 먼저 철수한 生徒들은 廣莊洞에서 이날 17.00까지 漢江을 渡江할수 있었으나, 늦게 철수한 生徒들은 校門에서 敵을 만나 射擊을 받았고, 烽火山(학교 西南쪽 1km)에서는 機關銃 사격으로 위험하였던 까닭에 다시 分散되어 서울로 또는 廣莊洞으로 철수하여

本隊에 合勢하기도 하였다. 대대는 여기에서 100여명의 損失을 보았는데, 제1期生 韓正錫 生徒 등 11명의 戰死를 확인하였을 뿐, 제2期生은 入校한지 不過 3週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누가, 언제, 어디서 戰死 또는 失蹤하였는지 分揀할 수 없었다.

또한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生徒들도 相當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生徒 및 士兵 20여명은 철수할 것을 斷念하고 佛岩山으로 潛入하여 石川庵, 佛岩寺등을 根據地로 한 遊擊活動을 展開하였다. 이때 佛岩寺 住持 尹能文과 佛岩洞의 住民 朴泰興, 林容文 등은 이들에게 隱身處와 食事, 情報 등을 제공하여 積極 支援하고, 이 부대를 「호랑이 부대」라고 呼稱하였다는 것이다.

이 「호랑이 부대」는 住持와 住民들의 積極的인 협조를 받아, 그들의 退溪院 補給所—倉洞 輸送隊—陸軍士官학교에 설치한 簡易훈련소등을 습격하여 敵의 後方機能을 癱痺시키고 住民을 保護하면서 國軍의 北進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退却길에 있었던 北僞는 9월 25일 陸軍士官학교 器物과 生徒들이 使用하였던 Mattress 등을 住民 100여명을 動員하여 牛馬車에 싣고 北으로 옮겨갔다는 事實을 住民의 提報로 알게 되었다. 이때 남은 隊員은 9명이었는데, 器物을 빼앗기는 限이 있어도 住民만은 北으로 보낼 수 없다는 決意로써 京畿道 楊州郡 榛接面 內閣里 山속에 埋伏하여 接近하는 그들에게 一齊사격을 加하여 住民들을 逃走시키는데 成功하였으나, 이 「佛岩山 호랑이」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草野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事實은 世上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곳 住民들 間에는 神話와 같이 11傳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唯一하게 生還한 金元基 生徒에 依해서 밝혀진 遊擊隊員의 명단은 末尾의 研究欄과 같다.

**제9연대 제1대대의 狀況** : 제9연대장 尹春根 中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장, 柳相博 소령)는 生徒대대가 철수한 것을 確認하고 14.00부터 철수하였다. 이때에 대대장 柳 소령은 제1중대(장, 李載鉉 中위)를 掩護부대로 하여 현 위치에서 대대의 철수를 엄호케 하였는데, 士官학교 지역에 敵砲擊이 熾盛한 까닭으로 철수로를 E高地—391번道路—忘憂里—龍馬峰—廣莊洞으로 豫定하였다. E高地에서는 제2중대(장, 尹炳俊 中위)로 하여금 제1중대의 철수를 엄호케 하는 同時에 제3중대(장, 崔春三 中위)로서는 九稜山(忘憂里 北쪽 1.5km)을 確保케 하여 秩序있는 철수를 하게 하였다.

철수하는 途中 分, 小隊규모의 敵과 數次 遭遇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들이 退却하였기 때문에 交戰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E高지를 횡단할 때에 敵 砲彈으로 張元淳, 琴江錫 兩 중위를 포함한 5명의 戰死者와 20여명의 負傷者를 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7.00에 廣莊洞으로 철수 완료하고, 生徒大隊의 渡江을 엄호한 다음, 3隻의 나룻배로 이날 22.00까지 漢江을 渡江 完了하였다.

**제5연대의(혼성) 狀況** : 연대장 崔昌彦 中령은 27일 19.00에 그가 지휘한 200여명과 제16연대 제1대대장 俞義濟 中령이 이끄는 100여명등 都舍 300여명을 士官학교 부근의 孤兒

院에 收容시키고, 士官학교에서 제공한 「주먹밥」으로 食事を 하게 하였으나 이들 大部分은 食事が 끝난 직후 또는 「주먹밥」을 손에 든채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이무렵 暴雨가 쏟아지고 서울 上空에는 曳光彈이 數없이 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崔昌彦 중령은 『이날 倉洞線에서의 敵의 威勢로 보아 지금쯤은 서울에 侵襲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車甲俊 소령과 俞義濟 중령, 작전장교 玄啓龍 중위 등과 앞으로의 對策을 협의하였으나, 妙案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교장 李俊植 준장의 指示를 받기 위하여 同 준장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와 相議할 수 있는 다른 相對者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孤院院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熟議한 결과 包圍網 속에 있을지 모를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데 意見의 合致를 보았다. 그러나 다음 集結地에 있어서는 崔 중령과 車 소령의 『漢江 南쪽으로 철수하여 戰勢를 觀望한 다음 對處하도록 하자.』고 한데 反하여, 俞 중령은 『서울로 가서 本隊와 合勢하여 싸우는 것이 옳다.』는 엇갈린 主張을 하여 結局 俞 중령은 서울로 떠났고, 崔 중령은 자고 있는 兵士들을 깨워서 離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새끼줄로 各白의 허리를 연결한 다음 23.00 廣莊洞으로 向하여 出發하였다.

이리하여 제5연대(一)는 28일 05.00 廣莊洞에 到着하였으나 廣津橋는 이미 폭파된 뒤였다. 崔 중령은 俞 중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닫고 江邊을 따라 北쪽의 競馬場부근까지 갔을 때 서울로 간다던 俞 중령이 뛰어 오면서 『서울은 完全 占領당하였다.』고 하였던 까닭에 다시 廣莊洞으로 돌아갔다. 이때가 08.00였는데 거기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3隻의 배를 놓고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을 이루고 있는 現象이었다. 崔 중령은 피난민들에게 『軍人이 먼저 건너야 反擊을 할수 있지 않느냐?』고 타일러, 이 배로써 兵력을 다 이동시키고, 피난민까지도 군인통제하에서 渡江시킨 다음 이날 夕陽에 李俊植 준장이 지휘하는 生徒대대에 배를 引繼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軍은 狂波와 같이 밀어 닥치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倉洞—彌阿里 등지에 阻止線을 펴고 여기에서 敵侵을 極力 阻止하려 하였으나, 敵의 戰車 앞에는 束手無策이 되어 開戰 4일만인 6월 28일 首都 서울을 그들에게 넘기고 漢江線에서 다시 對峙케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2사단 제16연대 제3대대 정보관 金熙碩 대위

(1965. 10. 13 國防에서, 豫 中領)

대대는 滿州에 駐屯하면서 太白山지구 共匪擊滅을 하고 있던중 出動명령을 받고 26일 午後에

서울에 到着하였다.

當時 大대장은 姜泰奉 중령이었으나 休暇중이어서 같이 行動하지 못하고 부대대장 崔敏燾 대위가 연대의 後發隊長으로서 3개 중대 미달의 부대를 지휘하였다. 27일 05.00에 倉洞에서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의 명령을 받고 議政府로 轉進하던 중, 敵 戰車와 만나게 되어 倉洞으로 철

수하여 本隊와 合勢하게 되었다.

이날 12.00에 戰車 20여대가 대대 정면으로 침입한 까닭으로 分散되고 말았는데, 나는 彌阿里에서 混成된 30여명을 지휘하는 중대장이 되었으며 崔敬燾 대위와 같이 제25연대 지역인 共同墓地 부근에 배치되었다.

이날 밤에는 비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漆黑 같이 어두웠으며, 戰車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으나 보이지는 않았다. 戰車가 통과한 다음 어느 부대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철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崔敬燾 대위에게 『我軍이 全部 철수하는데 몇명 안되는 兵力으로서는 어떠한 道理가 없으니 이 機會에 우리도 철수하자고 하였다. 崔 대위는 『나는 38°線을 넘었다. 共產黨과는 不俱戴天의 원수이니 저놈들한테 쫓겨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微動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으로 混成부대이기는 하나 꼼짝도 못하고 있다. 28일 아침 敵 1개 대대와 交戰하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 敵 1개 소대병력을 射殺하였으나 側方으로 부터 그들의 機關銃 사격을 받게 되고, 그 周邊에 포탄이 떨어지기 始作하였기 때문에 分散되고 말았다.

◇ 陸軍本部 전방지휘소장 姜文奉 대령  
(1965. 3. 14 國會議事堂 國會議員, 豫 中將)

蘆海支署에 陸本 前方지휘소와 議政府지구 전투사령부가 같이 있었는데, 27일 末明에 제7사단 포병대대장 李奎三 소령이 찾아와서 땅을 치며 『步兵이 砲兵을 掩護하지 않고 逃亡했기 때문에 우리는 砲를 全部 잃고, 이제는 砲 사격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통곡하였다.

이날 11.00 戰車 공격을 받고 劉載興 준장과 같이 彌阿里로 철수하여 彌阿里 고개의 左右側에 防禦진지를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이미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이 지휘하는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前方에서 철수한 부대는 同 고개에서 2km 前方으로 推進 배치케 하고, 對戰車 防禦策으로써 市內에서 動員한 20여개의 車輛을 삼거리에 세워두게 하여 對戰車 장애물로 하였다.

그리고 各 교량에는 폭파장치를 하게 하였는

데 工兵학교장 嚴鴻燾 중령도 다리에 나와서 이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敵 夜襲에 대비한 作業을 完了하였음을 確認하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 南쪽에 있는 “감전旅館”을 臨時 지휘소로 하여 劉載興 준장과 같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明口에 있을 작전계획을 짜고, 劉載興 준장은 참모를 呼出하여 전투준비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過勞에서 온 탓인지 잠시후 두사람은 잠박 잠이 들고 말았다.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戰車가 오고 있다.』는 高喊소리에 놀라, 精神을 차려보니 戰車소리와 機關銃소리가 同時에 들리었다. 빨리 陸軍本部에 보고하기 위하여 여관 담을 넘어 城北경찰서로 뛰어갔더니 거기에도 數百명의 장병이 集結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도 戰車가 昌慶苑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 傭長 Jeep車를 빌려타고 陸軍本部로 가서 총참모장에게 『戰車가 昌慶苑까지 들어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때가 28일 01.30으로 알고 있다.

◇ 제5사단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  
(1977. 3. 17 自宅에서, 豫 大령)

나는 光陽에서 智吳山地區 共匪擊滅작전을 遂行하고 있던 중 6월 25일 연대본부로부터 모든 裝備와 補給品을 가지고 철수하라는 命을 받고, 그 다음날 光州驛에 도착하였는데 下車도 하지 않은 채 연대본부에서 갖고 나온 各種共用火器만을 싣고, 1시간뒤에 그곳을 떠나 同일 19.00 龍山驛에 到着하였다. 비를 맞으며 제18연대 幕舍에 收容되었으나 곧, 陸軍本部로부터 『前方 主方部隊의 撤收를 掩護하라는 命을 받고 彌阿里의 共同墓地에 배치되었다. 이날 밤에는 아무 異常이 없었으나 날이 밝으면서 部隊를 3번 道路를 보다 適切하게 制扼할 수 있도록 再調整하였다.

이때에 연대와도 電話 疎通이 이루어 졌는데, 『곧 UN軍이 오고 增援부대가 갈터이니 決死阻止하라.』는 사단장 李應俊 소장의 電話에 이어 연대장 朴基丙 대령으로부터도 같은 內容의 電話가 걸려왔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는 我軍부대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였는데, 敵 戰車가 꼬리



를 불고 뒤 따랐다. 나는 射擊명령을 하달하고 迫擊砲와 機關銃등 모든 火力을 여기에 集中시키자 戰車로만 보였던 그들 隊列속에서 車輛과 兵員이 空中으로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戰車아닌 車輛으로써 假裝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런일이 있은뒤 물려간 敵은 偵察隊로 보이는 徒步 부대로서 我軍의 配置를 探索하려는 듯 보였으나 이들도 擊退되고 날이 밝을때 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28일의 天明에도 敵抵抗이 없는 것을 보고 연대본부와 사단 前方 지휘소에 電話하였으나 應答이 없어 傳書를 보내 보았더니 흔적도 없었다는 報告였다. 『死守하라.』고 명령만 내려놓고 撤收해버린 上司들이 怨望스러웠다. 이때 市內에서 銃砲聲이 요란하게 들렸다. 무엇인가 措置를 取하여야 할 段階임을 깨닫고 부대대장 吳泰泳 대위와 各 중대장들과 討議한 結果 철수하기로 決定하였다.

## § 戰 訓

### (1) 部隊 建制의 重要性

이 戰鬪에서 사단사령부와 연대본부가 有名無實한 存在가 되거나 전혀 그 行動을 追跡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 原因은 곧 建制를 無視하고 各 대대別로 四分五裂하여 即興的으로 戰線에 投入한 誤謬에 있다.

이와같은 兵力運用的 害蟲은 매우 커서 10의 兵力을 1/20로 分割使用하는 結果가 되었으며 一線投入을 10時間 말리하려다가 100時間의 堅守能力을 喪失하게 된 것으로써, 部隊는 建制로써 使用할 것이지 兵力으로서 使用하는 愚를 벗어났어야 할 것이다. 사단이나 연대를 중대나 소대와 같이 使用한 愚劣性은 참으로 深刻한 結果를 초래하고 말았다.

### (2) 兵力의 重點使用

陸軍本部에서는 水原을 目標로 後退한 것이 아니라 漢江南岸에서 陣容을 再建하고 陣地를 設備하는 同時에 漢江鐵道 附近에 橋頭堡를 確保하였어야 할 것인데, 後方에서 集結하는 兵力을 그때마다 逐次分割하고 一兵의 豫備도 掌中에 直轄하지 못하였다. 100원을 100인이 分割使用

하는 것과 1인이 一括使用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욱 效能的이겠는가?

兵力이 곧 戰力이 아니고 이를 重點에 徹底하게 集中使用할 때에 비로소 戰力化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兵力이 도리어 非戰力化하여 障礙物이 되고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 (3) 射倖心은 禁物이다

戰鬪은 賭博이 아니다. 萬一의 요행을 바란다는 射倖心은 作戰指導上의 一大 毒素가 된다. 戰鬪에서 勝敗란 이길 수 있음으로써 이기고, 지게 될 것임으로 해서 지는 것이지 결코 萬一의 奇蹟을 꿈꾸면서 나라의 大事를 賭할 수는 없다.

敗退하는 部隊와 新銃의 增援부대와는 서로 分離使用되어야 할 것인데 混淆하고 淸濁을 混合하고 말았으며, 그러면서도 萬幸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充滿되어 있었다. 通信은 전혀 斷絶되고 變態상태에서 兵士 個個人이 계엄대로의 戰鬪로 始終하였다. 避難民은 統制없이 作戰地帶內을 右往左往으로 成群流動하였다. 少將이 1個 대대를 直接 指揮하는 愚直으로 首都死守를 期待하였다. 그러면서도 오직 友邦軍의 參戰만을 渴首苦待하였다.

### (4) 指揮官의 位置

指揮官은 작전기간중 急變하는 狀況에 對處할 수 있도록 部隊全般을 觀測 또는 統制할 수 있는 곳에 位置하여 可用한 參謀요원과 通信手段을 活用하여 부대를 지휘하여야 한다.

이 戰鬪를 통하여 보건대 各個 지휘관이 全般의인 狀況에 對處하기 보다는 局部的인 狀況에 置置한 나머지 그들의 지휘기능을 十分 발揮하지 못하고 各個 分散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러한 例는 몇몇 지휘관에 局限된 일이 아니로되, 特히 陸軍을 총지휘하는 翁秉德 소장은 議政府 正面의 敵情에만 汲汲하여 이곳을 빈번히 往來하면서 現地 作戰을 지휘하고, 彌縫策으로 戰鬪준비도 채 갖추지 못한 後方부대들을 逐次即時로 逐次投入하기에 이르러, 結果는 부대를 分散시키고 지휘에 混亂을 초래케 하였다.

議政府 正面에서 進戰奮鬪하였던 제1면리장 咸俊鎭 대령이, 前方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金煥穆 소령이 지휘하는 混成부대의 철수를 지휘하기 위하여 單車를 몰고가다 壯烈하게 戰死하였음은 愛惜하기 짝이 없지만, 指揮의 要領에 있어서 輕重을 倒錯하였다고할 것이다.

前者의 경우 參謀機能을 充分히 活用하고 좀더 冷澈하게 狀況을 判斷하여 大局의인 見地에서 부대運用을 하였어야 하고 後者의 경우 主力部隊의 指揮에 重點을 두었어야할 것이다.

## § 研 究

### (1) 士官生徒를 士兵으로 勸戰케 한 조치

軍은 幹部要員의 資質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陸軍士官학교를 4年制로 改編하고 1949. 7. 15 그 제1期生 263명을 선발 入校시켰다. 그러나 創軍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軍으로서는 4년간의 敎科內容에 대한 준비와 敎官의 能力등을 考慮하여 제1期生에 限하여 1年制로 하고 1950. 6. 1 入校한 제2期生 334명 부터 4年制 敎育을 실시키로 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同月 25日 北傀의 全面南侵으로 말미암아 敎育은 同일부터 中斷되고 陸軍本部의 方 회에 따라 이들 生徒들은 1개 士兵의 身分으로 戰鬪에 參加하였는데, 이때 제1期生은 任官을 앞둔 2週前이었고 제2期生은 入校한지 3週가 지난 때였다.

그 當時에는 全國民이 國難에 處하여 있던 때인만큼 士官生徒뿐만 아니라 全 國民이 總 動員되었다 하더라도 異議가 있을 理 없으나, 그 方法에 있어서 任官 1週 앞둔 제1期生을 포함한 士官生徒들을 士兵身分으로 戰鬪에 參加케한 陸軍本部의 조치가 妥當하였는가 하는데 있다. 제1期生은 所定의 敎育을 完了하고 行軍과 野外訓練만을 남기고 있었던 때인만큼 이들은 即時 장교로 任官시켜 實兵지휘케 하고, 제2期生은 좀더 遠大한 角度에서 계속 正規課程으로 養成하여 幹部要員 확보에 力點을 두었다라면 後日 多大 裨益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 (2) 戰死者 記錄의 正確性

士官生徒 제1, 제2期生이 士兵의 身分으로 戰鬪에 參加하였음은 이미 밝힌바 있거니와 이들은 이 戰鬪에서 狂波와 같이 밀어닥친 敵에게 많

은 打擊을 加하고 그들에게 制動을 強要하였으며, 我軍에게는 撤收와 防守陣을 固히는데 時間의 여유를 갖게 하였으나, 이들도 저지않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이들 損失가운데 失蹤者 136명중 제1期生의 44 명은 9.28收復以後에 適法審査를 거쳐 軍에 復歸하였으나, 제2期生의 全 損失人員 92名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記錄이나 證言이 없기 때문에 全員 失蹤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崇高한 피를 흘리며 護國의 礎石이된 戰死者도 많았을 것으로 보나 이들을 戰死者로 確認하지 못하였음은 實로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 (3) 佛岩山 遊擊隊의 名單

1950년 9월 25일 住民 100여명을 強制動員하여 陸上器물을 北送하는 北傀軍을 기습하고 唯一하게 生還한 金元基 生徒에 依하여 밝혀진 遊擊隊員의 명단은 다음과 같거니와 그에 의하면 그 自身을 除外한 全隊員은 戰死 또는 失蹤하였다고 하며 그도 그때 一身을 自衛으로 住民의 守護를 받고 있다가 9.28收復以後 陸軍病院에서 치료중 1951년 7월 10일 死亡하였다.

#### 遊擊隊員 名單

姓名	所 屬	戰鬪(襲擊)地域
金東元	生徒제1期生	陸軍士官學校
田熙澤	"	"
洪明集	"	"
未詳人	제9연대 사병 1명	"
"	" " 2명	"
朴仁祺	生徒제1期生	退溪院 보급소
金奉敦	"	"
未詳人	生徒제2期生	"
金萬植	중사 제9연대	倉洞 內務署
未詳人	제9연대 사병 1명	"
朴今川	生徒제1期生	北送隊
李壯寬	"	"
趙永達	"	"
韓孝俊	"	"
金元基	"	"
未詳人	生徒제2期生 2명	"
"	제9연대 사병 2명	"

## 2. 서울撤收狀況

참조: 별책부도 제13호

### 가. 陸軍本부의 動靜

26일 13.00부터 議政府를 強占하고 다음날부터 그 鋒尖이 倉洞線에 指向됨으로써 首都 서울은 寸刻을 다투는 危急한 情況에 이르게 되었다. 陸軍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緒戰에서 苦戰을 自認하면서도 이를 阻止하고 反擊하려는 作戰指導 방침을 아직까지 固守하고 있었다.

한편 戰況이 時時刻刻으로 急迫하여지자 26일 深夜에 非常國務會議을 열어 政府의 水原 이동을 決定하였으며 이어서 열린 非常國會에서는 『서울을 固守한다.』라고 決議하는 등 亂脈을 이루고 있었다(제 3절 참조).

이 深夜會議에서 歸應한 국방부장관 申性模는 政府의 移動을 發表토록 指示하고 이어서 27일 07.00에 국방수석회의를 召集하여 『政府는 撤收하니 各軍은 各자의 良識에 따라 行動하라.』라고 發言함으로써 漢江 以南으로의 撤收문제가 擡頭된 것이었다. 이로써 海·空 軍本부의 서울 撤收가 시작되었으나 蔡秉德 總參謀長은 『비록 政府가 撤收하더라도 軍은 서울을 固守한다.』라는 決心을 披瀝하여 軍의 使命을 다하기로 方針을 굳혔다. 그러나 그는 그 뒤 倉洞線의 維持만이 아니라 彌阿里線까지도 支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報告에 接하자 이날 11.00에 陸軍本部 參謀 및 在京부대장會議를 緊急히 열어 陸軍本부의 서울 撤收를 압힘과 아울러 漢江大橋와 鐵橋의 爆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工兵監 崔昌植 대령이 앞서 總長의 內示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承認받은 것인데, 同 대령은 이를 說明하는 자리에서 이르기를 『敵이 서울 市內에 突入하면 2시간 뒤에 全橋梁을 同時에 爆破한다. 지금의 戰況으로 미루어 폭과예정 시간은 16.00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는 戰線부대의 撤收나 市民들의 疎開完了時刻 등은 全혀 考慮되지 않았으며, 단지 『漢江橋가 切斷된 다음 撤收하는 부대를 위하여 18척의 短艇을 준비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敵侵시간을 27일 14.00로 판단하고 그로부터 2시간 以內에 戰線부대와 在京부대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회의참석자들은 이에 異議를 提示하게 되었으며, 특히 首都경비사령관 李鍾贊 대령은 말하되 『서울 市民의 避難 조치를 講究함이 없이 軍부가 먼저 撤收한다는 것은 言

語道斷이다. 더구나 市民들의 唯一한 退路를 早期에 폭파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崔昌植 대령은 緒戰에서 臨津江橋 등 많은 橋梁들을 破壞하지 못한 例를 들면서 『漢江橋 폭파가 失敗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가 蔡참모장으로부터 받은 命令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회의는 激論만을 거듭하다가 一同에게 漢江橋 폭파에 따른 細部계획을 알림이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다.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뒷날 이에 관하여 述懷하기를 『緒戰이래의 激務로 말미암아 27일이 되니 睡魔에 쫓기고 있었다. 총참모장도 또한 같은 狀態이므로 心身의 疲勞가 겹쳐 회의에 臨하여서는 假睡狀態에서 대답하는 程度였으니 平時에는 생각할 수 없는 錯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正午부터는 敵이 倉洞線을 壓迫하였으므로 陸軍本部는 始興으로 撤收하기로 하고 총참모장은 서울의 固守를 諦念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때 漢江橋와 廣津橋의 폭파가 문제가 되었으나 그 時機는 敵이 서울 一角에 侵入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自動的으로 폭파하도록 된 것으로 안다. 이 회의에서 李鍾贊 대령, 李亨根 준장 등은 市民이 避難할 時間의 여유가 없다고 激論을 벌였지만 이에 介意치 않은채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게 폭파준비를 指示하고 「萬若에 失敗하면 銃殺에 處한다.」라고 嚴命한 것으로 記憶한다.』라고 하였다.

蔡 총참모장은 회의가 끝나자 軍의 서울 撤收를 嚴秘에 부치도록 指示하고 一線부대에게 마저도 別다른 措置없이 이날 13.00부터 陸軍本部의 始興으로의 撤收를 斷行케 되었으니, 그 차량 縱隊는 南쪽으로 向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目睹하였던 市民들은 戰況의 惡化를 눈치채게 되었다.

한편 工兵監은 在京부대장 회의에 앞서 이미 總장 指示에 따라 漢江大橋와 鐵道 및 廣津橋 爆破준비에 着手하고 工兵學校長 嚴鴻燮 중령에게 이날 15.00까지 폭파준비를 完了할 것을 命令한 바 있었다. 따라서 同 중령은 工兵학교 폭파 교관 黃元會 중위, 李昌馥 중위, 黃龍德 중위, 任興淳 중위 등에게 이의 實施를 命令케 되어 陸軍本部가 撤收할 무렵에는 漢江大橋의 폭파준비가 거의 完了된 상태에 있었으며 3개의 鐵橋도 15.00에는 폭파 준비를 마칠 豫정으로 作業中이었다.

이와 같이하여 陸軍本部는 始興에 있는 步兵학교에 一旦 撤收케 되었지만 이 撤收는 前述한 바 漢江 北쪽에서 싸우는 모든 부대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 때까지 서울에 殘留하였던 美軍사고문단·요원에게도 通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陸軍本部가 始興으로 撤收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서울을 떠나 始興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이들이 漢江을 지날 무렵인 14.00에 MacArthur 元帥로부터 無電을 통하여 美合參本部가 자기에게 美軍사고문단을 포함한 모든 駐韓 美軍의 작전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前方지휘소(ADCOM)를 派韓中이라는 내용을 接受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始興에 도



〈撤收하는 美顧問團員들〉

작한 다음에는 그로부터 『重大한 決定이 곧 있을 것이니 서울에 復歸하라.』라는 要旨의 命令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美군사고문단장 대리 William H. S. Wright 대령은 蔡秉德 소장에게 이 른 달리고 서울에 復歸하였으며, 陸軍本部 역시 이에 힘을 얻어 다시 서울을 固守키로 作戰指導方針을 變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총참모장은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에게 漢江橋 및 廣津橋의 폭파를 中止케 하고 이날 18.00에는 陸軍本部의 서울 復歸를 完了하여 彌阿里線 防守에 專力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국방부장관은 이날 14.00에 水原驛長室로 자리를 옮긴 다음, 이곳에서 避難次, 水原飛行場에 나와 있던 美大使館 직원으로 부터 美軍참전 消息을 傳해 듣고 蔡 총참모장에게 『美軍이 참전할 때까지 速차 撤收戰을 敢行할 것』을 傳함으로 示達한 것이 지단 그는 이를 오히려 『서울固守』로 決心을 굳혔던 것이다.

## 나. 首都 攻防戰

27일 14.00에 倉洞阻止線이 崩壞를 고비로 하여 首都가 寸刻을 다투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따라서 陸軍本部는 모든 可用兵力과 裝備를 總動員하여 彌阿里 부근에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케 하는 한편 제1사단으로 하여금 西北쪽에서 밀려드는 狂波를 阻止케 하였 는데, 同 사단은 27일 현재 奉日川線에서 臨津江을 넘어선 敵을 一旦 抑留하였으나 倉洞線에 配備된 제7, 제2, 首都경비사령부 등 3개 사단과 제3, 제5兩개사단의 一部兵力 등의 主力은 挽回하기 힘든 戰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하여 제 5 단사장 李應俊 소장(彌阿里地區 戰鬪司令官)과 제 7 사단장 劉載興 준장(議政府地區 戰鬪司令官)은 分散된 兵力을 收拾하고 아울러 제 8 연대(장, 徐鐘喆 중령)의 제 2 대대(장, 高白圭 소령)와 제 5 사단 2개 대대(제 15 연대 제 2 대대 및 제 20 연대 제 1 대대)를 統合하여 增強된 연대 규모의 兵力으로 泰陵—上月谷洞—彌阿里—貞陵간에 急編陣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兵力과 裝備 및 彈藥 등이 不足하고 더구나 激浪을 헤쳐온 混成부대의 兵士들로써 戰鬪力을 제대로 發揮하기 어려운 實情이었다.

이와 같은 狀況아래 北傀 제 1 군단의 主力은 開戰 이틀사이에 首都 外廓의 要衝인 議政府를 侵奪한 뒤로 그 餘勢를 몰아 서울을 占領할 企圖下에 速攻을 획책하기에 이르러 早期에 彌阿里線을 突破코자 한 것이다.

이에 當面하여 이날 下午에 새로이 彌阿里線에 配屬된 제 5 사단 예하의 제 20 연대 제 1 대대(장, 金漢柱 소령)와 이미 이곳에 配屬된 同 제 15 연대 제 2 대대(장, 安光榮 소령)를 統合指揮하게 된 제 20 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南侵하는 敵戰車를 阻止하기 위한 方策으로 車輛障壁을 마련하였다.

또한 首都경비사령부 소속의 제 8 연대 제 2 대대(장, 高白圭 소령)도 建制를 維持하여 上月谷洞—里門洞간에 配置되어 侵入하는 敵을 막으려고 하였으며 後方에서 새로이 進出한 제 3 사단 工兵대대(장, 朴基錫 소령)는 烽火山—面牧洞간에 陣地를 占領하고 退溪院 쪽에서 南下하는 敵을 邀擊토록 對備하여 中浪橋의 爆破도 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彌阿里 阻止線에는 前方으로 부터 逐次철수한 3,000명의 混成兵力과 그리고 제 8 연대 예하의 개대대 500명과 제 3 사단 工兵대대 및 各 直轄부대 등이 防守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敵戰車가 市內에 突入할 것에 對備하여 市內要所에는 障礙物도 設置하였는데, 彌阿里 삼거리와 吉音橋, 그리고 敦岩洞 電車終點부근에는 首都경비사 장병들에 의하여 不規則的으로 車輛障壁이 수개소에 마련되었으며, 昌慶苑入口와 安國洞—鍾路入口—化門—南大門—三角地 그리고 陸軍本部(龍山郵遞局) 앞에도 首都 경비사령부 및 陸軍本部 장병들에 의하여 車輛防壁이 設置되었다.

이 障礙物들은 貨物車輛과 bus 등을 動員하여 道路를 가로질러서 整列케 한 다음 자동차 바퀴의 空氣를 빼고 主要部品을 除去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周圍에 鐵條網 등을 쳐서 戰車의 通過를 阻止하거나 또는 遲延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barricade를 치기 위한 車輛이 徵發되고 市內要所에 防柵이 設置되고 있는 事實을 알게된 市民들은 戰勢의 不利함을 깨달았음인지 이날 下午부터 漢江을 渡江하려는 避難人波가 增加하기 시작하여 漢江에 이르는 交通이 混雜을 이루었다. 더구나 서울市廳에서 부터 서울驛 앞까지 이르는 거리에는 電車が 一列로 세워져 있어서 道路 左右의 通行을 막고 있었다.

이 車輛 障壁들은 대체로 이날 22.00 이후 부터 急造된 것이었으나 이 가운데 三角地 부근의 것만은 1개 중대에 의하여 防護되고 있었을 뿐이며 나머지는 市街戰을 위한 對策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서울 防衛를 위한 最後阻止線에 配備된 장병들은 이대로 서울을 敵手에 넘겨줄 수 없다는 데서 오로지 挺身코자 하였으며, 또한 總參謀長이 26일에 『내일이면 B-29 100대가 支援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想起하면서 이날 밤만을 支撐하면 戰勢의 逆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僥倖을 바라기도 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날 17.00에 이르자 38°線突破時와 다름 없이 戰車를 앞세워 進路를 打開하는 한편으로는 優勢한 火力으로 作戰의 主導權을 잡아 集中突破를 꾀하였는데, 이번에는 戰線 後方으로 便衣隊를 投入하여 鍾岩洞과 敦岩洞 일대에서 信號彈을 발사하여 心理戰을 꾀하면서 그들 相互間의 連絡을 취하는 듯 보였다.

또한 北漢山과 舊把撥간의 北쪽 回廊으로 騎馬隊를 進出시켜 부대간의 연결을 妨害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侵攻한 敵은 10여대의 戰車와 일부의 騎馬兵을 앞세워 京元本道를 따라 彌阿里로 突入하다가 水陰黑 부근에서 제 20연대(장, 朴基丙 대령)의 抵抗에 부딪쳐 그 先鋒이 꺾이게 되자 日沒과 더불어 接觸을 끊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듯 하더니 이날 子正을 前後하여 다시 一群의 戰車隊가 暴雨와 더불어 吉音橋로 밀려들었다.

이 戰車隊는 敵의 제 105기갑여단 소속으로서 歩兵의 엄호도 없이 단독으로 深夜에 侵攻하였는데 吉音橋를 넘어선 뒤로는 거의 無人地帶를 휩쓸듯이 市內로 侵入하기 시작하였으니 이 때가 28일 01.00였다.

이와 같이 하여 彌阿里 阻止線은 무너지게 되었거니와 市內에 突入한 敵戰車는 市內要路를 遮斷할 목적으로 각개 侵透를 企圖하는 듯이 보였다.

이 때에 憲兵司令官 宋堯讚 대령으로 부터 『敵의 戰車가 市內에 突入하였다.』라는 要旨의 急報를 받게 된 參謀副長은 工兵監에게 『즉시 工兵으로 戰車 爆破組를 編成하라.』라는 要旨의 긴급 指示를 下達하였다.

이에 工兵監은 제 1工兵團소속 全有炯 중위, 鄭麟澤 중위와 下士官 2명을 選拔하여 2個組를 編成한 다음 嚴在完 소령 등이 急造한 25 Pound 爆藥 2개를 携帶시켜 憲兵司令官 Jeep 차로 現場인 昌慶苑入口에 急派하였다.

이날 01.30에 敵의 戰車가 이곳까지 侵入하여 車輛障壁을 除去하려는 순간, 이들 爆破組는 그 戰車의 軌道에 폭약을 집어 넣어 그 中の 1대를 攔坐시키고 後續하는 戰車의 공격을 避하여 급히 現場을 물러나는 바 되었다. (註: 이 때 使用된 폭약은 27일 下午 제 1 공병단에서 急造 운반한 것으로 1箱子의 무게는 50 Pound였다. 시간의 여유가 없어 폭약상자에 그대로 火具(雷管: 導火線)를 裝置하여 數 10개를 急造하였으나 餘他の 것은

使用치 못하고 漢江 以南으로 搬出하였다.)

그러나 뒤따라 侵入한 敵의 戰車는 이를 한쪽으로 밀어부치고 市內 中央 침투를 계속하여 淸涼里—東大門—筆洞—中央廳—鍾路入口—韓國銀行—麻浦 등으로 각개 躍進하고 이날 08.00에는 서울 驛前을 通過하여 三角地 前面에 3대가 出現하였다.

때마침 이곳에는 外出 및 休暇로 뒤늦게 歸隊한 제 8연대 제 1대대 殘餘兵力으로 編成된 제 3중대(장, 金相德 중위)가 車輛障壁을 방호하기 위하여 配置되어 있었고 그밖에 1개 중대가 麻浦쪽을 담당하고 있었다.

敵戰車가 三角地까지 接近하자 중대장 金相德 중위는 배속된 57mm 對戰車砲를 指揮하여 150m 거리에서 조준하여 그 중 1대에 命中시켰으나 아무런 損傷도 입히지 못하므로 그 戰車는 그곳을 通過하여 漢江쪽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09.00에 그들 便衣隊인 듯한 30여명의 무리가 트럭으로 戰車를 뒤따라 接近하였으므로 이들을 一擊으로 撲滅하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는 國軍복장을 한 3명이 끼어 있었다.

이로부터 1시간이 지난 10.00에 또 一群의 戰車가 나타나자 중대장은 金重燮 중사 등 6명의 特攻隊를 뽑아 手榴彈으로 肉薄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戰車가 50mm 기관총 火力을 集中하므로 砲塔으로 올라가서 공격하려던 金重燮 중사가 兇彈에 戰歿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은 이 공격이 無謀한 짓임을 깨닫고 이곳에서 麻浦로 撤收하여 渡江코자 하였는데 마침 麻浦 刑務所에서 脫獄한 듯한 赤色分子들과 이들과 野合한 怪漢들이 나타났으므로 同 중대는 이를 殆半을 射殺한 다음 나룻배를 이용하여 全員이 對岸으로 넘어섰다.

또한 同 제 1대대는 당시 서울 防守를 위하여 中央廳과 麻浦, 그리고 南山에 Cal 50기 관총을 배치하여 敵의 空中공격에 對備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南山에 배치된 對空射擊組(장, 朴明雄 중위)는 전날에 來襲한 YAK기 1대를 擊墜한 바 있었으나 中央廳 屋上에 배치된 사격조는 侵入하는 戰車에 사격을 加하였지만 아무런 損失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날 기갑연대에서 中央廳 및 景武臺에 派遣된 1개 소대의 장갑차가 이곳을 경비하였으나 이 戰車를 막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서울 市內 侵入을 막은 까닭에 그들의 進出速度가 鈍化되어 彌阿里線을 突破한지 10시간 만에야 겨우 漢江 北岸線으로 進出한 듯하였다. 彌阿里線이 崩壞되어 撤收하는 과정에서도 局部的인 공격이 있었는데, 例의 제 5연대 제 2대대 소속 장병들은 이날 06.00에 淸涼里쪽으로 나오는 途中에 戰車 12대가 砲塔을 열어 제치고 悠悠히 侵入하고 歩兵들이 뒤따르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이 때 民間服裝으로 變服한 白福成 상사 등 특공대원 10명은 각자 4개씩의 수류탄을 휴대하고 民間人 대열에 끼어 있다가 戰車가 앞을 通過하자 一時에 뛰어 올라가 砲塔으로 수류탄을 집어 넣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戰車가 內部 爆發을 하면서 修羅場이 된 틈을 이용하여 이곳을 빠져나와 約定된 集結地로 모였는데 白福成, 柳興植, 南圭碩 상사 등



3명만이 生存하였으며 4명은 現場에서 戰死하고 나머지 3명은 行方不明이 되었다.

이 無名의 戰功談은 뒷날에 現地任官된 白福成 상사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이들이 파괴한 것으로 보이는 戰車 7대는 確認할 수가 없었다.

## 다. 漢江大橋 및 鐵橋의 爆破와 그 餘波

### (1) 爆破經緯

漢江大橋와 3개의 鐵橋가 爆破 된 것은 6월 28일 02.30이었다(研究 1참조).

이 爆破는 敵의 侵入를 遮斷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으나 그 爆破가 早期에 실시된 까닭으로 당시 서울 北쪽에 있던 각 부대와 在京부대의 退路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각 政府機關 및 市民들의 避難길이 막히는 바 되어 이로 인한 我側損失과 災難은 극심한 바가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當初 漢江橋의 爆破는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이 26일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게 『戰況은 매우 不利하다. 제 1사단 工兵대대에서 行한 臨津江 鐵橋의 폭파는 失敗하였는데 漢江橋의 폭파는 成功 되어야 한다. 自信이 있는가.』라는 要旨로 따전देश 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工兵監은 이날 11.00에 工兵學校 폭파교관 黃元會 중위와 李昌馥 중위를 불러 漢江橋 폭파계획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그 까닭은 이들이 이미 教育을 통해 漢江大橋의 폭파를 實習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兩중위는 命命하는 즉시로 폭파되어야 한다는 工兵監의 期待에 副應하기 위하여 곧 現場을 踏查하고 爆藥의 所要量과 裝藥方法 그리고 切斷部位를 決定하였다.

이를 確認한 工兵監은 다음 날인 27일 09.00에 陸軍本部에서 工兵學校長에게 『敵의 戰車가 5시간 뒤에 市內에 侵入하리라고 豫測되는데 漢江橋에 폭약을 장치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묻자 『3시간이 所要된다.』라는 대답을 얻는 즉시로 그에게 『漢江橋의 폭파를 준비하라.』는 命命을 下達하였다.

이 命命을 수령한 工兵學校長은 곧 南漢江 派出所에 指揮部를 設置하고 폭파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이 때에 黃元會 중위는 4개의 橋梁절단용으로 總量 7,000 Pound의 폭약을 富平에 所在하는 제 1工兵團에서 引受기로 하였다.

한편 工兵監은 이날 11.00에 開催된 在京부대장 會議에서 陸軍本部의 始興 撤收 및 漢江橋의 爆破가 決定되기에 이르자 즉시 連絡장교를 工兵學校長에게 急派하고 15.00까지 漢江橋의 폭파 준비를 完了할 것을 指示하였다.

當初에 黃元會와 李昌馥의 兩중위가 算定한 人道橋의 所要 爆藥은 2,800 Pound 였으나 餘備量을 加算하여 3,600 Pound로 하고, 그 밖에 鐵橋도 이에 準하여 所要 爆藥을 算出하였다

얼마 뒤에 爆藥의 全量을 入手하자 工兵學校長은 大橋의 폭파책임자에게는 黃元會 중위를, 京釜本線의 複線鐵橋 폭파책임자에게는 李昌植 중위를, 그 中間의 單線 鐵橋 2개의 폭파책임자에게는 任興淳 중위(제 1 工兵團)를 各各 任命하고 이들에게 자기 工兵 1개소대를 配屬하여 爆破준비를 15.00까지 完了할 것을 指示하였으며 아울러 復舊作業時의 配慮에서 『橋脚에는 損傷을 주지 않도록 폭약을 장치하라.』는 注意사항을 示達하였다.

이로써 爆破준비 作業은 12.00부터 本格化되어 指示된 時間 보다 30분이 지연된 15.30에야 모두 工事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이 陸軍本部의 1차 撤收가 있었으며 또한 復歸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날 16.00로 예정한 爆破도 保留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총참모장은 前述한 바 金白一 대령에게 이의 中止를 指示하게 되었다.

이 措置로 同 대령은 15.00가 지나서 漢江橋에 폭파 指揮所에 이르러 장교들을 召集하고 工兵學校長에게 이르기를 『漢江橋의 폭파준비를 中止하라. 차후 다리의 切斷은 總參謀長과 나(金白一 대령), 그리고 工兵監의 命을 守는 실시 하지 말라.』라고 이르고 이어서 大橋폭파를 담당한 黃元會 중위에게 『爆破 장치를 解體하였다가 다시 作業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고 묻자 그는 『20분이면 足하지만 充分한 時間은 40분이 걸린다.』라고 하였다. 이에 同 대령은 다시 黃中위에게 『萬若에 폭파 命을 下達되었을 때에 橋梁이 切斷되지 않거나 또한 命을 以前에 切斷하여도 嚴罰에 處한다.』라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14.00에 이르러 工兵監 崔昌植 대령과 또 漢江人道橋에 나와 嚴中령에게 『陸軍本部가 서울로 復歸하였으니 撤收하는 모든 車輛은 이를 制止하여 市內로 되돌려 보내고 市內로 들어가는 車輛은 全部 通過케 하라.』라는 要旨의 긴급지시를 口頭로 下達한 다음 直接 1시간에 걸쳐 交通整理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工兵學校長은 戰勢가 好轉되어 漢江橋를 끊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希望을 갖게 되었으며 즉시로 각 橋梁폭파 責任장교에게 命을 守하여 裝置해 두었던 一部の 導火線과 雷管을 拔取케 하여 待機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날 17.00에 敵의 戰車가 吉音橋 前方에 나타나고 이어서 再開된 敵의 侵攻으로 서울 防守를 위한 마지막 阻止線이 崩壞되기에 이르자 蔡秉德 總參謀長은 陸軍本部의 1차 撤收때와 같이 前方부대와 在京부대 그리고 市民들의 撤收는 考慮되지 않은채 또 다시 爆破준비를 命을 守하였으니 이 때가 23.30이었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하여 뒷날 李瑄根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放送局 處理문제로 總參謀長室에서 協議하고 있을 때이다. 總參謀長은 工兵監에게 電話를 걸어 곧 오라고 하고 崔대령이 나타나자 漢江橋의 爆破를 다시 준비하라고 命을 守하였다. 崔대령은 이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언제 합니까라고 하니가 다음에 直接 別命하겠다고 하였다. 그 뒤 나는 그와 같이 總長室을 나왔는데 거의 子正이 다 되었을 때이다.』

28일 01.45에 敦岩洞에서 急遽來着한 姜文率 대령으로 부터 『敵의 戰車가 市內에 侵入

하였다.『는 要旨의 보고를 받게 되자, 蔡總參謀長은 즉시 工兵監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命命하였다.

『지금 敵戰車가 市內에 들어와 敦岩洞을 지나서 東小門쪽으로 向하고 있다. 이미 配置한 戰車공격組는 그대로 두고 즉시 漢江으로 가서 漢江橋를 爆破하라. 나는 이제 始興을 거쳐 水原으로 간다. 곧 실시 하라.』

이상이 蔡總參謀長이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게 下命한 要旨인데 이 命命을 수령한 崔대령은 즉석에서 『命命대로 곧 가서 실시 하겠다.』고 함으로써 漢江橋의 爆破는 그 누구의 制止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蔡總參謀長은 崔대령에게 命命을 下達하고 즉시로 玄關으로 나왔는데, 이 때 總參謀長과 같이 있게 된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 情報局長 張道英 대령,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 등 3명이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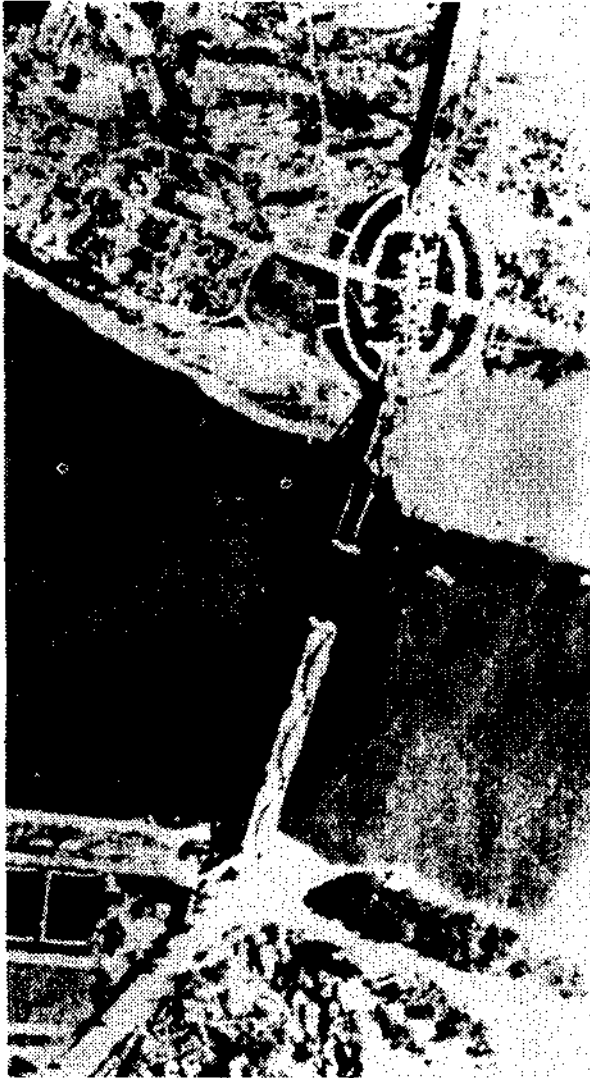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金白一 대령이 『事後措置는 우리에게 맡기고 속히 南쪽으로 待避하도록 하십시오.』라고 建議하자 總참모장은 『내가 이대로 서울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에 不應하자 參謀들은 그를 半強制로 Jeep차에 태워 南行토록 하였다.

이 때의 同乘者는 人事局長 姜英勳 대령과 副官 張仁根 대위 그리고 운전병 등 3명으로서 이들 證言에 의하면 總참모장은 車中에서도 撤收의 決心이 서지 않았는지 몇 번 『차를 돌려라.』라고 催促하였다는 것인데 同은 이를 겨우 挽留하면서 漢江을 건너 永登浦로 向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總參謀長으로 부터 漢江爆破 命命을 수령한 崔대령은 즉시로 漢江人道橋로 가 이곳에 待機하고 있던 工兵學校長 嚴중령에게 『즉시 漢江橋를 爆破하라.』고 命命하였는데 이 時刻이 02.20이었다. 이리하여 同 중령은 大橋 北岸에 工兵을 보내 渡江하는 車輛과 人波를 制止케 하고 각 橋梁폭과 책임자에게 爆破를 命命하였는데, 당시에 이곳 北漢江派出所에는 憲兵들이 配置되어 命命없이 撤收하는 車輛들을 制止하고 있었으나 밀어 막치는 車輛과 人波로 大混亂이 惹起되고 있었다.

同 중령의 爆破命命은 事前에 約定된 Car소총의 連發과 Flash-light를 左右로 흔드는 것을 信號로 하였으며 이로써 李始榮 副統領의 渡江을 끝으로 渡江이 잠시 遮斷된 틈을 타 黃元會 중위는 大橋의 爆破 導火線에, 李昌馥 중위는 南쪽 京釜複線 鐵橋 폭과 導火線에, 그리고 任興淳 중위는 中間 2개의 鐵橋 導火線에 각각 點火하게 되고 이로부터 얼마 뒤에 漢江大橋를 비롯한 3개의 鐵橋는 爆音과 함께 切斷된 것이다.

그런데, 李昌馥 중위가 담당한 複線 鐵橋의 爆破는 雷管의 老朽탓인지 不發로 그림으로 써 이에 責任을 痛感하게 된 그는 危險을 무릅쓰고 單身 現場으로 가 雷管을 改裝하고 다시 點火하였으나, 결국 한 뭉치의 爆藥만이 폭발되는 바 되어 그 威力을 잃음으로써 橋梁의 完全 切斷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中央部의 單線 1개의 鐵橋 1개도 不發로 그치고 말았다.



<爆破된 漢江大橋>

따라서 不發로 그친 이 橋梁은 뒤  
에 美空軍의 B-29가 出擊하여 爆破  
하였으나(제 7장 제 4절 참조) 不完  
全하게 切斷된 複線鐵橋는 敵이 7월  
3일 이후에 爆破된 部分을 補修하고  
戰車를 越江시키는 바 되었다.

## (2) 爆破의 餘波

漢江橋의 爆破가 실시되기 前에  
蔡秉德 總參謀長이 漢江을 渡江하였  
으므로 金白一 大령이 사실상 그의  
權限을 代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이 없었다.

이 때에 陸軍本部에 급히 來着한  
李應俊 소장은 金白一 大령에게 『아  
직 麾下부대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들이 渡江한 以後에 다리를 切斷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자리에 나타난 李亨根 准將 역시 같  
은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이르자  
金白一 大령은 그들의 意見이 妥當  
한 것으로 判斷하고 作戰局長 張昌  
國 大령에게 『빨리 가서 漢江橋의  
爆破를 中止케 하라.』는 要旨의 命  
令을 下達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金白一 大령은 蔡 總參謀長이 工兵監에게 下達한 폭파 命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分明한데, 이 命令을 수령한 張大령은 곧 이를 現場에 傳達키 위하여  
作戰課長 丁來赫 中령과 同途로 Jeep차로 爆破 現場을 向하여 떠났다.

그러나 이들이 渡江하려고 漢江으로 밀려든 車輛과 人波를 헤치고 간신히 中之島에 위  
치한 派出所에 이르렀으나 이곳을 경비하는 憲兵과 工兵들의 制止를 받게 되어 不得已 下  
車케 되고 이로 말미암아 寸刻을 지체하는 동안 漢江橋는 이 瞬間에 爆破되고 이를 中止  
하려 한 寸前의 努力은 결국 無爲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렇게 이들이 달려가게 된 것은 現  
場과의 有線이 架設되어 있지 않아 迅速히 命令을 傳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되어 漢江橋가 爆破되어 前方에서 作戰하는 모든 부대에 撤收命을 내리지 못하고 그 退路마저 차단하였던 것이다.

당시 憲兵과 工兵들의 制止에도 不拘하고 龍山쪽에서 이곳까지 밀어닥친 車輛과 人波가 爆發現場(中之島에서 세번째 橋脚)으로 밀리는 바 되어 人命被害가 加重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損失은 車輛 50대, 人員 500~800명에 이른 것으로 目擊者에 의하여 推算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하여 당시 漢江橋 以北에서 서울 市內로 밀려드는 敵을 阻止하면서 싸우던 推定 44,000명의 장병의 行方이 알 수 없게 되고 제 7사단의 경우 不過 500명의 장병과 장비 中 기관총 4정 밖에 漢江 以南으로 남지 못하였다. 또 제 1사단의 경우 겨우 5,000명만이 幸州 나루터로 漢江을 넘어서고 各種 砲는 北쪽에 遺棄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제 2, 제 3, 제 5의 3개사단 역시 分散된채 뗏목이나 나룻배로 渡江하였기 때문에 部隊建制의 維持가 困難하였다.

이로써 서울 失陷後에 急編된 漢江線의 防守에도 混亂을 가져왔는데, 이 爆破로 인한 損失은 비단 軍事的인 側面만이 아니어서 軍 作戰만을 信賴하다가 避難같이 딱히게 된 政府要員들과 市民들은 敵의 魔手에게 휩싸여 虐殺되거나 地下로 潛入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며 미처 搬出하지 못한 수 많은 政府 財産은 敵의 好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工兵監 崔昌植 대령의 軍法會議 : 이 爆破는 결국 時機와 方法의 잘못으로 是非와 世論이 紛紛하여 一般의 怨聲은 洛東江에서 彼我 一進一退를 거듭할때까지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事態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단계에까지 이르게되자 爆破時의 총참모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輿論이 有力하였지만 그는 이미 7월 29일에 河東에서 戰死한 뒤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국방부장관 申性模는 同년 8월 25일과 26일에 제6사단 전투지구인 軍威에서 我軍工兵隊가 埋設한 地雷에 後方으로 撤收하던 제2연대 제3대대장 李雲山 중령을 비롯한 50명의 사상자를 내는 事故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장관은 이의 真相조사를 命命함으로써 조사에 나선 憲兵들이 사고책임이 工兵監의 지휘감독이 不充分하다고 斷定하게되고 同일로 崔昌植 대령을 구속하였으며 그리하여 조사를 받는 동안 구속이유인 勤務怠慢 외에 漢江爆破責任을 묻는 敵前非行이란 罪科가 추가되었다. 9월 10일에는 陸本特命 甲 제127호로 軍法會議가 設置되어 崔대령은 이에 回附되었다. 이로써 同월 15일에 檢察官 李龍錫대위 관여로 審理된 재판에서 同대령은 근무태만에 대한 것은 無罪가 되었으나 敵前非行의 罪科는 有罪宣告를 받아 다음날인 16일 14.00에 釜山郊外에서 銃殺刑의 執行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우로 崔대령은 漢江橋 폭파로 因한 책임을 지게된 兇인인데 이 軍法會議의 判決은 폭파를 직접 命命한 蔡秉德소장이 戰死한 然後이므로 마땅히 軍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었던 申性模에 의하여 命숨을 忠實히 實行한 工兵監으로서의 參謀 職 임을 지고 處刑을 받는 結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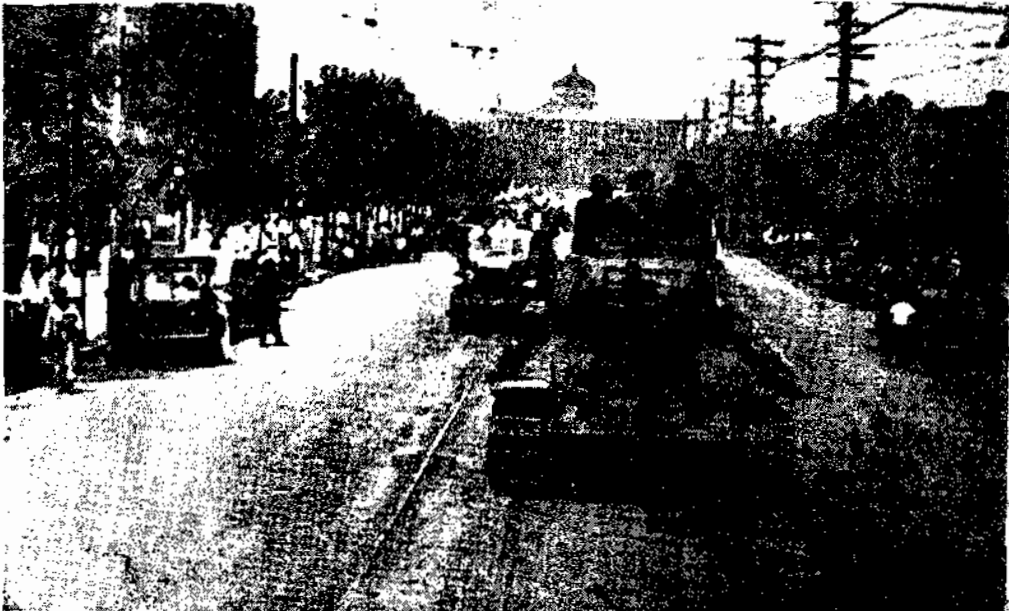
그러나 이 判決은 軍法の 再審制가 採擇되자 1961년 9월에 崔대령의 夫人 玉貞愛에 의 하여 再審이 請求되고 이를 接受한 陸軍本部 보통군법회의는 다음해 5월15일 原審判決 不認 및 無効를 선고하기에 이르렀고 1964년 10월 23일 結審公判에서 故 崔대령에게 無罪가 선고되었다. (研究참조)

#### 라. 戰線 各부대의 戰況

28일 01.00무렵 敵戰車의 市内侵入과 便衣隊의 侵透로 隨意撤收케 된 彌阿里 阻止線의 각 부대는 敵이 먼저 要路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建制를 維持하지 못한채 分散되어 漢江以 南으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02.30에 漢江橋가 爆破되었기 때문에 그 以前에 漢江線에 當到하지 않은한 市内를 通過한다는 것은 無意味한 노릇이었다.

따라서 前方부대들은 外廓지대를 빠져 廣津橋 일대와 麻浦 그리고 幸州와 二山浦지역에 서 民間船便으로 渡江하여 서울과 漢江以北지역에서 撤收하였으나 다만 漢江大橋가 爆破 되기前에 이곳을 通過하여 撤收한 부대는 제16연대의 一部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比較的 建制를 유지하여 廣 나부부근에서 渡江할 수 있었던 부대로는 제8연대 제2대 대(장, 高白圭 소령)와 제15연대의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 그리고 제20연대의 제1대 대(장, 金漢柱 소령)로서 이 부대들은 대체로 兵力의 50~80%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市內에 侵入한 北傀戰車>

그리고 市內를 통과하여 漢江沿岸으로 가는 途中에서 各個 分散되어 부대는 제1연대 일부 兵力이 城北경찰서 부근에서, 그리고 제20연대 제1대대의 일부 兵力이 岩峯洞에서 각각 그 主力과 離脫하여 北岳山쪽으로 向하였으며 또한 제3연대의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는 安國洞의 豐文女高에 집결하였다가 中央廳앞에서, 그리고 제25연대 장, 金炳徽, 중령)의 일부 兵力은 北岳山 부근에 이르러 각개 分散으로 撤收하였다. 이러한 混沌된 狀況속에 廣津橋 일대에는 泰陵 쪽을 경유하여 모여 든 제9연대의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와 제5연대의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 그리고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 일부 兵力 및 陸軍士官학교(장, 李俊植 준장) 등이 彌阿里 右側의 部隊들과 合流하여 渡江의 混雜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의 廣津橋는 04.00에 爆破되었으므로 이 時間 以後는 모두 나룻배를 利用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西水庫 부근에는 陸軍本部를 위시하여 在京殘存부대 장병들이 모여 들었으며 麻浦 주변에는 彌阿里的 西側方에 配置되었던 兵力들이 이곳에서 渡江을 시도하였다.

당시 漢江에는 廣津橋를 包含하여 5개의 橋梁이 있었으나 모두 爆破되었기 때문에 벌단의 渡河수단이 없었던 각부대는 별 수 없이 民間用 나룻배나 急造한 浮遊物을 利用하여 對岸을 수차 왕래하면서 渡江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개별적으로 행동한 장병들은 대안으로 건너간 나룻배들이 되돌아 오지않아 渡江에 困難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는 民間 人波가 많았던 西水庫부근이 더욱 심하였다.

한편, 서울 市內의 각 綜合병원에 임시 수용된 전상자에 대한 後送對策은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었다. 開戰직전인 6월 24일 현재로 각 육군병원에 入院 加療中인 患者는 수도육군병원(大方洞)에 152명, 제1陸軍병원(富平)에 518명, 제2육군병원(大田)에 200명 제3육군병원에 129명, 제5육군병원에 277명 등으로 도합 1,276명이었으나 開戰 3일 동안에 3,200명의 전상자를 내어 병원의 수용能力이 초과됨으로써 그 긴급대책으로 서울大學 부속병원(鍾路)과 서울衛生병원(淸涼里) 그리고 서울赤十字병원(西大門)과 서울市立병원(乙支路) 및 鐵道병원(龍山) 등 市內 綜合병원에 이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 각병원에 수용된 전상자는 서울大學병원에 100명, 그 밖의 병원에 각 70명씩 수용되었던 것으로 推算되나 突變된 상황을 모르고 있던 그들은 北傀가 갑자기 市內로 突入하자 스스로의 길을 擇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울大學病院의 경우 1개소대규모의 경비병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으나 새벽에 敵이 市內에 侵入하자 움직일 수 있는 전상자 80여명을 姓名未詳의 장교가 지휘하여 同병원 뒷山으로 올라가서 敵을 퇴後까지 阻止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남아 있던 重傷者 및 一般환자들은 뒤늦게 侵入한 北傀군에 의하여 虐殺을 당하였으니 그 悽慘한 光景은 이를 形容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絶望과 悲運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南山으로 退避한 일부 장병들은 그곳에

서 전지를 구축하고 白虎부대라는 別稱으로 뭉쳐서 끝까지 抗戰을 계속하다가 壯烈한 戰死를 하거나 地下로 숨어 한때 遊擊戰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例가 바로 參謀學校 副校長 李龍文대령(1953년 6월 24일 智異山地區에서 戰死)의 경우이다.

그는 28일 아침까지 彌阿里일대에서 장병들을 督勵하다가 戰線이 崩壞되기에 이르자 일부 兵力을 引率하고 南山으로 들어가서 遊擊戰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兵力의 損失이 加重되고 行動의 制約을 받게 되자 이를 一드 포기하고 地下에 숨었다가 9.28收復後에 復歸하는바 되었다.

또한 首都失陷이라는 悲運을 앞에 놓고 撤收의 恥辱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大義를 向하는 길이라 생각한 安秉範 대령(靑年防衛隊의 首都防衛隊 교문)은 自決로써 守護의 大任을 다하지 못한 恨을 풀기도 하였다.

즉, 北傀가 서울을 席捲하기 시작한 28일에 그는 夫人 張嘉廷에게 『나는 먼저 갈터이니 다섯 아들을 고이 키워 後日 祖國에 바쳐 怨讐를 갚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다음날인 29일에 洗劍亭쪽의 仁旺山으로 들어가 巖石위에서 匕首로 割腹 自決하였는데 마지막 그가 남긴 遺書에 이르기를 『久遠한 義에 살기를 願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義를 좇는 자는 永遠히 살 것이며, 不義를 따르는자는 永遠히 滅亡할 것이다. 싸워 國土를 지키지 못하는자는 죽어 마땅할 것이니 赤狗를 물리치고 樂土건설에 기둥이 되면 너희의 義務는 다하느니라.』고 적혀 있었다.

#### 마. 軍指揮部の 動靜

27일 23.00부터 彌阿里阻止線의 戰況이 敵의 侵入으로 急轉되기에 이르자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彌阿里地區전투사령관)은 戰線의 持久가 어렵다고 判斷하고 參謀長 朴炳權 대령을 陸軍本部에 急派하여 긴급 措置를 건의케 하였으나 아무런 連絡이 없었다. 이에 그는 子正이 지나서 隣接의 제7사단장 劉載興준장(議政府地區전투사령관)에게도 傳書를 보내어 事情을 알아보도록 하였으나 역시 『아무도 없다.』라는 要旨의 報告에 接하게 되었으므로 情況이 多岐하여 臆함을 觀斷하고 각부대에게 『곧 撤收하여 鷲梁津으로 집결하라.』라는 긴급命書를 下達하였는데 이때가 28일 01.00였다.

그 뒤 同사단장은 後斜面에 있는 지휘소에 이르러 憲兵參謀 朴昌錄대위 및 士兵 1명과 함께 jeep차에 同乘하여 그곳을 떠나 撤收하였는데, 途中 昌慶苑入口에서 敵戰車와 遭遇하는바 되었으므로 이를 避하여 往十里쪽으로 迂回하여 市內를 빠져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陸軍本部에 到着한 시간은 總參謀長이 떠난 直後인 02.00로 推測되는 바, 이때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에게 상황을 追達하고 제7사단장이 戰死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劉載興준장은 전날밤인 27일 21.00에 對戰車방어對策을 보고하기 위하여 陸軍本部로 總參謀長을 찾았으나 『陸軍本部는 이동할 터이니 곧 돌아가서 陣地를 지키라.』는 要旨의 下命에 따라 그 길로 戰線으로 되돌아 가는 등 東奔西走하였던 것이다.

또한 앞서 陸軍本部에 파견된 제5사단 參謀長 朴炳權 대령은 作戰局長 張昌國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다음 原隊에 復歸하는 도중에 致岩洞 電車終點에 侵入한 戰車 4대를 확인하고 彌河里의 지휘소에 到着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사단장이 撤收한 뒤였다. 따라서 그는 情報參謀 金容柱 중령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와 이날 07.00부렵에 陸軍本部經由로 西水庫쪽에서 渡江하는 바 되었다.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參謀副長 등이 總參謀長의 先渡江을 권유하고 있었다.

당시 連絡임무를 띠고 前方에 나가있던 姜文奎 대령(假稱 陸軍本部 前方指揮所長)에 의하여 이미 말한대로 『敵의 戰車가 市內에 侵入하였다.』라고 함으로써 漢江橋의 폭파가 임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金白一 대령은 이때 人事局長 姜英勳 대령이 그의 소수장병들과 함께 三角地부근에 車輛障壁을 설치한 다음 復歸한 것을 確認하자 總參謀長 수행원으로 그를 指名하고 後事는 자신이 맡을 것이라 하여 一行을 出發케 하였다.

이리하여 前記 兩사단장은 敵侵과 거의 同時에 지휘소를 떠나게 되고 兵力은 建制를 잃은 상태에서 撤收가 시작되었으니 앞으로의 문제는 漢江線에서의 防守만이 起死 回生の 防策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이다.

國防部長官 申性模는 27일 14.00에 申東雨중령 및 數名の 警衛원과 함께 國防部를 出發하여 이날 15.00 水原驛에 當到하였다.

海軍總參謀長대리 金永哲 대령 및 空軍總參謀長 金貞烈 준장은 27일 07.00 국방부首腦회의가 끝난뒤 각군본부에 歸營하여 自體撤收회의를 가진 다음 14.00~17.00사이에 水原으로 이동하였다.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은 總參謀長이 陸軍本部를 떠난지 30분뒤에 그를 뒤따라 나섰으나 漢江人道橋 200m 못미쳐서 同橋梁이 爆破되어 渡河지점을 찾아 헤메다가 날이 샅무렵에 西水庫부근에서 小舟로 渡江하였다.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은 05.00에 陸軍本部에 들렀다가 날이 샅무렵 半破된 鐵橋로 渡江하였다.

參謀學校長 金弘壹 소장은 學校의 殘留人員들에게 撤收를 지시한 다음 總參謀長의 뒤를 따라 漢江大橋를 거쳐 鷺梁津으로 撤收하였으며 이때 姜文奎 대령도 後續하는 바 되었다.

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은 情報局長 張道英 대령을 同伴하고 作戰局長 一行을 뒤따라 出發하였으나 橋梁300m 못미쳐서 同橋梁이 爆破되어 西水庫쪽으로 渡江하였다.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丁來赫, 孔國鎮 兩 중령을 同伴하고 02.30이 거의 되어 漢江橋 爆破中止命令을 傳達하기 위하여 漢江派出所에 이르렀으나 同橋梁이 爆破되어 西水庫쪽에서

小舟를 이용 渡江하였다.

軍需局長 楊國鎮 대령은 軍需局 要員과 함께 漢江橋부근에서 渡江길을 찾다가 05.00에 破壞되지 않은 鐵橋를 이용하여 汽動車便으로 渡江하였다.

이상이 主要 지휘부 人士들의 撤收과정인바 이때 漢江大橋의 早期爆破와 이에 따른 軍指揮部의 動向을 모르고 있었던 美軍事고문단(KMAG)要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慌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이들은 陸軍本部側과 漢江橋의 爆破는 戰車가 龍山부근까지 當到하였을 때 이를 爆破하는 것이 適當할 것이라는 相互 意見 交換에 따라 그와 같이 施行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21.30에 作戰局 임시 고문인 Peter W. Scott 중령은 상황실에 나타나 짐을 꾸리고 있는 陸軍本部 상황실 장교들을 發見하고 『總參謀長이 撤收命을 下達하였느냐?』고 물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一旦 상황에 대해 安心하고 同團장代理 Wright 대령의 指示로 23.00에 대부분 그들 宿所에 들어갔는데 이날 앞서의 撤收와 復歸로 이들은 재 짐을 풀지도 못한채로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作戰局顧問官 George R. Setberry 소령이 同參謀長 Walter G. Wood, Jr. 중령에게 『漢江橋를 곧 爆破한다.』라는 報告에 따라 同 대령은 즉시 陸軍本部로 달려와서 金白一 대령에게 『兵力 및 裝備가 撤收할때까지 爆破가 保留되어야 한다.』라고 要請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金白一 대령은 이때가 張昌國 대령을 漢江으로 急派하여 同 橋梁의 爆破를 中止토록 措置한 直後였으므로 그의 要請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 잠시 뒤에 漢江大橋가 爆破됨으로써 이들은 결국 渡江치 못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蔡總參謀長 고문인 James W. Housman 대위와 Robert T. Hazlett 중령은 美軍동군사령부와의 連絡때문에 總參謀長을 發續하여 水原飛行場으로 直行하였으나 陸軍本部에 남게된 同團長 Wright 대령을 비롯한 殘留 要員들은 그 行路를 잃고 右往左往하게 되었다.

따라서 地形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은 夜間行動은 危險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뒷山 소나무 숲에서 待避하고 있었다.

이때에 李致業 대령(作戰局 敎育課長)은 소속 장병들과 함께 安國洞에 barricade를 치고 豊文女高에 集結한 落伍장병들을 督戰하다가 漢江橋부근으로 부터의 爆音을 듣고 尋常치 않게 여긴 나머지 곧 陸軍本部에 復歸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陸軍本部는 모두 비어 있었으며 美고문단 要員만이 뒷山에 모여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들이 길을 잃은 同要員들임을 알고 즉시 Wright 대령과 協議하여 28일 07.00에 西永庫쪽으로 誘導하고 그곳에서 다시 나룻배 1척을 求한 다음 逐次 對岸을 往來하면서 이들을 모두 渡江케 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敵侵 3일만에 漢江線以南으로 撤收하게 되지만 서울에 侵入한 北僞는 제 3, 제 4 사단의 主力으로 中央廳, 서울市廳, UN韓國復興委員團, 駐韓各국大使館, 각신문



〈美공군단 철수의 有功으로 美 Legions Medal을 수여받은 李致業 대령, 1951. 6. 18〉

사와 방송국 등 主要公共建物を 先占한 다음, 이른바 軍事革命委員會로 하여금 國유재산과 私有 재산을 沒收하고 各급 政黨社會단체의 代表들을 強制로 動員하여 戰爭物資의 強徵과 兵力의 補充策을 迫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魁首 金日成一味徒黨은 이날 그들의 先頭 부대가 市内에 侵入하자마자 放送을 통하여 서울 占領을 發表하는가 하면 北傀 司法相인 李承燾을 이른바 서울市 人民委員會 委員長으로 任命하여 無慈悲한 共產主義 施策의 本格化를 策動하였다.

이와같이 北傀는 侵略戰爭과 併行하여 政治的 支援體制를 갖추면서 제2단계 작전으로 移行하였 으니 이들의 다른 目標은 『美軍이 參戰하기前에 漢江을 건너 永登浦—水原—平澤軸線으로 계속 南侵한다.』라는 方針아래 제1, 제3, 제4, 제6사 단등 4개보병사단과 제105기갑여단으로써 漢江 渡河作戰을 確切하게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作戰局 教育課長 李致業대령

(1977. 3. 2 戰後委員會에서, 예준장)

安國洞에서 車를 되돌려 陸軍本部로 나오는데 人波가 街頭를 매워 行動이 遲滯되었고 더구나 서울驛附近에는 北德軍 tank가 들어와 있었기때 문에 이를 避하여 陸軍本部에 到着한 것이 04.00 경이라고 推測된다.

陸軍本部에 와서 내방에 가보니 狀況板등 모 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 다. 그래서 二層과 地下室등을 모두 찾아보았으나 亦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나 오다 陸軍本部안에 있는 나무숲속에서 응성응성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보니 美軍事顧問團要 員들이 웅크리고 무엇인가 談議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 어디가고 당신들만 여기에

남아있는나?』고 물으니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다 어디갔느냐』고 反問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始末至終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美軍은 오늘 漢江을 넘어갔다 왔는데 그동안 다른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리고 이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漢江橋가 爆破되었기 때문에 夜間에는 行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證人은 當時 美 軍事顧問團 要員이 韓國人 從業員을 包含하여約 70名 程度라고 하며 이중에는 New York Herald Tribune誌의 東京特派員인 Marguerite Higgins女 記者 1名이 包含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이 밝은 다음 水泳할줄 아 는 사람을 選拔하여 먼저 江을 건너가게 한 다음 차별로 나머지 사람들도 건너가도록 支援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들의 計劃을 말한 다음 그들은 다

시 나에게 『당신 家族들을 爲해서 私服을 갈아 입고 市內에 숨어있겠는가? 아니면 우리의 作戰에 協力해서 江을 건너가겠는가?』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생각할 수 있는 餘裕를 달라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亦是 舊 日本軍隊에서 배운 軍人精神대로 새삼스럽게 家族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들에게 『당신들을 도와서 渡江하도록 하겠다.』라고 굳게 對答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宣誓까지 하라고 해서 宣誓를 한 다음 곧 내가 앞장을 서서 行動을 開始하게 되었는데 漢江쪽까지 오니까 수많은 民間인들이 江을 건너려고 짝 깔려 있는데 새벽녘 달빛은 아직도 흰하게 四方을 비추주고 있었다.

우리의 가까운 視野內에는 약 150m 距離(지금의 제3漢江橋 부근)에 있는 나룻배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치던 판이었지만 나는 不得已 責任을 完遂하기 爲하여 차고 있던 拳銃을 빼들고 그 쪽을 向하여 危務射擊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뱃사공이 뱃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오기 始作했는데 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江邊에 到着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民間인들이 와—하고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 主力部隊를 먼저 救出해 내야만 이 次期作戰에 勝利할 수 있다.』고 누누히 說明하면서 民間人들을 겨우 제치고 顧問團 要員들만을 태워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兵器顧問인 듯한 중령 한 사람이 뱃사공의 등에 풀린 옷구멍을 가리키며 『銃彈이 스쳐간 자욱을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뱃사공의 옷을 들추어 보니까 거기에 내가 쓴 拳銃彈이 스쳐간 기다란 자욱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3번째 나룻배가 떠나려고 할 때 美軍 事顧問團長이 『나는 여기 더 남아서 狀況을 東京에 報告해야 하겠고 아직 北德軍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먼저 건너가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적지않게 놀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美軍은 上官의 冊床위에나 걸터앉아서 弄談이나 하고 規律과 禮儀가 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런 사람이 어떻

게 戰爭을 하나.』며 한심스럽게 생각해왔는데 實際 戰爭이 일어나니까 泰然한 姿勢로써 『이제 내가 할일은 다했으니까 나는 繼續 이곳에 남아서 戰況을 보다가 나중에 헤엄쳐 건너가겠으니 먼저 가시요.』하며 渡江을 拒否하는 것이었다.

結局 잡아뜰다시피 해서 같이 나왔지만 그의 勇氣와 責任感을 보고 역시 歩兵대령은 다르구나 하며 깊이 느낀바 있었다.

#### ◇ 作戰局長 張昌植 대령

(1977. 2.27 葵忠洞 自宅에서, 예 대장)

戰爭初期의 作戰指導와 當時 狀況을 整理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作戰指導 或은 戰爭指導 體系가 전혀 서 있지 않았다고 본다.

勿論 그때 나를 포함해서 거의가 年少했고 또 戰爭 經驗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決心을 할 때에는 參謀會議나 參謀들의 判斷에 依하지 않고 上部 指揮官이 單獨으로 決心하여 이를 實行했기 때문에 나쁜 結果를 가져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25일 부터 漢江橋 爆破時까지 거의 作戰 狀況室에서 혼자 있으면서 部隊의 作戰指揮와 上部에서 決心한 사람을 指示하고 部隊를 再配置하는중에 汨沒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루어진 狀況은 전혀 記憶이 없고 또한 當時 내가 作戰局長이지만 參謀副長이나 總參謀長에게 建議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위에서 내려오기만 했는데 지금과 比較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漢江 爆破와 같은 큰 問題를 다룰 때에는 作戰會議를 열어서 決心事項을 參謀 或은 該當 指揮官에게 下達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보는데 6월 28일 漢江橋 爆破 當時에 돌은바에 의하면 이러한 會議가 없이 工兵監 崔昌植 대령이 『서울의 一部에 敵의 戰車가 들어온 後 2時間 40分인가? 얼마後에 漢江橋를 爆破해야 한다.』는 建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崔大領의 建議가 어느部(局)에 屬한 會議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作戰局長인 나 自身도 거기에 參與한 일이 없고 또 누가 爆破를 決定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漢江橋 爆破에 關聯해서 서울 市民의 撤收間

題는 radio 放送과街頭放送을 통하여 『서울은安全하다.』라고繼續放送하는 것만 들었고市民의徵收問題를論議한 일이 없었다.

陸軍本部 徵收問題에 있어서도 나 自身이建議하거나判斷한 바 없고 上部의決心한 바에따를 뿐이었는데 27일 오전에 人事局, 高級副官室等 文書를 다루는 行政參謀部가 먼저 一部分徵收했을 때 金白一 參謀副長이 불려서 올라가보니 『大元에서 電話가 왔는데 總參謀長께서 來日 아침이면 MacArthur 司令部와 그 部隊가 서울에 進駐하게 되니 陸軍本部 一部가 南下했던것을 다시 復歸시키라.』는 指示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即刻 南下한 部處에 指示를 내려 27일 午後에 復歸시켰는데 이로 因하여 28일 02.30頃 漢江橋가 爆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人命과 物資被害가 發生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에서 詳及한 바와 같이 漢江橋 爆破豫定時間이 大略 나타나 있기 때문에 28일 夜間에 나는 金白一 參謀副長의 命令에 따라 이를 遲延시키기 위하여 漢江橋 現場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물밀듯 밀려나가는 避難隊列 때문에 漢江人道橋 어구에서 더 以上 前進할 수가 없어서 下車後 徒步로 몇 발자욱 걸자마자 빵! 하는 소리와 함께 漢江橋가 爆破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西水庫쪽으로 올라가서 數名の將兵들과 함께 擔가 없는 조각배 하나를 찾아서 타고 불결따라 손바닥과 판자를 이용하여 헤치면서 渡江한 것이 지금의 鶯梁津 漢江 水位測定所 近處에 닿게 되어 始興으로 가게 되었다.

◇ 工兵學校 教官 李昌龍 소위  
(1977. 3. 8 大林産業 상무理事室에서, 예준장)

當時 工兵學校 爆破教官은 나를 비롯해서 黃元會 중위, 黃龍德 중위등 우리 세 사람이 主教官으로 있었다.

26일 판 사람들은 戰車肉薄攻擊하러 나왔고 우리는 남아 있었는데 11.00경에 陸軍本部 工兵監室에서 오라해서 가 보니까 『漢江橋 爆破偵察을 해오라』하는 것이었다.

그말을 듣고 보니 속이 뜨끔했다.

『이거 어떻게 된거냐. 漢江橋까지 爆破하려고

하는건가?』 이렇게 생각 하였으나 하여간 命令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橋梁 4個를 全部 偵察해 왔다.

偵察을 끝내고 工兵監室 會議室에 돌아온 것은 11.00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爆藥量을 算出해서 提出하나 『27일 10.00에 漢江人道橋 건너편 鶯梁津쪽에서 待機하면 제1工兵團에서 爆藥을 싣고 올터이니 그것을 引受해서 漢江橋에 裝填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爆藥을 싣은 車輛은 豫定時間 보다 2時間이나 늦은 12.00경에 到着하여 우리는 그것을 引受하여 곧 裝填을 끝냈다.

애당초 爆藥量을 算出해 보니까 2ton(4,000 Pound) 가량이 나왔는데 우리가 工兵學校에서 敎育을 實施할 때에는 불과 10~20 Pound 程度의 計算實驗 밖에 해보지 못 했으니까 漢江橋 爆破를 위한 實所要 算出에는 많은 誤差가 생겼던 것이다.

그래서 實計算上으로 人道橋를 爆破 하는데 300 Pound의 爆破量이 나왔기 때문에 充分한 安全度를 考慮하여 약 700 Pound의 爆藥을 裝填했고 나머지 橋梁들도 各各 倍씩에서 全部 裝填한 後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午後 16.00~17.00경, 그러니까 金在植 대위가 議政府에 갔다가 돌아온後 嚴鴻鏞 工兵學校 校長이 『이쪽은(漢江人道橋) 金在植 대위가 맡고 저쪽은(맨끝에 있는 鐵橋) 李昌龍 중위가 그리고 나머지 鐵橋 1개는 제1工兵團에서 맡으라』고 하는 것이다.

任興淳 중위는 爆破校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지 않은 것으로 記憶이 되며 내가 맡은 것은 제일 큰 鐵橋 이었다고 본다(註; 橋梁 4個中 中央에 있는 2個의 爆破責任者는 不分明하다. 特別 下流쪽으로 부터 두번째 鐵橋는 切斷이 斷되어 後日 北傀가 이를 利用하여 漢江을 渡河하게 되었는데 證人들의 말이 相異하고 記憶이 確實치 못하여 여기에서 明確하게 分擔界限을 明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爆破準備를 完了하고 있을 때 金白一 參謀副長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 橋梁은 總參謀長이나, 나 아니면 工兵監 崔昌植대령, 그 다음에 이 사람(工兵學校 校長)命에 依

해서만 끊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記錄에 依하면 參謀學校 校長 金弘愷 소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때 分明히 내가들은 사람 중에 그가 포함된 事實이 없을 뿐더러 金弘愷 소장은 나중에 始興에 가서 만나 될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橋梁爆破는 Carbine 小銃을 連發로 發射後 flash light를 흔들어서 信號하기로 하였으나 人道橋가 爆破될 때까지 두가지 모두 듣지도 보지도 못 하였다.

그런데 實際 橋梁爆破는 오밤중이 지나서 人道橋가 먼저 爆破된 後 차례로 다음 鐵橋가 爆破되기 始作했는데 나는 이때 아무런 連絡을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爆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任興淳 중위가 와서 『鐵橋를 끊어라』고 連絡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點火를 해보니까 爆破가 되지를 않는다.

周圍는 暗暗한데 仔細히 보니까 橋梁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直感的으로 『이거 失敗했구나』 생각되어 그렇다면 『白決을 하든지 決判을 내야 될지 아니냐』며 悲壯한 覺悟를 했다.

그래서 나는 即刻部下들을 全部 거기에 待機하라 하고 혼자서 原因을 確認하러 가려고 하니 까 任興淳 중위가 눈치를 채고 『나도 같이 가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만류하여 現場에 있도록 하고 나 혼자 나가 보니 雷管만 되지고 導線은 터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雷管을 잘라내고 다시 點火를 했더니 爆破가 되었는데(그때 爆음이 크게 나고 불도 번쩍했다) 그래도 完全히 끊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때 使用한 導線은 제 2次 世界大戰때 쓰던 것이었기 때문에 不發이 많고 비군데에 놓았지만 비군데 다 끊어진게 아니고 어느 一部分만 끊어졌었다.

이튿날(28일) 아침에 보니까 完全히 끊어지지 않고 橋梁이 기우뚱해 가지고 連結된 狀態였으므로 徒步로는 건너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었다.

그리고 中央에 있는 鐵橋 2개중 1개는 끊어지고 1개는 不發이어서 그쪽으로 鐵道輸送隊가 動

車를 利用하여 28일 04.00경에 건너온 것으로 記憶되며 그 외에 이곳을 먼저 發見한 사람들이 이 鐵橋로 渡江한 것으로 알고 있다.

◇ 工兵學校 教導隊長 金在楠 대위  
(1977.3.6 東立産業社長室 에, 申장)

陸軍工兵學校가 金浦에 있을 때 나는 教導隊長이었다.

漢江橋爆破를 위한 裝藥은 처음 爆破하는 것이기 때문에 安全度를 높게 해서 裝藥했고 人道橋는 黃元會 중위가, 저쪽 鐵橋(麻浦方向)는 李昌馥 중위 그리고 그 다음이 任興淳 중위가 맡게 되었다(그러나 이 證言은 證人의 記憶이 確實하지 못하여 明確한 分擔責任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分野에 對해서는 李昌馥 證言을 參考할 것).

우리는 裝藥을 하다가 YAK機의 攻擊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장약은 쉽게 끝났다.

그러나 이날 午後에 反擊을 한다해서 爆破를 하느니 않하느니 하다가 車輛 안에서 待機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工兵監 崔昌植 대령이 왔다는 것이다.

(註: 當時 美軍 參戰決定의 소식을 듣고 撤收했던 陸軍本部 一部가 다시 復歸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며 각자저절하기에 나가보니 工兵監이 『敵이 오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며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敵의 戰車다. 빨리 爆破하라』고 命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命令에 따라 李昌馥 중위와 任興淳 중위에게 미리 約束한 信號에 따라 Carbine小銃을 連發로 發射하고 人道橋를 건너 點火하였고 人員은 모두 지금의 營梁津 水源池 쪽으로 待避시켰다(이때의 時間은 잘 記憶하지 못한다).

參考적으로 當時 兵力配置(作業人員)는 黃元會 중위쪽(人道橋)에 1개 소대, 李昌馥 중위쪽(複線鐵橋)에 1개 소대, 그리고 任興淳 중위쪽 單線鐵橋 2개)에 1개 소대씩 配置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點火가 始作되자마자 人道橋가 瞬息間에 爆破되고 저쪽 鐵橋도 이어서 두개가 爆破되

있는데 1개의 鐵橋는 爆破소리가 나지 않아서 失敗했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되자 鷺梁津 一帶가 修繕場이 되어 人員을 掌握한 수도 없었고 또 각자가 掌握下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始興에 集結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모두 各個行動을 하다시피하여 始興步兵學校로 내려갔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漢江橋를 爆破할 때는 勿論이지만 그 前에도 當時 蔡秉德 總參謀長을 만나본 일이 없고 28일 오밤중에 工兵監이 오셔서 工兵學校 校長(鐵鴻燮 중령)에게 『敵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爆破하지 않고 뭘하고 있느냐』며 爆破命을 내린 것으로 기억된다.

#### ◇ 聯合新聞社 李志雄 記者

(1977. 2. 22 국제해운공사에서 同專務)

27일이 되니까 北德航空機가 서울上空을 설치고 다니면서 기총소사를 하였고 한편 國會에서는 수도死守 決議가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슬슬 빠지고 午後가 되자 前方에서 부상자를 실은 차들이 市内를 통과해서 兩쪽으로 가니까 市民들은 落心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하며 愕慌한 表情들이었다.

이날 저녁 社長집에 갔더니 마침 祝杯를 들고 있기에 『모두들 後退하는 형편인데 축하가 됩니까?』 하였더니 『radio放送에서 蔡秉德 장군이 肉聲으로 「首都는 걱정없다. 死守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자네 왜 그러냐』하는 것이었다.

어두워질 무렵 상황이 궁금하여 陸本쪽으로 나가보기로 하였더니 큰길을 truck으로 2重3重으로 막아 놓았기에 물어보니 『거기에는 dynamite를 장치해서 tank를 막는다』는 것이다.

나는 우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곧장 陸本에 들어갔더니 모두들 歎困해 보였으나 『李大統領이 激勵을 하고 가셨다』며 士氣가 올라있는 것 같았고 단단히 작오를 하고 있는 것같은 表情들이었다.

23.00경이 지나서 漢江쪽으로 가려고 하니 漢江橋쪽은 南下하려는 사람들로 막차 있었기 때문에 꼼작할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섰지만 당시

친구중에 李祐成 중령이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jeep차로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내 形勢은 서울에 親戚도 없이 우리 内外만 단둘이 살고 있으며 더구나 아내는 滿期이어서 나만이 살겠다고 서울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 § 研究

### (1) 市街地 防禦에 대하여

軍이 首都서울을 끝까지 固守하겠다는 方針이서 있었다면 當然히 市街地 防禦計劃이 樹立되고, 部隊도 이에 따라 展開되도록 措置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總參謀長의 首都固守概念은 消極的인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인데 다시 말해서 首都圈外廓에서의 敵을 擊退하는 것이 首都를 固守하는 最善의 方法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따라서 그의 首都固守概念은 軍事的인 것보다 政治的意味가 더 크다 할 것이다.

市内의 要所에 緊急히 防柵을 치고 局部的인 防護策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아무런 役割도 하지 못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와같이 組織的인 戰鬪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의 無防備狀態에서 敵侵을 許容하였다는 것은 軍事面에서 볼 때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市街地는 防者에게 有利한 障礙物이 많고 또한 組織的으로 長期間에 걸쳐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戰場이기 때문에 主要據點單位(區劃)로 아니면 部分據點만이라도 形成하여 積極的으로 戰鬪를 전개해 볼만한 곳이다.

韓國戰爭期間동안 2회에 걸친 서울收復作戰에서 敵이 이곳에서 頑強히 抵抗함으로써 市内의 主要建物들이 이때 거의 破壞되었던 戰鬪에 비추어 볼 때 이 飭戰에서 我軍의 서울撤收는 너무나도 값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漢江橋 爆破시간에 대하여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 대한 軍法會議 記錄에 따르면 漢江橋 爆破시간에 대하여 각자가 主張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崔昌植 대령	28일 02.30
鐵鴻燮 중령(證人)	" "
李商淵 대위(證人: 제51통신대대 소속)	

28일 02.30

金淳久 소위(證人: 憲兵司令部 소속)

02.22~02.28

이밖에 爆發시간에 대하여 證言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서 比較해보면 당시 始興步兵學校로 撤收한 기갑연대장 劉興守 대령은 爆음을 들었을 때 시간을 보니 02.30이라 하였다.

또 城南中學校에서 이 爆음을 들었다는 金錫淵 준장(예)은 즉시로 步哨에게 시간을 물으니 03.00였다고 한다.

한편 美고문단의 Housman 대위와 Hazlett 중령은 東京과의 연락차 水原으로 가기 위해 人道橋를 건너는 지 5~7분만에 爆음을 들었는데 이 때 가 이들은 02.15와 02.17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爆發시간은 모두 차이가 있으나 軍法會議에서 밝혀진 바는 모두 02.30으로 되어 있어 共通點이 있으므로 이에 따랐다.

### (3) 敵 戰車의 서울侵入經路와 日時에 대하여

北傀의 戰車가 최초로 서울에 侵入한 經路와 日時에 대하여 既 刊行된 戰史에서 밝힌 바 있으나, 今 般本改訂版 작업과정에서 面談한 여러 參戰者의 證言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當時의 狀況을 종합分析한 결과에 따라, 그 內容을 前者와 달리하였음을 밝혀둔다.

27일 14.00 倉洞線을 蹂躪한 北傀 제4사단은 그 餘勢를 몰아 同日 17.00에 彌阿里線으로 肉迫하였던 것이나, 이곳을 堅守하고 있던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와 倉洞線에서 철수한 부대들의 善防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대의 戰車를 遺棄한 채 退却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 初夜부터 暴雨가 쏟아지기 始作하고 그 뒤로는 그들의 侵襲氣色이 보이지 않았던 까닭에, 當時의 여러 指揮官이 判斷하기를 敵의 夜襲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拂曉作戰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四方은 寸尺을 分擘하여 려운 暗黑인데다 各 陣地를 占領한 장병의 大部分은 中間의 不眠不休에서 온 疲勞가 겹쳤음인지 잠든데다 一部 병력은 비를 피하여 陣地를 離脫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事實上은 無人地帶와도 같았던 것이다.

敵은 이러한 虛點을 짚러 28일 01.00를 前後하여 10여대의 戰車로써 彌阿里戰線을 突破하고 서울 侵襲에 成功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全히 我軍의 抵抗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니, 暗黑속이기는 하나 戰車의 轟음을 들은 兵士들이 많았으며, 吉春橋와 彌阿里고개 右側에 配置되었던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 이하의 장병에 依해서 발각되어 阻止사격을 받았고, 金桂元 중령이 指揮하는 105mm曲射砲의 砲撃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同 고개의 南側에 서는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 同 사단 참모장 朴炳權 대령,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 同 사단 군수참모 尹永模 소령, 陸本 前方지휘소장 姜文奎 대령 등 여러 사람이 彌阿里고개를 넘어오는 戰車를 目擊하였다.

이에 反하여 陸軍戰史 第2卷(第1章 第5節 서울攻防戰)에서 『敵은 我軍의 堅固한 彌阿里線을 뚫지 못하고 28일 02.00 農林試驗場으로 迂廻하여 清凉里方向으로 變襲하였다.』고 하였으나, 當時 이곳은 田畠과 野地로 되어 있는데다 비가 오는 夜暗이었고, 또한 38°線에서 彌阿里線에 이르기까지 我軍에는 對戰車火器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러한 無謀를 무릅쓰고 서울奪取를 敢行하였으리라고는 軍事常識으로 보아 首肯키 어렵다.

또한 『敵의 戰車가 京春鐵道로 無數하게 南下하였다.』고 하는 說도 있으나 當時 中浪橋附近에 배치되었던 제5중대장 安泰甲 중위는 同 대대가 28일 14.00 그곳을 철수할 때까지 敵 戰車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前方인 泰陵地域에 배치되었던 生徒대대에서도 그 前面으로 戰車의 侵入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事實로 보아 28일 아침 清凉里方面에 出現하였다는 戰車는 彌阿里고개로 侵襲한 戰車가 市內 要處로 分散配置된 것으로 推斷된다.

### (4)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 대한 有罪判決文

1950년 9월 15일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 대하여 死刑을 宣告한 軍法會議(陸軍 特命甲 제127호)의 判決原文은 다음과 같다.

判決文

本籍: 서울市 西大門區 玉泉洞 103



所屬：陸軍本部 工兵監室

工兵監陸軍大領 12318 崔昌植

上被告人에 對한 敵前 非行 勤務怠慢事件을 檢紀 4283年 9月 10日 陸軍特命 甲 第127號에 依하여 設置된 軍法會議는 檢察官 陸軍大尉 李龍錫 關與 審理한 結果 下記와 如히 判決함.

1. 主文

判定：罪科 第1에 對하여 無罪(勤務怠慢)

罪科 第2에 對하여 有罪

判決：被告人은 死罪에 處함.

2. 判決理由

罪科 第2 敵前 非行罪에 對하여 被告人 陸軍大領 崔昌植은 日本 陸上工兵科를 卒業하고 日本 陸軍에 服務하다가 解放後 歸國하여 檢紀 4281年 12月頃 陸軍 少尉로 任官하여 工兵 團長의 職에 就任以來 累進하여 檢紀 4282年 6月 20日 工兵監의 要職에 補任되어 現在에 至한 者로서 今般 6.25 北韓 共產軍 不法 南侵으로 因하여 首都서울의 死守가 不可能하게 되자 6月 27日 陸軍本部 參謀會議에서는 傀儡軍 戰車가 서울市內에 侵入하면 漢江 鐵橋 및 人道橋를 爆破하기로 決定하고 當時 陸軍總參謀長 蔡秉德少將은 工兵監인 被告人에게 該 工事を 實施할 것을 命하였던 바 被告人 崔昌植은 當時 工兵 學校長 陸軍 中領 嚴鴻燮에게 爆破準備 工事を 命하여 今日 15時 30分頃 該 工事を 完了하고 待機中 翌 6月 28日 午前 2時頃 我軍이 全戰線에서 後退하게 되자 龍山陸軍本部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橋梁爆破에 對한 電話 命을 受함을 契機로하여 敵情도 確實히 把握하지 못하고 繼續하여 渡橋하는 陸軍部隊에 關한 考慮를 全然 度外視하고 今日 午前 2時 30分 漢江鐵橋 三個所를 爆破하고 10分後에 再次 人道橋를 爆破하여 莫大한 車輛과 兵員은 橋梁 切斷 間隔으로 墜落하고 無數한 車輛裝備 및 軍需物資는 敵에게 擄獲當하고 數萬 兵員은 渡橋 未完了로 因하여 一大 混亂을 惹起하였음.

前示 犯罪 事實을 審按컨대 設令 橋梁 切斷 命이 有하였다 하더라도 敵情을 確認하고 我軍部隊가 完全히 渡橋한 然後에 切斷 工事を 實施함은 技術參謀인 工兵監의 責務이며 被告人 崔昌植은 部下 工兵을 指揮하여 我軍의 渡河狀

況을 確認하고 徹底한 橋上 交通遮斷을 斷行한 然後 切斷하여야함에도 不拘하고 切斷 工事 全體에만 汲汲하여 繼續하여 渡江하는 我軍 部隊를 認識하면서 橋梁切斷을 實施하므로 前示와 如한 結果를 招來하였음은 軍法 第27條 敵前에서 非行 又は 怠慢으로 因하여 部隊의 安全을 危殆케 하는 行爲에 該當하므로 軍法 第27條를 適用하여 主文과 如히 判決함.

檢紀 4283年(1950年) 9月 15日

陸軍本部 成嚴高等軍法會議

裁判長	陸軍대령	元泰燮
法務士	“ 中령	高元增
審判官	“ 대령	沈彦休
“	“ 中령	李 曉

(5) 故崔昌植 대령에 無罪를 宣告한 判決文

1963년 8월 19일에 再審請求되어 1964. 10. 23일에 無罪로 宣告된 判決의 理由는 다음과 같다  
理由

本件 公訴事實의 要旨는

被告人은 1948年 12月頃 陸軍少尉로 任官하여 工兵團長의 職에 就任以來 累進하여 1949. 6. 20 大領으로서 工兵監의 職에 補任된 者인바 1950. 6. 25 北韓 共產軍의 不法南侵이 있은後 同年 6月 28日 午前 2時 30分頃 敵前인 서울特別市 漢江橋南岸에서 陸軍總參謀長으로부터 漢江橋를 爆破하라는 命을 實施함에 際하여 서울市內에서 後退中인 我軍의 渡河 未完了部隊가 莫大한 數임에도 不拘하고 此狀況 考慮하지 않고 同橋梁을 爆破하는 非行을 함으로써 我軍의 安全을 危殆히 한것이라함에 있는바 審按컨대

1. 被告人이 公訴事實과 같이 漢江橋梁等의 爆破를 實施한 事實 및 그 爆破의 時期가 이르므로 因하여 我軍裝備 및 人馬의 後退를 不能케 하고 이로 因하여 莫大한 損失이 있었음은 認定된다.

그러나 被告人은 原審公判廷에서 漢江橋를 爆破한것은 1950. 6. 27 陸本參謀會議에서 決定된 바에 따라서 1950. 6. 28 午前 2時 當時 總參謀長 蔡秉德으로부터 서울市內에 敵戰車가 侵入하였으니 即時漢江橋를 爆破하라는 命을 受하고 그 命에 依하여 同日 午前 2時 30分頃 同橋梁

等を 爆破한것이라고 陳述하여 上官의 命에 依한 것이므로 罪가 되지 아니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가. 同主張事實은 證人 嚴鴻燾의 公判準備節次 및 原審公判廷에서 當時 被告人이 總參謀長으로부터 爆破命을 受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陳述나, 原審 司法警察官 作成의 證人 張道英에 對한 陳述 調書中 陸軍參謀會議에서 戰勢가 不利하면 漢江橋를 爆破할 計劃이 樹立되어 있었음을 들었다는 陳述記載

다. 準備節次에서 受命法務士에게한 證人 金弘걸의 陳述中

(1) 1950. 6. 27 陸本에서 當時 國防長官 申性模, 陸軍總參謀長 蔡秉德, 國防次官 張曠根, 陸軍參謀副長 金白一等이 參席한 會議에서 政府가 撤收한 後인 同日 午前 2時頃 漢江橋를 爆破키로 合意를 보았으나 爆破日時가 다시 延期되었다는 事實을 金白一大領으로부터 들은바 있다는 陳述

(2) 1950. 6. 28 午前 2時頃 蔡秉德이 前示 張曠根과 함께 車輛으로 人道橋를 거쳐 渡江하다가 同所에서 被告人에게 即時 爆破를 命하였다는 말을 金白一大領으로부터 들은바 있다는 陳述

(3) 蔡秉德少將이 人道橋를 건넌것은 1950. 6. 28 午前2時頃이며 約20分後인 同日 午前2時20分頃 證人이 人道橋를 건느면서 爆破를 서두르는 姓名未詳의 將校에게 問한즉 蔡秉德이 지나가면서 爆破를 命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約20分後에 爆破된것이라는 陳述等を 綜合하면 이를 認定할수 있다.

然而면 被告人은 絶對的 拘束力이 있는 上官의 作戰命에 依해 漢江橋를 爆破한것이고 被告人은 이에 服從할 뿐 달리 爆破時間을 變更할수 없는것이 認定되므로 早急한 爆破로써 招來된 漢江北方의 我軍人員과 裝備의 損失은 被告人의 責任이라 할수 없고 이는 刑法 第20條의 正當行爲라 認定된다.

2. 다음 人道橋의 爆破로 因하여 渡橋中인 人

馬車輛이 爆風에 直接的인 被害를 입었다는 事實은 證人 李昌毅의 當公判廷에서의 陳述 原審 司法警察官 作成의 證人 金순우에 대한 陳述 調書 記載等を 綜合하면 認定되는 것이나

(1) 被告人이 原審公判廷에서 한 爆破當時 橋梁上에는 車輛 및 人員이 많으므로 爆破로 因한 直接的인 被害를 막기 爲하여 漢江人道橋 北岸에 警備兵을 세웠으며 그 整理를 爲해 約40分間 爆破를 못했다는 陳述

(2) 證人 嚴鴻燾이 受命法務士에게 한 爆破當時 橋梁 兩端에 警備兵을 세워 人馬 및 車輛의 通行을 阻止 시켰다는 陳述

(3) 證人 李昌毅이 當公判廷에서한 爆破當時 橋梁兩端에 1個分隊 程度의 工兵隊를 配置하여 人馬 및 車輛의 通行을 阻止시키려 하였으나 當時 動員된 兵力의 不足과 嚴酷하는 人馬와 車輛의 勢로 보아 空砲까지 發射하였으나 阻止가 어려웠으며 또한 阻止키 爲해 爆破命을 받고도 約40分間 지체했으나 命을 遂行키 爲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수 없었다는 陳述

等を 綜合하면 비록 人道橋의 爆破로 因해 直接的인 被害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軍作戰을 遂行키 爲한 不得已한 措置로서 이 또한 刑法 第20條의 正當行爲의 範圍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認定된다. 果然 그렇다면 本件公訴事實은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의 證明이 없는 境遇에 該當된다.

以上の 理由로서 無罪로 判決한다.

1964. 10. 23

陸軍本部 普通 軍法會議

裁判長 大領 韓 尊 환

法務士 大尉 吳 道 道

審判官 大尉 裴 龍 洙

原判決은 1950. 9. 20死刑으로 確定되었으나 1963. 8. 19 被告人 裴 玉貞愛의 再審請求에 依한 再審開始 決定(1963. 8. 27)으로 無罪로 宣告된 再審判決은 1964. 11. 3 管轄官 確認에서 原判決대로 確認되어 當審에서 確定되었음.

### 3. 軍部の 動向

#### 가. 開戰前의 國防政策

本節에서는 國防部, 각군本部를 併稱하여 軍部라고 하였는데, 開戰前 어떻게 北傀에 對備코자 하였으며, 또한 緒戰指導와 관계되는 全般 상황과 首都서울 防守를 위하여 어떻게 措置하였는가를 主로 取扱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더불어 誕生케 된 국군은 國軍組織法 및 국방부 職制令으로 그 面貌를 米憵 갖추었거니와 당시에 국군은 從來의 경비대를 母體로 한 15개 연대와 小型舟艇 數隻으로 그 兵力 規模는 53,490명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정부는 날로 激增하는 共產威脅에 直面하게 되어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서는 戰力을 強化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나, 이의 努力은 국가 財政의 弱勢로 말미암아 主로 美國의 對韓軍事援助에 依存치 않을 수 없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對美軍事外交에서 보다 많은 軍裝備를 획득코자 하였으나 저들의 消極政策으로 국군의 急成長을 躊躇한 까닭으로 開戰當時까지 그 規模는 地上軍 23개 연대와 海上勢力 33척의 경비정만을 保有하는 形便이었다. (제1장 제2절 참조)

이와같은 經緯속에 정부는 當初 美國이 同年 12월 12일 UN 總會의 決議에 따라 그들의 군대를 韓國에서 撤收하려 하자 이를 極力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다가 그뒤 그들의 撤收가 實現되기에 이르러서는 兪수 없이 自主國防을 위한 受援策에 依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成果도 期待할 수 없는 가운데 마침내 北傀의 全面奇襲을 받게 되었거니와 建軍한 以來로 開戰時까지 李範奭, 申性模 兩國방부장관에 의하여 主導된 국방정책의 概要를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 (1) 初期의 政策(1948. 8. 16~1949. 3. 20)

1948년 8월 16일에 初代국방부장관(국무총리兼務)으로 就任한 李範奭은 우선 국군이 自衛力을 갖추는데 注力하였다.

더구나 當面の 敵이 국제공산 세력과 連繫하고 있는 만큼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서는 強力한 國防力을 키우는 同時에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民主陣營의 軍事力과 提携되어야 한다고 判斷하고 먼저 地上軍 強化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建軍初의 大任을 遂行하게 된 그는 精兵을 育成하기 위하여 士兵 第一主義를 지도

方針으로 定하고 反共民主군대로서의 基盤을 닦아 나갔는데 이러한 努力으로 당시에 推進되었던 政策의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국군 組織法 및 국방부 職制令의 公布, ② 군부대의 增設과 特殊부대의 創設, ③ 護國軍의 創設, ④ 陸軍 各學校의 增設, ⑤ 국군 三大宣誓文의 公布」 등으로서 이는 滅共과 自衛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국방정책의 첫 措置였던 것이다.

**國軍組織法 및 國防部 職制令의 公布** : 1948년 11월 30일 制憲국회에 提出된 국군組織法은 초안대로 통과를 보아 즉시 法律 제9호로 公布되었다.

이로써 從來의 統衛部는 發展的으로 解體되고, 同法에 의하여 국방부가 그뒤를 이어 軍政全般을 掌理하였으며 기타 軍수에 관하여는 대통령에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朝鮮경비대는 陸軍으로, 해안경비대는 海軍으로 각각 正式 編入되어 국군으로 發足を 보게 되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美軍政의 延長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同法 제2장 제7조에 依據하여 국방부에 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和 海軍本部를 두어 각각 總參謀長을 任命한 다음 예하 각부대와 學校 및 艦隊를 指揮감독케 하였다.

또한 同년 12월 7일에는 대통령령 제30호로 국방부 職制令을 公布(研究 1 참조)하여 국방부에 軍務(제1국), 政訓(제2국), 管理(제3국)外 秘書室과 本部司舍室을, 그리고 陸·海軍에 人事局(제1국), 情報便(제2국), 作戰教育局(제3국), 軍需局(제4국), 護軍局과 各 監室을 두게 되었으며, 한편 同년 12월 15일에는 同法에 따라 陸軍에 11개의 諸兵科와 一般參謀制를 制定하였다.

**軍부대의 增設 및 特殊부대의 創設** : 前述한 바와 같이 建軍과 더불어 군의 기틀을 마련한 李範奭은 1948년 10월 28일 以後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 제21의 6개연대를 增編하고 제7여단을 創設하였다. 그리고 共產主義者들과 對決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활동에 관한 諜報의 수집과 檢察 機能을 담당하는 對敵기구의 強化가 切實하다고 判斷하고 국방부 職制令 제7조에 依據 1948년 12월에 국방부에 제4국(特務局)을 設置하고 이와 前後하여 特殊부대(研究 2 참조)를 創設하였다.

當初 제4국과 特殊부대의 임무에는 同년 10월 19일에 發生한 麗·順叛亂사건과 관련하여 北傀가 南派하는 유격대 侵透路의 封鎖활동 등이 포함되었으나 美군사고문단側의 反對에 부딪쳐 對北활동에 支障을 주었는데 이로써 創設된 부대는 陸軍 水色學校, 各 여단 유격대대, 虎林부대 등이었다.

**護國軍의 創設** : 正規軍과 護國軍으로 국군을 組織키로한 국군組織法의 立法정신에 따라 1948년 11월 20일에 대통령 긴급 임시措置令의 公布를 보아 同일부로 軍務에 服務할 것을 지원하는 青年을 基幹으로 護國軍을 創設하였다. 이의 목적은 制限된 正規軍으로서는 국방의 사명을 完遂하기에 未洽하다고 보고 보다 많은 예비兵力을 事前에 確保하기 위한 것

으로 그 性格 또한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2種으로 區分하여 국방上 必要에 따라 正規軍에 編入토록한 것이다.

護國軍의 신분은 장병 모두가 예비역으로 각자가 거주지의 연대에 소속하여 生業에 從事하면서 必要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것이 特色이었는데, 護國軍 創設에 즈음하여 軍은 陸軍本部에 護國軍務室을 設置하고 現役각연대(제 4, 제 9, 제12의 3개 연대 제외)에는 護國軍 교문부를 두어 그 編成에 着手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發足케 된 同軍은 다음해 1월 7일에는 제101, 제102, 제103, 제106의 4개 여단이 創設되어 吳光鮮 대령, 劉升烈 대령, 安秉範 대령, 權 俊 대령 등이 여단장에 任命되었다.

또 각 연대와 대대 그리고 중대 소대에 까지 現役장교를 任用하고 同월 11일에는 그 이하에 地域別을 고려하여 제101(서울), 제111(水原), 제102(大田), 제103(全州), 제113(溫陽), 제105(釜山), 제106(大邱), 제107(淸州), 제108(春川), 제110(江陵)의 10개연대가 編成을 完了하였는데 道·市·郡·面 單位の 各單位隊에는 現役將校가 配屬되었다.

이렇게 되자 軍은 그 지휘체계의 강화책으로 1948년 12월 29일에 陸軍本部內의 從前 기구를 護軍局으로 改編하였으며 同년 3월19일에는 또 이를 改編하여 國防部 直轄로 護國軍 사령부를 設置하였던 것이다.

한편 李範奭은 이와같이 護國軍이 成長하자 기간요원 양성책으로 同년 3월 4일에 護國軍幹部學校를 서울에 設置하고 校長에 張錫倫 중령을 任命하였으며 同월 8일에는 또한 有事時에 對備하기 위한 補完策으로 學徒들에게 平素부터 軍事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徒 護國團을 結成하였다. (제4절 참조)

이를 위하여 각 중학교 체육교사를 육군사관학교에 入校시켜 1개월간의 短期군사교육을 履修케 하고 예비역소위로 임관시켜 同團의 配屬장교로 배치하였다.

各 學校의 增設: 국군의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장차 軍의 각 부문에서 활동할 中堅 幹부의 양성과 질적인 向上策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경비대 당시에 發足한 각종 학교를 계속 存續시켜 發展시키는 한편 1948년 8월 26일~1949년 1월 16일 사이에 通信學校, 工兵學校, 砲兵學校, 憲兵學校 등 6개교를 創設하였다.

國軍三大宣誓文의 公布: 1948년 10월 19일부터의 麗·順叛亂사건과 同년 11월 2일에 있었던 이른바 大邱叛亂사건(제1장 제2절 참조)은 軍의 정신무장과 사상動向의 再檢討가 必然的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軍 內部에서 容共分子 索出과 이의 剔抉을 단행하는 한편 同년 12월 1일에 國軍三大宣誓文을 制定하고 이를 同일부로 公布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先烈의 血跡을 따라 죽임으로써 民族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上官, 우리의 戰友를 共產黨이 죽인 것을 銘記하자.
3. 우리 國군은 鋼鐵같이 단결하여 軍紀를 엄수하여 國군의 使命을 다하자.』

이 國군 三大宣誓文은 1949年初에 다시 國군盟誓로 改正公布되었는데 이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는 大韓民國 國군이다.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鋼鐵같이 단결하여 共產侵略者를 처부시자.
3. 우리는 白頭山 靈峰에 太極旗 날리고 豆滿江水에 戰勝의 칼을 씻자.』

(2) 開戰前까지의 政策(1949. 3. 21~1950. 6. 25)

2代 國방부장관으로 申性模가 就任할 당시의 國內外 情勢는 자못 激動하고 있었다. 즉, 麗·順安亂사건에서 軍의 迫擊으로 山中으로 潛入한 一部의 叛軍이 地方赤色分子와 야합하여 後方治安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北傀의 이른바 人民유격대가 國內騷擾를 企圖하였다. 또한 中共이 中國大陸을 席捲함으로써 美國이 對韓政策에 動搖를 일으키고 있던 때였다. 이런 時期에 장관으로 就任한 申性模는 政策方向으로 陸海空軍의 強化와 共匪의 擊滅, 그리고 軍事技術의 高度化를 目標로 하여 一部 장교를 美軍事기관에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當時 그가 主導코자 한 主要內容을 보면,

『① 國防部 제4局 및 參謀總長制의 廢止, ② 各旅團의 사단 昇格과 부대增編, ③ 談國軍 및 兵事區 사령부의 解體, ④ 靑年防衛隊의 創設, ⑤ 共匪擊滅 作戰의 全面展開, ⑥ 空軍 및 海兵隊의 創設』 등이다. 그러므로 自衛力을 바탕으로 한 強力한 國防力을 갖추코자 했던 初期의 政策에 比하여 開前直前의 政策은 依他的인 消極政策으로 轉換되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國防部 제4局 및 參謀總長制의 廢止** : 國軍組織法과 國防部職制令에 의거하여 設置한 國방부 제4局(特務局)을 1949년 5월 1일에 廢止하였다. 이로써 特殊부대의 發展을 沮害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활동이 萎縮됨으로써 敵情수집에 圓滑을 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北傀의 南侵企圖도 正確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同장관은 國軍組織法 제7조에 明示된 『國防부에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和 海軍本부를 두며 必要에 依하여 其他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을 둘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設置된 國防部 參謀總長制度를 國防機構의 간소화를 도모한다하여 同년 5월 9일에 廢止하고 國防부장관이 各軍 總參謀長을 直率하도록 改正하였다. 이와 같은 機構의 改編으로 同 12일에는 陸軍本部和 海軍本부의 單一參謀副長制度를 作戰 및 行政 2人制로 改正하였다.

**各旅團의 사단昇格과 부대增編** : 建軍 以來의 軍의 增編과 強化는 美國의 제한된 軍사원 조에도 不拘하고 活潑히 推進되어 나갔다.

本方針은 前任장관時부터 계속된 것으로서 同年 5월 12일에 國軍組織法 제13조에 의거하여 從前의 각 여단을 사단으로 昇格시키고 그 編成을 3개의 步兵연대를 包含하여 總인원 10,561명으로 規定하였다. 또한 同年 6월 10일에 저 8사단을 創設하고 이어서 同 20일에는 首都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當初에 군이 目標한 8개사단 23개연대에 到達하게 되었다.

**護國軍 및 兵事區司令部의 解體** : 1949년 8월 6일의 法律 제 9호로 兵役法이 公布됨으로써 憲法에 규정된 國民의 국토방위 義務를 實現하게 되었다. 이로써 徵兵制가 실시되고 兵力確保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이 法의 施行과 더불어 國家에 비군을 擔當한 護國軍 사령부와 同여단을 定見없이 同年 8월 31일에 解編하는 同時에 대통령령 제281호인 兵役法 施行令에 明示된 護國兵役 條項도 이를 撤除하여 一朝有事時에 使用될 豫備軍을 挾消해 버렸다.

국방부는 이에 代替하여 同年 9월 1일에 解編된 護國軍 각여단 本部의 基幹要員으로 각지구 兵事區司令部(서울, 釜山, 大邱, 全州, 光州, 清州, 大田, 春川)를 設置하였으며 國防部 內에 兵務局을 新設하고 우선 適齡者의 徵兵檢査를 실시하였다.

당시 兵力의 運用面은 建軍한지 不過 3年밖에 되지 않았던 關係로 年間 補充 所要는 사실상 少數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軍에 入隊 이후 滿 3年을 복무한 上士級에서 滿期者를 除隊케 하고 이로 因한 所要의 兵力만을 補充키로 하였다.

이러한 方針아래 1950년 1월 20일에 제1차로 滿期者를 除隊시킨 다음 2,000명만을 徵集으로 充當하게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軍의 基幹인 老練한 兵士만을 잃게되고 대신 新參을 充當하는 結果가 되어 軍의 戰力弱화를 招來하게 되었다.

그 뒤에도 이 계획은 계속되었지만 남아도는 徵集 해당자를 처리할 方途가 없어지자 徵兵制의 實效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徵集을 保留하고 同年 3월 14일에는 後續策도 없이 兵務局과 各지구 兵事區사령부 마저 解體하고 말았다.

따라서 有事時에 動員될 護國軍이 解體되고 兵力充員의 根源地인 兵事區 사령부마저 廢止함으로써 敵侵에 긴급 對處할 기구가 開戰前에 모두 없어진 셈이 되었으니 이러한 定見 없는 조치는 당을 치고 痛哭할만한 拙劣無雙한 것이었다.

**青年防衛隊의 創設** : 解放된 국내에는 雨後竹筍格으로 많은 青年단체가 있었으나 이들의 組織과 활동은 政治的 荏弱속에서 그 勢力의 潮流에 따르는 것을 例事로 하였다.

이런 狀況으로 대통령은 從前의 青年단체를 解體하고 1948년 12월 21일에 大韓青年團을 새로이 精成하여 初代 團장에 申性模를 임명하였으니 이는 實質적으로 국방력을 強化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政治的인 配慮에서 나온 所産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裏面에는 다음과 같은 曲折이 있었다.

李範奭은 光復軍참모장으로 있다가 光復軍의 精銳兵力을 인솔하고 1946년 6월에 還國하 자 즉시 민족청년단을 조직한 다음 『국가 至上, 민족 至上』의 旗幟 아래 特殊훈련을 실시

하여 그 세력이 날로 커지게 되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集團勢力의 急進展을 막고자 하여 靑年단체의 單一化를 強力하게 指示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인 李範奭이 이를 反對하자 未久에 申性模로서 交代케 한 것이고 그뒤로부터는 意識적으로 국방政策의 改編을 爲한 改編을 恣行케 된 것이니 말하자면 權力爭奪이 富國強兵策보다도 先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強制로 靑年團體를 統一하자 이 靑년단원中에서 幹部要員을 선발하여 40일간의 短期훈련을 陸軍步兵學校 배속장교 敎育대에서 履修케 한 다음 육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켜 단원의 군사훈련을 담당케 하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1949년 12월 3일에는 美國의 洲防衛軍(National Guard)과 같은 民兵 20萬의 조직을 言明하게 되자 申性模는 다음해 1월 16일에 陸軍本部內에 靑年防衛局을 新設케 하고 同年 5월까지 대한靑년단을 主軸으로 20萬의 靑年防衛隊의 조직과 編成을 速成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으나 卓上空論만으로서는 靑年장교의 內實을 期할 까닭이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로 同防衛隊는 幹部要員을 양성하기 위하여 靑年防衛幹部훈련학교를 開設하고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防衛소위로 任官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대한靑年團配屬장교와 護國軍장교를 同校補修班에 入校시켜 2주간의 敎育을 실시한 다음 幹部로 任用하였다.

이리하여 同年 4월末에는 全境 市·道·郡·面 등 行政단위에 團·支部·編隊를 두었고 團隊와 小隊編成을 끝내게 되었으나 赤手空拳의 이러한 組織이 護國軍에 比하여 進·步한 點이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靑年防衛軍은 民兵組織에 지나지 않았던 까닭에 軍이 이를 掌理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要求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1950년 3월 14일에 陸軍本部 靑年防衛局도 廢止되고 이 대신에 同고문단을 現役將校로서 派遣하였으며 또한 同年 6월 10일에는 幹部도 充足되기에 이르자 靑年防衛幹部훈련학교 역시 廢校되었는데, 이때에 北傀의 南侵이 시작되어 武裝없는 靑年防衛隊는 一朝一夕에 離散되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李承晚과 申性模는 이리하여 白繩自縛으로 軍의 戰力을 急速하게 凋落시키고 말았으니 이제 와서 歎息한들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

共匪擊滅戰의 展開 : 申性模는 1950년도 施策에서 共匪擊滅戰의 全面展開을 強調하였다.

1949년末까지 嶺南 및 湖南地區에서 暗躍하던 共匪는 太白山地區戰鬪司令部의 設置(1949. 9. 28)와 智異山地區戰鬪司令部의 設置(1949. 3. 1) 등으로 거이 殫滅되었거니와 아직도 그 의 殘黨은 山中에 潛入하여 跳梁하고 있었다. 더구나 北傀가 後方治安을 교란하기 위하여 南派시킨 游擊대가 東部山岳지대(五臺山—太白山—日月山—普賢山)에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後方 3개사단 뿐만아니라 東部の 제8사단까지 動員하여 대대단위별 擊滅戰을 展開함으로써 어느 程度의 成果를 거두었지만 北傀의 全面南侵에는 對備하지 못하는 結果가 되었다.



空軍 및 海兵隊의 創設: 1949년 10월 1일에 國軍組織法 제23조에 규정된 『本法에 의하여 陸軍에 屬한 航空兵은 必要한 때에는 獨立한 空軍으로 組織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10대의 輕飛行機만을 保有한 陸軍航空司令部는 同일부 대통령令 제254호로 公布된 空軍本部職制에 따라 空軍으로 새로이 發足하였다. (제6장 제2절 참조)

한편 海軍에서는 麗·順叛亂사건의 教訓에 따라 海兵隊의 創設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4월 15일 2개 중대로 發足하게 된 海兵隊는 同年 5월 5일부 대통령令 제88호 海兵隊令의 公布를 보아 上陸作戰을 수행하는 海兵隊가 創設되었다.

#### 나. 南侵判斷과 對應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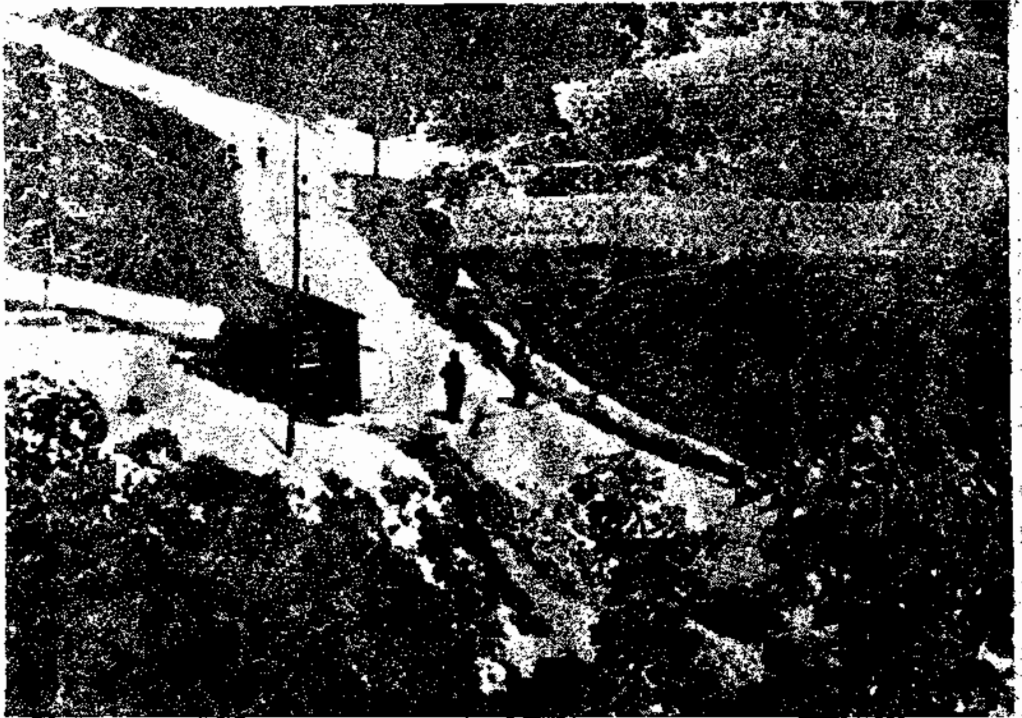
1949년 12월, 陸軍本部 정보국은 入手된 諜報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作成하고 그 結論에서 이르기를 『最近의 敵情과 제반정세를 감안하건대 다음해 春季를 계기로 敵情에는 急激한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敵은 對南 後方교란과 內部瓦解 工作을 强行하여 南侵의 기반을 造成하고 同時에 全技能을 동원하여 전쟁준비를 促進한 다음 機會를 엿보아 38°선 일대에서 全面공세를 敢行, 일거에 韓國의 顛覆을 기도할 것이다.』라고 分析하였다.

당시 申性樸은 이러한 敵情을 우려하여 군사력의 增強策으로 이미 同年 10월에 美당국에 M-26戰車 189대를 지원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육군참모총장대리 申泰英 소장도 1950년 1월에 UN韓國위원단에 提報하기를 『北僞는 戰車 130대와 항공기 120대로 군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그 兵力이나 裝備가 我軍에 比하여 훨씬 優勢하다.』라고 指摘하면서 그들의 南侵계획이 이미 完了되어 그 實施如何는 다만 時間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이와같은 軍원의 요청이나 경고는 當時 北僞의 漸次 増大되어가는 공격장후를 直視하고 군비를 強化하여 對應하려는 意圖的인 노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美國은 韓國 정세를 觀察한 나머지 이러한 경고에는 아랑곳없이 地形上 戰車가 必要없다느니하여 盲斷하고 橫說堅說하면서 都是 우리側 요구를 받아들일려 하지 않았다.

1950년 5월 10일에 이르러 申性樸은 外國기자들과 회견하는 席上에서 말하기를 『최근 北僞군이 北의 38°선에 이동하고 있어서 침공의 危險이 甚박하다.』라고 하였으며 다음날 대통령도 『美國의 원조만이 北僞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거듭 劣勢에 있는 國軍장비의 증강책을 促求하였다.

그런데, 申性樸은 이와같이 敵의 南侵徵候를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前記 기자회견席上에서는 오히려 『北僞가 우리에게 대하여 공격할 때에는 우리 또한 以北에 대한 行動을 언제든지 開始할 수 있다—현재 우리 해군은 有事時에 東西以北 태안에 대한 行動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힘과 態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要旨의 虛無濫漫한 發言을 서슴지 않았다



〈38°線 부근의 我軍 검문소〉

이와같은 그의 發言은 건박한 군사정세에 대한 것보다도 多分히 政治적인 것으로써 국민들의 反共思想을 고무하고 나아가 土氣를 振揚키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誤導케 하고 오히려 初戰에서의 국군의 配備에 소홀하였다는 것은 重大한 失策이 아닐 수 없다. 同월 12일 外務長官 林炳燾이 UN韓國委員會團 요원들과 회견時에 陸軍참모부장 金白一 대령과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은 林장관을 수행하여 그들에게 敵情에 관하여 要領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민군은 전투병력 10개사단 135,500명에 이르고, 空軍은 1,800명, 海軍은 15,000명, 으로 總兵力 182,000 명을 헤아린다. 장비면에서는 戰車 173 대, 自走砲 176문, 122mm 곡사포 464문, 76mm 곡사포 464문, 120mm 박격포 586문, 85mm 및 37mm 고사포 48문, 장갑차 60대, 경비정 30척, 항공기 197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38°선에는 現在 3개 경비여단이 전개되어 있으며 그 後方 沙里院에는 제 6사단, 漣川에는 제 1사단, 鐵原에는 제 3사단이 있다. 그밖에도 沙里院과 鐵原에 各 1개 戰車연대가 배치되어 前記 3개 사단을 支援하고 있다. 그들은 언저라도 戰鬪에 임할 태세에 있다.』라고 敷衍하였다.

또한 張道英 대령은 林장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 있는 건박한 침공의 위험성이 甚及하여 『北傀의 兵力이 增強되었다는 점과 38°선 부근 일대에 잘 훈련된 정규사단의 집

결 및 同보안군의 침투가 바로 그 證據이다. 38°선 부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輕武裝군의 越境침투는 종래와는 그 樣相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同席한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은 『국군의 士氣가 어찌냐』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要旨에 이르기까지 『나의 私見으로는 萬岩에 北傀가 38°선을 침공할 경우 그들은 有利한 立場에서 侵略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我軍에 의하여 공격이 분서되는 경우에는 많은 死傷者와 脫走者를 내게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彼我의 戰力比에 대한 질문에는 要旨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만약에 兵力과 장비에 있어서 同等하다면 國軍은 敵보다도 높은 士氣와 鬪志를 걸지 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北傀의 장비는 현재 국군보다 2~3배나 우수하며 더 많은 항공기와 전차, 그리고 砲와 기관총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敵의 壓倒的인 우세에 비추어 단순히 勇氣만을 가지고 戰力을 對比할수는 없다.』

이상은 UN 韓國委員會이 제5차 UN총회에 韓國의 국방력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돌 스스로가 敵情에 관하여 自講하고 비로소 聽聞하게된 내용이었다. 當時 軍 당국자의 立場으로 볼 때에는 美國의 優柔不斷한 對韓軍事정책에 懷疑를 느낀 나머지 이 기회에 急迫한 北傀 침공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는 국군의 劣勢를 UN에 訴苦할 수 있는 제기를 만들고자 하였음이 分明하다.

要컨대, 軍部の 首腦들은 이미 敵의 기도를 洞察하고 있었고, 또한 그 對備의 時急難을 認知하여 韓國방위에 책임있는 美國이나 UN에 對韓지원의 적극조치가 이룩되도록 노력한 것인데, 開戰時까지 美國의 이론바 「韓半島는 戰略的으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끝내 是正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陸軍당국은 심상치 않은 敵情에 따라 진지의 強化가 切實하다고 내다보고 作戰局(장, 姜文奎 대령)에서 作成한 긴급건의서를 國會에 제출하였다.

이의 목적은 北傀와 比較하여 顯著한 我軍의 열세를 진지의 강화로써 補完하기 위하여 이에 必要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4개항으로된 그 건의 내용의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① 兵力—군이 把握한 北傀의 兵力은 이론바 인민군과 38°선 경비여단 및 유격대, 그리고 民靑훈련소와 해군, 공군 등을 합쳐 都合 184,000명으로 推算된다. 이에 我國군은 국립경찰까지 계산한다 하여도 14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경찰은 CAR 소총만으로 무장한 行政경찰에 不過하므로 실질적인 戰力은 10만밖에 되지 않는다.

② 장비—소총과 기관총 등 輕무장을 제외하고 砲와 戰車, 그리고 장갑차 및 항공기 등에 있어 숫자상으로 비교할 때 彼我에는 큰 隔差가 있다.

北傀가 각종 포 609문을 保有하는 反面에 軍은 단지 91문의 105mm砲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들은 戰車와 장갑차 272대를 保有한데 비해 우리는 장갑차 27대(수리대

2대 포함)이고, 항공기에 있어서 그들은 168대 우리는 국민이 헌납한 비무장 연습기 10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③ 교육훈련—北傀는 인민군 창설 이래 수년동안 내부적인 變革이 없이 예정대로 교육 훈련에 치중하여 一線과 후방병력의 교대를 실시하여 전투력의 向上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군은 創設以來로 不過 2년이 경과되었을 뿐이며 그간 麗·順 반란사건과 南派된 유격대 등의 침투로 말미암아 장기討伐 등으로 戰力の 소모는 물론이요, 교육 훈련도 아직 未洽한 상태이다.

④ 후방지원—北傀는 제반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군비강화를 도모하고 무기 생산도 상당히 進陟되고 있다. 그런데 국군은 이에 比하여 군수품을 민간생산에 依存하고 있으며 兵器廠의 무기생산이란 겨우 拳銃에 限하여 시제품을 시험 중에 있다. 또한 動員계획면에서도 국은 징병제를 채택하였으나 戰時동원계획을 充分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몇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軍은 現 300km에 달하는 38°선을 北傀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함에 있어서 보다 現 진지의 방어施設을 擴充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國會건의는 國會가 5.30 선거로 休會中이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死藏된채로 결국 시일만을 지연케하고 말았으니, 국은 北傀의 全面南侵에 直面하여 隘弱한 진지 그대로의 상황에서 不意奇襲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다. 初期의 防守對策

### (1) 防守計劃 및 부대配備

開戰당시 육군은 예하 8개 사단과 2개의 독립연대 가운데서 4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38°선 경비에, 그리고 殘餘 4개사단, 1개 독립연대를 서울, 大田, 大邱, 光州등지에 配備하고 있었다.

즉, 一線인 38°선 부근에 전개된 前記 4개사단中 제8사단(제10, 제21 兩개 연대)은 東海岸 지역에, 제6사단(제2, 제7, 제19연대)은 於論里—春川—加平正面의 中東部 산악지역에 제7사단(제1, 제9 兩개연대)은 그 以西 抱川—東豆川 正面인 中西部에, 제1사단(제11, 제12, 제13연대)은 西部인 高浪浦—開城—延安—胥丹正面에, 그리고 제17연대는 陸地와 격리된 鹽津半島에 각각 配備되고 있었다. 또한 後方지구의 治安維持를 위하여 각지에 分散 배치된 後方사단 가운데서 首都경비사령부 예하의 제3, 제8,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는 서울에 控置하였으며, 제2사단(제5, 제16, 제25연대)은 淸州, 大田, 溫陽등지에 제3사단(제22, 제23 兩개연대)은 大邱, 釜山지역에 그리고 제5사단(제15, 제20 兩개 연대)은 全州, 光州 등지에 각기 分割 배치하였다.

1950년 1월 1일에 육군情報당국자는 前年度 연말 종합정보보고서에 의거하여 北僞의 南侵이 臨迫한 것으로 보고 그 침공方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제1안—主攻을 京元국도에 指向하고 助攻을 開城—延安正面에, 그리고 기타 正面에서는 守勢를 取할 것이다.

제2안—主攻을 開城—汶山—서울線에 指向하고 助攻을 議政府 및 延安正面에, 기타는 守勢를 取할 것이다.

제3안—主攻을 九化里—汶山—서울線에 指向하고 助攻을 議政府, 開城, 延安正面에서 기타는 守勢를 取할 것이다.

제4안—鑿津, 春川正面順으로 逐次 공세를 取하여 각개격파한 다음 主攻을 京元국도나 九化里—汶山—서울線에 두어 前線 中央部를 突破할 것이다.』

이상의 4개안 가운데 情報當局者는 각개안을 比較평가하여 『敵은 제 1안을 선택한 가능성이 濃厚하며 그들은 漢江 以北에서 決戰을 強要하고 短時日 내에 서울占領을 꾀할 것이다.』라고 判斷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作戰當局은 軍 首腦가 敵情을 輕視하고 混談만을 일삼았으며, 또한 敵이 全面南侵을 恣行하리라고는 믿지 않고 있는 데였으니 만큼 彼我戰力比에 立脚한 防衛계획 (研究 1 참조)을 마련하지 못한채로 단지 局部戰일대만을 假想하고 각 一線부대의 방어계획을 지도하였을 따름인데, 다만 陸軍참모학교에서 研究되고 論議된 바 있었던 我側의 防衛계획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

『① 제1, 제6, 제7사단은 主抵抗線을 連結維持하면서 漸次 서울을 中心으로 지연作戰을 전개한다.

② 제8사단과 제17연대는 初期作戰에서 遊擊隊로 사용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제8사단은 서울방어에 圓型진지선의 最右翼 一線부대로나 혹은 예비대로 사용한다.

④ 首都경비사령부 및 殘餘 3개 사단은 陸軍예비대로서 公使移轉시 혹은 反擊時에 사용한다.』

그러나 陸軍本部는 이와 같은 계획을 全軍에 示達하거나 깊이 研究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單只 作戰 당국자들의 방어 概念으로 構想하였음을 後日의 證言에서 立證해 주고 있다. 따라서 一線사단과 제17연대에게는 自體방어계획의 樹立만을 督促하였는데, 당시 이들 부대가 作成한 自體계획은 全面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局部的인 防禦計劃에 지나지 않았다.

## (2) 警戒措置와 그 解除

前述한 바와 같이 北僞의 침공위험에 對處하여 一線부대 상황이 이러할 때 陸軍本部는

국내 중요행사와 각종 기념일 등을 계기로 그들이 後方攪亂工作을 보다 적극화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警戒태세의 強化에 注力하였는데, 開戰前 2개월간의 措置는 다음과 같다.

**May Day(5월 1일)를 계기로 한 경계態勢** : 1950년 4월 21일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당시 南韓 각지역에서 暗躍中인 殘存 共匪들이 이날을 前後하여 北傀로부터 密派된 자와 국내 不純分子들이 合勢하여 각지에서 暴動을 선동 造作할 것이라는 판단밑에 前後方 각 부대장에게 作命 제57호로 경계태세의 強化를 命命하였는데, 그 期間을 보면 대기태세가 4월 27일 12.00~5월 3일 12.00 이고, 경계태세는 4월 29일 24.00~5월 2일 12.00 까지였다. (부록 1 참조)

**對敵心理戰의 실시** : 또한 同년 5월 1일에 총참모장은 作命 제63호를 下達하고 敵이 제 8, 제 6사단 正面에서 對南放送을 強化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 對應조치로써 政訓工作隊를 5월 2일부터 동월 22일까지 該지역에 派遣하여 對敵放送을 실시케 하였다.

**5월 30일 總선거를 계기로 한 경계態勢** : 同년 5월 8일에 蔡총장은 May Day 경계에 이어서 北傀가 5.30 總선거를 계기로 하여 暴動을 선동하여 同선거를 妨害할 것이라는 情報를 入手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作命 제67호를 下達하였으며 그 時間은 대기태세가 5월 9일 12.00~5월 27일 12.00까지 이며 경계태세는 6월 2일 12.00까지였다.

그런데, 이 경계조치는 그 後 作命 제68호(5월 25일부)로 修正하여 경계를 同월 24일 24.00 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同월 17일 12.00에 陸軍本部는 기갑연대에서 1개 기갑중대를 제1사단에 配屬, 開城—土城—靑丹區間的 偵察에 임하게 하여 이곳 경계를 強化하는 한편, 同월 28일에는 作命 제70호로 제1사단 砲兵 1개중대를 같은날 22.00부터 6월 2일 12.00까지 開城에 파견케하여 同경계에 따른 특별조치를 取하게 하였다.

또한 이 경계기간중 李承晚 대통령의 春川지구 巡視에 수반하여 作命 제71호(5월 29일부)로써 首都경비사령부 예하 2개대대 규모의 兵力과 제6사단 소속 1개대대의 兵力으로 하여금 5월 28일 22.00 부터 同월 29일 18.00 까지 不祥事에 대비하여 특별경호 조치를 取하게 하였다.

**北傀의 僞裝平和 선전공세에 대한 비상경계態勢** : 北傀는 同년 6월 3일에 이른바 平和의인 조국통일 호소문에 530만 人民이 서명하였다는 등 허위선전과 함께 一連의 對南정치 공세를 전개하였다. 특히 그들은 同월 8일에 對南放送을 통하여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대표라는 金泰弘, 李寅奎, 金在昌 3人을 南派한다고 하였고 심지어는 北傀에 의하여 拘禁中인 朝民黨首 曹晚植과 南勞黨의 행동대장 李舟河, 金三龍과의 交換을 提議하기에 이르러 그들의 이와같은 行動에는 必時 某種의 兇計가 있을 것이라는 推測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蔡총장은 이들의 僞裝平和공세 裏面에는 어떠한 計略이 介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同월 11일 作命 제78호를 下達하고 6월 11일 16.00 부터 別

命時까지 無期限 비상경계를 命令하였다.

결국, 군은 이상의 경제조치로 말미암아 May Day 경제대세가 끝난 5월 2일부터 5.30 선거를 위한 경제대세가 다시 실시된 5월 9일까지 7일간, 그리고 이 경제대세가 일단 해제되었다가 다시 偽裝평화공세에 대한 비상경계가 실시된 6월 11일까지 9일간만이 正常근무에 있었을 뿐 계속된 경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장병들의 休暇와 外出 및 外泊은 禁止되고 教育訓練조치 계획대로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休養상태는 限界를 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蔡 총장은 北傀가 要求한 이른바 평화통일案에 대한 回答의 時限인 同월 21일부터 3일이 지나도 별다른 사건이 發生하지 않게되자 同월 23일 24.00를 기하여 前記 非常경제를 解除하였으며, 아울러 앞서 제 1사단에 배속하였던 기갑연대의 1개 장갑차 중대를 原隊로 복귀케 하였다.

이로써 각부대는 그간에 쌓인 긴장을 풀고 休養을 실시코자 急迫한 北傀의 南侵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同월 24일(土曜日)부터 兵力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農繁期 休暇와 歸家의 外出 外泊이 一齊히 실시되었다.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그동안 工兵隊에 의하여 推進되어 온 陸軍회관의 改修가 完了되어 그 開館을 위한 宴會가 이날 이곳에서 開催하기에 이르러 陸軍本部의 참모장교를 비롯함 참모학교 要員과 入校中인 장교 및 각급부대 지휘관이 참석하여 밤늦기까지 宴會를 가졌다. 따라서 北傀는 全面南侵에 앞서 긴장을 緩和토록 하여 關心을 단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끝내 虛隙을 만들어서 不意의 先制攻撃을 敢行하기에 이른 것이다.

**人事異動** : 이밖에도 敵侵前에 斷行된 軍의 大幅的인 人事異動을 들 수가 있다.

蔡 총장은 就任 12일만인 4월 22일에 사단장급 人事異動을 실시하여 제 1사단장에는 제 5사단장인 卍善濉대령을, 제 3사단장에는 제 1사단장인 劉升烈대령을, 제 5사단장에는 李應俊 소장을, 行政參謀副長에는 제 3사단장인 金斗一대령을, 각기 轉補하는 人事조치를 斷行한 것이다.

이에 그는 다시 6월 10일에 제 2차의 人事異動을 단행하여 全軍의 지휘체제를 一變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異動케 된 중요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金弘壺 소장—陸士교장에서 參謀학교장으로  
李亨根 준장—제 8사단장에서 제 2사단장으로  
劉載興 준장—제 2사단장에서 제 7사단장으로  
李俊植 준장—제 7사단장에서 陸士교장으로  
金鐘五 대령—제 1연대장에서 제 6사단장으로  
李正一 대령—제 16연대장에서 제 8사단장으로  
申尙澈 대령—제 6사단장에서 人事局長으로  
李鍾贊 대령—국방부 제 1국장에서 首都경비사령관으로

張昌國 대령—참모학교부교장에서 作戰局長으로

姜文奉 대령—作戰局長에서 渡美留學대기

李致業 대령—作戰局차장에서 敎育課장으로

朴林恒 중령—제3연대장에서 作戰局차장으로

丁來赫 중령—참모학교 교관에서 作戰課장으로

金點坤 중령—제12연대 부연대장에서 情報局차장으로

이상의 人事異動은 敵侵 15일前에 실시된 것이니만큼 1차의 人事조치와 더불어 一線 및 後方 각 사단은 사단장이 미처 상황마저 把握치 못한 가운데 전투를 지휘하게 되고 陸軍本部 참모 역시 업무에 익숙치 못한채 총참모장을 보좌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人事局長에 轉補된 申尙澈대령은 敵의 南侵이 시작된 同월 25일까지 부임하지 못하여 前任者인 姜英勳 대령이 계속근무하였고 作戰課長 및 情報局차장도 이와 같은 實情이었다.

### (3) 海·空軍의 配備

한편 海軍은 開戰당시에 총참모장 孫元一 준장이 함정구입차 渡美하고 없었으므로 海軍사관학교 교장 金永哲 대령이 同직을 代理하고 있었다.

당시 海軍은 本部를 서울(會賢洞)에 두고 仁川, 釜山, 木浦 등 3개 港에 제1, 제2, 제3 3개 艇隊사령부를 開設하였고 鎭海와 麗水에 훈련艇隊를 두어 掃海艇 YMS, JMS型 保有 전함인 總 28척을 배비하였는데, 이는 北德의 새로운 장후에 따라 同년 5월에 東西海 경비강화를 위해 取해진 조치였다.

당시 海軍은 墨湖, 浦項, 釜山, 仁川, 群山, 木浦 등 5개 港에 경비부대를, 鎭海에는 統制府를, 麗水에는 水營을 각기 設置하여 前記 정대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濟州道에는 海병대를 전개하고 있었다.

海軍은 敵의 海안침투에 대비하여 경찰과 민간인으로 하여금 同월 東海岸 墨湖와 浦項 경비부 부근 注文津, 三陟, 竹邊, 江口, 月浦 등지에 海上감시초를 신설케하여 有機的인 정보체제를 취하게 하였다.

또한 空軍 역시 北德의 軍力增強을 正視하고 이에 對備코자 兵力의 增員, 항공기의 획득, 기지의 整備, 비행사의 養成 등에 노력을 集中하였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의 貧困과 美國의 軍援政策이 如意치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開戰당시 空軍은 本部를 서울 會賢洞(海軍本部附近)에 두고 6개의 지원부대를 金浦비행장 부근에, 그리고 경항공기 24대를 보유한 1개의 비행단을 汝矣島에 전개하였고, 이밖에 水原, 大邱, 群山, 光州, 濟州 5개 도시 비행장에 기지부대를 陸軍의 共匪擊滅작전을 위하여 연락기를 지원하였다.



#### 다. 敵侵에 대한 對應策

이와같이 6월 23일, 비상경계의 해제로 말미암아 倭軍이 敵에 대한 경계심이 解弛되고 있을 때 情報당국자들은 北傀의 活潑한 움직임에 대하여 關心을 집중하면서 그 諜報수집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었다.

同월 24일 陸軍本部 情報狀況室은 同월 22일~23일 2일간에 入手된 첩보를 分析한 結果 敵의 活動이 매우 활발하다는데 우려하고 있던차에, 이날 오전에 議政院정면에 배비된 제 7사단으로부터 『北傀軍官들로 보이는 一團의 무리가 我營을 向하여 地形을 偵察하는 것 같다.』라는 要領을 보고를 해왔다. 따라서 金鍾泌, 嚴莊兒, 威德淵, 徐廷淳, 李永根 中尉등으로 編成된 情報狀況室의 南北韓班에서는 該 첩보를 分析하여 『北傀의 全面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며 이는 이날이나 다음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賞務者들의 意見에 따라 이날 15.00에 蒸餾장을 위시하여 一般참모들이 狀況室에서 緊急출발을 가진 바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金鍾泌 中위와 李永根 中위는 그 間에 수집한 敵의 活動狀況을 설명하고 나섰 『北傀가 平和통일안을 저지하는 것은 그들 南侵을 秘匿하기 위한 술책일지 모른다. 敵은 현시점에서 南侵을 위한 諸般준비를 完了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要領의 結論을 提示하고, 이어서 我方의 당면조치로써 첫째 非常경계의 즉각 中止, 둘째 즉시 休暇 및 外出의 中止, 셋째 前記 모든 조치가 不如意할 때에는 最少 2/3 병력이라도 營內에 待機토록 하여 前方을 強化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이들 軍首腦들의 특별한 注意를 喚起하지 못한채로 단지 蒸餾장으로 부터 『첩보대를 抱川—東豆川—開城등지에 派遣하여 繼續敵情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 08.00까지 보고 하라.』는 要領의 指示가 下達되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李永根 中위의 證言)

이와같은 指示로 말미암아 金炳秀 소령이 지휘하는 첩보대는 7개대로 組를 編成하여 江陵, 抱川, 東豆川, 高浪浦, 開城, 白川, 甕津에 急派하였으나 활동日인 25일에 敵侵으로 말미암아 四散되었다. 또한 情報局에서는 이보다 앞서서 北傀사정에 밝은 要員들로 편성된 이른바 報國대대 소속 1개중대를 제6사단에, 殘餘 1개 중대(75명)를 제7사단에 배속하여 敵情을 偵察케 하였다. 이에 관하여 朴蒼岩 中위가 後日 밝힌 바 활동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중대는 제7사단에 배속 즉시 G-2 참모인 李世鎭 소령의 區處를 맡아 敵의 對南工作을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중대는 24일 당시 北傀로부터 脫出한 朴水喆(北傀 대위)의 제보에 따라 사단 正面에 推進되었다는 敵 대부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急遽 出動한 바 있으나 제1연대 前方 指揮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 全面 南侵에 當面

하여 뜻을 이루기도 前에 分散 撤收하였다.』

情報局은 開戰 당일까지 敵情 수집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敵侵으로 아무 成果도 거두지 못하였고 蔡총장은 그가 지시한 25일 아침의 결과보고에 關心없이 陸軍會館의 寢會로 宿醉가 깨기도 前에 南侵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날 陸軍本部 상황실에서는 作戰局 曹秉雲 대위와 情報局의 金鍾泌 중위가 當直狀況 將校로 徹夜근무中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전부대에 直通電話線이 架設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 子正이 조금 지난 01.00 무렵 제17연대로 부터 『현재 國師峰 北麓稜線으로부터 兵力未詳의 北德軍이 接近하고 있다.』라는 緊急報告가 들어왔고 03.00에는 제1사단으로부터 『敵은 九化里에서 渡河用으로 보이는 舟艇을 그들 前方으로 운반하고 있다.』라는 要旨의 報告가 入電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는 제7사단으로부터 『梁文翌 北쪽 萬世橋부근에서 戰車의 轟음이 들린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얼마후에는 『敵砲彈이 현재 소진지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다급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상 내용에 대하여 當時 陸軍本部 상황실 당직이었던 曹秉雲 대위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江陵 北쪽 38°선 지역과 淸川의 水利峰, 그리고 甕津의 까치峰에서 상황이 發生하였다는 긴급보고가 거의 同時에 入手되어 衝擊을 받았다.』라고 述懐하고 있다.

어쨌든 兩人은 前方부대로부터 入手되는 상황이 全前線에 걸쳐 發生하고 있으니만큼 敵의 活動에 심상치 않은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當直사령에 보고하여 全軍의 非常조치를 具申하였다. 이에 當直司습이 蔡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급히 出發하였고 동시에 當直狀況將校 등은 情報局長 및 作戰局長을 비롯한 각 부처장들에게 電話가 通하는대로 前方에서 發生하고 있는 긴급상황을 알렸다.

이 非常동보에 의하여 作戰局의 李致業 대령은 05.30에,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은 10분 후인 05.40에 각기 陸軍本部에 황급히 出頭하고 뒤이어 一般참모 및 관계자들의 登廳이 속속 실현되었으나 연락망의 未備와 통신의 不如意로 그 속도는 상당히 지연되어 非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形便이었다.

陸軍本部는 北僞南侵에 당면하여 이와같이 그 첫 對應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때 蔡총장은 전날(24일) 陸軍회관 寢會로 말미암아 이날 02.00 무렵에 歸家하여 就寢中 敵侵보고에 임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24일 05.00에 제6사단 제7연대장 林富澤중령으로부터 接敵보고를 직접 받았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는 副官인 羅最統 중위가 받았고 蔡총장에게는 그의 婦人이 보고내용의 요지를 알렸다. 그러나 잠결에 전방으로부터의 接敵보고를 받은 蔡총장은 이를 單純한 衝突사건으로 보았는지 별로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채 자리에 그대로 누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후 陸軍本部로부터 소진선에서 발생한 상황보고를 받고서야 그는 驚愕하고 起寢한 다음 즉시로 詳細한 상황을 알기 위해 金鍾泌중

위를 自衛으로 急遽 소환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로부터 긴급상황을 보고 받은 蔡총장은 곧 『全軍에 非常을 發令하고 각 국장을 非常召集하라.』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下達하였으니 이때가 05.00였다.

이어서 그는 申性模 국방부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通話할 수 없게 되자 그 즉시 장관秘書인 申東雨 중령을 전화로 呼出하여 장관의 所在를 確認한 다음 그와 같이 Jeep차에 搭乘하고 장관官舎(麻浦莊)로 달렸다.

얼마후 장관宅을 찾은 蔡총장은 준비한 狀況圖로 敵의 侵攻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때가 07.00였는데, 당시 보고를 청취한 장관 표정에 관하여 申東雨 중령은 뒷날 回顧하기를,

『장관은 응접실 탁자위에 지도를 펴놓고 蔡총장으로 부터 前方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때 장관의 표정은 자못 놀라고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였는데, 짐작은 하였겠지만 北僞가 일요일 새벽에 기습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한편 蔡총장으로부터 『非常發令』의 命令을 수령한 作戰局은 06.00~07.00에 全軍非常令을 下達하고 同時에 陸本장병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다.

陸軍本部長官실로부터 急報를 받은 참모장교 가운데 제일 먼저 登壇한 李政業대령이 뒷날에 述懐하였다.

『급보를 받고 陸軍本部に 나오니 상황실은 一線부대들로 부터의 상황보고가 幅輻하여 야단법석이었으며 상황관을 보니 前線은 여기저기 터져 있었다. 나는 直感으로 이것이 從來와 같은 局地戰이 아니라 全面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蔡총장이나 金白一 대령, 그리고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아직 登壇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不得已 作戰局의 先任者로서 상황처리에 책임을 지고 임할 수 밖에 없어 全軍에 非常令을 내렸다.』

이와같이 되어 첫 命令은 下達되고 陸軍本部를 비롯한 각부대의 비상소집이 同時에 실시된 셈이지만, 前述한바와 같이 全將兵들은 앞서 23일 24.00를 기하여 비상경계가 해제됨으로써 休暇와 外出·外泊으로 대부분 부대를 비우게 되었고 各級부대 본부에는 當直만이 남게 되어 混亂을 免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병소집에는 後述하는 바 많은 시간이 所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陸軍本部の 경우 장병소집에는 전화, 전령, 放送 등 各種手段이 강구되고 심지어는 국방부 제2국(정훈국)이 主動된 가두 마이크 방송이 실시되어 終日도록 장병들의 原隊 복귀를 督促하는 요란한 소리가 서울 가두는 물론 각종 集會場에 까지 울려 퍼졌는데, 이날 14.00가 넘어서야 80~90%의 장병이 소집되었다.

이와같이 실시된 비상소집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瞥見하면 다음 두 사람의 例인바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西大門쪽으로 移輪한지 얼마가 되지 않았으므로 직통전화를 미처 架設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날 09.00에야 우리집 부근에서 실시하는 가두방송을 듣고서야 급히 陸本에 出頭하였다.』라고 하였고,

또한 首都경비사령관 李鍾贊 대령도 그가 後日에 말한바에 따르면

『시간은 分明치 않지만 부대에 나오니 제3연대가 이미 제7사단에 配屬된 後였다.』라고 하였으니 미히 當時의 情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장병들은 고사하고 지휘관 및 一般참모들까지도 그 비상소집상태는 매우 不良하였고 一線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우선은 殘留하고 있는 장병들을 緊急出動하여 敵侵에 對備토록 하고 그 후에 귀대하는 장병들을 收拾하여 임시 中대 및 대니규모로 부대를 急編, 즉차로 戰線에 投入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 마. 後方사단의 動員

全軍에 비상을 下命하고난 蔡秉德 총참모장은 中樞樞장관에게 보고 즉시 陸軍本部로 直行하였다. 이 무렵 상황실은 前線 각부대로 부대의 긴급보고와 增援 요청의 受信, 그리고 非常令의 발신으로 頗雜을 빚고 있었으며 더구나 狀況을 處理할 要員의 不足 때문에 混亂은 加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敵의 侵襲상황을 단편적으로 밖에 헤아릴 수 없었던만큼 그들 侵襲기도는 正確히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하였으므로 李致業 대령은 一線부대로부터 상황을 接하자마자 그 즉시 反擊을 지시하는 形便이었으니 實로 그 判斷과 對策이 不協和하는 情況이 아닐 수 없었다. (研究 4 참조)

蔡총장은 登廳후 곧 국방부 정훈국장 李頌賢 대령(陸軍本部 정훈감 겸무)를 陸軍本部로 招致하고 『全軍에 非常을 알리고 신속히 이들의 소집이 실현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蔡총장이 登廳과 더불어 관계자의 應召가 늦은지 焦燥한 나머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나 얼마 후에 登廳한 行政참모부장 金白一 대령(作戰참모부장 겸무)과 協議하여 後方 3개사단의 出動과 首都경비사 예하 제3, 제18 兩개연대 및 기갑연대의 出動德機를 命令하였다. 이때가 08.00로써 中央放送(KBS)이 北傀의 南侵을 報道한 다음이며 一線부대들은 正面에서 侵襲한 北傀에 의해 그들 前哨진지들이 유린되었을 때였다.

後方사단에 대한 出動命令은 처음에 口頭로 이루어졌으나 그 後에 이 命令은 곧 作命 제 84호로 정리된 바 있는데, 蔡총장은 이들 後方사단의 出動을 下命함에 있어서 제5사단이 담당 수행중인 智異山 일대의 共匪擊滅作戰의 承繼를 위하여 湖南地區 전부사령부를 이날 부로 創設하고 시령관에 李燭錫 대령을 任命하였다. 따라서 그는 참모장 朴昇日 중령, 인

사참모朴楠杓 소령 등 7명의 참모진만을 引率하고 다음날 아침에 急遽 光州로 赴任하여 제5사단이 出動한 이후 그곳에 사령부를 新設, 이 날부터 該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後方사단의 出動과 이로 인한 次後조치를 막친 蔡총장은 곧 水邑에 있는 제1사단 사령부를 不時에 訪問하고 同사단의 前方상황과 예비대인 제11연대의 出動상황을 살펴 다음 그 길로 美 고문단의 연락장교인 James W. Hausman 대위를 同守하고 議政府의 제7사단 사령부를 訪問하였다.

그가 제7사단에 到着한 것은 이날 10.00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一線에 配備된 2개 연대가 각 1개 대대의 兵力만으로 陣前의 밀려드는 敵과 激突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抱川正面은 敵戰車에 의해 전지가 突破된 다음이었다.

이때 劉載興 사단장이 戰況을 說明하였는데, 그 보고내용의 要旨에서 2우익의 57mm 對전차포와 2.36" Rocket 포로서는 敵의 戰車を 격파할 수가 없다. 따라서 警戒부대는 敵의 戰車에 의하여 돌파되었다. 현재 제9연대가 抱川正面에서 그리고 제1연대가 東豆川正面의 준비된 主陣地에서 接敵하고 있으나 연대의 實兵力은 1개 대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예비연대의 不在로 作戰에 큰 困難을 겪고 있다.』라고 하였다.

보고를 청취한 蔡총장은 즉석에서 陣前薄攻擊으로 敵전차를 阻止하라.』고 命命한 다음 增援을 確約하고 陸軍本部로 돌아갔다. 그가 이 戰線시찰에서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心情으로 對處할 것을 決心하였는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側近者들의 談話를 綜合하면 3이네 제7사단 狀況을 把握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敵의 全面南侵이라 판단하고 매우 당황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陸軍本部에 복귀한 蔡총장은 즉시로 참모학교 및 步兵학교 高級班에 入校중인 該교육자의 原隊복귀를 命命하고 同時의 作命 제85호를 下達하여 즉시 제7사단에 대한 增援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에 있는 遊休兵力의 集結을 下命하였다.

이와 같이 조치한 蔡총장은 14.00부터 再開된 긴급閣議에 出席을 要求받고 그곳에 나가 當面の 戰況을 說明하였다. 이때 閣議에 참석한 문교부장관 白樂濟와 景武聚 警衛 閣復基가 밝힌바에 의하면 蔡총장은 그 戰況說明의 要旨에서 敵은 侵攻은 全面南侵이 아니라 共匪頭目 李舟河와 金三龍을 奪取하기 위한 策略 같으며, 곧 南쪽 사단을 集中하여 敵을 攻擊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閣議에서 戰況說明을 마친 다음 蔡총장은 敵의 主攻方向이라고 판단되는 議政府 전선을 다시 방문하고 戰勢를 살피면서 陣前지휘에 나섰는데, 이 사이 俞海嶺 중령이 지휘하는 임시연대를 汶山에 急派하여 제1사단 정면에서 서울에 侵攻하고자 하는 敵을 阻止키 하였다.

또한 15.20에는 漣津에 배치된 제17연대의 戰況이 不利하게 전개되어 연대가 危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依命 海上撤退를 敢行토록 命命하였다.

물론 이와같은 命命의 下達은 蔡총장이 閣議에서 前線觀察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



〈議政府로 出動하는 將兵들〉

의 大軍에 의하여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지만, 이 무렵에는 蔡壽長이나 金白一 부장 共히 敵의 침공이 全陸戰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作戦이 連發되면서 陸軍本部의 분위기는 衝擊과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通信의 不通으로 都是 제8, 제6사단과는 연락이 斷切되고 全體的인 戰況은 파악하기가 매우 至難하였다. 따라서 陸軍本部는 作戰을 지도함에 있어서 深思熟考함이 없이 우선 敵을 격퇴하는 臨機措置에만 着目하고 이를 위한 조치라면 그 즉시로 施行에 옮겼던 것이다.

이와같은 斷片的인 措置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12.00에 敵 YAK기는 서울 上空에 來襲하여 金浦空港과 龍山 부근에 기총사격을 恣行하였으며 都下新聞들은 璽津에서 돌아온 聯合新聞의 崔起德기자가 국방부 정훈국에 들러 『내가 璽津을 떠날 무렵 陸本에서 撤收命을 내린것 같은데, 제17연대 장병들의 士氣는 海州로 遙擊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要旨의 이야기가 訛傳되어 『國軍 北上, 反擊戰을 전개, 제17연대 海州로 突入.』이라는 題下의 誤報를 一齊히 掲載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시민들은 물론 軍當局者까지도 戰況에 眩惑되었다 할 것인데, 이어 13.00에는 當面의 情狀을 알리는 국방부의 談話文이 公表되어 이를 자신문이 號外로 發表함으로써 모두가 眞實과 虛實에 混雜하게 되었으니 그 談話文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今日 05.00에서 08.00 사이에 北僞는 38°선 全域에서 不法 南侵을 恣行하였다. 璽津 開城, 長湍, 議政府, 東豆川, 春川, 江陵 등 각지구 正面에서 北僞는 거의 同時에 南侵을 開始하고 東海岸에는 上陸을 기도하였다. 國軍은 全域에 걸쳐 이들을 激擊하기 위하

여 긴급하고도 적절한 作戰을 전개하고 있다. 東豆川 正面에서 그들은 戰車까지 動員하여 侵入하였으나 우리 對戰車砲에 의하여 격파되고 말았다. 今次 北傀의 無謀한 침공은 前부터 그들이 이른바 「祖國統一전선」이라는 美名아래 「평화통일」 및 「南北協商」을 내세워 謀略전선 방송을 行하여 왔으나 우리 側이 이에 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구나 5.30선거로 나라의 기반을 굳쳐가는 것을 嫉視한 나머지 早期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나아가 그들의 頽勢를 挽回하기 위해 共產徒輩의 상투수단인 武力에 호소한 것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軍은 叛逆匪徒들에게 斷乎한 應態態勢를 取하고 각지구에서 勇敢無雙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소국민은 軍을 信賴하고 微動함이 없이 각자의 직장을 固守하면서 軍 작전에 극력 協助하기를 바란다…(後略)』라는 內容이었다.

## 바. 反擊指導

### (1) 反擊준비 상황

前述한 바와 같이 蔡총장이 議政府전황 시찰에 떠나기에 앞서 行한 後方사단의 出動命令은 敵侵에 따른 對應조치로서 充分한 戰線 예비를 신속히 推進하고 次後 反擊作戰을 시도하려는 그의 決心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後의 조치들은 이들 후방부대가 北上하기도 前에 時時刻刻으로 戰勢가 不利하여짐에 이르러 우선 動員 가능한 부대로 하여금 一線부대를 增援하여 敵의 南侵을 阻止하려는 意圖가 앞서게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蔡총장은 同日 16.00에 또다시 作命 제87호를 下達하고 전선 가까이에서 前方사단을 迅速히 增援하기 위하여 제8, 제6, 제7, 개1의 4개사단에 기갑연대와 포병학교가 保有하는 장갑차와 對戰車砲를 각기 出動시켜 즉시 分屬케 하였다.

그런데, 蔡총장은 이 무렵에 이르기까지 議政府正面의 急迫한 戰況만을 2차에 걸쳐 살폈을 뿐 他전선상황에는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극히 斷片的인 狀況밖에 把握하지 못하였는데, 그가 이때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侵襲한 敵을 反擊하기로 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계자의 證言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은 『蔡총장은 당시 北傀전력을 過少평가하였고 後方 3개 사단의 서울集中이 26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라고 하였으며 金點帥중령도 『이 무렵에 蔡총장은 敵의 南侵이 局地的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蔡총장은 앞서 그가 긴급 閣議에서도 밝힌바대로 敵侵規模는 크기는 하지만 그 목표가 서울에 限定될 것이라는 판단밑에 서울에서 근거리인 議政府正面의 戰況에 많은 關心을 集中하게 되고 後方 3개 사단에 의한 反擊戰 역시 우선 이곳 전황을 恢復하기 위하여 될수록 빨리 決行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다.

張昌國 대령은 뒷날 蔡崇장의 이와같은 決心에 대하여 『我작전에 致命傷이 된 것은 그가 26일에 決心한 議政府正面에서의 反擊이었다. 이것은 蔡崇장이 서울 固守의 作戰方針을 取하게 된데서 起因하였다. 따라서 서울을 固守하려면 別策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蔡崇장은 보고와 회의 등으로 轉황을 살필 시간이 없었으며 더구나 通信의 不通으로 말미암아 作戰지도가 困難하게 되자 수시로 議政府正面의 轉황을 직접 視察하기 위하여 떠났다. 그러므로 그의 작전지도에는 많은 空白을 가져왔고 陸軍本部의 各參謀部는 자연히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이 管掌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당시 나는 아직 轉황이 流動의이며 南쪽에 있는 사단의 서울集中이 이루어질지 正確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議政府正面에 대한 反擊을 具申하지 않았으나 崇장이 이미 反擊을 決心한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要旨의 證言을 하였다.

이와같은 蔡崇장의 決心은 그가 직접 議政府方面의 轉황을 視察하는 과정에서 굳어졌으며, 이를 決行함에 있어서는 참모들의 助言을 받거나 協議하지도 않은채 獨斷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든 蔡崇장이 侵攻하는 敵을 격멸하고 38°線을 恢復하기 위하여 反擊을 斷行키로 決心한 이상 後方사단의 서울集中은 이를 決行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필수로 빠른 속도가 要求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後方사단들은 非常時에 대비한 부대移動계획이 未備하고 혼란을 쌓지 못한데다가 前述한 週末外出 및 休暇 등으로 장병소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列車의 手配가 지연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期待한 바와 같은 迅速한 後方사단의 同時集中은 難望이었는데 이 사이 出動을 下命받은 首都경비사령부 에하 3개연대와 步兵학교 및 士官학교 教導隊도 同一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戰線 增援에 상당한 시간이 遲滯되었다.

즉, 首都경비사령부의 제3, 제18 兩개연대는 이 날 14.00~22.00에 이르러서야 제7사단 지역에 進入을 完了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右隣接 제6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의 虛隙을 메우기 위하여 別命에 따라 加平으로 轉進케 된 제8연대(一)도 이날 薄暮에 이 지역에 배치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제1사단을 增援하게된 步兵학교 및 士官학교 教導隊의 急編부대 역시 實兵力 1개대대 규모로 17.00에 龍山驛을 出發, 列車로 汶山지역으로 向發할 수 있었다.

蔡崇장이 議政府正面의 戰況을 두번째로 視察하고 陸軍本部로 돌아간 17.00 現在 陸軍本部는 各 戰線의 戰況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었다.

東海岸에 배비된 제8사단은 北傀 제5사단이 玉溪(墨湖 北쪽 10km) 및 臨院津(三陟 南쪽)에 上陸한 제766, 제549 兩개 부대의 兩面 공격을 받아 苦戰중이었으나 이때까지 陸軍本部와의 通信이 계속 不通하다가 13.00 무렵에야 참모장 崔甲中 중령이 作戰局 李致業대령과의 通話에 成功하고 增援부대의 急派와 연락항공기의 지원 및 今後작전에 대한 下命을 要



請하였다. 그러나 李致業 대령으로부터는 『잘 싸우시오. 지금 상황은 江陵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방어가 큰 문제이다.』라는 要旨의 내용만을 通報받고 통화는 끊기고 말았다.

洪川—沓川 正面을 담당한 제 6사단은 於論里(洪川 北쪽 28km) 및 沓川 兩개 正面으로부터 北傀 제7사단과 同 제2사단의 同時 侵攻을 받아 沓川방어에 專力하면서 戰車를 앞세운 이들의 魏鋒때문에 역시 苦戰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도 통신의 不通으로 말미암아 계속 소진선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이날 15.00에 사단장은 金仁—대령과 통하게 되어 그로부터 『戰況이 매우 不利하다. 당신은 江原道 지주 戒嚴사령관에 任命되었으므로 人的 物的인 모든 動員權限이 있으니 最善을 다 하시오.』라는 要旨의 通報를 받았다.

따라서 사단장은 우선 機動力을 確保하고자 沓川市內와 寧越炭鑛에 있는 自動車의 整발 準備를 갖추었다.

제7사단은 蔡總장이 직접 戰況을 살피는바 되었지만 사단의 右—線부대인 제9연대는 이날 11.00에 戰車에 의해 主陣地가 突破되어 抱川은 敵手에 侵奪되고 제3연대가 增援될 무렵에는 主力이 分散될수하여 金梧里(議政府 東北쪽 3km) 부근 稜線으로 集結중에 있었다.

그러나 左—線인 제1연대는 戰車의 지원을 받은 北傀 제4사단의 侵襲에도 不拘하고 善戰하여 이때까지도 東豆川을 固守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제13연대가 北傀 제6사단의 強壓으로 龜津江 南岸으로 철수, 坡平山 東西진지(主陣地)로 轉換하였고 제12연대가 이날 09.30에 開城이 敵手中에 떨어지자 退路가 차단되어 惡戰을 거듭하다가 主力이 17.00부터 嶺井里(開城 南쪽 20km)와 石浦里(延安 南쪽 7km)에서 海路를 이용 對岸인 金浦半島로 철수하고 있었다.

龜津半島의 제17연대는 一線이 敵에게 突破되어 主力이 兩分된채 康翎里(龜津 東쪽 14km)와 龜津으로 축차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7.00에는 龜津과 康翎里가 尖銳케 되는 등 戰勢는 매우 不利하였다.

한편 陸軍本部는 後方사단의 動員에 따라 부대이동상황이 不振하고 있을때인 이날 16.40에 作命 제89호를 下達하여 全戰線의 戰況을 알리고 미처 조치하지 못한 이들 부대의 前方집결지를 明示하였다.

이어서 총장은 얼마후에 제7사단 正前에서 侵攻하는 敵의 一部가 金化—萬世橋—抱川가도를 따라 南進하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케 되자 可用兵力을 검토 끝에 泰陵에 위치하는 陸士生徒隊마저 一線에 起用키로 決心하고 作命 제90호를 下達하여 士官학교 生徒隊의 光陵 北쪽으로의 出動을 命令하였다.

## (2) 反擊과 兵力의 逐次使用

前述한 경위로 하여 後方 3개사단 가운데 서울에 먼저 도착한 것은 大田에서 北上한 제2사단 지휘부와 제5연대의 제2대대로 이때가 18.00였다. 사단장 李宇根준장은 이에 앞서 陸



〈作戰 지도중인 蔡秉德 總參謀長〉

軍本部에 出頭하여 蔡총장에게 부대의 이동상황을 알리고 1개대대가 龍山역에 當到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蔡총장은 卽席에서 『곧 議政府로 前進하여 敵을 阻止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口頭로 下達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李亨根 准장은 『지금 나의 手下에는 1개대대 뿐으로 사단主力의 서울 集結은 明朝에야 이룩될 것이 豫想되니 彼我的 상황을 充分히 檢討한 然後에 兵力運用 方案을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므로 地形조차 알 수 없으며 더구나 原則에 違背되는 兵力의 逐次 사용의 愚을 犯하게 될 것이니 此際에 漢江線 방어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要旨로 건의하였다. (李亨根准장의 證言)

그러나 蔡총장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은채 강경한 어조로 거들 駁斥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결국에 사단지휘부와 제5연대 제2대대는 陸本 作戰局의 지시를 받아 龍山역으로부터 陸軍本部에서 제공되는 簡易給食을 마친 다음, 貨車에 塔乘한 그대로 議政府로 다시 北上 前進하여 20.00 무렵에 金梧里(제7사단 제9연대의 指揮所)로 進入하게 되었다.

이 두렵 당면의 戰況은 제9연대가 崩壞된 이때 제3연대가 松隈里(松稱 솔모루)에서 진지를 占領하고 敵의 南進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이 날 18.30에 正面에 出現한 敵戰車 7~8대에 의하여 正面이 突破되었으므로 鎗병들의 士氣는 一瞬에 沮喪되어 祝石嶺下麓으로 撤

收하는 바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이곳에서 兵力을 收容하기에 노력하였지만 이 역시 敗戰의 衝擊으로 分散된 장병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되지 않자 마침내 祝石嶺 방어를 諦念하고 金梧里 南쪽 殘線으로 물러나 兵力을 수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26일 01.00에 蔡총장은 제7사단 사령부를 세번째로 訪問하고 제7사단장으로부터 當面의 戰況을 청취한 다음 이 자리에서 同席한 제2사단장 李亨根 준장과 제7사단장에게 反擊命令을 下達하였다.

그렇지만 李亨根 준장은 앞서 陸軍本部에서 한 直言을 되풀이하여 命令이행의 難易性을 力說하였다. 이에 蔡총장은 嚴命으로 다스려 「敵의 砲火力과 戰車에는 정신력으로 對抗되 특히 敵戰車에는 手榴彈 및 揮發油 등으로 肉薄하여 적과하라.」 하고 嚴命하였다.

그리고 얼마후에 그는 同席한 車甲俊 소령에게 대대상황을 묻고 「大韓民國의 운명은 議政府에 달려있다. 지금 抱川에서 넘어 오는 敵戰車 30대가 祝石嶺 北쪽에 있다. 특공대를 편성하여 이를 적과하라. 귀관이 이에 成功하면 중령으로 特進이 될 것이다.」라는 要旨의 命令을 連發하였다. 이에서 蔡총장의 意中을 헤아려 볼 때, 그는 26일 未明까지에는 제2사단 主力이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대로 하여금 서울 北쪽의 要衝인 議政府를 固守하고 나아가 攻勢로 轉換하려는 決意가 確固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一部로써 夜襲을 敢行하여 議政府의 要地要部를 확보하려는 計策으로 더 이상 時間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推斷된다.

이와 같이 되어 제5연대 제2대대는 그 뒤에 사단장으로부터 夜間공격 命令을 받아 不足 상태에 있는 탄약보급만을 부탁하고 대대를 지휘, 徒歩기동으로 金梧里의 제9연대 본부를 떠나 祝石嶺으로 前進하였으니 이때가 03.00 였는데, 그 뒤로 後續한 제1대대도 議政府에 이르러 軍裝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단장은 이무렵 祝石嶺이 제3연대에 의하여 確保中인 것으로 錯覺하고 있었으므로 제1대대장에게도 祝石嶺으로의 前進를 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兩개대대는 敵情에 介意치 않고 각기 分離된채 祝石嶺을 向하고 있었으나 06.00 무렵 南進하는 敵戰車隊와 不期에 遭遇케 되어 射擊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는 戰車砲에 스스로의 位置만을 露呈하는 結果가 되어 一瞬에 瓦解되었으며 戰車는 前進部隊의 中央을 通過하여 悠悠히 南進하였다.

한편 제16연대는 이 날 04.00에 1개 대대만이 龍山에서 作戰場 지시를 받아 倉洞역에 도착한 다음 바로 議政府에 轉進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은 이때에 앞서 蔡총장에게 具申한 바와 같은 兵力의 축차 사용이 愚策이라는 持論에도 不拘하고 그는 곧 연대를 祝石嶺으로 前進할 것을 下命하였다. 이때가 08.30이었는데 얼마뒤에 後續한 1개대대도 이에 合勢케 되었으므로 연대장은 곧 兩개대대를 지휘하여 또한 祝石嶺으로 急衝하였다. 그러나 상황

은 제5연대와 같아서 제5연대가 祝石嶺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만 誤認하고 前進하던中에 撤收하는 제5연대 소속 장병을 發見케 되고 얼마 뒤에는 南侵하는 敵戰車와 부딪치게 되어 또다시 前轍을 밟고 말았다.

여기에서 사단장 李亨根 준장은 後日에 밝힌 것처럼 『이 程度의 夜襲으로는 祝石嶺의 확보가 無難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고 보니 참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새로운 사실에 對處코자 힘을 기우렸으나 戰勢는 急轉하여 제2사단의 主力은 蔡총장이 下命한 바와는 달리 이미 戰列이 瓦解되기에 이르코야 말았으며 議政府의 危機는 三寸에 寸前에 박두한 것이었다.

한편 蔡총장은 제2, 제7 兩사단장에게 反擊을 下命한 다음, 곧 復歸하여 今後作戰 지도方針을 짜기에 沒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무렵 渡美유학 待機로 釜山지방에 出張하고 있던 姜文奉 대령이 陸軍本部에 出頭하여 蔡총장에게 그는 要旨 다음과 같이 建議하였다고 證言하였다.

『現 戰況으로 미루어 全般의 作戰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局部的인 戰況에만 拘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急迫한 議政府正面의 作戰을 統制하기 위하여 前方 指揮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總長이 언제나 前方指揮所에 있을 수 없는 사정인 만큼 本人이 連絡任務를 맡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蔡총장은 이를 곧 應諾한 다음 그를 帶同하고 이날 09.00에 네번째로 議政府에 所在하는 제7사단 사령부를 訪問하여 사단장으로 부터 『사단은 예정대로 反擊을 開始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제2사단의 戰況은 알지 못한채 급히 陸軍本部로 돌아갔다.

蔡총장은 이로부터 申性模 장관과 함께 軍事經歷者 회의와 11.00부터 개최 예정인 非常國會에 임할 준비에 착수 하였겠지만 李亨根 준장은 다시 『前線은 優勢한 敵으로 말미암아 一瞬에 突破되어 混亂이 極에 達하고 있다. 이 이상 부대를 投入하는 것은 對戰車 수단을 갖지 못하고 또 지원화력이 不足한 현 상태로는 無意味한 것이다. 此際에 勇斷을 내러 後方사단을 漢江南岸인 永登浦에 集中하여 戰線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要旨의 建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蔡총장은 제8, 제6사단 상황은 不明하지만 善戰하고 있음을 어느 程度 接하고 있었고 또한 제1사단과는 연락이 유지되고 있어서 平素 敵情을 輕視하고 있던 錯覺도 作用하여 오직 議政府 正面의 戰況에만 관심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李亨根 준장의 건의는 끝내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申性模 국방부장관은 이날 08.00에 前述한 戰況과는 아랑곳 없이 中央放送局(KBS)에 나가 『侵入한 敵은 國軍의 反擊으로 退却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軍은 總反擊戰을 개시하였는바 此際에 鴨綠江까지 進擊하여 민족의 宿願인 國土의 통일을 完遂하코야 말 것이다.』라는 要旨의 生放送을 실시 하였고 이 後에도 방송은 이를 反復 실시 하였기 때문에

국민大衆들은 戰勢를 樂觀하게 되었다.

#### 사. 逐次阻止線의 形成

軍事經歷者 회의: 議政府 전선의 作戰에 있어서 混線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방부장관 申性模는 李承晩 대통령으로부터 『군사 경력자들의 諮問을 받아 難局을 打開하라.』는 要旨의 特命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장관은 26일 10.00에 국방부로 긴급히 現役 및 在野元老급 군사 경력자를 招致하였는데 이에 出席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各軍 總參謀長

金弘壹 소장(참모학교장)

宋虎驥 준장(前경비대총사령관, 靑年방위대 고문단장)

柳東說 (前 統衛部 部長)

李範奭 (前 光復軍참모장 및 前 國務總理)

李青天 (前 光復軍사령관)

金錫源 예, 준장(前 제1사단장)

이 회의에서 申性模 장관과 蔡崇장이 說明한 戰況의 要旨은 『현재 군은 議政府에서 北僞군을 反擊하고 있으며 戰況은 有利하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金弘壹 소장은 作戰지도 方針의 確立을 強調하는 한편 議政府 正面에서의 攻勢 이전을 危險視 하고 漢江 以南에서의 決戰을 主張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同席한 李範奭·金錫源 兩人도 이에 同語하고 現 漢江선 방어 以外에는 勝算이 없음을 強力히 提案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에 회의는 申장관이나 蔡총장의 持論을 꺾지 못한채로 짧은 시간내에 閉會 되는바 되었다.

이 회의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뒷날 밝힌 證言 가운데 金錫源은 『26일 아침 국방부에서 參席해 달라는 連絡이 있기에 나가 보니 7~8명의 현역 및 예비역 將軍들이 參集하고 있었다. 申장관이 戰況을 설명하기를 「東海岸에서는 300명의 敵이 投降하였고 제17연대는 海州에 進擊하고 있다.」며 樂觀하고 있어서 나는 「그런 리가 없을 것이다. 確認해 보라.」라고 하였으나 蔡총장은 「反擊, 北進 한다.」라고 하여 그의 決心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金弘壹 소장은 『나는 이 회의 劈頭에 作戰지도 方針을 確立하는 것이 急務이며 決戰을 企圖한다면 어느 선에서 兵力을 集中하느냐, 遲延作戰을 取한다면 어디까지 撤收 하느냐를 早急히 決定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는 事態를 종합적으로 判斷할 수 있는 狀況圖 조차 없었으며, 兩人의 보고는 局地的인 것에 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後日에 述懐한 要旨이다.

또한 이 회의에 陪席할 수 있었던 首都경비사령관 李鍾贊 대령은 뒷날 回顧하여 말하기

를 726일 아침 作戰지도 會議를 연다고 하면서 蔡총장이 나와 協議하러 왔기에 나는 서울을 固守하여야 한다는 方針에 動搖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蔡총장도 이에 同意하는 것 같았다. 군의 元老들은 漢江선에서 군을 정비하고 새로운 態勢에 임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렇지만 船長出身의 長官은 敵의 공격은 威力偵察일 것이므로 이를 격퇴하여 北進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으나 나와 蔡총장은 「서울固守」論을 主張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UN군이 참전할 것인지 소려 알 수 없었고, 또 참전한다 하더라도 언제 參戰할지 예측할 수 없을 때이니 만큼 作戰方針으로는 서울固守에 專念하던가 漢江선으로 撤收한다던가 兩者擇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漢江선으로 撤收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동력을 갖지 못한 관계로 別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明若觀火 하였다. 兩者 共히 勝算이 없을진대 「서울시민을 돌보지 않고 退却하다가 결국에는 敗하였다.」라는 말을 듣기 보다는 차라리 「서울을 固守하고 죽었다.」라는 便이 上策이기 때문이다. 蔡총장이 巷間에서 말하는 이른바 「서울固守를 固執한 것은 政治的인 體面을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兵力의 比나 可能性을 無視한 兵法上의 常道에 違背되는 決定的인 失策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酷評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結果만을 가지고 論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당시에는 敵情이 明確하지도 않으며 美軍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萬一에 蔡총장이 漢江선으로 撤收할 것을 主張하였다고 하더라도 市民이나 정부기관의 疎隔을 위하여 27일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따라서 이때까지는 서울을 支撐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 회의에서 蔡총장이 어쩔 수 없이 「서울固守」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경위를 설명하였다.

군사경력자 회의가 끝나자 申장관과 蔡총장은 11.00부터 中央廳에서 開催된 非常 國會에 出席을 要求 받아 戰況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에서 申장관은 『3~5일 이내에 平壤까지 점령할 수 있는 萬般의 준비와 強力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鄭一亨 의원 證言)라고 하였으며 蔡총장은 『敵을 議政府밖으로 격퇴하였다. (黃聖秀 의원 證言) 3일 안으로 平壤까지 점령 하겠다. (金用雨 의원 證言)』라는 樂觀論을 또다시 전개 하였다.

蔡총장은 國會에서 證言을 마치고 즉시로 陸軍本部長로 歸廳하여 議政府 正面에서의 反擊 結果를 鶴首苦待 하기에 이른 것으로 推測할 수 있는데, 이무렵 議政府의 전황은 前述한 제2사단의 反擊失敗로 말미암아 敵의 砲聲은 점차 議政府에 가까와졌고 제7사단의 反擊 戰 역시 狀況 判斷이 빗나가 議政府의 持久는 거의 可望이 없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蔡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金白一 대령은 그가 살핀 그 間의 戰況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때 정보국 朴正熙 정보상황실장은 蔡총장에게 今後 作戰지도 方針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具申하였다.

① 彼我的 戰力差로 미루어 議政府 正面에서의 反擊戰을 固執하는 것은 無謀한 作戰

이다. 신속히 現전선 兵力으로써 지연작전으로 轉換케 하고 그 사이에 예비사단을 漢江선에 집중하여 固守방어를 取하여야 할 것이다.

② 漢江 방어에 있어서는 漢江橋의 폭파가 문제이나, 此際에 군수자재나 중요 물자를 大田으로 後送하고 漢江 北岸兵力 撤收를 마친 다음 폭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時機의 선택을 慎重히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③ 大田 以南 지구에서는 動員 가능한 청년방위대와 新兵을 훈련하여 軍의 擴充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內容이었다.

그러나 蔡총장은 이를 받아 드리지 않고 金白一 대령에게 北上하는 부대를 계속 議政府 전선에 增援토록 指示하고 또다시 議政府 전신을 視察키로 決心하여 떠났으니 이때가 13.00로 議政府가 敵手에 들어간 때였다.

議政府의 失陷: 제2사단장은 이날 12.00 直前에 金梧里의 지휘소에 있었는데 이때 溫陽에서 北上한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이 出頭하여 『연대는 11.00에 倉洞역에 도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要旨의 신고를 하였다.

同연대는 溫陽出發 당시에 『靈津의 제17연대가 海州를 점령하였다.』 또는 국군이 平壤과 元山을 向해 北進하고 있다.』라는 등의 터무니 없는 放送이 실시되고 있어서 이 出動이 北進이 된 것이라는 安易한 생각에서 모든 장병은 私物까지 携帶하고 있었으나 金요한 彈藥은 1인당 평균 15발 정도만을 携帶하고 있었다.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제2, 제3 兩개 대대만을 直率하고 이날 아침 龍山역에 도착 하였으나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으로부터 『즉시 金梧里로 急進하여 제2사단 要地로써 抱川 奪還에 참가 하라.』하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受領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不足한 彈藥의 推進 補給만을 軍수국장 楊國鎮 대령으로부터 確約 받고 10.00가 지나 龍山역을 發進하여 倉洞역을 向해 北進하게 되었던 것으로 연대는 議政府에서 탄약 보급을 받은 뒤에 전투에 참가 하자면 이날 17.00가 넘을 것으로 豫想되었다.

이무렵 前方 상황은 거듭 惡化되어 제5연대를 增援한 제16연대로부터 『연대는 祝石嶺으로 進出하다 南進하는 戰車의 공격을 받아 正面이 突破되어 散列이 혼어지고 四散되었다.』라는 要旨의 急報를 받았다.

이에 이르자 사단장은 연대의 전력을 檢討끝에 이미 祝石嶺의 확보는 難望이라고 보고 兵力만은 收拾하여야겠다는 판단이 앞서 즉시로 제5, 제16 兩개 연대에게 『곧 撤收하여 倉洞에 집결하라.』는 긴급命令을 下達 하였으며, 同時에 사단지휘소가 敵砲의 집중 공격을 받게되자 또한 수의철수를 斷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제7사단은 反擊을 發起하여 接敵없이 이날 10.00에 東江川을 奪還하고 제2사단과는 對照的으로 士氣가 드높았으나 제2사단의 崩壞로 議政府에 位置 하였던 사단 사령부가 敵砲의 射程範圍에 들게 되어 敵砲의 집중이 증가되고 아울러 議政府는 避難民과 後退하

는 제2사단 장병이 混雜하여 길을 메우는등 삼시간에 阿鼻叫喚의 修羅場으로 突變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의 急變으로 首都圈 방어의 要衝인 議政府는 後方에서 北上한 제2사단의 逐次 投入만으로 그치고 이날 13.00에 失陷 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제7사단은 당시 東豆川에 進入한 제1연대와 德亭에서 진지를 占領 하였던 제18연대 등의 背後가 끊기고 아울러 사령부에도 敵彈이 集注 되었으니 劉載興 준장은 이들 부대의 철수만을 명령하고 상황을 살펴 보지 못한채 倉洞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이 撤收 상황에 대하여 뒷날 劉載興 준장은 『李亨根 사단장과는 1~2回 程度 정보를 교환 하였는데, 이날 正午에 갑자기 「사단사령부에 포격이 集中되어 이를 確認한바 東쪽 1~2km 도로에서 10대 가량의 戰車가 닥치는대로 포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通話가 있을지 얼마뒤에 연락은 끊기고 말았다. 나의 手下에는 一兵의 예비나 1문의 砲도 가지지 못한채 뒷山으로 부터는 敵兵이 나타날 氣勢이고 敵포격은 점차 증가되었으나 束手無策이었다. 잠시 敵砲火를 避해 지휘의 斷絶을 막기에 노력 할수 밖에 없었으나 이미 戰勢는 우리편이 아니었다.』라는 要旨로 밝히고 있다.

· 議政府가 敵手에 들어 갈 무렵 蔡총장은 白石川(議政府 南쪽 1km)에서 그의 體貌도 아랑곳 없이 撤收하는 부대를 수습하였는데, 여기에서 제2사단장과 同사단의 참모要員들을 發見하고 怒聲으로 李亨根 준장의 作戰 失敗를 詰責하고 나서 즉석에서 사단장 職을 免職 하였으며, 同時에 제2사단을 제7사단장으로 하여금 통합지휘케 하였다. 또한 同사단 참모장 崔昌彦 중령을 제5연대장에 補任하고 이때까지 제5연대를 지휘한 同연대의 부연대장 朴基成 중령의 職位를 解任하였다.

· 이렇게 卽席 人事 조치를 取하고난 총장은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을 확인하자 가까이 에 불러 同 연대의 사정을 묻고 연대가 倉洞에서 前進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貴官만 믿는다. 지금 곧 白石川을 確保하고 南侵하는 敵을 阻止하라.』라는 要旨의 口頭命을 下達하였다.

命을 受領한 金炳徽 중령은 15.00에 急速 제2, 제3 兩개 대대를 河川 堤防을 따라 並列하여 진지를 整령케 하고 제2, 제7 兩개 사단 主力의 撤收를 엄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對戰車 방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27일 拂曉에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 (2) 倉洞阻止線

議政府의 失陷으로 서울의 危機는 頃刻에 다다른 셈인데, 이에 이르러 敵은 一部 騎馬 부대로써 議政府-坡州로 西進케 하여 제1사단의 後方을 威脅하고 그 主力은 議政府에서 서울을 直衝 하려는듯 刻一刻으로 그 醜鋒을 倉洞에 집중하고 있었다.

彼我의 상황이 이와 같았을 때 蔡총장은 얼마뒤 姜文奉 대령이 蘆海派出所에 임시로 開



設한 前方 지휘소에 들러 때마침 議政府에서 道峰山下麓을 거쳐 이곳으로 撤收한 제7사단장과 同사단 참모陣과 連繫하게 되었다.

이때 蔡총장은 즉시로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에게 다음과 같이 嚴命하였다.

『기관을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에 任命한다. 제2사단 예하 각대를 統습지휘하여 즉시로 倉洞—牛耳洞 선에 진지를 占領하고 이곳에서 敵侵을 阻止하라. 敵의 南侵 阻止에 成功하면 제3, 제5 兩개 사단으로써 公세 移轉하여 38°선을 回復한다. 곧 美軍機 100대가 出擊할 것이니 戰勢는 逆轉 될 것이다. 迅速히 兵力을 수습하여 진지를 占領하고 우선 이곳을 固守하라.』(제7사단 참모장 金鍾甲 대령 證言)

蔡총장의 命을 受領한 劉載興 준장은 이로 부터 徹夜 제1선에서 撤收하는 장병들을 收拾하여 再編成을 시작 하였는데, 이곳의 부대는 제1, 제3, 제5, 제16, 제25 등 모두 5개 연대에 達 하였으나 兵力은 都合 1개 연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蔡총장의 嚴命에 의하여 形成케 된 倉洞—牛耳洞의 阻止線은 우선 이들 混成撤收 부대로 急編케되고 南侵하는 敵을 격파할 別段의 대책을 갖지 못한채 소속 別로 兵力을 모아 倉洞 一帶에 전개 하였으니 議政府에서 서울로 通하는 國道에는 前述한 제25연대(-1)가 白石川에서 敵을 阻止하기에 孤軍 奮鬪하고 있었고 그 後方 5km 지점인 倉洞부근에는 이들 부대가 臨編되어 敵侵을 阻止코자 하였다.

第1사단에 대한 措置 :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全州에서 北上한 제5사단 예하 제15연대 제3대대가 전날(25일) 오후에 사단 先發隊로 龍山역에 도착 하였으므로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은 총장 內示에 따라 戰線增援의 均衡을 이루고자 곧 陸本作命으로 제1사단 배속을 下命하였다.

그러므로 同대대는 참모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서울에서 待機한 연대장 崔榮禧 대령의 直率로 해질 무렵에 列車便으로 稜谷(서울 西北쪽 15km)까지 이른 다음 徒步로 行軍하여 奉日川 西쪽에 移動하여 이날 진지를 占領하였다. 또한 同사단의 後續梯隊로 北上한 제20연대 제3대대도 이날 19.00에 陸本 指示로 水色으로 前進한 다음 夜間行軍으로 奉日川에 進出하여 앞서 이곳에 진지를 점령한 제15연대 제3대대 右側 일대에 兵力을 전개 하였다.

陸本장교연대의 出動 : 이날 下午 金白一 대령은 議政府가 敵手에 들어 갔다는 飛報에 接하자 陸軍本部의 장교 全員을 練兵場에 集주시켜 當面한 緊急狀況을 설명하고 나서 要旨에서 이르기까지 『陸軍本部 참모장교라 할지라도 이 破局을 坐視 할수만 없다. 곧 前線으로 挺身코자 하는자는 擧手하라.』라고 囑破하였다. 이에 參集한 장교 全員은 앞을 다투어 擧手함으로써 滅共의 旗幟를 높이 들어 곧 부대 편성에 착수 하였는데, 연대장에는 孔國鎮 중령을, 부연대장에는 申元植 소령을, 그리고 대대장에는 陳龍坤 소령과 邊應梧 중령 그리고 張虎崗 소령을 각기 部署하여 兵卒 없는 이른바 장교연대를 急編하고 倉洞으로 急

派하였다.

이에 앞서 陸軍本部는 李龍文 대령, 金炳吉 중령, 桂昌律 소령, 李鍾國 소령 등 100명 에 가까운 장교들을 각기 참모요원으로 또는 連絡장교의 임무를 주어 倉洞선에 出動케 하고 撤收하는 장병들의 戰意振作과 전선 수습에 盡力케 하였다.

제8연대의 轉進 : 한편 전날에 加平으로 出動한 제8연대(-)는 蔡총장이 倉洞에서 陸軍本部로 돌아간 다음인 이날 19.00에 『漢江 南岸으로 轉進하라.』라는 要旨의 急電을 接受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 徐鍾喆 중령은 곧 兵力을 수습하여 徹夜 行軍으로 漢江 南쪽 黑石洞 부근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다음날인 27일 07.00였다.

제22연대의 分屬 : 이날 陸軍本部는 또 전날(25일) 오후 늦게 서울에 先着한 제22연대 제3대대를 제8연대 幕舍에 控置하여 부대를 정비케 하였으나 同연대의 主力(제1, 제2대대)이 이날 오후에 永登浦에 進入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제3대대의 金浦(서울 西北쪽 28km) 方面으로의 出動을 下命하였다. 따라서 同연대장은 계속 제3대대를 陸軍本部에 直屬케 하고 2개 대대만을 碧蹄(서울 北쪽 15km)쪽으로 前進토록 하였던바 이들을 제1사단과는 連繫하지 못한채 서울—奉日川 가도 中間에서 전지를 占領하고 27일을 맞았으며 서울에 控置되었던 제3대대는 陸軍本部 조치로 이날 金浦半島로 漢江 河口를 渡江하여 侵入하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轉進케 되었다.

蔡총장은 이때까지 서울을 固守하기로 決心하고 필수록 北쪽에서 敵侵을 阻止하려 하였으나 議政府의 早期失陷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倉洞線에 이르게 되었다.

蔡총장의 作戰方針이 이렇듯 動搖되고 있을 때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은 이날(26일)밤 新銳인 제25연대 제3대대장 高東漸 소령에게 議政府에 侵入한 敵情에 대하여 威力偵察을 命命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出動 직후인 27일 04.00부터 공격을 재개한 敵 제3, 제4사단 主力에 의하여 유린 되고 이어 同연대 주력도 惡戰苦鬪에 빠져 마침내 突破되었다.

이무렵 陸軍本部는 工兵學校장 嚴鴻燾 중령에게 議政府에서 南侵하는 敵 戰車를 爆破토록 指示 하였는데 그는 敎官과 학생들을 지휘하여 TNT에 信管을 넣어 戰車가 通過하게 될 橋梁들을 파괴케 하였으나 北傀의 南侵을 阻止, 遲滯케 하기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

倉洞 阻止선에는 戰意를 喪失하고 더구나 飢渴이 극심한 장병들을 急編하여 配備한 까닭에 그 防備가 허술 하였고, 이에 대하여 指揮體系도 確立되지 못 하였다.

한편 蔡采德 총장은 空軍 총참모장 金貞烈 준장의 요청에 따라 27일부터 陸·海·空軍 總司令部이라는 이름으로 布告文을 發行, 軍작전에 따른 後方體制의 정비도 아울러 수행 하였다. 그런데 그는 26일의 各種 緊急會議에 참석하여 戰況 설명을 마치자 倉洞선 作戰 지도를 위하여 이날 下午 또다시 職檢시찰에 나섰다.

그는 곧 議政府지구 전투사령관 劉載興 준장으로 부터 제25연대가 白石川에서 敵에게



< 我軍의 105mm 曲射砲 >

突波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아울러 제1연대장 咸俊鎭 대령의 戰死로 말미암아 그 後任에 同 연대의 부연대장 李憲權 중령을 任命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나 蔡총장은 즉석에서 이를 否認하고 제1연대장에 李鍾國 중령을 任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연대의 所在조차 알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제1연대는 두 사람의 연대장이 指揮하게 된 셈이 되었다. 또한 蔡총장은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에게 제16연대를 統帥 지휘토록 하였으므로 연대에 연대를 配屬하는 愚策을 犯하여 지휘의 混亂만을 加重케 하였다.

이어서 총장은 孔國鎮 중령이 지휘하는 장교 연대가 兵卒이 없음에 留意하여 그에게 『장교들을 각 연대장 보좌관으로 하여 派遣토록 하라.』라고 지시 함으로써 각 부대는 뱃사공단이 많아지는 格이 되고 말았는데, 이무렵 제2사단 後續梯隊로써 전날에 鷲梁津에 進入하여 배비수인 제16연대 제3대대가 倉泥 戰線에 來到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倉洞 阻止선의 主力부대로 起用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李亨根 준장은 또다시 蔡총장에게 決心을 留意하도록 勸告를 서슴치 않았다.

『一刻이라도 빨리 漢江선 방위에 着守하여야 할 것이며, 連斷으로 重大事를 그르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라를 생각 한다면 이 곳에서의 無謀한 전투는 避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가 뒷날에 밝힌 要諦인데, 蔡총장은 이를 一蹴하고 『反擊하여 北進한다.』라

고 또다시 怒號 하였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 時點에서도 蔡총장은 當初의 決心을 굽히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날 12.00에 倉洞線은 侵攻을 再開한 敵에게 突破 됨으로써 또다시 그 南쪽에 서울 防守를 위한 阻止線을 急編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軍首腦連席會議**：倉洞線의 危機가 近迫 하였을 무렵인 이날 深夜에 申性樸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와 國會出席에 앞서 각군 총참모장을 국방부로 召集하고 긴급 對策을 議論하기 위하여 會議을 開催 하였다.

이 회의에는 陸軍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 空軍 총참모장 金貞烈 준장, 海軍 총참모장 대령 金永哲 대령, 陸軍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 등 各軍 總參謀長級 만이 참석 하였는데, 議政府가 失陷되어 戰勢는 樂觀만을 할수 없다고 보고 今後 作戰을 統一하기 위하여 議論 끝에 다음과 같이 非常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一同은 美國이 現 時點에서 긴급 탄약을 지원 한다고 하였지만 美군의 직접 지원이 없는 限 事態는 絶望의이라는 觀點에 一致하고, 첫째로 陸軍은 撤收만을 거듭 할 경우 마지막에는 遊擊戰으로 轉換하여 끝까지 抗戰한다. 둘째로 海·空軍은 陸軍 작전에 協同하고 最後에는 政府의 亡命時에 對備하여 그 要人들의 수송을 담당한다는 骨子의 對策을 마련하였다(金貞烈 준장의 證言).

이로 미루어 보건대, 蔡총장은 이때에 이미 自身の 意圖로 貫徹할 수 없음을 自認하고 서울방어에 自信을 잃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申장관은 蔡총장을 同伴하고 深夜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蔡총장이 계속 戰況을 樂觀의으로 설명한데 反하여 장관은 『정부의 水原 이동』를 發議하고 閣僚들의 同意를 얻고 있었다. 또 회의가 끝나자 兩人은 深夜 國會에도 참석하여 蔡총장은 戰況 설명에서 『서울만은 固守한다. 그리하여 反擊으로 轉換하여 白頭山에 太極旗를 꽂을 것이다.』(鄭一亨·金用雨의원 證言)라는 要旨의 發言을 되풀이 하였고 申장관은 총리 자격으로 정부의 移動이 戰勢로 미루어 不可避 하다는 것을 暗示 하였다는 것이다. (제4절 政府指導層의 動向參照).

**政府의 移動放送**：申장관은 國會에서 證言을 마치자 국방부에 登壇 하였는데 이때가 05.00로 즉시 제2국장(政訓局)을 불러 政府의 이동을 방송 하도록 指示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政府 移動에 대한 發表』는 政訓局 所管事項이 아니므로 公報處가 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異見도 있었으나 同 報道課長 金賢洙 대령이 장관 지시의 實行을 自請 하였으므로 그가 發表를 責任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되어 政府의 移動 決定은 이날 06.00에 中央放送局의 電波를 타고 公式으로 報道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放送은 곧 취소되고 政府는 移動하지 않는다고 다시 訂正 발표 하였다.

**國防首腦會議**：蔡총장은 深夜會議에 參席한 다음 곧장 倉洞선으로 나가 戰況을 살핀 뒤 陸軍本部에 복귀하였다. 申장관은 그가 돌아오자 마자 이날 09.00에 국방부로 군수뇌들을

소집 하였는데 이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차관	張曠根
제 1 국장	孫聖衆 대령
제 2 국장	李璫根 대령
제 3 국장	金一煥 대령
육군총참모장	蔡秉德 소장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
인사국장	姜英勳 대령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
군수국장	楊國鎭 대령
前작전국장	姜文奎 대령
해군총참모장(대리)	金永哲 대령
공군총참모장	金貞烈 준장

申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비서인 申東雨 중령에게 洋酒(Conadian whiskey) 2병을 가져오라 하고 참석자를 육군 총참모장실로 引導하여 着席케 하고 그 洋酒 한 잔씩을 勸한 다음 다음과 같이 慰籍에 찬 말을 꺼냈다.

『忠誠스러운 장병들이 지금 현계에도 最善을 다하여 싸우고 있다. 이제 조국의 운명은各自的 良識과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의 특별 긴급 원조가 없는 限 우리들의 힘으로 首都를 固守한다는 것은 不可能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要旨였다. (申東雨 중령 證言)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이곳에 參席한 軍首腦들에게 絶望과 落膽을 주는 無益한 發言으로서 이에 대하여 異論이 없지 않았으나 그 雰圍氣를 재빨리 눈치챈 장관은 『그런게 아니고 何如間 熱心히 싸워 서울을 死守하자는 이야기야.』 하며 興奮된 분위기를 가라 앉히려 고 하였다고 한다. (申東雨 중령 證言)

여기에서 蔡총장은 『政府는 南쪽으로 이동 할지라도 군은 서울을 固守하자.』라는 決心을 披瀝하게 됨으로써 國防部와 海·空軍의 水原으로의 撤收는 이렇게 決定 되었으나 陸軍本部만은 서울에 殘留하여 계속 서울을 固守키로 한 것이다.

### (3) 彌阿里 阻止線

蔡秉德 총장은 이날 07.00에 光州에서 北上한 李應俊 소장과 참모학교장 金弘奎 소장을 招致하고 李소장에게는 倉洞嶽에서 撤收하는 兵力을 수습하여 彌阿里線에 阻止 陣지를 構築 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金 소장에게는 제1사단의 作戰指導에 任하여 줄 것을 지시 하

었다.

이와 같은 蔡총장의 조치는 軍事元老級 장교로 하여금 一線에 起用하여 困窮을 打開하려는 別段의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무렵 정부는 사실상 서울을 포기 한거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敵은 계속 제3, 제4사단 主力으로써 倉洞선의 突破를 기도하면서 그의 제1, 제6사단은 奉日川에서 陣容을 정비한 我 제1사단을 強壓하고 있었다. 또한 金浦半島 北端에 上陸한 敵의 一部는 서울의 背後를 向하여 南下하고 있었다.

軍首腦회의에서 다시 「서울 固守」의 決意를 表明한 蔡총장은 곧 情報局 金鍾泌 중위에게 密封한 一通의 個人書信文을 手交하면서 「劉載興 准장의 回答을 받아 오라.」라고 命命하고 서신 내용을 밝혀 이르기를 『倉洞선이 언제까지 持久할 것인가.』라는 要旨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金중위는 곧 倉洞線에 이르렀으나 敵의 砲擊으로 劉載興 准장을 찾지 못한채 貞陵으로 後退하는바 퇴고 여기에서 李龍文 대령을 만나 그로부터 「이 상태로는 다음날 아침까지 支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要旨의 戰況 판단을 청취하게 되었다. 이에 더 이상 遲滯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10.30 무렵 陸軍本部로 歸廳하여 李龍文 대령의 판단을 총장에게 보고 하였다.

蔡총장은 倉洞線의 實態에 接하자 즉시 서울 固守가 絶望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急遽 11.00에 陸軍本部 참모들과 在京부대장 連席 회의를 開催하여 앞서의 決心을 變更한 다음 軍의 서울 撤收를 闡明하였다.

이와 같이 되어 前述(제2절 참조) 한바 陸軍本部는 12.30에 始興步兵학교에 移設케 되고 뒤이어 美軍참전說에 鼓舞되어 16.00가 지나서는 다시 龍山으로 복귀 하는바 되었는데, 이때에 都下 各신문들은 『美極東軍司令部의 前進 지휘소 서울에 設置』라는 題下의 特報를 號外로 報道하고 있었다.

이무렵 국방부장관 申性模는 이날 14.00에 서울을 jeep 차로 撤收하여 水原역장실에 있으면서 陸軍本部의 始興 移設을 알지 못한채로 大門口로 내려간 李承晚 대통령과 連絡을 유지하기에 노력 하다가 美大使館 職員으로 부터 美軍참전 消息에 接하게 되어 그 즉시 蔡총장에게 書面으로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美國이 空軍과 海軍을 가지고 韓國軍을 支援케 되었으니 貴官은 陸軍本部를 始興으로 옮기고 兵力 損失을 最少限 막으면서 持久戰을 전개하라.』

이 指示文은 秘密 中東兩 통령에 의하여 곧 始興步兵학교에 있는 蔡총장에게 傳達 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蔡총장이 美顧問團側으로부터 援軍이 오게 되었다는 通報를 받고 陸軍本部의 서울 복귀를 決定한 때 였으며, 또한 장관 意圖와는 달리 繼續 서울 固守를 다짐하고 있었다.

어떻든 이로부터 蔡총장은 緒戰에서의 作戰지도가 그리하듯이 決戰의 場所와 時間을 擇하지 못한채 서울 固守에만 執着하고 다급한 爾河黑線 防守에 總力を 集中케 하였다. 그

런데 이날 後方에서 北上한 제5사단 제15연대 제2대대와 제20연대 제1대대로 彌阿里線을 占領케 함으로써 同일 12.00에 倉洞線이 무너져 이곳으로 撤收하게 된 연대의 殘兵들과 合勢케 하였다.

그러나 이곳 配備 實力兵은 5,000명을 헤아리는 程度였으며 더구나 장병들의 士氣나 給養 상태가 극도로 不良하고 또한 混成부대인 까닭에 戰列를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이에 蔡총장은 始興에서 북귀 즉시 美軍이 참전 한다는 것과 B-29 100대가 곧 出擊할 것이라는 내용을 發表토록 하여 士氣의 振作策을 圖謀케 하였다. 이에 따라 街頭 방송이 실시되고 이의 내용을 담은 傳單이 空軍機에 의하여 서울 市內와 戰線의 我軍 진지에 空 中撤布 되었으며 또한 學徒護國團을 動員한 장병 慰問이 活潑히 전개 되었다.

이날 彌阿里線에는 兵站, 經理, 兵器 부대까지 動員하고 있었으나 陸軍本部는 07.20에 淸涼里 北쪽 배비를 기하고자 이때 黑石洞 부근에 駐紮하고 있던 제8연대(-)의 轉進을 下命하여 『서울 外郭의 東北쪽을 방어하라.』고 이르고 아울러 1개 대대를 進軍(26일)에 新設된 金浦지구전투사령부에 配屬케 하였는데, 이날 19.00에는 총장 자신이 彌阿里 進軍에 나와 戰鬪를 奮勵하였다.

한편 이날 아침 제1사단의 作戰指導를 위임 받은 金弘壹 소장은 오후에야 牽日川에 開設한 제1사단 지휘소를 訪問하고 서울 東北쪽 戰況을 모른채 汝山쪽으로 反擊하려는 사단 계획에 言及하여 『汝山方面에 대한 反擊 보다는 前線의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는 漢江線으로의 撤收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 하였다. 그러나 蔡총장으로 부터 진지의 固守를 命令 받고 있던 사단장 白善燾 대령에 의해 받아 들이지 않자 그는 23.00에 陸軍本部로 북귀, 彌阿里에서 돌아온 蔡총장에게 제1사단의 戰況을 보고하고 同사단에 撤收命令을 내리도록 進言 하였다.

蔡총장은 이에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않은채 時間만을 延滯하다가 다음 날(28일) 02.00에 始興을 尙해 떠나 버렸다. 이로써 陸軍本部는 後策을 講究하지 못하고 彌阿里 阻止線이 崩壞되면서 漢江橋를 早期에 爆破 함으로써 總參謀長의 서울 固守 概念은 齒을 내리게 되었다.

#### (4) 漢江線

서울固守를 위한 마지막 阻止線이 무너진 것은 28일 01.00였다. 이에 앞서 蔡총장은 彌阿里 進軍에서 奮勵하다가 陸軍本部로 돌아가자 이곳 持久까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萬一의 경우에 대비하여 工兵監 崔昌植 대령에게 漢江橋 및 廣津橋의 爆破計劃을 確認케 하였다. 敵의 戰車가 市內에 突入하자 그는 02.00 무렵 後事를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에게 委任하고 隨行員들과 함께 水原으로 撤收 하는바 되었으며 뒤이어 漢江橋의 폭파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2절 참조)

이와 같이 이어지는 戰局의 推移는 마침내 漢江 以北에서 싸우는 각 부대의 戰力을 一時에 瓦解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當初 漢江橋가 敵의 侵略을 차단하기 위하여 爆破한 이상 當面의 문제는 漢江 南쪽에 防禦線을 急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必要한 兵力은 各계 分散되어 民間의 나뭇배를 利用하여 一部만이 漢江을 渡江하는 실정이 되었고 더구나 이를 指導할 陸軍本部 역시 分散되어 指揮機能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漢江阻止線의 急編은 赴援軍이 來到할 때까지 時間을 얻는데 매우 重要한 地域이었으므로 모든 努力을 기울여 兵力의 收拾과 再配置에 힘썼다.

따라서 蔡崇장은 水原으로 撤收한 金弘壹 소장을 始興지구 전투사령관에 任命하고 28일 15.00 以後 漢江을 各계 渡江하여 撤收하는 兵力을 수습, 이들로 하여금 부대를 急編하고 逐次로 漢江 南쪽의 말죽거리—鷲梁津—永登浦선에 急派하여 漢江線 持久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이 線 역시 30일 未明에 渡江하기 시작한 敵의 공격으로 3일 間을 支撐하지 못하여 7월 3일에는 또다시 水原 以南으로 撤收 하는바 되었는데 이 사이 蔡崇장은 29일 戰線 視察次 來韓한 MacArthur 元帥로부터 激勵을 받고 漢江을 渡河하기 시작한 敵을 反擊토록 命命 하기도 하였다. 또한 孔國鎮 중령에게는 特攻隊를 編成케 하는 一方 志願者로써 遊擊隊를 만들어 서울에 潛入시켜 敵 後方을 교란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傾注 되었으나 30일에 發승된 陸軍총참모장의 更迭로 말미암아 蔡秉德 소장으로서의 전선의 均衡을 위하여 이날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을 原州로 急派하여 제6, 제8 兩개 사단의 撤收를 지도케 한 것이 마지막 作戰指導가 되었다.

**總參謀長의 更迭** : 首都 서울이 開戰 3일만에 敵手에 들어가자 서울을 撤收한 國會議員들 사이에는 敗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輿論이 沸騰 하였으며, 그의 화살은 자연히 申性模 국방부장관과 陸軍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에게 집중 되었다. 따라서 29일 아침에 大田에 集結한 國회의원들은 成員 未達로 國會는 열리지 않았지만 懇談會를 開催하여 大統領의 出席을 要求하고 時局 收拾方案에 대한 意見을 교환한바 있었다.

당시 徐範錫 의원이 뒷날에 밝힌바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몇명의 의원들은 『국민을 欺瞞한 책임자는 물러나게 해서 民心을 수습하여야 한다.』라는 要旨의 主張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대통령은 『江물을 건너다가 말을 갈아 탈수야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 이들 主張을 거부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지 다음날인 30일에 李承晩 대통령은 1개월 課程으로 美 步兵학교 視察次 渡美한바 있었던 丁一權 준장이 이날 急遽 歸國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7월 1일 부로 軍최고 지휘부의 人事異動을 斷行하고 그를 陸·海·空軍 총사령관兼 陸軍총참모장에 任命 하였으며 蔡秉德 소장에게는 다음날 釜山 제4지구 戒嚴사령관이란 새로운 직부가 부여 되었다. (研究 3 참조) 이리하여 丁一權 소장(7. 1부)은 同월 2일부터 새로 姜文奉 대령을 作戰局長으로 任命, 全軍의 작전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同월 3일을 고비로 漢江線의 防守가 瓦



解되자 그 역시 戰勢恢復을 위한 妙策을 갖지 못한채로 同월 4일에는 陸軍本部를 잠시 平澤으로 옮겼다가 大田으로 移設 하는바 되었으며 美地上軍의 參戰과 더불어 以後 軍의 作戰方針은 될수록 北쪽에서 敵을 阻止하면서 美軍의 戰鬪加入을 支援하고 아울러 軍의 戰力を 整備한다는 方向으로 轉換되었다.

## § 참전자의 證言

### ◇ 國防部 第4局長 金根燦

(1977. 12. 14 上溪洞 自宅에서)

날자는 확실히 記憶나지 않지만, 6.25가 발발하기 1년前에 第4局이 解體되었는데 먼저 第4局(特務局)의 任務는 첫째 북괴 동향에 관한 諜報를 수집하는 일과, 둘째로 國內에서 亂動하는 赤色分子들을 일망타진하는 CIC工作이었다.

第4局 조직은 1課에서 4課까지 있어서 이 가운데는 東海岸을 담당하는 課와 西海岸을 담당하는 課가 있었으며 國內工作을 담당하는 課等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나는 第4局의 活動을 좀더 확대시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공작을 하려고 美고문관에게 제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國防部에서는 아예 예산책정도 안해주었으며 당시 陸軍總參謀長 蔡秉德도 GMC 트럭 7대를 주면서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어이없는 처사 때문에 나는 第4局의 예산을 증강하느라고 동분서주하던 끝에 商工部長官 任永信에게 부탁하여 추천장을 받은후 大韓重石 社長으로부터 450萬원을 받아서 第4局을 운영해 나갔다.

이러한 약조건하에서도 나는 점점 굳어져가는 南北의 軍事的인 對決을 감안하여 本格的인 첩보 수집공작을 계획하였다. 要員 확보를 위하여 于先 제1단계로 300명을 모집하여 第4局에서 직접 教育訓練을 시켰는데, 現在の 淸량리중고등학교가 第4局的 要員 養成所였다.

이들 요원들은 思想이 健全한 사람들만 엄선하여 教育하였는데 이들중에는 獨立軍출신및 日本軍에서 정보요원을 지낸바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있었다.

이 養成所에 밤이면 일부 좌익분자들이 들을

던지는 일까지도 있었다.

教育訓練을 끝마친 요원들은 일선과 여러곳에 배치되어 活動을 전개하였는데 이들로부터 6.25 발발 1년전인 49년도만해도 북괴는 계속적인 軍事訓練과 戰鬪준비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각지에서 活動하고 있던 우리 요원들은 48년도 4월에 북한 애국청년들이 무장봉기를 기도하였으나 海州에서 失敗하자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그후에 水豐峯 폭파를 기도했으나 이것 역시 실패하였다는 첩보도 입수하였다.

그리고 날자는 확실히 記憶나지 않지만 申旻模가 새로이 國防長官으로 부임해온지 1個月도 못되어서 第4局은 해체되고 特務局이 되었었는데 나는 지금도 第4局을 해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 ◇ 海軍總參謀長 孫元一 준장

(1977. 2. 28 自宅에서 · 豫 중장)

6.25가 勃發하기 前에 海軍장병들의 所屬은 단 한척의 戰鬪艦이라도 保有하려는 것이었다.

1949년 6월에 나를 委員長으로 하는 艦艇建造基金거출委員會가 構成되어 전투함 구입에 대단한 熱心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모은 誠金이 60,000\$쯤 되었을 때 李大統領이 나를 불러 海軍의 募金운동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정부가 보조해 줄터이니 『美國에 직접 가서 좋은 군함을 사오라』고 하였다.

나는 美國에 도착하여 美國정부가 PC型 砲艦을 販賣한다는 소식을 듣고 駐美大使 張勉 박사를 通하여 몇일만에 60,000\$로 한척을 계약하였다.

나는 남은 돈으로 더큰 군함을 사들이기 위하여 계속 美國에 남아 또 구입교섭을 전개하였으나 美國은 그 이상 전투함을 팔지 않겠다는 方針이라는 것이다.

나는 국무성의 韓國譯長을 만나 北僞의 戰力 增強을 설명하면서 美國의 無知를 비난하고 조국의 安全을 위해서는 전투력의 保有가 必須의 이라는 것을 力說하였다. 그랬더니 비로소 韓國 譯長은 정부가 아닌 民間을 상대로 전투함을 구할 수 있다면서 그 方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곧 美西岸 San Piete港으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修理가 안된 상태의 배가 얼마든지 버려져 다다시피 淤泊하여 있었다. 어느 유대인의 소개로 PC艦을 12,000\$에 즉석에서 3척을 사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앞서 구입한 白頭山호에 比하면 1/3의 가격이었다.

아무튼 1척값으로 3척을 더 사게된 우리 일행은 修理와 砲台설비를 서둘러 귀국길에는 잠시 Hawaii에 寄港하였다.

고포들은 太極旗를 擡揚한 우리 艦艇을 보고 열렬한 환영을 베풀어 주었으며, University Club에서 환영만찬에 초대되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美참모大學을 다친 丁一權 장군이 와 있었고 파티가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아서 6.25의 急報를 받았다.

#### ◇ 空軍總參謀長 金貞烈 증장

(1977. 2. 10 경우개발會社에서, 豫 증장)

韓國戰爭 初期에 생각나는 것은 指揮權 문제인데 6.25 당시만 해도 국방부와 陸軍本部가 한 建號에 있었으며, 여기에 海軍대표로 金永哲 대령과 空軍에서 내가 나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자연히 軍의 總指揮本部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장관은 指揮系統에 있어서 作戰책임자일 수도 있지만 原則적으로 軍정책임자인 것이다.

전쟁이 勃發하니까 大統領은 Commander-in Chief(統帥權者)이고 그 다음이 국방부장관인데 실제 軍令權을 行使하는 사람 즉 陸·海·空軍을 統括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必要性에 따라서 아무 조치없이 6월 26일에 앉은 자리에서 『도님이 陸·海·空軍 總사령관이요.』라고 蔡秉德 총장에게 말함으로써 그가 陸·海·空軍 總사령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뒤부터 布告문이나 談話文 그리고 放送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發表했는데 그렇다고 그 밑에

참모장을 任命했다던가 또는 海·空軍 대표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組織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便法으로 陸·海·空軍 總사령관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利用가치도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뒤에 蔡秉德 소장이 물러나고 丁一權 소장이 任命되면서 陸·海·空軍 總사령관이라는 명칭이 뚜렷이 浮刻되었고 이것이 陸軍총참모장직보다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 ◇ 陸軍本部情報局 李永根 중위

(1977. 5. 20 國會에서, 國회의원, 豫 대령)

1949년 12월 初 당시 朴正熙 作戰情報室長께서 北韓班의 金鍾泌 중위, 嚴龍昇 중위, 그리고 南韓班의 威德潤 중위, 徐延淳 중위와 나쁜 불려 緊急敵情수집을 지시하시는 것이었다.

이는 계속 入手되는 각종 情報로 보아 北僞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陰謀를 꾸미고 있음이 分明하니 迅速하고도 正確한 情報를 수집하여 年未까지 이를 종합판단하여 上部에 보고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하여 年未 敵情판단결과 作成되어 朴正熙 作戰情報室長께서는 軍수뇌부와 美 軍사고문단 그리고 政府관계 要路에 提出토록 하였으나 원통하게도 上部에서 眞摯하게 檢討되지도 못한 채 默殺되고 말았다.

특히 6월 24일 10.00에 陸軍本部 作戰情報室에서 있었던 軍수뇌에 대한 briefing에서 金鍾泌 중위와 나는 敵情을 昭示히 보고하여 室長의 意圖를 傳했지만 軍수뇌들은 38°선에 배치된 北僞의 38警備隊와 北僞군이 交代하는 程度라고 가볍게 보아넘겼다.

6월 25일 04.00경 北韓班의 金鍾泌 중위가 當直근무中 前方 各사단으로부터 敵의 大대의 砲擊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接受하고 당직사령과 蔡총장에게 보고한 다음 우리 作戰情報室 장교들에게 통보되어 내가 陸軍本部에 나가게 된 것은 05.30경이었다.

여기에서 金鍾泌 중위는 제7사단 正面을, 내가 제1사단 正面을 맡았으며 기타 제6, 제8사단도 각각 1명씩의 책임장교를 任命하여 肅주하는 업무를 分掌하였다.

## ◇ 作戰局 教育課長 李致業 대령

(1977. 3. 2 道路公社에서, 同고문 豫소장)

나는 作戰局 次長으로 있다가 教育局을 創設한다 해서 그 職에 臨時있었다. 그러니까 狀況室에서는 내가 作戰狀況을 잘 알고 있다 해서 우선 나한테 연락이 온 것으로 안다.

『지금 一線에서 시끄러우니까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새벽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주었다. 그래서 어두컴컴할 무렵 陸軍本部에 나가 보니 이미 전선에서는 敵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되고 또 그때 고급장교로서는 나혼자 뿐이었기 때문에 즉각 反擊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各部隊로부터 戰況보고를 직접 받으면서 세 반 조치를 取해 나갔다.

이때 應津지구의 제17연대는 北僞군의 포위보골 철수를 해서 再배치해야 할 단계인데 오히려 철수를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며 문제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 現地에 확인을 해보니까 後方兵力은 이미 철수하고 戰線부대는 오히려 敵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敵을 공격하면서 陸地쪽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非常常 下途에 대해서는 당시 金鍾泌 중위가 당직사령에게 보고를 했지만 조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시명을 해주고 신속히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송문제에 있어서는 시내에서 徵發해오는 각종 차량을 陸軍本部에 집결한 다음 一部 兵力을 前方으로 실어보내고 또 富平으로도 보내어 彈藥을 운반토록 하였다.

또한 後方 3개사단에 대해서는 可能한 列車輸送을 하도록 했는데, 내가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大邱에 있는 제3사단 수송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經驗을 살려 철도관계 機關과 긴밀히 協助하여 모두 列車수송을 하도록 措置했던 것이다.

27일 오후에는 美軍의 참전이 있을 것이라는 消息을 듣고 陸軍本部 練兵場에 나가서 모여있던 將兵들을 向하여 『本然의 任務로 돌아가라』고 囑하였다.

## ◇ 申明求

(1977. 3. 20 鹽洋食品사에서 洞專務)

父親(申性模)의 口課는 매우 부지런한 편이어서 子正이 지나서야 주무시고 05.00경에 일어나서 그날의 Schedule과 중요사항을 Memo하고, 06.00가 되면 景武臺로 가서 李大統領을 뵈고, 돌아와서 美軍과 協議하고 軍관계 사항을 처리하였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옳바르게 살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이 잠시라도 머릿에서 떠나지는 않된다』하시며 傭夕으로 檀香山을 向해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에게도 食事 때마다 檀香山을 모시고 기도드린 뒤에 들도록 하였다.

父親이 政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大韓青年團長을 할 때부터인데 어느날 『내가 政府에 들어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기에 『좀 바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루쯤 지나서 연락이 와서 景武臺로 들어가시더니 內務部長관직을 만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父親께서 蔡秉德 總參謀長을 비롯하여 몇분의 장성급을 招請하시더니 『내가 國防을 맡아도 편할것인가? 무슨 副作用 같은 것이 없겠느냐?』며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때 참석한 분들이 『副作用은 없을터이니 맡아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때까지 父親은 주저하다가 비로소 국방부장관직을 應諾하게 된 줄로 기억한다.

## ◇ 參謀學校長 金弘壹 소장

(1977. 1. 29 李昌洞自宅에서, 豫 중장)

나는 韓國戰爭이 勃發하기 以前부터 陸軍本部에 자주 들러 彼我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機會를 많이 갖게 되었다. 당시 정보국에서는 北僞南侵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자주 수집 보고하였고, 또한 정보관단을 하여 전파하였는데, 美군 사고문단側에서는 『砲와 전차 등이 前方에 推進되었다.』는 정보국의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장공기로 偵察을 해 보았으나 그러한 徵候가 전혀 없고 또 戰車는 논과 밭같은 野地를 橫斷한 수 없기 때문에 韓國에서는 所用이

었다.』고 하여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申性模 장관을 자주 만나서 『敵의 南侵에 對備하여 진지를 構築하고 後方に 있는 3개 사단을 前方으로 실제로 移動시키는 演習을 해 보아야 한다.』고 수차 말한바 있으나 이에 關心을 기우리지 않았다.

전쟁이 터지자 나는 당시 陸軍참모학교와 陸軍兵站學校 校長에게 학교를 引繼하고 蔡秉德 총장의 勳告에 따라 沒山지구에 있는 제1사단의 작전지도를 위하여 떠났다. (中略)

그 뒤에 내가 始興에 到着한 것은 28일 07.00 경이었다.

始興에서는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과 姜文奉 대령 그리고 陸軍參謀學校 교관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교관들의 말이 『앞으로 漢江에서 3일 간만 敵을 지연시키면 곧 美軍이 參戰하여 공세 移轉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말해줌으로써 希望과 勇氣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 ◇ 前 제1사단장 金錫源 준장

(1977. 2. 28 元錫財團 이사장실에서, 豫소장)

6월 25일 아침에 일찌기 開城에서 教鞭을 잡고 있던 城南中學校 교직원 한사람이 집으로 찾아와서 『아침 일찍부터 開城市內에 砲彈이 떨어지고 列車가 20분이나 빨리 出發했는데도 臨津江부근까지 砲彈이 떨어져 煙氣가 자욱하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나는 국방부장관의 연락을 받고 장관실로 갔더니 李範奭, 李靑天씨도 나와 있었다.

實戰經驗이 풍부한 세 사람을 불렀으니 어떠한 打開策을 물어볼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申性模는 『500餘名을 실은 敵艦船을 擊沈시켰습니다. 東海岸에서는 敵 1개연대가 投降해 왔습니다. 海州지구도 我軍이 占領했습니다. 이진 確實한 정보입니다.』라고 하며 『實戰經驗이 많으신 세분께서 協助해 주면 北傀軍 擊退는 문제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虛僞보고일 것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했더니 兩李장군도 내 말에 同調하는 것이었다.

이와 同時에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군사有經驗者會議에는 蔡壽長, 金弘壹, 李應俊, 宋虎聲 그리고 국방부 局長들이 同席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회의에서는 金弘壹 소장이 『決戰을 한다면 어느線에 兵力을 集中시키며, 지연작전을 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決定해야 한다.』라고 主張했는데 이에 대하여 李範奭과 나도 同調했지만 결국 회의는 正確한 군사정세조차 把握하지 못한채 아무 結論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27일에 나는 李鍾榮(言論人, 2代국회의원), 申興雨(政治人), 金世鐸(城南중학교 校監) 그리고 군인 4~5명과 함께 李始榮 부통령宅을 찾았다.

그때 나는 예원된 때였지만 軍服에다 계급장까지 붙이고 完全武裝을 갖추었다. 나는 그에게 『義勇軍을 모집해서 싸우겠으니 協助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李始榮씨는 『金장군 같은면 넉넉히 할 수 있을거이다.』하며 같이 中央廳까지 同行해 주었다.

中央廳에는 長官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財務部장관 代理人 듯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는데 李始榮 부통령이 그에게 『經費를 내주게 하오. 義勇軍이 전투에 참가하면 큰 힘이 될 것이요.』라며 부탁을 했지만 『大統領 閣下의 지시가 없으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고 拒絕을 하였다.

#### ◇ 陸軍本部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

(1977. 1. 18 自宅에서, 예 大將)

당시 陸軍本部의 분위기는 全體의인 업무문제라던지 참모간의 協調문제가 오늘날과 같지 않고 대단히 幼稚하고 기초적이며 初步的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陸軍本部 情報局은 38°선 全域에서 北傀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으며 6월 24일 15.00에는 情報局長 張道英 대령이 군수국장 楊國鐵 대령과 나를 불러서 對策을 議論했는데 이때까지 人事局長에 任命된 申尙澈 대령이 赴任하지 않아 姜英勳 대령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자 참모간의 協助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오후에는 『北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

다.』는 程度로 알려졌고 情報局에서 別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헤어졌다.

6.25 당시 나의 집은 陸軍官舎로부터 西大門近處로 移居하였기 때문에 陸軍本部와는 電話가 架設되지 않아 이날 09.00경 憲兵들이 擴聲器를 의치는 『非常소집』이라는 가두放送을 들고 뛰쳐 나가게 되었다.

各 부대로부터의 情報보고는 散發的으로, 또는 頻繁히 들어왔으나 情報와 作戰 系統으로 왔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시 體系가 情報를 交換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合同會議도 없었으므로 不得已 概念的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右往左往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陸軍은 8개 사단과 특수부대 등이 있었으나 陸軍본부에서 直接 지휘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더구나 이들 부대 지휘에 重要的 것이 通信인데 오늘과 같이 有線, 無線 그리고 항공기 등 여러가지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貧弱한 有線이 唯一한 通信수단이었으며 그것마저 終戰에 敵砲火와 我軍차량기 등으로 切斷되어 疎通이 되지 않았다.

北傀가 全面南侵을 開始하였다는 판단은 대체로 25일 10.00경이라고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前方상황을 把握할 수가 없어서 困難을 겪다가 이무렵에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전쟁 初期의 作戰指導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作戰지도 혹은 전쟁지도 體系가 全혀 서 있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그때 나를 信任해서 거위가 年少했고 전쟁 經驗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決心을 할 때에는 참모회의나 참모들이 건의와 助言을 받음이 없이 單獨으로 決心하고 實行하였다.

그래서 나는 漢江橋 擧發時까지 거의 作戰 상황실에 혼자 있으면서 부대의 作戰지휘와 上部에서 決心한 사항을 지시하고 부대를 再配置하는 등 沒頭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전혀 기억이 없고 또한 당시 내가 作戰局長이지만 참모부장이나 총장에게 建議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였다.

#### ◇ 聯合新聞社 李志雄 記者

(1977. 2. 22 국제해운공사에서, 隔粵務)

나는 6.25 직전부터 國防部 出入記者로 있었다. 당시 美군사고문단장 Robert 준장은 6.25 발발 10일전에 熊任記者 회견에서 『韓國軍은 Asia에서 最強의 군대다. 그러나 U. S. S. R이 침공하지 않는한 韓國軍은 어떠한 군대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 『北傀는 Tank와 YAK전투기 등이 相當히 많은데 우리側은 한대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Asia에서 最強의 군대냐?』라고 反問하였다. 그러나 그는 『韓國에서는 道路網이 발달되지 않고 또 河川이라던가 山岳地帶가 많기 때문에 Tank가 所用없으며 YAK기에 대해서도 日本에 있는 美공군기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必要가 없다』라는 答辯이었다.

6.24일에 우리들 기자 5~6명은 당시 鎭城近處에 있는 제2사단 장병들이 「모내기」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를 取材 報道하기 위하여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非常이다」라는 말이 돌려왔고 모두가 수군수군하기에 나는 사단장 李學極 准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가보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사단장이 11.00 男車로 上京한다기에 우리一行은 이날 모내기 取材를 대충 끝내고 그와 함께 列車에 올라타 上京하게 되었는데, 그는 列車안에서 가진 一連의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전쟁이 붙는다면 점심은 平壤에 가서 먹고 저녁은 新義州에 가서 먹겠다.』라고 하기에 실상 戰雲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상황이 어느정도 확인되었기에 本社에 달려갔으나 모두들 믿지않는 表情들이었고 梁正正 사장도 北傀의 全面南侵 소식을 보고 받고 『너무 지나친 생각들을 한다. 지금 막 放送을 들고 있는데』라고 하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밤이 되니 日本의 각 신문 통신사로부터 빗발치듯 전화가 오기를 『지금 戰況이 어떠냐?』하면서 우리보다 더 戰況에 관해 소상히 알면서

이後的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날은 국방부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程度로 지내고 다음날인 26일 아침에 軍용차를 타고 彌陀里 쪽으로 나갔다.

## §. 研究

### (1) 國防部職制令에 대하여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로 公在 國防部職制令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國防부에 國防本部和 陸軍本部 및 海軍本部를 둔다.

제 2 조 國防部本부에 總務課, 報道課, 會計監 查課, 第1局, 2局, 3局, 4局, 5局을 둔다.

제 10 조 陸軍本부에 人事局, 情報局, 作戰教育局, 軍需局, 護軍局 및 左의 各室을 둔다.

高級副官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財務監室	砲兵監室
工兵監室	通信監室	兵器監室
醫務監室	兵站監室	

제 28 조 海軍本부에 人事教育局, 作戰局, 經理局, 艦政局, 護軍局 및 左의 各室을 둔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醫務監室	兵器監室	

제 39 조 陸·海軍의 協調와 連繫의 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聯合參謀會議을 둔다.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의 諮議下에 陸·海軍의 作戰, 用兵과 新練에 關한 重要한 사항을 審議한다.

제 40 조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을 議長으로 하며 左의 人員으로써 構成한다. 參謀次長 陸·海軍 總參謀長 및 參謀副長 航空局長 第1局長 第3局長 國防部장관이 指示하는 陸·海軍장교

위 職制令에서 國防部長官의 軍令權行使는 陸海軍 總參謀長을 直率하는 國防部內의 參謀總長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制度는 그 名稱이 다를 뿐 오늘의 聯合參謀長制度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制度上 當時의 蔡秉德

總參謀長은 陸軍의 軍令權 行使에 局限하였고 前記한 參謀總長制는 1949년에 廢止되었으므로 長官이 軍令權을 直接 行使하게 되었다는 覺을 일으키게 한다.

### (2) 陸軍特務부대의 創設

前任 李範奭 국방부장관의 創案에 의하여 創設되거나 增編된 特務부대는 陸軍수색단, 陸軍水色學校, 유격대대의 各여단內의 編成, 虎林부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부대들은 北虜의 對遊擊戰에 對備하기 爲하여 創設된 것으로 開戰直前까지 그 活動의 成果가 至大하였으나 以後 後任長官의 方針에 따라 統廢合되었다.

陸軍수색단—국군창설 이전인 1948년 1월 1일 제1여단의 수색대로 鑿足한 同대는 同년 10월 20일 崑嶺叛亂사건 鎮壓次 出動한 바 있으며 同년 11월 25일 수색단으로 昇格되어 初代 단장이 李龍文소령이 就任하였다. 그 뒤 同년 12월 5일에는 熊甲團으로 改編되어 同10일에는 기갑연대로 改稱되었다.

陸軍水色學校—1948년 11월 5일에 제1여단內에 金龍潤소령을 初代校長으로 創設된 同학교는 同년 12월 6일 北虜 南派유격대를 討伐하기 위하여 독립 第1대대(장, 金龍潤소령)를 編成하여 훈련에 着手하였다.

그 뒤 同대대는 서울유격대로 命名되어 淵·顯叛亂사건을 鎮壓次 智異山지구로 出動한바 있으며 1949년 6월 4일에는 38부대로 命名되어 襄津지구로 出動한바 있었다. 이리하여 同월 20에일은 독립제1대대로 다시 改稱되어 首都警備 사령부에 編入되어 濟州道로 移動하였다가 同년 7월 15일에는 第5사단에 소속되었고 그 뒤 同년 12월에는 晉州로 다시 이동하였으며 1950년 6월 15일에는 第5사단으로부터 第3사단에 編入되었다.

유격대대—1948년 12월 31일 軍內 반란군및 共匪를 鎮壓하거나 討伐하기 위하여 各여단에 하여 1개대대씩 유격대대를 編成하였으나 1949년에 들어서 解體되고 그 兵力은 各부대에 編入되었다.

虎林부대—1949년 2월 25일 以北出身 367명을 基幹으로 陸軍本部 情報局소속으로 永登浦에서 特務課長 韓千龍소령을 부대장으로 創設되었

다. 同年 28일 一時 大邱로 移動하였다가 同年 5월 2일에는 유격대 教育次 水色學校에 入校한바 있는데 同월 7월 12일에는 경기 始興 제17연대 兵舎로 移動하고 護國軍에 編入되었으며, 同年 8월에는 永登浦學院으로 再編과 同時에 現役に 編入되었다.

陸軍報國대대——前記 작부대의 創設에 이어 1949년 8월 15일에는 北傀로부터 歸順한 장병 600명을 기간으로 永登浦에서 同대대를 編成하여 1950년 3월 31일까지 嶺南지구 共進격렬작전 및 對民心理戰을 전개하였으나 開戰前에는 제6, 제7 兩個사단에 배속되었다.

### (3) 防禦계획에 대하여

開戰前에 陸軍本部는 敵情판단에 따른 配備로써 방어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각자의 主張이 다르나 本卷에서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全軍의 계획을 갖지 못한 것으로 記述하였다.

당시에 作戰局長 姜文率대령이 뒷날에 이 방어 계획에 대하여 遺憾한바 要旨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作戰局에서는 방어계획을 作成하고 있었다. 1950년도 계획의 骨子는 38°선 南쪽 경계진지선을 A선으로 하고 禮成江河口로부터 東쪽으로 이어지는 據點선을 B선으로 하여 이것을 主抵抗線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계획은 一線 사단장들에게 그 즉시 示達되어 周知하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後方사단의 北上 동원계획도 成案되어 24시간내에 移動을 完了하도록 要求되고 있었다. 그러나 一線의 築城작업은 예정대로 되지 못하여 6월 25일에는 그 목표의 一部만이 達成되었을 따름이다.』

또한 당시의 제17연대 부연대장 金熙濬중령은 1950년 3월에 陸軍本部에서 開辦된 作戰會議에 참석하고 비록 소 權限인 襄津에서의 제17연대 철수계획에 接한 수 있었다. 同 회의에는 卞性燾장관 作戰참모부장 丁一權 준장과 각 사단의 참모장, 독립연대의 참모장들이 참석하였는데 나에게 지시하기를 「局地戰인 경우 제17연대는 진지를 固守하고 全面戰인 경우에는 LST 2척으로 仁川으로 撤收하라」하였다. 따라서 나는 歸隊즉시 회의결과를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작전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後言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前記 兩人的 證言과는 달리 同年 6월 10일 以後에 姜文率 대령으로부터 作戰국장직을 물려받은 張昌圖 대령은 이에 관하여 回顧하고 遺憾하기를 『당시 陸軍本部의 분위기는 戰前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만큼 방어계획 같은 것은 마련하지 않았다. 萬一에 姜文率대령이 이와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自身만의 構想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陸軍全體의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다.』하는 要旨의 證言을 하였다.

당시 首都경비사령관 李鍾贊대령은 『내가 아는 限 陸軍本部는 全面戰을 가당한 對策을 마련한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여 앞서 姜文率대령이 成案하였다는 방어계획이 全無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開戰당시 作戰局長長인 朴林植대령은 戰爭前逆襲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 事實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提及하고 있다.

『나는 始初에 중령으로서 姜文率 대령 밑에서 作戰課長을 하였는데, 과거 滿軍당시 姜대령은 나의 一期 後輩였고 또 外4寸寸 族共之間이었다 때문에 그 분과는 작별한 사이에서, 作戰局 업무를 도맡고 있었다. 6.25前에 周長인 姜대령은 나에게 軍의 방어계획(逆襲계획 概念)을 세워보라고 命令하였다. 그러나 나는 解放前까지만 하더라도 尉官級장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방대한 作業은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嶺下사단 作戰參謀들을 召集하여 이 뜻을 說明하고 歸隊시켰는데 올라온 계획서를 보니 제7사단에서 만든 계획이 그나마 가장 잘 되었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이를 檢討하였으나 能率도 없고 可能性도 稀薄하여 전체의 방어계획은 廢棄하고 말았다. 그때 제7사단이 作成한 방어계획에는 A, B등의 線 概念이 있었음이 기억된다.

또 한가지는 50년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彌阿圖가 首都방위에는 重要한 목이 될 듯하여 直接나가 壕構築을 하려 하였는데 이 情報를 알게 된 某武裝 某秘密官으로부터 「우시에 民心을 소란시키는 자가 누구냐?」라고 電話가 왔기에 그런 事實이 없다고 변명하고 그만둔 사실이 있다

그때 工事만이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학생을 動員하여 38°선에 진지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이상 관계자들의 證言에서 보는 바 前記兩人은 陸本의 방어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後者兩人은 이를 否認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推斷컨대 1950년도 방어계획을 成案하기는 하였으나 成文化하지 않은 채로 腹案에 그쳤고 同년 初에 이르러서야 一線부대에 그 概念만을 說明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敵의 南侵이 있을 때 38°선 南쪽 2—4km일대에 경계진지선에서 이를 격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萬一에 規模가 확대되어 主抵抗線에서도 이를 격멸하지 못하면 後方사단을 動員하여 敵을 逆襲한다. 단 제17연대만은 持久치 못할때 철수한다라고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어계획이란 當事者의 腹案만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研究와 檢討가 뒤따르고 教育과 訓練이 兼備되어야 할 것인데, 一線부대장은 勿論 업무를 인수한 當事者도 이를 알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보면 陸軍本部の 방어계획은 全無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각사단이 成案한 방어계획에서도 陸軍本部の 全般的인 계획에 依據하여 立案되었다는 痕跡을 찾아볼 수 없다.

#### (4) 敵의 南侵企圖判斷과 己의 對策에 대하여

敵의 南侵企圖判斷은 1949년 末, 陸軍本部の 敵情綜合判斷時에 이루어졌고 다음해인 1950년 3월의 作戰會議에서 그 防禦개념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시 判斷과 그 對策의 樹立 과정은 敵이 採擇가능한 모든 方案을 열거하고 我軍의 方案을 망라하여 結論을 내린 다음 決心에 到達하는 것이 常例인바, 一旦 決心된 概念(conception)은 즉각 計劃化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開戰前後의 判斷과 그 對策은 이러한 一連의 過程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作戰局長 張昌國 대령이 그 證言에서 述懐한 바와같이 『모두 獨白의 判斷과 計劃으로 일관되었고 그 내용은 概念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여 敵侵에 대한 對策이 매우 疎忽

하였다는 사실을 立證해 주고 있다.

당시 검토되었다고 하는 敵의 南侵企圖判斷에서 4개 方案을 指摘하였으나 그것은 敵이 採擇가능한 모든 方案(企圖)이라 할 수 없으며, 이 4개 方案중에도 제2, 제3 兩개 方案은 相互重疊되는 方案, 다시 말해서 敵의 主攻 接近路가 같으며 助攻 接近路 一部만이 차이가 나는 方案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38°선 全域에서 敵의 南侵企圖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7개 方案이상이 考慮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4개 方案만 考慮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全體의 方案이 아닌 그 일부의 것으로서 拙作이 아닐 수 없다.

例컨대, 春川 接近路가 제1 方案이고, 議政府가 제2, 그리고 汶山이 제3 方案이라고 할 때, 이에 추가하여 1+2(1방안과 2방안의 동시 採擇)와 1+3, 그리고 2+3방안이 있고, 全面戰形態인 1+2+3이 있는 바, 모두 7개 方案이 成立되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海·空軍의 同時支援도 考慮될 수 있으며, 이 以上の 接近路를 採擇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方案은 多樣할 것이나 最少限 위와 같은 7개 方案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我軍의 방어대책 亦是 당연히 이를 參考로 하여 後方 3개 사단이 各方案에 投入할 수 있도록 計劃되고, 이후의 動員部隊도 編成完了되는 즉시로 戰鬪地域에 展開될 수 있도록 準備되어야 할 것이다.

아군의 兵力運營計劃은 情報에서 判斷한 敵의 攻擊企圖判斷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參考로하여 敵軍을 誘導할 수 있는 地域에서 作戰을 遂行할 수 있도록 作戰參謀가 그 方案을 獨斷으로 決定하고 兵力運營計劃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開戰初期의 我 防禦計劃은 사단 자체의 防禦編成을 軍全體의 計劃으로 合理化시키는데 그쳤고, 後方사단의 投入計劃이나 動員計劃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실제 作戰단계에서는 兵力을 逐次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後方사단이 前方에 投入됨과 동시에 그 地域에 남은 基幹要員 一後方사단에서 殘留



한 것으로 하여금 動員令의 公布日(M일)로부터 一定한 期間內에 (M+15 또는 M+30) 새로운 戰闘부대를 編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다시 이와같은 方式으로 2次부대를 編成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를 위해서는 可用資源을 미리 把握하고 動員對象과 그 順位를 決定해 두었다가 戰爭이 勃發하면 즉자 動員召集하는 것이니 이의 總達訓練은 平時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開戰初期의 作戰指導상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러한 基本的인 判斷과 計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研究檢討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5) 總參謀長 更迭 경위에 대하여

總參謀長 更迭에 대하여는 자기 主張하는 바에 차이가 있으므로 本節에서는 그 경위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으나 여기에 研究된 바 그 내용의 要旨를 擧載해 둔다.

當事者인 丁一權소장이 뒷날 이에 관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6월 30일 15.00에 美國에서 水原비행장에 도착한 다음 즉시 戰線을 觀察한 뒤 陸軍本部에 돌아갔는데 대통령께서 김신을 보내오시기에 물어보니 내용에는 陸·海·空軍 總사령관 陸軍총참모장, 戒嚴총사령관에 命한다 라는 대통령 親筆로된 命書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같은 사실을 함께 있었던 蔡秉德 총참모장에게 말하였더니 그는 깜짝 놀라며 「왜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하면서 매우 憤慨하였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마음을 安定시키더니 「그러나 나의 親愛하는 丁一權次長이 이 일을 맡게 되어 多幸스럽게 생각하며 満足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大任을 부탁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방부장관 秘書인 申東雨 중령이 證言한바에 의하면 『6월 30일 아침에 장관이 불려서 갔더니 「蔡秉德 장군귀하」라고 쓴 기다란 봉투를 주면서 「이것을 총참모장에게 갖다 주라」며,

갈 때는 國道로 가지 말고 公州쪽으로 돌아서 水原으로 가라고 細密히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권지의 개봉은 너하고 총장하고 단둘이 있을때만 하라.」는 것이었다. 長官命書를 받고 나는 jeep차를 달려 公州쪽으로 해서 水原에 있는 陸軍本部(農業試驗場)로 갔는데 마침 그때 YAK機 1대가 近處에 추락해서 반쯤 火傷을 입은 北僞 조종사 1명을 잡아다가 訊問을 하고 있었다. 그때 총장이 전선 시찰을 마치고 約 30분 뒤에 돌아 왔는데 내가 長官의 권지를 주니까 그는 서 있는 채로 鎗봉을 쏘기 시작하였다.

이때 鎗봉은 국방부장관이 총참모장앞으로 쓴 것이고 鎗봉은 李대통령이 총참모장앞으로 쓴 것이었다.

李대통령의 편지는 「蔡장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소. 疲勞할까니 丁一權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쉬도록 하오.」라는 것이었다.

蔡소장은 그것을 보더니 손을 떨면서 한동안 얼굴까지 蒼白할 表情을 보이다가 安堵와 落膽의 兪감람속에서 沈着을 되찾으려는 氣色을 보였다.』라는 것이 그 要旨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장관 副官인 金炳三대위는 이에 대하여 述懐하기를 『中長官은 大田에서 대통령을 댓민 만난 다음 丁一權장군의 귀국을 몹시 기다리는 눈치였으며, 독촉 국제전보도 한 두번 된 것으로 기억한다. 30일 水原 비행장에 도착한 丁一權소장은 그길로 大田으로 가 申장관과 李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李塚嶺 忠南知事 관사로 直行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장관으로부터 총참모장의 更迭을 발표하라는 命書가 내려오니까』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兩人的 任命과 解任의 경위가 각각 다른 시간에 靚面으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같은 시간에 兩人에게 전달되었는지 分明치 않다. 이에 대하여 申東雨 중령도 잘 記憶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 4. 政府指導層의 動向

### 가. 戰爭報道에 關한 措置

6월 25일 07.00에 中央放送(K. B. S)은 北傀의 南侵 第一報를 放送하였다.

이것은 國防部의 要請에 따라서 당시의 放送局長메리 閔痛鎬와 정훈국 報道課長이 放送原稿를 다듬어서 當直 announcer인 韋辰祿으로 하여금 放送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敵이 南侵을 開始한지 이미 3시간餘가 經過하여 38°線의 防禦 一線이 무너졌을 때인데도 매우 樂觀的인 內容으로 報道하였는데 그 理由에 대하여 당시의 政調局長 李瑄根 대령은 뒷날 述懐하기를

『첫 放送의 目的은 一般國民에게 敵의 南侵事實을 알리는 데도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任務는 休暇 또는 外泊中인 將兵을 緊急히 原隊로 復歸케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民心을 크게 刺戟시킬 必要가 없다고 判斷하여 “國軍 10萬이 健在하니 全國民은 염려하지 말라”는 從來에 使用하여 오던 文句를 빚어날 수가 없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이날 12.00에 談話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38°線 全域에 걸쳐서 北傀는 同一한 時刻에 一齊히 南侵을 開始하고 東海岸에서는 上陸을 企圖하였으나 各地區의 우리 國軍 부대들은 이를 邀擊하여 適切한 作戰을 展開중에 있으며 特히 議政府 正面에서는 來襲하는 敵戰車를 對戰車砲로 擊退하였다.

北傀集團은 自家의 退勢를 挽回하려는 意圖아래 所謂 祖統을 通하여 和平統一이니 南北 協商이니를 謀略放送하다가 何等의 反應도 없으므로 操急한 끝에 敢行하게 된 共產徒黨의 常套手段임에 틀림없다.

全國民은 우리 國軍將兵을 信賴하여 微動도 하지 말고 各者의 職場에서 萬端의 態勢로 軍의 行動과 作戰에 積極 協力하기 바란다. 軍에서는 命숨이 없어 38°線을 넘어 攻勢作戰을 取할 수 없는 苦衷이 있으나 全國民은 安心하고 局部戰況에 特히 動搖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작된 放送은 25일에 있어서는 臨時 news 放送을 좀 늘렸을 뿐으로 正規放送program에 따라 進行되었으나 25일부터는 國防部 보도과장 金賢洙 대령과 방송계장 洪泉 中위 등이 KBS에 派遣되어 實質적으로 放送을 管掌하기 시작하였다.

繼續해서 26일 06.00에는 駐韓 美대사 Muccio가 그 內容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國民을

激勵하는 放送을 한데에 이어 08.00에는 申性模 국방부장관이 짤막한 生放送을 하였으나 報道課의 發表文과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報道の 政策方向을 民心의 動搖를 防止하는데에 두어 戰況을 비롯한 軍情報告도를 一元化하기 시작함으로써 온 國民이 귀를 기울이는 보도 내용은 市民들이 避難民으로부터의 傳言과 직접 皮膚로 느끼는 緊迫感과는 너무나도 遊離된 感을 주기도 하였으나 戰況의 好轉만을 바라는 市民들의 心理는 거듭되는 樂觀的인 報道에 끌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璣津을 撤收한 제17연대가 海州로 突入하였다는 報道가 繼續되었고(제3장 6절 參照) 제7사단이 이날 08.00에 反擊을 敢行하여 東豆川正面에서 多少의 進展을 보이자 『議政府를 奪還하고 北進中이다』고 하였으며, 저녁 무렵에는 『明朝(27일)에는 100%의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支援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報道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中央放送은 이날부터 08.30에 아침放送이 끝나면 11.30에 낮放送을 시작하였다가 저녁 17.00부터 子正까지 放送하던 正規 program 以外에 臨時 pro를 마련하여 社會名士를 초빙하여 講演會 함으로써 民心收拾을 試圖코자 하였다. 그러나 27일에 KBS는 06.00 放送으로 政府의 水原移動을 報道하여 市民들을 愕然失色케 하였다.

이때까지의 戰況報道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政府의 移動報告가 나오자 市民들은 不安에 떨고 絶望과 恐怖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에 唐慌한 李哲源 公報處長은 즉각 KBS에 指示하여 『政府 各기관은 水原移動을 取消하고 中央廳에서 계속 脫務하는 한편 國會는 國民과 더불어 서울을 死守키로 決議하였다』라고 發表하여 06.00의 報告를 取消케 하였으나 거리에는 避難民 대열이 부쩍 늘기 시작하였다.

放送局 白體도 어수선한 가운데 放送은 그런대로 계속되었는데 27일 22.00부터 23.00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錄音放送을 實施하였으며 그 要旨에 이르기를 『UN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이 侵略을 물리치기 위하여 空中輸送으로 軍器와 物資를 날라와서 우리를 도우니까 國民은 좀 甯生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敵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安心하라』는 것이었는데 放送實務者들이 생각하기에도 서울의 사태와는 너무나 距離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마침 生放送을 위하여 放送局에 와 있던 社會名士들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內容의 放送을 더 이상 계속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中斷하였다고 당시의 派遣官 洪 泉 중위는 述懷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 錄音放送의 背景에 關하여서는 당시 景武臺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隨行하던 黃圭冕이 證言하기를

『27일 03.00에 景武臺를 떠난 대통령은 이날 12.30에 大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北上하여 16.30에 大田에 到着한 다음 鐵道局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때에 駐韓 美대사관의 E. F. Drumwright 參事官이 내려와서 UN安保理에서 U.S.S.R.가 拒否權을 行使하지 못한 經緯와 그 結果로 얻어진 UN의 決議, 그리고 美國의 公式的인 態度를 밝히면서 “이제는 閣下의 戰爭이 아니라 우리들의 戰爭이다(This is not your war but ours)”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 말에 生氣를 되찾은 大統領은 忠南知事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마침 그곳에 到着한 李哲源 公보처장에게 “國民을 安心시키기 위해서도 放送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말하고 그 原稿를 口述하는 것을 내가 받아쓴 다음 이것을 그대로 大統領께서 電話送話器에 대고 읽으셨는데 이것이 그날밤에 나간 大統領의 錄音放送이었다.]

라고 하였다.

위의 證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統領의 錄音放送은 UN安保理에서의 美國이 提案한 勸議案의 可決事實과 美 海·空軍의 作戰地域의 制限체계 消息을 國民에게 널리 알려 士氣를 북돋우고자 한 衷情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放送이 이날 正午에 公報處에서 발표한 “政府는 水原移動을 中止하고 中央廳에서 視務中”이라는 報道에 이어 거듭 放送됨으로써 100萬 市民이 決定的인 瞬間에 避難의 길을 催促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 밤을 보내다가 敵治下에서 온갖 苦楚와 禍를 겪게 되었다.

그런데 放送을 實質的으로 管掌하던 軍이 漢江橋보다 그 戰略的 價値가 못지 않은 唯一한 放送局을 放置함으로써 敵이 이를 利用케 하였다는 것은 重大한 失策이 아닐 수 없다.

즉 北僞는 서울 侵入과 동시에 放送局을 先占하였는데 02.00가 지나서야 政訓局의 報道과장 金賢洙 대령이 放送施設을 파괴하고자 單獨으로 달려갔으나 이보다 먼저 潛侵한 敵 유격대에 의하여 戰死함으로써 그 계획이 霧散되고 말았던 것이다.

軍이 Masscommunication으로서 放送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放送을 管掌하였다면 敵에게도 利用될 수 있다는 사실을 豫見하여 漢江橋 爆破에 앞서서 放送局과 그 施設을 파괴하였어야 할터인데도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나. 非常 國務會議

38°線 全面에서 不意의 奇襲을 받게된 軍이 淒絶하게 寸土의 땅을 다루고 無辜한 住民들이 戰塵속에 彷徨하고 있을때에 大統領 李承晩은 秘苑안 半島池에서 閑暇롭게 낚시바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景武臺 경찰서장 金長興 총경으로부터 “北僞의 大舉南侵”보고를 받고 景武臺 官邸로 돌아가게 된 그는 곧 總務處를 통하여 各部長官을 召集토록 하였는데 그때가 敵이 南侵을 開始한지 6시간뒤인 10.00 前後이고 閣僚들이 모두 모여서 臨時 國務會議를 열게 된 것은

그로부터 1시간뒤인 11.00였으며 국무총리서리 申性模가 이 會議을 主宰하였다.

이때에 영문도 모르고 緊急呼出에 應한 閣僚들은 國務總理署理경 國防부장관 申性模, 外務부장관 林炳稷, 內務부장관 白桂郁, 財務부장관 崔淳周, 法務부장관 李愚益, 文敎부장관 白樂濬, 農林부장관 尹永善, 商工부장관 金 勳, 保健부장관 具永淑, 社會부장관 李允策, 交通部장관 金錫寬, 그리고 遞信부장관 張基永이었다.

이 席上에서 申性模 國防의 戰況說明이 있었는데 그 內容이 粗雜하기 짝이 없어서 마치 禪問答같기도 하고 走馬看山格이기도 하여 局地的인 衝突인지 全面侵攻인지 都是 分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議政府正面的 前線 가까이까지 直接 나가있는 육군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이 돌아오는대로 確實한 狀況을 보고받기로 하고 12.00에 散會하였다.

이로부터 2시간 뒤에 再開된 國務會議은 대통령어 主宰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蔡 총장은 38°線 全域에 걸쳐 40,000名~50,000名の 北傀軍이 94輛의 戰車를 앞세우고 不法南侵을 開始하였으나 各地區의 國軍부대는 對戰車砲로 敵戰車를 擊退하면서 適切하게 作戰을 展開中에 있다.

이러한 北傀의 侵攻은 그間に 그들이 벌여온 偽裝平和攻勢가 別다른 反應이 없으므로 燥急하게 恣行한 그들의 常套적인 手段으로 보며 後方사단을 進出시켜 反擊을 敢行하면 能히 擊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報告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全國務委員들은 이렇다 할 決議事項도 없이 15.30에 散會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江 건너 불구경이란 果然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戰局을 심상치 않게 알아차렸음인지 곧 대통령령 제377호(非常事態下의 法令公布의 特例에 關한 件)를 公布하여 radio, 新聞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法令을 公布할 수 있게끔 한 다음 緊急命令 제1호(非常事態下의 犯罪處斷에 關한 特別措置令)를 下達하여 反民族的이고 非人道的인 犯罪者를 嚴重處斷키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當時의 憲法 제57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緊急命令權을 發動하면서도 憲法 제64조에 의거한 戒嚴令을 宣布하고 戰時體制로의 轉換을 強行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戒嚴法 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한 事變에 있어서는 非常戒嚴令을 宣布하였어야 할터인데도 이를 宣布치 않고 있다가 7월 8일에야 비로소 宣布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날인 26일에 各部장관들은 所管分野別로 市民生活의 安定과 後方治安의 확보 그리고 避難民에 대한 救護對策으로 臨戰態勢를 갖추고자 全力을 集中하였으나 一朝에 부닥친 不意의 國難을 짧은 時間內에 克服하는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議政府가 失陷되고 防禦線이 倉洞-彌可里線으로 壓縮되어 時時刻刻으로 戰況이 惡化하게 되자 이날밤

에 景武院에서 또다시 非常 國務會議을 開議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特別指示를 받은 前國務總理 李範奭도 참석하였는데 會議劈頭에 申性樸 국방의 戰況說明이 있었으나 그 內容이 舊態依然하게 安逸하고 樂觀의이어서 李範奭이 이를 가로 막고 『問題는 서울을 死守할 것이냐, 서울周邊에서의 抵抗을 계속하면서 遲延戰을 벌일 것이냐 이 두가지를 다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서울에서 撤收하여 遷都할 수밖에 없으니 이 세가지 方案에 대하여 時急히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怒氣를 띠고 一喝하자 場內가 一瞬 물을 끼얹은듯이 肅然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마침 中央廳 上空을 날오는 彼我不明機의 爆音이 震動하자 비로소 事態의 深刻性을 寤感케 되고 會議가 잠시 中斷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李範奭은 發言을 계속하되 『지금의 戰況으로 보아 서울死守가 어렵다면 撤收 문제로 좀 허야 할 것이며 市民에 대한 措置와 漢江橋폭과 問題가 先決되어야 한다』라고 警告調의 매음을 짓고 退場하였다. 뒤이어 發言한 張基永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싹이 움튼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꺾임없이 남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民主主義의 싹은 죽지 않고 힘차게 뻗어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閣僚들은 뒤이어 贊反의 論爭을 벌였으나 事態는 撤收쪽으로 기울어 水原移動이 決定되고 말았는데 서울 市民의 撤收문제는 論議조차 하지 않은채 散會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의 會議에 幹事(議事錄 作成)로 陪席한 總무처 비서관 金德賚는 證言하기를 『이때 마침 美海·空軍의 參戰決定이 通報되고 또 地上軍의 參戰도 可能할 것으로 내다 보았기 때문에 軍事知識에 어두운 閣僚들은 北傀를 過小評價하고 美軍을 過大評價하여 서울을 一旦 撤收한다 하더라도 넉넉잡고 15日間이면 能히 收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水原移動을 決定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閣僚들은 서울 市民의 撤收는 姑捨하고 所管部處의 撤收對策도 소려 마련하지 못한채 27일 아침부터 正午무렵까지에 걸쳐서 漢江을 건너 水原으로 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反對로 政府에서는 公報處長 發表라 하여 『戰況의 好轉으로 政府의 移動을 中止하였으니 國民은 動搖하지 말라.』고 放送을 하였으므로 前後矛盾된 愚策이라 아니 할수 없다.

## 다. 國會의 措置

### (1) 제6차 本會議와 緊急動議

戰爭 當日에 開議하지 못하였던 國會는 26일 11.00에 申翼熙 議長의 司會로 제6차 本會議을 開議하였다.

이 자리에 出席한 國防, 內務 兩장관과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戰況의 說明을 聽取하였는데 國防部側에서는 『敵이 南侵을 開始하였으나 我軍은 後方 3개사단을 投入, 反擊을 敢行하여 議政府를 奪還하고 敵을 그 北쪽으로 擊退하였으니 조금도 걱정할 必要가 없다. 軍의 苦衷은 命命이 없어서 38°線을 넘어 攻勢作戰을 敢할 수 없는 것이다. 萬岩 攻勢를 取한다면 1週日 以內에 平壤을 奪取할 自信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 當時 超긴장상태에 있던 各議員들은 이러한 樂觀的인 證言으로 달미암아 多少 安堵의 빛이 있었으나 萬一의 사대에 對備하여 論議를 거듭한 끝에 非常時局에 關한 緊急決議案을 上程하여 滿場一致로 通過시켰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豫算에 拘束됨이 없이 軍事費支出을 위한 權限을 政府에 賦與한다.
- ② UN과 美議會 그리고 美대통령에게 message를 보낸다.
- ③ 38°線 地域에서 戰鬪중인 軍警과 住民을 格려하기 위하여 國회의원으로 構成된 慰問團을 派遣한다.
- ④ 對美 武器對策위원회를 國會에 構成한다.
- ⑤ 物心兩面으로 行政府에 呼應하는 同時에 緊密한 連絡을 維持하여 國家의 安定을 期한다.』

이와 같이 決議한 國會는 13.00에 --日 停會하였다가 14.00에 다시 續開하였는데 張澤相 副議長의 司會로 秘密會議로 들어가 UN과 美議會 및 대통령에 보내는 message와 白象主 議員外 11명이 提案한 對美 武器購入대책위원회조직案을 採擇, 可決한 다음 白象主, 池青天等 10명을 그 委員으로 任命하고 16.00에 散會하였다.

## (2) 非常國會의 召集과 首都死守決議

그러나 이날 下午부터 東豆川과 議政府쪽으로부터 避難民대열이 밀려 들고 彼我를 分辨할 수 없는 砲聲이 점점 가깝게 울려 퍼져 市民들은 不安에 떨고 있을 무렵인 27일 01.00에 非常國會를 召集하였다. 그리하여 慌急히 召集된 議員들이 겨우 過半數로써 成員이 되자 申翼熙 議長은 開會벽두에 非常國務會議에서 急히 달려온 申性模와 蔡秉德의 戰況說明을 聽取하였는데 蔡소장은 午前中의 證言과 마찬가지로 敵을 能히 擊退할 수 있고 首都를 死守한다고 告白하였으나 申性模는 국무총리사리의 자격으로 戰況이 惡化할 경우에는 政府移動의 必要가 있을 수 있다고 가볍게 비쳤다. 이에 興奮한 議員들의 吶喊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일어났고 元世燾議員은 首都死守를 緊急動議하였다.

이리하여 議員들 사이에는 申論乙駁의 激論이 벌어졌는데 이에 贊成하는 側의 主張이 이르기론 『다른 사람들은 모두 撤收한다 할지라도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만은 서울을 死守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反對하는 側의 意見은 서울死守가 戰術的으로나 戰略的으로 無意味하고 非戰鬪員인 國會議員이 버티고 있을수록 戰鬪要員의 犧牲만을 強要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霧圍氣가 後退를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軍法者이자 非愛國者와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結局 『國會議員은 百萬 서울市民과 더불어 首都를 死守한다.』는 首都死守결의案이 通過되었다.

申翼熙 議長과 曹奉岩 副議長은 이 決議文을 傳達하고자 景武臺로 달려갔으나 대통령은 이미 南行하고 非常國務會議을 마친 閣僚들도 흩어진 뒤여서 그대로 國會로 돌아와 散會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27일 04.00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非常國會的 悲壯한 首都死守決議는 行政府의 實質적인 空名으로 政策결정에 何等の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決議가 禍根이 되어 210명의 議員中에서 62명에 達하는 議員들을 서울에 殘留케 하고 結局 8명이 死亡 또는 被殺되었으며 27명이 擡救 또는 行方不明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라. 美國과 UN에 대한 外交活動

外務部長官 林炳稷은 駐美대사 張勉에게 美國과 UN에 대한 外交活動을 緊急히 指示하면서 계속적인 連絡을 維持하는 한편 美 國務省과 國防省 그리고 美 極東軍사령부에 緊急支援을 要請하였으며 駐韓 美大使 Muccio와 UN韓國委員團과의 協調를 維持하였다.

이리하여 Muccio 대사는 25일 10.26(韓國시간)에 『北僞軍의 공격은 확실히 武力侵略이며 38°線에 걸쳐 大韓民國을 公然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信文을 美 國務省에 發送한 다음 11.35에 景武臺로 대통령을 訪問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10日以內에 韓國軍이 保有한 彈藥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國民은 男女老少 모두가 일어나 扈衛와 勇猛이 붙들고라도 싸울 것이다. 그러나 充分한 彈藥이 있다는 確信이 있다면 國民들의 士氣를 더욱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자 Muccio 대사는 즉각 KMAC의 Walter G. Wood, Jr. 중령에게 指示하여 美 極東軍司令部에 105mm 野砲彈을 비롯한 迫擊砲彈 그리고 小銃齊彈을 緊急要請토록 함으로써 7월 1일에는 Keethly 號便으로 105mm砲彈 10,500발, 81mm迫擊砲彈 265,000발, 60mm迫擊砲彈 89,000발, 小銃齊彈 2,480,000발이 釜山으로 急送되었는데 이것은 Truman이 MacArthur 元帥에게 對韓武器援助 명령이 下達되기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Australia—ElSavador—France—India—Philippines—Turkey 그리고 自由中國 代表트 構成된 UN韓國委員團에서는 北僞의 南侵通報를 받자 25일 14.00부터 18.00까지에 걸쳐 緊急會議를 召集하여 不法南侵에 對處할 方策을 協議하고 이날 21.00에 中央放送을 通하여 北僞軍은 즉각 軍事行動을 中止하고 38°線으로 撤收한 다음 平和會議를 通하여



事態를 解決하라.]고 要求하는 한편 UN本部에 『全面侵略의 性格을 띤 重大事態가 韓國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世界平和와 安全을 威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安保理에 上程하는 것이 適切한 것』이라는 전문을 發送하여 現地시간 25일 14.00(韓國시간 26일 04.00)에 安保理를 召集하고 美國의 決議案을 通過시키는데 美國의 努力과 더불어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다.

또한 駐美대사 張勉은 政府의 계속되는 緊急訓令에 따라 美國務省과 國防省에 緊急支援를 要請하고 武器援助와 海·空軍의 參戰決定에 이은 作戰地域制限의 철제 그리고 끝내는 地上軍參戰의 決斷을 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美國의 UN 副대사 Gross와 連絡을 維持하여 現地시간 25일 14.00에 附催된 UN安保理에서 observer로서의 發言權을 얻어서 말하기를 『安保理는 世界平和를 위하여 北傀의 威脅을 除去하고 韓國에 대한 侵略者에 停戰과 38°線 以北으로의 撤收를 명령할 것』이라고 呼籲하여 美國의 提案 — 停戰과 北傀軍의 38°線 以北으로의 撤退 그리고 UN韓委트 하여금 이를 監視케한다 — 를 可9 조 策權1로 通過케 하였다(제7장 제2절 參照).

그는 또한 UN 各國代表와 美 議會 그리고 朝野의 여론을 喚起시키는데 努力함으로써 現地시간 27일 11.00에 UN安保理에서 제2차 決議案의 通過를 보아 支持國은 7월 4일 現在로 41個國을 確保하였으며, 美 上下兩院合同會議에서는 26일에 5,000萬弗의 對韓追加援助를 可決한데 이어 29일에는 上院歲出委員會에서 對韓經援으로 1億弗의 支出을 可決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한편 27일에 서울을 떠나 次原에서 東京으로 一旦 移轉한 UN韓國委員團은 7월 3일에 少數의 連絡委員만을 除外하고 全員이 大田에 復歸하여 그 機能을 恢復하고 北傀의 南侵 蠻行에 대한 阻擊者가 되기에 이르렀다.

#### 마. 行政府의 移動

政府는 戰爭勃發時의 移動계획은 勿論이고 非常對策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戰爭이 勃發하면 政廳은 平壤에서 먹고 저녁은 新義州에서 먹는다고 國防當局者가 豪言壯談하고 있던 狀況下에서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겠지만 實際로 戰況이 惡化一路를 치달고 있는 過程에서 마저도 國防部와 充分한 協調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 보도과의 公式발표와 治安局의 경찰정보 그리고 國務會議에서의 修飾된 戰況報告에 依存하는 形편이어서 移動계획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戰況의 急轉을 맞게 되었다. 27일 未明의 非常國務會議에서 水原移動이 決定되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長·次官을 中心으로 한 政府形態維持에만 主眼點을 둔 것일뿐으로 實質的인 行政機能의 移動을 考慮하지 못한 것이어서 組織的인 撤收계획이 없이 各部處別의 行動에 맡긴 것으로 되었다.

여기에서看過할 수 없는 것은 國務會議에서 水原移動이 決定되어 이를 放送으로 報道하였을 때에 市民들이 크게 動搖하자 政府는 이를 收拾코자 「移動中止」를 再報道함과 동시에 公務員들의 正常근무를 중용하여 各部處는 어느 程度의 行政機能을 계속 發揮하였는데도 각 長官들은 國務會議에서의 決議대로 27일 正午무렵까지는 漢江을 건너 水原으로 내려갔다는 事實이다.

차라리 市民들의 緊急撤收대책을 마련하고 政府의 移動계획을 公式化하여 優先順位를 가려 撤收하였더라면 그 뒤 大田-大邱에서의 얼마동안의 行政的인 空白이나 많은 中堅級 以下の 公務員들을 敵治下에 殘留시켜 1,359명이나 拉北케 되는 醜態를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도 臨機應變的이고 主觀없는 政策變更이 값비싼 損失을 加重시켰던 것이다.

如何間에 27일 15.00까지 一일 水原 市廳으로 名目上의 移動(長官集結)을 한 政府는 이날로 대통령이 大田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閣僚들도 忠南道廳에 臨時廳舍를 두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7월 1일 03.00에 總務處長 全奎弘은 忠清南道 내부국장실에 待機中인 崔性謀, 金德賓 兩비서관을 불러 長·次官을 비롯한 三府의 要人과 主要人士들에게 즉각 連絡하여 大田驛에 集結하도록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兩비서관은 城南莊을 비롯한 各어관에 留宿중인 要人들에게 緊急히 連絡하는 一方 電話가 없는 要人들에게는 直接 찾아가 傳言하여 集結케 하였다.

이 무렵 대통령은 이미 李哲源 公報處長과 黃奎冕 秘書 그리고 景武臺警察署長 金長興 總警을 비롯한 少數의 경호경찰관만을 帶同하고 木浦쪽으로 南行하고 있었다.

大田驛의 으속한 platform에 待機中인 特別列車에 乘車한 要人들은 『이대로 撤收하여야 옮은가, 어데로 갈 것인가.』를 놓고 論爭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結局 내려가되 大邱쪽에는 暴動의 우려가 있다는 流言蜚語가 떠돌던 때이므로 우선 湖南地方으로 내려가기로 作定하고 大田驛을 출발하였다.

이 要人들의 緊急移動은 國務會議에서 論議된 바도 없이 6월 30일 子正以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 狀況에 대하여 大韓正義團長으로서 城南莊에 머물렀던 崔性章은 證言하되 『B-29가 平壤을 大學폭격하고 美 地上軍의 參戰이 決定되었으나 U. S. S. R이 參戰할런지도 모르며 北傀는 報復으로 臨時首都인 大田을 集中폭격할 것이라는 所聞이 나돌았기 때문에 이러한 醜態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李哲源 公報處長은 述懷하기를 『水原농업시험소에 位置한 ADCOM이 水原上空의 美軍機로부터 「敵의 大部대가 水原쪽으로 侵攻中」이라는 報告를 받고 瞬息間에 混亂의 최오리속에 빠져 指揮所의 通信兵들이 裝備를 파괴하고 燒却하다가 本部建物을 태웠으며 水原비행장의 對空砲臺마저 부랴부랴 撤收하게 되었다. 이러한 美軍의 恐慌이 번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政府 대변인인 李行源 공보처장의 證言으로 미루어 볼때에 美軍(ADCOM) 또는 美 대사관으로부터의 그릇된 情報에 의하여 騷亂이 일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었다(第5章 漢江線의 防守 第2節 參照). 이 당시 金弘壹 소장이 指揮하는 國軍의 主力이 漢江線에서 防禦中에 있었으나 6월 30일밤에 北傀 제3사단의 一部 병력이 俗稱 말죽거리쪽의 漢江을 渡河하여 我軍2사단의 陣地 一角을 踰越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병력이 보잘 것 없어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원이 의하여 擊碎된데 뒤이어 水原에 集結한 제1사단이 豐德川으로 進出하여 防禦線을 形成함으로써 事態는 收拾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誇張된 誤報가 泰山鳴動格이 되어 一國의 政府를 攪亂지 못할 混亂의 도가니로 돌아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全州까지 내려갔던 要人들은 誤報임을 확인하고 다시 大田으로 復歸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戰爭勃發以來로 對美, 對UN外交를 비롯한 政務에 細設하던 大統領은 一部 人士들의 意見을 받아들여 26일 15.00에 南行키로 우선 作定하였다가 環境의 變化를 일으켜 이를 取消하였다.

그런데 이날 21.00에 金泰善 시경국장이 景武臺로 들어와 報告하기를 『西大門 警무소에 數千名의 共產赤色分子들이 監혀 있습니다. 그들이 脫獄한다면 仁旺山을 넘어 제일 먼저 여기로 옵니다. 閣下께서 一時 避難하셔서 이 戰爭의 全般을 指導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27일 02.00에 申性模 국방을 비롯한 李起鵬 서울市長, 趙炳五(前 美派派遣特使) 등이 또다시 南下할 것을 強要하자 이에 南行을 또다시 決心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때마침 열리고 있는 非常國務會議에는 參席치 않고 待期室에서 張勉 駐美대사를 電話로 불러 『우리 國民들은 잘 싸우고 있지만 武器가 없어서 큰 걱정이다. 제일 必要한 것이 tank이다. 그러니 빨리 tank를 보내도록 周旋하라.』라고 指示하고 뒤이어 MacArthur 元帥에게도 電話를 걸었는데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閔復基 비서관은 뒷날 證言하기를,

『MacArthur元帥의 보좌관이 元帥는 지금 자고 있다고 대답하자 大統領은 『우리가 지금 잘 싸우고 있으나 武器가 없다. 그러니 tank를 빨리 보내라. 萬一에 당신들이 아니 도와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美國 사람들도 安全치 못할 것이다.』라고 흥분된 語調로 말 씀하시자 옆에 있던 Francesca夫人이 大統領의 입을 막으시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한 然後에 그는 03.00에 景武臺를 출발하여 서울驛으로 向한 것이다.

이 南行隊의 상황에 대하여 唯一하게 大統領을 隨行한 黃圭冕 비서관은 述懐하기를

『대통령께서 南行키로 決心하시자 우리 秘書들은 전날 서울驛까지 一車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도로 가져온 襪密書額을 챙길 사이도 없이 景武臺 뜰에서 모두 燒却한 다음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에 李起鵬 서울市長이 「그러면 秘書와 경호원 몇명을 골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우리에게 와서 대통령을 隨行할 사람을 선발할터이니 준비를 뵙으라는 것이었다.

그때에는 狀況이 絶望的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누구나 自己몸만을 所重하게 여기고 家族을 먼저 걱정하는 形便이었지만 나는 自進해서 隨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27일 03.00에 나와 金長興 총경등 두사람만을 帶同한 대통령(內外분은 景武 鎔을 떠났는데 이때 携帶한 것은 緊要한 書類 몇가지와 毛布 한장 그리고 金庫속에 있던 現札 60,000圓이 그 全部였다. 서울驛에서 출발하기前에 李鍾林 서울驛長에게 미리 連絡하였지만 기관사를 찾느라고 좀 遲滯하였다가 04.00에 비로소 출발하였는데 이때에 列車라는 것이 3等客車 1輛을 連結한 것으로서 客車內部는 椅子의 數이 거의 없고 유리 窓이 깨지고 해서 두 內外분을 모시기가 막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介意치 않고 「내가 서울市民들하고 같이 죽더라도 남아서 싸워야 할텐데……. 그러나 내가 잡힐 것 같으면 다 되는거야.」라고 하시면서 自問自答하는 것이었다.

이틀밤을 주무시지 못한 대통령께 가지고 간 毛布를 덮어드렸더니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같았다.

이날 12.30에 列車가 大邱驛에 到着하자 대통령께서는 「列車을 돌리게, 그리고 曹在千 慶北知事와 제3사단장 劉升烈 대령을 불러 오게」라고 말씀하시어 두분께 連絡하여 驛까지 나오게 하니 「國民들을 督勵해서 한통치가 되어 共產黨을 물리치게. 나는 올라간테니 그쯤 알고 잘돌하게.」라고 吩咐하시었다.

되돌린 列車가 16.30에 大田에 到着하자 대통령께서는 大田地方철도국 사무실로 引導되었는데 여기에는 初代內務部長官 尹致暎과 前交通部長官 許政 그리고 李學鎮 忠南知事가 미리 連絡을 받고 나와 있었다.

이때에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다시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니까 許政은 極口挽留하고 李學鎮 知事は 自身이 直接 모실터이니 올라가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意見이 엇갈려 영겨주춤하고 있을 때에 이미 말한대로 美대사관의 Drumwright 참사관이 찾아와서 UN의 談意事項과 美海·空軍의 作戰地域 제한철폐 決定을 알리자 生氣를 되찾고 忠南知事 官舎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大田에 一巨 머물게 될 대통령은 29일에 Muccio 대사가 運轉하는 車로 水原에 올라와 MacArthur 元帥를 迎接하고 다시 大田으로 돌아가 다음날에는 美國에서 돌아온 丁一權 준장을 육군총참모장겸 三軍總사령관으로 任命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7월 1일 03.00에 또다시 大田을 떠나 禮里—木浦를 거쳐 釜山으로 내.

더갔는데 이때에도 前記한 黃圭冕 비서관은 그 經緯를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76년 30일 子正무렵에 Chicago Daily News紙의 Walter Simmons라는 記者가 「北傀軍이 漢江을 넘어서 水原을 거쳐 大大的으로 南下하고 있다.」고 急히 傳해왔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美國대사관의 Dr. Harold J. Noble 一等서기관에게 알아 보았더니 事實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뒤에 그가 直接 찾아와서 「敵의 탱크가 넘어왔다. 대통령께서 곧 避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또다시 大田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이 무렵 大田에는 赤色分子가 많아서 暴動이 일어날 것이라는 流言蜚語가 가득했기 때문에 木浦쪽으로 가기로 하고 7월 1일 03.00에 서둘러서 大田을 출발하였다. 이때에 나는 대통령 内外분을 모시고 Sedan車로 갔고 李哲源공보처장과 金長興 總경 등은 Jeep車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출항길을 겨우 달려 이른 아침에 裡里驛에 到着하였다. 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車輛으로 갈 수가 없어 列車을 바꾸어 타기 위하여 대통령 内外분을 驛長室에 모셔놓고 李哲源 공보처장이 大田에 있는 金錫源 교통부장관에게 連絡하여 特別列車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正午에 裡里驛을 출발하여 14.00에 木浦에 到着하였으나 대통령의 身邊保護를 위하여 地方官署長들에게도 一切 알리지 않고 海軍 木浦경비부사령관 鄭鏡模 대령에게만 連絡하여 釜山까지 갈 수 있는 艦艇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鄭대령은 海岸경미차 出動中인 掃海艇을 불러들여 500噸級인 제514艦(장, 朱浩奎 소령)에 대통령 一行을 모시고 300噸級인 제309艦(장, 金南植 소령)의 護衛아래 16.00에 木浦港을 出航하였다.

이리하여 19시간에 걸친 航海 끝에 2일 11.00에 釜山埠頭에 到着하여 慶南知事 梁聖泰의 迎接을 받고 知事官舎로 直行하였으나 7월 9일에는 大邱로 올라가서 慶北知事 官舎에 滯留하면서 大田에 계속 머물고 있는 閣僚들을 電話를 통하여 指揮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李始榮 부통령은 戰爭이 勃發하자 老軀를 무릅쓰고 中央廳으로 登廳하여 戰局의 推移를 注視하였는데 職務上 政務에는 直接 干與하지는 않았다.

26일 中央廳上空에 나타난 敵의 YAK機가 기총소사를 加하므로 젊은 職員들은 허둥대었으나 부통령은 微動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자 총부처장 全奎弘과 그 비서관 金德寬가 모시고 待避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이 이미 서울을 떠난 27일 아침에도 執務室을 지켰는데 이때 예비역 준장 金錫源이 國會議員 李鍾榮과 前駐中大使 申興雨와 같이 찾아와 義勇軍募集에 必要한 政府의 協調를 懇請하자 이를 激勵하고 財務部장관을 불렀으나 이미 水原으로 떠난 뒤여서 어느 局長에게 所要經費를 請達해줄 것을 指示하였던바 그 局長은 대통령의 指示가 없는限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戰況이 漸次로 惡化되고 各界의 主要人士들이 續續 서울을 떠나자 그는 周邊人士들의 強權에 對하여 警護員이나 秘書의 隨行도 없이 直系家族들만의 保護아래 漢江橋가

폭파되기 직前에야 漢江을 건너 光州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全南知事 官舎에 머물렀으나 戰況을 憂慮한 李哲洙 全南知事의 進言에 따라 그가 周旋한 車便을 利用하여 釜山으로 向하였던 것이다.

## 바. 國會의 移動

제7회 臨時國會는 行政府의 實質的인 空白狀態에 隨伴하여 再召集을 위한 아무런 期約도 없이 27일 04.00에 幕을 내리고, 國會議員들은 個別行動에 들어간 것이다.

그중에서 郭尙勳 議員은 連絡을 받지 못하여 非常國會에 參席하지도 못하였다가 27일 아침에 비로소 中央廳으로 갔더니 白性郞 內무부장관이 말하기를 『모두들 서울을 빠져나갔으니 빨리 避難하라.』하므로 漢江橋에서의 愾兵의 制止를 뿌리치고 鷹梁津으로 나아가 마침 仁川으로 떠나는 기관차를 타고 選舉區인 仁川으로 가서 선거구민들에게 빨리 避難할 것을 알린 다음 水原으로 내려갔다. 또 太完善 議員도 역시 非常國會에는 參席하지도 못하였다가 이날 아침에 國會에 나가니 金用茂, 趙素昂 議員等 5~6명만이 남아서 『새벽에 首都를 死守한다고 決議를 하여 놓고 全部 逃亡들을 가다니……』라고 激嘆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太議員은 國會사무처로 갔더니 그때 마침 正確한 戰況을 알기 위하여 國防部에 갔던 曹奉岩 副議長이 들어서면서 그 자리에 있던 李淳濂 사무총장에게 『14.00에 漢江橋를 폭파한다고 하니 빨리 漢江을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고 尹城淳, 崔獻吉 兩議員만을 車에 태운채 그대로 漢江을 건너 水原으로 내려갔다.

한편 當時의 國會議員 金用兩는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非常國會에서 首都死守決議가 있는 다음에 거리에 나오니까 경찰관 派出所에는 벌써 순경들을 볼 수가 없었고 完全히 無秩序상태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radio를 들어보니까 「國會議員들은 水原의 農科大學으로 集結하라.」고 放送하였다. 그래서 나는 家族들에게 「내가 國會議員이니까 우리들만 서울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西大門에서 國會議員이 되었으니까 區民들에게 避難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는 것은 道理가 아니니 家族들은 市民과 같이 여기에 남아 있고 나는 後退해서 나의 할 일을 다 해야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나 혼자 내려갔다.

放送대로 水原에 와서 보니 農大에는 아무도 없어서 水原驛으로 가니까 白性樸 國防부장관이 Jeep車를 타고 와 있었고 國會議員은 金奉才 議員만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때에 交通部에 있는 同期同窓에게 列車時刻을 물었더니 「定期列車은 이미 없고 19.00에 내려가는 列車이 마지막.」이라고 하기에 그 列車을 타고 釜山으로 내려갔다. 東萊에서 묵고 있는데 6월 30일 아침에 大韓青年團의 街頭放送을 통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을 奪還하고 中央廳에 太極旗를 꽂았다.」고 放送하기에 여기 있을 必要가 없어서 釜山驛으로 나가 서울行 車票를 사려고 하였더니, 서울은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선 大邱까지만 가기로 하고 車票를 샀다. 大邱에 와보니 마침 大邱까지 가는 列車가 있어서 大邱까지 到着하였는데 이때 大田地法에 臨時國會 사무소를 設置해놓고 많은 國會議員들이 와 있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分散하여 各個躍進으로 南下한 國會議員들은 대통령의 大田滯留를 契機로 大田地方法院에 立法府 連絡事務所를 設置하고 避難議員들 相互間의 連絡을 維持하였으나 過半數의 成員을 이루지 못하여 國會를 開會하지 못한채로 懇談會를 열어 戰局의 收拾策을 論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戰勢의 惡化로 말미암아 7월 14일에 行政府와 더불어 또다시 大邱로 移動한 立法府는 이달 21일부터 제8회 臨時國會를 열어 立法府의 機能을 되찾기에 이르렀다.

#### 사. 司法府의 措置

司法府는 25일에 大法官을 비롯한 事務職員들이 radio放送과 新聞, 電報를 통하여 敵의 全面南侵 사실을 알기는 하였으나 別다른 움직임 없이 이날을 보냈는데 다만 戰況을 강금히 여긴 一部の 事務職員들이 個別的으로 나와서 自進宿直하면서 自體경비를 담당하였다.

다음날인 26일 09.00에 大法院에서는 大法官會議를 召集하여 전날에 대통령이 發布한 緊急命令 제1호(別添)에 따라서 各級法院의 一般 民刑事裁判을 이날 09.00를 期하여 無期延期하고 緊急명령에 따른 特別犯罪裁判에 萬全을 期하도록 決議한 다음 이를 緊急히 示達하였다.

그러나 戰況의 推移를 알길이 없으므로 盧龍鎬 行政處長으로 하여금 總務處長 全奎弘과 連絡을 維持케 하여 戰況과 아울러 行政府의 動向을 알아왔는데 27일 아침에 行政府의 水原移動이 通報되자 數日前에 下肢의 수술을 받아 기동이 不便한 大法院長 金炳魯를 비롯한 5名の 大法官 全員은 漢江을 건너 水原으로 向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水原移動이 暫定的인 것으로서 要人만의 一時的인 待避指示로 알고 大法院을 비롯한 各級法院에 대하여 組織的인 撤收指示는 勿論 主要文書(裁判記錄, 戶籍原本, 不動產登記簿)에 대한 緊急措置도 講究하지 못한채로 避難길에 오름으로써 一部の 法官과 事務職員들은 一般市民들과 같이 個別行動하게 되었다.

27일 15.00를 前後하여 서울地法 水原支廳에 到着한 大法院 一行은 行政府의 閣僚들이 대통령을 滯留한 것으로 알려진 大田으로 또다시 내려감으로써 뒤따라 大田으로의 避難길을 催促하였다.

이리하여 大田에 到着한 司法部는 28일부터 大田地法에 司法部 連絡사무소를 設置하고 大法院長을 비롯한 要人들은 地方法院長 官舎에 旅費를 풀었는데 이때에 個別行動으로 南下하여 合勢한 職員들이 13명으로서 그야말로 名目上의 移轉일 뿐으로 何等의 機能을 發揮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7월 1일 未明에 總務處長 全奎弘으로부터 司法部의 要人들은 즉각 大田驛으로 集合하라는 連絡을 받자 大法院長을 비롯한 全大法官과 行政處長을 포함한 事務職員이 大田驛으로 나갔을 때에 要人들을 위한 特別列車가 platform 으속한 곳에 待機하고 있으므로 乘車할 수가 있었다. 이때에 列車에는 閣僚와 國會議員 그리고 社會著名人士들이 이미 타고 있었는데 이때로 또다시 撤收하여야 할 것인가, 國民과 더불어 運命을 같이할 것인가의 意見이 紛紛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大法院長은 司法部 要員들만은 大田에 좀더 남아서 事態를 觀察키로 하고 下車토록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地方法院長 官舎로 되돌아 와서 事態를 알아보았더니, 行政府의 閣僚를 비롯한 要人들은 계획대로 湖南地方으로 내려갔으며 市內가 슬렁이면서 事態가 深刻한듯하여 司法部로 一旦 大田을 떠나기로 決定하고 自動車便으로 江景으로 내려가서 大田地法 江景支院에 連絡사무소를 開設하고 江景어편에 全員이 合宿하였다. 그러다가 7월 4일에 경찰을 通하여 司法部는 大田으로 즉각 復歸하라는 連絡을 받고 다시 大田으로 되돌아오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大田地法에 連絡事務所를 다시 開設하고 個別的으로 南下한 法官과 事務職員의 登錄을 接受하는 동시에 生計對策을 마련하면서 象徵的인 存在로서의 司法部를 지켜나갔다. 그런데 同월 13일에 示達된 非戰鬪部處의 南下方針에 따라서 司法部도 大田을 떠났다.

이때에 大法院長을 비롯한 大法官 一行은 列車便으로 釜山으로 直行하고 事務職員들은 盧龍鎔 行政處長의 引率下에 全州—順天—晉州를 거쳐 釜山으로 내려갔으나 臨時首都가 大邱에 머물게 됨으로써 다시 大邱로 北上하여 行政府가 位置한 慶北道廳의 講堂 一隅에 司法部를 開設하기에 이르렀다.

#### 아. 主要 經濟部處의 措置

여기에서 論及코자 하는 經濟部處라 함은 政府豫算上 歲入部分에 間接으로 關係가 있는 部處로서 該機關들이 開戰初期에 緊急措置한 事項이나 主要 問題點으로 擡頭되었던 몇 가지를 包含한 것이다.



## (1) 金融 및 財政措置

戰爭이 발발하자 제일 먼저 일어닥친 問題는 銀行預金の 引出問題였다.

國防部 政調局의 樂觀的인 戰況報道에도 不拘하고 現金을 마련하려는 市民들의 心理가 크게 作用하여 月曜日인 26日 아침부터 각 銀行門前에는 人波가 殺到하였다.

이 상황에 관하여 당시의 韓國銀行 총재인 具鎔晳는 뒷날 다음과 같이 述했하고 있다.

『25일 16.00에 韓銀幹部數을 非常召集하여 다음날에 대비케 하였다. 즉 銀行正門을 열면 預金引出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發券課 出納에 사전준비를 잘 시키고 金融界가 動搖치 않도록 일러두었다.

26일 10.00에 經濟관계장관과 金融界 人士들의 連席회의가 財務部에서 열렸을 때 나는 財務部長官 崔淳周에게 預金引出 增加에 대비하여 市中銀行에 대한 緊急融資를 建議하고 나에게 救急權을 쓸 것을 要求하였으나 하루 더 참아보자는 것이었다.

27일에 이르러 市內를 한바퀴 돌아보니 市民들이 銀行門前에 長蛇陣을 치고 있어서 그 길로 財務長官을 찾아갔더니 預金支拂을 制限하라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不滿이었으나 할 수 없어서 1人當 10萬圓씩으로 制限하여 支拂토록 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緊急金融措置는 北傀가 서울을 強占하고 政府가 水原을 거쳐 大田으로 移動하고 있을 무렵인 28일에 대통령 緊急命令 제2호(別添)의 發動으로서 形式要件을 갖추고 合法化하였다.

한편 이 무렵의 政府保有弗 2,000萬弗이 日本 東京에 있는 外國銀行에 預置되어 있었는데 이에 對한 處理問題가 대두되었다.

그 理由는 引出을 위한 署名權者가 韓銀의 총재를 비롯하여 부총재, 국장, 부장, 대리 등으로 預置銀行에 通報되어 있었는데 萬若 이종의 한명이라도 敵에게 잡혀 署名을 強要할 경우를 考慮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具鎔晳 韓銀총재는 26일 21.00에 韓銀 東京지점장 千鶴圭에게 電話를 걸어 引出署名權을 取消토록 하는 한편 東京駐在 理事 金鎭弼으로 하여금 預置한 政府保有弗에 대한 責任一切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 무렵 공무원들의 俸給日은 每月 20일이었는데 戰爭의 動蕩과 더불어 賃값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價格이 暴騰하자 財務部 一角에서 俸給의 假拂說이 일어났다.

제일 먼저 이것을 提起한 사람은 당시의 銀行과장인 李致寧으로 공무원들이 月給을 타기는 하였으나 모두 썼을터이니 萬若의 경우 그대로 避難을 가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同調한 理財局長 宋仁根은 즉각 국장회의를 召集하였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그는 뒷날 述懷하기를,

『세관국장 姜輝部, 회계국장 朴熙賢, 사세국장 印泰植 등과 상의하여 소공무원에게 2개월분의 俸給을 주기로 하고 韓國銀行에 대하여 國庫金에서 즉각 支出토록 한 다음 각 부처에 이를 通報하였다.

그러나 이때가 27일 正午에서 이미 자리를 비운 공무원들이 많고 指揮系統 또한 물란하여져서 이 돈이 各部處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길이 없다.

여기에서 分明히 말하여 둘 것은 국장회의에서 결의하였다고는 하지만 理財국장으로서는 越權的인 行爲였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주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政策 乃至는 行政指導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局長 또는 銀行의 총재선에서 當面한 主要問題를 臨機應變으로 處理한 것은 政策의 貧困에도 있었겠지만 崔淳周장관이 非常 國務會議가 끝난 27일 아침에 關係者에게 適切한 指示를 하지 못한채 避難길에 올랐기 때문인데 그래도 財務部와 韓銀의 主要幹部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緊要한 業務를 處理하였던 것이다.

특히 具鎔書 총재는 國防예산을 早期引出케 하여 各軍에 迅速케 함으로써 戰爭遂行에 이바지하고, 國防部의 協助를 얻어 韓銀保有의 金과 銀을 27일 14.00에 緊急搬出하였다.

그러나 軍에서 提供된 truck으로 89箱子로 包裝된 金 1,070kg와 銀 2,513kg만을 搬出하고 나머지 金 223kg과 銀 15,788kg은 未發行 韓國銀行券의 一部와 같이 地下金庫에 殘置하여야만 하였다.

이 金銀과 未發行券은 敵의 서울 侵襲과 더불어 掠奪되었는데 北傀는 이 未發行券을 大韓民國의 經濟攪亂을 目的으로 濫發함으로써 政府는 이해 9월에 通貨의 交換措置를 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搬出된 金銀은 헌병 20명과 韓銀직원 2명의 護送下에 29일 鎮海海軍통제부로 移送하여 保管하였다가 同年 8월 1일에 釜山港에서 San Francisco로 보내져 New York 聯邦준비은행에 寄託하였는데 뒷날 國際通貨基金(IMF)과 國際復興개발은행(IBRD)에 加入할 때에 金持分출자로 充當하였다.

그러나 서울 司稅廳傘下의 各세무서에 保管된 地籍圖, 林野圖, 土地臺帳, 林野臺帳, 旱洞測量原圖等은 組織的인 撤收對策이 마련되지 못하여 防火, 防濕장치가 되어 있는 各稅務署의 地籍倉庫에 保管하고 Shuter를 내린 다음 자물쇠로 잠근채 그대로 撤收하여야만 하였는데 收復後에 확인한 결과 鍾路세무서에서 南山의 林野圖 一枚만이 없어졌을 뿐으로 全量이 그대로 있었다.

參考로 이 무렵의 預金現況과 貨幣價値를 오늘날과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15解放 以後 經濟的인 惡循環이 거듭되어 政府가 樹立된 다음에도 混亂을 쫓지 못하

度 領 證

左記物品の引度領補証品

記

金櫃券號

金塊券號

金塊數

備

考

No.1-5189箱子

金No.1-20 28-292

384110

昭和三十三年一月二日

受領者

鎮海裁判所

海軍大臣

金者三

保管者

海軍部長

海軍中將

金者三

韓國銀行附封

号下

鎮海海軍統制部

였는데 1949年末에는 「財政安定 15個原則」을 확정 발표하여 inflation抑制와 物價安定에 力點을 두어 50년 1월부터 戰爭勃發時까지 처음으로 安定基調가 마련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資金高가 增加趨勢에 있어서 49年末에 655億圓이던 것이 50년 5月末에는 672億圓으로 增加하였으며 貨幣價値가 安定된 증거로써 50年初부터는 月賦制도가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弗換率 1800:1이고 白米 小斗 1말에 2,300圓일 때 中堅俸給者의 月給이 12,000圓이었으니 生活給에는 아직도 遙遠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 圓貨는 1953년 2월 15일에 戰爭의 長期化에 따른 UN軍貨與金의 累增과 財政赤字 및 銀行信用의 增大에서 오는 inflation의 壓力을 根源的으로 除去하고 通貨價値의 安定과 主要 產業資金의 확보를 위하여 100:1의 比率로 切上하여 呼稱單位를 「圓」으로 改稱하는 金融措置를 斷行함으로써 100圓이 1圓이 되었다.

또 1962년 6월 10일에는 浮動資金을 產業資金化하고 第1次 경제개발 5年 계획의 達成을 위하여 開發投資財源을 調達하는 同時에 通貨增發에 따른 잠정적인 inflation의 壓力을 除去하기 위하여 圓을 다시 10:1로 切上하고 呼稱單位를 「원」으로 함으로써 이 당시의 「圓」은 오늘의 1/1,000, 즉 1000圓이 1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때에는 造幣公社(51년 10월 1일 創設)가 미처 設立되지 않아서 貨幣는 西大門 區 萬里洞 所在의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에서 印刷되고 있었다.

이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는 教科書印刷을 目的으로 1920년에 設立된 會社인데 日帝가 非常貨幣의 保有를 위하여 1940년부터 造幣施設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美軍政이 承繼하여 貨幣를 印刷하였던 것이다.

政府가 樹立된 다음에도 이 施設을 그대로 活用하였는데 서울撤收時에 紙幣原板을 搬出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 確실한 經緯는 資料의 未備로 헤아릴 길이 없다.

## (2) 發電量의 維持와 物價統制

1948년 5월 14일에 北傀가 送電을 中斷하기에 이르자 國內發電量이 34,000Kw밖에는 되지 못하여 3部制의 配電을 하여야만 하였으나 政府에서 發電所의 擴張工事に 力點을 둔 報답이 있어서 49년에는 淸平—嶽津江—靈岩—寶城江의 水力發電所에서 23,000Kw, 寧越—唐人里의 火力發電所에서 37,000Kw, 釜山 및 仁川港의 發電廠에서 15,000Kw, 計 75,000Kw의 電力을 얻게 되어 國內需要量 10萬Kw를 充足치는 못하였으나 國民의 節電으로 이를 維持하고 있었다.

6月奇襲에 있어서 商工部는 發電과 配電의 眞滑을 期하고자 行政力을 여기에 集中하였는데 우선 五列의 跳梁과 念業으로부터 施設을 保護하기 위하여 朝鮮電業과 京城電氣에 緊急히 指示하여 現地 경찰의 協調를 얻어 警비를 強化토록 하는 한편 連絡官을 派遣하여 現地督勵를 계속함으로써 27일까지 서울 配電에 큰 支障을 招來치 않았다.

뒤이어 生活必需品의 品貴現象으로 市民生活이 威脅을 받자 各市道에 指示하여 各生産工場의 全力가동과 在庫品의 出荷를 督促토록 하면서 市場價格의 統制를 위한 行政指導에 나섰다. 그러나 生産의 遲延과 輸送力의 不足으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敵校으로 因한 損失은 다른 生産部門에서도 컸지만 電力施設에 있어서는 더욱 甚하여 淸平이 50%, 蟾津江 30%, 寶城江 30%, 靈岩 50%, 寧越 40% 그리고 唐人峯 20%의 施設의 파괴 또는 損傷을 보여 電力事情은 한때 極惡의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 (3) 糧穀波動과 緊急對策

戰爭을 맞기에 이르자 一般市民들의 假需要現象이 急増하는 反面에 地方米의 搬入이 急減 또는 中斷되면서 穀價의 暴騰은 始發하고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農林部는 政府糧穀의 收買과 管理代行기관인 大韓金屬조합연합회에 緊急히 指示하여 市內 龍山區 文靖洞 소재 農國製粉회사에 保管中인 政府糧穀 全量 4,800石을 26일 午前中으로 放出케 하는 한편 各市道에 示達하여 地方米와 各地方에 分散保管中인 政府糧穀의 搬出을 督促하였다. 또한 同部에 糧穀非常대책위원회를 設置하고 1週日 以內에 外國產 雜穀 60,000石을 導入키로 決定한 다음 radio와 新聞報道를 通하여 市民에게 慰諭하면서 쌀값을 2,600圓으로 制限토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檢察과 경찰에서는 一齊히 隱匿米의 索出에 나섰면서 買占賣惜者를 極刑에 處하겠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으나 絶對量의 不足으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當時의 장관 尹承善은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戰爭이 勃發하자 서울에서는 糧穀波動이 일어 農林部에서는 이의 調節을 위하여 안간힘을 썼는데 그 方法은 서울에 있는 政府保有米의 放出과 零細民에 대한 配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水原까지 내려갈 때에는 軍糧米의 供給에 대하여 國防部와 協議할 사이드 없었지만 大田에 내려가서부터는 이의 供給이 農林部의 가장 重要한 任務가 되었다.

國防部の 제3국장 金一煥대령이 이를 도맡아 處理하였는데 國防部側에서 要求하는 量을 農林部는 各市道에 劑當하여 이를 供給한 것이다.

持히 나의 記憶에 남는 것은 내가 서울을 떠날 때 朱頌均 次官과 農政局長이 「우리는 여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市民에 대한 양곡의급을 계속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指示하고 나왔는데 뒤에 알고보니 次官은 간신히 南下하였으나 농정국장은 北使에 拉致되고 實務를 담당하였던 崔奎夏 糧政과장은 鄉望인 江原道로 避身하여 갖은 苦楚를 겪은 事實이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의 農業現況과 食糧政策의 現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農家戶數는 247萬戶로서 畝 123萬町步와 田 83萬町步를 耕作하고 있었으나 水利安全畝가 43%에 지나지 않아 農業生産이 氣象條件에 따라서 左右되는 脆弱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하여 軍政下에서는 年間 40萬屯의 外穀을 救護糧穀으로 導入하여 絶對量의 不足을 充當하고 있었다.

이에 同部는 政府樹立과 동시에 農業増産 3개년계획을 樹立하고 農地改革, 土地改良事業 그리고 協同組合의 創設과 아울러 肥料를 適期에 導入하여 營農條件의 改善으로 單位生産量의 提高와 農家經濟의 向上에 注力하고 있었다.

그러나 49년의 秋穀生産은 穀倉地帶인 嶺 湖南地方의 가뭄으로 48年度보다 總生産量이 75萬石이 減收한 1,473萬石이어서 秋穀買上계획량이 350萬石이었으나 實際로 買上한 量은 290萬石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外資獲得을 위한 政策輸出量이 70萬石이나 되어 食糧政策에 蹙跌을 가져와 制憲國會에서도 論難이 거듭되어 50년 1월 22일에 就任한 尹永善 장관은 2대 國회가 開院하는 6월 19일에 이미 辭表를 提出하였으나 그 處理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 무렵 政府에서는 越南한 避難民과 一部 零細民에게 1日 白米 2合씩의 配給을 實施하고 있었으나 서울에서는 地方米의 搬入에 그 需要를 依存하고 있는터이므로 그 供給이 圓滑하지 못하여 穀價는 上昇趨勢에 있어서 6월로 접어들면서 白米 中品(2등품) 1斗(小斗)가 2,300圓에 去來되고 있었다.

이에 農林部에서는 外國產糧穀의 導入을 推進하는 한편 小斗 한말에 620圓에 買入한 쌀을 1,400圓씩에 一部業者에 4,000石을 競賣하여 穀價調節을 꾀하였으나 큰 구실을 하지 못하여 제2대 國會의 開院劈頭에 對政府 公적의 싸움이 되기도 하였다.

#### (4) 鐵道の 運營

北傀가 不意의 奇襲을 恣行하자 交通部는 이날 08.20을 期하여 開城에 이르는 京義線을 비롯하여 京元線, 京春線의 定期列車를 運休키로 決定하는 한편 中央線은 暫定的으로 原州를 終着驛으로 하여 運行을 계속키로 한 다음 局長會議를 召集하여 非常體制로서 戰時輸送本部를 設置키로 하였다.

이러하여 陸運局에 設置된 戰時輸送本部(總務部, 運轉部, 運輸部, 調達部, 施設部, 工作部)는 傘下 地方鐵道局에 緊急指示하여 地方輸送本부로 改編케 하는 한편 一般貨物列車와 混合列車(客貨車混合)을 運休하고 軍糧米以外の 貨物受託을 停止하며 全鐵道員을 非常動員하여 線路와 構內警비를 強化토록 한 다음 輸送本部의 別途指示에 따라 기관차, 貨車 그리고 客車를 廻送할 수 있게끔 待機케 하였다. 또한 輸送本部에서는 國防部에 連絡官을 派遣하여 軍의 輸送要請에 即應케 하는 한편 中央廳에도 連絡官을 派遣하였다.

戰時 輸送本部의 統制下에 兵力과 軍需物資의 輸送을 위하여 25일 하루 동안에 動員된

車輛은 기관차 30輛, 客車 300輛 그리고 貨車 850輛으로서 60個의 臨時列車이 運行되었는데 北上列車과 廻送列車로 混雜을 이루자 陸運局長을 비롯한 幹部陣이 陣頭指揮에 나서기도 하였다.

25일에 이어 다음날에도 臨時列車의 運行이 強行되어 機關車가 40輛, 貨車가 1,000輛에 이르렀다. 그런데 26일 午後부터 서울驛과 龍山驛으로 避難民이 밀려들기 시작하자 南쪽으로의 廻送列車을 疎開列車로 開放키로 하고 便乘토록 하였는데 27일까지 그 수는 30個列車에 달하였다. 그러나 戰況이 漸次로 惡化하고 政府의 水原移勤이 발표된 뒤인 27일 09.00에는 釜山으로 떠나는 急行列車을 마지막으로 一般列車은 全面運休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同部에서는 現職의 長·次官을 비롯한 主要人士들의 가족避難을 위한 特別列車을 마련하였다. 이 問題에 관하여 당시의 農林部長官 尹永善은 證言하되 『非常國務會議에서 首都를 死守할 것이냐 撤收할 것이냐 하는 問題로 激論이 벌어지고 있을 때 金錫寬 交通부장관이 「그러면 家族들만이라도 먼저 내려보내면 어떠냐」하는 意見을 提示하였으나 意見의 一致를 보이지 않자 金장관이 「몇시까지 列車을 서울驛에 待機시킬터이니 婦女子들을 먼저 撤收시키고 싶은 분은 나오라」라고 하여 몇몇 장관들은 가족을 먼저 그 車로 내려보냈다』라고 하였다. 또한 總務處의 金德寶 비서관은 證言하기를 『26日 夜半부터 27日 새벽까지에 걸쳐 長·次官 및 社會 各界의 主要人士 가족들에게 緊急히 連絡하여 27日 07.00에 龍山驛에 待機 중인 列車便으로 釜山에 避難시켰는데 서울驛을 避하고 龍山에서 출발시킨 것은 市民들의 耳目을 意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同部는 서울撤收에 따라 水原을 거쳐 大田으로 내려가 大田鐵道局에 臨時廳舍를 두었다가 大邱—釜山으로 내려가 계속 戰時輸送에 任하였는데 9.28收復時까지 人命 155명을 비롯하여 線路 312km, 橋梁 152個所에 8.6km 그리고 隧道 29個所에 5km의 損失 또는 損壞를 보았다.

#### (5) 電信·電話의 運營

戰爭이 발발하자 38°線 接境地域의 各 郵遞局에서는 軍通信을 補助하여 軍作戰에 寄與하기 시작하였는데 25일 10.00에는 開城—長湍우체국과의 通信이 杜絶된데 이어 26일에는 坡州—束豆川—議政府—德亭우체국과의 通信마저도 斷絶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地域의 우체국원들은 敵侵순간까지도 職場을 固守하여 軍通信을 維持하였다.

한편 中央電信局과 中央電話局에서도 輻轉하는 行政通信과 軍事通信의 疎通에 專力하였는데 특히 中央電話局에서는 韓點仁 교환과장이 100명의 交換員을 督勵하여 漢江橋가 爆破되기 直前인 28일 02.00까지 交換業務를 遂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그곳을 경비 중이던 陸軍의 1개소대 병력이 撤收하면서 動力室을 爆破함으로써 不得已 交換業務를 中斷하였으나 계속 職場을 固守하던 韓點仁 과장은 敵侵과 더불어 拉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政府의 移動에 따라 水原을 거쳐 大田으로 移動한 遞信部는 大田遞信廳에 臨時本部를 두고 南下한 몇몇 幹部를 中心으로 暫定的으로 機構를 再編하여 電信電話施設을 補修 維持하면서 軍通信網으로서의 活用に 注力하였다.

이 무렵 서울을 強占한 北傀는 電信電話業務의 重要性을 認識하였음인지 끝까지 職場을 固守하다가 미처 避難처 못한 職員들을 強制動員하는 한편 北傀의 通信副相을 頭目으로 한 무리가 서울遞信廳에 本部를 두고 軍事通信과 平壤까지의 通信維持에 狂奔하고 있었다.

이로써 遞信部傘下의 人的損失은 死亡 67명에 拉致 63명 그리고 行方不明 76명과 負傷 28명으로서 合計 234명에 이르렀으며 遞信部本館을 비롯한 25棟의 建物이 全破 또는 半破 되었다.

한편 自動式 전화교환기 77臺를 비롯하여 4,771點의 機材損失과 47,000km의 電線 그리고 82,000本の 電信電柱가 切斷·倒壞 또는 燒失하였다.

## 자. 其他 行政部處의 措置

### (1) 檢察의 活動과 刑務所에 대한 措置

戰爭의 遂行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後方治安의 확보가 緊要한 것으로 判斷한 檢察은 全 수사력을 여기에 集中하여 反民族적이고 非人道的인 犯罪團束에 나서 舉族의인 臨戰態勢의 확립에 앞장섰다.

그런데 26일 09.00부터 公判이 無期延期되기에 이르자 市民生活을 크게 威脅하는 糧穀의 買占賣借행위가 盛行하고 價格이 폭등하자 穀價團束에 나섰다.

한편 情報담당 檢事連은 吳制道 부장檢事의 指揮下에 保導聯盟의 指導에 나서,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反共活動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時局을 틈탄 逸脫이나 再轉向을 막기로 하였으며 保聯 醫務室에서는 非常救護班을 編成하여 淸涼里 驛前에 있는 서울대학교 豫科 자리의 教室과 校庭에 救護所를 設置하고 李柱泳 檢사의 지휘아래 避難民의 負傷者와 病弱者를 診療하기도 하였다.

본은 이 保導聯盟은 麗順叛亂사건을 契機로 49년 1월 19일에 國家保安法이 制定되어 共產主義者들의 活動을 封鎖하면서 그 組織根源을 粉碎하기에 이르자 露呈되거나 自意轉向한 者中에서 그 前科가 가볍고 改檢의 情이 뚜렷한 者들을 善導하고 社會活動을 保障하는 것을 目的으로 組織된 團體이다.

그 組織은 市·道單位로 支部를, 區·郡單位로 分會를 編成하고 各地方檢察廳의 情報담당 檢사가 그 指導를 담당하였으며 서울에 中央本部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戰局이 急迫하여지고 서울의 撤收가 強要되기에 이르자 同部는 各地檢에 緊急指示하여 同聯盟의 組織點檢과 아울러 反共啓蒙의 先鋒에 서게 하여 離脫을 豫防토록 하



였다.

그런데 여기서看過할 수 없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京仁地區의 刑務所에 收監中인 國家 保安事犯과 其他罪囚들에 對한 措置가 소려 講究되지 못한 事實이다.

그 結果는 6월 30일에 仁川刑務所에서 경비의 未洽을 틈타서 脫獄사건이 일어나 暴動의 嚆矢가 되고 뒤이어 다음날에는 大田刑務所에서 脫獄 一步前에 鎖鑰되었다는 事實이다.

다른 곳은 目置하고라도 麗·順叛亂사건의 主動者들을 비롯한 2,000명의 罪囚들이 收監 되어 있던 大田刑務所에서 脫獄하여 暴動을 일으켰더라면 事態는 尋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事件을 契機로 公州, 淸州刑務所를 비롯한 各地區의 刑務所에서는 重犯者에 대한 疎關가 部分的으로나마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 (2) 治安 확보와 民心 收拾

25일 05.00가 조금 지나서 治安局長으로부터 北傀의 南侵보고를 받은 內務部長관은 06.30에 全國경찰에 非常경계령을 下達하여 戰鬪태세로 突入케 하는 한편 대통령 緊急命令 제1호에 의거한 特別犯罪者를 集中團束케 하였다.

또한 市民들의 動搖와 不純分子들의 變行을 防止하고 敵機의 空襲에 對備하기 위하여 治安명령 제26호를 各市道에 緊急히 示達하여 通行禁止시간의 延長과 燈火管制를 實施토록 하고 主要기관과 産業施設의 경비를 強化케 하였다.

26일에 이르러 生必需品의 品賣現象을 빚고 이 틈을 탄 買占賣惜행위까지 겹쳐 市民生活을 크게 威脅하기에 이르자 談話를 발표하여 全國民의 反省을 促求하면서 白米 小斗 한말에 2,600圓 以上을 받는 者를 拘禁하고 買占賣惜者는 極刑에 處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集中團束에 나서 圓滑한 流通을 期하고자 하였으나 그 實効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看過할 수 없는 것은 市民들의 疎關계획이 事前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勿論이요, 政府가 水原으로 移動키로 決定하는 非常國務會議에서마지 市民撤收대책을 講究하지 않은 事實이다.

當時의 狀況에 대하여 內務部長官 白性郞이 述及하기를

7월 25일 아침에 張錫潤 治安국장으로부터 北傀의 全面南侵으로 38°線一帶의 支隊와 경찰哨所가 유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非常경계령을 下達하여 軍과 協調해서 秩序있는 作戰을 遂行토록 하였다.

戰線狀況이 더욱 複雜하여지고 避難民이 增加하여 南쪽으로 移動하고 있었는데 26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治安局에 들러 경찰계통으로 들어온 戰線상황을 알아보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26일 14.00에 議政府가 失陷되었다고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武器와 彈藥 등 相當數의 보급품을 미리 漢江以南으로 後送中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 나는 「그럴 必要가 없으니 곧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指示한 바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前方에서는 國軍과 경찰이 계속 싸우고 있었고 首都서울을 死守하는 것이 政府의 方針이니만큼 싸우지도 않고 보급품을 後送한다는 것이 그때 形便으로 보아 容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時間이 흐를수록 戰線상황은 더욱 不利하여져갔고 北쪽에서 밀려드는 避難人波 때문에 서울 市民들은 心理的인 動搖를 일으키고 있었다.

26일 深夜에 열린 國務會議에서는 首都서울을 死守하느니 안하느니 하다가 결국 水原으로 移動하기로 決定하여버렸는데 이때 市民들의 撤收問題는 아무런 對策도 講究하지 못한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首都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27일 夜半까지 남아있다가 「陸軍本部가 撤收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서 漢江까지 나왔으나 이미 漢江橋가 폭파된 뒤여서 西水庫쪽으로 가서 나룻배를 타고 28일 07.00에 渡江한 다음 水原쪽으로 向하였다.」

라고 하였다.

한편 서울特別市는 이제 2월 25일附로 職制를 改稱하여 內務局, 財務局, 教育局, 產業局, 建設局, 社會局 그리고 警察局的 7個局과 中區—鍾路區—東大門區—城北區—城東區—西大門區—麻浦區—龍山區 그리고 永登浦區의 9個區廳을 傘下에 두어 首都行政을 管掌하는 部署로서의 面貌를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45萬名の 市民이 319,000世帶를 이루고 191,200棟의 住宅에 居住하고 있었다.

戰爭이 勃發하여 食糧을 비롯한 生活必需品의 品價現象을 빚어 市民生活을 크게 威脅하기에 이르자 農林, 商工, 交通의 各部和 協議하여 政府保有米를 緊急히 放出케 하는 한편 生必品の 工場出荷를 促進케 하고 이들 物資輸送에 優先權을 주도록 한 다음 關係職員을 各市場에 派遣하여 流通秩序와 價格統制를 위한 行政指導를 담당케 하였으나 그 實効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무렵 서울市の 上水道는 楮楸—廣壯—九宜—大峴—鷲梁津의 各水源池等에서 1日 177,000噸의 水道물을 供給하고 있었는데 從業員의 怠業 또는 不純分子의 跳梁에 對備하여 경찰에 水源池警비를 強化토록 指示하는 한편 建設局 水道課의 職員을 總動員하여 現地監督과 督勵를 계속함으로써 27일 夜半까지의 給水에 支障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唯一한 交通手段인 電車의 계속 運行을 위하여 朝鮮電業과 京電에 連絡官을 派遣하여 優先 配電케 하였다.

敵의 侵襲과 더불어 90口間의 敵治下에서 입은 損失은 22,000名에 이르는 死傷者와 15,000棟의 家屋이 全破 또는 半破한 것이었다.

한편 38°線 接境地대를 管轄에 둔 江原道知事 崔圭鈺은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이 25일 10.00를 期하여 戒嚴令을 宣布하자 軍과의 協調아래 街頭放送을 通하여 民心의 動搖를 防

止하면서 管下 各郡에 緊急히 示達하여 避難民의 收容對策을 마련케 하였는데 이때에 各郡에서 非常食糧의 配當을 要求하였으나 이의 輸送이 困難하여 臨時方便으로 自體해결토록 하였다.

그런데 26일에 春川市外廓에서 激戰이 벌어지자 道知事를 비롯한 幹部들이 洪川으로 任意撤收하여 이를 알게 된 市民들이 動搖하기 시작함으로써 軍民의 士氣를 考慮하여 金鐘五 大령은 헌병참모 鄭剛 소령으로 하여금 이들을 春川으로 復歸케 한바 있다.

그러나 27일 18.00에 제6사단이 撤收하기에 이르자 이들 道の 幹部도 避難길에 올랐는데, 이때에 春川市에 備蓄된 政府糧穀 1,000叭를 軍糧米로 供與하였다.

한편 서울에 位置한 京畿道知事 具滋玉은 38°線 接境地帶의 住民들이 덴몹으로 避難길에 오르자 沿邊의 管轄 各郡에 指示하여 給食과 診療對策을 마련케 하였으나 계속 그 隊列이 서울로 殺到하자 社會·保健 兩部長관과 서울市長을 찾아 이들의 收容과 診療對策을 緊急히 講究토록 建議하였다.

### (3) 救護活動

戰爭이 勃發하자 政府가 當面한 가장 큰 問題는 서울로 계속 殺到하는 避難民에 대한 對策이었다.

38°線 接境地帶의 住民들은 敵의 急襲으로 生活必需品는 姑捨하고 옷까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채 故鄉을 떠나 밀리고 또 밀려 서울에 이르렀으니 그 모습은 淒慘 바로 그것이었다, 負傷者와 病弱者수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社會部는 서울시에 緊急히 指示하여 서울대학교 文理科대학과 敦崙국민학교, 舞鶴 국민학교等 市內 6個所에 避難民 收容소를 設置케 하여 寢具와 食事を 提供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戰況이 더욱 惡化하여 避難民의 隊列이 계속 南쪽으로 밀리기에 이르자 內務部와의 協調를 거쳐 各市道에 緊急히 示達하여 避難民의 收容對策을 마련케 하는 한편 一定地域으로의 集中移動을 牽制하고 各地方으로 分散南下를 指導케 하였다.

이러한 同部의 緊急措置로 忠北에 37個所, 忠南에 55個所, 全北에 43個所, 全南에 162個所, 慶北에 66個所, 慶南에 117個所 그리고 濟州에 24個所 合計 504個所의 收容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保健部에서는 市內의 全開業醫와 看護員에게 非常待機명령을 下達하는 한편 東豆川 및 議政府 方面으로부터의 避難民患者를 서울대학 부속병원과 女醫大 부속병원 그리고 서울市立병원에, 開城 方面으로부터의 患者는 Severance병원과 鐵道병원에, 爽津 方面으로부터의 患者는 仁川道立병원에 各各 收容하여 診療토록 하였다.

그런데 戰況의 惡化로 避難民이 계속 南下하기 시작하자 同部는 各市道에 緊急히 示達하여 公共醫療기관을 開放하고 開業醫 및 看護員으로 醫療防疫班을 編成, 避難民에 대한 診療와 防疫을 實施케 하였는데 이 결과로 全國에서는 200個의 醫療防疫班이 活動하기에 이르렀다.

## (4) 學徒護國團의 活動

文教部는 26일附로 中學校 2년以下의 學生登校를 우선 中止케 하고 全面休校는 총·학장 및 교장의 裁量權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各級학교 學徒護國團에 警戒령을 내려 學校 및 周邊境界를 強化하면서 利敵行爲가 없도록 하였다.

本是 이 學徒護國團은 初代 장관 安浩相이 北傀의 南侵에 對備하여 젊은 學徒들의 軍事訓練이 必要하다 하여 48년 10월 下旬에 組織키로 決定한 것이다. 그리하여 12월에는 學徒護國團組織 및 指導要綱을 制定하는 동시에 乙支路 6街 所在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崔周鐘 指導下에 中等학교 特別군사훈련을 實施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400명의 幹部학생을 養成하는 한편 각 학교 체육교사 387명을 差出케 하여 陸軍士官학교에서 短期委託 교육을 實施한 다음 육군 소위로 任命케 하여 배속장교로 배치함으로써 그 準備를 一段落지었다.

이리하여 49년 1월末까지에는 各학교 學徒護國隊를, 3월末까지에는 서울市를 비롯한 各道 學徒護國團을, 그리고 4월 20일까지에는 中央團 直屬으로써 각 대학의 學徒護國團을 각각 組織하고 4월 22일에는 대통령령 제186호로써 正式發足하기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그 總裁에, 문교부장관이 中央團長에 各各 推戴되었다.

그런데 敵의 南侵을 맞이 하게되자 이날로 各級학교 校庭에는 學徒護國團員들이 모여 敵의 南侵을 糾彈하고 金日成徒黨 打倒궐기대회를 열어 마침내는 學徒決死隊 조직을 決意한 다음 그 隊員에 앞장서 志願하면서 많은 學生들이 斷指血書까지하기에 이르렀으며 醫科대학생들은 gown으로 갈아입고 負傷兵의 治療에, 女학생들은 赤十字腕章을 두르고 看護에 각각 나서게 되었다.

다음날 國防部 政訓局을 찾은 학생대표들은 學徒決死隊의 參戰을 懇請하였으나 軍의 挽留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自體로 學徒慰問隊를 組織한 다음 各自의 주머니를 털어 倉洞—彌阿里線에서 將兵들을 慰問하는 한편 陣地構築과 彈藥運搬을 돕기도 하였다.

서울이 失陷되기에 이르자 學徒들은 負傷兵을 찾아 地下에 숨겨주고 後退치 못한 將兵들에게는 民間服을 갈아 입혀 漢江의 渡河를 돕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을 脫出하여 水原에 集結한 學徒들은 29일에 非常學徒隊를 組織하고 政訓局의 指導下에 一部學徒들은 戰鬥隊로써 수류탄으로 무장하여 漢江線으로 出動하고 一部는 宣傳隊로써 街頭啓蒙과 避難民救護, 그리고 南下學徒들의 糾습에 나섰다.

7월 1일에 大田으로 南下한 非常學徒隊는 現地 학생들과 合勢하여 義勇學徒隊로 改稱하고 一部 學徒들이 現地入隊하여 軍番없는 병사로서 參戰하기 시작하였는데 政府의 移動과 더불어 大邱로 내려가 7.19附로 大韓學徒義勇隊를 發足하기에 이르렀다.

## § 研究

- (1) 大統領令(緊急命令 第1號) 非常事態下의 犯罪處斷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 6. 25)

第1條 本令은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反民族의 또는 非人道的 犯罪를 迅速히 嚴重處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令에 있어서 非常事態라 함은 1950.

6.25 北韓傀儡集團의 侵寇에 因하여 發生한 事態를 稱한다.

第3條 非常事態에 乘하여 左의 罪을 犯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一. 殺人

二. 放火

三. 強姦

四. 軍事, 交通, 通信, 水道, 電氣瓦斯, 官公署 其他 重要施設 및 그에 關한 重要文書 또는 圖面의 파괴 및 毀損

五. 多量의 軍需品 其他 重要物資의 強取, 竊取, 竊取等 掠奪 및 不法處分

六. 刑務所, 留置場의 在監者를 脫出케 한 行爲

第4條 非常事態에 乘하여 左의 罪을 犯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

一. 他人의 財物을 強取, 略取 또는 竊取한 行爲

二. 他人의 建造物을 파괴, 毀損 또는 占據한 行爲

三. 官密을 濫稱하거나 利欲의 目的으로 逮捕, 監禁, 傷害, 暴行한 行爲

四. 官密을 冒濫하거나 또는 敵에게 情報提供 또는 案内한 行爲

五. 敵에게 武器, 食糧, 油類, 燃料 其他의 物品을 提供하여 敵을 自衛補助한 行爲

第5條 情報提供, 案内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前2條의 犯行에 加功한 者는 主犯의 例에 依하여 處斷한다.

第6條 第3條와 第5條, 그리고 第4條 1號, 2號의 罪을 犯한 者로서 非常事態終了後 48時間 以內에 原狀을 回復한 者는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7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令에 規定한 罪에 關하여 虛偽의 告發 또는 偽證을 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事實을 捏造한 者는 各 其 本罪의 例에 依하여 處斷한다.

第8條 本令의 罪에 關한 刑事節次는 本令에

規定한 以外에는 一般의 例에 依한다.

第9條 本令에 規定한 罪의 審判은 單審으로 하고 地方法院 또는 同支院의 單獨判事가 行한다.

第10條 本令에 規定한 罪에 關하여서는 起訴後 20日 以內에 公判을 열어야 하며 40日 以內에 判決을 宣讀하여야 한다.

第11條 本令에 規定한 罪에 關한 判決에 있어서는 證據說明을 省略할 수 있다.

第12條 本令에 依한 死刑의 執行은 絞首 또는 銃決로 한다.

第13條 本令에 規定한 罪에 本令以外의 刑事法에 規定한 罪가 併合될 境遇에는 本令의 刑事節次에 依한다.

附 則

本令은 1950年 6月 25日부터 施行한다.

(2) 大統領令(緊急命令 第2號) 金融機關預金等 支拂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年6月28日)

第1條 本令은 1950年 6月 25日 北韓傀儡軍의 侵寇로 因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金融機關預金等 支拂에 關한 特別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政府는 金融機關(信託會社, 無盡會社, 保險會社를 包含한 以下同)의 預金 其他 資金의 支拂을 制限할 수 있다.

第3條 前條의 制限을 超過하여 預金 其他 資金을 支拂할 境遇에는 金融機關은 事前에 財務部長官 또는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第4條 第2條에 規定한 預金等 支拂制限의 方法은 財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5條 第2條의 制限을 違反하여 支拂하는 金融機關에 對하여는 他法律에 規定된 刑罰以外에 罰鍰萬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罰金에 處한다.

附 則

本令은 1950年 6月 28日부터 이를 施行한다.

## 5. 社會各界의 動向

首都 서울의 市民들은 6월 28일의 새벽이 밝기도 前에 天地가 뒤집힌 놀라움과 부서움으로 絶望의 奈落에 빠져들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首都 서울의 거리가 붉은 豺狼떼에 占領당한 것이었다. 長安 곳곳에서 이른바 人民軍이라는 闖入部隊가 戰車를 앞세워 殺氣찬 눈매를 번득이는가 하면, 西大門 刑務所에서 갓 풀려나온 붉은 罪囚들이 이른바 붉은 旗를 휘두르면서 내 世上인양 배저어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간밤(27일의 夜半)까지만 하더라도 首都圈의 最後防禦線이 설마 맥없이 풀리기야 하겠는가 하고 한가닥의 希望을 걸었던 市民들을 남기고, 政府는 전날 下午에 水原으로 이미 빠져나간 뒤이었다.

이 어이없는 首都撤收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市民들뿐만은 아니었다. 漢江의 唯一한 渡橋인 中之島의 人道橋마저도 02.30에 爆破된 것이었다. 市民들은 반목이 뉘인채, 갈곳 없이 버려진 羊떼처럼 首都의 거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붉은 洪水의 狂亂을 떨전히 바라볼 뿐이었다.



<서울에 闖入한 北傀 政治保衛部의 人間白丁들>

恐怖와 絶望으로 生死의 歧路에 서게 된 市民들은 祖國의 運命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선, 눈앞에 부닥친 現實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삶의 길을 各己의 處地에서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或者는 要人 또는 公務員 그리고 有志와 그의 家族이라는 處地에서 목숨을 부지키 위하여 隱身을 서둘러야만 하였고, 或者는 地主 또는 資本家라는 處地에서 역시 生命의 危險부터 느껴야 하였고, 一般市民은 무슨 變을 당할지 모른다는 不安感에 떨어야만 하였다.

내 세상을 만났다는 듯이 활개치며 날뛰기 시작한 것은 이제까지 地下에 潛跡했거나 刑務所에 갇혔던 左翼分子들이며, 이에 同調하는 灰色 容共分子들 뿐이었다.

이른바 「赤治 3개월」이라 이름하는 被占期間이 이날부터 시작되었으니, 서울은 同年 9월 28일에 다시 收復될 때까지 붉은 狂嵐속에서 民族受難의 뼈저린 困苦과 慘禍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 赤治下의 受難相은 可謂「붉은 生地獄」이라 하어도 지나치지 않는 않을 것이다.

#### 가. 北傀의 所謂 占領政策

全面侵攻의 短期速決을 自負한 金日成과 그 一味徒黨은 南侵前에 이미, 占領政策 — 南韓의 Soviet化를 위한 政治構想 — 을 준비하였는데, 이 政策은 이른바 20개 項目政綱(1946. 3. 23 公表)과 北傀憲法 및 北傀政綱(共히 1948. 9에 造作)에 基調를 두고 있다.

北傀는 首都闖入의 當日인 6월 28일 11.30에 金日成의 이름으로 이른바 占領政策의 方向을 내놓았다.

즉, 人民軍에 의하여 서울이 解放되었다고 前提한 이 人間白丁의 魁首는 이른바 「우리 祖國의 首都 서울의 解放에 際하여」라는 題下에 「人民軍隊와 서울 市民에 보내는 祝賀演說」이라는 妄言을 늘어 놓았는데,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全體 朝鮮人民은 戰爭을 早速한 時日內에 勝利로 終結시키기 위하여 모든 力量을 다하고 있는 人民軍에 協調하여야 하며, 未解放地區의 人民은 빨치산 活動으로써 後方을 攪亂하여 到處에서 人民暴動을 일으켜 國軍의 軍需物資의 輸送을 妨害할 것이며, 解放된 서울 市民은 民主秩序를 속히 수립하여 首都의 復舊事業을 促求함으로써, 反動에 의하여 解散당하였던 우리들의 政權機關 및 人民委員會를 急히 復舊하고, 人民軍隊를 積極援助하여야 한다.』

이 妄言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傀는 首都 서울을 掠占한 直後의 제1단계 占領政策을 이른바 「全體朝鮮人民」과 「未解放地區人民」 및 「解放된 서울市民」의 셋으로 分類하여, 各其 當面한 必須課題의 形式으로 強要하였다.

그리고, 占領地區에서의 具體的인 施策으로서는 우선, 黨과 政治團體 및 政策執行者인

이른바 人民委員會를 優先적으로 捏造하고, 人民軍에 대한 支援과 이른바 義勇軍이라는 名目の 虜掠을 強要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右翼人士와 이른바 「反動」으로 烙印적인 有志들을 닥치는대로 檢擧하여 投獄하고, 拉致하여 虐殺하는 人面獸心の 戰慄할 蠻行을 서슴치 않았다.

#### (1) 所謂 「서울指導部」의 設置

·革命에 앞서 우선 黨을 組織하여, 人民을 指導하여야 한다는 共產主義의 革命理論에 따라, 北傀는 일찌기 1949년 7월 1일에 이른바 「서울指導部」라는 朝鮮勞動黨의 南韓支部를 設置하였다.

本是, 1945년 9월에 서울에서 創立된 朝鮮共產黨은 다음해 11월에 左翼系列인 南朝鮮新民黨 및 人民黨과 合黨하여 南朝鮮勞動黨(南勞黨)으로 再出發하였는데, 다시 北朝鮮勞動黨에 吸收되어, 朝鮮勞動黨으로 單一化되면서 「서울指導部」가 생겨, 平壤의 黨中央本部의 指示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른바 「서울指導部」는 南韓에 대한 赤化革命의 前衛적인 指令塔이었다.

그러나, 1948년의 後半期부터 不法化되어 地下로 潛跡한 南勞黨組織의 崩壞로 因하여 이 「서울指導部」는 南韓地下組織을 再建한다는 名目으로 출발한 것인데, 1950년 3월에 支部員(金三龍 및 李舟河) 등이 逮捕됨으로써, 北傀의 全面侵攻時에는 事實上 組織體로서의 工作이 不可能하였다.

그러므로, 北傀가 서울闖入과 동시에 손대기 시작한 「서울指導部」의 復活은 앞으로 南韓 占領地域에 黨細胞를 擴大해 나갈 첫 里程標이자, 首都赤化의 初一步이었던 것이다.

이 傘下에 民主青年同盟(民青)과 女性同盟(女盟), 그리고 職業同盟과 農民同盟 및 文化團體總聯盟 등의 赤色 社會團體를 糾合하여, 赤治 3개월間的 「붉은 生地獄相」을 演出하였다.

北傀는 이와 아울러, 行政機關인 이른바 「서울 人民委員會」를 組織하여, 占領地域의 擴大와 더불어 「道人民委員會」-「郡人民委員會」-「面人民委員會」로 下向하여 내려갈 基礎를 서둘렀는데, 이처럼 黨組織體의 復活과 行政機構의 體系化를 強行하면서, 한편으로는 歷史의 峻烈한 審判을 마땅히 받아야만 할, 갖가지 空前絶後의 慘酷相을 보였으니, 첫째로는 肅清과 虐殺로 피를 뿌린 「인간사냥」의 恐怖化이며, 둘째로는 無慈悲한 人力 및 私有財產의 擄取의 無法化이며, 셋째로는 庶民生活의 抑壓과 收奪등에 依한 空虛化로써 類例 없는 暗黑天地를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 (2) 人間사냥

北傀가 全面南侵과 더불어 政策의으로 가장 置重한 것은 南韓 占領地域에서의 民族主義 및 民主主義의인 基盤을 그 根底에서부터 무너뜨리고, 反共的인 一切의 勢力을 去勢하는, 이른바 大肅清工作이었다.



이 붉은 狂嵐을 몰고온 무리가 政治保衛部이었다. 이들은 인간사냥의 모리꾼을 조종하는 人間白丁들이었다.

戰鬪部隊의 서울 闖入에 바짝 뒤따라 進入한 人間白丁들은 우선 西大門刑務所를 開放하여, 左翼分子 및 一般罪囚들을 풀어 놓았고, 地下에 潛伏하고 있다가 뛰쳐나온 南勞黨의 行動分子들을 糾合하여, 이른바 宣撫工作隊를 急編하는 한편, 이른바 「서울人民委員會」를 洞單位의 구석구석까지 構成함으로써 監視와 檢索網을 물샷 틈도 없이 짜놓은 다음에 인간사냥 길로 나섰다.

이 인간사냥은 두 가지의 類型으로 恣行되었다. 하나는 大韓民國의 政界 및 官界의 要人과 各界의 指導級 人士 및 一般社會의 有志들을 一括하여 이른바 「反動官僚」 또는 「反動分子」로 烙印적어 肅清의 對象으로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義勇軍의 名目으로 靑壯年을 무더기로 強徵하였던 것이다.

前者의 경우, 逮捕와 審問 그리고 拉北 아니면 集團 또는 個人虐殺로 始末되었는데, 그 過程에 있어서 市內의 到處를 피로 얼룩지게 한 「人民裁判」이라는 慘劇을 演出하여 可謂 惡鬼夜叉의 白晝橫行을 彷彿케 하였다.

이 悲慘하기 不可形言의 肅清名目으로써 首都 서울을 비롯하여 地方곳곳에서 犧牲된 各界人士의 人命被害는 虐殺: 128,936명, 死亡: 224,700명, 拉致: 84,532명, 行方不明: 303,312명, 負傷: 229,625명으로 集計되었으니 그것이 短時日안에 同族의 손으로써 저질러졌으니만큼 우리의 民族史上 稀有의 煉獄相이었음이 明白한 것이다.

또 後者의 경우, 7월 1일에 이른바 戰時動員令을 公布하여, 1914년~1932년에 出生한 者를 基準으로 소위 義勇軍을 비롯한 人力掠取에 強權을 發動하였는데, 제1차에는 16세~20세를, 제2차에는 16세~30세를, 제3차에는 16세~35세를, 그리고 제4차 및 제5차에는 40세까지를 對象으로 非戰鬪員을 戰爭捕虜代用으로 逮捕하여 갔으니 말하자면 前者는 人間屠戮行爲이요 後者는 人間劫掠行爲에 틀림 없었다.

### (3) 虛偽宣傳과 署名強要

北傀는 全面侵攻과 더불어 그 常套적인 虛偽宣傳을 強行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虛偽宣傳을 糊塗하기 위하여 一般市民에게 署名을 強要하는 狡猾性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虛偽宣傳은 첫째로 全面南侵의 口實을 꾸미기 위하여 大韓民國이 先攻하였다고 捏造하였으며, 둘째로는 이른바 人民軍이 「人民을 위한 참다운 正義의 軍隊」라는 印象을 돋보이기 위하여, 南侵의 正當性을 假飾誇張하는 것이었다.

즉, 前者의 경우는 「① 李承晚政權의 北進統一政策으로 因하여 戰爭이 挑發된 것이며 ② 人民軍은 南韓을 美帝의 搾取로부터 解放시키기 위하여 正義의 反擊을 取하게 된 것이며 ③ U.S.S.R을 비롯한 多數國의 積極支援으로 勝利를 거둘 것이다.」라는 투의 奸智와 狡計으로써, 大韓民國이 이 戰爭을 먼저 挑發한 듯이 虛偽로 一貫하는 煽動과 逆宣傳을 일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는 이른바 人民軍이라는 自稱으로 『人民의 敵인 反動集團을 打倒하기 위하여 蹶起한 人民의 軍隊』라는 詭辯으로써 弄絡하려는 愚民政策의 本色을 드러내려 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의 그들 宣傳要員의 殆半은 訓練된 政治工作員(5,000~6,000명)으로서 이른바 金日成 綜合大學의 出身 또는 在學中인 者로 宣傳內容 및 要領을 強訓받은 工作員이 攻擊部隊를 뒤따라 南派되어, 面·洞·里單位의 地方各處까지 파고들어 虛偽宣傳에 狂奔하였다.

이 者들이 先攻의 責任을 우리쪽에 轉嫁하려는 奇想天外의 宣傳手法은 狡猾無雙의 것이어서 逮捕한 要人들을 恐喝脅迫하여 放送 마이크 앞에 나서게 하기도 하였다.

그 두드러진 例로서 金孝錫(前 內務部長官 48.3~50.2) 및 安在鴻(前 民政長官)의 경우인데, 그 強要된 放送文의 要旨은 다음과 같다.

『……李承晚은 昨年 7월 15일을 期하여 北伐開始를 계획하고, 金錫源으로 하여금 襄津方面에서 北上하여 平壤을 占領케 하려 하였으며, 蔡秉德에게는 東部戰線의 指揮를 命命하였었다. 그러나, 말치산 鬪爭이 熾烈해짐에 따라 이 계획이 中止되었던 것이다. ……李承晚은 今年에 MacArthur의 呼出을 받고 日本에 건너간 일이 있다. 이때, MacArthur는 李承晚의 軍隊가 北伐時에는 MacArthur의 指揮下에 들 것과 國防軍 最高軍事幹部와 日本軍의 高級將校가 共同으로 訓練받도록 命命하였다. …… 이와 같이 하여, 李承晚은 6월 25일 새벽에 北伐開始의 命命을 金錫源 및 蔡秉德에게 내린 것이다. ……』

그밖에 宋虎聲(前 護國軍司官)같은 者의 放送內容도 自意이건 他意이건 分明치 않으나 대체로 이와 類似한 射天의 自虐言辭로 가득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빨간 虛偽放送에 속아넘어가는 南韓住民은 別로 없었다. 6월 25일을 前後한 北傀의 挑發真相과 南韓의 社會實情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南韓의 地下에서 暗躍하고 있던 南勞黨의 幹部級과 左翼系 細胞分子들도 北傀의 先制奇襲을 分明히 알고 있었다.

侵掠地域의 구석구석으로 파견된 政治工作員들은 이른바 人民委員會의 選舉와 土地改革에 관한 政令施行에도 關與하였으며, 言論과 出版 및 放送機關 등을 接受하여 政治宣傳에 利用하였다.

新聞의 경우, 從前의 서울新聞을 이른바 朝鮮人民報라는 北傀의 政府機關紙로 둔갑시켰는데, 서울 闖入 사흘째인 7월 1일에 그 첫號를 發行하였으며, 勞動黨의 機關紙인 이른바 解放日報를 역시 서울에서 發行하는 한편, 地方의 新聞을 接受하여 道黨機關紙인 「○○道日報」라는 것을 發行하였다.

이처럼, 新聞을 비롯한 各種 出版物이 붉은 傳單이 되어 侵掠地域에 뿌려졌는데, 그 種

類는 研究欄의 #2와 같다.

그런데, 一般人으로서 이 出版物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만 戰況의 變化를 알기 위하여 朝鮮人民報의 揭示板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만이 間간이 散見될 뿐이었다.

政治工作員의 또 하나의 任務는 署名의 強要이었다.

共產各國이 主動하는 이른바 平和擁護世界委員會의 呼訴文과 北傀白體의 이른바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의 聲明書를 支持하라는 署名인 것이었다.

그 內容인즉, 첫째로는 『미국의 武力干涉을 即時 中止토록 UN에 要求한다.』라는 것이며, 둘째로는 『李承晚, 金性洙, 趙炳玉 등을 民族叛逆者로 規定하여 裁判에 붙인다.』라는 荒唐無稽한 것이었다.

工場과 企業所는 물론, 農村과 學校, 그리고 職場 및 街頭 등 各處에서 延 7만 2천회가 넘는 集會를 열어 署名한 결과, 그들이 捏造한 署名人員數(16歲 이상)는 無慮 7,919,761 명으로 集計되었다. 이 數字는 南韓 16歲 이상 全住民의 98%에 該當되는 것이었으니, 이른바 祖國戰線의 聲明을 合當化하기 위한 政治的인 演出에 지나지 않았음을 能히 指摘하게 된다.

#### (4) 所謂 人民軍을 위한다는 掠奪事業

北傀는 侵掠地域 擴張에 따라 이른바 人民軍의 援護事業을 強要해 나갔으니 이것은 其實 何을 좋은 掠奪行爲에 不過하였다.

當初부터 部隊의 主·副食을 現地調達로 充當키로 兇策을 세웠던만큼, 戰線의 擴大와 더불어 이 문제를 重要視하게 되었다.

따라서, 住民들에게 『모든 力量을 戰爭勝利로! 우리들의 全力量을 人民軍과 戰線의 援助에 돌리자!』라는 煽動的인 slogan을 내걸어, 이 掠奪事業을 強要하였다.

各區別로 事業連絡所를 설치하여 이른바 人民委員會를 비롯한 모든 團體의 行動隊員들이 援護物資와 人力動員의 몹손 收奪에 나섰다.

이른바 義勇軍 兵士의 家族에게는 特別給食으로 하루 두 끼의 食事を 供給하였는데, 이러한 給食所가 서울市內에 50개所를 헤아렸다.

또한, 戰時勞力動員이라는 名口으로 住民들을 닥치는대로 내몰았다. 砲彈과 軍需物資의 輸送은 물론, 道路와 橋梁의 復舊作業에까지도 強制動員하였으며, 慰問事業이니 看護事業이니 하는 名目 밑에 學生과 女性들을 假借없이 動員하였다.

그리고 牛·馬車를 비롯하여 一切의 輸送手段은 이른바 人民軍의 要求가 있으면, 無條件으로 提供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者들은 戰爭物資의 現地調達을 豫定한대로 強行하여, 侵掠地域의 住民들을 收奪하였으니, 言必稱 『南韓人民을 解放시키기 위하여 銃劍을 든 正義의 軍隊』라

고 自讚하는 이른바 人民軍의 붉은 正體가 果然 무엇이던가를 南韓住民들에게 歷歷히 들어낸 것이었다.

##### (5) 住民生活의 逼迫

이른바 解放軍으로 自處하는 北傀의 豺狼群이 38°線을 넘어선 그때부터 南韓 侵掠地域의 住民들은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는 窮乏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 첫째의 理由는 이른바 人民軍에 대한 援護事業이라 하여 食糧을 비롯한 生活必需品를 닥치는대로 收奪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金融政策의 脈亂으로 貨幣의 流通秩序가 무너지고 商去來가 沈滯되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엄격한 配給制度를 실시하면서도 食糧 등의 供給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金融面에 있어서는 北傀의 貨幣와 大韓民國의 貨幣와의 換率을 1對 8로 定하고, 붉은 通貨는 無制限으로 通用케 하는 反面에 北韓에서의 韓國銀行券사용과 南北間의 商品去來를 禁止케 하는 措處를 제1着으로 優先하였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이른바 北朝鮮中央銀行의 서울中央支店을 내세워, 南韓의 金融機關一切를 接受함과 아울러 6월 27일 以前의 民間預金을 완전히 凍結하고 말았다.

그 한편으로는 各級 人民委員會의 活動費와 이른바 政黨 및 社會團體의 政治資金에 充當한다는 名目으로 韓國銀行券을 마구 濫發하였는데, 이로 因하여 貨幣價値의 下落과 物價昂騰의 亂脈相이 빚어짐으로써 市民生活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게 되었다.

이러한 通貨政策은 侵掠地域에서 필요한 費用을 充當함과 동시에 南韓住民의 私有財產을 間接적으로 沒收하고, 모든 流通體系를 攪亂함으로써 既存 社會制度에 대한 價値觀을 파탄케 하려는데에 그 黑心을 두고 있었다.

換言하여, 自由通貨 및 自由賣買의 民主社會의인 制度和 私有財產制의 觀念을 깨뜨리기 위한 布石의 一環이었던 것이다.

食糧政策面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앞세웠다.

食糧의 自由販賣와 交換을 一朝에 禁止하고, 配給制實施를 위한 受給對象者들을 登錄케 하였다.

그러나 人民委員會는 配給米를 保有하지 못하였다. 交通의 麻痺로 糧穀의 서울搬入이 斷絶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황한듯한 人民委員會는 行動分子들을 일제히 풀어, 糧穀倉庫와 個人糧穀商 및 피난간 空家들을 마구 털게하여 食糧이 될만한 것을 모조리 奪取하였으나, 그래도 全所要의 配給量을 充當하지는 못하였다. 무리들의 앞잡이나 이른바 義勇軍의 家族에 約束하였던 優先配給 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形便이었다.

一般市民은 缺食과 窮乏속에서 糧食을 찾아 헤매게 되어 近郊의 農村이나 親戚 또는 親知의 연줄로 먹을 것을 求해야만 하였다. 값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現金으로도 求하기가 어려운 얼마만의 糧食을 가까스로 얻는다 하여도 길목을 지키는 붉은 機關員에게 摘發

되면 모조리 沒收당하기가 일쑤이었다.

그런데, 붉은 侵略者는 이 窮相을 巧妙히 利用하였으니 곧 北韓으로 이 可憐한 市民들  
을 誘리기 위한 미끼로 삼은 것이었다.

『서울에서 이처럼 굶주리기 보다는 天國과 같은 北韓으로 가기만 하면, 職業과 住宅 및  
食糧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투의 甘言利說로, 150만의 서울人口를 50만명까지 減縮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前人未踏의 惡辣性은 共產徒黨이라는 人間의 豺을 쓴 野獸의 무리가 아니고서는  
到底히 想到하기조차 할 수 없는 欺瞞術策이었으며, 그 무리들의 이른바 占領政策으로  
因하여, 서울 市民들은 「9.28 收復」까지의 3개월間, 生地獄같은 「赤治 3개월」을 겪게 되  
었는데, 그 受難相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붉은 人間白丁들의 「인간사냥」을 避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숨어 있어야만  
하였고,

둘째,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을 것을 찾아 허덕이어야만 하였다.

더우기 社會各界는 赤色으로 一變한 社會制度의 崩壞와 恐怖만이 支配하는 社會秩序의  
顛覆속에서 絶望의인 試鍊을 겪어야만 하였으니, 그 受難相을 各界別로 瞥見하면 다음과  
같다.

#### 나. 政界 및 官界要人の 受難

赤治 및 社會的인 피의 旋風을 물고온 北傀의 政治保衛部는 肅清對象者의 black list를  
휘두르며 首都 서울에 闖入하여, 그 即時로 各界의 要人을 檢索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그들의 이른바 占領政策(가項 참조)의 基本路線에 의하여, 肅清對象의 제1級으로  
指目당한 政界 및 官界의 要人들은 6월 28일의 서울失陷과 동시에 受難의 수렁속에 빠  
지게 되었다.

물론, 緒戰의 戰勢가 不利함에 따라, 미리 漢江을 넘어 避難하게 된 要人들은 이 受難  
을 甞할 수가 있었으나, 미처 渡江하지 못하고 서울市內에 殘留한 要人들은 이 붉은 檢索  
의 소용돌이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地下로 隱身하는 悲痛과 辛楚를 겪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이 地下隱身은 生死의 岐路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는 唯一한 保身策  
이었다. 或은 家宅天井이나 地下暗室에 隱身處를 마련하기도 하고, 或은 親戚 또는 親知  
를 依支하기도 하였으며, 近郊의 曠野 高장으로 남몰래 숨기도 하였다.

그러나, 붉은 人間白丁들의 「인간사냥」은 執拗하고도 惡辣하기만 하였다.

本足, 北傀는 南勞黨의 出身分子로 掠奪地域의 行政要員을 미리 保有하여, 軍部隊의 進

出을 바싹 뒤따르게 하면서, 占領과 동시에 地方의 行政機構를 재빠르게 장악케 하였으며, 이른바 人民委員會의 洞·里委員의 대부분을 現地에 潛伏中이던 共產黨員이나 容共分子들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末端까지의 浸透가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洞·里와 職場單位로 密告制度 및 住民組織을 急編하여, 監視를 철저히 하고 摘發과 告發을 義務化하였다.

이러한 올라미속에서 끝내 隱身해내지 못한 公務員(要人포함) 1,359명이 이른바 「反動官僚」라는 烙印을 찍히게 虐殺되거나 또는 拉北되었으며, 85명의 政界要人也 同一한 悲運을 맞이하였다(研究 #3 참조).

그런데 이들 要人가운데서도 제2대 國會議員의 경우는 한층 不運하였다. 즉, 제2대 國會는 北傀南侵의 6일 前인 6월 19일에 처음 開院하여(前節 참조), 議長團을 選出하였으며 首都死守를 議決하였던 터이므로 倉洞—彌河里線이 무너지기 28일 未明前까지도 避難通告를 받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渡江의 機會를 잡지 못하여 殘留한 議員이 62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3명이 虐殺당하고 27명이 拉北되었다(研究 #3 참조).

平壤을 거쳐, 平安北道의 江界와 滿浦嶺까지 拉致당한 人士들은 零下 30度の 嚴寒과 굶주림 속에서 或은 途中에 斃命하고, 或은 重患에 걸리기도 하였으며, 或은 必死의 脫出도 중에 愛惜한 鮮血을 뿌리기도 하였다.

그 뒤, 中共의 侵入으로 主戰線이 다시 南下하여 高地奪還戰으로 膠着하게 되자, 拉北 要人들은 平壤으로 護送되어 敎化所(矯導所)에 投獄되거나 地下의 움막집에 幽閉되었다는 것이다.

北傀의 속셈으로서는 이들 政界 및 官界의 要人을 必是 對南宣傳에 利用할 작정이었을 것이다.

즉, 첫째로는 白進하여 越北하였노라고 외치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自由로운 身分으로 政治活動을 하고 있다고 거짓을 꾸며대게 하려는 것이며, 셋째로는 美帝와 民族叛逆者들이 6.25의 先制攻取를 加하였다는 등의 捏造된 虛偽宣傳을 肉聲으로 對南放送케 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白進附逆한 容共分子(金若水 및 宋虎聲 등)를 除外한 大部分의 要인들이 모두 頑強히 저항하였으며, 심지어는 혀를 깨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趙素昂(제2대 國會議員, 서울城北區 출신)은 목숨을 위협하는 銃劍 앞에서 毅然不屈의 姿勢로 放送脚本을 一擲하였으며, 金奎植(臨政의 副主席)은 『北朝鮮人民共和國에 의하여 祖國統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既定事實로 歡迎하자.』라는 內容의 放送을 強要하는 脅迫에 屈하지 않은 끝에 鴨綠江邊의 朔風속에서 殞命한 것이다(1950년 12월).

그런데, 要人의 拉北은 7월 下旬과 8월 中旬의 두번에 걸쳐 恣行되었는데, 첫번째는 利用價値가 많다고 判斷한 灰色 또는 附逆要人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주로 南北協商을 주장하거나 自首한 要人들이며, 國會의 프락치야事件에 관련된 者들도 한류음으로 拉北되었다. 平壤과 北韓의 눈부신 發展相을 보여준다는 口實로 그 輸送便宜나 接待등이 比較的 좋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로 拉北된 要人들은 처음부터 「죽음의 行進」을 強要당하였으니 이른바 反動官僚로서 烙印적했기 때문이었다. 弘濟洞의 母岳峴(俗稱 무악재)를 넘을 때부터 徒歩로 인간백정들의 채적아래에 끌려 가야만 하였다.

歩行이 더디거나 落伍하는 要人들은 現場에서 사정없이 虐殺당하였다. 事前에 계획된, 『反動官僚 및 反動分子는 모조리 北送하되, 輸送이 困難한 경우에는 現場에서 處置하라.』 하는 虐殺指令에 犧牲된 것이었다.

#### 다. 一般市民의 受難

北傀의 政治保衛部에 의하여 「反動」이라는 烙印만은 찍히지 않은 一般市民의 경우, 生命의 威脅을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食糧의 急激한 缺乏과 通貨의 急滯로 因하여, 饑餓線上에서의 生計의 困窮을 겪어야 하였으며, 붉은 狂嵐이 一時어 휘몰아치는 恐怖霧圍氣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불안과 窒息의 地獄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다.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滿 3개월間을 이른바 「赤治 3개월」이라고 하는 바, 이 기간동안, 一般市民들은 굶주림과 더불어, 갖가지의 精神的인 辛酸苦楚를 겪어야 하였으니, 그 하나는 밤낮없이 반복되는 家宅搜索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닥치는 대로 連行해가는 人力의 強徵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細胞分子들이 造作하는 告發과 摘發때문이었다.

北傀의 이른바 서울人民委員會는 洞·班의 구석구석까지 行動隊員을 풀어놓아 家家戶戶에 대한 家宅搜索을 強行하였다. 家口마다 成分과 傾向을 조사하고 人力強徵을 위한 家族事項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赤治 3개월에 걸쳐, 평균 3~4회는 例事이고, 조금이라도 注目받은 家庭은 10회가 넘는 家宅搜索을 당해야만 하였다. 政治保衛部가 조종하는 細胞分子와 內務署員 및 民靑員들이 한 무리가 된 붉은 行動隊는 대개 한 밤중인 01.00~03.00 사이에 各家宅을 덮치곤 하였다(研究欄 #5 참조).

그러나 이 家宅搜索도 붉은 人間白丁들의 「인간사냥」에 비하면, 전디기에 수월한 편이었다.

北傀의 「인간사냥」은 이른바 「反動」으로 烙印적한 要인들만을 對象로 한 것이 아니었다. 一般市民들에게는 이른바 義勇軍과 勞力動員이라는 名目으로 自願應募를 強要하였던 것이다.

본은, 그 者들은 全面南侵의 準備段階에서 北韓의 人力資源을 거의 總動員하였던 터이므로 首都闖入後의 戰況進展에 따르는 人力補充은 南韓의 占領地域에서 해결할 방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魁首 金日成은 서울侵掠 직후에 男女動員令을 公布하여, 兵力補充의 一策인 이른바 義勇軍形式으로 侵掠地區의 靑少年들로 하여금 自進應募토록 呼訴하였다.

그러나, 이 志願形式의 募兵이 應募者의 殆無로 큰 蹉跌을 들어내게 되자, 人間不在의 本色을 들어내어, 強制動員이라는 「인간사냥」에 나서게 되었다.

그 措置로서 우선 洞人民委員會에 登錄된 適令者와 各級 學校의 在學生들에게 虛偽宣傳과 強勸으로 志願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志願者 또한 別無하자 이번에는 集團強募의 方式을 擇하였다.

즉, 地域과 職場 및 學校別로 이른바 緊急群衆蹶起大會를 強制로 열어, 煽動과 強勸 내지는 恐喝으로써 參加者 全員을 무더기로 連行하였다(研究欄 #5 참조).

이 群衆大會를 憑藉한 이른바 投網式 인간사냥으로도 所期의 兵員을 채우지 못하자, 다시 街頭와 劇場 및 交通機關에까지 民靑員 및 女盟員을 動員하여 檢索하였으며, 나중에는



<붉은 人間白丁들에게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被拉人士들>



徵發事業에 앞장섰던 熱誠分子와 洞班職員 및 工場職工까지도 끌여가고야 말았다.

이 強徵에 걸린 靑少年들의 受難은 目不忍見의 極을 이루었다. 執銃訓練 조차 받을 사이도 없이 戰線으로 끌려나가 억울한 죽음의 수령으로 줄줄이 陷沒당한 것이었다. 途中에서 요행하게도 脫出한 例가 없지도 않았으나, 그 擧皆가 故郷과 집을 찾아갈 겨를도 없이 남모르는 山中으로 隱身하여야 하였으며, 或은 되잡힌 경우에는 이른바 反動이라는 罪目으로 卽決處分을 당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처럼, 억울하게 죽거나 그 行方이 알길 없는 犧牲者를 포함하여, 무더기로 끌려나간 延人員은 無慮 100만명 안팎으로 推算된다(研究欄 #5 참조).

그런데, 붉은 人間白丁들의 人자사냥은 이 義勇軍의 強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戰線이 洛東江으로 擴大되고, 兵站線이 延伸되자 勞務動員을 強行한 것이었다. 더구나 UN空軍이 制空權을 完全掌握하고, 鐵路와 道路 및 橋梁등을 連日 爆撃하게 되었으므로 兵站線의 機動力을 喪失한 北傀는 兵站輸送을 人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唐慌한 그者들은 侵掠地域의 住民에 대한 強制勞力動員令을 내려, 男女老少를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내몰았다. 한편으로는 破壞된 交通施設을 補修強行케 하고, 한편으로는 兵站物資를 運搬케 하였다.

部落과 職場單位로 人員을 割當하고, 그 動員回數도 日益 늘어가기만 하였다. 이에 不應하거나 忌避하는 경우에는 본보기로 尙酷하게 處刑하였다.

그리고 敗走하기 直前에 이르러서는 짐이 된다하여 수많은 人員을 集團處殺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또한 몇 사람의 冤魂이 草露처럼 사라져 갔던가. 그 數ぞ를 헤아릴 수는 없으나, 強制動員당한 延人員數를 100만명 以上으로 推算하여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른바 「赤治 3개월」間에 北傀가 저지른 集團處殺의 고비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된다.

첫째는 서울闖入의 直後에 各病院의 國軍戰傷將兵과 各界要人을 無差別로 射殺한 蠻行이며(제4장 제2節 참조), 둘째는 收監者에 대한 集團處刑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UN軍의 仁川上陸에 이은 反擊作戰으로 望風敗走하면서 現地에서 닥치는대로 亂射하거나 生埋葬으로 屍山을 이룬 惡鬼의 蠻行이었다(研究欄 #6 참조).

#### 라. 法曹界人士의 受難

社會的인 身分에 비추어, 法曹界人士들의 受難은 가장 酷甚하였다(司法院의 動向에 관하여는 제4장 제4절 참조).

檢事들은 南勞黨·民愛會 등의 左翼系를 索出하여 論告하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最惡의 反動分子라는 烙印이 찍혔고, 判事들도 역시 左翼被告들에게 重刑을 宣告하였다고 하여 이른바 反動的 앞잡이라는 烙印을 찍힌 것이었다.

辯護士들도 이러한 烙印을 免할 길이 없었다. 判·檢事의 경우와는 달리, 被告를 辯護하였다는 점에서 情狀參酌도 있을 법 하지만, 辯護士를 려울 좋은 들러리 정도로만 看做하는 共產黨의 生理로서는 特別考慮라는 特典이란 티끌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官界 및 政界의 要人들과는 다른 次元에서 붉은 人間白丁들의 人間사냥을 벗어나야만 하였다. 이른바 가장 惡質的인 反動이라는 憎惡와 復讐의 對象이 되었기 때문이다.

司法院의 動向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法官을 비롯한 高位法官들은 27일에 이미 漢江을 넘었으나, 法曹界人士들의 대부분은 渡江의 機會를 얻지 못한채, 서울 市內와 近郊一圓에서 목숨을 부지키 위한 隱身을 서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34명의 判檢事와 72명의 辯護士가 人間사냥의 그물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拉北의 죽음의 行進」에서 酷毒한 悲運을 겪은 끝에, 10여명의 消息만 傳하여졌을뿐, 그 나머지의 人士들은 바람결에 조차도 아무 消息을 남기지 못하고 處刑당하고 말았다.

한편, 灰色傾向을 지닌 一部法官과 事務職 要員들은 政治保衛部의 허울좋은 自首懲憑에 應하여, 이른바 「法院突擊隊」라는 勞力動員에 編入되었다.

이들은 UN空軍機에 爆擊당한 광나루다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橋梁復舊作業에 動員되었는데, 人間사냥의 慘相이 차츰 擴大됨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한뫼음으로 處刑당할 것이라는 恐怖心에 떨어야만 하였다. 避身の 機會를 엿보던 이들은 法院突擊隊의 身分證을 利用하여 各己의 隱身處를 찾아 脫出해 나갔다.

## 마. 宗教界의 受難

北傀는 南侵初期에 있어서, 宗教彈壓의 제1단계(制限政策)를 適用시켜(研究欄 #7 참조), 內面的으로는 『聖職者를 모조리 逮捕·拘禁하고, 信徒 및 教徒들의 名單을 파악하는 동시에, 宗教財産의 一切를 押留하라.』하는 秘密指畵를 내렸으면서도, 表面的으로는 徐徐히 迫害를 加重해 나가는 奸計를 弄하였다.

급작스러운 彈壓으로 惹起되는 民心의 離脫을 두려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世界의 輿論을 감안한 것이었을 것이다.

### (1) 天道教徒의 受難

天道教의 中央總本部는 6월 25일의 侍日을 마지막으로 28일에는 民需員에 의하여 완전히 接收되었으니 南侵前에 이미 密派한 天道教內의 프락찌야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占據한 것이었다.

指導級의 重鎮들은 대부분 渡江하지 못하고, 殘留避身하였는데 連行당한 長老級 人士들은 教堂에 軟禁되어 北傀에 대한 協調를 強要당하였다.

한나는 北傀의 이른바 南韓解放을 찬양하는 支持大會를 召集하여 天道教徒의 總意로써

聲明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個人的 이름으로 放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支持大會는 결국 成員을 이루지 못하였다. 教徒의 대부분이 이미 避身하였고, 重鎮들이 不參하였기 때문이다.

後者の 경우는 吳世昌(長老, 己未獨立運動의 代表) 및 崔麟(長老, 己未獨立運動의 代表)이 모진 脅迫으로 放送을 強要당하였으나, 崔麟은 끝내 拒否하다가 拉北당하였다.

宗教團體로서의 機能과 組織을 완전히 去勢당한 天道敎의 重鎮과 一般教徒들은 붉은 인간사냥의 그물을 避하기가 모진 苦楚를 겪어야 하였는데, 이 苦難속에서도 救國運動을 목적으로 하는 太極團을 秘密組織한 教徒들이 있었다.

林文虎·劉淡梧·朴成模·李鍾泰 등이 主動이 된 이 秘密組織(行動隊員 50명)은 國軍에 情報을 提供하고 被拉人士들을 救出코자 하였으나, 그 所期の 목적을 충분히 達成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釜山으로 避身한 李應辰 등 一部教徒들은 救國團을 組織하여 地方의 天徒敎勢를 糾合하는 즉시로 對民宣撫에 앞장서기도 하였는데, 首都收復後에 이 두 組織은 保國聯盟으로 合體되어(團員 100명), 平壤까지 올라가면서 在北 教徒들을 鼓舞하였다.

## (2) 佛敎徒의 受難

佛敎徒의 경우, 北傀南侵은 처음 당하는 赤禍가 아니었다. 寺刹의 대부분이 山中에 있는 관계로 6.25 以前에 이미 共匪들로부터 災難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붉은 人間白丁들은 『佛敎徒는 大師나 國師나 하면서 反動政權과 結托한 擄取階級이며, 信徒들의 膏血을 빨아먹는 寄生蟲이다.』라는 臆說로 僧侶들을 勞力動員에 強徵하였으며, 寺刹에 備蓄한 糧穀등을 收奪하였다.

뿐만 아니라, 一切의 佛供을 禁止케 하고, 佛像등의 秘藏物을 燒却 또는 破棄하였다.

그 중에서도 海印寺의 世界的 文化財인 八萬大藏經이 燒却直前에서 曉峰의 必死的인 庇護로 難을 免할 수 있었음은 不幸中の 一幸이었다.

## (3) 天主教徒의 受難

天主教徒에 대한 北傀의 彈壓과 迫害는 가장 淒絶하였다. 南侵과 더불어 『神父 한 명을 敵兵力 1개 師團에 맞먹을만큼 평가하라.』라고 몇 軍官들에게 秘密로 指命하였다는 一說이 있을만큼 天主教를 敵性 제1호로써 癌的 存在視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赤治 3개월」間, 天主教徒들은 己亥·丙午·丙寅의 여러 敎難에 못지 않은 慘變을 당하였다.

26일 밤, 서울敎區의 主教館에 모여있던 要職者들은 『避難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通牒을 받았다. 國軍의 高位層에서 보낸 通牒이었다.

그러나 神父들은 『羊群(信徒)를 버리고 牧者(神父)가 먼저 도망칠 수 없다.』라는 不文律의 信念때문에, 神學校의 敎授들과 敎會를 맡지 않은 神父들만이 우선 避難하기로 決議

하였을 뿐이었다.

서울駐在의 敎使使節인 方主教(美國人)와 Paul 및 Carmen 修女院의 修女등 外國人의 聖職者들도 서울에 남아 있었다.

首都에 闖入한 붉은 무리들이 市內의 모든 聖堂과 修女院을 더럽히기 시작한 것은 7월 10일부터였다. 15일間에 걸쳐 天主教의 分佈를 샅샅이 內査한 끝에 일제히 蕩친 것이었다.

聖堂과 修女院을 銃劍으로 接收한 이 무리들은 聖職者들을 威脅하는 한편, 聖母마리아 像을 亂射하는가 하면, 明洞聖堂의 地下室에 亂入하여서는 神父들의 遺骨을 發掘하는 蠻行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 兇畜과 같은 蠻行을 目睹한 聖職者들은 不得已 信徒들을 찾아 避難하였는데, 外國人의 聖職者 98명을 포함한 150명이 逮捕당하여, 小公洞의 三和빌딩에 拘禁당한 뒤에 7월 19일에 拉北의 「죽음의 行進」으로 連行당하였다.

#### (4) 基督教徒의 受難

基督教은 他敎에 비하여 敎勢가 세고, 社會各界에 廣範한 信者層을 두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赤徑初期에는 比較的 완만한 迫害를 받았을 뿐이었다.

北傀가 基督教의 影響力을 利用하여, 侵略地域 住民들의 民心을 포섭해 보자는 속셈으로, 처음에는 일부의 制限(集會禁止)만을 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一例로써 그들은 宗教界擔當의 巨物級 工作員 2명을 特派하여, 基督教徒들을 宥和包攝케 하려 하였다.

즉, 集會를 強要하여 『信仰의 自由와 敎人들의 身分을 보장하겠으니, 勞力動員과 援軍 獻金에 적극 參與하기 바란다.』라는 甘言利說을 弄하는가 하면, 이른바 基督教人의 蹶起大會를 造作하여, 北傀支持와 美國非難의 決議文을 造作하기도 하였다(研究欄 #7 참조).

그러나, 朴雪峰(당시: 監理敎의 總理院 理事)을 비롯한 監理敎의 敎職者들은 27일에 中央敎會(仁寺洞)에 集會하여 『끝까지 敎會를 지키면서 難民救護에 힘쓰자.』라고 決議하였으며, 長老敎의 경우에는 韓景職 및 姜信明(당시: 永樂敎會의 牧師)을 비롯한 敎職者一行이 永樂敎會에 모여서 徹夜祈禱를 하였고, 7월 4일에는 大田의 避難處에서 基督教敎國會를 조직하여, 內務部(長官, 趙炳玉. 7월 14일附)가 主管하는 汎國民敎國會의 傘下에 들어, 對民宣撫工作에 獻身하였다.

聖潔敎 및 기타 敎派의 경우도 敎職者와 信者의 거의 전부가 붉은 무리들의 彈壓과 迫害를 미리 避하여 首都를 떠났기 때문에 侵略地域의 民心收拾에 基督教徒를 이용하려던 그들의 奸計가 虛張으로 挫折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敎職者들의 協力을 받지 못하게 되자 北傀는 自首工作과 索出을 併行시키면서 彈壓과 迫害를 加하기 시작하였는데, 恐怖를 이기지 못하여 自首하거나 檢舉당한 敎人들은 거의가 被殺 또는 拉北의 非命을 免치 못하였다.

## 바. 學界 및 文化界 人士의 受難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北傀의 인간사냥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의 類型으로 大別된다. 하나는 이른바 「惡質反動」이라는 烙印과 함께 무조건 殺害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利用價值가 있다고 評價한 要人 및 人士에 대하여서는 一定期間에 拉致하여 酷使한 끝에 肅清한 것이었다.

學界 및 文化界의 人士들이 겪은 受難은 이 後者의 경우이었다.

換言하면, 頭腦를 擄取당하고 專門의인 技術을 掠奪당한 것이니, 人脈을 따라 그 受難相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拉北당한 學界의 重鎮

北傀의 이른바 政治保衛部가 血眼이 되어 檢索한 學界의 重鎮중에 不幸히도 拉北당한 泰斗는 鄭寅普(史學 및 國文學者)·玄相允(당시:高麗大學校 總長, 國文學者)·崔奎東(당시:서울大學校 總長, 教育者)·孫晉泰(당시:서울文理大學長, 史學者) 등 10餘名の 綺羅星같은 學者들이며(研究欄 #9 참조), 刀圭界의 名士로는 高周奭 등 6명의 醫學博士들이었다(研究欄 #9 참조).

政治적으로 超然할 수 있는 學者的인 位置에서 붙은 豺狼群의 殘虐性을 豫察하지 못하고, 그 毒牙를 事前에 避하지 않음으로 하여, 당하게 될 痛憤스러운 困辱이자 國家의인 큰 損失이었다.

특히, 鄭寅普 및 玄相允의 두 泰斗는 白樂潛(당시, 文敎部長官)의 避難권고에도 不拘하고, 『여겨 首都와 學園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하여, 赤治下에 殘留하였다가 變을 당하였으니 이 얼마나 可惜한 일이었는가.

또한, 孫晉泰는 28일에 서울文理大의 學園財產과 學生들이 당하게 될 災難이 근심되어 平常時와 다름없이 出勤하였는데 서울이 完全히 掠占당하자 北漢山中으로 避身한 뒤에 左翼學生의 密告로 被拉당하고 말았다.

한편, 黃信德(당시, 中央女中 校長)은 女性의 몸으로 地下室(舊 國立圖書館)에 監禁당하는 獄苦뒤에 40~50명이나 되는 教育界, 宗教界, 法曹界의 被拉人士들과 함께 平壤까지 拉致당하였으나 UN空軍機의 爆擊時에 監視의 눈을 避하여 간신히 脫走함으로써 10월 18일의 平壤奪還과 더불어 趙炳玉(당시, 內務部長官) 一行에 의하여 救出되었다.

拉北당한 碩學들은 平壤收容所에 監禁당하여 病苦에 시달려야 하고, 或은 氣盡脈盡하여 不歸의 冤魂이 되는 가운데, 그者들의 이른바 在北平促(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라 하여, 拉北要인들이 自發的으로 構成한 양으로 1956년 7월에 꾸며낸 幽靈團體)에 強制로 係累당

하였다.

非但, 碩學들 뿐만 아니라, 官界 및 政界의 拉北要人들 擧皆가 여기에 自進參與한 것처럼 이름을 盜用당하였는데, 北傀는 이 要人들의 利用價値가 점차 褪色하여짐에 따라 1959년을 고비로 山間僻地에 流配함으로써 肅清해 버렸다.

## (2) 文化界 名士의 受難

李光洙(文學家)로 代表되는 文學界의 여러 名士와 方應讚(言論人, 朝鮮日報社長)를 비롯한 言論界의 元老들, 그리고 崔寅奎(映畫監督) 등의 演藝界의 著名한 人士들의 경우도 눈앞에 닥친 赤禍의 渦中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朔北의 生地獄으로 拉致당하였다(研究欄 #9 참조)

이들 名士들 역시 그 頭腦와 專門造詣를 強要당한 끝에 이름 모를 北傀에 물리고 말았다. 특히 李光洙의 경우는 韓國現代文學의 鼻祖이자 新文化開拓의 泰斗라는 點에서 北傀 政治保衛部에게 제1級 要人으로 指目당하였는데, 그들이 強要하는 自述書를 拒否하자 拉北당하여 平壤을 비롯한 各收容所를 轉轉하면서도 한줄의 글도 提供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其餘의 文人과 詩人 및 文筆家들도 生死가 頃刻에 달린 獄苦에 屈하지 않고, 그者들에게 同調하는 曲筆을 끝내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 學園의 救國蹶起

이 未曾有의 赤禍國難에 際하여, 社會各界의 既成世代가 無氣力하게 席捲당하였음에 反하여, 學園의 젊은 學徒들은 救國一念의 純粹無垢한 血氣를 불태우면서 스스로 蹶起하였으니, 이는 百尺竿頭에서나마 「民主 大韓民國의 不滅」을 象徵하는 한 가닥의 光明을 내비친 것과 다를바 없었다.

6월 26일에 서울의 各級 學徒들은 날이 밝기도 前에 초조한 가슴을 조이면서 各己의 校庭으로 물러들었다.

學校마다 敎務會議를 여느 때보다 일찍 召集하여 文敎部의 示達만을 苦待하였다. 10.00에 『國民學校는 臨時休校하고, 中學校 이상의 各級 學校는 學校長의 裁量으로 休校與否를 決定하라.』하는 文敎部의 緊急指示가 傳達되었다.

國防部의 戰況發表는 時時刻刻으로 不利한 듯 하므로 各學校에서는 休校를 決定하고 學徒들의 歸家를 容許하였다.

그러나, 學徒들의 입에서는 『祖國이 부른다! 우리 젊은 學徒들의 피끓는 救國蹶起를 祖國이 苦待하고 있다.』라는 외침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삼시간에 메아리쳐 나갔다.

中學校 이상의 各級 學校의 校庭에서는 『金日成을 打倒하자! 붉은 侵略의 무리들을 쳐부수자!』하는 糾彈과 함께 『우리 學徒들이여! ▶▶▶빠짐없이 學徒決死隊의 隊列에 參與하자!』하는 蹶起大會가 共感共鳴의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醫科大學生들은 흰 가운데로 갈아입었고, 女學徒들은 赤十字腕章도 자랑스럽게 戰傷兵의 看護를 自願해 나섰다.

어느 教師가 시킨 것도 아니요, 어느 當局者가 인솔한 것도 아니었다. 祖國의 危難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救國一念으로 擇한 報國의 실천인 것이다.

學徒決死隊를 決議한 學徒代表들은 國防部의 政訓局을 찾아 入隊를 自願하고 武器의 支給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政訓局은 學徒들의 參戰이 時期尙早라는 이유로 그 血氣를 달래는 수 밖에 없었다.

결국, 學徒慰問隊로써 首都圈의 最後阻止線인 倉洞—彌阿里의 戰線에서 陣地工事와 傷兵後送 및 彈藥補給등, 彈雨下의 軍支援에 從事한 學徒들이 軍의 撤收와 더불어 首都서울을 뒤에 남기게 되고, 水原과 大田 그리고 大邱등 避難地에서 學徒義勇軍으로 다시 躍起하여, 「軍番없는 兵士」로서의 報國表情을 불태웠던 것이다(三府의 動向 참조).

## 5. 研 究

### (1) 北傀의 所謂 義勇軍 사냥

이른바 義勇軍이라는 美名下에 學徒 및 一般靑少年을 強制徵用한 北傀는 이른바 動員令을 公布한 當日에 이미 11만5천명이 志願한 것으로 造作하였는데, 이는 左翼系 學生을 앞장세워 꾸며낸 一幕劇에 지나지 않았다.

즉, 7월 3일의 11.00에 서울 運動場과 金華國民學校에 서울市內 85개 校의 學徒 1만6천명을 集合시켜 『前線을 支援하자.』라는 등의 口號를 외치게 하면서 市街行進을 벌인 다음, 14.00에는 東大門과 南大門에서 이른바 愛國學生躍起大會라는 것을 열어, 『① 서울의 靑年學徒들은 말저산 鬪爭에 參加하자, ② 全國의 學徒들은 人民軍隊를 積極 支援하여 學徒義勇隊를 組織하자 ③ 우리들은 義勇軍에 參加하여 戰線으로 出陣하자.』하는 등의 3개 緊急動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시켜, 당장에 義勇軍을 編成하였다. 이때의 志願學徒(僞裝한 左翼系)는 男學生이 325명, 女學生이 68명이었다.

그런데, 當初에는 志願制로써 熱烈한 呼應을 自信하였던 北傀는 그 志願者數가 左翼系의 學徒가 아니고서는 殆無한 사실로 나타나자, 7월 6일에는 中央黨의 決定事項으로써 志願이 아닌

強制徵集으로 豹變하였다.

이른바 「義勇軍의 招募事業에 對하여」라는 中央黨의 決定은 ① 18세 이상의 廣範한 靑年層을 對象으로 하되, 貧農出身의 靑年을 爲主로 할 것, ② 各道別로 割當한 徵募數는 責任지고 完遂할 것, ③ 勞動黨員으로서 變節한 者(保導聯盟에 加入한 轉向者)들도 義務的으로 參加시킬 것 등을 條件로 하였는데, 이 決定에 따라, 各級 黨組織은 靑年을 비롯한 社會團體의 熱誠分子들을 내세워, 義勇軍 사냥을 시작하였다.

到處에서 群衆集會가 열리고, 同盟員 및 團體構成員들로 하여금 義勇軍을 志願케 하였다.

學徒들에 대하여는 18세 以下만 登校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靑年에 加入시킴으로써 義勇軍志願을 強要하였다.

한편, 市街地의 要所마다 靑年員을 配賦하여, 지나가는 靑年들을 닥치는대로 靑年事務室까지 連行함으로써 強制的으로 志願케 하였다.

이와 같은 사냥方法으로 強制徵集된 義勇軍의 數는 南韓에서만도 20만명으로 推定되는데(北傀의 이른바 祖國解放戰爭史는 40만명으로 계산), 그 일부는 北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洛東江戰線에서 犧牲되었다.

또한, 各道別로 義勇軍의 旅團을 編成하여 安

東旅團(臺北)·大田旅團(忠南)·光州旅團(全南) 등으로 呼稱하였다.

(2) 南侵後에 뿌린 北傀의 出版物

北傀는 南侵과 더불어 政治宣傳을 목적으로 各種 出版物을 濫發하였는데, 그 種類는 다음과 같다.

〈新聞類〉: 민주조선, 로동신문,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농민신문, 투사신문, 민주청년, 조국전선, 소비에트신문, 문화전선.

〈雜誌類〉: 인민, 태풍, 조소전선, 조선여성, 내각공보, 조국보위, 어린동무, 활살(만화), 농립수산, 문학예술, 과학세계.

〈外國出版物〉: 베에넬뿌따우다(U.S.S.R공산당 기관지), 공고한 평화와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농촌여성(화보), 청년 볼셰비크(U.S.S.R共産기관지), 로동여성(화보), 소련여성(화보), 악어(화보), 봉화(화보), 소비에트 동명.

(3) 拉北人士의 數文

北傀의 「인간사냥」에 걸려 拉北된 人士는 無慮 8만명이 넘는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그러나 平壤을 거쳐, 鴨綠江의 沿岸까지 到達한 人員이 1만명도 채 못되는 것으로 보아서, 나머지 7만명 이상이 「죽음의 行進」에서 墓標조차도 없는 孤魂으로 희생되었음이 분명하다.

일찌기 Nazi의 猶太人虐殺이 그런대로 科學利器에 의한 集團殺戮이었다면, 北傀가 저지른 이 拉北人士의 虐殺은 가장 野獸的인 「죽음의 行進」이었다는 點에서 毛骨이 悚然해짐을 禁할 筈이 없다.

그런데, 1955년에 大韓赤十字社가 拉北者家族들로부터 被拉상황을 신고받아 정리한 결과, 自遼越北者와 容共同調者를 除外한 拉北者의 人員數는 다음과 같이 7,034명으로 集計되었다.

公務員	1,359명,	商業	960명
學生	677명,	企業人	208명
鐵工業	162명,	政治人	85명
言論人	72명,	士建業	66명
判檢事	34명,	通譯	16명
漁林業	12명,	農業	1,005명
會社員	737명,	教育者	355명

醫師	199명,	銀行員	94명
宗教人	82명,	辯護士	72명
藝術人	36명,	讀業	24명
著述業	15명,	無職	248명

(4) 家宅搜索의 蠻行相

北傀의 政治保衛部에 의한 家宅搜索은 惡辣하고 殘忍하였다. 細胞分子와 內務署員 및 民靑員 등 10餘名이 一組가 되어, 한 밤중인 01.00~03.00 사이에 各 家庭의 大門을 흔들었는데, 세 번까지 應答이 없으면 銃질로 무수거나 담을 넘어 뛰어드는 것이 例事이었다.

이 亂入組는 執銃한 5~8명이며, 집바 끝목마다 武裝兵 10명을 따로 潛伏시켜 놓는 搜索이었다.

事實은 대개 戶口調査이었다. 그러나 實인즉 義勇軍의 適齡者와 外來宿泊人을 摘發키 위한 深夜의 亂入이며, 한편으로는 武器·現金·라디오·카메라·貴金屬등의 有無를 확인하여, 無條件 沒收해 갔다. 특히 라디오의 경우는 4球(海外放送의 청취가 可能) 이상일 때에는 던져놓고 「反動行爲」로 몰아세워 심한 問責을 加하고, 카메라일 경우에는 필름을 조사하여 생트집을 잡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義勇軍의 適齡者나 外來宿泊人이 摘發되면 現場에서 不問曲直으로 連行해 갔다.

(5) 群衆大會를 憑藉한 人間사냥

北傀는 서울闖入 直後에 兵力補充의 一策으로서 이른바 義勇軍의 志願制를 公布하였으나, 이에 대한 應募者가 殆無하자, 地域과 職場 및 學校別로 群衆大會를 열어 무더기로 強制連行하였는데, 그 煽動과 恐喝方式은 可謂共産黨의 奸巧한 本色을 들어낸 것이었다.

즉, 미리 짜놓은 脚本으로 울가미속에 一網打盡하였다. 熱誠分子가 登壇하여 『義勇軍에 參加하자.』라는 提案演說을 외치면, 群衆속에 섞인 共産黨의 機關員들이 이에 贊同하는 高함소리와 함께 拍手로써 即席에서 議決해 하는 方式으로 靑少年들을 꼼짝없이 묶어 버렸다. 그 殺伐한 雰圍氣에 壓倒되어, 누구하나 反對意思를 내놓을 수가 없었고, 設使 빠져 나간다 해도 即席



에서 反動으로 물려 酷虐한 拷問을 당한 분이  
었다.

이 方式으로도 募兵이 如意치 않게 되자, 8월  
中부터는 民靑員과 女盟員의 人間白丁들이 街  
頭에서 設치기 시작하였다. 通行者는 물론이려  
니와 電車의 乘客이나 劇場의 觀客을 부더기로  
나뉘는가 하면, 심지어는 市場에서 從事하는  
젊은 女性들까지도 끌어가곤 하였다.

北傀는 이 사실을 捏造美化하여, 『8월 15일  
현재로 義勇軍을 志願한 南韓靑年의 數는 40만  
명에 達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北傀  
의 惡辣한 手法에 비추어 그 實數는 100만명  
이 될 것으로 推算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憤痛  
한 犧牲이었던가!

#### (6) 集團虐殺

北傀는 首都서울을 비롯한 被擄地域에서 集團  
虐殺을 수 없이 저질렀는데, 그 慘狀은 筆舌로  
形容할 수 없을만큼 酸鼻을 極한 것이었다.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의 附屬病院에서 國軍戰  
傷將兵을 亂射로써 虐殺한 橫行은 물론이려니와  
各界의 要人과 良民들을 이른바 反動이라 하여  
부더기로 殺害한 인간사냥의 手法은 兇惡이 아  
니고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만큼 殘忍無道  
한 따름이었다.

이 붉은 人間白丁들이 北으로 도망친 다음(9.  
28 首都收復後), 到處에서 發見된 集團虐殺場은  
塹壕가 깊은 우물이 아니면 土窟과 땅구멍이었  
다. 또는 큰 建物の 地下室과 山골짜기에서 뼈  
죽음당한 屍山이 慘不可形容의 地獄縮圖를 이루  
고 있었다. 銃과 칼로써 殺人하다 말고, 우물 \*  
과 土窟속으로 산 사람을 처넣어 生理葬한 것이  
었다.

그런데, 인간사냥의 虐殺對象은 非但 그들이  
烙印적은 이른바 「人民의 敵」만은 아니었다. 望  
風敗走하는 순간까지 班長이나 同盟員이나 하여,  
手足처럼 부러먹던 이른바 「붉은 일꾼」과 敎師  
및 洞會의 書記들까지도 無差別로 集團虐殺하였  
다.

日本の 朝日新聞(1950. 10. 6附)이 報道한 UN  
軍司令部의 公式發表에 이르기를 『南韓의 各郡別로  
平均 450~500명의 部落民이 虐殺당하였다.』

라고 밝혔으며, 大韓民國政府의 公式集計로서는  
이 集團被殺者를 128,936명(男: 97,680명, 女:  
31,256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拉北人士: 84,000명중, 72,000명이 男  
子이며 그 대부분이 서울에서 불잡힌 것이었다.  
이처럼 殘忍無道한 橫行의 結果는 어떻게 나  
타난 것이었던가—言必稱, 南韓人民을 解放시키  
기 위한 正義의 人民軍이라 自稱하던 北傀의 正  
體가 그 무엇이던가를 赤裸裸하게 露呈하는 結  
果밖에 없다.

魁首 金日成 조차도 이 集團虐殺로 인한, 이  
른바 古領政策의 失敗를 自認하고, 그 責任을  
朴憲永과 李承燁(서울市人民委員長) 一黨에게  
돌려붙였다.

金日成의 主張인즉, 『朴憲永·李承燁 徒黨들  
은 解放된 地區(南韓古領)에서의 民主建設을 과  
과하기 위해 妨害工作을 일삼았다. 이들은 土地  
調査委員會와 義勇軍本部, 그리고 테러虐殺組織  
으로서 참다운 勞動黨員과 愛國人士들마저도 無  
數히 虐殺하여 南北朝鮮人民들의 反目을 自招했  
다. 또한 後退時에 大量虐殺과 強制拉致를 저지  
른 사실은 民主建設등에 적지않은 障害을 끼치  
게 했다.』라는 것이었다.

大量虐殺의 罪科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同族相殘의 元兇도 兇惡과 天罰이 두려워, 그  
下手責任을 朴·李의 一黨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였다.

그 뒤, 敗戰의 責任까지도 뒤집어 쓰게 된 朴  
·李의 系列이 滿清당한 사실은 北傀一黨의 內  
訌이 얼마나 深刻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 (7) 北傀의 宗教彈壓

北韓에 있어서 北傀의 宗教彈壓은 처음부터 計  
劃的이요, 段階的으로 恣行되었다.

南段까지는 제1단계의 制限政策을, 60년대까  
지는 제2단계의 彈壓政策을, 60年代 以後부터는  
利用政策을 適用시켰다.

제1단계의 制限政策은 南段까지의 5년간에 걸  
친 것인데, 西洋傳來의 宗教인 基督教 및 天主  
教과 東洋固有의 土着宗教인 佛教 및 天道教에  
대하여 彈壓의 差異를 보였다.

前者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禁壓措置가 酷甚한

네에 比하여, 後者의 경우는 比較的 完만한 便이었다. 終局에 가는는 宗教抹殺을 목표삼으면서도 民心을 考慮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天道教의 경우는 農民 및 零細民이면서 信徒인 이들의 대부분을 포섭하고, 靑友黨도 組織하고 있었기 때문에 民心의 宥和吸收를 위하여 酷甚하게 彈壓하지 못하였는데, 金日成의 一味徒黨은 政治的인 勢力基盤이 굳혀 짐에 따라, 오히려 天道教를 가장 彈壓하게 되었다. 土着的인 信徒分布와 靑友黨의 行動的인 抵抗이 強化되어 가는 경향때문이었다.

(8) 北傀의 基督教포섭 工作

基督教의 教職者를 비롯한 敎人들을 포섭하여 侵掠地域의 對民工作에 利用하기 위하여 서울에 特派된 北傀의 工作員幹部는 金昌俊과 李萬圭라는 者들이었다.

前者는 祖國光復前에 監理敎神學校의 敎授로 있다가 越北한 者인데, 이른바 北韓基督教聯盟의 委員長이라는 資格으로 特派되었으며, 後者는 이른바 北傀의 文敎相이었다.

이들은 6월 28일과 7월 15일에 中央敎會(西大門區의 冷泉洞)로 監理敎의 教職者 및 敎人들을 強制로 集會케 하여 『北韓의 憲法으로 信仰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며, 南韓의 宗教政策을 暢達케 할 것인즉, 모든 敎會는 戰爭遂行을 뒷받침하는 勞力動員에 적극 參與하고 戰力增強을 위한 獻金運動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協力을 強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敎職者들의 身分을 保障하고 信仰活動의 自由를 줄 것이니, 避身中人 者들은 過去의 잘못을 청산하고 人民解放戰線에 忠誠을 盟誓하라.』하는 부의 甘言으로써 自進自首를 慫恿하였다.

이 모두가 彈壓과 迫害를 加하기 위한 口實에 지나지 않았다. 脅迫에 못이겨 自首한 敎職者는 물론, 避身中에 檢索당한 敎師와 敎人들을 虐殺다니면 拉北으로 肅清한 것이었다.

(9) 拉北要人の 名單

洩北避難하지 못하고, 北傀의 인간사냥에 걸린 各界要人の 名單은 다음과 같다.

◇政界：(制憲國會議員) 姜旭中·丘德煥·具

中會·金景道·金庚培·金德烈·金東元·金秉會·金尙德·金沃周·金禹植·金長烈·金仲基·朴允源·朴鍾煥·張重赫·白寬洙·徐廷禧·申成均·李康雨·李龜洙·李萬根·李文源·李周衡·張炳晚·鄭光好·趙炳漢·趙玉欽·趙重顯·崔泰奎·許永鎬·洪淳玉·黃潤鎬

(제2代 國會議員) 金用茂·金雄鎮·金七星·金憲植·朴性宇·朴榮來·朴哲圭·白象圭·辛錫斌·辛容勳·安在鴻·吳夏英·元世勳·柳驥秀·李相慶·李宗聖·張連松·鄭仁植·曹圭成·趙素昂·趙鍾勝·趙憲泳·崔丙柱.

(政黨人) 金奎植·金永東·金義煥·金喆宰·朴寶廉·尹瑞燮·薛敏鎭·嚴桓燮·趙婉九·崔東晔.

◇官界：康基德·康巨福·高元勳·琴泰潤·金大奉·金演麟·金寅昌·金炯元·金孝錫·盧九鉉·明濟世·朴奉百·朴鍾萬·徐承杓·申泰桓·尹炳植·尹泰彬·李潭·李明圭·李奉柱·李寅浩·李弘洙·張熙昌·趙文濟·趙之峰·車周弘·韓祖洙·許南洙.

◇社會團體：朴承浩·朴烈·吳正方

◇法曹界：康炳頌·高斗洽·金成玉·金中正·朴勝喆·朴泰俊·蘇奎奎·沈光漢·沈相湖·梁鶴鶴·梁元龍·吳世權·吳宅烈·柳海文·李烈宰·李河榮·張斗植·張永彬·全采愚·鄭鴻煥·鄭太龍·趙春文·韓相範·韓哲勳·荆德基

◇學 界：高權三·高貞玉·金時昌·孫晉泰·李富烈·李聖鳳·李升基·鄭烈模·鄭寅普·鄭駿模·崔奎東·玄相允

◇刀圭界：高周爽·金起濟·朴汝根·尹炳感·張元順·趙明鎬

◇宗教界：權泰義·貝滋玉·奇世福·金東哲·南宮赫·朴鉉明·方 薰·宋昌根·吳澤寬·崔 驥·韓政明

◇文化界：金東煥·金 德·金連實·馬寅尙·柳子厚·李光洙·鄭芝銘·崔仁奎

◇言論界：金承烈·金容采·金炯元·南國烈·馬泰榮·方應謨·劉錦成·李貞淳·張仁甲·鄭賢鉉·朴鍾秀

◇實業界：閔丙五·吳鳳彬·李揆源·李重熙·林成鎬·朴鍾燮·全德允·崔乙是·徐承杓 외 199명

## 第 5 章

# 漢江線의 防守

### 要 旨

1. 金浦—梧柳洞附近 戰況
2. 漢江—水原 防禦戰



## 第5章 漢江線의 防守

### 要 旨

本章에는, 6월 28일에 漢江以北의 首都서울이 敵의 手에 들어가게 된 뒤로, 我軍이 그 南쪽에서 美地上軍의 赴援을 기다리면서 持久堅守하는, 이른바 「漢江防禦戰」을 策錢하였다.

이 作戰地域은, 서울 東部の 廣나루에서 漢江을 따라 西北쪽 멀리 金浦半島 北端에 이르는, 이 江 南쪽의 全地域을 抱括하는 것으로서, 永登浦 西쪽의 安養川을 境界로 東西로 지역을 나누어 敘述키로 하였다.

따라서 本章은 安養川 西쪽지역의 戰況을 網羅한 「金浦—梧柳洞부근 戰況」과 同川 東쪽 지역 戰況을 모두 다룬 「漢江—水原防禦戰」의 2개 節로서 構成되었는데, 여기서 金浦—梧柳洞의 戰況을 먼저 取扱한 것은 이 戰況가 다음에 다룰 漢江線의 그것과는 달리 38°線戰鬪의 延長이라고 본 까닭에서이다.

이제 38°線이 무너지고, 漢江線에서 我軍이 새로운 様相의 防禦戰을 벌이게 된 이 時點에서 敵의 南侵의 作戰方略을 다시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推断된다.

즉, 1次的으로 北傀 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의 제1, 제3, 제4, 제6의 4개 步兵사단과 제105 戰車여단이 議政府—汝山을 突破하여 서울을 攻陷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開戰當口로 鎭津地區를 席捲한 제6사단 이하 제14연대를 뽑아 돌려 26일에 金浦半島에 上陸케 하여 金浦—永登浦를 直衝케 함으로써 當初 그들이 노던 奇襲의 效果를 최대한 發揮, 前線의 我軍 後方을 遮斷키로 한바 이 연대가 永登浦에 이르기 前인 28일에 오히려 我軍에 의하여 漢江橋가 爆破되어 我軍 스스로 退路를 잃게 됨으로써 敵이 不勞所得을 얻게 되기도 하였다.

이에 敵은 2次的으로 앞서의 同군단 主力으로써 漢江渡河를 서두르는 한편, 美軍의 赴援을 意識하고 그들 제6사단으로써 金浦지구의 제14연대를 增援케 하여 京仁街道를 차단, 永登浦에서 漢江防禦線을 펴고 있는 我軍의 側背를 위협케 하면서 仁川港을 확보함으로써 美軍의 赴援手段을 封鎖키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我軍은 25일에 開城正面에 瓦解되어 그 防禦兵力이 金浦반도로 철수하게 됨에 따라, 金浦地區 전투사령부를 急編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케 하는 가운데 議政府戰線의 固守에 注力하다가 28일에 漢江 南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는 데 이에 즉시 始興地區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敵의 漢江(鎭梁津—永登浦경변) 渡河를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이 漢江방어선은 여기서 攻勢로 移轉하여 失地를 恢復한다는 것이 아니라, 美地上軍이 赴援할때까지 現戰線을 최대한 持久堅守한다는데에 力을 둔 것으로서, 당초에는 3일을 목표로 하였으나 金浦지구에서는 金浦지구전투사령부가, 그리고 鎭梁津부근에서는 始興지구전투사령부(훈성 首都, 제7, 제2사단)가 奮戰한 보람이 있어, 意外로 6일동안이나 이 戰線을 支撐하게 되었다.

결국, 7월 3일에 敵의 戰車가 漢江鐵橋를 건너게 됨에 따라, 그 이튿날 4일에 我軍이 水原까지 내어 놓게 됨으로써 本章이 끝나게 되는 것이나, 이 戰爭 全般의 大局의인 흐름을 살펴볼때, 여기서 敵은 돌이킬 수 없는 큰 作戰의 蹉跌을 보게 되었으며 반대로 我軍은 비로소 起死回生の 실마리를 얻게 되는 局面이라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 1. 金浦—梧柳洞附近 戰況 (1950년 6월 25일부터 // 7월 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4, 15호  
상 황 도 제18~22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金浦地區戰鬪司令部 사령관		제2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대령 桂 仁 珠 (6월 26일부터)		제18연대 제2대대 장 소령 張 春 權	
중령 禹 炳 玉 (6월 28일부터)		제3대대 장 소령 安 政 一	
중령 任 忠 植 (6월 29일부터)		제22연대 제3대대 장 소령 孫 永 乙	
대령 崔 榮 喜 (6월 30일부터)		육군報國대대 장 소령 方 圓 哲	
독립기갑연대 제1裝甲수색대대 장		육군步兵학교 후보생대대 장	
소령 朴 武 烈		소령 張 泳 文	
제3徒步수색대대 장		소령 金 光 淳 (6월 28일부터)	
대위 姜 文 憲		육군南山(情報)학교 장	
제 8 연대 제3대대 장 소령 朴 泰 云		대리 중령 崔 福 洙	
제12연대 제2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대령 桂 仁 珠 (6월 26일부터)	
제15연대 제1대대 장 소령 李 存 一		육군工兵학교 학생일부	
敵		軍	
北傀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14연대 장 대좌 韓 日 來	

## 나. 전투 전의 개황

本 전투는 다음 節에서 취급할 漢江線의 鷲梁津—永登浦전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6월 25일, 제1사단(장, 白善燁대령)이 臨津江과 合流되는 漢江 北쪽의 開城地區에서 漢江을 건너 金浦반도로 철수하게 됨에 따라, 敵이 이를 追躡하여 이 半島에 上陸함으로써 漢江 南岸에서 예기치 않았던 衝突을 보게 되는데, 이에 따라 我軍은 金浦地區戰鬪司令部를 급편하여 이들 敵을 막게 되는데, 28일까지는 半島의 北半部에서 日戰日退하는 遲延戰을 벌이게 되고, 29일부터는 金浦비행장과 梧柳洞 부근에서 寸步를 다루는 攻防血戰을 전개한 끝에 7월 3일에 漢江線의 瓦解로 말미암아 梧柳洞嶺에서 水原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것이 本 전투 經過의 大要이거나 이는 時期的으로 보아 38°線上 전투의 延長이라 할 수 있으며 그 樣相 또한 漢江이라는 自然條件과 절대적인 연관을 지니는 河川防禦전투도 아닌 것이나, 다만 戰場이 漢江 南쪽 지역이고, 次節의 戰況과 脛齒輔車의 관계에서 始終된다는 점을 들어 本章에 포함키로 한 것인바 時期가 앞서는 까닭으로 이룬 먼저 記述키로 한다.

敵軍의 狀況: 25일 當日에 破竹之勢로 養津半島와 延白平野를 席捲한 敵은 그들 主力인 제3, 제4兩사단의 議政府공격에 호응하여 제 1, 제6兩사단으로써 臨津江 南쪽의 汶山—奉日川으로 침공을 계속하여 서울의 西北 外廓線을 壓縮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들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의 일부가 — 養津半島쪽의 제14연대를 뽑아들린 것으로 推斷되는 — 江華島와 金浦半島에 上陸을 企圖하여 同半島를 突貫함으로써 金浦飛行場을 확보한 다음, 始興—安養쪽으로 直衝하여 京釜國道の 차단을 노리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河幅이 2,000~3,000m나 되는 漢江을 渡河하여야 하는 難點을 안고 있었던 까닭으로 처음에는 많은 병력의 同時渡河가 어려웠던지, 주로 帆船이나 작은 木船등에 의한 小規模의 산발적인 漕渡만을 試圖하였는데 金浦반도로 향한 그들의 渡河공격의 徵候는 26일 午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漢江河口의 제1의 浦口인 領井浦(甲申 北쪽 8km 漢江 北岸)를 漕渡의 前進基地로 삼아 일부는 江華島로 상륙하여 甲申에서 鹽河를 건너 金浦半島 西쪽으로 迂回하게 하고, 일부는 곧장 漢江을 건너 半島 北端에 상륙케 함으로써 먼저 半島의 西北쪽 一隅—通津地區—를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金浦街道를 따라 東南向으로 半島의 縱軸을 突貫하여, 일거에 金浦비행장을 손에 넣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狀況: 漢江 北岸의 開城지구에서 38°線의 경계임무를 맡고있던 제1사단 제12연대(장, 全盛鎬대령)는 25일 未明의 敵侵으로 말미암아 그 날을 미처 넘기지 못한채 開城 境면의 제2대대와 臨成江 西쪽 延安지구의 제3대대가 南쪽으로 밀려 漢江 北岸에 물리지 뼌으로써 그곳에서 배를 얻어 南으로만 船首를 指向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멀리 仁川 앞바다나 南陽灣까지 遊戈하게 되는가 하면, 혹은 가까이 江華島나 金浦 땅에 오르게 되었음은 이미 前章에서 記述한바와 같거나 이때 이와같이 金浦半島 對岸에 敵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된 半島一隅의 我軍部隊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러하다.

즉, 金浦비행장을 中心으로 陸軍 情報學校인 南山學校(장, 桂仁珠대령)와 工兵學校(장, 嚴錫慶중령), 그리고 공군의 航空基地司令部와 空軍士官學校 및 補給廠과 空軍病院등의 부대가 그 주위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補給基地인 富平에는 육군의 제1공병단(장, 尹泰日중령)과 제1병기대대(장, 金昌培소령) 그리고 兵器學校(장, 沈彦俸 대령)와 經理學校(장, 卍泰燾대령) 및 제1육군병원(장, 李達衡소령)등이 位階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自體戰능력조차도 없는 교육기관이거나 지원부대이므로 이들 부대로써 조직적인 地域防禦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나마 이 부대들이 金浦비행장과 富平地區에 屬構되어 있어서 비행장으로부터 西北쪽 30km, 緯度上으로 議政府—奉日川線에 連하는 金浦반도 北端 지역에는 단 한사람의 경계병력도 배치되어 있지않은, 그야말로 空白狀態에 있었다.

##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당시 西部전선의 제1사단장 白善燁대령은, 육군본부가 38°線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았던만큼, 開城정면에 대하여서는 『敵의 全面攻撃時는 該 地域을 철수하여 汶山부근에 집결한 다음, 臨津江 南岸에서 敵을 擊滅한다.』는 자체방어 概念을 가지고 臨津江線의 強化에 注力하고 있었다. (제3장 高浪浦—汶山부근 전투 참조)

따라서 同사단의 장병들은 金浦반도가 분명히 사단의 후방지역이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방어책임은 누구에게 歸着되는지도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채, 전연 별개의 彼岸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이같은 사단의 계획과는 달리 25일 낮에 미처 汶山으로의 轉進의 시간을 얻지 못한 제12연대(장, 全盛鎬대령)의 제2대대는 金浦반도로 철수하게 되고, 제3대대는 扁鰲에 위치하여 江華灣을 헤매게 되고 말았는데, 이 결과 同연대의 戰線병력의 대부분을 收容하지 못한 汶山防禦線에서는 그 방어에 커다란 차질을 보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金浦반도에 상륙한 병력 역시 事前에 명확한 행동지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當惑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비로소 이 金浦반도가 敵의 侵攻路로서 開放되어있음을 깨닫고 그 對應策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기의 위협을 대수롭지않게 판단한 듯, 당면한 敵의 攻撃力量이나 我軍의 防禦能力을 비교하거나 방어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金浦비행장 부근에 位置한 南山學校를 基幹으로 金浦地區戰鬪司令部를 設편하여, 金浦一圓의 各급부대를 통합, 金浦半島로 상륙하는 敵을 阻止하도록 하는 便法을 臨機로 案出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26일 아침에 남산학교장 桂仁珠대령이 金浦地區전투사령관으로써 金浦방어의 책임을 맡게되었는바 그는 즉시 학교의 各참모를 同사령부의 참모로 機能을 전환토록하고, 지휘소를 金浦邑의 金浦경찰서로 추진하여 金浦지구의 모든 육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날 저녁까지 同사령부의 掌握下에 들게된 부대는 다음과 같다.

제12연대 제2대대 일부(金浦)

독립기갑연대 일부(漢南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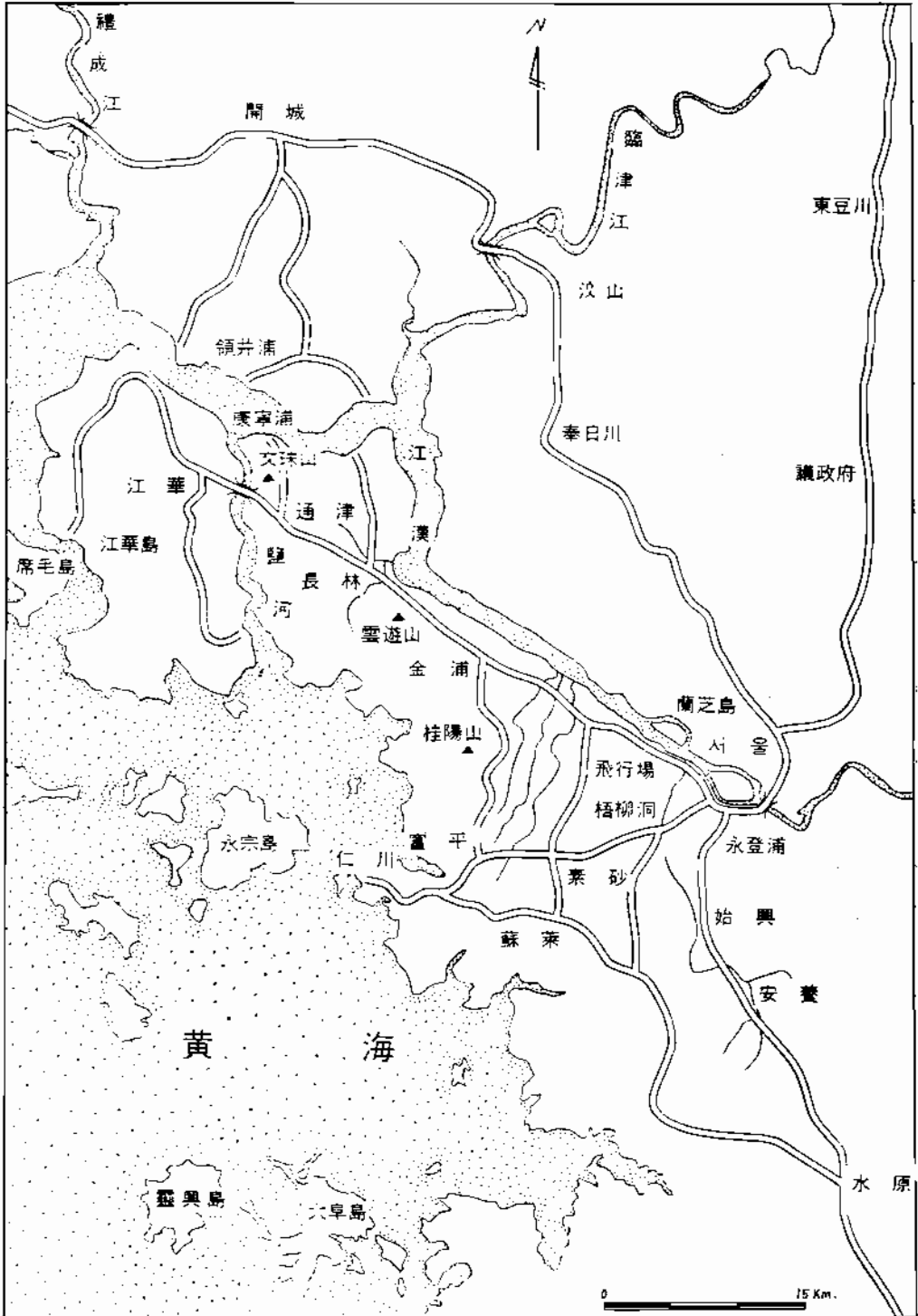
보국대대 일부(文來洞)

보병학교 후보생 일부(始興)

공병학교 학생 일부(金浦)



◇ 上 황도 제18호 金浦半島의 道路網



戰鬪司令部는 이들 병력이 金浦邑에 도착하는데로, 半島 北端의 鎮山인 文珠山(△376 : 通津 北쪽 2.5km)을 중심으로, 北쪽 漢江邊의 祖江里(通津 東北쪽 5km)—康寧浦(通津 北쪽 6km : 祖江里 西쪽 4km)와 그리고 北쪽의 鹽河邊에 배치하여 半島의 西北쪽 지역에 방어의 重點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는, 모두가 아무런 事前준비없이 生疎한 地域에 投入된데다가 通信手段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間의 橫的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령부의 縱的인 지휘계통도 有名無實 그것이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전투 역시 議政府정면과 같이 통일된 부대행동에 의한 戰力發揮보다는 各兵士의 抵抗能力에 더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였다.

## (2) 작전실시

### (가) 金浦半島의 遲延戰(6. 25~28)

**6월 25일** : 이날 金浦半島에서는 漢江 北岸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突風과는 아랑곳없이 구름만 하늘에 가득할 뿐, 颯風前夜의 高요에 잠긴 모습 그것이였다.

#### 1. 제12연대 제2대대의 渡河撤收

開城부근에서 背水의 陣을 치고있다가 拂曉의 狂波를 맞이한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順華소령)는 그 일부가 汶山쪽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主力은 漢江으로 南向하여 丁串里(開城 東南쪽 10.5km)일대의 浦口에서 駁船 10여척을 얻어 漢江을 건너게 되었음은 제3장에서 既述한 바와 같다.

대대장 韓順華소령과 대대 S-3 金子烈중위 등 150여명의 同 대대원이 金浦半島 東北端의 柿岩里(通津 東北쪽 10km)부근에 상륙한 것은 대체로 19.00전후였다.

대대장의 汶山向發 : 대대는 우선 住民들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犒饋를 하고, 江邊의 渡河點을 警戒하면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作定하였는데, 날이 저물자 제3대대의 副대대장 朴光潤대위와 제11중대장 白文 중위등 제3대대의 일부가 參勢되어 집결병력이 모두 6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대장은 그와 같은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여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얻고자 부대의 지휘를 副대대장 全勉植 대위에게 일임하고, S-3를 帶同하고 함께 건넌 Jeep차로 밤을 도와 汶山으로 向發하였다.

#### 2. 기갑연대의 出動

龍山區 漢南洞에 위치한 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이날 아침 38°線에서의 敵侵의 急報가 전하여지자, 즉시 非常상태에 들어 가, 外泊중 귀대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出動준비를

갖추었는데, 獨立연대로서 首都警備司令部(사령관, 李鍾贊대령)와는 별도로 육군본부 直屬下에 있던 연대는 午前에 육군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領의 作戰命令을 受領하게 되었다.

『① 기갑연대는 前線의 제1, 제6, 제7, 제8 각 사단에 각각 裝甲車 1개 소대씩을 배속하라.

1개 소대로써 金浦半島의 漢江 渡河點을 경제토록 하라.

② 騎兵대대는 退溪院으로 出動시켜 제6, 제7사단의 間隙을 補填케 하라.』

이와같이 육본이 연대의 장갑차를 前線사단에 분할 배속케한 것은 이들의 火力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이 장갑차에 장비된 長距離用 SCR—506 무전기를 활용하여 前線狀況보고를 즉시에 入手코자 한 方便인 듯 하니, 당시 南山에는 연대의 通信所가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장갑차의 무선보고가 聽取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騎兵隊를 退溪院쪽으로 派出케한 것은 그의 山岳機動力을 발휘케 함으로써 제 6사단(장, 金鍾五대령)과 제7사단(장, 劉載興준장)의 地際인 金化—退溪院도로의 敵情수집에 主眼을 둔 것으로 믿어지는데, 어쨌든 어떠한 理由로, 또 어떠한 方法으로 이 명령이 연대에 下達되었는지는 더 이상 헤아릴 길이 없거니와 이 같은 육본의 作命에 따라 연대는 午前중 敵機의 來襲으로 말미암아 장갑차와 馬匹을 南山 기슭으로 일시 待避시켰다가, 午後에 다음과 같이 措置하였다.

즉, 제1장갑수색대대(장, 朴武烈소령)는 重量 8.6ton에 최고시속 54km를 자랑하는 M8裝甲車(M6 37mm포 장비) 27대를 主軸으로 M2半軌道車와 Jeep차 등과 함께 편성된 3개 중대 가운데 제1중대(장, 朴吉龍대위)의 2개 소대로써 江陵과 呑川의 제8, 제6兩사단에 배속케 하고, 1개 소대로써 金浦반도에 派遣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중대(장, 朴道環대위)는 23일에 開城에서 復歸하여 장비의 整備가 채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예비로 확보키로 하고, 제3중대(장, 朴容寶대위)로써 議政府와 汶山の 제7, 제1兩사단을 지원토록 한 바, 15.00를 前後하여 同중대의 제2소대(장, 崔元謙소위)가 汶山으로 包圍한것을 선두로 主力 2개 소대는 중대장의 직접지휘아래 議政府로 出動하게 되었다.

장갑소대의 康寧浦 출동: 제1중대에서는 제3중대에 이어 1개 소대를 金浦半島의 康寧浦로 내보내었으며 主力은 그 이튿날 아침에 각각 配屬先우대로 출발시키기로 하였는데, 이 동안에 제2중대는 1개 소대로써 景武驛를 警護케 하고, 나머지는 南山 기슭에서 대기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기병수색대대(장, 張哲夫소령)는 驍馬 300여마로 편성된 제5중대(장, 李基鎔중위)와 제6중대(장, 朴錫均중위)에서 각각 1개 소대씩을 뽑아 본부에 예비로 殘留케하고

主力은 대대장이 이를 이끌고 13.00를 전후하여 通溪院으로 出動하였다.

한편, 제3도보수색대대(장, 姜文憲대위)는 輕步兵인 제8중대(장, 金一錄중위)와 제9중대(장, 李鵬植중위)의 2개 중대로써 施設경비의 南山通信所의 對空防禦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19.00전후 申泰範중위가 지휘하는 장갑차 1개소대가 金浦반도의 西北端인 康寧浦에 진출하였는데, 그 무렵 漢江口에는 漁船만이 한가로이 떠 다니는 듯 하였을 뿐 별 다른 敵의 動靜이 없었다.

### 3. 金浦地區 部隊의 動向

이날 正午에 敵의 YAK機가 金浦비행장을 空襲하여 燃料庫가 火焰에 쌓이기도 하였는데, 이때 비행장 부근에 위치한 空軍사관학교와 항공기지사령부 및 보급창과 헌병대 등은 사관학교장 崔用德준장을 사령관으로하는 金浦警備司令部를 獨自로 편성하여 一 육군부대와 의 敵情수집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一 18.00에 사령부와 2개 중대를 金浦으로 추진한 다음, 병력을 北쪽의 金浦—通津도로 길목인 △44 일대에 배치하였으나, 敵情을 探知하지 못한채 긴장된 밤을 새우게 되었다.

한편 육군부대인 남산학교는 교장 桂仁珠대령이 보병학교에 교육파견중이었으므로 副교장 崔福洙중령의 지휘아래 기간요원 40여명으로써 開花山(△130; 비행장 北쪽 2km)을 점령하여 지역경계에 임하였으며, 공병학교는 그 일부가 남산학교 기간요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가운데 主力은 15.00를 전후하여 南山(獎志壇공원)으로 이동하여 前線支援태세에 들어갔다.

**6월 26일:** 전날 밤 동안, 開城에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柿岩里부근에서, 그리고 석울에서 出動한 기갑연대의 장갑소대는 그 반대쪽의 河岸에서 각각 前後와 左右의 상황전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을 서웠는데, 이날 날이 밝자 戰況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 1. 金浦地區戰鬪司令部의 편성

西部戰線이 臨津江 南岸線에서 이날 아침을 맞게되자, 敵의 臨津江 渡河問題가 我軍전선유지의 關鍵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金浦반도에서의 敵의 上陸 역시 必至의 사실로 된만큼 육본의 작전 當路者들도 이제 이 金浦반도로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장차 敵이 여기에 上陸하여 金浦街道를 따라 밀어닥쳐 鷲梁津에 이르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意外의 罅에 虛隙이 생겨나, 作戰上 큰 蹣跚이 생기고 만 것이다.

그러나 龍山의 육본 수뇌부는 漢江河口의 江幅에 一 臨津江幅이 500~1,000m인채 비하여

2,000~3,000m에 달하였으므로 — 큰 기대를 가진 듯, 微温의인 조치만을 취하였으니, 보병학교의 제3차(6.18~8.5) 高級班學生으로 피교육중이던 桂仁珠대령을 이날 아침 남산학교장으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金浦地區戰鬪司令部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金浦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敵의 渡河를 막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는 기갑연대 일부를 增派하고, 보병학교의 학생연대 후보생(갑종간부)으로써 1개 대대를 급전키하여 이를 金浦반도에 투입케 하는 정도의 延長的인 彌縫策만을 강구한 것인데, 여기서 防禦의 重任을 맡게된 桂仁珠대령은 情報局에 오래 몸 담았던 情報通일 뿐으로 작전, 더우기 이같이 雜多한 혼성부대의 지휘능력에는 疑問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通播網의 不備로 말미암아 지휘체제도 확립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사령관의 措置 : 이리하여 남산학교의 기간요원(장교 10여명, 사병 30여명)을 營營으로 戰鬪사령부가 편성되었는데, 副교장 崔顯洪중령을 참모장으로, 그리고 학교의 각 참모를 同一機能의 참모로 전환하여 전투사령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령부편성이 끝나는 즉시로, 전날 開花山에서 徹夜한 남산, 공병학교의 혼성병력 50여명을 우선 半島北端의 龍江里로 推進하여 漢河驛의 경계에 임하게 하는 한편 金浦區의 金浦경찰서(장, 李武英경감)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兵器官인 曹漢春중위를 육복과 富平의 제1병기대대(장, 金昌培소령)로 보내어 所要의 탄약을 확보토록 하였다.

## 2. 제12연대 제2대대의 再編

전날 栲岩嶺부근에서 一夜를 보낸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順華소령)는 이날 金浦地區戰鬪司令部의 장악하에 들어가 通津부근에서 敵의 渡河를 막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였다.

전날밤에 대대장 韓順華소령이 S-3 全斗烈중위와 함께 汶山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대본부를 찾아간바, 이날 새벽 02.00를 전후하여 奉川國民學校에 자리잡은 연대 본부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연대장 全盛鎬대령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제1대대(장, 申鉉洪소령)의 일부만이 접결되어있을 뿐이어서 S-3 全중위는 申鉉洪소령이 지휘하는 혼성대대의 중대장요원으로 그곳에 남게되고, 대대장은 08.00에 汶州의 사단본부로 가서 사단장 白善維대령으로부터 『金浦반도에 철수한 병력을 뽑아 奉川의 本隊와 舍勢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이때까지 제1사단장은 漢江을 넘어 撤收하리라는 意思는 秋毫도 없었음을 알수 있었는데 이때 제2대대가 無斷離脫한 餘弊가 크게 된 것이다.

즉, 대대장은 다시 11.00에 金浦區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대대병력을 이미 金浦地區戰鬪司令部가 장악중이었으므로 同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文珠山을 중심으로 敵의 渡河를 阻止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指揮系統의 亂狀相이 들어나는 가운데 韓順華소령은 제3대대와의 혼성병력 600여명을 4개중대로 재편하여, 제대본부를 通津으로 移轉하는 동시에 佳金리(祖江里 稜岫 2km)에서 康寧浦에 이르는 江岸에 3개 중대를 배치하고, 1개 중대를 通津 北쪽고지(표고 170m정도)에 예비로 확보하였는데, 대체로 14.00에 진지편성을 끝내고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 3. 기갑연대의 増派

이날 金浦地區전투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同사령부의 戰力增強을 모색한 육군본부는 기갑연대의 잔여병력을 다시 金浦반도에 投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이날 아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 장갑대대는 제2중대(본부대기 중대)를 13.00에 金浦로 출동시켜, 金浦地區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라.

㉡ 기병대대는 본부대기 2개소대로써 제7중대(임시)를 편성하여 金浦로 출동시키라. 장갑대대장이 이를 통합지휘하라.

㉢ 도보대대는 1개중대를 08.00에 加平으로 출동시키라. 同중대는 現地 도착과 동시 제8



〈出動중인 장갑차〉

연대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1개 중대는 金浦반도로 출동시키라. 『同중대는 장갑대대장이 통합지휘하라.』

**장갑대대의 金浦출동** : 그리하여 장갑대대장 朴武烈소령의 통합지휘아래 연대의 잔여병력의 대부분은 金浦반도로 增派되고, 도보대대의 1개 중대는 加平으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이 加平출동은 서울과 春川사이의 虛隙을 補塡키 위한 육본의 措置에 따른 것이니, 그곳에는 首都경비사령부의 제8연대(장, 徐鍾喆중령)가 전날에 投入되어 敵의 春川—加平 진출에 대비하는 중이었다. (제3장 春川 및 洪川지구전투 참조)

이에 따라 장갑대대의 예비인 제2중대(장, 朴道猷대위)는 景武嶽경비소대 등 지역 경제병력을 모두 본대에 수용하였으며, 기병대대의 殘留병력인 제5중대의 제1소대(장, 邊龍甲소위)와 제6중대의 제2소대(장, 崔泳華소위)는, 보병학교 교관으로 있다가 이날 급거 연대로 配屬된 金村成중위를 중대장으로하는, 제7중대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장갑제2중대와 기병제7중대는 장갑대대장이 이틀 이팔고 13.00에 金浦로 向하게 되었는데, 이때 도보대대장 姜文憲대위는 金一錄중위가 지휘하는 제8중대를 08.00에 加平으로 출동하게 한 다음, 대대 본부중대의 火器소대(장, 李炳基소위)를 제9중대(장, 李鵬植중위)에 배속조지하여 이 중대와 함께 車輛으로 先行한 장갑대대를 따라 16.00에 金浦반도로 急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隸下의 병력을 모두 各地로 分割케 됨에 따라 연대장 劉興守 대령은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연대의 본부중대와 근무중대만으로써 漢南洞의 빈 營幕만을 지키는 결과가 되었으니, 본래 연대의 主任務가 수색과 정찰이었던만큼 現地의 전투부대에 分割배속 한다는 것은 機能上으로 보아 당연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들 연대병력이 모두 本然의 임무를 떠나 방어전투에 充用됨으로써 後口, 火力과 機動力에서 그 으뜸을 자랑하던 연대의 「機甲」이란 이름이 無色한, 한낱 보병연대로 轉落되는 緣由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鹽河邊의 진지 占領** : 한편 장갑중대와 함께 漢江人道橋를 거쳐 金浦街道를 따라 金浦邑으로 나아간 장갑대대장 朴武烈소령은 그곳 金浦地區전투사령부로부터의 「江華島의 甲串 나루터 對岸 渡河點을 경계하라」는 명령에 따라 通津으로 急進하였다.

대대는 본부를 제12연대 제2대대와 함께 通津에 두고, 뒤따라 당도한 도보제9중대를 甲串 맞은편 나루터의 右側(北쪽)인 文珠山 西麓에, 그리고 기병제7중대로 하여금 軍馬들로써 警戒陣을 치게하고 병력단 그 左側(南쪽) 洞岸의 堤防에 배치하여 이들 兩중대로써 甲串쪽에서의 敵侵을 阻止케 하였다.

그리고 장갑제2중대는 1개소대를 通津에서 나루터에 이르는 道路에 배치하여 제7, 제9兩중대를 火力支援토록 하는 한편, 1개 소대는 北쪽의 漢江쪽 沿岸에 진지를 점령중인 제12연대 제2대대쪽으로 보내어 그들의 방어정면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1개소대는 南山學

校병력이 배치중인 祖江里의 浦口를 함께 지키도록 하였는데, 전날 康寧浦에 배치된 제1중대의 1개소대도 제2중대장 朴道猷대위가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2연대의 혼성대대는 北쪽의 漢江邊을, 기갑연대 혼성대대는 西쪽의 鹽河邊을 각각 담당하게 된 셈인데, 장갑중대와 기병중대가 진지에 投入된 것은 대체로 16.00로서 이때부터 敵의 渡河侵攻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 4. 보국대대의 自進出動

한편, 지난 2월 1일부터 제3사단(장, 劉升烈대령)에 배속되어 密陽地區에서 共匪宣撫工作을 벌이다가 永登浦(文來洞)로 復歸한 육군報國대대(장, 方圓哲소령)는 歸順將兵 174명으로써 3개 중대를 편성하여 2개 중대를 제6, 제7 兩사단의 偵察隊로 派遣하고 1개 중대만 本部에 두고 있던중 전날 敵의 南侵急報를 接하고, 出動준비로 대기하였으나 終日토록 그들에게 별다른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 方圓哲소령은 이날 아침에 陸本에 自進出頭하여 南侵阻止를 自願한 결과 金浦반도의 弱點을 메꾸는 一役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100명도 채 안되는 대원이었지만 그야말로 報國의 一念으로, 장비인 99式小銃에 실탄 20발과 수류탄 1발씩을 나누어 가지고, 徵發된 民間車輛전으로 13.00를 전후하여 永登浦의 본부를 떠나 金浦半島의 西北端을 指向하여 15.00에 通津 南쪽의 △180에 獨自로 병력을 배치한 다음, 멀리 西北쪽으로 甲串나루터를 眼下에 굽어보면서 將至할 風雨를 막아보려 하였다.

#### 5. 보병학교 候補生대대의 出動

始興의 보병학교(장, 閔機植대령)는 전날 教導隊(장, 金秉化소령)가 학생연대장 俞海濬중령의 지휘아래 汶山으로 제1사단(장, 白善燁대령)을 赴援한 것에 이어, 이날은 다시 육본명령에 따라 학생연대의 各種후보생으로써 후보생대대를 편성하여 金浦地區에 출동하게 되었다.

후보생대대의 편성: 당시 同학교에는 보병은 물론 자 병과별로 선발된 간부후보생들이 보병기본훈련을 履修하기 위하여 各兵科학교로 부터 파견교육중이었는데, 2월에 入校하여 8월에 任官예정이던 甲種幹部후보생 제1기는 일부가 전날 汶山으로 출동하였거니와(高浪浦—汶山地區전투 참조) 이날 후보생대대의 構成員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리하였다.

甲種간부후보생 제2기(149명 4.21入校)

同 제3기(150명 6.2 入校)

砲兵士官후보생 제1기(70명 5.15入校)

兵器士官후보생 제4기(124명 4.3 入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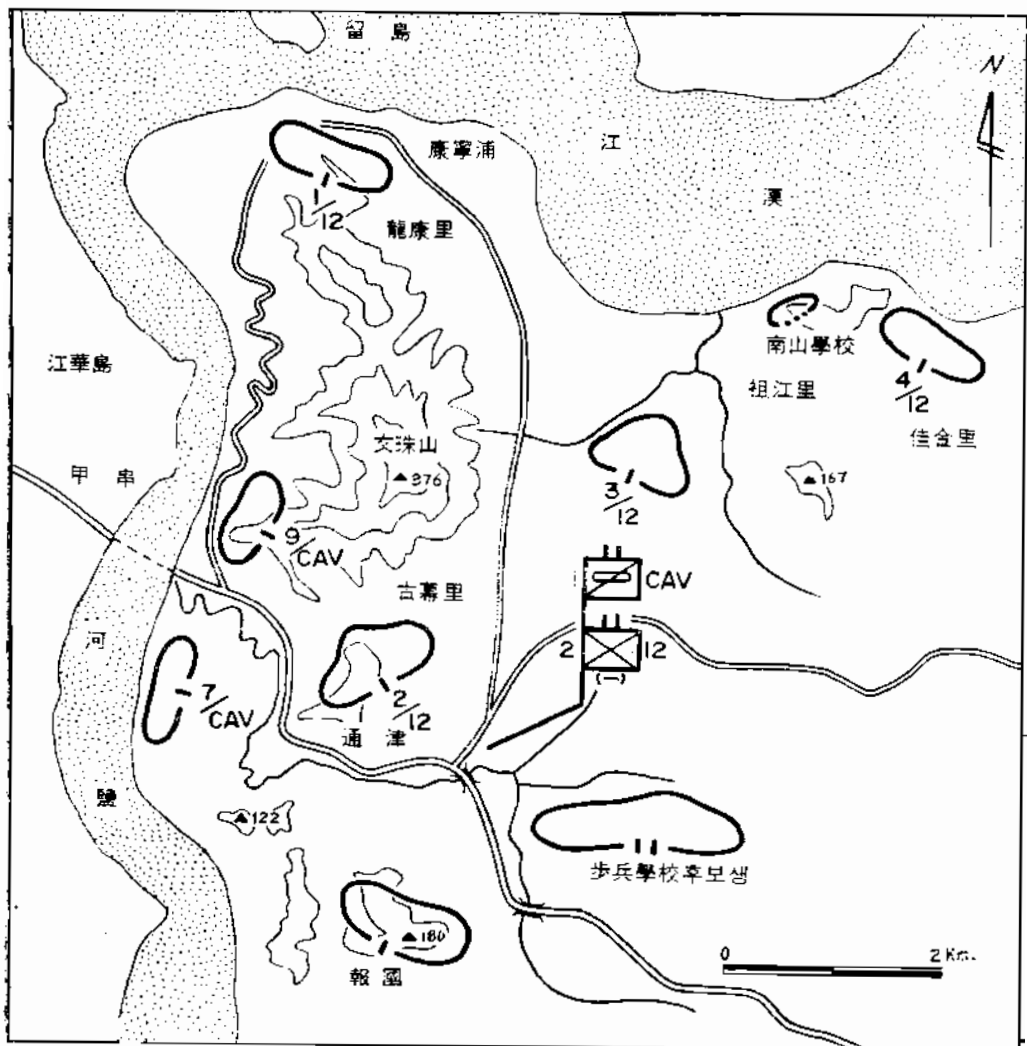


一般工兵科 제5기 (52명 4.10入校)

이와 같은 후보생 500여명으로써 4개중대로 편성된 후보생대대의 대대장에는 교수부 진술학과의 일반공격전술학반 敎官인 張泳文소령이, 同副대대장에는 金光淳스령이 임명되었으며, 各 중대장으로서는 학생연대의 중대장인 黃義善대위가 제1중대장으로, 李春培대위가 제2중대장으로, 河范壽대위가 제3중대장으로, 그리고 李承俊대위가 火器중대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들 후보생은 모두가 M1소총에 의한 美式훈련을 받은 것으로서 대부분은 M1사격훈련을 끝내었던 것이나, 이 가운데 6월 2일에 入校한 제3기 甲種간부후보생은 M1소

◇ 상황도 제19호 金浦사령부의 최초병력배치(6.26)



총의 機械훈련만 마치고 實彈사격훈련은 26일(월요일)에 실시하기로 교육계획이 짜여져 있어 실제로 그들은 단 한발의 사격도 하여보지 못한 상태였다.

거기에서 학교가 保有하였던 M1소총은 전날 출동병력과 함께 汶山으로 추진된 터이라 이들에게는 거의가 38式 또는 99式등의 日製소총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火器教育을 다시 실시하느라고 저녁에야 증대편성을 끝내게 되어, 그 역시 정발차량의 前照燈으로 밤길을 밝히면서 金浦로 北上하게 되었다.

**陣地投入** : 그리하여 이들은 金浦地區전투사령부의 命令으로 다시 通津으로 나아가 밤중으로 보국대대진지 東쪽(通津 東南쪽, 通津—金浦도로 右側)의 野山地帶에 右로부터 제3, 제2, 제1중대순으로 3개 중대를 併列하고, 교육용 81mm박격포와 기관총등으로 장비된 화기중대로써 이를 일선 중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6. 敵의 渡河企圖

이리하여, 이날 밤 안으로 通津을 중심으로하는 반도의 西北端에는 3개 대대의 병력이 들어서게 된 셈이나, 이들은 모두가 저마다 독립된 행동에 의하여 逐次로 投入된 것이므로 事前에 부대間的 協調가 이루어지지 않아, 一貫된 陣地를 占領하지 못하고, 각 대대장의 獨斷에 따른 부대배치에서 병사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이 그곳에서 對敵하게 되는 것으로만 아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敵情에 대한 인접間的 橫的인 情報의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通信手段이 강구되지 못하여 그 정보가 金浦의 지휘부에도 즉각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였으니 이러한 형편으로서 敵의 侵攻에 대하여 조직적인 抵抗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너무도 自明한 노릇이었다.

제12연대와 기갑연대의 혼성병력의 진지편성이 대충 끝난 16.00를 전후하여 漢江에 대한 敵의 渡河偵察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피난민을 假裝하여 작은 漁船등으로 산발적인 도하를 꾀하다가 해가 질 무렵부터는 發動船이 曳引하는 渡河舟艇을 이용하여 소대규모씩 對岸의 “석류포”로부터 祖江里로 상륙을 企圖하였다.

이에 祖江里로 增援된 장갑소대(장, 郭應哲소위)가 장갑차의 37mm포로써 半渡中인 敵船을 擊沈하니 敵은 晝間的 祖江里로의 상륙을 포기한 듯 더 이상의 渡河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 동안, 敵이 필사 乘夜越嶺의 夜盜手法을 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날씨가 흐려 漆夜의 어둠에 가려진 漢江邊에서는 별다른 敵情을 잡지 못한채 다시 한 밤을 새우게 되었다.

그러나 西쪽의 鹽河邊에서는 甲申에서 渡河를 노린 敵의 일부가 事前에 江岸을 확보하고자 한 듯, 鹽河를 건너 △180 西쪽 河岸으로 侵透하여 同고지의 보국대대진지를 急襲한 까닭으로 子正무렵에 南쪽의 보국대대진지가 먼지 휩쓸리는 바 되고 말았다.

6월 27일 : 날이 밝자, 敵의 渡河가 本格化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匕首가 腰背로 겨누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正午에 육본이 始興으로 철수 하였던가 午後에는 美軍의 赴援소식과 함께 龍山으로 다시 復歸하는 등, 陸軍本部가 태연히 漢江을 넘나들어 始興과 龍山을 왕래하는 상태였으니, 이동안에 事態는 견잡을 수 없이 惡化되었다.

### 1. 河岸線의 瓦解

敵의 渡河공격 : 전날밤 敵의 일부가 甲申 南쪽에서 鹽河를 건너 △180의 보국대대(장, 方國哲소령)진지를 急襲한 까닭으로 同대대가 날이 밝기도 전에 潰散되고 말았는데, 北쪽의 漢江에서도 敵이 夜暗을 타서 康寧浦 東南쪽의 江岸一角에 상륙 함으로써 康寧浦부근의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順華소령)의 제1중대와 △103의 同 제3중대 사이에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굳혀, 그곳에 또한 江岸을 확보한 가운데 날이 새자, 北岸의 領井浦에 122mm野砲를 放列하여 祖江頭와 康寧浦일대를 強打하는 渡河支援사격을 시작하였다.

먼동이 트면서 領井浦부근에는 수집한 갖가지 船隻들에 병력과 증장비를 分乘한 敵이 그들 포병의 掩護下에 康寧浦로 渡河를 강행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전날 밤에 康寧浦 東南쪽의 江岸을 확보한 敵이 康寧浦—通津도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는데 江岸에서 敵의 渡河를 막던 제12연대 제1중대와 장갑소대는 이같은 腹背併襲의 威脅에다 敵 포화의 위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 通津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敵의 主力이 康寧浦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103와 佳金문의 同 제3, 제4중대의 철수도 誘發되었다.

제12연대 제2대대의 逆襲실패 : 이에 08.00, 通津의 제2대대장 韓順華 소령은 康寧浦에서 철수한 장갑소대와 전날 밤 △180에서 흩어진 보국대대의 일부를 흡수한 다음 예비인 제2중대를 지휘하여 上陸한 敵을 격퇴하기 위하여 康寧浦로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路幅이 좁아 先頭의 장갑차의 迂轉이 곤란함으로써 進退가 자유롭지 못하고, 敵의 포화가 熾盛하여 장갑차 지원화력의 활용을 크게 기대 할 수 없게 된 까닭으로 火力의 劣勢를 免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古幕里(通津 北쪽 1.5km)부근에 이르러 文珠山의 東으로 밀려드는 敵과 부딪친 결과, 그 敵勢를 막을 길이 없어, 다시 通津으로 물러서는 바 되고 말았다.

이 무렵 鹽河邊에서도 敵이 이른 아침 안개속으로 漁船을 이용하여 甲申일대로부터 渡

河를 試圖하였는데, 그들은 어느새 江華부근에 120mm박격포를 추진하여 對岸의 渡船場과 通津일대에 대한 사격을 시작하였다.

기갑연대 혼성대대의 철수 : 그곳의 徒步 제9중대와 騎兵제7중대가 장갑소대의 지원아래 그들 敵의 渡河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180부근의 敵으로부터 背後攪亂과 康寧浦쪽에서의 侵勢를 勘考하였음인지 09.00를 전후하여 通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通津에 접절한 제12연대와 기갑연대의 혼성병력은 장갑차의 掩護下에 通津에서 金浦와 仁川으로 갈라지는 도로의 삼거리인, 長林(通津 東南쪽 6km)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180를 점령한 敵의 일부가 通津—長林도로의 南쪽으로 迂回하여 “걸고개”(通津 東南쪽 3.5km)를 차단하여 隘路를 막고 있었다.

이에 장갑차를 선두에 내세워 이로 하여금 岡고개를 돌파케 함으로써 이들 혼성병력은 11.00에 長林에 이르러 그곳에 새로운 阻止障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후보생대대의 철수 : 한편 전날 밤 通津 東南쪽의 野山지대에 진지를 마련한 보병학교의 후보생대대(장, 張泳文소령)는 이날 아침부터 北쪽에서 가까워지는 砲聲을 들으며, 敵이 陣前에 나타나기를 扼腕待機하였다.

08.00가 지나니, 敵의 정찰대인 듯한 1개소대규모가 대대의 左一線인 제1중대의 陣前에 나타났는데, 그들 敵이 소총有効射距離안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다가 일제사격으로 覆滅하자 이어 敵과 全面接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180쪽으로부터 대대의 左側背가 찢리고, 後方의 火器중대진지에 먼저 敵이 뛰어들게 됨으로써 이도 또한 맥없이 철수하게 되어, 11.00에 長林線에서 제12연대 제2대대와 합勢케 되었다.

그리하여 기갑연대의 騎兵과 보병은 金浦邑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가 장갑중대의 지원아래 長林線을 맡게 되었는데, 후보생대대는 長林 삼거리 北쪽 丘陵지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長林—金浦邑의 도로를 制扼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일부가 漢江邊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제2중대로써 그 南쪽의 天馬山(△60)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長林—陽谷(長林 南쪽 4km)間的 도로를 차단하였다.

그런데 이때 후보생 대대원들이 裝備한 99式소총은 그 조작과 사격방법이 M1소총과는 달랐으며 더우기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고 放置해두었던 것이므로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으로 擊發에 장애가 잦아 실은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이 동안에 敵은 1개 대대규모로써 각종 重火器와 함께 文珠山일대를 席捲하고, 곧 通津 金浦가도를 따라 侵攻을 계속하였다.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가 長林에서 이들 敵의 侵流를 막고자 안간 힘을 다하였으나 力不足으로 13.00를 前後하여 그 線에서 무너지게 되어, 후보생 대대는 金浦邑쪽으

로, 제12연대 제2대대는 陽谷쪽으로 각각 撤收하고 말았는데, 이로써 敵은 이날 낮중으로 金浦平野에까지 그 兇貌를 나타나게 된 것이다.

## 2. 雲遊山 阻止線의 확보

長林에서 물러난 후보생대대(장, 張泳文소령)는 金浦平野를 지나 15.00에 雲遊山(표고 110m정도; 金浦邑 西北쪽 5km) 北麓에,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順華소령)는 陽谷부근에 각각 진지를 다시 편성하였다.

이때 기갑연대 혼성병력과 南山학교 및 보국대대는 金浦邑에 집결케 되었는데 보국대대는 永登浦의 本隊로 복귀하였다.

후보생대대장의 戰死: 한편 雲遊山에 진지를 점령키로 한 후보생대대는 2개중대를 제일 선에 배치하고 1개중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自然地物만을 이용한 龜編진지에서 敵을 막기로 하였던바, 이 대대를 接應한 敵의 일부가 미처 진지편성도 끝나기전에 陣地에 들이닥쳐, 곧 接戰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戰場경험이 전혀 없었던 후보생 가운데는 계속되는 敵의 壓力에 戰意를 잃고 진지를 離脫하는 자가 續出하였다.

이에 이들 후보생들을 奮勵하면서 진지를 固守코자 陣頭에서 지휘를 하던 대대장 張泳文소령이 頭部에 狙撃을 받아 그 凶彈에 戰死하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후보생대대의 戰列이 일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때를 틈탄듯 敵의 騎兵隊가 金浦街道를 따라 突進함으로써 金浦邑이 그들 手中에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기갑연대의 장갑중대와 도보중대가 金浦邑으로부터 挺進出擊하여 그 騎兵隊를 격퇴함으로써 雲遊山線의 突破를 막아내었다.

金浦地區전투사령부는 흩어진 후보생대대의 병력을 金浦邑에서 수습하고 매마침 富平의 제1병기대의 兵器庫에서 추진된 M1 소총으로 각개병사의 장비를 교환하여 이들로써 心機一轉으로 이날 밤 雲遊山의 固守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분산된 일부 병력은 始興의 本校로 복귀하였으며 제12연대와 기갑연대에서도 富平으로 철수한 병력이 적지않았다.

## 3. 兵力의 增強

제22연대 제3대대의 增援: 한편 25일아침 大邱의 제3사단(장, 劉升烈대령)은 육본으로부터 제22연대(장, 姜泰敏중령)의 서울 추진을 명령받게 되었는데, 당시 사단장 劉升烈대령은 光州의 제5사단(장, 李應俊소장)과의 智異山地區 공비격멸에 대한 협의차 靑州에 出行中이었으므로 우선 참모장인 禹炳玉중령이 同연대를 이끌고 11.00에 열차편으로 上京하여 午後 늦게 龍山에 도착과 동시 首都경비사령부의 지휘하에 들어가 제8연대의 兵舍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5, 26兩日동안 前線의 戰況을 注視하면서 驛肉을 喫하고만 있던 중 이날 10.00 부 육본作命 제97호에 따라 연대 主力인 제1, 제2 兩대대는 연대장 姜泰敏중령의 지휘아래 幸日川地區의 제1사단을 赴援케 되었으며 제3대대(장, 孫永乙소령)는 참모장 禹炳玉중령과 함께 午後에 金浦地區로 출동하게 되었다.

大邱에서 열차로 함께 수송한 自隊車輛으로 저녁에 金浦邑에서 집결한 地대는 곧 金浦地區 전투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雲遊山 東쪽 (長林—金浦도로 東側 漢江邊)의 △73(雲遊山 東쪽 3.5km)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그 左側의 후보생대대 및 저녁에 다시 增援된 제8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金浦邑에 대한 最後의 阻止線을 맡아 把守케 되었다.

이때 陽谷의 제12연대 제2대대는 잔여병력이 150명에 불과하여 金浦邑으로 철수하여 재편에 들어갔다.

기갑연대 徒步제8중대의 復歸 : 또한 전날 漢南洞에서 加平으로 挺進한바 있는 기갑연대의 제8중대(장, 金一綠중위)는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제6사단의 春川—洪川지구전투 참조) 이날 아침 서울로 反轉한 제8연대 제3대대의 뒤를 따라 兪臺里를 거쳐 16.00에 연대 본부로 복귀하였는데, 이도 同제8연대 제3대대(장, 朴泰云소령)와 함께 곧 漢江을 건너 저녁에 金浦의 대대와 合勢한 다음 雲遊山진지에 投入되었다.

그런데 이날 낮에 金浦邑에 집결한 騎兵제7중대(장, 金村成중위)는 이때 漢江邊의 △63(△73 西北쪽 2km)에 挺進配置되어 제22연대 제3대대 前方에서 敵의 漢江으로의 迂回侵襲에 대비하게 되었다.

富平지구 兵力動員 : 이날 富平지구의 殘留병력도 金浦戰線에 動員되었는데, 제1공병단(장, 尹泰日중령) 산하의 일부는 富平—金浦邑사이의 桂陽山(△395 : 富平 北쪽 7km) 東麓의 防禦里부근으로 추진되고, 병기학교(장, 沈彦俸 대령)에서는 기간장교(敎官)로써 將校特戰隊를 편성하여 漢江邊의 錢湖(金浦비행장 北쪽 4km)부근에 배치하게 되었다.

즉, 병기학교 기간요원은 開戰과 동시에 제1병기대대(장, 金昌培소령)의 탄약창고중대와 함께 議政府前線에 대한 탄약수송에 임하다가 이날 아침에 敎官 60명으로써 장교특전대(장, 金仁泰대위)를 편성하여 校內에 대기하던 중, 午後에 敵이 金浦반도의 西北端을 席捲하였다는 정보의 더불어 20.00에 육본으로부터 『金浦비행장 北쪽의 漢江을 防禦하라.』는 명령을 受領케 되었다.

이에 22.00 金仁泰대위가 지휘하는 장교특전대는 徒步로 金浦비행장을 迂回하여 幸州渡船場 맞은 편 錢湖에 江岸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同특전대는 江邊의 砂場에 수류탄 100여발을 引繼鐵線으로 연결하여 폭발장치를 설치한 다음, 다시 車輛을 구하여 학교에서 수류탄 300발을 推進, 확보하였다.

그러자 새벽에 彼我를 알 수 없는 일단의 병력이 對岸에서 배를 타고 渡江하려하므로 수류탄을 投擲하여 그들의 接岸을 막았는데, 그 수류탄의 연쇄폭음에 그쪽으로의 渡河를

중지한듯, 그뒤로 날이 밝도록 별다른 隻影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金浦반도에서 彼我が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밤을 맞이한 雲遊川線에서는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暴雨로 변하여 戰場을 침묵케 하였는데, 終夜로 戰衣를 적신 장병들의 悲憤에 찬 心中을 하늘이 헤아리는듯 하였다.

그리하여 밤 동안 더 이상 敵이 侵攻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交綏중에 一夜를 세우게 되었거니와 이는 아마도 敵이 雨中이라 機動에 어려움이 없지않을뿐 아니라 長林에서 金浦邑까지는 그 도로가 平野지대를 지나야하므로 부분적인 侵透나 迂回가 곤란할 것으로 내다보고, 長林線에서는 그들이 隊伍의 整齊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월 28일 : 이날 天明과 더불어 날씨도 맑아졌다. 날이 밝자, 敵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 1. 金浦邑의 喪失

06.00, 漁船으로 半島 東쪽의 漢江을 逆流하여 접근한 敵의 일단이 船上에 82mm 박격포를 裝置하고 사격을 가하면서 △63의 東北쪽 江岸에 상륙함으로써 이날의 첫 교전의 신호가 울랐다.

이에 江岸을 노려보면서 雨中의 진흙탕속에서 밤을 지새운 騎兵제7중대(장, 金村成중위)는 全火力을 집중하여 이에 應酬하였으나, 力不足인데다가 敵의 박격포가 집중됨에 따



〈騎兵隊의 한 모습〉

라 守馬중인 馬匹이 一騎兵隊의 창설이 日淺한 까닭으로 音響調教가 미처 끝나지 못한 그 포성에 놀라 搖動함으로써 하는 수 없이 敵과 離脫하여 △63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이 △63일대를 손에 넣게 됨으로써 곧 그 南쪽의 △72에 있는 제22연대 제3대대(강, 孫永乙소령)와 接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雲遊山쪽에서는 敵이 長林부근에서 支援되는 포화로써 雲遊山과 金浦邑사이의 野地를 火力차단하면서 08.00에 연대규모로써 전날에 北쪽의 漢江河口로 건넌듯한 戰車 2대를 앞세우고 水路가 뒤엎힌 長林 東南쪽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후보생대대의 陣前으로 접근하였다.

여기서 將兵들은 議政府戰線으로부터 傳聞된바 있는 戰車의 威力을 實感하게 되었다.

金浦地區전투사령부의 撤收: 이에 金浦地區전투사령부는 08.00에, 전날밤 金浦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제12연대 제2대대의 잔여병력을 雲遊山으로 다시 추진하여 戰力의 강화를 圖謀하였으나, 終夜도록 雨中에서 지새우고 朝食마저 거르게 된 상태에서 銳氣에 찬 強敵을 맞게 되었으니, 장병들은 오직 鬪志 하나만으로 버티어낼 뿐이었다.

이동안 敵砲火는 점차 射程을 延伸하여 金浦邑에 포탄이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10.00에 同전투사령부는 空軍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지휘소를 金浦邑 東南쪽 2km의 街道上으로 물러서 桂仁珠대령과 崔用德 준장등 兩사령부의 首腦가 장차의 對應策을 논의하였으나 結論이 漠然하였다.

그런 가운데 雲遊山진지에 대한 回守決意를 動搖케한 悲報가 날라들었는데, 이날 새벽에 轟然一發의 爆音이 千秋의 恨을 남게한 漢江人道橋의 폭파소식 그것이였다.

이에 정확한 상황판단의 겨를이 없이 戰勢가 결정적으로 기울었다고 判斷하게 된 同사령부는 半島의 中部에서 膠着상태로 淹滯되어 있는 동안에 敵이 永登浦쪽으로 渡河를 한다면 退路를 차단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부대를 우선 富平지구로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急變한 상황에 즉응하여 신속한 處置의 決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戰線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11.00前後하여 雲遊山진지의 中央部인 長林—金浦가도에 2.36" Rocket砲의 集中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猜突하는 敵의 戰車와 自走砲로 말미암아 突破口가 형성됨으로써 철수명령이 下達되기에 앞서, 병력의 일부가 진지에서 물러나는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1.00 사령부의 철수명령에 따라 金浦도로 西쪽지역인 雲遊山일대의 진지를 지령중이던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 및 기갑연대 도보중대는 金浦邑에서 章陵山(△146 金浦邑 南쪽 1km) 桂陽山의 東麓을 따라 富平으로 질결하고, 장갑차와 제8연대 제3대대 및 제22연대 제3대대의 일부는 사령부와 함께 金浦비행장을 指向하여 金浦街道를 따라 東南쪽으로 빠졌는데, 장갑차는 비행장—永登浦가도를 機動경계하고, 보병일부는 掘浦川을 건너 開花山에 阻止진지를 다시 마련하였다.



따라서 12.00를 전후하여 敵의 先遣隊가 마침내 金浦區에 진출하게 되었다.

**사령관의 失蹤** : 13.00에 空軍의 경비사령부는 비행장을 비우고, 永原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金浦地區전투사령부는 14.00에 지휘소를 비행장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開花山진지의 補強에 注力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지휘소의 移轉이 거듭되는 濶中에서 사령관 桂仁珠대령이 失蹤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따로이 論及코자 하거니와(研究란 참조) 이에 따라 참모장 崔福珠중령이 그 지휘봉을 대신 잡게 되었다.

늦은 午後부터는 汶山지구의 제1사단병력이 幸州와 水色부근에서 漢江을 渡河하여 일부는 水登浦를 경유하여 始興으로 向하고, 일부는 비행장으로 모여들게 되어, 사령부는 이들 철수병력의 수습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金浦區를 席捲한 敵은 1개 연대규모의 병력과 馱馬로 추진한 野砲등으로써 戰列을 全面 재정비하는 듯 하였는데, 돌이켜 보면 敵이 金浦만도 北端에 상륙을 시작한지 30시간 以內에 반도의 基底인 金浦區까지 진출하였으니, 여기에서도 그들이 38°線에서와 같이 氣勢를 몰아 侵襲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육군본부는 始興戰鬪司令部(사령관, 金弘壹 소장)를 편성하여 漢江線의 防禦에 全力을 다하였으니, 당면한 鷲梁津-水登浦에 방어의 重點을 둔 나머지 이 金浦쪽에 대하여서는 손을 쓸 餘力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병학교 참모장 金龍周 중령과 제3사단 참모장 禹炳玉 중령등 마땅한 所任을 맡지 못하고 浮動의 상태에 있는 일부 高級將校들이 金浦지구에 動員되어 督勵만을 하였을 뿐, 실제로 戰況의 好轉을 期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

## 2. 金浦地區戰鬪司令部的 戰列再編

**사령부의 素砂移轉** : 날이 저물자 敵의 先遣隊가 다시 金浦가도를 따라 東南向으로 衝鋒을 延伸하여 비행장을 목표로 들이닥쳤다.

이에 사령관 대리 崔福珠 중령은, 비행장에 收容한 혼성병력은 그야말로 烏合之衆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므로 組織的인 저항을 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後圖를 策하기로 단안을 내려, 지휘부와 집결병력등을 비행장으로부터 京仁가도의 素砂로 이동케 하였다.

그리하여 日沒과 더불어 비행장마저 보급품을 燒却하는 불길의 富平平野(掘浦川邊의 水利畚地)를 밝히는 가운데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는데, 이곳에서 始興과 漢江의 人道橋까지는 각각 垣垣大路로 14km 内外이니, 그 人道橋를 중심으로 漢江을 天然의 장애물로 삼아 渾身의 힘으로 펴고 있는 得意의 防禦線이 과연 얼마나 오래동안 支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상 여기서 이들 敵을 어떻게 牽制抑留하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던 것

이다.

**敵의 企圖** : 이날 저녁 金浦地區전투사령부는 崇砂邑事務所에 지휘소를 開設하고, 住民의 協력을 얻어 수용병력에 대한 給食을 서두르는 한편, 各隊別로 밤을 세워 隊伍를 수습하였다. 그리고는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및 富平警察隊(장, 金德淳 경감)로써 桂陽山東쪽 稜線에 배치하여 金浦-富平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22연대와 제12연대 병력으로써 비행장 南쪽 丘陵지대의 △107(비행장 南쪽 4km)일대에 배치하여 비행장쪽에서 素砂로의 敵 南進에 쇄기를 박도록 응급조치하였는데, 이때 제8연대의 제3대대는 비행장에서 永登浦쪽으로 轉進함으로써 새로운 活動무대를 열게 되었다. (次節, 驪梁津-永登浦부근 戰況·참조)

그런데 전날밤을 錢湖에서 지새운 병기학교의 장교특전대는 이날 아침이 되자 對岸에서 일단의 병력이 東南으로 機動하는 것이 보였으나 역시 彼我를 확인치 못한 가운데 낮 동안은 元堂(비행장 東쪽 4km)부근에 潛伏하여 炎天의 驟陽을 피하면서 홀로 江邊의 敵情을 살폈으나 그 부근에서는 敵의 出沒이 없어, 날이 저물자 夜暗을 타고 富平의 本校로 돌아갔는데, 子正무렵 비행장 南쪽의 野地에 敵의 정찰대가 橫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敵勢를 概觀하면, 敵은 이날 金浦邑의 장악에 이어, 主力은 그곳에서 지원부대의 후속을 기다리면서 정찰대를 비행장과 桂陽山쪽으로 내보내어 我軍의 動靜을 탐색하려 한바 桂陽山쪽에서는 阻止線이 확인된 반면 비행장이 비어 있음을 알고 밤을 도와 대대규모로써 이 비행장을 확보한 것으로 추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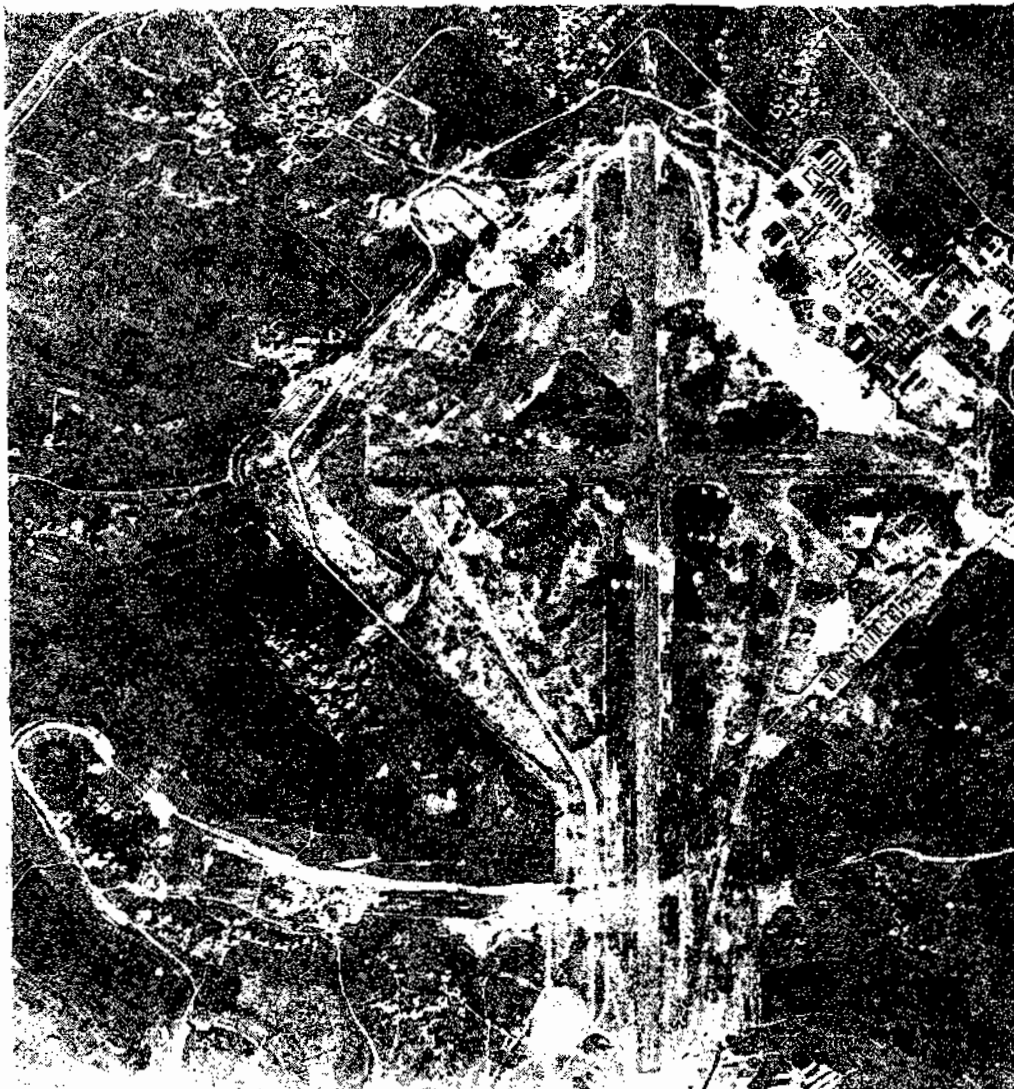
敵은 또한 仁川港과 富平의 보급기지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이 富平쪽에는 我軍의 配屬이 있을 것으로 보아 桂陽山쪽에서는 我軍의 강력한 저항을 예측한 듯, 이날 子正前에 桂陽山쪽에서 敵의 정찰대에 의한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을 뿐, 날이 밝으니 비행장쪽으로 侵略를 바꾼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敵은 素砂로 直衝하여 京仁街道上的 煙滾을 놀려 富平의 基地를 無力化하는 동시에 永登浦로부터 漢江線의 背後에 壓力을 加함으로써 이 漢江線의 撤退를 강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었는데, 다만 그들이 幸州 對岸의 漢江邊에서 我軍의 渡河를 妨害하는 조치를 일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 金浦의 敵은 1개 연대로써 그들의 前線司命部와 연락이 원활치 않아 독자적인 상황판단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날 밤까지도 그들은 제1사단의 渡河철수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推斷되었다.

**飛行場의 탈환계획** : 이날 밤 金浦지구전투사령부가 사령관이 失蹤되는 가운데 素砂로 進發하자, 始興전투사령부는 現地の 제3사단 참모장인 禹炳玉 중령을 새로이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그에게 이르기를 『火急히 병력을 수습하여 金浦비행장을 탈환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給與사령부의 비행장 탈환명령은 비행장의 敵이 반드시 거쳐야 할 侵攻路上의 要地라는 검토 있거니와 南州에서 도하철수중인 제1사단의 撤退路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따라서 新任 사령관 禹炳玉 중령은 03.00에 모든 병력을 素砂에 집결시켜 一 桂陽山인대는 營察隊에 一任하고 一 戰列을 가다듬은바, 제22연대 제3대대(장, 孫永乙 소령)와 기갑연대의 徒步대대(장, 姜文憲 대위)만이 비교적 견적할 뿐, 대대장이 戰死하여 副대대장 金光淳 소령이 지휘하게 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1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며 韓順華 소령이 통합지휘중인 제12연대 제2, 제3 兩대대도 150명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의 金浦飛行場 : 1950. 7. 26 항공촬영>

기갑연대의 장갑중대(장, 朴道環 대위)는 일부가 永登浦쪽으로 전환되어 2개 소대도 채 되지 않았으며 騎兵중대는 馬糧의 受給이 해결되지 않아 安養의 本隊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可用병력으로써 다음날 早朝를 期하여 비행장탈환전을 敢行하기로 決心한 사령관의 腹案은 대개 이러하였다.

- 『① 當 전투사령부는 明 29일 06.00를 期하여 金浦비행장을 탈환하려 한다.  
 ② 기갑연대 도보대대는 右一線으로써 비행장의 東南쪽을 공격하라.  
 ③ 제22연대 제3대대는 中央一線으로써 비행장의 南쪽을 공격하라.  
 ④ 제12연대 제2대대는 左一線으로써 비행장의 西北쪽을 공격하라.  
 ⑤ 남산학교와 보병학교는 예비로써 右一線을 후속하라.  
 ⑥ 기갑연대의 장갑중대는 최초 공격부대로 火力支援한 다음, 비행장을 점령하면 永登浦—金浦街道로 轉進하여 제1사단의 철수를 掩護하라.  
 ⑦ 공격개시선은 新月里(비행장 東南쪽 2km)—△107(新月里 西南쪽 4.5km)間の 丘陵線이다.  
 ⑧ 공격間, 諸兵力은 참모장이 現地統수 지휘하라.  
 ⑨ 지휘소는 素砂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참모장 崔福洙 중령이 이 공격을 지휘하게 된 것은, 通信手段의 未備로 지휘소의 사령관이 상황에 즉응하는 지휘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崔중령이 현지 지휘를 自願한 까닭에서인데, 이는 비행장 부근의 南山學校를 수복하려는 一念과 前사령관인 桂仁珠 대령의 失蹤에 따른 一沫의 罪戾感을 느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다음 날의 雪憤을 위하여 銃劍을 가는 동안, 어느 덧 날이 밝게 되었다.

#### (나) 金浦飛行場—梧柳洞부근 攻防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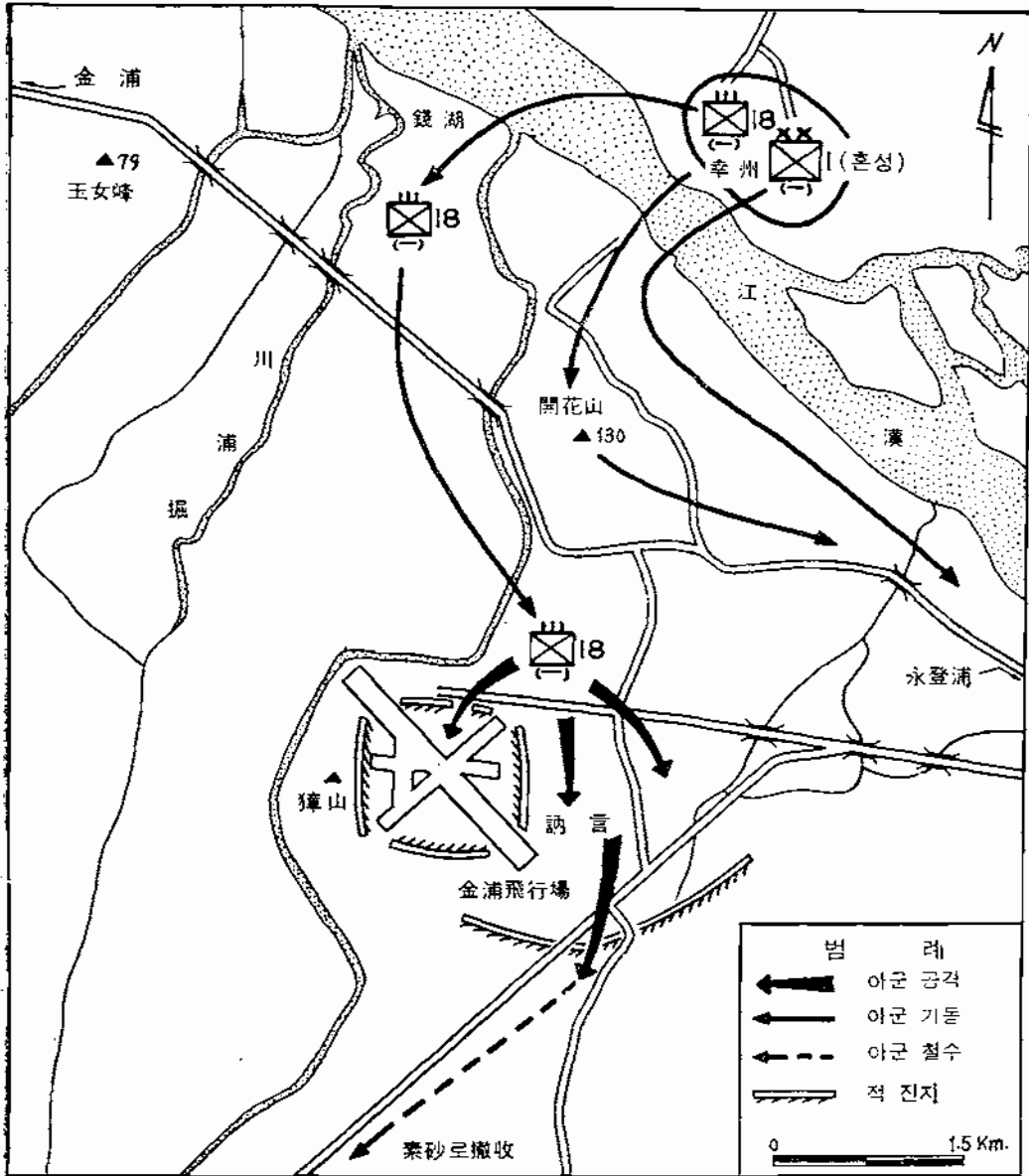
6월 29일 : 이날 金浦전투사령부는 예정대로 反擊의 大鼓를 울렸다.

各個장병의 死而不還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06.00에 崔福洙 중령의 전투지휘아래 素砂—金浦도로를 따라 北進하여 공격개시선에 부대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異變이 突發하게 되었으니, 각 대대가 공격대기 지점에서 支援에 입할 지원 화기의 諸元을 點檢하는 등 마지막 戰列을 점검하는 동안에, 비행장 北쪽에서 交戰의 銃聲이 朝霧를 헤치고 울려왔던 것이다.

#### 1. 제18연대의 비행장 突破

연대의 漢江渡河철수: 전날 오후에 幸州 나루터에 집결한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의 제2, 제3대대와(제7사단의 東豆川 부근전투 참조) 제22연대(장, 姜泰敏 중령)의 제1, 제2대대.

◇ 상황도 제20호 제18연대의 비행장 공격狀況(6.29)



및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의 제1, 제2대대 등이 수집한 거룻배를 이용하여 밤새도록 漢江을 도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18연대는 비교적 隊伍가 건전한 채로 30여척의 浮船으로써 幸州渡船場에서 鏡湖쪽으로 건넜는데, 副연대장인 韓信 중령이 1개 중대를 지휘하여 먼저 鏡湖의 無名 고지를 橋頭堡로 확보하는 가운데 제2, 제3대대의 建制順으로 渡江하였다.

그리하여 浮船을 왕복함으로써 제2대대(장, 張春樞 소령)는 밤중으로 渡河를 끝내었으

나 제3대대(장, 安政一 소령)의 제11중대가 전널무렵에 날이 밝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敵의 박격포가 渡河點을 亂打함으로써 마지막 제12중대는 미처 건너지 못한채로 05.00에 錢湖로부터 南向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연대(一)는 掘浦川의 水路가 끝닿는 富平을 목표로, 제2대대를 선두에 내세워 이로 하여금 進路를 개척케 하면서 金浦—永登浦가도쪽으로 나섰는데, 이때 西北쪽의 玉女峰(△ 79 : 開花山 西北쪽 4km)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敵의 박격포가 앞을 가로 막았다.

이에 대대는 제5중대(장, 金炳哲 중위)의 1개 소대로써 그 敵火를 견제케 하는 가운데 主力은 行首를 永登浦쪽으로 東南向하여 金浦비행장—素砂로 그 목표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開花山의 西麓에 이르러 漢江水利組合의 幹線水路의 堤防을 따라 南向하여 비행장에 이르자 望樓에 銃座를 마련한 敵의 기관총이 진로를 위협하였다.

이에 2.36" Rocket砲로써 望樓를 격파하고, 제5중대로 하여금 비행장에 突入하게 함으로써 또 한번 敵의 注意力을 견제토록한 다음 제6, 제7중대를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前進를 계속하게 하였다.

제2대대의 挺身突破 : 제5중대가 비행장 北端에서 철조망을 넘어 돌입한 뒤, 제6, 제7 兩중대는 비행장 入口 근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다시 다른 竊巢로부터 亂射되는 기관총 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녕 我軍의 服裝인지라, 제8중대장 李秀峰 대위가 單身으로 彼我를 확인코자 접근하다가 不意에 다발총의 집중사격을 받아 戰死하는 혼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대는 지체없이 敵陣의 강행돌파를 試圖하였는데, 이때 마침 09.00에 B—29編隊가 구름속에서 銀翼을 자랑하면서 나타나 비행장에 폭탄을 投下함으로써 순식간에 그 일대를 燬滅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대대는 부근의 敵을 剷却하는 한편, 제7중대(장, 李圭大 중위)를 東쪽의 外鉢山洞쪽으로, 제6중대(장, 金斑雲 중위)를 南쪽의 滑走路인 訥言里쪽으로 각각 내보내 突破口를 探索케 한 바, 外鉢山洞 일대에는 강력한 阻止線이 형성되었고, 訥言里부근에서도 만단창은 抵抗을 받게 되어 돌파구의 啓開가 如意치 않았다.

이 무렵인 10.20에 비행장에 돌입한 제5중대가, 爆擊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틈타, 敵의 捕虜가 되어 그곳에 抑留中이던 我軍병사들을 구출하여 本隊와 合勢하였으므로 다시 대오를 가다듬어 대대장 張春權 소령이 직접 陣頭에 나서, 기관총 2정을 지휘하여 訥言里 정면을 穿貫한 다음, 이어 全力을 집중함으로써 進路를 打開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先導인 제2대대의 挺身敢鬪로써 11.00를 전후하여 연대는 큰 손실없이 비행장부근의 敵陣을 突破하고, 포로가 된 僞兵을 구하는 意外의 功을 세우면서 14.00에

素砂부근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必死則生의 詭計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일이었다.

## 2. 金浦전투사령부의 비행장 攻擊

비행장의 東北쪽에서 제18연대의 이같은 血戰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다만 激烈한 銃聲을 들으며 B-29의 폭격으로 火焰에 휘감긴 모습만을 보았을 뿐,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金浦전투사령부(장, 禹炳玉 중령)는 同연대가 訥晉里 근처에서 마지막 突破口을 뚫을 때인 10.30을 전후하여 비행장의 西南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격에 앞서, 비행장에 대한 空襲이 있는 뒤였으므로 목표인 敵의 動態를 살피고자, 崔福洙 중령은 남산학교의 S-1인 安永作대위를 정찰차 내보낸 결과, 비행장 南쪽 1km의 “안오쇠”(內五錫) 부근에서 伏兵의 狙擊을 받아 戰死하고 말았다.

그러하여 空襲에도 불구하고 敵이 계속 비행장을 확보중인 것을 확인한 戰鬪部는 기갑연대의 徒步대대(장, 姜文憲 대위)로 하여금 장갑차의 掩護下에 潛走路의 東南端으로 突入하도록 하고, 제22연대 제3대대(장, 孫永乙 소령)로써 “안오쇠”부근의 敵을 剽劫케 한 다음 비행장 南쪽으로 直衝하고, 제12연대 제2대대(장, 韓順華 소령)로써 비행장의 西北쪽으로 迂回케 하여 嶽山을 점령케 함으로써 敵의 退路를 막도록 하였는데, 공격대장인 崔福洙 중령이 직접 Jeep를 타고, “안오쇠”부근까지 진출하여 부대의 前進를 독려했다.

徒步대대장의 戰死: 이리하여 기갑연대의 제3도보수색대대가 장갑제2중대(장, 朴道環 대위)의 엄호아래 대대장 姜文憲 대위를 선두로 목표인 潛走路의 入口를 향하여 나아가던 중, “안오쇠” 東北쪽에서 도로의 排水路에 潛伏중이던 일단의 敵으로부터 火力急襲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대동한 S-2 朴英秀 소위와 S-3 金壽童 소위 등과 함께 이들 敵에 應戰하였으나, 끝내 대대장 姜文憲 대위와 S-2가 敵彈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들을 구출코자 달려간 장갑중대 제2소대장 金貞雲 소위의 裝甲車도 敵의 反戰車龍에 襲撃되어 同소대장이 장갑차와 더불어 散華하고 말았다.

이에 뒤따르던 장갑중대 제1소대장 郭應哲 소위의 장갑차가 장갑포의 散彈 사격으로써 軍官 1명을 포함한 분대규모의 敵을 모두 殲殺하고, Czecho式 기관총을 비롯한 銃器 數挺을 노획하였다.

이어 同 장갑소대는 제3소대(장, 金慶麟 소위)와 함께 비행장에 대한 徒步대대의 火力 지원에 임하였다. 한편 대대는 이와같이 공격 起動에 대대장을 잃게 됨으로써 先任중대장(제8중대장)인 金一錄 중위가 대대장을 代理하는 가운데 扼腕憤起하였다.

그러하여 제8, 제9 兩중대가 활주로까지 突入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부터는 활주로의

건너편 건물속에 掩護된 敵과 마주 보면서 서로 火力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노출된 상태인 대대의 손실만이 續出할 뿐이었다.

이에 대대원들은 臨機應變으로 활주로 주위에 있는 빈 Drum桶을 遮蔽物로 삼아 앞에서 굴리며 활주로의 突破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如意치 않았다.

이와 같은 難況이 거듭되자 대대장 金一錄 중위는 과감한 돌격만이 死生을 가름할 뿐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선두에 나서서 지녔던 長劍(日本刀)을 뽑아들고, 『돌격 앞으로!』를 大號하면서, 白兵을 휘둘러 돌격을 敢行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몸을 일으키는 찰라, 敵彈이 그의 다리를 꿰뚫어 넘어뜨렸는데, 위생병이 달려가자 치료를 거절하고, 다시 몸을 일으켜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면서 敵陣으로 突入하여 白刀을 휘둘러 醜敵을 닥치는대로 베어 넘겼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兇彈의 집중을 받아 그곳에서 장렬한 戰死를 하고, 상황은 다시 急轉하여 대대는 활주로 밖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때 다른 대대의 戰況도 이와 大同小異하였다.

참모장의 憤死: 이와 같이 血戰의 보람도 없이 死傷者만이 累增되는 가운데 비행장 탈취 企圖가 無爲로 돌아가게 되자, 이를 陣頭지휘하던 참모장 崔福洙 중령이 끊어오르는 적분을 참지 못하여, 突然『이 大逆不道한 金日成 徒輩들아! 하늘이 무섭지 아니 하느냐!』하는 大喝一聲을 터뜨리며 기관총을 장치한 Jeep차를 몰아 활주로로 突進하여, 손수 左衝右突로 기관총을 휘두르다가 마침내 敵의 집중火力으로 말미암아 차량과 함께 火焰에 휩싸이는 悲壯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듯 스스로 死地에 뛰어들어 敢然히 玉碎의 길을 택한 그 胸中은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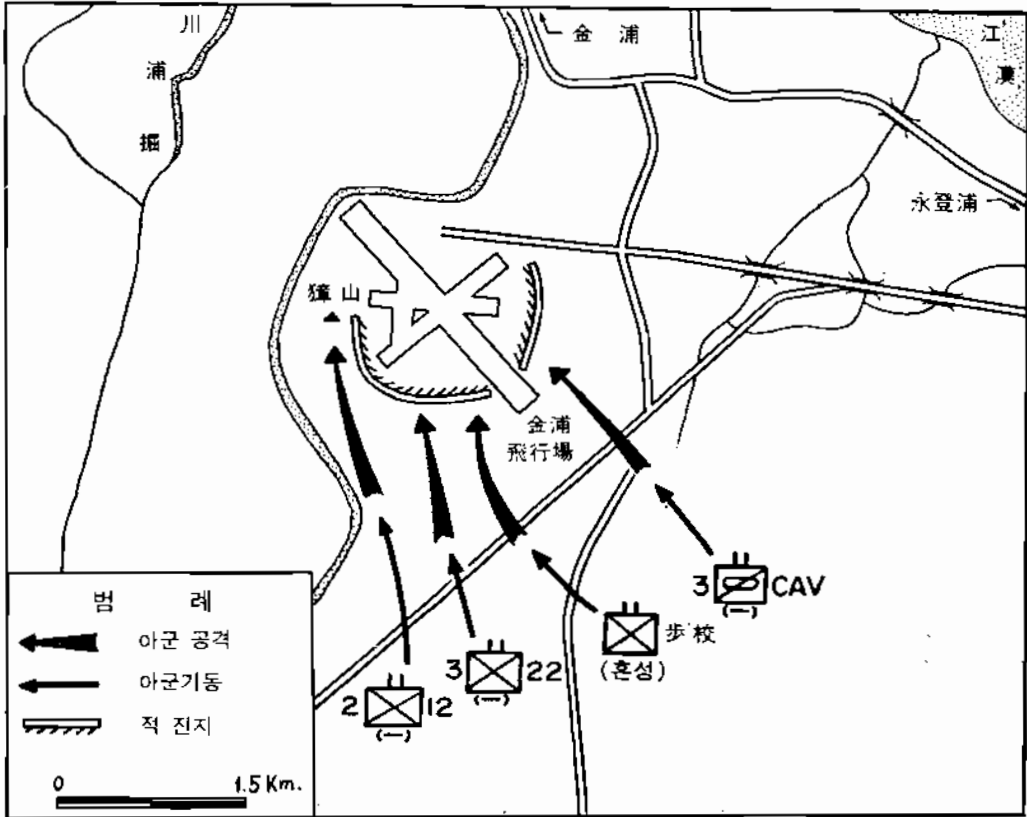
<故 崔福洙 중령: 任官直前의 모습>

崔福洙 중령, 그는 일찌기 舊日本軍의 陸軍士官學校를 나와 33部隊(中野學校)를 거친 경험이 있어, 新生 정보학교인 南山學校의 발전과 정보장교의 육성에 남다른 執念과 熱意를 보였던 것인만큼 이제 이 敵을 물리치지 못하면 畢境에는 그 學校마저 蹂躪하려 할 것이니, 그의 心血이 담긴 校庭이 赤狗에 밟히는 것을 차마 어찌 볼 수 있으랴. 참으로 죽음을 당하느니만 같지 못하였으리라.

먼저의 金一錄 중위는 威北 會寧출신으로 當年에 스물아홉살이었으며, 崔福洙 중령은 全北 金堤출신으로 그때 나이 스물여덟이라 하였으니 嗚呼라, 그 忠과 勇, 萬代에 길이 빛나라라.



◇ 상황도 제21호 金浦사령부의 비행장 공격狀況(6.29)



사령관의 自決 : 이리하여 이날의 비행장공격은 崔福洙 중령의 戰死로 中折케 되고 만았는데, 장갑차는 곧 金浦-永登浦가도로 빠져 嶺州쪽에서 渡河한 제1사단 병력의 철수를 업호하게 되었고, 공격부대는 16.00에 다시 素砂로 집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또 한가지의 悲報가 겹쳐 장병들로 하여금 慷慨에 사무치게 하였으니, 17.00에 사령관 禹炳玉 중령이 白身の 권총으로써 自決을 하고 만 것이다.

즉,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의 철수에 이어 素砂에 집결한 사령부 병력의 滿身瘡痍의 모습에, 禹炳玉 중령은 그 지휘관으로서의 責任을 痛感하고, 遼美山(素砂 東北쪽 1.5 km) 위에 올라가, 멀리 불길에 싸여있는 비행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 없이 悲憤의 눈물을 뿌린 다음, 한 發의 銃聲을 遺言으로 대신하고, 그도 또한 崔福洙 중령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이것이 정녕 어찌된 일인가?

이렇듯, 責任을 목숨보다도 더욱 重히 여겼음은 당시의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가짐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되, 모두가 이같이 目前의 成敗利鈍에만 목숨을 던진다면, 장차 다른날 다른 곳의 싸움은 뉘에게 맡기려는 것인가?

이리하여 殊王이 먼저 깨어지고 돌뿌리만 남게 된 것이다.

### 3. 金浦戰鬪司의 再編

이들만에 두 사람의 사령관이 바뀌게 된 金浦전투사는 그 根幹이 瓦解됨으로써 이제 사실상 통합사령부의 機能을 喪失하게 되었다.

이에 始興戰鬪司司令官인 金弘壹소장은 素砂지역에 집결중인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으로 하여금 該지역부대를 통합지휘토록 긴급조치하였다.

兵力의 再配置: 이리하여, 불과 몇시간전에 漢江을 건너 血路를 뚫고 當到한 任忠植 중령으로서의 눈앞에서 사관학교 同期생인 禹炳玉 중령의 白決이라는 크나큰 衝擊과 함께 뜻밖의 所任을 떠맡게 된 셈인데, 그때까지 그는 그 휘하장병에 대한 끼니마지 주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곧 心機一轉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수행에 匪手하였다.

이날 저녁, 그는 비행장일대에는 이미 敵이 立脚地를 굳혔을 것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未久에 素砂쪽으로 衝鋒을 내어밀어 京仁街道의 分斷을 企圖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휘소를 蘇萊(素砂 南쪽 4km)로 옮기는 가운데 우선 장악중인 연대의 제2, 제3兩대대로써 비행장—素砂도로를 東南쪽에서 감제하는 遠美山을 중심으로 하는 高地群을 확보하여 敵의 南進을 막게 하는 한편, 戰鬪司의 既存부대를 시급히 정비토록 하였다.

그런데 26일 이래 敵과 血鬪를 계속한 이들 단위대는 이날의 비행장공격을 고비로 수습할 수 없는 分潰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갑연대 徒拏대대는 가장 큰 打撃을 입게 되어, 제9중대장 李鵬植 중위 지휘아래 제8, 제9兩중대를 통합하여 朴命鎭, 金壽童, 韓亨魯, 李炳基, 林 涇 소위 등을 소대장으로 하는 6개 소대로 再編하게 되었으며,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李春培 대위의 1개 중대가 2대대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이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대대장 韓順華 소령이 직접 이끄는 1개 소대정도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孫承乙 소령이 지휘하는 제22연대 제3대대도 실병력이 200명을 못미치는 상태였다.

이들은 저녁두렵까지 整備를 대강 끝내고, 보병학교, 기갑연대, 제12연대願으로 비행장—素砂도로 西北쪽의 △107(素砂 北쪽 3km)에 挺進배치되어, 도로 東南쪽의 제18연대 主力과 連繫를 지어 敵의 侵襲을 막게 되었으며, 제22연대 제2대대는 素砂부근에서 京仁街道의 확보와 後方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제22연대 제2대대장의 戰死: 그런데 이날 새벽 제18연대와 함께 漢江을 건너 제22연대

제2대대(장, 申冕浩 소령)는 開花山—비행장으로 指向하다가, 開花山을 그들보다 먼저 점령하여 그들의 길을 막고 있던 일단의 敵과 激突케 되니, 전투에서 대대를 이끌던 대대장 申冕浩 소령이 戰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敵은 규모가 크지 않아, 대대 主力에 의하여 심사리 격멸되었는데, 대대에서는 대대장을 잃은 손실을 보게 되었으나 이때 錢湖에서 비행장쪽을 향하던 제18연대의 前進路를 打開한 셈이 되었다.

이에 대대는 제13연대와 함께 金浦街道를 따라, 楊花橋를 거쳐 午後에 永登浦—始興으로 집결하였다.

이날의 全般은 돌아켜 보면, 이날은 金浦—圓의 到處에 뿌려진 忠烈의 鮮血이 이 山河를 眞紅으로 물들였던 하루라 할 것이다.

**6월 30일** : 이제 戰線은 비행장으로부터 한 걸음 더 南下하여, 我軍이 素砂 北쪽의 高地群에서 京仁街道의 확보에 專力하게 되었다.

이 京仁가도는 仁川港의 生命線이기도 하거니와 永登浦쪽에서 漢江防禦線을 펴고 있는 始興사령부 主戰부대의 側方掩護를 위하여서도 잃어서는 아니 될 要線이었으며, 또 이의 확보與否는 素砂 東北쪽의 △138(梧柳洞 西北쪽 2km)—遠美山의 攻防戰 승패如何에 달려 있기도 한 것이었다.

### 1. 敵의 京仁街道 공격

전날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敵은 정찰대로써 我軍의 진지현성상황을 探知하는듯 하더니, 날이 밝자 비행장—素砂도로를 따라 戰車를 앞세우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일부로써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 진지를 強壓하면서 일부로써 東南쪽으로 미끌어 내려 梧柳洞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한편 金浦전부사의 사령관 任忠植 중령은 전날 子正이 지나면서 敵이 水邑에서 蘭芝島를 거쳐 靑山(△55:鹽倉 西北쪽 1km)쪽으로 漢江을 渡河중이라는 情報를 入手한 바 있어, 그들이 安養川의 西岸을 따라 梧柳洞으로 直向하여 始興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밤을 도와 제18연대의 제3대대(장, 安政—소령)를 급히 뽑아 梧柳洞쪽으로 돌려 京仁가도 北쪽 安養川 西岸의 △77(高尺橋 北쪽 1km)일대에 비치하여 永登浦로 통하는 길목인 高尺橋를 制扼하면서 敵의 侵路를 막기로 하였다.

그리고 同연대의 제2대대(장, 張吞權 소령)는 梧柳洞驛 北쪽 高地帶(△138 東쪽)로 진지를 變換하게 하였으며 素砂의 제22연대 제3대대 일부를 遠美山 北쪽의 제18연대 제2대대 진지에 投入하였다.

따라서 이날 아침의 陣容은 제18연대 제3대대가 主—線으로서 梧柳洞 東北쪽에, 同 제2

대대가 中央一線으로서 梧柳洞 西北쪽에, 그리고 제22연대 제3대대를 비롯한 혼성병력이 右一線으로 遠美山 北麓에 展開하여 高尺橋에서 素砂에 이르는 京仁가도의 全面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에 據點을 둔 敵 제14연대와 對決하게 된 셈이었다.

날이 새기전에 左一線 정면에서 일련의 정찰을 끝낸듯한 敵은 밤 사이 이슬에 젖은 戰衣가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아침, 비행장—素砂도로를 따라 指向되는 戰車 2대의 엄호아래 △107부근의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의 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兩대대에서 보유한 2.36"Rocket砲로써 戰車의 驅逐에 注力한 결과 한동안 敵의 戰車砲와 Rocket砲가 서로 威力을 다투게 되었는데, 예의 경우와 같이 Rocket砲로서는 그 戰車에 匹敵할 수 없어, 應戰하던 도보대대의 林 涇 소위 등이 戰車砲彈에 부상을 입는 등 손실만 보았다.

그러나 敵 戰車 역시 계속 濛濛한 黑煙이 앞을 가리게 되니, 더 나아가기를 주저한듯 果敢한 돌파를 試圖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그들이 비록 致命的인 타격은 입지 않았으나 頑強한 저항을 보이는 鬪志앞에, 그들 戰車의 數갯가 적음에 대한 後顧의 餘地가 없지 않았을듯 하다.

어쨌든 敵은 戰車의 위세를 빌어, 이날 午前 △138—如月里(遠美山 北쪽 1.5km) 일대의 陸地一角을 手中에 넣게 되고, 따라서 素砂 北쪽 2km까지 進出하게 되어, 이제 京仁街道의 遮斷위기가 百尺竿頭에 서게 된 셈이었다.

## 2. 제18연대의 反擊

이에 사령관 任忠植 중령은 09.00에 中央一線의 제18연대 제2대대(장, 張春權 소령)로 하여금 △138를 탈취케 하고, 左一線 부대들로써 遠美山 北麓의 敵을 芟除토록 하였다.

이는 梧柳洞 정면에서의 가장 高峰인 △138가 敵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敵制의 靑龍을 잃게 되어, 이의 확보가 緊要하다고 판단한 까닭에서였다.

그리하여 제18연대의 제2대대는 梧柳洞 西쪽의 宮洞에서 그 北쪽 狹線을 따라 제7중대로써 △138의 南쪽 정면을 直衝케 하고, 제6중대로써 그 東쪽 계곡으로 迂回挾擊케 하였다.

이때 제5중대는 예비로써 공격第一線을 지원하였는데, 이들 兩중대는 박격포의 엄호를 받으면서 11.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공격은,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先頭에서 奮鬪하던 제7중대장 손圭大 중위가 腹部에 敵彈을 맞아 散華하는 가운데 뒤따르던 소대장 3명이 모두 부상을 입는 등 적지 않은 손실만 본 끝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는 支援火力의 劣勢가 가져다 준 결과였다.

한편, 遠美山의 北麓진지에서는 그곳의 再확보 임무를 받은 후보생대대 등이 富平警察隊(장, 金億淳 경감)로부터 전투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逆襲에 나서, 終日토록 血戰을 벌인 결과 17.00에 목표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 3. 제15연대의 增援

그런데, 이날 梧柳洞—素砂地區에서의 위협을 느끼게 된 始興사령관 金弘壹 소장은 판단하기를 『現地의 金浦司 혼성병력은 이제 繼戰能力이 그 限界에 다다랐다. 다만 제18연대의 捨身敢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 역시 常面한 敵勢와 전주어 볼 때에 그들 만으로서는 더 이상 持久堅守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이에 대한 병력증강으로써 戰力の 強化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金浦사령관의 交替 : 그리하여, 金弘壹 소장은 奉川川에서 一戰을 겪고 28일 午後에 幸州에서 渡河하여 전날 아침에 始興의 사령부에 도착한 바 있는 제5사단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을 새로이 金浦사령관으로 任命하는 한편, 그에게 이르기를 『時急히 제5사단 병력을 수습하고 이를 통합지휘하여 당면의 梧柳洞—素砂의 京仁街道를 固守하라. 同방어선이 離斷히 된 然後에는 나아가 金浦비행장을 탈환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崔榮喜대령은 그가 지휘할 부대를 과약한바, 대대장以下 대대全員이 慰勞休暇중이어서 全州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연대의 제1대대(장, 李存—소령)는 26일에 대대에 復歸한 대대장이 병력을 수습하여 28일 午後에 열차편으로 永登浦에 집결과 동시에 곧 混成제7사단(장, 劉載興중장)에 배속되어 漢江人道橋부근에서 漢江방어에 一役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소령)와 함께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의 掌握下에 들어가 彌阿里戰線에 充用되었던 제2대대(장, 安光榮소령)는 28일 새벽에 同방어선이 무너짐에 따라 蘆島로 철수한 다음 통나무와 거룻배등을 이용하여 漢江을 건너 安養에 집결중이고, 연대장 自身이 직접지휘하여 奉川川戰線에서 聲勢를 올린바 있는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는 철수途中에 연대지휘부와 離脫되어 대대 獨自로 蘆芝島에서 漢江을 渡河하여 永登浦를 거쳐 始興에 집결하였다가 그 역시 제7사단에 배속되어 漢江鐵橋부근의 死六臣墓地 南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倉洞—彌阿里 전황 참조)

연대장은 곧 安養의 제2대대를 始興으로 불러올려 戰列을 점검하니, 그간의 전투와 철수의 과정에서 병력의 손실은 있었으나 장비는 비교적 溫存하였으므로 즉시 이를 이끌고 梧柳洞으로 向發하면서 漢江邊의 제1대대로 하여금 梧柳洞으로 合勢하도록 하였는데, 제3대대는 死六臣묘지 부근의 전선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彌阿里戰線에서 연대의 제2대대와 같은 艱難속에서 漢江을 건너야하였던 사단 공병대대(장, 梁宗益소령)와 제20연대 제1대대의 일부도 같은 제5사단의 建制부대인

지라 장악케 되었다.

그런데 이 제20연대 제1대대의 일부는, 28일 아침 漢江을 渡江하는 渦中에서 副대대장 吳泰泳소령이 지휘한 일부가 本隊와 갈라지게 되어, 始興으로 바로 직결한 本隊와는 달리 水原으로 직결되었다가 뒤늦게 본대를 찾아 始興으로 北上하였는데, 崔榮禧대령은 그곳에서 同副대대장을 대대장으로 하고, 제1중대장 金成龍중위와 제4중대장 金周鳴중위 등을 중대장으로 하는 2개 중대의 제20연대 제1대대를 다시 편성하여 이를 正式으로 始興사령부로부터 金浦사령부로 배속받아 梧柳洞지구로 投入하였다. 따라서 제20연대의 제1대대는 실제로 2개대대로 나누어진 셈인데, 이때 이 대대는 次節에서와 같이 同연대장 朴基丙대령 및 대대장 金漢柱소령과 함께 鷲梁津부근에서 활약중이었던 것이다.

**梧柳洞線의 強化** : 이리하여 崔榮禧대령이 장악하게 된 병력은 제15연대의 제1, 제2대대와 제20연대의 제1대대 그리고 사단공병대대등 4개 대대와 제18연대의 제2, 제3 兩개 대대등 6개 대대에 달하게 되었는데, 午後에 이들 대대와 함께 梧柳洞에 도착하여 새로이 金浦戰鬪司의 사령관으로 赴任한 그는 당초의 사령부 既存병력은 各己 原隊로 復歸토록 조치하고 그 대신 기갑연대의 장갑차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가 一絲不亂한 지휘조치로써 시행된것이 아니어서, 후보생대대나 제12연대 병력 가운데에서는 소대 또는 본대 단위로 그곳에 남아 싸움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18연대 제2대대의  $\Delta 138$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령관은 곧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소령)를 梧柳洞 北쪽 무명고지(표고 90m정도 :  $\Delta 138$  東南쪽 1.2km)로 추진하여  $\Delta 138$  南麓의 제18연대 제2대대와 함께 밤을 새운 다음 이튿날 全力을 投入하여 反擊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낮  $\Delta 138$ 에서 逆襲을 받은 바 있는 敵은 我軍이 이  $\Delta 138$ 에서 死生을 決斷하려는 意志를 看破한듯 이날밤은 同고지에서 守勢로 전환하여 그들의 增援을 기다리는듯 함으로써, 가벼운 火力戰으로 一貫되는 가운데 6월의 마지막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7월 1일** : 이날 날씨가 흐렸으나, 안개에 가려진 稜線에서는 終日토록 濃성이 그치지 않았다.

### 1. $\Delta 138$ 의 確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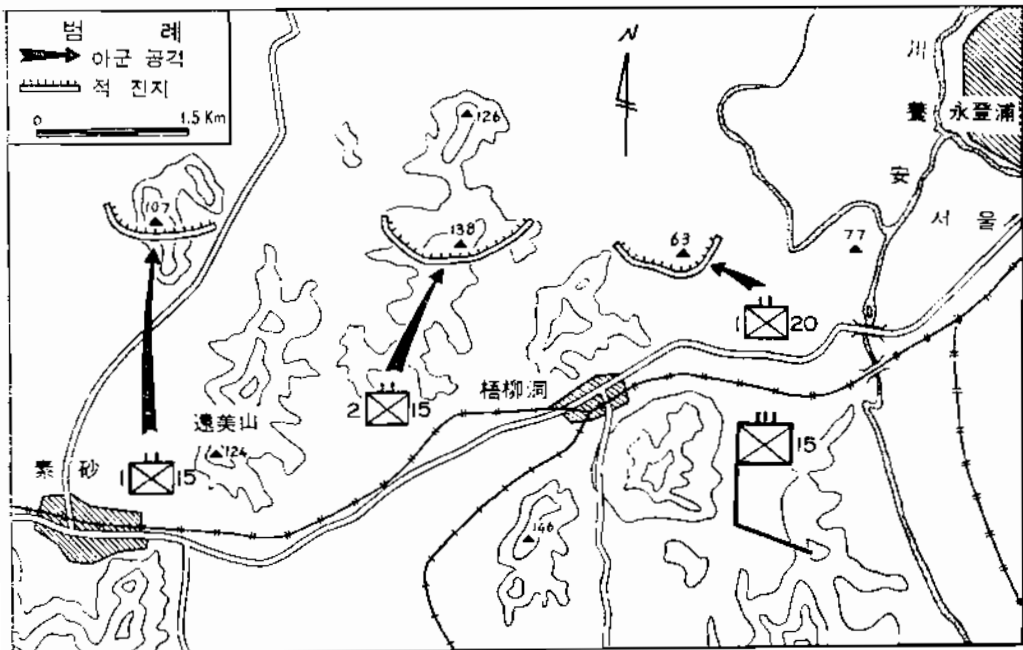
밤 사이에 增援부대를 梧柳洞—素砂間의 도로 南쪽에 展開한 崔榮禧대령은 이날 06.00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當 戰鬪司는 당면의 敵을 격퇴하고,  $\Delta 138$ — $\Delta 107$ 線을 확보하려 한다.

- ② 제15연대 제1대대는 공격 左一線이 되어 △107를 점령하라.
- ③ 同제2대대는 공격 中央一線으로써 제18연대 제2대대를 조월하여 △138를 점령하라.
- ④ 제20연대 제1대대는 공격 右一線으로써 제18연대 제3대대를 조월하여 △77-△63인대를 점령하라.
- ⑤ 제18연대 제2, 제3 兩대대는 이 공격과 동시에 現위치에서 예비로 전환, 待機하라.
- ⑥ 공병대대는 제15연대 제1대대가 遠美山 北麓으로 진출하면 遠美!진지를 인수하고 대기하라.
- ⑦ 기갑연대의 장갑차는 素砂-비행장도로를 따라 左一線의 △107공격을 火力지원하라.
- ⑧ 各隊의 모든 81mm박격포는 梧柳洞에 집결하여 中央一線의 △138 공격을 重點的으로 지원하라.
- ⑨ 各 공격대대는 목표를 점령하면, 지체없이 방어진지를 급변하면서 後습을 기다리라.
- ⑩ 공격개시시간은 7월 1일 13.00이다.
- ⑪ 지휘소는 11.00以後 鐵山驛(高尺橋 南쪽 2km)의 무명고지에 位置할 예정이다.

이 명령을 보면, 당시 崔榮喜대령은 始興사령부가 목표로 하는 비행장은, 이미 制空權이 美空軍의 手中으로 넘어간 지금 敵이 이를 비행基地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므로 心理的인 면을 排除한다면 이는 한낱 平地일 뿐 戰術的인 側面에서 확보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한

◇ 상황도 제22호 제15연대의 △138공격狀況(7.1)



듯 하다.

따라서 이에 앞서 一次的으로 공격의 발판에 대한 整地가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비행장 남쪽의  $\triangle 138$ — $\triangle 107$ 의 要線을 확보하는데 注眼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즉, 비행장부근에 布陣한 敵으로서의 그 東쪽에서 南北으로 가로 막고있는 安養川의 긴 堤防과 南쪽에서  $\triangle 138$  遠美山으로 連하는 高地群이 天然의 障壁이 되어 그들의 발길을 막고 있는바 그들이 東으로 安養川을 건너 永登浦로 들기보다는 南으로 이 連峰을 踏破하여 京仁街道로 내려서려한다고 내다보고, 이 街道의 扼守에 대한 지금까지의 決意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다.

이에 공격부대의 唯一한 重砲火였던 81mm 박격포는  $\triangle 138$ 를, 장갑차의 37mm포와 自動火力은  $\triangle 107$ 를 각각 지원토록 火力을 按配하고,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宿營의 제1병기대대에서 保有중인 在庫박격포탄을 梧柳洞일대의 京仁가도 路上에 集積케 하는 등 各隊의 소요탄약을 확보함으로써 萬全의 準備를 갖춘 다음, 예정된 13.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사령관은 梧柳洞에서 그 東南쪽으로 한 걸음 물러난 鐵山里의 무명고지에 지휘소를 開設하고 左右의 全戰線을 살피면서 공격의 進展을 독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격개시의 信號彈이 오른 뒤로는 各 공격대대에 대한 적절한 指揮機能과 統制手段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니 — 有線은 고사하고 無線통신기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까닭으로 — 멀어지는 銃聲으로써 捷報을 대신할 뿐이었다.

따라서 제1선에서는 畝 대대장 以下 모든 장병들이 소총만으로써 한 隊列에 서서 각각의 목표만 指向할 뿐 左右의 인접상황은 살피 볼 겨를도 없는 惡條件속이었으나, 그동안 날마다 敗退의 쓴 잔만을 줄곧 들어왔던 그들인지라 「進擊」이라는 그 한마디에 士氣가 鼓吹되어 치달는 발걸음이 단숨에 漢水를 뛰어넘을 듯이 가벼웠다.

그리하여 장갑차의 掩護를 받아 나아간 左一線의 제1대대(장, 李存一소령)가 17.00에 공병대대(장, 梁宗益소령)의 협력으로  $\triangle 107$ 를 점령한 것을 선두로, 意外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日沒前까지 各己의 목표를 모두 手中에 넣게 되었는데, 敵은 이 공격이 시작되자 衝天하는 聲勢에 놀린 듯 완강한 저항을 보이지 않고 東北으로 연한 稜線을 따라  $\triangle 126$  ( $\triangle 138$  北쪽 1.5km)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따라서 右一線인 제20연대 제1대대의 혼성중대장 金周鳴중위가  $\triangle 67$ 를 向하여 進出하다가 머리에 다발총상을 입는 등 死傷者가 없지 않았으나 그리 큰 損失을 보지 않고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triangle 77$ — $\triangle 138$ — $\triangle 107$ 線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京仁街道의 위협을 除去하는 戰況의 好轉을 보이게 되었다.



## 2. 漢江의 船上一戰

그러던 이날 金浦半島의 東北端의 漢江河口에서는 奇蹟과 같은 不期의 一戰이 있었다.

즉, 28일 午後에 제1사단의 제11연대장 崔慶祿대령과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등을 비롯 한 철수병력의 일부는 二山浦(幸州 西北쪽 10km)에서 金浦로 漢江을 건넜는데, 미처 따라 건너지 못한 80여명은 제12연대 제1대대장 申鉉洪소령과 26일 아침에 金浦에서 奉日川으로 간 同연대 제2대대 S-3인 金子烈중위, 그리고 開城에서 汶山으로 철수한 同 제7중대장 金水先중위와 제9중대장 金斗烈대위 및 제11연대의 S-3 보좌관인 崔一嶸중위등과 함께 帆船 한척을 구하여 對岸으로 도하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干潮가 되어 水位가 낮아 배가 砂場에 擱坐되었으므로 그 날밤은 江邊의 船上에서 지새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敵이 金浦邑을 占據하고 金浦비행장까지 中間에 장악중에 있다는 情報가 入手되었다.

그리하여 29일 새벽에 滿潮가 되어 배가 浮上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金浦半島로의 상륙을 포기하고, 江을 따라 西海로 迂回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船首를 北쪽으로 돌려 河口를 향하여 노를 짓게 되었다.

그들이 奉城山(△129 : 金浦邑 西北쪽 8km : 漢江邊)東쪽을 감둔무렵 그곳에 河岸경계진지를 마련하고 있던 敵으로부터 自動火器의 사격을 받았다. 이에 그들은 함께 지니고 가던 60mm박격포로써 船上에서 應酬하면서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에 同 철수대는 晝間航海를 계속하면 敵에게 노출되어 被擊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 江 東岸의 浦口에 寄航하여 끼니를 해결하는 한편 배 한척을 다시 얻어 병력을 分乘한 다음, 夜間에만 배를 띄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干滿이 겹쳐, 干潮時에는 例의 擱坐가 거듭되고, 滿潮時에는 潮水에 밀려 漢江을 逆流하게 되어, 航進에 遲遲不進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아침에 간신히 柿岩岬 東쪽의 臨津江과의 合流點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突然 敵의 수송선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江上에 낮게 깔린 안개속에서 不期의 격돌을 보게된 敵船은 機關船으로써 船上에 적사포와 기관총등 重裝備를 갖춘 100여명의 병력을 滿載하고, 漢江을 거슬러 金浦邑쪽으로 向하는 중이었다.

이에 先頭 배에 탔던 金子烈중위등은 『이 江가운데에서 달리 避할 길이 없으니 敵을 먼저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다.』하고 決死의 각오를 굳힌 다음, 병력을 甲板위에 열드리게 하고, 몇명을 漁夫로 假裝케 하여 태연히 敵船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敵船이 檢索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船上에 늘어선 敵兵을 모조리 射殺하였다. 이어 철수대는 배를 버리고 金浦땅으로 헤어 올랐는데, 이때 마침 그

上空을 旋回중이던 美공군의 戰爆機가 그 敵船에 폭탄을 투하하여 擊沈시켰다.

陸地에 오른 철수병력은 三三五五로 분산하여, 이미 敵地인 金浦만을 東北쪽에서 西南쪽으로 橫斷함으로써 江華島를 마주보는 對岸의 藥岩里(金浦邑 西쪽 12km)에 이르러, 다시 船隻을 구하여 仁川으로 回航하게 되었는데, 途中에 江華海域에서 海軍의 YMS-502 艦(장, 盧明鎬소령)을 만나, 이날 저녁에 仁川港에 入港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危機에 처하여서는 機智와 과감한 행동만이 그 難局을 打開하여 준다는 좋은 본보기를 남기고, 각己 原소속대를 찾게 되었거니와 이들의 生還은 可謂 奇蹟 그것이었다.

7월 2일 : 이날도 梧柳洞線에서의 血戰은 계속되었다.

崔榮喜대령은 전날 확보한 △138—△107線에서 餘勢를 몰아 한 걸음 더 나아가 敵을 △138 北쪽의 △126 너머로 몰아냄으로써 敵의 侵略에 췌기를 박아놓기로 決心하고, 날이 밝자 제15연대의 제2대대(장, 安光榮소령)로 하여금 △126를 공격케 하였다.

이는 敵의 공격에 앞선 先制攻擊의 뜻을 지닌 것이었으나, 通信手段이 빈약한 제1선병력은 橫的인 連繫가 확립되지 않아, 一貫된 戰線을 형성하지 못한데다가 正確한 敵情이 入手되지 않아서 結果적으로는 敵과 접촉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게됨으로써 공격력을 크게 떨치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그 공격은 큰 진전없이, 간간히 지나는 비속에서 膠着되었으며, 午後부터는 蘭芝島쪽으로 본격적인 渡河를 실시한 다른 敵이 그 正面에 合流됨으로써 攻守의 方向이 逆轉되어 오히려 我方이 守勢로 물리게 되었다.

이에 제18연대의 제2, 제3兩대대도 모두 전선에 投入되기에 이르렀으나, △126 쪽에서 내린 敵의 발길에 丘陵이 하나씩 蠶食되어 △138로 다시 물러서는 바 되었는데, 이렇듯 振幅없는 攻防戰속에서 날이 저물게 되니, 戰線은 다시 小康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날의 戰況에 대하여서는 當時의 證言을 들어 그 한 例로 삼고자 하거니와 제18연대 제3대대의 白贊燮하사가 뒷날에 述懐한 바는 이러하다.

『나는 우리 대대가 임시로 편성한 제1중대에 소속되어 1개 소대와 더불어 梧柳洞 北쪽의 작은 高地 하나를 손에 넣고 있었다. 그런데 側方에서 我軍복장에 철모를 쓴 1개 분대가 고지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누구냐?」하고 誰何를 했더니, 「1중대야!」하고 응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가까이 온 者에게 握手를 청하여 손을 마주잡고 다시 살펴보니, 다발총을 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直感的으로 「敵이구나」하고 판단, 잡았던 손으로 그 敵兵을 밀치면서 CAR을 들어 사격을 하려하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방아쇠를 당겨도 총탄이 나가지 않았다. 裝填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敵이다!」하고 소리를 친 다음 그대로 땅바닥에 덩굴었다. 그렇게 하면서 裝彈을 하여 사격을 하였으나 모두가 흩어져서, 어이 없게 高地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南쪽의 다른 고지로

물러났는데 다시 고지를 탈환하려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敵이 그 高地에 기관총을 추진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함으로써 목포고지와와의 사이인 溪谷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당시에 三統土로 自稱하였던 韓錫鎰, 文守元 兩하사와 더불어 공격의 선두에서 길을 열기로 했다. 먼저 韓하사가 계곡을 뛰어 건너다가 敵彈을 맞고 쓰러졌다. 그래서 文하사와 내가 달려가 보니, 다리를 다쳤으나 크게 염려할 것이 못되었다.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고 어물거리다가는 셋이 모두 당할 것 같아 韓하사보고 그대로 계곡을 건너 敵側의 기슭으로 올라 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비가 와서 입고 있던 雨衣를 벗어 던지고 셋이서 그대로 계곡을 건너 뛰었다. 그러자 뒤에서 本隊가 뒤따랐다. 文하사와 나는 정면으로 高地를 오르지 않고 敵의 뒷쪽으로 돌아서 정상으로 향하였는데, 우리가 오르고 보니 敵은 고지를 비워 놓고 側方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달아나고 있었다. 文하사와 나는 그 敵의 등뒤에 총격을 가하여 7명을 사살하고 결국 고지를 다시 찾았다.]

이날의 戰況은 대체로 이러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날부터 漢江線에 대한 敵의 全面渡河공격이 시작되어 이 梧柳洞線에도 大雨가 急迫하였음이 豫告되었는데, 이날 밤의 敵 공격에 대비하고자, 저녁에 支授火器를 제점검하기 위하여 기갑연대의 장갑차를 모두 素砂에 집결하여 給油와 포탄의 再裝비등을 실시하던 중, 때 마침 上空을 지나던 友軍機로부터 誤認을 받게 됨으로써 그 空襲으로 3대의 장갑차를 잃게 되었다. 이에 장갑차는 모두 始興사령부로 집결되는 가운데 보병함으로써 △138 진지를 支授하게 되었다.

**7월 3일:** 이날, 敵의 戰車부대가 漢江을 건너게 됨으로써 漢江線의 比驛와 더불어 이 梧柳洞戰線도 痛恨의 날을 맞게 되고 말았다.

**敵 戰車의 永登浦 進入:** 전날 밤과 이날 새벽에 걸쳐 蘭芝島쪽으로 漢江을 渡河한 1개 연대규모의 敵이 이 梧柳洞정면으로 加勢함으로써 激戰의 苛烈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이 날의 공격에 앞서 비행장쪽에서 그들의 보병에 火力을 지원하던 戰車 2대를 夜暗을 타서 △126 南쪽으로 추진한 다음, 그로 하여금 高尺洞 西쪽 계곡을 따라 突破하여 京仁街道로 나서게 함으로써 梧柳洞-素砂의 橫軸을 교란하기로 한 듯, 날이 밝자마자 안개속에서 太極旗를 단 戰車가 京仁가도상의 德鏡(高尺橋 西쪽 1.5km)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63 西쪽 계곡을 따라 南向한 戰車는 梧柳洞 쪽으로 指向하는 듯하였으나 그 쪽의 路上에 박격 포탄이 集積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車首를 반대편인 東쪽으로 돌려 安養川의 高尺橋를 지나 永登浦로 進入하였다.

이와같이 意外의 戰車출현에 따라, 高尺橋 西北쪽인 △77-△63일대에 진지를 점령중이던 제18연대의 제3대대와 제20연대 제1대대는 梧柳洞과 洞橋梁 사이의 路上에 後方보급소

를 두고 있던 터이라, 그 戰車에 보급소가 모두 蹂躪되고, 심지어는 仁川쪽에서 支援되는 美軍의 戰車라고 잘못 알게된 일부 병사들이 그들을 반기다가 機銃掃射를 받아 死傷되기도 하였다.

이에 2.36" Rocket砲組가 이들 戰車를 뒤쫓았으나 그들로서는 束手無策으로 그 猪突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 戰車의 京仁街道 통과 그 자체가 金浦戰鬪司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衝擊波가 波高를 높여 멀리 漢江邊을 휩쓸게 되었던 것이니, 永登浦地區의 扈城 首都사단이 해가 뜨기전에 돌이 닥친 이들 戰車로 말미암아 背後를 찢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撤收命令: 아침부터 공격을 시작한 敵은 漢江 北쪽의 新村부근에 자리잡은 그들 重砲로써 高尺橋부근과 梧柳洞일대의 京仁街道에 위협사격을 加하는 가운데 비행장 부근으로 추진된 山砲와 박격포등으로써 △138일대에 火力을 集中하였다.

그리하여 제18연대 제3대대장 安致一소령과 同作戰官인 金在厚중위가 그 砲火에 破片傷을 입고, 제11중대장 元治男 중위등이 戰死하여, 安養川의 西岸고지일대에서는 敵의 重砲火 위력에 戰列이 分裂되었으나 제20연대 제1대대(장, 吳泰泳소령)와 함께 死力을 다하여 敵을 扈支함으로써 午前을 넘기게 되었는데, △138쪽의 戰況도 이와 같아 敵의 壓力을 감당하기에 힘이 겨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인 10.00 始興사령부에서는 이날 새벽에 敵의 戰車가 漢江鐵橋를 건너게 됨으로써 扈城 제7사단(장, 劉載興준장)의 防禦線이 무너지게 되어, 同사령부의 撤收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漢江쪽의 이와같은 戰況을 알 길이 없었던 金浦司는 그때까지도 당면한 敵과 血戰을 계속중이어서, 始興司의 通信網으로서는 마지막 철수상황조차 傳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金弘壹소장은 『漢江線이 敵의 戰車에 의하여 무너진 지금, 京仁街道의 확보는 더 이상 必要치 않다. 따라서 이대로 시간만 끈다면 永登浦—始興도로에 敵이 먼저 들어서게 되어, 梧柳洞쪽 金浦司의 退路조차 잃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前제5사단 참모장인 朴炳權대령을 梧柳洞으로 急派하여 철수명령을 傳하도록 措置하였다.

그리하여 朴炳權대령이 單身 Jeep차로 始興에서 安養川의 西岸으로 돌아 鐵山里의 지휘소에 도착하여 崔榮喜대령에게 漢江線의 戰況과 함께 始興司의 철수명령을 傳하게 되었는데 그 要旨는 『이미 永登浦—始興도로를 敵이 掌握中일 것이다. 可能한 方策을 강구하여 水原으로 集結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崔榮喜대령은 永登浦—始興의 國道쪽으로 偵察兵을 보낸 결과 이미 敵의 일부縱隊가 始興으로 南下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로소 寸刻의 여유가 없다는 事態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일선대대에 『各 대대는 現전선에서 敵과 離脫하여 安養으로 집결하라.』는 철수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낮 대대별로 當面の 敵과 접촉을 끊고 다시 撤收길에 오르게 됨으로써 27일 金浦반도에 敵이 上陸한 뒤로 1週日에 걸렸던 遲延戰도 이 梧柳洞에서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金浦戰鬪司令部로서는 참으로 긴 1주일 이 지나갔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같은 持久堅守가 없었다면, 楊梁津-永登浦의 漢江線이 어떻게 支撐하였을 것인가?

생각하면 이 金浦司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最善을 다한 셈이었다.

7월 3일 아침에 漢江을 渡河한 敵의 戰車와 梧柳洞에서 闖入한 그들이 合流하여 永登浦地區를 席捲하게 됨으로써 金浦司의 撤退가 強要되었거나와 이날 밤 子正무렵에는 6대의 戰車를 앞세운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京仁街道를 따라 仁川을 占領하게 됨으로써 京仁街道의 以北지역은 이제 모두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漢江과 梧柳洞의 防禦이 同時에 무너지자, 敵은 이날 중으로 先遣隊를 始興으로 진출시켜 我軍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가운데 主力은 永登浦와 梧柳洞부근에서 戰列을 다시금 가다듬는 듯 하였는데, 그들이 京釜國道를 따라 戰車의 突破戰을 試圖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明告戡火의 사실이었다.

한편, 梧柳洞線에서 敵과 離脫케 된 金浦司의 병력은, 일부는 素砂에서 蘇萊를 거쳐 西海岸을 따라 水原으로 빠지기도 하고, 일부는 梧柳洞에서 陽支山(梧柳洞 南쪽 6km) 기슭을 타고 安養을 指向하였다.

그런데 金浦司의 철수명령은 일선 참호속의 各個 兵士에게까지 모두 傳하여지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어떤 병사는 아직 그대로 陣地一角을 지키고 있었고, 또 어떤 병사는 명령을 듣고도 더는 물려설수 없 다하여 巖穴에 남아있기도 한 바 이날 저녁 敵의 戰車가 京仁街道를 橫行하게 되자, 그제서야 혹은 그 戰車의 틈사이를 뚫고 南下하였으며, 혹은 仁川으로 가서 마지막 鐵道편을 이용하여 水原으로 가기도 하였는데, 제12연대 제2대대장인 韓順華소령같은 사람은 仁川에서 배를 얻어 보름동안이나 西海岸을 漂流한 끝에 群山에 오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날 저녁 金浦司의 主力이 安養부근에 集結되면서 同사령부는 解編을 보게 되고, 제15, 제18兩연대가 연대별로 始興사령관 金弘益소장의 掌握下에 들어가 德安(安養 西北쪽 4km)부근의 安養阻止線의 西쪽 一隅를 맡아, 또 다시 日戰日退의 遲延戰을 벌이게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22연대 제3대대장 孫承乙소령

(1977. 5. 13 서울 城北區 三仙洞에서, 예 준장)

당시 제3사단(장, 劉升烈대령)은 大邱의 제22연대(장, 姜泰敏중령)와 釜山의 제23연대(장, 金宗元중령)뿐이었는데, 6월 25일 아침에 육분

명령에 따라 제22연대가 서울로 集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대도 제1대대는 浦項의 경비대대로 나가 있어서 제2, 제3 兩개대대만이 上京하게 되었다. 그때 또 사단장도 不在中이어서 참모장 禹炳玉중령이 연대와 함께 행동하

였다.

그날 午前에 장비와 차량을 모두 列車에 싣고 11.00경 大邱驛을 출발하여 저녁에 龍山驛에 도착하였다.

龍山驛에서 下車하자, 육본으로부터 首警司의 作戰區處를 받으라고 해서, 제8연대 兵舍(現原本)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8연대는 出動했는지 壽命가 비어있었다. 그곳에서 首警司 참모장인 金雄洙중령으로부터 戰況을 「브리핑」받은 다음 제2대대(장, 申冕浩소령)는 汶山으로 출동하게 되고 우리 대대는 그냥 그곳에 대기케 되었다. 하루인가 더 있다가 金浦로 출동하라고 해서 참모장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온 車輛편(트럭 20여대)으로 金浦로 가니, 金浦사령부가 있었고, 桂仁珠대령과 金龍周중령 및 空軍의 崔用德중장동이 보였다.

밤에 진지를 편성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새벽부터 接戰이 시작되어 일부는 富平—素砂로, 일부는 비행장쪽으로 철수하였다. 그 다음날 金浦비행장을 탈환하려고 공격했는데, 그때 崔福添중령이 수를 몰고 突進하다가 戰死하고, 그 뒤에 禹炳玉중령이 자기 권총으로 自殺하였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作戰의 실패에 대한 책임감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그는 쫄쫄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 ◇ 報國대대장 方國哲소령

(1977. 4. 20 戰編委에서, 예 대령)

報國대대란 북괴군에서 귀순한 장병 300여명으로써 政訓계통에서 창설한 부대인데, 문자 그대로 나라에 報國키로 한 것이다. 대대원도 모두 육군 제급장을 달고 있었으나 軍需도 없는 사실상 포로수용소나 다름없는 실태였다.

그래서 내가 1949. 12. 28에 대대장으로 赴任하면서는 본격적인 宣撫工作隊로 轉身하였다.

그러하여 1950년 2월에는 密陽地區의 共匪기순공작을 벌였고, 3월에는 서울에 다시 올라와 文來洞 방적공장에 대대본부를 두게 되었다. 5월 20일쯤에 朴蒼岩중위와 沈相國중위의 2격중대를 議政府의 제7사단과 春川의 제6사단의 경찰대로 파견조치하고, 나머지는 육본의 각 부국

감실에 파견군무케 하였다.

6월 23일 저녁에 제7사단 G-2에서 불려서가 보니, 當面한 敵情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朴蒼岩중대 75명을 38°線 너머로 보내보라고 하였다. 무언가 敵의 動態를 알수 있을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38°線을 넘어 들어가다가 6.25를 당하여 철수하고 말았다고 들었다.

나는 6월 25일 玉仁洞 집에 있다가 街頭放送을 듣고, 陸本에 들어가 作戰局次長인 朴林恒중령에게서 南侵상황을 들었다. 곧 永登浦의 本隊로 가서 병력을 수습하여 출동태세로 대기하다가 그 이튿날 육본에 다시 들어가 朴林恒중령에게 「내가 무엇 도움 일이 없겠느냐?」고 묻고, 金浦로 출동하게 되었다.

本隊병력을 끌고 通津부근으로가서 진지를 펴고있다가 그날밤에 側方기습을 받아 분산되어 27일 낮에 金浦읍으로 철수하였다.

다시 수습된 병력 30여명은 永登浦의 본대로 복귀케 하고, 午後에 육본으로 가서 역시 朴中령에게 「彌阿里보다 金浦쪽이 먼저 들어닥칠 것 같다. 여차하면 漢江을 끊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하고 金浦의 위기를 傳하였다.

그리고는 부대로 돌아가 병력 몇명을 뽑아 私願을 입혀 부대 주위에 남도록 함으로써 부대제산을 관리토록 하였는데, 곧 收復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漢江이 끊어진 다음에 水原으로 집결했다가 29일 午後에 朴蒼岩중대병력과 만나게 되었다.

7월 12일에 大田에서 부대 장교 52명이 경식으로 軍需을 받아 現役으로 編入되었으며, 병력은 제1군단사령부와 제8사단에 분할배속되었다

#### ◇ 機甲연대 騎兵대대 제7중대장 金村成중위 (1977. 5. 19 제2군구사령부에서, 준장)

나는 大學在學時인 1948년 London 올림픽 대회에 吉典植동과 함께 乘馬出戰선수로 선발되었다가 출전치 못하고 말았는데, 그러자 당시 기갑연대장인 李龍文대령의 권유로 大學선수 9명과 獸醫 5명이 함께 陸士 8期 2班으로 特採되었다.

당시에 기병대대는 慶州의 種馬牧場의 것까지 합치면 말이 300여필 되었다.

장비는 본대장 이상은 CAR이고 본대원은 M1 소총이었는데, 그 모습은 西部活劇의 騎兵隊와 흡사하였다. 다만 복장만 다름뿐 馬具는 전부 美製였다.

火器소대에는 60mm 박격포 4문과 경기관총 8정까지도 달에 실고 다녔는데 6.25당시까지도 마필이 확보되지 않아 제5, 제6 2개중대밖에 편성이 되지 못하였고, 병사들의 승마훈련만 했을 뿐 마필에 대한 戰地適應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대대 참모를 하다가 1950년 초에 보병학교에 入校하였다가 졸업時에 성적이 首席이라하여 학교의 教官要員으로 남아「騎兵戰術」을 강의하게 되었다.

6.25가 터지자, 학교의 교관들이 모두 일선부대의 중대장요원으로 차출되어 나갔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내가 몸담았던 기병대대를 찾아가고 싶어서 학교 교급부관인 李錫殿중령의 주선으로 기갑연대로 전속명령을 받게 되었다.

27일인가 기갑연대로 갔더니, 기병대대 主力은 이미 退溪院쪽으로 출동한 뒤였는데, 남아있던 2개 중대로써 임시제7중대를 편성해서 중대장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는 장갑대대에 배속되어 金浦로 출동, 甲申 맞은편 江岸에 배치되어 있는데 당시에 내가 알고 있었던 騎兵戰術은 300m쯤 뒤에 1人 5匹씩 馬陣을 치게하고 나머지 기병은 보병전투를 하다가 突破口가 형성되면 守馬한 말을 추진케 하여 騎馬突破를 감행함으로써 敵의 背後를 교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江岸배치상태에서는 그러한 전술이 응용될 수 없었다. 오히려 말이 敵의 포격에 놀라 이리저리 뛰게되어, 보병전투마저 如意치 않았다.

#### ◇ 南山學校 병기관 曹漢春중위 (1977. 5. 24 造兵廠에서, 소장)

南山學校는 본래 南山(前 KBS자리)에 있다가 1949년 가을에 金浦비행장부근으로 移轉하였다 그때에는 校長은 육본 情報局長이 겸무했고, 副교장인 崔福洙중령이 실제로 교장업무를 代行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崔仁珠대령은 6.25

얼마전에 부임한 것 같으며 전에 정보국에 근무한 것으로 알뿐,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6.25當口에는 학교에 없었던 것 같다.

6월 24일 午前에 참모회의 석상에서 崔福洙중령이 敵의 動態가 심상치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토요일이자 봉급날이요해서 봉급을 타가지고 서울로 外出을 하였다. 25일 아침에 전쟁발발소식을 듣고 午後에 학교에 들어가 그 날은 대기를 하였다. 26일 아침에 金浦사령부가편성이 되어 그 지역內의 駐동사니부대들을 통합지휘하였다. 28일까지 金浦邑線을 지켰는데, 그날 아침에 漢江이 폭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敵이 서울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대로 우물거려다가는 退路가 막힌다.」는 의견이 굳어져서 金浦邑에서 철수하여 저녁 19.00쯤 漆砂로 이동하였다.

그 이튿날인 29일 아침에 崔福洙중령이 공격대장이 되어 장갑차를 앞세우고 비행장 탈환공격에 나섰는데 崔중령과 학교 행정과장이던 安永作대위가 戰死한 가운데 사병 몇명만 돌아왔다.

崔중령은 키는 크지않았으나, 기백이 당당한 사람이었으며, 「中野」출신이라서 그런지 정보교육에 熟意가 대단하였다.

그 뒤 지휘소를 蘇萊로 옮겼다가 제15연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학교요원은 水原으로 집결, 나중에 제1군단의 수색요원이 되었다.

## § 戰 訓

### (1) 金浦半島의 戰略的 중요성문제

우리는 이 전투에서 당시 우리軍의 38°線 防守의 失策과 비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虛點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金浦半島의 空白 그것이다.

제1사단의 방어계획은 推斷컨대, 開城-延白 지구는 포기, 臨津江 南쪽의 汝山線에 방어의 重點을 두기로 한 듯 하다.

그렇다면, 開城당과는 江하나로 連한 江華島와 金浦땅은 어떻게 하려하였는지, 그 누구도 漢江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것을 確信한 所致인가?

이곳의 방어책임은, 나중에 육본이 金浦사령부를 편성한 것을 보면, 육본에 歸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事前 配慮가 없었다는

것은 크게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金浦로 하여 漢江橋가 먼저 敵의 掌握下에 들어가게 된다면, 議政府—汝山에서 아무리 力戰奮闘하여 진지를 지명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反問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에 金浦에 상륙한 敵의 규모가 크지않아 그들 스스로가 과감한 進攻을 주저한 까닭으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위험은 막아낼수 있었지만 만약 1개연대의 敵이 前後를 들보지 않고 水登浦쪽으로 猪突하였다면 金浦사령부로서는 그를 막아낼 방도와 힘이 없었을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金浦땅이 漢江의 南쪽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2) 裝備의 渡河문제

철수와 같은 혼란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비의 遺棄문제가 여기서 또 한번 擡頭되었다.

즉, 제18연대의 幸州渡河時의 事例인바, 당시 연대는 建制順으로 渡江을 건너게 되어 제3대대의 제11중대 일부와 제12중대는 미처 渡河치 못한채 날이 밝아 敵의 砲擊으로 그 江岸에서 분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건제순으로 철수를 하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제3대대의 경우 제9, 제10, 제11, 제12중대의 順으로 江을 건넌 것은 틀림없는 일인듯하니, 重火器중대인 제12중대가 맨 마지막에 渡江케 된 것은 丙考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同중대가 東豆川 南쪽의 德亭에서부터 幸州에 이르는 동안까지 단 1점의 기관총도 잃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江 하나를 건너지 못하여 제1대대의 重火器 모두를 고스란히 敵地에 남겨 놓게 하였다는 것은, 당시 重火器의 遺棄事例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여라도, 이 경우는 조금만 着眼을 달리하였더라면 能히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밤 사이에 소총중대가 건널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마땅히 重火器중대의 渡河가 優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 研究

### (1) 桂仁珠대령의 실종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알려진바로, 그가 戰場을 離脫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자세한 이유와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육군특무부대(장, 金昌龍중령)가 1951년 11월에 육군총참모장(李鍾贊중장)에게 제출한 「桂仁珠대령 경위 조사서」에 의하면 그는 「1950. 6. 28 야간열차편으로 家族과 함께 大邱에 도착하였다가, 同월 30일 正午에 大邱驛構內에서 大邱憲兵隊(장, 金弘傑중령)가 大邱지구특무대(장, 鄭麟澤중령)의 協力下에 同련병대에 拘引중, 美련병장교의 요청으로 身柄을 인계한 以後 行跡不明」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1950. 10. 21에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또 1년뒤인 1951. 11. 15에는 다시 復職되어 美極東軍사령부 情報處에 파견근무중인 1953. 3. 20에 예비역에 編入되었다는 記錄이 확인되었다.

그보다도 下級者였던 崔福洙중령과 禹炳玉중령등이 金浦땅에서 憤死하였으니, 이들 많은 英靈들을 그는 果然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매우 많다.

### (2) 飛行場 공격에 대하여

6월 29일의 비행장 공격에 대하여 제18연대와 金浦사령부가 거의같은 시간에 공격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 點에 多少의 문이 없지않다.

즉, 제18연대측의 證言을 종합하면 B-29가 비행장을 폭격하는 그 시각에 同연대가 비행장 부근에 있었고, 일부는 그 안으로 突入하였다고 하였는데, 金浦사령부 側의 증언에서도 同 사령부가 그날 00.60에 공격을 준비하여 그 역시 B-29가 비행장을 폭격할때 그 도움을 받아 비행장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南北에서 거의 동시에 兩부대가 비행장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나, 서로 그러한 다른 쪽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我軍끼리 싸웠다는 假想도 排除할 수 없는 까닭에 여기서는 두 공격에 약간의 時差를 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記錄이 없는만큼,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 2. 漢江—水原 防禦戰 (1950년 6월 28일부터 // 7월 4일까지)

참조: 별첨부도 제 16 호

상환도 제 23~28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始興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소장 金 弘 壹	제15연대 제1대대 장	소령 李 存 一
混成首都사단	장 대령 李 鍾 贊	제3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제8연대	장 중령 徐 鐘 喆	混成제2사단	장 대령 林 善 河
제1대대	장 소령 李 哲 源 (7월 2일 戰死)		대령 李 翰 林 (7월 1일 부터)
제2대대	장 소령 高 白 圭	제3연대	장 중령 崔 秀 昌 (7월 4일 戰死)
제3대대	장 소령 朴 泰 云	제1대대	장 소령 任 百 振
제18연대 제1대대	장 소령 朴 哲 用	제3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機甲연대 제1장갑대대	장 소령 朴 武 烈	제5연대	장 중령 崔 昌 彦 (7월 2일 負傷)
混成제7사단	장 준장 劉 載 興		중령 朴 基 成 (7월 3일 부터)
제1연대	장 중령 李 喜 權	제1대대	장 소령 李 敬 謙
혼성대대	장 대위 姜 琬 塚	제2대대	장 소령 車 甲 俊
제9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제16연대	장 대령 文 容 彩
혼성대대	장 소령 柳 桓 博	제1대대	장 중령 俞 義 潛
제20연대	장 대령 朴 基 丙	제3대대	장 소령 尹 泰 階
혼성대대	장 소령 金 漢 柱	步兵學校 혼성연대	장 중령 俞 海 濟
제25연대 혼성 제2대대	장 소령 裴 雲 龍		

혼성대대	장	중령	河 甲 淸
機甲연대	제2기병대대	장	
		소령	張 哲 夫
混成제3사단	장	준장	李 俊 植
제22연대	장	중령	姜 泰 敏
제1대대	장	소령	黃 明
제2대대	장	소령	金 載 圭
제3대대	장	소령	孫 永 乙

제25연대	장	중령	金 炳 徽
제2대대	장	대위	羅 熙 鶴
제3대대	장	소령	高 東 晰
士官學校생도대	장	소령	孫 官 道
제1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崔 慶 祿
제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제13연대장(대리)	장	소령	金 振 暉

(7월 1일부터)

敵 軍

北傀제1군단	장	중장	金 雄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8연대	장	중좌	金 秉 鍾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포병연대	장	대좌	安 白 成
제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제5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포병연대			
제105기갑여단	장	소장	柳 京 洙
			(7월 5일 사단으로 거편)
제107전차연대	}	基 幹	
제109전차연대			
제1사단	장	소장	崔 光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2사단	장	소장	李 靑 松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에는 6월 28일에 漢江以北의 서울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되자, 漢江 南쪽으로 철수한 我軍이 이 江을 사이에 두고, 江北의 敵과 對峙하여 攻防의 血戰을 벌이게되는, 漢江線의 全般的인 방어戰況을 取扱하였는데, 7월 3일에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그 이튿날인 4일에 我軍이 水原까지 내어놓게 되므로 水原철수 狀況까지 함께 다루었다.

이 戰鬪지역은, 攻勢的인 立場에서 主導權을 行使하는 敵 보병 4개사단과 전차 1개여단에 맞서 我軍의 混成 5개사단이 一 東海岸의 제8사단과 中部전선의 제6사단을 제외한 全軍 一死活을 걸고 방어에 임하였던, 本卷에 收錄되는 期間중의 최대의 決戰場인바, 또한 이 전투는 本 戰爭의 大局的인 흐름에서 勝負의 向背을 결정짓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투의 하나라고 評價되기도 한 것이다.

兵要地誌: 漢江은 太白山脈의 金剛山(△1,638)과 大德山(△1,307)에서 각각 發源된 北漢江과 南漢江이 兩水里에서 合流되어, 臨津江과 함께 黃海로 流入하는 全長 514km의 南韓에서 두번째의 長江大河이다.

그런데 이 戰爭과 관련하여 漢江線이라함은 대개 鶯梁津—永登浦에 국한하여 指稱하는바, 이는 我軍의 主力이 이 戰線에 방어의 重點을 둔 때문일 것이나, 本節에서는 이 地域 전반에 걸친 戰況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廣津橋에서 楊花橋에 이르는 24km區域의 漢江 南岸지역 모두를 包括하였다.

대체로 이 지역은 河床幅이 1~1.5km이며 江水幅은 300~500m, 그리고 水深은 平均 2~5m로서 결론적으로 어느 곳이든 徒涉은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廣壯洞—千戶里의 廣津渡(廣나루)와 蘆島—狎鴉亭洞의 蘆島渡 그리고 漢南洞—新沙里의 漢南洞渡와 西水庫—靈室里의 西水庫渡 및 麻浦—汝矣島의 麻浦渡와 西江—栗島(汝矣島)의 賀中里渡등 6개소의 나루터와 廣津橋 및 漢江橋의 2개 人道橋와 京仁間(下行 및 上行)의 單線鐵橋 그리고 京釜間의 複線鐵橋등 5개의 교량이 있어 江을 건너는 交通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 교량들은 28일 새벽에 我軍의 工兵에 의하여 廣津橋와 漢江大橋및 京仁間의 下行線鐵교는 徑間의 一部가 완전히 切斷됨으로써 사용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나, 京仁上行線과 京釜複線의 두 鐵교는 南쪽에서 세번째 徑間의 枕木과 鐵路 일부만 損傷을 입었을 뿐 骨材가 健在하여, 同日 아침 我軍의 일부가 車輛과 함께 그 교량을 이용하여 철수할 정도여서, 橋板작업등 補修如何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없지않았다. 그리고 나루터는 모두 몇척의 舢舨과 작은 木船뿐이어서 많은 병력의 同時도하는 어려웠지만 漢南洞渡만은 차량의 渡河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渡船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江을 건너 공격하여야 할 敵의 입장에서 본다면, 江 南쪽의 全지역을 殲滅할 수 있는 南山(△350)이 우측 서서, 鷹峰(△175;八角亭 東南쪽 2km)과 함께 漢南洞의 渡船場을 한눈에 굽어보고 있으며, 또한 老姑山(△104;南山 西쪽 4km)과 臥牛山(△105;老姑山 西쪽 1km)이 汝矣島와 永登浦일대를 감제하면서 賀中里渡를 要扼하는 형세이므로 이들 두 곳을 主渡河點으로 삼을 公算이 컸다. 이는 渡河時의 阻礙과 火력엄호에 適地일뿐만 아니라 그 正面의 江 南쪽에 砂土가 沖積되어 砂場을 이루고 있는바 그 幅이 漢南洞정면은 1km에 가까웠으며, 西江정면의 汝矣島는 2km를 넘었던 것이니, 이와같이 江의 南쪽에 형성된 緩衝지대를 이용한다면 橋頭堡의 確保에도 有利한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敵 보병의 渡河에는 실제로 漢江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다만 鷲梁津정면에서는 沖積地가 江의 北쪽에 형성되었고, 南쪽에 水道고지(△105;鷲梁津 水源池 配水場)등 一連의 稜線이 江邊에 沿하여 있으므로 여기만은 我軍이 殲滅의 利를 占有하게 되어, 敵의 接近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러므로 推斷컨대, 敵의 병력도하는 말죽거리정면(新沙里)과 永登浦정면(汝矣島)으로 指向되어 이 곳이 攻防의 主戰場이 될 것이나 그들의 戰車도하에는 別다른 方途가 없었으나만큼 필연적으로 鐵교의 확보는 彼我의 作戰上 緊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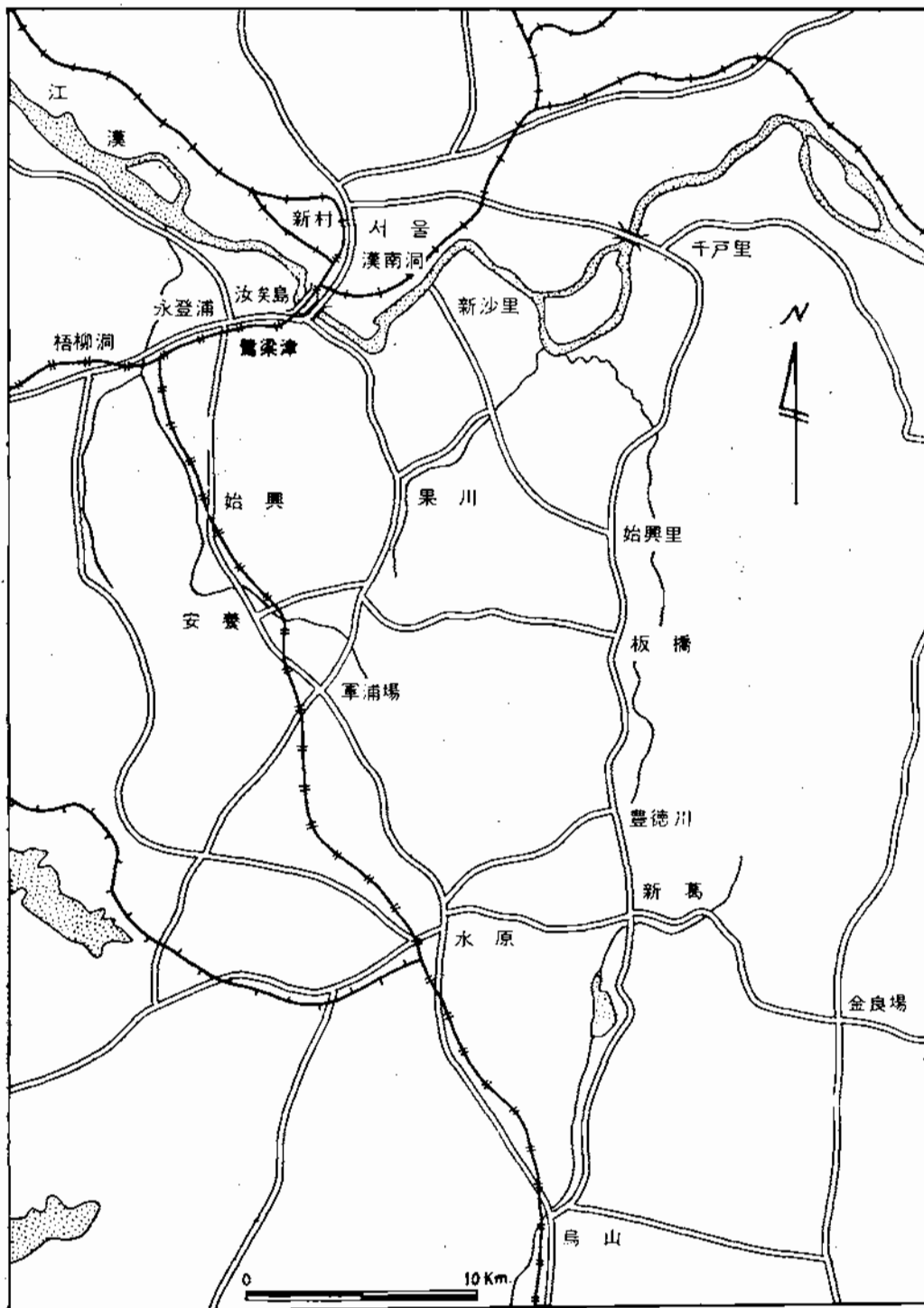
敵軍의 狀況: 6월 28일 새벽, 首都방위를 위한 我軍의 마지막 堡壘이기도 한 彌阿里저지선이 무너지자, 北魏제1군단(장, 중장 金雄)은 제105전차여단과 함께 그날 漢江 北쪽의 渡河點을 搜索하는 한편 市內의 主要기관을 장악하여 赤化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敵은 그 들의 제1단계 목표인 이른바 「서울占領」을 睇視하는 祝祭의 분위기속에서 그날 낮을 보내고, 이어 밤 부터 漢江渡河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들의 부대전개는 대체로 이러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新村일대에 자리잡아 漢江大橋(人道橋)에서 麻浦—西江에 이르는 汝矣島의 對岸을 점령하여 장차 永登浦로 江을 건너려하였으며,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은 龍山일대에서 二村洞—漢南洞사이의 江邊에 兵력을 배치하여 장차 말죽거리로 指向하려는 듯 하였다.

한편, 汝山쪽에서 合流한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水色부근에 집결하여, 그날 현재로 金浦비행장까지 侵襲한 同사단의 別動隊인 제14연대의 戰況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고, 또 제1사단(장, 소장 崔光)은 西大門쪽으로 入城하여 제3, 제4兩사단을 後繼한 예비로 전환된 듯하였으며, 제105전차여단(장, 소장 柳京溟)은 일부로써 市街地경계에 임하게 하는 한편 일부로써 二村洞—鷲

◇ 상황도 제23호 作戰地域의 道路網



淸사이의 江邊에 배치하여 渡河를 支援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또 한번 漢江線의 突破에 先頭가 된 제3, 제4兩사단은 각각 관측소를 南山과 卧牛山(△105) 및 老姑山(△104)에 두고, 포병연대로 하여금 南山 기슭과 新村일대에 放列케 하여 火力支援태세를 갖추게 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하여, 敵은 이른바 「서울占領」의 餘勢를 몰아 단숨에 漢江을 渡河할 반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지만, 당시 그들이 南江에 앞서 進擊에 장애가 될 臨津江과 漢江 그리고 錦江과 洛東江 등 四大江의 도하에 필요한 渡河資材 4組分을 U.S.S.R에 요청한바 있으나 1조분밖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그들은 맨 주먹으로 渡江하여야 할 입장이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戰車의 渡河문제 가 가장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敵은 28일부터 美공군기가 制空權을 掌握하게 되자, 美지상군의 參戰을 意識하여 渡河를 한층 서두르게 되었으나, 戰車의 도하方案을 모색하는 동안에 자연히 時日을 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狀況: 28일 아침, 걸잡을 수 없는 혼란속에서 저마다 九死중의 一生을 찾아 漢江을 건너 我軍의 渡河과정은 살펴보면, 대체로 議政府정면에 투입된 병력이 광나루와 폭섬 그리고 漢南洞와 西水庫의 各渡船場과 麻浦 및 賀中里(西江)나루터에서, 그리고 汝山정면에 投入된 병력이 幸州와 二山浦나루터에서 각각 艀艇이나 작은 木船등을 이용하여 江을 건넜는데,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水原으로 직결하고 폭섬과 漢南洞 그리고 西水庫를 經由한 일부는 始興과 水原으로 나누어졌으며 麻浦와 賀中里 및 幸州로 건너 병력은 대부분 始興으로 직결하였다.

이들 철수병력의 직결이 대강 끝난 것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였는데, 이 동안인 28일 낮에 水原農業試驗場에 새로운 지휘소를 개설한 육군본부는 始興에 金弘稷소장이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부대의 建制와 兵科의 如何를 따지지 않고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우선 鷲梁津부근에 투입함으로써 漢江防禦線을 急編케 하였다.

그리하여 혼성제2사단(장, 林善河대령)과 혼성제7사단(장, 劉載興준장) 그리고 혼성수도사단(장, 李鍾贊대령)이 각각 연대규모에도 못미치는 병력으로써 말죽거리—楊花橋에 이르는 漢江南쪽 강변을 나누어 맡아 擁護케 되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거든된 철수로 말미암아 疲勞困頓이 極에 달한 상태였고, 수습된 인원도 각 연대의 신병력이 연대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遺棄된 대부분 江邊에 遺棄한 까닭으로 共用火器도 연대당 박격포 2~3문과 기관총 5~6정이 고작이었다. 더우기 通信網이 확보되지 않아 橫的인 협조체제는 말한 나위도 없거나 縱的인 지휘체통이 원활치 못하여 各級지휘관은 밤을 구르며 傳令의 발견음만을 재촉하는 실정이었는데, 거기에도 모두가 혼성전선된 부대인지라 지휘관이 그 부하를 알아 보지 못하니 부하 또한 그 지휘관을 따르려하지 않고, 저마다 本隊를 찾아 흩어지기가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츨 戰列을 가다듬어간 我軍은, 이제 恐怖의 대상이 되는 敵의 전차가 쉼사리 그들을 따라 건너지 못하리라는 안도감속에서, 美軍의 赴援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漢江이란 自然障礙이 제공하는 地利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漢江線에서 持久堅守를 다짐하게 된 것이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敵軍의 企圖: 北傀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은 제1단계의 「서울占領」이 계획대로 進陟되자 곧 제2단계 작전실시에 들어갔는데, 뒷날 北傀 스스로가 밝힌 그들 제2단계 方略은 大

要, 다음과 같다.

『작전목표 : 美軍의 增援이 있기전에 漢江을 渡河하여 平澤—安城—忠州—堤川—寧越을 연하는 線을 占領한다.

작전방침 : 永登浦—水原—平澤의 京釜國道방향을 重點的으로 突破한다.』

더 이상 밝혀진바가 없어 漢江線을 돌파하여 水原까지 進攻하게 될 同제1군단의 구체적 작전계획은 詳考할 수 없으나 『제1군단과 제2군단이 협력하여 水原以北에서 韓國軍을 포위섬멸한다.』는바에 當面한 戰術目標을 두었다고, 그들의 公刊史인 「正義의 祖國解放戰爭史」에서 敷衍하였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서 그들 제1군단의 議政府—서울공격에 策應하여 春川을 돌파, 水原으로 迂回함으로써 我軍의 退路를 차단기로 된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이 공격初動에 春川에서 意外로 我제6사단(장, 金鍾五대령)의 善防에 부딪혀 그 企圖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제6사단의 春川—洪川전투 참조)따라서 이와같은 차질로 말미암아 이제 이 兩군단이 水原에서 挾擊하려 한 당초의 계획에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이 점을 念頭에 두고 이 作戰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들 제1군단의 作戰企圖는 大略 다음과 같이 考慮될 수 있다.

즉, 그들은 漢江線을 돌파하여 水原—平澤線으로 侵攻을 계속하되,

『① 제4사단은 右翼으로서 永登浦—安養—水原의 軸線으로 공격한다.

② 제3사단은 左翼으로서 말죽거리—板橋—豐德川—水原의 軸線으로 南進한다.

③ 제6사단은 京仁街道를 차단하여 梧柳洞—仁川을 점령한 다음, 別命에 따라 예비로 轉換한다.

④ 제1사단은 제4, 제3兩사단이 水原을 점령할때까지 예비로서 現위치에 대기하다가 後續 또는 超越攻擊한다.

⑤ 또한 제105전차여단은 계속 京釜國道로 指向하여 제4사단을 지원한다.

⑥ 軍단공병은 서울 鐵道局의 線路班員을 동원하여 조속히 鐵橋를 보수함으로써 戰車의 通路를 확보한다.

⑦ 各사단별로 공병대대의 渡河中隊로써 漕渡수단을 강구한다.』

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戰車의 突破力을 발휘하여 電擊的인 京水街道의 突貫作戰을 감행한다는 것인데, 그들로서는 我軍의 全병력이 安養—始興의 北쪽에 偏重되어 있을 것이라는 前提下에 그들의 對策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機動方策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

첫째 : 그들은 我軍의 방어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美軍의 增援이 있기전에 漢江을 渡河」하기 위하여 제3사단을 우회케 하여, 水原으로 直衝함으로써 漢江線의 我軍에 대한 退路를 위협하여 그 撤退를 強要한다는 것.

둘째 : 我軍의 방어력을 과소평가하고 「水原以北에서 韓國軍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제4사단으로써 我軍의 主力을 鷲梁津—永登浦線에서 牽制케 하는 동안, 제3사단으로써 水原으로 迂回하여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兩사단이 兩面에서 夾擊한다는 것.

셋째 : 以上の 2개 方案을 配合하여, 제3, 제4 2개 사단이 同時에 分進合擊으로써 水原의 점령과 我軍의 主力을 격멸을 꾀한다는 것.

그런데 실제로 敵제3사단은 6월 30일에, 그리고 제4사단은 7월 1일에 각각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던 것이니, 이로 보면 그들은 위의 두번째의 方案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推斷된다.

我軍의 方案 : 그러나, 이때 我軍의 지휘부는 이러한 敵의 作戰構想을 看破하여 근본적인 對應策을 강구할 情況이 되지 못한듯, 敵의 主力이 鷲梁津정면을 돌파하여 始興—安養—水原의 京釜國道로 指向되리라는 판단아래, 우선 병력이 수습되는데로 鷲梁津정면에 투입하는 姑息策만으로 始終하였던 것이다.

당초 漢江線의 防守계획은 前章에서 提及한바와 같이 敵의 全面南侵時에 遲延전지로 漢江의 自然地物이 이용될 수 있다는 必要性만이 戰爭前에 參謀學校에서 講義案으로 취급되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實行계획은 論外의 것이었다. 그리고 6월 26일 10.00에 국방부 장관이 主宰한 軍事경력자 諮問會議의 席上에서 참모학교장 金弘植 소장등에 의하여 後方에서 投入되는 병력으로써 漢江의 南쪽에 전지를 급편하고, 前線병력을 逐次로 수용함으로써 江南岸에서 決戰防禦태세를 갖추자.」는 意見이 擡頭된바 있으나, 이 역시 空論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또 27일에는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李鍾贊 대령)가 제8연대의 일부로써 鷲梁津일대에 진지점령을 企圖하였다가 議政府정면의 戰況이 악화됨에 따라 清涼里로 轉進케되고 말았는데, 이렇듯 漢江의 南岸에서는 事前에 아무런 병력配備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波及될 효과에 대하여서는 예측할 겨를도 없이 猝地에 漢江大橋가 폭파되고, 江北의 서울시街地가 敵手에 들어감으로써 이 一葦帶水가 國運을 左右하는 生命線으로 부각됨에 따라, 비로소 여기에 대한 防守對策을 세우고자 한 것이니, 실로 晚時之嘆을 금할 길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窮餘之策으로 案出된 것이 「我軍이 全力으로써 漢江을 防守한다」는 점을 敵으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도록 하는 虛張聲勢로써 敵을 江北쪽에 일단 억류시킨 다음에 시간을 얻어 조직적인 방어진지를 마련하여 보자는 것이었다.

즉, 28일 오전에 총참모장 蔡秉德소장이 水原農業試驗場에 육군본부를 開設하고, 전날 19.00에 역시 그곳에 美극동군사령부의 前方지휘소(ADCOM)를 설치한바 있는 同지휘소장 John. H. Church준장과 會同하여 서울의 喪失에 따른 대응方策을 협의한 결과 그 자리에서 美軍의 參戰가능성에 대한 示唆와 더불어 우선 始興—水原線에서 낙오자를 수습하

여 시급히 漢江線에 投入함으로써 漢江線을 固守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총참모장은 12.00에 金弘壹소장으로 하여금 始興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철수병력으로 혼성부대를 편성케 하여 이를 지휘, 漢江線을 방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에게는 水原에 위치하여 이곳에서 落伍兵을 收拾한 다음 地域防禦를 遂行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총참모장의 조치에 따라, 金弘壹소장이 14.00에 始興의 보병학교로 달려간바, 이때 始興 西北쪽의 金浦지구에서는 金浦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桂仁珠대령)가 26일에 金浦반도의 北端에 상륙한 敵제6사단 제14연대와 遲延戰을 벌이면서 金浦비행장부근으로 且戰且退하는 중이어서(金浦—梧柳洞전투 참조) 그야말로 七首가 腰背로 겨누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尙학교에 집결한 육본의 參謀陣과 지휘관들은 각기 방어 책임에 대한 部署도 정하여지지 못한 가운데서 저마다 병력수습에만 東奔西走하는 形便이었다.

이에 그는 제7사단장인 劉載興준장을 새로이 혼성 제7사단장에, 수도경비사령관인 李鍾贊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에, 그리고 보병학교 副교장인 林善河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수습된 烏島의 혼성병력으로써 漢江의 南岸을 沿한 방어선 편성에 着手하였는데, 이때 前참모학교 고문관인 Robert T. Hazlett 중령이 情勢判斷결과 助言하기를 『美지상군의 參戰은 期待이상으로 確實視된다. 그러나 赴援軍이 이 땅에 上陸하여 戰鬪展開를 갖출 시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며, 不然이면 赴援企圖가 無爲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赴援軍이 來着할때까지 필요한 時日은 尙後 3일간으로 본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일동안은 이 漢江線을 堅守하여 敵을 抑留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령관 金소장은 『앞으로 3일동안을 이 漢江線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運命이 가름된다.』는 점을 각급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當面한 戰線固守에 모든 力量을 집중키로 하는,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戰鬪사령부는 漢江線을 持久堅守하려한다.

② 혼성 제2사단은 新沙里—梨水橋(銅雀洞)정면을 固守하라.

③ 혼성 제7사단은 銅雀洞—大方洞정면을 固守하라.

④ 혼성수도사단은 新吉洞—楊花橋정면을 固守하라.

⑤ 김포전투사령부는 現위치에서 敵을 阻止하라. 특히 京仁街道의 확보에 만전을 期하라.

⑥ 각 사단은 敵의 渡河수단을 적극 粉砕하라.

⑦ 각 사단은 避難民에 대한 檢索을 철저히하여 赤色分子의 侵透를 阻止하라.

⑧ 지휘소는 始興(보병학교)에 위치한다.』

이와같이 하여, 당초에는 始興사령부가 이 漢江線의 방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通信網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탓으로, 실제로 尙사령부는 혼성 제7사단과 수도



사단만을 지휘하여 鷲梁津—永登浦의 방어에만 置重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安養川 건너의 金浦전투사령부는 거의 獨自의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혼성제2사단 역시 冠岳山으로 가로막힌 始興사령부의 장악을 벗어나 직접 水原에 있는 육군본부의 지휘하에 들게 되었다.

## (2) 작전실시

敘述의 便宜上 다음과 같이 地域別로 戰況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鷲梁津—永登浦부근 戰況(6.28~7.3)
- (나) 말죽거리—金谷里부근 戰況(6.28~7.2)
- (다) 水原 撤收狀況(7.3~7.4)

### (가) 鷲梁津—永登浦 부근 戰況(6.28~7.3)

**6월 28일** : 이제 漢水以北은 赤狗의 手中에 들어갔다.

이날 새벽 02.30에 轟然—發의 폭음이 漢江大橋를 뒤덮음으로써 首都서울은 그 最後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날이 밝자, 건널 길 없는 이 淸流—河는 그 北쪽에 남겨진 市民에게는 永遠히 잇을 수 없는 痛恨의 江이 되었으나 南쪽에서 捲土重來를 다짐하는 장병에게는 托翼의 防壁로 보였을 것인데, 三三五五로 南으로만 江을 건넌 그들의 悲憤은 이 江流를 障壁삼아 다시한번 決戰의 意志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 1. 始興전투사령부의 편성

이날 오전, 일부 군 수뇌와 함께 水原에 집결한 金弘壺소장은 前述한 바와 같이 총참모장 蔡秉德소장으로부터 始興전투사령관으로 任命되어 14.00에 始興에 나타났다.

그는 歩兵學校에 同사령부의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7사단 참모장인 金鍾甲대령을 참모장으로 하는 사령부의 參謀陣을 구성하여 漢江 防衛임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同학교에서 이날 새벽에 江을 건넌 參謀副長 金白—대령과 前작전국장 姜文奉대령 등이 그곳에 落伍者수용소를 설치하여 鷲梁津과 永登浦쪽으로 江을 건너 京水街道를 따라 南向하던 병력을 수습중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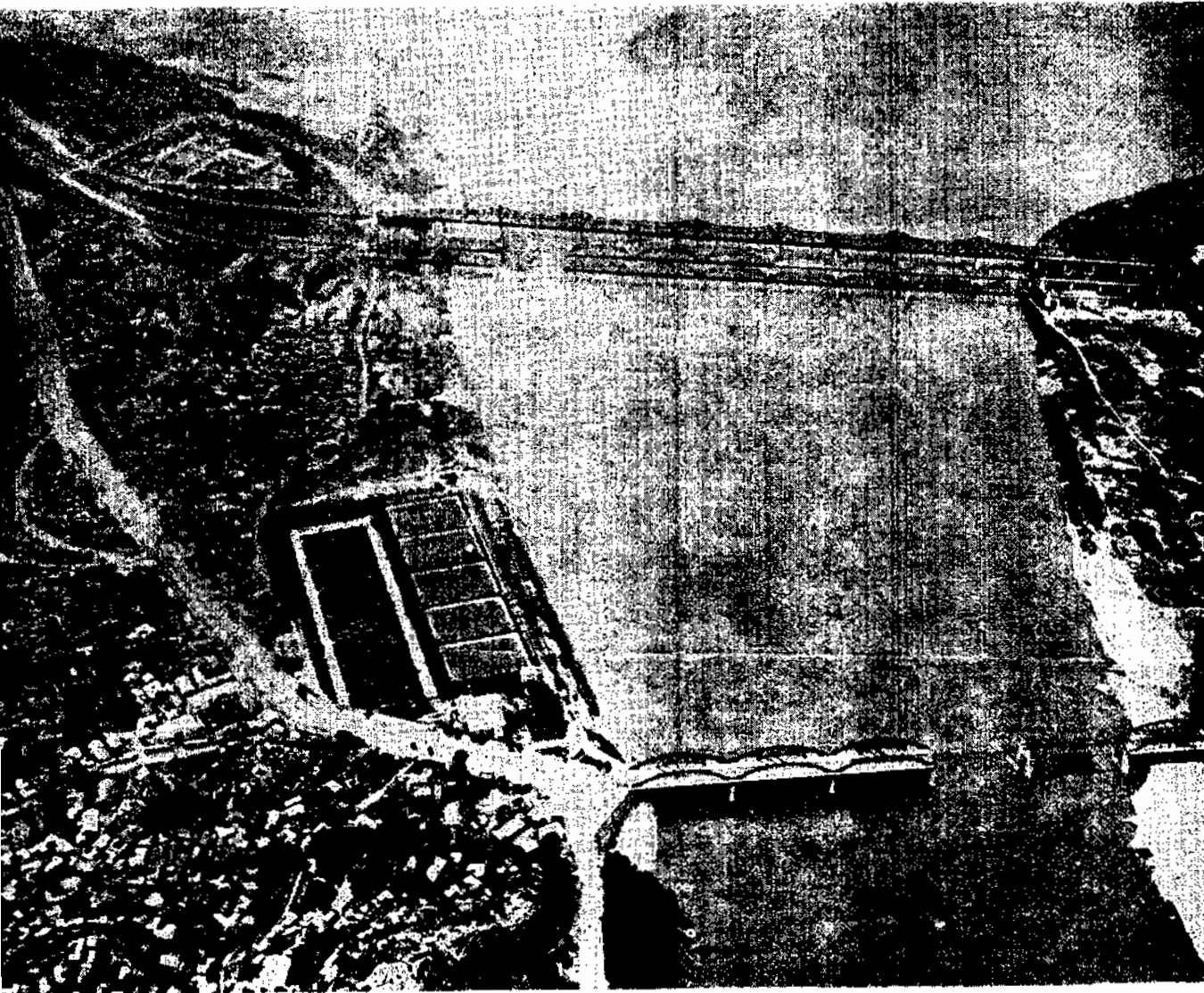
이에 金소장은 이들 참모들을 水原에 있는 육군본부의 총참모장을 補佐하는 本然의 직책으로 복귀토록 하고, 사령부 요원으로써 새로이 戰列再編에 임하였다. 民間人을 動員하여 安養과 始興의 두곳에 炊事場을 설치하고, 집결되는 병력에 대한 稿軍과 再編을 併行케 하는 가운데 劉載興준장과 李鍾贊, 林善河의 兩대령을 指命하여 漢江線의 방어책임을 분담토록 한 다음, 대대규모로 혼성편성된 병력을 漢江線으로 推進하였다.

15.00를 前後하여 혼성제7사단(장, 劉載興준장)에는 혼성2개대대를, 혼성수도사단(장,

李鍾贊 대령)에는 기갑연대의 장갑대대와 제8연대의 1개대대로써 사단의 基幹을 삼도록 하고, 혼성제2사단(장, 林善河 대령)은 新沙里 부근에 급편전지를 마련한 기갑연대 기병대대의 收容下에 말죽거리 일대에서 戰列을 수습토록 하였는데, 이 제2사단에 관한 사항은 次項(말죽거리—金谷里부근 전투)에서 詳述키로 한다.

## 2. 鷲梁津 부근의 狀況

漢江大橋가 끊어진 뒤인 이날 아침의 鷲梁津일대는 피난민과 철수병력이 몰려 阿鼻叫喚을 이루고 있는 對岸의 二村洞부근과는 달리 江을 건너 사람들이 南向길을 개척하여 이



〈당시의 鷲梁津부근 全景 : 1950. 7. 16 항공촬영〉

미 始興부근에 이르고 있었던 까닭으로 寥寥한 靜寂만 감돌았다.

제7사단장인 劉載興준장은 해가 뜰 무렵에 京水間의 下行線 철교 — 세개의 철교 가운데 中間單線 — 의 枕木을 밟고 건너, 07.00를 前後하여 鶯梁津驛에 도착한바, 그는 곧 驛舍에 임시지휘소를 開設하여 병력수습에 나섰다.

**機甲연대 裝甲대대의 火力示威** : 한편, 전날 오전에 論議되었던 始興으로의 육군본부 철수계획에 따라 江 南쪽으로 철수키로 한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각 일선부대에 派出된 병력을 漢南洞의 연대본부로 복귀토록 한 다음, 議政府정면에 지원된 제1장갑대대(장, 朴武烈 소령) 제3중대와 退溪院부근으로 出動한 제2기병대대(장, 張哲夫소령, 本名 金秉元)의 主力으로 하여금 먼저 江을 건너 大方洞에 집결토록 조치한바 전날 14.00를 前後하여 장갑대대는 漢江大橋를 건넜고, 기병대대는 漢南洞의 渡船場에서 연대專用的 艇船으로 人馬가 함께 渡河하였는데, 연대본부는 저녁 늦게야 軍糧米등 보급품과 함께 雨中の 車輛機動으로 永登浦의 又新國民學校로 移動하였다.

그리하여 28일 아침에 연대장 劉興守 대령이 始興의 보병학교로 가서, 마침 병력수습중이던 참모부장 金白—대령에게 연대의 집결사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참모부장이 同연대장에게 명령하기를 『장갑차를 鶯梁津의 人道橋입구에 출동시켜 對岸을 향하여 火力示威를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裝甲車 37mm砲의 위력을 빌어, 漢江 南쪽에 我軍의 방어진지가 構築되어 있다는 것을 江北쪽의 敵에게 誇示하기 위한 方便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劉興守대령은 손수 M-8장갑차 1대를 지휘하여 연대본부중대의 화기소대 — 81mm박격포 3문과 2.36"Rocket포 2문 및 Cal 50 重기관총 數挺 — 와 함께 鶯梁津으로 급히 나가, 16.00에 水道事務所부근에서 장갑차의 37mm포를 自身이 직접조준하여 對岸에 설치된 敵의 機關銃座에 사격을 加하였는데, 이로써 일단 이 漢江線에 대한 固守의 決意를 敵에게 보인 셈이었다.

**漢江線의 병력배치** : 이러한 동안에 始興전투사령부가 창설되면서, 劉載興준장이 새로이 혼성 제7사단장으로서 鶯梁津부근에 대한 방어책임을 맡게 되자, 15.00에 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大方洞의 首都육군병원(舊 法德溫泉, 現 空軍本部)에, 그리고 사단수용소를 隣接한 城南中學校에 開設하고, 戰列再編에 들어갔는데 이때 전날 漢江의 교량폭파임무를 수행한바 있는 공병(제1공병단 및 공병학교 병력)을 主軸으로 하는 혼성 1개대대가 始興에서 편성되어, 제7사단 정보참모인 李世鎬소령의 指揮아래 鶯梁津에 投入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死六臣墓所가 있는 △39와 月波亭(通稱 「張澤相氏 別莊」, 鶯梁津驛舍 西쪽 200m)에 占據하여 人道橋에서 大方洞 삼거리에 이르는 江邊에 배치하였는데 이와같은 경위에 대하여 제1공병단의 嚴在完소령은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나는 金浦의 공병학교에 교육과전중에 戰爭을 만났다. 곧 原隊로 복귀하여 26일과 27

일까지 富坪의 제1공병단 본부에서 待機하였는데, 27일 13.00쯤에 육군본부 공병감실로부터 「트럭 2대에 폭약을 싣고 감실로 出頭하라.」는 명령이 下達되었다. 그래서 dynamite 케착을 트럭 2대에 가득 싣고 공병감실로 가는데 漢江 人道橋를 지나려고 하니 그곳에 폭파장치를 하고 있던 공병학교 敎官 具明會대위가 「15.00에 교량을 폭파할 계획이니, 빨리 돌아오시오.」라고 알려주었다. 14.00에 감실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具대위의 말이 생각나서 트럭을 돌려, 다시 漢江을 건넜다. 永登浦 區廳 옆의 느티나무아래에 트럭을 은폐시켜 놓고, 혼자서 富坪에 돌아가 기다리고 있자니까, 저녁때에 「漢江橋의 폭파계획이 변경되었으니, 폭약을 싣고 다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어두울 무렵에 朴炳淳대위와 全有亨중위등과 함께 폭약트럭을 타고 감실에 다시 들어가니 참모부장 金白一대령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金대령에게 도착신고를 했더니, 대뜸 「그 폭약으로써 對전차용 爆雷를 製作하라.」고 명령하였다. 내용인즉 그 폭뢰를 市内의 要所에 장치하여 敵의 戰車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으나 實行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 그 폭약(dynamite)은 한 케착의 무게가 50pound씩이나 나가는 것이어서 將兵 한 사람이 그 케착 하나를 들고도 행동이 不自然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을 나눌 시간이 없어, 케착 단위로 火具만 裝置하였다. 이렇게 하여 急造된 爆雷를 全有亨중위가 일부병력과 함께 차량에 싣고 彌阿里쪽으로 나갔다. 그 뒤로 아무런 명령이 없어서 나는 남은 폭약을 다시 트럭에 싣고 富坪으로 돌아 갈려고 漢江으로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人道橋가 이미 폭파된 뒤였다. 人波로 길이 매워져서 그 폭약처리가 難處하였다. 그래서 폭약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운전병의 한사람인 尙중사가 「제가 어떻게 하든 폭약을 이대로 가지고 江을 건너볼터이니, 다른 사람들은 우선 맨 몸으로 江을 건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다른 방안이 없어서, 폭약트럭은 尙중사에게 일임하고 나는 병력 몇사람과 함께 漢江邊으로 걸어서 나갔다. 人道橋가 절단된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배를 구하고자 강변을 徘徊하는데 동이 틀 무렵에 龍山에서 鷲梁津쪽으로 列車가 철교를 건너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京釜複線중의 下行線철교위로 건너 08.00에 鷲梁津에 도착하였다. 내 뒤를 따라 3/4ton 및 2 1/2 ton등의 차량 몇대도 건넜는데, 尙중사의 폭약트럭도 기적적으로 그곳을 지나 鷲梁津에서 만났다. 철교를 지나면서 보니 導爆索등이 그대로 늘어뜨려져 있어서 사전에 폭파준비는 하였으나 어떤 理由로하여 폭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철교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것은, 나의 판단으로는 당시의 火具에 그 원인이 있지 않으나 생각된다.

그때의 폭과용 火具는 대개 導火索(dettonating fuse)에 雷管(dettonating cap)을 연결하고, 또 뇌관에다 導爆索 (dettonate cord)을 이어 폭약에 장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火具를 그 세개의 철교에다 각각 장치하였다고 볼때, 철교들이 서로 인접한 거리(15m~30m)정도)상, 어느 한 곳이 먼저 폭발하면 一導火索의 절단 길이가 同一하지 않거나, 點火시간이 一致하지 않을 경우— 그 爆風과 震動으로 말미암아 間髪의 차이로 나머지 火具가 分解됨으로써 機能을 喪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쪽의 京仁間 下行線이 먼저 폭발됨으로써 이러한 원인으로 中間의 同 上行線은 枕木의 일부만 손상을 입게 하는 가벼운 폭발이 되었고, 西쪽의 京釜復線부분은 아예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곳의 爆破責任을 맡았던 當時 工兵學校 敎官 李昌馥중위는 再次 修理點火하여 爆破하였다고 증언한다.)

어쨌든, 이런 경로를 거쳐 나는 12.00에 始興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그곳에는 金白一, 元容德대령등이 병력을 수습중에 있었는데 병력이 500여명 정도 집계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전날 漢江橋의 폭발작업에 動員된 공병단과 공병학교병력이었는데, 소령급 이상 장교를 찾아보니, 보병으로는 李世鎬소령 뿐이었고 공병으로서 許弼殷소령과 나, 그리고 經理장교로서 제1사단 소속의 金某소령등 네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李世鎬소령을 대대장으로, 許弼殷소령을 副대대장으로 하는 혼성대대를 편성케되었는데, 그대 각 중대장은 다음과 같다.



〈漢江邊에 배치된 我軍〉

제1중대장—공병대위 金熙童

제2중대장—공병대위 金品湖

제3중대장—헌병대위 石鍾燮

제4중대장—공병중위 崔永樂

대대는 지휘소를 大方洞 삼거리의 派出所에 定하고, 병력은 중대의 建制順으로 人道橋에서 鷲梁津驛을 지나 大方洞정면의 江邊에 배치하였는데, 許弼殷소령과 나는 곧 鐵橋복과 임무를 맡게 되었다. 대대가 江邊에 投入된 뒤로 대대장 李世鎬소령은 다시 혼성제7사단의 參謀로 복귀하였으며, 副대대장인 許소령도 水原의 공병갑사로 가게 되어, 결국 내가 그 대대를 指揮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이 혼성대대로써 방어체계를 갖추어가는 이날 저녁, 제15연대의 제1대대(장, 李存一 소령)가 全州로부터 급히 增援되었으므로 사단이 이를 收容하여 우선 黑石洞 고개 부근 水道高地의 北麓에 배치하였는데, 이 연대는 前章의 倉洞—彌阿里전투에서 言及된 바와같이 25일과 26일에 主力이 泰日川과 彌阿里 전선에 投入되고 대부분이 휴가 또는 外出이던 同대대만이 地域경제부대로 殘留하다가 전날 27일야에 대강 병력을 모아 全州를 출발하였던 것이다.

**鐵橋복파기도** : 한편, 사단장 劉載興준장은 아침에 自身이 건널 철교가 半破상태에서 兵力과 일부차량의 通行이 가능하다는 점에 着眼하고 敵이 이를 利用하지 못하도록 혼성대대의 공병으로 하여금 이를 완전절단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許弼殷, 嚴在完소령 등이 공병을 지휘하여 폭약을 확보하고, 이를 절단코자 試圖하였으나 複線의 南端에 있는 橋臺와의 연결부분이 약간 離脫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 뒤로는 敵의 妨害를 받게된 탓도 있으려니와 爆藥등 폭파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中間鐵橋(京仁間의 上行線)는 그대로 開放된채로 하나의 불씨가 되어 남게 되었다.

### 3. 永登浦 부근의 狀況

한편, 이날 새벽에 西水庫에서 나룻배를 얻어 江을 건널 首都경비사령관 李鍾贊 대령은 渡江 즉시로 始興으로 向하여 역시 그곳에서 白隊병력을 수습코자하였으나 당초 그의 指揮下에 있던 제3연대(장, 李尙根중령)와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는 議政府정면에 增援된 뒤로 흩어져서 그 行方조차 忒然한 실정이었으며 제8연대(장, 徐鍾喆중령)의 제1대대의 일부만이 同연대장과 함께 그의 掌握下에 들게 되었는데, 이때 이 永登浦에는 文來洞의 永登浦學院(장, 洪聖俊 소령)의 본부요원 170여명이 京仁街道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工場地帶에 대한 赤色分子의 騷擾防止에 힘쓰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5.00에 혼성수도사단장으로의 任命과 동시에 永登浦정면에 대한 방어 임무를 맡게되자, 우선 사단 지휘소를 又新國民學校에 개설하였는데 이 무렵 제8연대의 제

3대대(장, 朴泰云 소령)가 始興에 집결한바, 그 編成이 비교적 整然하였으므로 이를 사단의 基幹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대대는 27일에 金浦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桂仁珠 대령)에 配屬되어 金浦지구로 出動하여 通津의 東南쪽에서 敵과 一戰을 벌인뒤 金浦邑을 거쳐 金浦비행장으로 진수 하였다가(金浦—梧柳洞부근 전투 참조) 이날 새벽에 비행장에서 다시 水登浦로 轉進하여 漢江橋의 폭파를 확인하자 곧 始興에 집결케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師제8연대로 하여금 제1, 제3 兩대대로써 新吉洞—安養川에 이르는 汝矣島 맞은 편 江邊에 진지를 급편케 하고 기갑연대의 장갑차로써 이들을 지원토록 하는 가운데 戰列整備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제8연대장 徐鐘鼎중령은 연대의 지휘소를 사단본부인 又新國民學校의 北쪽 300m지점에, 관측소를 水登浦區廳부근에 각각 개설하고,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金浦街道에 沿한 진지를 점령하여, 將次 汝矣島쪽에서 指向될 것으로 판단되는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는데, 연대장이 직접 제1선의 壕속에서 연대원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연대를 지휘하였다.

또한, 전날 밤에 又新國民學校에 본부를 설치한 기갑연대는 露積중인 糧穀과 함께 始興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1장갑대대(장, 朴武烈 소령)는 대대본부를 계속 서울工業中學校



〈首都사단의 지휘소였던 又新國民學校〉

부근에 두고, 전날 江南쪽으로 철수한 장갑차(제1중대 3대, 제3중대 3대)로써 東으로는 漢江 人道橋와 鐵橋부근에, 西로는 楊花橋부근에 挺進배치하여, 各各 교량 확보에 主眼을 두도록 하고, 일부로서 鷲梁津—永登浦間을 往來하면서 一線부대를 火力支援케 하였다.

6월 29일 : 그간 浮動상태에 있던 戰線은 이 漢江線에서 일단 膠着狀態를 이루게 되었다

### 1. 鷲梁津부근의 狀況

전날에 이어 工兵이 철교복과에 대한 노력을 계속한 바 있으나 成功치 못하였는데, Church준장의 要請에 따라 13.00를 前後하여, 冲繩의 Kadena(嘉手納)基地에서 出擊한 美제5공군의 B-26爆撃機가 철교의 中間單線을 폭격하기도 하였지만 그도 別無成果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절단되지 않은 철교에 彼我的 關心度가 增大되어 가는 가운데 我軍의 복장으로 假裝한 敵의 便衣隊가 散發的으로 渡河를 企圖하였다.

敵의 渡河偵察 : 敵은 낮에 漢江의 北쪽 人道橋入口를 중심으로 그 左右에 늘어진 戰車의 火力掩護아래 작은 木船을 이용하여 本대규모씩으로써 渡河를 企圖하였다.

그들은 我軍이 水道고지와 △39일대에 방어의 重點을 두고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음인 지 黑石洞과 本洞사이의 江邊稜線(“도당재”, 現 十勇士記念塔地)과 銅雀洞—黑石洞 地境의 능선쪽으로 死角을 찾아 渡河하였는데, 이는 그들 主力의 도하에 앞서 掩護據點을 마련하는 동시에 我軍의 방어선에 대한 병력配備상태를 探知코자하는 偵察로 보였다.

사단의 병력增強 : 이에 사단은 오후에 始興사령부로부터 급히 증원된 제1연대(장, 李熹權 중령)와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의 혼성 각 1개대대 및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와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의 혼성 각 1개대대, 그리고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의 제3대대로써 담당지역의 방어력을 補強하였다.

그런데 이들 증원부대 가운데 제1, 제9, 제20, 그리고 제25연대는 議政府정면에 投入된 병력으로써 전날 아침에 廣나루에서 江을 건너 水原에 집결하여, 밤을 새워 再編을 끝내고 이날 낮에 列車로 始興에 추진되었으며, 제15연대 제3대대는 奉日川 지구에 증원되었다가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과 함께 철수하여(汝山—奉日川 전투 참조)전날 오후에 水色에서 蘭芝島로 건너 渡河한 다음 永登浦에서 밤을 지내고, 이날 아침에 始興에 집결한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鷲梁津—永登浦도로의 北쪽 강변지역에는 제1연대를 증원하여 그 정면의 公병혼성대대와 방어책임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한편, 銅雀洞—鷲梁津도로 南쪽에 連하는 高地帶의 확보에 注力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병력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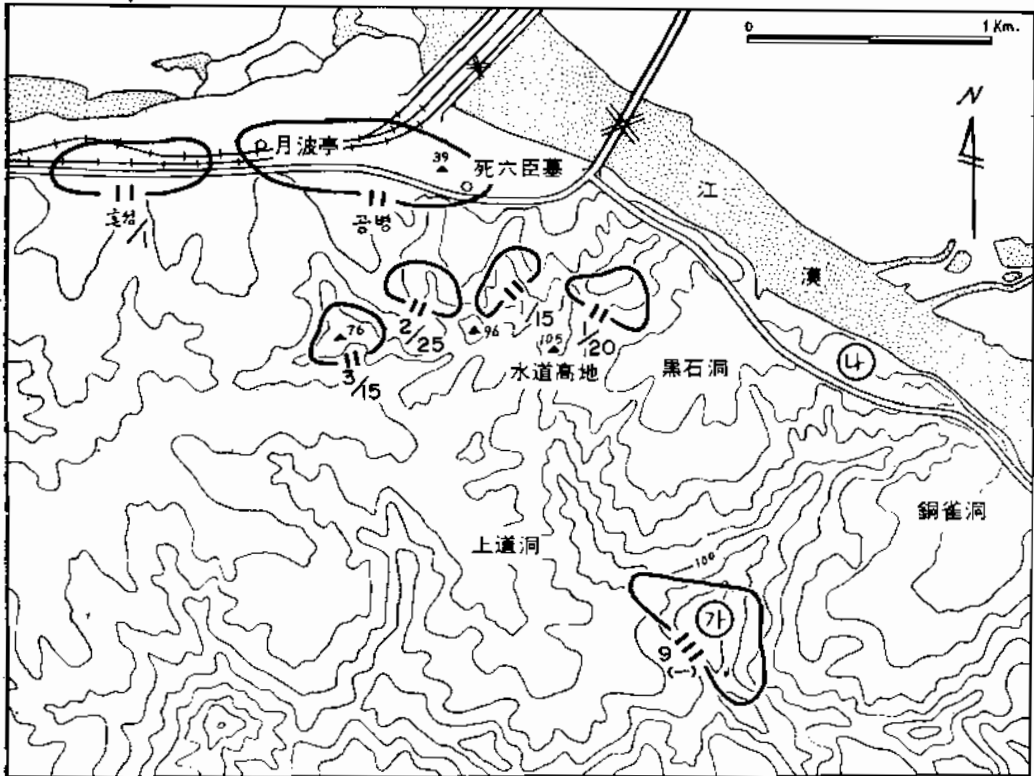
제9연대 혼성대대 : 銅雀洞—黑石洞사이의 稜線

제20연대 혼성대대 : 黑石洞—本洞사이의 稜線

제15연대 제1대대 : 水道고지 北麓(水源池 南쪽)



◇ 상황도 제24호 驚梁津부근 我軍배치狀況(6.29)



제25연대 제2대대 : 水道교지 西北麓(死六臣墓 南쪽)

제15연대 제3대대 : 水道교지 西쪽 堂山(△76)

江邊의 初一戰 : 이리하여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는 제1대대장 柳桓博 소령이 통합지휘하는 증강된 1개대대로써 大方洞의 사단수용소로부터 上道洞으로 진출하여 無名교지 ㉔(現 國立墓地 뒷산)에 올라 서 보니 눈 아래 東北쪽으로 떨어진 稜線(銅雀洞—黑石洞 地境線)이 끝 닿는 江畔의 無名교지 ㉕(明水臺 국민학교 東쪽 300m 丘陵)를 소대규모가 占領하고 진지를 急編중이었다.

이에 同대대가 銳氣를 몰아서 稜線을 휩쓸어 나아가 단숨에 그들 敵을 芟除하고 말았으나 곧 江北쪽으로부터 敵의 砲火가 집중되었으므로 그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㉔ 교지의 頂上에 진지를 편성하였는데, 이날 밤에 夜暗을 타서 敵이 다시 渡河하여 ㉕ 교지를 手中에 넣었다.

한편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는 26일에 彌阿里에 投入된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만이 수습되었던 것이나, 전날의 渡河과정에서 그나마 병력이 分散되어 이날 水道교지부근에 증원된 것은 2개중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역시 먼저 水道교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江邊을 굽어본바 黑石洞—本洞교개 너머의

“도당재”일대에 증강된 소대규모가 渡河거점을 마련코자 壕를 파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金用琳, 崔同根 兩대위가 거느리는 2개중대 200여명이 대대장 金漢柱소령의 지휘하에 이를 剔抉키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敵이 背水의 陣을 치고 있음에 착안하여 분대규모로써 탐색공격을 몇 차례 試圖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만만치 않아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이 대대원을 橫隊로 전개토록 한 다음, 대대 나팔수로 하여금 돌격나팔소리를 우렁차게 울리게 하면서 突擊을 號令하니 중대장 金用琳대위가 先頭에서 바야흐로 夕陽을 등에 지고 白兵을 휘몰아 쳐서 그 敵을 모조리 들쭉으로 밀어넣고 말았는데, 이윽고 어두운 그림자가 노들의 水面을 뒤덮어 이 一戰의 幕을 내리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蘇聯製 Maxim 기관총과 Czecho式기관총등 銃器 數挺을 노획하기도 하였으나, 뒤 이어 江 건너의 마주 보이는 對岸에서 겨누어진 敵의 戰車砲와 野砲가 집중된 까닭으로 탄약보급등 支援이 뒤따르지 못한데다 대대의 유일한 無電機마저 파괴됨으로써 그 前斜面에서 더 支撐치 못하고 고지 頂上으로 철수하였다가 이어 사단수용소로 집결하였다.

이 동안 水道고지의 北麓에서는 별다른 接敵상황이 없었다.

제15연대 제1대대(장, 李存一소령)는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제25연대 혼성제2대대(장, 裊雲龍소령)는 그 西쪽 稜線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 대대도 전날 漢江을 건너는 澗中에서 분산을 뚫지 못하여, 始興에서 수습된 병력이 2개중대규모에 不過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는 10.00에 명령에 의하여 사단수용소에 집결한 다음, 前 연대 S-3 보좌관인 張永鍾중위를 대대 S-3로 맞아들이고, 400여명의 대대원으로써 화기중대가 없는 3개중대로 재편성하여 제25연대 제2대대의 西쪽 堂山(△73)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鷲梁津—永登浦 도로의 北쪽 강변지역을 맡았던 공병혼성대대(장, 嚴在完 소령)는 제1연대 혼성대대의 증원에 따라, 大方洞派出所의 본부를 月波亭으로 옮겨, 漢江大橋入口—梁津驛의 右半部를 담당케 되었으며 제1연대의 혼성대대는 당초 제3대대가 그 幹幹이었으나 대대장 金煌穆소령이 사단의 G-3로 轉補된 까닭으로 同副대대장 姜琬琛대위를 대대장으로 대대교육관 金祥玉대위를 부대대장으로, 金基榮, 俞象在의 兩중위를 중대장으로 하는 2개중대로 재편되어, 鷲梁津驛의 西쪽에서 大方洞 삼거리에 이르는 그 左半部를 맡게 되었다.

仁川 出動: 그런데 이날 낮에 仁川에서는 同地 刑務所에 수감중이던 左翼系 죄수들이 脫獄하여 武裝폭동을 惹起시키는 사태가 돌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該지역의 軍警은 모두가 各전선 지원차로 出戰한 터이라 이의 制壓에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어서, 자칫 그곳이 無日天地로 변할 憂慮가 없지 않았다.



〈工兵대대 지휘소였던 月波亭〉

따라서 이 사태가 水原의 육군본부에 急報됨과 동시에 鎭壓이 요청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19.00에 始興사령부로 하여금 병력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토록 조치한 바 同사령관 金弘堧소장은 혼성 제7사단의 수용소에 집결한 제20연대장을 불러 「1개중대를 뽑아 仁川으로 出動시켜, 폭동을 진압하라.」라고 命命하였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同연대장 朴基丙대령은 곧 파견병력의 抽出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때, 26일 밤에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의 통합지휘下에 率口川부근에 投入된, 同연대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의 제12중대가 이날 새벽에 幸州에서 江을 건너 18.00에 始興驛부근에 집결대기중임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이 同중대의 隊伍를 점검한즉 重火器는 모두 江北에 遺棄하는 바 되었으나 병력과 경장비는 대체로 溫存한 편이어서 이를 仁川으로 出動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밤중으로 同중대가 仁川을 向하여 발길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뒷날, 當該중대장 康永傑대위는 당시의 상황을 述懷하기를,

「이날 아침에 幸州에서 江을 건너 중대가 종일 길을 헤멘 끝에 저녁무렵에야 始興에 도착하여 비로소 大韓婦人會가 제공하는 주먹밥 한덩이씩으로 우선 허기를 메우게 되었다. 始興驛부근에 집결하여 그곳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는데 연대장 朴基丙대령이 와서 「피곤하겠지만, 지금 곧 仁川으로 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럭 5대를 지원받

아 한밤중에 병력을 分乘시켜, 仁川으로 떠나, 그 이튿날 30일 새벽 03.00쯤 仁川市街 전방(京仁街道上) 2km 地點에서 下車, 徒歩로 市内에 들어갔다. 이른 새벽 시내에 들어서자, 곳곳에 붉은 壁報가 나붙어 있어, 一見하여 無法天地였다. 民間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즉, 仁川 刑務所가 파괴되고, 탈옥한 죄수들이 지방左翼分子와 合勢하여 亂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萬國公園 정상에 벽돌로 지은 건물(教會?)을 우선 점령하여 본부로 定하고 1개소대를 그곳에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나머지 병력으로써 市街에 나 붙은 벽보를 떼면서 탈옥한 죄수들을 索出하였다. 刑務所에 갔더니, 당초 同형무소에 소총 31정이 있었다고 했으나 回收된 것은 10여정 뿐이었다. 그날 오후에 襄津地區에서 철수한 일부경찰이 집결하였다. 京畿道경찰국에 협조를 구하여 軍警이 合同으로 治安確保에 나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 그때 나는 埠頭의 油類庫와 육군 被服分廠 등의 要所 확보에 主眼을 두고, 병력을 분산배치하는 한편, 우리가 타고 갔던 트럭 5대에 휘발유의 後送에 專力하였다. 그렇게 하여, 7월 2일까지 仁川의 治安을 맡고 있다가 다시 命숨에 따라 素砂로 이동하여 기갑연대 병력과 함께 敵을 막은 다음 3일에 철수하여 平澤으로 갔다.』

라고 하였다.

## 2. 永登浦 부근의 狀況

MacArthur元帥의 戰線視察 : 한편 이날, 東京의 美極東軍사령관인 MacArthur 원수가 15명의 隨行員을 帶同하고 專用機편으로 羽田空港을 떠나 10.00에 水原비행장에 도착한바 그는 곧 ADCOM에서 Church 준장으로부터 戰況보고를 받은 다음, 前線을 살펴보기 위하여 車輛으로 始興사령부를 訪問하였다.

이때 사령관 金弘壹소장은 작전지휘차 不在中이어서 참모장 金鍾甲대령이 通譯을 겸한 案内를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병사령관 宋堯讚대령과 空軍헌병대장 金得龍중령의 警護아래 元帥일행은 永登浦의 수도사단 戰線을 視察케 되었는데, 당시에 同元帥를 안내하였던 金鍾甲대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面貌는 이러하였다고 한다.

『그때 내가 案内를 맡게 된 까닭으로 元帥와 한 車에 同乘하게 되었는데, 차량은 검은 Sedan이었으며, 運轉兵 옆의 앞 좌석에는 美고문단장 代理인 Wright대령이, 그리고 뒷좌석에는 元帥와 美극동군참모장 Almond 소장,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始興에서 永登浦로 北向하여 又新國民學校의 수도 사단본부에 들렀다가 사단장과 함께 고개를 넘어 東洋맥수공장부근에 이르니, 敵의 120mm 박격포탄이 亂舞하기 시작하였는데, 길 옆에서 있는 버스 1대가 포탄에 맞아 박살이 나기도 하였다. 이에 Wright대령이 「위험하니,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元帥에게 권유하였으나, 元帥는 斷乎히 「아니, 나는 漢江을 보아야겠다(No. I want to see Han River).」하고 漢江行을 강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포탄의 集中으로 더 이상 차량의 進行을 허락치 않았으며

로 부득이 차에서 내려 옆의 맥주공장으로 잠시 待避케 되었다. 敵의 박격포탄 사격이 뜸하여 진 틈을 타서, 제8연대의 일부가 진지를 점령중인 공장 옆의 언덕위에 올라 가, 雙眼鏡으로 漢江을 觀察하였다. 이때 元帥는 그곳의 개인호숙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던, 일등중사의 제급장을 단, 어느 병사를 보자 가까이 다가가서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숙에 있을 셈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그 중사가 대답하기를 「閣下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모름지기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上司로부터 철수명령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나의 통역으로 전해 들은 元帥는 그 氣概에 크게 감동한듯,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慰撫하고 나에게 다시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곧 東京으로 돌아가서 支援兵力을 보내줄터이니, 安心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MacArthur元帥는 자신이 직접 漢江線의 戰況과 國軍의 戰力을 살피고 水原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이 視察에 대한 경위와 결과는 다음 제7장의 「美極東사령부의 動向」에서 詳述키로 하거니와 여기서 있었던, 일개 병사가 歷戰의 老將인 그를 감격케 한, 이 劇적인 장면은 당시 國軍이 비록 劣勢에 몰려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그 敵愾心과 闘志만은 旺盛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듯 하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元帥의 漢江視察은 그 자신에게는 國軍의 再起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國軍將兵에게는 美軍지원이 確約됨으로써 士氣高揚의 더 없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對戰車砲소대의 玉碎: 한편 이 정면의 책임을 맡은 제8연대(장, 徐鐘喆 중령)는 正午 무렵에 元帥일행이 水原으로 回向한 다음, 心氣를 一轉하여 방어태세를 한층 가다듬었는데 이때 연대에 제18연대 제1대대대와 57mm대전차포 1개소대가 增援되었다.

그런데 同대전차포소대에 대한 소속과 증원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18연대 제1대대(장, 朴哲用 소령)는 당초 소대대가 휴가중이어서 연대主力과 함께 出戰치 못하고 三角地(龍山)의 연대본부에 남아있다가 전날 새벽에 江을 건너, 始興에서 休暇복귀병력을 수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18연대 역시 수도경비사령부의 建制부대였으므로 제8연대를 增援케 된 것인데 이에 연대장 徐鐘喆중령은 同대대를 安養川 東岸에 배치 함으로써 새로이 연대의 左一線으로 삼아 이로 하여금 金浦쪽에서 敵 侵襲에 대비토록 하고, 연대의 제1, 제3兩대대로써 汝矣島정면 방어에 注力케 하였다. 그리고 대전차포소대는 제3대대의 火器중대장이 이를 지휘하여, 東洋맥주공장 南쪽의 고개에 砲座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혼성수도사단(장, 李鍾贊 대령)의 水登浦정면에도 戰力의 補強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1개 연대의 實力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正午를 넘어서자 敵이 뱃목을 타고 賀中里나루터 부근에서 汝矣島의 北端인 栗島(밤섬)로 산발적인 渡河를 시작하였다. 이때 對岸의 唐人里에 放列된 敵砲가 그들의 渡河를 지원하였는데, 연대는 이 敵火를 제압코자 하였지만 연대의 重火器인 81mm박격포로서는 그곳

까지 射程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는 낮 동안 敵의 汝矣島비행장으로의 접근을 막은 다음, 해가 진 뒤에 그들의 砲陣지를 覆滅키로 하였다. 즉, 제3대대의 화기중대장인 金仁植중위가 대전차포소대를 汝矣島로 추진하여 火力으로 急襲토록 한 것이다.

이에 同소대가 薄暮속에서 砲 4문을 쏘고 汝矣島의 西北쪽 丘陵지대로 들어가, 노을에 잠긴 敵陣을 향하여 奮心의 一彈을 加하였는데, 이것이 연대정면의 敵陣에서 炸裂된 첫 砲彈이었다. 그러나 장병들의 환호성속에서 연달아 10여발을 사격하였을 무렵, 미처 그 成果도 헤아릴 겨를없이 敵의 砲火가 그 砲陣지에 집중됨으로써 2시간여동안 汝矣島의 西北端일대는 불바다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同소대는 마침내 殘名도 남지 않고 玉碎하고 말았다.

이 동안에 栗島에 渡河據點을 확보한 敵이 그들의 砲火에 힘입은 듯이 金浦街道쪽으로 공격함으로써 白沙揚에 碧血을 뿌리는 攻防戰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에 同街道의 제방에 의하여 1m간격으로 壕를 파고 진지를 점령한 장병들은 各者의 띠를 풀어서 옆 사람과 연결하여 실렁줄을 만들어, 서로 奮勵하면서 그 敵을 막아내었다.

6월 30일 : 이날부터 敵의 渡河企圖가 露骨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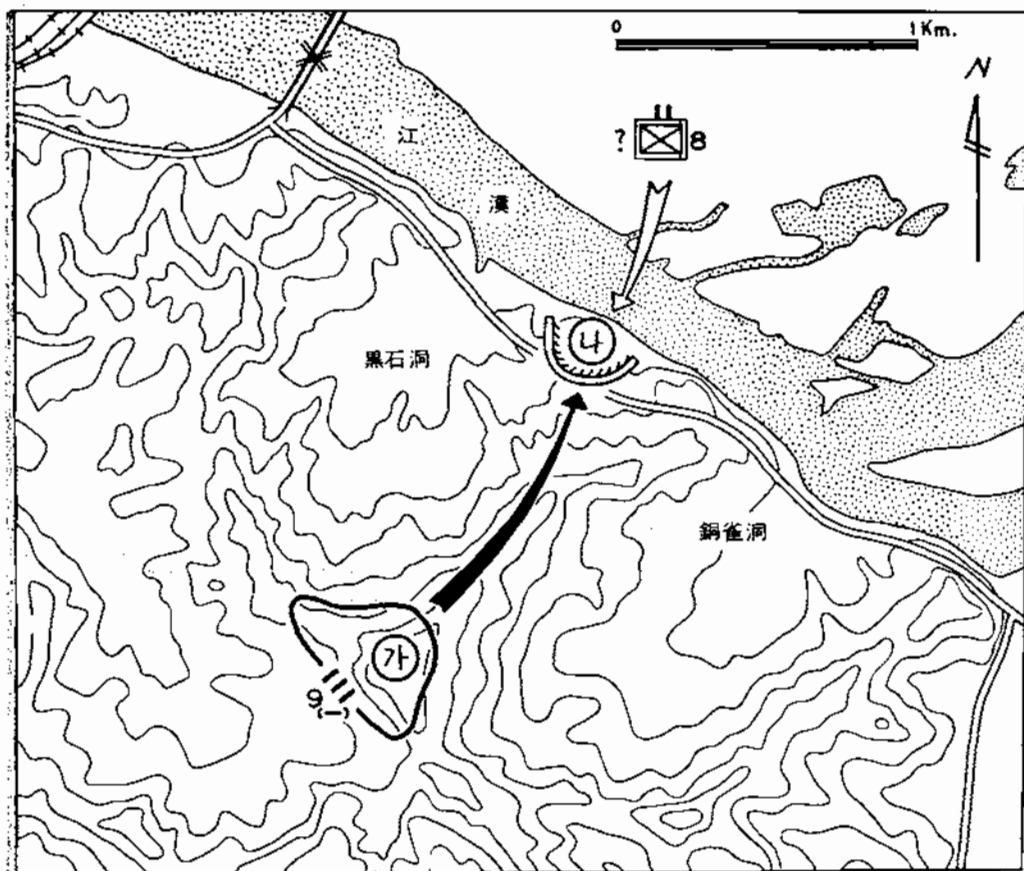
### 1. 鷲梁津 부근의 狀況

제9연대 혼성대대의 攻防戰 : 날이 밝자, 敵이 전날 밤에 확보한 ㉔ 고지를 발판으로 그들 포병의 지원아래 다시 渡河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㉔ 고지에 병력을 증강하여 據點을 강화하는 가운데 ㉔-㉕의 稜線의 일부까지 장악함으로써 銅雀洞-黑石洞의 강변도로를 分斷하는 한편, 점차로 그 醜錄을 ㉔ 고지의 정상으로 指向하며 접근하려 하였다.

이에 ㉔ 정상의 제9연대(장, 尹春根중령)가 先制로 陣前出擊하여 稜線을 따라 오르는 敵과 一進一退를 벌임으로써 그 敵의 侵襲을 막았는데, 오전중으로 美공군의 제19폭격전대 B-29 15대가 江北岸의 제방을 따라 집결병력과 渡河舟艇을 중점적으로 공격한바 있으므로 연대는 이에 힘입어 그들 敵을 몰아 ㉔ 고지부근에서 釘着케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江岸地域에 발판을 마련한 敵과 終日토록 射擊戰으로 應酬하였는데, 여기에서 얻은 捕虜의 전술에 의하면 그들은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 제8연대에 소속된 대대라고 하였으며 이날부터 그들 사단의 主力이 漢南洞-西水庫에서 말죽거리 正面으로 도하공격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그 主力의 渡河에 대한 側方掩護를 위하여 我軍의 注意力과 火力의 견제수단으로 취하여진 陽攻策이 아닌가 믿어진다. (次項, 말죽거리부근 狀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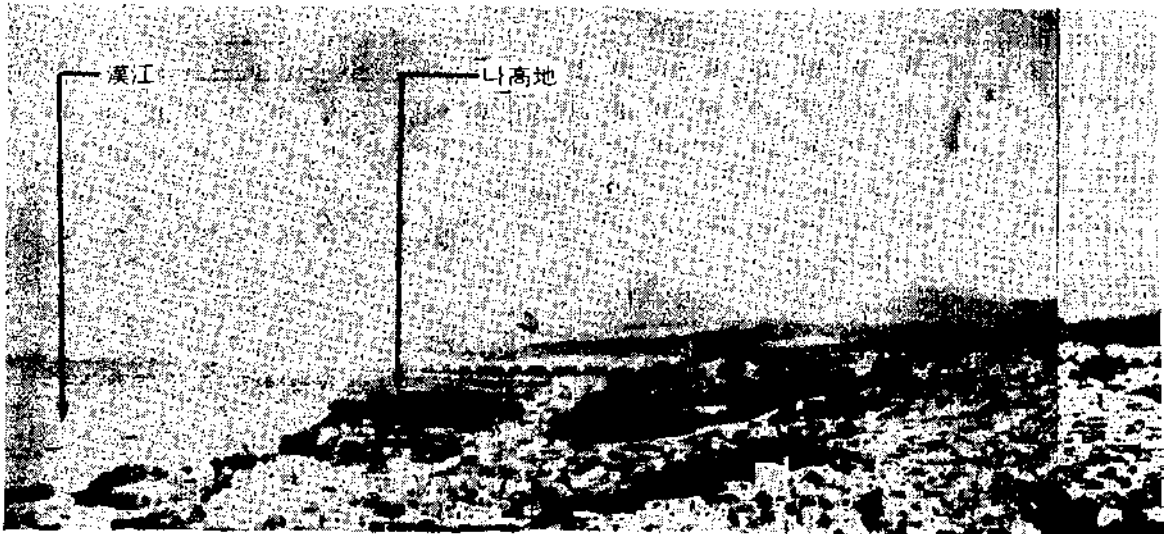
제15연대 제3대대의 殊勳 : 한편, 水道고지 정면에서는 전날 저녁 제20연대 제1대대의 철수로 말미암은 虛隙을 노려 이날 새벽에 敵이 다시금 江을 건너 “도당재”에 登陸함으로써

## ◇ 상황도 제25호 제9연대의 敵 공격 狀況(6.30)



渡河據點의 확보를 집요하게 試圖하였는데, 그 병력은 모두 1개 중대규모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단은 제15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 제25연대 제2대대(장, 裴雲龍 소령)로 하여금 이들이 江岸에 立脚地를 굳히기 전에 驅逐토록 한바, 拂曉에 兩대대가 上道洞에서 隊伍를 전개한 다음 제15연대 제3대대를 先頭로, 전날의 제20연대 제1대대와 같이, 水道고지—도당재稜線을 따라 공격한 결과 10.00를 전후하여 또 한번 그들을 江물속에 쓸어넣고 말았는데,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이 공격을 지휘한 대대장 崔炳淳 소령은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전날 밤 23.00에 敵이 人道橋의 橋脚주위로 배를 저어 渡河한다는 보고를 받고, 鷲梁津에 나가보니 이미 黑石洞고개(現 十勇士碑가 세워진 곳)부근에 붙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단지휘소로 가서 사단장 劉載興준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사단장이 「敵이 많이는 못견뎠을 것이니, 즉각 공격하여 격멸하라!」고 명령하였다. 당시에 우리 대대는 城南중학교에 대대본부를 두고, 제10중대를 그곳에 예비로 확보하고 있던 터이므로, 나는 이 중대를 선두에 내세워 공격키로 하였다. 새벽 04.00를 期하여 上道洞으로 중대를 추



〈지난 날의 激戰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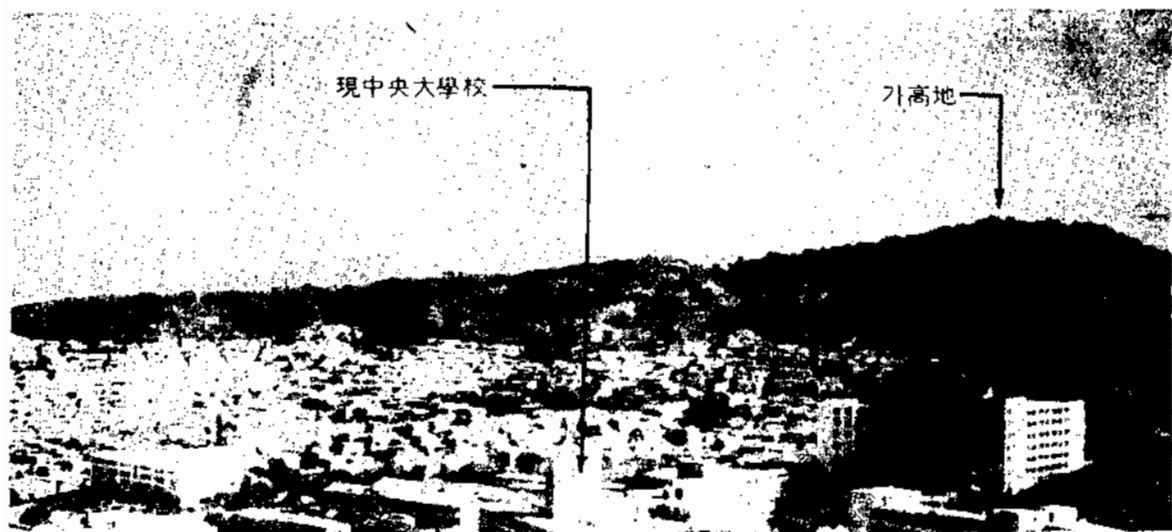
진하여 水道고지 黑石洞고개의 稜線을 따라 正面공격케 하고 진지에 배치중인 제9, 제11兩중대로써 側方에서 火力지원토록 한바 銳氣로써 몰아치니, 敵이 당황하여 江물로 뛰어내렸는데 거의가 魚腹의 신세를 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미처 물속에 뛰어들지 못한 10여명을 俘虜로 잡고 갖가지 무기를 노획하였다. 小銃類가 100정, 기관총이 4~5정, 권총이 20여정, 그리고 수류탄이 300여발이나 되었는데, 트럭 2대로 실어나를 정도였다. 11.00를 前後하여 戰場整理를 끝내고나서 城南中學校의 校庭에서 그 노획무기의 展示를 한 다음 15.00에 다시 그 무기들을 水原으로 移送하였다. 그때 대대의 손실은 死傷者를 합쳐서 30여명이었다.』

이와 같이 兩대대가 氣焰을 壯하여 敵의 觸手를 자르는 가운데 鷺梁津—本洞일대의 民家와 稜線의 구비를 따라 敵의 直射砲의 死角을 이용하여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계속되는 晝間渡河를 막았다.

그런데 이날 이른 아침에 美제5공군의 제3폭격전대의 한 폭격기가 서울의 北쪽 近郊의 교통망을 遮斷폭격하던중, 아침 漢江의 中間鐵橋위에 木板을 깔면서 건너는 戰車와 차량 縱隊를 포착하자 이를 폭격하여 同單線鐵橋의 南쪽에서 세째번 徑間을 절단함으로써 敵전차의 渡河企圖를 烏有化시켰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敵이 이날 새벽에 水道고지 부근에 도하한 것은 이들 戰車의 通行을 위한 橋板作業을 엄호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겠다.

사단장의 措置 : 이렇게 하여, 낮 동안 水道고지부근에서는 敵의 侵襲을 막아내었으나, 제9연대의 ㉞ 고지 正面에서는 이날 중으로 江南岸에 올라붙은 敵이 1개대대규모로 推斷됨으로써 同연대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 날의 ㉑—㉓稜線〉

저녁에 이와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 劉截興준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敵陣이 더욱 굳어 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同연대로 하여금 이를 격퇴토록 嚴命하는 한편, 중대 水道교 지일대에 방어의 重點을 두었던 方畵을 바꾸어 그곳의 제25연대 제2대대를 ㉑ 교지—水道교지 사이의 능선으로 뽑아돌려, 同연대를 지원하면서 同연대와 함께 一貫된 陣地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前節에서 提及한 바와 같이 이날부터 始興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梧柳洞전선에 대한 방어책임을 맡게된 제15연대장 崔榮憲대령의 요청에 따라, 同연대의 제1대대(장, 李存—소령)를 梧柳洞으로 轉進케 하는 한편,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다시 水道교지 부근으로 추진하였다.

## 2. 永登浦 부근의 狀況

전날 밤 汝矣島를 사이에 두고, 彼我が 攻防의 血戰을 치르는 동안, 날이 밝았는데 敵이 이 正面의 제8연대(장, 徐鐘喆중령)의 진지를 깨지 못한채 일부로써 汝矣島의 비행장을 掌握케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눈 앞의 汝矣島에 敵의 진지가 굳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3대대에 다움과 같이 명령하였다.

『1개 중대를 汝矣島에 投入하여 敵을 격멸하고 비행장을 확보하라.』

이 명령을 받은 同대대장 朴泰云소령이 곧 제11중대(장, 金光海대위)를 비행장에 投入한바, 激戰끝에 이 敵을 驅逐하고 비행장을 점령한 다음, 그 주변에 호를 파서 경계진지를 急編케 되었다.

그러자 江 건너의 麻浦와 新村에 放列된 敵砲가 이 중대의 행동을 窺視한 듯 烈火를 吐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포화가 汝矣島일대에 數없이 집중되었는데, 이때에 同時發揮된 砲兵威力은 연대장 徐鍾喆중령 自身이 『한국전쟁의 全 期間을 통하여, 北傀軍으로부터 받은 가장 熾盛한 포격의 하나』라고, 懷述할 정도로 狂的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대가 同제11중대를 철수시켜 本陣으로 收容키로 하였으나, 그 포화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탓으로 堤防의 障地로 철수치 못하고 비행장內의 格納庫속으로 待避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敵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이윽고 격납고가 火焰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중대장 金光海대위가 散華하는 등 많은 死傷者를 내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終日토록 이 汝矣島는 누구도 그 主人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서로 火力만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사단본부에도 이렇듯 熾盛한 敵의 포화가 雨注한 까닭으로 사단장 李鍾贊대령은 지휘소를 東洋맥주공장으로 移轉하였다.

7월 1일 : 敵의 渡河공격이 전날보다 한층 苛烈化되었다.

### 1. 鷲梁津 근부의 狀況

이날, 제7사단(장, 劉載興준장)의 방어정면인 이 지역의 江岸에 올라붙은 敵을 芟除키로 한 노력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現 전선은 그대로 固守하였다.

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는 전날 밤의 사단의 명령에 따라 날이 밝은 다음인 10.00에 목표 ㉔ 고지를 지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對岸에서 노려보는 敵의 砲火에 행동의 制約을 받게 되어, 오히려 병력손실만을 보게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㉔ 고지의 本陣으로 反轉하고 말았다.

그리고 역시 전날 밤에 사단장으로부터 『㉔고지—水道고지의 稜線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5연대 제2대대(장, 裴雲龍 소령)는 대대장의 전투지휘하에 2개 중대로써 水道 고지부근에서 목표능선으로 나아가다가, 밤 사이에 同능선에 숨어든 敵 1개분대규모와 격돌케 되었으나 이를 단숨에 무찌르고 목표를 점령하였는데, 대대가 그 능선위에 올라서는 순간에 江 건너로부터 박격포탄이 쏟아져서 대대장 裴雲龍소령이 戰死하는 등 적지않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先任者인 제8중대장 金白泳대위가 대대를 지휘하여, 右側으로 제9연대 제1대대와 左側으로 제15연대 제3대대와 나란히 固守태세로써 날을 보내었다.

한편, 鷲梁津驛부근을 중심으로 江岸에 배치된 공병대대의 지휘소인 月波亭에 我軍복장을 한 敵 1개 분대규모가 滲透하여 이를 奪取하려 하였는바 이들과 전투중에 同대대장 嚴在完소령이 胸部에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同공병대대는 安養으로 철수하고, 제20연대 제1대대가 死六臣黨을 중심으로 再배치되어, 敵이 鐵橋쪽으로 渡江하는 것을 막

게 되었는데 同墓所가 있는 고지정상에 자리를 잡은 연대 지휘소에 敵의 포탄이 집중됨으로써 S-2인 金尙七중위가 戰死하고 S-3인 朴禎植중위가 負傷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姜琬姝대위가 지휘하는 제1연대의 혼성대대는 중대장 俞象在중위가 戰死하는 血戰을 벌인 끝에 汝矣島의 비행장쪽에서 侵襲하는 敵을 막았는데, 밤에는 複線철교위에 기관총으로 武裝된 機關車가 나타나 철교에 橋板敷設작업을 실시한다는 情報을 入手하고, 同대대가 보유한 60mm 박격포 2문으로써 그들을 妨害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敵이 이렇듯 철교의 入口쪽으로 공격력을 증강하여 同철교를 要扼하는 死穴墓와 月波亭을 확보코자 한 것은 이 複線철교上의 橋板작업과 聯關性이있는 것으로 보였다.

뒷날 밝혀진바에 의하면, 敵은 전날 아침에 철교의 中間單線으로 전차를 渡河시키려다가 美공군의 항공폭격으로 좌절되자, 이날부터 서울 市民과 철도線路班員을 강제로 動員하여, 29일에 공병이 그 南쪽 橋墩의 연결부분을 파괴한 京釜複線철교에 새로운 橋板敷設작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이날 首都육군병원의 제7사단 지휘소가 敵에 露出된 듯 전날의 首都사단과 마찬가지로 포화가 집중됨으로써 더 이상 支撐치 못하고, 한걸음 물러나서 그 南쪽 600m의 서울工業중학교에 지휘소를 다시 開設하게 되었다.

## 2. 永登浦 부근의 狀況

이날 04.00부터 對岸의 敵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이 麻浦와 賀中里나루터에서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 공격에 있어서, 議政府 占領의 先鋒이던 제16연대(장, 대좌 朴勝熙)가 東豆川에서 我제1연대(장, 威俊鎬대령)와 제5포병대대로부터 입은 打撃이 적지 않았던지, 同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이번에는 그간 그들 사단의 예비로써 後續한 제5연대(장, 대좌 崔仁德)를 새로이 先頭에 내세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敵은 뱃목과 거룻배에 병력과 장비를 分乘시켜 汝矣島로 渡河하였는데, 이 섬의 一角인 栗島에 前進據點을 강화한 다음, 砂場을 휩쓸면서 제8연대(장, 徐鍾喆중령)정면인 金浦街道의 堤防으로 옥박하였다.

이리하여 同지방의 前斜面에 礫을 판 將兵들과 치열한 射擊戰이 벌어진바, 壕속에 掩蔽된 我軍이 防禦에 有利한 形勢였으므로 그 地利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數的인 優勢만을 믿고 개활지로 밀어닥치는 敵에 不退轉의 決意로 맞섬으로써 그 제1波를 격퇴하였다.

그러자 敵의 포격이 堤防을 향한 진지에 집중되어, 제3대대의 화기중대장인 金仁植중위가 부상을 입고 後送되었는데, 이에 즉시 제10중대장 羅秉緒대위가 화기중대를 통합하여 끝내 진지를 버티어냄으로써 敵은 이날 중일 단 한사람도 제방위에 올라서보지 못하였다.

7월 2일 : 戰況은 全般的으로 전날과 大差없는 攻防禦으로 一貫되었다.



<당시 汝矣島 비행장 全景 1950. 7. 16 항공촬영>

### 1. 鷲梁津 부근의 狀況

鷲梁津驛일대의 江邊진지는 제20연대와 제1연대의 各 혼성대대가 堅守함으로써 敵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가운데 ㉔ 표지부근에서는 전날의 攻防戰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敵의 渡河병력이 한정되었음인지 과감한 공격을 試圖하지 않은 까닭으로 그곳의 제9, 제25兩연대의 대대들과 一進一退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는데, 제25연대 제2대대의 소대장인 李益秀 소위로부터 이날의 戰況을 들어보면 이러하다.

『이날 아침에 대대는 남은 병력을 수습한 다음 1개 중대로 재편하여, 銅雀洞쪽의 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새로이 제3소대장이 되었는데 우리 소대가 선두에서서 그 고지를 接敵없이 점령하였다. 그 고지는 1개 소대가 간신히 수용될 수 있는, 능선 위에 작은 峰巒이었다. 우리가 목표를 점령하고 나니, 곧 뒤따라 敵의 포화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대主力과는 火力으로 遮斷당하여 우리만 그 고지에 孤立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敵의 포탄이 50여발이나 집중됨으로써 2개분대의 死傷者를 보게 되고, 1개분대 규모인 12명만 남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 병력만 가지고 고지 위에 버티고 있는데, 실탄도 各者가 50여발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때 敵 1개 소대규모가 공격을 해 왔다. 敵의 포탄이 계속 쏟아져서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라서 사적인번 변변히 해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敵을 陣前으로 바짝 끌어들인 다음 수류탄으로써 死生을 決하기로 作定하고, 各 소대원에게 「내가 하나, 둘, 셋 하는 口숨에 따라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되, 던질 때에는 賊聲을 크게 지르도록 하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各 병사에게 수류탄 두발씩을 分配하였는데 敵이 접근하자 연달아 그 두발씩을 던지니, 爆音이 요란하였다. 그리자 敵이 놀랐던지 능선으로 다시 후퇴하여 내려갔는데, 그들은 부상자 몇 명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敵이 必是 다시 나타날 것 같아서, 나는 순간적으로 機智를 발휘하여 「제1소대, 右로! 제2소대 左로! 敵을 포위하라!」 이렇게 크게 호령을 하여, 虛張聲勢로써 敵은 欺騙하였다. 그렇게 하였더니 敵이 우리가 중대규모인 것으로 알았던지 해가 저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同 소대는 危機를 넘겼거니와 대체로 이러한 狀況속에서 이들 兩대대는 ㉕ 고지에서 水道고지에 連하는 능선의 진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 2. 承登浦 부근의 狀況

이날 東洋맥주공장의 수도사단 지휘소가 始興의 보병학교로 移動하는 가운데 汝矣島에서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전날 밤에 敵의 일부가 다시 비행장을 검거함으로써 제8연대(장, 徐鐘詰 중령)의 진지 정면에 다가서서 집요하게 戰線突破를 試圖하였다.

이에 연대는 제1대대(장, 李哲源 소령)로 하여금 이 敵을 물리치도록 한바 同 대대가



〈汝矣島쪽에서 본 漢江鐵橋〉

제1중대(장, 金仁杰 대위)를 뽑아 비행장으로 出擊케 하였다. 그리하여 이 중대가 진지를 막차고 彈雨속을 헤치면서 비행장으로 躍出하여 종일토록 血戰을 벌인 결과, 敵을 간신히 栗島쪽으로 격퇴하였는데 이 동안에 同 대대장 李哲源 소령을 비롯하여 중대를 전투지휘 하던 중대장 金仁杰 대위와 또한 이 중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격포사격을 지휘 하던 제10중대장 羅秉鎔대위가 敵의 砲火에 散華하였다.

중대장의 備忘錄 : 한편, 제8연대의 左一線인 제18연대 제1대대(장, 朴哲用 소령) 역시 終日토록 葦芝島쪽에서 楊花津쪽으로 渡河하려는 敵과 火力을 交換하게 되었는데 安養川의 東쪽 대대 진지에는 敵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으나, 그 西岸을 따라 敵이 梧柳洞쪽으로 南進하였으므로(前章, 金浦—梧柳洞부근 戰況 참조) 제3중대(장, 金相德 대위)를 同川의 제방을 따라 側方으로 배치하였다.

그런데 同 대대의 제4중대장 代理인 一 중대장 李秀燦 중위의 보병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一 崔奎鉉 중위가 휴가중에서 이날 復歸하여 이 防禦에 一役을 맡게 되었는데, 이날까지의 行跡에 대하여 그의 陣中備忘錄에 이렇게 記錄되어 있다.

『六月二十五日, 休暇中 집(靑丹)에서 戰爭을 만났다. 제12연대 제11중대장 韓普錫 중위와 함께 延安으로 징결하러다가 如意치 못하여 靑龍에서 背水陣을 치고 함께 싸웠다. 바다 불이 빠지자 龍媒島로 건너가, 제17연대의 일부병력을 수습하여 배를 모았다. 白石浦일대에 敵艦이 보인다고 하여, 배를 띄워 德積島로 指向하였다.

六月二十八日, 16.30에 德積島에서 제17연대 병력은 同 연대의 金三萬 중위에게 인계하였는데, 數隻가 63명이었다. 다시 배를 저어, 22.00에 仁川 앞바다에 이르렀다. 사

함을 보내 본즉, 두손 까닭에서인지 仁川으로는 上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4시간을 노를 저어가니, ○○島에 도착하였다.

六月二十九日, 09.30에 ○○島에 출발하여, 13.25에 華城郡 半月面 本五里부근의 海岸에 도착하였다. 물에 올라 民家의 주선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21.00에 水原의 육군본부에 접결하여, 100명으로 편성된 혼성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병력이 모두 非武裝이었다.

六月三十日, 12.25에 명령에 따라 始興진투사령부에 가서 申告를 하니, 非武裝이라 하여 다시 水原으로 돌려 보내었다.

七月一日, 04.00에 水原의 육군본부에 도착하였다. 無窮하니 견딜 수가 없었는데, 마침 鷲梁津으로 增援된다는 연대가 있기에 그에 合勢하여 다시 始興으로 갔다. 安養에 이르니, 역시 비무장이라 하여, 憲兵이 앞을 막은 까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水原으로 되돌아갔다.

12.00에 水原에 도착하여, 武裝병력 95명을 얻었다. 몸이 날아갈 듯 기뻐다. 밤중으로 다시 始興에 갔다.

七月二日, 05.00에 始興에 접결하여, 잠시 쉰 뒤에 알아보니, 대대가 永登浦에 있다고 하였다.

12.00에 永登浦에 이르러, 비로소 대대장(朴哲用 소령)의 指揮下에 들게 되어, 金浦街道에 나가게 되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파 놓은 壕속에서 江 건너 땅을 노려보니, 보이는 것은 오직 붉은 불덩어리와 검은 연기 뿐이었다.

이날 終日 앉아서 敵의 포탄을 맞았다. 어떤 兵士는 호속에 포탄이 떨어져서 形體도 없어지고 말았다.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한가지, 敵의 포탄에 맞지 않게 해 줍시다 祈禱하는 것 뿐이었다.

이날 金東俊, 李洪植, 李振永, 張鍾鎭, 裴俊喆, 金永錄, 金京布, 鄭錫應, 李龍煥, 金亨山 등 병사 10명이 戰死하고, 중대 선임하사 金禪益이 失蹤되었으며, 金大成, 張洪奎의 두 병사가 負傷을 입었다. 모두가 敵의 포탄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漢江防禦線에 대한 편성경위와 이날의 戰況의 一端을 미루어 볼 수 있거니와 스스로 싸울 戰場을 찾아 이렇듯 달려간 당시의 將兵들의 義氣 또한 짐작할 수 있으리라.

7월 3일 : 防禦 제6일째인 이날, 드디어 漢江線은 敵의 戰車 무한계도 아래 瓦解되고 말았다.

### 1. 鷲梁津 부근의 狀況

敵 戰車의 渡河 : 전날 밤중으로, 敵이 京釜線철교(下行線)의 兩쪽 橋臺 연결部位가 損

傷을 입은 徑間에 대한 補修를 끝낸듯, 이날 04.00에 4대의 戰車가 縱隊를 이루어, 橋脚을 흔드는 그 特有的 騷音을 앞세우고, 同 철교위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를 본 我軍 병사들이 火力을 集中하여 이들 戰車가 鷲梁津 땅에 올라서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그 彈雨를 헤치고 鷲梁津—永登浦도로에 들어선 다음, 同 도로를 따라 突貫하여 戰車砲를 휘두르면서 永登浦로 突入하였다.

이렇듯 戰車가 不時에 鷲梁津에 들어섬으로써 이때까지 진지를 決死固守코자 하였던 장병들의 意志가 動搖케 되었는데, 이는 그 戰車에 對應할 方策을 찾지 못한 까닭에서였다.

그리하여 水道교지—死六臣墓부근에서 敵의 전차를 먼저 확인한 일부 병력이 陣地를 離脫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상황이 제7사단을 거쳐 始興사령부에 飛報된바 사령관 金弘道 소장은 더 이상 이 戰線을 支撐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後圖를 策하기로 決心하고 제7, 수도의 兩사단에 安養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次項, 水原 철수상황 참조)

제1연대 혼성대대의 진지固守決意: 그러나 이 撤收명령은 前述한 바와 같이 通信網의 未備로 말미암아 各級부대에 一絲不亂하게 下達되지 못하였으므로 同명령을 수령치 못한 일부는 그대로 진지에 남아 있기도 하였다.

그 한 例를 들면, 大方洞 정면에서 汝矣島쪽으로만 注意力을 집중하고 있던 제1연대의 혼성대대(장, 姜琬堦 대위)는 敵의 戰車가 渡河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여, 道路邊에서 지나가는 전차를 받기다가 機銃사격을 받아 死傷者가 생기게 됨으로써 비로소 敵이 江의 南岸에 闖入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별다른 행동지침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계속 진지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戰線에서의 철수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나, 姜琬堦 대위 以下 대대원은 진지固守의 決意를 버리지 않았으니, 이때의 情況을 당시의 副대대장 金祥玉 대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날 아침, 敵의 전차가 건너 온 것이 확실하여지자, 등 뒤가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대장 姜琬堦 대위에게 철수를 건의하였더니, 「여기서 죽어야지, 어디로 가느냐?」하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어서, 더 말을 붙여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장교 몇 사람과 상의한 결과 역시 철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意見이 一致되었으므로 이번에는 士兵들의 意中을 떠 보았더니, 빨리 철수하자고 할 줄 알았으나 반대로 모두가 입을 모아 대대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 「여기가 싸우기 딱 좋은 곳인데, 이 처럼 방어하기에 좋은 지역을 버리고, 또 어디로 철수합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敵의 전차가 건너 온 뒤였고, 또 永登浦정면의 汝矣島쪽에서도 事勢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대로 눌러 있어 보아야 결과가 뻔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우리의 싸울 곳이 비단 여기 뿐만은 아니니,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만 지킨다고 이 防禦線이 지켜질 것도 아니고 보면, 잠시 물러나서 더 잘 싸울 수 있는 길은



찾는 것이 順理가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건의한 바, 마지못하여 대대장이 연락병을 사단본부에 보내었다. 그런데 撤收與否를 물어보기 위하여 사단에 간 연락병이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대장이 兵士들을 說得하여, 11.00가 지나서야 철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永登浦쪽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冠岳山—果川—安養으로 철수하였다. 대체로 이런 情況속에서, 이 正面的 我軍은 部隊別로 분산되어 이날 낮중으로 일부는 始興—安養으로, 또 일부는 果川—軍浦場으로 잠결하게 되었다.

## 2. 永登浦 부근의 狀況

이 正面的 제8연대(장, 徐鐘誌 중령) 역시 漢江철교도 敵의 전차가 건너게 되고, 또 梧柳洞쪽에서 京仁街道를 따라 들어닥친 敵이 永登浦시내에서 연대의 背後를 攪亂하게 함으로써(前章, 金浦—梧柳洞부근 戰況 참조) 이 戰線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연대장의 負傷: 이른 새벽부터 永登浦일대에 敵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이에, 區廳(舊)부근의 연대 前方지휘소에서 敵夜한 연대장 徐鐘誌 중령은, 敵의 포탄이 同 지휘소주위에 炸裂하자, 그들의 渡河공격이 再開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Jeep를 급히 몰아 제1선(金浦街道의 堤防)으로 달려갔는데, 그가 미처 제방에 다다르기 전에 敵의 포탄이 強打하게 되어, 차량이 大破되면서 그 自身은 다리에 破片傷을 입게 되었다.

이때에 마침 이와같은 심상치 않은 포성을 듣고, 後方지휘소에서 달려간 副연대장 李賢進 중령이 도중에서 연대장을 구하여 始興으로 後送케 되었는데, 이 무렵 그 일원에서는 아직 曉霧가 걷히지 않은 가운데에서 前線의 상황은 미처 확인되지 않았으나, 三三五五로 발길을 南쪽으로 돌리는 장병들이 보이기 시작할바, 이미 戰況이 결정적으로 기울었음을 알수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장을 代理하여 연대의 지휘를 맡게된 副연대장이 다시 區廳(舊)부근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그곳의 연대본부요원 數名이 쓰러져 있어, 벌써 敵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歷歷하였다.

이에 河戰線의 破綻을 확인한 그는 다시 始興쪽으로 가서 安養川의 支流인 馬場川의 교량(區廳 西南쪽 2.2km)에서 병력 수습에 나섰다.

前線의 撤收: 이와같이 하여, 아침이 되면서 연대의 前線이 무너짐과 때를 같이하여 對岸의 敵이 汝矣島로 도하함으로써 마침내 永登浦일원을 鹿擄하게 된 것으로 推斷되나, 이때 金浦街道의 제1선에 버티고 있던 제3대대장 朴泰云 소령이 披瀝한 바에 의하면, 同대대의 철수상황은 이러하다고 한다.

「이날 아침, 우리 등 뒤쪽인 永登浦區廳쪽에서 戰車소리가 나더니, 해가 뜰 무렵 右側의 鷺梁津—永登浦—金浦삼거리에 戰車 1대가 들어섰다. 市內쪽에서 (富平쪽에서 온 듯) 堤防위로 올라선 모습으로 砲身을 돌려 우리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그래서 特攻隊 2개 組로써 그 戰車를 向하여 肉迫공격한 결과 그것을 파괴하고, 밖으로 기어나온 敵의

戰車兵 2명을 射殺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市內가 騒然한 가운데 얼마를 지나니까, 어디선가 汽笛 소리가 들렸다. 雙眼鏡으로 살펴보니, 漢江철교위로 기차가 건너오고 있었는데, 無蓋貨車 10여 량을 기관차가 뒤에서 밀었고, 貨車 위에는 크다란 物體가 여럿 실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戰車였는데, 모두 13대였다. 그 기차가 철교를 지나 鷲梁津쪽으로 들어온 뒤 2시간쯤 지나니까, 永登浦시내가 車輛의 소음으로 요란하였다. 그래서 일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철수기로 하였다. 박격포등 重火器는 파묻고 모두가 輕便한 단독무장으로 철수하였는데, 永登浦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西쪽의 安養川쪽으로 우회하여 그 川邊을 따라 南쪽으로 向하였다. 제방을 따라 얼마만큼 가다가 말이 우는 소리가 들리,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堤防 밑에 野砲가 보였다. 그 곁에 雨衣를 입은 병사가 있길래(그 날은 비가 좀 뿌렸다)「그 어느 부대냐?」하고 물었더니, 「18연대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제18연대가 아직도 健在해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다음 순간 자세히 살펴보니, 人民軍이었다. 인민군 제18연대(제4사단)였던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철수隊 伍가 흩어졌다. 各處로 分散되어 始興에 이르니, 隄內는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서 연락 장교 朴根昌 소위와 함께 가까스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본진, 그 사이에 50여명이 간데가 없어지고 말았다. 安養에 가니 寇兵이 보였으며, 午後 늦게 水原에 집결하였다.」



〈京釜下行線으로 列車을 이용하여 渡河하는 敵 戰車〉

이로 미루어 보면, 이날 永登浦정면에는 敵이 汝矣島쪽으로 侵襲치 않고, 戰車로써 我軍의 철수를 강요한 다음, 漢江 철교쪽으로 輸送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나, 同 연대의 前線철수 상황에 대한 證言을 더 얻지 못하여 詳考할 수는 없다.

어쨌든, 敵의 戰車에 의하여 연대지휘부가 먼저 被襲됨으로써, Yet새동안이나 단 한 명의 敵兵도 我 방어전지인 堤防을 밟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이 戰線이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漢江의 北쪽을 휩쓸었던 燎原의 불길은 이제 江의 南쪽으로 延火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디서 불을 얻어 이 불을 끌 것인가?

#### 나) 말죽거리—金谷里 부근 戰況(6.2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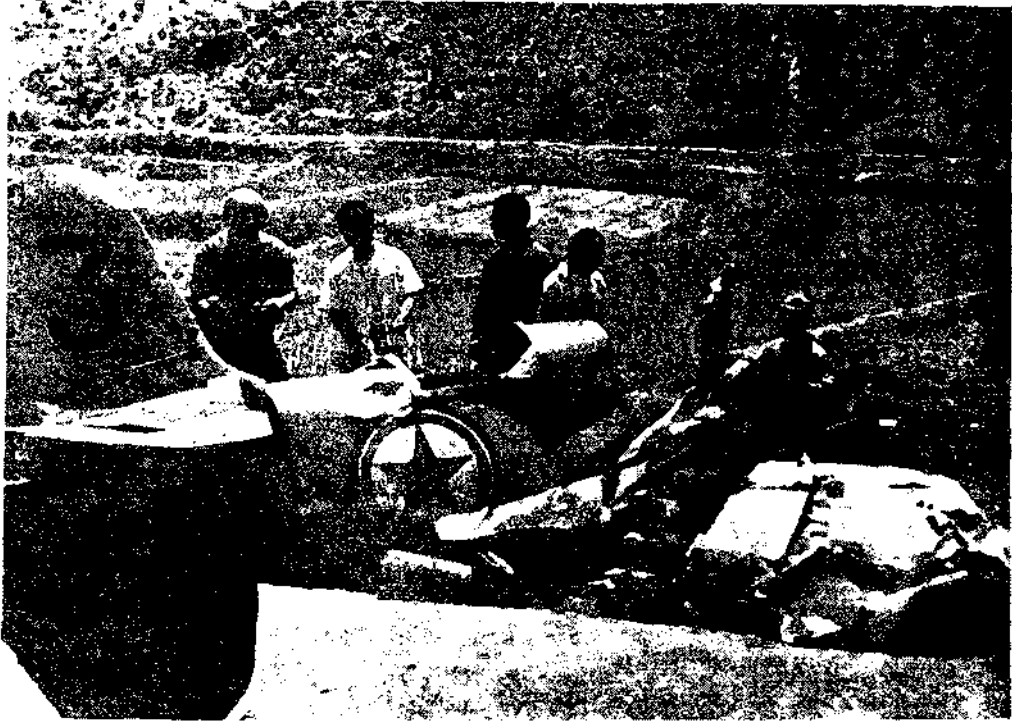
6월 28일 : 이 正面 역시 蘇島와 漢南洞 그리고 西水庫의 各 渡船場에서 江을 건너는 我軍의 병력 수습에 奔忙한 하루였다.

기갑연대 騎兵대대의 收容진지 점령 : 전날 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의 철수조치에 따라, 同연대의 제2기병수색대대(장, 張哲夫 소령)가 同日 14.00를 前後하여 漢南洞에서 漢江을 건넌 것은 前節에서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대대가 專用나루배로 渡江하는 途中에 敵YAK機의 空襲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美空軍의 F-80전투기가 뒤이어 나타나 이 敵機와 空中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 결과 YAK機가 말죽거리 부근의 논바닥에 墜落되었으며, 이를 同 대대의 제5중대 제3소대장인 金亨植소위등이 敵機의 墜落地點으로 말을 몰아간바, 操縱士는 即死하고, 通信士만이 重傷을 입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扶持하고 있었는데 그를 訊問하니 그 者는 漢江의 교량을 차단하는 임무를 띠고 咸鏡南道의 連浦비행장에서 出擊한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를 응급치료차 現地 경찰에 인계하고, 다발총과 권총 各 1정 및 낙하산 1착을 노획하여 大方洞으로 집결한 다음, 밤을 새는 중에 漢江大橋의 폭파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午後에 始興사령관 金弘壺소장으로부터 『말죽거리부근에 收容진지를 점령하여 철수병력을 수습하라.』라는 명령을 받아, 始興—安養—果川을 거쳐 말죽거리부근으로 轉進하여 漢南洞나루터를 마주보는 新沙畝일대에 진지를 급편함으로써 병력을 수용케 되었다. 이와 같이 金弘壺소장이 同대대를 이곳으로 뽑아들린 것은 同대대가 果川—말죽거리일대에 乘馬훈련장을 두고 있던 터이므로 어느 부대보다도 同지역에 대한 地形에 익숙할 것으로 판단한 까닭으로 보여진다.

제2사단의 진지편성 : 한편, 始興사령관으로부터 혼성제2사단으로 임명된 少兵학교 副교장 林善河대령은 午後에 사단지휘소를 果川에 開設하고, 즉시 담당정면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사단의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말죽거리 부근에 격추된 YAK機 : 1950. 6. 27〉

그러나 당초 사단의 건재부대인 제5, 제16, 제25(一)의 3개연대중에서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는 午後에 廣나루에서 江을 건너고,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는 새벽 漢江大橋가 폭파되기 직전에 同橋를 지났으며, 또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는 이날 현재로 연대장의 生死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력이 분산되어 江을 건넜는데, 이들은 모두 水原으로 집결중에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우선 江岸에서 수습된 혼성병력으로써 이 戰線의 彌縫策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大橋가 폭파되기전인 새벽에 同교방은 건너 바 있는 제3연대장 李尙根 중령이 同연대의 兵舍가 西永庫에 있었으므로 철수장병들이 必로 그곳의 渡河場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 본 결과 果川에서 연대를 수습케 되었는데, 예상한대로 연대의 일부가 副연대장 崔秀昌 중령과 제3대대장 金鳳翔 소령등과 함께 西永庫에서 江을 건너 그곳에 집결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또 水原으로 집결중임이 밝혀졌다.

이에 사장단은 同연대가 本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소속이나 이를 사단의 基幹으로 삼기로 하고, 同연대로 하여금 果川 北쪽의 牛眠山(△290, 果川 東北쪽 4km)—冠岳山사이의 要扼地인 南泰嶺을 지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同연대장은 그곳에 집결된 일부로써 南泰嶺일대에 배치하여 銅雀洞—果川간의 도로를 扼守케하는 한편, 저녁에 水原에 집결한 제1대대(장, 任百振소령)를 果川으로 불러 올렸는데, 同대대는 前章에서 提及한 바와 같이 26일 밤에 金梧里(議政府 東北쪽 2km)부근에서 연대가 철수할 때에 연대主力과 離脫하여, 멀리 東쪽으로 빠져 兩水里에서 漢江을 건너는 迂餘曲折끝에 이틀만인 이날 17.00에 水原에 집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同연대는 果川부근에서 1개대대규모가 수습되어 騎兵대대가 제1선의 新沙里에서 梅谷里(銅雀洞 東쪽 2km)에 이르는 江南岸을 누비면서 敵의 渡河接觸을 막는 동안 南泰嶺일대에서 밤을 새워 銃劍을 새로이 갈았다.

**6월 29일** : 이날 대체로 防禦編成을 끝냄으로써 漢水 北岸의 敵과 對峙태세를 이루게 되었다.

**步校연대의 增援** : 전날 밤동안 별다른 挑發이 없는 가운데 날이 밝자, 제2사단장 林善河대령은 未久에 敵의 渡河공격이 必至할 것으로 내다보고, 병력증강을 모색한 결과 14.00에 始興사령부에서 급편한 보병학교 연대(장, 俞海濬중령)의 증원을 받게 되었다. 이 연대는 25일에 汶山지구로 출동한 教導연대와 26일에 金浦로 急派된 후보생대대중 전날과 이날 아침에 同校에 철수, 집결한 일부를 재수습하여 同校 教官인 林元錫, 白雲龍, 權靚植, 黃碩奎대위등을 중대장으로, 河甲浦중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1개대대로 재편한 것으로서 연대라고 호칭되었으나 실병력은 대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제16연대의 增強** : 한편 이 무렵, 전날 水原에 집결한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는 俞義濬 중령과 尹泰喆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2개 대대로 재편하였는데, 이날 사단장의 要請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연대를 사단의 指揮下에 들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同연대는 水原의 집결지에서 果川으로 단리케 되어, 이 역시 14.00 前後에 사단지휘소에 當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단의 體格이 대강 갖추어지자, 사단장은 전반적인 전지재편을 斷行하여 南泰嶺부근의 제3연대를 말죽거리정면으로 돌려 右一線으로 삼고, 제16연대를 牛眠山—南泰嶺으로 추진하여 左一線으로 삼았으며, 步校연대를 果川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하여 제3연대는 副연대장 崔秀昌중령이 연대를 지휘하는 가운데 —전날 밤중에 연대장 李尙根중령이 臥病中임에 따라—말죽거리 正面으로 移動하여 驛三里(말죽거리 北쪽 2.5km) 부근의 △87일대의 高地帶에 전지를 점령함으로써 그 北쪽의 新沙黑부근에 위치한 騎兵대대와 함께 漢南洞나루터로부터 말죽거리—板橋를 거쳐 島山으로 이어지는 道路를 막게 되었다.

그리고 제16연대는 牛眠山—南泰嶺에 主陣地를 펴고, 그 北쪽 梅谷里부근의 △86—△101 일대에 경계전지를 마련하여 銅雀洞에서 果川을 거쳐 軍浦場에서 京釜國道와 연결되는 도

로를 扼守하게 되었다.

**騎兵대대의 火力急襲** : 이렇듯 사단이 방어陣容을 새로이 가다듬는 동안, 新沙里부근에 搜索據點을 두고 있던 기병대대(장, 張哲夫소령)는 26일에 金浦지구로 출동한 임시제7중대(장, 金村成중위)의 2개 소대가 전날 밤에 安養을 거쳐 果川에 집결함으로써(前節, 金浦—梧柳洞부근 戰況 참조) 이날 午前에 本隊와 합세케 되어 多小의 戰力증강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終日토록 江岸을 부단히 騎馬로 敵情을 수집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에 제3중대(장, 朴翊均중위)의 제3소대가 淸潭里(新沙里 東쪽 2km)부근에서, 鱸島쪽으로부터 거룻배로 渡河한 1개소대규모를 捕捉한바 그들이 接岸하여 下船하는 틈을 노려 소대장 趙敦鐵소위를 先頭로 騎馬突擊을 감행함으로써 모조리 강물속에 쓸어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漢水 南岸에 대한 敵의 渡河企圖가 점차 露骨化되는 가운데, 江 건너의 漢南洞에 있는 대대의 兵舍가 敵手에 들어가 그들의 漕渡基地로 利用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대대장병들은 夜暗을 타서 60mm 박격포 6문을 射程이 미칠 수 있는 江邊砂場으로 추진하여 22.00에 敵이 占據한 대대본부 陣地를 목표로 砲彈 60여 발을 集中한바, 한동안 火光이 하늘을 대낮같이 밝히더니 이윽고 黑煙이 어둠을 더욱 짙게 되었던 것이었다. 멀리서 水面위에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 본 장병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뿌리면서도 잠시나마 그 울분을 달래었다.

**士官生徒의 廣나루 對岸出動** : 한편, 전날 廣나루에서 江을 건넌 我軍병력이 모두 水原으로 집결하였으므로 이 正面에서는 조직적인 防禦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로 開放된 상태에서 이 날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 나루터에서 板橋—烏山으로 通하는 도로가 敵의 侵攻路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勘案한 總참모장은 날이 밝자 同나루터를 건넌 바 있는 士官학교장 李俊植준장을 불러, 그 渡船場을 閉鎖하여 南쪽으로 連하는 同도로를 遮斷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同교장은 집결중인 士官生徒 제1期和 제2期生 도합 300여명으로써, 李承雨, 趙德守, 宋仁津, 朴正瑞대위등을 중대장으로, 孫宮道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혼성생도 대대를 편성하고, 이를 본래의 同校 生徒隊長이던 張斗權대령이 지휘하여 廣나루 對岸의 千戶里 일대에서 敵의 渡河를 막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同대대는 차량으로 다시 水原의 東北쪽으로 北上하여 豐德川(水原 東北쪽 8km)—板橋(豐德川 北쪽 8km)를 거쳐 午後 늦게 千戶里 정면의 江岸에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落照의 同 나루터는 폭파된 廣津橋의 橋脚殘骸가 참담한 戰場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 정면에서는 별다른 敵의 움직임은 볼 수 없었다.

**6월 30일** : 아침부터 말죽거리 正面으로 敵의 渡河공격이 本格化되었다.

## 1. 말죽거리 부근의 狀況

敵의 渡河攻撃 : 08.00부터 漢南洞—二村洞부근의 敵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이 그에 하의 제8연대(장, 중좌 金秉鍾)를 내세워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敵은 일부로써 銅雀洞—黑石洞의 ④—⑤ 능선으로 渡河하여 그 정면의 我제9연대(장, 尹春根 중령)의 注意力을 견제케하는 한편, 다른 일부로써 西水庫에서 그 對岸으로 건너 梅谷里부근의 제16연대 경계진지에 압력을 가하면서 主力으로써 漢南洞에서 新沙里를 直衝한 다음 말죽거리 道路의 돌파를 試圖하는 듯하였다.

그들은 南山기슭에 放列된 포병으로써 新沙里부근의 騎兵대대(장, 張哲夫소령)의 진지를 強打하여 火力集中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同대대를 抑留하는 가운데 10.00에 20~30명 단위로 分乘한 거룻배로써 渡河한 다음 攻擊力을 그 정면의 同대대진지로 指向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또 本渡河에 앞서, 이날 이른 새벽에 이미 先遣隊로써 江을 미리 건너게 한듯, 盤浦里(新沙里 西南쪽 1.5km)부근의 野山에 엄호거점을 확보한 그들 일부가 이 공격에 호응하여 同대대의 西側背를 脅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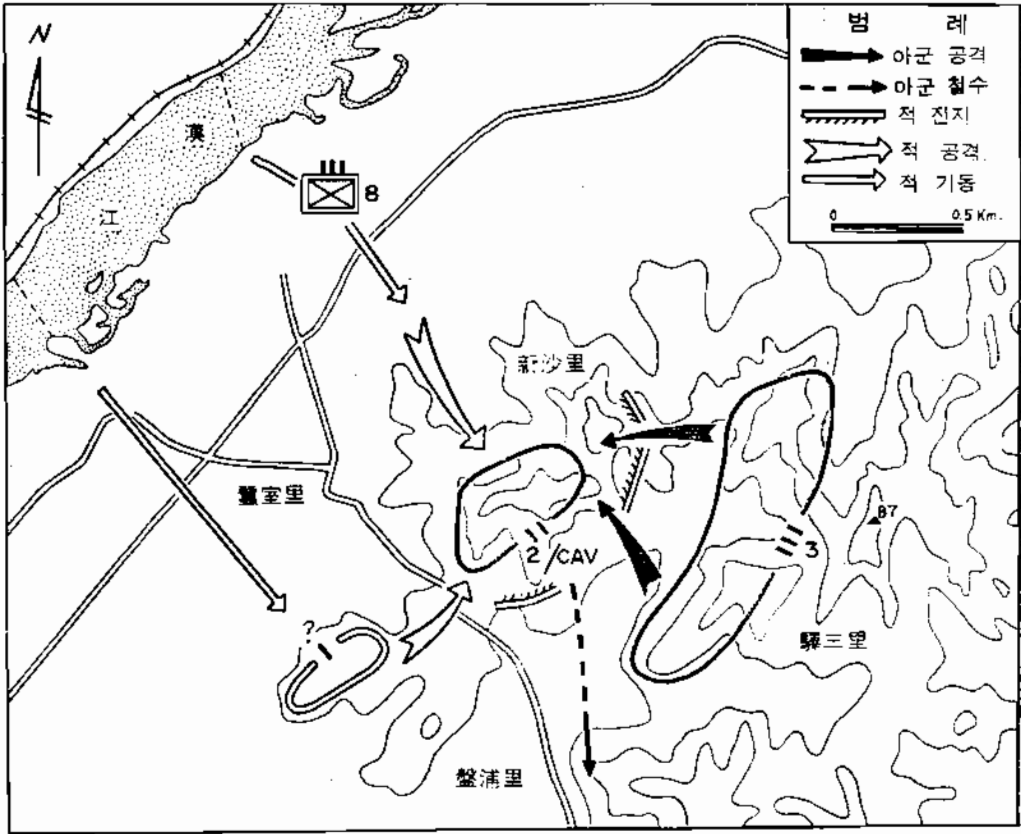
이리하여 同대대가 제1선에서 敵과 먼저 격돌케 되었는데, 당시의 제6중대장인 朴秉均 중위는 뜻날, 이때를 다음과 같이 回顧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자, 敵이 언제 숨어들었는지 機關銃으로 우리의 左側方을 위협하는 가운데, 배들이 江을 건너 南岸에 올라붙었는데, 敵의 熾烈한 砲들에 말(馬)이 먼저 놀라—이때까지 兵士의 乘馬혼련만 끝났을 뿐, 말 자체는 戰鬪懸念에 대한 음향혼련이 되어 있지않아, 砲聲과 포탄의 파편에 動搖되었던 것으로—고삐를 풀고 달아나고 말았다. 말을 붙잡으랴, 敵을 막아내랴, 右往左往하는 사이에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았다. 戰鬪가 그 모양으로 얼켜들자 金浦지구에 出動하였다가 돌아 온 崔泳華소위는 憤氣가 치솟아 홀로 敵中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壯烈히 戰死하는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때에 달아난 말들이 歸巢本能에 따라 漢江을 헤엄쳐서 漢南洞으로 가는데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이 敵陣으로 向하였으나 차마 銃으로 쏘아죽이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들으니 배말이 당시 漢南洞의 연대본부근처에 있던 내집으로 찾아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집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血戰끝에 騎兵대대가 敵의 銳氣에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 一戰에서 馬匹의 손실이 적지않았으므로 正午에 軍浦場으로 집결하여 人馬를 整수습하게 되었다.

제5연대의 障地交代 : 한편 驛三洞부근의 제3연대(장, 崔秀昌중령)는 이렇듯 騎兵대대의 진지가 蹂躪되자 敵의 驍鋒이 延伸되기전에 陣前出敵을 감행하여 이를 찍어 놓기로 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任百振소령)를 선두로 진지에서 躍出하여 新沙里쪽으로 劍光을 휘둘러 나아간 결과, 그곳에 먼저 닿아 本隊의 追及을 재촉하던 1개중대규모의 敵 先遣隊를 단숨에 격멸하고, 뒤따르던 그들 병력 일부를 江邊의 砂場으로 驅逐하는 한편 舢舨으로

◇ 상황도 제26호 말죽거리 正面의 狀況(6.30)



江을 건너 추진중이던 76mm砲 5문과 장갑차등 지원부대의 장비들을 파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도 火力의 劣勢를 挽回치 못한 까닭으로, 이와같은 力戰奮闘의 보람도 없이 敵에게 다시 밀리는 바 되었다. 이에 사단장 林善河대령은 16.00에 水原으로부터 增援된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로 하여금 말죽거리 東쪽의 △95 부근에, 그 西쪽의 牛眠山진지와 연하는 새로운 진지를 急編케 하는 가운데 제3연대를 果川으로 뽑아돌렸다.

그런데 이 제5연대는 28일 낮에 廣나루에서 江을 건너, 終日토록 千戶里부근에서 後續하는 철수병력을 收容하다가 전날 29일 낮에 水原에 집결한 부대로서 陸本의 조치에 따라 永登浦전선에 增援될 예정이었으나 水原에서 待機상태로 밤을 지냈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제 제5, 제16兩연대로써 △95—牛眠山—南泰嶺線에서 陣容을 다시 가다듬게 되었는데, 이 무렵 梅谷里부근의 제16연대 경계병력도 한걸음 물러나 牛眠山의 本陣에 수용케 되었다.

## 2. 金谷里 부근의 狀況

士官生徒隊의 轉進配置 : 전날 午後에 廣나루 對岸에 투입된 바 있는 사관생도대는 이날



終日千戶營정면에서 敵의 渡河時機의 半途之虛를 노렸으나, 다만 男負女戴한 피난민의 발걸음만이 깔을 이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피난민을 假裝한 敵의 五屍이 없지않아 3명을 檢擧하여 訊問한 결과 敵이 漢南洞—西水庫에서 本渡河할 것이라는 事實이 밝혀졌으므로 同생도대장 張斗龍 대령은 여기의 병력배치가 마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午後에 부리를 철수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生徒隊는 板橋로 철수케 되었는데, 이와같은 空隙의 轉進상황을 報告받은 校長 李俊植준장과 副교장 李翰林대령은, 25일에 汶山쪽으로 出動하였다가 水原에서 수습된, 同校 敎導隊의 일부들 이들과 板橋로 急進하였다.

板橋에서 南向中인 생도대를 맞이한 校長은 이들을 制止한 다음, 이를 직접지휘하여 17.00에 板橋 南쪽 1km(廣나루—豐德川과 軍浦場—板橋의 삼거리 南쪽)의 丘陵지대에 再배치하고 지휘소를 金谷里(板橋 南쪽 3.5km)에 두었다.

이는 말죽거리정면의 敵情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장차 敵이 말죽거리쪽을 돌파할 것을 내다본 까닭인듯 하니, 이 정면에서는 敵이 어느쪽으로부터 侵襲하든지, 廣나루에서 南向하는 도로와 말죽거리에서 東南向하는 도로가 서로 합치는 始興里(板橋 北쪽 4km) 삼거리를 지치야 板橋에 이룰 것이므로 바로 그 南쪽의 갈목을 막자는 것이며, 아울러 果川—지경골(果川 南쪽 4km)에서 板橋로 이어지는 도로도 함께 制扼하자는 것이었다.

**混成제3사단의 편성** : 한편, 육군본부는 이날 말죽거리정면의 戰況이 急變함에 따라 板橋—豐德川—水原에 이르는 水原 東北쪽 接近路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키로 하고, 李俊植준장을 새로이 혼성제3사단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水原地區부대(장, 李應俊소장)를 解編하여 그 병력의 일부를 同사단에 배속하였다.

그리고 汶山지구에서 철수하여 水原에 集結한 제1사단(장, 白善燁대령)을 육군본부의 예비로 삼았다.

이리하여 사관생도대가 金谷里 北쪽에 전지를 점령함과 때를 같이하여 水原의 제25연대(장, 金炳燾 중령)가 그곳에 增派되어 同생도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아연대는 28일 아침 彌沔전선에서 撤收할 때에 연대장이 그 兵力과 離脫되어 홀로 三角山을 헤메다가 전날 낮에 廣나루에서 江을 건너 水原에 당도한바 그곳에 먼저 점결한 연대병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 것인데, 이때에 제2대대의 일부는 前進한 것과 같이 同대대장 裴雲龍소령의 지휘 아래 覽梁津전선에서 전투중이었다. 따라서 연대는 제2대대 副대대장인 羅熙龍대위를 제2대대장으로, 그리고 高東旻 소령을 제3대대장으로 하는 2개대대로 제편하여 혼성제3사단에 배속된 것인데, 그 병력이 800여명이었다.

이리하여 사관생도대는 板橋 東南쪽의 無名고지(표고 110m정도, 板橋—豐德川으로 束쪽)에, 제25연대는 그 西南쪽의 고지(표고 130m정도, 同도로 西쪽)에 각각 전지를 점령

하여 힘을 모아 將至할 戰機를 기다리게 되었다.

### 3. ADCOM의 撤收

美偵察機의 誤報 : 육군본부와 함께 水原의 農業試驗場(西湖의 西岸)에 임시지휘소를 두고 있는 ADCOM은 고문단소속의 將校들을 漢江線으로 파견하여 戰況을 파악케 하면서 現地국군의 作戰을 돕게 하는 한편으로 東京의 美極東사령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데 專念하였다.

그런데 이날 漢江線으로부터 同지휘소장 Church준장에게 報告되기를 『漢江防禦線이 마침내 破綻을 보게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敵이 말죽거리쪽으로 渡河한 것과 또 銅雀洞부근의 ④고지일대에 渡河據點을 확보한 것을 두고, 針小樵大격으로 誇張 보고한 것으로 推測된다.

16.00에 Church준장은 全般的인 戰勢를 東京에 보고한 다음, 極東軍참모장인 Almond 소장과 직접 通話하기 위하여 烏山에 있는 通信중계소를 目標로 떠나게 되었는데, 19.00에 同중계소에서 通話를 가진 결과 Almond 소장이 『明日, 즉 7월 1일까지 水原비행장을 확보할 수단 있다면, JCS가 승인한 2개 대대의 地上軍을 그곳에 空輸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明日 正午까지는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同비행장을 固守할 것이라는 決意를 굳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烏山에서 이와같은 朗報에 接하고 있는 時刻에 水原의 ADCOM에서는 뜻하지 않은 樞事가 突發하였다.

즉, 그때 水原上空을 旋廻하던 한 美軍 偵察機가 提供한 그릇된 情報이 이 사건의 發端이 된 것이니, 同機는 通報하기를 『敵의 行軍縱隊가 水原 東쪽에서 西進하여 目下 水原으로 접근중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정보는 앞서 Church 준장에게 보고된 바 있는 「漢江線 破綻」의 誤報와 함께, 어둠에 싸여가는 ADCOM의 美軍의 腦經에 暗影을 더욱 짙게 던져 준 것인데, 이때에 同 지휘소 東쪽 500m의 鐵路에서 불꽃이 치솟아 잠잠한 西湖의 水面을 휘저어 놓는 것이었다. 이는 뒤에 밝혀진 바 단순한 鐵道信號였지만, 이 불꽃을 본 美軍들은 「敵이 이미 水原을 포위하였다.」고 速斷하게 된 나머지 견잡을 수 없는 不安과 當惑의 混沌속에 빠져들게 되었으니, 雪上加霜으로 同지휘소장이 不在中인 것과 더불어 같이하여 公교중계소도 고문단장인 Wright 대령마저 Hazlett 중령과 함께 漢江線에 나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動搖된 장병들을 지휘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마다 「時刻을 지체 말고 水原을 빠져나가자.」는 一念만으로 철수를 서두른 끝에 通信委員이 燒夷수류탄으로 通信裝備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되어, 마침내 그 불길 이 지휘소로 사용중인 建物을 태우게 되고 갈았다.

이같은 自中之禍에 더욱 놀라게 된 그들은 車輻에 일부 持出裝備를 싣고, 烏合之衆으로

水原 비행장으로 집결하게 되어, 어떤 장교의 지휘아래 그곳에서 一時 四周방어진지를 폐게된 바, 심지어는 同 비행장의 경비 임무를 맡은 對空砲隊員마저 그들에게 加勢토록 하게 됨으로써 비행장마저 混亂의 도가니로 化하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그들 스스로가 또 그곳을 지탱할 自信을 잃고, 그곳 또한 拋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2.00에 同 전방지휘소(ADCOM)와 군사고문단(KMAG) 및 대사관(AMIK) 그리고 對空砲隊등 각 소속의 차량들이, 京釜國道를 따라 大田을 목표로, 행여 남보다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달리게 되었으니, 望風敗走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ADCOM의 大田撤收 : 한편, 이 무렵 烏山の 통신중계소에서 Almond 소장과의 通話를 끝낸 Church 준장이 戰況을 好轉시킬 실마리를 얻어, 가벼운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여 水原으로 돌아가던 途中에 이들 車輛縱隊와 마주치게 된 바, 路上에서 그간의 경위를 보고 받고 大驚失色하여 『당장 水原으로 돌아가라!』하고 怒號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縱隊의 行首를 돌려 水原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지휘소는 셋더미로 변하였고, 통신장비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더우기 비행장 경비용인 對空砲마저 쓸모없는 古鐵신세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長歎息만을 連發할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비행장의 확보를 保障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水原에 남아 있을 수 조차 없게 된,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烏山の 同 중계소로 가서 Almond 소장에게 이 事件의 顛末을 報告한 다음 ADCOM의 철수를 건의하여 承認받아, 이날 밤중으로 腹中을 무릅쓰고 大田으로 옮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다음 날 正午까지 비행장을 확보하여 地上軍의 赴援을 받는다.」는 계획이 無爲로 돌아감으로써, 다음 날 水原에 도착키로 되었던 Smith 특수임무부대의 着陸地를 부득이 釜山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同 부대가 7월 4일에야 烏山 北쪽에 진지를 점령하게 된 사실을 들어 본다면, 一刻이 如三秋로 그들의 赴援만이 기다려지던 당시의 情勢下에서 3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釜山—烏山사이의 道路上에서 虛費하게 한 셈이니, 참으로 可笑롭고도 愛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밤 늦게 漢江線에서 水原으로 돌아간 Wright 대령과 Hazlett 중령은 ADCOM이 大田으로 移動한 것을 알고, 이틀마저 뒤따라 大田으로 向하게 되고, 육군본부는 그 이틀날 大田에서 급히 파견된 美고문단 소속의 장교 5명과 함께, 水原에 홀로 남아 孤軍鞅繫게 되었다.

7월 1일 : 이날 陸軍本部에서는 그간 軍을 지휘하는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이 그 職에서 물러나고, 渡美中에 歸國하여 전날 水原에 도착한 前 참모부장 丁一權 소장이 새로이 총참모장에 就任하여, 이 漢江線의 防禦作戰을 指導하게 되었으나 戰況은 좀체로 好轉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 1. 말죽거리 부근의 狀況

제16연대 搜索隊의 車輛鹵獲 : 전날 제3연대(장, 崔秀昌 중령)가 종일 血戰끝에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와 교대하고, 果川쪽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제16연대(장, 文容彰 대령) 역시 牛眠山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선 急編에 들어간 바, 이날 새벽에 사단 공병대대의 S-3인 梁秀哲 중위가 이끄는 제16연대 수색중대 75명이 말죽거리로 推進되어 제5, 제16兩 연대의 制限點인 말죽거리 도로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同 수색대가 曉開속에서, 敵의 보급추진임무를 맡은 듯한 車輛5대가 말죽거리—始興黑도로를 따라 南下하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急襲한 결과 軍官 4명을 포로로 잡는 한편 同 차량들을 鹵獲하였는데, 그 車輛은 漢南洞에서 나룻배로 건넌 것으로서, 我軍이 江의 北쪽에 遺棄한 것이었으며, 거기에 실려있는 것도 我軍의 “전량”등 非常食糧이었다.

이들 차량은, 이미 我軍의 방어선을 突破한, 그들 先遣隊의 보급추진을 위하여 뒤따르던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전날 밤중으로 敵의 일부가 이미 제5연대의 방어 배치의 虛隙으로 闖入하여 말죽거리를 지나 板橋쪽으로 빠진 것으로 추단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일부가 방어선을 뚫고 後方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江岸전지를 계속 지키게 된 사단으로서는 後顧의 憂慮가 없지도 않았으나, 敵 主力의 渡河를 막기 위하여 낮 동안은 △95—牛眠山 전지를 계속 지탱하였다.



〈水道高地에서 본 오늘날의 新沙里부근 遠景〉

사단장의 交替 : 한편, 前線에서 既述한 바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날 새로이 軍의 지휘를 맡아 當面한 漢江線 방어에 대한 方案을 짜게 된 총참모장丁一權 소장은 水原 東北쪽 접근로에의 敵의 侵襲상황을 銳意 검토한 결과, 이 威脅의 除去는 말죽거리 正面의 敵도 阻止 與否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사관학교 副교장인 李翰林 대령을 제2사단장으로 起用하는 한편, 同 사단장 林善河 대령은 美地上軍의 赴援에 따른 韓美兩軍사이의 有機的인 연락도모를 위하여 韓美連絡將校團長이 轉補조치하였다.

이에 李翰林 대령은 午後의 副官인 金承鐵 소위만을 請同하고 Jeep車로 金谷里에서 果川으로 떠났는데, 途中에 美공군機의 機銃사격을 받아 副官이 戰死하는 逆境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는 18.00에 사단지휘소에 도착하여, 林善河 대령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하는 즉시로, 必是 敵이 야간渡河를 試圖할 것으로 여타보고, 一般진지를 巡廻하면서 戰城開守를 督勵하였다.

## 2. 金谷里 부근의 狀況

사관생도대의 奮戰 : 한편, 전날 午後에 板橋 南쪽에 진지를 占領한 上官生徒隊(장, 孫官道 소령)와 제25연대(장, 金炳徵 중령)는 밤 동안 畝已 壕를 파고, 지원확박인 박격포의 射擊諸元을 확보하여, 決戰대세를 기다리는 사이에 밤을 새우게 되었다.

이날 새벽에 들어서서, 板橋 北쪽으로 내보낸 생도대의 朴永徵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수색대가 『敵이 始興里에서 南向中입.』이라고 警報하더니, 이어 04.00에 드디어 1개 미터 규모로 추산되는 敵의 先遣隊가 號端을 헤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 板橋마을 西쪽의 樂生국민학교에 접결하였다.

이들은 전날밤에 漢南洞에서 말죽거리 正面을 突破한 일부인듯 한바, 이들이 始興里—板橋간의 도로에 들어선 뒤로 별다른 抵抗을 받지 않았던 까닭으로, 前途가 또한 순탄할 것으로 내다본 결과, 同 국민학교 校庭에서 그들 後續부대의 來着을 기다려서 隊伍를 整理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생도대가 이 好機를 捕捉하고, 朴正瑞대위가 지휘하는 60mm 박격포 2문으로써 先制로 火力急襲을 行하였다.

이리하여, 바로소 여기에 그 一戰의 幕이 열리게 되나, 먼저 박격포사격에 敵이 적지 않은 損失을 입고 당황하다가 同 생도대가 보유한 포탄 250발이 모두 射盡되자, 東天에 해가 솟아오르면서부터, 생도대의 陣前으로 몰려들게 됨으로써 迎頭接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敵은 120mm 重박격포로써 생도대 진지 後方を 火力으로써 遮斷하면서 重기관총의 掩護아래 陣前으로 步—步 육박함으로써 黃塵이 濛濛한 가운데 壕속에서 生徒와 驕靄의 銃劍이 서로 맞부딪치는 血戰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激烈가 繼續하는 亂擊상태로 彼我가 한때 뒤엉키기를 3시간, 생도대가 渾身の 힘으로 敵의 狂波를 몇차례나 물리쳤으나, 08.00가 지나면서부터 중대장 趙德善대위가 부상을 입는 등 손실이 累增하고, 탄약이 다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진지

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생도대는 진지에서 철수케 되었는데, 同 생도대원이었던 南相顯생도(1期生)는 이 철수광경을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勢窮力盡하여, 하는 수 없이 철수명령이 내려지자, 생도 金海善은 重傷을 입고 있던 터이라 「이 몸으로 살아남은들 다만 戰友의 짐만 될 뿐이라」고 수류탄을 뽑아 自爆하고 말았는데, 이를 본 생도 姜周奉이 悲憤慷慨한 나머지 「어찌, 여기서 모두 死生을 決하려 하지 않고 또 물러난단 말이며, 여기를 떠난들 또 갈 곳이 어디란 말이나!」하고, 그 역시 자기의 小銃으로 自決하고 말았다. 그런데 金海善 생도는 校長인 李俊植 준장의 妻孥이요, 姜周奉 생도는 作戰局長인 姜文壽 대령의 再從弟였다. 일이 이지경에 이르니, 金熙運, 孫東祚, 朴權榮 등 세 사람의 생도는 「이 길로 冠岳山으로 들어가 遊擊戰을 벌이면서 捲土重來할 날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冠岳山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당시 사관생도의 꽃다운 義氣가 대개 이리하였거니와 同 생도대는 이와같은 눈물겨운 情景을 뒤에 남겨두고, 午前中에 발길을 돌려, 逐次로 金谷里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제25연대장의 負傷: 한편 이와같이 하여 사관생도대가 철수하게 되자, 그 左側의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는 同생도대의 진지가 敵手에 蹂躪되는 즉시 逆襲에 나서, 먼저 同高地에 오른 敵 일부를 무찌르고, 그들 主力이 미처 증원되기 전에, 연대가 앞질러 同 진지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7월의 太陽아래 腥羶風이 몰아치는 싸움이 다시 계속되었는데, 연대의 氣勢가 자못 드높아 보였던지, 敵은 5문의 直射砲를 바로 同 진지아래까지 推進하여 例의 火力示威를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敵의 砲火가 진지를 뒤덮게 되어, 死傷者가 續出케 되었으므로, 火力의 劣勢를 切感하고 그 敵火의 제압수단을 모색한 끝에, 自身이 직접 제2, 제3 兩대대장과 함께 特攻隊를 편성한 다음 敵陣中으로 挺進하여 敵砲의 파괴를 試圖하던 중, 그 지휘부가 敵의 공격을 받게되어, 제3대대장 高東旻 소령이 戰死하고 연대장과 제2대대장 羅熙彌 대위는 다발총으로 삼근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리하여 同 연대의 방어선도 백 없이 무너지는 바 되어, 앞서 간 생도대를 뒤따라 金谷 鎭부근으로 철수케 되었다.

한편, 이때에 金谷里부근역서는 제22연대(장, 姜泰敏 중령)가, 혼성 제3사단의 戰力補強의 一環으로 취하여진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라, 이날 08.30에 水原을 떠나 이 金谷里에 增派되어, △114(金谷里 南쪽 1.2km)에 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同 생도대와 제25연대의 철수병력을 수용하여, 그곳에 새로운 阻止진지를 급편하게 되었다.

그런데 同 제22연대는 제1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村부근에 投入되었다가 分散되어 幸州에서 江을 건너 부대로써 전날에야, 대대장 申冕浩 소령이 戰死한 제2대대와 金浦一稻

柳洞 전투를 치르고 水原에 집결된 제3대대(장, 孫永乙 소령) 등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金浦—梧柳洞부근 戰況 참조) 증강된 대대규모로 재편된 것인데 제25연대가 板橋부근의 △110일대에서 敵과 싸우고 있을 무렵에 △114에 진출한 것이었다.

**제13연대장의 負傷** : 이와같은 제22연대의 金谷驛 출동과 때를 같이하여, 제1사단(장, 白善燾 대령)은 전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全병력을 水原에 집결하여 예비로 轉換된 바, 각 연대별로 부대를 정비하면서 戰況의 推移를 注視케 되었는데, 제13연대(장, 金益烈 대령)는 이날 아침에 徵發한 민간 택스로써 蔚龍門 아래에 移動 지휘소를 定하고, 그 부근에서 隊伍를 整理中이었다.

그런데 08.00를 前後하여, 느닷없이 나타난 突공군機가 이 이동지휘소를 敵으로 誤認하고 空襲을 加하게 되어, 그 機銃掃射로 말미암아 同 차량의 燃料 tank가 폭발함으로써 창졸간에 차량이 火焰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車內에 同乘하여 부대 整備 현황을 검토중이던 연대장과 副연대장 및 S-3와 연락병 등이 緊急待避하게 된 것인데, S-3인 崔大明 소령만이 倖存으로 無事하였을 뿐 연대장 金益烈 대령과 副연대장 金振權 중령은 重火傷을 입게 되고, 指揮車는 燒失되었으며 副연대장 金振權 중령은 後送중에 政勳장과 洪承範 중위와 함께 끝내 殞命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연대원 모두가 하늘을 우리러보며 크게 울부짖으니 그 哭聲이 九天에 닿는듯 하였다.

이렇듯, 지휘체계에 混亂을 빚게 된 연대는 前任 제1대대장 金振晔 소령이 임시로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7월 2일** : 이날, 鷲梁津—永登浦부근의 漢江線을 堅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말죽거리 正面에서는 戰況이 惡化—路로 치달았다.

### 1. 말죽거리 부근의 狀況

**제5연대장의 負傷** : 전날 저녁에 新任 李翰林 사단장이 예측한 바와 같이 밤이 깊어지자 夜間을 틈탄 敵의 일부가 다시 新沙里부근에서 渡河하여 말죽거리 부근의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진지를 突破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95를 중심으로 진지를 마멸한 同 연대가 이들 敵과 激突케 되었는데, 그 攻波가 자못 거세어 同 연대진지를 에워싸고 달려든 까닭으로, 연대장 崔昌彦 중령 以下 제2대대장 車甲俊 소령 등이 수류탄의 爆焰으로 夜空을 밝히면서 敵을 屠戮하는 近接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 들어식자 頑敵의 發惡이 度를 더하게 되어, 연대장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됨으로써, 끝내 진지를 支撐지 못하여 그곳에서 물러나는 바 되고 말

았다.

이에 연대는 果川으로 한걸음 물러서서 병력을 수습케 되었으며 연대장은 水原—大田으로 後送되었는데, 따라서 이 말죽거리—始興里間의 도로는 敵에 開放되기에 이르렀다.

**步校연대의 敵 輜重隊 급습**: 한편, 사단장 李翰林 대령은 전날 밤 말죽거리 정면에서 제5연대가 敵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간 果川에 예비로 控置중인 보교연대(장, 俞海濬 중령)를 玉女峰(△373, 말죽거리 南쪽 5km) 北麓의 △193(말죽거리 南쪽 3.5km)로 추진하여, 敵의 侵路로 예상되는 말죽거리—始興里도로를 扼守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同 연대가 말죽거리 上空에 치솟는 交戰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果川—말죽거리 도로를 따라 東쪽으로 달려가, 이날 새벽에 목표인 △193의 東麓에 이르러, 마침 始興里쪽으로 東南向중인 일단의 車輛縱隊를 捕捉하게 되었다.

그 縱隊는 앞뒤로 裝甲車의 掩護를 받는 truck 30여대로 편성된 보급품 수송대였는데, 이로써 보아 전날 밤에 제5연대의 진지를 突破한 敵 보병의 일부가 始興里쪽으로 지나쳤음을 알 수 있었다.

연대는 60mm 박격포로써 先頭와 後尾의 장갑차를 겨냥하여 單發에 擊破함으로써 縱隊의 前後를 火力차단한 다음, 일제히 내달아 同 輜重隊를 공격하니, 敵은 차량을 모두 내버린채 길 건너의 “평촌”마을로 遁入하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전을 벌인 결과 20여명을 사살함으로써 그 輜重隊를 一網打盡하는 戰果를 올리게 되었다.

연대는 곧 차량을 모두 파괴하고, △193로 反轉하여 진지를 急縮하였다. 낮동안 彼我를 分揀치 못하는 美공군機의 威脅을 받아, 그곳에서 못이 박힌채로 終日 散을 기다리기만 하였으나, 해가 뜬 뒤로는 더 이상 敵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사단장의 措置**: 이와같이 하여, 敵의 일부가 金谷里쪽으로 增援되었음이 分明하여지자, 사단장은 步校연대로 하여금 △193 부근에서 始興里로 向하는 도로의 길목을 계속 지키게 하는 가운데,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로써 牛眠山진지를 固守토록 하여 우선 果川 정면으로의 敵侵을 막아내게 하면서, 6월 30일에 말죽거리 부근에서 철수한 제3연대(장, 崔秀昌 중령)를 果川 東南쪽의 △348 西北麓에 배치하였다. 이는 말죽거리—金谷里 軸線상의 敵에 대하여서는 그 당면의 제3사단(장, 李俊植 준장)에 一任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사단은 果川—軍浦場도로를 확보하여 尙今 漢江線에서 力戰중인 始興사령부의 主力에 대한 側方掩護에 專力키로 方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午後에 果川의 지휘소를 軍浦場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제5연대의 부대 수습에 임하였다.

## 2. 金谷里 부근의 狀況

한편, 이 동안 金谷里 부근에서는 전날 그곳에 진지를 마련한 제22연대(장, 姜泰敏 중령)



가 제25연대 및 사관생도대와 함께 진지를 強化하여, 그곳으로 指向될 敵의 楔鋒을 扼腕待機하였으나, 전날 板橋삼거리 부근을 席捲한 뒤로부터는 더 이상의 侵襲을 피하지 않았다. 이는 생도대와와의 一戰에서 입은 損失이 적지 않았고, 또 뒤따라야 할 補給隊가 제16연대 수색대에 의하여 길이 막힌 까닭에 그들만의 단독행동이 如廁치 않았을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새벽에, 그들 병력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增援을 보았으나, 이번에도 그 輜重隊가 步校연대의 適時打로 中途에서 炎上되어 보급지원에 큰 차질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美공군機の 不斷한 空襲위협으로 말미암아 戰意가 萎縮된 나머지 이날 繼續侵襲을 試圖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

따라서 偵察隊인 것으로 판단되는 그들의 일부가 낮 동안 제22연대진지에 대하여 한 차례 探索공격을 하였을 뿐, 그대로 물러났으므로 큰 接戰없이 하루를 또 넘기게 되었다.

#### (다) 水原 撤收狀況(7.3~4)

7월 3일 : 이날 驪梁津부근의 漢江線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戰況은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 1. 陸軍本部の 措置

이날 아침 드디어 驪梁津—水登浦戰線이 敵의 戰車에 의하여 瓦解되었다고 陸軍本部에 飛報되자, 이제 水原의 進策가 결정적인 사태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7월 1일에 鎭山에 도착한 바 있는, 美地上軍의 先遣隊인 Smith 특수임무부대가 大田을 지나 赴援중에 있었으므로, 총참모장 丁一權 소장은 美軍이 전투참가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이 마지막 方策이라고 판단하고, 現전선에서 최대의 遲延키로 決心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京水街道를 따라 戰車를 先頭로 한 敵의 위협이 深刻한 상태에 이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전날 새벽에 原州에서 利川지구로 轉進한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로부터 또 報告되기를 丁加平—兩水里로 南向한 듯한 敵 제2사단(장, 소장 李沔松)의 일부가 金良場(龍仁, 水原 東쪽 18km)부근으로 그 衝鋒을 指向중임.』이라고 하였으니(제3장 春川—洪川 東北지구 戰鬪 참조), 그야말로 雪上에 加霜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제 水原은 東쪽과 東北쪽 그리고 西北쪽의 세 방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셈이었다.

이에 총참모장은 0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명령 제18호를 下達하였다.

① 驍敵은 今日 末明에 漢江을 渡河하였다.

② 軍은 赴援軍의 전투참가를 위한 時間을 얻기 위하여, 現 전선에서 遲延戰을 실시한다.

- ③ 始興지구 전투사령부는 最大限으로 敵을 阻止하면서 京釜國道를 따라 逐次 철수하여, 烏山으로 집결한다.
- ④ 제1사단은 豐德川(水原 東北쪽 8km) 일대에 阻止線을 확보하여, 始興 지구전투사령부가 水原을 철수할 때까지 現 전선을 持久한 다음, 新葛—烏山도로를 따라 烏山으로 집결하라.
- ⑤ 工兵監은 別命에 따라 水原—烏山間의 道路破壞작업을 실시하라.
- ⑥ 通信監은 水原—烏山間의 通信網을 확보하라.
- ⑦ 陸軍本部는 水原—철수 以後, 烏山區事務所에 위치할 예정이다.』

## 2. 始興—安養 철수狀況

始興지구 전투사령부의 措置 : 새벽에 敵의 戰車가 드디어 鶯梁津땅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漢江防禦線에 결정적인 破局을 맞게 되자, 始興地區사령관 金弘壹 소장은 아침에 鶯梁津의 제7사단(장, 劉載興 준장)과 永登浦의 首都사단(장, 李鍾贊 대령)에 다음과 같은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수도사단은 始興에서 시급히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始興 南쪽 2km의 國道 東西의 高地帶에 阻止진지를 점령하고, 國道로 指向되는 敵의 侵攻을 牽制하라.
- ② 제7사단은 安養으로 집결하라.』

金弘壹 소장은 이에 따라 永登浦—始興도로가 敵에 개방될 것을 勘考하고, 梧柳洞의 金浦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崔榮勳 대령)에도 當面한 敵으로부터 離脫하여 安養으로 철수토록 措置한 다음(前節, 金浦—梧柳洞부근 戰況 참조) 11.00에 사령부를 철수하여 14.00에 安養으로 移轉하였다.

이리하여 金浦街道의 진지에서 철수한 수도사단은 제8연대 副연대장 李賢進 중령 지휘 아래 병력을 수습하면서 始興으로 철수하여, 대강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防禦에 有利한 地形을 찾아 南쪽으로 한걸음 물러서서 진지를 점령하였다.

기갑연대 裝甲대대(一)(장, 朴武烈 소령)의 M-8 장갑차를 國道上에 전개하여 火力掩護를 맡게하는 가운데 제8연대를 道路 東쪽의 △284(始興 東南쪽 2.5km)의 西麓과 道路 西쪽의 德安里(始興 南쪽 3km) 無名고지(표고 150m정도)에 배치하여 左右에서 同 도로를 扼守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8연대(장, 대령 李賢進 중령)가 始興 南쪽에 새로운 阻止진지를 점령하는 중인 14.00를 前後하여, 때마침 上空을 날던 美공군機가 이룬 敵의 병력전개로 誤認하고, 道路上의 장갑차에 機銃사격을 加하였다.

이 空襲으로 말미암아 同 장갑대대의 제1중대장인 朴吉龍 대위가 機銃을 맞아 陣歿하는 등 적지않은 損失을 보았는데, 미처 隱蔽物을 찾아 待避하지 못한 장갑차들은 車위에 기름물은 手入布를 붙대워 검은 연기를 내뿜게 함으로써 被撃된 것으로 假裝하는 機智를 발

취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수도사단은 이러한 艱難속에서도 15.00를 前後하여 始興 南쪽에 제1阻止線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7사단은 그 일부가 始興으로 철수치 못하고 冠岳山—果川으로 철수하여 곧장 水原으로 접결케 되는 가운데 安養과 軍浦場에서 수습된 일부로써 수도사단이 始興 부근에서 진지를 마련하는 동안 安養川 南쪽 高地帶에 제2선 진지를 급편케 되었다.

金浦지구 전투사령부의 解編: 한편 梧柳洞 진선을 支撐하는 중에 始興사령부의 철수 명령에 따라 安養 西北쪽으로 철수케 된 金浦사령부는 제8연대가 始興 南쪽 진지를 점령하였을 무렵 德安堡 부근에 집결케 되었다.

이에 始興사령관 金弘壹 소장은 이미 철수중에 各대대별로 병력의 분산을 보게 된 金浦戰鬪司의 기능을 더 이상 期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同 사령부를 解編하여,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로써 始興진선의 제8연대를 增援토록 하고, 제15연대(장, 崔榮熙 대령)로써 同 진지의 西쪽에 展開토록 함으로써 梧柳洞쪽에서 進逼중인 敵을 막아 수도사단의 左側背를 掩護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는 △182(德安堡 東南쪽 1.2km)—忠勳府 부근의 無名고지(△182 西南쪽 700m, 표고 130m정도) 사이의 제8연대 진지의 일부를 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8연대는 △284 西麓을 專擔하게 됨으로써 그 防禦力을 증강케 되고, 제15연대는 제18연대와 連繫하여 △142(忠勳府 無名고지 西쪽 1.6km)—△179(△142 西쪽 800m)에 진지를 점령하여, 그 西쪽의 隘地를 따라 梧柳洞에서 南쪽으로 뻗어내리는 道路를 굽어보면서 그 쪽으로 뒤쫓을 敵을 막기로 하였다.

제2사단의 軍浦場 투입: 한편, 전날 軍浦場으로 지휘소를 옮긴 바 있는 제2사단(장, 李翰林 대령)은 이제 始興戰鬪司의 철수엄호를 맡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지휘소를 재차 軍浦場 南쪽 2km로 옮기고, 전날 제5연대장 崔昌彦 중령의 負傷에 따라 前연대장 代理 朴基成 중령으로 하여금 同연대를 다시 지휘케 하는 가운데 安養 南쪽의 △426(安養 南쪽 2km, 國道 西쪽)를 중심으로 진지를 점령케 하여 同 國道를 制扼토록 하였다.

그리고 △348 西北麓의 제3연대(장, 崔秀岡 중령)의 掩護아래 牛眠山의 제16연대(장, 文容彩 대령)와 △193의 步校연대(장, 俞海濬 중령)를 軍浦場으로 뽑아, 제16연대는 帽洛山(軍浦場 東쪽 2km, 표고 390m 정도) 西麓의 △133 부근에 진지를 급편하여 果川—軍浦場 도로와 安養—軍浦場의 도로를 아울러 瞰制케 하는 한편, 步校연대는 軍浦場의 도로변에 배치하여 國道の 차단에 注力케 하였으며 제3연대는 계속 △348 西麓에 殘置하여 果川쪽에서의 敵 侵襲을 견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首都, 제7, 제2의 3개 사단이 始興—軍浦場 사이의 京釜國도에 三重의 阻止線을 마련한 바 敵이 반드시 戰車를 앞세워 突破를 強行할 것으로 내다보고 各 사단별로 對

戰車특공대를 조직하여 橋梁과 隘路의 곳곳에 배치하였으나, 해가 지고 밤이 지나도록 敵의 그 驍鋒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推斷컨대, 敵은 이날 낮 중으로 偵察隊의 일부로써 始興의 一角을 占據하여 正 常活動을 繼續하는 가운데 이날 밤에 6대의 戰車를 앞세운 1개 대대 규모로써 京仁街道를 따라 仁川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戰線의 整齊를 期하면서 그 主力은 永登浦—梧柳洞線에서 다음 공격을 위하여 行伍를 가다듬는 것으로 보였다.

### 3. 豐德川 부근의 狀況

한편,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始興戰鬪司의 철수로를 保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午後에 水原에서 陸士생도대를 배속받아 豐德川으로 躍出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豐德川 西南쪽의 △188(豐德川 南쪽 2km)—△237(△188 西北쪽 2.5km) 사이에 진지를 점령케 되었는데, 이는 水原에서 5km 남짓한 거리였으니, 水原에서 18km 가 넘는 始興—安養사이에서 寸刻을 다루는 遲延戰을 벌일 始興전투사령부의 主力에 대한 撤收路의 확보가 이제 이 사단의 兩層에 매달리게 된 것이었다.

낮 동안, 敵이 그 北쪽의 金谷里 부근의 제3사단(장, 李俊植 준장)진지에 까지 육박하였으나 美공군機의 掩護를 받은 同 사단의 제22, 제25 兩연대의 혼성병력의 奮戰으로 金谷里에서 淹滯되었는데, 이 동안에 豐德川에 진지를 급편한 제1사단이 저녁무렵에 제22연대를 收容하여 이를 통합 지휘케 되었다.

이에 사단은 제11, 제22, 제13, 제12연대의 順으로 △188—△237에 배치하여 豐德川—水原도로의 방어에 專力케 되었는데, 右—線인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로써 新荷도로를, 中央右—線인 제22연대(장, 姜泰敏 중령)로써 △188 北쪽 稜線(豐德川 삼거리 南쪽)을, 中央左—線인 제13연대(장, 대리 金振暉 소령)로써 豐德川—水原 本道の 南쪽을,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로써 同 도로의 北쪽에 各各 진지를 점령케 하되, 특히 제13연대와 제12연대로서는 本道の 南北에서 逆入陣地를 편성케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陸士생도대를 △237에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실병력 1개연대 규모로써 掉尾의 一戰을 決意케 된 바, 必是 이날 밤에 夜暗을 탄 醜敵이 사단 진지를 穿貫하여 水原으로 直衝하는 奇襲效果를 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하여 Cal 50 4정 등으로 補強한 自動火力으로써 十字火網을 구성하여, 敵을 陣地안으로 끌어들이는 다음에 左右에서 挾擊키로 하였으나, 별다른 敵의 움직임은 잡지 못한채로 밤이 깊어만 갔다.

### 4. 金良場 부근의 狀況

이 동안, 제8연대 제2대대(장, 高白堊 소령)는 27일에 淸涼里부근에 배치되었다가 그 이튿날 廣平에서 漢江을 건너게 되었음은 前章(倉洞—彌阿里부근 戰況 참조)에서 言及하였거니와 이 대대는 29일에 水原에 집결하였으나, 永登浦戰線에 있는 同 연대 主力과는 合勢치 못하고 農科大學의 校庭에서 대기케 되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金良場부근으로 敵

이 南校중이라는 急報에 따라 이 敵의 水原侵攻을 막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대대는 午前에 金良場으로 車輛機動케 되었는데, 그 前方 2km에서 병력을 공격태형으로 전개하여 同마을로 進入한바, 그곳에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마을을 占據하여 휴식중에 있었다.

이에 대대의 60mm 박격포 6문으로써 집중사격을 加하면서 先制공격을 감행하여 京安川을 따라 北쪽으로 敵을 驅逐하고, 낮중으로 △234(金良場 北쪽 1.5km)를 점령하였는데, 그곳에서 76mm포 2문과 水冷式 증기관총 4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午後에 敵의 역습이 들이닥쳐 激戰이 再開되었으나 탄약보급이 되나르지 못한 탓으로 △234를 더 지탱치 못하고 물러나, 同마을 西쪽 2.5km에서 水驕線 철도를 끼고 그 南北에 진지를 다시 점령함으로써 敵이 水原쪽으로 西進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正面으로는 더 이상 侵襲企圖를 보이지 않아, 靜穩한 가운데 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當面의 敵은 그곳에서 安城도로를 따라 곧장 南下한듯 하였다.

7월 4일 : 陸軍本部가 水原을 철수하게 됨으로써 京安間의 寇延戰은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 1. 安養—水原 철수狀況

06.00에, 전날 永登浦를 席捲한 敵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이 제105전차여단 소속의 T-34 戰車 12대를 앞세우고, 京水街道를 따라 南쪽으로 侵攻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敵의 선두 戰車가 YAK機 3대의 掩護下에 始發을 지나 三幕트(△284 南쪽 1.6km) 부근의 제8연대(장, 대리 李賢進 중령) 陣前에 모습을 들어내었는데 이때 敵의 歩兵부대는 道路 西쪽의 安養川을 따라 진출하여 重박격포와 戰車砲의 화력지원 아래 제18연대(장, 任忠植 중령)의 진지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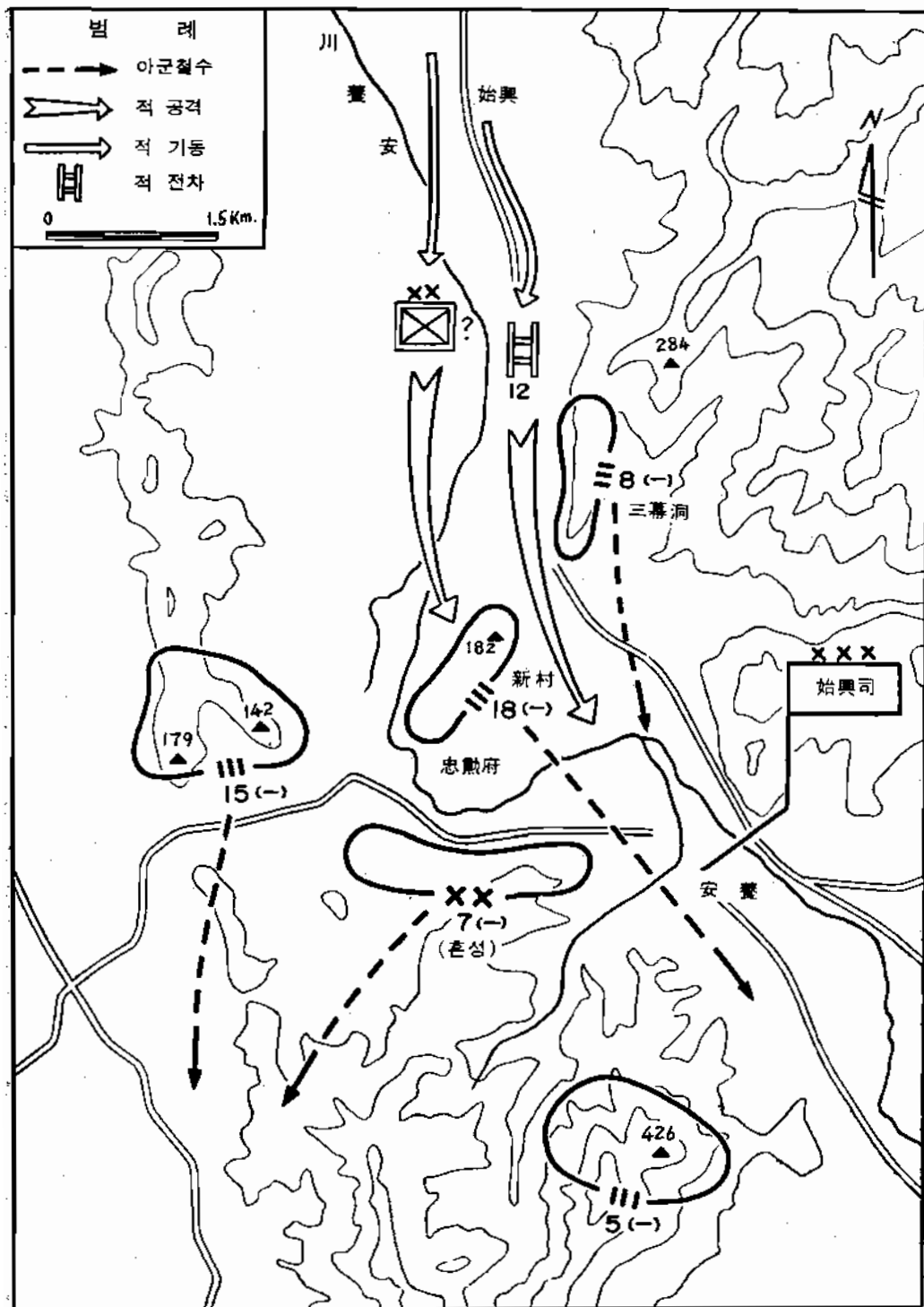
이에 연대가 死力을 다하여 그 敵을 拒支하였으나, 제8연대의 對戰車공격을 무릅쓰고 戰車가 兩연대의 地際인 道路를 突貫함으로써 10.00를 前後하여 兩연대는 各個 분산되어, 水原을 指向하여 발길을 돌리게 되고 말았으며 그 復擊으로 安養의 戰鬪사령부와 재편성 중인 일부 병력도 철수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正午 무렵에는 敵의 先頭가 제2선의 제7사단 진지까지 돌파하여 安養邑內를 橫行하게 된바, 이때 敵機 4대가 이들을 掩護하면서 철수중인 我軍의 부대행동을 방해하였는데, 이때 마침 美공군機 편대가 나타나 이들 敵機와 空中戰을 벌여, 1대를 격추시키고 나머지는 擊退함으로써 내달린 敵의 발길을 잠시 주춤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美공군機의 在空中威力때문인지 敵이 安養에서 軍浦場에 진출한 것은 14.00가 되어서였다.

여기서 △426의 제5연대(장, 朴基成 중령)와 그 道路邊의 金秉化 소령이 지휘하는 歩兵

◇ 上항도 제27호 安養附近 狀況(7.4)



學校의 일부 병력이 — 水原에서 재편되어 投入된 — 敵의 戰車를 향하여 모든 火力으로써 집중사격을 加하였으나, 戰車는 悠悠히 本道를 돌파함으로써 軍浦場의 제3선도 瓦解되고 말았다.

이에 金弘壹 소장이 직접 工兵을 지휘하여 지지대고개(軍浦場 東南쪽 5km)마루에 나무를 잘라 기갑연대 장갑대대의 半軌道車와 함께 가로 질러놓아 對戰車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百方의 手段을 다하여 戰車의 南下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끝내 그 進路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이와같이 軍浦場전선이 무너짐에 따라, 退路차단의 위협에 直面하게 된 △348 西北麓의 제3연대(장, 崔秀昌 중령)는 하는 수 없이 同 전지에서 물러나, 東南쪽으로 △348를 넘어 板橋쪽으로 撤收케 되었는데, 先頭에서 연대를 지휘하면서 退路를 開拓하던 연대장 崔秀昌 중령이 “사기락골”(板橋 西쪽 4.5km) 부근에 이르러, 앞을 가로막은 敵의 狙撃을 받아 戰死하게 되고, 병력 또한 四散케 되었다.

## 2. 陸軍本부의 철수

한편, 이와같이 敵의 戰車가 軍浦場의 제2사단(장, 李翰林 대령) 저지전지불 돌파하고 刻一刻으로 水原을 향하여 猛突케 되자 총참모장 丁一權 소장은 육군본부를 平澤으로 철수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곧 平澤집결을 下命한 다음, 梯隊를 편성하여 일부를 後衛로 남겨 敵의 侵襲을 阻止케 하는 가운데 本隊를 車輛으로 烏山—平澤간의 國道를 따라 철수케 하였다.

그리하여 後衛부대는 水原의 北門(長安門)을 중심으로 전지를 점령케 되었는데, 이때 工兵監인 崔昌植 대령이 戰車의 侵入을 막기 위하여 공병으로 하여금 北門을 파괴하여 道路를 阻絶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朴厚俊 중위 등이 北門의 파괴를 위한 폭파작업에 착수케 되었는데, 마침 이때 安養에서 철수하여 同門을 지나던 수도사단장 李鍾贊 대령이 그 광경을 目睹하자 愕然失色하여 『現時點에서 이 北門을 파괴한다고 하여 戰術적으로 我軍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貴重한 民族의 史蹟만을 湮滅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後' 民族의 指彈을 어찌 받을 것이냐?』라고 말함으로써 工兵監으로 하여금 그 폭파명령을 거부토록 懇懇하였다. 이에 首肯한 공병감은 同 명령을 취소하고, 그 대신 이 무렵에 日本에서 空輸로 보급된 바 있는 對戰車저뢰 20발을 同門의 주위에 埋設토록 하는 한편 병력을 城壁 樓上에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北門을 저지전지로서 남겨놓고, 金弘壹 소장 등 始興사령부의 장병은 육군본부의 철수에 이어 午後 늦게 水原市內를 빠져나가 南向길을 재촉케 되었는데, 이윽고 敵의 戰車가 同門 가까이에 나타나 戰車砲를 휘두르게 되니, 城樓에 남아있던 병력이 큰 저항을 하지 못한채 그 阻止線에서 撤收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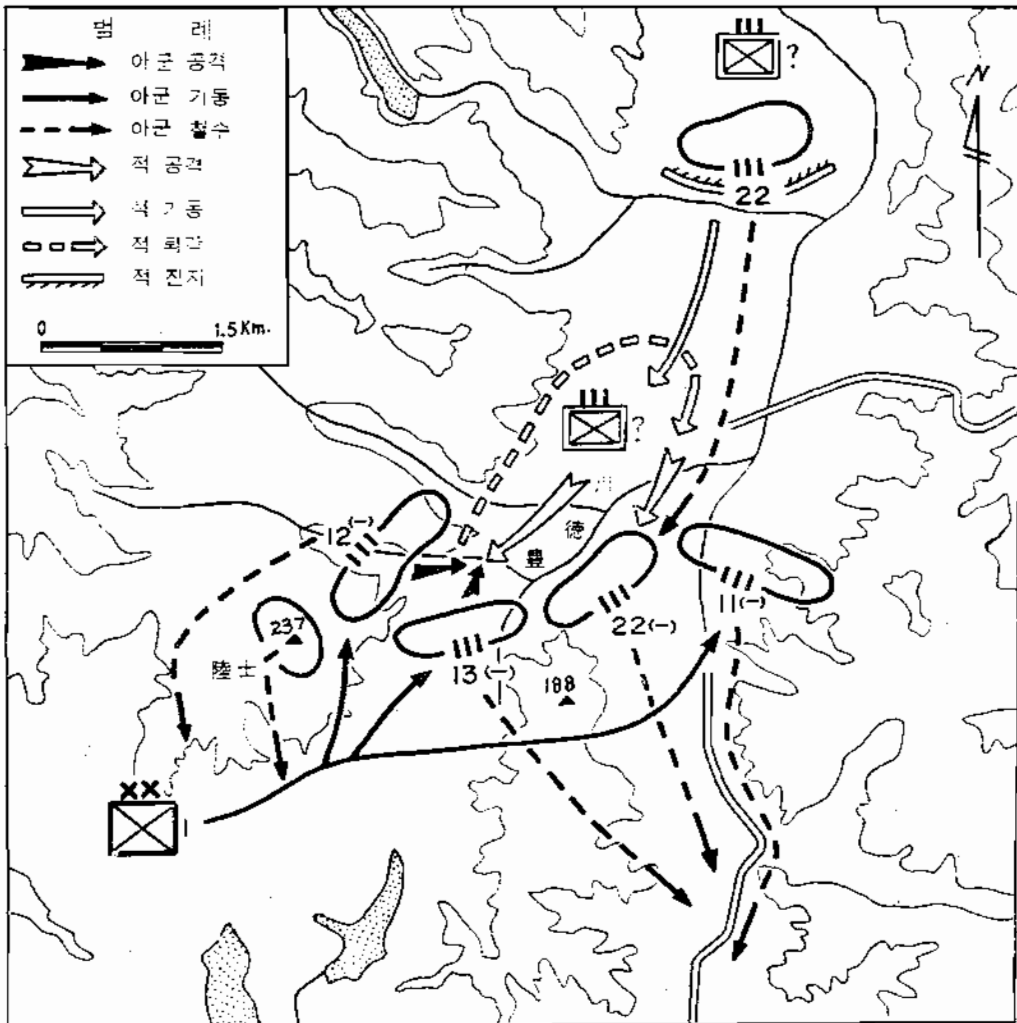
그런데 이때 侵襲을 서두르던 敵의 戰車 2대가 地雷를 觸發케 함으로써 두발의 爆聲과 함께 그 戰車가 路上에 擱坐되었는데, 이것이 敵의 T-34 戰車를 파괴한 對戰車지뢰의 첫 怨聲이었다.

어쨌든, 彼我が 큰 攻防戰을 치르지 않고 我軍이 물러설으로써 日沒과 더불어 古都 水原도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날도 敵은 永登浦에서 水原까지 40km의 侵攻記 錄을 誇示하게 되어 乘勝長驅를 더욱 뽐내게 되었다.

### 3. 豊徳川 부근의 狀況

날이 밝자, 전날 鎭谷里 부근에 이른 敵은 그들 戰車가 漢江 南쪽에 진출하였다는 것에 士氣가 鼓舞되었음인지, 四列縱隊로써 意氣揚揚하게 豊徳川—水原도로를 따라 南下하였다.

◇상황도 제28호 豊徳川 부근 狀況(7.4)





이에 그곳에서 扼腕待機중이던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敵의 先頭에 선 2개대대 규모가 제13, 제12 兩연대間의 逆八陣地안으로 깊숙히 들게 되자, 그 左右에서 Cal 50 등 자동火器로써 일제히 側射를 퍼부어 그 一波를 일거에 鏖滅함으로써 緒戰을 裝飾하게 되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敵의 主力이 豐德川 삼거리 南쪽의 제22연대 전지를 強襲하여 同 전지를 돌파하고 △188로 直衝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방어선에 龜裂을 보이게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午後에 들어서면서 戰況이 다시 逆轉되어, 병력과 火力의 優勢를 믿고 猪突하는 敵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苦戰相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死力を 다하여 豐德川—水原간의 本道를 지키다가 敵의 戰車가 水原 北쪽 近郊의 國道上에 나타나게 되자, 陸軍本部를 뒤따라 사단도 平澤으로 철수케 되었다.

한편 金良場부근의 제8연대 제2대대(장, 高白堧 소령)는 이날 午前에 接敵없이 전날의 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이 역시 烏山을 지향하여 철수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하여, 6일동안 支撐한 漢江 방어선을 敵手에 넘기고, 7월 4일에 水原마저 拋棄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堡壘가 무너지게 되어, 이제 7월의 炎天을 괴로 얼룩지게 하는 遲延戰으로써 洛東江을 目標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我軍의 입장에서 보면, 이 戰鬪는 敵보다도 차라리 時間과 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시 軍이 敵을 격멸하고 失地를 恢復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만 赴援軍의 來着을 기다리는 時間을 얻기 위하여 싸웠다고 보는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이 漢江線에서의 一週日이야말로 起死回生の 계기를 잡게 한 실마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敵으로서도 이 漢江線의 돌파에 意外的 時日이 遲延됨으로 말미암아 당초 그들이 企圖한「水原 北方에서 我軍 兵력을 打擊」코자 한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 그렇다고「美軍이 參戰하기 전에 방어선을 早期들과」한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같은 작전계획의 蹉跎는 나중에 그들 스스로가 赤化統一을 달성치 못한 가장 큰 原因의 하나로 分析하였을 정도인 것이다.

敵軍의 動向: 7월 4일에 京釜國道를 돌파한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과 金谷里—豐德川으로 迂回한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이 함께 水原까지 進出하자, 그들은 여기서 일단 발길을 멈추고 그 隊伍를 다시 整備하는 듯 하였다.

그 이튿날 5일 아침 그들 최고사령부는 서울 市廳에 殊功을 세운 이들 제3, 제4 사단 및 제105 戰車여단(장, 소장 柳京洙)에 각각「서울 師團」이란 명예호칭을 부여하여, 이로써 그들의 士氣를 북돋아 進擊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旣戰의 方便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敵 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은 5일 새벽부터 傾倒와 같이 戰車를 앞세운 제3, 제4 兩 사단이 서로 先頭를 다투면서 南進하였는데, 이때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仁川을 席捲한 다음에 바로 後續하는 듯 하였다. 그리고 제1사단(장, 소장 崔 光)은 이 水原線에서부터 龍仁—淸州로 轉進하여 제2군단(장, 소장 金光俠)을 따르도록 하고, 利川부근의 제2사단(장, 소장 李靑松)을 새로이 同 軍단에 흡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2단계 작전목표인 平澤—安城線으로 驕鋒을 지향하게 되었는데, 이날(5일) 아

침에 烏山 北쪽의 竹美嶺에서 豫期치 않았던 美지상군의 先遣隊인 Smith 특수임무부대와 激突케 됨으로써 새로운 事態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我軍의 動向: 한편 4일에 水原에서 철수한 육군본부는 차량으로 平澤에 집결하였거니와 安養—軍浦場 사이에서 분산되어 各個로 철수케 된 始興戰鬪司의 장병 일부는 西海岸쪽으로, 일부는 國道를 따라 南下하였는데 더러는 豐德川—烏山도로를 따라 이날 저녁에 烏山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途中에 烏山부근에서 Smith 특수임무부대를 만나게 됨으로써 勇氣를 얻어 그곳에 함께 殘留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同日 午後 늦게 보급물자를 滿載하고 육군본부와 함께 平澤驛에 도착한 貨車가 있었는데, 美공군機가 同 貨車와 육본의 철수차량에 空襲을 加함으로써 그 화차와 귀중한 보급물자를 燬焰으로 휘감아 놓은 일도 있었다.

이와같이 거듭되는 友軍機의 誤襲으로 말미암아 人命과 物資에 입혀진 損失이 적지 않았는데, 이렇듯 美軍機들이 彼我를 識別치 못한 까닭은 당시 東京의 美極東軍의 情報當路者가 그 조종사들에게 이르기를 『漢江 以北지역은 敵地이다.』라고 한 것이, 조종사에게 잘못 認識된 所致라고 하는바, 敵地形에 生疎한 그들이 錦江을 漢江으로 誤認한 탓으로 錦江 以北지역을 모두 敵地일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그같은 盲擊을 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平澤에서 4일 밤을 지낸 육군본부는 美지상군의 赴援에 힘 입어 다음 날 軍의 全面的인 再編에 착수하여 戰列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니, 이 再編상황은 다음의 제2卷에서 詳述하려니와 이로써 이제 戰局은 새로운 樣相으로 變貌되어지는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 混成 首都사단장 李鍾贊 대령

(1977. 5. 2 國會議員, 예 中將)

6월 28일 새벽 04.00쯤 西氷庫에서 李亨根 준장과 함께 나룻배로 漢江을 건너, 동이 틀 무렵에 鶯梁津으로 갔다.

10.00에 始興의 步兵학교에 갔더니, 午後에 金弘壹 소장이 戰鬪사령부를 창설하여, 나를 혼성 首都사단장으로 任命하였다.

나는 汝矣島로 들어가는 돌다리를 制限點으로 해서, 그 右側은 劉載興 준장의 혼성 제7사단이 담당케 되고, 그 左側으로 楊花橋까지를 사단의 防禦正面으로 맡게 되어, 지휘소를 처음에는 又新國民學校에 두었다. 敵의 포격이 심하여 東洋 맥주공장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始興으로 다시 移轉했는데, 당시 사단은 金浦街道의 堤防에 一列로 병력을 배치하여 汝矣島쪽에서 건너오는 敵을 막았다.

汝矣島까지 敵이 들어와 攻防戰이 줄곧 계속되었다. 사단의 병력이래야 제8연대 밖에 없었

으며 제18연대의 1개 대대가 楊花橋쪽을 막았는데 기갑연대의 장갑차가 지원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蔡秉德 소장이 와서 서울로 반격을 하겠다고 해서, 나는 Friedrich大臣의 Dresden 戰例를 援用하여 『만약 반격을 하겠다면, 서울의 正面공격은 피해야 할 것이며 主攻은 南加佐洞—仁旺山 뒷쪽으로 두고, 助攻은 松楸쪽으로 두어, 敵에 대해서 포위 태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건의하기도 했으나, 결국 蔡총장의 반격계획은 空論으로 끝나고 그 實行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에 내가 느낀 바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漢江線에서 統制된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력을 逐次投入한 것이다. 그것도 建制를 無視한 혼성병력이고 보니, 사실상 부대의 戰鬪力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당초의 내 휘하의 부대가 아닌 병력은 가급적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漢江線을 固守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일단 물러서게 됨으로써 漢江까지 밀리게 된 것이다. 그때 漢江以南의 우리 병력과 美軍의 赴援상대를 勘案해 볼때 저급 생각으로서는, 당시로서는 누가 그 병력을 지휘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漢江線의 固守가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지 않나 여겨진다.

#### ◇混成 제7사단 G-3 朴元根 소령

(1967. 6. 2 陸本 企劃統制室에서, 少將)

彌阿里에서 철수해서 廣平부에서 漢江을 건너 6월 28일 아침에 龜龍洞—鶯梁津으로 나와 혼성 제7사단의 G-3가 됐다. 당시 戰鬪한 한 마디로 엉망이었다.

鶯梁津 정면의 방어 임무를 맡아, 사단 指揮所를 서울工業학교에 두고 있었다.

전투時 사단의 할 일은 첫째, 火力調整, 둘째 豫備隊 운용, 셋째 行政支援, 이 세가지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初步의인 軍事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무슨 火力이 있나, 또 운용할 예비대가 있나, 행정지원 체제가 서 있나, 그래서 사단이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었다. 더더구나 통신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接拂부대는 고사하고 上下의 연락부터가 되지 않았다.

전투가 이런 상황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당시 兵士들의 고통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때문에 지금 나로서는 당시의 전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다. 느낀 점이 있다면 戰鬪時에는 有無線에만 依存치 말고 예비수단으로써 傳呼의 活用度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은 서울工業학교의 지휘소에서 마지막 철수명령이 내려, 철수할 때인데 그 곁에 먹물工場과 개천이 하나 있었다. 내가 지휘소를 떠날때쯤해서는 敵의 포탄이 개천에 떨어져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개울따라 나가다 보니 그 개울가에 어떤 병사 두 사람이 腹部에 破片을 맞았는지 鮮血이 狼藉한 가운데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자기들은 제1연대 소속의 아무 아무개인데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뭐 예라도 자기 부대를 만나거든 그들이 그곳에서 戰死했다는 것을 傳해달라고 했다.

포탄이 떨어지고, 달리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들은 서로가 일사하고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네.』하고 위로하면서 軍歌를 부르기도 했다.

그때 그 兵士들이 부르던 軍歌소리가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하다. 내가 軍醫생활을 통해서 남은 한가지恨이 있다면 그때 그 병사들을 구해주지 못한 그것이다. 당시의 병사들의 氣概는 참으로 혼몽했다고 생각한다.

#### ◇제3연대 제1대대장 任百振 소령

(1977. 8. 9 冠岳區 鶯梁洞 自宅에서, 少將, 大領)

우리대대는 6월 25일 밤에 議政府 부근의 金梧里에서 光陵으로 철수하였는데, 26일 새벽 05.00에 光陵에 집결해 보니, 敵이 벌써 휩쓸고 지난 뒤였다. 그래서 나는 대대를 이끌고 麻石 隅里쪽으로 빠졌다. 26일 17.00쯤 鹿石隅里에 도착해서 住民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저녁 食事를 하고, 1겨즈를 偵察을 내보냈더니, 작전장교인 黃三柱 중위가 失蹤되었다.

경찰조가 나간 거리를 측정해 본즉 敵이 이미 鹿石隅里 부근에 까지 진출한듯했다. 그래서 夜間행동으로 北漢江으로 나가 배 2척을 구하여 30명씩 分乘, 徹夜로 도하를 해서 兩水里로 철수했다. 28일 새벽에 千戶里쪽으로 나오니, 그곳의 廢鐵橋를 폭파하고 난 工兵 몇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거기서 비로소 서울의 상황을 알게되어 工兵의 차량으로 水原으로 집결했는데, 水原에 도착한 것이 17.00쯤이었다.

崔文信 대령을 만났더니, 나더러 빨리 果川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약 수송車에 편승해서 安養으로 가서 徒步로 果川에 갔다.

果川에 가니, 제3연대 일부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이어 보병학교 教導隊 병력이 증원되었다.

29일 아침에 연대장 李俊根 중령이 아프다고 하여 水原으로 가고, 副연대장인 崔秀昌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崔중령은 보병학교에서 戰術교관을 하던 분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가운데 戰術에는 자기분 바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가 贊賞할 만큼 우수한 사람이었다.

연대는 果川지역을 步兵학교부대에 一任하고,

말죽거리 正面을 맡았다. 漢江邊은 敵에 瞰制가 되므로 江변에서 4km쯤 南쪽의 高地에 진지를 점령했다. 거기서 敵이 渡江해서, 攻防戰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함으로써 白沙場쪽으로 敵을 밀어부치고 76mm포 5문을 노획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철수해서, 사단장 李翰林 대령의 명령에 따라 渠川 南쪽에 예비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安養쪽에서 敵의 戰車가 軍補場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板橋쪽으로 철수하다가 사기막골 부근에서 연대장 崔秀昌 중령이 狙擊을 받아 致命傷을 입게 되었는데, 敵이 우리의 앞길을 막았던 탓으로 그곳에서 분산되고 말았다. 연대장은 미처 後진을 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殞命하게 된 것인데, 후송만 했더라면 구할수 있었을 것이다, 함으로 아까운 분이었다

#### ◇제25연대장 金炳徽 중령

(1977. 4. 16 嶺南化學 總務理事室에서,  
예, 少將)

6월 28일 해가 뜬 무렵에 彌阿里전선이 무너지자, 나는 紫霞門쪽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三角山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날 밤을 지내고, 29일에 廣나루에서 간신히 渡河하여 水原으로 갔는데, 水原에 가니 어느 國民學校에 연대병력 800여명이 먼저 와서 집결되어 있었다. 내가 죽었다고 戰死報告까지 했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모두들 반가와 어쩔 줄 몰랐다.

육군본부가 農業학교에 있다고 해서 申을 하러 갔더니,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이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거기서 나오다가 李應俊 소장을 만났는데 水原 지구 전투사령관이라는 것을 말았다고 하면서, 다짜고짜로 나로 하여금 그의 掌握下에 들도록 하였다. 그래서 보급문제로 軍需局에 갔더니 水原사령부는 해체되었다는 것이었다. 李應俊 소장이 자기도 모르는 解體가 어디에 있느냐고 怒發하여, 둘이 같이 作戰局에 갔더니 金白一 대령이 『水原사령부는 總長의 명령에 따라 해체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李소장은 『아무것도 없이 책임만 맡았 드렸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後 육군본부에서 車輛 40여대와 건방 그리고 탄약 몇케짝을 내주면서 부대를 끌고 廣나루로 나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廣나루로 가다가 中間에서 사관학교생 도대와 만나 같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敵을 만나, 사관생도대가 먼저 철수를 해서, 그 고지를 逆襲으로 다시 땀는데, 바로 우리 앞에 敵砲 5문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그래서 대대장들이 敵砲를 파괴하기로 하고 병력을 뽑아 보내는 중에, 우리가 있는 곳에 敵의 기관총사격이 집중되더니, 어느새 나타났는지 敵兵이 다발총을 휘둘렀다. 그래서 대대장들과 통신병이 쓰러지고, 나도 다발총 2발을 다리에 맞았다.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가 보니 우리 뒤에 姜泰徽 중령의 제22연대가 배치되어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철수를 한다고 야단을 쳤다. 거기서 헌병의 접차를 얻어타고 水原으로 가서 列車便으로 溫陽으로 갔다.

#### ◇제13연대 S-3 崔大明 소령

(1977. 8. 26 現代建設 專務室에서,  
예, 少將)

7월 1일인가 아침에 水原 東北쪽의 蒼龍門 부근에서 부대를 整備중이었는데, 정발한 bus에 移動지휘소를 설치하여 바로 그 門안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移動지휘소가 美공군기의 空襲을 받았다. 車 안에는 나와 연대장과 副연대장 등이 있었는데, 나는 車 前面의 유리를 뚫고 탈출했으나 다른 사람은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火傷을 입게 되었다. 특히 副연대장 金振權 중령은 重傷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그날 밤에 死亡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대는 先任 대대장인 金振輝 소령이 지휘하게 되었는데, 얼마있다가 연대가 豐德川지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출동 도중에 또 그러한 空襲을 받을것 같아서 對空標識방법을 모색한 결과 쉼 광복을匹로 구해서 그것을 차량에 매달아 끌고 道路를 따라 먼저 가도록 하고, 병력은 그 뒤를 따르게 했는데, 美軍機가 低空비행을 하더라도 당황하여 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것이 突勿하여 도중에 美공군기를 만났으나, 우

뒤에게 空襲은 加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피난해오던 長湍郡守를 만났더니 그 美군들이 豐德川 北쪽에서 敵이 南進하는 것을 포착하여 砲臺한 공격을 加했다고 전해주었다.

우리가 對空砲臺을 앞세우고 步武堂堂히 전진하자 前方에서 철수해오던 李俊植 准장이 『우리 國軍에도 저런 부대가 있는나?』고 감탄을 했다. 豐德川에 이르러 鑿窟 과고 敵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敵을 공격해서 많은 戰果를 올렸으나 끝내 力不足이어서 浮橋로 철수하였다.

## § 戰 訓

### (1) 混成兵力의 運用

識政府정면과 이 漢江線에서 指摘되어야 할 用兵上의 문제점의 하나가 混成兵力의 運用이라고 본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不可避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대의 建制와 兵科를 무시한 烏合의 混成병력으로서의 所期의 戰鬥力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漢江線전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니, 이는 대부분 混成병력으로 臨編한 제7사단과 1개연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비교적 建制를 유지하였던 수도사단의 戰況을 비교하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例가 바로 수도사단 隄下의 제8연대가 마지막까지 永登浦전선을 堅守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비록 數交는 적었으나 上下가 一體感 속에서 단결된 戰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決戰의 勝敗란 병력의 多寡로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各個兵士의 決戰意志를 그 지휘관이 如何히 昇華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2) 混戰兵力의 指揮責任

6월 30일 本文중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水原農業시험장의 ADCOM이 望風敗走한 것은 여타가 지 面에서 당시의 戰局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原因을 살펴보면, 첫째 美偵察機가 敵荷를 誤報함으로써 美軍에게 不安感을 조성케 하였으며, 둘째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鐵道 신호를 보고 敵의 침공으로 連斷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는 바

첫번째의 誤報문제는 精確한 敵情을 알수 없는 戰場에서 있을 수 있는 恒例이라 하겠으나, 두 번째의 鐵道 신호 문제는, 당연히 偵察兵을 보내어 事態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모두 이들 部署들을 (前方지휘소, 顧問團, 大使館, 對空砲臺等) 統轄할 責任者가 없었다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同 지휘소장 Church 准장이 烏山의 通信所를 떠날때에 不在中 그를 代理할 責任者를 指命, 이의 統制책임을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戰況이 急變할수록 各 部署에 대한 指揮 및 統制는 더욱 明確히 해야 할 것이다.

## § 研 究

### (1) 敵의 渡河裝備 사용에 대하여

당시 北傀軍은 漢江渡河에 있어서 나룻배나 뗏목을 主로 이용하였으며, 浮橋나 門橋등 다른 渡河장비를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一說에 의하면 北傀가 南役前에 U. S. S. R로부터 臨津江, 漢江, 錦江, 洛東江의 四大江 도하에 사용할 四組分의 渡河資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1조분 밖에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漢江에서는 그 도하資材를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

그 理由는 制空權이 美공군의 手中에 넘어가게 되었기도 하거니와 漢江 鐵橋의 復舊如何에 따라 사용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敵의 병력은 漕渡수단을 이용하여 도하하고, T-34 戰車는 漢江철교를 건넌듯 한데, 뗏목으로 汝矣島나 말죽거리 正面으로 戰車가 도하하였다는 證言이 없지도 않으나, 이는 SU-76차주포이거나 장갑차 등이 아닌가 推斷된다. 戰車가 건넌다면 그것으로 我軍의 방어전에 卽刻影響을 미쳤어야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7월 3일 새벽에 철교를 건넌 4대의 T-34 戰車에 의하여 勝負가 決定되고 만 것이니, 이것은 7월 3일 以前까지는 戰車가 渡河하

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京仁 上行線 철교(中間單線)를 통하여 戰車가 건넜다고 알려졌으나, 同年 7월 16일에 美軍동군 G-2에서 항공촬영한 寫眞(P. 712참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京釜複線만이 이용 가능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의 敵으로서의 많은 병력의 同時渡河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我軍이 6일이라는 時日을 支撐한 것은 我方의 強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脆弱點을 안고 있어서 果敢한 도하공격을 하지 못한 敵方의 弱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 (2) 敵 제3사단의 進攻方向에 대하여

이 漢江 방어선의 戰況 그 자체가 錯雜하였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그 典據로 삼을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시의 參戰者의 證言을 토대로 本節을 再構成하였음을 밝혀두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擡頭된 것이 漢江線의 突破以後에 있었던 敵의 南進方向이다.

즉, 지금까지는 「敵 제105戰車사단이 京釜國道上에서 先頭가 되고, 제4사단이 그 뒤를 따랐으며 제3사단은 西水原에서 渡河하여 果川—安養으로 分進合擊하는 同時에 제2사단이 廣나루에서 강을 건너 豐德川으로 南下함으로써 7월 4일에 水原을 佔領하였다」는 것이 거의 通說化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敵 제3사단의 進攻방향에 대하여 板橋거리—板橋—豐德川—水原으로 더 깊이 迂回한 것으로 판단하고 戰況의 推理에도 이 판단을 기초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敵 제2사단의 廣나루 渡河를 首肯할 수 없다는 것이다. 同 사단이 廣나루에서 渡河하였다는 것은 제2군단 산하인 그들이 제1군단 지역인 서울에 進入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당초 그들의 南進계획에는 제1, 제2 兩軍단이 水原 以北에서 我軍을 打撃키로 되었으나, 제2군단이 그 初動에 香川에서 抑留되어 時日을 遲延케 됨으로써 그 계획에 차질을 보게된 것은 周知의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차질을 본 뒤에 同 軍단의 제2사단이 서울로 轉進하였

으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同 사단은 兩水里—龍江쪽으로 南下하였다는 說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廣나루는 地理的으로 敵의 渡河地點으로서는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이 나루터는 渡河施設이 사단병력을 收容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 渡河에 앞서 마당이 先行되어야 할 火力支援이 곤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廣나루에서는 어느 사단도 渡河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실제로 여기서의 敵 渡河를 확인할 수 있는 證言을 얻지 못하였다.

셋째, 敵 제3사단이 果川 평지에서 安養으로 挾擊하는 實證 또한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敵이 果川—安養으로 공격을 하였다면 軍浦場부근의 我軍 제2사단은 果川쪽으로 부터 敵의 침공을 받아 撤退되었어야 할 것이나, 戰況의 경과를 보면 同 사단은 安養쪽에서의 壓力에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以上の 이유로, 지금까지의 通說을 뒤엎는 결과가 되기는 하나, 敵 제3사단의 侵攻路를 漢南洞—말죽거리—始興里—板橋로 東南進한 것으로 보는바, 敵 제4, 제3 兩사단의 機動幅으로 미루어, 이것이 職理上으로도 理所當然하리라고 思料된다.

다만 7월 1일에 板橋부근에 이른 그들이 언제 하여 7월 4일에야 豐德川에 進出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合當한 이유를 규명치 못하였으므로, 이 點은 더 研究되어야 할 課題라고 본다.

### (3) 제8연대 제1대대장의 人的事項에 대하여

本文中의 제8연대 제3대대장 李哲源소령은 記錄이나 證言에 차이나는 點이 있음을 밝혀둔다.

즉, 그의 個人記錄에 의하면 1950. 4. 11부로 제9연대 제3대대장에 補任되었다고 확인되었을 뿐 그 以後의 記錄은 알수 없는데, 또 陸本의 戰死者名單에 보면 그는 제8연대의 소속으로 1950. 7. 2에 戰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附錄戰歿者 名單 참조)

따라서, 제7사단의 38°線 初戰을 다룬 제3장 제4절의 「抱川—東豆川—議政府부근 戰鬪」에서는 그를 제7사단 제9연대의 제3대대장이라고 하였으며, 이 漢江線에서는 그를 제8연대 제3대대장으로 하였다.

## 第 6 章

# 海·空軍 및 海兵隊와 國立警察의 活動

### 要 旨

1. 海軍의 初期作戰
2. 空軍의 初期作戰
3. 海兵隊의 狀況
4. 國立警察의 活動





## 第 6 章 海・空軍 및 海兵隊와 國立警察의 活動

### 要 旨

本章에는 6月 25日부터 7月 4日까지의 海軍과 空軍 그리고 海兵隊 및 國立警察의 戰況을 수록하였다.

제반 무장이나 兵力이 敵보다 劣勢에 놓여 있던 海・空軍 역시 악전고투를 하면서 陸軍本部和 함께 水原一大田線으로 移動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一線의 戰鬥部隊에서는 全力을 다하여 빛나는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海兵隊는 主力部隊가 晋州와 濟州道の 共匪擊滅作戰에 投入된 관계로 직접 一線에 參戰하지 못하고 出戰態勢을 위한 제반 준비단계에 돌입하였으며 國立警察은 戰爭이 勃發하자 서울에 있는 非常警備司令部에서 全國의 各警察局에 戰鬥態勢동員을 命令하고 一線에 配置한 各警察署는 인근 陸軍本部和 合同作戰을 수행하면서 水原一大田으로 移動하였다.

이상과 같은 戰況속에서 海・空軍의 活動相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海軍상황을 보면, 海軍本부가 移動하는 기간 중 東・西 兩海上에서는 海路를 따라 南下하는 敵의 輸送船을 격퇴하고 격침시키는 戰果를 올렸는데, YMS 509艇이 25日 04.00에 東海岸의 玉溪와 三陟 등지에 上陸을 시도하는 敵의 輸送船團을 격퇴하였으며 당시 海軍의 유일한 戰鬥艇이었던 PC 701艇은 大韓海峽近海에서 600名の 上陸軍을 싣고 南下하는 敵의 大艦輸送船을 격침시켰다.

이는 南海岸에 上陸後透하려는 敵의 guerrilla 部隊를 海上에서 격멸하여 我軍作戰에 크게 기여하였다.

西海岸에서는 LST 801艇이 龜津만도에 있던 陸軍 제17연대를 仁川까지 輸送지원하였고 7月

3日에는 YMS 502艇이 江華水路에서 40ton급 敵輸送船 2隻을 격침시키는 한편 仁川上陸을 기도하고 江華島 南端에 集結한 敵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한편 空軍은 25日 戰線일대를 空中偵察한 後에 26日부터는 偵察機에 폭탄을 격제하고 抱川一東豆川一汝山一議政府 등으로 출격하여 敵의 行軍대열 및 車輛行列에 폭격을 가하였다.

敵艦는 25日 당일부터 金浦와 汝矣島 基地에 기총사격을 가하였는데 我空軍의 飛行隊에서는 미약한 偵察機로 실사 없이 作戰을 수행하다가 7月 2日에는 李根植 대령을 비롯한 10名이 日本에서 F-51 전투기 10기를 조종하여 大邱基地에 도착하였다.

이로부터 F-51 전투기는 敵陣에 출격하여 安養一서울에 이르는 敵의 行軍 및 車輛・戰車行列에 사격을 가하여 我軍의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기간 중 海兵隊는 智異山戰鬥司令部와 함께 晋州地區의 共匪격멸작전 및 濟州地區의 共匪도멸작전을 수행하면서 新兵모집과 訓練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濟州道에서는 7月 중순부터 新兵 3,000名을 모집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하고 이를 訓練시켰으며 9月 6日에는 濟州道內에 있는 全兵力을 釜山으로 移動시켜 歷史의인 仁川上陸作戰에 참가하였는데 本章에서는 主로 海兵隊의 創設過程 및 共匪격멸작전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었다.

국립경찰은 戰地의 各軍과 合同作戰을 펴는 한편 戰時下의 治安확립과 對遊擊作戰의 인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1. 海軍의 初期作戰 (1950년 6월 25일부터 " 7월 4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7 호  
상 황 도 제 29, 30호

### 가. 概 要

#### (1) 敵의 狀況

韓半島가 해방되자 北傀는 北韓의 全域에 걸쳐서 保安隊와 治安隊를 설치하는 한편 海上防衛를 위한 水上保安隊를 조직하였다.

그 뒤에 중앙집권체제가 수립되어 1947년 8월에는 東·西 兩海의 水上保安隊가 內務省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고, 水上保安幹部學校가 創設되어 元山の 北港無煙炭株式會社의 시설을 利用하여, 이른바 北傀海軍의 幹部들을 養成하였던 것이다.

이 水上保安學校는 1948년에 咸北의 淸津으로 옮겨졌고 명칭도 海軍軍官學校로 개칭되면서 民族保衛省관할로 이관되었는데 이때가 1948년 2월 8일, 北傀政權이 人民軍의 創設을 선포한 직후이며 이것이 北傀海軍의 母體가 된 것이다.

이들은 1949년 8월 海軍軍官學校의 實習이 채 끝나기도 前에 航海科와 機關科를 合한 200名 内外의 卒業生을 基幹將校로 하여 淸津에서 發足하였다.

海軍의 母體를 形成한 그들은 地理上의 與件으로 中央基地를 淸津에서 元山으로 移轉하고 艦隊編成을 강화하여 淸津과 元山 그리고 鎮南浦에 各各 第1, 第2, 第3 衛戍司令部를 두고, 各司令部에 艦艇을 配置하였는데, 元山の 第2 衛戍司令部에 第1 第2 第3 第4 艦隊를 두고 各基地中에서 요충지대에는 各派遣隊와 哨所를 두어 海上防衛를 하였다.

當時의 그들의 편제를 보면 海軍副相 겸 海軍總司令官 밑에 參謀長이 있고 그 아래에 水路作戰部等 15개 부서가 있었으며 前述한 3개 基地가 豫속되어 있었다.

淸津과 楡津의 海軍軍官學校 및 海軍技術學校도 이에 속하여 設置되었다.

그들은 또한 海軍力을 증강하기 위하여 U. S. S. R로부터 大小艦艇을 구입하고 1949년 1월에는 鎮南浦의 造船工場에서 800ton급의 艦艇 2隻을 建造할 계획과 함께 元山에서도 造船에 全力을 기울였다.

戰爭 爆發當時 北僞는 海軍艦艇 30隻, 補助船隻 80여隻을 保有하고 그 兵力이 10,000名이라고 하나 事實상 正規海軍은 그 半數에도 미달하였으며 기타는 모두 開戰직전에 養成한 陸戰隊員들이다.

즉, 元山에 주둔하던 제599部隊의 兵力은 10,000名이었으며, 그 이하의 陸戰隊인 제945部隊과 제249部隊의 兵力이 6,000名이나 되었던 것이다.

敵의 艦艇은 南浦號와 같은 1,780ton급의 大型輸送船도 있었으나 大部分 250ton급의 小型船 10여척이 있었을 뿐이고 第53號나 第23號와 같은 45ton 내지 35ton의 小型에 불과하였으며 보조선은 大部分이 어업에 종사하던 發動船과 木船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들은 軍海建設에 관심은 두었으나 大海戰이나 地上軍과의 合同作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地上軍의 南段에 호응하여 후방地域에 기습상륙을 지원하는데에 主된 目的을 두었던 것이다.

그뒤 이들은 平壤에 海軍本부를 두고 第546部隊를 배치하고, 淸津에는 第597部隊, 元山에는 第599部隊 및 軍官學校, 羅津에는 第766部隊, 鎮南浦基地에 第549部隊등이 배치되었으며 各 요충지대에는 小數의 兵力을 分散하여 海岸警備를 담당하였다.

## (2) 我軍의 狀況

國軍의 創設過程을 살펴 볼 때 海軍은 三軍中에서 제일 먼저 創設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10월 당시 中國의 上海에 있는 南京大學에서 航海學을 전공하고 귀국한 孫元一을 비롯한 鄭統謨, 金永哲, 韓甲洙, 石銀泰등은 이 나라 海洋을 지키는 海軍을 創設해보겠다는 의욕아래 美軍政廳 당국에 그 뜻을 전하고 동지규합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孫元一과 鄭統謨는 해방이 되자 「海岸警備隊員募集」이라는 벽보를 通하여 海洋에 뜻이 있는 靑年들을 募集하여 安國洞 예비당에 자리를 잡았다.

1945년 11월 11일 國軍最初의 精銳組織을 갖춘 海軍隊를 創設하고 이 募集에 응한 지원자들은 200여명이 되었으나 그 중에서 80여명만을 엄선하여 日帝때의 靑島조합원 養成소였던 安國洞의 韓食집에 수용하여 敎育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의 敎育期間은 70일로 定하고 모든 경비는 一切 간부들이 부담하였는데 80여명 此丁들의 衣·食·住를 해결하는데는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다.

海軍隊가 발족되어 專門敎育을 실시한지 불과 1個月만에 財政의 궁핍으로 자체해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美軍政廳 당국에 海軍創設에 對한 제한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軍政廳에서는 아직 行政組織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좀처럼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同廳의 運輸部長 Calsten 소령과의 수차례 結된 協의끝에 沿岸警備와 密輸방지 그리고 난파선구조등을 任務로 하는 警備隊를 組織하는 것에 合議를 보게 되었다.

그해 11월 11일 孫元一은 同志 70여명을 모아놓고 감격적인 結團式을 舉行하게 되었으

며 海軍에서 정식으로 海防兵團으로 발족했으나, 이날이 바로 海軍 創設日이다.

그때까지 海軍은 서울의 한식집 지붕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것을 일약 軍港인 鎮海로 그 本部를 옮기게 되었으며 海軍에서 敎育받은 70여명의 隊員과 幹部 6명이 곧 海軍 創設의 基幹要員이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海防兵團의 幹部들은 장교 계급장을 달게 되었는데 孫元一은 參領(少領) 그밖의 幹部들은 副尉(中尉) 또는 參尉(少尉)로 任官되었으며 그 외에도 日帝時代 때 日本海軍에서 경험이 있었던 23명에게도 장교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뒤 1946년 1월 海防兵團은 統衛部에 편입됨과 동시에 1946년 6월 15일 海岸警備隊로 발족하였다.

海岸警備隊가 발족함에 따라 1946년 9월 1일에는 美顧問團이 設置되고 艦艇이 계속 구입되는 등 그 機構는 大幅的으로 개편되고 擴張되었다.

또한 海岸警備隊는 全國 要港에 海岸경비대 基地를 增設하게 되었으니 1946년 4월 15일에 仁川基地, 1946년 8월 18일에는 木浦基地, 8월 22일에는 墨湖基地, 1946년 9월 24일에는 釜山基地, 그리고 1947년 1월 6일에는 群山基地와 同月 8일에 浦項基地를 設置하였다.

또한 계속 艦艇이 增加되고 海岸경비대要員의 技術과 質的인 向上을 보게 되었으며 1947년 8월 15일 解放 2週年記念 行事時에는 仁川近海에서 처음으로 艦艇 編隊訓練이 實施되었다.

그뒤 海岸警備隊는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동시에 海軍으로 發足하게 되었으며 1948년 10월 20일에는 麗水와 順天에서 叛亂事件이 勃發하자 臨時戰鬥艦隊를 편성하여 麗水近海에서 輸送作戰 및 艦砲사격을 加하여 많은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北傀南侵 직전까지 주로 연안警備와 輸送支援任務를 遂行하였다.

6월 25일, 開戰當時 海軍은 平時보다 긴장된 態勢에 임하고 있었다.

즉, 5월 초순경에 東西海上防衛를 담당하고 있었던 第1, 第2 艦隊에 艦艇을 증가배치하고 海上防衛隊 組織을 再編強化하여 墨湖와 浦項警備府를 中心으로 注文津·三陟等地에 海上監視哨所를 設置하고 銳意 海上監視에 注力하고 있었다.

北傀의 南侵直前に 我艦艇의 警備狀況을 보면 東海岸에 있어서는 YMS 509艇이 墨湖近海에서 警備中이고 JMS 304艇은 九龍浦 近海에서 釜山에 귀항도중에 있었으며 YMS 516·508艇은 第1艦隊司令官 指揮下에 釜山에서 東海의 38°線 경비차 出動準備中에 있었고 JMS 305艇은 浦項을 출항하여 38°線 近海로 警備航海中이었다.

그리고 西海岸에서는 JMS 302艇과 307艇이 西海 38°線 近海의 白翎島를 中心으로 警備中에 있었으며, 南海岸에서는 YMS 504艇이 麗水近海를 警備中이었고 JMS 306艇이 珍島近海에서 修理次 鎮海로 航海中에 있었다.

이와 같은 警備狀況 속에서 6월 25일 새벽 敵南侵의 急報에 接한 海軍本部는 즉시 다음과 같은 非常措置를 取하였다.

6월 25일 09.00 海軍本部 作戰命令 甲 第18號로써 隸下部隊에 非常警戒突入과 戰鬥準備에 임할 것을 命令하였다.

- 『① 第2艇隊司令官은 隸下 全艦艇을 指揮하여 東海警備를 強化하며 上陸을 企圖하는 敵艦艇을 發見하는 즉시 격침하라.  
 ② 第1艇隊司令官은 隸下 全艦艇을 指揮하여 西海岸警備를 強化하라.  
 ③ 各 警備府司令官은 擔當海上을 封鎖하고 民間船舶의 출입을 금지하며 敵船 또는 敵性으로 認定되는 船舶은 격침 또는 拿捕하라.』

이상의 非常措置 作戰命令에 따라, 東海岸에서는 第2艇隊司令官 金忠男 中령이 指揮하는 YMS 506艇, 509艇, 516艇과 JMS 304艇, 305艇, 308艇등은 主로 東海 38°線 近海의 海上封鎖와 搜索에 임하고 西海岸地區에서는 第1艇隊司令官 柳海巨 中령이 指揮하는 JMS 313 YMS 502艇이 江華島 下流를 경비중에 있었으며 JMS 302, 307艇은 LST 801艦과 함께 漕津地區 및 延坪島에 出動하여 陸軍 제17연대의 作戰에 加担하였다.

또한 南海岸에서는 第3艇隊司令官 鄭兢謨 中령이 指揮하는 YMS 505, JMS 301艇이 木浦近海의 警備에 任하고 309, 514艇은 麗水近海를 警備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6월 30일에 이르러서는 海軍本부의 指示에 따라 37°線 以北의 海域은 UN艦隊가 擔當하고 我海軍은 37°線 以南의 海域을 警備하게 되었다.

## 나. 東海 海上作戰

### (1) 大韓海峽 戰鬥

####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통제부 사령관	대령	金	省	三
제2艇隊 사령관	중령	金	忠	男
墨湖警備府 사령관	중령	金	斗	燦
PC 701艇 장	중령	崔	龍	男
YMS 512艇 장	소령	梁	海	卿
YMS 518艇 장	소령	朴	昌	濟
YMS 509艇 장	소령	金	相	道

#### (나) 전투전의 개황

北傀海軍의 狀況 : 1950년 6월 25일 04.00를 기하여 敵地上軍은 대거南段을 開始하였으며 때를 같이 하여 東海岸에서도 海路를 따라 下溪—三陟—臨院里等地를 目標로 하여 그들의 船團이 南段을 하였다

이들은 甲山·會寧에서 養成된 北傀 第766部隊로 正規軍이 아닌 特殊訓練을 받은 guerilla 집단으로서 城津과 興南에서 出發하였다.

이들은 東海岸을 따라 南下하는 北傀 第5師團의 南進速度를 促進키 위하여 行動한 부대로써 當時에 江陵의 陸軍 第8師團의 背後를 교란하고 三陟에 주둔하고 있는 同師團 第21연대의 江陵支援을 차단하기 위하여 東海岸에 上陸을 試圖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1,000ton급의 武裝輸送船 1隻과 PT Boat 4隻의 호위아래 發動船 30隻으로 구성된 상륙선단을 이끌고 25일 03.30에 이미 玉溪 方面에 상륙하였던 것이다.

北傀地上軍의 南侵 開始時間이 이날 04.00였음을 볼 때 北傀海軍의 上陸船團의 出發時間은 늦어도 24일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北傀의 南侵先攻說의 주장이 거짓선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我海軍의 狀況: 前述한대로 我海軍은 釜山의 第2艇隊(司令官, 金忠男 중령)가 掃海艇 6隻을 保有하고 東海岸警備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하여도 38°線을 中心으로 한 간접적인 도발행위는 빈번하였으나 全面的인 侵攻은 예상외의 일이었으며 특히 海上은 별다른 징후가 없었으므로 第2艇隊는 1隻의 경비정으로 하여금 墨湖와 汶文津間을 警備하도록 하였으며 墨湖警備府는 江陵으로부터 墨湖에 이르는 各海岸에 海上감시소를 設置하고 萬一의 사태에 對備하고 있었다.

6월 24일에는 墨湖海上에서 警備중이던 JMS 304艇(장, 閔實植 소령)이 YMS-509艇(장, 金相道 소령)에게 警備任務를 인계하고 釜山의 第2艇隊사령부로부터 귀항중에 있었으며 YMS-509艇은 이날 警備出動기간중에 필요로 하는 副食品격제차 墨湖港에 碇泊中에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YMS 509艇의 玉溪戰鬪

24일 JMS 304艇과 東海岸 警備任務를 交代한 YMS 509艇은 副食品을 積재하려고 墨湖港에 碇泊하고 있던중 東海岸을 따라 南侵한 北傀의 第766 guerilla 부대는 攻擊目標을 玉溪동지의 海岸으로 定하고 25일 04.00에 이미 海岸上陸을 開始하고 있었다. 墨湖警備府(司令官, 金斗燦 중령)의 玉溪海岸哨所로부터 敵軍의 上陸을 報告받은 司令官은 즉시 海軍本部로 打電하는 동시에 YMS 509艇의 現地出動을 命命하였다.

그 당시 38°線 近海의 警備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港口에 碇泊 대기하고 있다가 特別한 狀況이 있으면 出動을 하는 시기였으며 YMS 509艇도 墨湖港에 碇泊中이고 6월 24일은 토요일인데다 모두 陸上에 外出하였다가 돌아왔으며 이튿날은 일요일이므로 승조원 모두가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

25일 05.00 YMS 509艇은 海軍本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긴급電文을 받았다.

『긴급출동지시

- ① 북괴수송선단 남침
- ② 玉溪해안에 敵軍상륙중
- ③ YMS 509艇은 긴급출동하여 격침하라.』

通信士가 上記電文을 艇長에게 보고한 時間은 05.10이었고, 509艇은 즉각 출동준비를 서둘러 06.00에 墨湖를 출항하여 北上하였다.

當時의 海上상태는 안개가 끼어 視程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세찬 海風은 없었으나 船體는 左右로 40°씩이나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2시간의 航進끝에 509艇은 안개속에서 배 한척을 發見하였는데 배의 型體로 보아 我軍의 警備艇이 아닌가 의아심을 품고 發光信號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敵船은 我海軍의 소해정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YMS 509艇보다 더 빨리 現地에 도착한 我海軍警備艇으로 착각하고 發光信號를 계속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509艇에서는 전투 배치를 하고 심한 파도를 가르며 相對船으로 접근해갔다. 509艇이 계속 發光信號를 하면서 1浬정도 접근해가자 相對船으로부터 번쩍하는 閃光이 있었는데 艇長은 發光信號로 응답이라도 하는 줄 알았으나 그것은 我艦을 目標로 포격을 가한 것이었다.

同時에 509艇에서도 『敵艦이다!』는 함성과 함께 모두들 艇長의 포격명령에 따라 37mm 砲와 重機로 사격을 가하기 始作하니 조용한 아침바다에는 치열한 포성이 울려 퍼졌다.

포격을 계속하면서 敵船을 관찰한 결과 船體는 모두다 鐵船이고 甲板에는 40mm 2연장 기관포가 있었으며 speed도 我艦보다 빠른 편이었다.

509艇의 砲要員들은 처음 맞이하는 實戰이었으나 흥분과 망실임을 망각한 채 37mm 砲로 정확한 命中彈을 集中시켰다.

敵船의 mast에는 붉은 북괴기가 휘날리고 있었으며 509艇은 砲의 조준장치가 미비한 점을 만회시키려고 500 YDS까지 접근하면서 사격을 계속하였다.

敵船과의 근거리에서 509艇은 船首에 1發이 命中되었지만 木船이 되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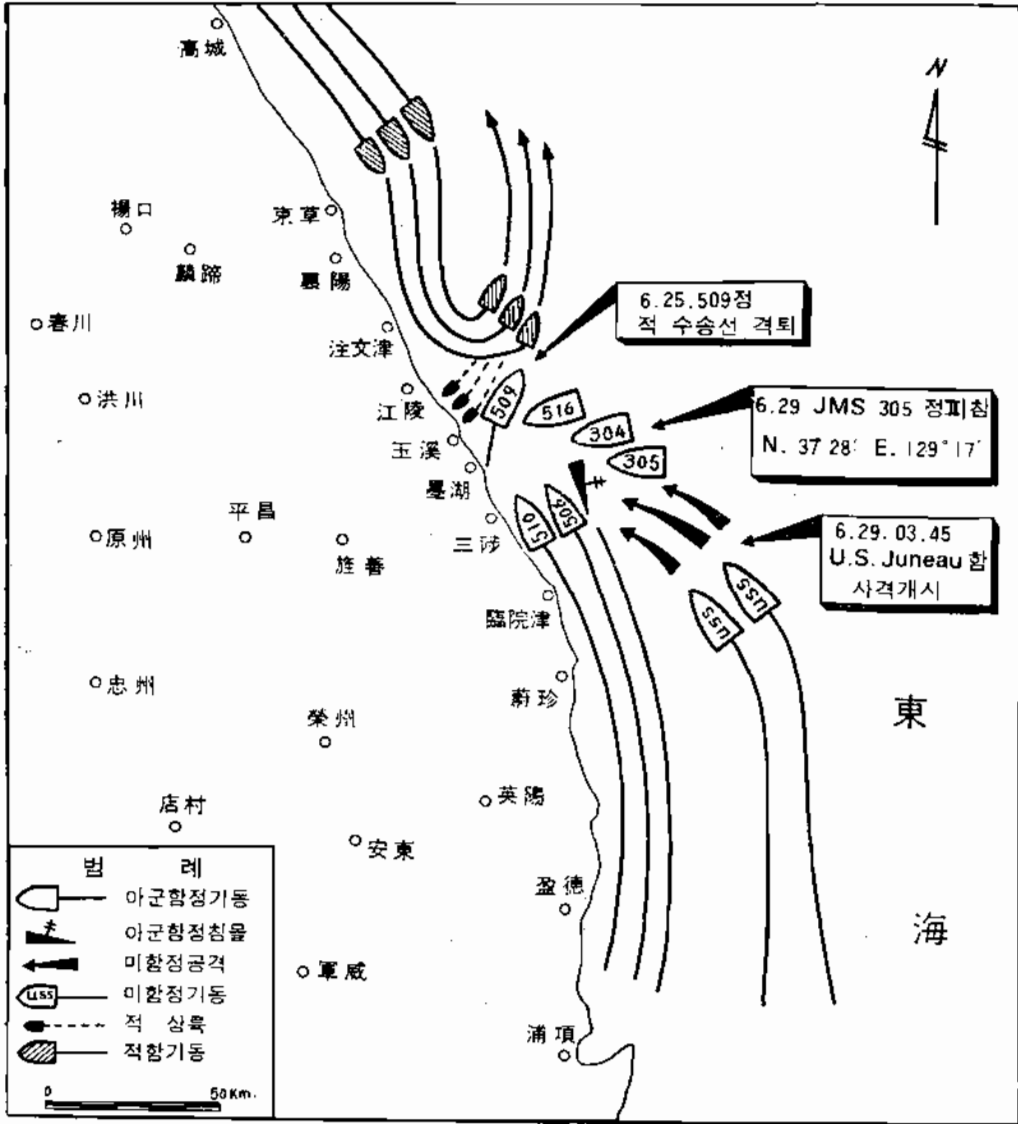
砲의 조준장치가 미비했던 同艇은 파도를 이용하여 船體가 올라갔다 내리오는 순간에 정조준하여 사격한 까닭으로 37mm 砲는 정확하게 敵의 鐵板에 命中되어 작열하고 있었다.

50分間 계속된 交戰으로 그들은 火力도 약해져지고 speed도 미약하여진 듯이 검은 煙氣를 뿜으면서 北으로 逃走하였다.

水平線 멀리 검은 煙氣를 내면서 사라지는 敵船을 뒤로한채 509艇은 피격된 船首 舷側 甲板의 水浸를 막기 위하여 墨湖로 돌아와서 긴급수리를 끝마치고 다시 交戰하였던 海域으로 出動하였으나 海岸線에 敵의 發動船만 3~4隻 있었고 北僞軍은 이미 上陸해버린 후였다. 509艇은 같은날 15.00에 玉溪北方 3浬 地點에 上陸中인 北僞軍을 發見하자 近거리까지 접근하여 포격을 가하니 敵은 이미 上陸하여 荷役作業을 하고 있던 것을 中止하고 산속으로 分散도주하였다가 15分後에 박격포 數門으로 509艇에 對抗하여 왔으나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같은날 17.30에 509艇은 海岸線에 있던 上陸艇 1隻을 완전격파하고 다른 發動船 1隻을 노획하여 墨湖港에 入港한 다음 墨湖警備府에 인계함과 同時에 北僞軍의 全面的인 南侵狀況을 알게 되었다.

◇ 上항도 제29호 509艇의 玉溪戰跡와 305艇의 침몰 (6. 25, 29)



2. PC 701艇의 海戰

6월 25일 당일 北傀의 大型 武裝 輸送船을 격침시킨 PC 701艇은 當時 海軍이 保有하던 唯一한 戰鬪艦이며 現代式 장비와 무장을 갖추고 있는 主力艦이었다.

當時에 강한 火力을 지니고 있는 戰鬪艦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을 때 海軍의 소 將兵과 國民들이 거출한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 바로 이 701艇이었다.

New York의 King's Point에서 구입한 PC 701艇은 戰爭勃發 두달전인 4월 10일 鎮海港에 入港한 다음, 國內의 主要港口를 순방하여 國民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鎮海港에 귀항한



것이 6월 24일이었다.

오랫동안 海上生活을 끝마치고 귀향한 701艦은 식량과 유류 그리고 副食과 필요한 군수품의 재보급을 받을 여유도 없이 隊員들 모두가 주말외출을 나갔다.

다음날 역시 일요일이었던만큼 외출하였는데 오전 10.00 碇泊中인 701艦에 돌연 統制府司令官 金省三 대령이 來艦하여 당직士官 金宗植 소위에게 다음과 같은 命令(海本作戰 命令 甲 第49號)을 下達하였다.

『701艦長은 統制府司令官으로부터 YMS 512艇과 518艇을 인수 指揮하여 즉시 東海岸에 出動하여 第2艇隊司令官의 협조아래 海上警備를 強化하는 同時에 敵艦을 포착하는대로 격침하라.』

以上の 作戰命令에 의거하여 司令官은 직접 701艦의 出動準備를 指揮하고, 12.00까지 모든 出動態勢를 완료하였다.

군의관 2名과 위생하사 2名도 승조하고 701艦長 崔龍男 중령이 統制府司令官에게 출항 준비 완료보고를 하자 司令官은 作戰에 對한 상세한 주의를 指示하고 艦長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윽고 701艦은 15.00에 YMS 512艇을 指揮하여 錢海를 出港하였다.

그리고 518艇은 補給物資 積載完了 즉시 出港할 것을 命하고 701艦은 우선 512艇과 單艇陣을 形成하여 東海로 航進하여 나갔다.

戰爭, 그것도 海戰에 對한 경험도 없이 訓練만 거듭하여 오던중 이제 實戰에 對備한 만반의 準備를 갖추고 18.30 釜山 앞 五六島 燈臺를 左舷正橫 2浬로 보면서 針路 45°로 北上하였다.

19.30에는 다시 變針하여 028°로 北上中 20.12에 701艦으로부터 方位 045°, 거리 약 7浬 되는 水平線上에서 黑煙을 發見하였다.

701艦은 즉시 變針하여 最大 Speed로 접근하였는데 뒤따라 오던 512艇에도 급속도로 北上할 것을 指示하였다.

그리고 701艦과 512艇보다 늦게 出港한 518艇은 7浬 후방에서 北上중에 있었다.

아득한 水平線上에 나타난 正不體明의 黑煙을 보는 순간 701艦의 隊員들은 육중한 배의 重量보다 더 무거운 긴장의 표정이 엿보이고 覺悟와 疑心이 뒤섞인 가운데 『Ahead Full!』 하는 艦長의 무겁고도 침착한 命令소리가 적막을 깨뜨렸다.

701艦의 信號士는 뒤따라오는 YMS에도 『본편에는 最大 speed를 유지하고 行動하라.』 는 發光信號를 보냈다.

水平線上의 黑煙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船體를 들어내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701艦에서는 艦內 bell소리도 요란하게 戰鬪配置命令을 傳達했다.

怪船은 국적의 表示도 없고 船名表示도 없이 針路 180°, speed 10 knots로 南下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正體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公海上을 航海하는 怪船을 보고 무거운 긴장은 秒를 다투며 심각해가기만 하였다.

21.30에 701艦은 비로소 敵船의 船體를 完全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위치는 N 35°15" E 129°31"이었으며 敵船을 方位 110° 거리 3浬를 두고 南下하면서 國際發光信號를 계속 하였다.

『J. F 너의 국기를 계양하라.』

『N. H. I. J. P. O 너의 국적을 제시하라.』

『I. J. G 언제 어디를 출항하였는가?』

『L. D. O 목적항구가 어디인가?』

30분간에 걸쳐 發光信號를 계속하였으나 하등의 응답이 없으므로 漸次 敵性으로 認定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이를 再確認코자 接近南下하면서 『K 정지하라.』 『O. L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發光信號를 수십차 보냈으나 亦是 何等の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敵船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701艦이 15 knots의 speed로 敵船에 100m까지 접근해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信號燈으로 조명을 해보니 국기와 船名도 없고 甲板後部에 重機關銃 2정과 水兵服을 착용한 正規海軍 및 陸戰隊 多數가 있었으므로 틀림없는 北傀의 船舶임을 확인하자, 즉시 怪船에서 이탈하여 海軍本部에 打電報告하고 待命하였다.

敵船 發見時의 海上상태는 흐린 안개가 끼었으며 視程은 2~3浬였고 戰鬪中에는 출군가랑비가 내렸기 때문에 敵船의 정확한 位置확인에 지장이 많았다.

이때 PC 701艦이 海軍本部에 打電한 報告內容은 다음과 같다.

『확인된 敵船은 北傀의 100ton급의 輸送艦艇이며 약 600名の 北傀軍을 편승시켜 南下하고 있음. 上陸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됨.』

海軍本部에서는 곧장 회신이 왔는데 敵船을 나포하라는 것이었다.

公海上에 있는 배를 나포하기에는 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領海內로 유도하는 術法으로 約 6浬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그 이상은 유도할 수가 없었으므로 재차 海軍本部에 打電報告하고 命숨을 기다렸다.

두번째 報告을 한지 3분후에 海軍本部에서 打電된 指示內容은 『敵船을 격침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추적을 일단 끝내고 空승조원은 活氣를 띄고 戰鬪에 임하였다.

26일 00.30 701艦은 N 34°56" E 129°30" 位置에서 敵船左舷 3浬의 거리를 두고 3" 主砲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砲術長 劉龍林 중위의 우렁찬 사격구령과 함께 主砲는 第1彈의 불을 토하였는데 砲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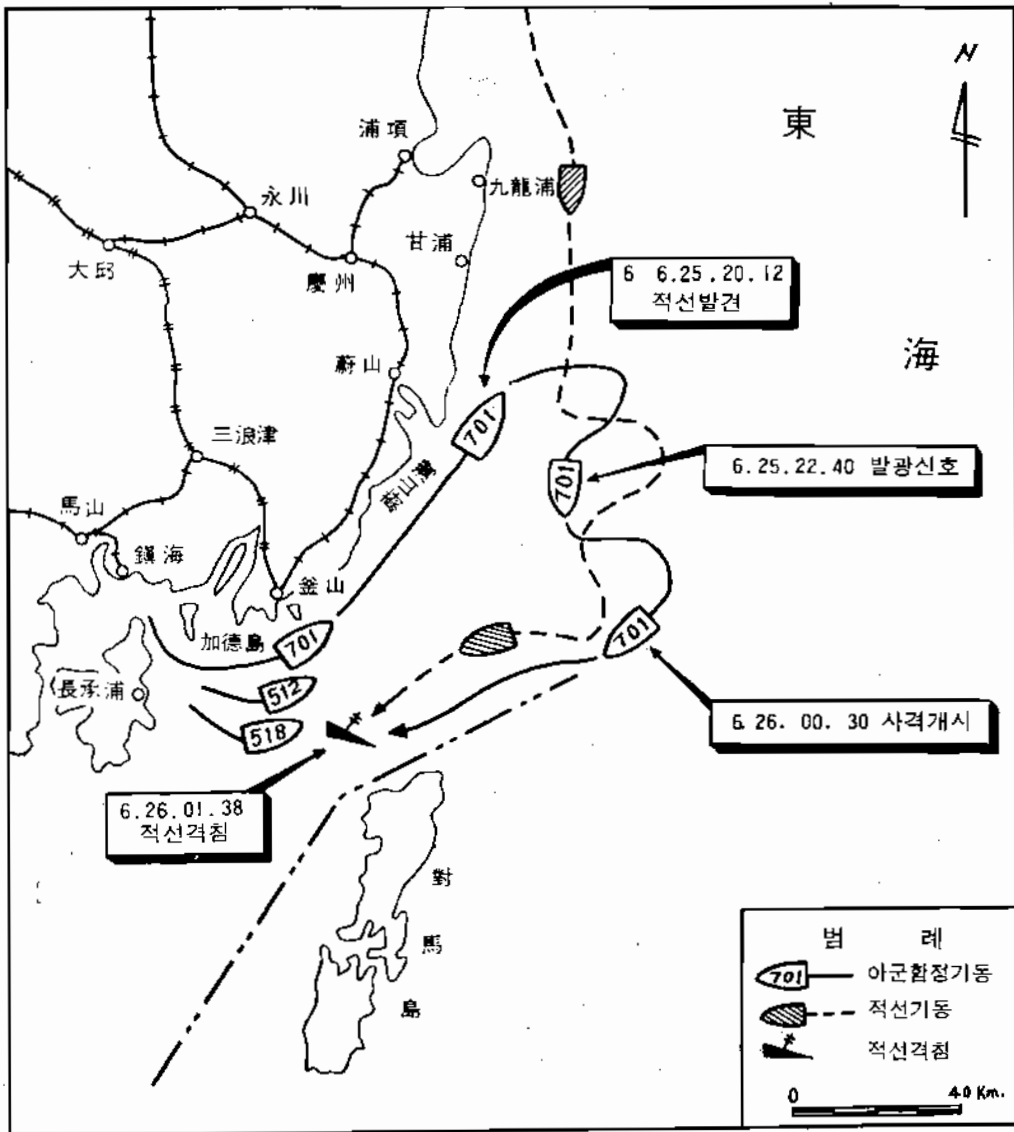
敵艦의 mast를 통과하여 敵艦의 左舷海上에 떨어져 물기둥이 치솟았다.

급작스러운 포격을 받자 敵艦은 급선회하기 시작했고 701艦은 1浬까지 접근하여 艦砲 사격을 계속하였다.

뒤따르던 YMS 518艇도 701艦의 左舷後尾 1浬 位置에서 37mm砲로 사격을 開始하자 敵艦은 57mm砲와 重輕機 등으로 對抗하여 彼我치열한 砲擊戰을 이루었다.

我軍의 3"主砲는 701艦을 美國에서 도입해 올때 Hawaii에서 特別히 장치했던 것이며 砲彈은 350發을 적재하고 있었다.

◇ 상황도 제30호 701艦의 大韓海峽 海戰 (6. 25~26)



3" 主砲는 최대사정거리가 14,600 YDS 즉 7.5mile이었는데 當時에는 砲彈이 비싸다는 이유로 出戰時까지 한번도 實彈사격을 해보지 못했으며 그 위력조차도 想像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訓練란 거듭하고 實彈사격을 해보지 못한 砲要員들은 처음으로 開始하는 艦砲사격에 熱을 올렸다.

砲要員들의 士氣에 넘치는 고탄소리와 함께 701艦은 1浬까지 접근하여 계속 艦砲사격을 가 하였다. 砲術長을 대신하여 艦長자신도 직접 主砲를 指揮하였는데, 잠시후 『命中이다!』 하는 喊聲과 함께 敵艦 Bridge에 1發이 命中되었다.

海上物體를 분간하기 힘든 야간에 命中彈을 얻어맞은 敵艦에서 작열하는 화염은 더욱 더 701艦의 士氣를 높여주었다. 敵艦은 빗발치는 砲火속에서 命中彈을 얻어맞고서도 계속 南下를 기도하였는데 701艦의 砲聲은 敵艦의 中央下部를 또 命中시켰다.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그때는 鐵甲彈, 煙幕彈, 對空彈의 區別도 없이 마구 砲擊을 가하였다.

敵船은 左舷난간이 海面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기관실의 Boiler 폭발하는 금속성소리가 砲擊속에서도 뚜렷이 들려왔다. 이윽고 수증기가 밤하늘에 피어오르고 敵船이 거의 다 격침되어가는 순간 구원이라도 청하려는지 發光信號를 보내고 있었으나 그것은 도리어 我艦에 유리한 條件을 부여해주고 있었다. 즉, 심야에 敵艦을 정확하게 조준사격하기가 어려울 때 發光信號로 自己의 位置를 정확히 노출시켜줌으로써 701艦은 정확한 사격을 가하여 敵船의 심장부에 최후의 1發을 命中시켰다.

敵船은 기울어져가고 浸水때문에 吃水는 낮아져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我艦의 3" 主砲가 고장이 나고 말았다.

35發을 마지막으로 PC 701艦의 3" 主砲는 능숙한 사격으로 敵船을 命中시킨 다음 격발 장치의 不能으로 사격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 敵艦에서는 701艦의 主砲故障을 알아차렸던지 잠시후에 최후의 발악으로 反擊을 試圖하였다.

이때의 거리는 不過 1,000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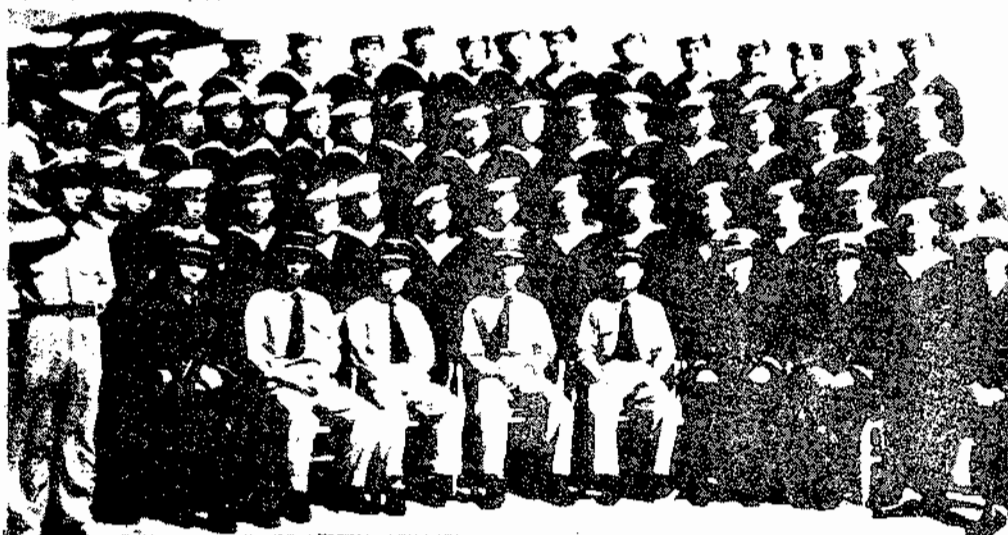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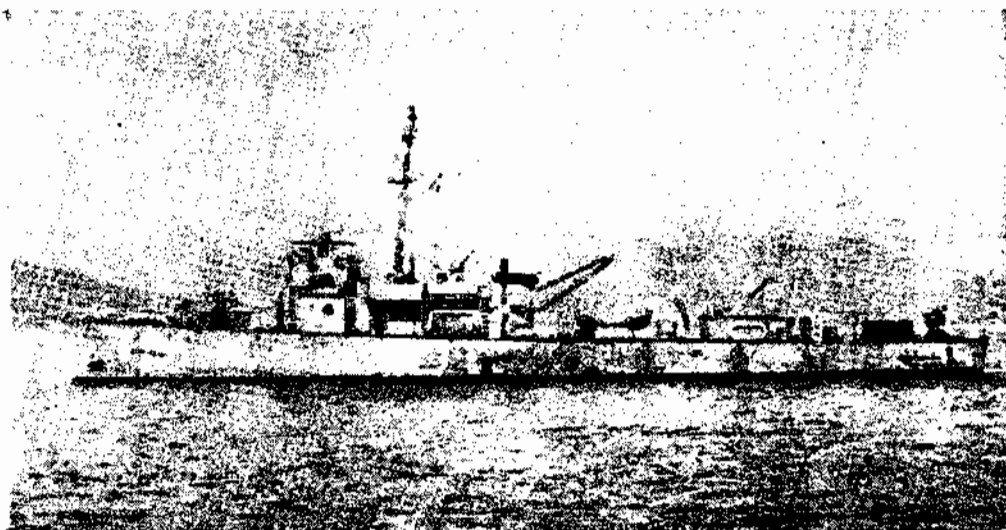
침몰되어가는 敵艦은 결사적인 발악으로 접근 하여왔는데 그 위력은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敵彈이 연이어 我艦의 船體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敵船의 後甲板에 장치되어 있는 砲가 我艦의 조타실 中央下部를 命中시켰다.

이때의 거리는 약 400m였는데 키를 잡고 있던 조타수 金昌學 三曹(병장)가 파편상을 입고도 끝까지 키를 잡고 있었다.

그러자 主砲電話手 金春培 三曹(병장) 역시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끝내 전 화기를 놓지 않았다.

金宗植 소위도 敵彈의 파편을 맞아 움직이지 못하였다.



<敵수송선을 격침시킨 PC 701艦(上)과 승조원들(下)>

조타실 바닥에는 붉은피가 깔려있었는데, 이윽고 艦長이 직접 내려와서 키를 잡게 되었다.

곧이어 조타실에는 군의관과 위생하사가 달려와서 부상자들을 食堂으로 옮겨갔다. 치열한 포격전이 끝나자 敵船은 밤하늘에 푸연 증기를 내뿜으며 침몰되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26일 01.25 敵船은 完全히 그 자취를 水中에 감추어 버렸다.

我艦의 조타실도 포격을 당하였으나 艦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최후의 발악을 하던 끝에 600여명의 兵力과 함께 물속에 잠겨버린 敵船은 처절하기만

하였다.

701艦은 戰鬪海域을 4時間에 걸쳐 搜索하였으나 아무런 物標도 發見하지 못하고 05.45경 浦項을 向해서 航進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YMS 509艇의 東海岸 三溪戰鬪와 PC 701艦의 對馬島近海 海戰에서 我海軍은 緒戰을 승리로 이끄는 데 主導的인 역할을 하였다.

그 뒤 YMS 509艇과 PC 701艦은 UN海軍艦隊와의 合同作戰에 참가하여 西海岸 봉쇄작전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

또한 敵海軍은 東海岸海戰에서 失敗한 다음 더이상 guerilla의 上陸을 실시하지 못한듯 하며 주로 西海岸에 散在되어 있는 島嶼地方에 침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西海岸침투도 우리쪽의 봉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이 두 海戰에서의 戰果 및 피해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509艇의 三溪戰鬪

##### 戰 果

- 敵수송선 격퇴(1척)
- 상륙정 1척 격파
- 상륙정 1척 노획

##### 損 失

509정 함수피격(즉시 보수완료)

#### 2) 大韓海峽戰鬪

##### 戰 果

- 敵 수송함(1,000t) 격침
- 상륙군 600명 익사

##### 損 失

敵 57mm 포탄 701함 조타실에 1발 명중  
전사 2명, 부상 2명

### §. 參戰者의 證言

#### ◇ PC 701艦長 崔龍男 證言

(1977. 2. 15 자택에서, 예 소장)

當時만해도 우리 海軍에는 YMS 등의 掃海艇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으므로 全將兵의 소원은 강한 火力을 갖춘 戰鬪艦을 保有하는 것이었다.

그대서 1년간 將兵들의 誠金을 작출하고 大統領 賞하의 下賜金과 社會各界의 誠金을 습하여 美國에서 인수하여 白頭山艦으로 命名하였다.

當時에 卞性模 國防部長官은 海軍에 부처 관심에 많았는데 特別히 나를 PC 701艦長으로 임명하도록 孫元一 海軍總參謀長에게 배려한 것이다.

孫元一 提督은 나를 부르더니 官장 艦長으로 취임시키고, 우리의 海軍力을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訓練 및 航海實習次 全國의 港口를 一覽하

라고 命命하므로 鎮海를 출항하여 仁川—群山—木浦—釜山—墨湖—浦項등지를 순방하였다.

航海를 끝마치고 鎮海로 돌아온 날이 6월 24일 이었다.

이튿날 07.00에 통제부사령관으로부터 갑자기 긴급출동명령을 받고서 12.00까지 재반출동준비를 하여 15.00경에 YMS 512艇과 518艇을 指揮하고 戰鬪海域을 向해 출항하였다.

701艦의 全隊員들은 거듭되는 맹훈련으로 잘 단련되어 있었다.

이윽고 우리가 敵艦을 發見하였을 때 수십차 發光信號를 보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최단거리까지 접근하여 자세히 살펴본즉 분명히 北德船艦임이 틀림없었으며 敵艦은 蔚山을 지나 釜山을 向해서 變針南下하므로 上陸을 시

도하려는구나 생각하고 즉시 海軍本部에 打電報告하였다.

이윽고 攻擊命음이 떨어지고 우리는 600 YDS의 거리에서 첫발을 쓰았으나 빛나갔으므로 최단거리까지 접근하여 포격을 가하자 20發제에命中하여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艦尾부터 기울어졌다.

戰鬥가 계속되는 도중 我艦의 조타실에도 피격이 있었으나 航海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때 조타수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키를 잡고 오른쪽으로 급선회하여 침몰해가는 敵船과의 충돌을 순간적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當時에 잠수함이 가담했다는 정보가 있어 浮遊物 노획은 하지 않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히 浦項으로 向했다.

戰鬥當時에 全隊員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충천해 있었으며 모두들 요란한 함성을 지르며 포격전에 熱을 올렸다.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있던 甲板三曹(병장) 金昌學은 심한 부상을 당하여 食堂으로 옮겼는데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말이 『艦長님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울부짖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일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 ◇ YMS 509艇 甲板士官 張君翼 소위

(1964. 7. 27. 海軍本部 公報課長室에서 증령)

보통때 같으면 YMS 2隻이 東海岸警備를 하는데 1隻은 修理次 釜山에 가 있었고 509 1隻이 東海岸警備를 담당하고 있었다.

509艇의 武裝이라고는 37mm 主砲가 하나 있었으나 이것은 조준경이 없어서 砲口로 조준을 했는데 중기관총이 2~3挺 있었던 것으로 記憶이 난다.

일요일 새벽에 通信官가 와서 잠을 깨우며 電報 1장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敵船이 南段에서 兵力을 海岸에 上陸시키고 있으므로 즉시 가서 격파하라는 內容이었다.

난 戰爭이란 연두에도 없었으므로 電報가 즉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럴리가 없다. 반신반의하면서 艇長에게 보이니까 艇長 역시 이상

하다고 하며 여하튼 나가보자고 해서 06.00경에 墨湖港을 출항하였다.

航海도중 海風은 별로 세지 않았으나 나뭇잎 심해서 船體가 30°~40°씩이나 기울어졌는데 짙은 안개때문에 視程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北上을 계속하던중 먼 안개속에서 배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배모양이 當時 우리 海軍이 保有하고 있던 JMS(掃海艇)처럼 생겨서 처음에는 我軍艦艇인 줄로 착각하였다.

계속 發光信號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고 한도 이상해서 가까이 접근했는데 이때 최단거리에서 번쩍하고 응답이 왔으나 그것은 砲를 쓰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도 37mm 砲와 頂機로 응사를 하게 되었다.

敵船의 무장을 보니깐 40mm 2연장으로된 기관포가 甲板에 있었으며 船體도 큰 것이었는데 사격거리가 500~600YDS 정도 굉장히 가까워져서 肉擊으로 크게 부러뜨릴 정도의 거리였다.

船名은 알 수 없고 敵船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도 記憶나지만 mast에 붉은 人共旗가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船首쪽에 한방을 맞기는 했어도 木樵이 되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우리가 쏘는 것은 한방 쏘려면 나뭇잎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에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맞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는 더욱 잘 맞았다.

나중에는 火力도 약하고 speed도 느린 우리배에 물려서 敵船은 새까만 黑煙을 내면서 북쪽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우리도 船艙를 북쪽으로 돌려 추격하려 했으나 敵船의 속력이 어찌나 빠르던지 따라갈 수가 없고 해서 피격된 船艙도 修理할겸 墨湖에 들어갔다.

墨湖港에서 침수를 막을 정도로 긴급수리를 끝마치고 다시 그 海域에 가보니 海岸線에 發動船이 3~4隻 흩어져 있었다.

敵은 이미 上陸한 뒤이고 發動艇만 버려놓았는데 그중 1隻을 격파하고 上陸한 北僞軍과 交戰을 하였다.

上陸한 北僞軍은 박격포사격을 해왔으나 아무

런 피력은 없었으며 發動船 1隻을 끌고와 墨湖 整備府에 인계려준 記憶이 난다.

◇ PC 701艦 副長 宋錫昊 소령

(1965. 7. 15. 艦隊副司令官室에서 准將)

1950년 나는 701艦의 副長으로 있었는데 512 艇과 518艇을 指揮하고 우리는 東海로 긴급출동을 나갔다.

그때 時間이 15.00쯤이었는데 통제부사령관의 출동命令(海本 作戰命令 卍 第49號)를 받고 오전중에는 飜食적재, 그리고 오후에는 기름을 넣었다.

東海를 北上하다가 울산近海에서 敵艦의 黑煙을 發見하였다.

이때의 서리는 7浬정도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추격을 시작하였다.

그 배의 正體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까지 接近해서 南下하였다.

그 敵艦에서는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보였는데 우리는 계속적인 發光信號로 어미를 출항했으며 目的地가 어디며 국적은 어떤가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敵艦에서는 上陸軍들이 저녁을 먹고 甲板에 나와서 우리 701艦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報告를 받은 海軍本部에서는 처음에

拿捕하라는 指示를 했으나, 다음에 격침시키라는 命令을 내렸다.

이때의 時間은 26일 00.10 우리는 敵船으로부터 2浬정도의 거리를 두고 3" 主砲로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야간戰鬪인지라 처음에 불을 보고 쏘았는데 포격을 받자마자 敵船에서는 불이 꺼져버렸다.

우리가 전투중일 때는 야간인데다가 구름까지 끼어서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때문에 우리는 1,000YDS까지 접근하여 主砲와 중기사격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敵船은 命中彈을 맞고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我艦 조타실에도 敵彈이 命中되었는데 이때는 我艦의 3" 主砲가 故障난 바로 그때였다.

조타실에서는 金宗植 소위와 電點手 그리고 조타수가 부상을 입고 피부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사적인 각오로 최단거리 100m까지 접근하여 重機사격을 가하였다.

약 10분이 지난 다음에 격락이 흐르고 敵船은 침몰하였다.

우리는 부유물을 찾기 위해서 새벽까지 戰鬪近海를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2) 東海 警備狀況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墨湖경비부 사령관	중령	金斗燦
浦項경비부 사령관	중령	南相徽
釜山경비부 사령관	중령	閔泳玖
제 2艇隊 사령관	중령	金忠男
YMS 516艇 장	소령	張志洙
YMS 510艇 장	소령	李鯨源
YMS 509艇 장	소령	金相道
YMS 506艇 장	소령	許德和
JMS 308艇 장	소령	孫炳一
JMS 305艇 장	소령	朴元俊



## JMS 304艇 장 소 령 관 賢 植

## (나) 전투전의 개황

東海岸의 地理的 여건을 利用한 北傀는 嶺南한 태백산을 따라 내려오는 北傀軍의 진격속도를 가속화하고 후방교란을 目的으로 玉溪方面의 海岸에 상륙하려다가 我海軍의 저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前項에서 記述한 대로 玉溪戰鬪인바 이 戰鬪에서 YMS 509艇은 敵의 輸送船團을 격퇴하고 上陸艇 1隻 격파, 1隻을 나포하는 戰果를 올렸는데 我艦艇의 船首가 피격되어 墨湖로 一時 귀함도중에 일부의 北傀軍은 玉溪地區에 上陸을 하였다.

또한 PC 701艦이 大韓海峽近海에서 격침시킨 敵의 輸送船 역시 600여명의 Guerilla를 南海岸에 上陸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當時에 東海岸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海軍 第2艇隊(司令官 金忠南 중령) 소속의 艦艇들은 이러한 敵艦艇들의 잇따른 출몰을 격퇴하기 위해서 警備活動을 強化하던중 JMS 305艇(장, 朴元俊 소령)이 美海軍艦艇의 誤判으로 격침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東海岸에 上陸한 一部 北傀軍은 진지를 구축하고 我海軍警備府가 있는 墨湖地區로 南下하려던 中海軍陸戰隊와 陸軍 그리고 경찰대와 치열한 戰鬪을 벌였으나 사태가 不利함에 따라 墨湖警備府는 일시 浦項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이 當時에 東海에는 증강된 第2艇隊의 YMS 516, 509, 506艇과 JMS 304, 305, 308艇 등이 東海全海域의 警備에 任하고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墨湖警備府의 戰況

6월 25일 03.00 東海岸의 墨湖港口에서 北으로 9km지점에 있는 玉溪支署에 30才 가량 되어 보이는 靑年 한 사람이 金津에 敵軍이 上陸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北傀軍은 東海岸에 있어서 陸上主力部隊의 侵攻과 때를 같이하여 金津—玉溪부근에 1,800名을 기습 上陸시켜 山城里 黑鉛鑛山에 集結시키고 三陟부근에 80여명, 竹邊에도 500名의 兵力을 上陸시켰던 것이다.

위 사실을 연락받은 墨湖警備府에서는 정보대원 13名을 비상소집하여 그중 4名이 韓服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휴대한채 玉溪地區에 잠입하였다.

05.00쯤 玉溪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본즉 北傀軍은 이미 上陸하여 玉溪國民學校에 集結하고 一部는 나팔을 불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었다.

자세한 정보연락을 받은 墨湖警備府司令官은 25일 05.30 金鳳出 兵曹長(상사)의 指揮下에 15名을 또 수색대로 내보내고 같은 날 07.00 鐘德遠 중위의 指揮下에 60名을 玉溪와 金津에 즉각 출동시켰다.

當時 玉溪地區에는 我海軍의 주둔군이 없었고 경찰만이 소규모 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수시로 침투해오는 北傀유격대의 조기탐지를 위한 것으로서 當時 이 警察哨所는 北傀

軍이 대거 上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海軍수색대에서는 玉溪산등성이에 잠입하여 北傀軍의 行動을 주시하다가 그들이 國民學校에 集結하자 37mm砲로 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玉溪青年團 30~40名 정도가 산등성이에 集結해서 海軍의 포격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最初의 1發은 敵이 集結하고 있는 玉溪國民學校의 국기계양대에 맞아 戰鬪가 開始되었는데 이때 계양대에 걸려있던 北傀旗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이윽고 人民軍군관 1名과 병사 3名으로 편성된 敵수색대는 我軍이 集結하고 있는 산등성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我軍은 숨을 죽이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四方에서 集中攻撃을 가하여 北傀軍 4名을 모두 사살하였다.

여기서 我軍은 U. S. S. R製 권총 1정과 多發銃 1정 그리고 소총 2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攻撃을 받자 敵의 上陸軍은 全力으로 對抗하여 오기 시작하여 我軍 역시 陸·海軍과 警察이 合同作戰을 감행하게 되었다.

我軍은 警察 50名에 무기는 CAR, 日本의 38式 소총 그리고 M1 소총과 60mm박격포 3문, 海軍의 CAR 경기관총 2정, 60mm박격포 2문, 37mm 對戰車砲 등인데 比하여 敵은 미리 계획된 制반무장을 갖추어 U. S. S. R製 보병소총과, 重·輕機關銃은 勿論 120mm 박격포를 가지고 있었다.

장기간 戰爭準備를 해왔던 北傀 Guerilla와 對抗하기란 我軍의 소규모 火力으로는 力不足이었다.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我軍은 한정된 實彈이 소모되어가고 敵은 물밀듯이 攻撃해오는 不利한 立場에서 海軍本部에 兵力과 火力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特別한 대책이 없었고 北傀軍의 迫擊砲彈은 我軍의 撤收를 不可避하게 하였다.

海軍이 먼저 一線에서 移動하자 陸軍과 警察도 撤收하기에 이르렀는데 實彈이 떨어진 海軍은 한시 바빠 移動하여 墨湖港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待機하였다가 敵과 싸우는 수 밖에 없었다.

我軍의 대거 移動을 바라본 敵은 제빨리 눈치를 차리고 銃彈을 퍼부으며 접근하였다.

我海軍은 東海岸을 따라 계속 南下하는 도중 道直里에서 敵33名을 사살하는 戰果를 올렸으니 그 主人公은 바로 尹應基 二曹(하사)였다.

그는 撤收도중 隊列을 이탈하여 輕機關銃을 둘러메고 갑자기 돌진해오는 敵陣쪽을 向하여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육박하였다.

동시에 水兵 1名도 252발씩 實彈이 들어있는 탄통 2個를 들고 뒤따르게 하여 가까운 숲속에 잠복해 있다가 敵이 100m까지 接近하자 尹應基 二曹(하사)는 칠착하게 방아쇠를 잡

아 당기자 敵의 先頭가 集團的으로 쓰러졌다.

輕機關銃의 實彈이 떨어지면 다음 탄창을 장전하여 또 다시 敵을 向하여 連射하였다. 이에 敵은 分散되어 도주하며 散發的으로 응사하였으나 모두 다 빗나가고 한발의 命中彈도 없었다.

尹應基 二曹(하사)는 退却하는 敵을 向해서 連발사격을 계속하였는데, 敵은 30여구의 시체와 많은 부상자들을 남겨둔채 분산 退却하여 버렸다.

한사람의 決死的인 抗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꺾주한 敵은 다시 戰列을 정비하여 再襲하였다.

18.30에 我軍은 實彈과 兵力의 不足으로 道直里를 떠나 警備府自體의 防衛를 위하여 21.30 墨湖本部에 귀대하였다.

墨湖警備府는 自體防衛를 위하여 다시 戰鬪態勢를 갖추고 要所 要所에서 대기하였으나 北坪 및 三陟의 陸軍이 江陵地區의 陸軍 第8師團과 함께 이미 撤收하였으므로 戰力의 空白상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陸軍 第8師團의 移動으로 26일 05.30 海軍本部 作戰命令에 依하여 全將兵은 LST(汶山號) 및 漣津號에 무기 차량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浦項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LST(汶山號)는 海運公社 船舶으로 戰爭이 난줄도 모르고 墨湖港에 一般貨物을 적재하려 들어왔다가 墨湖警備府의 撤收作戰에 가담하였다.

墨湖警備府가 浦項으로 이동한 다음 크게 당황한 것은 墨湖地區의 住民들과 有志 그리고 각 기관의 幹部 및 靑年들, 國民會 幹部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我軍이 종일토록 玉溪地區에 나가서 戰鬪中일 때 婦女子들까지 동원하여 주먹밥을 만들고 또는 戰死者의 埋葬까지 하였다.

그런데 部隊가 새벽에 撤收해버렸으니 07.00에 墨湖에서는 일대혼란이 發生하였던 것이다.

海軍警備府가 撤收하고 난 뒤에 墨湖에는 運輸局과 읍사무소 어업조합등만이 남아서 긴급行政을 시행하였는데 市民의 혼란은 말할 수 없었으며 좌익분자들의 活動이 극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市民들은 긴급대체를 수립하여 自衛隊를 편성하고 자진해서 治安과 防衛를 담당하였다.

또한 警備府를 死守하기 위해 남아있던 13名の 海軍들이 墨湖의 浬에서 치열한 戰鬪를 감행한 결과 敵은 아직 我軍이 撤收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대규모 兵力과 火力으로 무장된 敵은 6월 30일경에 墨湖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들어닥치자 我軍에 協調하였던 市民들이 別안간 赤色분자들과 함께 人民軍을 환영하는 촛극을 벌였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地下組織을 가지고 北傀의 指令밑에서 活動해온 南勞黨 적색 분자들이었는데, 이들중 어떤 자들은 我軍部隊근처에 居住하면서 本格的인 情報活動을 계속한자도 있었다.

또한 北傀軍이 들어오자 이들은 각종 組織體를 만들어 有志들을 강제로 입당시키고 人民軍을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墨湖警備府의 注文津派遣隊는 6월 25일 07.00 隊長이하 3명이 보급선에 편승하여 敵發動船 1隻(60ton급)을 發見하는 즉시 사격을 加하여 승선한 人民軍 60명과 함께 격침시키고 同派遣隊는 移動하는 陸軍部隊를 따라 7월 1일 浦項에 到着하였다.

또한 臨院里과전대는 臨院津에 上陸한 400명의 敵軍과 對峙하던중 警察部隊와 協同하여 應戰하였으나 兵力과 火力의 不足으로 厚浦로 移動한 다음 厚浦과전대와 함께 그곳 住民들을 浦項쪽으로 피난시키고 7월 1일 다시 竹邊의 敵陣후방에서 北傀軍 10명을 사살하여 治安유지에 공헌하던중 7월 5일 敵의 대거침투로 인하여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三陟과전대는 6월 25일 종전대로 民間船舶을 利用하여 沿岸警備를 하던중이었는데 當日 19.00 墨湖警備府에 돌아와서 浦項으로 移動하였다.

이로써 墨湖警備府 및 예하 각 파전대는 모두 撤收하여 浦項警備府에 移속되었다.

## 2. JMS 305艇의 沈沒事件

北傀 Guerilla軍의 東海岸기습으로 인하여 玉溪地區에서 對戰하다가 浦項으로 撤收한 墨湖警備府는 浦項警備府에서 別다른 戰果도 올리지 못하고 撤收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警備府가 撤收한 다음에도 墨湖에서는 海軍들의 지원을 받은 靑年隊員들이 墨湖에서 선전분투하고 있었다. 當時에 浦項으로 移動한 墨湖警備府의 主力은 아직도 LST(汶山號)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다.

墨湖警備府는 浦項에서 다시 墨湖로 복귀하기 위하여 LST에 직사포와 제반 武裝을 갖추고 제2艇隊 艦艇들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墨湖로 向하게 되었다.

그때 제2艇隊 艦艇들은 제1편대, 제2편대로 戰列을 編成하여 汶山號를 호위하고 墨湖로 航進하였다.

제1편대의 先頭는 YMS 516艇(장, 張志洙 소령)으로 第2艇隊司令官 金忠男 중령이 3隻을 指揮하였으며 제2편대는 YMS 510艇(장, 李鯨源 소령)이 3隻을 指揮하였다.

이때 出動한 艦艇은 YMS 506艇, 510艇, 516艇, 그리고 JMS 304艇, 305艇 LST(汶山號)였는데 이렇게 많은 船舶이 동원된 主目的은 玉溪海岸에 出沒하는 敵艦艇및 上陸을 시도하는 敵의 Guerilla 部隊를 격파하는 것과 墨湖警備府의 복귀를 지원하는 두가지의 目的과 任務를 띠고 있었다.

이 두 편대가 LST(汶山號)에 있는 墨湖警備府 兵力을 호송한 다음 第2艇隊 司令官 金

忠男 중령은 YMS 516艇을 타고 JMS 304, 305艇과 함께 墨湖近海를 警備하였으며 510艇은 506, 509艇과 함께 臨院近海를 警備하고 있었다.

이렇게 警備近海를 계속하던중 29일 03.45에 YMS 510艇의 見視當直兵이 하늘에 비행기가 나타났다는 報出을 하였다.

夜間에 하늘을 가로지르고 지나가는 砲彈은 출사 비행기와도 같았는데 그것은 美海軍艇의 艦砲사격이었다.

砲彈은 점차로 我艇艇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한꺼번에 12發이나 떨어져 巨大한 물기둥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때 제2전대는 墨湖에 入港도중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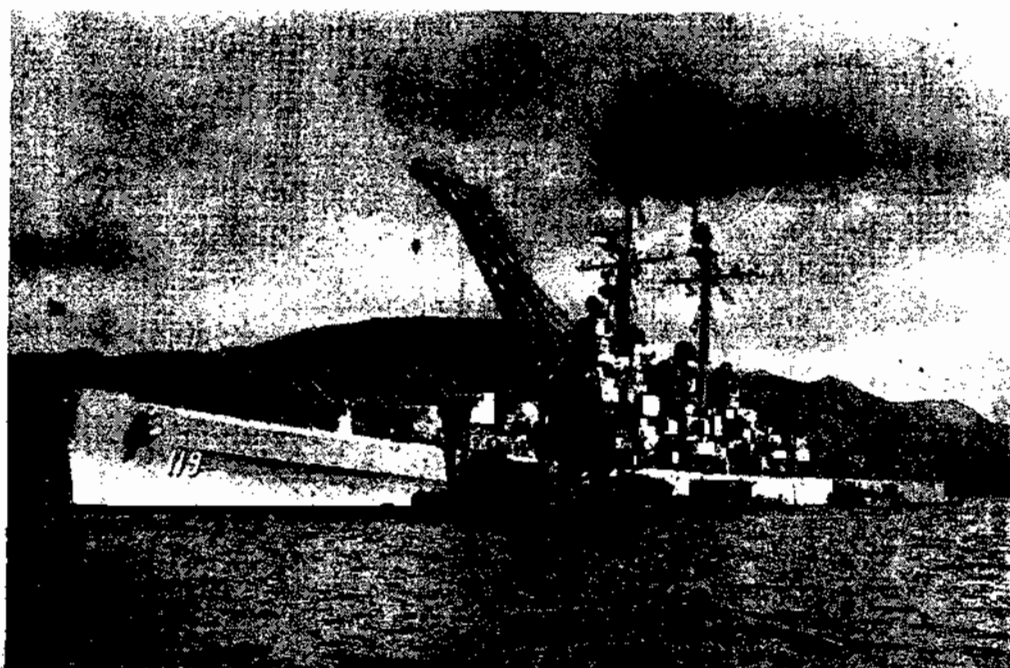
305艇은 비오듯 쏟아지는 艦砲세례를 받으며 516艇과 506艇을 뒤따르고 있었다.

當時 艦砲사격이 개시되자마자 506艇은 급선회하여 海岸線쪽으로 向하였으나 305艇은 주위에서 작열하는 물기둥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다.

모든 승조원들은 U. S. S. R 海軍艇艇의 砲擊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밤하늘에 閃光이 번쩍거리고 수십개의 불줄기가 비행하여 계속 305艇의 주위에 떨어지자 509艇과 516艇은 海岸가까이 피항하였으나 305艇은 37mm砲로 사격을 加하였다.

美海軍 구축함의 Direct Radar Control에 의한 정확한 사격이 305艇의 주위에 集中하자 305艇은 艦砲가 날아오는 方向으로 응사하면서 Zig-zag 就海로 피하였다.



<東海岸 警비에 참가한 美艦 U.S.S. Juneau호>

當時에 516艇에 있던 第2艇隊司令官 金忠男 중령과 艇長 張志洙 소령은 海岸線 가까이 피항하라고 指示하였으나 305艇은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봉착하고 말았다.

305艇에는 Radar도 없는데다가 미약한 37mm砲로 美國艦艇에 對抗한다는 것은 我艦의 位置를 정확히 알려주는 結果밖에 안되었다. 30분간 계속된 美艦의 砲擊으로 305艇은 격침직전에 있었는데 第2艇隊司令官의 指示로 510艇이 예인하다가 워낙 많은 浸水로 因하여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當時의 海上狀態는 海風도 미약하고 조류도 그다지 거세지 않았다.

砲擊當時의 位置를 보면 相對艦인 美國驅逐艦(U. S. S. Juneau)의 사격開始가 6월 29일 03.45이고 305艇의 位置는 N 37°25'10' E 129°16'20'였다.

當時 305艇을 제외한 다른 艦艇들은 거의 다 海岸으로 接近피항하였다.

第2艇隊 司令官은 305艇이 피격되고, 艦砲사격을 加하는 艦艇이 어느쪽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서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새면 敵艦과 決戰하겠다는 강경파와 또 한편에서는 틀림없이 U. S. S. R 艦隊가 나타났으니 我海軍의 小型艦艇으로서는 개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으니 海軍本部에 報告하여 戰鬥機 및 火力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兩論이 분분한 가운데 새벽을 맞이 하게되었다. 날이 밝아오자 드디어 海岸線에 巨大한 艦艇이 그 正體를 들어내기 시작하였는데 쌍안경으로 살펴본즉 그것은 美國의 구축함이었다. 信號士와 將校들은 즉시 發光信號를 보냈다.

먼저 美國艦艇에서 국적을 물어오자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라고 응답하자 그 쪽에서는 『Come along Side. (접근하여 계류바람)』이라는 發光信號가 왔다.

우리 艦艇이 태극기를 게양한채 美國艦艇에 접근하자 그때야 비로소 韓國海軍임을 알아차리고 극진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보급물자의 지원은 勿論 故障修理도 해주고 격침한 305艇의 生存者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當時 美國艦艇은 37° 이북에 있는 船舶은 U. S. S. R 또는 北傀艦艇이니 모두다 격침시키라는 美極東海軍司令部의 指示에 따라 이와 같은 失手를 범했던 것이다.

즉, 北傀海軍艦艇이 墨湖近海까지 南下한줄 알고 砲擊을 加한 것으로 보여진다.

## (2) 전투후의 개황

JMS 305艇이 격침될 때에는 美國艦隊가 最初로 韓國海域에 出動한 때였다. 때문에 사전에 我海軍과 情報交換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通信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失手가 있었던 것이다.

東海岸에서의 墨湖警備府의 撤收와 JMS 305艇의 침몰로 因하여 我海軍에는 크나큰 충격이 되었다.

墨湖警備府는 浦項으로 一時 撤收한 다음, 다시 墨湖로 돌아와 陸戰隊를 編成하고 戰列을 정비하여 浦項警備府와 함께 東海岸으로 南下하는 北傀軍을 격멸하는데 지대한 공적을 남겼으며, 海軍 各艦隊역시 UN海軍艦艇과의 合同作戰을 실시하게 되었다.

UN海軍과의 연락불충분으로 我海軍의 305艇이 침몰된 이후로는 UN海軍艦艇에 우리 海軍 연락장교가 편승하여 상호정보교환 및 合同作戰수행에 좋은 성과를 올렸음은 勿論 원활한 海上作戰이 展開되는 가운데 37°線 이북은 UN海軍이 담당하고 37°線 이남의 海域은 我海軍이 담당하게 되었다.

305艇의 피해정도는 37mm 主砲가 격파되고 기관실과 船首에 命中彈이 있었는데 人命피해는 戰死 8名, 重傷 1名 그리고 輕傷 3名이었다.

## 8. 參戰者의 證言

### ◇ YMS 516艇長 張志洙 소령

(1977. 5. 13. 自傳에서, 예 대장)

일요일 아침 나는 釜山의 富平洞에 있는 집에 있다가 비상소집을 알리는 電話를 받고 급히 집을 나왔다.

제4부두에 있던 第2艇隊司令部까지 오니 艇長官 金忠男 중령 이하 全艦艇의 指揮官들이 추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北魏의 全面도발은 모르고 다만 盟湖와 玉溪地區에 敵이 上陸한다는 情報과 함께 급히 출동하여 이들을 격파하라는 艇長官의 命令이 떨어졌다.

艇長官은 各 艦艇에 命令하기를 기관이 준비가동되는대로 出航하되 全速力으로 前進하지 말고 減速으로 北上하다가 全艦艇이 合流하면 全速北上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第2艇隊의 全艦艇이 준비가 不足한 상태에서 무장관계만 준비되는대로 出航하였는데, YMS 516, 510, 506 그리고 JMS 304, 305艇이 출항하였다.

304艇은 盟湖와 注文津間의 警備를 509艇에 인계하고 귀항도중에 있었는데 九龍浦近海에서 合流하여 같이 北上하였다.

25일 11.00 九龍浦近海에서 各各 出發한 艦艇들이 모두 合流하여 全速으로 北上하였는데 25일 24.00 汀羅津近海를 通過하여 26일 07.00에 玉溪近海에 이르렀다. 單縱陣으로 北上하다가 9-Turn으로 敵이 上陸한 듯한 地點의 海岸으로 接近하였는데 海岸線에서 박격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우리 艦艇도 모두 사격을 開始하면서 接近하였다가 敵의 砲臺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편대만 海上에 노출되어서 아무래도 不利하자 모두 All back Engine을 켜서 敵의 사격권밖으로 피하였다.

이리하여 外海에서 警備에 임하다가 나의 516艇은 기관고장(Back Engine)으로 인하여 506艇과 함께 浦項으로 向하였다. 第2艇隊 司令官은 506艇으로 갈아타고 같이 南下하던중 LST(汶山號)를 만나 北上하였다.

### ◇ 第2艇隊 司令官 金忠男 중령

(1964. 4. 4. 海連公社 社長室에서, 예 소장)

浦項으로 撤收한 盟湖警備隊의 복귀와 東海岸警備를 위해서 우리 제2정대는 盟湖警備隊 要員들을 싣고 墨湖로 向하였다.

우리는 제1편대와 제2편대로 隊列을 편성하여 盟湖로 北上했는데 04.00쯤 하늘에 비행기가 나타났다고 야단들이었다. 美國艦艇에서 砲臺사격을 하는 것이 밤하늘에 불꽃기문 형성하여 꼭 비행기가 날라가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런데 砲彈이 차츰 우리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位置가 美海軍艦艇의 Radar에 정확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구잡이로 떨어지는데 12발씩 정도 작열하였다.

이때는 상호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指示도 없이 그냥 行動하게 되었으며 510艇이 이끄는 편대는 盟湖에 入港도중이었다.

當時에 305艇은 내가 탄 배뒤에 있었는데 YMS 506艇이 船首를 돌리면 305艇도 돌릴 줄 알았으나 艇長은 砲彈이 어떻게 많이 떨어지는지 선회할 수가 없었다. 散發的으로 砲彈이 떨어지고 처음 당하는 사태이니까 모두들 당황을 해서 내가 506艇長 노릇을 하였다. 배를 급선회 시켜 가지고 1~2分後에 305艇이 걱정되어 뒤돌아 본즉 정지상태에 있었다.

뒤를 두번째 돌아보았을 때에는 305艇에서 깃

光이 번쩍하면서 폭음소리가 울렸다.

해상상태는 비교적 잔잔했는데 작열하는 포격 때문에 나는 비마리라고 하는 곳으로 向했다.

그곳까지도 砲彈이 날아왔는데, 305艇을 구출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하였다.

그때 510艇에는 무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호출하여 가보라고 指示를 했다.

그후 305艇은 예인도중에 워낙 많은 浸水로 인하여 침몰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격침당한 것이 아니고 浦項으로 예인하여 오던중 沈沒하였다.

#### ◇ 墨湖警備部 隊員 俞宗植 준위

(1967. 4. 20 海軍本部에서)

6.25가 나던 날 일요일 아침 나는 墨湖警備部에 있었다.

그날 새벽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를 玉溪앞바다에서 正體를 알 수 없는 많은 船舶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情報隊員 13名을 비상소집하여 권총을 휴대하고 平民복장으로 玉溪地區로 가보았다.

새벽 밝을 무렵 玉溪산등성이에 가서 내려다 보니까 北僞軍이 벌써 上陸을 했으며 輸送船을 가버린 後였다.

北僞軍은 玉溪國民學校에 集해가지고 나팔을 불며 行進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警備府에 보고하고 玉溪산등성이에 37mm砲를 장치해놓고 行進하는 北僞軍隊列을 向해 砲門을 열었다.

첫번째 砲彈은 玉溪國民學校의 국기계양대에 命中해서 北僞旗가 넘어지면서 戰鬥이 開始되었다.

마침내 北僞軍 4名이 척후병으로 나왔는데 北僞軍 軍관 한 사람하고 士兵 3名이 山으로 올라오는 것을 發見해가지고 포위했다.

우리는 集中攻擊으로 그들을 모조리 사살하고 처음으로 소련계 권총 1정과 탄발총 등을 노획했다. 그뒤 北僞軍은 大대의인 攻勢를 시작해서 우리는 점차 뒤로 移動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墨湖警備府로 돌아와서 그때 석탄을 적재하기 위해 入港한 LST(汶山號) 輸送船 1隻을 撃沈하였다. 우리가 戰鬥할 當時에는 없었는데

戰爭이 발발한 줄 모르고 入港한 海運公社 輸送船이었다. 그 배에 우리는 警備府의 隊員과 物資를 全部싣고 또다른 船舶에는 軍人家族과 民間人도 싣었다.

그리고 警察이 가지고 있던 小型警備艇도 1隻 동원해서 浦項으로 撤收했는데 浦項警備府에서는 우리를 快診병취급하였다.

墨湖警備府의 主力은 LST(汶山號)에 그냥 타고 있었는데 浦項에서 墨湖의 소식을 대강 전해 듣고 우리는 汶山號에 직사포를 장치하는 등 중무장을 해가지고 墨湖복귀를 위해 浦項을 출항하였다. 밤중에 墨湖를 向해서 北上하던중 03.50 三陟近海에서 美國艦艇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다.

밤하늘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어선들이 고기잡이 하는줄 알았는데 주위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폭음이 터지자 포격을 받는 줄 알았다.

이때의 艦砲사격으로 305艇은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침몰되었다.

## §. 戰 訓

北僞軍 Guerilla들의 上陸에 對應하여 墨湖警備府는 陸軍과 警察 및 青年團員들과 一心同體가 되어 協同作戰을 실시하였던 點이 그 當時에 보기 드문 合同作戰의 좋은 實例을 남겼으나 끝까지 墨湖를 死守하지 못하고 성공한 撤收를 함으로 말미암아 墨湖地區를 空白상태로 만들고 말았으며, 또 墨湖복귀를 위해 第2艇隊의 호송을 받으며 北上하던중 美艦으로부터 敵船으로 오인받아 砲擊을 당하는 불상사를 초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기철수로 인한 악영향이 아닐 수 없다.

즉, 浦項으로 撤收한 墨湖警備府가 복귀하려고 北上하던중 JMS 305艇이 美艦으로부터 敵船으로 오인받아 격침된 것은 韓·美海軍의 상호 연락불통분에서 기인된 것이다.

多幸히도 JMS 305艇을 제외한 모든 艦艇들은 第2艇隊 司令官의 指示下에 海岸線 가까이 피항하여 위기를 모면했던 점이 海軍戰術을 效果的으로 適用한 좋은 戰例라 하겠다.



## 다. 西海 海上作戰

## (1) 海上에서의 輸送支援

##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 輸送支援部隊長

해군第1艇隊 사령관		중령	柳海巨
JMS 302艇 장		소령	廉鳳生
JMS 307艇 장		소령	白雲基
LST 801艦 장		대위	金玉卿

## 被支援部隊長

육군제17연대 장		대령	白仁燁
제1대대 장		소령	金禎泰
제2대대 장		소령	宋虎林
제3대대 장		소령	吳益慶
포병대대 장		소령	朴廷鎬

## (나) 전투전의 개황

陸軍 제17연대는 甕津으로부터 7km 전방인 38°線을 경계로 하여 좌측에는 제1대대 右側에는 제3대대를 배치하고, 甕津반도의 中央에 있는 鑛山에 제2대대가 豫備隊로써 연대본부와 함께 位置하고 있었다.

甕津반도는 방어正面이 57km에 달하고 38°線으로 인하여 陸地와 遮斷되어 있었기 때문에 交通은 海路에만 依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반 軍수지원이 海路를 通해서 이루어졌고 作戰地域은 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同연대는 獨立部隊로써 敵의 南侵時에 對備한 作戰계획을 보면 第1案이 敵의 侵攻時에는 龜山을 確保함으로써 康嶺을 장악하고 最惡의 경우에는 釜浦港으로 移動하여 兵力의 增援을 기다리며 반격하는 것이고, 第2案은 최대한의 遲延戰과 동시에 釜浦港에서 海路를 利用하여 仁川方面으로 撤收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正面도 넓지만 後方이 背水의 陣을 친 地形的인 不利條件에 位置하고 있었기 때문에 前述한대로 敵의 大攻勢時에는 이 地域을 防守하다가 命숨에 依하여 海軍艦艇으로 撤收키로 되어 있었다.

6월 중순에 접어들자 이 地域도 역시 다른 38°線 地區와 같이 北傀軍의 情況에 異常을 보이다가 23일부터는 海州方面과 苔灘里地區에서 敵의 兵力移動이 빈번하여지고 砲가 南쪽으로 配置되는등 심상치 않은 徵兆가 나타나자 연대장은 이러한 敵情을 陸軍本部에 報告하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제17연대의 戰況

6월 중순경부터 海州의 苔灘里 地區에서 北傀軍의 兵力移動이 심해지자 드디어 25일 04.00를 전후로 제1대대의 紫洞地區와 第3대대의 鶴山一帶에는 敵의 無數한 砲彈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一線의 中대장들은 敵의 上습적이고 局部的인 攻勢가 시작되는 程度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北傀軍의 대거 南侵攻勢였던 것이다.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大攻勢로 반도의 左右側에 있던 제1, 제3 兩대대가 포격을 당하자 연대장은 예비대에 대하여 출동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연대에 배치된 美軍事顧問官 Frank Brown 소령 外 4名은 09.00에 L-4 연락기편으로 空中撤收를 하였다. 北傀軍은 我軍의 集中火力에 依하여 공격대형이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侵襲하였다.

我軍의 反擊에 進出이 저지되어 교착상태에 빠져들었지만 攻擊은 계속되고 증원병력이 계속 투입되었다.

反擊作戰에 나섰던 제2대대는 彈藥이 消盡되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14.00에 冷井里에 있는 野戰病院 附近에 이르러 部隊를 수습하였는데 이곳에는 제1대대 兵力도 혼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이를 統合指揮하여 康翎地區로 移動하려다가 敵의 大대적인 공격을 받자 沙串으로 方向을 바꾸었다.

그러나 沙串으로 移動하려면 不得已 甕津을 경유해야 되는데 市内에는 이미 敵의 一部가 침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同대대는 2½ ton 트럭 7대에 一兵部力을 싣고 이를 防牌로 하여 甕津市内을 강행돌파하자 敵이 退却하므로 沙串으로 退路를 開拓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와 연대본부만을 15.00에 康翎으로 移動시켰는데 연대 軍수주임 全禹榮 대위는 兵器將校인 金忠九 중위와 함께 본부시설과 식량, 그리고 彈藥과 油類 등을 파괴하여 敵이 利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副대위는 연대본부에서 冷井里의 野戰病院에 이르러 步行不能患者 200名을 車輛으로 釜浦까지 撤收케 하는등 사후처리를 하면서 釜浦로 移動하였다.

左側 제2대대 지역은 제1대대 지역보다 敵의 攻擊이 늦게 始作되었지만 敵의 제14연대는 戰車 8대와 騎馬대대의 협동하에 鶴山の 左側으로부터 甕津에 이르는 철도를 利用하여 大대적인 攻擊을 加하였기 때문에 撤收路가 遮斷되어 부득이 沙串쪽으로 移動路를 開拓한

것이다.

## 2. 海軍의 輸送支援

璽津半島에서 不意의 攻擊을 받은 제17연대는 陸軍本部에 戰況을 報告하자 國防部는 海軍本部에 제17연대의 輸送支援을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當時 海軍總參謀長代理인 金永哲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下達하였다.

『진급수송지시 : 第1艇隊司令官은 25일 14.00에 LST 1隻을 釜浦에 급파하여 陸軍제17연대의 兵力을 仁川으로 輸送하라.』

仁川의 第1艇隊司令官은 上記 作命에 의거 仁川港에 停泊중이던 大型輸送艦 LST 801艦을 출동시켰다.

25일 17.00에 801艦은 仁川을 출항하여 同日 23.00에 釜浦에 到着하였다.

한편 同 연대장은 수십대의 車輛을 動員하여 釜浦에 上陸한 我軍의 大兵力이 璽津邑쪽으로 進擊하는 것처럼 기만하기 위하여 車輛의 Head Light를 켜고 行動하여 敵의 판단을 그릇되게 유도하였다.

26일 未明부터는 中基洞線에 配置된 我軍의 主力部隊가 釜浦로 移動開始하고 連대장은 제12중대장 鄭奎漢 대위에게 이를 掩護하도록 命令하였다.

한편 釜浦外港에 到着하여 待機中이던 LST 801艦은 潮流關係로 부두까지 接近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가 釜浦에 到着할 때까지 계속 外港에서 기다리다가 26일 10.00 海岸에 接近하여 제1대대 및 연대본부를 승선시킨 다음 15.00에 釜浦를 出항하였다.

연대본부가 LST 801艦에 승선하고 있을 때에 砲兵대대는 北쪽을 向하여 엄호사격을 가하였는데, 연대主力을 실은 LST가 곧 出港을 하려고 하자 연대장은 막중한 책임을 痛感하고 승함하지 않았다.

연대장 白仁燁 대령 一行을 남겨두고 釜浦를 出港한 LST 801艦에서는 이 사실을 海軍本部에 打電報告하였으며 곧 바로 陸軍本部和 國防部에 通報되었다.

제17연대의 主力部隊를 보내고 난 연대장 白仁燁 대령은 外野里에서 아직도 南下하는 北傀軍과 對抗하는 鄭奎漢 대위의 一部兵力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걱정하면서 自決하려고 하자 朴廷鎬 소령의 制止로 27일 전마선을 타고 延坪島까지 탈출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戰況을 보고받은 申性模 國防部長官은 海軍 第1艇隊 司令官에게 指示하여 JMS 302艇과 307艇을 延坪島로 出動시켜 白仁燁 대령 一行을 구출함과 동시에 그곳에 分散되어 到着한 연대의 一部兵力들도 JMS 302艇과 307艇에 분승하여 延坪島를 출항하였다.

그리고 外野里에서 最後의 激戰을 벌이던 鄭奎漢 대위 一行 40여명도 釜浦에 到着하여 釜浦近海에서 漁船을 만나 겨우 延坪島에 到着하였다가 마침 연대장이 타고있는 JMS 307艇에 구출되어 27일 04.00에 모두 仁川에 도착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北傀軍의 全面的인 南段으로 인하여 甕津半島의 제17연대는 海軍輸送艦을 타고 仁川으로 移動하였는데 仁川에 到着한 연대는 그뒤 大田에서 別途의 任務를 부여받고 再編成에 들어갔다.

연대를 輸送한 LST 801艦과 JMS 302, 307艇은 그뒤 UN海軍艦隊와 함께 西海봉의라전 및 輸送作戰에 참가하였으며 801艦은 특히 西海 第1艇隊의 旗艦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JMS 302艇은 西海上에 추락된 北傀空軍의 MIG 15機 1대를 인양하는 등 UN艦隊와의 合同作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LST 801艦 砲術長 鄭元錫 소위

(1965. 4. 19. 전사현창위원회에서, 중령)

當時에 나는 801艦의 砲術長과 甲板士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자 陸軍本部의 將校들이 와서 지금 즉시 甕津半島에 가서 不利한 戰勢에 놓여있는 제17연대를 仁川으로 輸送시켜야 한다는 意見이 오고가고 했다. 그러자 海軍本部로부터 긴급출동순함이 하달되고 고립상태에 처해있는 연대를 仁川으로 輸送하라는 作戰순함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날 滿潮를 期해가지고 801艦은 完全 武裝을 갖추고 긴급출동하여 25일 23.00에 釜浦에 到着하였다.

艦長은 제17연대장을 방문해가지고 協의를 하였는데 연대장 白仁輝 대령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撤收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記憶이 난다.

26일날 배를 海岸에 가까이대고 제반 兵力과 軍수물자를 실기 시작했는데 敵의 砲彈이 801艦

을 目標로 벌여지자 부득이 外港으로 피항하여 801함에 있는 VP(短艇)와 近海에 있는 小型船 艇들을 동원하여 兵力을 移動시켰다.

그러나 我軍의 砲라던가 食糧 및 戰略物資 등은 時間的인 여유가 없어 모두다 휘발유를 부리고 소각하여 버렸다.

연대의 兵力外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아우성을 지고 배를 타기 위해서 海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艦長이 特別히 叱락하여 希望者에 對해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我艦에 승선시켰다.

그때當時에 時間的인 여유만 충분했어도 더 많은 物資 그리고 火力장비를 싣고 오려고 했는데 敵의 砲彈이 我艦을 目標로 集中사격하였으며 그 砲彈으로 我艦 近處 不過 5~10m 주위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艦長은 現在 타고 있는 兵力과 피난민을 위해서도 빨리 출항해야겠다고 하여 26일 15.00에 釜浦를 출항케 되었다.

(2) 仁川警備府의 戰況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仁川警備府司令官				
경 第1艇隊司令官	중령	柳	海	巨
仁川警備府參謀長	소령	鄭	炘	謨
PC 701艦 장	중령	崔	龍	男

YMS 502艇	장	소령	盧 明 鎬
YMS 514艇	장	소령	朱 喆 圭
JMS 307艇	장	소령	白 雲 基
JMS 313艇	장	소령	李 鍾 徹
LST 801艦	장	대위	金 玉 卿
YMS 510艇	장	대위	崔 應 植
仁川海軍病院 外科課長		중위	吳 元 善

### (나) 전투전의 개황

6. 25일 當時 西海岸에 배치된 艦艇은 LST 801艦과 YMS 510艇을 비롯한 掃海艇 7隻과 증가 배치된 JMS가 있었다.

이들은 仁川近海의 海上警備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7월 3일부터 富川쪽으로부터 戰車 6輛의 포위하에 北德軍 1개 대대가 仁川으로 侵入하였다.

仁川警備府는 海軍本部가 大田으로 移動한 다음 28일 警備將을 LST 801艦으로 海上撤收하였으나 6월 30일 313艇, 513艇으로 先遣 憲兵隊長 以下 12名이 다시 上陸한 다음 801艇은 仁川外港에 대기하고 司令官이하 54名은 月尾島에 上陸하여 臨時司令部를 設置해서 仁川近海의 警備에 임하였다.

그 當時 仁川地區는 警察官들이 派出所別로 治安隊를 組織하여 地域防衛를 담당하고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仁川警備府의 戰況

6월 27일 仁川警備府의 軍의관으로 있던 吳元善 중위는 病院部隊를 이끌고 仁川에 侵入한 北德軍 戰車에 抗戰하였으며 仁川警備府의 憲兵등 60여명도 7월 3일 23.00 敵의 戰車部隊가 仁川市街로 들어오자 全隊員들은 果敢히 應戰하다가 2名의 戰傷者를 내었다.

또한 第1艇隊의 514艇은 西海 38°線近海에서 警備府소속의 <셋별>號가 N 37°35' E 136°34' 位置에서 敵의 集中사격을 받고 있는 것을 救出하였다.

第1艇隊는 같은날 美艦艇의 사격이 심할 것이므로 37°線 以北의 夜間坑海를 禁止하며 동일 日沒前으로 37°線 以南에 航行하여 西南海域을 警備하라는 海軍本部의 命令을 받았다.

7월 2일과 3일에 걸쳐 美空軍은 以北의 重要都市와 38°線 일대를 爆擊하고 第1艇隊는 仁川上陸을 企圖하는 江華島附近일대의 敵을 계속 감시중에 있었다.

7월 3일 08.00에 江華水路를 警備中인 YMS 502艇은 軍輸物資를 수송중인 40ton급의 敵船 2隻을 擊沈하고 또 10.40부터 30분간 江華島 南端에 集結한 敵에게 砲擊을 가하여 이를 分散시켰는데 이들은 發動船과 漁船을 利用하여 仁川에 上陸을 기도하려던 北德海軍의 陸戰隊員이었다.

7월 3일 23.00 北傀軍이 富平으로부터 戰車 6台的 엄호하에 約 1個대대 兵力으로 仁川에 侵入하자 仁川警備府는 形勢가 不利하여 부득이 海上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第1艇隊 司令官은 7월 4일 08.00 仁川港近海의 發動船과 帆船全部를 群山方面으로 撤收하도록 하였으며 同日 09.00에는 機關故障으로 出航하지 못한 丹陽號도 修理가 완료되는 즉시 출항하여 仁川撤收를 完了하였다.

## 2. 西海岸 警備

北傀海軍은 南侵當初부터 계획하였던 仁川上陸을 敢行하기 위하여 金浦와 江華島 南端을 中心으로 한 附近一帶에 兵力을 集結하고 發動船과 帆船들을 利用하여 仁川上陸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江華島 南端에 2,000名의 兵力을 海路를 通하여 集結시켰으며 近海에는 北傀海軍艦艇이 出沒하고 있었다.

上記한 北傀軍 1個 대대는 仁川에 이미 侵入하여 警備府의 陸上要員들과 交戰하였는데 我軍이 不得已 海上으로 移動하게 되자 7월 3일경에는 그들이 仁川을 部分的으로 占領하게 되었다.

第1艇隊는 北傀가 江華島일대에 兵力을 集結하고 있다는 정보를 事前에 入手하자 이 海域의 軍事的인 重要性을 인식하고 必死의으로 警戒에 임하던중 7월 1일부터 3회에 걸쳐 『37°以南의 海域으로 내려와서 警備에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美軍艦艇의 艦砲사격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命令을 받았다.

그리고 『我艇隊는 敵을 엄중감시하고 있으며 즉시 砲擊을 要望함. 現在의 狀況으로 보아 第1艇隊艦艇의 37° 以南移動은 곤란하며 당분간 牙山入口를 근거지로 해서 警備를 強化하겠음.』이라는 要旨의 報告를 海軍本部에 打電한바 同本部에서는 7월 3일에 UN海軍에 上記內容을 通報하였다.

第1艇隊司令官은 또한 다음과 같은 內容을 海軍本部에 打電하였다.

『江華島 南端에 集結한 敵은 仁川侵入을 기도하려고 하나 我艦艇의 砲擊으로 인하여 分散狀態에 있음. 따라서 敵은 江華島 南端 맞은편에 있는 永宗島가 占領되면 我海軍의 仁川港警備는 不可能한 상태에 빠지게 되니 即時 空軍機의 폭격을 바라며 동시에 海兵隊의 功績을 要望함.』이라는 報告를 하였다.

7월 4일 海軍本部에서는 PC 701艦(장, 崔龍男 中령)을 仁川으로 直行시켜 第1艇隊를 指揮하고 LST丹陽號와 各種船舶을 群山方面에 撤收시키는 한편 第1艇隊艦艇들은 敵軍의 海上輸送路를 차단하고 仁川港을 확보하라는 命令을 下達하였다. 上記命令을 받은 第1艇隊司令官은 海軍本部에 다음과 같은 行動報告를 하였다.

『仁川港에 있는 LST 801艦은 4일 09.00에 出港하여, 現在 우리 船團에 있으며 港內의 船舶을 港外로 移動시켰고 我軍의 陸·海·警察은 市內에 侵入한 敵과 交戰하였으나 4일

15.00 水原方面으로 移動하였음. 海軍은 18.00까지 對戰하다가 海上으로 撤收하였으며 本艇隊는 계속하여 江華島一仁川港入口의 海上交通 차단을 실시중에 있음.』이라고 報告하였다.

이에 對하여 海軍本部에서는 7월 4일 18.00에 『守備에 萬을을 期함과 동시에 美艦隊와의 連絡을 더욱 保持하라. 그리고 LST 801艦은 仁川病院의 職員과 患者를 승조시켜 一仁群山까지 撤收하라.』고 命命하였다.

그뒤 第1艇隊는 本格的인 西海봉쇄작전을 실시하여 海路를 통한 敵의 侵透를 미연에 저지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海上으로 移動한 仁川警備府는 撤收 仁川에 上陸하여 北陸軍과 對戰하였으나 장비와 兵力의 不足으로 결국 群山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仁川死守를 위해 끝까지 남아있었던 憲兵과 위생병 60명도 死鬪를 하여 보았으나 그 一部는 陸路로 또 一部는 海路를 따라 群山으로 移動하였다.

仁川警備府隊員 60名을 戰鬪指揮한 吳元善 중위는 群山에 가서도 海兵隊 高吉勳 중령이 指揮하는 部隊患者들을 수송치르라고 木浦로 移動하여 JMS 307艇(장, 白雲基 소령)으로부터 木浦道立病院에 海軍野戰病院을 開設하라는 海軍本部의 作戰命命을 받았다. 그뒤 戰事를 앞세우고 陸路를 따라 물길듯이 南下한 敵軍이 全南地方에까지 들어닥치자 甌水를 거쳐 釜山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仁川警備府 參謀長 鄭煥讓 소령

(1965. 6. 28 국방부 군수국장실에서, 준장)

날짜는 확실히 記憶나지 않는데 仁川警備府는 2次로 나누어 海上撤收를 하였다. 第1次는 6월 28일 03.00 撤收命命이 내리고 LST 801艦에 軍人家族 및 軍屬들이 탔다.

28일 03.00에 撤收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09.00에 출항하여 月尾島近海에서 投錨하고 있었다.

그 當時에 나는 警備府隊員들을 이끌고 仁川市內에 돌입하니 敵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며 治安隊員들이 거리를 警備하고 있었다.

그리고 30일에는 我海軍의 헌병대와 警備府隊員들도 仁川市街에 投入되었는데 그 數는 약 200名 정도였다.

그때 當時에 仁川海軍病院에 吳元善 중위가 軍의관으로서 당황하지 않고 移動病院을 開設하여 모든 부상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仁川市街에

들어온 北陸軍과 치열한 對戰을 벌였다.

當時 仁川警備府의 무기는 重機鎗銃 2정과 輕機鎗 2정 그리고 CAR과 九九式 소총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梧柳洞附近에서 彼我間에 戰鬪가 붙었다고 하므로 우리는 鄭上사라는 사람이 약간의 隊員들을 데리고 戰鬪에 참가했다. 이틀동안 계속된 戰鬪끝에 鄭上사는 重傷을 입었다.

7월 3일 밤에는 드디어 敵의 戰車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때는 海軍本部와 通信 연락이 안되었는데 大田으로 移動한 海軍本部에서는 仁川警備府의 動向을 알기 위하여 연락병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海上 및 陸路를 通하여 移動하는 가운데 방어전을 벌였으나 결국 仁川警備府는 群山으로 撤收하고 第1艇隊는 西海봉쇄작전에 참전하였다.

### ◇ 仁川警備府病院 外科課長 吳元善 중위

(1977. 3. 17 三星病院에서, 예 준장)

當時에 나는 海軍 仁川警備府病院의 外科課長이었고 戰爭이 나면서부터 海軍本部와 仁川警備府間의 連絡將校를 兼하였는데, 그위의 撤收까지는 모든 指揮를 하였다.

나는 27일 11.00에 서울의 海軍本部 현관에서 總參謀長代理 金永植 대령으로부터 口頭로 作戰命을 받았다.

그리하여 急히 仁川으로 돌아온 다음 當時 松島에 있는 病院으로 와서 29일 仁川警備府의 협조를 받아 LST 801艦에 警備形 및 病院의 人員과 患者를 싣고 일단 八尾島로 向했다가 아직 仁川에 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情報에 따라 30일 다시 仁川에 入港하게 되었다.

仁川에 다시 와보니 매우 혼란한 狀態였다.

各種 軍部隊가 질서없이 移動하고 있었으며 甕津地區에서 撤收한 陸軍제17연대의 兵力도 이곳에 와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各軍의 부상병을 모두 收容하여 세곳으로 나누었다.

松島의 海軍病院과 仁川道立病院 그리고 市内 申泰範外科病院의 세곳이었다. 7월 3일 저녁에 敵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부터 撤收를 서둘러야겠다 생각하여 急히 松島病院으로 가서 모든 患者들에게 平服으로 갈아입고 水原으로 내려가라고 指示한 다음 仁川으로 들어오는데 重裝備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Jeep車의 Head Light를 끄고 살펴보니 敵의 戰車 3臺가 富津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으며 한참 뒤에서 數의 歩兵 1團 中隊兵力 정도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道立病院과 申外科의 患者들이 걱정되어서 戰車가 부두쪽으로 向하여 가자 나는 市内로 들어가 먼저 道立病院의 경상환자는 모두 平服으로 갈아입고 水原으로 向하도록 指示하였다.

그 외에 重傷者는 모두 10여명으로 記憶된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간류시켜 두었는데 이것이 두고두고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곧 申外科에 가서 경상환자를 水原으로 向發시키고 病院長과 軍의관, 간호장교, 위생병들을 모두 소금

부두(現在의 海軍부두)에 集結하여 징발된 여객선에 옮겨 태웠다.

그리고 나와 위생병 40名, 海軍憲兵隊員 20名과 함께 부두를 死守하기로 決心하고 가까운 水上警察署에 가보니 모두 撤收하였고 사복형사 몇사람이 있어서 국산수류탄 IBox와 九九式 소총, CAR 및 實彈을 얻어가지고 부두에 돌아온 뒤 全員戰鬪配置를 하였다.

이때는 警備府에서 Cal 50重機도 1건 갖고와서 장치하였다.

이날밤 23.00쯤 되니까 道路는 모두 敵이 차단하였고 남은 것은 敵과 交戰하는 길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戰車 1臺가 부두로 들어오고 2臺는 市内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隊員 60名中 11名을 선발하여 戰車를 攻撃하기로 결심하고 수류탄을 들고 포복전진하여 戰車있는 근처에 가서 2층 중구집에 숨어들어 갔다. 거기서 戰車를 向해 수류탄을 던졌는데 1 Box가 떨어지도록 戰車는 파괴되지도 않고 그들의 사격만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때 부두에 있는 우리 대원과 戰車는 계속 총격전을 벌였다.

나는 사태가 不利함을 알고 11名의 隊員들에게 水原을 경유하여 大田으로 移動하라고 命을 하였다.

또 부두에 있는 40名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면 다음 겨우 부두에 도착해보니 날이 밝으면 모두 죽음만이 기다릴 것 같았다.

그래서 海上撤收方法을 강구하다가 우선 부두에 매달려 있는 電線을 타고 海上에 나가보니 마침 고깃배가 있어서 이것을 정박하여 40名의 兵力을 싣고 모두 群山으로 向했는데 이때 病院의 現金도 가지고 나왔다.

群山으로 移動해서 JMS 302艇長 白賢基 소령으로부터 海軍本部 作戰命을 받았는데, 그 內容은 木浦에 海軍野戰病院을 開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敵의 南下로 결국 甕水를 경유해서 釜山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 라. 海軍本部の 動向

韓國戰爭이 발발하던 當時 海軍總參謀長 孫元一은 艦艇구입차 渡美中에 있었기 때문에 海軍士官學校長 金永哲 대령이 1949년 6월 이후부터 總參謀長代理를 맡고 있었다.

6월 25일 04.30에 金永哲 대령이 있는 公館에 海軍本部로부터 비상전화가 걸려 왔는데 東海岸의 玉溪方面의 敵의 Guerilla部隊가 輸送船團에 편승하여 南下하고 있으며 上陸을 開始하고 있다는 情報였다. 이러한 狀況은 鎭海—靈湖—釜山동지에서 계속 報告가 들어 왔다.

이러한 報告를 듣고 金永哲 대령이 직접 國防部에 가본 결과 北僞의 全面南侵을 알게 된 것이다.

國防部에서는 26일 陸·海·空軍의 모든 情報와 狀況을 종합판단한 결과 海軍이나 空軍은 兵力이나 무장면에서 敵과의 戰鬥가 곤란하니 UN軍이 參戰할 때까지 우선 海軍本部를 移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 27일 本部를 移動하게 되었다.

本部는 車輛 100대에 분승하여 水原으로 移動한 다음 國防部에 次後行動을 문의하자 정세판단하에 스스로 行動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水原에는 靈津半島에서 撤收한 白仁燁 대령이 이끄는 제17연대로 와있었다.

27일 밤 本部는 다시 水原을 출발하여 28일 大田에 到着하여 海軍戰鬥司令部를 設置하였다.

6월 30일 金永哲 대령은 美大使館 海軍武官과 會議次 다시 水原으로 出發하여 이곳에서 論議한 끝에 美海軍艦艇의 出動과 함께 韓半島의 東西 兩海上 37° 以北은 UN海軍艦隊가 擔當하고 그 以南의 海域은 우리 海軍이 擔當하기로 合議를 보았다.

또한 30일 23.00 美極東艦隊의 韓國 連絡將校 Roucy 중령으로부터 韓國海軍이 必要로 하는 武器와 兵力增編에 對한 決定이 있었음을 傳해왔다.

7월 1일 08.00 李龍溪 중령은 釜山에서 開催되는 聯合參謀會議에 參加次 鎭海를 출발하였으며 海軍本部는 艦艇의 彼我識別을 위하여 甲板에 太極旗를 계양하도록 示達하고 또한 美海軍艦艇과의 識別을 分明히 하기 위하여 靈南艇을 515艇, 忠武公艇을 313艇, 九龍艇을 106艇으로 改稱하고 艦名의 塗裝을 命令하였다. 7월 2일에는 美艦艇이 注文津과 江陵方面에 大대의인 艦砲사격을 開始하였다.

또한 本部는 國防部 및 陸軍本部 作戰指揮部內에 海軍連絡所를 新設하고 동일 鎭海 統制府司令官은 海運公社 船舶도 徵發運用하게 하였다.

## 2. 空軍의 初期作戰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참조: 법제부도 제18호  
상 황 도 제31호

### 가. 概 要

#### (1) 敵軍의 狀況

8.15 해방 以後 U.S.S.R은 北韓전역에서 共產黨으로 하여금 各급 人民위원회와 治安隊 그리고 赤衛隊를 조직하여 실권을 장악케 하였으며 이른바 민주청년동맹을 편성하여 청년들을 포섭함으로써 兵力요원을 확보하는등 南侵력을 強化하는 동시에 空軍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부터 平壤, 定州, 新義州, 清津비행장을 整備하고 기술자들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新義州에서는 李潤, 林雲峯 金明河, 康大鏞등을 중심으로 50명의 기술자가 모여서 「新義州항공대」를 창설하고 각지방으로부터 소위 열성분자라는 者들을 선발하여 操縦과 整備 그리고 通信의 세가지 교육대로 분류하여 각 30명씩 入隊시킨 다음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뒤, 北韓에 進駐하고있던 蘇 공군의 「역심」소파가 北傀항공대의 第1代 고문관으로 취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렇게하여 그들은 1946년 2월에 新義州항공대 제1기생 교육을 끝낸다음 제2期生 16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海外로부터 귀국한 항공기술자등 도합 400명으로 증가되자 5월에는 훈련장소와 항공대를 平壤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6월에는 항공대를 「平壤정치학원」이라고 改稱하는 동시에 제1期生(항공대 제3기생) 200명을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10월에 이학원 제1기생이 졸업하자 이들과 항공대 제1, 제2期生 가운데에서 기술과 성적이 우수한 이른바 熱誠分子 300명을 선발하여 U.S.S.R에 파견, 기술을 습득케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달에 平壤정치학원을 다시 「平壤학원」이라고 개칭하는 한편 제 2 期生으로 500명을 선발하여 입교시킴으로써 空軍의 시초가 되었다.

이어 그들은 1948년 6월에 平壤학원을 「항공연대」로 改編하는 등 기구확장을 꾀하였으며 12월에는 U. S. S. R軍의 철수를 계기로 연대본부를 平壤市 美林里에 두고 그들로부터 引受한 전투기와 정찰기 및 輕폭격기 등 多數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49년 初에 敵空軍은 北傀軍에하의 1個 독립군으로 창설되고 3月初에는 「朝·蘇군사비밀 협정」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무기搬入을 開始하였으며, 이 협정에 의하여 U. S. S. R은 그들의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였다.

이와같이 그들은 국제적인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南校준비에 박차를 加하는 한편 激次에 걸쳐 U. S. S. R에 기술자를 파견, 양성하는등 전투기의 도입과 함께 空軍力을 증강하였다.

그 결과 8월에는 YAK-9型和 IL-10型 등의 蘇製 전투기를 多數 반입하고 항공연대를 「항공여단」으로 확충, 개편하여 諸般 훈련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U. S. S. R의 支援를 받은 北傀는 1950년 6월 25일 南校當時에 조종사 200명을 포함하여 도합 5,000명의 병력과 實戰用전투기(YAK-9型, IL-10型) 2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 (2) 我軍의 狀況

8.15 해방과 더불어 日本과 中國 등의 海外에서 航空界에 종사하던 항공인(조종, 정비, 통신, 기상, 무장)들이 귀국하였다.

그런데 이때에는 陸, 海軍의 前身인 朝鮮경비대와 朝鮮해안경비대는 이미 창설이 되어 그 발전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항공인들이 투신할 항공부대는 아직 창설을 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航空人들은 1946년 8월 10일에 민간단체인 「韓國항공건설협회」(장, 崔用德)를 창립하여 항공思想의 보급과 나아가서는 항공부대 창설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이 협회의 간부와 항공계의 지도급인사인 崔用德, 張德昌, 李英茂, 朴範集, 金貞烈, 李根植, 金英煥 등은 항공부대창설을 關係要路에 전의키로 하고 우선 散在한 항공인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때, 韓國에는 500여명의 항공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조종사가 90명이며 나머지는 정비, 무장, 통신, 기상등 항공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끝낸뒤 항공계 지도급 人士들은 1946년 9월에 統衛部長인 柳東說과 항공부대창설에 대하여 교섭하는 한편 통위부 정브국장 代理인 金英煥 副團長는 朝鮮경비대의 美고문관인 Price 대령과 구체적인 교섭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8년 3월에 美軍政당국에서는 朝鮮경비대에 輕비행기 부대를 창설

한다는 前提 아래 우선 항공인 3名을 통위부 顧問으로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항공계 지도자들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美軍政당국은 前述한 顧問추천을 縱意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항공계의 지도급人士들은 과거에 日本軍이나 中國軍에서 종사한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美式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朝鮮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그들은 異見이 紛紛하였으나 결국 보병학교에 入校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4월 1일에 崔用德, 張德昌, 李英茂, 朴範集, 金貞烈, 李根哲, 金英煥 등 7名은 水色에 있는 보병학교에 入校하였다.

그뒤 이들은 2개월간에 걸쳐서 美式군사훈련을 받고 6월 1일에 다시 泰陵에 있는 朝鮮경비사관학교에 入校하여 2週間の 사관후보생 교육을 수료한 다음 15일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한편 통위부에서는 통위부 직할부대로서 水色에 「항공부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白仁燁소령을 임명하였다.

이해 6월 23일에 항공부대는 統衛部로부터 朝鮮경비대로 예속되었으며 7월 9일에는 白仁燁소령의 후임으로 7名 가운데서 崔用德중위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와같이 항공부대가 창설되자 간부들은 항공계 출신이면서 朝鮮경비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朴元錫소위와 張志良소위를 항공부대로 편입케 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항공계에 종사한 500여명 가운데에서 105명을 선발하여 항공병 제1期生으로 입대시키는등 그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27일에는 항공부대를 金浦로 이동하는 동시에 「항공기지부대」로 改稱하였으며 9월 1일에 다시 金浦비행장내로 이동하였다.

이와같이 부대가 창설되고 兵力이 충원되었으나 항공기지부대에는 아직 1機의 비행기도 없었다.

그리하여 간부들은 직무훈련이란 명목으로 韓·美합동근무를 실시하여 부대발전을 촉진하면서 항공기 入手에 실험을 기우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9월 13일에 美軍으로부터 L-4機 10機를 引受하고 부대명칭도 「항공군사령부」라고 改稱하는 한편 이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는 등 전반적인 기구개편을 실시하였다.

이어 15일에 L-4機 10機는 서울상공에서 처음으로 시위 비행을 실시하고 또 19일에는 항공병 제2기생 397名을 入隊시켰다.

또한 10월 21일에는 麗·順반란사건 진압에 참가하였는데 이동중에 다시 美軍으로부터 L-5機 10機를 引受한 결과 항공군사령부는 도합 20機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획기적인 발전을 본 同사령부는 1948년 12월 1일에 朝鮮경비대가 陸軍으로 개편됨에 따라 陸軍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다.

한편 이 부대는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1949년 1월 14일에 陸軍항공사관학교를 金浦에 설치하는 한편 여자항공대를 창설하여 제1기생 15명을 입대시켰다.

또한 이날 항공병 제3기생 326명을 入隊케 하는등 병력확충에 노력한 결과 4월 15일에는 장교가 도합 150명에 달하였다.

1월 14일에 설치된 항공사관학교는 3월 15일에 現役士兵中에서 우수한자 45명을 제1차 소집학생으로 선발하여 入校시킴으로써 開校를 보았는데 同校는 5월 31일 金浦비행장안으로 兵舎를 이동하고 6월 10일에 제1기 士官후보생 97명을 入校시켜 본격적인 軍간부요원 교육에 착수하였다.

이와같이 항공군사령부는 麗·順반란사건과 濟州島폭동사건 및 淸津地區등에 출동하여 지상군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병력확충과 기타부문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간부들은 空軍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간부들은 정부고위층 人士들과 美 고문단측에 空軍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1949년 4월에 항공사관학교장 金貞烈중령은 「航空의 警鐘」이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관계요로에 배부하면서 공군독립과 장비의 현대화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해 6월 28일에는 국방부 別館內에 항공국을 설치하는 등 공군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뒤 10월 1일에는 마침내 대통령령 제 254호에 의거하여 1,600명의 兵力과 20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陸軍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軍으로서 陸·海軍과 鼎立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初代 총참모장에 金貞烈대령이 보직되어 독립된 軍으로서의 기구를 개편하는 등 발전을 도모한바 12월 17일에는 본부청사를 국방부 別館內에서 中區 會賢洞으로 이동하는 한편 金浦와 汝矣島기지이외에 濟州島, 光州, 大邱, 蔚山, 水原기지를 관할하고 여기에 各 기지부대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공군력 강화를 위하여 空軍은 美國과 항공기 지원에 대한 교섭을 폈으나 無爲로 끝나 결국 소국민에게 이를 호소하여 1950년 5월 14일에는 Canada로부터 T-6機 10대를 구입하였다.

이와같이 空軍은 1946년 민간단체인 항공건설협회로부터 출발하여 迂餘曲折을 거치는 가운데 1個 독립된 軍으로 발전한바 전쟁勃發당시에는 병력 1,800여명(조종사 90명포함)과 항공기 24대(T-6機 10대, L-4機 8대, L-5機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初期作戰 (1950. 6. 25~27)

##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비행단장 대령 **李根植**

## (2) 전투전의 개황

敵은 蘇聯으로부터 數次에 걸쳐 實戰用 전투기의 지원을 받는등 南侵준비를 진행하며 전쟁勃發당시에는 2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平壤에 항공사단사령부를 두는 동시에 穩橋里비행장에 YAK機 80대를 배치하였으며 또 新營기지에 同機 20대, 元山 기지에 IL-10機 60대, 平康기지에 同機 20대, 連浦기지에 同機 20대를 각각 배치하고 침략의 기화만을 엿보고 있었다.

이와같이 계획적인 南侵준비를 완료한 그들은 6월 25일 04.00를 期하여 인제히 南侵을 開始하였는데 당시 北傀空軍은 韓國空軍을 과소 평가하고 그들의 공군력만으로도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으로 主공격목표를 비행장과 교통시설에 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陸軍으로부터 독립한 韓國공군은 前線한바와 같은 敵의 막대한 전력증강에 비하여 5월 14일에 T-6機 10대를 구입하는등 전력강화에 노력하였으나 敵의 기습南侵을 받은 當日에는 汝矣島비행장에만 24대의 輕항공기가 있었을 뿐, 전투기는 1대도 없었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敵의 우세한 戰力에 비하여 我空軍은 1대의 전투기도 없는 실정이었으나 그들의 침략에 勇戰분투하는 지상군의 苦楚를 坐視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연습기인 L-型 및 T-6機로써 그들의 南進을 저체시키고 또한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키로 하였다.

즉, 25일에 일단 전선일대를 정찰한 然後에 26일부터 L-型 및 T-6機에 폭탄을 적재하고 抱川—東豆川—汝山—議政府 등으로 출격하여 敵兵 및 차량행렬에 폭격을 가한바 포함 138회에 달하였는데 기간중의 작전상황을 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6월 25일** : 이날 10.00에 처음으로 敵機 2대가 金浦와 汝矣島기지를 정찰하고 北으로 사라지자 비행단장은 敵機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공기를 분산, 대피토록 하는 한편 守비행단에 敵機대습을 경고하여 경비를 강화케 하였다.

또한 外出에서 귀대하는 장병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비행단內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여 각종대장들과 戰況을 건토하면서 이에 대한 작전을 협의하였다.

그결과 현보유기로서 그들의 南下를 저지하면서 지상군 작전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전선 상황을 정찰하였다.

즉, 敵機는 이날 12.00와 16.00에 金浦와 汝矣島기지에 기총사격을 加하는등 威脅을 增加하고 있으므로 비행단에서는 그들의 出沒이 頻한 해결 무렵에 T-6機로 出격하였다.

이날 T-6機 3대는 그들의 主要南侵路로 判定되는 春川과 汝山 그리고 抱川—東豆川方面을 精査한 결과 春川方面에서는 아직 敵이 보이지 않았으나 抱川—東豆川—汝山方面에서는 戰車를 앞세운 기동부대가 南下하고 있음을 알았다.

비행단장은 이러한 敵情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한편 이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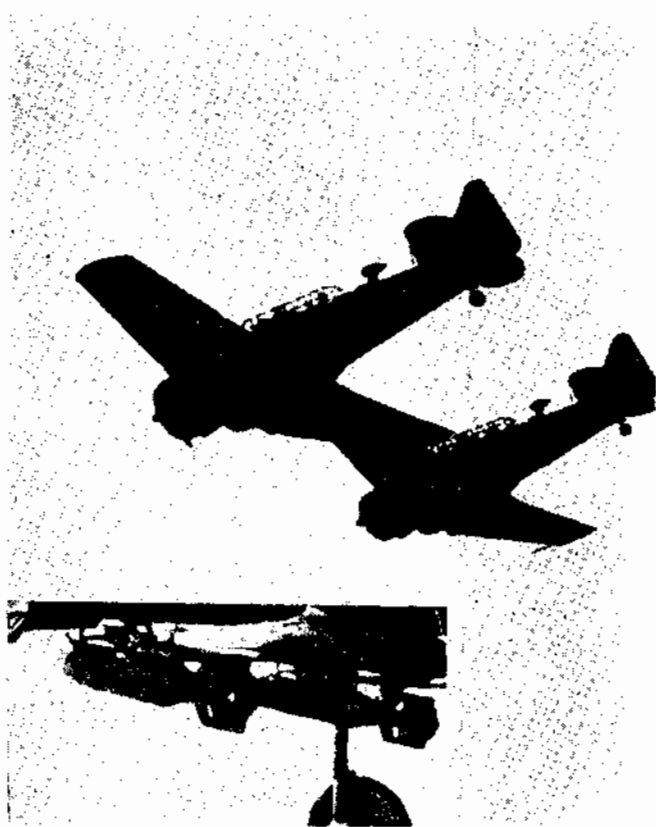
즉, 陸軍 飛行정본부(장, 金國奎소령)에서 시험제작한 폭탄(15kg, 274개)을 T-6機에 裝착, 投下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정비중대(장, 徐武甲대위)에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同團에서는 야간경계를 더욱 強化하면서 정비반요원들은 철야작업을 실시하여 이 장치를 완료하였다.

6월 26일 : 이날 비행단에서는 敵機의 출현을 警戒하여 05.00부터 출격을 전개한바 T-6機는 8~10개의 폭탄을 裝착하고 東豆川—汝山—開城으로 출격하였으나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所期의 戰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L-型항공기에는 이러한 폭탄투하장치를 만들 수가 불가능하므로 하는 수 없이 후방석에 偵察士가 폭탄을 안고 동승하여 전신을 精査하다가 목표를 포착하면 급강하 하면서 폭탄을 손으로 던지는 방법까지 採擇하였다.

또한 同團에서는 東·西 兩해안 및 38°線일대에 걸친 公중정찰을 실시한바 敵 주력부대의 위치와 병력, 그리고 기동부대의 병력 및 尖端들을 탐지하고 我軍의 전투상황을 精査하여 陸海空軍 합동지휘소에 보고하는 임무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戰線으로 출격하는 T-6機〉

한편 이날 오후에 T-6機로 출격하던 비행단장 以下 10名の 조종사가 F-51전투기 引受次로 渡日하자 T-6機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3명 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空軍에는 과거에 비행경험이 있는 조종사가 80여명 이었으나 T-6機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同機 훈련반에는 13名밖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조종사들은 아직 T-6機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戰勢가 不利한 이때에 항공기를 그대로 놓아두고 敵의 南下를 傍觀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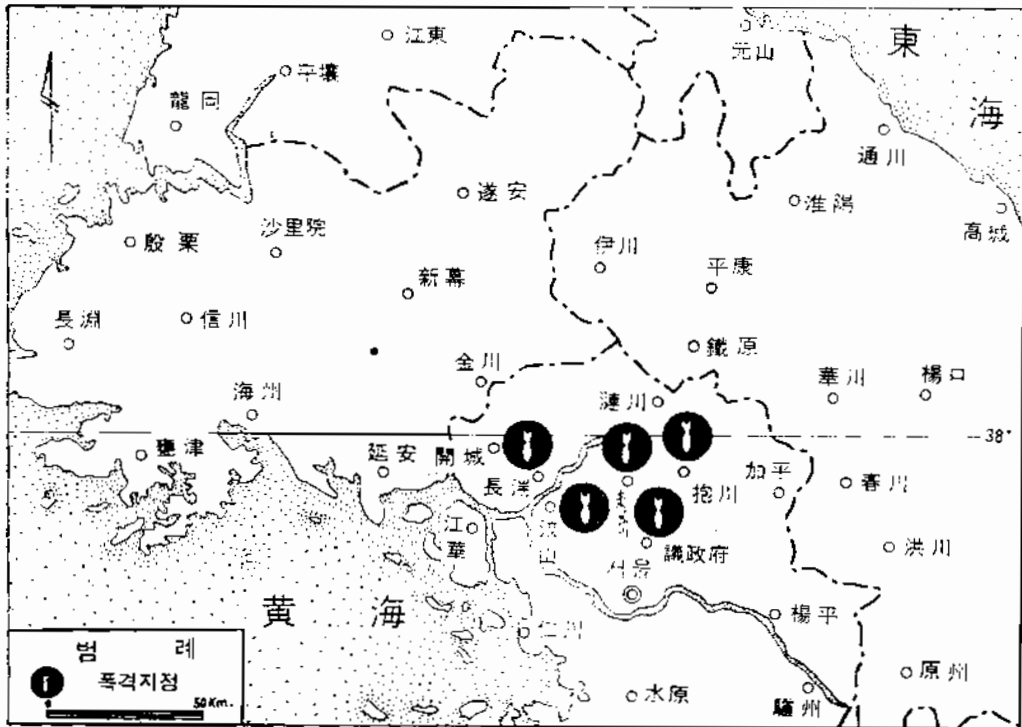
그리하여 그동안 L-型항공기를 조종하던 金斗萬중위, 尹應烈중위, 李康和중위를 비롯하여 吳春陸중위와 田鳳熙중위 그리고 金良煜중위와 李世英중위 등은 한번도 타보지 않은 T-6機를 교관도 없이 단독으로 조종하여 훈련점 전투를 감행하였다.

**6월 27일** : 이날 이른 아침부터 L-型 및 T-6機는 議政府-汶山으로 출격하여 敵兵 및 차량행렬을 강타하였다.

初期의 敵은 戰車를 앞세우고 일렬종대로 南下하므로 공격이 용이하였으나, 점차 대공사격이 심하여지고 또 敵機를 경계하여야 하므로 속도가 느린 輕항공기로서의 작전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조종사들은 목표를 도착하는 즉시로 급강하 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다음 곧장 기지로 귀환하여 다시 폭탄을 장착하여 출격하는등 필사적인 작전을 敢行하였다.

◇상황도 제31호 初期作戰 (6.23~27)





이와같이 이날 同團에서는 쉴사이 없이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오후에는 폭탄 274개 마저 消盡하였으므로 조종사들은 목표를 보고도 공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억제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敵情과 지상군의 전투상황을 정찰하여 陸海空軍 합동지휘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전환하였다.

#### (4) 전투후의 개황

기간중 空軍은 연습기로써 필사적인 출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戰況을 정찰하는등 지상군 작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군이 보유한 L-형 및 T-6機가 投下하는 폭탄으로써는 그들의 戰車형렬을 격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敵은 빠른 속도로 南侵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27일 오후에 그들은 彌阿里부근까지 侵入하였으므로 비행단을 비롯한 空軍 各부대는 次期 작전을 위하여 서울以南의 기지로 이동하였다. 期間中에 비행단이 전개한 作戰의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 戰 果

橋梁 폭파 4개소  
 車輛 파괴 6輛  
 船隻 파괴 2隻  
 野砲陣地 폭격 2개소  
 보급품 집적소 폭격 1개소  
 敵兵 殺傷 130名(推定)

#### § 參戰者의 證言

##### ◇비행단 출격조종사 姜鎬倫대위

(在美, 공군문고 제4권「날개의 성지」에서 발췌)

開戰 첫날이었다. 나는 汝矣島비행단에서 주 비행사령관무슨 하고 있었다.

이날 새벽에 美고문관 Swinks 소령이 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이때 직감적으로 「38°線에서 흔히 일어나는 조그마한 분쟁이 또 일어났구나」라고 짐작하였는데 09.00에 敵의 전투기가 나타나서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을 보자 종래의 그것과는 다른 심상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즉시로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한편 비상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장병들의 대부분이 外出하고 없었기 때문에 모든것이 뒤송송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敵機는 다시 백를 지어와서 비

행장을 폭격하고 갔다.

이때에 나는 사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에도 바쁘기 그지없었다.

또 敵機 來襲中 화기도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서서는 반격도 못하고 안타깝게 방관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때의 안타까운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그러자 또 YAK機 4隻가 金浦비행장방면에 나타나서 그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갔다.

이때 우리들은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행기가 없어서 타지 못하는 설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맛보았다. 아마 평생에 있어서 가장 忿痛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도 이날 저녁 18.00경에 비행단장 李樹植대령을 비롯하여 張盛煥중령 등이 T-6機 보씨 議政府방면을 정찰하였고 또 金英煥중령 역시 汝山방면을 정찰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T-6機에 폭격장치를 하였다.

이때에는 우리에게 전투기는 1架도 없었고 보

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연락기인 L-4, L-5機와 T-6機 뿐이었는데 T-6機에는 폭격장치를 하였지만 L-型機는 이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폭탄 2개를 가슴에 안고 출격하였는데 이것은 세계항공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때 敵의 戰車 및 차량량렬 약 700여대는 東江川으로부터 議政府까지 내려 깔려 있었고 그것이 직선으로 곧장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이것을 向하여 안고 갔던 폭탄을 손으로 내던졌던 것이다.

敵의 대공포기는 우리에게 미친듯이 불을 쏘아 내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은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특히 우리는 무무장기인 까닭에 만약 도중에서 敵의 전투기와 만나다면 형편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기 때문에 敵機가 뜨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또는 敵機를 피해서 출격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참으로 눈물겨울 지경이었다.

이러한 위험속에서도 우리는 실사가 없이 출격을 敢行하여 가지고 있던 폭탄 274개를 전부 사용하였다.

하여튼 6.25당시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저 분하고 눈물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다.

#### ◇비행단 출격조종사 金斗萬중위

(1977. 3. 19 서울시 忠武路 대한종합식품 주식회사에서, 예 대장)

1950년 6월 26일 오후에 비행단장 李根哲대령을 비롯한 10명의 조종사가 F-51전투기 引受次 [日本으로 떠나자 T-6機는 9臺(1臺는 敵機의 폭격으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사용불능케됨)가 남아 있는데 이를 타고 출격할 수 있는 조종사가 3-4명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T-6機가 도입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훈련을 마친 조종사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 尹應烈, 金尙烈, 李康和, 田原熙, 吳春陸중위등)는 이때 L-型항공기는 타고 있었지만 T-6機에 대한 교육은 아직받지 못한채 戰爭이 勃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敵은 계속 南下하는 위급한 상황아

래에서 T-6機를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은 우리에게 『너희들 T-6機를 탈 수 있겠느냐?』라고 물기에 우리는 『명령만 내리시면 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새로 들어온 T-6機였기때문에 L-型機를 타고 있으면서 T-6機를 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자연히 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므로 T-6機에 대한 제원 및 기능을 대강 알고 있었고 또 L-型機와 비슷하기 때문에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전황은 조금의 혼란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우리는 27일 이른 아침부터 T-6機에 8~10개의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하였는데 고관도 없이 스스로 전투하면서 T-6機에 대한 모든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출격한것이 27일 아침이었다. 朴範集대령이 나를 불러서 갔더니 『지금 T-6機를 타고 가서 汶山철교를 폭파하고 오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T-6機(103號)를 타고 출격하였는데 이때 氣象이 좋지 않아 구름이 낮게 덮여 있었다. 이것이 T-6機로써 첫출격이라는 조심스럽게 비행한바 구름 밑으로 내려가 低空비행을 하였다.

이윽고 목표상공에 이르러 목표를 포착하고 폭격을 加하려고 보니까 高度가 너무 낮은 것 같았으나 그대로 강하하면서 폭탄을 投下하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機體가 失速을 하면서 異常자세가 되어 그냥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거의 지상 가까이 가서야 겨우 機體가 바로 잡혀 조종간을 잡아채어 상승하여 計器를 살펴 본즉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마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에 氣象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이때 특히 위험하였던 것은 機體가 그렇게 내려갈때 밑에서는 내가 投下한 폭탄이 폭발하여 파편과 흩덩이가 기체위로 올라와 하마드면 내가 내폭탄에 맞을뻔 하였다.

기지로 돌아와서 機體를 점검하여 보니 兩翼 밑부분에 파편이 박혀 우들두들하였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T-6機로써의 나의 첫 출격이었다.

## 다. 戰時編成과 活動 (6.27~7.4)

###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총참모장	준장 金 貞 烈	사령관 대령 張 德 昌
(결, 비행단장 6월 27일부터)		원병대 장 중령 金 得 龍
사관학교 장 준장 崔 用 德		병원 장 중령 朴 乾 源
항공기지사령부		여자항공대 장 대위 李 貞 勳

### (2) 전투전의 개황

開戰 초기에 있어서 陸軍은 점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처음부터 我軍을 알본 그들은 빠른 속도로 南侵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26일 오후에는 議政府를 점거하고 서울을 向하여 南下하였다.

이와같이 戰況이 급박하여져 서울이 실향위기에 처하자 空軍은 次期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以南의 기지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26일 24.00에 申性樸 국방부장관은 장관실에서 3軍 총참모장(海軍은 金永哲대령이 대리참석함)을 참석케하여 국방수뇌회의를 개최하였다.

즉, 26일 오후에 벌써 議政府가 敵에게 점령되었을 뿐아니라 당시의 정세로서는 UN軍의 參戰이란 예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이에 各軍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同 회의는 27일 새벽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陸軍은 最善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며 海空軍은 陸軍의 作戰을 계속지원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은 27일 12.00에 汝矣島기지에서 傘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수뇌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空軍의 행동방침을 결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비행단은 총참모장이 직접지휘하며 전투요원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基幹으로하여 水原기지로 이동한다.
- ② 사관학교장은 항공기지사령부, 사관학교, 원병대의 일부 병력으로써 金浦地區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金浦기지를 방어한다.
- ③ 병원은 大邱, 群山, 平澤의 3개기지에 野戰병원을 설치하여 各軍의 부상병을 치료한다.

④ 수송대(2 1/2ton트럭 16臺 : 空軍의 소보유대수)는 金浦기지에 있는 T-6機 연료를 大邱—大田—水原 기지로 수송한다.

⑤ 비행단의 전투 및 야전병원 그리고 金浦地區정비사령부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該부대장이 지휘하여 서울以南의 기지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침은 긴박한 戰勢下에서 비행단의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에 따라 各部隊는 27일오후부터 이동을 개시한바 그 경위 및 활동상황을 部隊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本部의 概況

본부요원 가운데에서도 비행단의 작전에 관련되는 장병은 이미 비행단으로 편입하였으며 나머지 요원들은 지휘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밀서류를 정리 소각하고 이동준비를 진행하였다.

오후가 되면서 戰勢가 더욱 위급하여지자 인사국장 韓鏞顯중령을 비롯한 본부참모들은 서울 市廳에서 징발한 트럭(청소차) 10臺에 병력과 식량을 싣고 27일 17.30에 본부를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20.00에 水原중학교에 도착한 다음, 1泊하였는데 28일에는 漢江橋가 폭파되고 서울이 점령되는 등 戰勢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본부는 다시 大田으로 이동하였다.

즉, 이날 12.00에 水原을 출발하여 17.00에 大田에 도착한 다음 大田여자중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이동하는 각부대를 정비하였다.

#### (나) 飛行團의 概況

飛行團은 敵이 彌阿里부근에 이르렀을 때까지 출격을 續行하다가 27일 19.30에 汝矣島기지를 출발하였다.

즉, 전정勃發 이전에는 各部隊에 산재하여 근무하던 전투요원(조종, 정비, 무장, 통신, 기상등)을 전정발발 이후에는 비행단에 편입한바 비행단 요원은 도합 500명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총참모장은 23臺의 항공기를 진두지휘하여 19.30에 출발하였으며 기타 요원들은 金英哉소령의 지휘아래 트럭에 정비기재와 장비를 싣고 22.00에 水原기지에 도착하였다.

이와같이 水原기지로 일단 이동하였으나 28일에 戰況이 더욱 不利하게 되자 다시 총참모장은 大邱기지로 이동기로 결정한바 이날 11.00에 비행기를 진두지휘하여 大邱기지로 向하였다. 그러나 日氣가 不順한 까닭에 僚機들은 長機(金貞烈준장)를 따르지 못한채 大田기지에 착륙하였다.

총참모장은 곧장 大邱기지에서 水原기지로 돌아와 Muccio대사로부터 『美軍이 參戰하기

로 결정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陸軍 총참모장 蔡秉德소장과 연락을 취한뒤 水原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는 한편 비행단의 主力은 大田기지에 주둔케하고 水原기지에는 L-형 항공기의 일부를 두어 前進기지로 삼았다.

이와같이 비행단은 大田, 水原 兩기지에 주둔하면서 陸軍의 작전을 지원하였으나 7월 1일 전선의 南下와 함께 다시 水原의 작전지휘소와 L-형 항공기를 大田기지로 이동하여 T-6機와 合流한 다음 이 기지에서 작전을 續行하였다.

#### (다) 金浦地區 各部隊의 概況

金浦地區에는 士官학교, 항공기지사령부, 헌병대, 보급창, 여자항공대, 병원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

25일 비상소집령이 있게되자 外出中이던 장병들은 부대로 집결하여 戰鬥態勢에 들어갔고 항공기지사령부의 경비중대(장, 金相鶴중위)에서는 경비를 강화하면서 敵機 來襲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26일 오전에 사관학교장 崔用德준장은 江華방면에서 敵이 南下한다는 정보를 듣자 空軍의 發祥地인 金浦地區를 방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끝에 공군본부와 연락을 취하여 金浦地區 경비사령부를 편성하였다.

즉, 항공기지사령부의 基幹장병 중에서 50명을 차출하여 제1중대(장, 金相鶴중위)로 하였으며 또 士官학교를 中心으로 50명의 基幹장병을 뽑아 제2중대(장, 金圭愼대위)로 하였다.

그리고 사령관에는 崔用德준장, 참모장에 洪允範소령으로하여 장병들에 M1및 38式소총과 실탄 및 장비물 지급하였다.

그뒤 이날 16.00에 5輛의 트럭에 분승하여 金浦현으로 나아가 그 北西쪽에 있는 2개의 稜線上에 1개중대씩 각각 배치하였다.

中隊員들은 陣地를 구축한 뒤 敵을 경계하였는데 27일 오전에는 陸軍이 陣地앞을 지나 후퇴하였으며 또 오후에는 그들의 유탄포가 陣地전방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同 사령부는 우선 그들의 砲사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2km후방으로 이동하는 한편 본부와의 연락을 취하고자 참모장을 보냈으나 이미 본부는 水原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 사령부는 28일 14.00에 崔用德사령관의 지휘아래 水原으로 移動하였다가 같은날 다시 大田으로 이동하였다.

그뒤 사령부요원들은 大邱 및 群山등의 각기지부대에 배치되어 기지보수 및 경비를 하면서 비행단의 작전에 협력하였다.

한편 士官학교의 生徒(제1기사관후보생)를 비롯한 기타 장병들은 徐漢浩중령의 인솔로 그리고 金浦地區경비사령부요원을 제외한 항공기지사령부 장병들은 張德昌대령의 지휘아

래 27일 17.00에 金浦를 출발하여 始興을 경유 22.00에 水原의 梅山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28일에 다시 大田으로 이동한 뒤 각 기지부대에 분산배치되어 차기작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공군병원은 大邱와 群山 및 平澤기지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27일 18.30에 朴天主소령이하 7명을 大邱로, 崔鍾元소위이하 4명을 群山으로 高永哲중위이하 4명을 平澤으로 각각 파견하였다.

여자항공대는 공군본부로 일단 예속하였다가 27일에 歸家조치하였다.

한편 헌병대는 28일 오전에 金得龍중령 지휘아래 金浦에서 水原으로 이동하여 농림시험장에 주둔하면서 水原비행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바 7월 1일에 金得龍중령은 鄭榮煥중위를 비롯한 20명의 隊員으로 하여금 이른바 決死隊(장, 鄭榮煥중위)를 조직케 하여 『汝矣島기지에 침입한 敵을 격퇴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鄭榮煥중위는 2일 01.30을 期하여 汝矣島기지를 점거한 敵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그러나 06.00에 수미상의 敵이 다시 侵襲하자 隊員들은 즉시 이에 응사하였으나 鄭榮煥중위는 衆寡不敵으로 판단한 끝에 대원들을 이끌고 水原으로 철수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隊員 1名이 戰死하고 3名이 부상하였다.

그뒤 헌병대는 3일에 平澤으로 이동하여 기지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 (4) 전투후의 개황

기간중 空軍은 부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점차 각부대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즉, 본부와 비행단은 大田에, 헌병대는 平澤기지에 주둔하였으며 金浦地區의 각 부대는 大邱와 群山 등의 각기지 부대에 분산 배치하여 기지보수 및 경비임무를 遂行하면서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敵은 漢江을 도하한다는 南進을 계속하여 7월 4일에는 大原부근에까지 이르렀다.

#### § 參戰者의 證言

##### ◇총참모장 金貞烈준장

(1977. 3. 2 서울시 中區 東子洞 정우개발 주식회사에서, 예 중장)

6월 27일 01.00에 國防수석회의가 끝난뒤 나는 곧장 空軍본부로가서 朴範集대령에게만 회의 내용을 전하고 내사무실에 앉아 총참모장으로서는 空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深思熟考하였다.

이에 언론 떠오르는것은 부하장병앞에서 태연 자약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내가 輕率妄動을 한다면 軍전체는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戰況이 不利한 이때에 「作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것이 분세였다.

이때 내가 생각한것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 지 않은 후방요원과 전투요원(조종, 경비, 무장,

통신)을 분리하여 후방요원은 서울以南의 각 기지부대에 분산배치시켜 次期작전을 위한 임무를 담당케 하고 각부대에서 근무하는 전부요원을 차출하여 이로써 비행단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하여 나는 10.00가 지나도록 아무런 기척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본부 참모들에게 『기밀서류를 정리하여 소각하라. 그리고 韓國은행에서 우리 空軍의 예산을 찾아라.』라고만 지시하였다.

그뒤 12.00에 汝矣島기지에서 소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前線한파와 같은 나의 견해를 말하면서 『나는 비행단을 직접지휘하며 상공에 따라 水原-大邱-金海기지로 이동하면서 작전을 續行한다. 그리고 기타 작급부대장은 비행단과 행동용 같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대병력을 후방의 각기지부대로 이동하여 次期작전에 대비하기 바란다.

그러나 우리 空軍이 보유한 모든 트럭은 金浦에 있는 T-6機用 휘발유를 후방기지로 수송하여야 하므로 부대이동에 소요되는 차량은 일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나 작급 지휘관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동하기 바란다.』라고 力說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비상조치를 취한것은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데에 力點을 둔것으로서 당시 공군의 수송여건이 후방부대의 이동을 지원할 장비가 없을 뿐만아니라 戰況의 긴박도가 더하여 가므로 이를 打開키 위한 蒸肉之策이었다.

이날 오후가 되면서 戰勢가 더욱 惡化되어 나는 더이상 서울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판단한 끝에 18.00에 철수를 결심하고 23대의 비행기를 진두지휘하여 비행단을 水原기지로 이동케 하였다.

#### ◇金浦地區경비사령부 참모장 洪允範소령

(1977. 3. 22 서울시 冠岳區 上道洞 自宅에서, 예 대령)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나는 官舍(金浦所在)에 있었는데 아침 일찍 비상소집령이發表되어 Jeep를 타고 급히 부대(항공기지사령부)로 간혹 다른 장병들도 하나 둘 집결하

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난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병들이 거의 모두 집결하였는데 『우리는 空軍의 지상부대로서 敵이 쳐들어 온다는데 가만히 있을수 있느냐 그리고 金浦는 空軍의 발상지인만큼 이분 방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때의 寒論이었다.

그러하여 空軍本部와 연락을 취한다음 上官학교장인 崔用德소령을 사령관으로하고 내가 참모장이 되어 「金浦地區 경비사령부」를 편성하였는데 이때 金浦에 주둔하고 있는 上官학교와 항공기지 사령부의 基幹장병을 차출하였다. 그런데 이 100명중 되었기때문에 이를 2개중대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항공기지사령부의 장병들을 제 1중대(장, 金相鶴중위)로 上官학교병력을 제 2중대(장, 金基徹대위)로 하였다.

이와같이 편성을 완료한다음 장병들에게 칼빈 소총 1기와 실탄 및 병참보급품을 지급하여 이날 16.00에 트럭 5대에 군수물자를 싣고 金浦邑으로 나아가 그 北西쪽에 있는 稜線(△44)에 도로를 중심으로 左右측에 각 1개중대씩 배치하였다.

그리고 지휘반은 邑內의 西端에 있는 民家를 택하여 설치하였다.

우리의 임무란 물론 金浦地區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陸軍부대와 협력하여 敵情을 살피서 空軍本部에 보고하고 또 陸軍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때 陸軍에서는 崔중령(이름은 기억못함)이 金浦경찰서에 지휘본부를 두고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배치장소는 모름). 그래서 崔用德사령관과 나는 金浦경찰서로 가서 『우리가 부대를 편성하여 경비에 임하고 있으니 잘 협력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陣을 취지 3일째인 27일 오전에는 江華島전면의 開城방면에 배치하고 있던 육군부대가 우리앞을 지나 후퇴하므로 어떻게 될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오후가 되니 敵의 榴彈砲彈이 우리 부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砲사거리 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고 崔用德사령관과 협의한 끝에

兵力을 金浦비행장쪽으로 2km후퇴시켜 재배치하고 지휘본부도 그 근처 부락에 설치하였다. 이때가 20.00쯤 되었는데 칠혹같은 밤에 비는 억수같이 내렸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본부와는 연락이 안될 뿐아니라 우리와의 연락책임을 맡았던 사관학교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므로 내가 직접 사관학교로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먼저 항공기지사령부에 들어가본즉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으며 다시 사관학교에 가보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官舎로 갔는데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張志良소령宅앞을 지나칠때 안에서 인기척이 나므로 들어가보니 張志良소령의 당번이던 士兵이 학질에 걸려서 앓고 있었다. 그 士兵에게 『어떻게 된것이기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조금전에 모두 南으로 내려갔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서는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없으므로 敵情을 보고할경 공군본부로 報를 물었다.

부관인 金聖培중위와 함께 Jeep車를 타고서 제1한강교 가까이에 이르렀을때 맞은편에서 陸軍소위 1명이 1개분대병력을 이끌고 오다가 우리車를 보더니 報를 던져주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멈추자 그는 『장교님, 어디 가시는 걸입니까?』라고 물기에 나는 『공군본부에 간다.』라고 대답하니 그는 다시 『장교님 못잡니다. 곧 漢江橋가 끊어집니다.』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였으나 내생각에는 공군본부가 서울 시내에 있을 것인데 漢江橋가 끊어지다니 도무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하여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냥 漢江쪽으로 가다가 나는 “꽹”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다른 陸軍장교를 만났는데 그는 우리를 보고 『방금 그소리가 漢江다리가 폭파되는 소리이며 空軍본부는 水原으로 갔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말을 듣고서야 나는 「블립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報를 水原으로 돌렸다. 그런데 永登浦 區廳앞에 왔을때 피난민파가 거리를 꼭 에워 우리는 그곳을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래서 水原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28일

07.00쯤되었을 때였다.

나는 水原에 도착한 즉시 본부가 어디에 있는가를 수소문한 끝에 水原 중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곳으로 가서 인사국장 韓鍾顯중령을 만나서 金浦地區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뒤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는 『敵은 이미 서울일부를 점령하고 南下中이니카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水原이나 大田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金浦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報를 급히 붙여 金浦비행장에 도착하니 10.00쯤되었는데 金相鶴중위가 부대원을 이끌고 비행장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崔사령관의 명령으로 金浦비행장으로 이동합니다.』라고 하여 저쪽을 보니까 崔用德사령관이 오고있기에 나는 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러하여 우리는 비행장앞에 일단 집합하였다가 트럭에 분승하여 水原을 거쳐 大川으로 이동하였다.

#### ◇현병대 鄭榮煥중위

(1977. 3. 15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예 중령)

1950년 7월1일, 그러니까 우리 현병대가 水原으로 후퇴하여 水原농림학교에 있으면서 비행장 경비를 맡고 있을때였다.

이날 오후에 현병대장 金得龍중령은 나를 비롯한 20명의 隊員을 차출하여 沈死隊를 조직한 뒤 『지금 汝矣島기지가 敵手中에 있는데 너희들은 오늘밤에 이를 탈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결사대에 장교는 나와 劉俊소위 둘뿐이고 나머지는 하사관과 사병들이었다.

명령을 받은 우리는 칼빈소총 1정식과 16발짜이 탄창 3~4개씩을 가지고 이날밤에 트럭 1輛을 이용하여 汝矣島강쪽에 도착하였다. 이때의 시각이 01.00, 즉 7월 2일이 된 셈인데 달이 된하게 비치고 있어서 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설령하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陸軍에서 江쪽에 塹壕를 파놓고 陣을 치고 있었



는데 나는 이부대(陸軍 제8연대라고 기억한다)의 3대위를 만나 『우리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汝矣島기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水原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니 그는 『空軍이 그것도 20명의 병력으로 어떻게 敵을 격퇴시키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탈환작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는 이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공격해 들어 가겠다. 그러나 우리가 진격해 들어갈때 지원사격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基地안에 진입하여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거든 지원병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나는 陸軍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다음 기지에 돌입하기 위하여 다시 편조를 편성하는등 계획을 세웠다.

永登浦에서 백사장을 포복하여 진입하는데 내가 10명의 隊員을 지휘하여 左側에서, 그리고 劉俊소위가 10명을 이끌고 右側에서 각각 돌진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격을 가하면서 포복하여 들어가는데 敵은 일제히 응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陸軍에서도 지원사격을 하여 彼我間의 접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백사장의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我陸軍의 지원사격이 우리머리위에 떨어지므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호복을 중단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에게는 통신장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격을 하지 않자 敵도 응사하는 것을 멈추어 우리는 다시 일제히 사격을 개하면서 돌진하여 기지에 진입하자 敵은 廠浦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빨리 태극기를 게양케 하였는데 이때의 시각이 04.00쯤 되었다.

「이제 태극기를 게양하였으니 陸軍부대에서 지원병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江浦에 엄두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원병은 오지않았다. 그래서 나는 隊員들에게 『더이상 전진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지원병이 오지않았으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를 뿐아니라 또 敵의 兵力이 얼마나 되는

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무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불과 20명의 대원으로서 더이상 전진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 06.00가 되니 먼동이 뜨기 시작하였는데 역시 지원병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해가 뜨면 우리의 위치와 兵力의 數가 敵에게 노출될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나는 다른 대원들과 협의한 끝에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江浦너머로와서 잠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敵의 곡사포가 이부근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안 순간 대원 가운데 朴中士(이름은 기억못함)가 나를 안고 嶽(陸軍에서 파놓은 聖巖)속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였는데 이러한 그들의 포사격이 한차례 지나간 다음 대원들을 살펴 본 즉, 3명이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포사격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빠져나왔다.

江을 건너와 나는 대원들을 트럭에 태우면서 人員점검을 해보니 1명(확실치는 않지만 李基壽 하사라고 기억한다)이 행방불명임을 알았다. 즉 汝矣島기지에서 戰死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곧장 水原으로 와서 金得龍 중령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는 『이제 死線을 걸었으니 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었다.

#### ◇金浦地區경비사령부 閔泳洛중위

(1977. 4. 7 서울시 永登浦區 登村洞 白宅에서, 예 대령)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어서 나는 外出을 하였는데 10.30쯤에 永登浦에서 비상소집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곧장 부대로 들어 갔다.

다른 장병들도 하나 둘 집결하였는데 이때의 衆論이 『敵이 쳐들어온다는데 우리는 空軍의 지상부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金浦에 있는 모든 부대가 士官학교에 모이고 崔用德교장은 空軍본부에 연락을 취하여 金浦地區를 방어하기 위한 경비사령부를 조직하였다.

士官학교의 基幹장병가운데 40~50명을 차출

《生徒는 포함 안됨》하여 제2중대(장, 金非徹대위)로 하였는데 나는 당시에 士官학교에서 (구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중대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항공기지사령부 및 기타부대의 基幹장병가운데 40~50명을 뽑아 제1중대(장, 金相鶴중위)로 편성하였다. 또 同사령부의사령관은 崔用德중장, 그리고 참모장에는 洪允範소령이 되었다.

이와같이 편성을 완료한다음 각자에게 무기 및 장비를 지급하였는데 무기라는 것이 99式소총과 38式소총이었다. 이것도 數가 全員에게 다 지급할 수 없어서 몇명은 그냥 맨손으로 나갔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철모와 실탄을 주었으며 장교에게는 권총 1정씩을 지급하였는데 역시 권총을 받지 못한 장교도 있었다.

이렇게 전투준비를 완료한다음 우리는 3臺의 트럭에 분승하여 金浦邑으로 나갔는데 이때가 25일 오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28일에 金浦에서 水原으로 내려왔는데 나는 金浦邑에 나가 3일밤을 지낸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金浦邑에서 조금 떨어진 北西쪽 능선에 배치하여 塹壕를 파서 陣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27일이 되니까 오전에는 陸軍부대가 우리앞을 지나 후퇴하였으며 오후에는 敵의 砲彈이 우리 障地부근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는 상황이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참모장인 洪允範소령이 사관학교에 연락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장교 몇명은 崔用德사령관에게 가서 『사관학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고 또 연락하려간 洪소령조차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敵의 砲彈이 이곳에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우선 그들의 砲사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하였으나 崔用德사령관은 『上部의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러나 砲사격이 계속될뿐아니라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사령관을 모시고 일단 金浦비행장 가까이로 이동하였다.

27일은 이곳에서 자고 28일이 되어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이날 아침 일찍 다시 1名(누구인지 기억못함)을 사관학교로 보냈더니 그는 돌아와서 『부대에는 아무도 없고 漢江橋가 폭파되었다고 하더라.』라고 놀란 표정을 지으면 시 말하였다.

이소식을 듣고 역시 놀란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하여 부대로 이동하였는데 비행장입구쯤에서 연락하러 갔던 洪소령을 만났다. 洪소령에게서 그동안의 상황을 듣고 우리는 철수준비를 하기 위하여 일단 士官학교로 갔다. (이때 나와 康益善중위등 士官학교 교관하던 장교들 몇명이 같이감.)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는 「空軍士官學校」라는 간판과 吳世昌氏가 쓴 「一擊必勝」이라는 현판을 떼어왔다.

그뒤 우리는 트럭에 분승하여 富平을 거쳐 水原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大田으로 철수하였는데 나는 大田에서 비행단에 배속되어 L-型機로써 출격하였다.

◇金浦地區경비사령부 제1중대장 金相鶴중위(1977. 8. 30 서울시 龍山區 대한통운 龍山지점에서, 예 소령)

나는 전쟁 勃發 당시에 항공기지사령부 경비중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士兵제7期生 34명에 대한 교육을 아울러 감당하고 있었다.

6월 25일 아침에 營舍에 있다가 비상소집령을 접하여 급히 部隊로 갔다. 나의 직책이 경비중대장인만큼 부대에 들어가서는 外出에서 귀대하는 장병들을 트럭에 싣고 우선 비상배치를 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敵機가 來襲하여 기총소사를 가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이날 오후에 교육용으로 두었던 기관총 2정과 이에 따르는 사수 8명을 차출하여 배치하였는데 특히 비행장 가장자리에 높이 1m 정도의 담이 있었는데 이를 은폐물로 삼으면 敵機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되므로 여기에 2정을 擱置하였다. 이때 敵機는 臨津江방면과 서울방면의 양쪽으로부터 나타났으므로 포문을 각기 그곳으로 向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탄이 30~40

발췌 있었는데 이것을 敵機를 向해 쏘았지만 그 명중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25일은 이렇게 경비하면서 지냈는데 26일에는 金浦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경비사령부를 편성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자 朴範集대령은 나에게 『그런일을 해낼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내가 가서 독립중대장으로서 陸軍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독립중대장(일명 제1중대장이라고 함)이 되었는데 항공기지사령부의 장병중에서 50여명을 차출하여 중대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무기는 당시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던 M1소총 26挺이 있어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99式소총을 주었으며 기관총 2挺도 가지고 갔다.

또한 1:官학교의 基礎장병을 중심으로 50여명을 차출하여 이를 예비중대로 하고 중대장에 金圭徽대위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편성을 완료한다음 1:官학교에 일단 집합하였다가 金浦으로 출발하였는데 우리중대가 조금 먼저 Bus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陣地를 구축하여 對敵한다」라는 등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 없으므로 중대장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지를 구축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나는 敵이 내려온다는 江華쪽으로 나갔는데 金浦邑을 지나면 月面이 있고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나는 거기서 진지를 구축키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가니까 陸軍 공병소령이 부대원을 이끌고 그곳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나와 그는 서로 그곳을 사수하겠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양보를 하고 그곳에서 金浦邑방면으로 이동하여 능선(△44)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곳은 바로 도로옆이기 때문에 방어진지로서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길을 건너 조금 뒤에 또 조그마한 능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비중대가 있었으며 崔用德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반은 그옆에 있는 金浦경찰서에 있었다.

나는 중대원을 배치한다음 진지구축을 지시한 바 1시간 30분정도 소요하여 이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때의 시각이 14.30인데 나는 지휘반으

로 가서 부대배치완료를 보고한다음 돌아와서 M1조작법을 아직 모르는 兵士들이 많았으므로 이를 교육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27일이 되니까 벌써 敵의 유탄포가 우리진방에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陸軍부대도 후퇴하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이날 밤이 되니까 敵의 砲彈이 더욱 우리陣地 가까이에 떨어지므로 나는 砲사거리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한 끝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중대원을 이끌고 거기서 약 2km후방으로 이동하여 高村里라는 마을 뒷산에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여기서 하룻밤을 지냈지만 지휘반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을 뿐만아니라 공군본부에 연락하려 한 洪允範소령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이 들렸다. 그래서 나는 28일 아침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중대원을 이끌고 金浦비행장으로 나오는데 입구에서 洪소령을 만났다. 내가 洪소령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공군본부에 연락하려 갔다가 水原으로 이동하였다기에 水原에 갔다온다. 그리고 비행단도 水原기지로 이동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의 상황에 대하여 말한 다음 비행장으로 가본즉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우리도 내려가야겠다고 판단하고 후퇴할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중대원들에게 기지내에 있는 무가운대 사용가능한 것은 모두 가져오게 하였다니 트럭 2臺를 가지고 왔으므로 항공식량, 모포, 쌀등과 중대원을 싣고 霧가을 지나 水原으로 이동하였다가 淸澤—天安—大田을 거쳐 群山기지로 내려갔으며 다시 淸州—泗川—嶺海기지로 이동하면서 기지경비를 하였다.

#### ◇공군본부 인사국장 韓鏞顯중령

(1977. 5. 24 서울시 中區 忠武路 3街 보라배회에서, 예 대령)

1950년 6월 27일 10.00에 총참모장 金貞烈중장은 서울被占直前の 서울주둔 空本장병이 수송의 곤란과 漢江橋의 障礙를 극복하며 各師의 戰鬥序列참가지점으로 직접 가장 정확히 이동될 수 있도록 方策을 設定하여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空本장병은 17.30에 환경정리물 마치고 戰術上 요구되었던 지점으로 向하여 본부청사를 출발하였다.

그뒤 18.00에 汝矣島기지를 경유하여 20.00에

水原에 도착하는 즉시 차량을 비행단에 인계하고 여기에서 1泊하였다. 그뒤 28일 20.00에 大田여자중학교에 이르러 비로소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

## 라. 偵察作戰 (6.28~7.4)

###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총참모장      준장 金 貞 烈

(겸, 비행단장 6월27일 부터)

### (2) 전투전의 개황

敵은 28일에 서울을 점령하자 漢江도하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였으므로 육군은 이에 대비하여 漢江연안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한편 空軍은 육군의 이러한 방어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田기지에 主力을 주둔케 하고 水原기지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함과 아울러 同기지를 前進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비행단에서는 27일에 이미 폭탄 274개를 射耗하였으므로 戰況 및 敵情정찰과 前後方간의 연락, 그리고 전단살포등으로 임무를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비행단에서는 漢江도하를 企圖하는 敵부대의 기동상황과 彼我間의 전투상황등을 정찰하여 陸海空軍 합동지휘소에 보고하였는데 특히 이때의 통신사정은 양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同團의 공중정찰의 결과는 지상군작전에 크게 기여한바 그 활동상황을 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월 28~29일** : 비행단에서는 漢江일대를 비롯한 東部와 西部전선에 걸친 정찰활동을 전개하여 敵의 부대위치 및 후속부대의 기동상황등을 합동지휘소에 보고하였다.

이와 아울러 同團에서는 서울 및 인근지대에 전단을 살포하여 敵점령아래에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였으며 또 긴급한 작전에 대비한 전후방간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6월 30일** : 이날도 同團에서는 전선일대의 전투상황을 정찰하였는데 이러한 작전은 그들의 위장이 교묘할 뿐아니라 대공사격이 치열하여지고 또 敵機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하므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날 오전에 李慶福상사와 白聖欽상사는 L-5機 1臺에 동승하여 驪梁津일대의 敵情을 정찰하던중 좀더 정확한 상황을 살피고자 低高度로 비행하다가 對空포탄에 被擊되어 愛機와 함께 散華하였다.

이는 期間中에 있어서 我空軍조종사의 최초의 戰死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羅昌俊상사와 정비사인 趙明錫중위가 L-5機 1臺에 동승하여 龍山일대의 敵情을 정찰하다가 대공사격에 피탄되어 機體와 羅昌俊상사는 무사하였으나 趙明錫중위는 戰死하였다.

한편 이날 李康和중위는 T-6機에 陸軍 정보국차장 李鍾國대령을 동승케 하여 驪州방면의 전투상황을 정찰한 다음 龍山상공에 이르러 漢江橋의 폭파여부를 확인하고 大田기지로 귀환하려는 순간 敵機 3臺의 공격을 받아 機體가 화염으로 휘감겼으나 水原기지에不時着하여 비행기는 반파되고 조종사와 李鍾國대령은 무사하였다.

7월 1~4일 : 비행단이 정찰하는 동안에 敵은 漢江을 건너 永登浦를 점령한다음 계속 南侵하였다.

이와같이 戰勢가 惡化되자 비행단은 1일에 水原기지의 L-형항공기와 작전지휘소를 大田기지로 철수케하여 T-6機와 습勞하였다.

그리하여 同團은 大田기지에서 4일까지 戰況정찰과 전단살포 및 전후방간의 연락임무를 계속하였다.

#### (4) 전투후의 개황

漢江線에 구축된 방어선은 敵의 壓力으로 점차로 撤收하고 敵은 始興—安養을 거쳐 水原부근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때 비행단은 大田기지에서 L-형 및 T-6機가 습勞하여 작전을 수행 중에 있었는데 이 기지는 협소하여 작전수행에 지장을 보일 뿐 아니라 7월 2일에 F-51 전투기 10臺가 大田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大田기지에는 L-형 및 T-6機의 일부로써 정찰대를 조직하여 정찰을 속행케 하고 나머지 항공기는 大田기지에 주둔케 하였다.

期間中에 空軍이 전개한 정찰전에서의 종합損失은 다음과 같다.

	損	失
T-6機	반파	1臺
L-5機	전파	1臺
조종사	전사	2명
정비사	"	1명

#### § 參戰者의 證言

##### ◇비행단 출격조종사 李康和중위

(1977. 3. 8 서울시 永登浦區 登村洞 自宅에서, 예 준장)

1950년 6월 30일 아침이었다. 나는 大田기지

에 있었는데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이 나를 부른다는 연락을 받고 道廳으로 간즉, 나를 데리고 대통령실로 가더니 『비서실에서 기다리라.』라고 말한다음 총참모장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곧이어 申性模국방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

는 것을 보고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金貞烈준장이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너는 지금 기지로 가서 陸軍 警備국차장(李鍾國대령)을 비행기에 태우고 漢江철교의 폭파여부를 경찰하고 오는데 일단 水原에 가서 朴範集대령한테 지시를 받고 가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곧장 T-6기에 李鍾國대령을 태우고 水原기지에 내려 朴範集대령한테 총참모장의 명령 내용을 전하였더니 그는 『지금 敵은 驪州 방면에서 渡河를 企圖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敵情을 경찰한다음에 서울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11.00쯤 되었을까 水原기지를 이륙하여 驪州일대의 戰況을 살펴본즉 江을 끼고 彼我間에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어 兩岸은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거기서 南漢山城을 거쳐 서울로 오는데 西次庫空공에 이르니 대공사격이 집중되므로 급히 상승하여 위기를 모면할위 高度를 6,000ft로 유지 하면서 龍山驛으로 갔다.

이때 증기기관차가 연기를 뿜으며 龍山에서 漢江쪽으로 뒷걸음쳐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상공을 선회하니까 기관차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龍山驛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漢江철교가 폭파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나는 李鍾國대령이 확인하기 좋게끔 비행기의 자세를 잡아주면서 살펴보도록 하였더니 철교중 1개가 압착어진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분명히 봤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는 『확인을 하였으니 돌아가자.』라고 하므로 나는 기지로 귀환하기 위하여 막 선회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에 충격이 왔으며 기체위로 시커먼 것이 휩 지나가는데 보니까 YAK機였다.

순간 나는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또 2臺가 나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급강하 하여 高度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敵機의 공격으로 부터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敵機는 계속 쫓아오는데 공격을 받은

右翼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 하였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연료tank에는 맞지 않았으나 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敵地이므로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大田기지까지는 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水原기지에라도 착륙해야 겠다고 결심한다음 機體를 더욱 地上 가까이로 내려서 철로만 따라 비행하였다.

이렇게 비행하여 내려오는데 이때 마침 美 F-80전투기편대가 水原부근에서 나타나자 나를 쫓던 敵機들은 北쪽으로 달아나고 나는 그체서야 敵機로부터의 위협을 모면하였으나 비행할수록 機體에 붙은 불은 점점 심하여져 이제 발까지 뜨거워왔다.

그러나 나는 水原기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비행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水原비행장의 활주로가 肉眼에 들어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착륙을 위하여 바퀴를 내렸는데 雪上加霜으로 右翼(右側)바퀴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였지만 역시 左側바퀴만 내려갔다. 아마 敵機의 공격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면서 활주로를 바라보니 저편에서 美 C-54수송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한 기체를 가지고 그대로 착륙한다면 둘다 망가뜨리는 사태가 야기될지도 모르므로 나는 활주로 옆에 착륙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의 水原비행장 옆은 채소밭이었다.

이곳에 그냥 내리면 機體가 전복될것 같아서 機首를 위로 치켜들고 Power를 넣은 다음 서서히 降下하면서 失速을 시켰다.

바퀴가 地面에 닿자 機體는 휘청하면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므로 나는 Power를 줄였는데 이때는 이미 右翼이 지면에 박혔으며 그 원심력에 의하여 機體는 직돌아 뒷부분이 위로 올라갔으나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고 그냥 내러앉았다. 그래서 나와 李鍾國대령은 재빨리 機體에서 빠져 나왔다.

이것이 내가 T-6를 두번째로 탈때인데 敵機를 만나면 T-6로서는 탈아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를 당해본 조종사의 심경이란 분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 § 逸 話

## ◇決死의 壯舉

1950년 6월 28일 아침이었다. 前日 오후에 汝矣島기지로 부터 水原기지로 이동한 비행단은 이날 전황이 더욱 惡化되었으므로 大邱기지로 이동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이른 아침에 T-6機와 L-型機는 1쌍씩 차례차례 이륙하였는데 27일밤에 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활주로에 세워둔 비행기 가운데 Engineer이 작동하지 않아 이륙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즉, L-4機 2臺와 L-5機 2臺가 水原기지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美고문단의 Swinks소령과 Brown 대위가 기지에 와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일부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좀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조종사들은 『당신들 비행기는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묻자 美軍들은 『汝矣島기지에 두고 왔다.』라고 하여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되겠어.』라고 대답하여 다시 조종사들은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 『汝矣島기지에 L-5機 3臺가 있는데 1臺는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올수 없고, 2臺를 가지고 오면 1臺는 우리에게 주고 1臺는 당신들이 가져도 좋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비행단은 1臺의 항공기가 아쉬운 때였으므로 조종사들은 『그럼 좋다.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다음 이것을 가지고 오기 위한 힘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종사들이 서로 갈려고 하였으나 李基陔 二等상사와 1명이 L-5機 1臺에 동승하고, 鄭周良 一等中士와 1명이 L-5機 1臺에, 그리고 徐商純 一等中士와 權重熙 二等中士가 L-4機 1臺에 각각 동승하여 도합 3臺의 항공기에 6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의 汝矣島부근은 이미 敵이 침입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徐商純 一等中士는 먼저 이륙하여 汝矣島기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敵情정찰 및 僚

機들의 유도를 담당하고 李基陔 二等상사와 鄭周良 一等中士는 汝矣島기지에 있는 L-5機 2臺를 조종하여 가져오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臺는 타고 갔던 비행기 (L-5機)를 그대로 조종하여 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오전에 정비를 끝낸다음 3臺의 L-型機는 (L-5機 2臺와 L-4機 1臺) 水原기지를 이륙하였는데 徐商純 一等中士가 조종하는 L-4機가 먼저 이륙하여 汝矣島기지내를 경찰한바 龍山과 麻浦에서 대공사격이 있었다. 그래서 徐中士는 이를 피하여 僚機들을 유도한끝에 무사히 기지에 착륙시킨다음 기지상공을 계속 선회하면서 敵을 경계하였다.

그런데 李基陔 상사와 鄭周良 중사가 美고문단의 L-5 機에 갈아 타고서 이륙하려는 순간에 YAK機 2臺가 徐中士機를 발견하고 공격자세로 접근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徐中士는 대피하기 시작하였다. L-4機는 YAK機에 대적할 아무런 무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는 이리 저리 피하면서 水原의 西湖상공에 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敵機의 기총사격에 맞아 L-4機의 작동이 불가능케 되었다.

徐中士는 당황하였으나 다시 침착성을 되찾아 기체를 지상 가까이 끌이면서 敵機로부터의 2차공격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水原기지를까지는 열바되지 않는 거리이므로 僚機를 계속하여 무사히 基地에 착륙하였다. 徐中士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종석에서 나와 기체를 점검하여 본측 兩翼에 24발의 기총사격을 받았으며 자신도 右翼 발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승한 中士도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가 이렇게 敵機에게 쫓기는 동안에 다른 僚機들은 2臺의 L-5機를 조종하여 水原기지에까지 무사히 왔는데 2명의 美軍들은 기뻐하면서 한번 타보겠다고 하여 그비행기를 타고서는 그냥 다른곳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이들 조종사들이 7월 1일에 水原의 기지 항공기가 大邱기지로 이동하였을때 行方을 갈추았던 2명의 美軍을 만났지만 過去之事라하여 寬容을 베풀었다.

마. F-51 전투기의 引受와 戰況 (6.26~7.4)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비행단 장 대령 李 根 哲

출격조종사

대령 李 根 哲

중령 金 英 煥      張 盛 煥

대위 金    信      朴 熙 東      姜 鎬 倫

중위 張 東 出      丁 永 鎭      金 成 龍      李 相 垂

(2) 전투전의 개황

敵은 전투기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戰車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앞세운 기동부대의 南侵을 우리 陸軍은 저지할 수가 없었다.

즉, 陸軍이 보유한 2.36" Rocket포나 57mm對戰車砲로서는 T-34型전차를 격파할수 없었으며 더욱



<日本 Itazuke 基地에서 操縱교육을 받고 있는 10명의 조종사>



가 我空軍은 1臺의 전투기도 보유치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공중으로 부터의 위협을 별로 받지않은 채 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南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空軍은 그들의 戰車를 격파하여 南侵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美軍에게 전투기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戰況의 위급함을 알게된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은 25일 오후에 국방부장관에게 『戰車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美軍으로부터 戰鬪機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라고 進言하자 申性模 장관은 즉시 李承晚대통령에게 戰況이 위급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上申하였다.

李대통령은 報告를 받자 美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의 지원을 요청한 결과 同 사령부는 이를 수락하여 26일 오전에 전투기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美극동군사령부에서 담당참모가 水原기지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총참모장에게 『韓國공군 조종사가운데 F-51 전투기를 전혀 훈련없이 전투할 수 있는 조종사가 몇명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총참모장은 여러가지를 고려한 끝에 『10명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즉, 그는 즉석에서 『그러면 10臺를 지원하여 줄테니까 10名을 水原기지에 대기시켜 달라. 그러면 내가 日本으로 가서 수송기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뒤 총참모장은 汝矣島기지에 돌아와 비행단장 李根哲대령과 이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과거에 비행경험이 많고, T-6機를 타던 李根哲대령을 비롯하여 金英煥중령과 張盛煥중령 그리고 金信대위와 朴熙東대위 및 姜鎬倫대위에 이어 張東出중위와 丁永鎭중위 그리고 金成龍중위와 李相垂중위 등 10名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이날 19.00에 水原기지에서 美 C-47수송기에 탑승하여 21.00에 日本 九州에 있는 Itazuke(板付)기지에 도착하였다.

이때 同 기지에는 美 제8전투폭격비행단이 주둔하였는데 일행은 同團의 제36전투폭격대대 훈련대에 배속되었다.

왜냐하면 아직 F-51전투기의 정비가 끝나지 않아 同 기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또 당시 日本의 Kyushu 지방은 雨期로 말미암아 氣象이 고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행은 우선 F-51機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즉, 27, 28兩日間은 氣象이 不順한 가운데 F-51機의 제원 및 기능에 대하여 지상교육을 받고 29일에도 氣象이 쾌청치 않았으나 일행은 Itazuke기지 전방에 있는 Kannosu(雁巢) 비행장에서 T-6機로서 시험비행을 하였다.

즉, 美교관들이 일행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조종술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F-51機훈련

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T-6機에 美교관과 동승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한 결과 교관들은 일행의 조종술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이어 30일에도 日氣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지상교육을 계속하다가 이날 오전에 정비가 끝난 F-51機가 도착하여 일행은 이날 오후에야 비로소 F-51機를 직접 조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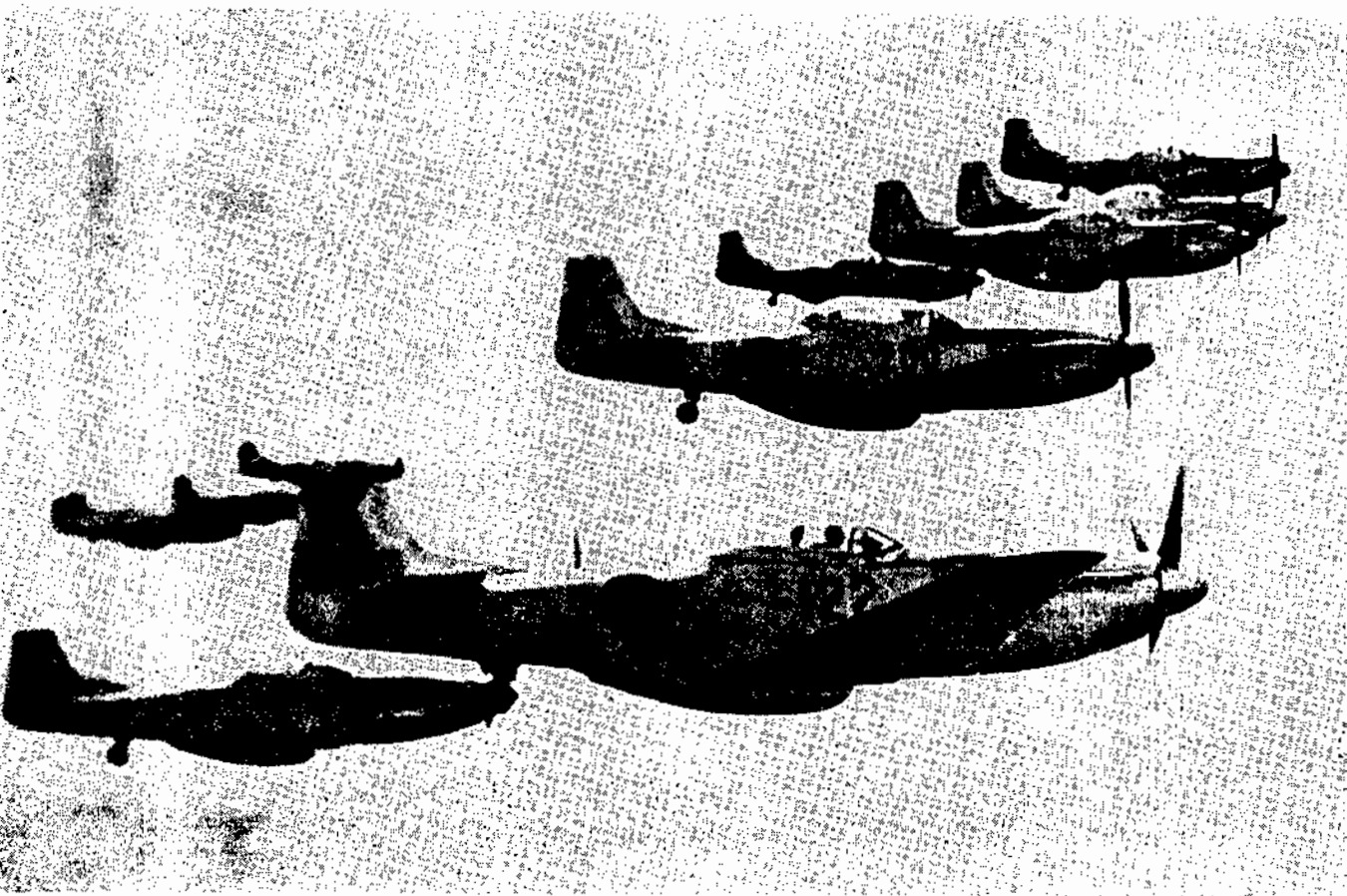
그러나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이날은 일행중 5名만 조종하여 보았는데 그것도 겨우 30~60분에 걸쳐 離着陸 및 공중 조작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5名은 7월 1일에 역시 30~60분 비행하여 보았다.

이와같이 일행은 1名이 30~60분 밖에 조종하여 보지 않았지만 이들의 조종술은 교관들을 만족케 하였으며 또 일행은 이 F-51機로써 敵을 공격하고 싶어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오후에 李根哲대령은

『情狀이 不利한 이때에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하루 빨리 귀국하여 敵을 공격하여야겠  
다. 우리가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이곳에서 훈련만 받고 있으면 뭐하겠느냐?』라고 기지사



〈玄海灘을 건너오는 10대의 F-51전투기 편대〉

령관에게 귀국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美극동공군사령부의 허락을 얻어 일행은 7월 2일 오전에 F-51 전투기 10대를 조종하여 大邱기지(K-2)에 착륙하였다.

또한 이때 우리 정비사들은 아직 F-51기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없었으므로 美극동공군사령부에서는 Hess 소령을 비롯한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0여명을 동행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는 戰況이 더욱 惡化되어 敵은 安養—始興 부근에 이르렀으므로 3일에는 我공군사상 최초로 태극표지를 한 F-51전투기가 출격을 단행하였는데 3일과 4일의 兩日間에 전개된 출격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월 3일** : F-51전투기의 도착이 육군에 전하여지자 비행단에는 육군의 작전에 대한 同機의 지원요청이 빗발치듯 接受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10.30에 朴熙東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F-51기는 始興에 이르러 街道를 따라 南侵하는 敵의 戰列을 포착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이를 분산케 하였으며 다시 부근에 있는 연료집결소를 강타하여 삼시간여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4.15에는 李根哲대령이 지휘하는 4대의 전투기가 大邱기지를 이륙하여 梁津에 있는 탄약집결소를 강타한 끝에 이를 소각케 하고 다시 永登浦에서 戰車를 앞세운 기동부대를 포착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가하여 戰車 2대와 트럭 1대를 파괴하고 敵兵 30명을 殺傷하였다.

또한 朴熙東대위는 이날 16.30에 3대의 F-51전투기를 이끌고 출격하여 永登浦일대를 강타한 결과 트럭 1대를 불태우고 敵兵 5명을 殺傷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7월 4일** : 비록 10대에 불과한 F-51전투기이지만 태극표지를 한 同機의 출격은 육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이날도 육군의 요청아래 출격을 續行한 바 09.10에 金信대위는 3대의 F-51전투기를 지휘하여 始興—安養間의 街道를 따라 南下하는 敵兵행렬에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30명을 살상하였다.



〈泗川 基地에 세워진 故 李根哲준장 銅像〉

또한 11.00에는 육군으로부터 安養일대에 그들의 戰車가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 李根哲대령이 지휘하는 4臺의 F-51機는 大邱기지(K-2)를 이륙하였다.

이윽고 목표상공에 이르러 戰車를 포착한 편대는 즉시 공격자세를 취하고서 李根哲대령을 선두로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급강하 하였다.

이때에 그들의 대공포화는 불을 뿜기 시작한바 포탄은 李根哲대령機에 명중하였다. 이 때 李대령은 화염에 휘감긴 愛機와 함께 敵陣에 돌입하여 장렬히 戰死하였다.

이 출격에서 戰車 2臺를 반파하였으나 李대령을 잃게된 損失은 至大하였다.

#### (4) 전투후의 개황

기간중 空軍은 F-51전투기의 역사적인 출격작전을 開始한바 그들의 戰列을 분산케 하였을 뿐 아니라 我육군의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F-51전투기는 아직 日本으로부터 부장, 즉 폭탄 및 Rocket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총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종사들은 목표를 보고도 이를 完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南侵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敵은 여전히 戰列을 가다듬으며 南侵을 계속하였다.

한편 F-51機의 출격개시 이틀째에 비행단장 李根哲대령이 戰死하자 총참모장은 더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美제5공군사령부와 협의한 끝에 전투경험이 풍부한 美조종사와 함께 출격케 함으로써 우리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연마 하도록 하였다.

또한 大田기지에서 경찰임무를 전개하는 L-型 및 T-6機의 일부를 大邱기지로 이동케 하여 비행단의 主力을 동기지에 두었으며 나머지 일부의 항공기로서 경찰대를 편성하여 大田기지에서 경찰을 續行케 하였다.

空軍이 7월 3,4일의 兩日間에 전개한 F-51전투기의 출격에서 거둔 종합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戰 車	반파	4臺	F-51 전투기	1臺	
연료집적소	폭파	1개소	조종사	1명	
탄약집적소	"	1 "			
트럭	파괴	2臺			
敵 兵	殺傷	65名			

#### § 參戰者의 證言

◇비행단 제2중대장 張盛煥중령  
(1977. 3. 23 서울특별시 中區 會賢洞 대  
한무역진흥공사에서, 예 증강)

전쟁이 勃發하였지만 우리 空軍은 전선상황을  
전연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해질 무렵에  
T-6機로써 전선일대를 경찰하였다.

먼저 金英煥중령은 汶山, 吳山 서대위는 岫川 그리고 나는 抱川—東豆川방면으로 각각 출격하였는데 내가 偵察한곳에서는 敵의 機動부대가 15~20대의 戰車를 앞세우고 南下하였다.

그리고 汶山방면에서도 戰車를 앞세운 敵이 南下하고 있었는데 岫川방면에서는 아직 그들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한편 이날 밤에 T-6機에 폭탄투하장치를 하여 26일부터 8~10개의 폭탄을 달고 출격하였다.

이날 오전에 李根哲대령과 金英煥중령이 T-6機 1대에 동승하여 출격하고 조금뒤에 내가 朴熙東대위를 동승케 하여 抱川방면으로 출격하였는데 이때 氣象이 아주 좋지 않아서 구름이 많이 덮여있었기 때문에 목표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기지로 돌아와 氣象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총참모장 金貞烈중장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여 30~40분쯤 기다리니까 李根哲대령과 金英煥중령이 기지로 귀환하였다. 그래서 총참모장은 10명을 지명하여 집합시킨다음 『MacAuthur 사령부에서 F-51전투기 10대를 주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가지러 日本으로 가야하니까 곧 水原기지로 내려가서 대기하라. 그리고 전투기를 가지고 와서 전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이니까 조심해서 잘 가지고 오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비행단장인 李根哲대령을 비롯하여 T-6機를 타던 10명의 조종사는 3/4ton 트럭 1대를 타고 水原기지로 갔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美 F-82전투기 2대의 조위를 받으면서 C-47수송기 1대가 착륙하였는데 Engine도 끄지 않은 채 우리한테 빨리 타라고 하여 곧장 타고 이륙하였다.

이때가 19.00쯤 되었는데 우리가 日本 Itazuke 기지에 도착할때까지 전투기가 호위를 하였다.

日本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캄캄한 밤이었다. 21.00쯤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탄 수송기가 기지상공에 이르렀을때 美전투기가 귀환중이므로 우리는 30분간 기지상공을 순회하다가 착륙하였다.

기지에 도착한 우리는 27일 아침에 기지사령관 Price 대령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조종사인

데 F-51 전투기를 引受하러 왔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는 『빨리 F-51機를 정비해서 당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同 비행단의 제36전투폭격대대 전투조종사 훈련대에 배속되어 F-51機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7일에는 機能 및 諸項에 대한 것과 비행기 취급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28일에는 氣象이 좋지않아 무장장치 및 조준기술훈을 교육받고 지상작동을 하여 보았다.

그리고 29일에도 역시 氣象이 나빴지만 美교관들은 『당신들의 조종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F-51機 훈련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여 T-6機로써 시험비행을 하였다.

즉, 이 기지는 너무 번잡하므로 그앞에 있는 Kamosu(雁集) 비행장에서 T-6機에 교관들과 동승하여 2번씩 離着陸을 하였다.

이 시험비행이 끝난다음 美교관들은 『이 정도면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조종술에 대하여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30일에는 우리가 타고 갈 F-51전투기가 정비되어 도착하였는데 이날도 氣象은 不顯하였지만 우리는 직접 조종하여 보았다. 그러나 氣象이 나빠서 10명 모두 타지 못하고 5명만 먼저 탔는데 나는 첫날 전투기를 타고 한번 이륙하여 空中에서 1시간쯤 비행하면서 여러가지 공중조작을 해본 다음 내려왔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7월 1일에 타보았는데 모두 1시간 이내의 비행을 하면서 공중조작만 하였다. 특히 사적연습은 전혀 해보지 못한채 新種機로의 전환교육을 약식으로 끝낸 것이다. 戰時이고 상황이 급하므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10명의 조종사가 과거에 비행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으나 新種機인 그것도 전투기인 F-51機를 30~60분정도 공중조작만 해보고 나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훈련대에 교관이 4명 있었는데 이 중 Beckett대위라는 교관이 책임자로 있었다.

그가 우리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7월 1일 오후에 즉, 우리 10명이 F-51機를 한번씩 타본 뒤에, 그는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의 조종술

은 놀랄만치 훌륭하다.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들의 희망대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李根哲대령은 『우리는 하루 빨리 귀국하고 싶다. Radio로 듣기에는 지금 敵에게 서울이 점령되는 등 戰勢가 不利한 것같은데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만 받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또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빨리 가지고 가서 敵을 공격하고 싶다』라고 하니 그는 『그런데 언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기에 『내일 당장 가고 싶다.』라고 대답하였다.

Beckett대위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기지사령관에게 보고한바 『韓國조종사들의 조종술은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이 타서 숙달되는 것 뿐인데 여기에서 타나 韓國에 가서 타나 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저들이 빨리 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였다.

이것이 MacArthur 사령부의 허락을 얻어 우리는 7월2일에 귀국하게 되었다.

#### ◇비행단 출격조종사 朴熙東대위

(1977. 4. 20 서울특별시 中區 忠武路 3街 브라매회에서, 예 준장)

1950년 7월 4일, 그러니까 F-51전투기로써 對地공격을 開始한 2일째 아침이었다.

육군으로부터 『安養부근에 敵의 戰車가 집결하고 있으니까 이를 공격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여왔다. 그래서 우리가 출격하려고 하니까 美軍들이 만류하였다.

즉, 이때의 F-51機の 무장이란 아직 日本으로부터 폭탄이나 Rocket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機銃밖에 없었다. 그래서 美軍들은 機銃으로서는 戰車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육군의 요청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機銃으로서도 戰車의 뒷부분에 있는 Radiator를 명중시키면 그 機動을 저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美軍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날 11.00에 大邱기지를 이륙하였다. 즉 李根哲대령을 편대장으로 하여 金英煥중령, 姜鎬倫대위, 나 이렇게 4臺의 F-51전투기 편대가 出擊하였다.

우리는 安養을 向하여 비행하는데 冠岳山에 이르렀을때 계곡에 구름이 3,000ft높이에 덮여 있으므로 그 사이를 4臺가 한꺼번에 비행하는 것은 위험하여 李대령과 金중령이 앞서가고 姜대위와 나는 뒤에 처져서 갔다. 그리고 나는 敵機를 경계하는 임무를 띄고 있어서 위를 살피면서 비행하였다.

산을 넘고 조금 지났을때 戰車 4~5臺가 발에 멈추어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발견하였을때에는 벌써 앞에 가던 李대령과 金중령은 공격자세를 취하고 降下하였으며 이어서 姜대위도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氣象이 좋지않아 우리는 2,000ft정도로 高度를 낮게하여 비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목표를 포착하였지만 곧장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냥 그 상공을 선회하여 나오는데 밑에서는 불이 번쩍하였다.

이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나오는데 僚機들은 공격을 끝내고 내가 長機인줄 알고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長機가 아니거나 이므로 『李대령은 어디갔느냐?』라고 신호를 하여 나는 그제서야 조금전에 불이 번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僚機들에게 『戰車에 곧장 들어 간것 같다.』라고 신호를 보냈다.

즉, 이때에는 僚機間에 무선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肉眼으로 보고 手信이나 機體신호로써 상호연락을 취하였다.

이와같이 李根哲대령은 목표에 진입하다가 대공포탄에 피탄 되자 僚機와 함께 敵陣에 돌입하여 장렬히 산화하였는데 우리는 F-51전투기로 출격을 開始한지 이틀째에 비행단장 李대령을 잃어버렸으므로 이에 대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조종사들은 敵에 대한 분개심에 어찌할바를 몰랐다.

### 3. 海兵隊의 狀況

#### 가. 概 要

海兵隊는 1949년 4월 15일 鎭海의 德山飛行場(K-10)에서 海軍으로 부터 差出된 將校 및 士兵 都속 380명으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비로소 創設되었다.

3面이 바다로 된 韓國의 立地的條件과 周邊情勢로 보아 海兵隊의 必要性이 切實하였으나 8.15 解放以後 新生國家로서 發展途上에 있었던 當時의 國內 政治, 經濟, 社會的 條件下에서는 陸·海·空軍의 유지마저도 어려운 實情이었다.

그러던 차에 1948년 10월 19일 麗·順叛亂事件이 突發하자 海軍은 海上封鎖임무를 띠고 申鉉俊 中령이 지휘하는 艦艇을 麗水前洋으로 出戰케 하였던 것이나, 장비나 체제면에서 地上의 敵에게 效果的인 打擊을 加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海軍은 이때에 水陸兩面作戰을 敢行할 수 있는 부대의 必要性을 寔感하였으며, 이를 契機로 歐美 各國의 海兵隊와 比肩할 만한 海兵隊의 創設을 論議하게 되었다.

當時 總참모장 孫元一 中장은 海兵隊創設계획을 적극추진하였으며, 國防部長官 李範奭도 이의 必要性을 認定하여 마침내 承認되어 創設을 보게된 것이다.

이리하여 總참모장은 同년 2월 1일 海軍 鎭海統制府 參모장 申鉉俊 大령을 初代 海兵隊 少령官으로, 統制府 敎育부장 金聖恩 中령을 參모장으로 各各 임명하여 그 職務을 遂行케 하고, 4월 15일 德山飛行場에서 海兵隊 創設式을 舉行하였으며 그뒤 大統領令 제88호 (1949.5.5)로 海兵隊 습이 公布되었다. (研究欄 참조)

그러나 이 습은 韓國戰爭 勃發과 더불어 海兵隊 機構의 擴張과 그 임무의 變更에 따라 大統領令 제672호 (1952.8.15)로 改正되었다. 특기할 것은 제2조의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上陸作戰을 擔當하며 必要에 의하여 一般 地上戰鬪에 從事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海兵隊가 上陸作戰을 爲主로 하는 부대임을 法的으로 明文化한 것이다.

創設初期의 海兵隊는 海軍으로부터 編入한 將校 및 下士官 80명과 海軍新兵 제13期중에서 선발한 海兵 제1期 300명으로써 사령부(사령관, 申鉉俊 大령) 15명, 經理隊(장, 李炳喜 大위) 15명, 勤務중대(장, 高相河 中위) 70명, 情報隊(장, 金鍾植 中위) 10명과 小統 2개중대 270명, 즉 제1중대(장, 高吉勳 大위), 제2중대(장, 金載珠 大위)로 發足하였으며, 뒤 이어 海兵 제2期 440명을 海軍에서 引受하는 한편 이들의 敎育要員으로 金潤根 大위,

金洛泉 중위, 黃泳 중위 등과 下士官 數명이 轉補되어 비로소 2개 대대규모로 擴充되었다.

**人事行政** : 海軍에 속하여 있었던 海兵隊에 대한 人事權은 海軍이 專擅하였으나, 隊內人事문제는 海兵사령관의 管掌下에 人事참모 姜大馨 소령이 人事, 法務를 兼任하였다.

當時 장병의 服裝과 階級 및 階級章은 모두가 海軍과 같았으나, 訓練服에 있어서는 舊日本軍의 陸戰隊服裝을 模倣하였으며 訓練帽에는 1cm정도 넓이의 黑線을 둘러서 海軍과 달리하고 海兵隊 標識는 下士官들이 訓練帽과 fiber에 닻(anchor)을 中央에 놓고 小銃을 兩斜線으로 그려 使用한 것이 動機가 되어, 1951년 正式으로 海兵隊 標識가 制定되기까지 이를 그대로 使用하였다.

또한 『나가자 海兵隊』라는 軍歌를 制定하였는데, 이는 過去 藝術界에 있었던 申映澈 海兵의 作詞草稿에 修正을 加한 것이며, 作曲은 當時 警察樂隊長 金炯來가, 編曲은 海兵 軍樂組長 李炳杰이 한 것이다.

**教育訓練** : 當時 海兵隊 教育은 統一된 戰術敎理나 體系화된 理論도 없이 사령관 申鉉俊 대령의 『平時에 땀을 많이 흘리면 戰時에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訓示를 基本精神으로 하여 天子峰 (嶺海 東쪽 5km-△500) 驅歩로 부터 시작되었다.

初代 작전참모 金東河 소령은 教育계획작성에 있어, 대부분의 幹部가 日本軍 또는 滿洲軍 出身인 관계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日本軍의 步兵操典과 日本 海軍의 海軍必携를 朴東烈 一等兵曹로 하여금 번역케하여 이를 배부하고, 敎材로 使用케하였다. 敎科目은 徒手訓練, 陣中勤務, 各個戰鬪訓練, 分隊戰鬪訓練등으로서 各 中隊는 教育계획에 따라 소대, 分隊單位로 教育을 실시하였다.

이때에 敎官은 下士官인 소대장과 분대장이 主軸이 되었으며, 이들은 必要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 日本操典을 번역하여 教育하였던 까닭에 분대마다 教育내용이 統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口습에 있어서도 徒手訓練은 海軍의 것을, 戰術訓練은 陸軍의 것을 使用하기도 하였으나 內務生活만은 嚴格하게 統一하여 海兵隊 特有的 氣質을 培養하였다.

이러한 教育體制에서 美軍戰術이 導入되기 始作한 것은 1950년 1월부터이며, 이는 그동안 陸軍士官학교와 陸軍步兵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을 履修한 장교들에 의하여 普及되었다.

**裝備 및 補給** : 初創期の 裝備는 日本軍이 쓰던 낡은 九九式소총과 帶劍, 그밖에 日本軍의 鐵帽과 美軍의 fiber를 混用하였다.

裝備 및 補給業務를 擔當한 金龍國 중위는 장비보급이 안되었던 까닭으로 九九式소총은 萬一의 事態에 대비하기 위하여 手入 保管케하고, 訓練時에는 主로 木銃을 使用케 하였다. 重裝備는 海兵隊가 晋州地區 共匪擊滅作戰에 出動할 때까지는 전혀 없는 實情이고, 단 1挺의 M1소총이 있었다. 이는 제2중대 선임장교 安昌寬 소위가 海軍在任 당시에 506艦 副長으로 麗·順叛亂事件의 鎮壓作戰에 參加하여 叛徒로부터 鹵獲한 것이며, 教育用



教材로서 使用되었다.

이때의 장교들은 舊日本軍장교의 指揮刀를 그대로 佩用하였으며, 拳銃은 個人이 所持하고 있는 것에 限定되었으며, 通信은 사령부에 GRC-9 無電機 1대가 對外交信에 사용되고, 對內的 連絡과 傳達은 主로 手旗信號와 傳書에 依存하였을뿐이다.

服裝은 海軍 그대로였으며, 外出服으로 士兵에게는 Sailer服, 장교에게는 正服 한벌씩을 支給하였다. 訓練服은 國產製로서 適時 再補給이 되지않아 심한 訓練으로 因하여 헤어져 있었으며 帽子는 兵과 下士官 및 장교가 서로 日本軍과 美軍의 것을 混用하였다.

이에 反하여 給食單은 變化있는 Menu에 넉넉한 量을 供給할 수 있었다.

## 나. 共匪擊滅戰

### (1) 晉州地區의 戰況

麗·順叛亂事件의 主謀인 洪淳錫과 金智會는 叛徒의 主力을 이끌고 智異山으로 遁入하였으나 1949년 4월 陸軍의 同地區 戰鬪부대에 의하여 射殺되고 그 殘匪 200여명이 그 周邊一帶에서 蠢動하면서 官公署의 습격을 비롯하여 放火 掠奪등을 恣行하여 그 活動범위가 晉州동지로 번져갔다.

이무렵 海兵隊는 제1期の 교육을 마치고 제2期の 新兵교육에 임하고 있던바, 鎭海에 隣接한 晉州에까지 共匪가 出沒한다는 情報를 入手한 사령관 申鉉俊 대령은 實戰을 통하여 強兵을 育成코자 同년 8월 26일 마침 用務次 大邱에 온 陸軍參謀副長 丁一權 준장과 協議 끝에 海兵 1개 대대를 晉州에 派遣시켜 共匪擊滅戰에 參加할 것을 決定하였다.

그러하여 사령관은 8월 29일 참모장 金聖恩 중령을 부대장으로 하는 1개 대대를 편성하여 晉州로 出動시켜 그 임무를 遂行케하였다.

晉州지구 派遣부대장 金聖恩 중령은 편성 당일 제5중대의 一部를 先發隊로 하여 同중대의 선임장교 安昌寬 중위로 하여금 出動케한데 이어 3일 뒤에는 本隊도 晉州로 이동하여 該地사범학교의 講堂과 寄宿舍를 宿營地로 定하는 한편 晉州, 昌寧, 咸安의 3個郡에 대한 경비와 同地域에서의 共匪擊滅임무를 遂行케되었다.

部隊配置와 宣撫工作 : 晉州는 地理的으로 釜山, 馬山, 鎭海等 重要都市의 中央地區이며 咸安을 通하여 順天으로 連結되는 要衝인 까닭에 陸軍에서는 이곳에 部隊를 派遣하고 馬山에는 陸軍 제16연대를 두어 이들 地域에서 蠢動하는 共匪를 擊滅하고 있었다.

海兵隊가 최초 이곳으로 移動할 당시에는 제1期로 편성된 제5중대(장, 高吉勳 대위)와 제2중대(장, 金載珠 대위)의 2개 중대에 本部要員을 合하여 300여명이었으나, 11월 1일에는 新兵 200명이 補充되어 제7중대(장, 安昌寬 중위)를 편성하여 그 兵力이 550명에 達하였으며, 장비도 補充되어 拳銃 15挺, 機關短銃 28挺 CAR소총 257挺, 九九式소총 141挺'

輕機關銃 6挺을 保有하게 되었다. 이어서 口徑 50 機關銃과 2.36"Rocket砲, 60mm 및 81mm 迫擊砲 등 重裝備가 처음으로 支給되었으나 操作要領이 未熟한 까닭에 부대장이 大邱의 陸軍重火器부대에서 8명의 助教를 초청하여 이들 火器의 操作技術을 습득케 하였으며, 海軍에서 編入된 全 下士官이 地上戰鬪에 關하여 전혀 白紙인 實情이어서 金龍國 중위를 교육 대장으로 하여 40여명의 下士官에 補修교육을 실시케 하였다.

그러나 初期에는 2개 중대뿐인 까닭에 제1중대로 市 外鄕地域을 제5중대로 兵營과 市內를 各各 分擔 경비케 하는 한편, 情報隊로 農民 혹은 勞動者로 假裝시켜 部落周邊에 잠복케 하여 그들의 細胞組織과 動向을 探知케 하였다.

그러는 一方 부대장은 사령관의 方針에 따라 民心收拾에도 注力하여, 市民으로부터 信賴받는 海兵이되기 위하여 民弊를 根絶케 하고, 『國民없는 戰鬪은 있을 수 없다.』라는 標語를 걸고 9월 1일 부터 2개월간 各 지방을 순회하면서 共產主義의 黑幕과 殘虐相을 暴露하여 그들의 虛偽宣傳에 속지않도록 啓蒙하는 同時에 映畫와 演劇으로써 軍作戰에 적극 협조토록 宣撫工作을 展開하였다. 뿐만아니라 秋收農繁期에는 勞力動員으로 農民을 돕던 까닭에 이들로 부터 信賴感을 받게 되고 共匪動態에 대하여서도 自發的인 申告를 얻게 되었다.

이로 因하여 많은 諜報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10월 18일에는 住民의 提報에 따라 제1分隊에서 非武裝共匪 6명을 捕獲하였다. 이와같이 軍·官·民의 合勢로 말미암아 그들이 晉州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10월 11일 智異山地區 전부사령관 金白一 대령으로부터 『警察이 수집한 情報에 의하면 白雲山의 共匪 300여명이 晉州를 습격할 企圖로 보이니 海兵隊는 警察과 協力하여 防備를 徹底히 하라.』는 通諜를 받았다. 그리고 앞서 提報한 共匪들로부터 『海兵隊의 경비와 방어 때문에 數次에 걸쳐 많은 損失을 입었으며, 不日內로 晉州를 습격하여 武器를 奪取함과 아울러 晉州刑務所를 破壞하여 罪囚들을 釋放 包攝함으로써 그들의 兵力을 增強하고, 晉州를 제2의 麗·順化하려 하고 있다.』는 諜報를 알았다.

이리하여 海兵隊는 더욱 宣撫工作을 활발히 하는 同時에 警察과 協조하여 부대배치의 再調整과 경비태세를 強化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晉州에 대한 共匪의 侵襲** : 10월 26일 智異山地區戰鬪사령관 金白一 대령이 視察次 海兵隊를 訪問하고, 사령관 申鉉後 대령도 부대 巡視次 晉州에 왔다. 부대장은 近間의 상황을 兩사령관에게 Briefing하고 이들을 宿所로 定한 晉州 Hotel로 案内하였으며, 이 附近에는 海軍헌병과 金鍾植 중위가 지휘하는 情報隊를 배치하여 특별경계토록 하고, 外鄕 및 內鄕 경비임무를 맡은 제1, 제5중대도 責任지역內에서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날 저녁에는 海軍本部에서 慰問團이 나와 晉州劇場에서 慰問公演이 있었다. 이에 따라 患者와 勤務者를 제외한 全 장병이 한때를 보내고 돌아갔다. 이때

에 兵營에는 제1兵舍에 제1중대의 患者 3명과 監視兵 1명을 包含한 4명이 있고, 제1兵舍에는 제5중대가 취침상태에 있었고, 衛兵所에는 제5중대의 李雨燮 三等兵曹 以下 9명이, 그리고 제5중대 선임하사관 廉泰福 一等兵曹은 逃亡中 自殺한 兵士에 대한 葬禮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下에 놓여있을 때 市內에서 갑자기 前에 없었던 Siren 이 울려 퍼졌다. 이때에 共匪들은 警備網을 뚫고 그들이 選定한 目標지역으로 侵透하고 있었던 것이며, 海兵隊 兵舍에는 27일 01.40 銃擊을 加하며 衛兵所 西側으로 부터 侵入하기 始作하였다. 그들은 侵入에 앞서 衛兵所에 架設된 照明燈을 破壞한 까닭에 兵力규모는 알 수 없었으나 一部는 揮發油를 뿌리며 放火하고 一部는 兵舍로 亂入하여 無差別 사격을 加하였다.

이때 當直士官인 安昌寬 중위는 『共匪 侵襲!』을 외치며 『全員 戰鬥대세를 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제5중대는 1分內로 戰鬥態勢를 취하고 營內로 亂入하는 敵에게 집중사격을 加하였다.

한편 晉州 Hotel에 있던 海兵隊사령관과 智異山戰鬥사령관은 곧 情報隊長 金鍾植 중위의 보고로 共匪侵襲임을 確認하고, 사령관은 金龍國 중위의 報告를 받고 달려온 부대장과 같이 歸營하여 부대지휘에 임하였다. 이때에 營內에는 衛兵所와 제1兵舍가 火燭에 휩싸였으며 安昌寬 중위 지휘하에 官物 搬出作業중이고, 衛兵조장 李雨燮 三等兵曹 以下 9명의 衛兵은 兵器庫에 侵入하려는 敵을 사격으로 擊退하였다.

이윽고 04.30에는 그들을 完全히 擊退하였는데, 市內로 潛入한 共匪는 郡廳—裁判所 刑務所등에 放火하고 掠奪을 恣行하였다.

이때에 射殺된 共匪(中隊長級으로 인정되는 者)의 手帖에서 敵의 企圖를 알게 되었다. 즉, 河東方面에서 侵入한 敵 150명은 海兵隊를 담당하고, 山淸—陝川에서 侵襲한 110명은 市內의 各 公共施設을 破壞하여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전날 밤 公演이 끝난 慰問團을 軍用 GMC 1대로 晉州驛까지 輸送케 하였는데, 歸隊중이던 運轉兵은 부대周邊에서 銃聲과 火災의 불길기 치솟고 있음을 보고 급히 부대로 달렸다. 運轉兵은 Light를 켜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렸기 때문에 共匪들은 이를 보고 增援부대로 알았음인지 이때 부터 營內로의 侵入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晉州警察署에서는 海兵隊가 叛亂을 일으킨 것으로 誤認하고 Siren을 吹鳴하면서 이를 關係要路에 전파하였던 바, 馬山の 陸軍 제16연대는 急遽 海兵隊叛亂을 鎮壓하기 위하여 Truck 23대를 動員하여 出動하고, 地方의 各 官公署에서도 이를 傳播하여 海兵隊의 叛亂으로 誤認하게 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까닭을 알지 못한 부대장은 兵營으로 侵入한 敵을 물리치고, 市內에서 亂動하는 敵을 追擊하였다. 不意에 急襲을 당한 敵은 새벽이 되면서 陝川—山淸—河東쪽으로 分散退却하기 始作하였다. 부대장은 少數의 兵力을 兵營에 殘留시키고 제5중대와 下士官

육대 要員은 車輛化하여 山溝쪽으로 敗走하는 敵을 五美里(晉州 西北쪽 10km)에서 捕捉 6명을 射殺하였다. 이에 당황한 共匪는 各個 分散하였으며, 부대장은 各隊를 分隊單位로 하여 그들을 追跡케 하였다. 그러나 錯雜한 山속으로 숨어버린 共匪를 찾아내지 못하고 17.00에는 예정集結地로 集結하기 始作하였다. 그런데 이때 부대 頂點지를 둘러싼 四方의 山頂에는 大規模의 부대가 包圍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集結地로 向하여 壓縮 接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全員 軍裝한 것으로 보아 共匪擊滅戰에 나섰던 陸軍부대임에는 틀림 없었으나 여기서 잘못하면 我軍끼리 銃擊戰이 벌어질 것으로 본 부대장은 『명령없이 사격을 금한다.』고 全員에게 이른 다음 점점 가까히 접근하는 이들을 注視하였다. 틀림없는 陸軍부대임을 確認하였으나, 無表情한 陸軍부대는 『叛亂부대가 아닌가?』고 反問하였다. 이에 놀란 부대장은 事實의 경위를 설명하자, 陸軍부대에서도 표정을 달리하며 『지난밤 晉州警察署로부터 海兵隊가 叛亂을 일으켰다.』는 通牒에 따라 急速 出動하게 된 것이라하며 『우리는 智異山戰鬪부대중 河東 및 陝川駐屯부대와 馬山에서 出動한 부대』라고 밝혔다.

이 戰鬪에서 共匪는 幹部級 1명을 포함한 10여구의 屍體를 遺棄하였으며, 海兵隊는 李一雨, 金熙善 二等水兵을 포함한 4명이 戰死하고 2명이 負傷하였으며, 兵舍 1棟과 郡廳, 裁判所, 刑務所등을 燒失하는 損失을 보았다.

10월 27일의 共匪침습을 계기로 부대장은 晉州와 河東을 잇는 要衝인 新安洞(晉州 西쪽 6km)에 제5중대를 배치하고 市의 外廓 要所인 望雲山—操樂—開陽—上大里—草田里—王峰—飛鳳—池內洞—柳谷등지에 分哨를 設置하는 한편, 11월 1일 보충된 新兵 200명으로써 제7중대(장, 安昌寬 중위)를 편성 예비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태세하에서 11월 14일 共匪 150명은 晉州 再侵을 試圖하였으나 이를 擊退하였으며 12월 13일 共匪 100명은 河東郡 王宗面 一帶에 出沒하여 掠奪한다는 情報에 따라, 사령관 申鉉俊 대령의 지휘하에 이들을 擊退하였으며, 情報隊(장, 金鍾植 중위)는 三千浦로 통하는 道路上의 버스 停留所에서 殊常한 青年을 審問한 끝에 共匪連絡員임을 밝혀내고, 이를 앞세워 共匪 4명을 捕獲하였다.

이렇듯 初期作戰에 成果를 거둔 海兵隊는 晉州에 과거된지 4개월만인 1949년 12월 26일 晉州를 떠나 濟州道로 이동하게 되었다.

## (2) 濟州道地區의 戰況

1949년 12월 26일 鎮海에 集結한 海兵隊는 27일 LST 丹陽號便으로 鎮海灣을 떠나 28일 濟州港에 도착하였다.

本道는 解放과 더불어 急進的으로 밀어닥친 共產主義思想에 感染되어 所謂 4.3 事件(1948. 4.3 左翼系列에 依한 暴動事件)을 보았으며, 陸軍부대가 出動하여 이를 鎮壓하였으나 그 殘匪 100여명은 漢拿山(△1950)을 根據地로 勢力扶植에 汲汲하였고 또 住民들은 그들과의 血緣이 있으므로 地方共匪들을 돕던관계로 그 根絶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海兵隊가

이곳에 駐屯하고 있던 陸軍 제1獨立대대(장, 金龍周 중령)와 任務를 交代하게 된 것이다.

사령관 申鉉俊 대령은 사령부를 濟州邑에 定하고 그 周圍에 제3중대(장, 金洛泉 중위, 뒤에 李鳳出 대위) 대전차포소대(장, 金東允 소위) 근부중대(장, 高相河 중위)를 두어 濟州邑부대라고 하였으며, 主力인 戰鬪부대는 幕瑟浦에 배치하고 金東河 소령을 부대장으로 하여 그 隸下의 2개 대대로써 濟州一圓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부대장 金東河 소령은 제1대대(장, 金秉鎬 대위)로써 北濟州郡을, 제2대대(장, 金載珠 대위)로써 南濟州郡을 各各 경비케 하고, 地域內의 要所인 城山浦, 西歸浦 및 翰林에는 情報隊(장, 金鍾植 중위)와 憲兵隊(장, 金辰泰 소위)를 배치하였는데, 이때 제1대대는 제1중대(장, 韓禮深 중위)와 제2중대(장, 金光植 중위)로써 편성되고, 제2대대는 제5중대(장, 鄭重鎰 중위), 제6중대(장, 徐廷南 중위)와 제7중대(장, 安昌寬 중위)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사령부는 장교 66명, 사병 1,100명 都合 1,166명에 이르렀고, 장비로서는 口徑 30 輕機關銃 6挺, 口徑 50 機關銃 3挺, 60mm迫擊砲 4門, 81mm迫擊砲 2門, 2.36"Rocket 砲 4門의 共用火器와 拳銃 15挺을 포함한 機關短銃, Car소총, 九九式소총등 個人火器로 武裝하여 完全 戰鬪부대로서의 面貌를 갖추었다.

사령관 申鉉俊 대령은 각 부대를 部署케 한 다음 1950년 1월 5일부터 7일간에 걸쳐 예하 부대의 現況과 海岸線 및 主要港灣施設 그리고 治安상태를 돌아보고 要旨 다음과 같이 任務를 下達하였다.

- 『① 海兵隊 自體의 精神的 肉體的訓練을 強化한다.
- ② 30萬道民에 再起의 힘을 주는 한편 그들을 繁榮의 길로 引導한다.
- ③ 漢拏山을 根據地로 共匪를 擊滅한다.』

이와같은 任務일에서 사령관은 自體強化에 힘쓰는 한편, 海軍本部로부터 政訓 및 報道課要員의 支援를 받아 啓蒙演說을 하게한데 이어, 사령부 정훈장교 洪日陞 소위로서는 北濟州郡을, 幕瑟浦부대의 정훈장교 趙仁福 소위로서는 南濟州郡을 各各 宣撫工作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醫務隊장 金正수 대위로서는 無醫村의 巡迴診療를 통하여 患者를 보살피게함과 아울러 道路 및 下水道工事등 住民의 일손을 덜게 해줌으로써 國民을 위한 眞正한 軍隊임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하는데 盡力하였던 바, 排他的인 이들도 점차 軍作戰에 협조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基盤을 土臺로 2월에 접어들면서 共匪擊滅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道內 共匪를 지휘한 高性九는 제9연대 脫走兵으로서, 李德九가 射殺되자 自稱 濟州地區 人民遊擊隊 사령관이라고 하였으며, 同地區 人民委員會 總貢으로서 이들을 操縱하고 있던 金達三은 形勢의 不利함을 깨닫고 1949년 3월에 濟州를 脫出越北하자, 金容寬이 그 뒤를 이었으나 同년 4월 20일 射殺되고, 金成奎가 이에 임하여 暗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甘言利說에 속아 끌려갔던 良民들이 大量 歸順함에 따라 殘黨은 100여명

으로 즐었으며, 歸順者의 提報로 隱匿埋沒하였던 武器를 鹵獲당하여 이제는 겨우 30여명이 武裝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또한 歸順者에 依하면 그들은 漢拏山 깊숙한 곳을 根據地로 하여 所謂『하찌마끼』道路(日本軍이 敗戰直前に 開設)의 東西南北 4個所에 警戒哨所를 設置하고, 그 안에는 野戰病院까지 두고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人員補充, 武器 및 彈藥의 탈취, 食糧 확보, 民心動搖와 經濟破綻, 治安攪亂등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으나, 海岸線 9km밖의 部落은 燒却되고 그들의 主要通路上에 警察이 경비하고 있었던 까닭에 活動 범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령관은 부대를 2隊로 나누어 作戰케 하였는데, 제1隊는 情報참모 高吉勳 소령이 지휘하는 情報隊로서 부대 通常명칭을 제932부대라 하고, 陳斗台 兵曹長, 金益泰 一等兵曹, 趙基元 二等兵曹을 分隊長으로하는 3개 分隊를 編成하였다.

제2隊는 金東河 소령이 지휘하는 驀瑟浦부대로서 제945부대라 하였으며, 제1대대는 金秉鎬 대위가, 제2대대는 金載珠대위가 各各 지휘하였다.

제932부대(장, 高吉勳 소령)는 그간 入手한 情報에 따라 漢拏山 西北側 五百將軍과 △1392(漢拏山 西쪽 5km), 세오름(三岳—△724), 돌오름(石岳—△889)으로 둘러싸인 中文—安德—涯月面 一帶에 搜索을 展開하여 2월 5일 돌오름(中文里 北쪽 10km), 무스개(自然굴) 및 △950에서 처음 接戰하였다. 20여명으로 보인 共匪는 執拗하게 抵抗하여 戰鬪는 6일까지 계속되었으나, 數的으로나 裝備面에서 相對가 되지않았던 그들은 어둑을 타 分散逃走하였으며, 제1隊는 여기에서 8명을 射殺 8명을 捕獲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부대장은 제3분대(장, 趙基元 二等兵曹)를 金鍾植 중위 지휘하에 退却하는 共匪를 追擊케 하였던 바, 3월 10일 15.00에 △894(中文里 北쪽 8km)중턱에서 그들 野戰病院을 發見하게 되고, 이를 急襲하여 病院長 金포길과 濟州道 勞動黨 書記長 姜 喆을 射殺하였다.

또한 涯月面에서 搜索중이던 제2分隊(장, 金益泰 一等兵曹)는 한대오름(漢大岳—△913)附近에서 共匪 40여명과 遭遇하고 그들과 熾烈한 銃擊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分隊長 金益泰 一等兵曹는 全 火力을 集中시켰으나, 數的으로 優勢한 그들은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包圍하려는 氣勢로 接近하기 始作하였으며, 分隊는 携帶한 彈藥을 消耗하게되자 白兵戰으로 突入할 태세를 취하였는데, 이때 마침 돌오름附近을 搜索중이던 제1分隊(장, 陳斗台 兵曹長)가 銃聲을 듣고 달려와 그들을 強襲하여 7명을 射殺하고 殘匪를 격퇴시킴으로써 危機에 놓인 제2分隊를 救出하게 되었다.

한편 제2隊인 제945부대(장, 金東河 소령)는 西歸浦에 지휘소를 설정하고 五百將軍(또는 五百羅漢이라고도하는 漢拏山 北側 溪谷이름)—셋오름間의 漢拏山 東南쪽에서 제1대대(장, 金秉鎬 대위)를 右로하여 南元面 境界地帶內에서, 제2대대(장, 金載珠 대위)를 左로하여 西歸邑 境界地帶內에서 各各 搜索戰을 展開케 하였는데, 이와같은 大的인 作戰을 하게된 것은 이곳 移動以來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漢拏山 地理에 밝은 地方民을 動

員하여 案内케 하였다.

이 高地의 中턱(7分稜線)에 『하저마끼』 道路라 하는 道路가 同 高地를 中心으로하여 開設되었는데, 過去 日本人들이 이 高地의 開發과 軍事的 目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4.3事件以後부터 이 道路에서 山頂까지는 共匪들의 活動舞臺로서 利用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945부대의 作戰地域도 이곳으로 集中되었는데 그들은 恒時 監視와 警戒를 하고 있는터이라 大部대의 움직임은 오히려 그들을 쫓는 結果가 되었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期待하였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3월末을 期하여 本隊인 幕瑟浦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 제6중대(장, 徐延南 중위)의 제1소대장 겸 선임장교 李元旭 소위가 지휘한 1개분대는 3월 15일 住民의 案内를 받으며 五百將軍地帶를 搜索중 그들의 彈藥製作所를 發見하고 작업중이던 2명을 射殺한데 이어 各種器材와 書類를 押收하였으며, 이어서 3월 22일에 돌오름(漢擎山 東쪽 5km)附近에서 共匪 50여명과 遭遇하여 3時間여의 交戰끝에 그들을 격퇴시켰다.

그뒤 부대장 金東河 소령은 교육 훈련을 계속케 하면서 정보제공에 따라 1개 중대 또는 소대單位로 迫敵 擊滅케 하였는데, 5월에 접어들면서 毗埤里(西歸浦 東北쪽 5km), 西洪里(西歸浦 北쪽 3km), 西好里(西歸浦 西쪽 4km)등 山麓部落에 共匪가 出沒한다는 報告에 따라, 同월 20일 지휘소를 米岳(西歸浦 北쪽 8km)으로 옮기고, 2개 대대로서 精密 搜索을 展開하여 그들의 活動舞臺를 좁혀가던중 6.25를 맞게된 것이다.

**海兵隊의 仁川作戰출동:** 海兵隊가 濟州地區 共匪擊滅作戰에 임한지 6개월만에 北傀의 全面南侵을 맞아 사령관 申鉉俊 대령은 同일附로 濟州地區 戒嚴사령관으로 임명되는 同時에 道内の 治安確保와 海岸경비 임무를 遂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령관은 作戰중인 各부대를 철수시키고, 道內 各機關을 管掌하여 地方民의 暴動豫防과 海上을 通하여 上陸할지도 모르는 敵에 對備키 위한 조치로서 濟州市와 主要地域에 경비초소를 強化하는한편 海岸監視 및 海上경비에 임하게 하고 있던중 上部 명령에 의하여 7월 15일 제1대대의 제1중대(장, 韓禮澤 중위) 및 제2중대(장, 金光植 중위)에 사령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제3중대(장, 李鳳出 중위)로써 增編한 1개대대를 정보 및 작전참모인 高吉勳 소령으로 하여금 지휘케하여 群山方面으로 出戰케한데 이어, 同월26일에는 참모장 金聖恩 중령과 제7중대(장, 安昌寬 중위)를 出動시켜, 長項으로부터 北傀의 南下를 阻止遲延시키면서 철수중에 있던 高吉勳 부대를 同일부로 麗水에서 統合지휘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령관은 7월 中旬부터 新兵 3,000명을 道內에서 募兵하여 1개연대를 편성하고 이를 訓練시켰으며, 9월 6일에는 濟州道內에 殘留한 全兵力을 釜山으로 이동시켜 9월 15일 歷史的인 仁川上陸作戰에 參加하게 된 것이다.

§ 研 究

(1) 海兵隊令 (大統領令 제88호)  
1949년 5월 5일 公布

- 第1條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第2條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陸上戰鬪에 任하는 同時에 駐屯地域의 警備任務를 遂行한다.  
 第3條 海兵隊에 司令官을 둔다. 司令官은 海軍總參謀長에 所屬하여 所屬部隊를 指揮統率한다.  
 第4條 海兵隊의 編成 및 配置는 海軍總參謀長이 定한다.  
 第5條 統制府 警備府 所在地에 있는 海兵隊는 特別한 規定, 指示 또는 命令이 없는 限 當該司令官의 指揮統率을 받는다.  
 第6條 司令官은 海軍總參謀長의 認可를 얻어 本令에 規定한 以外의 事項에 關하여 海兵隊 規程을 定할 수 있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海兵隊令 (大統領令 제672호)  
1952년 8월 15일

- 第1條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第2條 海兵隊는 海軍作戰에 依한 上陸作戰에 從事할 수 있다.  
 第3條 海兵隊에 司令官과 參謀長을 둔다. 司令官은 海軍參謀總長에 隸屬하여 所屬部隊를 指揮監督한다. 參謀長은 司令官의 命을 받아 參謀業務를 統制監督하여 司令官이 事故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4條 司令官은 海軍現役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上申으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이 命하고, 參謀長은 海軍現役將校中에서 海軍參謀總長의 上申으로 國

防部長官이 命한다.

- 第5條 海兵隊司令官에 다음 部署를 둔다.  
 人事局 情報局  
 作戰教育局 軍需局  
 法務監室 財務監室  
 醫務監室  
 第6條 人事局은 人事, 文書, 公報, 精神敎養, 監察, 厚生과 軍事警察 其他 局 監室에 屬하지 않은 事項을 分掌한다.  
 第7條 情報局은 軍事情報, 軍情報과 偵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8條 作戰教育局은 作戰, 敎育, 裝備와 勤員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 軍需局은 軍需品의 補給搭載과 輸送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0條 法務監室은 司法과 令狀發付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1條 財務監室은 財務와 軍需品 調達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2條 醫務監室은 醫務衛生과 藥事に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3條 局에 局長, 監室에 監을 둔다. 局長과 監은 海軍將校中에서 海軍參謀總長의 上申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命한다.  
 第14條 局長과 監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務 또는 室務를 處理하여 部下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15條 必要에 依하여 國防部令으로 局과 監室에 課를 둘 수 있다.  
 第16條 海兵隊의 戰鬪部隊의 編成에 關하여는 當分間 國防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4. 國立警察의 活動 (1950년 6월 25일부터 // 7월 5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9 호

## 가. 一般事項

1946년 5월 23일 美군정 당국이 38°線 무단 越境 禁止令을 公布함으로써 국토의 兩斷과 민족의 分열이 현실화되었는데, 이때 U.S.S.R의 使賊을 받은 북괴집단이 韓半島를 적화 통일코자 對韓폭동과 반란을 劃策하였다.

北傀는 1946년 말에 江東정치학원(제3군관학교로 개칭)을 설립하여 越北한 좌익분자 중의 청소년들을 선발, 3개월 乃至 6개월간의 유격훈련과 간첩 및 사상교육등을 실시한 다음, 前後 10차에 걸쳐 이를 남파시켜 南韓 전지역에서 폭동·반란·간첩행위·정치공작·요인암살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我군경에 의하여 대부분 격멸되고 1950년 6월 현재에는 남파된 殘匪 270명과 지방공비 190명, 도합 460여명만이 간신히 그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립경찰은 전투경찰로서 38°선 경비의 一役을 맡기도 하고, 공비격멸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행정경찰로서 경찰본연의 업무에 從事하였는데, 특히 대공수사 및 사찰활동에 注力하였다.

당시 38°선 경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1945년 9월 8일 南韓에 駐留한 美제24군단은 제7사단을 江陵—春川—議政府—開城—薺津지구에 38°선부근에 초소를 설치케 하고 U.S.S.R軍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에 경찰은 美군정 당국의 지시에 따라 38°선 이남의 村落과 以北으로 이르는 小路上에 警備초소를 설치하여 接敵지역에 대한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1948년 12월말에 美 제6, 제7兩사단이 韓國國民의 뜻을 저버리고 철수하기에 이르자 1949년 초부터 38°선 경비임무는 우리 국군이 인수하고 경찰은 전과 같이 잔류하여 임무를 계속하였다.

## 나. 경찰 비상경비사령부의 설치

1948년 4월 3일에 발발한 濟州島 폭동사건이 7개월이 지난 10월에도 진압이 어렵게되자 군 당국은 麗水에 위치하던 제14연대를 投入키로 하였는데 同 10월 19일에 이 제14연대의 일부가 공산당의 使賊을 받아 출동 前夜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중시한 치안국은 이와같은 敵의 치안교란 사태에 즉각 대처코자 10월 하순에 非常

警備司令部를 설치하는 동시에 各道 경찰국에도 비상경비사령부를 두었는데, 그 편성은 치안국장이 사령관으로, 그 예하에 행정·정보·작전·통신부서와 함께 前述한 각도경 비상경비사령부라는 기구가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은 비상경비사령부를 主軸으로 전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9년 9월 2일에 1개 중대규모의 특별 기동대를 편성하고, 1950년 4월 15일에는 경찰간부 24명을 始興 육군보병학교에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한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동년 4월 20일 제8, 제9전투경찰대대(1개대대 496명)를 창설하여 제8대대를 江原道 寧越과 長省일대에, 제9대대는 南春川에 배치하였다.

이와같이 戰力を 강화한 경찰은 敵의 후방교란에 대비하여 출동대기 중이었는데, 1950년 6월에 들어서자 南侵에 충분한 군사 力量을 보유하고 있는 북괴가 僞裝평화공세로 표면하여 羊頭狗肉格으로 남침야욕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비상경비사령부는 6월 9일로 京畿·江原 兩道경찰국에 『甲號비상근무령』을 발령하여 38°선 접경의 경찰부대에 비상태세에 돌입토록한바, 예기한대로 6월 25일 새벽에 북괴의 남침급보가 비상경비사령부에 날아들었다.

이에 비상경비사령부는 전국경찰에 전투태세로 突入하라고 命命하는 동시에 江原·京畿 兩道경찰국에는 국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괴의 남침을 막도록 다음과 같은 要旨 命命을 下達하였다.

- 『① 道경찰국 비상경비사령부는 남침하는 敵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라.
- ② 각경찰서단위로 전투경찰부대를 즉각 편성하고, 비상경비사령부의 命命에 따라 작전하라.
- ③ 철도, 軍 주보급로, 주요 교량, 철교, 터널, 발전소, 식량창고등 국가 주요시설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 ④ 피난민을 가장한 敵의 五列을 색출하고, 후방교란책동을 봉쇄하라.
- ⑤ 현지 軍 지휘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 ⑥ 戰傷군관민의 입원후송에 철저를 기하라.
- ⑦ 戰災 피난민의 疎開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

## 다. 江原道 비상 경비사령부의 진황

###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비상경비사령관 경무관 尹 明 運 | 注文津경찰서장 경감 丁 福 熙

江陵경찰서장	총경	金 湖 仁	제8전경대장			
三陟경찰서장	총경	金 斗 用	제9전경대장			
麟蹄경찰서장	경감	尹 龍 遠	인접부대			
春川경찰서장	총경	曺 圭 洪	제8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洪川경찰서장	경감	金 倬 起	제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 敵 軍

제2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7사단	장 소장	金 宇
제2사단	장 소장	李 靑 松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5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766부대	장 총좌	吳 振 宇

### (2) 江陵地區 戰鬪

당시 東部전선을 전담하고 있던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은 指揮所를 江陵에 두고, 제10연대로 하여금 38°선 경계를 맡게하는 한편 제21연대를 三陟에 두어 공비 격멸 작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이때 경찰은 주로 海岸線에 병력을 配置하고, 일부 병력은 太白山지구에서 軍과 함께 공비 격멸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가운데 6월 25일 04.00를 期하여 東海岸에도 북괴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敵 제5사단은 注文津경찰서 管内의 西林—棧橋에 이르는 我軍제10연대의 방어선을 突破한 것과 더불어 같이하여 敵 제766부대는 江陵의 安仁津里에, 제549부대는 玉溪面 道里에, 제200지대는 三陟의 臨院津에 각각 上陸하여 我軍의 退路를 차단코자 하였다.

당시 正東面 海岸초소에 파견된 江陵경찰서 金大旭 순경은 上陸한 敵을 機動훈련중인 國軍으로 誤認하고 방관하다가 敵彈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이때부터 敵의 침공이 알려지게 되었다.

경찰은 즉시 제8사단 상황실에 敵의 上陸상황을 통보하고 赴援을 요청하는 동시에 敵의 上陸을 저지코자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各梯隊間의 유선망이 두절된데다 四面에서 몰려드는 敵의 공격으로 교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는 동안 제8사단의 일부병력과 海軍경비대 兵力이 증원되어 終日토록 격전을 벌이게 되었으나 끝내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여 각개 분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注文津경찰서(장, 丁福熙 경감)는 전투중대를 편성하여 署長지휘下에 署所在地의 4km 북쪽에 있는 香湖里와 仁邱에 上陸한 敵을 맞아 孤軍奮鬪하다가 중과부적으로 25일 夜半에 沙川으로 철수하였다.

沙川에서 兵力을 수습한 丁福熙 署長은 上陸한 敵과 3일간에 걸쳐 軍과 협동작전을 벌

이다가 27일 24.00까지 大關嶺으로 철수하라는 軍의 指示에 따라 新방어선으로 轉進하였다. 한편 三陟경찰병력은 敵의 기습을 받고 25일 23.00에 이미 전병력을 平昌郡 珍富面으로 뿔아 다음 작전에 對備하였다.

이때 제9전투경찰대대의 제3중대는 남침하는 敵의 유격대의 침투로를 봉쇄하고자 五嶽山 頭老峯 頂上에 配置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敵의 南侵상황도 알지 못하다가 注文津경찰서 三山支署의 연락을 받고 철수하여 珍富嶺의 三陟경찰서 병력과 합세한 다음에 雲頭嶺후방 경계를 담당케 되었다.

이리하여 경찰은 大關嶺을 중심으로 軍과 함께 2일간 격전을 벌였으나 敵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軍의 主陣地가 와해됨으로써 29일 19.00에 다시 南으로 철수케 되었다

### (3) 春川부근 전투

이날 04.15에 38°선이 突破되자 春川경찰서의 접경지역인 內平支署에서는 支署長 盧鍾海 경위외 8명이 동시서를 지키고자 저항하다가 敵의 대병력에 포위되어 건원 산화하였다 또한 史北지서에서도 國軍 제7연대 제2대대 1개 중대와 쏘지서원 12명이 협동으로 敵의 침공을 저지하다가 열세에 몰려 철수케 되었는데 경찰은 최후로 진지를 물러나는 순간에 敵의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고 순경 尹洪奎 외 8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敵 제2사단은 25일 오전중으로 春川을 탈취한 다음, 加平을 거쳐 水原방향으로 迂回하여 西部전선으로 증원되는 我軍의 지원병력을 차단코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傀는 25일 終日토록 我軍경의 固守로 말미암아 春川을 점령치 못하고 오히려 많은 손실만을 보게되었다.

그리하여 26일에 다시 병력을 증원하여 北漢江 對岸의 牛頭평야에 殺到하였다.

이에 경찰은 我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의 命令에 따라 春川 外廓의 제방과 각 高地에 兵力을 배치하여 침공하는 敵과 혈전을 벌인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敵은 이에 자주포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계속 경찰진지를 유린한 다음에 昭陽江을 渡河하려 하였으나 병력의 손실만을 본채로 그 企圖가 좌절되었다.

敵은 이번에는 장거리포로써 春川 시내에 치열한 포격을 가하여 道廳의 청사까지 파괴되었는데 이에 江原道警 비상경비사령관 尹訓運 경무관은 사령부를 南春川의 碩士洞에 위치한 제9전투경찰대대 본부로 移轉하였다.

敵은 연 3일간이나 春川을 탈취코자 기도하였으나 많은 사상자만을 낸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洪川方向으로 진출하던 敵 제7사단의 일부병력으로 嘉山里 方向으로 우회케 하여 我진지를 협격코자 함으로써 我軍은 27일 17.00 春川에서 洪川方向으로 철수하였는데 비상경비사령부도 洪川으로 옮겼다.

29일 비상경비사령부는 春川, 麟蹄 兩署병력과 제9전투경찰대대(이중 제3중대는 五嶽山

에서 공비 적멸중)를 수습하여 洪川방어선의 일부를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敵의 압력이 점차 加重됨에 따라 다음날 경비사령부는 原州로 移動하고, 경찰병력은 橫城으로 轉進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02.00에는 敵이 洪川 시내에 突入함으로써 시가전이 벌어 졌는데, 이때 洪川경찰서(장, 金聲起 경감)兵力은 아군이 完全히 철수할때까지 격전을 전개하다가 이날 03.00에 橫城으로 철수하였다.

#### (4) 寧越地區 公방전

7월 1일, 寧越과 蔚珍 이북의 江原지구 全경찰서는 軍과 함께 逐次철수케 되었다.

이에 비상경비사령관 尹明運 경무관은 사령부를 原州로부터 堤川으로 이동하고 철수한 경찰병력을 수습하여 寧越地區를 고수키로 하였는데, 당시 同지구는 軍의 백치가 없어 경찰이 단독으로 작전을 치루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尹明運 司令官이 이 寧越地區를 끝까지 지키고자 한것은 寧越是 上東 重石광산을 비롯하여 威白, 磨礮里 等地에 많은 炭鑛이 있었으며, 特히 10kw출력의 화력발전소가 있어 戰略的으로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사령관은 경찰학교장 金麟鎭 총경을 寧越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8전투경찰대와 寧越 및 長省경찰서 병력으로 寧越지구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寧越을 고수케 하였다.

이에 金麟鎭 총경은 부대를 寧越주위의 무명고지에 配置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7월 2일 새벽에 靺車를 앞세운 敵이 磨礮里를 指向하여 侵攻하고 太白山에 侵透한 敵의 유격부대가 東側方과 후방을 위협함으로써 경찰부대가 敵의 포위망에 들게 되었다. 寧越경찰은 이와같은 難境속에서도 終日토록 용전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다음날 05.00에 포위망을 통과하여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原州를 侵襲한 敵은 南段을 계속하여 堤川 北쪽의 鳳陽을 위협하므로 司令部를 다시 丹陽으로 이동하였다.

尹明運사령관은 寧越을 탈환코자 丹陽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하려하였으나 각개분산된 병력의 대부분이 淸州방향으로 후퇴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집한 병력은 寧越, 旌善의 兩 團兵力과 제8, 제9, 兩 전투경찰대대 뿐이었다.

이 병력을 재편한 사령관은 『江原경찰의 명예와 전통을 위하여 寧越탈취에 몸 바치자.』고 강조한 다음,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여 寧越의 탈취에 나섰다. 경찰부대는 磨礮里쪽의 도로 兩側의 무명고지에 집중 배치하여 敵의 침공에 대비하였는데, 이날 子正무렵에 敵의 一團이 磨礮里로부터 正面 侵襲하고 그 일부는 퇴로를 차단코자 上東쪽에서 侵襲하

였다.

이에 경찰부대는 치열한 교전 끝에 敵을 격퇴하였으나 그들의 후속병력의 증원과 三玉(寧越 東쪽 4km) 방향으로 우회한 무리가 포위를 企圖함으로써 7월 5일 06.30에 寧越을 포기하고 다시 물러나게 되었다.

### 라. 京畿道 비상 경비사령부의 戰況

####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비상경비사령관	경무관	李 夏 榮	開城경찰서장	총경	文 鍾 濟
甕津경찰서장	총경	李海鎭(上京中)	長湍경찰서장	경감	洪 殷 植
代理	경감	金 善 鎭	坡州경찰서장	경감	賈 昶 鉉
靑丹경찰서장	경감	李 鍾 鎬	開城鐵警隊長	경감	甘 鳳 龍
延安경찰서장	경감	金 周 文	인접부대장		
白川경찰서장	경감	崔 正 得	제 1 사 단 장	대령	白 善 燁
			제 17 연 대 장	대령	白 仁 燁
敵 軍					
제 1 사 단 장	소장	崔 光	제 3 경비여단장	소장	崔 賢
제 6 사 단 장	소장	方 虎 山			

#### (2) 開城부근 전투

開城은 서울과 平壤을 잇는 38°線上의 요충이었으므로 敵의 제1차적인 공격목표였다.

당시 開城地區는 제12연대(장, 全盛鎬 대령)가 38°선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연대의 대부분 장병이 휴가 외출·외박을 실시하였으므로 25일의 開城은 사실상 텅빈 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機會를 노린 敵 제6사단이 2개연대를 投入하여 攻擊하였으나 同區는 삼시간에 패허의 罅터미로 化하게 되었다.

이날 04.45에 敵의 攻擊이 시작되자 제12연대 제2대대 일부병력과 경찰(開城경찰서, 開城철도경찰대)은 전투준비도 미처 갖추지 못한채 1시간동안 저항하였으나 끝내 방어하지 못하고 제12연대의 뒤를 따라 汶山지역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開城철도경찰대만은 끝까지 경찰대본부를 고수하다가 전원이 장렬히 전사함으로

써 호국의 化身이 되었다.

#### (가) 開城철도경찰대의 분전

開城철도경찰대장 甘鳳龍 경감은 이날 05.30에 50여명의 본부요원과 더불어 同 본부를 끝까지 고수할 결의를 굳게하고 전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命을 하달하였다.

『①敵은 대병력으로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였다.

② 경찰은 軍작전에 호응하여 管内를 고수하는 동시에 敵을 격멸하려한다.

③ 경비주임은 本部 뒷산과 本部 및 철도건물에 전병력을 배치하고 敵이 침습하면 陣前에서 격멸하라.

④ 사찰주임은 私服員 2명을 合同정보본부에 파견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을 본부에 有線보고하라.

⑤ 各支隊, 출장소, 파견대주임은 현지 일반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를 고수하라.

⑦ 유선부절시는 일반쪽과 행동을 같이하라.

⑧ 각 단위에 지휘관은 敵接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⑥ 대장은 본부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각대원을 본부건물을 중심으로 요소에 배치하고 임전태세를 갖추는 한편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러는 동안 敵은 我軍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지 않고 밀려들어 07.30에는 부대의 유선마저 마비된 가운데, 본부 건물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대원은 결의를 굳게하고 敵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 그 不退轉의 기세 앞에 당황한 敵은 數重의 포위망으로도 이를 제압치 못하자 급기야는 戰車까지 投入하였다.

08.00에 敵은 5대의 전차포와 자동화기로 본부의 側背를 侵襲하니 본부건물은 파괴되고 말았다.

이에 전대원은 일시 방공호로 대피하였는데, 敵은 이를 노린듯 포위망을 압축한 다음, 수류탄과 자동화력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全대원은 甘鳳龍 경감을 선두로 泐然히 敵의 포위망을 향하여 『大韓民國 萬歲!』를 외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重圍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08.30에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 전투에서 철도경찰대의 전과는 헤아릴길이 없거니와 이로 인하여 전사 43명 부상 8명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 가운데 3명만이 九死一生으로 포위망을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 (나) 靑丹경찰서의 활동

敵이 38°線을 攻撃한다는 급보를 받은 靑丹경찰서(장, 李鍾鎬 경감)는 늘 있었던 38°선 충돌 사건이 또 발생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삼시간에 사태가 심상치 않게 급변되자 즉

각 전투태세로 전환한 다음, 전병력을 岾山고지와 馬塔고지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敵은 포격과 자동화력으로 경찰의 방어진지를 감타하면서 물밀듯이 밀어 닦았다.

이에 일제히 소총사격을 집중하였으나 敵은 피해를 무릅쓰고 侵襲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예봉을 피하여 細皮고지로 철수한 다음 이 고지에서 급편진지를 준비하여 敵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여기에서, 경찰은 화력과 병력이 열세한데도 불구하고 渾身의 힘을 다하여 저항하였으나 계속적인 敵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海上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敵 3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고 부상 3명의 손실을 보았다.

#### (다) 延安경찰서의 활동

延安경찰서(장, 金周文 경감)는 敵이 남침을 개시하자 즉각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전병력을 乾支山일대에 배치하였다.

이러는 동안 敵이 진전으로 근접하기 시작하자 경찰대는 이 무리들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전화력을 집중하였는데 끝내 계속 밀려드는 敵勢를 감당치 못하고 飛鰲山으로 철수하여 제12연대 제3대대(장, 李茂重 소령)병력과 합세케 되었다.

여기에서 軍警합동으로 급편진지를 준비하던 중 다시 2개대대 병력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군경합동부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날 夕陽무렵까지 적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敵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事不如意하여 19.00에 진지에서 이탈하여 海上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군경합동부대는 100여명의 敵을 사살하고 5명의 경찰이 전사하였다.

#### (라) 白川 경찰서의 활동

白川경찰서(장, 崔正得 경감)는 敵의 침공급보가 있자 곧 同 경찰서 주변의 重要고지에 방어진지를 급편하고, 기관총 2정(2개 본대)을 南山고지의 西쪽 돌출부에 배치하여 전투준비에 임하였다.

먼동이 틀 무렵 敵이 근접하기 시작하자 쏠 화력을 집중하니 敵의 진출은 한때 頓挫상태에 이르렀다.

敵이 곧 후속병력으로 戰力を 증강한 다음 계속 侵襲하므로 力不足으로 白川변전소 뒷산으로 철수하여 我 제12연대 제9중대(장, 대리 趙建鎬 중위)와 합세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는데, 그곳에서 다른 2개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兩面외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시 혈전이 전개될바 軍과 경찰은 全力을 다하여 敵을 저지코자 하였으나 18.00에



河 고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경찰은 17명이 전사하였으며 敵은 30여명이 사살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 (3) 汶山부근 전투

#### (가) 長湍경찰서의 활동

長湍경찰서는 38°선으로 부터 7km거리로써 開城(38°선에서 2km)이나 靑丹(4km) 白川(2km)에 비하여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전투준비에 풍부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管内의 高浪浦지서는 敵과 지근거리에 위치한데다 臨津江 도하지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敵의 主力이 이날 새벽 전차 7대를 앞세우고 臨津江을 도하코자 高浪浦로 침공함으로써 敵에 의하여 먼저 점거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급보에 접한 서장 洪殷植 경감은 본뿔 소경찰을 집결시켜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鎔공 聖壇에 몸을 바치자.』고 強調한 다음, 管内를 고수키로 결의를 굳게하고 경비 주임 金基泰 경위로 하여금 특공대를 조직케 하여 高浪浦지서를 赴援케 하였다.

金基泰 경위의 21명의 특공대는 이날 06.00에 3/4톤 truck으로 高浪浦지서쪽으로 출동하던 도중에 敵의 전차의 직격탄에 命中되어 金경위를 포함하여 15명이 전사하였다.

이에 洪殷植경감은 재차 高浪浦를 탈환코자 하였으나 我軍전선이 臨津江이남으로 南下함에 따라 臨津江 南쪽에서 汶山경찰과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 (나) 坡州경찰서의 활동

臨津江 이북지역을 사실상 手中에 넣은 敵은 積城방면으로 주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坡州경찰서(장, 賈旻鉉 경감)에서는 제13연대에 협조를 긴급요청함과 동시에 경비 주임 지휘下에 증강된 소대병력으로 積城지서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출동 도중에 소대규모의 敵의 선발대와 부딪쳐 30분동안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지원차 당도한 제13연대 1개소대와 합세하여 敵을 격퇴하고 전진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敵의 후속병력이 증강되어 強壓하는데다 地形의 不利로 말미암아 坡平面 金坡리로 철수한 다음 여기에 布陣한 我軍부대와 함께 倭人을 계속하는 敵과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10.00에 敵의 주력은 積城을 석권한 다음, 그 여세를 臨津江 南岸으로 지향하고 일부 병력은 전차와 장갑차 각각 3대씩을 앞세우고 佳月里 방향에서 長湍쪽으로 南下하였는데, 이들은 다시 坡平面 訥峯里 일대를 유린한 다음 高浪浦를 경유 臨津江을 도하하였다.

이들은 長坡里를 거쳐 南進한 연대병력과 合流하더니 坡平山(△496) 부근의 我軍 방어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비주임이 지휘하는 坡州경찰서원 50명은 제13연대 병력과 함께 金坡鎭 전방의 개활지로 敵을 유인한 다음, 포격과 직사화력을 집중하여 근접하는 敵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경찰은 전사 4명, 부상 1명의 손실을 입었는데 敵은 많은 시체와 장비를 유기하고 敗走하였다.

我軍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開城과 長湍지구를 短時間내에 侵襲한 북괴 제6사단은 汶山을 탈취하고자 百建鎭의 臨津江 철교 부근까지 진출하여 江南岸을 窺視하였다.

15.00에 京畿道경찰국 黃圭燮 보안과장이 開城地區 경찰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제2선의 13개 경찰서원으로 2개 중대를 급편하여 계속 侵襲하는 敵을 저지하고자 급거 汶山지역으로 출동하였다.

경찰은 我軍부대와 협조하여 2개소대를 泉颯과 坡平의 兩지서에 각각 1개소대씩을 증원시켜 軍과 합세하여 敵의 진출을 막게하고 중대와 坡平경찰서 병력 50명을 黃圭燮사령관이 직접지휘하여 長湍—汶山간의 敵의 도하가 예상되는 江南岸의 감제고지에 배치하여 전지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25일 子正에 開城부근에서 격전을 치른바 있는 제12연대의 철수때문에 철교를 폭파치 못하였는데 敵은 오히려 이 철교를 이용하여 도강을 기도하였다.

出血을 무릅쓰고 敵의 일부 병력은 臨津鎭를, 일부는 汶山을 탈취코자 臨津江 도하를 개시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彼我는 혼전이 반복되어 臨津江 兩岸에는 彼我의 시체가 累累하였다.

臨津江 도섬장에서 我軍과 함께 一戰을 決한 경찰은 汶山의 下洞에서 소대병력의 敵과 교전을 벌인 끝에 敵의 소대장을 사살하고 격퇴하였는데 이때 육사교도대 병력이 지원되어 교도대와 함께 敵을 추격하여 敵이 점거중인 고지를 탈취하였다.

용기백배한 경찰은 이때를 놓칠세라 추격을 계속하였으나 敵의 탄막사격 때문에 진출선에서 급편방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18.30에 2개대대 규모의 敵이 우회하여 교도대와 경찰전지의 후방을 위협하므로 21.00에 奉天川으로 철수하였다.

#### (4) 梧柳洞부근 전투

坡平경찰서(장, 金億淳 경감)는 6월 25일 05.00에 京畿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李夏榮 경무관)으로부터 북괴는 『38°선을 突破하고 계속 남진중이다. 전투에 임하라.』는 命을 받고 즉시 管下 지서 및 파출소에 비상을 발령한데 이어 07.00에는 회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北傀는 今夜 새벽에 38°선을 돌파하였다.

② 本署는 我軍과 긴밀히 협조하여 管内를 고수코자 한다.

③ 사찰경찰은 좌익분자의 활동, 후방교란봉쇄에 철저를 기하라.

④ 순서원은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이와같은 命을 下達한 署長 金億淳 경감은 순서원으로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한 다음 管内 要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富平경찰은 梧柳洞-素砂-富平을 연하는 道路의 兩側 野山에 主力을 배비하고 일부 병력은 기동예비로 확보하였다.

이와같이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춘 富平경찰서는 同 지역에 위치한 美고문단을 지원하는 보급창과 협조하여 카빈小銃 및 기관총, 그리고 수류탄 등을 지원받는 등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27일 새벽 仁川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비상경비사령부가 承領으로 철수하였으며 富平부근의 모든 보급창이 철수함으로써 이 지역은 사실상 富平경찰서원만이 管内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漢江 河口를 도하한 敵은 무방비 지대나 다름없는 金浦부근을 훑었고 29일 06.00부터 富平경찰 일부와 接戰이 시작되었다.

즉, 이날 10.00에 金億淳 서장은 소대규모의 敵이 金浦비행장 부근에 침공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安熙奎 경위 중대를 급파하였는데 同 중대는 적전끝에 15.00에 敵을 격퇴하였다.

30일 06.15에 일부 敵이 전차 2대를 앞세우고 金浦郡 陽東面을 경유 梧柳洞 西北쪽의 △150, △120의 경찰전지에 침공하자 격전이 전개되었는데 부근에 配置된 제18연대 병력과 합동하여 이를 격퇴하니 경찰의 사기는 매우 충천하였다.

이 전투에서 군경이 거둔 전과는 사살 162명에 포로 7명을 얻고 坑下의 장비를 노획하였으며 경찰은 12명이 전사하였다.

7월 1일, 전날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바 있는 敵은 새로운 병력과 습勢한듯 2개대대병력으로 侵襲을 再開하였는데 주력은 △120과 △150에, 일부 병력은 素砂 北쪽의 △107에 침투함으로써 여기에서 3일간이나 一進一退의 격전을 되풀이하였다.

한편 이날 11.00에 桂陽부근에 소대규모의 敵 정찰대가 접근하다가 경찰의 일세사격을 받고 金浦邑 방향으로 退却하였으며 13.00에는 金浦비행장 상공에 敵의 YAK전투기 2대가 美軍機와 공중전 끝에 1대가 격추되었다.

그러나 戰勢는 아군에 불리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3일 20.00에 永登浦를 手中에 넣고 전차 17대를 앞세운 敵과 이날 23.00에 仁川市를 점령한 敵이 협공함으로써 끝내는 永登浦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 마. 서울 철수작전 및 경찰의 재정비

####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비상경비사령관(치안국장)	張	錫	潤	龍山	경찰서	장	총경	洪	炳	熙	
서울 시경국	장	이사관	金	泰	善	城北	경찰서	장	총경	崔	乘
中部경찰서	장	총경	李	仁	煥	麻浦	경찰서	장	총경	張	箕
鍾路경찰서	장	총경	蔡	榮	植	水登浦	경찰서	장	총경	崔	完
西大門경찰서	장	총경	吉	慶	福	城東	경찰서	장	총경	張	箕
東大門경찰서	장	총경	金	虎	羽	市警기동대	장	경위	李	煥	玄
제 1 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4 사단	장	소장	李	福	武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 6 사단	장	소장	方	虛	山

#### (2) 서울 철수작전

경찰비상경비사령부로부터 『北傀가 38°선에 걸쳐 南侵을 개시하였다. 각 경찰은 즉각 전투태세에 임하라.』는 지시가 이날 06.30에 서울시 경찰국에 하달되었다.

이에 서울시경찰국은 예하 각 경찰서에 비상을 경고하였는데 각 경찰서는 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출동준비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이와같이 市경찰국장은 一面으로 전투준비를 갖추면서 서울시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협조를 당부하는 布告를 이날 上午에 헌병사령관 宋堯讚 대령과 共同으로 公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韓 괴뢰군은 6월 25일을 期하여 38°선을 침범, 만행중이니 시민은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하고 동시에 군경을 신뢰하여 동요치 말고 당국의 지시에 따를것.』

이어 이날 正午에 金泰善 시경국장은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단축하고 首都치안의 만전을 위하여 경계를 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와 배를 같이하여 北傀공군이 3회에 걸쳐 汝矣島비행장과 철도操車場 그리고 서울 중심가에 기총소사를 加하면서 傳單을 살포하고 도주하자 치안국은 이에 대비코자 치안명령 제78호로써 야간에도 敵機가 공습을 할지 모르니 일반시민은 煙火管制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전황은 급변하여 敵은 이날 20.00에 抱川과 槿豆川 및 臨津江 以北을 유린한 다음에 아

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三面에서 서울을 목표로 계속 강압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接敵지역의 경찰과 전투경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투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서울시경찰국경찰은 전혀 전투경험이 없는데다 사복근무 경찰이 대부분이었다.

시경찰국은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下에 서울시 주변일대에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여 敵의 五列의 공작활동을 봉쇄하는 한편 사복경찰을 抱川—議政府—汶山 등지의 전선으로 보내어 敵의 공격상황을 수집토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시경찰국은 육군본부작명 제90호로 『1개대대의 전투경찰을 육군사관학교에: 배속하라.』는 命令에 따라 이날 夕陽무렵에 출동을 개시하였다.

이날 출동한 시경찰국 기동대 300명은 유일하게 진계를 유지한 비교적 훈련된 부대로써 육군사관학교 지시에 따라 기동대장 李康玄 경위 지휘하에 추락에 분승하여 출동하였는데 이때 시경경비계장 全炳斗 경감이 행동을 같이하면서 작전을 지도하였다.

이날 육군사관학교(장, 李俊植 준장)는 敵이 西坡—退溪院—서울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침공한 것으로 예상하고 비석거리 南方도로 左側方의 △372에 육사 생도대를 배치하였는데 뒤늦게 도착한 시경기동대를 그 右側의 △330에 배치케 하였다.

다음날인 26일 11.00에 敵은 경찰진지에 대하여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 포격으로 인하여 분대병력이 부상을 입었는데 15.00에는 敵이 공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소화기 사격을 일제히 집중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기동대가 휴대한 실탄이 일인당 불과 10여발로써 실탄이 射盡되어 더 이상 이 고지의 확보가 어렵게되자, 육사 부근으로 병력을 이동한 다음에 시경본부로 복귀하였다.

이에 앞서 26일 13.00 議政府를 탈취한 敵은 京議街道를 피로·물들이면서 진차를 앞세워 倉洞—彌阿里를 차례로 侵襲하여 여세를 몰아 서울을 공략코자 강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경은 각 경찰서 병력의 일부를 동원하여 彌阿里선에 투입하였으나 대전차방어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지휘계통이 바로 서지 않아 각개분산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시경은 27일 14.00에 江 南쪽으로 철수하라는 치안국 지시에 따라 各署는 철수준비를 갖추고 승차한채 시경광장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시경국장의 『戰況은 아군에 유리하니 철수를 중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各署로 복귀하였다.

이날밤 子正에 敵의 일부가 退溪路까지 침투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各署는 상부의 지시를 받을 겨를도 없이 各署별로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7일 子正 무렵의 漢江人道橋와 서울驛 사이는 군경의 이동차량과 避難人波로 말미암아 교통이 마비되었다.

中部경찰서는 이날밤 11.00에 이동을 개시하였는데 會賢洞의 해군본부 앞에서 敵의 사

격을 받아 수명의 부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鍾路경찰서는 28일 02.30에 Truck 8대에 병력을 분승시켜 漢江人道橋를 건너던 중에 4대는 무사히 渡橋하였으나 5번차량부터는 교량과 함께 폭파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李相勳 경위의 76명(경위 2, 경사 10, 순경 64)이 순직하였으며 이때 끝까지 同署를 지키고자 하였던 金榮熙 경위의 12명(경위 1, 경사 2, 순경 10)은 시내에 침입한 敵과 교전끝에 각개 분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몸을 숨겨 야군이 捲土重來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赤色분자의 밀교로 통분하게도 敵手에 학살되고 말았다.

### (3) 警察兵力의 再整備

국군과 경찰은 最善을 다하여 수도서울을 방어코자 하였으나 兵力도 열세였지만 敵의 전차를 막지 못하여 끝내 28일에 서울을 敵의 手中이 넘겨준채 漢江以南의 漢江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UN이 『韓國의 平和와 安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할것.』을 긴급결의하고 이어 7월 1일에는 Smith특수임부부대가 한국에 파병됨으로써 국군은 장차 UN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전망아래 그들의 赴援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연전을 벌이게 되었으니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찰은 UN군의 참전에 따라 軍보급로와 국가주요시설의 경비, 피난민 정리와 구호 활동 그리고 후방의 공비격멸등 분주한 임무를 맡아야만 하였다.

一面 전투, 一面 치안을 병행하여야 하였으나 지속적인 전선의 南下로 장비의 부족은 경찰활동에 제한을 주었다.

기동력과 통신수단의 缺如와 더우기 徒手에 가까운 武裝으로 日戰日退의 지연전이란 실로 困苦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敵의 占領地에서 철수한 경찰은 敵의 진출을 지연코자 격전을 치렀으나 敗戰만 거듭되고 이 기간동안 보급의 부진은 경찰사기를 극도로 저하케 하였다.

또한 경찰지휘체통의 혼선과 漢江橋의 조기 폭파에 따른 기동장비의 유기 및 병력분산 등은 경찰병력의 再建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例컨대 忠南도청 광장에 접결한 中部경찰서는 金泰善시경국장의 指示로 7월 1일에 다시 安養까지 出動하였다가 戰勢의 不利로 다음날 天安으로 철수하는등 혼란을 격기도한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비상경비총사령부는 崔 燕총경을 水原지구의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병력이 수용되는대로 중대 또는 대대단위의 전투경찰로 편성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軍작전에 협력케 하였다.

이후 경찰 再整備와 동시에 施行된 期間中の 主要 경찰활동은 다음과 같다.

7월 2일 : 天安에 集結된 서울시경 병력과 平澤에 集結한 京畿道 병력을 安養과 水原地區의 戰線으로 投入하고, 天安에 있던 철도경찰대 본부병력은 安養—水原—天安—忠致院間의 主보급로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慶北, 忠北, 忠南의 各道警 兵力과 철도경찰대 본대 병력중에서 1,350명을 차출하여 天安—金泉사이의 철로, 교량, Tunnel 등 주요시설경비를 강화하였다.

7월 3일 : 다시 수습된 서울시경 병력 300명을 동원하여 鐵道경비를 강화하고, 忠北도경 병력 500명을 江原道 寧越에 투입하였다.

7월 4일 : 京畿道병력 300명으로 水原—天安間의 鐵路경비를 보강하고, 서울시경 병력 500명은 天安주위의 野山에 배치하였으며 100명을 美軍의 요청에 따라 平澤주둔 美 Smith特殊任務 부대에 파견하였고, 大田으로 철수한 서울시경 병력을 이날중으로 天安까지 轉進토록하여 그 중 500명으로 水原—天安사이의 鐵路경비를 강화토록 하였다.

7월 5일 : 江原道警 兵力으로 하여금 忠北 堤川 및 丹陽지구에 투입하여 敵의 南進을 阻止토록 조치하는 한편 天安에 集結중인 서울中部경찰서 병력을 陰城지구 전선에 급파하여 군과 협조, 敵의 進軍을 지연토록 하였으며 忠南병력 300명을 沃川—秋風嶺지구에 배치, 敵의 유격활동을 봉쇄케 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崔致煥총경, 당시 경비총사령부 작전참모

敵을 과소평가하고 남침정보를 묵살한 당시 경부 및 군수최의 行爲가 6.25전쟁을 유발케 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有備無患의 總力安保態勢를 最優先으로 갖추는 것만이 戰爭을 예방하고 또한 平和統一의 基礎를 鞏固하는 確鑿한 責任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全炳斗경감, 당시 시경경비계장

당시 서울市警관하 각 경찰은 사실상 전투 경험은 없는데다 대부분이 수사 및 사찰근무의 사복경찰이었기 때문에 實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사태가 위급하여 서울시내의 시설경비를 맡고 있던 300명의 기동대를 긴급 동원하여 육군사관학교의 지시에 따라 25일 양간대 營3 남방의 △330에 배치하였다. 다음날 午後에 敵이 포격을 가하더니 14.00쯤에 공격을 解除왔다.

당시 경찰은 일인당 탄약을 10여발씩 밖에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약부족으로 陸山부근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때 서울시경은 주요시설 경계와 시내에서 騷擾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코자 이 병력을 복귀케 하였다.

그리하여 자체경계와 중앙청 청사, 방송국, 발전소등 敵의 파괴가 예상되는 주요시설경계에 입하였다.

### ◇趙應善경감, 당시 中部경찰서 정보계장

나는 中部경찰서에서 정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6.25前의 情勢에 對해서는 다른 경찰보다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체포한 간첩이나 첩자 또는 피난민들은 모두 복귀가 남침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나 美당국은 알고도 설마하다가 이런변을 당한 것으로 본다.

나는 이날 06.00에 복귀가 남침준비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本署로 달려갔다.

09.00에 署長 李仁煥 총경 宅窄로 간부회의를 열어 사태를 토의하였는데 이때 李署長은 『全서원은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정보계에 『議政府방면으로 사복경찰을 파견하여 敵情을 수집하라.』고 命을 내렸다.

敵의 정세를 탐색하고 돌아온 경찰관들은 국군이 敵의 전차방어에 속수부책이라고 말하고 경세가 극히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절차 서울이 敵의 強壓을 받게되자 中部경찰서는 市警指示에 따라 25일밤에 경비계장이 100여명을 지휘하여 彌阿리고개 부근에 배치하였다가 다음날 正午에 국군이 증강되므로 本署로 복귀하였는데 中部경찰서는 이때부터 사실상 철수 준비를 서둘렀다.

27일날 14.00에 市警 정보과장 李夏成총경(후에 학살됨)이 會議을 召集하더니 오늘 夜間에 永登浦로 철수한다면서 철수에 따른 정보관계 준비사항을 일러주었다.

각 경찰서는 市警指示에 따라 各署가 철수준비를 갖추고 추력에 분승한채 이날 16.00에 市警광장에 집합하였는데 이때 市警국장이 『戰勢가 야군에 유리하니 복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날 23.00에 敵의 일부가 退溪路까지 侵入하였다는 상황을 접수하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중부경찰서는 시경지시도 받지 못한채 준비해둔 추력에 분승하여 철수를 개시하였는데 이때 後尾에 따르면 수사계병력이 海軍本部 앞에 지날무렵에 敵의 사격을 받고 수사계장 이하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子正무렵에 서울역 앞에 이르자 야군의 철수 차량이 漢江橋—서울역사이를 5열중대로 차단된을 이루어 차량이동 속도는 도보이동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음날인 28일 02.00에 漢江橋를 통과하여 永登浦경찰서에 도착하자 漢江橋가 폭파되는 폭음이 들렸다.

中部경찰서는 이날 06.00에 水原을 거쳐 正午에는 大田까지 후퇴하였는데 이때 시경찰국장의 『漢江방어선으로 가서 敵의 진출을 막아라.』는 명령에 따라 이날 18.00에 다시 大田을 출발, 安養에 集結하였다.

여기에서 兵力을 대기케하고 署長以下 各계장만이 敵情을 확인코자 始興보병하고 부근의 野山에서 관측을 하던데 永登浦일대는 敵의 포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하여 7월 1일 재편성을 한 다음에 3일에는 陸城地區 전선에 投入되었다.

#### ◇洪利和경위, 開城 철도경찰대 경비주임

갑자기 철도경찰대 본부로 四方에서 포위한 북괴군은 전차포로서 청사를 파괴하는 동시에 자동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전대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敵과 싸웠다.

끝내는 兵力과 火力의 부족때문에 敵勢를 감당치 못하여 隊長 卍龍龍 경감이하 全員이 瓦解하고 나를 포함하여 3명만이 敵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生存하고 있어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된다.

앞으로 그와같은 對備없는 戰爭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물같은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 ◇卓洪鎭경위, 당시 靑丹경찰서 경무주임

38'선에서 불과 4km거리에 위치한 靑丹 경찰대는 갑자기 당하는 奇襲이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分別할 수 없는 混戰이 있었다.

이런가운데 管内에서는 제일 처음 交戰이 거시된 來城支署쪽으로 긴급출동하니 북괴군은 이미 전차를 앞세우고 포격을 끼하여 突進해오니 감당할 方法이 없었다.

그러나 我 軍경은 敵의 전진을 격퇴하고자 계속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日新作島를 경유하여 九死一生으로 仁川에 上陸하였다.

#### ◇金致雄경위, 당시 江原경찰국 경비주임

나는 당시 江原道警備사경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春川地區에서는 軍警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웠다.

27일에는 牛頭山과 昭陽江의 東西兩岸에서 血戰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치명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해해왔다.

그리하여 끝내는 敵의 人海攻勢를 감당치 못하고 철수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준비없는 전쟁이었다.



## 第 7 章

# UN의 決議와 赴援軍의 出動

### 要 旨

1. 美軍의 極東配備
2. 美國과 UN의 動向
3. 美 極東軍司令部의 動向
4. 美軍의 赴援狀況



## 第 7 章 UN의 決議와 赴援軍의 出動

## 要 旨

1950년 前半期까지 美國은 日本 및 Okinawa (沖繩)와 Philippines 등 극동 지역에 MacArthur 元帥 麾下의 극동 陸·海·空 3군 부대를 配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들은 美國이 核공격력을 계하고 제2차世界大戰뒤에 一方的으로 追求한 平穩정책으로 因한 從來 병력의 급격한 減縮으로 極동 陸軍의 경우 4개사단(제1기병, 제7, 제24, 제25사단)만을 保有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兵力은 7時전선에도 比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美國은 1950년 1월에 韓半島에서의 切迫한 共產 위협에도 不拘하고 韓國이 그들의 戰略上의 가치가 없다고 判斷하여 極동 방위선에서 除外 하는등 誤判을 일삼았으며, 韓國에서 무순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關心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에서 公산침략전쟁이 突發하였을 때에 즉각 動員할수 있는 兵力을 全히 保有하지 못하였으며, 또 事前에 韓國에서 침략군을 驅逐 한다는 계획도 없었으므로 이 戰爭의 발발은 美國에 커다란 衝擊을 주게 되었다.

北傀의 南侵보고가 Washington에 傳하여지자 閣 當事者들은 첫 활동으로 이 문제를 UN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起하고 긴급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UN 安保理는 Washington시간 6월 25일 14.00 (韓國시간 26일 04.00)에 개최되어 北傀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들 군대를 38°線 北쪽으로 撤退한 것을 決議하였다.

이 決議가 있은지 얼마뒤에 美國은 北傀의 침략이 U.S.S.R의 使戰에 의한 것으로 斷定하고 즉시 U.S.S.R로 하여금 北傀에 牽制力을 行使한 것을 促求하였으나 모든것이 虛事가 되었다.

이에 美大統領은 긴급히 Blair House 會議를 主宰하고 駐韓美國人 철수등 당장의 安全조치를 위하여 MacArthur 元帥에게 필요한 海·空군력을 사용하되 그 작전지역을 서울—金浦—仁川에 국한하라는 命命을 下達하였다.

그 뒤에 戰況이 더욱 惡化되기에 이르자 앞서 제한 하였던 極동 海·空군의 작전 領域을 擴大하여 38°線 以南 모든 지역에서 韓國軍을 지원하여 北傀의 軍事目標를 공격케 하였다. 이와 同時에 6월 25일 UN 安保理 결의가 北傀와 그 同盟國들에 의해 豫見한대로 유린됨에 따라 보다 強力한 결의가 必要 하다고 認定하였다.

따라서 6월 27일 14.00(韓國시간 28일 04.00)에 UN 安保理는 美國이 提出한 再次的 결의안을 審議 하고 『韓國이 침략을 격퇴하고 該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安全을 恢復하기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제공 하도록 會員國에게 勸告 한다.』라는 要旨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MacArthur 元帥는 Blair House 회의 결과에 따라 Truman 大統領으로부터 韓國에서 作戰權을 부여 받게 되었지만 그는 韓國에서의 美軍작전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직접 戰線을 示할기로 決心하고 同월 29일 空路로 赤原에 나타나 漢江邊에서 戰況을 살폈다.

그는 北傀의 南侵을 저지하고 이들을 擊滅하는데는 美地上軍의 參戰만이 이를 可能케 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Washington 當局에 駐日 陸軍의 參戰 계획을 승인 하여줄 것을 요청 하였는데 이에 Washington 當局은 同 元帥가 요청한 美 지상군 사용계획을 모두 승인하는바 되었다.

이로써 美國은 大統領의 斷案에 의하여 陸·海·空 3군을 동원하여 本格的으로 韓國戰爭에 參戰케 되었다.

## 1. 美軍의 極東配備

### 가. 美 極東軍의 配備상황

北傀가 全面에 걸친 奇襲的인 南侵을 恣行 하였을 당시 美國은 極東지역에 陸·海·空 3군통합체제에 의한 極東軍을 配備하여 제2차 大戰後에 日本占領에 따른 軍政의 遂行과 아울러 該地域 방어에 任하고 있었다.

이 極東軍은 1947년 國家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이 制定되어 새로이 정부 기구 내에 國防部(D.O.D)와 合同參謀本部 그리고 空軍省을 設置하게 된 때를 같이하여 종전의 MacArthur 사령부 麾下의 부대들과 해군 및 공군 지원부대를 基幹으로 創設되었으며, 그 사령관에는 MacArthur元帥(1946년 12월 16일부)가 임명 되었다.

當時의 美極東軍은 韓國—日本—琉球列島—Philippines—Mariana 群島등에 進駐하고 있던 관계로 그 戰術 책임지역은 모든 西太平洋지역을 包括하고 있었다.

極東軍사령관의 權限과 責任은 合同參謀本部의 訓令에 의하여 決定 지어졌으나 대체로 세가지의 一般的인 任務가 있었으니 즉, 占領政策의 完遂와 지역내에서의 美政策에 대한 支援, 그리고 有事時에 對備하여 準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임무는 1948년 이후에 U. S. S. R. 을 假想 敵國으로 하는 全面戰에 對處하기 위하여 美國이 採擇한 이른바 「東守西攻」 전략으로 韓國을 極東방어선에서 除外함에 따라 韓國이 그의 管轄에서 벗어 났으므로 이로부터 概要 다음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 ① 日本 및 琉球列島의 보호
- ② 管轄지역내에서 海洋 및 航空 보급로의 보호
- ③ 臺灣의 보호
- ④ 太平洋지구사령부와 Alaska 사령부, 戰略空軍사령부의 지원
- ⑤ Philippines 방어作戰의 지원
- ⑥ 駐韓美國人の 安全보호를 위한 支援 지원 조치의 講究

이상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極東軍사령관은 당시에 合參本部가 승인한 編制에 의거하여 참모장에 Edward M. Almond 소장, 참모부장에 Doyle O. Hickey 소장을, 그리고 4명의 일반참모 및 20명의 특별참모를 각기 部署하고 이들의 보좌를 받아 예하 極東 陸·海·空軍을 지휘하였다.

이 가운데 極東陸軍에 限하여서는 極東海·空軍과 같이 該軍사령관을 거침이 없이 極東軍사령부 自體가 陸軍要員만으로 構成되었던 까닭에 MacArthur元帥가 極東陸軍사령관을 兼務하고 따라서 그의 참모부가 極東陸軍사령부의 참모부와 기능을 직접 代行하였다.

極東軍의 兵力은 당시 U.S.S.R를 비롯한 공산군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에도 不拘하고 美當局의 一方的인 軍縮政策과 極東輕視風潮에서 最下位의 水準에 있었고 그나마 減縮 추세를 免치 못하였다. 또 장병들의 資質 역시 低下 一路에 있어 부여된 임무를 수행 하는데에도 지장이 있었으며, 더구나 有事時에 即應할 수 있는 態勢가 充分치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작군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極東陸軍

極東軍사령부 예하의 極東陸軍은 主力인 제8군(사령관, Walton H. Walker 중장)을 비롯하여 琉球사령부(사령관, Joseph R. Sbeetz 소장)와 Mariana 지역사령부(사령관, Robert S. Beightler 소장) 및 사령부 지원부대들이었다.

이들 부대의 總兵力은 1947년 1월 현재로 육군항공대 42,000명을 포함하여 300,000명에 達하였으나 Washington 當局은 MacArthur 元帥가 憂慮한 바와 같이 그의 麾下 兵力을 強化시키지 않는다면 극동에 있어서 美國은 돌이킬 수 없는 損失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主張에도 不拘하고 1948년 1월에는 142,000명으로, 그리고 1949년 1월에는 120,000명으로 減縮하였다.

이를 戰鬪能力面에서 分析 한다면 극동육군의 戰鬪부대인 제8군의 경우 편제兵力은 87,215명이었으나 實兵力은 45,561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戰鬪要員은 26,491명에 不 過하였다.

이와같은 兵力의 減縮은 政策 立案者들과 該當軍사령관인 同 元帥사이에 심한 意見對立을 보였으나 1950년 6월까지의 극동육군은 豫定계획대로 108,500명으로 減少되고야 말았다

당시 美陸軍省은 예산의 制限과 新兵 獲得의 難點때문에 保有中인 10개 사단의 兵力과 장비의 수준을 부대계획과 T/O대로 100%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들부대의 전투력을 不得 已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부대를 統廢合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극동육군도 이에 영향을 입어 어느 부대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편제상의 단위 부대를 잃어 버리는 事例가 발생하여 제8군예하의 보병사단은 戰車大隊 대신에 1개의 戰車中隊를, 對空砲대대 대신에 1개의 砲隊만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보병연대는 T/O에 있었던 戰車중대와 1개의 보병대대를, 또한 각 砲兵대대는 1개의 砲隊를 減少하게 되었다.

同 元帥는 극동에 配備된 4개 사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軍단사령부 요원과 그 작속 특수부대를 줄여야만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제8군은 支援부대가 不充分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正常的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150,000명에 이르는 日本人을 고용하였다.

전투요원과 非戰鬥要員의 比率은 後者가 훨씬 많았는데, 이러한 現象은 戰後 數年동안 陸軍에서 施行한 經歷管理제도(전투부대를 택하건 지원부대를 택하건 간에 주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戰鬥兵科인 步兵은 能力있는 要員을 確保하는데 失敗하게 되어 전투부대 운영에 必要로 하는 可用 人的자원이 漸減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同 元帥는 극동에서 당면한 임무를 完遂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5개의 완전편성의 보병사단과 23개의 對空砲대대, 1개의 독립전투단이 소요된다고 건의 하였다.

그러나 극동에 배비된 陸軍의 總勢는 日本 本土에 駐屯하는 減少편성의 4개사단과 7개의 對空砲대대 및 Okinawa에 있는 1개 보병연대, 2개의 對空砲대대에 不過하였다.

그중에서도 主力을 이룬것은 Kanto(關東)지구에 配備된 제1기병사단과 Honshu 北部 및 Hokkaido(北海道)에 배비된 제7보병사단, 그리고 Kyushu에 駐屯하는 제24보병사단, Honshu 中部에 있는 제25보병사단, Okinawa의 제9對空砲 여단이였다.

이들을 예속 하였던 제8군은 당시 인가된 平時 編成의 93% 兵力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戰時에 사단 편성 18,900명으로 規定된 것에 比하면 7,000명이나 不足하는 실정이였다.

또 火力面에서는 1,500정의 소총과 100문의 90mm 對戰車砲가 缺如되고, 부대편성에서는 3개의 보병대대와 6개의 戰車중대, 그리고 3개의 105mm 포대와 3개의 對空砲대대가 減少된 셈으로 결국 綜合 戰力面에서 戰時보병火力의 62%, 對空火力의 69%, 戰車 74%에 지나지 않았다.

1949년까지 極동군의 주임무는 日本占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行政과 治安유지상 부대훈련을 실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그위에 지속적인 兵力不足 현상과 연간 43%에 달하는 兵員의 交替는 더욱 훈련계획 수립에 큰 장애가 되었다.

1949년 6월 10일에 同 元帥가 밝힌바 새로운 훈련계획의 主眼點은 1차적인 軍事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陸·海·空군의 신속한 統合作戰을 위한 것으로서 각 사단장에게 1950년 7월 31일까지 전투단 규모의 훈련과 効果的인 空地協同을 위한 준비를 마칠것을, 그리고 同年 10월 末까지에는 1개대대의 上陸作戰 훈련을 完了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최소한의 숙달기준은 ① 1949년 12월 15일까지 중대(포대 포함)급 훈련, ② 1950년 5월 15일까지 대대(특수임무부대 포함)급 훈련, ③ 同년 7월 末까지 연대급(특수임무부대 포함) 훈련, ④ 同년 12월 末까지 사단규모훈련과 ⑤ 上陸作戰을 포함한 聯合協同作戰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훈련계획도 훈련장의 제한때문에 지장을 받았으며, 중대나 대대의 지휘능력도 前述한바 경력관리 제도로 因하여 장병들의 主特技(MOS)가 부여 되었기 때문에

전투부대가 必要로 하는 實戰경험이 豊富한 有能한 장교들이 제대로 配置되지 못하였다.

제8군에하의 모든 부대들은 1950년 5월 15일까지 期限부로 대대규모의 모든훈련을 끝마치게 되어 있었지만 韓國에 出動하기 까지 각 사단은 항공수송학교(Air Transportability School)에서 대대병력을 공수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또 Tokyo 부근에 있는 上陸訓練場에서는 각 사단에서 抽出된 1개 대대병력이 上陸戰力을 練磨하고 있었는데, 1950년 5월에 제8군이 陸軍省에 보낸 報告書에서 그의 전투能力은 65%~84%라고 評價하였으니 客觀的인 평가에 의한다면 이보다 훨씬 低下되었을 것이다.

## (2) 極東海軍

極東海軍사령부(사령관, C. Turner Joy 중장) 에하에는 당시 AGC-1척, APA-1척, AKA-1척, LST-1척, ATF-1척으로 구성된 상륙작전부대(사령관, James H. Doyle 소장)와 CL-1척, DD-4척, AM-6척으로 된 지원부대(사령관 John M. Higgins 소장)가 있었다.

이와같은 極東해군의 配備는 韓國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日本의 再建과 부흥을 추진 지원한다는데 그 배비의 意義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수행하게 된 임무中에는 概要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① 日本近海의 소해작업과 日本선박 및 造船산업의 감독
- ② Yokosuka(橫須賀)와 Sasebo(佐世保)의 해군 경비부의 유지
- ③ 韓國과 日本간의 밀수방지를 위한 對馬島 해협의 경비
- ④ 北海道 近海에서의 주기적 경비
- ⑤ 日本 港口의 親善 訪問
- ⑥ 各種 훈련작전의 施行
- ⑦ 中共 海적들에 의한 밀수방지를 위하여 琉球列島 연안 경비

극동해군은 비교적 중요성이 적기는 하지만 이들 多樣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保有 艦艇들의 性能 때문에 지원부대에 소속된 함정들이 充當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나마 지원부대의 艦勢는 11척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太平洋지역에는 제7함대(사령관, Arthur D. Struble 중장)가 配置되어 있어서 Washington 當局의 命令이 있을 때에 協同이 가능하였는데, 이들 세력은 1950년 6월 당시에 Hong Kong 및 philippines의 Subic Bay와 Sangley point에 분산되어 있는 CV(항공모함)—1척과 CA(重순양함)—1척, 그리고 DD(구축함)—8척으로서 太平洋 연안에서 함정 세력을 示威하는것을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제7함대는 同년 4월 5일에 제5항공전대의 항공기들을 함포 Valley Forge호에서 發進시켜 서울과 仁川上空을 편대 비행하였으며, 同년 5월末에는 Struble 중장이 後日 말한바와 같이 中國과 Philippines 사이의 海역에서 大規模 演習을 실시하였다. 이와같

은 활동의 계획으로는 同년 7월 4일에 Manila를 訪問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確定된 日字는 없었으나 Hong Kong과 日本沿海를 순양 托록 되어 있었다.

航母 Valley Forge호(함장, L.K. Rice 대령)는 제5항공전대를 收容하고 있던 제1급 航母로서 훈련된 Jet항공 要員을 갖추고 있었고 重순양함 Rochester호(함장, E.L. Woodyard 대령)와 그밖에 구축함들도 우수한 함정들이었다고 한다.

美해군 참전사가 밝힌바, 이들 함정이 참전과 더불어 立證된 바에 의하면 韓國에서 高速순항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과 극동해군의 상륙부대가 日本해역에서 상륙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8군의 훈련을 위하여 太平洋 상륙군 상륙훈련부대의 기동 훈련소가 日本에 있었다는 점 등이 撤收作戰期에 있어서 釜山항을 포함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해군작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제7함대의 관심사는 6월 17일에 Strule중장이 Manila를 訪問한 Louis A. Johnson 美國防長官과 Omar N. Bradley 參謀長을 맞아 意見を 交換한 바와 같이 北韓의 急迫한 상황에는 介意치 않고 단지 philippines의 게릴라 문제, Indonesia 및 日本의 常面문제였으며 사령관 自身은 당시에 개인 用務로 本國에 歸去하여 不在中이었으므로 그의 지휘권은 함모전대 사령관 J.M. Hoskins 소장이 대리하고 있었다.

### (3) 極東空軍

극동공군사령관 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제2차 세계大戰이 결정에 달하였던 1944년 6월 15일 Australia에서 創設되고 그 뒤에 New Guinea—Philippines 등지를 전전하다가 1945년 9월에 사령부를 Tokyo에 設置하였다.

사령관 Stratemeyer 중장은 3代제 사령관으로 1949년 4월에 就任하였는데, 그는 1943년 7월~1945년 7월 사이에 Indo와 Burma 戰線에서 美제10공군사령관으로 활약하였으며, 그뒤 1946년 2월까지에는 中國에서 美제14공군사령관을 지낸바 있었으므로 Asia문제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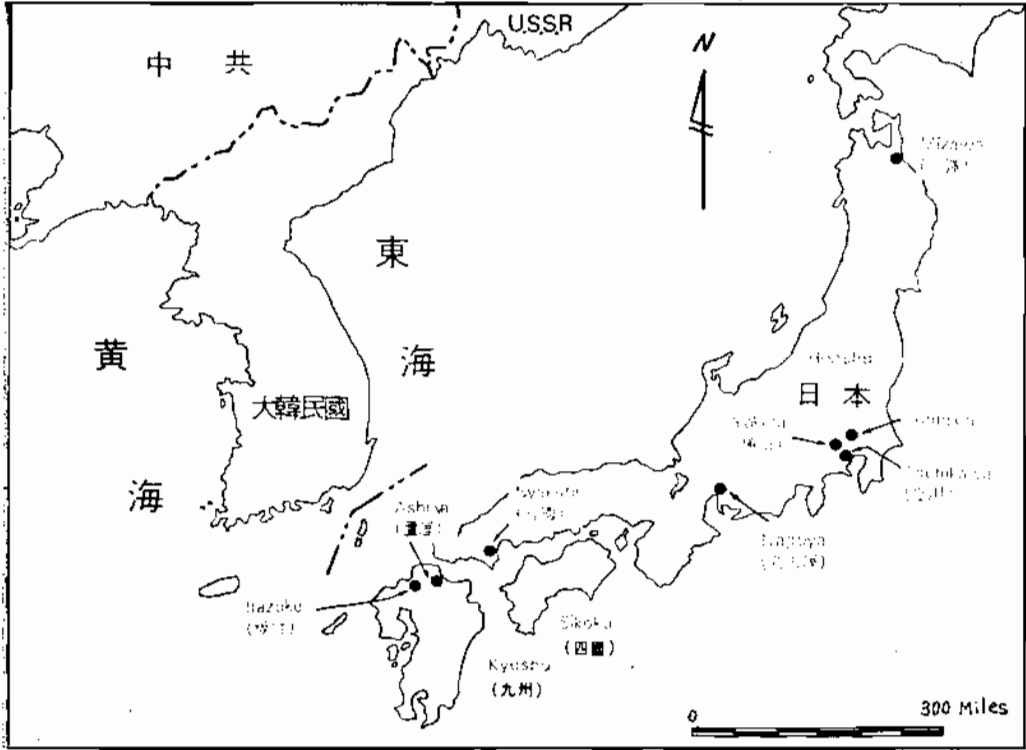
大戰中 6년간의 傳統과 殊勲부대로서 名聲을 떨친 美극동공군 예하에는 제5공군(사령관, Earl E. partridge 소장), 제13공군(사령관, Howard H. Turner 소장), 제20공군(사령관, Alvan L. Kincaid 소장)을 保有하고 있었다.

그중의 제5공군은 사령부를 Nagoya(名古屋)에 設置하면서 日本本土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제13공군은 philippines Luzon島 中央의 Clark기지에 사령부를 設置하여 Philippines의 방위를, 그리고 제20공군은 Okinawa Kadena(嘉手納)기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Okinawa 및 Mariana 지역의 방위임무를 각기 담당하고 있었다.

극동공군의 主力부대인 제5공군은 6개의 戰爆대대, 5개의 邀擊대대, 2개의 爆擊대대, 2개의 空輸대대를 保有하고 제13공군은 4개의 邀擊대대와 3개의 戰爆대대를, 제20공군은 3



◇ 上항도 제32호 駐日美空軍基地(6.25 現在)



개의 爆撃대대와 1개의 空輸대대를 각각 예하에 두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당시 이들의 配置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5공군

Itazuke기지

제8전폭비행단 : 제35, 제36, 제80 전폭대대 (B-26), 제68 全天候대대

Johanson기지

제3폭격비행단 : 제8, 제13폭격대대 (B-26)

Nagoya(名古屋)기지

제347 全天候전투비행단(6월 24일 활동中止)

Tachikawa(立川)기지

제374 공수비행단 : 제6, 제22 공수대대 (C-54)

Yokota(横田)기지

제35 邀撃전대 : 제39, 제40, 제41 요격대대 (F-80)

제339 全天候전투비행대대 (F-82)

제8전술정찰대대 (RF-80)

Mizawa(三澤)기지

제49전폭비행단 : 제7, 제8, 제9 전폭대대

제13공군

Luzon島 Clark기지

제18전폭비행단 : 제18전폭전대 (F-80), 제12, 제14, 제67 전폭대대

제21공수대대 (C-54)

제6204 사진지도제작 비행대대 (RB-17 정찰기)

제20공군

Okinawa Naha(那覇)기지

제51요격비행단 : 제51요격전대 (F-80), 제16, 제25, 제26 요격대대

제4全天候전투비행대대 (F-82) (배속)

Okinawa Kadena기지

제31사진정찰대대 (RB-29) (배속)

Guam島 Andelson기지

제19폭격비행단 : 제19폭격전대 (B-29)

제28, 제30, 제93 폭격대대

이밖에도 美극동공군 예하에는 군수사령부(사령관, John D. Doyle 준장)가 Tachikawa에 자리잡고 後方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각 전투부대의 기지에는 공군敎助隊 소속 제2, 제3 공중 구조대대의 SB-29, SB-17기가 배치되고 제2143기상단의 제512, 제514 兩개 기상정찰대대가 Yokota와 Andelson 기지에 주둔하였으며, F-51 전투기로 무장한 Australia공군의 제77비행대대가 Iwakuni(岩國)기지에서 제5공군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극동공군역시 他軍과 마찬가지로 줄어든 예산으로 말미암아 戰力의 減少 추세를 벗어날수 없었으니, 例컨데 上述한 配置이전이기는 하였지만 1949년 10월 1일부터 제90폭격비행대대(경폭격기)가, 다음해 3월 1일에는 제314전투비행단(Johnson 기지)과 제315비행사단(板付)이 解編된데 이어 제20공군 예하의 제19폭격비행단과 제31사진정찰대대가 곧 本土로 撤收할 예정이었다.

MacArthur 元帥는 1950년 美會計년도 海外 주둔군 예산 作成中에 극동공군의 이러한 戰力減退를 우려하고 『本人 麾下에 있는 美극동공군력은 數的으로 不足하므로 日本과 그 밖의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는 매우 곤란하며, 이미 危險의 度を 넘어 섰다.』라고 指摘하였으며 사령관 Stratemeyer 중장도 戰爭이 발발하였을 때에 『現空軍力으로서는 日本—Okinawa—Philippines의 空中 방위 以外の 作戰을 수행하기는 困難하다.』라고 判斷하였다는 것이다.

1950년 5월末 現在로 極東空軍이 보유한 總機數는 각종기 都合 1,172대로서 폭격기 100

대(B-29 27대, B-26 73대) 전투기 593대(F51 47대, F80 504대, F82 42대), 각종수송기 179대, 정찰기 48대, 기타 252대였으며, 兵力은 平時編成의 90%선인 33,625명 이었으나 그 精銳度가 不足하였다.

당시에 극동공군에서는 F-51과 같은 Propeller 전투기를 Jet추진기로 代替하는 문제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즉, 지원부대의 不足은 물론이고 그나마 分散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出擊時의 航續거리를 연장시키기 위한 補助燃料통을 폭탄과 같이 장치하는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새로이 200m 이상의 포장된 滑走路가 要求 되었으나 이와같은 기지의 擴張工事は 日本에서 不遠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많은 자원을 投資할 必要가 없었으며, 설사 그 필요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日本의 戰後 복구비를 流用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空軍이 強力히 추진하려던 滑走路의 補完계획은 大幅 縮少되어 1950년 4월부터 Yokota 기지만이 그 工事に 着手하게 된 실정이었으며, 그後에 계획된 Okinawa 기지공사역시 또다른 이유 때문에 延期되었다.

極東空軍 예하 폭격전대에는 航法士와 폭격수 및 사격수가 不足하였으며, 航法훈련은 예산의 제한으로 兩개 기지 사이에서만 실시되었던 관계로 日本과 韓國사이의 航法에는 익숙치 못하였다. 또한 예산상의 제약은 燃料를 절약하기 위하여 항상 高度비행을 장려한 관계로 目標物의 發見에 숙달하지 못하였다.

모든 훈련은 극동공군의 임무가 방위에 있던 까닭에 요격훈련에 앞서 부대 훈련에 치중하게 되었으나 기동력의 向上을 期하기에는 力이 乏하였다.

이러한 훈련의 大部分은 공군과 지상군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適地가 못된 관계로 단지 空軍力誇示에 不過하였을 뿐이며, 絶실한 近接지원작전을 연마하기에는 無理가 있었다.

空軍이 參戰하게 된 6월 26일에 극동공군은 지상군 근접작전 임무를 수행할만한 先進航空 통제전대를 배속받지 못하고 있었고, 또 기지정비문제가 困難하였다.

당시에 제930, 제931 兩개 항공工兵전대가 극동공군에 배속되어 있었으나 이들 人員과 훈련은 陸軍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감독 作業人員의 不適切 및 빈번한 交代로 因한 과도한 人力의 浪費와 그리고 정비장비와 항공기 部品의 획득 곤란등으로 기지작업은 거의 中斷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극동공군은 廠정비 시설이 全無하여 日本 民間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그나마 결과는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前記 兩개 항공工兵전대장은 극동공군의 전투能力은 제2차 大戰때와 같은 同一한 規模의 경우 그 能力의 10~20%밖에 안 된다.』라고 判斷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극동공군의 未備 사항을 들자면, 당시에 同 사령관직은 제5공군 사령관 Partridge

소장이 代行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 역시 Tokyo와 相當한 거리인 Nagoya에 있었던 관계로 지휘상 迅速한 조치를 취할수가 없었다.

#### 나. 南侵情報의 輕視

美國은 極東配備에서 完璧을 期하지 못한 것과 같이 北傀의 正體를 正確히 判斷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南侵을 알리는 的中한 情報가 入手되었다 할지라도 戰略的으로 韓國을 輕視한 까닭에 이를 眞摯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韓國戰이 突發하자 Washington 當局은 美議會로부터 이를 豫見하지 못한 情報처리의 拙劣를 辛辣하게 暹窮 받았는데, 당시 國防省 軍원처(Office of Military Assistance)의 Lyman L. Lemnitzer 소장은 이에 대한 그의 見解를 Johnson 국방장관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진언 하였다.

『本人은 韓國에서 勃發한 事態에서 美國이 장차 결정적인 誤謬를 犯하지 않으려면 정부 기능上 相互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本人은 萬若에 어떤 공격이나 현저한 사태가 切迫하게 進行되고 있다면, 특히 CIA와 같은 어떤 정보기관에서의 의견으로 보아서 그에 適當한 적절한 조치가 取해 질수 있도록 迅速하게 直接的으로 서로 連絡을 取하게 하는, 明確한 制度的인 保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하는것만이 韓國문제와 같은 失策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萬若에 임박한 공격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重要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日常的인 CIA 定期보고로만 死藏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Washington 當局은 극동군으로부터 6월에 北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근거가 희박하고 評價와 助言이 缺如되어 確證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責任性있게 그일을 擔當한 者에게 까지 閱覽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情報分析의 失敗로 말미암아 北傀의 南侵은 美의 政治및 軍事 지도자들에게 있어 기습적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美國은 國土방위에 致命的이라고 判斷한 지역으로부터 入手된 정보보다도 韓國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等閑視 하였을뿐만 아니라 韓國人의 提報를 額面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駐韓美軍事고문단은 北傀의 動態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본이나마 恒時 接하게 되어, 그들은 주기적으로, 어떠한 때는 特別 보고서를 作成하여 Washington 當局에 보였고, 또한 극동군 예하의 기관과 부대들도 이와 類似한 정보를 提報하고 있었다. 그러나 注目할 일은 韓國에서의 情報保管의 책임이 MacArthur 元帥에 있지 않고 駐韓美大使가 지휘하는 駐韓美군사고문단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美陸軍참전사에 의하면 1950년초 陸軍참모총장 Lawton Collins 대장이 극동군사령부를

訪問하였을 때에 同 元帥에게 그의 管轄外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合參本部에 제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 하였다. 이에 대하여 同 元帥는 『어떤 것이든 提報할 수 있으나 尙히 上部의 呼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資料는 제출할 의사가 없으며, 合參本部가 새로운 情報책임을 맡길 경우에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였다.

당시 극동군의 G-2인 Charles A. Willoughby 소장은 이미 駐韓美連絡장교단이라는 명칭으로 韓國에 그의 分遣隊를 設置하고 있었다.

침략이 있기 전에 극동군사령부로부터 Washington 當局에 보고된 정보들은 北韓지역에서의 현저한 兵力移動과 집중 및 군수품의 前方推進, 38°선 근처의 民間人 疎開 등으로 모두 尋常치 않은 것들이었으나, 現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평가되고 高位層에서도 이를 看破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國務長官 Acheson은 後日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6월 25일 이전에 극동군사령부, 中央情報部, 陸軍省, 그밖에 國務省 管下의 소기관에서 보내온 정보는 매우 有益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든 기관에서는 당시에 北傀의 南侵가능성은 인정하였으나 그 공격 행위가 1950년 여름에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1946년 10월 John R. Hodge 중장이 처음으로 北傀의 南侵의도를 보고 한 이래 東京과 Washington 當局에서는 여러차례 이와같은 情報에 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當局者들은 이에 注意를 傾注하지 않았다.

1949년 12월 30일 Willoughby 소장은 다음해 3월이나 4월에 北傀가 南侵할 징후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Washington 當局에 提出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침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所見을 붙이고 있었고, 同년 2월 19일에도 3월이나 6월에 침략이 開始될 것이라는 情報員의 提報를 默殺하고 있었다.

또한 同년 3월 10일, 駐韓 연락장교단이 보낸 보고서에서는 北傀의 南侵계획은 3,4월에서 6월로 연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월末에 Willoughby 소장은 이들 情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判斷하였다고 한다.

『韓國에서 今年 春季와 夏季에 戰爭이 발발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南韓은 突發사태가 있다 하여도 美國의 援助가 中斷되지 않는限 深刻한 문제로 생각지 않고 있다. 春季와 夏季에 가능성 있는 北韓의 공격은 계릴라 戰이나 心理戰法으로서 그 目的하는 바는 大韓民國내에 無政府상태를 造成하여 政府를 顛覆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Washington 당국 역시 Asia에서의 共產侵略의 標的은 韓國보다도 Indo China에 優先을 두고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다.

1950년 3월 美陸軍省 G-2 Alexander R. Bolling 소장은 『최근 北韓에 있어서의 大規模의 부대 이동은 侵略 준비로 볼 수 있다. 韓國에서 共產主義者들의 意圖는 特別히 東南亞

지역에서 그들의 企圖가 좌절되었을 경우에 行動化 할 것이다. 萬一 그들의 行動이 다른 곳에서 阻止되거나 失敗된다면 U.S.S.R은 그들의 공격目標로 南韓을 擇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北韓의 南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報告하였다는 것이다.

美空軍의 특별수사기관의 한장교는 同년 4월 中旬 극동군사령부에 報告하기를 『U.S.S.R이 北傀를 使喚하여 南侵 制限공격 命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John J. Muccio 駐韓大使는 同년 5월 어떤 보고서에서 『北韓이 가까운 장래에 南韓을 공격 한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相反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同년 5월 19일 극동군의 定期보고서 G-2 Item No 684595에는 긴박한 敵의 공격에 대한 強力한 징후를 담고 있었다. 즉, 38°선을 따라 광범한 兵力の 기동과 전개 및 38°선 2km 이내의 민간인의 疎開, 그리고 元山—鐵原에서의 軍需物資 수송을 위한 行列과 기갑부대의 집중 및 大型貨物艦의 北傀港口 정박등이 지적되고 있었으나 結論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Willoughby 소장은 같은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였음인지 極동군 정기정보 No 2842에서 『北韓을 支援하고 있는 U.S.S.R 고문단들은 특히 최근에 南韓에서 그들의 계획과 활동이 莫大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政治的인 方法으로 南韓정부를 顛覆하기 위한 好機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報告하였다.

뒷날 Willoughby 소장은 그의 보고가 옳았음을 밝히면서 『당시 Washington 당국은 韓國에서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充分히 알고 있었으며,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主張하였는데, Bolling 소장은 諜報 (陸軍참모총장 문서철 091)로 Collins 대장에게 飡의하기를 『Willoughby 소장은 모든 情報기관에서 北韓이 南侵能力을 完備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내용에 옳은데가 부분적으로 있으나 周知된 바와같이 그에게 發送된 보고서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別途로 그의 判斷 結果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 要約하여 侵略이 確實하다는 內容이나 戰爭이 발발할 것이라는 明確한 根據資料를 提示한 정보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보고서의 主方向은 北傀가 直接侵略을 하기 보다는 政治的인, 그리고 心理的인 勸誘수단과 방법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內容이었다.

이와 같이 美國은 韓國情勢를 等閑視하였던 까닭에 結果적으로 北傀의 침략을 誘發케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關於하여 美 육군 參戰사인 『Policy and Direction』도 솔직히 이와같은 過誤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美國의 情報수집기관은 정보분석면에서 큰 실책을 犯하였다. 왜냐하면 韓國人이 作成한 보고서들을 不信하고 그 정보기관이나 그밖에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信憑性이 없는 것으로서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와같은 傾向은 韓國外 U.S.S.R에 인접한 餘他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그래서 北韓의 全面侵略의 初動을 뚜렷하게 하여준 모든 징후가 마치 共產주의자들의 日常的인 行動인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2. 美國과 UN의 動向

### 가. 美國의 反應

Washington 當局이 北傀가 全面南侵을 開始하였다는 公式보고를 接受한 것은 침략이 恣行된지 7시간 26분 뒤 (6월 24일 21.26)였는데, 이것은 당시 駐韓美大使 Muccio가 서울시간으로 同월 25일 11.00에 발송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22분이 빠른 21.04에 美國務省의 極東局 渉外官인 W. Bradley Connors는 UP 通信社의 Donald Gonzales로부터 서울 駐在 特派員 Jack James가 發送한 電文 記事 내용의 確認을 要求받았던 것이다.

이로부터 Washington 當局의 활동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할 것인데, Connors는 事態의 重大性を 勘案하여 即時로 極東協當 국무차관보 Dean Rusk에게 전화로 서울發信의 記事내용을 알렸고, 이어서 Muccio 大使에게 즉각 James기자가 發送한 記事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韓國과의 有線回路가 閉鎖된 然後였기 때문에 그는 이 내용을 無線으로 送信할 수 있는 方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이 國務次官補 Rusk가 北傀 공격의 첫報告에 接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陸軍長官 Frank Pace, Jr.로, 그 역시 같은 시간에 Washington DC Georgetown에 있는 某言論人 집에서 北傀의 侵略 第一報에 接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곧 國防省 陸軍長官室로 登廳하였다. Pace 長官은 그 즉시 각 參謀들을 非常召集하여 必要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전날 밤 參議長 Bradley 次官과 같이 東京 出張에서 歸國하여 自宅에서 쉬고 있는 國防長官 Louis A. Johnson에게 電話로 韓國에서 發生한 緊急사태를 報告하였다.

그런데, 韓國戰爭 勃發과 이에 隨伴하는 美政策의 수립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The Korean Decision」의 著者인 Glenn D. Paige의 主張에 따르면 이보다 數分前에 Johnson은 國防省 當直者로부터 北傀가 南侵하였다는 事實에 接하고 韓國에 關하여 入手되는 모든 情報은 먼저 Pace 陸軍長官에게 傳하도록 命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陸軍長官으로부터 連絡을 받자 必要한 措置를 取함에 있어서 곧 國防省을 代表하여 行動하는데 陸軍長官에게 暫定的인 責任을 지도록 하였다는데, 그 까닭은 韓國에 美軍事고문단이 있으며 陸軍이 他軍보다도 從來부터 關心이 많았던 點과 極東駐在 사

령관 MacArthur 元帥가 陸軍장성이라는 점을 考慮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Muccio 大使로 부터 公式報告를 받은 國防省은 이날 22.00에 記者들에게 發表하기를 『駐韓美大使로 부터 電文이 接受되었으며, 그 內容은 戰鬪에 관한 것으로 推測되나 아직 解讀中이다.』라고 하였는데, 22.15에 비로소 밝혀진 電文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韓國 軍事고문단 現地보좌관이 部分的으로 확인한 韓國군 보고에 의하면, 오늘 아침 北韓군은 많은 지역에서 大韓民國 領土를 侵犯하였다. 侵略이 시작된 것은 04.00頃이다. 璿津이 最初로 北韓군의 侵略을 받았다. 06.00에 그들 步兵이 璿津을 비롯하여 開城과 春川지역의 38°선을 越境하고 또한 東海岸 江陵 南쪽에도 그들의 陸·海군이 上陸하였다고 報道되었다.

開城은 09.00에 占領되고 約10대의 北韓軍 戰車가 作戰에 參加하였다고 報道하였다. 江陵지역에 있어서의 戰況은 明確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後方을 차단한 것으로 推測된다. 本 大使는 오늘 아침 軍事고문단 보좌관 및 韓國官吏와 會晤하고 사태에 관하여 協議하였다. 侵攻의 성격 및 침공開始의 方式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은 大韓民國에 대한 全面공격이라고 보여진다.』

이 보고는 首席當直官에 의해 즉시로 극동군 渉外官 Connors와 公報官 Lincoln white에게 傳達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陸軍當局에, 그리고 白聖館에도 提出되었다고 한다.

이날 22.30에 Rusk 次官補는 Pace 陸軍長官과 國務省에서 會晤하는 즉시로 Washington 近郊農場에서 週末을 보내고 있는 國務長官 Acheson에게 Muccio 大使의 電文내용을 報告하는 한편 Pace 長官과 協議끝에 北傀의 공격이 單純한 38°선에서의 衝突사건이 아니고 大대의인 侵略이며, 事態는 매우 重大하다는데 意見を 모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5분 뒤에 緊急召集會에 의하여 이들 두 사람과 會晤하게 된 UN擔當 國務次官補 John D. Hickeson은 이들과 얼마동안 사태를 協議하고 Acheson 國務長官에게 適切한 措置에 관해 議論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一般方針으로 美國은 UN을 通하여 이 侵略에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前提하고 Rusk次官補와 같이 이 문제를 UN安全保障理事會에 提起할 것을 建議하였다.

따라서 國務長官은 이와같은 提議가 妥當한 것으로 判斷하고 週末관계로 UN 사무국의 動員이 多少 늦어질 것을 考慮하여 必要한 豫備조치를 承認하는 一方으로 國務省 官吏들에게 北傀의 공격과 이에 內包된 陰謀를 檢討할 때에는 緊密하게 國防省과 協力할 것을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23.20에 이르러 Acheson 國務長官은 Missouri주 Kansas市 Independence에 있는 Truman 大統領에게 重大한 뉴스라고 前提하고 北傀가 南韓을 侵攻하였다는 사실을 Muccio 大使의 電文과 新聞報道 내용을 電話로 說明한 다음 아직까지 달라진 情報이 없으므로 急히 Washington으로 歸任할 必要가 없다고 進言하고 『UN 安保理를 召集할수



있는 可能性을 提議하는 한편, 이와같은 措置 때문에 豫備적인 方案을 이미 講究하였으나 大統領이 願하신다면 그 措處를 取消할 수도 있다. [라고 하였던바, 이때 同 大統領은 『즉 시로 北韓의 侵攻을 UN 安保理에 제기하기 위한 特別會議을 개최하도록 요청하라』고 그에게 지시하였다.

이와같은 일이 있은다음 Acheson 長官은 다시 大統領에게 細部措置에 대한 內容을 報告하고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무렵 駐美 韓國大使 張勉은 國務省을 訪問하고 國務次官補 Rusk와 20분간 會談한 다음 記者들에게 말하기를 『美國이 우리들을 外面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北傀의 공격은 決定的인 侵略行爲이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紛爭을 惹起한 것이다. U. S. S. R의 命을 잃는 그와 같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宣言하였다.

23. 30에 UN對策을 爲하여 UN擔當 國務次官補 Hickeson은 UN駐在大使 Warren R. Austin이 休暇中인 관제로 New York Manhasset에 있는 副大使 Ernest A. Gross에게 連絡을 取하였으나 接觸할 수가 없었으므로 直接 UN사무총장 Trygve Lie에게 사건의 全貌를 通告하였다. 이때에 UN사무총장은 北傀의 공격이 UN憲章 違反이며 Muccio로부터 入手된 情報가 小戰鬪를 크게 凌駕하는 것으로서 分明히 平和에 挑戰하는 侵略 行爲로 判斷하였기 때문에 UN憲章 第99條에 따라 자기의 主動으로 北傀의 공격을 安保理에 提起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韓國에 있는 UN韓國委員團의 報告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와 같은 措置가 可能하다고 判斷하고 곧 그들에게 韓國事情에 대한 充分한 報告를 要請하는 電文을 發送 하였다.

서울과 東京으로부터의 계속 送信된 報告 內容이 Washington 當局에 殺到함에 따라 國務省의 官吏들은 점차로 北傀의 공격이 疑心할 餘地없는 計劃적이고 相當규모의 軍事作戰 이라는 意見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이 공격은 U. S. S. R이 指命한 것이라는 判斷을 굳히게 되었다.

이 當時에 美國은 極東에서 大戰이 勃發할 경우 韓國은 戰略적으로 重要하지 않다는 政策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大戰이 일어나지 않고 韓國이 侵略을 받을 경우에 美國이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그 具體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大統領과 國務 및 國防兩省의 官吏들은 韓國의 危急사태에 대하여 美國은 어떠한 斷乎한 措置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措置가 어떤 것이건 遲滯없이 取해져야 한다는 意見을 같이 하고 그 最初의 對應策을 UN安保理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25일 02.00(韓國시간 25일 16.00)에 서울에서 Muccio大使가 WVTP(英語) 放送을 通하여 在韓美國人에게 처음으로 戰況을 알리고 不必要한 旋行을 禁하도록 勸告하고 있을 때 美UN副大使 Gross는 UN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Message를 電話로 通告하

었다.

『駐韓美大使는 北韓군이 韓國시간 6월 25일 未明을 期해 많은 지역에서 大韓民國을 侵犯하였다고 보고하였다. 北韓政權의 管轄下에 있는 平壤放送은 24일 21.00(韓國시간 25일 11.00)를 期하여 大韓民國에 대해 宣傳布告를 放送하였다고 報告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北韓군의 對南공격은 明白한 平和의 侵害이며, 侵略行爲이다. 本國政府의 緊急要請에 의하여 本大使는 貴下에게 安保理회의의 소집을 즉각 요청한다.』 이일이 있는 다음 아침 일찍부터 國務 및 國防省의 幕僚들은 國務省에서 會合하여 UN 安保理 緊急會議에 대처하기 위한 戰略과, 今後에 大統領이 正確히 判斷하고 適切한 方策을 取할 수 있도록 進言하기 위한 討議가 시작되었다.

이 會議에서 學論된 內容은 Collins 대장이 後日 「War in Peace Time」에서 밝힌 바 내용에서 그 一端을 헤아릴 수 있는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現在 狀況은 확실하지 않지만 MacArthur 사령부에 行動指針을 定하여 通告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데 意見を 같이 하였다. 韓國군에 裝備와 補給品을 支援하는 문제도 이에 包含되고 있었으나 이때에 이미 MacArthur 元帥는 이를 실시하고 있었다. 韓國에서 美軍의 行動 全般을 統制하는 任務를 부여하는 일이 可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包含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서울—金浦—仁川지역의 港灣과 비행장으로부터 美國人을 妥善하게 退避시키기 위한 海·空軍부대의 行動도 包含되고 있었다.

UN 加盟國에 呼訴하여 韓國參戰을 決定한다면 同元帥는 그 부대들과 美제7함대를 動員하여 安定을 恢復할 수 있으며, 38°선을 境界로 하는 문제도 確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서 보는 바 Washington 當局은 北傀의 戰力을 輕視하고 極東配備軍의 一部로써 能히 이를 阻止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을 뿐 아니라 단지 敵을 38°선 北쪽으로 驅逐하여 原狀을 되찾으려는 消極策을 考慮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모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Truman 大統領은 11.30에 Acheson 國務長官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報告를 받았다.

『韓國으로부터의 追加 報告에 의하면 情勢는 더욱 惡化一路에 있으며 UN安保理가 소집되어 即刻 北韓側에 休戰을 要求할 것이 豫測 되지만, 과거에 北傀와 그 同盟國들이 UN決議를 無視한 事例에 비추어 UN의 生命이 効力を 잃을 것이 豫想된다.』

이러한 要旨의 報告를 받자 그는 곧 Washington으로 돌아갈 것을 알렸고, 國務長官이 各軍長官 및 各軍參謀總長들과 會合하여 그에게 建議할 親書를 作成하여 그가 歸任하는 即時로 볼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이 侵略의 對應策에 奔忙할 때에 美重要新聞들은 서울 發信의 報道라고 하여 韓國問題가 全段의 特種記事임을 豫見하지 못한채 2級 News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New York Times는 間紙에서 『政府는 U. S. S. R의 反應을 注視한다.』라는 標題로 國務省에서 徹夜取材한 記者의 所見을 게재하고 있었다.

이무렵 서울에 在留中인 1,500명의 美國인이 危險에 直面하자 Muccio大使는 1949년 6월 美軍철수시에 極東軍사령부에서 作成한 이른바 「Chow Chow」 계획에 따라 그의 責任所管인 이들의 撤收에 必要한 지원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韓國시간 25일 24.00(Washington 시간 25일 10.00)에 이들 美國인의 撤收를 命令하고 西水庫에 장합토록 傳한 다음 仁川에서 선편으로 日本에 수송될 것임을 發表하였다.

한편 이날 美上院은 北傀의 침략行爲를 토의하기 위하여 12.00에 會議를 召集하였는데, 共和黨 소속의 Stairus F. Bridges 의원과 William F. Knowland 의원은 對韓政策에 있어서 民主黨行政府의 消極性을 痛烈히 非難하였다.

즉, Bridges 의원은 과거 滿洲, Poland, Czechoslovakia, Rumania 그리고 Bulgaria가 共產化된 사건들을 想起하고, 美國이 韓國에서 取할 수 있는 方法은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그 하나는 現路線을 持續하는 것이지만 그 길은 荊棘의 길이며, 割賦 판매계획에 대한 投降이다. 戰爭을 避해 이를 容認하다가가는 結局에 美國은 가장 큰 奴隸국가로 전락한다. 또 하나는 가장 實効性있게 共產주의에 대응하는 것이다. U. S. S. R은 狡猾하지만 自由世界와의 全面전을 敢行할 冒険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計劃的인 冒険이다. 率直하게 말하여 이것은 戰爭을 招來하는 것이다. 自由를 固守하는 것이 美國이 取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다.』라고 闢破하였다.

또 Knowland 의원은 그가 理解하는 限에 있어서 時間的인 要素가 급속히 變化하는 군사정세를 決定하는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즉, 『遲滯할 수는 없다. 제2차大戰 當時 Netherlands가 躑逸에 5일만에 占領되고 Denmark가 2일만에 占領되었다는 것을 銘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急迫한 상황下에 決斷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할 수는 없다. 이해 6월도 몇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에 의회와 美國民, 그리고 自由世界는 신속히 決定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說破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美當局은 北傀가 南侵하였다는 韓國으로부터의 公式보고에 接하자 迅速히 活動을 전개하여 不過 4~5시간만에 UN安保理에 이 문제를 提起하는 한편 同侵略이 U. S. S. R의 背後操縱에 의한 것으로 判斷하고 그들의 反應을 銳意 注視하면서 可能的인 군사적 對應조치를 取하기로 그 方針을 굳혀간 것이다.

韓國에서 突發한 사태에 대하여 美國은 이미 1947년 3월 12일에 上下兩院 合同회의 席上에서 Truman 大統領이 全體主義(共產主義)의 支配下에 몰아 넣으려는 如何한 침략行爲도 反對한다라고 闡明하였고 또한 「Truman Doctrine」에 따른 對共 基本政策이 서 있었음에도 韓國에서와 같이 配備가 없었던 까닭에 侵略에 當面하게 되고 衝擊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는데 美國의 이러한 反應과 조치가 결코 即應的인 것은 아니었다.

美陸軍省은 1949년 3월 22일에 美安保會議가 韓國에서 美軍을 完全히 철수키로 決定하자 이에 따른 一連의 계획서를 國防省에 提出하였는데, 당시 陸軍參謀總長 Omar N. Bradley 대장은 參本部에 다음과 같은 覺書를 보냈던 것이다.

『安全한 美軍의 철수는 北쪽으로부터 侵略을 自招하는 結果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와 같은 結果가 發生한다면 美國人을 철수시키고 그 侵略을 국제평화에 대한 威脅으로 看做하여 UN安保理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美國은 UN헌성부대를 편성하여 침략을 阻止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美當局은 韓國에서 共產侵略이 突發하였을 경우 그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실에 있어서 美國은 北傀의 南侵에 直面하자 이와 같은 既定政策에 주저함이 없이 順應하였다 할 것이다.

#### 나. UN安保理의 제1차 決議

美UN副大使 Gross가 UN安保理의 긴급소집을 요청한지 12시간 후인 25일 14.00(韓國시간 26일 04.00)에 회의는 Lake Success에 있는 UN本部에서 開催되었다.

UN安保理는 당시에 拒否權을 가진 美·英·佛·中 및 U. S. S. R 5개국과 India, Egypt, Yugoslavia, Norway, Cuba, Ecuador 등 11개국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나 U. S. S. R은 이해



<6월 25일의 UN 安保理事會>

1월 10일에 中共을 中國代表와 代替하여 UN에 참석시키자는 主張이 拒否된 以來로 會議 不參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拒否權 行使의 기회를 喪失하게 되어 UN의 활동을 直接的으로 妨害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U.S.S.R의 이와 같은 不參을 따지고 보면 韓國에 있어서 美國의 虛隙을 겨냥하여 北傀로 하여금 南侵을 恣行케 함으로써 南韓赤化를 企圖한 그들의 陰險한 策略을 감추려 하였고, 또 그 責任을 肩負하기 위한 周到綿密한 계획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會議은 UN韓國委員團이 서울에서 사무총장 앞으로 報告된 25일자 電文내용을 審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보고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大韓民國은 6월 25일 04.00頃 北韓軍이 38°선 全域에 걸쳐 공격하였다고 報告하였다. 공격의 主要지역은 靈津半島와 開城지역 그리고 春川과 東海岸이며, 東海岸에서는 江陵의 北쪽과 南쪽 海岸에 上陸하였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東南쪽 浦項 지역에서도 空軍 掩護下에 上陸이 실시될 徵候가 많다고 報道하였다. 모든 공격은 38°선을 基點으로 한 서울 近接道路를 통하여 恣行되었다. 南韓이 夜間에 北韓을 侵入하였다고 하는 13.35의 平壤 방송은 委員團員 및 事務局長과의 會談에서 大韓民國 大統領과 外務長官에 의하여 串的으로 虛偽라고 宣稱되었다. 北韓은 또 人民군이 侵入軍을 決定的 反擊에 의하여 擊退하도록 命命을 받았다고 報道하고 이에 따른 모든 責任은 南韓側에게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大韓民國 大統領의 聲明에는 36대의 戰車와 裝甲차량이 4개 지역에서 공격에 加擔하고 있다는 내용이 包含되고 있다. 緊急회의에 이어서 大韓民國 外務長官은 放送을 통하여 北韓의 野蠻的 침략에 있어 국민들의 總鬨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委員團이 放送으로 即時戰鬪의 中止를 促求하고 또한 事態의 深刻性을 UN에 通報하는데 있어서 協助를 表明하였다. 北韓이 平壤 방송을 통해 宣戰을 布告하였다는 말이 퍼지고 있으나 大韓民國은 이와 같은 방송을 公式通告로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確認치 못하고 있다. 委員團에 出頭한 美國大使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韓國側이 詳細하게 報告하게 되어 있다고 알렸다.

17. 15, 4대의 YAK 戰鬪機가 서울 郊外에 있는 民間 및 軍用비행장을 폭격하고, 비행기를 파괴하는 한편 燃料 탱크 車輛등을 공격하였고 서울 南쪽 永登浦驛도 폭격을 받았다.

委員團은 事態가 심각하게 展開되어 全面戰爭의 性格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安全維持를 威脅하는 것이라는 點에 注目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委員團은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安全保障理事會에 通告할 수 있는 가능성을 檢討하여 줄 것을 勸告 한다.

仔細한 보고는 다음날 送付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安保盟 긴급 소집을 요청한 美國代表 Gross는

決議案을 提出하고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韓國시간 6월 25일(日曜日) 04.00, 北韓軍은 大韓民國 領上에 대한 不法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 기습공격은 北緯 38°선의 壘津, 開城, 春川지역에 대한 地上軍의 공격과 江陵 지주 東海岸에 대한 그들 陸·海軍의 上陸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北韓 空軍機 편대는 首都 서울 郊外의 金浦空港을 공격하고 기총소사를 加하였다. 이와 같은 事實과 韓半島 사태의 全般的인 局面은 UN韓國委員團에 의하여 이미 報告되어 UN文書 S/1496호로써 採擇되었다. 모든 상황을 綜合하건대 이는 北韓의 不法的이며 不當한 공격이므로 美國은 이것을 平和侵害이고 侵略行爲로 規定한다. 이것은 分明히 國際平和와 安保에 대한 威脅이므로 美國政府는 사태를 크게 憂慮하는 것이다. 그것은 平和와 自由를 愛好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威脅이다. 現在 韓國에서는 全面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공격을 UN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誕生한 국가에 대한 侵略인 同時에 UN 監視下에 選出된 府政에 대한 武力 侵略이다.

이와 같은 공격은 憲章의 根本目的에 대한 正面挑戰이며 公公然한 UN의 利益과 權威를 無視하는 行爲이며, 또한 모든 會員國이 지니는 UN에 있어서의 重大한 利益과 關聯하는 것이다. 韓國問題의 歷史는 UN會員諸國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重大한 時點에서 새삼스러이 言及할 必要가 없으며 단지 韓國사태에 있어 몇가지 劃期的인 사건만을 指摘한다.

日本의 降服과 더불어 韓國이 獨立되도록 제되었다. 美蘇 共同委員會가 2년에 걸쳐 獨立을 協議하다가 失敗함으로써 그들은 獨立權을 상실하는 結果가 되었다. 美國政府는 美·英·中·蘇 四大國會議의 附催로 合意點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蘇의 拒否로 이같은 提案이 挫折되었으므로 다시 이 問題를 UN總會에 提起하였다. UN總會는 1947년 11월 14일에 제112차 決議案 제2항에 따라 UN韓國委員團을 創設하고 韓國의 極大적인 自由와 獨立에 關해 同委員團이 參觀하는 代表의 選出을 1948년 3월 31일까지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 선거로 選出되는 代議員은 國會를 구성하고 나아가 統一政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UN總會는 統一政府가 수립된다면 同政府는 UN委員團과의 協議下에 自體의 防衛軍을 창설하고 이와 關連이 없는 모든 軍隊와 類似조직의 解體도 건의하였다.

總會는 統一政府가 駐屯군사령부 그리고 南北韓 民政 當局으로부터 政府기능을 인수하여 可能限 90일 以內에 韓國에서 모든 占領軍이 撤收하는 것을 占領당사국과 妥協하도록 건의하였다.

선거는 UN韓國委員團의 參觀裡에 南韓에서만 실시되어 政府가 수립되었지만, 北韓 지역에는 蘇의 妨害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同委員團은 제3차 總會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任務를 完遂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南韓의 統一은 成就하지 못하였다고 言明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UN總會는 제3차 總會에서 제195차 결의안 제3항으로 同委員會의 계속적인 存置를 決定하고 南北韓의 統一

에 노력하도록 要請하였다.

즉, UN總會는 UN임시委員團이 참관한 선거에 의하여 合法政府가 수립되고 또 이 정부가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稱하였다. 이것은 重要한 사실이다.

UN總會는 또 韓國정부가 그 관할지역 선거민의 自由의사에 의한 正當한 表示이고 UN委員團의 참관에 의한 선거로 수립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에 따라 美國정부는 1949년 1월 1일 大韓民國을 승인하고 그 後에 30개국 이상이 韓國을 承認하였다.

UN韓國委員團은 韓國에 있어서 外國軍의 撤收와 南北間의 장벽 제거 그리고 自決權에 의한 代議 정부하의 국가 통일등 UN의 目標를 達成하도록 努力하였다. (中略)

UN總會는 1949년 10월 21일 제4차 總會가 채택한 제293차 결의안 제4항에 의거 同委員團에게 韓國의 分斷에 의하여 야기된 經濟, 社會 기타 友好的 접촉에 있어서 모든 障礙의 제거를 促進하도록 指示하였으며, 또한 이들에게 UN監視委員團을 任命하고 屢中 調停을 위한 代表의 選定 裁량권을 부여하였다.

同委員團은 現在 서울에 駐在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들의 報告를 接受하였다. 本人은 北韓軍의 侵略에 대한 UN安保理의 深刻한 우려를 表明하는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이 決議案은 北韓당국에게 南韓에 대한 敵對行爲의 中止와 北緯 38°선으로 그들 군대를 撤收하도록 促求하고 있다.

이 草案은 UN韓國委員團으로 하여금 北韓軍의 撤收를 監視하고 UN安保理가 同決議案의 이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通告하도록 要求한 것이다.

UN安保理 의장의 허가밑에 나는 同決議案의 全文을 朗讀한다.

UN安保理는 大韓民國정부가 대다수의 韓國국민이 居住하고, 또한 UN韓國위원단의 감시와 協議를 가능케 하는, 韓半島 지역을 효과적으로 管轄하는 合法的政府이며, 또한 同정부는 管轄지역 선거민의 自由의사에 의한 正當한 表示인 동시에, 그것은 UN위원단의 감시밑에 실시된 선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同정부가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 정부라는 것을 決定한 1949년 10월 21일의 결의안이 表明한 憂慮와 UN韓國위원단이 보고한 사태가 韓國에 있어서 軍事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念慮하여 北韓軍의 大韓民國 침략을 平和의 侵害로 規定하는 동시에

① 北韓當局에게

㉑ 戰鬥行爲를 中止하고

㉒ 그들 군대를 北緯 38°선으로 철퇴할 것을 要求한다.

② 韓國委員團에게

㉓ 北韓軍의 38°선 철퇴를 감시하고

㉔ UN安保理에 同決議案의 이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통고할 것을 要求한다.

㉔ 全 UN加入國에게 同決議案의 이행에 있어 UN에 協調할 것이며, 또한 北韓당국에게 援助를 제공하지 말 것을 促求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表決에 들어간 安保理는 常任理事國인 美·英·佛·中 4개국과 非常任理事國인 India, Egypt, Norway, Cuba, Ecuador 등 모두 9개국이 贊成하고, Yugoslavia 1개국이 棄權함으로써 이 決議案이 採擇되었는데 곧 이어서 南北韓 軍대의 原위치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北傀를 安保理에 초청, 그들의 說明을 청취하자는 Yugoslavia의 修正提案이 있었으나 否決되었다. 여기 UN文書 S/1501로 收錄된 決議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UN安保理는 1949년 10월 21일부 總會 결의안의 조사보고와 같이 大韓民國 정부가 UN 임시 韓國위원단이 조사하고 協議할 수 있었던 大多數 국민이 居住하는 韓半島 지역에 있어서 實質的인 支配力과 法的인 管轄權을 가지는 合法정부이며, 또한 이 정부가 韓半島의 해당지역 선거인의 自由의사에 의한 正當한 表現으로서 임시위원단의 감시밑에 施行된 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合法 정부임을 想起한다.

또 總會가 1948년 12월 12일과 1949년 10월 21일의 決議案에서 表明한 것과 같이 韓國의 完全한 獨立과 統一에 대한 UN의 노력에 會員國이 協調하지 않을 경우에 惹起될 우려와 UN韓國위원단의 보고 내용으로 예상되는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紛爭의 우려에 注目하면서 나아가 北韓軍의 大韓民國에 대한 무력공격을 심각한 憂慮로서 注視하면서 이와같은 行動을 平和에 대한 파괴 行위로 결정하며

- ① 敵對行爲의 즉각 中止를 요구하고 北韓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促求하며
- ② UN韓國위원단이
  - ㉔ 事態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限 遲滯 없이 보낼 것과
  - ㉕ 北韓軍의 38°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과
  - ㉖ UN安保理에 이 決議案의 집행에 대해 계속 보고할 것을 要請하고
- ③ 모든 會員國들은 UN이 이 決議案을 집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며 北韓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촉구한다.』(附錄 原文 참조)

이상과 같은 決議案이 UN에 있어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美國은 다른 安保理 會員國들이 우려를 表明한 것과 같이 北傀가 순순히 이 決議에 順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무장관 Acheson은 北傀에 대하여 영향력을 行使할수 있는 나라는 U. S. S. R 뿐이라는 판단밑에 즉시 이에 필요한 外交활동을 전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날 그가 16.00에 Moskva 駐在美大使 Alan G. Kirk에게 示達한 긴급훈령으로써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Andrei Yanarivich Vyshinskii 外相과 직접 面談을 要請하라.

貴下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北韓군이 38°선을 넘어 韓國에 侵入하고 여러 지점을 장



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도록 전한다고 하라.

平和에 대한 明白한 위협임에도 不拘하고 25일 下午의 UN安保理회의에 소련이 참석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美國은 이 문제를 직접 U. S. S. R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U. S. S. R가 北韓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에 따라 美國은 U. S. S. R가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보증과 즉각 北韓침략군이 철수하도록 北韓에 영향력을 行使한다는 보증을 要求한다. 萬若에 Vyshinskii가 費下를 만나지 않으려 하거든 이 Message를 접촉 가능한 U. S. S. R 관리에게 전하라.』

이 훈령에 따라 Kirk 大使는 곧 U. S. S. R 外務省을 訪問하였으나 Acheson이 예상한 것과 같이 Vyshinskii는 勿論이고, 副外相 Anderi Gromyko까지도 그와의 面談을 拒絶하였으며, 美國의 요구에 어떠한 答復을 주기 전에 韓國에서 전개되는 侵略戰의 情狀에 대하여 우선 注視하는 태도를 固守하였다는 것이다.

#### 다. Blair House 會議와 大統領의 決斷

美國務省 幕僚회의는 6월 25일 상오에 大統領에게 건의할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美國이 取할바 긴급조치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곧 陸軍 Telecon으로써 MacArthur 극동군 참모장 Edward M. Almond 소장과 情報參謀인 Charles A. Willoughby 소장에 게 전송되었다.

이 時點에서 陸軍參謀總長 J. Lawton Collins 대장은 그 企劃參謀次長 및 G-3와 같이 韓國정세에 適用할 수 있는 실제적인 訓令 및 文牘에 관하여 檢討하고 있었고 여기서 얻어진 내용의 개요가 이날 15.00에 陸海空군의 각 장관들에게 說明되었다.

한편 Acheson 장관으로부터 韓國사태의 심각성을 報告받은 大統領은 이날 오후에 전용기 便으로 Kansas市 空港을 離陸하여 Washington으로 直行하였는데, 당시 그의 執務室은 白堊館이 修理中이었으므로 Blair House에 있었다.

그가 3시간에 걸친 歸任 機上에서 共產침략에 대하여 如何히 판단하였는지를 헤아려 본다면 그의 回顧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나의 世代에서 韓國사건은 強者が 弱者를 侵略한 처음 경우가 아니었다.

나는 滿州, Ethiopia, Austria의 경우와 같은 몇가지의 前例를 상기하면서 민주주의 諸國이 行動을 取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침략자들의 침략을 如何히 促進시켰던가를 回想하였다.

10年前, 15年前에 그리고 20年前에 Adolf Hitler와 Benito Mussolini 및 日本人들이 行한 行動을 共產주의자들이 韓國에서 꼭 같이 行動하고 있었다.

南韓이 侵略되는 것을 坐視한다면, 共產指導層은 美國에 보다 近接한 나라들까지 蹂躪

할 용기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確信하였다. 萬一 共產主義者들로 하여금 自由世界로부터 아무런 抵抗없이 韓國에 쳐들어오는 것이 許容된다면, 어떠한 작은 나라도 더 강한 隣接國에 의한 危險과 침략에 저항할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萬若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내버려 두어진다면 이와 類似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였던 것과 똑같이 제3차 大戰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또한 韓國에 대한 이 不法的인 공격이 阻止되지 않는 한 UN의 기반과 原則은 危險에 直面하리라는 것도 明白하였다.』

이상과 같이 판단하게 된 大統領은 機內 무전으로 國務長官 Acheson을 呼出하여 이날 19.00에 高位 國防 관계者들을 晚餐會議에 招待하고 韓國문제를 토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오후 늦게 Washington 空港에 着陸한 그는 Acheson 및 Johnson 兩長官의 出迎을 받아 이들과 同途 Blair House로 向하였으며, 車中에서 兩長官은 각기 소관사항에 대한 보다 새로운 News를 報告하였다.

제1차 Blair House會議: 예정대로 시작된 Blair House회의에는 前記 國務·國防 兩長官의 陸軍長官 Pace, 海軍長官 Francis P. Matthews, 空軍長官 Tomas K. Finletter, 合參議長 Omar N. Bradley 대장, 陸軍참모총장 J. Lawton Collins 대장, 海軍참모총장 Forrest P. Sherman 대장, 空軍참모총장 Hoyt S. Vandenberg 대장, 국무차관 James E. Webb, 국무차관보 Rusk 및 Hickerson, 그리고 無任所 長官 Jessup가 列席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Acheson은 그가 당일에 조처한 상황의 개요 및 UN安保理가 採擇할 조처에 대하여 大統領에게 보고하고 이어서 국방장관 Johnson이 발언하여 『合參議長 Bradley 대장에게 韓國 문제를 舉論하기에 앞서 MacArthur 元帥가 提出한 臺灣에 관한 작서를 朗讀하도록 하면 어떠나?』고 大統領의 양해를 求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同席者인 Collins 대장은 이와같은 提案에 不滿을 表示하고 後日 『Johnson은 韓國문제보다 臺灣문제를 重要視하였다.』라고 指摘한 바 있지만 Truman은 그 提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뒷날 MacArthur 聽問會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Johnson 장관이 이때 이와 같이 發言한 의도에 대하여 證言하기를 『나는 韓國事態를 고려하기前에 臺灣에 대한 공산側의 공격 가능성이 討議되도록 바랐지만, 大統領은 나의 意中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論難을 불러 이르켰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회의는 잠시 中斷되었다가 곧 續開되었는데, Acheson 長官은 Muccio 大使의 電文報告와 UN이 決定한 北傀의 侵略에 대한 非難 決議를 說明한 다음 大統領의 要求에 따라 當日 일찌기 國務省 會議에서 의견을 뚫은바 있는 緊急措置에 대한 다음과 같은 勸告내용을 提示하였다.

『① MacArthur 元帥는 韓國 駐在 군사고문단의 가족을 포함한 美國人을 철수시킨다.

이를 위하여 金浦와 그밖에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비행장에 대한 敵

의 공격을 격퇴한다.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군은 38°선 以南에 머문다.

② MacArthur 元帥는 空中투하나 그밖의 方法으로 韓國軍에게 탄약과 物資를 보급한다.

③ 제7함대는 Philippines Cavite 軍港에서 즉시 臺灣해협으로 北進하도록 命令을 받아 전투가 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防止한다. 美國은 同함대가 臺灣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는 것과 臺灣에서 北進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說明한다.』

이들 내용은 前述한 바와 같이 大統領의 決裁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미 陸軍當局에 의해 MacArthur 사령부에 通告된 사항들이었다.

Truman 大統領은 이상과 같은 勸告에 대하여 各者의 意見을 물었는데, 그가 훗날 밝힌 바로는 이 토의에서 두가지 사실이 明白하여졌다고 述懐하였으니, 『첫째로 侵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둘째로 UN이나 美國이 여기에서 決코 불려질 수 없다는 決意였다.』라는 것이다.

즉, 陸軍參謀總長 Collins는 앞서 極東軍 사령부와 交通된 새로운 군사정세에 관하여 說明하고 大統領의 관심사인 極東에 있어서의 美軍, 그리고 U. S. S. R의 兵力 配備사항에 이어 『北僞의 侵略을 阻止하기 위하여서는 現在 韓國軍이 큰 損失을 보고 있으니만치 海·空軍만으로는 不充分하고, 地上軍의 派遣이 必要할 것이다. MacArthur 元帥에게 權限을 주어 實際의 北韓 侵略 상황과 韓國軍의 現況을 判斷하도록 諜在團을 急派케 함이 좋은 것이다.』라는 내용에 言及하였다.

海軍參謀總長 Sherman 대장과 空軍參謀總長 Vandenberg 대장은 討論 途中에 『北僞의 침략을 阻止하기 위하여서는 海軍 및 空軍의 支援만으로서 充分하다.』라고 發言하였으며, 合參議長 Bradley는 『우리는 어딘가에 線을 그어야 할 것이며 機會는 지금이다.』라고 力說하였다는 것이다.

이 모임에서 大統領은 北僞가 UN의 경고에 얼마나 應할 것인지 疑問이라고 말하고 『U. S. S. R는 우리가 제3차 대전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리라는 도박을 함으로써, 전쟁도 않고 韓國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北韓의 공격은 이대까지 Iran, Turkey, Crece, Berlin 등지에서 共產黨이 試圖한 그들의 領域확대 시험과 같이 西方世界가 今後에 어떤 決意를 가지고 임할 것인가를 시험할 되도록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는 全世界에 散在한 모든 美國의 情報기관에 U. S. S. R의 策略을 探知하기 위하여 全力을 경주할 것과, 萬若 그들의 전투기가 韓國戰에 參加한다면 그의 極東 基地를 파괴하는데 必要한 措置의 긴급연구를 지시하였다고 美陸軍參戰史는 主張한다.

또 그는 Sherman 提督에게 제7함대의 現위치를 물었으며, Vandenberg 대장에게는 空

軍의 現配備와 그 부대들을 增編함에 있어서 時日이 얼마나 所要되는가를 물었다. 또 Collins 대장에게는 日本에 몇개 사단이 있으며 그중 2~3개 사단을 韓國으로 出動시키는 데 必要한 所要시간을 물었다고 한다.

Sherman 提督은 제7함대는 2일전에 日本을 떠나 Philippines에 接近하고 있으며, 臺灣 해협으로 기동시킴에 있어서는 1~2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또한 美國務省이 27년만에 公開한 極秘문서에 따르면 이때 Vandenberg 대장은 『상당수의 U. S. S. R의 Jet기가 Shanghai(上海)를 기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大統領은 『그러한 U. S. S. R의 基地를 격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Vandenberg 대장은 약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原子爆彈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Blair House 會議時 Jessup 無任所長官의 Memo에서)

이리하여 大統領은 美憲法上에 軍의 統帥權者로써 參議長 Bradley 대장 意見에 全的으로 同意하고, 必要한 緊急措置를 지체 없이 取할 것을 決心하여 이의 實施를 順次로 指示한바 이때가 開會直後인 23.00 以前이었으니 韓國시간으로는 26일 13.00 以前이 된다.

大統領의 이와 같은 指示는 當時 國防省에 마련된 軍通信所에서 各軍參謀總長과 合軍長官들에 의하여 즉시로 美極東軍사령관에게 傳達되었는데, 그 命令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韓國에 있는 美國籍 非戰鬥員의 철수를 계획대로 實施하라. 이의 安全을 위하여 海·空軍의 使用를 승인한다.
- ② 서울—金浦비행장—仁川港의 持久를 위하여 韓國軍에 必要한 武器와 補給品을 急送하라. 이를 위하여 海·空軍부대로 하여금 38°선 以南에서 充分한 방어 조치를 講究토록 하라.
- ③ 韓國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當面한 군사정세와 韓國軍 지원의 最善策에 대하여 報告하라.
- ④ 제7함대는 別途命令으로 Philippines, Okinawa로부터 日本 Sasebo로 航進중이다. 同함대가 Sasebo에 進入 즉시로 作戰을 統制하라.
- ⑤ 이상은 美國人 非戰鬥員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군사 및 정치정세가 進展됨에 따라 後續措置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命令으로 美國은 大統領의 決斷에 의하여 UN의 승인이나 事前協議 없이 實질적으로 海·空軍의 參戰이 實現된 셈인데, 이 문제에 관하여 美陸軍參戰史는 그 所論에서 『北韓이 惹起한 公同연한 紛爭상태에 美 海·空軍이 參加하리라는 것은 UN에서 充分히 理解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海·空軍의 參加決定은 하나의 原則이라기 보다는 다음 결정을 위한 手段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의 意義를 지적하고 있다.

제2차 Blair House會議 :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北傀의 侵略은 계속되어 서울은 그들 手中에 陷落될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Washington 當局이 계속 接受한 戰況보고 역시 悲觀的인 것 뿐이었다.

이와 같은 急迫한 상황속에 이날 21.00(韓國시간 27일 11.00)에 Truman 大統領과 前날 會議에 참석하였던 같은 人士들이 Blair House에서 다시 會合하였다.

이 자리에서 Truman 大統領은 韓國의 李承晚 大統領과 國會가 發送한 긴급 지원요청의 서한을 받았는데, Bradley 대장은 그에게 서울에서는 이미 美國人의 전수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서울의 早期 陥락을 예견한 MacArthur 元帥의 상황보고를 알렸다.

계속하여 국무장관 Acheson은 前날 海·空軍에 부여한 任務를 擴大하여 韓國軍 지원에 따른 전투임무를 許容하고, 金浦공항과 仁川港 방어를 강화할 必要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제7함대로 하여금 臺灣을 中共의 공격으로부터 방수하는데만 국한하지 말고 中共이 臺灣을 공격할 수 없도록 積極책을 강구하자고 提案하였다.

大統領은 이에 대한 異論이 없음을 확인하자, 이에 따른 一連의 조치를 승인하고 회의는 1시간만에 散會되었는데, 參本部는 이로부터 數分內에 MacArthur 元帥를 呼出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通報하였다.

- 『① 38°선 以南에 있는 北韓의 軍事目標에 대해 海·空軍의 作戰制限을 철폐한다.
- ② 제7함대를 臺灣해협으로 派遣하여 이를 封鎖케 하라.
- ③ 韓國民의 士氣를 고무하기 위하여 美國은 韓國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弘報하라.』

여기에서 Washington 當局의 戰爭 지도는 北傀가 U. S. S. R의 使喚에 의해 南侵을 恣行한데 反하여 처음부터 微溫의이고, 극도로 美軍事行動을 制限하려는 意圖가 內在하고 있었음을 窺할 수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MacArthur 元帥에 下達된 命命은 戰況에 따라 逐次로 그 強度를 더해가게 되었다.

## 라. UN安保理의 제2차 決議와 大統領의 聲明

急變하는 韓國事態에 임하여 續報를 UN사무총장 앞으로 보내고 있던 UN韓國委員團은 韓國시간으로 26일에 4通의 報告를 사무총장 Trygve Lie에게 發送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北傀南侵의 急報에 따른 詳報였으나 그밖에 것은 모두 UN安保理 제1차 決議를 이행하도록 促求하기 위한 北傀와의 接觸 노력이 否定的인 反應으로 거부된 사실에 비추어, UN安保理의 결의가 非現實的이라는 것과, 그들의 공격은 기습으로 시작된 全面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었는데 UN文書 S/1503으로 접수된 同日부 보고 要旨는 다음과 같다.

『北韓軍의 진격은 危險한 사태를 惹起하고 있으며, 더욱 急激한 惡化가 豫상된다. 서울의 운명은 내일을 豫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委員會은 과거에 經驗한 바와, 現상황으로 미루어보아 北韓側이 安保理 결의안에 유의하여 UN韓國委員會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받아드릴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確信한다. 委員會은 安保理가 南北 兩 당사자가 同意하는 中立的 仲裁者를 招請하여 平和協商을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會員國 정부들이 即刻 仲裁 措置를 取하도록 要請하는 것을 고려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委員會은 서울에 남을 것을 決議하였다. 現在 進행中에 있는 위험한 作戰이 數日內에 終了되고 安保理가 권고한 作戰과 그리고 北韓軍의 철수문제는 實現되지 못한 危險에 直面하고 있다.』

한편 同日부로 韓國의 國會 역시 사부총장 앞으로 呼訴文을 보내어 『世界平和와 安全을 確保하도록 實下의 즉각적이고 効果的인 조치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立脚하여 UN安保理는 如前히 U.S.S.R 代表가 不參한 가운데 27일 14.00(韓國시간 28일 04.00)에 다시 會議을 召集하고 美國이 提出한 決議案을 심의하였는데 美UN大使 Austin은 25일에 決議한 내용보다는 더욱 強力한 조치를 取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發言하였다.

『安保理는 48시간前에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北韓의 武力침략을 平和의 파괴행위로 規定하고 그들군대의 38°선 以北으로 撤退를 要求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이를 無視하고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 國際平和를 恢復하기 위하여 安保理는 峻嚴한 制裁를 加할 明白한 義務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 그 發言序頭의 要旨였다.

이리하여 그는 『UN韓國위원단의 25일 이후의 보고와 韓國의 긴급 呼訴에 따라 韓國이 北德의 侵略을 격퇴하고 該지역에서 平和와 安全을 恢復할 수 있도록 UN會員國은 必要한 援助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要旨의 美決議案을 提示하였다.

이어서 그는 發言하여 이르기를 『이 決議案의 草案은 1950년 6월 25일에 개최된 제473차 安保理가 採擇한 決議案에 言及된 사태 이후에 發生한 상황에 歸結하는 必然的인 後續 조치이다. 최초의 決議는 유린 되었으며 侵略은 계속되고 있다.

本人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危急한 사태에 대하여 美大統領이 발표한 聲明(26일 「平和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故意的으로 度外視 하는 것은 UN憲章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默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要旨의 聲明)을 朗讀한다. (中略) 결의안 초안, 나의 發言 要旨, 여기에 美大統領이 取한 조치의 重要 符子는 UN의 목적과 原則의 지지이다. 一言하여 「平和」의 希求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安保理는 제1차 결의예와 같은 表決로 會員國들에게 北德 침략에 當面하여 劣勢에 있는 韓國에게 軍事원조를 제공할 것을 勸告하는 決議文(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S/1511)을 채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뒷날 UN군을 誕生케 하

는 歷史的 근거가 되었으나, 그 要旨內容은 다음과 같다.

『安保理는 大韓民國에 대한 北韓軍의 武力공격이 平和의 파괴행위로 斷定하고, 北韓當局에게 即時停戰과 그들 군대의 38°선으로의 철퇴를 要求하였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戰鬪行爲를 中止하지 않고,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的 平和와 안전을 恢復하기 위하여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要請되고 있다는 UN韓國委員團의 보고에 接하여,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는 効果의인 조치를 UN에 요청한 大韓民國의 호소에 注目하면서 大韓民國이 武力침략을 격퇴하고 該地域에서 국제平和와 安全을 恢復하기 위한 必要한 元조를 제공하도록 UN會員國에게 권고 한다.』(附錄 原文 참조)

이상의 결의로 美國은 北傀의 침략에 對應하여 이때까지 取하여온 單獨的인 조치들이 UN에 의하여 確認되었으며, 앞으로 取하여야 할 조치와 行動의 正當性을 찾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은 그 公刊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사태의 긴 박성에 비추어 우선 가능한 독자적인 조치를 取한 然後에 UN의 措置를 채택하여 美政策과 相互一致케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同時에 美國 이외의 UN會員國들도 名分을 세워 當당히 韓國戰에 參전할 수 있는 基盤이 굳혀진 것이다.

Truman 大統領은 이날 오후에 議會 지도자들에게 自身이 取한 이때까지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說明하기 위하여 White House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에 參석한 사람은 民主, 共和 兩黨의 議會 지도자 14명과 國務, 國防 兩長官과 陸, 海, 空軍의 各長官, 合參本部 수뇌부 要員 및 몇명의 그들 보좌관들이었다.

이 회의에서 먼저 國務長官 Acheson은 大統領의 요구에 따라 韓國 戰鬪의 개요를 說明하였으며, 이어서 大統領은 公表하기 위하여 그가 준비한 聲明書를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質問에 대한 答辨에는 主로 國務·國防 兩장관과 大統領이 이에 直接 임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느 의원은 『MacArthur는 現在 韓國에 어떠한 군대를 파견하였는가?』를 물었는데, 國防長官 Johnson은 즉석에서 『MacArthur는 命을 받은 즉시로 휘하에 있는 海·空軍부대를 出動시켰다.』고 대답하였으며, 또다른 의원은 『美國은 現在 韓國을 방위 한다고 確約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大統領은 『UN이 韓國을 원조한다고 決議한 이상 UN은 韓國방위에 대한 責任을 引受한 것으로 여긴다. 美國은 UN會員國들과 더불어 그 責任을 分擔하게 된다.』라고 答辨하였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大統領은 그가 이때까지 取한 單獨 조치에 대하여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共和黨 黨首 Thomas E. Dewey로부터 이날 全幅的인 지지를 確約 받게 됨으로써 그는 비로소 그의 聲明書를 新聞에 公表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輕武裝한 韓國軍은 侵略者에게 공격을 받았으므로 UN安保理는 侵略者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中止하고 38°선으로 撤收할것을 要求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無視하고 도리어 공격을 확대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情勢에 當面하여 本人은 UN 安保理 決議에 따라 美海·空군에게 韓國軍을 지원하도록 命命하였다. 또한 極東지역 全般에 대한 共產威脅에 對處하기 위하여 제7함대에 臺灣에 대한 공격을 阻止할 것을 命命하였으며 同時에 駐比 美軍의 強化와 Philippines 정부 및 Indochina에 있는 France 연방제국 군대에 대한 군사원조의 촉진을 지시하고 Indochina에는 군사사절단을 파견 할것을 결정하였다. 本人은 모든 會員國이 韓國에서 恣行되고 있는 침략의 결과가 分明히 UN 憲章에 違背됨을 알 것이다. 美國은 결코 국제간에 武力이 支配하는 것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本人은 UN 安保理의 美國代表 Austin에게 美國이 取한 諸般조치를 理事會에 보고 하도록 訓令 하였다.』

當時에 MacArthur 元帥는 合參本部의 訓令에 의하여 韓國에서 모든 美軍事 활동을 지휘케 되었으며, 그가 韓國에 파견한 조사단은 활동을 이미 開始하고 있었다.

#### 마. U. S. S. R의 反應과 美國의 應酬

UN 安保理가 두차례나 소집되어 두개의 결의안을 採擇하여도 U. S. S. R은 北傀의 南侵에 대하여 如前히 시치미를 떼었다.

Washington 當局은 Moskva 當局의 意中에 대하여 27일 Kirk 大使로 부터 다음과 같은 電文을 接受함으로써 그 一端을 헤아리고 있었다.

즉, 『現在 U. S. S. R은 6월 25일의 安保理 決議에 따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北韓側이 侵略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다. 우리는 U. S. S. R이 아직 3차 大戰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가 誤判 일지도 모르므로 美國은 모든 상황에 對처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보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29일 Gromyko는 UN 사무총장과 Acheson 長官에게 각기 書翰을 보내고 兩度 UN 決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抗議 하였다.

『U. S. S. R 정부는 UN 安保理決議案이 UN 安保理事會 5개 常任理事國을 포함한 7개국의 贊票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UN 憲章에 違反하였다. 이번 決議案은 6개국의 投票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7번째의 투표는 中國을 代表하는 法的권리가 認定되지 않은 國民黨 代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미 周知하는바와 같이 前記 決議案은 安保理의 2개 常任國인 U. S. S. R와 中共이 不參한 가운데 通過된 것으로, 이것은 重大 問題에 대한 安保理 결정이 5개 常任理事國 즉 美國, 英國, France, U. S. S. R, 中國의 贊成 投票로만 이룩 된다고 規定한 UN 憲章에 反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韓國문제에 있어서의 決議案은 拘束力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U. S. S. R의 抗議는 UN에서도 何等 이유 없는것으로 默殺 되었거니와 美國務省은 U. S. S. R의 不當性을 指摘하여 즉사로 回信하는 한편 同월 30일에 報告資料 제702號를 통해 一般에게 이 回信 내용을 公開하고 痛烈히 U. S. S. R에 應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U. S. S. R은 韓國에 관한 安保理의 조치가 常任理事國 全員の 贊票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不法이라고 主張하였다.

U. S. S. R은 北韓當局에 對하여 戰鬪를 中止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6월 27일부 書翰에 대하여 同월 29일, 이에 答하면서 安保理의 조치는 이에 참가한 中國代表가 北京 政權의 代表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不法이라고 거듭 主張하였다.

安保理의 表決 판계조항인 UN憲章 제27조는 主要문제의 표결은 常任理事國의 贊成 投票를 포함한 7개 이사국의 찬표로 決定하고 있다.

그러나 1946년까지 溯及되는 一連의 前例에 따라 安保理 常任理事國의 기권은 拒否權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慣例가 수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같은 U. S. S. R의 主張이 提起된 以前에 U. S. S. R을 포함한 모든 加盟國은 同理事會 常任理事國의 찬성 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全員 一致가 없는 決定도 合理的이며 拘束力이 있는 決定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中國의 投票에 관한 U. S. S. R 主張에 대하여 安保理 議事진행 規則은 安保理의 公認대표 선출 方法을 규정하고 있다.

실사 理論의 妄想的 비약을 假定한다고 하여도 北京政權 代表가 安保理의 中國 代表로 看做되어야 한다는 U. S. S. R의 主張은 이를 뒷받침 하는 前例가 없다.

理事會는 國民黨정부 代表의 信任狀을 승인하였으며, 그뒤 이 승인을 撤回하도록 노력한 U. S. S. R의 기도는 挫折된 것이다. 따라서 6월 25일, 27일 兩일에 國府대표에 의한 投票는 中國의 公式的인 投票이다.

U. S. S. R의 贊成投票를 포함한 全員 一致가 아닌 安保理가 채택한 主要案件中 일부의 前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Palestine의 경우—U. S. S. R은 1948년 4월 16일 Palestine 休戰을 促求하는 결의안에 기권하고 同년 5월 22일에는 「休戰」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또한 同년 7월 15일, Palestine 「休戰」을 命令하고 이 지역 仲裁者에게 訓令하는 決議案에 기권하였다. 이어서 10월 14일 현재 Palestine 절명 모든 관계국에 대하여 그들 掌據 所在地 外로 철수를 촉구한 결의안에 대하여 同년 11월 4일 이에 기권하였다.

이상과 같은 事例에 있어서 U. S. S. R은 安保理 조치의 合法性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

Kashmir의 경우—U. S. S. R은 1948년 1월 17일, 사태를 악화시킬 行動을 中止하도록 營

事國에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고, 同년 1월 20일에는 광범한 委任사항을 부여하는 UN India, Pakistan委員會의 설립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또한 同년 4월 21일 UN India, Pakistan委員會의 위임확대와 休戰 成立 그리고 國民投票 실시 조건을 설정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으며, 同년 6월 3일 앞서의 결의안을 확인하고 UN委員會를 紛爭지역에 파견하도록 命命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U. S. S. R은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安保理 조치의 合法性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

Indonesia의 경우—U. S. S. R은 1948년 12월 24일, 當事者에게 戰鬥行爲의 中止를 促求하고 Indonesia 官吏들의 석방을 命命하는 결의안에 기권하였고, 이 결의안에는 France도 기권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월 28일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는 UN Indonesia 委員會의 設立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U. S. S. R은 이상의 모든 경우에도 安保理가 取한 조치의 合法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U. S. S. R은 그가 多數表決에 참여하고 安保理의 다른 常任國이 기권한 결의안에 대하여 그 合法性을 問題視 한 일이 없다.

이와 같은 事例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의 결의안을 통하여 나타났다.

- ① 1948년 12월 28일에 可決된 Netherlands에 대한 Indonesia 政治犯 석방 촉구 결의안에서 France와 英國이 이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 ② Israel의 UN加入을 권고한 1949년 3월 4일의 安保理 결의안 표결에 英國은 기권 하였다.
- ③ Palestine 문제에 관하여 安保理 常任 理事國 등의 協議를 권고한 1948년 3월 5일의 安保理 결의 표결에서 英國은 기권 하였다.

安保理 表決에 常任理事國이 스스로 不參하는 것은 明確히 기권에 類似한 것이다.

또한 UN憲章 제28조는 安保理는 계속적인 기능을 發揮할 수 있도록 조직 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常任理事國 代表의 不參이 모든 重要활동을 中止하는 效果를 가진다는 것으로 解釋될 때에는 無效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6월 25일과 27일의 會議에 參席한 安保理 10개 理事國中에서 安保理 조치의 合法性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한 나라는 없었다. 더우기 27일의 表決에 반대를 表明한 나라 까지도 異議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은 U. S. S. R의 主張에 따른 美國의 公式 반박이거니와 여기에서 U. S. S. R의 UN 安保理 不參등으로 UN의 결의를 妨害하려던 賊反荷仗의 兇計는 美國의 外交활동에 발려 白日下에 露呈되었다 할 것이다.

### 3. 美 極東軍 司令部의 動向

#### 가. 美國人의 撤收와 韓國軍 지원

美極東軍사령관 MacArthur 元帥가 北傀의 侵略 보고에 接하게 된것은 當日 새벽 駐日 美大使館 속소에 있을때 사령부 당직장교로 부터 긴급전화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는데, (研究 (1) 참조) 그 내용에 대하여 그의 回顧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울로 부터의 急電에 의하면 속日 04.00에 38°선 전역에서 北傀의 大部隊가 境界線을 넘어 韓國軍의 방어 진지를 制壓하고 南進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速度와 세력은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있다.』

또 그가 여기에서 主張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를 받은지 얼마후에 참모장 Almond 소장으로 부터 侵略에 대한 즉각 조치를 촉구 받았다는데, 이때의 衝擊을 밝혀 그는 後日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美國은 5년前 Geoge C. Marshall이 豪言한 莫強한 힘이 痕跡도 없이 사라지고 용기있는 지도력이 파산 되었으며, 더구나 明確한 Asia 政策이 全無 함으로써 결국 침략에 當面하게 되었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大戰이 발발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1949년 6월에 作成된 이른바 「Chow Chow」라고 命名된 駐韓美國人의 철수계획의 실행 뿐이었다.

그는 北傀의 南侵 全貌가 밝혀 지자 즉시로 合參本部에 要旨 다음과 같이 急報하였다.

『戰略的 의도밑에 增強된 세력으로 나타난 敵의 南侵은 UN을 無視한 公然한 挑戰이다. — 全戰線에서 敵은 3개사단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後日 國務省이 公開한 資料에서도 同元帥는 當日에 Acheson 長官의 高문으로 訪日中인 John Foster Dulles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Dulles의 歸國보고에서 보거나 그의 報告中 敵情 판단에 있어서의 過少 평가는 當時 美國內의 事情을 감안하여 美軍 出動의 下命을 實現키 위한 意圖的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推測을 자아내게 한다.

즉, Dulles는 歸國 즉시 Acheson 長官에게 보고 하기를 韓國이 自力으로 침략을 阻止하지 못할 경우에 美國은 U. S. S. R와 一戰을 각오 하고라도 出戰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이 武力으로 席捲되는 것을 坐視 한다면 世界大戰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強硬한 대응책을 전의 하였다.

어쨌든 同元帥는 이날 23.00에 Muccio 大使로 부터 美國人의 비전투원을 韓國에서 빨리 철수하기 위한 지원을 要請받자 즉시로 이에 呼應키로 決心하고 이에 따른 긴급조치를 海·空軍사령관에게 命命 하였다.

同元帥는 이 조치를 가리켜 훗날 밝히기를 『數分 以內로 수송기들은 日本에 있는 滑走路를 出發하고 海上에 있는 船舶들은 全速力으로 韓國 港口로 航進하였다.』라고 述懷 하였다.

當時 美國人의 撤收責任과 權限은 Muccio 大使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北傀의 계속 南侵으로 서울이 威脅받자 극동군사령부에 通報한 시간에 WVTP(英語)放送를 通하여 美國人 非職員들에게 서울 撤收를 위해 仁川에 集合할 것을 命命하였으며 26일 00.30(Washington시간 25일 12.30)에는 美國務省에 이 사실을 報告하게 되었다.

이 무렵 仁川에 정박하고 있던 可用 船艦은 Norway 船籍의 Reinholt호와 Norge호 2隻의 商船뿐이었으며 그나마 Norge호는 老朽船이었기 때문에 不適으로 判明되었다. 따라서 26일 01.00에 서울을 철수하기 시작한 美國人 婦女者와 非職鬪員들은 단지 12명의 人員을 收容할 能力밖에 없는 Reinholt호로 700명이 승선하여 當日內로 仁川을 出發 日本 Kyushu의 Fukuoka(福岡)로 向하였다.

그後에 이 철수는 美공군 掩護下에 극동공군에서 急派한 수송기에 의하여 金浦와 水原 비행장에서 실시되었고 나머지는 陸路수송을 거쳐 釜山에서 Pioneer-Dale호로 韓國을 떠났다.

26일~29일에 完了한 이와 같은 駐韓 非職鬪員의 철수에서 1,527명의 美國人을 包含 總 2,001명의 外國人이 韓國에서 避難하였는데, 이를 수송수단 별로 區分하면 海上수송이 10,78명, 空輸人員이 923명에 達하였으며, 이 가운데는 宣敎師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北傀의 南侵 當日에 韓國에는 總 472명의 군사교문단 요원이 남아 있었는데, 다음은 이들에 관한 철수 상황이다.

즉, 26일에, Muccio 大使는 이날 04.00에 Tokyo(東京)로부터 急報에 接하고 急遽 귀임한 Wright 대령(군사 교문단장 대리)과 相議하여 33명의 要員을 제외한 나머지 要員들은 모두 韓國에서 철수 시키기로 決定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다음날인 27일 水原비행장에서 韓國을 떠났으며, 嶺南지방에서 근무하던 50명의 要員들은 同월29일에 제3사단 수석교문 Rollins S. Emmerich 중령의 지휘를 받아 수송선으로 철수 하기 위하여 釜山에 集結 하였다.

그런데, Muccio 大使 역시 26일에 美國務省으로부터 서울을 떠나라는 命命을 받고 다음날 27일 水原에 철수하였을 무렵 Wright 대령은 始興에서 MacArthur 元帥로 부터 서울에 계속 지휘소를 유지하라는 勸告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들 要員은 이날 다시 始興에서 서울에 復歸하게 되었는데, 28일 02.30에 漢江

人道橋의 爆破로 말미암아 철수로가 차단된채 不得已 서울에 殘留케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 서울의 危機가 急迫하게 되어 이들을 唐慌케 만들었으나 結局 西氷庫에서 韓國軍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渡江에 성공하여 이날 08.00 漢江 南岸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어서 15.00에는 安養에 철수하여 水原으로 南下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 남아 있던 美軍事고문團 要員들은 MacArthur 元帥가 派遣한 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에 吸收되었으며, 한편 空路 27일에 日本으로 철수하였던 美군사고문團 要員들도 그後 美地上軍의 出動과 함께 7월 2일 군수송선 Keathly호로 다시 任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北傀가 南侵을 시작한 當日 11.35에 景武臺를 訪問한 Muccio 大使는 李承晚 大統領으로 부터 侵略을 격쇄하기 위하여 당장에 必要한 武器와 탄약의 긴급 지원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가 남긴 外交文書에 따르면 이때 李承晚 大統領은 Muccio에게 말하기를 「10일 以內에 現 韓國軍이 保有하는 탄약이 消盡될 것이다. — 本人은 우리 國民들이 一旦 有事時에 男女老少 모두 일어나 勇猛이와 魂膽이라도 싸울것을 촉구하여 왔다. 다만 充分한 탄약이 있다는 確信이 있다면 口傳되어 國民들의 사기를 올려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자리에서 Muccio 大使는 이 要請을 즉시 받아들여 그의 指揮下에 있던 軍事고문團 Green Wood 중령(研究2 참조)에게 美極東軍사령부에 韓國軍이 防禦作戰에 결실한 105mm 曲射砲탄과 60mm 박격포탄 그리고 口徑 0.3"의 소총탄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 要請을 받은 MacArthur 元帥는 Washington 당국으로 부터 지시가 있기 이전에 獨斷(研究 3 참조)으로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에게 Yokohama(橫濱)에 繫留中인 군수송선 Keathly호로 105,000발의 105mm탄과 265,000발의 81mm 박격포탄 및 89,000발의 60mm 박격포탄 그리고 2,480,000발의 소총탄을 우선 積載하여 韓國으로 急送할 것을 命命하였다. 아울러 7월 1일 이전에 同 수송선이 釜山에 入港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同時에 空軍과 海軍에게는 同船이 釜山으로 安全하게 航海하고 荷役 하도록 보호 조치를 取하라고 命命하였다.

이 措置는 다음날인 26일 13.00 이전에 合參本部로 부터 下達된 前述한 命命으로 追認된 셈이며, 그 命命 내용에서 보는데 美當局의 최초의도는 우선 美國人을 韓國에서 撤收시키는데 必要한 所要 즉, 서울과 金浦 및 仁川을 韓國軍이 持久하는데 必要한 지원을 실시하려 하였고 海·空軍의 出動도 이와같은 自衛的인 필요에서 斷行하려 하였던 것이다.

#### 나. 前方指揮所의 開設

Blair House 會議의 結果로서 合參本部가 극동군사령관에게 示達된 訓令中에는 韓國에

조사단을 派遣하라는 긴급내용이 있었다.

MacArthur 元帥는 이 訓令에 따라 즉시로 12명의 장교와 2명의 사병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John H. Church 준장을 團長으로 임명하여 『① 韓國軍 支援에 關하여 이를 調整하고 ② 美軍사고문단 및 그 부대를 감독하며 ③ 前進지휘소를 開設하여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6월 27일 04.00(Washington시간 26일 15.00)에 군수송기便으로 Haneda(羽田)空港을 떠난 이들은 2시간 후에 Itazuke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으나 상황의 急變으로 이곳에서 待機하다가 이날 14.25에 『서울이 敵手中에 있는지 모르니 水原으로 目的地를 변경하라.』는 要旨의 追加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同 元帥는 合參本部로부터 『韓國國內에서 모든 軍事活動을 管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同 元帥는 前方指揮 및 連絡團의 性格을 띤 이들에게 다시 『軍고문단을 指揮하고 韓國군에게 可能한 모든 지원을 提供하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되어 ADCOM 要員은 이날(27일) 19.00 (Washington 시간 : 같은날 05.00)에 水原 비행장에 着陸, Muccio 大使와 會同하였으며, 이어 Church 준장은 전날 04.00에 日本 Tokyo로부터 서울에 歸任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軍事고문단 Wright 대령에게 無窮으로 서울 사정을 물었다. 그러나 同 대령으로 부터 否定的인 應信을 받은 Church 준장은 곧 서울까지 推進할 것을 斷念하고 水原에 있는 農業시험장에 臨時本部를 設置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業務를 시작하였으나 通信의 不通過 混亂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28일 04.00에 이르러 서울에서 간신히 水原에 撤收한 美軍事고문단의 一員인 Hazlett 중령과 Hausman 대위로부터 『漢江橋가 爆破되고 敵의 戰車는 이미 서울에 侵入하여 韓國軍은 그곳에서 水原쪽으로 撤收中.』이라는 내용의 상황을 청취하게 되었다.

몇시간 뒤에 韓國陸軍 總參謀長 蔡秉德 소장과 지휘소에서 連繫되자, 그는 蔡소장에게 『MacArthur 元帥는 美공군과 海軍으로 하여금 韓國軍을 지원케 할 것이며, 이곳이 바로 그의 前防指揮所이다.』라고 說明하였다는 것이다.

이자리에서 Church 준장은 蔡秉德 소장과의 協議끝에 앞으로 緊密히 연락을 유지 할것과 연합사령부 설치에 合意함에 따라 同建物에 육군본부도 함께 開設하게 되었다.

Church 준장은 이때 蔡소장에게 권고하기를 『서울 市街戰을 계속 펼것과 撤收하는 兵力을 위하여 서울—水原間에 落伍者收容선을 설정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再編후에 漢江방어선을 設定, 이를 支撐하는것이 可하다.』라는 要旨로 助言 하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當時의 戰況으로 미루어 漢江 방어선은 當面문제로서 時急하였으며, 실제로 이때부터 陸本지휘부는 漢江南쪽에 沿하여 철수 부대를 수습 展開하여 이를 固守하려 하였으니, 이는 Church 준장의 提案에 따른 조치라기 보다는 北傀의 侵攻에 當面하여 全力으로

서 漢江에서 敵을 阻止하고 首都를 恢復하려던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이날 Church 준장의 상황판단은, 이렇게 한다면 韓國軍이 漢江 방어선에서 敵을 격퇴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에 대하여 確信할 수 없게 되자 곧 MacArthur 元帥에게 『38°선을 恢復하려면 美地上軍의 參加가 要望된다.』는 要旨의 建議을 打電하고 계속 상황에 관하여 斷片的인 보고를 실시하였다.

#### 다. MacArthur 元帥의 戰線視察

6월 28일 12.00에 MacArthur 元帥는 Church 준장으로부터 發信한 보고에 接하자 直接地上軍을 投入하는 妥當性の 興否와 그밖의 상황을 檢訪하기 위하여 韓國戰線을 視察하기로 決心하고 곧 전용기인 Bataan호(C-54)의 조종사 Anthony F. Story 대령을 그의 執務室로 불러 다음날 아침 韓國으로 往訪할 것을 예고하였다.

뒤 이어 그는 Church 준장에게도 이날밤 韓國戰線 視察을 통고 하였다.

한편 同 元帥로부터 指示를 받은 Story 대령은 그 즉시로 기상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기에보를 조사한바 비행 당일의 기상조건이 不順하므로 이 뜻을 그에게 보고하고 韓國旅行을 挽留하는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상조건의 악화와 敵으로부터의 공격 위험성, 그리고 反對하는 모든 參謀들의 絶對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同월 29일 06.00, 5명의 參謀와 4명의 記者를 포함한 一行 15명의 수행원을 帶同하고 Haneda 공항을 離陸하였다.

비행途中 그의 動靜에 관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北傀 전투기가 發進하고 있는 그들의 基地를 어떻게 하면 擊破할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 Willoughby 소장과 意見을 나누었으며, 또한 그로부터 한시간 쯤 되었을 때 그는 附屬室에서 나와 一行들에게 諒解하기를 『38°선 以北에 대한 폭격을 決定하고 命令을 下達 하였으므로 다음날 B-29가 出擊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同 元帥는 이륙직전까지 계속 韓國으로부터 入手된 보고에서 더욱 戰況이 不利하여 서울이 敵의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韓國정부는 임시 大田으로 遷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後日 밝혀진 것과 같이 『또다시 걸머진 軍服務기간中 거의 對敵할 수 없을 만큼 우세한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사태는 絶望的인 것으로 보였다. — 순간적인 하지만 나는 自信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이때의 感懷였을 것이다.

그는 同乘한 極東空軍사령관 Stratemeyer 중장에게 口頭命令을 下達하고 이를 同 중장의 직무를 代行하고 있던 제5공군사령관 Partridge 소장에게 機內無電을 通하여 사실을 打電토록 하였는데, 이때가 08.00였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水原 農業試驗場에 도착한 MacArthur원수 :

右로부터 Almond소장, MacArthur원수, Muccio대사〉

『北韓 空軍基地를 公表함이 없이 즉시로 폭격하라. MacArthur는 이를 承認하였다.』 이 命令은 Truman 大統領이 決裁한 參謀本部의 승인 訓令이 下達되기에 앞서서 行하여졌으나 이미 그에게 下달된 「38°선 以北 폭격 금지」의 제한 訓令을 사실상 違反하는 것이 되었다.

MacArthur 元帥가 搭乘한 Bataan호는 점차 日氣가 恢復되는 가운데 日本 空域을 벗어났고 10.00부터 Itazuke기지에서 出擊한 4대의 F-8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11.15에 목적지인 水原飛行場에 着陸하여 李承晩 大統領과 Muccio 大使 및 Church 준장의 迎接을 받았다.

그런데 水原비행장은 그가 安着하기에 앞서 北傀 YAK 전투기 2대의 공격을 받아 滑走路에 있던 C-54 수송기 1대가 被爆되었는데, 이때까지도 燒煙에 쌓여 있었다.

그는 곧 出迎人士와 더불어 ADCOM으로 直行하여 Church 준장으로 부터 『現상황에서 韓國軍兵力은 道합 25,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으며 李承晩 大統領은 그에게 『우리들은 地獄과 같은 困境에 처하고 있다.』라고 吐露하였다는 것이다.

Muccio 大使로 부터 몇가지의 사실을 追加로 보고 받은 그와 그의 一行은 直接 戰線을



살피기 위해 3대의 Jeep차에 分乘하여 北쪽으로 1시간을 달려 漢江 南岸부근 小丘에 도착하여 戰況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同 元帥는 後日 다음과 같이 回顧하였다.

『우리가 漢江 북에 도착하였을 때는 마침 그 다리를 防守하기 위한 最後의 방어선이 전개되고 있었다. 서울은 이미 敵의 手중에 있었으며, 煙氣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一 破壤의 소용돌이 속에서 呻吟하고 있는 서울은 연기를 내뿜으며 炎焰에 싸여 있었다. 敵은 間斷 없이 박격포를 射擊하면서 漢江橋을 向하여 殺到하고 있었다. 내가 선 있는 언덕의 양쪽 기슭에서도 統制를 벗어난 부대의 隊列이 後退하기에 바쁘고 落伍兵의 零列 사이에는 重傷者를 태운 救急車의 赤十字 標識가 선명하였다. 하늘은 流彈의 날카로운 金屬性으로 充滿하고 激戰이 칩쓸고 지나간 뒤의 荒涼하기 짝이 없는 戰場에는 코를 저르는 고약한 냄새가 風靡하였다.

모든 도로에는 悲慘한 모습의 避難民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신경질적이거나 哀痛하게 울부짖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나는 1시간 동안이나 내가 이어받은 破局의 비참한 境況을 바라다 보았다. 피에 젖은 이 언덕에 서있는 짧은 동안에 나는 作戰을 짜냈다. 한편 그의 전용기는 機體의 安全과 再給油 때문에 11.30 水原비행장을 떠나 Fukuoka에서 待機하였으며, 이사이 水原비행장 경비를 위하여 日本에서 急派된 제507 高射砲대대 소속의 33명의 장병과 4門의 M-55 고사포가 처음으로 이곳에 配置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16.15에 이곳을 空襲한 4대의 敵機와 싸워 그중 1대를 擊墜하고 1대를 半破하였으며, 20.05에도 이들은 3대의 敵機를 맞아 對空사격을 集中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漢江邊에서 水原에 귀환하자 17.15에 復歸한 전용기에 탑승하여 곧 Tokyo로 돌아갔는데, 그는 機上에서 美地上軍의 참전을 強力히 主張하는 다음 要領의 보고서를 起草하고 着陸直後에 이를 參本都에 送達하였다.

『나는 今日 韓國戰線을 觀察하였다. 訪問의 목적은 韓國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장차 우리가 支援하여야 할 効果적인 方法을 決定하기 위한 것이었다. — 治安維持의 目的으로 輕武裝한 韓國軍은 北傀의 戰車와 空機의 공격을 阻止할 수 없었다. 補給體系나 보급품의 준비 등 縱深 깊은 방어 준비가 소력 없었으며 補給을 위한 계획도 없었던 까닭에, 파손되거나 철수시에 군수품 처분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韓國軍은 亡失하거나 포기할 補給品 조차도 없었고 重裝備도 없었다.

또한 그들은 相互 통신을 위한 수단도 전혀 갖지 못하였으며, 南쪽으로 점차 後退한 各개병사는 소총 정도를 所持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파견한 ADCOM에 의하여 再編이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 韓國軍은 曲射砲, 박격포, 對戰車砲도 없이 地形과 地物을 최미한으로 이용하고 高度의 敢鬪精神을 發揮하여 敵의 進擊을 지연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一般市民의 愛國心은 強烈하고 美國을 信賴하는 마음은 確固 不動 하였으며, 이들은 動

搖曳이 共產統治를 반대하고 南쪽 도로를 따라 길을 메워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다. 韓國軍의 可用兵力은 25,000명을 넘지 못하는데 反하여 北傀軍은 戰車로 增強 되었으며, 잘 훈련되고 지휘되었으며, U. S. S. R전투기로 무장된 強力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共產武力 침략을 위한 存在로서 育成되었다는 사실이 明白하다.

나는 南쪽 釜山港과 水原을 통한 보급로를 確保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려 한다. 水原 基地는 현재 重要하지만 敵의 끊임 없는 空襲을 받고 있다. 보급품이나 裝備人員을 수송하는 모든 수송기를 엄호하기 위하여 制空의 必要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하여 作戰을 려한다. 北傀 空軍은 水原 기지 방에서 그의 공격을 더 강화하고 있다.

敵의 進擊을 멈추게 하던가, 아니면 敵의 武力앞에 굴복하여 韓半島 전체를 내어 주던가 하는 基本的인 命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漢江線을 방어하기 위하여 全力을 傾注하고 있으나 그 結果는 疑心스럽다. 漢江 방어선과 서울—水原間의 廊路를 방어한다는 것이 韓半島 中部의 唯一한 空軍基地를 확보하는에 必需的인 要件이라고 본다. 韓國軍은 反擊할 能力이 전혀 없고 오히려 突破될 憂慮가 많다. 萬若에 敵이 進擊을 계속한다면, 大韓民國의 顛覆될 危險性은 심각하게 增大된다고 본다.

現在의 戰線을 固守하고 次後에 失地를 奪還하기 위한 能力을 갖추도록 하는 唯一한 方法은 韓國戰線에 美地上軍을 참가시킴으로써 만이 可能할 것이다. 效果的인 地上戰鬪와 行하지 않는 海空軍만의 支援은 결코 絶對적인 作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萬若에 나에게 拂限을 부여 한다면 前述한 重要 지역에 各 美1개 전투단(RCT) 규모를 急派하여 이 지역을 確保케 하고 日本에 助하는 美군2개사단을 編成하여 初期에 反擊을 준비시킬 생각이다.

果적인 陸·海·空의 合同作戰 없이는 人命 및 財產과 美國 위신에 커다란 不必要한 損傷을 입힐 必이며, 더욱 不利한 事態는 完全히 失敗로 끝날 수도 있다는 點이다.

이 보고는 參本部에 接受되고 곧 Collins 部長에 의해 陸軍長官 Pace에게 傳達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大統領까지 報告되어 美地上軍 派韓決定을 促進케 되었다.

## 라. Washington當局의 北爆 및 地上軍의 派韓승인

### (1) Washington 當局의 狀況分析

美國의 政策 立案者들은 6월 25일~27일에 이르는 3일간의 긴급 조치에도 不拘하고 北傀의 침략은 弱化되기는 커녕 도리어 惡辣하게 擴大되고 있다는 事實에 直面하자 이는 必是 U. S. S. R가 背後에서 操縱하고 있다는 證左라는데 意見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당시 陸軍企劃次長 Charles L. Bolte 소장은 28일 극동군 사령부로부터의 상황보고에 따

라 韓國戰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 『① 北僞의 南侵은 U. S. S. R가 挑發한 계획적인 行動이며,
- ② 冷戰 상태下에서의 그들의 國際的인 地位를 높이며는 企圖이며,
- ③ 共產侵略을 阻止하려는 美國의 決意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 ④ 韓國戰은 全面的인 熱戰의 前兆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U. S. S. R와 戰爭 상태에 突入할 경우에 대비하여 極東을 제2의 重要戰略 지역으로 認定, 日本—Okinawa—Philippines을 방어하여야 할 非常계획이 必要하다.
- ⑤ 따라서 美國이 韓國에서 지나치게 對應한다면, 日本 등 기타 지역을 방어하여야 하는 陸軍兵力을 弱화시킬지도 모른다.』

Bolte 소장은 이상의 內容을 같은날 陸軍長官 Pace에게 報告하면서 『萬若에 이미 行動을 開始한 海·空軍이 北僞의 南侵을 阻止하지 못하여 日本에 있는 美地上軍을 과전할 必要가 있을 場合가 發生한다면 그것은 全面戰이 일어날 場合에 日本에서 U. S. S. R의 공격을 阻止할수 있을 것인지 극히 疑心스러울 정도로 美國 守備兵力을 弱화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니 그 受動的이고 消極的인 管見에는 一驚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軍事當事者의 情勢分析이 進行되고 있을 때 高位政策 托의 또한 계속되었다. 이날 Truman 大統領은 韓國戰에 관한 最新 報告에 따른 今後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一連의 國家安全보장 會議를 召集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大統領은 관계 閣僚들에게 U. S. S. R와 인접한 세계 모든 地域에 대한 美國의 政策을 再檢討하라고 指示하였으며, Acheson 및 Johnson 兩長官은 韓國 사태로 惹起되는 몇가지 當面문제에 대한 研究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報告하였다.

同席한 Alben W. Barkley 副大統領은 上院에서 滿場一致로 徵兵延長을 決議하였다고 報告하였는데 Acheson 長官은 이에 대하여 大統領의 政策 支持는 持續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美國의 긴급조치는 적절한 것이지만, 이로 因하여 全面戰의 禍를 招리는 結果가 될지도 모르며, 이 경우 그 責任은 重大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大統領은 『韓國에서의 軍事行動이 위협을 수반한다는 것은 分明하지만, 他 地域에서의 軍事的인 상황이 美國으로 하여금 물러날 것을 必要로 하지 않는 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이미 取한 바 있는 斷乎한 決意를 굽히지 않았다.

또 이 회의에는 Europe 旅行에서 歸國한 Harriman 特使가 참석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美國은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의 挑戰에 對抗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Europe 사람들이 우려하였다. 大統領의 決定이 發表된 뒤 Europe에서는 一般的으로 不安感을 나타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悲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하였다.

뒤이어 副大統領은 어느 上院의원이 NATO諸國의 韓國 援助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大統領에게 傳하였는데 大統領은 방금 英國으로부터 海軍지원의 特別 提議를

받았다고 하고, Johnson 長官에게는 詳細한 정보를 副統領에게 제공하여 上院의원들에게 통보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陸軍長官 Pace는 U. S. S. R이 韓國戰爭에 참가하고 있는 증거를 細密히 살피도록 군 정보기관에 訓令하였다고 보고하고 他의 특수정보 목표가 없는지를 大統領에게 問議하였으며 空軍長官 Finletter은 Washington과 Tokyo의 극동군사령부間의 相互 이해 문제에 관하여 착오없기를 希望하여 空軍參謀總長 Vandenberg 대장을 Mac Arthur 사령부에 파견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大統領은 『우리의 戰略정보기관이 韓國 以外的 他地域을 주시하고 있으며 Yugoslavia 부근, 특히 Bulgaria와 北 Europe 부근에서 U. S. S. R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가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Finletter 長官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 단계에서 3軍참모총장들을 긴급히 必要로 하는 시기이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Washington—Tokyo간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으로 相互理解가 一致하여야 할 것이라고 添言하였다는 것이다.

## (2) 새로운 訓令

다음날(29일) 아침, 美 國防省은 極東軍 사령부로부터 韓國사태가 惡化一路에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國防長官 Johnson은 大統領에게 전화를 걸어 美國의 새로운 支援 조치를 進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하여 例의 Blair House 會議은 이날 17.00(韓國시간 30일 07.00)에 다시 大統領 主宰下에 開催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Johnson長官은 參謀本部가 作成한 MacArthur 元帥에게 보낼 새로운 訓令內容을 要旨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 『① 南韓에 있어서의 兵站조직과 기타 보급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美陸軍 근무부대를 사용할 것.
- ② 釜山—鎭海지구의 港灣 및 航空기지를 確保하기 위하여 美陸軍 전투부대를 사용할 것.
- ④ 滿洲 및 U. S. S. R 國境지역을 제외한 北韓 全지역에서 海軍과 空軍力을 사용할 것,
- ④ 海·空軍의 활동으로서 中共의 臺灣侵攻을 阻止하고, 아울러 臺灣의 本土 進攻도 이를 防止할 것.
- ⑤ 韓國軍에 대한 장비 및 탄약 보급을 계속하는 同時에 美제7함대를 작전지휘하며, 太平洋 지구사령관은 要請에 의하여 MacArthur 사령부에 海軍 전력을 지원 또는 증원 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Truman 大統領은 『여기에는 U. S. S. R와도 戰爭을 不辭한다는 내용의 뜻이 內包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 敵을 38°선 以北으로 擊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되 豫測을 不許하는 韓國사태에 깊숙히 빠져들게 되지 않기를 바

란다.』라고 하였다고 後日 밝힌 바 있다.

同席한 陸軍長官 Pace는 38°선 以北에 대한 作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極히 주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作戰은 明白하게 制限되어야 한다고 그 나름의 信念을 밝혔다.

大統領은 이 意見에 即席에서 同意하고 38°선 北쪽에 대한 美軍의 作戰은 韓國이 平和와 38°선은 恢復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理解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敵의 군사보급시설을 파괴하기 위하여서만 계획되어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大統領은 이틀 後에 同意하고 Johnson 및 Acheson 兩長官에게 MacArthur 元帥에 下達할 追加命令을 起草하라고 指示한 다음 UN 安保理 결의에 따른 U. S. S. R의 反應에 대하여 這間 往來된 外交문서의 公開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經緯로서 MacArthur 元帥에게는 이날 19.00(韓國時間 30일 09.00)에 台參本部 지시 電文 제84681호로 要旨 다음과 같은 制限命令이 發送되었다.

- ① 38°선 北쪽지역을 폭격하되 순수한 군사목표에 限한다. 단 滿洲와 U. S. S. R 國境을 넘어서는 안된다.
- ② 韓國에 戰鬪부대나 支援부대를 必要에 따라 파견할 수 있으나, 釜山지역 港灣이나 橋頭堡의 확보에 限한다.
- ③ 極東軍이 韓國에 공급할 수 있는 品목가운데 韓國軍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所要를 提出하여 승인을 받는다.



〈6.25당시 美軍 首腦部 : 右로부터 Callins대장, Vandenberg대장, Bradley대장, Sherman대장〉

- ④ 제7함대를 지휘하되 臺灣을 보호하는 임부에 국한한다.
- ⑤ 이들 내용은 U. S. S. R와 全面戰을 不辭한다는 결정이 아니며, 萬若에 그들이 韓國에서 美國의 作戰에 對항한다면, 우선 防守策을 强구하여, 결코 사태를 惡化시킴이 없이 즉시로 그 사실을 報告하라.』

이상과 같은 命令은 MacArthur 元帥가 韓國視察에서 돌아간 다음날에 이를 受領하였으나, 參本部는 29일 深夜인 2.400(韓國시간 30일 1.400)에 前述한 MacArthur 元帥의 報告(電文 제56942호)를 接受하였다.

따라서 이 報告 처리의 當事者인 陸軍參謀總長 Collins 대장은 同元帥의 報告에 포함된 요청은 긴급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즉시로 그와의 意思疎通을 위한 이른바 Telecon 會談을 준비하게 하였으니 이때가 같은날 30일 03.00(韓國시간 30일 17.00)였다.

이 Telecon 會談(研究 4참조)으로 Collins 대장은 MacArthur의 요청이 明瞭해짐에 따라 早速한 조치가 必要하다고 판단하여 歸家中인 Pace 長官에게 連絡하여 同元帥의 보고 要旨와 Telecon에 의한 그의 긴급요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Pace 長官은 곧 大統領에게 이를 進言하여 지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大統領은 1개연대 전투단의 사용을 즉시로 구두 승인하고 곧 元帥에게 通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Collins 대장은 앞서와 같은 Telecon에 의하여 陸軍省發 제10호로써 국동군사령관에게 1개연대 전투단 병력사용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通報하였다.

이 일이 있던 다음 07.00에 最新사황에 대해 參本部로부터 說明을 청취한 大統領은 지체 없이 Johnson 長官에게 同元帥의 2개사단 派韓승인 요청을 討議하기 위한 會議를 소집하라고 긴급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08.30에 Blair House에서 開催된 회의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제1차 회의 때와 거의 같은 人物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아침 일찍 取한 조치를 一同에게 알리고 隨後에 增援할 부대에 關하여 意見을 求하였다. 회의 결과 同元帥가 要請한 2개사단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그에게 위임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海軍參謀總長 Sherman 대장이 勸告한 北韓海域의 封鎖도 이에 同意하고 裁決하였다.

이로써 美國은 세계 到處에서 共產침략을 警戒하는 한편, 全面戰으로의 擴大를 우려하면서도 制限된 陸·海·空軍으로 하여금 本格的으로 韓國에서 北傀의 침략을 阻止하고 아울러 平和를 恢復키 위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美國의 斷案은 極東地域에 MacArthur 元帥가 있음으로써, 또 침략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大統領과 그리고 사태를 直視하고 옹바르게 건의한 有能한 閣僚 및 軍事當事者들의 貢獻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조치에 뒤따라 英國, Australia, Newzealand, Canada, Netherlands 등 諸國이 韓國에 援助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때 中國이 援助를 제의한데 對하여서만은 臺灣방어를 弱화시킨다는 이유로 美國에 의하여 受容되지 않았다.

## 4. 美軍의 赴援狀況

### 가. 美·英海軍의 出動

#### (1) 最初任務와 艦艇의 증원

6월 26일에 美合參本部가 극동군사령관에게 극동 해·공군의 사용권을 승인하였을 때 美태군 참모총장 Sherman 대장은 제7함대 사령관을 代理하고 있는 Hoskins 소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命命하였다.

『전제를 유지하여 可能な限 迅速하게 西太平洋으로 航進할 기동전대 및 지원세력을 편성하라.』

이에 따라 同함대는 즉시로 Hoskins 소장 指揮下에 Subic Bay (philippines)와 HongKong 을 發進하여 高速으로 Sasebo로 航進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日本주둔 美해군 기동전대 96.5의 旗艦 Juneau(CL)호는 韓國해역으로 出動하였는데 同함은 이때 巨濟島와 蔚山에 敵兵이 上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먼저 巨濟島에 이르러 그 眞疑를 確認코자 조사대를 上陸시켰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 後에 同함은 다시 蔚山海역으로 直航하고 앞서와 같이 조사대를 上陸시켜 入手한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잘못된 정보임이 判明되었다.

이와 같은 措置로 제7함대가 日本 海域으로 急行하게 되었을 때, 美極東海軍사령관 Joy 중장은 同함대가 Sasebo로 入港한다면 U. S. S. R의 參戰 가능성에 비추어 그들 공격 基地로부터 近거리의 位置케 된다는 것을 勘案하여 27일 제7함대 사령관(대리) Hoskins 소장에게 『Sasebo 대신 Okinawa로 入港하라.』고 命命하였다.

當時 Washington 當局이 제7함대에 부여한 임무는 臺灣海峽의 制海權 유지였으므로 이 航進命命으로 同함대는 北上 기동中에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航母 Valley Forge호로 하여금 艦載機들을 出擊케 하여 臺灣海峽을 哨戒하고 아울러 Taipei(臺北) 上空을 威脅飛行하였다.

이날 Joy 중장은 MacArthur 元帥의 지시에 따라 韓國에서 突發한 긴박한 사태에 비추어 極東海軍 예하의 지원부대 사령관 Higgins 소장에게 『그의 旗艦 Juneau호(순양함) 및 驅逐艦 De Haven호를 지휘하여 北緯 38°선 以南 韓國海域을 哨戒하고 敵의 上陸을 阻止하라.』고 命命하였다.

따라서 이 命을 수행한 Higgins 소장은 麾下의 驅逐艦 單隊(기동分隊)장, Allan, Jr 대령으로 하여금 기함과 더불어 韓國海域으로 出動케 하는 同時에 別송에 따라 韓國에서 日本으로 向하는 美國人 철수선과 韓國軍 支援을 위한 탄약 및 군수물자 수송선의 호송을 담당케 하였다.

이에 따라 Allan 대령이 거느리는 Mansfield호와 De Haven호, 그리고 Collett호등 3척의 驅逐艦은 急速 韓國해역으로 出動하여 海軍 최초의 임무인 仁川港 및 釜山港에서 철수하는 美國人을 搭載한 商船을 日本까지 호송하는 同時에 순양함 Juneau호와 合勢하여 이들 구축함들은 MacArthur 元帥의 긴급지시로 韓國軍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釜山으로 向하는 2척의 수송선(Cardinal O'connell호, Seagent Keathley호)를 掩護하였다.

極東海軍은 前述한 바와 같이 戰爭발발 당시에 戰鬥力이란 1척의 순양함과 4척의 구축함만을 保有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艦艇만으로 突發사태에 對應하여 임무를 수행하기란 그 活動에 있어서 매우 制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艦艇의 增援이 時急하였다.

同월 28일에 英國은 UN安保理 결의(27일 결의)에 따라 그의 軍隊를 韓國에 派遣키로 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Joy 중장은 Hong Kong에 駐在하는 英國 極東해군사령관 Patrick Brind 제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接수하였다.

『本人은 本人 이하의 함정들이 協助할 수 있는 作戰에 관하여 알고자 한다. 現在 英艦艇은 Andrews 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Triumph(航母), Belfast(순양함), Jamaica艦과 2척의 驅逐艦 및 3척의 호위 驅逐艦으로 구성되어 南部 日本海域에서 活動中인 機動戰隊 96.8이 있다.』

또 Joy 중장은 같은날 Australia, Newzealand 兩國으로부터도 같은 電文을 接수하였는데, Australia는 『日本海域에 있는 女王陛下의 艦艇들은 條件 없이 貴下가 사용하여도 可함.』이라 하였고, 『Newzealand는 2척의 호위 구축함이 7월 3일에 出動 예정이며, 그밖에 또 이에 配當된 함정들이 出動할 것임.』이라 하였다.

이에 同 중장은 즉시 이들 3개국 海軍 당사자들에게 『海上세력이 시급히 要求되는 現時點에서 항공母艦과 순양함, 그리고 2척의 구축함은 美海軍 強襲부대와 결합할 수 있으며, 기타 함정들은 호송 및 봉쇄부대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應信하였다. 이와 같이 되어 海上세력은 增強케 되었으며, 이날까지 美國人 철수선의 호송 임무도 完了되었다.

## (2) 作戰의 本格化

6월 29일에 Okinawa에 進駐한 제7함대는 英國과 Australia 함정들에 의하여 속속 증원되는 가운데 英航母 Triumph호와 同순양함 Belfast호 및 Cossack호와 Consort호등 구축함과 合勢하였다.



한편 제7함대 사령관 Struble 중장은 이날 Tokyo를 거쳐 Okinawa로 급遽귀환하였을 때 영국동 사령관 W.G. Andrewes 소장으로부터 그의 함정이 韓國 西海로 出動하기를 希望한다는 내용의 전문에 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곧 제7함대 組織인 제7機動부대의 強襲부대 編成에 이들 英艦들을 포함시킬 것을 決心하였으니 이로써 完成된 組織은 다음과 같다.

제7機動부대 (強襲부대)	(장, A. D. Struble, 중장 美)
機動전대 77.1 (支援부대)	(장, W. G. Andrewes, 소장 英)
英순양함 Belfast호	(장, Sir Aubrey St. Clair-Fox, Bt 대령)
美순양함 Rochester호	(장, E. L. Woodyand 대령)
機動전대 77.2 (警戒戰隊)	(장, C. W. Parker, 대령 美)
美驅逐함 Shelton	(각, C. B. Jackson, 중령 Jr)
// Eversole	(장, C. E. phillips 중령)
// Fletcher	(장, W. M. Lowry 중령)
// Radford	(장, E. C. Ogly 중령)
// Maddox	(장, P. B. Hines, Jr 중령)
// S. N. Moore	(장, R. H. Wanless 중령)
// Brush	(장, F. L. Sheffield, Jr 중령)
// Taussig	(장, W. C. Meyer 중령)
英驅逐함 Cossack	
// Consort	
機動전대 77.4 (統母전대)	(장, J. M. Hoskins, 소장 美)
美統母 Valley Forge	(장, L. K. Rice 대령)
美統母 Triumph	(장, A. D. Torless, 대령)

이날 제7함대 사령관 Struble 중장은 本國出張에서 急遽 Tokyo에 歸着하자 急迫한 情勢下에 제7함대가 臺灣관공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判斷아래 MacArthur 元帥, 극동海軍 사령관 Joy 중장, 극동空軍 사령관 Strameyer 중장과 會晤하고 함대가 수행할 공격 목표에 관해 意見を 교환한 바 있었다.

여기에서 거론된 것은 「제7함대 소속 統母 Valley Forge호의 戰力을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焦點이 집중되었는데, 의논 결과 赤都 平壤을 空襲하기로 決定하고 一次적으로 비행장과 항공기를, 2차적으로 그곳 鐵道와 교량을 重要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MacArthur 元帥는 Washington當局으로부터 北爆 권한을 委任 받지 못한채 空軍에게만 그의 獨斷으로 38°선 北쪽에 있는 군사목표 공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때부터 海軍도 空軍에 뒤이어 사실상 北爆이 승인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시작된 제7함대의 出擊은 韓政의 詰絶과 北進航海 때문에 Washington 當局이 MacArthur 元帥에게 北爆을 許可한 다음날까지는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後日 그의 獨斷이라는 是非없이 이날은 經過하게 되었다.

한편 26일, 기지를 出港하여 韓國海域으로 航進한 旗艦 Juneau호(CL)는 東海로 進入, 海岸封鎖와 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29일 02.30에 北緯 37°25' 海上에 2척의 正體不明의 선박을 Radar로 捕捉하였다. 그런데, 同艦이 發見한 이 2척의 艦船은, 당시 東海岸에서 활동중인 韓國 海軍 함정이었는데, 이때 同艦은 韓國 함정들이 이미 37°선 南쪽으로 撤收하였다는 情報만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이를 敵艦으로 誤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墨湖에서 撤收중이던 韓國海軍의 JML305함은 Juneau함의 砲擊으로 擊沈되었으니 이로써 전쟁초에 韓·美 해군의 協同의 未備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出擊 3일만에 失手를 犯한 同함은 23.00에 이르러 墨湖 海岸에서 南侵하는 敵地上軍을 強打하기 위하여 參戰후 最初로 5"포 16발의 순발신관탄을 포함한 400여발을 集中하는 對地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Higgins 소장은 이날 군수송선의 安全과 海域의 哨戒를 強化하기 위하여 구축함 Swenson호(함장, Schilling 중령)에게 『Mansfield함과 合勢하여 임무를 수행하라.』고 命令하였다.

6월 30일에 극동海軍은 Washington 當局의 北韓해역 봉쇄 결정으로,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作命 8—50호를 예하에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封鎖海域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東海—41°선까지

西海—39°41' 선까지

② 作戰의 책임 海域을 다음과 같이 分擔 실시한다.

韓國海軍—東西 37° 以南 海域

기동전대(96.5)—東海(37° 以北)

英기동전대(96.8)—西海(37° 以北)』

7월 1일 오후에 이르러 비로소 제7함대 예하 제77기동부대는 이미 擧論된 平壤비행장을 強襲하기 위하여 西海로 進出하고 美·英함정들이 合同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技備을 아울러 연마하였다.

이에 관하여 英國함대 사령관 Andrewes 소장은 後日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Okinawa를 通過하는 동안 美海軍의 전술 信號들이 6월 30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勿論 우리 함정과 통신 요원들의 대다수는 제2차 大戰때 美海軍 통신 절차에 대한 經驗이 있었다. 그러나 同年 3월에 실시한 美·英 연합훈련이 매우 귀중한 체험임이 立證되

었다. 이 연합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이미 美海軍冊子를 保有하고 있었으며, 우리들 大部分이 그 사용법을 알고 있던 까닭에 合同作戰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難點이 없었다.』

기동부대가 北進하는 동안 Struble 중장은 극동海軍 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접수하였다.

『극동군 사령관은 急激히 惡化되는 韓國에서의 戰況을 감안하여 貴下에게 目標 海域에 進入할 때에 北爆을 敢行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공격의 우선 순위는 金川—沙里院—新安州를 連하는 幹線상의 交通시설을 차단하는데 있다.』

7월 2일에 東海를 哨戒中이던 美순양함 Juneau호는 06.15에 注文津 近海에서 北쪽으로 航進하는 北傀 어뢰정 4척과 무장선 2척을 發見하는 즉시로 追跡하여 1,000m까지 近接한 다음 砲撃을 加한 結果 어뢰정 3척과 모든 무장선을 격침하였으며, 이 무렵 同艦과 合勢한 他함정이 재빨리 격침 海域으로 急進하여 溺死직전에 있는 2명의 北傀 水兵을 사로 잡게 되었다.

이 海戰은 UN함정이 韓國戰爭中 처음 있는 敵艦과의 交戰이었으며, 또한 마지막 交戰이기도 하였는데, 이 戰鬪가 있던 다음 Juneau호는 계속 東海에 머물러 있으면서 江陵부근에 있는 敵의 軍事目標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나 同艦과 잠시 合勢하였던 1척의 驅逐艦은 再給油次 Sasebo에 돌아갔다.

이와 같이 韓國戰爭初부터 시작된 美함정과 英함정들의 활동은 이 戰爭이 休戰으로 끝날 때까지 一方的인 優勢를 堅持하면서 敵의 海上挑釁을 完封하고 地上軍을 掩護하였다.

### (3) 海州 및 平壤비행장 공격

7월 3일 이른 새벽에 英航母 Triumph호는 Fireflies기 12대와 Rocket탄을 裝備한 Seafire기를 發進케 하여 05.45부터 海州비행장을 急襲하였다. 出擊한 이들 함재기들은 目標上空에 進入하자 格納庫와 그 附屬 施設들을 파괴하는 한편 인근의 橋梁까지 爆撃한 다음 08.15에 母艦으로 귀환하였다.

美航母 Valley Forge호는 이날 06.00에 平壤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하여 8개의 Rocket탄으로 무장한 F4U Corsair기 16대를 D.K. English 소령 지휘로, 그리고 2개의 500 Lbs 폭탄과 6개의 100 Lbs 폭탄을 장비한 12대의 AD Skyraider기를 편대장 N.D. Hodson 소령 지휘로 出擊케 하였다. 뒤이어 同艦은 美海軍史上 처음으로 Jet 추진기인 8대의 F9 F2 Phanther기를 편대장 H.P. Lanham 중령 지휘아래 目標을 向하여 一齊히 發進케 하였는데, 이들 Jet기들은 速력이 빨랐던 편제로 앞서 出擊한 Propeller 추진기 보다 목표 上空 도착이 빨랐다.

이날 出擊時의 기상은 비행하기에 不適하였으나 이들 Jet 항공기가 目標上空에 進入하

였을 때에는 良好하였으므로 곧 地上에 있는 3대의 敵 YAK機를 發見하게 되어, Lanham 중령의 공격 信號로 Plog 중위와 Brown, Jr 소위가 이를 공격하였다.

이어서 다음 편대가 또다른 2대의 敵機를 發見하였는데, 그중 1대는 Donald 중위가 나머지는 美空軍의 E. F. Connor 소령의 塔乘機가 공격하였다.

이와같이 Jet기編隊가 비행장의 格納庫와 탄약고등을 공격하고 있는 동안 Velley Forge 호에서 먼저 出擊한 Propeller 推進함재기들이 平壤上空에 到達하였는데, 이 가운데 12대의 AD기가 高速으로 目標에 接近하고, 뒤이어 F4U Corsair기가 180m 上空에서 目標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爆彈과 Rocket彈의 命中率은 우수하여 平壤비행장 施設中에는 이들 항공기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程度였는데, 특히 油類 저장소 1개와 格納庫 3개가 直擊彈으로 完破되었으며 滑走路는 구멍투성이가 되었다.

해군은 平壤 空襲에서 敵의 對空 사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損失 없이 큰 成果를 거두고 歸還하였으며, 제77기동부대는 이날 오후에도 平壤을 공격하여 주로 驛 施設과 大同江의 橋梁들을 강타하였다.

이 공격의 결과로 敵은 驛舍, 창고, 修理所, 鐵路등이 큰 損害를 입었으며 또한 10대의 機關車가 大破되고 10대의 貨車가 半破되었다. 그러나 鐵橋만은 수개 폭탄의 命中에도 不拘하고 이를 爆破하려던 所期의 目的을 이룰 수가 없었으나 다음날인 4일에 出擊한 VA-



〈平壤 爆擊 : 1950. 7. 3〉

55의 조종사들은 前記 橋梁의 橋脚 하나를 破壞하고 기관차 10대를 또 大破하였다.

이 作戰을 수행하는 동안 도합 4대의 Skyraider기는 敵의 對空砲에 被擊되었지만 母艦까지 無事히 귀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대가 함상에 착륙할 때 減速장치에 고장을 일으켜 艦首부근에 있던 다른 항공기와 衝突하여 AD기 1대와 F4U기 2대가 完破되고 F4U기 1대 및 F9F-2대가 損傷되었다. 그러나 平壤을 強襲하는 2일간의 作戰은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었고 美·英함대의 合同作戰은 매우 훌륭하여 이날까지 推計된 戰果는 敵항공기만 11대를 完破하고 1대에 손해를 입혔다.

美海軍의 E. C. Ewen 제독은 平壤空襲을 가르켜 『開戰初 美國이 F9F-2 Jet機를 參戰케 함으로써 北傀에게 다수의 propeller 추진 항공기를 供給하려고 한 U. S. S. R와 中共의 制動에 制動을 건 效果를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였으니, 7月中旬에 Valley Forge 航空母가 北傀航空機 38대를 격추하고 27대를 大破한 戰果를 헤아려 보더라도 Ewen 제독의 평가가 결코 誇張된 것이 아닐 것이다.

## 나. 美·Australia 空軍의 出動

### (1) 駐韓美國人 撤收지원

25일에 美極東軍 亞하空軍사령부는 北傀가 南侵한 이날 09.45에 서울에 있는 그들 특수수색대의 보고를 받고 비로소 戰爭이 勃發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나, 重要 참모들에게는 11.30에야 각기 通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空軍사령관직을 代理하고 있던 제5공군사령관 Partridge 소장은 11.15에 그의 本部가 있는 Nagoya에서 前述한 보고를 받게 됨으로써 즉시로 既存 계획에 따른 駐韓 美國人의 撤收가 곧 실시될 것으로 判斷하고 제5공군 亞하 소지휘관에게 『空輸作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命命하였다.

한편 이 무렵에 MacArthur 元帥는 Muccio 大使로부터 韓國軍에게 긴급히 필요한 탄약을 供給하여 줄 것을 要請 받았으며, 이어서 이날 12.00가 지나서는 不利한 戰況으로 말미암아 곧 駐韓 美國人을 撤收하겠다는 내용의 通報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同元帥는 Washington 當局의 指示는 없었지만 當然히 그가 수행하여야 할 일로 판단하고, 즉각 韓國軍에게 필요한 탄약과 군수품을 急送케 하는 한편 美國人 撤收에 따른 海上 및 空中 엄호를 실시키로 決心하여 이를 亞하 사령관들에게 命命하였는데, 앞서 제5공군 廳下에 出動준비를 命命한 Partridge 소장은 드디어 Itazuke 기지에 배비된 제8 전폭비행단장 Price 대령에게 韓國軍에게 直送할 항공수송 임무와 美國人 철수에 따른 지

원작전권을 부여하는 同時에 제374공수 비행단(Tachikawa기지)에서 抽出되는 수송기의 作戰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제8전폭비행단장은 이날 저녁까지 F-80, F-82 전투기와 赴援한 B-26輕폭격기 10대, C-54 수송기 12대, C-47 수송기 3대의 出動준비를 完了하고 이날 21.05에 제5공군 A-3에 이를 보고하였다.

26일 00.45에 Price 대령은 MacArthur 元帥의 지시에 따라 극동공군 참모부장 Carbb 준장으로부터 제5공군 사령관 Partridge 소장에게 仁川港에서 美國人을 塔載한 商船이 韓國水域을 脫出할 때까지 이 전투기로 엄호하라는 命令이 傳達되어 이를 수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제8전폭비행단은 예하 제68全天候전투대대가 保有하는 F-82 전투기 12대만이 즉시 전투참가가 가능하였을 뿐인데, 이 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速度가 빠르고 航續거리가 짧은 Jet기보다는 在來式 전투기가 요청되었다.

그러므로 Price 大領으로부터 제8전폭비행단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이와같이 보고받은 제5공군은 F-51전투기로 무장한 Australia 空軍의 제77비행대대(Iwakuni 기지)의 可用 여부를 極東空軍에 문의하게 되었으나 對答에 應한 Carbb 준장은 Australia 政府가 아직 韓國戰爭에 대하여 아무런 立場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不可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5공군은 窮餘之策으로 제339全天候전투대대를 Yokota기지에서 Itazuke기지로 急遽 移動하도록 命令하고, 이것 역시 充足치 못하다고 판단한 Carbb 준장은 제20공군의 제4全天候전투비행대대(Naha 기지)소속 F-82전투기 2대를 Okinawa에서 Itazuke기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Itazuke기지의 제8전폭비행단장 Price 대령은 이러한 전투기의 集結로 말미암아 기지가 협소하여 Tachikawa기지에서 轉進한 제374공수비행단 소속 C-54 수송기들을 Itazuke기지에서 Ashiya기지로 이동 待機케 하였다.

같은날 아침 Partridge 소장은 美極東空軍사령관이 不在하는 동안 委任된 職權에 따라 극동 공군사령부 참모회의를 同사령부에서 소집하고 駐韓美國人 철수作戰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이때에 駐韓美고문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樂觀의인 戰況보고가 入手되었다.

『서울 北쪽에서 敵의 戰車와 歩兵에 對抗하는 韓國軍은 점차 安定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春川을 奪還 하고 東海岸에 上陸한 遊擊隊도 擊退하였다.』

이 보고는 사실이 아님이 곧 확인되었으나 同 회의는 이를 속단한 나머지 철수 작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Itazuke기지로 推進한바 있는 C-54 수송기를 다시 Tachikawa기지로 復歸시켜 正常임무를 수행토록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로 공군은 駐韓美國人들의 철수작전을 中止케 되었지만 아침부터 仁川에서는 이곳에 碇泊하고 있던 商船으로 철수작전을 이미 進行하고 있어서 이를 엄호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따라서 Itazuke기지에 配備된 제8전폭비행단(장, John M. Price 대령)소속 제68全天候 전투대대의 F-82전투기 편대는 서울—金浦—仁川 上空으로 出擊하였는데, 이들 전투기는 13.55에 金浦비행장을 공격하려 來襲한 YAK기 5대를 邀擊하여 이중 3대를 擊墜함으로써 美공군 史上 처음으로 Jet기의 戰果로 기록되었다.

이 空中戰은 機數에 있어서 彼我 5:5의 싸움이었으나, 敵機는 Jet기의 性能을 따를 수 없어 마침내 W. Little 소령과 William G. Hudson 중위, 그리고 Charles B. Moran 중위가 조종하는 3대의 F-82기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음인지 3대가 火焰을 일으켜 곧 地上에 추락하고, 나머지 2대의 YAK기는 半破된채 我機의 反擊이 없음을 기화로 간신히 北쪽으로 退却하였다.

또 얼마 뒤에는 敵 IL-10기 4대가 2차에 걸쳐 金浦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C-54 수송기를 공격하였으므로 Raymond E. Schillerett 대위와 Robert H. Dewald 중위의 F-80 Jet 전투기는 이들과의 空中戰 끝에 각기 1대씩을 격추하였으며, Robert E. Wayne 중위의 F-80 전투기는 2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空軍기의 엄호아래 16.30에 Norway 선적의 商船은 仁川에서 682명의 美國人을 싣고 出航하였으며 이로부터 제5공군은 F-82 전투기 2대를 편대로하여 계속 出擊시켜 천야 엄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엄호는 다음날 아침 긴급 出動한 극동해군의 호위 구축함이 해상 엄호를 실시케 됨으로써 제5공군은 이때부터 보다 統續거리가 긴 B-26 경폭격기로 代替하였다.

이 철수계획은 당초 Muccio 大使에 의해 韓國에 있는 美國人을 船便으로 가능한 限 前後 3회에 걸쳐 실시코자 하였는데, 戰況이 이를 허락치 않았으므로 空輸계획으로 변경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必要한 지원이 MacArthur 元帥에게 긴급히 要請된 것이다.

## (2) 작전의 擴大와 再配備

MacArthur 元帥는 Muccio 大使로 부터 駐韓 美國人의 空輸요청을 접수하자 27일에 곧 極東空軍사령관 대리 Partridge 소장에게 이에 따른 空輸임무를 수행 하도록 命命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로서 極東空軍은 제5공군에게 우선 駐韓美國人의 安全을 위협하는 모든 敵의 목표를 공격하라고 긴급히 지시하고, 이어서 이날 03.40에는 前記 空輸작전에 따른 제 반 지원 임무를 부여하는 同時에 南韓 全지역에서 制空權을 장악하라는 要旨의 命命을 下達 하였다.

이리하여 該 임무를 수행 하게된 제5공군은 제8전폭비행단장 Price 대령에게 『駐韓美國人의 空輸작전을 지휘 하라. 어떠한 敵의 妨害활동도 이를 粉碎하라.』는 要旨의 전투 命命이 주어지게 되었다.

당시 제8전폭비행단이 駐屯한 Itazuke기지는 이에 對備하여 Tachikawa기지로 부터 急

邊 이곳에 이동하여 待機中이던 제374 공수비행단 소속 C-54 수송기가 이미 전날 회의 결과에 따라 原隊로 복귀한 然後 였으며, 예하 전폭기의 조종사들은 지난 35시간 동안에 모두 15시간을 出擊 하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어서 充分한 예비가 要求되었고 또한 수송기의 기지 轉換이 시급하였다.

이와같은 사정을 勘案한 제5공군은 그 즉시 Komaki(小牧)에서 訓練에 참가하고 있는 제49전폭비행단(Mizawa기지)소속 제9전폭대대의 Itazuke기지 轉換을 命命하였으며, 아울러 제374공수비행단에서 2대의 C-54 수송기와 極東空軍 예하 군수사령부(FEAMC)에서 같은 種의 수송기 11대를 抽出케 하여 신속히 Itazuke 기지로 비행하여 Price 대령의 지휘를 받아 공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同 임무를 完遂하기 위한 態勢가 갖추어지게 되자 06.40에 첫번째 수송기가 F-82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韓國으로 비행하고 뒤이어 나머지 수송기도 전투기의 엄호 아래 離陸 하였다.

그런데 이날 이들이 수행한 공수작전은 金浦에서 250명, 水原에서 313명, 釜山에서 375명에 이르러 都合 938명을 日本으로 철수케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美合參本部는 이날 正午 무렵에 MacArthur 元帥에게 訓令하여 이때까지 제한하였던 海·空軍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38°선 以南 全지역에서 敵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 일이 있던 다음 얼마 뒤에 同 元帥는 Partridge 소장에게 韓國戰爭의 逆轉어부는 韓國 국민과 그 군대의 사기를 어느정도 恢復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라고 指摘하고 空軍의 신속한 對應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자리에서 Partridge 소장은 Guam島 Andelson 기지에 配備한 제20공군의 제19폭격전대(B-29)를 Okinawa의 Kadena기지로 移動配置하여 即應토록 할것을 건의하였다.

同 元帥는 이를 승인하여 그에게 곧 그와같이 措置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他부대의 移動配置에 대하여서는 U. S. S. R의 직접적인 挑發에 對處하여 계속 日本을 防衛하여야 한다고 警告하였다.

Partridge 소장과의 面談이 끝났을 때의 元帥는 美合參本部로부터 駐韓 美軍事고문단을 비롯한 모든 美軍作戰을 管掌하라는 命命을 받았으므로 18.00에 韓國에서 이들을 지휘하기 위하여 그의 前方사령부를 設置키로 決心하였다.

이날 韓國에 出擊한 제5공군은 B-26 輕폭격기 2개대대와 F-80 전투기 4개 대대및 F-82 전투기 2개대대에 달하였는데, 이 가운데 B-26輕폭격기는 徹夜出擊을 命命받고 있었다.

B-26輕폭격기에 주어진 이와같은 任務는 駐韓 外國人 수송선을 掩護 하는것과 徹夜 南下할 것으로 判단되는 敵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것이 였는데, 수송선의 엄호는 10대의 B-26이 이를 담당하였으며 夜間에 戰車를 發見 격파하기 위하여 出擊한 다른 B-26은 日氣不順으로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이날 黃昏무렵에 기지를 出擊한 B-26 경폭격기는 夜暗과 氣象이 좋지 않아 敵戰單  
를 索出하여 打撃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기지로 歸還하였으며, Ashiya 기지  
에서 待機中인 또다른 B-26 경폭격기는 惡化된 기상조건 때문에 出擊할 수 없어서 Itazuke  
기지에 있는 5대의 B-26경폭격기만이 20.40에 出擊하여 目標上空에 이르렀으나 이것 역시  
惡天候로 目標을 찾지 못하여 되돌아 가게 되었다.

한편 元帥는 이날 저녁 극동공군 사령관에게 7월 1일까지 每日 150ton의 탄약과 군수품을  
韓國에 空輸하라는 새로운 命을 下達하였는데, 이는 Muccio 大使가 韓國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요청한 탄약과 군수품을 韓國에 直送하기 위하여 이룬 적체한 수송선이 釜  
山에 도착하려면 長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그간의 긴급한 需要를 充足하기 위한 措置였다.

그러므로 제5공군은 즉시 이 임무를 제374공수비행단(Tachikawa 기지)에 부여하고 수  
송기 엄호를 위하여 必要한 전투기를 이에 配當하였다.

28일 아침 역시 氣象상태는 기지 上空이나 목표지역이 모두 不良하여 항공기 出擊에 支  
障을 주었던 까닭에 早期에는 단지 Brye Poe 중위가 조종하는 RF-80A 정찰기만이 視度  
66m의 惡條件을 무릅쓰고 Itazuke 기지를 離陸하여 정찰임무를 完遂한 다음 기지로 돌아  
갔다. 이 出擊은 美空軍이 韓國戰爭 最初로 偵察비행을 實施했다는 點과, 同時에 史上 最  
初의 Jet기에 의한 정찰飛行이었다는 事實이며, 또한 이 정찰결과 보고에 따라 점차 氣象  
狀態가 恢復되고 있어서 항공기가 기지를 離陸할 수만 있다면 任務를 수행하고 낮은 구름  
밑으로 飛行하여 安全하게 着陸할 수 있기 때문에 出擊이 可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7.30에 Ashiya 기지를 出發한 12대의 B-26 경폭격기는 汶川을 폭격하고 수차에 걸  
쳐 北쪽으로 뻗은 鐵路와 道路를 공격하였으며, 또 Price 대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F-80  
전투기 6개 編隊를 出擊시켜 서울 北쪽에서 北傀戰車와 車輛, 그리고 砲兵들을 공격하여  
여러 곳에서 치솟는 火焰을 볼 수 있었다. 또한 F-82 전투기들도 이날 11회 出擊으로 주  
로 水原에서 離着陸하는 탄약 및 군수품 수송기들을 高空 엄호하여 이날 제374공수비행단  
소속 C-54 수송기들은 200ton의 군수품을 水原으로 공수하였다.

그러나 이날 13.30에 水原비행장은 北傀 YAK전투기 4대의 공격을 받아 그들 機銃掃射  
에 着陸 待機中이던 제68全天候전투기대대 소속 F-82 전투기와 B-26경폭기 각기 1대가 破  
損되고 18.30에는 6대의 YAK기 공격을 받아 제374공수비행단 제22공수대대의 C-54 수송  
기 1대가 大破되었다.

이날 Guam 기지에서 Okinawa의 Kadena 기지로 推遷된 美제19폭격전대는 오후 늦게  
4대의 B-29 中폭격기를 出擊시켜 서울—開城間과 서울—議政府間의 鐵路와 道路를 폭격하  
였다.

이 폭격은 戰略폭격기가 戰術폭격을 敢行하는 것으로 目標物 제거에는 無가치한 것이었  
으나, MacArthur 元帥가 요구하는 最大限의 空軍力의 誇示를 위하여 正常은 아니었지만

不得已한 조치였다.

이날 제5공군이 12가지 임무에 出擊시킨 항공기는 B-29중폭격기 4대와 B-26경폭격기 21대, 그리고 F-82전투기 11대와 F-80전투기 24대에 達하였으며, 이들 활동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은 水原에 設置된 美極東軍사령부 前方指揮所(ADCOM)에서 근무하는 공군의 John McGinn 중령의 활약에 크게 힘입었던 것이다. 즉, 그는 이날 아침 Ashiya 기지에서 제5공군 부사령관 Edward J. Timberlake 소장 지시로 急送된 高性能 무전기를 裝備한 2대의 Jeep車가 도착하자 1대는 航路統制用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出擊한 항공기들에게 目標 유도用으로 사용하였다. McGinn 중령은 직접 이 유도용 통신기로 前方지휘소의 상황도에서 目標을 선정하는 즉시 이들 出擊한 항공기에 지시하였다.

### (3) MacArthur 元帥의 北爆命令

29일 03.00에 McGinn 중령은 Church 준장으로부터 漢江 鐵橋와 漢江北岸에 集結한 北爆軍을 黎明前에 공격하기 위하여 B-29중폭격기의 出擊을 要請받는 즉시로 이를 美極東공군사령부에 通報하였다. 그러나 이와 同時刻에 B-29중폭격기는 이미 金浦空港의 施設 파괴 命을 받고 Kadena 기지를 離陸하고 있었다.

萬若 이들 폭격기가 Church 준장의 要請을 즉시 Tokyo에서 접수하고 出擊하였다면 漢江 鐵橋에는 大型폭탄이 投下되었을 것인데, 이때에 漢江 鐵橋中 2개의 단선 철교는 이미 韓國軍工兵隊에 의하여 차단되었으나 1개의 複線 鐵橋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까닭에 北爆은 이를 이용하여 戰車를 渡江시키고 있었으므로 이의 차단이 時急하였다. 그러나 McGinn 중령의 通報는 이날 12.55까지 美극동공군사령부에 전달되지 않았으니 당시에 水原-Tokyo間에 秘密이 보장된 通信網이 없어서 美大使官-美國務省에서 使用하는 暗號通信網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어 모든 作戰通信은 一旦 Washington 當局에서 暗號를 解讀한 다음 Tokyo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에 相當한 시간이 所要되었던 것이다.

金浦로 向한 9대의 B-29중폭격기는 08.00에 500Lbs폭탄을 金浦비행장에 투하하였다. 이무렵 3대의 敵機가 B-29를 공격하였으므로 B-29사수들은 이들과 交戦하여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는데, 이때 다른 2대의 B-29중폭격기가 서울역을 폭격하였다.

이날 12.55에 漢江 鐵橋 폭파요청을 받은 제5공군은 B-26경폭기를 즉시 出擊시킴으로써 기지를 離陸한 이들은 얼마후에 지정된 目標 上空에 進入하여 앞서의 複線 철교를 폭격하였다.

한편 McGinn 중령의 要請으로 제8전폭비행단은 地上軍을 效果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이날 새벽에 장교 1명을 水原에 派遣하였다. 이 장교는 到着과 더불어 管制士와 같이 McGinn 중령의 지시대로 ADCOM에서 狀況圖를 복사하여 Itazuke 기지로 돌아가 終日 彼我의 位置를 判別하는데 沒頭하였다.

이날 美極東공군은 韓國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두 B-29중폭격기 12대와 B-26경폭격기 22대 및 F-80 전투기 70대, 그리고 F-82 전투기 15대가 出擊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數次에 걸쳐 시도된 敵 YAK 전투기의 侵襲으로 C-54 수송기 1대가 격추되고 또 다른 C-54 수송기 1대가 大破되었으며, 그밖에 F-82전투기 1대와 B-26 경폭격기 1대가 敵機의 機銃掃射로 파괴되었다.

이날에 있었던 美공군의 損失은 敵機가 低空으로 水原비행장을 侵襲함에 따라 發生한 것으로서 격추된 C-54 수송기 1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地上에서 공격을 받았던 것인데, 이날 韓國戰 時찰차 發程한 MacArthur 元帥가 이를 직접 目擊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은 敵機의 공격을 가르켜 美合參本部에 보고하기를 『我 空軍의 優勢에도 不拘하고 敵機가 侵襲하게 된 것은 그들의 기지가 近거리에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이 空襲은 야만적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에 本國에서 歸任하여 MacArthur 元帥와 同行할 수 있었던 美極東空軍사령관 Statemeyer 중장은 그에게 進言하기를 『더 이상 空中엄호作戰을 계속하는 것은 空軍力의 浪費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努力은 오직 戰鬥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制空權의 確保를 위해서는 北韓內 비행장을 공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同意한 同元帥는 즉시 그에게 前述한 바와 같이 口頭로 北爆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제5공군은 韓國에서의 作戰이 本格化됨에 따라 이날을 期해 近거리인 Itazuke에 前方사령부를 開設하는 한편 제8전술정찰대대의 RF-80 정찰기로 하여금 北傀 비행장에 대한 사진정찰을 실시하도록 北韓지역으로 처음 出擊케 하였다.

또 제5공군은 Statemeyer 중장의 命令이 下達되자 16. 15에 제3폭격전대의 B-26 경폭기 18대를 平壤으로 出擊시켜 事前에 파악된 목표는 아니었으나 美空軍 參戰史上 처음으로 平壤비행장을 공격하고 格納庫와 滑走路등을 폭격하여 地上에 있는 25대의 항공기를 大破하는 한편 空中에 待避中인 YAK기 1대를 격추하였다.

30일 08. 56에 美合參本部의 38°선 以北에 대한 海空作戰의 새로운 命令이 下達되었다. 이에 관하여 美空軍參戰史는 Washington 當局이 이날 北爆을 命令한 사실에 論及함이 없이 다만 전날의 北爆이 Truman 大統領의 北爆승인으로 美合參本部가 極東공군에게 『38°선 以南지역의 敵을 모조리 격멸한 다음 北韓지역의 비행장, 油類 저장소 등 모든 目標에 대하여 空中作戰을 전개하여도 좋다. 그러나 滿洲와 U. S. S. R와의 國境을 侵犯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U. S. S. R이 공격하더라도 別途 지시가 있을 때까지 應戰하지 말라는 制限이 加해졌다.』라고 하고 『이를 계기로 空軍은 보다 적극적인 對地上 공격과 空中 방어 作戰으로 轉換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날 제19폭격전대(Kadena기지)는 전날 B-26이 斷行한 北爆에 이어 元山비행장과 港灣시설을 強打하기 위하여 早朝폭격을 준비하였으나 韓國에 있는 Church 준장의 긴급 要

請을 받고 突然 作命이 變更되어 北傀의 漢江 渡河지점으로 예상되는 漢江 鐵橋와 漢江北岸 據點을 폭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 B-29중폭격기들은 鐵橋 폭파에 適合하지 않은 破碎폭탄을 장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폭탄의 再裝填을 실시하려면 6시간이 所要되어 긴급 出動에 支障이 되었다. 그러므로 破碎 폭탄을 그대로 裝填한채로 出擊하여 공격할 수 있는 목표, 즉 漢江北岸의 敵集結地만을 선정하여 出擊케 되었고, 그 目標들을 打撃함으로써 敵에게 많은 損失을 주었으나 漢江鐵橋의 爆破任務는 除外되었던 것이다.

한편 B-29에 대신하여 제3폭격비행단의 B-26경폭기 18대가 이어서 出擊하고 漢江鐵橋 목표 上空에 進入하여 끊어지지 않은 中間 鐵橋와 부근 交通시설을 폭격하였는데 이때 제13폭격대대의 어느 B-26경폭기 조종사는 切斷되지 않은 鐵橋를 利用하여 많은 戰車와 車輛들이 近接하고 渡江中임을 發見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폭격으로 鐵橋가 드디어 절단되었음은 勿論, 이곳을 통과중이던 많은 裝備가 파괴되고 多數의 敵兵이 殺傷되었을 것으로 推斷하였으니 그들 作戰에 相當한 損失을 준 것이 이로 미루어 白明하다 할 것이다.

한편 美極東空軍의 當面한 任務에 따라 戰鬪力을 評價한 Stratemyer 중장은 극동공군이 配備한 항공기가 不足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韓國作戰에 適合하지 않으므로, 이날 그는 Washington 當局에 F-80전투기 164대, F-82전투기 21대, B-26경폭기 22대, B-29중폭격기 23대, C-47수송기 15대, C-54수송기 21대, F-51전투기 150대 등 都合 330대를 增援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다.

이에 대하여 美空軍當局이 어느날 回信하였는지는 確實하지 않지만 극동공군이 作戰에 수반하여 항공기의 大幅 增援을 認定하고 F-80전투기 대신 F-51전투기 150대를 急送 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이 항공기는 美洲防衛軍이 使用하는 것과 貯藏中에 있던 것으로 그 狀態는 良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日本에 도착할 때까지 相當한 時日이 所要되어 7월 27일에야 航空母艦 Boxer號에 의하여 수송되었으니 洛東江戰線이 形成되었을 때부터 이들 항공기는 實戰에 參加하게 되었다.

7월 1일에 美제5공군은 전날 Truman 大統領의 決定에 따라 急遽 韓國으로 急派되는 Smith 特殊임무부대를 空輸하기 위하여 제374공수비행단의 6대의 C-54가 動員되었다. 이들 수송기가 08.45~14.00에 Itazuke—釜山 水營간 공수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전투기들은 전날에 이어 制空 및 後方차단 作戰과 아울러 南侵하는 北傀軍을 強打하고 韓國軍의 支援作戰을 지원하였다.

이날 特記할 사실은 전날 Australia 首相이 UN安保理의 決議에 따라 Iwakuni 기지에서 聯合國의 一員으로 日本 防衛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77비행대대를 韓國作戰에 참가

시키겠다고 發表하여, 이날부터 同대대의 F-51전투기가 제5공군에서 最初의 임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美極東空軍은 Washington 當局의 政策으로 말미암아 韓國戰 參戰에 있어 많은 問題點을 惹起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時急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出擊할 비행장을 확보하고 기지를 擴張하는 일이었다.

韓國戰爭 勃發口로부터 첫 一週동안에 美극동사령부는 U. S. S. R이 北傀를 強力히 支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此際에 全面戰을 시도하고 나아가 日本을 공격하되나 않을까 하는 疑懼心에서 日本防衛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Streatemeyer 중장은 예하의 공군부대를 韓國에 出擊시킴에 있어서도 F-80 전투기 1개 대대와 F-82 전투기 1개 편대를 Mizawa 기지 및 Johnson 기지와 그리고 Itazuke기지에 尙시 殘留하도록 命命하였다.

이와 함께 F-80 전투기를 Tokyo 부근에도 配置하고 예상되는 中共의 挑發에는 제18전 폭전대 F-80 전투기 1개 대대를 Philippines과 臺灣 방위에 임하게 하고 B-29의 기지가 된 Okinawa 방위를 위하여 제51邀擊전대가 그대로 Naha 기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제5공군 사령관 Partridge 소장은 7월末까지 계속 8개 대대만으로 韓國에서 作戰하였으며, 6개 대대는 日本방위에, 기타 5개 대대는 美극동군 예하 諸地域의 空中방위를 위하여 각각 固定 주둔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期間동안 공격부대와 방어부대를 交代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공군부대는 韓國에 가까운 기지로 이동하여 보다 近거리에서 出擊하기 위한 노력을 傾注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7월초까지 실시된 부대의 再展開는 다음과 같다

제3폭격전대—Johnson기지에서 Iwakunigi지로

제49전폭전대—Mizawagi지에서 Itazuke기지로

제8전술정찰대대—Yokotagi지에서 Itazuke기지로

제35요격전대(제39, 제40요격대대)—Yokotagi지에서 Ashiyagi지로

// 제41요격대대—Yokotagi지에서 Johnson기지로

제339전천후전투비행대대—Yokotagi지에서 Johnson 및 Mizawagi지로

제20공군 예하 제4전천후전투비행대대—Nahagi지에서 Itazuke기지로

// 제19폭격전대대(B-29 20대)—Guam島에서 Okinawa의 Kadengi지로

다. 美지상군의 出動과 Smith부대의 先遣

6월 30일 23.30이 지나서 MacArthur 元帥는 Washington 당국이 그가 전의한 지상군

2개 사단규모의 韓國 派兵을 승인하게 되자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에게 速迅하게 제24사단을 韓國에 急派할 것을 命命하고 당분간 同사단을 직접 통제할 것임을 알렸다.

아울러 그는 참모장 Almond 소장의 建議를 받아들여 제24사단장 Willam F. Dean 소장에게 主力에 앞서 소규모의 特殊임무부대를 空輸로 派遣하여 主力이 戰線에 投入될 때까지 敵의 南進을 되도록 지연시키라고 하였으며, 또 그부대 규모를 2개 소총중대로 제한하고 若干의 對戰車 방어組와 1개 輕砲兵隊를 포함할 것을 지시하였다. (研究 #5 참조)

이와 함께 ADCOM 단장 Church 준장에게는 이와 같이 編成된 부대가 다음날인 7월 1일 중에 水原에 到着할 것임을 알리고 到着 즉시 이 부대를 指揮하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水原이 危殆로우면 이들의 着陸地를 釜山으로 變更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그에게 委任하였다.

당시에 Church 준장은 그동안 水原에서 後退하는 韓國軍의 戰意를 鼓舞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作戰을 諮問하고 美軍事 고문단원들을 순찰하면서 戰況을 把握하고 있었으나 이날밤 水原이 敵에게 威脅받게 되자 7월 1일까지 水原비행장을 確保하겠다고 Almond 소장에게 앞서 보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22.00以後 그에게 再次 전화를 걸어 몇시간 동안에 달라진 戰況과 함께 다시 ADCOM을 大田으로 撤收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通話에서 兩人是 水原비행장을 拋棄하기로 合意하고 다음날 특수任務部隊의 空輸는 釜山으로 變更되어 실시케 되었으며, ADCOM 역시 다음날 아침 暴雨를 무릅쓰고 大田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MacArthur 元帥의 直接지휘를 받아 韓國戰線에 急派케 된 제24사단은 1921년 Hawaii Schofield에서 Hawaii 사단으로 編成된 以來 1941년 10월 1일에 제24사단으로 命名되었으며, 3년 뒤에는 New Guinea—Leyte島—Luson島 進擊戰에 참가하여 終戰과 함께 日本에 進駐한 전통과 武功을 자랑하는 사단이었는데 當時의 配備는 다음과 같았다.

사단사령부—Kyushu의 Kokura(小倉)

제19연대(장, Guy S. Meloy 대령)—Beppu(別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vens 대령)—Kumamoto(熊本)

제34연대(장, Tay B. Lovless 대령)—Sasebo

砲兵대—Fukuoka(福岡)의 Kasuga(春日)

戰車 및 工兵대—Honshu의 Yamaguchi(山口)

이상과 같이 同사단은 Kyushu北부와 Honshu 西부에 各各 疎散되어 있어 平時 編制를 維持하고 있었고, 그나마 美軍縮 政策으로 말미암아 兵力과 裝備는 계속 減少되어, 각 연대는 2개 대대만을 保有하고 있었다.

이날 Dean 소장은 Walker 중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命命을 수령하였다.

『① 사단은 즉시 韓國으로 移動하여 北傀의 南侵을 阻止하라.

② 사단은 보병 2개 중대에 4.2"박격포 2개 소대와 75mm 無反動銃 1개 소대 그리고 2.36"Rocket포 6門으로 增強하여 空輸로써 先遣하고 Church 준장의 지휘를 받아 서울—水原間에서 敵의 南進을 지연하라.

③ 사단사령부 역시 이에 後續하여 釜山으로 空輸 이동하라.

④ 사단 主力은 海上으로 이동하여 공격作戰을 위한 據點을 形成하라.

⑤ 사단장은 韓國에 到着 즉시 全美地上부대를 지휘하라.」

이 命令의 下達시간은 이로 미루어 先遣부대의 착륙지가 이때에 이미 釜山 水營비행장으로 決定된 以後의 일이라 이날 22.00~24.00경일 것으로 推斷되는 바이지만 Dean 소장은 先遣에 따른 특수임무부대를 精銳部隊인 제21연대 내에서 선정키로 決心하고 이를 연대장 Stevens 대령에게 下命하였다.

따라서 연대장 Stevens 대령은 前記 시간中에 Camp Wood에 있는 宿所에서 전날밤 非常대기 준비에 지쳐 일찍 就寢中에 있는 제1대대장 Smith 중령을 전화로 呼出하여 곧 연대본부로 出頭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르써 얼마뒤에 연대지휘본부에 도착한 Smith 중령은 연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出動命令을 수령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Smith특수임무부대의 先遣에 따른 始發이 된 것이다.

『① 대대는 7월 1일中으로 韓國에 空輸될 것이다.

② 대대장은 A.D 중대를 제외한 소대대를 지휘하여 7월 1일 03.00에 Itazuke 空軍기지로 이동하여 사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③ 대대B.C 중대의 缺員은 제3대대에서 곧 充員될 것이다.』

Smith 중령은 곧 空軍에서 대대 空輸를 위하여 割當된 C-54 수송기가 6대임을 知悉하자 搭載인원을 선발하였는데, 이에는 대대본부중대의 一部와 通信소대, 그리고 75mm 無反動銃과 4.2"박격포의 混成소대 要員들이 包含되었다.

7월 1일 零時가 조금 지나서 Church 준장은 Tokyo에 있는 Almond 소장으로부터 몇가지 내용을 通話받았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釜山에 공수하기로 된 특수임무부대의 釜山 도착이 기상관계로 다소 遲延될 것이다 12—14시간 내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② 특수임무부대는 전투부대로서 敵을 擊退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결코ADCOM 경계 부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부대가 釜山 도착후 戰線으로 進出하는데 交通 障礙가 없다면 釜山에 列車를 確保하여 철로 수송에 萬全을 期하라.』

한편 전날밤 연대장 Stevens 대령으로부터 命令을 수령한 Smith 중령은 선발된 自隊要員의 출동준비가 완료되자 소員 車輛에 分乘하여 Kumamoto의 Camp Wood를 이날 03.00

에 出發하고 25km를 5시간 走行하여 Itazuke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으니 이 시간이 08.05이었다.

이때 비행장에서 이 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사단장 Dean 소장은 이들을 맞이하고 Smith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命令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귀부대가 釜山에 도착하면 곧 大田으로 前進하여 Church 준장과 連繫하라. 만일 그를 만나지 못하면 단독으로 가능한 北쪽으로 進軍하여 敵을 阻止하라. 貴官에게 참고될 사항은 이것 뿐이며 本官이 말하고 싶은 全部이다. 貴官과 貴부대 兵士들에게 神의 加護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韓國戰爭史上 美陸軍 전투부대를 지휘하여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된 Smith 중령은 1939년 美陸軍士官學校 出身으로 제2차 大戰 때는 南太平洋 戰域에서 美제25사단 예하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當年 34세의 보병장교로서 強靱한 性格의 所有者였기 때문에 특수임무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適格者로 선발된 것이다.

Itazuke 空港에 集結한 Smith 특수임무부대의 總勢는 이때에도 編成에 不足한 B, C 중대의 全員과 本部中隊 및 통신소대의 半, 無反動銃 4문(2문만을 공수) 1개 소대, 4.2"박격포 4문(2문만을 공수)의 1개 소대였으며, B, C 중대의 共用火器로는 2.36"Rocket 砲 6문, 60mm박격포 4문이었고, 각개 병사들은 120발의 M1 소총탄과 2일분의 식량을 휴대한 총 406명이 그 全部였다.

또한 부대의 資質을 보면 제2차 대전때 전투 경험을 가진者は 극히 적어 장교가 1, 하사관이 1로 부대 전체를 통하여 6명 가운데 1명이 전투 참가 경험이 있었고 사병들의 年令은 20세에도 미치지 못한 年少層이 대부분을 占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Smith 특수임무부대는 준비된 6대의 C-54수송기에 搭乘하고 08.45에 그 첫번지가 離陸하였는데, 이들 수송기의 1~2번지가 釜山 上空에 이르렀을 때 水營비행장 일대가 안개로 뒤덮여 着陸이 困難하였다.

따라서 이들 수송기는 Itazuke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수 없었고, 이런 까닭에 11.00에야 첫번째 수송기가 전달에 이미 水營에 도착하여 滑走路 정리 임무를 담당한 Emmerich 중령 및 수명의 軍事고문단원이 出迎하는 가운데 着陸하게 되고 이로부터 6시간 후인 15.00에 全機는 水營비행장에 着陸하게 되었다.

그후에 Smith 대대는 水營에서 100대 가량의 貨物자동차에 分乘하여 釜山驛으로 出發하였고 곧 준비된 列車에 탑승하여 20.00에 이르러 이들의 赴援을 환영하고 또한 壯途를 祝福하는 수많은 人波와 樂隊의 歡送을 받으며 釜山驛을 떠나 大田으로 向하였다.

Smith 대대가 大田에 도착한 것은 2일 08.00였다.

Smith 중령은 지시대로 出迎 나온 ADCOM Leroylutes 중령의 안내를 받아 church 준장을 만나 그에게 부대 도착을 申告하였는데, 이때에 그는 전달 아침 水原에서 撤收하여





〈大田에 도착한 Smith 특수임무 부대 : 1950. 7. 2〉

이곳에 ADCOM을 設置하고 계속 MacArthur 元帥의 代理자격으로 韓國軍의 作戰을 지도하며 諮問하고 있었다.

Church 准장은 Smith 中령으로부터 도착 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에게 이때까지의 入手된 情報을 전달하고 이르기를 水原 南쪽 平澤 郊外까지 列車가 갈 것이다. 우리는 戰車를 보고도 겁내지 않는 兵士가 必要하다. 우리는 韓國軍을 支援하기 위하여 온것이므로 正心적으로 그들을 지원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 아침 MacArthur 元帥는 韓國에 急派된 특수임무부대 團長에 포병이 제외되었음을 알고 Walker 中장에게 105mm 曲射砲를 空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제52야전포병대대의 一營가 LST로 수송되는 도중에 있었고 이날 저녁에는 釜山에 入港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지시를 받은 Walker 中장은 이 부대가 곧 Smith 中대와 合勢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는 取하지 아니하였다.

Smith 中령은 Church 准장에게 신고를 마치자마자 前方에 나가 地形을 偵察하겠다고 그에게 進言하였다.

이리하여 同中령은 몇명의 中將과 같이 Jeep차에 同乘하고 中隊(一)가 숙營지에 휴식하는 동안 國道를 따라 北쪽으로 疾走한 끝에 烏山北쪽에 이르러 방어 진지 編成에 適當한 地形을 發見하게 되었다. 이곳을 가르켜 美陸軍참전사는 不規則한 丘陵지대로서 도로가 南北으로 貫通하고 東側에는 鐵路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後日(7월 5일) Smith 부

대가 처음으로 南進하는 敵과 싸우게 된 細橋里(烏山 北쪽 4km) 東쪽 지대이다.

하여튼 Smith 중령은 이곳을 진지 編成에 良好한 地形으로 판단하고 지형 정찰을 실시한 다음 同行한 장교에게 각대가 접령할 진지를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Smith 중령 일행이 大田에 歸還한 것은 이날 日沒이 지난 무렵이었는데, Church 준장은 그에게 즉시 列車으로써 平澤까지 北進하라 命令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Smith 특수임무부대는 MacArthur 元帥가 意圖하는 바에 따라 韓國에 先遣되고 도착 즉시 Church 준장의 지휘를 받아 戰地로 出動(7월 4일)하게 되지만, 이 무렵에는 전날밤 Sasebo에서 乘船한 제24사단 예하 제34연대가 釜山에 入港하여 上陸하고 있었고, Smith 부대의 本隊인 제21연대도 이에 後續하여 다음날 Sasebo에서 승선할 예정으로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제16연대 역시 7월 5일까지는 이동을 완료할 예정에 있었다.

한편 제24사단장 Dean 소장도 사단주력이 韓國으로 이동되기 시작하자 2일밤 空路로 大田으로 向發하고 着陸을 試圖하다가 조종사가 大田비행장의 滑走路를 찾지 못하여 Ashiya 공군기지로 되 돌아간 바 있었으나, 3일 아침 大田지리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조종사에 의해 10.30에 大田에 安着하고 곧 ADCOM으로 直行하여 Church 준장과 連繫하였다. 이로써 Dean 소장은 다음날(4일) 零時에 MacArthur 元帥로부터 『貴官은 이 時刻부터 駐韓美陸軍이 創設되었으니 그 사령관에 就任하여 모든 美陸軍부대를 麾下에 두어 지휘하라.』는 要旨의 전문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ADCOM은 解體되고 Church 준장은 駐韓美陸軍의 副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同時에 MacArthur 元帥는 駐韓美陸軍사령부 예하로서 釜山 軍수기지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Crump Carvin 준장을 임명하였다.

## § 研 究

### (1) 美極東軍사령부의 南侵보고 接受시간

美陸軍참전사인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에 의하면 駐韓美大使館 武官은 北德의 南侵보고를 당일 09.25에 전보로 東京에 發送하였다고 主張하였다.

그런가 하면 같은 參戰史인 「Policy and Direction」에 따르면 극동군 사령부는 南侵한지 6시간 30분 후에야 사실을 알았다고 되어 있으니 그 시간은 10.30이 된다.

또 이에 대하여 美空軍史 「USAF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에서는 이날 09.45에 서

울 駐在 공군특무수사대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MacArthur 元帥는 이 사실을 그의 回顧錄에서 밝힌는데 당일 새벽 사령부 당직 장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하였으니 이시간은 確實하지 않지만 대체로 04.00~07.00 사이로 여겨진다.

前記 4개 資料에서 보는바 자기 主張이 다르므로 어느것이 正確한 것인지 判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該欄기술에 한하였다.

## (2) 美고문단장職 代理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駐韓 美군사고문단장에 임명된 William L. Robert 准將은 北僑 南校 10일前에 後任없이 停年退職하여 歸國 途上에 있었으므로 當日 그 團長직은 空席이었다. 그러므로 同團長職은 참모장 William H. Sterling Wright 大령이 代理하고 있었으나 그역시 이날 Tokyo 어느 教會에서 「曜日禮拜」에 참가하고 있었다.

왜냐 하면 그도 2~3일내에 退任하게 되어 있어서 먼저 歸國하게된 그의 夫人을 送別하기 위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團長職은 次席 Green Wood 中령이 代行하고 있었던 것이되어 美陸軍 참전사 「Policy and Direction」에서 밝힌 Muccio 大使의 긴급탄약요청을 Wright 大령에게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誤謬일것으로 判斷, 이를 고쳐 Green Wood 中령으로 하였다.

## (3) MacArthur 元帥의 獨斷

6월 25일 Muccio 大使로 부터 韓國軍을 지원하기 위한 탄약을 긴급히 要請받자 MacArthur 元帥는 委任된 權限내에서 當然한 조치로 判斷하고 이를 즉시로 開始하였다.

그러나 이 措置는 美陸軍참전사 및 Collins 大將의 著書 「War in Peacetime」에 따르면 26일 12.00 以前에는 이와같은 指示를 合參本部로 부터 받지 못하였으며 後日 Truman 大統領과의 不和도 이러한 것으로 부터 淸트기 시작 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Glenn D. Paige 著書 「The Korean Decision」에서 밝힌 「美國務省 자료실의 韓國문제 결정에 관한 特別資料」에 의하면 Muccio 大使는 MacArthur 元帥에게 韓國軍이 必要로 하는 탄약을 긴급 요청하는 것과 別로 같이 하여 國防省에도 打電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國軍에게 至急に 10일분의 탄약등을 보급하지 않으면 崩壞할 위험에 直面하고 있으므로 MacArthur 元帥에게 긴급 수송을 요청하였다. 국무성이 이 要請에 同意할 것을 바란다.』

이때가 25일 16.05(Washington 시간 25일 02.05)이었는데, 국무성은 2시간 후에 『이 要請을

지지하므로 至急 조치있기를 바란다.』라는 要旨의 전문을 東京에 發送하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MacArthur 元帥의 조치는 獨斷이라고 할수 없는 側面도 있으나 同 元帥에 대한 命令權者는 大統領—合參本部이지 國務省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本書는 前者의 主張을 따라 同 元帥의 韓國軍 지원조치를 비롯 國務省의 要請이 있더라도 命令權者의 승인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獨斷으로 기술하였다.

이와같은 그의 獨斷은 以後에도 계속 되는데, 이가운데 또 하나가 6월 29일의 北爆命令이었다.

## (4) Telecon 會談內容에 대하여

6월 30일 03.00에 실시된 Tokyo-Washington 간의 Telecon會談 內容에 대하여 Collins 大將이 「War in Peacetime」에서 밝힌 重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 陸軍省 제1호(DA-1)

貴信 C56942의 提案은 大統領의 결정을 必要로 하며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 1계전 투탄을 迅速히 釜山지구에 이동 시키는것은 合參本部 제84631호의 2-B항에 따라 곧 승인 될 것이다.

## 極東軍 제1호(FECOM-1)

基本方針이 결정되어 美地上軍을 韓國에서 사용할 것을 인정하면서 現戰局에서 結果의 인作戰을 실시 하기 위한 適切한 兵力수를 提示하지 않고 있다. 弊信 C 56942호의 要求를 滿足시키는 것은 아니다. 好機를 노쳐서는 아닐것이며, 즉시 決裁하여 주기 바란다.

## 陸軍省 제2호

6월 29일 오후 늦게 大統領 官邸會議에 出席하여 JCS 84631에서 言及한 作戰行動의 承認을 얻었다. 大統領은 戰限부대를 戰限지역에 사용하는 件에 대하여는 最高顧問도 慎重하게 熟考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나역시 이와같은 大統領의 意中을 이해할 수 있다. 一貴官의 提案에 대하여는 곧 結論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現時點에서 이에 應할 수 있도록 對處하기 바란다.

陸軍省 제9호

1개 戰鬪團을 전투지역에 파견하는 문제는 陸軍長官—大統領에 達達하여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적어도 30분이내에 速報할 것이다.』

(5) Smith부대의 出動命令 수령시간

美陸軍참전사에 의하면 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MacArthur 元帥의 命令이 있자 곧 제24사단의 出動을 下命 하였다는데, 그 시간을 7월 1일 03.15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또 제21연대 제1대대장 Smith 중령이 연대장 Stevens 대령에게 긴급 호출된 시간을 6월 30일 09.00로 하고 있다.

그리고 前掲書는 또한 Smith 부대가 韓國으로 出動하기 위하여 7월 1일 03.00에 Itazuke로 向發하였다고 主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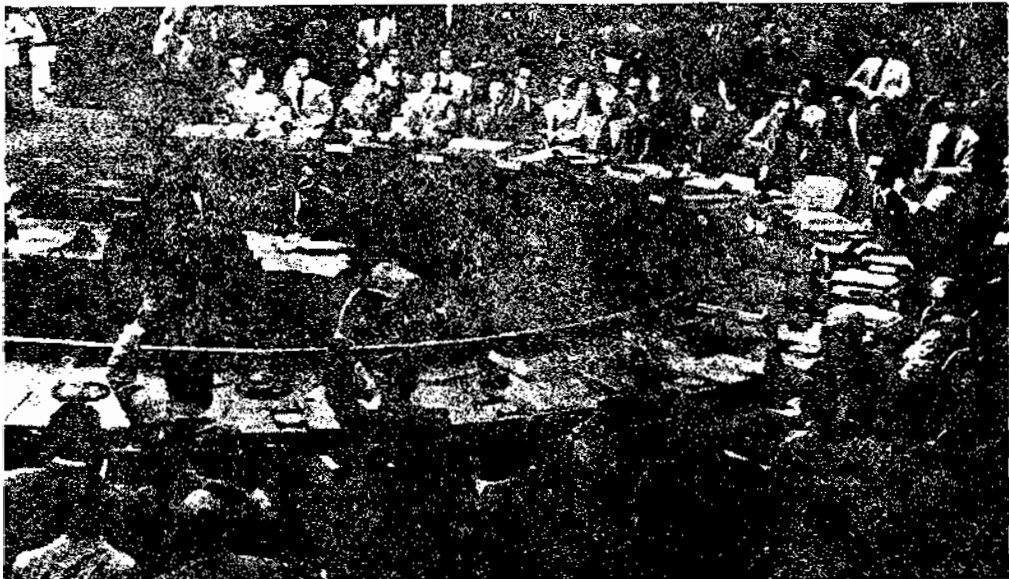
그런데 당시 陸軍참모총장 Collins 대장의 報告 『War in Peacetime』에 의하면 Smith 중령은 6월 30일 저녁에 Stevens 대령으로부터 전화로 『驚愕할 狀況이 아니다. 곧 연대본부로 出願하라.』는 命令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것이 正確한지 速斷하기는 困難하나 몇가지 사실에서 大略 다음과 같이 推斷할

수 있는데, 첫째로 Washington 當局이 2개사단의 地上軍부대를 전투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6월 30일 19.30 이전에는 없었다는 점, 둘째로 Smith부대가 空輸되기 위하여 Itazuke에 集結한 시간이 7월 1일 03.00이라는 점, 셋째로 MacArthur 元帥는 韓國視察 직후에 1개연대 전투단을 포함한 2개사단의 派韓을 要求한 것으로 미루어 이와 同時에 Washington의 승인조치가 끝 뒀따를 것을 예측하고 제24사단장에게는 전날 저녁에 특수임무 부대의 긴급 派韓을 內示하여 그로 하여금 제21연대 제1대대에게 非常대기케 한 것으로 推理되는 점이다.

그리고 비록 MacArthur 元帥는 그가 提示한 보고내용이 승인되자 戰線의 建박성으로 미루어 迅速히 그의 地上軍을 派韓코자 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제24사단과 특수임무부대의 出動을 命令하였으리라는 점 등이다.

이상에서 본것은 이 네가지를 綜合하여 6월 29일 傘사단과 Smith부대에 MacArthur 元帥가 非常대기하도록 命令하였고 제21연대장이 Smith 중령을 呼出한 시간은 이날 22.00~24.00로, 그리고 제24사단장이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出動命令을 수령한 시간 역시 이와같이 定하여 기술하였다.



〈UN安理會議의 韓國問題 表決장면 : 1950. 6. 27〉

# 附 錄

1. 陸本作命
2. UN決議 與 聲明文
3. 年 表
4. 戰歿者 名單
5. 索 引



# 1. 陸本作命

## 부록 제 1 호

作戰命令 第57號

1950. 4. 21

1. 北韓傀儡軍 및 南韓 各地區에서 蠢動중인 殘餘 共匪들은 5월 1일을 前後하여 南韓侵入과 暴動起  
를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5월 1일 前後에 있어서 不穩事件 發生에 對備하여 待機態勢 및 警戒態勢에 突入하려함.
3. 가. 各部隊長은 下記에 依하여 待機態勢 및 警戒態勢를 實施하라.  
나. 各師團長은 各管内 警察局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管内巡察을 徹底하라.  
다. 首都警備司令官 및 憲兵司令官은 首都地區의 巡察을 徹底히 하라.  
라. 實施要領은 從前과 同一함.  
마. 實施期間  
(1) 待機態勢期間 : 4.27 12.00~5.3 12.00  
(2) 警戒態勢期間 : 4.29 24.00~5.2 12.00  
바. 各師團長은 待機, 警戒態勢 實施間 每日 08.00 現在 管内의 異常有無를 每日 10.00부터 12.00  
間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 2 호

作戰命令 第63號

1950. 5. 1

1. 38°線 第6, 第8師團 管下 正面의 共匪는 지난 3월 27일 侵入한 遊擊隊의 全滅여부를 探知코자 近  
日에 와서는 擴聲機로 大規模의 虛偽宣傳으로 我側 軍民을 眩惑케 하고 있음.
2. 軍은 政訓工作隊를 該地區에 急派하여 對北 政訓工作과 啓蒙으로써 敵의 敗類眞相을 指揮하러함.
3. 가. 陸本政訓監은 第6, 第8師團에 政訓工作隊를 各 1個小隊씩 5월 2일 부터 5월 22일까지 派遣  
하라.  
나. 第6, 第8師團長은 前記 政訓工作隊를 指揮하여 管内 將兵 및 民間에 대하여 慰問宣撫工作과  
對北 政訓工作에 萬全을 期하라.
4. 行政事項  
가. 薪給  
(1) 兵站  
(가) 糧秣 : 政訓工作隊長은 兵站監으로 부터 携帶食糧(근빵)을 1人當 20包씩(計 600包) 受領  
하라.  
(나) 被服  
ㄱ. 政訓工作隊長은 個人裝備 및 被服 一切를 휴대하라.  
ㄴ. 工作用 廣木 其他는 現地部隊長으로부터 借用 使用하라.

(2) 兵器：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改訓工作隊에게 兵器(拳銃, 칼빈小銃 M1小銃)을 貸與하다.

나. 後送 및 醫療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醫療을 擔當하라.

다. 勤務

(1)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警備를 擔當하라.

(2) 第6, 第8師團長은 工作隊 宿營에 關하여 指示하라.

라. 輸送

(1) 輸送은 個人出張 樣式으로 하되 改訓工作隊長은 鐵道割引券을 陸本高級副官에게 申請하라.

(2) 第6, 第8師團長은 工作期間中 工作隊에 대한 추력輸送을 擔當하라.

5.

가. 財政

(1) 改訓工作隊長은 個人出張에 의거 旅費를 申請하라.

(2) 宣傳費는 改訓監室 宣傳費로서 申請하라.

부록 제 3 호

作戰命令 第67號

1950. 5. 8

1. 北韓傀儡軍은 最近 國內에 侵犯한 態勢를 取하고 있으며 國內에 潛伏蠢動中の 殘餘 共匪는 5월 30일 總選擧實施를 期하여 暴動을 惹起코져 企圖中임.
2. 軍은 待機 및 警戒態勢를 實施하여 國內警備에 萬全을 期하리함.
3.
  - 가. 各部隊長은 5.9. 12.00부터 5.27 12.00까지 待機態勢를 取하고 5.27. 12.00 부터 6.2 12.00까지 警戒態勢를 實施하여 管内 警備에 萬全을 期하라.
  - 나. 各部隊長은 非常 召集 및 非常出動에 萬全을 期하라.
  - 다. 各師團長은 管内 警察局과 緊密한 連絡下에 管内 警戒巡察에 徹底를 期하라.
  - 라. 首都警備司令官 및 憲兵司令官은 首都地區 警戒巡察을 徹底히 하라.
  - 마. 第1, 第7, 第6, 第8師團長 및 第17聯隊長은 管下 38°線 警備兵力의 增加와 警戒巡察을 徹底하고 이에 대한 計劃表를 5월 13일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 바. 首都警備司令官 및 第2, 第3, 第5師團長은 警戒實施計劃書를 5월 13일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 사. 各部隊長은 持히 管内 勤務所로부터 不穩事端 發生에 對備하여 援助를 求할時는 陸本의 指示가 없어도 積極 協助하라.
  - 아. 各部隊長은 每日 10.00부터 12.00까지 管内의 異常有無를 報告하라.
  - 자. 其他 實施要領은 從前과 同一함.

4. 以下 省略

부록 제 4 호

作戰命令 第68號

1950. 5. 25

1. 省略
2. 軍은 一部 警戒態勢 實施期間을 變更하여 國內警備를 強化하리함.
3. 第1, 第7, 第6, 第8師團 및 獨立機甲聯隊, 第17聯隊는 陸本作命 第67號에 의한 警戒態勢를 下記에



의거 實施하라.

가. 突入口時 5.24. 24.00

나. 解除日時 6.2. 12.00

다. 其他 細部事項은 陸本作命 第67號에 의거하라.

4. 以下省略

#### 부록 제 5 호

作戰命令 第70號

1950. 5. 29

1. 省略

2. 軍은 非常警戒中 一部地區에 特別警戒을 實施하려함

3. 第1師團長은 諫下 砲兵 1個中隊를 開城에 派遣하여 1950. 5. 28. 22.00부터 6.2. 12.00까지 特別警戒에 萬全을 期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 6 호

一般命令(陸) 第43號

1950. 6. 1

1. 1950. 1. 6부 國本 一般命令(陸) 제1호 및 1950. 1. 20부 國本 一般命令(陸) 제7호 2項에 의거하여 步兵第7師團에 編入된 步兵第3聯隊를 1950. 6. 15. 0時부로 步兵第7師團으로 부터 解編하고 同日同時부터 首都警備司令部에 編入한다.

2. 1949. 6. 20부 陸本 一般命令 제17호에 의거 步兵第2師團에 編入된 步兵第25師隊를 1950. 6. 15. 0時부로 步兵第2師團으로 부터 解編하고 同日同時부로 步兵第7師團에 編入과 同時에 其 駐屯地를 京畿道 金枳里로 한다.

#### 부록 제 7 호

作戰命令 第74號

1950. 6. 5

1. 省略

2.

가. 軍은 一部 陸軍學校의 移動 및 陸軍將校 俱樂部를 設置하려함.

나. 將校俱樂部 設置에 關하여는 別途 一般命令으로 示達함.

3.

가. 陸軍憲兵司令部는 諫下 富平派遣隊를 富平 美軍教會 建物로 6. 13. 12.00까지 移動完了하고 現建物は 陸軍經理學校長에게 引繼하라.

나. 陸軍經理學校長은 6. 13. 12.00까지 經理學校를 富平으로 移動하여 各項의 兵舍建物を 引受 收容하고 現建物は 陸軍參謀學校長에게 引繼하라.

다. 陸軍參謀學校長은 前記兵舍를 引受하여 6. 13. 12.00까지 移動, 收容하고 現建物は 陸本厚生監에게 引繼하라.

라. 陸本厚生監은 前記 兵舍建物を 引受하여 陸軍將校 俱樂部 設置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마. 陸軍參謀學校 移動後 舊建物の 警備는 首都警備司令部가 擔當하라.

바. 現在 服務中인 各學校의 警備兵力은 部隊移動과 同時에 帶同하여 移動하라.

928 附 錄

사. 兵舍建物の 引受引繼는 陸本工兵監의 立會下에 實施하라.

부록 제 8 호

作戰命令 第78號

1950. 6. 11

1. 北韓傀儡集團은 南北總選舉의 美名下에 謀略的 各種工作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此 工作을 粉碎하기 위하여 6. 11. 16. 00부터 別命이 있을때까지 非常警戒 態勢에 突入하려함.
3.
  - 가. 第1, 第6, 第7, 第8師團長 및 第17聯隊長은 管下의 非常警戒態勢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特히 何人을 莫論하고 38°線을 往來하는 者는 逮捕하고 不應하면 發砲하라.
  - 나. 首都警備司令部, 第2師團長, 機甲聯隊長 및 砲兵學校長은 別命이 있을때까지 警戒態勢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 다. 前記 各部隊長은 交通網은 勿論 南北秘密 道路 封鎖에는 特別措置를 강구하는 同時에 情報蒐集 및 夜間警戒에 萬全을 期하라.
  - 라. 前記 各部隊長은 異常이 있을때는 最短時間에 報告하라.
4. 以下 省略

부록 제 9 호

作戰命令 第79號

1950. 6. 13

1.
  - 가. 敬請 省略
  - 나. (1) 步兵第2師團 第25聯隊는 溫陽에 位置하여 訓練中에 있음  
(2) 步兵第7師團, 兵器整備中隊는 龍山 首都警備司令部 所屬 兵舍建物에 駐屯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함.
3.
  - 가. 第2師團長은 隸下 第25聯隊를 6. 20. 12. 00까지 議政府로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 나. (1) 第7師團長은 前項의 配屬兵力을 統合指揮하라.  
(2) 第7師團長은 隸下 兵器整備中隊를 6. 24 12. 00까지 議政府로 移動完了하고 龍山 舊建物은 首都警備司令部에게 引受하라.  
(3) 首都警備司令部는 前記 建物을 引受 使用하라.
4. 行政事項(別途 行政命令에 依함)

부록 제10호

作戰命令 第83號

1950. 6. 25. 06. 00

1. 北韓傀儡軍은 25. 04. 00를 期하여 38°線 全域에 걸쳐 南進을 恣行하였음.
2. 軍은 25. 06. 00를 期하여 非常事態에 突入함.
3. 軍은 休暇, 外泊, 外出 및 教育을 一切 中止함
  - 가. 各 부대장은 休暇 外泊, 外出중인 장병을 緊急召集하여 出動態勢를 갖추라.
  - 나. 各 학교장은 同時부터 非교육자(장교)를 原隊復歸조치하라.

부록 제11호  
作戰命令 第84호

1950. 6. 25 12. 00  
(口頭命令：同日 08. 00)

1. 敵은 38°線 全正面 및 東海岸에 進攻을 開始하였음.
2. 軍은 豫備師團을 서울地區에 集結하려함.
- 3.

가. 第2師團

第2師團은 既히 第7師團에 配屬中인 第25聯隊를 統合指揮하여 1個大隊를 安東에 殘置하고 師團全兵力 및 第25聯隊를 既히 下達한 作命과 같이 서울에 即時移動하라.

나. 第3師團

師團工兵隊, 通信隊 및 第22聯隊를 集結하여 師團參謀長 引率下에 即時 서울에 移動하라.

다. 第5師團

第5師團은 第15聯隊의 1個大隊(南原) 및 第20聯隊의 1個大隊(白雲山)를 殘置하고 其他의 全兵力을 集結하여 直時 서울에 移動하라.

4. 以下省略

부록 제12호  
作戰命令 第85號

1950. 6. 25 14. 20  
(口頭命令：同日 11. 00)

1. 敵은 38°線一帶에 進하여 南侵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 集結하려함.
- 3.

가. 首都警備司令官은 隸下 第3聯隊를 議政府로 即時 移動시켜 第7師團에게 配屬하라.

나. 第7師團長은 各項의 第3聯隊를 統合指揮하라.

다. 陸軍少兵學校長 및 陸軍士官學校長은 隸下 教導大隊 및 士官候補生(生徒)隊를 即時 龍山國民學校로 移動시켜 陸軍中領 俞海濬(現在少校)의 指揮를 받도록하라.

라. 陸軍中領 俞海濬은 各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即時 서울特別部隊를 編成하라.

4. 以下省略

부록 제13호  
作戰命令 第86號

1950. 6. 25. 15. 20

1. 敵은 38°線一帶에 進하여 南侵을 開始하였음.
2. 軍은 斐津 兵力을 撤退하려 함.
- 3.

가. 第17聯隊長은 百方手段으로써 抵抗을 繼續하여 敵을 阻止하고 事感最惡함에 이르면 釜浦에 到着한 船船에 依하여 서울에 撤收하되 時期는 別命함.

나. 首都警備司令官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行政事項

제17聯隊에 關한 事項

가. 제17聯隊長은 淸勞가 許하는限 各種裝備 補給品 1切를 携行 撤收하라.

나. 撤收 順序는 아래와 같다.

- (1) 銃砲, (2) 彈藥 (3) 車輛, (4) 揮發油, (5) 其他軍需品, (兵站, 工兵, 醫務, 通信)  
(6) 人員(戰病傷者 包含)

다. 제17聯隊長은 撤收時 後送 不可能한 全裝備, 補給品 및 施設 一切를 徹底히 破壞하여 敵에 入  
手 또는 利用되지 않게하라.

라. 제17聯隊長은 下記 船舶을 利用 撤收하라.

船 名	船 號	釜 浦 到 着 時 間	備 考
海 軍	801 號	25.19.00 到着豫定	
丹 陽	號	26.04.00 到着豫定	
三榮汽船所屬 2隻		25.11.00 到着豫定	

마. 제17聯隊長은 上記 船舶以外에 船舶이 所要되면 無線으로 連絡하라.

바. 輸送艇或은 自隊에서 擔當하며 特히 對空監視에 대하여 萬全을 期하라.

사. 忠清副司令官은 憲兵 20名을 25.19.00까지 仁川卸頭에 派遣하여 仁川憲兵隊長과 協議하여 丹陽號  
 및 其他 船舶에 便乘 營備를 擔當케 하라.

5. 通信連絡은 從前과 同一한.

부록 제14호

作戰命令 第87號

1950. 6. 25. 16.00

1. 敵은 38°線一帶 및 東海岸地區에 南侵을 開始하였음.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러 함.

3.

가. 陸軍機甲聯隊長은 隸下 機甲大隊에서 2個小隊를 即時 金浦에 派遣하여 漢江 下流 西岸 및 金浦  
 半島의 警戒搜索에 徹底를 期하라.

나. 陸軍機甲聯隊長 및 陸軍砲兵學校長은 隸下 兵力을 別紙 附錄에 依하여 即時 各各 配屬하라.

다. 第1, 第6, 第7, 第8師團長은 나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搜索 및 警戒 任務에 萬全을 期하라.

4. 以下省略

△ 附錄

配 屬 兵 力	駐屯地	配 屬 先	備 考
裝 甲 1 個 小 隊	水 色	제 1 師 團	
裝 甲 1 個 小 隊	議政府	제 7 師 團	
裝 甲 1 個 小 隊	春 川	제 6 師 團	
裝 甲 1 個 小 隊	江 陵	제 8 師 團	
對戰車砲 1 個 中 隊	水 色	제 1 師 團	
對戰車砲 1 個 中 隊	加 平	제 6 師 團	
對戰車砲 2 個 中 隊	議政府	제 7 師 團	

부록 제15호

作戰命令 第89號

1950. 6. 25 16. 40

1. 가. 敵은 尙日 早朝 38°線一帶 및 東海岸地區에 侵攻하여 왔음  
 나. (1) 38°線 各部隊는 現在 侵攻한 敵과 38°線 以南 3km 線上에서 激戰中임.  
 (2) 各 豫備師團의 一部兵力은 서울에 集結中임.
2. 軍은 一部 戰鬪司令部 設置 및 戰鬪地境을 變更하여 南侵한 敵과 呼應하여 蠢動한 殘存共匪를 徹底 掃蕩하려 함.
3. 陸本作命 第84號에 依한 第2, 第3, 第5師團의 서울地區 集結地는 別紙附錄과 같음.
4. 以下省略

△ 別紙 제 3

1. 제2師團 倉洞
2. 제5師團 龍山
3. 제3師團 서울龍山  
 (陸本作命 제84호에 依하여 서울에 移動하는 兵力의 集結地)

부록 제16호

作戰命令 第90號

190. 6. 25. 20. 30

(口頭命令：同일 12. 00)

1. 가. 敵은 依然히 38°線一帶 및 東海岸에서 侵攻을 繼續中임.  
 나. 警察 1個大隊은 陸本에 配屬되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함.
3. 陸軍士官學校長은 諫下 生徒隊로써 1個大隊을 編成하는 同時에 警察 1個大隊을 統合指揮하여 372 高地(1621-1668)~330高地(1022~1667) 線上에 移動하여 南侵한 敵을 擊滅하라.
4. 以下省略

부록 제17호

作戰命令 第91號

1950. 6. 26. 08. 00

(口頭命令：同일 01. 00)

1. 省略
2. 가. 軍은 議政府 正面에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38°線에 壓迫하려 함.  
 나. 空軍은 此 攻擊을 支援함.  
 다. 第7師團 및 第2師團의 戰鬪地境은 現 第1, 第9聯隊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3. 가. 第2師團은 6. 26. 08. 00 現在 接敵線으로 부터 第9聯隊를 超越하여 議政府~抱川에 連하는 道路를 中心으로 하여 當面한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確保하라.  
 나. 第7師團은 6. 26. 08. 00 現在의 接敵線으로 부터 第1聯隊를 超越하여 議政府, 東豆川, 道路를 中心으로 하여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38°線을 確保하라.  
 다. 第2師團이 超越 前進後 第9聯隊는 原隊에 復歸하라.
4. 以下 省略

932 附 錄

부록 제18호

作戰命令 第93號

1950. 6. 26. 08. 00

1. 既히 下達한 情報報告와 大差없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集結하여 狀況에 相應하는 態勢를 取하려 함.
  3. 가. 第3師團  
(1) 第3師團長은 第23聯隊의 對戰車砲中隊를 車輛 및 彈藥을 携行하여 即時 서울에 集結케 하라.  
(2) 第23聯隊의 1個 大隊를 浦項에, 2個 大隊를 釜山에 集結시켜 (馬山大隊는 釜山에 移動集結) 隨時 依命 移動할 수 있도록 하라.  
나. 湖南戰鬪司令部  
(1) 第15聯隊 1個大隊 및 第20聯隊 1個 大隊를 光州에 即時 集結하여 常時 出動 可能토록 汽車에 乘車 待機시키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19호

作戰命令 第94號

1950. 6. 26. 11. 30

(口頭命令 25일 12. 00)

1. 가.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임.  
나. 第6師團은 春川地區 第2師團은 抱川地區에서 守衛 攻擊에 移轉하였음.
  2. 軍은 現在 狀況에 依據 一部兵力을 移動하려 함.
  3. 가. 首都警備司令部는 隸下 第8聯隊를 第6師團長에게 配屬하여 加平에 移動케 하라(25일 口頭命令으로 既下達)  
나. 陸軍機甲部隊長은 隸下 1個 騎馬中隊를 即時 第6師團長에게 配屬하여 加平에 移動케 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20호

作戰命令 第95號

1950. 6. 27. 01. 00

1.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 移動하려 함.
  3. 가. 陸軍砲兵學校長은 隸下 105mm 砲兵 1個 大隊를 即時 彌阿里(1002—1650)로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7師團長은 各項의 砲兵을 統合 指揮하라.
4. 以下 省略
- 

부록 제21호

作戰命令 第96號

1950. 6. 26. 10. 00

(口頭命令 : 25. 17. 00)

1. 敵은 依然 侵攻을 繼續中에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려 함.
3. 가. 首都警備司令部는 隸下 第18聯隊를 即時 議政府에 移動시켜 第7師團長에게 配屬하라.

- 나. 第7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 指揮하라.  
4. 以下 省略

**부록 제22호**

作戰命令 第97號

1950. 6. 27. 10. 00

1. 敵의 一部는 金浦半島 地區에 上陸하였으며 繼續하여 上陸을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하여 金浦半島 地區에 上陸한 敵을 擊滅하려 함.
3. 가. 金浦地區 警備部隊長은 別紙 軍隊區分에 依據 隸下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敵을 金浦 西北地區에서 殲滅하라.  
나. 各 關係部隊長은 即時 別紙 軍隊區分에 依한 兵力을 即時 金浦로 移動하라.
4. 以下 省略

※ 別紙 軍隊區分

金浦地區警備隊長 陸軍大領 桂仁珠

第22聯隊 1個 大隊(龍山)

陸軍報國大隊 1個 中隊(永登浦)

南山學校(金浦)

工兵學校(金浦)

第12聯隊 1個 大隊(金浦地區 後退兵力)

搜索 2個 小隊 및 大隊本部(金浦)

徒步中隊(青玉里)

搜索 1個 小隊(加平) } 第6師團 配屬을 解除

**부록 제23호**

作戰命令 第98號

1950. 6. 27. 17. 00

(口頭命令 : 26. 06. 00)

1. 敵은 依然히 侵攻을 繼續하고 있음.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하려함.
3. 가. 第5師團長은 現在 光州에 駐屯하고 있는 師團司令部 以下 光州駐屯 兵力을 即時 서울로 移動하라.  
나. 湖南地區 戰鬥司令部는 第15聯隊 1個 大隊 및 第20聯隊 1個 大隊를 即時 서울로 移動케 하라.  
다. 各部隊長은 龍山 到着後 別命時까지 待機하고 連絡將校를 陸本作戰局에 差出하라.
4. 以下省略

**부록 제24호**

作戰命令(別) 第1號

1950. 6. 29 19. 00

1. 仁川市에 暴動이 發生되었음.
2. 軍은 一部 兵力을 仁川에 急派하려함.
3. 가. 混成第5師團은 隸下 第20聯隊의 完全 1個 中隊를 即時 仁川에 派遣하여 仁川地區 警備에 萬全을 期하라.

나. 仁川地區 警備 實施上 特別 京畿道 警察局과 緊密하게 協同하라.

4. 行政事項

가. 輸送은 自隊에서 擔當하라

나. 移動間 對空 및 地上 警戒의 萬全을 期하라.

다. 其他는 別途 指示에 依하여 實施하라.

5. 連絡은 主로 有線을 利用하고 無線 및 傳令을 兼用하라.

부록 제25호

作戰命令 第18號

1950. 7. 3

1. 敵은 軍前面 및 側方에서 壓迫을 加하여 我一線 師團은 逐次 戰場을 縮少하는 中일

2.

가. 軍은 聯合軍의 戰鬪加入을 爲한 時間餘裕를 얻기 爲하여 D日 H時부터 遲延戰을 實施하여 平澤까지 撤退함.

나. 撤退開始의 時日은 別命함.

3.

가. 始興地區 戰鬪司令官은 下記의 一般線에 逐次的인 收容陣地를 占領하면서 兵力을 烏山에 集結하라.

但 各 收容陣地에 있어서의 支撐時間은 最少時間으로 함.

第1收容陣地：東秀庵～忠勳府～安養里線(首都師團)

第2收容陣地：道藏洞～軍浦～帽洛山에 이르는線(第2師團)

第3收容陣地：月岩里～彌勒洞～上光教리에 이르는線(第3師團)

第4收容陣地：西屯里～八達山～水原의線(第5師團)

第5收容陣地：驛村～散井里～機山里의線(第7師團)

나. 第1師團長은 始興地區 部隊가 第3收容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기 까지 手段을 다하여 豐德川 東西의 線을 確保하고 이후 下記에 依하여 烏山에 集結하라.

使用道路

豐德川～新葛里～烏山에 이르는線, 大路下記 地帶의 收容陣地를 占領하여 時間을 獲得하면서 兵力을 完全히 新集結地에 收容하라.

收容陣地

제 1：133高地～三街里～梭洞의線

제 2：161高地～月厓洞의線

제 3：東鶴山～水泉里～185高地

다. 始興地區司令官은 前記 第5收容陣地.

第3師團은 第3收容陣地에 있어서 主力이 烏山에 이르기까지 此 陣地를 確保하라.

라. 烏山에 이르면 先發將校의 指示에 依하여 所定의 集結地에 部隊를 移動하여 이후의 行動을 準備하라.

마. 工兵監은 別途 指示에 依하여 所定時間에 水原～烏山間의 道路破壞를 實施하라.

4. 行政事項 省略

5. 가. 通信監은 直接 附與한 命에 依하여 通信器(有線, 無線)을 架設하라.

나. 新指揮所의 位置는 烏山邑事務所일.



## 2. U N 決議 및 聲明文

가. 駐韓美大使가 美國務長官에게 보낸 電文報告 1950. 6. 25 서울

韓國 軍事顧問團 現地補佐官 報告가 部分的으로 確認한 韓國軍報告에 의하면 北傀軍이 오늘 아침 여러 地域에서 大韓民國 領土를 侵犯하였다.

侵犯行爲는 上午 4時頃に 開始되었다. 襄津이 北傀의 砲擊을 받았다. 上午 6時頃に 北傀軍 歩兵이 襄津, 開城, 春川 地域에서 38°線을 넘기 始作하였으며 東海岸 江波 南쪽에 北傀 陸海軍이 上陸하였다고 報道되었다.

開城은 上午 9時에 占領되었으며, 약 10대의 北傀軍戰車가 作戰에 參加하고 있다고 報道되었다. 戰車를 앞세운 北傀軍은 春川을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江邊地域에서의 戰鬥詳報은 不分明하나 北傀軍은 國道를 遮斷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오늘 아침 韓國 軍事顧問團 補佐官들 및 韓國官軍들과 事態를 協議하였다. 侵攻의 性格이나 侵攻이 開始된 方式으로 보아 이 侵攻은 大韓民國에 대항 全面的인 攻擊인 것으로 보인다.

### Telegram from the American Ambassador in Korea, John J.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Dean G. Acheson, Seoul, June 25, 1950

According to Korean Army reports which are partly confirmed by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field advisory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nvaded Republic of Korea territory at several points in this morning.

Action was initiated about 4 a.m. Ongjin was blasted by North Korean artillery fire. About 6 a.m. North Korean infantry commenced crossing the (38th) parallel in the Ongjin area, Kaesong area, and Chunchon area, and an amphibious landing was reportedly made south of Kangnung on the east coast. Kaesong was reportedly captured at 9 a.m., with some ten North Korean tanks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rth Korean forces, spearheaded by tanks, are reportedly closing in on Chunchon. Details of the fighting in the Kangnung area are unclear, although it seems that North Korean forces cut the highway. I am conferring with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advisers and Korean officials this morning concerning the situation.

It would appear from the nature of the attack and the manner in which it was launched that it constitutes an all-out offensiv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나. 駐 UN美副代表가 UN事務總長에게 보낸 書翰 1950. 6. 25

UN事務總長 貴下

本人은 1950년 6월 25일 오늘 아침 3時電話로 貴下에게 本人이 잃어준 「메시지」의 原文을 여기에 傳한다. 이 「메시지」에 UN安保理議長이 即刻 注意를 기울이도록 힘 써 주기 바란다.

Ernest A. Gross

駐韓 美國大使는 北傀軍이 韓國時間 6월25일 새벽에 여러 곳에서 大韓民國을 侵犯하였다고 國務省에 通告하여 왔다.

北傀政權의 管掌下에 있는 平壤放送은 6월 24일 21.00(「뉴욕」시간)부터 發効된 大韓民國에 대한 宣戰布告를 放送한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

앞에서 言及한 狀況에서 政行된 北傀軍의 攻撃은 平和侵害이며 侵略行爲이다. 本國 政府의 緊急 要請에 따라 本人은 貴下에게 UN安保理의 會議를 即刻 召集할 것을 要請한다.

**The Deputy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Gross) to the Secretary-General New York, June 25, 1950**

DEAR MR. SECRETARY—GENERAL: I have the honour to transmit herewith the text of the message which I read to you on the telephone at three o'clock this morning, June 25, 1950.

Will you be good enough to bring the message to the immediate atten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aithfully yours, ERNEST A. GROSS

(Enclosure)

The Americ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has informed the Department of State that North Korean forces invaded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several points in the early morning hours of June 25(Korean time).

Pyeongyang Radio under the control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reported, has broadcast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effective 9 P.m. June 24(New York time).

An attack of the forc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above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and an act of aggression.

Upon the urgent request of the Government, I ask you to call an immediate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다. UN韓國委員團이 UN事務總長에게 보낸 電文報告 1950. 6.25, 서울**

大韓民國 政府는 6월 25일 上午 4時頃 北傀軍이 38°線 全域에서 대거 攻撃을 開始하였다고 報道하였다.

攻撃의 主要 地域은 寬津半島, 開城, 春川地域, 그리고 東海岸이며 東海岸에서는 江陵 北쪽과 南쪽에서 海岸으로 北傀軍이 上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 다른 海岸으로의 上陸이 東南海岸의 浦項地域에서 空軍 掩護下에 臨進한 것으로 報道되었다. 이러한 攻撃들은 최근에 서울 바로 北쪽의 38°線에서 가장 짧은 接近路를 따라 일어났다.

大韓民國이 밤사이 38°線을 넘어 侵入하였다는 13시 35분 平壤放送의 主張은 委員團員과 事務局長과의 會議에서 大韓民國 大統領과 外務長官에 의해 전적으로 虛偽라고 駁斥되었다.

北傀는 또한 人民軍이 侵入軍을 決定的인 反擊으로 擊退하라는 命을 下達받았고 이에 대한 結果는 南韓側에 責任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大韓民國 大統領의 事態에 대한 「브리핑」에는 36臺의 戰車와 機甲車輛들이 北傀軍에 의한 4개 지역 的 攻撃에 가담하고 있다는 聲明도 들어 있다.

緊急閣議에 이어 大韓民國 外務長官은 國民들에게 北傀의 야만적인 공격에 抵抗할 것을 鼓舞하는 放送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委員團이 放送으로 戰鬪 中止를 促求하고 UN에 事態의 심각성을 알리는 通信問題에 전적으로 協助할 것을 表明하였다.

北傀가 上午 11時 平壤放送으로 宣戰布告를 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으나 이는 어디서도 確認되

지 않고 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그러한 放送을 公式通告로 보고 있지 않다. 委員會에 出頭한 美國大使는 韓國側이 狀況을 상세히 報告한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下午 5시 15분 4대의 YAK형 전투기가 서울郊外의 民間 및 軍用飛行場을 爆撃하여 飛行機를 파괴하고 연료 「탱크」에 불을 지르고 車輛들을 攻撃하였다.

郊外에 있는 永登浦驛이 또한 爆撃을 받았다. 委員會는 UN事務總長이 事態가 심각하게 發展하고 있는 全面戰의 性格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國際平和와 安保維持를 위해 롭게 할지도 모른다는데 注意하여 주기를 바란다.

委員會는 事務總長이 問題를 安全保障理事會에 通報하여야 할 可能性을 檢討하도록 勸告한다. 委員會는 보다 充分히 檢討된 報告를 후에 보내겠다.

###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Seoul, June 25, 1950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bout 04:00 hrs., 25 June attacks were launched in strength by North Korean forces all along the 38th parallel. Major points of attack have included Ongjin Peninsula, Kaesong area and Chunchon and east coast where seaborne landings have been reported north and south of Kangnung. Another seaborne landing reported imminent under air cover in Pohang area in southeast coast. The latest attacks have occurred along the parallel directly north of Seoul along shortest avenue of approach.

Pyongyang Radio allegation at 13:35 hrs. of South Korean invasion across parallel during night declared entirely false by President and Foreign Minister in course of conferences with Commission members and principal secretary. Allegations also state Peoples' Army instructed to repulse invading forces by decisive counterattack and placed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on South Korea. Briefing on situation by President included statement thirty-six tanks and armoured cars used in northern attacks in four points. Following emergency Cabinet meeting Foreign Minister issued broadcast to people of South Korea encouraging resistance against dastardly attack. President expressed complete willingness for Commission broadcast urging cease-fire and for communication to United Nations to inform of gravity of situation. Although North Korean declaration of war rumoured at 11:00 hrs. over Pyongyang Radio, no confirmation available from any source. President not treating broadcast as official notice. United States Ambassador, appearing before Commission, stated his expectation Republican Army would give good account of itself.

At 17:15 hrs. four Yak-type aircraft strafed civilian and military air fields outside Seoul destroying planes, firing gas tanks and attacking jeeps. Yongdungpo railroad station on outskirts also strafed.

Commission wishes to draw attention of Secretary-General to serious situation developing which is assuming character of full-scale war and may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suggests that he consider possibility of bringing matter to notice of Security Council. Commission will communicate more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 later.

라. 駐UN美副代表가 UN安保理에서 行한 聲明 1950. 6. 25

韓國時間 6월 25일 日曜日 오전 4시 北漢軍이 大韓民國 領土에 不當한 攻撃을 가하였다.

이奇襲은 北緯 38°線 沿邊의 慶津, 開城, 春川地域에 대한 地上軍의 攻擊과 陸海軍의 江陵附近 東海岸에 대한 上陸戰으로 開始되었다.

또한 北僞 空軍機들은 首都서울 郊外의 金浦空港을 攻擊 機銃掃射를 加하였다.

이러한 事實과 韓半島 事態의 全般的인 局面은 방금 UN韓國委員團에 依하여 報告되었으며 UN文書 S/1496號로서 採擇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全的으로 北僞軍의 不法의이고 不當한 攻擊은 美國政府가 보기에는 平和侵襲이며 侵略行爲이다.

이는 明白한 國際平和와 安寧에 대한 威脅이다. 따라서 美國政府는 이를 크게 憂慮하는 바이다.

그것은 모든 平和愛好 및 自由愛好 國家들에게도 크게 憂慮되는 威脅이다. 全面攻擊이 發生한 韓國內에서 빚어지고 있다. 그것은 UN自身이 總會의 決議로 發生시킨 한 國家에 대한 侵略이다. 그것은 UN 監視下에 選出된 政府에 대한 武力侵略이다.

이러한 攻擊은 UN憲章의 根本目的을 正面으로 挑戰하는 것이다. 이 攻擊은 公開的으로 UN의 利益과 權威를 無視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UN會員國이 UN에서 갖고 있는 重大한 利益과 關聯되는 것이다.

韓國問題의 歷史는 UN安保理 理事國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短小한 時間에 本人은 韓國歷史를 상세히 살펴보는 暇가 없다.

韓國事態에 있어 몇가지 劃期的인 事態發展만을 追하여 보겠다. 日本이 降伏하면 韓國은 自動的으로 獨立하기로 되어 있었다. 美蘇共同委員會는 그 獨立의 節次와 方法을 2년동안 協議하였으나 끝내 合意를 보지 못하고 失敗하고 말았다.

이 2년間の 膠着狀態는 3,800萬 韓國人들이 그들의 權利인 獨立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美國政府는 美蘇와 中國 및 英國이 韓國의 獨立에 관한 合意를 模索하기 위한 4大列強會議를 열도록 提議하였으나 蘇聯은 이 提議를 拒否하였다.

그러자 美國은 UN總會에 이 問題의 檢討를 要求하였다. 蘇聯은 이 提議에 反對하였다.

UN總會는 1947년 11월 14일 第112次 決議案 第2項으로 UN臨時韓國委員團을 創設하였다.

그 決議案에 의해 UN總會는 韓國國民들의 即刻的인 自由와 獨立 爭取에 關하여 UN臨時委員團과 協議하게 될 代議員을 選出하기 위한 選舉를 1948년 3월 31일 以前까지 實施할 것을 建議하였다. 이 選舉에서 뽑힌 代議員들은 國會를 構成하고 統一政府를 樹立하도록 되어 있었다.

UN總會는 또한 統一政府가 樹立되면 同 政府는 UN臨時委員團과 協議하여 自體의 防衛軍을 創設하고 그와 關聯이 없는 모든 軍隊와 半軍事組織을 解體한 것도 建議하였다.

UN總會는 統一政府가 軍司令部와 南北韓의 民政當局들로 부터 政府의 機能을 享受하고 可能한 最短期에, 可能하다면 90일 以內에 韓國으로 부터 占領軍이 完全撤收할 것을 占領國들과 妥協한 것도 建議하였다.

選舉는 南韓에서 實施되고 UN委員團은 이를 參觀하였다. 이 委員團이 參觀한 選舉 結果 南韓에 政府가 樹立되었다. UN臨時韓國委員團은 蘇聯의 態度때문에 北韓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UN臨時韓國委員團은 제3차 유엔總會에 보낸 報告書에 同委員團이 遂行하여야 할 모든 目的이 完全히 成就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韓國의 統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聲明하였다.

유엔臨時韓國委員團이 韓國에서 經驗한 蹉跎과 難處에도 불구하고 UN總會는 제3차 總會에서 제195차 決議案 제3항을 通하여 同委員團을 繼續 存續시키고 南北韓을 統一시키기 위한 同委員團의 努力을 계속 推進한 것을 要求하였다.

本人은 제3차 UN總會가 採擇한 제195차 決議案 제3항의 한 局面이 특히 強調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N總會는 UN臨時委員團이 參觀한 選舉에 따라 韓戰에 한 合法的 政府가 樹立되었고 아울러 이 政府가 韓國에서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稱하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事實이다.

UN總會는 또한 韓國政府가 그의 管轄地域 選舉民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示이며 UN臨時韓國委員團이 參觀한 選舉에 立脚하여 樹立되었음을 宣稱하였다.

이러한 宣稱에 比추어 本國政府는 1949년 1월 1일 大韓民國을 承認하였으며 그후 30개국 以上이 次따라 韓國을 承認하였다.

UN臨時韓國委員團은 韓國으로 부터의 外國軍撤收, 南北韓間의 障壁除去 및 自決權에 의한 代議政府下의 國家統一등 UN의 目標을 成就하도록 努力하였다.

1948년과 마찬가지로 1949년에도 北韓當局과의 直接 접촉과 蘇聯을 통한 協商推進등 北韓에 接近하려는 UN臨時韓國委員團의 努力은 水泡로 돌아갔다.

同委員團은 韓國의 統一이나 南北韓間의 障壁除去를 위한 進展을 볼 수 없었다. 同委員團은 UN總會에 北緯 38°線의 邊境이 銃擊과 武裝襲擊 事件이 고차되는 곳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韓國國民들간의 友好的인 接觸에 큰 障壁가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同委員團은 1949년 6월 19일 完了된 美軍軍隊의 撤收를 監視하였다. 同委員團은 北韓駐屯 蘇聯 占領軍의 撤收를 能認한 用意을 表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蘇聯으로부터 그의 「메시지」에 대한 應答을 接受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무런 措置를 取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49년 10월 21일 제4차 UN總會가 採擇한 제293차 決議案 제4항에서 UN總會는 同委員團에게 韓國의 分斷으로 야기된 經濟社會 및 其他의 友好的 接觸에 대한 障壁除去를 促進 追求하도록 다시 指示하였다.

UN總會는 또한 同委員團에게 『UN監視委員을 任命할 수 있고 同委員團에 속한 代表는 아닌 한 명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의 用役과 屈伸 調整을 利用할 수 있는 裁量權』을 許可하였다.

UN韓國委員團은 현재 서울에 있으며 우리는 방금 同委員團의 보고서를 接受하였다.

本人은 北韓軍의 大韓民國 侵略에 대한 UN安保理의 큰 憂慮에 留意하는 決議案 草案을 提出하였다.

이 決議案 草案은 北韓當局에게 南韓에 대한 敵對行爲를 中止하고 北緯 38°線의 境界線으로 그들의 軍隊를 撤收시킬 것을 促求하고 있다.

이 草案은 UN韓國委員團이 北韓軍의 北緯 38°線으로의 撤收를 監視하여 UN安保理가 尙 決議案의 實行과 履行狀況을 계속 通告받도록 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 決議案 草案은 또한 모든 UN會員國들에게 이 決議案을 實行하는데 있어 UN에 모든 도움을 提供하는 반면 北韓 當局에 대한 援助 提供을 삼가할 것도 아울러 促求하고 있다.

UN安保理 議長의 許可를 얻어 本人은 同 決議案 草案의 全文을 朗讀하는 바이다.

UN安保理는 大韓民國 政府가 大多數 韓國人民들이 居住하며 UN臨時韓國委員團이 감시와 協의를 할 수 있는 韓半島地域을 效果의으로 管掌 管轄하고 있는 合法的으로 樹立된 政府이며 同政府가 그 管轄地域의 선거民의 自由의사의 正當한 表示이며 UN臨時委員團의 감시를 받은 선거에 參與하고 있으며, 同政府가 한반도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1949년 10월 21일字 UN總會 決議案의 決定을 想起하면, UN會員國들이 韓國의 完全獨立과 統一을 成就시키려 UN이 追求하는 成果에 損傷을 끼치는 行爲를 삼가하지 않을 경우 뒤따라 發生한지도 모를 事態에 대하여 UN總會가 1948년 12월 12일과 1949년 10월 21일字 決議案에서 表示한 憂慮와 UN韓國委員團이 그 報告書에서 說明한 事態가 大韓民國과 韓國國民의 安全과 安寧을 威脅하며 그 곳에서의 軍事的 紛爭을 惹起시킨지도 보일다는 憂慮를 念頭에 두면서 그리고 北韓(人民軍)의 大韓民國 侵略에 대한 重大한 憂慮 表明에 留意하면서 이러한 行爲를 平和의 侵害로 規定하며

#### 1. 北韓當局에

가. 戰鬪行爲를 中止하고

나. 그들의 軍隊를 北緯 38°線으로 撤收시킬 것을 促求한다.

#### 2. UN韓國委員團에게

- 가. 北傀軍의 38°線으로의 撤收를 監視하고  
나. UN安保理에 向 決議案의 履行狀況을 계속 通報한 것을 要求한다.
3. 모든 UN會員國들에게 이 決議案을 履行하는 데 있어 UN에 모든 援助를 提供할 것과 北傀當局에 대한 援助提供을 삼가할 것을 促求한다.

**Statement by the Deputy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Ernest A. Gross, before the U.N. Security Council. June 25, 1950**

At 4 o'clock in the morning of Sunday, 25 June, Korean time, armed forces from North Korea commenced an unprovoked assault agains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ssault was launched by ground forces along the 38th parallel and the Ongjin, Kaesong and Chunchon sectors, and by amphibious landings in the east coast in the vicinity of Kangnung. In addition, North Korean aircraft have attacked and strafed Kimpo airport i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The facts and a general outline of the situation have been repor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and are reflected in document S/1496, to which the President has refer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wholly illegal and unprovoked attack by North Korean forces, in the view of my Government,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and an act of aggression. This is clearly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such, it is of grave concern to my Government.

It is a threat which must inevitably be of grave concern to the Governments of all peace loving and freedom-loving nations. A full-scale attack is now going forward in Korea. It is an invasion upon a State which the United Nations itself, by action of its General Assembly, has brought into being. It is armed aggression against the Government elected under United Nations supervision. Such an attack strikes at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uch an attack openly defies the interest and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Such an attack, therefore, concerns the vital interest which all the member nations have in the Organizat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blem is well known to the members of the Council. At this critical hour I shall not review that history in detail.

May I be permitted to recall just a few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ituation? A Joint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ought unsuccessfully, for two years, to agree at ways and means of bringing to Korea the independence which we assumed would automatically come when Japan was defeated. This two year deadlock prevented 38 million people in Korea from getting the independence which it was agreed was their right. My Government, thereupon, sought to hold a Four Power Conference, at which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would jo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seeking agreement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Soviet Union rejected that proposal.

The United States then asked the General Assembly to consider the problem. The Soviet Union opposed that suggestion.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2(112)(II) of 14 November, 1947, created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By that resolution,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ed the holding of elections not later than 31 March, 1948 to choose representatives with whom the Commission might consult regarding the prompt attainment of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the Korean people. These elected representatives would constitute a national assembly and establish a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further recommended that, up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government, that government should,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 constitute its own national security forces and dissolve all military or semi-military formations not included therein.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ed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take over the functions of government from the Military Command and from the civilian authorities of the North and South, and arrange with the occupying Powers for the complete withdrawal from Korea of their armed forces, as early as practicable, and, if possible within ninety days.

Elections were held in south Korea and the Commission observed them. A Government in South Korea was set up as a result of the elections observed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was unable to enter North Korea because of the attitude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n its report to the thir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stated that not all the objectives set forth for it had been fully accomplished and that, in particular, unification of Korea had not yet been achieved. Notwithstanding the frustrations and the difficulties which the Temporary Commission had experienced in Korea, the General Assembly, at its third session, in resolution 195(III) continued the Commission's existence and requested it to go on with its efforts to bring North and South Korea together.

One aspect of resolution 195(III) adopted by the thir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should, I feel, be particularly emphasized. The General Assembly declared that a lawful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elections observed by the Commission, and declared further that this wa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This is a most significant fact. The General Assembly declared further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wa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In the light of this declaration, my Government, on 1 January, 1949, extended recogni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re than thirty States have, since that time, also accorded recognition to that Governmen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worked toward the United Nations objectives of the withdrawal of occupying forces from Korea, the removal of the barriers between the regions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 unification of that country under a representative government freely determined by its people.

In 1949, as in 1948, the Commission's efforts to attain access to North Korea, which included direct intercourse with the Northern authorities and endeavours to negotiate through the Government of the U.S.S.R. were fruitless. The Commission was unable to make progress either towards the unification of Korea or toward the reduction of barri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orthern authorities. The Commission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the border of the 38th parallel was becoming a scene of increasingly frequent exchanges of fire and armed raids, and that this constituted a serious barrier to friendly intercourse among the people of Korea.

The Commission observe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forces, which was completed on 19 June 1949. Although it signified its readiness to verify the fact of the withdrawal of the occupation forces of the Soviet Union from North Korea, the Commission received no response to its message to the U.S.S.R., and, therefore, could take no action.

At its fourth session,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293(IV) adopted on 21 October, 1949, again directed the Commission to "seek to facilitate the removal of barriers to economic, social and other friendly intercours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also authorized

the Commission "in its discretion to appoint observers, and to utilize the services and good offices of one or more persons, whether or not representatives on the Commiss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is presently in Seoul, and we have now received its latter report.

I have submitted a draft resolution (S/1497) which noted the Security Council's grave concern at the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This draft resolution calls upon the authorities in the north to cease hostilities and to withdraw their armed forces to the border along the 38th parallel. It requests th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observe the withdrawal of the North Korean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resolution. The draft resolution also calls upon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carrying out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ith the President's permission, I should like to read the draft resolution in full.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the find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of 21 October, 1949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lawfully established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Korea reside; and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Mindful of the concern exp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s of 12 December, 1948 and 21 October, 1949 of the consequences which might follow unless Member States refrained from acts derogatory to the results sought to be achieved by the United Nations in bringing about the complete independence and unity of Korea; and the concern expressed that the situation d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in its report menaces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people of Korea and might lead to open military conflict there;

"Noting with grave concern the armed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rmed forces from North Korea,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I. Calls upon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 (a) To cease hostilities forthwith; and
- (b) To withdraw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II.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III. Calls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 마. UN安保理事會의 共產侵略行爲 停止命令에 관한 決議文 決議案

安全保障理事會는 1949년 10월 21일 總會 決議案의 調査報告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政府가 UN 臨時韓國委員會가 조사 협의할 수 있었던 大多數의 韓國住民들이 居住하는 韓半島의 地域에서 有效한



支配 및 法的 管轄權을 가진 合法的으로 수립된 政府라는 것과 이 政府가 韓半島의 該當지역의 選舉民들의 自由意思의 正當한 表現이며 韓國委員團이 감시한 선거에 根據하고 있다는 것과 이 政府가 韓半島의 合法政府라는 것을 想起하면서 또한 總會가 1948년 12월 12일자 및 1949년 10월 21일자 決議案에서 表明한 대로 UN이 韓國의 完全한 獨立과 統一을 가져오기 위하여 追求하는 成果에 快로운 措置를 會員國들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招來될 結果에 대한 우려와 UN韓國委員團이 그 보고에서 諱述한 사태가 대한민국 및 한국국민들의 安全과 安寧을 威脅하며 韓半島에서 軍事紛爭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留意하면서, 또한 北僞軍의 대한민국에 대한 武力攻擊을 심각한 우려로 注目하면서, 이러한 行動이 平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決定하며

1. 敵對行爲의 즉각 中止를 要求하고 北韓當局이 그들의 軍隊를 즉각 38°線으로 撤收시킬 것을 促求하고
2. UN韓國委員團이
  - 가. 充分히 檢討된 事態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限 지체없이 보낼 것과
  - 나. 北僞軍의 38°線으로의 撤收를 감시한 것과
  - 다. UN安全保障理事會에 이 決議案의 執行에 대하여 계속 보고한 것을 요청하고
3. 모든 會員國들은 UN이 이 決議案을 집행하는 데 支援을 아끼지 말며 北韓當局을 支援하는 것을 참가하도록 促求한다.

### 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litment in Korea. June 25, 1950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the find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of 21 October, 1949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lawfully established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Korea reside; and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Mindful of the concern exp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s of 12 December, 1948 and 21 October, 1949 of the consequences which might follow unless Member States refrained from acts derogatory to the results sought to be achieved by the United Nations in bringing about the complete independence and unity of Korea; and the concern expressed that the situation d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in its report menaces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people of Korea and might lead to open military conflict there;

"Noting with grave concern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Determines that this actions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1.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 eighth parallel;
11.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communicate its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s on the situ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 (b) To observe the withdrawal of the North Korean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 (c)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111. Calls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바. UN韓國委員團이 UN事務總長에게 보낸 報告 1950. 6. 26

委員團은 오늘 아침 10時 會合을 갖고 敵對行爲에 대한 最近의 報告와 敵對行爲가 開始되기 48시간 前에 監視가 終了된 UN韓國委員團 軍事「음서버」들이 38°線 沿邊에서 直接 調査한 報告들을 檢討하였다.

이러한 證據에 立脚하여 委員團은 다음과 같은 現在의 見解를 記述한다.

첫째, 實際의 作戰進行으로 보아 北의 政權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잘 계획되고 事前 協議된 全面的 侵入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大韓民國 國軍은 38°線 全域에서 全的으로 防禦的인 體制를 배치되어 있으며

셋째로, 國軍은 侵入이 臨迫하였다고 믿을만한 理由를 情報消息通으로 부터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完全 奇襲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委員團은 事態를 지켜보면서 追後 報告하겠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Seoul, June 26, 1950**

Commission met this morning 10:00 hours and considered latest reports on hostilities and results direct observation along parallel by UNCOK military observers over period ending 48 hours before hostilities began. Commission's present view on basis this evidence is, that judging from actual progress of operations Northern regime is carrying out well-planned, concerted, and full-scale invasion of South Korea, second, that South Korean forces were deployed on wholly defensive basis in all sectors of the parallel, and, third, that they were taken completely by surprise as they had no reason to believe from intelligence sources that invasion was imminent. Commission is following events and will report further developments.

사. UN韓國委員團이 UN事務總長에게 보낸 報告 1950. 6. 26

委員團은 美國이 發議한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案 채택을 報告받았다.

委員團도 그와 같은 方向으로 措處를 熟考하였으며 安全保障理事會의 措處에 全幅的으로 滿足을 表示한다.

委員團은 安保理가 決議한 措處들을 實踐에 옮길 수 있으면 기쁘겠으나 지난 18個月 동안 北韓과 接觸하려는 委員團의 努力은 否定的인 反應을 받았음을 指摘하고 싶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Seoul, June 26, 1950**

Commission informed adoption of U.S.-sponsor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t had contemplated action of this direction and expressed unanimous gratification at Security Council move. Commission will be glad to undertake task given by Council but likes to point out that its efforts to contact North during last eighteen months met only with negative response.

아. UN韓國委員團이 UN事務總長에게 보낸 報告 1950. 6. 26 서울

委員團은 6월 25일의 敵對行爲 勃發에 선행하는 背景事件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硓判 報告를 提出한다.

1. 지난 2년간 北傀政權은 격렬한 非방과 38°線에서의 위협적인 舉動과 大韓民國 領土에서 顯著活動을 鼓舞하고 支援함으로써 UN韓國委員團의 監督下에 獨立되었으며 總會가 承認한 大韓民國 政府를 弱화시키고 破壞하려는 戰術을 추구하여 왔다.

같은 기간에 UN韓國委員團은 되풀되는 辱說宣傳의 對象이 되어왔으며 이들 放送들은 委員團의 合法性을 否認하고 委員團의 活動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非難하는가 하면 委員團員들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活動은 지난 8개월동안 無慈悲하게 追求되어온 反面 總選 初期期인 共和國의 經濟는 不安定한 상태였으며 制憲總會의 회의는 흔히 激突의이며 行政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최근 몇달동안 이 나라의 政治와 經濟가 安定을 이룩하는 面에서 뚜렷한 改善의 징후가 있었다. 4월초 韓國軍과 警察은 약 38°線을 넘어온 一掃合 約 600명의 2개 「게릴라」大隊를 소탕함으로써 北의 支援를 받아 南韓에서 活動中이던 「게릴라」들에 대한 冬季攻勢는 轉頭을 이루었다. 이와 同時에 國內의 安全과 士氣는 파괴분자들에 대한 鎮壓으로 強化되었다.

2. 北傀政權은 放送과 그밖의 宣傳 그리고 파괴분자들에 대한 支援으로 효과적인 5.30 總選의 實施를 저지하려고 기도하였으나 委員團이 監視한 이 선거는 全般的으로 成功적으로 進行되었고 法과 秩序의 尊嚴氣에서 進行되었다.

3. 새로이 構成된 國會는 UN韓國委員團의 監督下에 1948년 5월에 選出된 共和國의 制憲國會를 繼承하였다.

韓半島의 한쪽 반에서의 선거가 38°線의 人爲的 장벽을 永久化하려는 우리에서 中間路線 政黨들이 「보이코트」하였던 1948년 선거와는 달리 1950년 선거에는 地下 共產主義者들을 除外한 모든 政黨들이 參加하였으며 制憲國會에서는 2大政黨이었던 親政府黨과 野黨이 다같이 1950년 선거에서 크게 敗北하고 1948년 總選을 「보이코트」하였던 穩健路線의 勢力들이 가장 광복한만한 選出을 하였다. 모두 210명의 議員가운데 약 130명이 무소속인 새國會는 經濟的으로 安定된 국가에서 效果적인 代議政府를 수립하는 것이 계속 選民을 보이디라는 希望의인 분위기에서 1950년 6월 19일 召集되었다.

初期의 會議들은 行政府의 여러 短點들을 비판적으로 解決하여 나가려는 誠意를 보였다.

4. 6月初 北傀政權의 平壤放送은 韓半島의 통일을 目標로 對策을 強化한 것을 要求하는 글을 대대적으로 宣傳하였으며 6월 3일 한 「콤뮤니케」는 530만 北韓住民들이 平和와 統一에 대한 호소문을 署名한 것은 民族統一을 위한 투쟁이 새로이 開始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5. 6월 7일 平壤放送은 兩國統一 達成을 위하여 民主戰線이 韓半島內의 모든 民主的 政黨과 社會團體들에 懸案의 協商會議를 거친 韓半島에서의 選擧를 提案하는 호소서한을 發표하여 放送하기 始作하였다.

6. 이 呼訴의 語調는 南韓政府內 9名의 立法議院 指導者가 叛逆者로 協商對象에서 除外되고 UN韓國委員團이 統一의 課業에 간섭하도록 許容되어서는 않된다는 條件들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對峙의 態度가 表面上으로 變化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그러한 呼訴文 中には UN韓國委員團도 指摘되어 있어 委員團은 6월 10일 呼訴文 原文은 받고 3名의 北韓代表들에게 平和統一에 대한 委員團의 渴望을 忱히 傳達하기 위하여 1名의 代表를 38°線 以北으로 보냈다.

7. 뒤이어 그…… 公翰은 北傀政權의 最高人民會議 常部會議가 마련한 또 다른 平和統一 計劃으로

며쳐되었다.

이計劃은 南北韓會議를 單一 立法機構로 召集하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앞서의 呼訴文에서와 같은 反對할만한 條件들이 附隨되어 있었다.

8. 이 두 呼訴는 南韓의 新聞 政黨 그리고 指導者들에 의하여 순전한 宣傳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非難되었다.

이러한 呼訴들의 의도는 1948년 選舉를 反對한 사람들로 하여금 協商에 의한 平和統一의 眞情한 可能性이 있었다고 生覺하게끔 고무함으로써 南韓國會가 보여주고 있던 團結을 깨트려는데 있음이 分明하였다.

9. 한편 委員團은 委員團의 적절한 役割이 北韓이 처음 提議한 重要 政治犯 交換에 있어 南北韓 兩團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仲處하겠다는 데 同意하였다.

6월 10일 委員團은 그러한 交換을 위태롭게 할 어떠한 措置도 取하지 않을 것임을 分明히 하였다.

北韓은 6월 20일 提議된 委員團의 役割을 拒否하였으나 政治犯 交換 節次는 侵入時에 아직 未解決 狀態였다.

10. 最近 수개월동안 大韓民國의 國力이 날로 強化되었음이 分明하였으며 6월 25일 매우 뜻밖의 侵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平和的 手段에 의한 早期統一을 要求한 「라디오」宣傳攻勢는 순전히 宣傳的인 效果를 얻기 위하여 企圖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金日成은 오늘 아침 9시 30분 「라디오」放送에서 南韓이 北韓의 모든 平和統一案을 拒否한 후 곧바로 侵入軍이 海州地域의 38°線을 넘게 함으로써 그의 犯罪行爲은 絶頂에 이르게 하였으며 北軍으로 하여금 反擊을 加하게 하였다는 25일 하오 1時 35분에 있었던 北側의 첫 主張을 되풀이하면서 事態가 烈해지는 結果에 대한 모든 責任은 南韓이 져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12. 같은 放送에서 金日成은 統一을 確保하며 叛逆者를 處罰하기 爲하여……에 대한 主張을 要求하고 南韓에서의 大烈烽煙과 「사보타지」를 요구하였다.

委員團은 어느 모로나 이러한 北韓의 主張이 正當하다는 證據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證據들은 이번 攻擊이 事前에 致密하게 計劃되고 調整되었으며 秘密裡에 開始되었다는 點을 계속 指摘하고 있다.

###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Excerpts)

Seoul, June 26, 1950

The Commission submits following Summary Report on background events preceding twenty-fifth outbreak of hostilities.

1. For the past two year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y violently abusive propaganda, by threatening gestures along the 38th parallel and by encouraging and supporting subversive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d tactics designed to weaken and destro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has been the target for repeated propaganda broadcasts which denied its legality, dubbed it futile, and subjected its individual members to abuse. This campaign has been relentlessly pursued during the past 8 months while the economy of the young Republic remains shaky and the deliberations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have been frequently stormy and critical of the Administration. There have been distinct signs of improvement in recent months i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of the country. In early April the Korean Army and police climaxed a winter offensive against southern Supported guerrillas operating in South Korea by smashing two guerrilla battalions totaling some 600 men soon after their crossing of the parallel. At the same time internal security and domestic morale have been strengthened by suppression of subversive elements.

2. Al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by its radio, propaganda and support of subversive elements endeavoured to prevent the holding of effective general elections on 30 May, these elections which were observed by the Commission were on the whole successfully conducted and in an atmosphere of law and order.
3. This New Assembly succeeded the Republic's First National Assembly, which was elected in May 1948, under the supervision of United Nations unlike the 1948 elections which "middle-of-the-road" parties boycotted for fear that elections in only half Korea would make permanent the artificial barrier at the 38th parallel. All parties except the underground Communists participated in 1950 elections although the two largest parties in the previous Assembly, the Pro-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both suffered heavy losses and the most significant gains were made by these moderate elements which had boycotted the 1948 elections. The New Assembly with some 130 Independents out of a total 210 Members convened on 19 June, 1950 in a hopeful atmosphere conducive to continued progress in the building of an effective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an economically healthy State. The initial sessions have indicated determination to tackle the Administration in a critical spirit for its numerous shortcomings.
4. At the beginning of June the North Korean regime's Pyongyang Radio gave the widest publicity to an article calling for intensification of measures aimed at unifying Korea and on 3 June a communique stated that the signing by 5,300,000 Northerners of an appeal for peace and unification meant that a renewed struggle for national unification was beginning.
5. On 7 June Radio Pyongyang began to broadcast at repeated intervals a letter of Appeal from the Democratic Front for Attainment of Unification of Fatherland to all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in Korea proposing elections throughout Korea following the meeting of a proposed consultative council.
6. The tone of the appeal indicated an ostensible change in the North's previous attitude in spite of such conditions as the exclusion from the Council, as traitors, of nine leader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statement that UNCOK would not be permitted to interfere in the task of unification.

Included among the addresses UNCOK sent a representative across the parallel to receive the text on 10 June and convey personally to three northern representatives the Commission's desire for peaceful unification.

7. The three northern representatives came South next day carrying copies for all but a few of the leading Parties and political personalities of the Republic. They were immediately placed under detention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ho have since tried to induce them to switch sides by showing the facts in the Southern action of detaining "envoys of peace" has been denounced violently by the Northern radio\*. At a hearing the Commission was assured by all three of their good treatment by Southern authorities, of their sincere belief in the good intentions of the Northern regime though admitting their eyes had been opened through direct

- observation to numerous Northern misconceptions of the facts on political personalities of the Republic.....
9. Subsequently, the... letter was replaced by another plan for peaceful unification prepared by the presidium of the Peoples, Supreme Assembly of the Northern regime. This contemplated a procedure which involved the convening of the North and South Assemblies into a single legislative assembly but was accompanied by objectionable conditions similar to those of earlier appeal.
  10. Both appeals have been denounced by the South Korean press, Political parties and leaders as sheer propaganda. An apparent intention of these appeals was to split the unity prevailing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ncouraging those who had opposed the 1948 elections to think there was a real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 by negotiation.
  11. Meanwhile the Commission had agreed to mediate if its good offices were acceptable to both parties in an exchange of important political prisoners originally suggested by the North. On 10 June Commission made clear its unwillingness to jeopardize exchange in any way. Although North Korea rejected on 20 June proposed Commission role arrangements for exchange was still pending at time of invasion.
  12. In the light of the evidently increasing strength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months and utterly unexpected invasion on 25 June the radio propaganda of offensive calling for early unification by peaceful means seems to have been intended solely for its screening effect.

자. 大韓民國 國會가 美國大統領 및 議會에 보낸 書翰 1950. 6. 25

6월 25일 早期를 期하여 北韓共產黨 軍隊는 南韓에 대한 武力侵略을 開始하였다. 貴下 및 美合衆國 下院은 우리 國民이 오늘과 같은 事件을 豫期하여 東方에서 民主主義의 堡壘를 確保하고 世界平和에 公헌하기 위하여 強力한 國防軍을 創設한 事實을 이미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貴下에게 우리들을 解放하고 우리 共和國의 樹立을 위하여 貴下가 준 要緊한 援助에 대하여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勇敢한 戰鬪를 展開하여 가며 이러한 國家의 위기에 當面하여 우리들은 貴下의 加一層의 支持를 呼訴하는 동시에 이러한 世界平和 破壞行爲를 沮止하기 위하여 同時에 有効하고 適時的인 援助를 提供하여 줄 것을 要求한다.

**Message from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June 25, 1950**

[Translaion]

Beginning in the early morning of 25 June th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began armed aggression against the South. Your Excellency and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aware of the fact that our people anticipating an incident such as today's established a strong national defense force in order to secure a bulwark of democracy in the east and to render service to world peace. We again thank you for your indispensable aid in liberating us and in establishing our Republic. As we face this national crisis, putting up a brave fight, we appeal for your increasing support and ask that you at the same time extend effectively and timely aid in order to prevent this act of destruction of world peace.

차. UN韓國委員會가 UN事務總長에게 보낸 報告 1950. 6. 26

北傀軍의 進擊은 위험한 사태를 惹起하고 있으며 事態는 急激히 惡化될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來日 서울에서 일어날 事態를 평가하는 것도 不可能한 狀態에 있다.

委員會는 過去의 經驗과 지금의 事態에 비추어 보아 北傀가 安保理의 決議案에 留意하거나 UN韓國委員會의 業務遂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委員會는 確信한다.

委員會는 安保理가 南北兩當事者가 同意하는 中立的 仲裁者를 초청하여 문제를 협상하도록 하거나 會員國 政府들이 即刻 仲裁措處를 取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考慮하도록 勸告한다.

委員會는 서울에서 待機하기로 決定하였다.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危險로운 作戰들이 數日 內에 끝나고 安保理決議案이 揭出한 休戰과 北傀軍의 撤收問題는 非現實的인 것으로 나타날 危險이 있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Seoul, June 26, 1950

North Korean advances have created dangerous situation with possibilities of rapid deterioration. Impossible to estimate situation which will exist tomorrow in Seoul. In view of Communist's past experience and existing situation Commission convinced North Korea will not heed Council resolution nor accept UNCOK good offices. Suggest have Council give consideration either invitation both parties agree on neutral mediator either to negotiate peace or requesting Member governments undertake immediate mediation.

Commission decided stand by in Seoul. Danger is that critical operations now in progress may end in matter of days and question of cease-fire and withdrawal North Korean forces suggested Council resolution prove academic,

카. 美國 大統領의 聲明 1950. 6. 26

나는 日曜日 저녁 國務, 國防 兩長官의 高位 補佐官 그리고 參謀議長과 大韓民國에 대한 正當한 理由없는 侵略으로 惹起된 極東의 事態를 協議하였다.

美國政府는 UN安保理事會가 迅速히 그리고 決然히 侵入軍의 38°線 以北으로의 撤收를 命命한데 滿足한다.

安保保障理事會 決議에 따라 美國은 이러한 深刻한 平和의 段程을 中止시키려는 安保理의 努力을 熱烈히 支援할 것이다. 北傀軍이 取하고 있는 그러한 不法的인 行動에 대한 美國의 우려와 이러한 事態에서 한국 국민들에 대한 美國의 同情과 支持는 韓國에 있는 美國人들의 協助的인 治勳과 相互防衛 援助計劃 아래에서 提供되고 있는 形態의 援助를 促進하고 增加시키기 위하여 取하여진 措置들에서 示顯하고 있다.

이러한 侵略行爲에 責任이 있는 當事者들은 美國政府가 世界平和에 대한 그와 같은 威脅을 얼마나 深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를 깨달아야 한다.

平和를 지켜야 할 義務를 故意의 度外視하는 것은 UN憲章을 支持하는 國家들로부터 默認될 수 없다.

**Statement by U.S. President Truman, Concerning North Korean Aggression,**

June 26, 1950

I conferred Sunday evening with the 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their senior advisers,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bout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created by unprovoked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pleased with the speed and determination with whic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ed to order a withdrawal of the invading forces to portions north of the 38th parallel.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will vigorously support the effort of the Council to terminate this serious breach of the peace.

Our concern over the lawless action taken by the forces from North Korea, and our sympathy and support for the people of Korea in this situation, are being demonstrated by the cooperative action of American personnel in Korea, as well as by steps taken to expedite and augment assistance of the type being furnished under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Those responsible for this act of aggression must realize how seriousl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views such threats to the peace of the world. Willful disregard of the obligation to keep the peace cannot be tolerated by nations that support the United Nations Charter.

#### 다. 駐 UN美大使가 UN安保理事會에서 행한 發言 1950. 6. 27

오늘 UN創立以後 가장 深刻한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安保理事會는 48時間 前에 召集된 緊急會議에서 北傀軍에 의한 大韓民國에의 武力侵略이 平和를 파괴한 것이라고 決議하였다.

이에 따라 安保理事會는 北傀當局에게 戰鬪을 즉각 中止할 것과 그들의 軍隊를 38°線으로 撤收시킬 것을 促求하였다. 安保理事會는 또한 UN韓委委員團으로 하여금 北傀軍의 撤收를 監視하고 그를 報告할 것을 指示하였다.

安保理事會는 끝으로 UN이 그 決議事項을 執行함에 있어 可能的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 줄 것과 北傀當局을 援助하는 것을 禁止하여 줄 것을 全 會員國에 呼訴하였다.

安保理事會의 決議는 北傀 當局에 放送되었으며 그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今 UN韓委委員團으로부터 우리의 憂慮를 더욱 深刻하게 하여 주는 報告를 받았다. 北傀當局은 安保理事會의 決定을 完全히 무시하고 恣롱하였음이 明白하다.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侵略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實로 國際聯合自體에 대한 攻擊인 것이다.

北傀 當局은 大韓民國 政府에 降服할 것을 要求하였다.

UN과 우리들이 받드는 原則을 이 以上 더 무참히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UN憲章의 가장 重要한 條項은 侵略戰爭을 糾彈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條項을 北傀 當局이 違反한 것이다.

國際平和를 恢復시키기 爲하여 安保理事會는 破嚴한 制裁를 發動할 自明한 義務를 지니고 있다.

大韓民國은 UN에 保護를 呼訴하여 왔다. 本人은 UN의 充實한 會員國인 美國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援助를 提供할 用意가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자랑스럽게 報告드리는 바이다.

本人은 世界平和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措施로서 또 하나의 決議案 草案을 理事會에 提出하였다. 草案內容은 다음과 같다.

『安保理事會는 北傀의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攻擊이 平和를 侵犯하였다고 決議하였으며 戰鬪을 즉각 中止할 것을 促求하였으며 北傀 當局에게 그들의 軍隊를 即却 38°線으로 撤收시킬 것을 促求하였으며 UN韓委委員團으로부터 北傀 當局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그들의 軍隊를 38°線으로 撤收시키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報告받았으며, 또한 國際 平和와 安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軍事的 措施가 시급하게 要請되고 있다는 報告를 받았으며 大韓民國이 平和와 安全을 보장할 效果의인 조치를 즉각 取하여 줄 것을 UN에 呼訴하였음을 감안하여 大韓民國이 武力侵略을 擊退하고 해당 지역에서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하는데 必要的한 援助를 提供하여 줄 것을 모든 UN會員國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本決議案草案은 1950. 6. 25에 開催된 제473차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채택한 北傀의 大韓民國 侵略에 대한 告發에 關한 決議案과 本決議案 序願에서 언급한 그 以後에 發生한 사태에서 歸結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6월 25일에 採擇한 決議案은 全 會員國에게 『UN이 이 決議案을 집행함에 必要한 可能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 줄 것』과 『北傀 當局에 對한 援助를 삼가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다.

새 決議案 草案은 必然적인 그 다음 措處이다. 앞서의 決議가 유린되고 侵略이 계속되고 있으며 軍事의 措處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本決議案 草案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本人은 이제 이 위급한 狀況에 對하여 美國 大統領이 發表한 聲明을 읽어 들어 들이겠다(中略).

決議案 草案과 本人의 發言要旨와 美大統領이 取한 措處의 중요한 點자는 UN의 目的과 原則의 支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권」이다.

### Statement to the Security Council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ustin) June 27, 1950

The United Nations finds itself confronted today with the gravest crisis in its existence. Forty-eight hours ago the Security Council, in emergency meet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rmed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d a breach of the peace. Accordingly, the Security Council called for a cessation of hostilities forthwith and the withdrawal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f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The Security Council also requeste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observe the withdrawal and to report. Finally, the Security Council called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e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broadcast to the Korean authorities and is known to them. We now have before us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which confirms our fears. It is clear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completely disregarded and flitted the div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armed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his is, in fact, an attack on the United Nations itsel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alled upon the establish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to surrender.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more glaring example of disregard for the United Nations and for all the principles which it represents. The mos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Charter are those outlawing aggressive war. It is precisely these provisions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violated.

It is the plain duty of the Security Council to invoke stringent sanctions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The Republic of Korea has appealed to the United Nations for protection. I am happy and proud to repor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as a loyal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to furnis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submitted a draft resolution (S/150S/Rev. 1) which I ask the Council to consider favorably as the next step to restore world peace. Its text is as follows: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for an immediate creation of hostilities; and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This is the logical consequences of the resolution concerning the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473rd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25 June, 1950 and the subsequent events recited in the preamble of this resolution. That resolution of 25 June called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is new draft resolution is the logical next step. Its significance is affected by the violation of the former resolution, the continuation of aggression, and the urgent military measures required.

I wish now to read the statement whic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de today on this critical situation.

(At this point in his statement Mr. Austin quoted verbatim the President's statement printed here as document 9.)

The keynote to the draft resolution and of my statement, and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 taken by the President, is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purposes and principles—in a word: "Peace".

#### 파. 韓國軍 軍事支援에 관한 美國 大統領의 聲明 1950. 6. 27

韓國內의 國境紛爭을 防止하고 國內의 治安維持를 위하여 武裝한 韓國軍이 北傀侵略軍의 攻擊을 받았다.

UN安全保障理事會는 侵略軍에게 即却 戰爭行爲를 中止하고 38°線으로 撤收할 것을 要請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共產侵略軍은 繼續 攻擊을 恣行하였다.

UN安全保障理事會는 이 決議를 執行하기 위하여 UN全會員國에 모든 可能한 援助를 하도록 要請 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本人은 美國의 空軍 및 海軍으로 하여금 韓國軍에게 掩護와 支援을 하도록 命命하였다.

今般 北傀軍의 韓國攻擊은 共產主義가 獨立國家를 征服하기 위하여 그 政府를 顛覆시키려는 事實을 明白히 證明하고 있다.

共產主義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保存하기 위하여 決議한 UN安全保障理事會의 命命에 挑戰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共產軍이 臺灣政府를 占領하게 된다면 그것은 太平洋地域의 安保와 그 地域에서 合法的이며 緊要한 任務를 遂行하고 있는 美軍에 대한 直接的인 危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人은 臺灣에 대한 어떠한 攻擊이라도 이를 阻止토록 美제7艦隊에 命命하였다. 이 措置에 따르는 當然한 일로 本人은 臺灣政府도 中國本土에 대한 空中 또는 海上作戰을 一切 中止하도록 要請 하였으며 제7艦隊가 이를 지켜볼 것이다.

將次 臺灣의 地位決定 與否는 太平洋 地域에서 不安이 거치고 日本과의 平和解決이 이루어지고, 또

한 國際聯合이 考慮할 때까지 期待하여야 한다.

本人은 또한 比律賓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이 增強되고 比律賓政府에 대한 援助가 加速化되도록 命令하였다.

本人은 印度支那의 佛蘭西軍과 聯邦州에 대한 軍事援助의 提供을 促進시키고 軍事使節團을 派遣하여 相互 緊密한 協助를 維持하도록 命令하였다.

本人은 國際聯合의 憲章을 無視한 全般 北傀軍 侵略行爲에 重大性을 UN의 모든 會員國은 注意깊게 檢討할 것을 囑고 있다.

國際關係 問題에 있어서 獨力의 統治로 돌아간다는 것은 絕對 成功하지 못할 것이다. 美國은 繼續 法의 統治를 支持한 것이다.

本人은 美國代表로 安全保障理事會에 나가 있는 Austin大使에게 이와 같은 措置를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 Statement by U.S. President Truman, Regarding U.S. Military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June 27, 1950

In Korea, the Government forces, which were armed to prevent border raids and to preserve internal security, were attacked by invading forces from North Korea.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alled upon the invading troops to cease hostilities and to withdraw to the 38th Parallel. This they have not done but, on the contrary, have pressed the attack. The Security Council called upon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In these circumstances, I have ordered United States air and sea forces to give the Korean Government troops cover and support,

The attack upon Korea makes it plain beyond all doubt that communism has passed beyond the use of subversion to conquer independent nations and will now use armed invasion and war. It has defied the orders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ssued to preserv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occupation of Formosa by Communist forces would be a direct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Pacific area and to United States forces performing their lawful and necessary functions in that area.

Accordingly, I have ordered the Seventh Fleet to prevent any attack on Formosa. As a corollary of this action, I am calling upon the Chinese Government on Formosa to cease all air and sea operations against the mainland. The Seventh Fleet will see that this is done. The determination of the future status of Formosa must await the restoration of security in the Pacific, a peace settlement with Japan, or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I have also directed that United States forces in the Philippines be strengthened and that military assistance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be accelerated.

I have similarly directed acceleration in the furnishing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forces of France and the Associated States in Indochina and the dispatch of a military mission to provide close working relations with those forces.

I know that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ill consider carefully the consequences of this latest aggression in Korea in defianc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return to the rule of force in international affairs would have far-reaching effect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phold the rule of law.

I have instructed Ambassador Austi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Security

Council, to report these steps to the Council.

하. UN安保理事會의 韓國軍事援助에 관한 決議文 1950. 6. 27

安保理事會는 北傀軍隊의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攻撃을 平和의 破壞行爲로 規定하였으며, 北傀當局에게 戰鬥을 즉각 中止하고 그들의 軍隊를 즉시 38°線으로 撤收시킬 것을 促求하였으며,

UN 韓國委員團으로 부터 北傀當局이 戰鬥을 中止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軍事的 措施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事實을 報告받고,

大韓民國이 平和와 安全을 保障할 効果적인 措施를 즉각 취하여줄 것을 UN에 呼籲하였음을 감안하여,

大韓民國이 武力侵略을 격퇴하고 그 地域에서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援助를 提供하여줄 것을 UN會員國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June 27, 1950**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called for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Having called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 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d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거. UN事務總長이 美國務長官에게 보낸 電文 1950. 6. 29

本人은 1950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474차 安保理事會에서 채택한 決議案을 貴 政府에게 轉記시키고자 하는바이다. 同 決議案은 大韓民國이 武力侵略을 擊退하고 그 地域에서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援助를 提供하여줄 것을 國際聯合 會員國에게 권고하고 있다.

貴 政府에서 援助를 提供할 계획이면 援助의 種類에 關하여 本人에게 早速히 回信하여 준다면 決議案을 執行함에 큰 도움이 되겠다.

本人은 貴 政府의 回信을 安保理事會와 大韓民國 政府에 傳達하겠다.

**The Secretary-General to the U.S. Secretary of State. Lake Success, June 29 1950**

I have the honour to call the attention of your government to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74th meeting on 27 June, 1950 which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In the event that your

government is in a position to provide assistance it w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if you were to be so good as to provide me with an early reply as to type of assistance.

I shall transmit the repl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너, UN韓國委員會 團長 署理가 安保理議長에게 보낸 電文 1950. 6. 29.

38°線에서의 軍事紛爭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事態發展에 대하여 報告하기 위하여 UN北地「음서버」들이 6월 9일부터 開始된 38°線 沿邊에서의 現地調査에서 돌아와 6월 24일자 작성한 다음과 같은 報告를 一般 情報로 提出한다.

38°線에서의 一般의인 狀況: UN「음서버」들이 현지 旅行끝에 받은 주요 인상은 韓國軍은 全的으로 防禦를 위하여 編成되어 있으며 北僞軍에 대하여 大規模의인 攻撃을 遂行할 狀態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印象은 다음과 같은 主要 事實을 基擧한 데에 立脚하고 있다.

1. 모든 地域에서 韓國軍은 堅固히 配設되어 있다. 38°線 南쪽은 散在된 陣地들에 위치한 小規模의 兵力들과 移動순찰반이 지키고 있다. 어떠한 地域에서도 攻撃을 위한 軍의 集結은 눈에 띄지 않는다.
2. 여러 地域에서 北僞軍은 38°線 南쪽의 陣地들을 實質的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이중 1개 陣地는 가장 最近에 장악한 것이다. 韓國軍이 北僞軍을 이들의 어느 陣地에서도 몰아내기 위한 措置를 取하거나 準備를 取하였다는 證據는 없다.
3. 상당수의 韓國軍이 東部地域의 산악지대로 浸透하여 들어오는 「게릴라」團을 검거하는데 실제로 參加하고 있다.

이들 「게릴라」團들은 파괴장비를 갖고 있으며 앞서의 境遇보다 더욱 重武裝하고 있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4. 韓國軍의 裝備에 關한 樣甲手段이나 空中支援, 重砲가 없는 가운데 어떠한 軍事的 水準으로 보아도 侵入을 目的으로 하는 如何한 조치도 不可能할 것이다.
5. 韓國 陸軍은 大規模의인 攻撃의 준비로 示唆되는 軍事 및 其他 補給品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前方地域에서 補給品이나 武器를 貯藏하고 있다는 흔적은 없다.

道路는 一般的으로 거의 使用되지 않고 있으며 「게릴라」를 掃蕩하는 데 舍勞하기 위하여 丘陵에서 西쪽으로 가는 4號의 「트럭」護送團을 除外하고는 어느 地域에서도 軍隊集結을 위한 輸送은 目擊되지 않았다.

6. 一般的으로 韓國軍 指揮官들의 태도는 防禦에 열중하는 태도였다. 그들의 命命은 攻撃을 받을 境遇 미리 豫定된 陣地 以上으로는 後退하지 말라는 것이다.
7. 韓國軍이 北쪽에 대하여 어떠한 廣範圍한 偵察을 施行하고 있다는 시사는 없으며 또한 師團司令部나 聯隊級 水準에서 어떠한 不必要한 過熱된 行動도 없어 攻撃活動에 對備하고 있다는 시사는 없다. 「음서버」들은 作戰狀況室을 包含한 여러 師團本部의 어느 地域에도 自由로운 出入이 許用되었다.

8. 「음서버」들은 38°線 北쪽의 事態에 關하여 어떠한 情報들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특별히 力點을 두었다. 一部地域에서는 民間人들이 38°線 北쪽 沿邊의 4Km 내지 8Km 地域에서 最近 撤收되었다고 報告되었다.

斐泮 聯隊本部에서 6월 22일 木曜日밤에 接受된 또 다른 報告는 38°線 北쪽 약 4Km되는 海州 地域에서 軍事活動이 強化되었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北傀軍側이 어떠한 이례적인 活動을 벌여 38°線 沿邊에서의 一般적인 事態의 變化가 臨迫하였다고 示唆하는 報告는 없었다.

**The Acting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June 29, 1950**

Following report dated 24 June from United Nations field observers submitted to Commission on their return from field trip along 38th parallel commencing 9 June to report developments likely to involve military conflict is forwarded for information

"General situation along parallel. Principal impression left with observers after their field trip is that South Korea Army is organized entirely for defense and is in no condition to carry out attack on large scale against forces of North. Impression is based upon following main observations :

1. South Korea Army in all sectors is disposed in depth.

Parallel is guarded on southern side by small bodies troops located in scattered outposts together with roving patrol. There is no concentration of troops and no massing for attack visible at any point.

2. At several points, North Korean forces are in effective possession of salients on south side parallel, occupation in at least one case being of fairly recent date. There is no evidence that South Korean forces have taken any steps for or making any preparation to eject North Korean forces from any of these salients.
3. Preparation of South Korean forces are actively engaged in rounding up guerrilla bands that have infiltrated into the mountainous area in the eastern sectors. It was ascertained that these hands are in possession of demolition equipment and are more heavily armed than on previous occasions.
4. So far as equipment of South Korean forces concerned, in absence of armour, air support, and heavy artillery, any action with objection of invasion would, by any military standards, be impossible.
5. South Korea Army does not appear to be in possession of military or other supplies that would indicate preparation for large-scale attack. In particular, there is no sign of dumping of supplies or ammunition, petrol oil, lubricant, in forward areas. Roads generally are little used and apart from convoy four trucks taking company from Kangnung westward to join rounding up guerrilla band, no concentration transport anywhere encountered
6. In general, attitude of South Korean commanders is one of vigilant defense. Their instructions do not go beyond retirement in case of attack upon previously prepared positions.
7. There is no indication of any extensive reconnaissance being carried out northward by South Korean Army nor of any undue excitement or activity at divisional headquarters or regimental levels to suggest preparation for offensive activity. Observers were freely admitted to all sections various headquarters including operating room.
8. Observers made special point inquiring what information was coming in regarding situation north of parallel. In some sectors it had been reported that civilians had recently been removed from areas adjoining parallel to north to depths varying 4 to 8 kilometers. Another report received during night Thursday 22 June at regimental headquarters Ongjin was to effect that there was increased military activity in vicinity Chuyia about 4 kilometers north.

parallel. No reports, however, have been received of any unusual activity on part of North Korean forces that would indicate any impending change in general situation along parallel.”

더. 駐 UN 美大使가 UN 安保理事會에서 행한 發言 1950. 6. 30

(前略) 소우벨씨가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들의 任務를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한편 自己 政府를 代表 하며 다른 한편 UN이라고 불리는 集團體를 代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適切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本人은 우리의 集團的인 任務에 대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한다.

物質的으로 本人의 몸을 돌로 나누는 것이 不可能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道德的으로는 우리의 제 2의 機能, 즉 우리의 集團의 任務를 強調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UN과 安保理事會의 會員國 代表로서 또한 UN의 한 職員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集團의 任務를 되새기면서 本人은 印度政府가 當面 問題들에 보여준 훌륭한 態度에 대하여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이제 問題들에 대한 印度政府와의 合意가 힘들었으나 結局 合意에 到達하게 되었다. 正義와 平和의 主張이 印度와 같은 偉대한 國家로부터 이와 같은 積極的인 도움을 받아 強化되었다.

本人은 美國 大統領이 今口 午前 白堊館에서 議會 指導者들과 會談을 갖고 韓國事態의 最近 發展을 檢討한 事實을 理事會에 喚起시키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國防長官, 國務長官, 合參議長도 同席하였다. 大統領은 議會指導者들에게 強化된 軍事活動에 관하여 詳細하게 說明하였다.

美國 大統領은 UN 安保理事會가 大韓民國이 北韓 侵略者를 擊退하고 韓國에서 平和를 되찾으려는 일을 支援하여줄것을 要請한 것에 呼應하여 美國 空軍에게 北韓에 配置한 모든 明白한 軍事目標을 作戰上 必要時에는 襲撃할 수 있게 指示하였으며 韓半島의 全 海岸을 封鎖할 것을 美海軍에 命令하였다고 宣稱하였다.

또한 MacArthur 將軍에게 一部 地上軍의 動員을 指示하였다. 이 聲明은 白堊館에서도 發表되었다. 또한 어제 國務長官이 發表한 다음과 같은 聲明을 理事會에 報告하였다.

『美國 大統領은 美國政府가 神聖한 UN 憲章과 國家間의 法을 遵守함에 最善을 다 할 것을 闡明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6월 25일과 6월 27일에 採擇된 安保理事會 決議案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의 軍隊에게 海空軍의 支援을 提供하고 있다. 安保理事會의 決議案에 따라 取한 이 措置는 大韓民國을 北韓으로부터 侵入을 받기 前의 狀態로 회복시키고 그 侵略으로 破壞된 平和를 再建하려는 UN의 目的과 完全히 一致한다. 우리 政府가 韓國에서 取한 行動은 UN의 權威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行動은 太平洋地域에서 平和와 安全을 恢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本人은 美國 當局者들이 UN 韓國委員團에게 任務遂行에 必要한 可能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고 있음을 安保理事會에 報告한다.

UN 韓國委員團은 韓國으로 돌아가고 있다. 韓國委員團의 先發隊는 이미 釜山에 到着하였다. 美國 政府는 韓國 駐在 美國 當局者에게 全 委員이 지체없이 韓國에서 任務를 遂行할 수 있게끔 必要한 施設은 最善을 다하여 提供할 것을 指示하였다.

本人은 UN의 職員 資格으로서 또한 本人이 職位에 赴任한 以來 逢着하고 있는 가장 深刻한 試練에서 UN을 最大로 돕기 위하여 몇 가지 뚜렷한 事實을 記錄하여줄 것을 부탁한다.

그것들은 歷史的인 일이며 아마도 不滅의 것이 될 것이다. 그 態度와 行爲는 우리가 살고 있는 環境에 비추어 評價하여야 옳을 줄 안다.

이 危險한 狀況에서의 뛰어난 行爲는 安保理事會의 會員國과 UN 會員國이 事務總長의 照會에 迅速히 應答한 勇敢한 態度와 行爲를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事實은 이러한 會員國들의 적극적인 態도와 意志에서 우리 나왔다는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態度가 會員國들이 UN의 偉대한 原理에 바친 獻身과 精進 그리고 創意와 理解를 榮光되게 하고 있다.

그들의 行動은 確實히 自發의이었다. 우리가 採擇한 決議案을 따른 行爲는 『진켄코』事務次長이 오늘 우리에게 朗讀한 바로 그 記錄속에 역력히 빛나고 있다. 平和에 대한 이 獻身, 이 犧牲을 바치려는 決心 世界の 平和를 사랑하는 나라들에 의한 集團行動을 온갖 手段으로 妨害하려는 者들과 맞서려는 積極의 意志는 우리 歷史의 이 時期를 빛나게 할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그들이 躊躇하지 않고 自發의으로 取한 行動때문에 기리 榮光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다른 또 하나의 重要な 것을 證明한다. 現在の 狀況은 侵略者와 UN의 對決이라는 것이다. 秩序의 違反, 道德의 유린, 弱少國家를 파괴하려는 試圖과 平和를 사랑하며 自由를 渴望하는 世界國民을 일깨운 것이다. 世界 到處에서 담지한 電文에서 보듯이, 世界 人民들은 그들이 政府를 通하여 地球上의 여러곳에서 集團行動으로써 不可侵의 政治的 獨立과 個人的 自由를 暴力과 不法으로부터 지킨다는 偉대한 原則에 呼應한 것이다.

自由와 名譽와 安全의 怨讐들에 대한 反撥이 世界人民들이 集團行動을 취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平和를 위한 集團的 國際的 努力의 歷史에서 찬란한 一章이 될것이다.

또 한가지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人類의 歷史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重要性을 지니는 것이다. 勿論 그것을 이 行動에 具現시킨 基本原理보다 더 強調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平和를 사랑하는 世界人民들이 強力하고도 明白한 立場을 취하기 위하여 各者의 마음 속과 各國의 政治에 도사린 모든 장애를 극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行動으로 世界人民들은 小心症을 克服하고 技術的인 문제나 高貴한 目的을 達成하려는 UN의 集團行動을 마비시키거나 抹殺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憂慮를 克服한 것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오늘 여기에 作成한 記錄은 빛날 것이며 世界の 어두운 곳에 光明을 던져 줄 것이다.

사실 國際的 協力の 새로운 時代의 黎明이 도래하여 國際協力에 참여한 國家들의 聲望은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결코 白日夢은 아닐 것이다. 世界の 國家들은 오늘 우리가 報告를 받은 바와 같이 신속하고도 너그럽게, 雄大하고도 高尚한 마음을 가지고 集團的 措處에 參與한 것이다(中略) 本人은 이 일이 UN이 取한 集團行動 以上の 相當한 效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本人은 그렇게 되기를 希望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目擊하고 參與한 것의 偉대한 價値는 統一된 輿論의 道德的 힘인바, 그것이 莫逆하여 더 이상 罪를 흘리지 않고 平和를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Statement to the Security Council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Austin June 30, 1950

I appreciate the perception of Mr. Chauvel in saying that we, at this table, have a dual mission and represent, on the one hand, our Government and, on the other, the collective entity called the United Nations. I wish to say a few words about our collective duty. I know it impossible physically to divide myself in two, but it is morally possible to emphasize the second aspect of our function amely, our collective duty.

Speaking as the representative of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ecurity Council and as an offic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aving our collective duty primarily at our heart, I want to express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India for its magnificent response to the questions which could not be communicated to it the other night but which finally reached it. The course



of justice and peace is strengthened by this positive help from a great nation such as India.

I wish to call the Council'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meeting with Congressional leaders at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reviewed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ituation in Korea. The Congressional leaders were given a full review of the intensified military activities.

In keeping with the reques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or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repelling the North Korean invaders and restoring peace in Korea, the President announced that he had authorize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to conduct missions on specific military targets in North Korea wherever militarily necessary and had ordered a naval blockade of the entire Korean coast. Furthermore, General MacArthur had been authorized to use certain supporting ground units. This statement has also been released at the White House.

In addition to this, I desire to inform the Council of the following statement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President has enunciated the policy of this Government to do its utmost to uphold the Sanctity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rule of law among nations. we are, therefore, in conformity with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f 25 June and 27 June, giving air and sea support to the troops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action, pursuant to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Republic of Korea to its status prior to the invasion from the North and of re-establishing the peace broken by that aggression. The action of this government in Korea is taken in support of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aken to restore peace and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I should also like to inform the Security Council that the United States authorities in the Korean area are giving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every assistance in order that it may perform its mission. The Commission is returning to Korea; I am informed that an advance group of the Commission has already arrived in Pusan.

The United States authorities have been requested to make every effort to procure the necessary facilities so that the entire Commission may function in Korea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In my capacity as an offic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order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as best as I can in its most crucial test since I have been in this position, I think it necessary that certain outstanding facts should be placed on record.

They are historical, and probably would not fade from the scene, but it is well for us to characterize these attitudes and these acts in the light of our own vision of the scene and the atmosphere in which we live.

To meet the outstanding elements in this crucial situation are the brave attitudes and deeds not merely of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but of all thos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o have responded so quickly to the inquiry of the Secretary-General.

The reason why these attitudes are important is, I think, that they spring from the positive will of those Members. They glorify the interest, the initiative, the devotion and the consecration of those Members to the great principles for which we are United. Their action is spontaneous to be sure; it appears before us in the brilliant record just read to us today by the Assistant Secretary-General, Mr. Zinchenko, succeeding the resolutions which we passed. This devotion to peace,

deferment to make the sacrifice, positive will to face those who would employ devices of all kinds to prevent collective action by the peace-loving nations of the world, mark this period of our history, and those nations will be surrounded with glory for the action they have taken unhesitatingly, voluntarily and spontaneously.

This proves another significant thing, which is that the present situation is one between an aggressor and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violation of order, it is the trampling upon morality, it is the attempt to destroy small countries that has aroused the world that is the peace-loving freedom-desiring world.

By the communications which we have listened to and by the collective acts in various regions of the globe, the people, through their Governments, have responded to the bugle call of the great principles of non-aggression, political independence, personal freedom and security from violence and lawlessness.

It is the reaction against those deadly foes of freedom honour and security which has made them come together in this great response, which is a laudable chapter in the history of collective international efforts for peace.

Another thing which ought to be marked, I think, although it should not be emphasized ov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are vindicated in the ac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differs somewhat from our past history. It is that the freedom-loving, people of the world have overcome every obstacle that has been erected in their minds or in their politics in order to take this strong, clear and definite position.

By these acts they have overcome timidity, they have overcome the fear that they might perhaps violate some technicality or some strict construction rai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paralysis or even killing coll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to attain its noble purposes. For this reason, the record made here today is luminous and will throw light into the dark places of the world.

In fact, I do not think that it is an extravagant dream to say that the dawn of a new day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resplendent with the galaxy of States which have responded so quickly, so generously, and with such grand sentiments and nobility as those of which we have heard today.

I feel that the occasion may have its substantive effect beyond collective action in the United Nations.

I certainly hope it will, and that, above everything else, the great value of what we are witnessing and participating in today is the moral power of united public opinion, and that may be strong enough to bring peace without more shedding of blood.

#### 러. 大韓民國 外務長官이 UN事務總長에게 보낸 電文 1950. 7. 4

本人은 UN安保理事會가 會員國에게 大韓民國을 원조하여 大韓民國이 當한 不法 侵略을 粉碎케 하라고 要請하여줄 것을 決議하여 준데 대하여 UN과 貴下에게 韓國韓民과 政府가 보내는 심심한 謝意를 傳하는 바이다.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UN會員國들이 韓國에서 侵略을 粉碎하고 平和를 회복하기 위하여 憲章에 따른 名譽로운 任務遂行을 迅速하고도 果敢하게 취하여 준데 대하여 또한 感謝드리는 바이다.

大韓民國의 憲法에 구현된 民主的原則에 따라 自由로히 行動하는 韓國人民들이 合法的으로 選出한 大韓民國政府는 현재 恣行되는 侵略이 除去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嚴肅하게

宣稱하는 바이다. 大韓民國은 UN이 認定하고 後援하여 設立된 民主國家이다. 우리는 韓國國民의 苦難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試練이 우리 自身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UN憲章의 偉大한 精神을 위하여 싸운다는 確信을 갖고 있다.

이 憲章의 精神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야만, 自由國家들과 人民들이 특히 새로 獨立을 얻은 나라들이 自由와 尊嚴성과 平和를 가지고 生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鬪爭이 數億의 다른 世界人民들과 많은 新生國들에게 큰 意義를 갖고 있다는 事實이 우리의 勇氣를 북돋아 주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粉骨碎身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韓國國民에게 더욱 強靱한 마음으로 侵略者와 싸울 것을 呼號하였다. 韓國人民은 그들의 이름울 빌려 侵略者와 갖는 어떠한 不法의 協議도 容納하지 않을 것이며,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憲法의 嚴肅한 任務를 認識하고 現在는 試練에 처하여 있으나 미래에 대한 希望을 갖고 韓國의 平和로운 將來를 위하여 必死의 努力을 바칠것을 명세하며 友邦들이 自由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精神을 위하여 胼胝이 희생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 July 4, 1950**

I have the honour to convey herewith to you and to the United Nations the keen gratitude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of Korea for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alling upon its members to assi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pel a brutal and unwarranted aggression against i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likewise deeply moved by the promptness and vigour with whic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n honourable fulfilment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have acted to repel the aggression and to restore peace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ly chosen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of Korea freely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principles and processes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set up with approval and sponsorship of the United Nations,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lemnly declares that it will unflinchingly carry on the struggle with all the resources at its command until the situation hitherto existing has been removed. We are deeply conscious of the harsh trials through whic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now passing but we share with them the conviction that in this trial we are fighting not for ourselves alone but for the great principles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nly if these principles survive and flourish in the world can free nations and peoples, especially those newly arrived at nations' independence, hope to survive in freedom, dignity and peace.

The knowledge that our struggle is filled with significance for millions of other peoples and many new nations buoys up our courage and stimulates our efforts.

We call upon the people of Korea to renew their resistance to the aggressor with stout heart and furious purpose. No support will be given by the people of Korea to any illegal negotiation with the aggressor undertaken ostensibly in their name and no recognition will be tendered to any such negotiations that may be purported to have been, and recognize the solemn obligations of our constitutional position and filled with confident hope for the future, regardless of present trial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pledges its supreme efforts to the peaceful future of Korea and its unstinted sacrifice to cause in which with a goodly company of nations devoted to freedom we are involved.

## 3. 年 表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6月 1日	<p>○管財總局에서 歸財買收代金 分納規定을 發表.</p> <p>○今日부터 發効한 教育法 第83條에 依하여 全國의 中, 國民學校의 公私立 名稱 撤廢.</p> <p>○選舉參觀 外國記者團 一行 離韓.</p> <p>○義務教育 實施 祝賀式 中央廳廣場에서 舉行.</p> <p>○Johnson美國防長官, 徵兵法 3年 延期를 上院에 要請.</p> <p>○Truman 美大統領 國會에 message—自由諸國에 대한 相互防衛 援助를 擴大.</p> <p>○Truman 美大統領談—今後 5年間 戰爭은 없을 것이다.</p>	6月 4日	○韓日通商協定, 韓國側 認准完了 S.C.A.P에 送付.
6月 2日	<p>○制憲議會 開會式 舉行.</p> <p>○李承晚大統領 記者會談—民國支持者 屢 包攝, 中間派 巨物 當選을 歡迎.</p> <p>○Acheson 美國務長官 上院에서 對極東 繼續 軍援 必要를 強調.</p> <p>○美 新原子彈 및 誘導彈 完成說(A.P)</p>	6月 5日	<p>○UN韓委, 軍事監視班員 配置를 討議</p> <p>○傀儡側의 所謂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放送—祖國平和統一 促進에 關한 基本方針에 合議를 보았다 (韓委報告).</p> <p>○Acheson 美國務長官, 外交委員會에서 韓國援助는 蘇壓力에 對抗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強調.</p>
6月 3日	<p>○對韓經援 增案次 E.C.A. 韓國使節團長 代理 Anderson 華府 向設.</p> <p>○北傀放送, 所謂「祖國平和統一 呼訴文」에 530萬 人民이 署名하였다고 虛偽宣傳(韓委報告)</p> <p>○New York Times紙—韓國選舉 自由 空國氣속에서 實施하였다고 讚揚.</p>	6月 6日	<p>○Lie UN事務總長, UN 各國代表에게 그의 20個年 平和案 內容 傳達, 覺書에 添附한 書翰에서 中國代表 問題 解決이 UN事業 進行에의 緊急問題라고 強調.</p> <p>○UN國際法委員會(於 Geneva)에서 蘇代表 國府代表 參席理由로 退場</p> <p>○Truman 美大統領 美實業家協會 年例總會에서 演說—美經濟力은 世界自由維持를 爲하여 不可缺.</p>
		6月 7日	<p>○平壤 傀儡側 放送 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來 8月 5日~8日 사이에 南北統一 總選舉를 實施할 것.</li> <li>2. 8月 15日 解放 5週年 記念日에 統一最高立法機關을 서울에 召集할 것.</li> <li>3. 위에 대한 準備協議로 南北全民主主義 政黨과 社會團體代表 連席會議을 海州 또는 開城에서 開催할</li> </ol>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6月 8日	<p>것(韓委報告).</p> <p>○MacArthur 元帥—日本共產黨機關紙「赤旗」責任黨員 17名 肅清을 命令.</p> <p>○Marshall, 下院外交委員會에서 該, 共產侵略에 無爲傍觀함은 危險千萬</p> <p>○KMAG 團長 高明—韓國軍은 世界的으로 優秀, 北韓軍 侵入時 防衛可能</p> <p>○申性模國防長官 記者會見談—38°線 守衛, 防衛隊은 義務로 하겠다.</p> <p>○韓日通商金融協定 調印.</p> <p>○平壤 傀儡側, 放送으로 南韓政黨, 社會團體 代表에게 所謂「平和統一呼訴文」을 來 10日 函視驛까지 와서 받도록 招請(政府 九要人과 某政黨을 除外, 但 韓委는 招請名簿에 들어있음)</p> <p>○UN 國府代表—Lie 總長의 「20年 平和案」을 反對.</p> <p>○Acheson 長官—Lie의 「20年 平和案」을 考慮한다고 說明.</p> <p>○Eisenhower 元帥 演說—甚大한 軍費支出은 嚴格한 統制없이는 美國 經濟에 危險한 影響을 준다고 警告.</p>	6月 10日	<p>代表를 磯峴에 派遣할 터이니 會見할 用意가 있는가.</p> <p>○韓委 現地監視班 全 38°線 視察次 서 울出發.</p> <p>○美上院議員 Robert A. Taft(共和)—日本占領 繼續은 不利, 早速 講和 締結을 主張.</p> <p>○美 Truman 大統領—「平和와 自由」의 五原則을 發表.</p> <p>○Muccio 大使, 美國會에 書翰—對韓 繼續 軍援을 強調.</p> <p>○蔡總參謀長 高明—傀儡側 提議는 常套的 宣傳手段이다.</p> <p>○韓委代表(事務局長 代理)—磯峴에서 傀儡代表와 接觸.</p> <p>○上記 傀儡代表 38°線 越南하다가 被逮.</p> <p>○北韓傀儡政權, 突然 放送으로 朝民黨 黨首 曹俊植(北에서 拘禁) 父子와 南勞黨地下工作 指導長 李舟河, 金三龍(共設檢中) 2名과의 交換을 提議.</p> <p>○Truman 美大統領, 美外交政策의 基本 原則을 宣稱—孤立主義는 平和樹立 妨害.</p>
6月 9日	<p>○李承晚 大統領 糧穀政策에 民間協助를 要望(談話發表).</p> <p>○李公報處長—北傀儡 祖國戰線 提案은 5.30 選舉 成功 破壞策動이라고 論駁.</p> <p>○陸軍部隊長 大移動.</p> <p>○金永哲 大領(海軍總參謀長 代理)—北 僞軍 上陸企圖에 海岸警備는 萬全이라고 說明.</p> <p>○韓委 對北放送—北韓人과 接觸할 機會를 얻기 위하여 10日 午前 4時까지</p>	6月 11日	<p>○李政院局長 放送—10日 逮捕한 傀儡 代表를 軍法會議에 廻附한다.</p> <p>○Bradley 美合同參謀議長 東京 向發.</p> <p>○Einstein 博士等 5項目的 軍縮計劃을 發表.</p> <p>○韓委議長 記者會見—傀儡와의 接觸을 說明, 傀儡에서 受諾한 文書는 參考資料로 할 따름이라고.</p>
		6月 12日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6月 13日	<p>○E.C.A. 韓國에 援助費 113萬弗 割當 (炭鐵關係機械 設備 購入費)</p> <p>○英政府 Austria 民政移管을 發表.</p> <p>○蘇聯最高會議 開催..</p> <p>○Acheson長官 對蘇外交演說—蘇挑戰에 北大洋國 強化緊要, 美 平和的 解決 用意.</p> <p>○蘇聯 本年度 豫算 發表(軍事費 794億 ruble—比前年 3億ruble 增加—豫算總 額의 18.5%)</p>	6月 19日	<p>○Johnson 美國務長官, Bradley 合參議 長 東京着.</p> <p>○Einstein博士, 原爆 國際管理 提唱.</p> <p>○第2回 總選舉後 國會 開院式 舉行.</p> <p>○議長에 申賢熙, 副議長에 張澤熙, 吉 奉岩 被選.</p> <p>○Dulles, 美國은 韓國에 均心兩面으로 援助한다고 國會에서 演說.</p> <p>○平壤放送, 傀儡政權 最高人民會議常 任委員會는 南北國會에 의한 統一政 府 樹立을 韓國國會가 同意하던 21日 傀儡國 國會代表를 서울에 보내든지 또는 韓國國會代表를 平壤에 맞이한 用意가 있다고 發表.</p> <p>○美上院合同委, 51年度 對外軍費, 12 億弗을 可決(韓, 比 1,600萬弗).</p>
6月 14日	<p>○Dulles 韓國 向發</p> <p>○西蜀 Brazil 通商 協定</p>	6月 20日	<p>○Nehru 印首相, Lie 總長의 20年 軍組 案을 支持한다고 言明.</p> <p>○濠洲上院 共產黨 非合法化案 否決.</p>
6月 15日	<p>○Roberts准將(KMAG團長) 歸美</p> <p>○逮捕歸順한 傀儡 3代表(李寅奎, 金泰 弘, 金在昌) 三回에 걸쳐 對北放送.</p> <p>○國府, 本上를 爆擊하였다고 發表.</p>	6月 21日	<p>○Dulles 離韓, 東京着.</p> <p>○美上下院 合同委員會, 70周 空軍師團 設置를 可決.</p>
6月 16日	<p>○李大統領 言明—曹煥植氏 交換에 있어 一週日 以內에 無條件  보내준다 一면 李, 金, 兩人을 釋放하겠다고 言 明.</p> <p>○白內務長官—民保團을 解體, 大古에 統合한다고 言明.</p> <p>○UN韓委公報 第24條 發表—滿洲會見 은 平和統一에 關한 韓委團의 希望을 北韓代表에게 私의으로 傳達하고, 만 일 機會가 있다면 最近 委員團이 行 한 對北放送의 寫本을 手交하려는데 있었다.</p>	6月 22日	<p>○政府放送으로 來 24日 國境에서 曹煥 植과 金, 李 交換을 通告.</p> <p>○韓委, 南北人物交換에 關한 公報處發 表—北韓은 本委員團의 中繼를 실어하 는 것 같다. 그러나 本委員團의 調停 이 要講될 때는 언저나 받아들일 用 意가 있다.</p> <p>○Dulles, MacArthur 會談 開始.</p> <p>○Dulles 記者團에게 韓國將來는 가장 有望하다고 言明.</p>
6月 17日	<p>○Dulles 來韓.</p> <p>○政府 南北人物 交換(曹煥植 等)을 韓委에 依頼.</p>		
6月 18日	<p>○Dulles 38°線 親表.</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6月 23日	<p>○李大統領, Dulles에게 正式으로 美防衛計劃에 參加를 要請(23日 INS).</p> <p>○李大統領, 南北人物을 交換하자는 것은 傀儡의 作亂에 不過하다고 聲明.</p> <p>○韓委 現地監視班, 38°線 砲臺로 今夜 서울에 歸着(韓委報告出).</p> <p>○Johnson 美國防長官 離日, 聲明發表.</p> <p>○臺灣은 Acheson長官의 聲明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援助를 希望한다고(臺北 AP).</p> <p>○Acheson 美國務長官 聲明一對北政策은 지난 1月 5日의 Truman 聲明과 變함이 없고 軍事援助를 하지않았다.</p>		<p>至 5萬名, 戰車 約 94臺 復攻開始</p> <p>○敵의 先頭 小部隊 臨津江 渡河南下.</p> <p>○敵 春川을 攻擊, 一方 九龍浦, 蔚珍 江陵, 三陟 및 碧湖 10哩 北쪽地點에 上陸作戰 敢行.</p> <p>○機數不明의 戰機機 拖曳下 敵 浦項地區에도 上陸作戰 敢行.</p> <p>○午後 敵機 서울飛行場 爆擊 燃料貯藏所 火災.</p> <p>○午後 서울上空에 敵機 5臺 出現 機流掃射.</p>
6月 24日	<p>○韓委 現地監視所, UN에 報告一北韓軍은 38°線 南쪽에 有利한 突出地點을 所有하였음에 대하여 南韓軍은 全的으로 防衛를 위하여 編成되어 있을 뿐 何等 北韓軍을 相對로 大規模의인 攻擊을 敢行한 態勢에 있지않다고 指摘.</p> <p>○蘇代表, 日共幹部 追放撤回를 Mac-Arthur 元帥에게 要求.</p> <p>○佛 內閣 總辭退.</p>		<p>政 治</p> <p>○서울— 今夜부터 燈火管制.</p> <p>○國務會議 開催 緊急對策 講究.</p> <p>○申性模 國務總理署理 美國에 武器發助 要請.</p> <p>○國會緊急會議 開催 政府各廳部長도 參席, 同席上에서 李承晚大統領 事態急速 收拾을 強調.</p> <p>○蔡秉德總參謀長 W. H. Wright 大領(軍事顧問團參謀長)과 重要作戰會議.</p> <p>○UN韓委委員團 今夜 放逐으로 北朝鮮에 停戰要求.</p>
6月 25日	<p>軍 事</p> <p>○宋明 北韓傀儡軍 突然 大舉 南侵 38°線 全域에 걸쳐 11處所에서 一齊히 越境侵攻 09.00에 往文津, 開城 青丹에 敵 侵入.</p> <p>○國軍 果敢히 敵을 迎擊</p> <p>○靈津半島의 國軍 戰略上 後退</p> <p>○議政府 北쪽에서 大激戰.</p> <p>○蔡秉德 總參謀長談一敵地上軍 4萬 乃</p>		<p>○Ernest A. Gross 美 UN代表 安保理事會에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可決해 달라고 要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N은 敵의 行動을 停戰에 對한 威脅이라고 規定할 것.</li> <li>2. UN은 雙方에 對하여 直時 武力衝突을 停止하고 敵의 38°線까지 退去를 要請할 것.</li> </ol>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6月 26日	<p>3. UN韓國委員團에 대하여 敵의 38°線까지의 撤退를 監視하고 其 決議 實行에 對하여 其 情勢를 安全保障 理事會에 通告하도록 要求할 것.</p> <p>○UN安全保障理事會一敵의 直時 撤退를 命令 美國決議案 採擇(9:0, 蘇 缺席, Yugoslavia 棄權).</p> <p>○日本 吉田首相 韓國戰爭 現發에 意思 表示 回避.</p> <p>○日本 第7信區 海上保安本部에서 管内 各保安部에 嚴重警戒 命令.</p> <p>○S.C.A.P 韓國에 武器 急速空輸.</p> <p>○MacArthur元帥 蘇聯代表의 日共幹部 追放 撤回要求를 正式 拒否.</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MacArthur 元帥 韓國軍에 Mustang (F-51) 戦闘機 10強 引渡를 發表.</p> <p>○國軍, 全戰線에서 現 陣地固守</p> <p>○國軍, 三陟 上陸 敵軍을 包圍 殲滅戰을 展開.</p> <p>○敵軍 議政府에 侵入</p> <p>○敵軍 汝山 占領</p> <p>○蘇聯軍 將校 敵軍을 指揮, 抱川, 東豆川 方面의 戰車部隊에도 辭兵 多數 搭乘(大韓通信發).</p> <p>○海軍 第701, 第518艇 敵의 1,000噸級 輸送船을 東海岸에서 擊沈.</p> <p>○敵機 2臺 金浦飛行場 再爆擊.</p> <p>○敵機 汝矣島飛行場 再爆擊.</p> <p>○서울 上空에서 空中戰, 美 Mustang (F-51) 機 1臺가 蘇製 YAK戰鬥機와 交戰</p>	6月 27日	<p>○敵軍 慶津半島를 占領, 國軍 第17聯隊 海上으로 組織的 後退.</p> <p>○敵軍 江陵으로 進擊</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在韓, 美, 英 婦女子 總退去.</p> <p>○蔣介石中國總統 李大統領에 電文發送 共同反共의 立場을 取하여 韓國政府를 絕對支持, 應援할 것을 表示.</p> <p>○MacArthur元帥 日本政府에 共產黨紙 「赤旗」 停刊指令(東京 26日, U.P 每日發).</p> <p>○日本 海上保安廳, 韓國避難船에 對備하여 沿岸 巡視強化.</p> <p>○美 Truman大統領 吾明一援助目的의 達成과 韓國의 獨立 存續을 確信한다고 또한 美措置를 安保理事會 各國이 支持할 것이라고 所信 披露.</p> <p>○美議會 兩院 5,000萬弗 韓國 追加援助案을 可決.</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極東美海空軍 38°線 以南에서 國軍擁護戰鬪中.</p> <p>○武器 및 軍需物資는 航空, 船舶으로 輸送中.</p> <p>○總司令部 前方指揮所(ADCOM) 韓國에 設置.</p> <p>○敵軍 奉日川에서 擊戰 占領.</p> <p>○美機 敵部隊 攻擊.</p> <p>○議政府地區一敵軍 議政府를 通過 서울에 進迫中.</p> <p>○敵 春川 占領, 昭陽江 渡河.</p> <p>○在文津·江陵地區一敵軍 江陵을 占領</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敵軍 約 1個師團 江陵에서 南下中.</p> <p>○美戰闘機 1臺 蘇製 YAK機 1臺을 金浦飛行場 上空에서 擊墜.</p> <p>○敵軍 仁川港附近에 上陸企圖.</p> <p>○北韓에 總動員令(Voroshilov放送).</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23.00 李大統領 特別放送—美國의 積極的인 軍事援助가 있을 터이니 國民은 總壓起 叛亂分子를 退治하여야 한다고 言明.</p> <p>○政府, 大田으로 移動.</p> <p>○美國 UN에 敵制裁(韓國에 武力援助) 命令을 發하기를 要請.</p> <p>○美國提案(軍事制裁)을 可決(贊成 7, 反 1, 棄權 2)</p> <p>○比律賓軍 警戒態勢 突入.</p> <p>○Truman 大統領, 美軍總司令官으로서 美海空軍에 對하여 韓國 空襲 防衛를 命令.</p> <p>○Truman 大統領 聲明發表—韓國의 動亂은 共產勢力이 獨立國 征服을 爲하여 이미 地下運動의 段階를 넘어 武裝侵入을 敢行함이 明白하다.</p> <p>○美國務省 發表—MacArthur元帥를 韓國作戰의 最高司令官에 任命.</p> <p>○美國 覺悟로 敵의 撤退를 辭職에 要請.</p> <p>○美國 在韓 美國人의 檢退를 命令.</p>		<p>原에 設置.</p> <p>○金浦飛行場 地區에서 彼我 激戰.</p> <p>○敵機 水原飛行場을 爆擊.</p> <p>○美機 F80型 戰闘機 및 B26型 爆擊機 500挺의 爆彈을 搭載 任務遂行.</p> <p>○美空軍 敵戰車部隊 및 兵力을 爆擊.</p> <p>○美軍 jet戰闘機 80臺 直接戰闘에 參加.</p> <p>○國軍 02.30 漢江人道橋 및 鐵橋를 爆破.</p> <p>○國軍 陸軍本部를 水原에 移動.</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非常時法令 公布式, 特別에 關한 令, 非常事態下 犯罪處罰 特別措置令 및 預金等 支拂特別措置令 公布.</p> <p>○香港 統治中の 美驅逐艦, 潛水艦等 出動.</p> <p>○Attlee英首相, 日本水城 英艦隊를 美國 指揮下에 編入키로 言明.</p> <p>○比律賓, 韓國에 派兵用意가 있음을 UN에 通告.</p> <p>○漳州 以共戰線을 爲하여 近爆擊機 1 隊中隊를 馬來에 派遣키로 決定.</p> <p>○極東水域의 英國艦隊 美指揮下에 行動.</p> <p>○美國 共和黨幹部 Robert A. Taft 上院議員 今次 韓國戰爭의 勃發은 美極東政策의 失敗라고 糾彈하여 Dean Acheson 國務長官의 辭任을 要求.</p> <p>○美海軍當局, 美第7艦隊 臺灣海峽에서 作戰中이라고 發表.</p> <p>○美 Arthur W. Radford 太平洋艦隊司</p>
<p>6月 28日</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早朝 國軍 漢江 南岸으로 後退</p> <p>○早朝 敵軍 서울市內에 侵入 開始.</p> <p>○美機 水原에 集結 美軍前方指揮所 水</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司令官 美機動隊 殆半을 極東方面에 出動하도록 命令.</p> <p>○美海軍代辯人談一美軍武力行使 範圍는 38°線以南에 限한다고.</p> <p>○加奈陀 外相 UN의 努力을 支持한다고 演說.</p> <p>○英國 前首相 Winston Churchill 韓國 戰爭에 對한 美軍의 出動은 第3次大戰을 制止한다고 聲明.</p> <p>○駐美佛大使 Bonnet 聲明一佛國 UN 韓國援助案을 全의 支持한다고 聲明.</p> <p>○莫府放送一美國의 韓國事件에 對한 態度는 侵略이라고 非難(巴里 28日 UP).</p>		<p>○日本水城의 濠洲艦隊 美軍指揮下에 編入.</p> <p>○美國上院, 歲出委員會一韓國에 對하여 經濟援助로 1億弗 支出可決.</p> <p>○駐韓 美軍事顧問團長에 機動隊의 權威者 John H. Church 准將 新任.</p> <p>○蘇聯 西伯林에 送電을 中止.</p> <p>○白耳義 對韓援助를 UN에 通告.</p> <p>○蘇聯 韓國에 對한 美國의 要請을 拒否.</p>
6月 29日	<b>軍 事</b>	6月 30日	<b>軍 事</b>
	<p>○國軍 敵의 南進을 阻止코자 美空軍과 의 緊密한 連絡下에 漢江을 사이에 두고 反擊을 開始.</p> <p>○MacArthur 元帥 韓國戰線 視察</p> <p>○B29 爆擊機 平壤을 처음 爆擊.</p> <p>○美航空母艦 韓國海峽에서 敵 上陸을 警戒.</p> <p>○美海軍部隊 北韓 東西兩쪽에서 艦砲 射擊.</p> <p>○美 B29 爆擊機 38°線 一帶에 걸쳐 侵入中의 敵을 猛爆擊.</p> <p>○美情報處(G-2) 釜山에 設置豫定.</p>		<p>○美步兵部隊 空輸.</p> <p>○美地上軍部隊 4萬 前線出動(MacArthur 司令部直轄部隊 3萬, 在日本 機甲師團 1萬).</p> <p>○Truman 大統領 全韓國海岸 封鎖를 命令.</p> <p>○MacArthur 元帥 美空軍에게 38°線을 넘어 北韓基地를 攻擊할 것을 命令.</p> <p>○敵軍 서울西南쪽의 防禦線을 突破 漢江渡河 戰車部隊 南下.</p> <p>○洪川失陷</p> <p>○美軍 前線指揮所 水原에서 大田으로 移動.</p> <p>○B29 爆擊機 漢江沿岸의 鐵戰車, 船舶 道路 및 交通部隊를 爆擊.</p> <p>○美空軍 平壤을 爆擊.</p> <p>○美空軍 敵飛行機 20臺를 擊墜.</p> <p>○美空軍 서울 爆擊.</p>
	<b>政 治</b>		<p>○美空軍 38°線을 越境 敵空軍基地를 爆擊하겠으나 滿洲에 越境않는다고 發表.</p>
	<p>○安全保障理事會 트디어 機能發揮, 敵 南侵에 對抗하는 國軍을 援助하도록 世界各國에 要請할 것을 決定.</p> <p>○印度政府, UN對韓決議를 支持.</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李大統領, MacArthur 元帥와 會談— MacArthur 元帥 全面的 援助를 確 約.</p> <p>○總參謀長 蔡秉德少將 更迭, 後任에 丁 一權 准將.</p> <p>○約 500名의 學生, 水原에서 非常學徒 隊를 組織.</p> <p>○仁川刑務所, 脫獄事件 發生.</p> <p>○今日 現在 UN安全保障理事會의 對韓 武力援助決議案에 支持表明國 32個國 —美 21個國 英, 加, 澳, New Zealand, 印度, Parkistan, 比律賓, 國府, 白耳義, 希臘, 土耳其.</p> <p>○SCAP制 報道 Almond 少將이 Mac Arthur 元帥의 38°線 停止說을 否定.</p> <p>○毛澤東, 美의 韓國戰爭 介入은 理致에 달치 않는다고 談話.</p> <p>○UN決議에 따라 陸海空軍 韓國戰爭에 參加키로 決定.</p> <p>○Truman 大統領 陸海空軍에 重大公告</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大統領, 國務, 國防長官 및 合同參 謀議長, 國會指導者들과 會談 完全 合意.</li> <li>2. UN安全保障理事會의 要請에 따라 美空軍의 必要에 應하여 北韓 諸般 軍事目標은 攻擊한 것.</li> <li>3. 海軍은 全韓國海岸을 封鎖한 것.</li> <li>4. MacArthur 元帥에게 數個地上部 隊의 使用을 許可.</li> </ol> <p>○美上院本會議, 總額이 3億 2,400萬弗 韓國援助費 制當.</p>	7月 1日	<p>○美 反共諸國에 對한 軍事援助法案 可 決(總額 12億 2,250萬弗)</p> <p>○Truman 大統領 選拔徵兵法의 1年延 期 法案 署名.</p> <p>○待機中の 美極東軍 12萬 3,500名.</p> <p>○英極東艦隊 이미 作戰에 參加 行動中 (桑港 1日 Reuter)</p> <p>○英國 蘇聯에 韓國事態 解決에 協力을 要請(London 1日 UP).</p> <p>○波蘭, 美國의 韓國戰爭 介入을 抗議.</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韓國에 上陸한 最初의 美軍, 日下 戰 線에서 急進戰中.</p> <p>○美第24步兵師團長 William F. Dean 少將, 韓國派遺 全美軍總司令部에 任 命.</p> <p>○UN 軍總司令部 前方指揮所 司令官 John H. Church准將 總司令部 高級 連絡將校로서 William F. Dean 少將 의 司令部付 勤務.</p> <p>○傀儡政權—南韓古領地域에 政治工作 員 1,000名 以上을 蔭聯式的 組織과 土地改革을 宣傳하기 爲하여 派遺.</p> <p>○敵軍 金浦 占領.</p> <p>○美憲隊 三等附近 敵 據點을 砲擊.</p> <p>○美陸·海·空 三軍代辯人 發表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韓國東海岸에 對한 封鎖, 英海軍 協力下에 續行.</li> <li>2. 地上部隊 日本에서 飛行機 船隻等 에 依하여 釜山에 輸送.</li> <li>3. 美本國으로부터 近間 機動部隊 回 旋.</li> </ol>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 2日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UN事務局 發表—UN韓國委員會 東京과 韓國에 併置.</p> <p>○UN印度代表, 韓國의 平和的 解決을 爲하여 美蘇會談을 提議.</p> <p>○中華民國政府, 按韓軍派遣(地上部隊 3個師團, 飛行機 20臺)을 UN安全保障理事會에 提議했으나 謝絶됨.</p> <p>○美國各紙, 韓國戰爭에 美陸海空軍 出擊을 全的支持.</p> <p>○韓國戰爭의 作戰指導에 있어서 蘇側의 指導者는 Molotov 副首相說(華府 AP).</p> <p>○Dulles 極東視察歸任 第一聲—敵侵入은 國際共產戰略에 依據 韓國의 最後勝利를 確信.</p> <p>○韓國水域에 高船出入 禁止.</p> <p>○蘇軍과 東獨警察 伯林近郊에 集結.</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美地上軍部隊 前線에 急速展開, 4日頃에는 戰鬪開始 豫定.</p> <p>○敵軍 水原 東쪽 10km의 龍仁, 占據.</p> <p>○敵軍 楊平 原州를 占據.</p> <p>○蔚珍上陸의 敵擊破, 慶北 盈德郡 白岩山에서 戰鬪.</p> <p>○大田에 到着한 美軍 露點確保를 目的으로 大田 北쪽에 前進.</p> <p>○敵海軍力—兵力 約 5,000名 500艘의 艦艇 約 50隻.</p> <p>○浦項 海兵隊, 蔚珍에서 敵搜索隊를 擊退.</p> <p>○美空軍 北韓上空에 傳單 撒布.</p>	7月 3日	<p>○美爆擊機 및 戰鬪機 各地에서 敵軍의 集結部隊, 浮橋, 輸送隊, 倉庫 등을 猛爆擊.</p> <p>○B29 連浦飛行場 爆擊, 繼續 平壤 爆擊.</p> <p>○美空軍 142回 出擊.</p> <p>○敵空軍勢力 約 100臺 乃至 150臺.</p> <p>○敵貨物車輛破壞 10輛 戰車破壞, 機關車破壞.</p> <p>○韓國東海岸에서 美英海軍艦隊, 敵 水雷艇 5隻 擊沈.</p> <p>○週間戰果—6月 25日 以後 2日까지 敵機를 18臺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韓委 一委員 및 Lie UN事務總長 特使 Alfred Cashin 日本, 韓國向發.</p> <p>○UN의 韓接決議案 支持國家 今日現在 36個國.</p> <p>○E.C.A 對韓援助物資 急送(食糧, 石油).</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前線의 美軍에게 自製的 補給計劃 樹立 星條旗 配布準備 完了.</p> <p>○駐韓美軍司令部는 極東美總司令部下의 重要司令部로서 公武으로 設置되고, 同司令部는 極東軍總司令部 直屬으로시 活動, William F. Dean 少將이 司令官에 任命됨.</p> <p>○釜山에 基地司令部가 美極東司令部下에 設置되고 司令官은 Grump Garvin 准將.</p> <p>○3日 現在 美英艦隊 韓國 南西兩海岸</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월 4日	<p>에서 作戰任務中.</p> <p>○日本으로부터 兵員 彈藥 資材輸送은 終日 無事리 進捗.</p> <p>○江華 水路를 警備中인 我艦502隻艇, 敵艦(40噸級, 軍人滿載) 4隻을 擊沈.</p> <p>○B29 金浦飛行場 繼續爆擊.</p> <p>○B26, F80 F82機 서울地區 銃爆擊.</p> <p>○平壤 夜間爆擊.</p> <p>○陸軍本部 平澤으로 移轉.</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東京에 殘留하는 最少限度의 連絡員을 除外한 UN韓委 全員 大日向發.</p> <p>○今日 現在까지 韓援支持 41個國.</p> <p>○蔣總統, 韓國戰爭의 挑發者는 蘇聯이라고 痛駁.</p> <p>○中共軍 20萬 佛印國境에 移動中(香港 3日 UP).</p> <p>○印度, Lie 事務總長에게 對韓國軍援 用意을 通告.</p> <p>○Truman 美大統領 3日 軍首腦者와 會談.</p> <p>○西獨首相, 韓國戰爭의 新事態에 應하여 美, 英, 佛等 三國에 西獨의 安全保障을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b>軍 事</b></p> <p>○敵軍 水原 占領.</p> <p>○MacArthur 元帥 UN軍司令官에 任命豫定.</p> <p>○美軍前線司令部發表—</p> <p>1. 戰車를 先頭로 한 2萬 5,000의 敵 南下態勢를 取하고 集結中.</p>		<p>2. 美軍과 敵軍과의 正面接觸은 아직 없음.</p> <p>○敵軍 仁川 占領.</p> <p>○美제7艦隊, 3日~4日에 걸쳐 韓國東海岸에서(三陟~注文津間) 敵艦艇 7隻을 擊沈.</p> <p>○今日 正午까지 24時間 美·空兩空軍이 139回 出擊.</p> <p>○陸軍本部 大田으로 移轉.</p> <p>○金日成, 傀儡軍總司令官에 被任(平壤 放逐).</p> <p style="text-align: center;"><b>政 治</b></p> <p>○21. 30 李大統領 國民에게 告하는 特別放送.</p> <p>○UN調查團, UN事務總長의 特使 Alfred Cashin大領을 隊長으로 하여 韓國에 向하는 途中 4日 東京着.</p> <p>○印度, 美蘇兩國에 對하여 韓國戰爭에 對한 仲裁用意 表明.</p> <p>○印支의 佛軍事顧問團, 美·佛極東軍事首腦部 會議參席次 首露坡着.</p> <p>○美國各界輿論—38°線 以北 進擊說 濃厚.</p> <p>○加奈陀政府, 韓國에 空軍과 驅逐艦 2隻 派遣豫定.</p> <p>○美海軍의 韓國海岸封鎖를 公式으로 聲明에 通告.</p> <p>○和蘭 韓國海域에 作戰參加次 驅逐艦 出動을 命令.</p> <p>○Andrei Gromyko 蘇副外相, 美軍의 韓國撤退를 要求하는 聲明發表.</p>

※ 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A.D.C.O.M, General Headquarters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 4. 戰 歿 者 名 單

<陸 軍>

육군본부 국방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정 보 부	대 령	10203	許 龍 正	50. 6. 30		전 사
	대 위	10870	姜 英 秀	7. 1		"
	중 령	11529	權 錫 壽	50. 6. 30	始 興	"
	대 위	11838	林 健 錄	7. 4		"
	"	12530	朴 鉉 九	6. 28	漢 江	"
	소 령	12557	崔 信 旭	7. 1	水 登 浦	"
	대 위	13459	權 宗 福	6. 25		"
정 보 국	"	13513	嚴 龍 昇	6. 28		"
	중 위	14065	金 麟 瑞	6. 30	始 興	"
	"	14197	孫 泰 龍	6. 28		"
정 보 부	"	15190	金 興 龍	"	서 울	신 중
	"	15198	金 燦 泰	6. 26	東 豆 川	전 사
	"	15635	金 殷 七	7. 2	漢 江	"
	중 령	15705	權 宗 世	6. 27		"
정 보 부 신방부	중 위	16314	朴 元 哲	"	서 울	"
	중 령	10741	安 榮 作	6. 29	金 浦	"
신방부	준 장	10068	金 賢 深	50. 6. 28	서 울	"

수도경비사령부

본 중	소 령	10492	金 陽 洪	50. 6. 27		전 사
"	중 령	10504	李 義 明	"	水 色	"
"	대 위	10512	金 炳 烈	"		"
"	소 령	10740	金 恒 均	7. 3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본 중	소 령	10919	申 榮 浩	6.28	漢 江	전 사
"	중 령	11464	朴 燕 頌	"	西 水 庫	"
"	대 위	11882	徐 峯 虎	6.29	德 亭	"
"	중 위	11883	韓 昌 東	6.26		"
"	"	12067	薛 東 煥	"		"
"	"	12296	李 春 吉	"		"
"	"	12931	尹 正 鉉	6.25		"
"	대 위	13242	盧 七 木	6.26		"
"	"	13573	金 吉 孝	"		"
"	"	14277	李 濟 鉉	6.25	德 亭	"
"	중 위	14362	鄭 彥 燮	6.26		"
"	소 령	14829	鄭 松 模	6.28	西 水 庫	"
"	중 위	15666	張 興 俊	6.27		"
의 무 대	"	16394	朴 鉉 圭	6.26		실 중
"	"	16427	辛 俊 鎬	6.29		전 사
동 신	"	16674	洪 滿	"		"
본 중	중 령	10310	李 基 星	6.28		"
동 신	대 위	13051	李 明 烈	7. 3	始 興	"

제 1 사단 사령부

본 중	소 령	10761	宋 昌 德	50. 6.28	汶 山	전 사
"	"	11285	盧 在 麟	"		"
공병대대	중 령	11654	張 治 殷	6.25	奉 日 川	"
본 중	대 위	11750	康 基 錫	7. 1	京 畿 · 廣 州	"
"	"	12856	朴 筍 鎭	6.27	城 東	"
"	중 령	13157	吳 禮 澤	6.29	陵 谷	"
"	대 위	13235	沈 弘 植	6.26	鷲 梁 津	"
공병대대	"	13241	金 處 洙	7. 2	永 登 浦	"
포병대대	"	13337	朴 錫 圭	6.26	汶 山	"
"	중 위	13603	權 弘 逸	6.27		"
본 중	"	13678	金 鍾 衡	6.28	奉 日 川	실 중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본 중 포병사	중 위	13998	咸 德 熙	6. 25	서 울	실 종 전 사
	"	14227	桂 永 鮮	6. 26		"
"	대 위	14258	郭 麟 熙	7. 4	奉 日 川	"
"	"	14510	金 在 善	6. 25		"
공병대대	"	14735	成 鍾 熊	6. 26	奉 平 澤	"
본 중	"	15026	宋 喜 善	7. 4		"
"	중 위	15038	具 德 會	6. 26	陵 谷 山	실 종 전 사
본 중	"	15132	金 洪 柱	6. 28		"
"	"	15681	朴 應 洙	6. 27	陵 汶 谷 山	"
"	"	15697	金 永 錄	6. 28		"
"	"	15832	金 順 坤	"	陵 汶 谷 山	"
"	"	16556	元 氣 燮	"		"
"	대 위	14761	金 泳 晰	6. 27	陵 汶 谷 山	"
포병대대	중 위	16150	權 寧 在	6. 28		"

제 2 사단 사령부

본 중	중 령	10320	金 茂 秀	50. 7. 4	水 原	전 사
"	"	11590	宋 淵 巖	6. 25		"
"	대 위	11856	吳 珍 正	6. 27	彌 阿 里	"
본 중	대 위	12000	李 光 承	6. 27		"
"	"	15056	金 銀 燮	6. 28	彌 阿 里	"
의 부 대	중 위	15061	李 基 俊	6. 27		실 종 전 사
"	"	15252	李 起 榮	"		"

제 3 사단 사령부

본 중	중 위	13578	張 仁 杓	50. 6. 28	安 養	전 사
"	대 위	12157	丁 海 云	7. 2		"

제 5 사단 사령부

본 중	중 령	10326	徐 慶 澤	50. 6. 27		전 사
-----	-----	-------	-------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본 중	대 위	11861	鄭 錫 奎	6. 29		전 사
"	중 위	13804	安 文 濟	6. 28		실 종
"	"	14753	韓 貴 昆	7. 5		"
"	대 위	14844	安 仁 道	6. 28	서 울	전 사
"	중 위	15689	金 南 相	6. 25		"

제 6 사단 사령부

중 위	12192	朴 基 海	50. 6. 27	永 登 浦	전 사
"	14563	洪 昌 益	6. 29	洪 川	"

제 7 사단 사령부

본 중	대 령	10122	李 暎 奎	50. 7. 4		전 사
"	중 령	10474	朴 萬 千	6. 28		"
"	소 령	10960	崔 政 殷	6. 27	서 울	"
"	"	11489	李 命 求	7. 4		"
"	"	11567	張 基 淳	7. 3		"
"	대 위	11851	金 一 鉉	6. 26	東 豆 川	"
"	"	11881	金 泰 鍾	6. 25		"
"	소 령	12416	黃 大 建	6. 27		"
"	대 위	12497	趙 京 鎬	6. 25		"
"	"	13230	李 應 顥	6. 27		"
"	"	13235	沈 弘 植	6. 26	汶 山	"
"	"	13499	金 東 模	6. 28		"
"	중 위	14402	裴 怡 光	6. 27		"
"	"	14723	明 魯 郁	6. 25	東 豆 川	"
"	대 위	14899	玄 吉 秀	7. 4	東 安 養	"
"	중 위	14961	李 英 求	6. 25		"
"	"	16154	鄭 錫 範	"	東 豆 川	"
"	"	16168	朴 沅 植	6. 28		"
"	"	16393	金 泰 湜	"		"
"	"	16675	李 榮 熙	7. 3		"

제 8 사단 사령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본 중	소 령	11368	洪 涯	50. 6. 27		전 사
"	"	11426	金 千 奉	6. 25		"
"	"	11610	金 燦 湖	6. 26		"
"	중 위	12114	崔 榮 翔	6. 29		"
"	"	13648	宋 興 燮	6. 27	敦 岩 洞	"
"	"	14126	姜 煥 榮	6. 29		"
공병대대	"	14665	崔 洙 鍊	7. 4	原 安 州	"
본 중	"	15442	申 正 雄	7. 2	安 東	"
"	"	15443	睦 榮 起	6. 25		"
"	"	15511	金 大 奎	"		"
"	"	16103	朴 泰 奎	7. 3		"
"	"	14750	金 昌 文	"		"
"	"	16159	金 炯 福	6. 26		"

기갑연대

	소 령	10717	朴 吉 龍	50. 7. 4	始 興	전 사
	"	10965	姜 文 德	7. 4		"
	"	11284	白 善 福	6. 27		"
	"	13498	金 一 錄	7. 4	金 浦	"
	중 위	15264	崔 泳 華	7. 4	果 川	"
	"	16201	金 貞 雲	7. 4	富 平	"
	"	16203	朴 英 秀	7. 4	金 浦	"

제1연대

	준 장	10050	咸 俊 鎬	50. 6. 27	牛 耳 洞	전 사
	대 령	10238	崔 秀 昌	7. 3	西 水 庫	"
	중 령	10845	朴 元 在	6. 26	德 亭	"
	소 령	10940	金 鳳 龍	"	東 豆 川	"
	대 위	11173	李 相 圭	6. 25		"
	"	11242	李 基 衡	6. 26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소 령	11272	鄭 龍 珠	6. 26		전 사
	대 위	11356	崔 春 楨	6. 27	議 政 府	"
	소 령	11579	金 正 春	7. 2	鸞 梁 津	"
	대 위	11855	李 位 徹	6. 26	德 亭	"
	"	11941	金 聖 九	"	"	"
	"	12049	金 鍾 旭	7. 1	鸞 梁 津	"
	중 위	12084	金 基 深	7. 4	鸞 梁 津	"
	"	12295	李 鍾 麟	6. 26	東 豆 川	"
	"	12694	洪 性 潤	6. 28	金 浦	"
	"	12763	金 永 昌	6. 26	東 豆 川	"
	대 위	12905	李 販 範	6. 25	"	"
	"	13150	梁 暎 根	6. 26	開 城	"
	"	13471	柳 成 洙	"		"
	중 위	13557	金 大 衡	6. 25	議 政 府	"
	대 위	13574	金 崙 石	6. 26	東 豆 川	"
	중 위	13579	車 鐵 厚	6. 25	議 政 府	"
	대 위	13598	韓 詰 煥	6. 28	東 豆 川	"
	중 위	13617	盧 賢 明	6. 28	"	"
	"	13640	孫 三 甲	6. 27	"	"
	"	13643	車 永 熏	"	"	"
	대 위	13682	朴 呂 一	6. 26	"	"
	"	13772	朴 英 徹	"	"	"
	중 위	13775	俞 聖 載	6. 25	"	"
	"	13818	洪 在 義	7. 2	鸞 梁 津	"
	"	13882	金 在 奎	6. 26	德 亭	"
	"	13884	咸 仁 散	"	東 豆 川	"
	"	13959	宋 大 榮	"	"	"
	"	13985	劉 賢 基	"	"	"
	"	14015	林 鍾 珣	"	"	"
	"	14186	朴 聖 龍	"	"	"
	"	14224	禹 九 鉉	"	"	"
	"	14343	袁 華 濬	6. 2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대 위	14428	李 丙 民	6.26	"	"
	중 위	14629	方 起 元	"	"	"
	"	14649	李 時 旭	"	"	"
	"	14910	盧 衡 宗	7. 5	"	"
	대 위	14924	宋 炳 敦	6.26	東 豆 川	"
	"	14933	金 鉉 培	6.27	"	"
	중 위	15351	朴 哲 淳	6.25	東 豆 川	"
	"	15427	金 熙 寬	"	"	"
	"	15843	林 基 成	6.27	"	"
	"	15844	林 錫 萬	6.29	서 울	"
	"	15854	金 福 龍	6.27	"	"
	"	15906	吳 榮 助	6.26	"	"
	"	15909	金 泳 泳	"	"	"
	"	15910	梁 泰 龍	6.25	"	"
	"	15979	金 東 澤	6.27	"	"
	"	15980	金 漢 均	"	"	"
	대 위	16400	盧 時 協	6.25	"	"
	중 위	16637	金 黠 源	6.26	"	"
	"	16654	金 一 萬	"	"	"

제2연대

	중 령	10304	崔 萬 植	50. 6.25		전 사
	소 령	10879	金 相 鍵	6.28	白 隱 里	"
	중 위	12962	金 麟 深	6.30		신 종
	"	13531	徐 文 珍	6.29		전 사
	대 위	13764	朴 永 夏	"	합 亭	"
	중 위	14455	金 大 楨	"	白 隱 洞	"
	"	14467	金 世 浩	6.27		"
	"	15737	崔 瑄 瑄	6.26		"

## 제3연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중 령	10193	鄭 正 淳	50. 6. 28		전 사
	소 령	10750	金 時 坤	6. 25		"
	"	11596	崔 鐵	7. 1		"
	중 위	12080	沈 在 文	6. 25		"
	"	13659	金 鳳 文	"		"
	"	13911	丁 奎 星	"		"
	"	14077	李 英 求	"		"
	대 위	14274	崔 文 洙	"		"
	"	14286	崔 仁 淳	"		"
	"	14405	曹 圭 恩	"		"
	"	14434	金 時 梧	"		"
	"	14437	姜 烈 甲	"		"
	중 위	14438	卓 有 三	6. 28		"
	"	14627	金 麟 準	6. 25		"
	"	15871	崔 大 成	"		"
	"	15917	林 基 南	"		"
	중 위	15937	朴 仁 圭	50. 6. 25		전 사
	대 위	13728	梁 明 奎	7. 2		"
	"	14899	玄 吉 秀	7. 4		"

## 제5연대

	대 위	12423	俞 晚 根	50. 7. 3	水 原	전 사
	"	12559	洪 夏 均	6. 26	議 政 廳	"
	"	12684	盧 在 眞	6. 25		"
	중 위	12766	白 雄 三	6. 25		"
	소 령	13143	尹 大 沃	6. 26	議 政 廳	"
	중 위	13787	崔 秀 吉	6. 27		실 종
	"	15519	張 晉 均	6. 25		전 사
	"	15935	黃 淑 化	6. 27		"
	"	15993	金 潤 聖	"	彌 阿 里	"
	"	16049	金 承 坤	6. 28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16056	吳 德 福	6. 27	東 豆 川	"
	"	16265	李 海 景	"	"	"

제7연대

	중 령	10533	金 順 基	50. 6. 26		전 사
	중 위	12029	洪 長 杓	6. 25		"
	"	12120	李 東 興	"	春 川	"
	대 위	13484	黃 源 達	6. 28		"
	중 위	13939	金 燦 肇	6. 30	洪 川	"
	"	14628	朴 定 烈	6. 28		"
	"	14631	崔 奇 澤	"		"
	"	16104	徐 權 得	"		"

제8연대

	대 위	11539	朴 英 振	50. 6. 25		전 사
	소 령	11696	李 春 澤	"		"
	대 위	12778	趙 勇	50. 6. 29	閔 慶	전 사
	중 위	13931	張 斗 哲	6. 25		"
	"	14170	沈 民 澤	7. 4		"
	"	14539	金 正 讚	6. 25		"
	"	15870	辛 點 默	"		"
	"	16669	金 聖 煥	7. 4		"
	중 령	10268	李 哲 源	7. 2		"

제9연대

	중 령	10404	田 舜 基	50. 6. 26		전 사
	대 위	11795	李 仁 鎬	6. 25		"
	중 위	13771	金 華 燮	6. 26		실 종
	"	10932	琴 江 錫	6. 28		전 사
	"	13937	朴 長 吉	6. 26		"
	"	14079	金 炳 玉	6. 25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대 위	14097	吳 斗 三	"		"
	중 위	14640	丁 慶 榮	6.26		"
	"	15947	郭 仁 洙	6.29	淸 州	"
	"	16309	文 鍾 尙	7. 3	水 原	"
	"	16437	張 元 淳	6.27		"

## 제10연대

	중 위	11239	任 進 模	50. 6.27		전 사
	대 위	12822	鄭 眞 連	"		"
	"	13926	鄭 求 精	7. 1	丹 陽	"
	중 위	15872	李 寅 洙	7. 4		"
	"	15973	姜 田 德	6.26		"
	"	16120	李 慶 麟	7. 3		실 중
	"	16318	李 丁 模	6.28		전 사
	"	16441	金 世 康	7. 3		"
	"	16482	鄭 旺 燮	6.25		실 중

## 제11연대

	중 령	10165	裒 雲 龍	50. 7. 1		전 사
	"	10556	鄭 俊 哲	6.29	彌 阿 里	"
	소 령	11254	車 載 敦	6.26	議 政 府	"
	"	11646	朴 基 德	"	"	"
	대 위	11697	趙 一 潤	6.29	金 議 浦	"
	소 령	11817	金 泉 雲	"	議 政 府	불 명
	중 위	11935	金 嘉 永	6.28	議 政 府	실 중
	"	12093	金 明 中	6.30	富 川	전 사
	"	12101	李 宗 根	"	廣 州	"
	"	12657	朴 鍾 源	6.28	奉 口 川	"
	"	13581	金 成 煥	"	"	"
	"	13644	鄭 元 朝	"	"	"
	"	13791	朴 相 運	6.29	"	"
	"	13846	俞 東 根	6.28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진사일자	진 사 장 소	구 분
	"	13864	袁 相 天	"	"	실 증
	대 위	13910	崔 光 鉛	6. 27	汶 山	전 사
	중 위	14004	朴 長 夏	6. 28	奉 日 川	"
	"	14016	徐 光 烈	6. 26		"
	"	14018	李 泰 龍	6. 28		실 증
	"	14125	羅 在 甲	7. 4	果 川	전 사
	"	14230	李 東 灣	6. 27	讓 政 府	"
	"	14252	朱 允 成	6. 28		"
	"	14307	金 俊 基	6. 25	彌 阿 里	"
	"	14311	許 貞 碩	6. 28		"
	"	14347	金 相 甲	6. 25	開 城	"
	대 위	14449	申 尉 鉉	6. 26	奉 日 川	"
	중 위	14527	姜 錫 泰	6. 28	서 울	"
	"	14682	金 昌 龍	6. 30		"
	대 위	14938	高 寧 培	6. 27	函 阿 里	"
	중 위	15829	趙 炳 浩	6. 25		"
	"	15930	鄭 吉 龍	6. 26	讓 政 府	"
	중 위	15983	宋 興 範	6. 28		전 사
	"	15986	林 龍 傑	6. 26		"
	"	16005	金 成 弼	7. 4		"
	"	16033	韓 興 燮	6. 25		"
	"	16109	鄭 龍 珠	6. 26	汶 山	"
	"	16124	朴 玉 厚	6. 28		실 증
	"	16617	方 基 永	6. 26		전 사
	"	200624	羅 璵 淳	7. 4		"

## 제12연대

소 령	10933	吳 炳 鎬	50. 6. 25	開 城	전 사
대 위	11169	鄭 憲 容	6. 26	東 豆 川	"
소 령	11339	尹 昌 奎	6. 27		"
대 위	11404	金 昌 德	7. 2	霧 梁 津	"
"	11925	金 漢 利	6. 29	水 登 浦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11942	金 向 七	7. 1	鶯 梁 津	"
	중 위	12056	朴 天	6. 27		"
	"	12138	朴 源 浚	6. 25	開 城	"
	"	12706	朴 基 恒	6. 27		"
	"	13834	吳 基 俊	6. 25	延 開 安 城	"
	"	13987	李 相 亨	"	開	"
	"	14151	辛 祥 坤	"	"	"
	"	14360	鄭 世 植	7. 4	平 澤	"
	"	14391	李 鶴 春	6. 25	開 城	실 종
	"	15570	朴 東 均	7. 3	永 登 浦	전 사
	"	15797	李 鍾 弼	6. 25	開 城	"
	"	15940	卓 永 珪	7. 1	鎮 川	"
	"	15977	趙 鑄 出	6. 25	開 城	"
	"	15997	奇 世 三	7. 2	장 단 坡	"
	"	16070	金 淵 贊	6. 25	開 城	"
	"	16078	劉 春 顏	7. 1	鎮 川	"
	중 위	16108	劉 南 頌	6. 25		전 사
	"	16473	李 炳 林	7. 2		"
	"	16645	全 煥 俊	6. 25		"

## 제13연대

	중 령	10442	崔 禮 仲	50. 6. 27		실 종
	소 령	11236	劉 範 哲	6. 25		전 사
	대 위	11502	成 東 成	7. 2		"
	중 위	12061	康 利 永	6. 25		"
	"	12155	李 承 煥	"		"
	"	13412	許 奎 滿	6. 28	凌 谷	"
	"	13462	李 基 俊	"	"	"
	"	13520	金 洛 洪	"	"	실 종
	"	13569	金 般 仁	6. 27		전 사
	"	13806	曠 昌 世	6. 28		"
	"	13980	任 仁 洪	"	陵 谷	실 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13981	吉 桑 度	"	"	전 사
	"	14031	金 周 明	"	"	"
	"	14064	朴 春 郢	6.26		"
대 위		14244	延 在 權	6.28		"
중 위		14313	張 基 赫	"	陵 谷	"
"		14331	張 鎭 浩	"	陵 谷	"
"		14433	金 濟 曉	7. 1	水 色	실 종
대 위		14464	申 英 淳	6.28		전 사
"		14471	金 石 基	7. 1		"
중 위		14497	尹 觀 河	6.28	陵 谷	실 종
"		15129	金 肇	"	"	전 사
"		15199	梁 仁 錫	"	"	"
"		15440	方 二 明	6.29		"
"		15754	金 庚 濟	6.28	陵 谷	"
"		15851	林 炳 毅	7. 1	水 原	"
"		15908	柳 勳 雄	6.28	汶 山	"
중 위		16115	金 世 雄	50. 7. 1	陵 谷	전 사
"		14283	崔 健 元	"	"	실 종
"		16435	尹 致 鉉	6.28		"

제15연대

대 령		10224	金 振 權	50. 7. 3	水 原	전 사
소 령		10973	李 普 道	6.28	汶 山	"
"		11118	朴 鍾 錫	6.27	"	"
"		11249	裴 益 成	7. 1	梧 柳 洞	"
"		11326	金 淳 泰	6.27	彌 阿 里	"
"		11331	金 圭 泰	6.25		"
대 위		11827	金 東 潤	7. 1	始 興	"
"		11918	鄭 然 武	6.27	汶 山	"
"		11940	梁 清 谷	7. 1		"
중 위		12254	張 京 中	6.27	汶 山	"
대 위		12511	朴 載 華	6.28	陵 谷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12834	朴 關 雄	"	汶 山	"
	중 위	13566	徐 泰 烈	6. 26		"
	대 위	13672	朴 應 植	6. 30	塘 梁 津	"
	소 령	13722	李 泰 鏞	7. 2		"
	중 위	13797	金 永 洙	7. 2	塘 梁 津	"
	"	13920	朴 秉 周	6. 29	渡 谷	"
	"	13995	金 精 潤	"	"	"
	대 위	14098	金 時 永	6. 30	塘 梁 津	"
	중 위	14319	李 河 蓮	"	"	"
	대 위	14328	李 然 室	7. 2	"	"
	소 령	14846	洪 承 範	7. 3	水 原	"
	중 위	15875	張 應 基	6. 25		"
	"	15941	孟 尙 勳	7. 1		"

## 제 16연대

	중 위	14124	李 清 龍	50. 6. 28	서 울	전 사
	"	14157	金 仁 壽	6. 25		"
	"	14351	朱 東 哲	6. 27		"
	"	15573	金 馨 哲	"		"
	"	15830	崔 基 鉉	"		실 종
	"	15984	金 榮 烈	"	議 政 府	"

## 제 17연대

	중 령	10469	金 麟 泰	50. 6. 25	臺 津	전 사
	대 위	12935	金 教 錫	"	臺 津	"
	중 위	13612	林 炳 轉	"	"	"
	대 위	14027	金 有 熙	6. 25	"	"
	중 위	14396	金 赫 洙	6. 25	"	"
	대 위	14416	李 存 滿	"	"	"
	"	14417	吳 潤 根	7. 3	烏 山	"
	중 위	14607	趙 鍾 植	6. 25	臺 津	"
	대 위	15748	沈 應 澤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중 위	15831	趙 育 河	"	"	"
	"	14281	韓 鎭 煥	"	"	신 중
	"	13928	安 奇 俊	"	"	"
	대 위	13928	李 泰 一	"	"	"

제18연대

	소 령	10728	金 基 行	50. 6. 28	漢 江	전 사
	"	11024	黃 宗 彬	6. 29	永 登 浦	"
	"	11212	金 福 經	"		"
	대 위	11778	元 洽 男	7. 3		"
	"	11779	李 鍾 河	"	金 浦	"
	"	12701	李 圭 大	6. 28		"
	"	12958	李 秀 峯	"		"
	대 위	13463	方 龍 乙	"	清 涼 里	전 사
	중 위	13599	宋 雲 錫	6. 26		신 중
	"	13694	金 得 琺	"		"
	"	14073	黃 寅 範	7. 3	永 登 浦	전 사
	"	14225	黃 河 益	6. 26		"
	대 위	14445	趙 炳 旭	7. 3	梧 柳 洞	"
	"	14544	田 在 明	6. 28		"
	소 령	14863	張 富 億	6. 26		"
	대 위	14871	宋 濟 勳	6. 28		"
	중 위	14906	李 春 奎	6. 26		신 중
	"	15531	林 鍾 奭	6. 27		전 사
	"	15588	秦 必 昌	6. 29	서 梧 洞	"
	"	15863	權 赫 宇	7. 3	梧 柳 洞	"
	"	16026	金 永 祿	6. 29		"
	"	16129	朴 翼 布	6. 27	金 浦	신 중
	대 위	10819	朴 載 殷	6. 25		전 사

## 제19연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대 위	11859	朴 明 福	50. 7. 2	利 川	전 사
	중 위	12083	宋 在 春	6. 29	洪 川	"
	대 위	12633	成 炳 萬	"	"	"
	"	12661	李 中 漢	7. 2	利 川	"
	"	13081	李 龍 植	7. 3	臨 州	"
	"	13692	成 復 根	6. 27	春 川	"
	중 위	14604	韓 永 權	7. 3	春 羅 州	"
	대 위	15229	李 東 稟	7. 2	利 川	"
	"	15515	白 洪 寅	6. 25	洪 川	"
	중 위	15815	朴 春 熙	"		"
	"	14284	李 時 煥	6. 29		"

## 제20연대

	대 위	11273	成 鶴 益	50. 6. 25		전 사
	중 위	12072	朴 淑 淸	6. 27		"
	"	14136	金 涼 寬	"		"
	"	16473	李 炳 林	7. 2	鳴 梁 津	"

## 제21연대

	중 위	12785	朴 斗 吉	50. 6. 29		전 사
	"	14127	林 仁 田	6. 27	漢 江	"
	대 위	14565	金 福 源	6. 30		"
	중 위	16013	李 邦 薰	6. 26		"
	"	16066	李 尙 德	7. 1	漢 江	"
	"	16097	田 炳 現	6. 30	城 山	"

## 제22연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소 장	10119	禹 炳 玉	50. 6. 29	金 浦	전 사
	중 령	10209	朴 南 福	7. 3	水 原	" "
	"	10229	申 冕 浩	6. 29	金 浦	" "
	소 령	11354	朴 景 道	7. 3		" "
	중 위	13192	朴 壯 熙	6. 29		" "
	"	13668	安 炳 表	"		" "
	"	13992	李 聖 丘	6. 25		" "
	"	14342	金 性 範	6. 29		" "
	"	14444	李 炳 春	"		" "
	"	15543	姜 基 炯	"	金 浦	" "
	"	15551	李 泰 榮	"	" "	" "
	"	15878	金 燦 奎	"	" "	" "
	"	16057	李 大 植	"		" "
	"	16223	李 會 均	"	龍 山	" "
	"	16487	尹 東 熙	"		" "

## 제23연대

	중 위	16012	姜 英 日	50. 7. 3	浦 項	" "
--	-----	-------	-------	----------	-----	-----

## 제25연대

	대 위	10128	柳 明 愚	50. 6. 25		전 사
	중 령	10535	南 永 熙	"		" "
	"	11546	高 東 晰	7. 4	廣 州	" "
	중 위	14095	李 光 浩	6. 25		" "
	"	14499	裴 世 民	"		" "
	"	15196	金 明 振	"		" "
	"	15998	申 京 雨	"		" "
	"	16045	白 璣 基	"		" "

## 헌병사령부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헌 병 사	중 령	10896	車 永 祥	50. 6. 29	漢 江	전 사
"	대 위	10930	田 容 穆	6. 28	"	"
헌병학교	중 위	12555	曹 相 玉	"		실 종
헌 병 사	"	12679	吳 昌 秀	"	서 울	"
"	"	12823	梁 仁 生	"	漢 江	"
헌병학교	대 위	14773	廉 光 洙	"		전 사
헌 병 사	중 위	14796	金 利 哲	"		실 종
"	"	16412	康 大 玄	"	서 울	전 사
"	중 령	10493	金 洪 柱	7. 2		"

## 사관학교

육 사	소 령	10851	金 哲 深	50. 6. 29	汶 山	전 사
"	"	11076	金 潤 澤	6. 30	金 谷	"
"	"	11177	李 鍾 學	6. 25		"
"	중 령	11520	金 德 潤	6. 29	汶 山	"
"	중 위	12100	金 甲 洙	"		"
"	"	12844	金 鎮 斗	"		"
"	"	13509	李 憲 英	"		"
"	"	15786	金 廷 成	"	汶 山	실 종
"	"	15791	鄭 漢 教	"	"	"
육 사	중 위	15792	全 承 鐵	50. 7. 2		전 사
"	"	15795	玄 俊 燮	6. 29		"
"	"	15996	梁 成 裕	6. 26		"
"	소 위	17112	林 斗 喆	6. 28	漢 江	"
"	"	17107	袁 基 文	6. 28	"	"
"	"	17108	權 東 贊	6. 28		실 종

## 보병학교

보 교	중 령	10421	張 泳 文	50. 6. 29	金 浦	전 사
"	소 령	11316	申 寶 喆	6. 25		"
"	대 위	11698	崔 永 俊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	11792	金 貞 鎭	6. 29	凌 谷	"
"	중 위	12223	柳 祥 慶	6. 25		"
"	소 령	12421	金 判 煜	6. 27	彌 阿 里	"
"	중 위	12918	李 相 奉	"		"
"	"	13611	韓 京 哲	6. 25		"
"	"	14325	鄭 寅 贊	"		"
"	"	14897	崔 麟 錫	"		"
"	"	15618	金 河 普	"		"
"	"	15798	崔 圭 南	"		"
"	"	15845	金 東 奎	6. 27	汶 山	"
"	"	16035	全 炯 宣	6. 29		"
"	"	16042	趙 南 杓	6. 26	東 豆 川	"
"	"	16086	申 國 鉉	6. 27		"
"	소 위	17150	金 瑚 敬	6. 26		"
"	"	17118	金 洛 鍾	6. 28	奉 日 川	"
"	"	17140	李 允 宰	6. 26		"
"	"	17152	安 相 叔	6. 27		"
"	"	17196	朴 亨 滿	6. 28	汶 山	"
"	"	17207	梁 在 慶	6. 25	"	"
"	"	17312	金 容 燦	6. 27		"
보 교	소 위	17611	申 喆 秀	6. 26	秦 陵	전 사
"	"	17630	鄭 一 龍	6. 26	"	"
"	"	17633	具 康 春	"	"	"
"	"	17638	權 景 兌	"	"	"
"	"	17646	朴 炯 瑞	7. 4	水 原	"
"	"	17647	姜 周 龍	7. 2	露 梁 津	"
"	"	17636	崔 志 炯	6. 26	秦 陵	"

포병학교

포 교	소 령	10500	金 基 會	50. 6. 25		전 사
"	"	11092	蔣 世 豐	6. 26	議 政 尉	"
"	중 령	11645	金 豐 益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소 령	12428	李 璣 洙	6. 28	漢 江	"
"	대 위	12650	裴 奉 天	6. 26		"
"	"	12923	金 際 基	6. 25		"
"	"	12984	車 昌 駿	7. 2		"
"	"	12988	康 哲 植	6. 28	汶 山	"
"	"	12989	卍 南 植	"	"	"
"	"	13261	姜 錫 圭	"		"
"	"	13635	李 河 憲	6. 27	議 政 府	"
"	중 위	14746	孔 泰 興	6. 28		"
"	대 위	14760	李 禮 燦	6. 28	서 울	"
"	"	14761	金 泳 晰	6. 27		"
"	"	14763	李 河 默	6. 28	汶 山	"
"	중 위	14020	申 基 成	7. 3		"

참모학교, 병참학교, 정보학교

참모학교	소 령	10025	尹 炳 皓	50. 6. 25	開 城	실 중 전 사
"	준 장	10048	鄭 萬 基	6. 30		"
"	소 령	10834	李 鍾 琦	7. 3		"
"	"	11519	張 始 榮	6. 29	서 울	"
"	"	13212	金 鎬 櫟	6. 27		"
병참학교	소 령	10847	吉 東 淳	50. 6. 25		전 사
육군정보학교	대 령	11541	崔 福 株	6. 29		"
제59육군병원	대 위	13855	林 憲 達	6. 28		실 중 전 사
육군원호대	대 위	15371	金 守 宗	6. 25		"

독립 제2대대, 제1병참대대 및 1공병단, 51통신대대

독립 제2대대	소 령	10528	金 廣 勇	50. 6. 29		실 중 전 사
영동포화원	대 위	13571	咸 均	50. 7. 4	水 原	"
1 병참대대	중 령	10331	張 希 俊	50. 7. 2		"
1공병단	대 위	12085	梁 秀 郷	50. 6. 29		전 사
공병학교	중 위	12164	金 栢 均	6. 26		"
"	대 위	12341	高 判 坤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1공병단	"	13255	張 正 衡	7. 1		"
육군피복창	"	13343	金 永 燮	6. 26		"
1공병단	"	13503	李 澤 洙	6. 29		"
공병학교	"	15257	李 在 九	6. 28		실 종
1공병단	"	15696	金 佑 進	6. 30		전 사
제51통신대대	중 위	13862	朴 基 陽	6. 28		전 사
"	"	16609	金 在 英	6. 29		실 종

청년방위대, 고문단, 특별부대 및 기타

고 문 단	소 령	10321	李 龍 晉	50. 6. 25		전 사
청년방위대	"	11047	宋 璣 洙	6. 25		"
"	중 령	13174	李 鎰 永	6. 28		"
특별부대	소 령	10815	韓 奎 濬	7. 2	利 川	"
전남평성부	"	12457	金 奉 錫	6. 29	汶 山	"
특별부대	중 위	12740	朴 潤 圭	6. 25	江 陵	"
야전제무대	중 령	12268	崔 鄉 燮	6. 30		"
대구수비대	대 위	13518	吳 世 權	6. 28		"
보국대대	중 위	16279	朴 商 說	7. 2	金 谷	"
경북병사	중 위	13895	車 在 奎	7. 4		"

기 타

	소 위	227044	黃 丙 浩	50. 7. 4		전 사
	"	227113	林 權 道	6. 28		"
	"	227114	任 秉 乙	6. 25		"
	"	227115	朴 贊 雄	6. 25		"
	"	227116	金 基 鎬	"		"
	"	227132	高 泰 相	"		"
	"	227133	崔 龍 王	"		"
	"	227134	許 觀	"		"
	"	227135	金 東 岩	"		"
	"	227136	張 致 雲	"		"
	"	227137	李 龍 溶	6. 25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소 위	227138	宋 鉉 彩			"
	"	227139	柳 東 振			"
	"	227140	崔 常 彦	6. 25		"
	"	227141	吳 德 文			"
	"	227142	曹 千 煥	6. 25		"
	"	227143	吳 鉉 暉	"		"
	"	227144	沈 宣 憲	"		"
	"	227145	方 正 男	6. 28		"
	"	227146	尹 正 洙	6. 25		"
	"	227147	張 時 燦	"		"
	"	227148	朴 重 緒	"		"
	"	227259	韓 慶 錫	"		"
	"	227260	崔 正 薰	"		"
	"	227261	孫 聖 容	6. 25		"
	"	227262	盧 容 植	"		"
	"	227263	李 天 慶	50. 6. 25		"
	"	227264	安 性 熙	"		"
	"	227265	金 虎 珍	"		"
	"	227266	梁 喆 鉉	"		"
	"	227267	金 昌 悅	"		"
	"	227639	李 仁 珪	6. 26		"
	"	227640	朴 權 榮	6. 25		"
	"	227641	金 在 哲	"		"
	"	227642	李 商 根	"		"
	"	227643	趙 榮 鉉	6. 26		"
	"	227644	權 東 哲	"		"
	"	227645	朴 春 祥	"		"
	"	227648	金 相 珍	"		"
	"	227861	朱 鼎 錫	"		"
	"	227862	金 昌 洙	6. 27		"
	"	227863	成 用 壽	"		"
	"	228934	韓 正 錫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	228935	李 相 玉	6. 28		전 사
	"	228936	李 世 根	"		"
	"	229214	全 以 珪	6. 29		"
	"	229223	吳 準 泳	6. 27		"
	"	229224	李 一 凡	"		"
	"	229225	金 熙 鶴	6. 25		"
	"	229759	金 榮 漢	6. 26		"
	"	229760	金 滿 煥	"		"
	"	230171	韓 仁 洙	6. 25		"
	"	230202	李 斗 燮	"		"
	"	230203	金 炳 大	"		"
	준 위	300030	俞 鳳 燮	7. 2		"
	"	300039	朱 鼎 鈞	6. 25		"
	"	300117	金 達 默	"	臨 津 江	"
	"	300234	嚴 在 元	"	開 城	실 증 전 사
	준 위	300236	홍 장 선	50. 6. 27		전 사
	"	300045	成 用 壽	6. 27		전 사
	"	300063	申 基 鉉	"		"
	"	300188	朴 勳 瑞	7. 4		"
	"	303145	孫 炳 鉉	6. 25		"

<海 軍>

JMS 305정	대 위	80345	鄭 甲 元	50. 6. 29	竹 邊 近 海	전 사
JMS 305정	중 위	80715	朴 容 善	"	"	"
海軍本部	소 위	80674	金 景 筠	6. 25	경 기 처 구	"

<空 軍>

비 행 단	준 장	50003	李 根 哲	50. 7. 4	始 興 上 空	전 사
"	대 위	50087	趙 明 錫	6. 30	楊 花 上 空	"
"	소 위	50246	李 慶 福	"	漢 江 上 空	"
"	소 위	50247	金 聖 欽	"	楊 花 上 空	"

## 5. 索引

## 人 名 索 引

- (7)
- |     |                                   |
|-----|-----------------------------------|
| 甘以龍 | 884                               |
| 姜 健 | 175                               |
| 康樞輝 | 205                               |
| 康大鏞 | 800                               |
| 姜大馨 | 830                               |
| 姜大煥 | 219                               |
| 姜文奉 | 534, 544, 551, 605, 711, 748, 534 |
| 姜文憲 | 600, 681                          |
| 姜聲部 | 642                               |
| 姜承鎬 | 254                               |
| 姜信明 | 605                               |
| 康永傑 | 721                               |
| 姜英勳 | 394, 545, 595, 602                |
| 姜毓焯 | 365, 703, 734                     |
| 姜隱德 | 473, 475                          |
| 姜應燮 | 526                               |
| 姜應高 | 194, 203                          |
| 康益善 | 816                               |
| 康昌祚 | 515                               |
| 姜昌鎮 | 428                               |
| 姜太武 | 115                               |
| 姜泰敬 | 113, 682, 748, 762                |
| 姜泰奉 | 356, 503, 533                     |
| 姜泰鎮 | 700                               |
| 姜鎬倫 | 83, 822                           |
| 景允鎬 | 195, 212, 226                     |
| 桂仁珠 | 660, 700                          |
| 桂昌律 | 592                               |
| 高根弘 | 192, 199, 216, 304                |
| 高光道 | 366                               |
| 高吉勳 | 829, 837                          |
| 高東晰 | 377, 592, 743                     |
| 高林鉉 | 392, 447                          |
| 高白圭 | 500, 519, 524, 540, 703, 759      |
| 高相河 | 829, 835                          |
| 高性九 | 835                               |
| 高時福 | 258                               |
| 高永哲 | 812                               |
| 高龍出 | 478                               |
| 高元增 | 559                               |
| 高漢祚 | 932, 397, 428                     |
| 高周爽 | 651                               |
| 孔國鎮 | 502, 513, 551, 598                |
| 郭尚勳 | 620                               |
| 郭聖範 | 467                               |
| 郭應哲 | 672                               |
| 郭貞煥 | 484                               |
| 具永淑 | 68, 611                           |
| 具鎬書 | 623                               |
| 具滋正 | 633                               |
| 鞠碩祚 | 369                               |
| 權禎植 | 739                               |
| 權正龍 | 477, 480                          |
| 權 駿 | 113                               |
| 權重熙 | 821                               |
| 權興洙 | 482                               |
| 吉慶福 | 850                               |
| 金慶麟 | 685                               |
| 金京布 | 733                               |
| 金桂元 | 228, 373, 500, 506, 515           |
| 金冠五 | 193                               |
| 金光淳 | 660                               |
| 金光植 | 835                               |
| 金光哲 | 235                               |
| 金光海 | 727                               |
| 金光俠 | 160, 244, 262, 501, 708           |
| 金教錫 | 475, 485                          |

- |     |                    |     |                                   |
|-----|--------------------|-----|-----------------------------------|
| 金 九 | 51, 60             | 金白一 | 287, 380, 394, 550, 598, 713, 832 |
| 金國柱 | 519, 524           | 金炳吉 | 592                               |
| 金奎植 | 51, 66, 664        | 金炳魯 | 627                               |
| 金圭徽 | 811, 816           | 金炳三 | 607                               |
| 金根燦 | 599                | 金炳淵 | 68                                |
| 金根好 | 286, 291, 313      | 金秉鍾 | 317, 384, 501, 741                |
| 金基榮 | 720                | 金秉鎮 | 271                               |
| 金基虎 | 240                | 金秉鎭 | 835                               |
| 金南植 | 619                | 金秉化 | 356, 503, 607, 755                |
| 金浴泉 | 830                | 金炳徽 | 112, 374, 500, 549, 718, 735      |
| 金達三 | 161, 386, 835      | 金福經 | 519, 524                          |
| 金大成 | 733                | 金奉禎 | 408                               |
| 金德寶 | 612                | 金奉教 | 536                               |
| 金德俊 | 448                | 金鳳翔 | 316, 389, 549, 703                |
| 金度演 | 68                 | 金鳳龍 | 362                               |
| 金東根 | 461, 474           | 金奉才 | 602                               |
| 金東石 | 470                | 金鳳俊 | 365, 519, 523                     |
| 金東成 | 68                 | 金鳳喆 | 311                               |
| 金東元 | 536                | 金鳳出 | 783                               |
| 金東允 | 835                | 金思賢 | 266                               |
| 金同曾 | 194, 216, 236      | 金三萬 | 477, 732                          |
| 金東俊 | 733                | 金三龍 | 572, 638                          |
| 金東河 | 830, 836           | 金相道 | 711, 782                          |
| 金東華 | 471                | 金相德 | 542, 732                          |
| 金斗萬 | 806                | 金祥玉 | 720, 734                          |
| 金科奉 | 60                 | 金相龍 | 244                               |
| 金斗烈 | 413                | 金尙龍 | 244, 254                          |
| 金斗用 | 841                | 金尙七 | 729                               |
| 金斗儀 | 488, 491           | 金相鶴 | 811, 816                          |
| 金斗逸 | 305, 311           | 金尙吳 | 193                               |
| 金斗燦 | 772, 782           | 金相興 | 274                               |
| 金得龍 | 722, 809, 815      | 金錫寬 | 611, 619                          |
| 金萬植 | 536                | 金錫源 | 394, 587, 602                     |
| 金萬益 | 317, 382, 501, 704 | 金錫一 | 472                               |
| 金明燮 | 83                 | 金善燾 | 253                               |
| 金明益 | 281                | 金善鎮 | 488, 493, 844                     |
| 金明河 | 800                | 金 聖 | 244                               |
| 金明煥 | 363, 518           | 金成珪 | 407                               |
| 金武亨 | 175                | 金聲起 | 841                               |
| 金武顯 | 161                | 金成德 | 263                               |
| 金 默 | 195, 243           | 金聖培 | 814                               |
| 金白泳 | 378, 728           | 金成彬 | 195, 211, 235                     |

- |     |   |
|-----|---|
| 金省三 | 711   |
| 金性洙 | 52, 183, 641  |
| 金成龍 | 517, 822  |
| 金聖恩 | 829, 837  |
| 金世敦 | 308   |
| 金壽童 | 685   |
| 金水山 | 468   |
| 金洙重 | 211   |
| 金壽哲 | 209   |
| 金 淳 | 519, 524  |
| 金淳久 | 558   |
| 金淳基 | 194, 203  |
| 金舜收 | 509, 513  |
| 金 信 | 822, 823  |
| 金若水 | 163, 644  |
| 金良煜 | 806   |
| 金陽春 | 392   |
| 金德淳 | 848   |
| 金 烈 | 180   |
| 金永吉 | 297   |
| 金元吉 | 467, 476  |
| 金永魯 | 209   |
| 金永錄 | 733   |
| 金永錫 | 440, 473  |
| 金永先 | 406, 458  |
| 金永哲 | 371, 594, 793, 809                                    |
| 金永煥 | 78, 822, 828  |
| 金玉卿 | 484, 795  |
| 金容寬 | 835   |
| 金龍國 | 830, 833  |
| 金用茂 | 620   |
| 金用琳 | 517, 527, 549   |
| 金龍培 | 276, 279, 232, 304                                    |
| 金容培 | 195, 208, 219, 303                                    |
| 金用雨 | 594   |
| 金龍周 | 604, 835  |
| 金容柱 | 517, 551  |
| 金容燦 | 255   |
| 金旭篆 | 296   |
| 金 雄 | 172, 192, 501, 704, 702                               |
| 金元基 | 532   |
| 金有熙 | 473, 492  |
| 金元鳳 | 70  |
| 金潤根 | 829   |
| 金應來 | 274   |
| 金應勇 | 434, 529  |
| 金益烈 | 112, 367, 419, 433, 456, 683, 683, 749                |
| 金益泰 | 826   |
| 金仁京 | 216   |
| 金仁杰 | 732   |
| 金仁植 | 723, 729  |
| 金仁泰 | 676   |
| 金 一 | 175   |
| 金一錄 | 290, 666, 686   |
| 金日成 | 69, 553, 634, 686                                     |
| 金一煥 | 595, 627  |
| 金長根 | 273, 279  |
| 金長興 | 610, 616  |
| 金載圭 | 704   |
| 金任命 | 392, 428, 438   |
| 金仁植 | 555, 557  |
| 金載珠 | 829, 836  |
| 金在原 | 698   |
| 金點坤 | 392, 695, 704, 754                                    |
| 金慎圭 | 275   |
| 金貞武 | 510   |
| 金貞烈 | 76, 551, 600, 801, 823                                |
| 金珽雲 | 365, 389, 684   |
| 金貞雲 | 685   |
| 金鍾甲 | 355, 522, 591, 711, 722                               |
| 金琮寬 | 527   |
| 金宗崙 | 461, 468  |
| 金鍾洙 | 273, 282, 289, 291, 304                               |
| 金琮舜 | 516   |
| 金鍾植 | 829, 834  |
| 金宗植 | 778, 782  |
| 金鍾五 | 113, 192, 244, 270, 256, 291, 355, 501, 665, 708, 711 |
| 金宗元 | 113, 700  |
| 金鍾泌 | 510, 575, 600   |
| 金鍾勳 | 115   |
| 金潤鳴 | 517   |
| 金潤文 | 844   |

- |     |                     |     |                                  |
|-----|---------------------|-----|----------------------------------|
| 金柱亨 | 255, 264, [311      | 金賈洙 | 495, 594, 608                    |
| 金準  | 212                 | 金玄煥 | 244                              |
| 金俊淵 | 51                  | 金炯來 | 830                              |
| 金重贊 | 542                 | 金亨山 | 733                              |
| 金智會 | 831                 | 金澄載 | 527                              |
| 金振權 | 457, 744, 762       | 金 豪 | 453                              |
| 金辰泰 | 835                 | 金鎔京 | 472                              |
| 金鎮炯 | 623                 | 金虎弼 | 850                              |
| 金振障 | 392, 749, 762       | 金弘傑 | 702                              |
| 金 策 | 70                  | 金弘圭 | 383                              |
| 金千日 | 232                 | 金弘壹 | 33, 449, 551, 587, 598, 602, 711 |
| 金春培 | 778                 |     | 722, 734, 757                    |
| 金忠九 | 486, 792            | 金維穆 | 316, 361, 500, 535, 720          |
| 金忠男 | 771, 786            | 金黃恩 | 425                              |
| 金昌圭 | 805                 | 金厚進 | 392                              |
| 金昌培 | 511, 661            | 金 勳 | 611                              |
| 金昌成 | 255                 | 金福益 | 733                              |
| 金 煥 | 180                 | 金熙童 | 716                              |
| 金燦福 | 461                 | 金熙頤 | 528, 533                         |
| 金煥柱 | 283, 286            | 金熙善 | 834                              |
| 金燦鎬 | 191, 215            | 金熙運 | 748                              |
| 金昌德 | 192, 517, 527       | 金熙濟 | 472                              |
| 金昌鳳 | 317, 501            | 金熙俊 | 317, 384, 501, 704               |
| 金昌龍 | 702                 | 金熙濬 | 468, 484, 607                    |
| 金昌學 | 778, 781            | 金禧泰 | 459, 472, 791                    |
| 金 徹 | 243                 |     |                                  |
| 金喆洙 | 474                 |     | (L)                              |
| 金村成 | 677, 740            |     |                                  |
| 金泰善 | 617, 850            | 羅公成 | 462, 477                         |
| 金泰元 | 468                 | 羅秉緒 | 729, 732                         |
| 金品湖 | 716                 | 羅昌俊 | 818, 819                         |
| 金豐益 | 316, 320, [358, 370 | 羅熙弼 | 316, 377, 378, 500, 514, 704     |
| 金學斗 | 268                 | 南圭頤 | 542                              |
| 金鶴石 | 527                 | 南白峯 | 253, 254, 264                    |
| 金漢德 | 244, 264, 299, 311  | 南相徽 | 782                              |
| 金漢榮 | 235                 | 南 口 | 180                              |
| 金漢柱 | 500, 521, 550, 719  | 盧敬億 | 459, 461                         |
| 金海善 | 748                 | 盧明鏡 | 696, 795                         |
| 金 憲 | 356, 379, 503       | 盧炳烈 | 379                              |
| 金玟經 | 389                 | 盧龍鎬 | 621                              |
| 金顯基 | 392                 | 盧鎔煥 | 163                              |
| 金顯穆 | 366                 |     |                                  |



盧養淳 468  
 盧載鉉 398, 422  
 盧鍾海 842

## (口)

馬相喆 171, 191, 711  
 馬雄豪 243  
 孟寶永 194, 212, 219, 226, 230, 231  
 孟仁吉 206  
 明濟世 68  
 文守元 697  
 文容彩 113, 316, 378, 385, 500, 503, 508,  
 549, 628, 703, 738, 739, 746, 750  
 文鍾燮 518  
 文章煜 244  
 文正植 244, 255, 258, 262, 269, 311, 314,  
 517, 525  
 文鍾濟 844  
 閔機植 429  
 閔丙權 244, 246, 250, 263, 267, 293, 294,  
 298, 299, 300, 304, 311, 751  
 閔復基 617  
 閔鼎鎬 608  
 閔泳玖 782  
 閔泳洛 815  
 閔昌植 428  
 閔賈植 722, 783

## (日)

朴乾源 809  
 朴敬哲 491  
 朴寬榮 414  
 朴堯璇 293, 294  
 朴圭頌 416  
 朴根昌 736  
 朴今川 356, 536  
 朴基丙 113, 430, 500, 504, 516, 519, 527,  
 534, 540, 703, 718, 721  
 朴基鈔 523, 540

朴基成 112, 316, 356, 369, 372, 500, 508  
 590, 703, 755  
 朴吉龍 236, 752  
 朴權杓 316  
 朴魯圭 244, 252, 253, 254, 269, 271  
 朴道環 665, 682  
 朴東甲 521, 524  
 朴東烈 830  
 朴命緒 688  
 朴武烈 660, 665, 703, 713, 717, 752  
 朴文圭 70  
 朴培燮 252, 258  
 朴範集 76, 801, 808, 812, 817, 820  
 朴炳權 517, 525, 550, 558, 698  
 朴炳淳 714  
 朴炳浩 251, 252  
 朴瑞植 191, 195, 209, 224, 234  
 朴晟根 377  
 朴成模 614  
 朴成哲 244  
 朴錫權 194, 200, 206  
 朴淑清 527  
 朴勝玉 482  
 朴勝熙 317, 318, 501, 704, 729  
 朴雪峰 650  
 朴英秀 685  
 朴容德 244, 248, 288  
 朴容實 665  
 朴龍鶴 205, 218  
 朴元根 490, 761  
 朴元錫 76, 802  
 朴元俊 782, 783  
 朴應奎 381, 501, 529, 530  
 朴二鍾 295  
 朴翊均 665, 740, 741  
 朴一禹 70, 175  
 朴林恒 199, 242, 605, 607  
 朴正瑞 381, 501, 529, 740  
 朴禎植 729  
 朴正采 244  
 朴廷鎬 459, 461, 466, 482, 791, 793  
 朴正熙 81, 115, 588, 600

1000 附 錄

朴鍾漢 479  
 朴柱根 298, 308, 311  
 朴周用 485, 486, 490, 492  
 朴準秀 244, 311  
 朴俊熙 459, 461  
 朴蒼岩 316, 700  
 朴昌錄 517, 526, 550  
 朴昌樹 295  
 朴昌濟 771  
 朴天圭 812  
 朴哲用 358, 703, 723, 732, 733  
 朴致玉 191, 194, 205, 206, 218, 232, 234  
 朴泰云 519, 660, 676, 703, 717, 735  
 朴泰興 532  
 朴憲永 51, 60, 64, 70, 175, 189  
 朴亨洙 399, 400  
 朴熙東 83, 392, 451, 504, 516, 517, 822, 825, 828  
 朴熙賢 624  
 方鳳哲 652, 660, 670, 700  
 方應讀 652  
 方虎山 419, 499, 501, 660, 704  
 方龍乙 523  
 裴龍洙 560  
 裴雲龍 377, 703, 720, 725, 728, 743  
 裴恩希 69  
 裴益成 519  
 白景奭 487, 489  
 白南權 356  
 白南雲 70  
 白南垣 426, 434  
 白文 664  
 白樂濬 611, 651  
 白福成 542, 543  
 白象圭 613  
 白聖欽 818  
 白善燁 112, 171, 316, 320, 355, 366, 384, 392, 426, 429, 501, 504, 517, 711, 743, 754  
 白善鎮 501, 511  
 白性郁 183, 611, 620  
 白玉善 355

白雲基 791, 795, 797  
 白雲企 483  
 白雲龍 739  
 白源談 408, 409  
 白仁燁 113, 171, 395, 459, 467, 476, 483, 492, 495, 499, 791, 793, 799, 802  
 邊龍甲 669  
 邊應梧 506, 591  
 賓龜頭 485  
 賓哲頭 369

(人)

徐慶澤 517, 526  
 徐武甲 805  
 徐範錫 598  
 徐凱教 209, 215  
 徐富德 394  
 徐瀉純 821  
 徐二洙 369  
 徐廷南 835, 837  
 徐積巖 461  
 徐廷淳 600  
 徐載弼 53  
 徐鍾結 112, 284, 289, 504, 519, 540, 592, 716, 717, 723, 729  
 徐漢浩 811  
 石鍾燮 516  
 成炳壽 311  
 成福君 297  
 成鶴岳 527  
 成鉉模 226  
 孫官道 381, 382, 383, 529, 531, 704, 740, 747  
 孫炳一 782  
 孫聖兼 595  
 孫元一 595, 599, 770, 799, 780, 829  
 孫永乙 599, 660, 685, 700, 704, 749  
 孫晉泰 651  
 孫昌述 461  
 宋廣保 244, 277

- |     |   |     |   |
|-----|---|-----|---|
| 宋大厚 | 249, 310  | 安東勳 | 194, 202, 203, 223                                    |
| 宋錫吳 | 782   | 安玟一 | 316, 358, 364, 367, 684, 698                          |
| 宋望三 | 361, 376, 513   | 安白成 | 317, 318, 501, 704                                    |
| 宋堯讚 | 115, 241, 193, 501, 541, 601                                    | 安秉範 | 113, 550, 563   |
| 宋仁律 | 381, 501, 529, 740  | 安哲模 | 405, 407, 408, 455                                    |
| 宋仁相 | 623   | 安永作 | 685   |
| 宋鍾泰 | 515   | 安美浩 | 379   |
| 宋鎮禹 | 50, 52  | 安用鶴 | 294   |
| 宋虎林 | 459, 460, 484, 488, 490, 491, 493, 791, 792                     | 安口順 | 252, 257  |
| 宋虎輝 | 587, 602, 640   | 安在鴻 | 51, 640   |
| 辛大善 | 214   | 安政熙 | 519   |
| 申東雨 | 551, 595, 596, 601, 607   | 安濟徵 | 461, 470, 479   |
| 申冕浩 | 689   | 安昌寬 | 830, 831  |
| 申明求 | 602   | 安泰甲 | 519, 523, 558   |
| 申尙徹 | 113, 602, 603   | 安浩相 | 68, 634   |
| 申先均 | 459, 462  | 安熙奎 | 849   |
| 申性模 | 183, 483, 484, 510, 548, 551, 561, 586, 602, 611, 793, 809, 819 | 楊國鎮 | 113, 484, 551, 552, 588, 595, 602                     |
| 申彥國 | 500, 506, 509   | 梁 輔 | 209, 210, 220, 226                                    |
| 申榮徹 | 235   | 梁聖奉 | 619   |
| 申彥國 | 500   | 梁又正 | 603, 605  |
| 申元植 | 591   | 梁遠燮 | 308   |
| 申攸決 | 83  | 梁正秀 | 113   |
| 申翼熙 | 51, 68, 76, 612, 613  | 梁宗益 | 517, 691, 694   |
| 申泰範 | 798   | 梁仲鎬 | 250, 263  |
| 申泰元 | 488   | 梁海卿 | 771   |
| 申鉉祚 | 423, 436, 446   | 嚴龍昇 | 600   |
| 申鉉俊 | 829, 830, 834, 835, 837   | 嚴在完 | 541, 716, 720, 728                                    |
| 申鉉洪 | 392, 398, 411   | 嚴鴻燮 | 500, 501, 504, 506, 534, 538, 556, 557, 558, 560, 592 |
| 申興雨 | 602, 619  | 呂連亨 | 50, 51  |
| 沈相國 | 700   | 廉愷生 | 483, 791  |
| 沈怡燮 | 478   | 廉泰福 | 833   |
| 沈 鎰 | 277, 309  | 吳光善 | 113   |
| 沈彥作 | 559, 661  | 吳光鮮 | 563   |
|     |   | 吳秉珍 | 477, 478, 487   |
|     |   | 吳成煥 | 478   |
|     |   | 吳世昌 | 53, 614   |
|     |   | 吳益慶 | 483, 484, 459, 460, 466, 468, 479, 480, 791           |
|     |   | 吳元普 | 795, 797  |
|     |   | 吳占百 | 83  |
|     |   | 吳定錫 | 212   |
- (○)
- |     |                                       |
|-----|---------------------------------------|
| 安光燮 | 500, 504, 517, 540, 548, 558, 60, 691 |
| 安光榮 | 468                                   |
| 安東燁 | 466                                   |

## 1002 附 錄

- |     |  |
|-----|--|
| 吳 進 | 560  |
| 吳振宇 | 191, 193, 207  |
| 吳泰泳 | 527, 692   |
| 吳孝漢 | 194, 215, 223  |
| 禹教鵬 | 195, 208, 210, 211, 234, 235   |
| 禹炳玉 | 660, 679   |
| 禹濟善 | 410  |
| 禹 鉉 | 409  |
| 元根浩 | 268  |
| 元世勳 | 613  |
| 元容德 | 715  |
| 元治男 | 365, 698   |
| 元泰燮 | 559, 661   |
| 韋辰綠 | 608  |
| 柳京洙 | 317, 318, 501, 704, 759  |
| 柳東說 | 586, 587, 801  |
| 俞象在 | 720, 729   |
| 劉升烈 | 113, 386, 394, 357, 563, 618, 700  |
| 劉永局 | 257  |
| 俞義禧 | 316, 371, 356, 500, 501, 508, 512, 530, 533, 703   |
| 劉載成 | 392, 396, 399, 400, 402, 403, 420  |
| 劉載興 | 113, 171, 244, 255, 300, 316, 355, 359, 365, 375, 385, 500, 534, 550, 558, 703, 725, 752 |
| 俞宗植 | 790  |
| 劉 俊 | 814  |
| 柳重秀 | 434  |
| 俞鎮午 | 68   |
| 柳昌燾 | 483, 490, 491  |
| 柳致文 | 479  |
| 柳海巨 | 791, 794   |
| 俞海禧 | 380, 392, 448, 433, 739, 750   |
| 柳桓博 | 316, 382, 388, 501, 502, 529, 532, 703   |
| 劉興守 | 112, 398, 558, 664, 713, 737   |
| 柳興植 | 542  |
| 陸根洙 | 199, 212, 240  |
| 尹基烈 | 452  |
| 尹基周 | 474  |
| 尹明運 | 840, 842   |
| 尹錫龜 | 68   |
| 尹城淳 | 620  |
| 尹錫庸 | 244  |
| 尹永模 | 355, 522   |
| 尹永善 | 611, 627   |
| 尹龍文 | 532  |
| 尹龍道 | 841  |
| 尹應基 | 784, 785   |
| 尹應烈 | 806  |
| 尹在淵 | 379  |
| 尹鍾漢 | 473, 489   |
| 尹千奉 | 392, 396, 422, 439, 452  |
| 尹春樹 | 113, 316, 318, 382, 385, 501, 502, 529, 532, 703, 718, 719, 724, 728                     |
| 尹致暎 | 183, 618   |
| 尹致旺 | 113  |
| 尹鐸重 | 367, 446, 456, 457   |
| 尹泰日 | 661  |
| 尹泰鉉 | 194, 195   |
| 尹泰皓 | 703, 739   |
| 李康和 | 806, 819   |
| 李康玄 | 850  |
| 李根哲 | 76, 801, 804, 822, 823, 824, 825, 827  |
| 李敬燾 | 703  |
| 李慶福 | 818  |
| 李鯨源 | 782, 786   |
| 李觀永 | 733  |
| 李光洙 | 652  |
| 李權武 | 189, 317, 501, 755, 759  |
| 李圭大 | 365  |
| 李奎三 | 316, 534   |
| 李奎鉉 | 195, 208, 211  |
| 李克魯 | 70   |
| 李今烈 | 277, 286, 289, 290, 219  |
| 李肯夏 | 428  |
| 李起鵬 | 617  |
| 李基壽 | 815  |
| 李基鎰 | 665  |
| 李基陝 | 821  |
| 李南求 | 191, 199, 212  |
| 李南浩 | 244, 302, 303, 304   |
| 李來興 | 274  |

- |     |  |
|-----|--|
| 李達編 | 661  |
| 李德九 | 835  |
| 李度憲 | 191  |
| 李東俊 | 261  |
| 李東晉 | 478  |
| 李東浩 | 478, 490, 491  |
| 李明求 | 473  |
| 李茂植 | 430  |
| 李武英 | 667  |
| 李茂重 | 392, 404, 413, 418, 455  |
| 李文源 | 163  |
| 李文率 | 492  |
| 李範輿 | 68, 183, 561, 563, 587, 604, 612   |
| 李炳杰 | 830  |
| 李炳基 | 688  |
| 李炳南 | 70   |
| 李秉衡 | 367  |
| 李炳嘉 | 829  |
| 李奉根 | 527  |
| 李恩吉 | 413  |
| 李鳳出 | 835, 837   |
| 李相根 | 112  |
| 李尙根 | 316, 318, 320, 356, 357, 372, 500,<br>502, 716, 738, 739                     |
| 李相聖 | 822, 823   |
| 李相煥 | 372  |
| 李商泓 | 557  |
| 李錫權 | 217  |
| 李錫泰 | 382  |
| 李瑄根 | 544, 608   |
| 李善道 | 443  |
| 李世英 | 806  |
| 李世鎬 | 355, 713, 715, 716   |
| 李世鐸 | 602  |
| 李秀峰 | 684  |
| 李秀燦 | 732  |
| 李順澤 | 68   |
| 李承晚 | 34, 51, 53, 54, 55, 56, 60, 68,<br>125, 167, 183, 572, 610, 639, 641,<br>891 |
| 李承燁 | 70, 189, 655   |
| 李承雨 | 381, 529, 531, 740   |
| 李承俊 | 671  |
| 李承勳 | 517  |
| 李治榮 | 53, 56, 68, 545, 602, 619  |
| 李信國 | 401  |
| 李英  | 51   |
| 李永根 | 600  |
| 李英茂 | 76, 801  |
| 李漢圭 | 386, 388, 547  |
| 李永根 | 600  |
| 李守鎮 | 607, 618   |
| 李鏞  | 70   |
| 李英鎬 | 317, 499, 501, 705, 741  |
| 李用求 | 213, 216   |
| 李龍文 | 385, 502, 507, 522, 550, 596   |
| 李龍錫 | 547  |
| 李用雨 | 588  |
| 李龍丞 | 799  |
| 李雨燮 | 833  |
| 李龍威 | 557  |
| 李愚益 | 611  |
| 李佑彭 | 208, 213, 214, 216   |
| 李雲山 | 244, 253, 261, 269   |
| 李雲鶴 | 283  |
| 李元柱 | 512  |
| 李元根 | 399, 401   |
| 李源長 | 528  |
| 李元炯 | 837  |
| 李允榮 | 68, 611  |
| 李元燁 | 381, 501, 529  |
| 李應俊 | 113, 357, 540, 550, 551, 558, 602<br>743                                     |
| 李應敬 | 225, 243   |
| 李義明 | 316, 364   |
| 李益秀 | 731  |
| 李仁  | 68   |
| 李寅奎 | 572  |
| 李仁煥 | 850  |
| 李一雨 | 834  |
| 李壯寬 | 536  |
| 李章鎬 | 308  |
| 李載龍 | 522  |
| 李載鉉 | 488, 532   |

## 1004 附 錄

- |     |   |     |  |
|-----|---|-----|--|
| 李貞道 | 316, 369, 503   | 李翰林 | 530, 703, 747, 749, 750, 753, 753<br>762                               |
| 李正一 | 113, 191, 192, 194, 214, 222, 230,<br>234, 236, 239, 242, 244, 246, 355,<br>573 | 李漢鍾 | 275  |
| 李存一 | 660, 691, 703   | 李海巖 | 493, 844   |
| 李鍾國 | 593, 819, 820   | 李賢達 | 735, 752, 755  |
| 李鍾根 | 399, 402, 403   | 李亨根 | 112, 193, 242, 316, 320, 374, 386<br>388, 538, 546, 583, 605, 711, 760 |
| 李鍾基 | 260   | 李燭錫 | 459, 578   |
| 李鍾斗 | 523   | 李吳濟 | 161, 193, 386  |
| 李鍾林 | 618   | 李弘根 | 473, 485, 487, 492   |
| 李鍾榮 | 602, 619  | 李洪植 | 733  |
| 李鍾允 | 362   | 李 濶 | 801  |
| 李鍾贊 | 112, 356, 573, 606, 665, 703, 711,<br>716, 723, 752, 760                        | 李 曉 | 559  |
| 李鍾徹 | 795   | 李 勳 | 244, 266   |
| 李鍾岳 | 355   | 李喜權 | 376, 500, 513, 519, 524, 593, 703                                      |
| 李鍾大 | 115   | 印聖瑛 | 244, 276   |
| 李鍾鎬 | 844   | 印聖勳 | 275  |
| 李舟河 | 638   | 印泰植 | 624  |
| 李柱興 | 257   | 林文虎 | 614  |
| 李俊模 | 214, 221  | 任百振 | 316, 502, 703, 739, 741, 761   |
| 李俊植 | 321, 356, 501, 503, 528, 529, 530,<br>533, 533, 573, 703, 743, 750, 754         | 林炳覆 | 611, 613   |
| 李俊鶴 | 380   | 林富澤 | 113, 238, 244, 246, 273, 282, 286<br>302, 313, 842                     |
| 李志雄 | 557, 558, 604   | 林善河 | 703, 707, 711, 712, 739, 737, 747                                      |
| 李昌求 | 517   | 任永信 | 68, 599  |
| 李昌權 | 392   | 林雲峯 | 800  |
| 李昌道 | 524   | 林元錫 | 448, 739   |
| 李昌津 | 191, 194, 212, 219  | 林益淳 | 239, 373, 503  |
| 李昌稷 | 538, 544, 545, 555, 715   | 任忠植 | 316, 320, 356, 358, 360, 364, 366<br>367, 660, 689, 753, 755           |
| 李岳均 | 627   | 林海民 | 392  |
| 李哲源 | 316, 609, 616, 703, 731, 732  | 林憲德 | 399  |
| 李哲洙 | 620   | 林勳根 | 494  |
| 李青松 | 171, 244, 256, 307, 355, 751, 759   | 任興淳 | 538, 544, 556  |
| 李青天 | 587, 602  |     |  |
| 李春植 | 207, 218  |     | (六)  |
| 李忠奎 | 363   |     |  |
| 李致寧 | 623   | 蔣世豐 | 370  |
| 李致業 | 527, 552, 582, 601  | 張嘉廷 | 556  |
| 李泰一 | 473, 474  | 張際根 | 595  |
| 李學九 | 245   | 張庚石 | 191, 195, 212, 221, 228, 231, 233                                      |
| 李夏榮 | 844   | 張君翼 | 781  |

- |     |  |     |   |
|-----|--|-----|---|
| 張箕國 | 850  | 全禹榮 | 482, 792  |
| 張箕相 | 850  | 全有亨 | 714   |
| 張基永 | 611, 612   | 全子烈 | 404, 405, 667                                   |
| 張德守 | 435  | 全湖人 | 841   |
| 張德昌 | 76, 801, 809, 811                                | 鄭長謨 | 794   |
| 張道英 | 113, 249, 455, 526, 545, 551, 568, 595           | 鄭成謨 | 619, 771  |
| 張東出 | 822, 823   | 鄭圭漢 | 461, 479, 481, 793                              |
| 張斗權 | 740  | 鄭黃澤 | 209   |
| 張勉  | 5998 653   | 鄭得萬 | 487, 492  |
| 張錫倫 | 563  | 丁來赫 | 551, 456  |
| 張錫澗 | 850  | 鄭麟澤 | 541, 702  |
| 張盛煥 | 83, 807, 822, 823, 826                           | 鄭萬基 | 113   |
| 張泳文 | 660, 675   | 鄭夢虎 | 240   |
| 張永鍾 | 720  | 鄭栢  | 51  |
| 張佑奉 | 194, 203   | 丁範鎮 | 411   |
| 張仁根 | 545  | 丁福熙 | 840, 841  |
| 張載滿 | 399  | 鄭相錄 | 252, 257  |
| 張鍾鎮 | 733  | 鄭世觀 | 605   |
| 張志良 | 802, 814   | 鄭世雄 | 399   |
| 張志霖 | 782, 786, 788, 789                               | 鄭淳基 | 206, 216  |
| 張哲夫 | 503, 665, 703, 713, 737, 740, 741                | 鄭昇和 | 519, 524  |
| 張春權 | 316, 358, 364, 366, 367, 390, 456, 457, 660, 683 | 鄭永三 | 273   |
| 張治殷 | 392, 398, 432                                    | 丁永鎮 | 822, 823  |
| 張澤相 | 68, 183, 613                                     | 鄭永洪 | 392, 397, 428, 439                              |
| 張虎崗 | 592  | 鄭永煥 | 812, 814, 823                                   |
| 張好珍 | 113  | 鄭五敬 | 263, 279, 290, 306, 311                         |
| 錢鎮漢 | 68   | 鄭用良 | 821   |
| 田東植 | 295  | 鄭元錫 | 493, 794  |
| 田鳳熙 | 806  | 鄭元河 | 191, 212, 213, 215, 222, 224                    |
| 田舜基 | 316  | 鄭寅普 | 69, 651   |
| 田鎮洙 | 384  | 丁一權 | 34, 487, 491, 598, 600, 605, 607, 618, 745, 747 |
| 田澤熙 | 636  | 鄭一亨 | 593   |
| 全奎弘 | 616  | 鄭重鐵 | 835   |
| 全勉植 | 664  | 鄭準澤 | 70  |
| 全富一 | 237  | 鄭震  | 199, 213  |
| 全成珽 | 476, 478   | 趙建錫 | 413, 414  |
| 全盛鎬 | 392, 393, 404, 411, 412, 413, 430, 440, 661, 662 | 趙建鎬 | 846   |
| 全承鐵 | 747  | 趙慶鶴 | 474, 487  |
| 全宇  | 244, 256, 300, 502                               | 趙慶憲 | 191   |
|     |  | 曹圭英 | 191, 194, 195, 211                              |
|     |  | 趙基伯 | 413, 419, 418, 419                              |

## 1006 附 錄

- |     |  |     |   |
|-----|--|-----|---|
| 曹南岳 | 373, 526   | 蔡榮植 | 850   |
| 趙達珍 | 268  | 千炳圭 | 623   |
| 趙德守 | 740, 747   | 崔甲中 | 199, 200, 582   |
| 趙敦鐵 | 740  | 崔慶祿 | 112, 392, 393, 397, 439, 451, 456, 659, 704                     |
| 曹晚植 | 49, 48, 51, 178, 398                             | 崔慶萬 | 113   |
| 趙明錫 | 819  | 崔光  | 318, 392, 419, 499, 704, 705, 759                               |
| 趙炳玉 | 53, 183, 617, 641, 650, 651                      | 崔奎東 | 651   |
| 曹奉岩 | 68, 613  | 崔圭夏 | 627   |
| 曹成鉉 | 482  | 崔圭鉉 | 633   |
| 趙素昂 | 620, 644   | 崔圭鉉 | 732   |
| 趙岩  | 316, 358, 380, 381, 501, 503, 528, 529, 530, 531 | 崔根和 | 194, 205, 214, 216  |
| 趙雲鶴 | 369  | 崔起德 | 495   |
| 趙原英 | 194, 200, 215, 216, 221, 223, 224, 229           | 崔大明 | 420, 462, 456, 762  |
| 趙仁福 | 835  | 崔德彬 | 525   |
| 趙在美 | 516  | 崔德鎬 | 297   |
| 趙在俊 | 527  | 崔同根 | 720   |
| 曹精鍊 | 255, 259   | 崔麟  | 262, 614  |
| 趙澈權 | 401  | 崔冕湖 | 191, 203  |
| 曹漢春 | 667, 701   | 崔文植 | 483   |
| 曹赫煥 | 303  | 崔民燾 | 526   |
| 趙興萬 | 484, 490   | 崔敬燮 | 534   |
| 曹在千 | 618  | 崔炳默 | 244, 299  |
| 朱碩均 | 627  | 崔炳淳 | 392, 429, 431, 440, 453, 456, 504, 517, 720, 725                |
| 朱汝俊 | 394, 413   | 崔秉用 | 850   |
| 朱寧河 | 70   | 崔福洙 | 660, 682, 700   |
| 朱崑奎 | 619  | 崔錫  | 460   |
| 朱崑圭 | 795  | 崔錫洛 | 244, 294, 299   |
| 池世康 | 459, 462   | 崔性嶽 | 616   |
| 池青天 | 68, 613  | 崔性章 | 616   |
| 陳斗台 | 836  | 崔秀昌 | 703, 746, 750, 753, 757, 791, 762                               |
| 陳龍國 | 506, 591   | 崔淳周 | 611, 623  |
|     |  | 崔承烈 | 355   |
|     |  | 崔泳龜 | 194   |
|     |  | 崔英圭 | 381, 529, 531   |
|     |  | 崔永樂 | 716   |
|     |  | 崔泳洙 | 115   |
|     |  | 崔永華 | 669, 741  |
|     |  | 崔榮喜 | 113, 392, 442, 451, 455, 504, 516, 517, 660, 718, 721, 752, 753 |
|     |  | 崔完榮 | 850   |

## (六)

- |     |   |
|-----|---|
| 車甲俊 | 316, 359, 388, 500, 549, 585, 703   |
| 車光轉 | 369   |
| 蔡秉德 | 21, 356, 385, 484, 499, 502, 537, 559, 595, 600, 613, 640, 711, 745, 760, 892 |
| 蔡洙龍 | 253, 254, 271   |



崔鏞健 70, 175, 262  
 崔龍男 771, 780, 794, 796  
 崔用德 678, 801, 809, 811, 813, 814, 815,  
 816, 817  
 崔應植 795  
 崔益洙 273  
 崔寅奎 652  
 崔仁德 317, 318, 384, 501, 704, 729  
 崔載明 381, 529, 531  
 崔正得 844  
 崔鍾元 812  
 崔俊明 482  
 崔鎮植 370  
 崔昌植 537, 538, 543, 544, 545, 547, 555,  
 558, 559, 560  
 崔昌彥 357, 369, 370, 500, 502, 506, 512,  
 530  
 崔昌燁 522  
 崔春三 532  
 崔泰勳 471  
 崔獻吉 620  
 崔賢 171, 459, 460, 466  
 崔輝 83  
 崔熙大 265  
 崔熙泰 253  
 秋字爰 468

## (ㄱ)

河甲請 704, 738  
 河范壽 671  
 河炳來 191, 194, 205, 208, 215, 222, 223,  
 230  
 河相道 275, 276, 283, 289, 302, 303  
 河相卓 194, 200, 203  
 韓根浩 452  
 韓景職 650  
 韓金錫 528  
 韓普錫 413, 416, 418, 419  
 韓瑞漢 487, 496  
 韓錫鎮 697  
 韓贊華 392, 397, 404, 407, 412, 454, 660,

673, 685, 699  
 韓信 365, 366, 367, 390, 683  
 韓王龍 606  
 韓端顯 814, 817  
 韓麟聖 402, 403  
 韓口來 171, 392, 459, 460, 466, 660  
 韓禮澤 835, 837  
 韓正錫 532  
 韓正一 295  
 韓泰源 316, 318, 361, 362, 363, 376, 377,  
 387, 500, 502, 509, 513  
 韓泰勳 518  
 韓孝俊 536  
 韓興 461, 468  
 許德和 782  
 許成澤 70  
 許政 618  
 許貞淑 70, 175  
 許弼殷 715, 716  
 玄啓龍 372, 508, 533  
 玄相允 651  
 洪明集 536  
 洪命焄 70  
 洪炳熙 850  
 洪淳錫 831  
 洪承範 749  
 洪允範 811, 813, 816, 817  
 洪殷植 844  
 洪日陞 835  
 洪載希 415, 417  
 洪泉 609  
 黃圭冕 609, 616  
 黃基相 195  
 黃麟治 213, 216  
 黃明 704  
 黃三柱 761  
 黃石 392  
 黃頌奎 739  
 黃泳 830  
 黃龍德 538, 555  
 黃元會 538, 543, 544, 545, 555, 556  
 黃義岳 311

## 地名索引

(一)

- |     |  |
|-----|--|
| 佳金里 | 668  |
| 佳納里 | 367  |
| 嘉山里 | 842  |
| 萬養里 | 25   |
| 加平  | 20, 24, 275, 291, 570, 582, 592                  |
| 間島  | 172  |
| 杆城  | 180  |
| 甲山  | 772  |
| 江口  | 574  |
| 江陵  | 113, 177, 193, 243, 244, 711, 772, 799, 841, 876 |
| 康陵  | 411  |
| 康翎  | 583, 791   |
| 康翎里 | 583  |
| 江華  | 811  |
| 江華島 | 412, 425, 696, 795                               |
| 開城  | 16, 52, 408, 571, 805                            |
| 開運里 | 302  |
| 開花山 | 454, 679   |
| 巨濟島 | 901  |
| 鏡城  | 172  |
| 京安川 | 755  |
| 慶州  | 178  |
| 鏡浦臺 | 234  |
| 慶興  | 45   |
| 鷄鳴山 | 245  |
| 桂芳山 | 196, 208, 210                                    |
| 桂陽山 | 676, 686   |
| 高浪浦 | 28, 398, 400, 403, 575, 847                      |
| 古幕里 | 673  |
| 古色里 | 362  |
| 高岩里 | 362  |
| 高陽  | 366, 377, 384, 451                               |
| 高尺  | 697  |
| 高村里 | 817  |
| 高嶺山 | 363  |
| 古吞里 | 273  |
| 公州  | 607, 631   |
| 果川  | 735, 743, 750, 761                               |
| 冠堡里 | 161, 245, 251, 711, 735, 753                     |
| 光陵  | 384, 761   |
| 廣沙里 | 363  |
| 光山  | 53   |
| 廣岩里 | 470  |
| 廣院里 | 197, 217, 244                                    |
| 廣壯洞 | 533, 705   |
| 廣積面 | 367  |
| 光州  | 40, 52, 113, 357, 565, 595                       |
| 廣州  | 53, 178  |
| 廣津橋 | 705, 761   |
| 廣瀨面 | 367  |
| 吞洞島 | 419  |
| 橋峴里 | 377, 506   |
| 九陵  | 383  |
| 九龍浦 | 770  |
| 九龍嶺 | 206  |
| 九鳳山 | 287  |
| 邱山里 | 240  |
| 九岩  | 416  |
| 邱井洞 | 229  |
| 舊把撥 | 367, 379, 541                                    |
| 九化里 | 181, 577   |
| 國望峰 | 245  |
| 國師峰 | 245, 288, 321, 382, 473                          |
| 群山  | 34, 491, 574, 770, 780, 809, 811                 |
| 軍威  | 178  |
| 軍浦場 | 743, 741, 757, 764                               |
| 貴屯里 | 192  |
| 權花洞 | 282, 287   |
| 錦江  | 20, 760, 763                                     |
| 金剛山 | 704  |
| 金谷里 | 434, 711, 737, 743, 747, 759                     |
| 金光里 | 229  |

金屏山 288, 291  
 錦山 282, 310  
 金梧里 25, 387, 583, 589  
 金村 440  
 金坡里 421, 436, 848  
 金化 180, 583, 665  
 基洞 485  
 機山里 356  
 金良場 751, 755  
 吉音橋 516  
 金川 180  
 金浦 33, 89, 368, 661, 748, 796, 802, 909  
 金浦半島 384, 592, 596  
 金海 34

## (L)

羅南 172, 245, 246  
 羅州 53  
 羅津 45  
 洛東江 20, 36, 547, 647, 759, 761, 763  
 洛陽洞 369  
 蘭谷里 222  
 蘭芝島 453, 697, 718  
 南加佐洞 760  
 南大川 201, 211  
 南山 367, 542, 701  
 南產里 203  
 南原 246  
 南川 181, 317, 393  
 南泰嶺 739  
 南漢江 308, 704  
 南漢山城 820  
 內里 45, 356, 358, 381, 503  
 內村 315  
 內坪里 274  
 蘆洞 226  
 鷲梁津 34, 620, 711, 718, 760, 761, 724,  
 728, 818, 825  
 老楸山 196  
 綠達山 462  
 碌磳里 451

綠楊洞 358, 361, 363  
 陵谷 452, 591

## (C)

丹陽 304, 843  
 潭陽 54  
 唐人里 723  
 大關嶺 195, 211, 230, 386, 842  
 大邱 19, 34, 35, 40, 75, 113, 240, 357  
 565, 570, 609, 605, 616, 700, 803  
 810, 825, 827  
 大窮山 195, 220  
 大德山 96, 401, 704  
 大方洞 549, 710, 719  
 大龍山 288  
 大院里 394, 404, 407  
 大田 19, 40, 112, 317, 356, 386, 490  
 493, 535, 555, 616, 631, 701, 795  
 810, 819, 915, 918  
 大峙里 194, 200  
 大興里 413  
 德山 829  
 德安 699, 752  
 德裕山 13  
 德亭 26, 361, 363, 375, 629  
 德峴里 420, 697  
 道樂山 365, 446  
 道峰山 363, 379, 504, 509, 591  
 道直里 784, 785  
 道下里 365, 366  
 敦岩洞 365, 366, 511, 521  
 東巨里 367  
 東京 16, 744  
 同樂里 304  
 東臺山 196  
 東豆川 29, 316, 322, 388, 425, 502, 570,  
 583, 609, 629, 764, 850  
 銅雀洞 710, 724, 744, 761  
 斗落山 496  
 頭老峰 194, 207  
 杜梅里 401

## (口)

馬 路 409  
 馬德峰 219  
 馬 山 19, 178, 831  
 馬山里 281  
 麻 石 761  
 馬田里 436  
 馬智里 396  
 馬磁里 843  
 磨叉山 25, 319, 395, 360  
 馬泉里 414  
 麻 浦 34, 705, 631, 815, 542  
 馬 硯 461  
 萬世橋 25, 583, 529  
 滿月山 202, 214  
 忘憂里 516, 532  
 望雲山 209, 834  
 말곡거리 33, 311, 312, 315, 762, 763  
 梅谷里 739  
 梅 山 812  
 明倫洞 410  
 鷹峰山 161  
 明池里 194, 200, 201, 212  
 明智山 161  
 毛南里 304  
 牡丹峰 175  
 母津橋 311, 249  
 木 浦 34, 574, 770, 616, 797  
 孺瑟浦 73, 835  
 墨 湖 34, 196, 574, 770, 772, 799  
 文來洞 662, 700  
 汶 山 25, 27, 28, 35, 112, 178, 318, 321  
 392, 394, 380, 426, 429, 452, 511,  
 571, 582, 602, 695, 707, 711, 847  
 文珠山 664  
 文化洞 416  
 美 林 173  
 彌阿里 30, 32, 507, 511, 516, 534, 537,  
 539, 549, 550, 558, 607, 611, 644,  
 701, 705, 714, 719, 761, 762, 810,

## (日)

博月里 231  
 盤壓里 439  
 鉢山里 273, 275  
 發王山 196  
 芳臺山 711  
 白頭山 594  
 白峰嶺 240  
 白石橋 371  
 白石川 32, 371, 374, 387, 502, 509, 590  
 白翎島 770  
 白雲臺 363  
 白雲山 832  
 白 川 413, 846  
 法院里 426  
 邊岩洞 365  
 屏岩里 304  
 普光里 235  
 寶巖山 290, 519  
 普賢山 161, 565  
 伏龍山 194  
 鳳舞里 416  
 鳳樓里 398, 432  
 奉城山 454, 695  
 臥岩里 360, 364, 375, 440  
 奉日川 28, 367, 392, 431, 452, 539, 591  
 661, 711  
 鳳儀山 274, 279, 284, 285  
 烽火山 516, 531, 540  
 釜 洞 234  
 釜 山 52, 113, 193, 369, 618, 629, 700  
 770, 797, 898, 916, 918  
 富岩洞 478  
 芙蓉山 273  
 富昌里 277  
 富 川 631  
 富 平 35, 355, 543, 549, 680, 700, 795  
 富坪里 381  
 釜 浦 487, 791, 799  
 北 倉 259

- |      |   |     |  |
|------|---|-----|--|
| 北 青  | 172   | 西 青 | 362  |
| 北 坪  | 196, 785  | 西 坡 | 356, 360, 379  |
| 北漢江  | 19, 297, 310, 311, 761  | 西好里 | 837  |
| 北漢山  | 504, 541, 704   | 石溪里 | 469  |
| 佛岩洞  | 516   | 石橋里 | 197, 213, 227  |
| 佛岩山  | 363, 383, 388, 532, 536   | 石屯里 | 246, 250   |
| 飛狐山  | 416   | 石屏山 | 196  |
|      |   | 碩上里 | 288, 290, 250, 842   |
|      | (人)   | 石 浦 | 27, 401, 419, 415, 455   |
| 沙 中  | 463, 484, 792   | 船橋里 | 804  |
| 司農洞  | 277, 280  | 仙岩里 | 363  |
| 沙里院  | 45, 181, 568  | 雪遊山 | 675  |
| 蛇尾川  | 399   | 城山里 | 234, 259, 260, 272, 290  |
| 沙 川  | 197, 199, 212   | 城山浦 | 835  |
| 山 清  | 833   | 城 津 | 772  |
| 三角山  | 452, 743, 762   | 素 砂 | 697, 700, 849  |
| 三角地  | 542   | 松嶽山 | 393, 404   |
| 三幕里  | 755   | 昭陽江 | 19, 250, 262, 279, 280, 286, 299                                     |
| 三松里  | 366, 367  | 逍遙山 | 25, 360, 362, 388  |
| 三養洞  | 526   | 松隅里 | 26, 375, 381, 389, 584   |
| 三 陟  | 113, 193, 196, 198, 215, 243, 244,<br>386, 574, 770, 771, 772, 783, 785,<br>786 | 松汀里 | 516  |
| 三千浦  | 834   | 松峴里 | 277  |
| 掃塘嶺  | 209, 240  | 松 嶽 | 363, 377, 760  |
| 上金吾  | 370   | 水落山 | 284, 363, 374, 507, 519, 592   |
| 上大里  | 834   | 水利峯 | 273, 275   |
| 上道洞  | 725   | 水 色 | 27, 80, 112, 427, 453, 802   |
| 上馬場里 | 284   | 水 原 | 19, 34, 246, 366, 616, 630, 701<br>708, 809, 818, 821, 912, 917      |
| 上水內里 | 252   | 水陰里 | 507, 514, 541  |
| 上月谷洞 | 540   | 市邊里 | 405  |
| 尙 川  | 178   | 柳岩里 | 664  |
| 上牌洞  | 363   | 始 興 | 32, 34, 356, 451, 606, 699, 705<br>710, 723, 743, 764, 812, 819, 825 |
| 西 江  | 705, 707  | 新 葛 | 706, 752, 754  |
| 西鏡浦  | 835   | 新 南 | 161, 246, 252  |
| 西 麓  | 273   | 新 林 | 305  |
| 西林里  | 194, 197, 200, 205, 217   | 新 村 | 373, 705, 756  |
| 西水庫  | 525, 549, 551, 632, 705, 724, 743,<br>747, 764, 820                             | 新 峯 | 804  |
| 西山里  | 297   | 新沙里 | 705, 710, 712, 741   |
| 西上里  | 247   | 新井洞 | 454  |
|      |   | 新安洞 | 834  |
|      |   | 新義州 | 45, 181, 393, 615, 800   |

新 浦 173  
新興洞 363

## (○)

牙 山 796  
安國洞 516, 549, 552, 553, 769  
安 德 836  
安 東 19, 178, 194, 355, 356  
安 城 36, 300, 305, 708, 755, 759  
安 養 32, 34, 682, 706, 753, 754, 756,  
760, 764, 825, 828  
安養川 697, 698, 711, 723, 735  
安仁里 200, 208, 215  
安 州 905  
安興里 238  
鹿峴里 381  
楊 口 20, 248, 280  
陽 東 849  
陽明洞 487  
梁文里 319, 321  
兩水里 704, 751  
襄 陽 180  
陽支山 699  
楊通里 246  
楊 平 306, 308  
楊花橋 707, 710, 718, 760  
於論里 250, 252, 262, 570, 583  
彥別里 208, 212, 229  
嚴水洞 253  
汝矣島 35, 308, 574, 705, 723, 727, 260,  
263, 803, 805, 809, 810, 815, 818,  
821, 823  
麗 水 13, 574, 770, 771, 797, 829  
驩 州 819, 820  
曠 峴 168, 796  
連谷川 212, 229, 243, 244  
連根山 486, 487, 492  
延 白 27, 395  
延 安 398, 415, 419, 502, 516, 571, 846  
蓮 川 19, 173, 317, 318, 320, 568  
延坪島 490, 771, 793

連 光 54  
連花洞 199, 201  
靈 浦 804  
永登浦 605, 711, 720, 749, 752, 698, 704  
708, 814, 819  
英 陽 194  
寧 越 214, 238, 386, 626, 708, 843  
嶺井里 396, 583  
榮 州 194  
永 川 178  
梧南里 470  
五臺山 13, 161, 196, 214, 560  
五百將軍 836  
五峰山 233, 363, 509  
島 山 35, 706, 744, 760, 919  
梧山里 367  
梧柳洞 661, 696, 705, 753, 797, 848  
玉 溪 196, 211, 582, 773, 784, 790, 799  
玉女峰 283  
玉 洞 460  
玉山浦 23, 250, 277, 284, 295, 309, 311  
玉仁洞 700  
溫 陽 113, 356, 570, 762  
外鉢山 684  
外野里 793  
甕 津 13, 27, 181, 484, 575, 607, 609  
771, 797, 839, 876  
龍角山 415  
龍南里 415  
龍東里 415  
龍馬峰 524  
龍媒島 395, 419  
龍門山 161  
龍 山 37, 355, 358, 429, 516, 552, 584  
666, 819, 820  
龍山谷 275, 443  
龍岩里 36, 360, 363, 384  
龍 仁 759  
龍井里 417  
龍湖島 487  
牛頭山 273, 295  
耑眠山 746, 750, 753

牛耳洞 30, 364, 502, 505  
 牛灘里 194, 205, 217, 238  
 雲頭嶺 197  
 雲山里 219  
 雲岩里 363, 365  
 雲川 317, 320  
 蔚山 782  
 蔚珍 115  
 雄基 45  
 遠美山 687  
 元山 45, 504, 317, 768, 804  
 元日田里 203  
 原州 19, 40, 113, 178, 245, 272, 300,  
 751  
 原昌 288, 291  
 月谷洞 516  
 月尾島 795  
 月精寺 197, 203  
 月浦 574  
 柳谷 834  
 儒城 604  
 楡亭里 318  
 楡津 768  
 楡川里 232  
 栗谷里 396  
 栗島 705  
 銀波山 246, 459, 485, 495  
 陰城 305  
 鷹峰 161, 195, 705  
 議政府 19, 40, 113, 283, 289, 359, 388,  
 504, 540, 629, 661, 700, 764, 809,  
 851  
 二東橋里 360  
 二山浦 452, 548, 695  
 梨水嶺 710  
 利川 23, 34, 301, 304, 751, 759  
 二村洞 705  
 仁邱里 201, 212  
 仁旺山 550, 760  
 麟蹄 24, 842  
 仁川 29, 49, 484, 491, 607, 634, 696,  
 721, 793, 882, 908

日月峰 404  
 日月山 161, 566  
 臨溪里 209, 219, 231, 243  
 臨院里 582, 771, 786  
 臨院津 22, 215, 582, 841  
 臨津江 19, 27, 320, 355, 384, 419, 538  
 543, 711, 847  
 笠岩里 364

## (大)

子男山 405, 411  
 柴洞 472  
 白隱里 253, 254, 259, 308, 310  
 自逸洞 369, 370, 372  
 柴下里 420, 456  
 鶴山 791, 792  
 棧橋里 199, 200  
 蠶室 705  
 漳陵山 678  
 長林 674  
 長湍 403, 419  
 長城 53  
 長水院 378  
 長岩洞 374  
 長在里 247, 274  
 長坡里 238, 420  
 長項 357  
 長峴里 231  
 長湖院 178  
 長興 54  
 赤木里 246, 275  
 積城 318, 321, 322, 395  
 積岩 322  
 赤田里 427  
 全谷 178, 318  
 全州 113, 357, 591, 617  
 貞陵 540  
 貞陵川 507, 514  
 正東津 24, 199, 239  
 旌善 212, 386  
 井邑 48

1014 附 錄

鼎足山 197, 205, 203, 217  
 定 州 800  
 堤 川 178, 221, 238, 242, 780  
 甌江里 664  
 祖 峰 196, 207  
 鍾岩洞 520  
 鍾懸山 321, 322  
 注文津 20, 194, 196, 198, 201, 221, 241,  
 243, 451, 770, 772, 786, 789, 799  
 酒飲峙里 312, 623  
 竹 邊 574, 783, 786  
 重 慶 56  
 中基洞 479  
 中浪橋 516  
 中 文 836  
 中一里 288  
 會 平 305  
 地境里 161  
 枝內里 274  
 池內洞 834  
 智異山 13, 514, 566, 604, 606, 831  
 芝岩里 273  
 紙杏里 361  
 直 洞 25, 363, 376  
 鎮南浦 317, 768  
 珍 島 770  
 鎮東里 192  
 眞木里 382  
 造恩山 407, 412  
 珍寓里 194, 195, 196, 211, 232, 238  
 晋 州 622, 830  
 鎮 川 305  
 鎮 海 35, 534, 624, 770, 780, 799, 829,  
 898

(六)

昌慶苑 550  
 昌信洞 511, 528  
 昌 寧 831  
 倉 洞 362, 363, 364, 366, 373, 387, 389,  
 503, 504, 505, 511, 517, 529, 533,

537, 590, 592, 594, 611, 644, 716  
 倉溝里 367, 442  
 泉谷里 209  
 天馬峰 215, 229  
 天寶山 321, 362, 363, 375, 388  
 天 安 352  
 泉田里 256, 273, 282, 780  
 天柱山 25, 319, 322  
 千戶里 461, 516, 705, 740, 743  
 青 丹 393, 404, 416, 854  
 清涼里 30, 308, 373, 519, 542, 754  
 青 松 194, 208, 215  
 清 州 52, 113, 245, 313, 356, 533, 565  
 631, 759  
 清 津 45, 768, 800  
 清 平 273, 302, 626  
 鐵甲嶺 194, 197  
 鐵山里 693  
 鐵 原 16, 19, 161, 173, 180, 317, 318,  
 320, 568  
 柵亭里 263, 315  
 哨城里 25, 318, 319, 321, 322  
 草田里 834  
 草田峙 202  
 楸 洞 319, 321  
 楸田里 273  
 祝石嶺 26, 27, 355, 359, 360, 362, 365,  
 371, 585  
 竹 川 181  
 春 鵝 194, 215, 234  
 春 川 16, 19, 20, 23, 25, 52, 113, 171,  
 177, 208, 244, 250, 256, 276, 279,  
 283, 291, 298, 307, 308, 309, 310,  
 311, 312, 700, 708, 751, 764, 839,  
 842  
 忠 州 25, 178, 238, 247, 300, 303, 356,  
 371, 708

(七)

炭 場 25, 319, 360



退溪院 35, 360, 379, 503, 511, 661, 701  
 泰 陵 384, 356, 363, 502, 504, 516, 530,  
 540, 549, 558, 802  
 太白山 13, 178, 180, 193, 196, 566, 783,  
 841  
 苔灘里 791, 792  
 土 城 45, 409  
 吐坪里 837  
 通 津 701, 717

## (立)

坡 州 396, 430, 629, 847  
 坡平山 28, 402, 456, 422, 583, 847  
 板 橋 197, 227, 241, 243, 708, 743, 446,  
 747, 749, 751, 762, 764  
 平 康 173, 180, 317, 320, 804  
 平 壤 40, 45, 46, 47, 317, 318, 588, 613,  
 800, 875  
 平 昌 301, 306, 386  
 平 澤 36, 178, 708, 722, 757, 759, 760,  
 763, 809, 919  
 浦雲里 413  
 抱 川 21, 25, 29, 283, 316, 317, 318,  
 320, 321, 356, 358, 359, 360, 362,  
 379, 388, 502, 570, 583, 585, 711,  
 764, 804, 850  
 浦 項 19, 34, 178, 190, 199, 300, 574,  
 770, 780, 781, 783, 785, 786, 788,  
 790  
 豐德川 111, 617, 740, 743, 752, 758, 759

## (舌)

河 東 833  
 下牌里 363  
 下月川里 197, 202  
 下榆川 230  
 下直洞 377  
 下珍富里 195, 210, 232  
 漢 江 29, 32, 33, 35, 38, 358, 366, 367,

452, 537, 587, 636, 705, 723, 758,  
 763, 818  
 漢江橋 537, 612, 632, 810, 814, 816, 817,  
 819, 820  
 寒溪里 256, 259, 314, 315  
 漢南洞 236, 662, 705, 707, 713, 743, 746,  
 747  
 漢冢山 13, 834  
 翰 林 835  
 漢灘江 19  
 咸 安 837  
 咸 平 53  
 陝 川 833  
 海龍山 321  
 海 州 45, 181, 308, 483, 599, 609, 905  
 幸 州 28, 367, 379, 451, 454, 547, 683  
 杏亭里 222, 365  
 吞湖里 197, 241  
 縣 里 253, 212  
 虎院里 318, 374  
 洪濟洞 234  
 弘濟洞 610  
 洪 川 24, 113, 178, 244, 251, 258, 285  
 290, 291, 298, 307, 315, 708, 751  
 花山里 418  
 花石洞 395, 426  
 和 順 52  
 華陽江 260, 272, 301, 303  
 華 川 20, 180, 187, 245, 248, 274, 275  
 280, 309, 363, 365  
 會 寧 173, 180, 181, 193, 245, 772  
 檜岩嶺 375  
 梅亭里 366  
 會賢洞 803, 851  
 橫溪里 234  
 橫 城 19, 302, 304, 312  
 後坪里 282  
 厚 浦 786  
 黑石洞 718, 724, 725  
 興 南 772  
 希望里 308



## 合同審議會議芳名錄

1977. 11. 1

部 署	職 責	階 級	姓 名	署 名
陸 軍	諮 問 委 員	前 參謀總長 陸軍大將	白 善 燁	백선열
海 軍	"	前 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장지수
空 軍	"	前 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斗 萬	김두만
慶熙大學校	"	教 授 文學博士	金 成 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學院長 文學博士	韓 洵 勳	한두근
合 參	作戰局次長	准 將	梁 昶 植	이종찬
陸 本	軍史研究室長	"	鄭 元 赫	정원혁
國 防 部	政 訓 課 長	書 記 官	玄 昌 基	현창기
海 本	編 制 處 長	大 領	禹 永 濟	우영제
空 本	"	"	金 相 泰	김상태
海 本	海 兵 上 陸 企 劃 擔 當	中 領	李 燦 圭	이찬규
國 防 部	情 報 補 佐 官 室	"	尹 正 植	윤정식

執筆陣

主 幹	陸軍大領	李 鍾 富
編纂委員		朴 景 錫
〃		金 源 寬
〃		甘 成 海
〃		李 昌 錄
〃		姜 聾 湖
〃		安 龍 鉉
〃		張 洪 泰
專門委員	陸軍中領	鄭 泰 民
〃	海軍中尉	高 永 喆
〃	空軍中尉	鄭 浩 永
資料擔當		全 周 錫
製 圖		安 英 五

韓國戰爭史 <第1卷(改訂版)>

---

1977年 12月 25日 印刷

1977年 12月 3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編纂

發 行 國 防 部

印 刷 西 爾 新 文 社

---

(不許無斷複製)